

2020년도 문화재위원회

## 제11차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20. 10. 29(목), 14:00 ~ 18:0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출석위원 : 김봉렬, 김정희, 김창준, 윤균(오심), 이경미,  
이정수, 이찬희, 임영애, 전봉희, 정명섭, 천득염  
(이상 11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 목 차

## 【심의사항】

1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이전 설치(2차)	공개
---	--------------------------	----

## 【검토사항】

2	강릉향교 명륜당, 동무·서무, 내삼문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공개
3	수원향교 대성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공개
4	안성향교 대성전, 풍화루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공개
5	산청 단성향교 명륜당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공개
6	밀양향교 대성전, 명륜당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공개
7	상주향교 대성전, 동무·서무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공개
8	경주향교 명륜당, 동무·서무, 내삼문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공개
9	예천 용궁향교 대성전, 명륜당, 세심루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공개
10	담양 창평향교 대성전, 명륜당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공개
11	순천향교 대성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공개
12	완주 고산향교 대성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공개
13	구미 금오서원 정학당, 상현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공개
14	안동 병산서원 만대루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공개
15	안동 도산서원 도산서당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공개
16	안동 도산서원 농운정사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공개
17	경주 성산서당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공개

18	영동 자풍서당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공개
19	옥천 이지당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2차)	공개
20	군위 대율리 대청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2차)	공개

## 【심의사항】

안건번호 건축 2020-11-001

### 1.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이전 설치(2차)

#### 가. 제안사항

전남 광주시 소재 국보 제103호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을 이전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를 이전 전시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국립광주박물관 내 전시되어 있는 문화재임.
- ※ ‘20년 문화재위원회 제10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20.10.15.) : 부결
  - 상징성 고려, 해체 이전 우려됨.(박물관 측 이전 타당성 및 대책 제시 필요)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 소재지 : 광주 북구 매곡동 산83-3 국립광주박물관
    - 지정일 : 1962. 12. 20.
  - (3) 신청내용
    - 위치 : 광주 북구 매곡동 산83-3 국립광주박물관
    - 내용 : 박물관 내 문화재 이전(1층 로비 → 2층 역사문화실)
- <보완사항>
- 석등 이전 설치의 필요성 및 훼손 방지 대책 등의 보완

<이전 필요성 및 대책>

- 현재 석등이 진열된 전시동 1층 로비를 포함한 상설전시실의 전면적 개편 공사(역사문화실 신설 등)로 인해 임시격납 필요
- 전시 연출효과 및 전시품 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석등을 역사문화실 내 통일신라 전시 영역 내 역사적 맥락 속에서 전시
- 향후 지진에 의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면진대 설치

<주요 작업내용 및 순서>

- 석등해체 → 3D스캔 → 수장고 임시격납 → 면진대 설치 → 석등 이전설치

라. 현지조사의견(2020.10.26. / 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쌍사자 석등이 위치한 박물관 홀은 앞뒤로 통로가 있고, 근래에 석등 옆으로 구조보강용 댐퍼가 설치되어 석등의 전시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 현재 박물관 리모델링 공사가 시행 중에 있어 석등의 안전을 위해 해체 후 수장고에 보관 후 석등의 전시에 적합한 신청위치로 이전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석등의 해체 이전 조립 시 석등의 안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관람환경을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면진구조는 전문가의 검토·자문을 받도록 함
  - 해체·조립 등 기술적인 부분은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자문 받아 추진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조건부가결 11명

## 【검토사항】

안건번호 건축 2020-11-002

## 2. 강릉향교 명륜당, 동무·서무, 내삼문 국가지정문화재(보물)

### 지정 검토

#### 가. 제안사항

강원 강릉시 소재 「강릉향교 명륜당, 동무·서무, 내삼문」에 대한 국가지정 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강원 강릉시 소재 「강릉향교 명륜당, 동무·서무, 내삼문」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강원도지사
- (2) 대상문화재 :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99호 「강릉향교」
  - 소재지 : 강원도 강릉시 명륜로 29 (교동 233)
  - 지정일 : 1985. 01. 17.
-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 명칭 : 강릉향교 명륜당, 동무·서무, 내삼문  
(江陵鄉校 明倫堂, 東廡·西廡, 內三門)
  - 소유자(관리자) : 강릉향교
  - 소재지 : 강원도 강릉시 명륜로 29 (교동 233)
  - 조성연대 :
    - 명륜당 : 조선시대(1413년 중건, 1623년 중수, 1644년 중창)

- 동무·서무 : 1413년 중건, 1613년 중창, 1623년 중창
- 내삼문 : 1486년 중수, 1862년 중건
- 수 량 : 4동
- 지정면적 : 662.8㎡(보호구역 4,961.2㎡)
- 양 식 :
  - 명륜당 : 정면11칸, 측면2칸, 초익공, 5량가, 홑처마, 맞배지붕
  - 동 무 : 정면5칸, 측면1칸, 초익공, 3량가, 홑처마, 맞배지붕
  - 서 무 : 정면5칸, 측면1칸, 초익공, 3량가, 홑처마, 맞배지붕
  - 내삼문 : 정면9칸, 측면1칸, 초익공, 3량가, 홑처마, 맞배지붕

라. 현지조사의견(2020.06.10.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대학교 현승욱)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대학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마. 지정조사보고서 : 붙임참조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명륜당과 동·서무 영역을 나누어 지정하되, 명칭은 “강릉향교 명륜당”, “강릉향교 동무·서무·전랑”으로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원안가결 1명, 조건부가결 9명, 부결 1명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0.06.10	대상문화재	강릉향교 명륜당, 동·서무, 내삼문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속		직위(직책)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강릉향교 명륜당, 동·서무, 내삼문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 년 10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1. 입지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1) 입지현황

강릉향교는 강릉시 명륜로 29 [교동 233번지] 에 자리하고 있다. 조선시대 지리지에 따르면 강릉향교는 관부(官府)에서 북쪽으로 3리 떨어진 지점이며, 화부산(花浮山, 해발 67.9m) 자락에 남향으로 터를 잡았다.

이 화부산 기슭은 강릉시내와 포남·송정의 넓은 들이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좌청룡 우백호의 산줄기가 감싸 강릉 일대에서 좋은 장소로 알려져 왔다. 화부산이란 이름은 옛날에 이 산에 꽃이 많이 피어 멀리서 보면 마치 꽃이 산 위에 떠있는 것처럼 보여서 붙었다고 전한다. 강릉향교는 앞뒤로 화부산 자락이 포근하게 둘러싸는 금계포란 형국에 남쪽으로 열려 남대천과 마주하고 있고 멀리로는 조선 역할을 하는 월대산(月帶山)이 마주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이후 주변이 시가지화되면서 조선시대와는 경관이 크게 달라졌다. 특히 강릉향교와 연결한 명륜고등학교로 인해 진입부 경관이 어수선한 편이어서 향교 진입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동서 방향으로 길게 놓인 명륜당 뒤로 동재와 서재가 남북 방향으로 자리를 잡고 그 북쪽에는 제향영역이 배치되어 있다. 내삼문을 겸한 행랑이 동서로 놓이고 그 안쪽에 남북 방향의 동·서무, 중앙에 대성전이 마련되어 있다. 서남쪽 외곽에 관리사를 비롯한 시설들이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앞쪽에 강학영역을 두고 뒤로 제향영역을 둔 전학후묘 배치이며, 현재 상황으로 보자면 명륜당 뒤로 동·서재를 둔 전당후재형 배치를 취하고 있으나 현 명륜당은 원래 남루였고, 개별 건물로 존재하던 명륜당은 멸실된 상태여서 17세기 중반까지는 전재후당 배치였던 변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 2) 역사문화환경

높은 산지가 분수령을 이루는 자연지리적 환경으로 인해 강릉은 서쪽으로 가는 교통망은 크게 발달하지 못하였으며, 대신에 영동지역의 중심에 위치하여 남북으로 교류가 더 빈번하였다. 강릉지역은 선사시대부터 영동의 중심지로서 경상북도 동해안과 광역생활권을 이룬 중심지로 기능하였다.

강릉은 고려시대에 조선말까지 동원경, 하서부, 명주도독부, 명주목, 강릉대호부 등으로 변화해왔다. 특히 1389년(공양왕 원년)에는 강원 영동지방의 행정적 군사적 중요성 때문에 강원 영동 거진의 의미로 강릉대도호부로 읍격을 정하였으며 조선 개국 후 군현제 개편 때에도 강릉대도호부의 읍격을 유지되었다. 간혹 그 사이에 현(縣)으로 몇 차례 강등되는 시기가 있었으나 곧 복구되었다. 1895년 지방 행정체계가 8도에서 23부체제로 개편되면서 강릉부에 관찰사를 두고 9군을 관장토록 했다가 이듬해에 13도체제로 개편되면서 21개 면을 관장하게 되었다. 1906년 일부 면이 이관되면서 오늘과 같

은 영역으로 고정되었다.

강릉의 중심지인 읍성은 시내를 관통하는 남대천에 면해 있다. 강릉읍성은 나말여초부터 객관의 방비를 위한 소규모 토성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고려중기 이후부터 발생한 변란으로 인해 그 규모가 점차 확대되었으며, 조선초기에 이르러 객사와 관아 그리고 기타 관아 시설물에 대한 방비를 목적으로 한 전형적인 읍성의 모습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다. 강릉 관아 건물들은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급속하게 자취를 감추었으나 최근 발굴조사를 거쳐 조선시대 강릉 관아 복원사업을 펼쳐 강릉대호부 관아를 조성하고 있다.

강릉향교는 근대에 들어서 교육기관의 산실이 되었다. 1909년 명륜당에 개교한 화산학교를 비롯하여 이후 양잠진습고, 수선강습소, 강릉공립농업학교(현 강릉중앙고등학교), 강릉공립상업학교(현 강릉제일고등학교), 강릉공립고등여학교(현 강릉여자고등학교), 옥천초등학교(현 옥천초등학교)가 향교를 기반으로 개교하여 현 위치로 이교하였다. 1949년에는 강릉향교 재산으로 명륜 중고등학교를 향교 구내에 설립하였다.

광복 이후 유림과 강릉향교의 위상은 타 지역과는 다른 행보를 통해 살필 수 있다.<sup>1)</sup> 1946년 유도회 창립대회 이후 개최된 중앙위원회에서는 4가지 사항을 결의하였다. 첫째, 유학 정신을 건학이념으로 하는 성균관대학을 설립할 것, 둘째 유도회 총본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성균관장 및 부관장을 겸임하고 성균관의 직제 개정은 관장단에 일임할 것, 셋째 전국 각 시·군에서 향교 재산을 접수해 유림의 자율적인 재단을 수립할 것, 넷째 동서 양무(兩廡)에 종사된 중국 유현(94위)의 위패를 매안하고 동국십팔현을 승봉종향(陞奉從享)하여 공자·사성·송조이현과 함께 대성전에 모실 것 등이었다.

네 가지 결의사항 가운데 앞의 두 건은 순조롭게 실행되었지만 셋째, 넷째 건은 순조롭지 않았다. 특히 네 번째 결의건은 1949년에 심산 김창숙이 전국 유도대회에서 동국십팔현의 승봉종향과 중국 유현의 위패를 매안하는 문제를 다시 결의하였다. 우리 문묘에 공문10철과 공자의 72제자, 한·당·송·원의 22현까지 봉안하는 것은 사대주의 표현이라 판단한 민족적 자주의식과 결부된 문제였지만 일부 지방에서는 반대가 있었다. 반대한 계열의 영향권에 있던 전주향교, 강릉향교 등에서는 이 결의를 따르지 않았고, 주도자인 김창숙을 성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시일이 경과하면서 전국 대다수의 향교에서 이를 실행하였다.

1949년 결의를 통해 오성위와 송조이현만 봉안하고, 그 외 중국 유현 108위를 매안하고 우리나라 18현을 대성전에 승봉종향하게 되었다. 또한 춘주석전을 폐하고 탄일인 음력 8월 27일에 기념 석전을 봉행하다가 3년 뒤에 1953년에 공문10철과 송조사현을 복위하고 석전도 봄과 가을 두 차례, 즉 음력 2월과 8월의 상정일로 환원하여 현재까지 봉행하고 있다.

1) 박재복, 「고려시대 향교건립의 추세와 김승인의 강릉향교 설립에 대한 고찰」, 『동양고전연구』79호, 180~181쪽을 요약.

현재 강릉향교는 대성전에는 공자를 위시하여 안자·증자·자사·맹자 4성과 공문 10철, 성조 6현의 위패를 모시고, 동무 58위, 서무에 57위를 합쳐서 모두 136위(중국 97현, 우리나라 18현), 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다. 이처럼 강릉향교는 광복 이후 전국적으로 시행된 중국 유현의 위패를 매안하자는 결의를 따르지 않고 기존 방식을 고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2)</sup>

교육 기능은 상실되었으나 석전 봉행 외에는 초하루와 보름에 분향을 하고 있으며, 전교 1명과 장의 수 명이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소장 전적은 한국전쟁 때 대부분 소실되고, 대성전은 1963년에 보물 제214호로, 향교는 1985년에 강원도 유형문화재 99호로 지정되어 보존하고 있다.

## 2. 강릉향교의 연혁·유래 및 특징

### 1) 강릉향교의 창건과 변천

강릉향교는 고려시대에 전국에서 가장 먼저 건립된 지방 교육기관의 하나이다. 987년(성종 6) 12목(牧)에 경학박사와 의학박사를 파견해 지방 자제를 가르쳤다는 기록, 1127년(인종 5) 왕명으로 여러 군현에 학교를 세워 교육을 확대했다는 주장 등이 있으나 각 지역마다 향교를 건립한 시기는 각 지역마다 편차가 심하다. 강릉향교는 고려 말에 강릉안렴사로 부임한 김승인이 화부산 연적암 아래에 문묘를 세운 일을 그 출발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sup>3)</sup> 대체로 1127년에 전국적으로 향교가 건립될 시기에 처음 창건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창건 당시 배치와 건축에 관해서는 거의 알려진 사실이 없어 조선초기부터 쓰인 기문을 자세히 살펴가면서 명륜당과 동·서무, 내삼문의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지정가치를 살펴보기로 한다. 강릉향교 명륜당과 동·서무, 내삼문을 기록한 사료는 숫자만으론 세밀화처럼 많다. 상당수에 달하는 기문이 새겨진 현판이 있고, 이외에도 사료는 다른 향교에 비하면 많은 편이다. 문제는 기문의 내용인데, 정확한 건립시기나 수리범위, 연유를 명확히 쓴듯하면서도 세 건물에 초점을 맞추면 정확도는 낮다.

### - 1413년 강릉향교 중건과 「향교중건발」

1416년에 이맹상(李孟常, 1376~미상)이 쓴 「향교중건발(鄕校重建跋)」은 강릉향교의 전체상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포함되어 있다. 이맹상은 1411년(태종 11) 강릉판관에 제수되었고, 재임 중에 강릉향교를 중건하고 이 글을 지었다. 아래에 옮긴 내용

2) 전주향교는 2012년 유림총회의 결의에 따라 동·서무에 모셔진 동방십팔현을 대성전 동서벽으로, 공무십철과 송조육현은 동서무로 설위를 변경하였다.

3) 최근 김승인의 강릉향교 건립에 관해서는 문묘와 강학시설을 겸한 향교를 우리나라 최초로 세웠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재복은 「고려시대 향교건립의 추세와 김승인의 강릉향교 설립에 대한 고찰」(『동양고전연구』79집, 2020)에서 이런 주장을 폈는데 김승인의 부친인 김구가 안향과 도의를 강론하고 성학을 펼쳤으며, 형인 김여우는 충렬왕을 수행하여 원나라에 갔을 때 원나라의 학교제도를 살피고 돌아와 동생인 김승인에게 전하여 강릉향교를 건립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을 중심으로 당시 강릉향교 중건의 실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①은 향교 중건하는 일이 왕명을 얻어야 가능했음을 알려준다. 지방관의 임의로 수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②는 1412년에 기술자를 모집하고 관비를 지급하여 기와를 굽고 재목을 장만하는 공사 준비를 추진하였다. ③다음해인 1413년에 들어서야 비로소 공사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옛 터에 남아 있던 석재를 갈았다고 하므로 초석에 기단까지 완전히 새로 조성한 중건공사였다고 판단된다. ④는 나라에서 정한 제도에 따라 공자를 비롯한 현유의 위패를 봉안하였는데 특별히 강릉향교와 인연이 깊은 김승인의 신주까지 종사하였다. 이로써 향교 중건의 공사가 거의 끝났다고 적고 있어 1411년에 논의가 시작된 강릉향교 중건은 1413년에 이르러 완공된 것으로 보인다.

①태종 12년(1412) 정월 9일에 동부대언 탁신(卓愼)이 향교 중건의 왕명을 가지고 왔기에 감사가 이를 받아 강릉부에 다시 알렸다. ②이리하여 이해(1412)에 정장(丁匠)을 모집하고 관비를 지급하여 기와를 굽고 재목을 장만하여 ③다음 해(1413)에 옛 터에 주춧돌과 섬돌 [礎砌] 을 깔고, 향교를 중건하였다.

④국가의 제도에 따라 공자를 비롯한 현유 123위와 김공(김승인)의 신주까지 식순에 맞추어 종사하니, 향교 중건의 큰 공사는 거의 끝이 났으므로…

⑤木手 僧 德一 白丁 彦連

官奴 令音長 石手 百姓良衣三

燔瓦色 戶長 崔霖

瓦匠 寺奴 張信 僧 信松

⑥間閣

聖殿 三間 前後退

東西廡 各三間 無退

明倫堂 三間 東西 夾室 各二間

東西齋 各三間 南樓十一間 已上前後退

庫舍 三間 前退 廚舍 三間

馬廄 三間 已上前後退

1413년 중건공사는 ③을 통해 짐작하듯이 터만 남아있던 강릉향교를 일신하는 공사로서 ⑥간각 항목에 보이는 건물을 모두 지었다. 당시 중건한 건물의 면면을 보면 성전과 동서무, 명륜당과 동서재, 그리고 남루가 있고, 향교 지원시설로는 고사, 주사, 마굿간 등이 마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⑤는 중건공사를 맡았던 장인에 관한 기록으로 목

수는 승려 덕일 외에 몇몇의 이름이 적혀 있고, 기와를 굽는 일은 호장인 최림이 담당했고, 기와를 잇는 와장은 사찰에 딸린 노비인 장신과 승려 신송을 기록하였다. 이들 장인 한명 한명의 이력은 밝혀진 게 없지만 최소한 1413년에 중건된 강릉향교는 승장이 주도한 공사였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 - 강릉향교 중수와 「향교중수기」

앞서 1413년에 중수된 강릉향교는 15세기 말에 들어서 상당히 쇠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홍귀달이 쓴 「향교중수기」를 보면 이 무렵에 향교를 중건한 연유와 공사범위 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홍귀달은 1484년(성종 15)에 강원도관찰사가 되어 다음해 1485년에 강릉향교를 중수할 것을 계청하였다.

그가 밝힌 중수 사유는 분명하다. 기문에는 “대성전과 동·서무가 지은 지 오래되어 퇴락한데다가 학생재(學生齋)가 좁아 다 수용을 못하는 형편입니다. 지금 새로 짓지 아니하면 이들의 거처마저 없어지게 될 처지에 이르렀습니다.”는 당시 강릉향교가 처한 실상을 생생하게 전해준다.

무리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할 계획도 마련되어 있었다. “근년에 세월이 태평하여 강릉과 삼척 양진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들이 놀고 있으므로 … 이들을 동원하여 봄과 겨울에는 재물을 모으기도 하고 기와도 굽고 가을과 겨울철에는 강학하면서 낡은 것을 고치고 좁은 것을 넓혀 학도들에게 학문을 장려하려고 합니다.”란 상소 내용으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중수 계획을 담은 상소는 왕의 허락을 얻었다. 즉시 군대를 풀어 중건보수의 역사를 시작했으나 때마침 가뭄이 심하여 중단하고 후인에게 미루고 홍귀달은 강릉부사직을 떠났다. 1485년(성종 16, 을사년) 가을에 형조참판에 제수되었기 때문이다.

홍귀달이 떠난 이후 강릉향교 중수공사는 순조롭게 추진된 것으로 생각된다. 같은 기문에 보이는 다음의 내용으로 추측이 가능하다.

을사년 겨울에 공이 전임하고 ①그 다음해에 성전과 동서무를 지었고(構), ②그 다음해에 동서재와 강청(講廳)을 짓고, 전사청, 제기고, 교수아(教授衙), 유사방을 새로 짓고, ③그 다음해에 남루(南樓)와 전랑(前廊)을 지어 총 70여칸의 웅려한 향교가 되었으니

위의 인용문을 보면 공사는 꼬박 삼년이 소요되었다. 을사년 다음해인 병오년(1486, 성종 17)에 성전과 동서무를 짓고, 1487년에는 동서재와 강청 외에 전사청, 제기고, 교수아, 유사방까지 모두 새로 지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1488년에는 남루와 전랑청을 지어 모두 70여칸에 달하는 향교를 갖추게 되었다.

이 기문의 내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앞서 「향교중건발」에 기록된 1413년 중수 이후 73년 만에 실시된 공사이고, 기문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제 기능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상태였음은 짐작이 간다. 그렇다고 완전히 새로 지었는지 여부는 다소 주저되는 면이 없지 않다.

성전, 동서무, 동서재, 남루는 두 기록에서 확인된다. 다만 이때 중건공사를 통해 강릉 향교에는 기존에 없던 건물들이 등장하는데, 「향교중건발」에 적힌 향교 지원시설은 고사, 주사, 마구였으나 여기에는 전사청, 제기고, 교수아, 유사방이 등장하고 있어 확대된 향교의 기능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런 지원시설 외에 새로 등장한 건물은 바로 전랑을 꼽을 수 있다. 문제는 강청인데 명칭으로 미뤄 명륜당을 지칭하는 시설로 짐작은 되지만 동일시할 뚜렷한 근거는 없다.

공사를 맡은 장인에 관해서는 간략하게 기와를 굽는 일을 감독한 함영창, 집을 짓는 일을 감독한 김보연, 실제 기술자로는 안해심(安海深)<sup>4)</sup>만을 거론하고 있어 공사범위를 짐작할 단서는 아니다.

어쨌든 간에 「향교중수기」에서 밝힌 강청=명륜당인가 아닌가는 단언하기 곤란하지만 기능만으로 보자면 명륜당일 가능성이 크고, 나중에 명륜당으로 대체된 남루는 별도로 존재하고 있어, 이 시기까지 강릉향교에는 명륜당과 남루(현 명륜당)이 공존하는 향교의 전형 건물구성을 따르고 있다고 판단된다.

### - 명륜당중수기(1623년)

1623년에 쓴 명륜당중수기를 보면 임진왜란<sup>5)</sup> 직전 강릉향교가 처한 실상과 전란 이후 복구공사까지를 살필 수 있다. ①을 보면 묘우가 기울고 낡을 때마다 부분 수리를 거쳐 임진왜란 직전까지 지나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임진왜란으로 강릉향교가 입은 피해는 해당 기문에 명확한 언급이 없다. 임진난을 당해 여러 해 수리를 못했다고만 기술하고 있을 뿐 전화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는 언급이 없어 단순히 시간의 경과로 인해 쇠락한 상황이 아닌가 싶다.

① 1611년(신해년), 1613년(계축년)에 강릉부사로 온 김득과 정경세가 주도하여 대성전과 동·서무를 먼저 중창하였다. 이들 건물의 수리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는 기록에 드러나지 않는다. 두 부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명륜당과 이외 다른 건물 [間閣]은 손을 대지 못하고 이들은 임지를 떠났다.

②는 대성전과 동·서무를 수리한 공사 이후 10여년이 지난 시점에 들어서 겨우 上棟柱

4) 안해심은 홍귀달의 문집인 『허백정집』에 수록된 「강릉향교중수기」에는 최해심으로 나오는 인물로 성을 배제하고 이름만 보자면 승려일 가능성이 짙어진다.

5) 임진왜란 당시 강원도를 침략한 왜군은 모리 요시나리 [毛利吉成]의 부대로 이들은 청주에서 용인을 거쳐 한성을 점령한 이후 강원도로 들어왔다. 모리의 왜군은 김화현과 금성현을 지나 동북진하여 6월 5일 회양현을 함락시킨 다음 안변에서 흡곡을 거쳐 동해안을 따라 남하하여 강릉과 삼척을 지나 영덕으로 남하하였다. 그후 왜군은 다시 강원도로 향하여 영월과 정선을 점령하고, 평창, 원주를 차례로 점령하여 극악한 만행을 저질렀다.

44칸의 층루(層樓)가 낡고 허물어져 이미 골격조차 지탱하기 어려워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실정을 설명하였다. 개건의 의지를 다지던 중 계해년(1623)에 사업에 필요한 금품을 조달하여 공사를 벌였다. 공기는 같은 해 2월 24일에 시작해서 다음달 18일에 마무리하고 있어 공사기간이 한 달이 채 안 되는 단기간 공사임을 알려준다.

①…그 뒤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묘우가 기울고 낡을 때마다 중수했으나, 임진란을 당해서는 여러 해 수리를 못했던 것을 만력 신해년, 계축년 간에 김륵과 정경세가 선후하여 강릉부사로 와서 대성전과 동서무를 먼저 중창하였으나, 명륜당과 각각의 중창은 하지 못한 채 전임하였으니…②상동하주 44칸의 층루가 낡고 헐어 이미 그 골격조차 지탱하기 어려워 언제 무너져 버리는 환을 당할지 예측할 수 없게 되자 이를 다시 개건하여야 하겠다고 사림에서 논의된 지 벌써 여러 해 되었다. 계해년 봄에 … 이 사업에 필요한 금품을 조달하여 본년 2월 24일에 역사를 시작하여 3월 18일에 끝을 맺었다.

위의 기문을 정리하자면 「명륜당중수기」(1623)에는 1611년(신해년), 1613년(계축년)<sup>6)</sup>의 대성전과 동·서무 중창한 일과 이후 10년 뒤에 상동주 44칸 층루를 중수한 상황을 함께 적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기문의 제목은 분명 「명륜당중수기」이므로 의심할 여지없이 ‘상동주 44칸 층루’는 예전에는 남루라 불렀던 건물이지만 이때 중수를 기회로 명륜당으로 기능이 전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한 달이 채 안 되는 1623년 공사의 공기로 미뤄 그 범위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성전월랑중수기」(1721)에 이 시기 공사를 번외로 요약하고 있어 현 명륜당의 건립시기 추정에도 숙고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 「명륜당중창기」(1644)

이 기문은 「명륜당중수기」(1623) 이후 명륜당 중창공사를 주된 내용으로 작성하였다. 1623년 공사 이후 불과 20여년이 경과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벌인 사정은 20여년간 비바람에 건물이 낡고 기울었으나 병자년 전란을 겪느라 손을 대지 못하고 지낸 속사정이 대변해준다. 병자년 전란은 병자호란을 가리키는데 실제 강릉향교가 입은 전란의 피해 범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1644년(갑신년) 2월 15일에 공사를 시작하여 다음해 4월 초삼일에 준공하였다. 이 기간 내내 공사를 진행하진 않았겠지만 공기가 비교적 장기였다는 점은 공사범위를 추론하는데 도움이 준다. 공사내용을 보면 “양동판각(樑棟板桷)이 썩은 것은 다 새것으로 갈

6) 실록을 보면, 김륵은 1610년(광해군 2)에 강릉부사로 나갔으나 1611년 12월 5일에 파직당하였다. 정경세는 1613년에 강릉부사로 부임하였다.

왔고, 동쪽 모퉁이 지세가 낮고 습한 곳은 돌로 쌓고 기둥을 세워 영구적인 방책을 도모하여 구제를 증익(增益)하였다.”는 말로 정리되어 있다. 여기서 양동판각은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대들보, 마룻대, 널빤, 서까래로 그야말로 목조건물의 가구구조를 짠 골격 전체를 가리킨다. 기문에서 이미 구제를 증익 다시 말해서 더하여 늘게 했다고 표현하였듯이 명륜당 부재 가운데 부후한 부재 상당 부분을 신재로 교체하였음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또한 지대가 낮아 습기가 찼던 동쪽을 돌로 쌓고 기둥을 세워 장기적인 유지에 고심한 공사가 바로 이 시기 공사로 추측된다.

이때 공사를 맡은 목수는 혜장(惠莊)과 벌을동(伐乙同), 애선(愛先), 춘립(春立)이 적혀 있는데 이름을 고려하면 일부는 승장으로 판단되나 더 이상의 정보는 얻어지지 않는다. 기문 제목으로 ‘중창’이란 용어를 쓴 점도 유념할 사안으로 뒤에서 살펴볼 것이다.

#### - 「명륜당중수기」(1696)

앞에서 살펴본 「명륜당중창기」(1644)가 쓰인 뒤 52년 만에 작성된 기문으로 제목으로는 중수를 다뤘다. 향교 명륜당이 삼백년간 여러 차례 중수를 해왔으나 1644년(갑년신) 이후 오십여년이 경과하면서 건물이 낡고 기울었다. 공사기간은 4개월로 낡고 썩은 부재를 신재로 바꿔 옛것보다 크게 하였으며 전면의 창호를 새로 만들고 동쪽 모서리의 고주를 우뚝하게 세웠는데, 이로써 명륜당의 면모가 새로워졌다고 자평하였다. 공사를 맡은 목수로는 세 명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다. 승춘(承春), 말쇠(漆金), 김봉승(金奉承)이다.

#### - 「성전월랑중수기」(1721, 신축년)

제목에서 나타나듯 성전과 월랑을 중수한 뒤 적은 기문이다. 강릉향교 전체의 실상을 개략이나마 기록하였는데 위로는 성전에서부터 아래로는 강당에 이르기까지 재목이 상하고 단청이 낡았으나 특히 전랑과 중문이 곧 무너질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1721년(신축년) 6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다음해 3월에 공사를 마쳤으므로 9개월여가 소요되었으나 동절기나 중지기간을 감안하면 이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추측된다.

공사내용을 보면 성전은 깨진 기와와 부후된 서까래만 바꾸는 수준이었으나 전랑은 전체를 철거하여 다시 짓는 대규모 공사였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짚어볼 것이다. 공사를 수행한 목수는 윤봉최(尹奉崔)라고만 적혀 있어 아마도 윤, 봉, 최씨 성을 지닌 목수 세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 - 「성묘중수기」(1740)<sup>7)</sup>

7) 강릉시·문화재청,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 강릉향교 명륜당, 동서무, 내삼문」, 2020, 39~40쪽에서는 이 기문의 작성 연대를 60년 뒤인 정조 경신년 1800년으로 고증하였으나 이는 승정후 계신축년을 신중하게 살피지 못한 오류로 이 글에서는 1740년의 공사임을 명확히 확인하였다. 그에 대한 방증으로 공사에 참여한 진사 민재문은 1684년생으로 『승정



「성전월랑중수기」(1721) 이후 1740년(영조 16, 경신년)에 성묘와 양무를 중수한 공사를 다룬 기문으로 자료가 소략한 동·서무에 관한 기록이어서 눈여겨 볼 자료이다. 앞서 공사로부터 20여년이 경과한 시점인데 대성전이나 양무는 기와 파손, 누수, 단청 퇴락이 지적되었다. 수선할 뜻을 모으기는 1739년(기미년) 가을이었지만 동절기라 공사를 실행하지 못하고 다음 해 4월 초8일에서야 역사를 시작하였다.

대성전은 기와를 벗기고 보니 서까래는 양호한 편이라 기와만 바꾸었고, 양무는 썩은 서까래를 새로 바꾸고 단청이 낡은 것은 새로 단청을 칠하였다. 이외에 댕돌이 가운 것과 담장이 허물어진 것도 말끔하게 수선하여 한달만에 공사를 마쳤다. 기문에 서원으로 적힌 승려 진묵(眞默)은 아마도 단청을 맡은 승장으로 추정되며, 목수 이름은 귀초리(貴草里)인데 양인 신분이 아닌 장인으로 보이며, 번와 공사를 맡은 개장(蓋匠)은 두백(斗百)으로 이름으로 미뤄 승장이 아닌가 싶다.

1740년 공사를 요약하면 동·서무의 일부 부재를 신재로 교체한 정도로 보인다.

#### - 「성묘중수기」(1787년)

이 기문은 1787년에 대성전과 양무를 수리하고 난 뒤 기록한 글이다. 「성묘중수기」(1740) 공사로부터 50여년이 지나는 사이에 기와는 깨어지고 벽이 허물어진 상황에 처했다. 공사는 대성전을 먼저 한 뒤에 양무를 수리하였는데, 썩은 재목은 새것으로 바꾸고 기운 기둥은 바로잡아 벽도 새로 발랐다. 낡은 기와도 새로 바꾸고 단청도 제대로 칠하였다.

그런데 이런 공정을 도맡은 장인은 전문 공장을 비롯하여 각 직종의 사람들이 동원되어 2개월에 공사를 마쳤다는 설명은 재미있다. 될 수 있으면 구재를 이용하고 부족한 것만은 신재로 써서 경비를 아꼈다는 표현은 이유는 다르지만 구재를 가능한 한 살리려는 지금 문화재 공사와 닮아있다. 여러 공종을 고려하면 기술자도 다양한 분야의 기술자가 참여했겠지만 장인은 목수 김이채(金二采)와 서원(畫員으로 보임) 승려 혜원(慧遠) 두 사람만 명시되어 있다. 승려 혜원은 단청을 도맡았던 게 아닐까 싶지만 이를 방증할 여타의 자료는 아직 획득하지 못하였다.

#### - 「서재중수기」(1807)

해당 기문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동·서재에 관한 기록이 드물어 창건 이래 기백년 동안의 중수 상황을 알 길이 없었는데 이 기문은 현존 동·서재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당시 동·서재의 실상은 “기와는 깨어져 누수되고 벽은 떨어지고 기울에 춘추 제향 때

---

후제임자식년퇴행계축사마방목(崇禎後再壬子式年退行癸丑司馬榜目)』(국립중앙도서관[일산古6024-80])에을 통해 1733년(영조 9) 계축 식년시에 진사 3등 61위로 실려 있다.

나 동하(冬夏)의 강송(講誦) 때에는 오래도록 스산함을 면치 못하여”란 표현에서 짐작이 간다. 공사는 1807년 2월 8일에 시작하여 6개월만인 7월에 마무리를 짓고 있어 간단한 수선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공사 내용을 보면, 앞서 뭉뚱그려서 표현한 동·서재의 퇴락은 조금 차이가 있었던 모양이다. 서재는 옛 터에 새 재목으로 새로 지은데 비해 동재는 썩은 재목과 깨진 기와만 갈아서 보수를 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대성전과 월랑, 명륜당은 일부 수선을 했다. 결국 1807년에 서재는 터는 옛 터지만 자재는 신재를 써서 다시 지었고, 동재는 기존 건물을 수리하는 정도였다.

이 기문은 관계자 명단 가운데서 장인을 가려내기가 곤란하다. 일단 확실히 아닌 인물을 제외하면 원두(園頭) 동산(東山)만 남는다. 사건의 풀이는 사찰에서 소속된 밭의 채소를 가꾸는 소임을 사는 승려를 원두라 하므로 동산 스님이 수리를 맡았던 게 아닌가 한다.

#### - 「명륜당중수기」(1813)

명륜당 수리 논의는 기문보다 한 해 앞선 1812년에 의결되었다. 오래 보수하지 않아 재목이 썩고 기와가 낡았다는 기록으로 당시 명륜당의 실상을 가늠하기는 쉽지 않으나 「서재중수기」(1807)에 간단한 수선을 했고, 기문을 거슬러보면 「명륜당중수기」(1696) 이후 117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실상은 꽤 낙후되었을 개연성은 농후하다.

공사기간은 1813년 2월에 시작하여 7개월이 소요되었다. 공사범위는 “옛 초석을 따라… 동우가 우뚝하고 단청이 새로워 전보다 사치스럽지는 아니하나 새로운 맛이 풍긴다.”라는 내용과 공기를 감안하면 일부 부재는 교체하고 단청을 새로 칠한 정도는 짐작이 간다.

더욱이 공사를 담당한 장인으로 목수, 석수, 서원(화원으로 추정)을 적고 있어 적어도 목공사, 석공사, 단청까지를 아우르는 범위였음은 분명하다. 목수는 승장과 민간장인 합쳐서 3인의 명단을, 석수는 민간장인 1명, 서원은 승려 1명을 기록해뒀다.

#### - 「동재중수기」(1825)

향교의 건물을 수리한 지 오래되어 이 무렵 강릉향교는 1813년에 수리한 명륜당을 제외하고 대성전을 비롯하여 동·서무, 동·서재가 다 낡았다. 급히 대성전과 동·서무는 수리를 마쳤으나 동·서재는 공사가 너무 커서 힘이 미치지 못한 차에 의논이 모여 동·서재 공사를 1개월 만에 마치고 이 기문을 쓴 것이다.

공사범위는 명확하게 언급이 없어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공기로 미뤄 소규모 공사 수준으로 짐작된다. 장인 명단으로는 목수 권천석의 이름만 적혀 있다.

### - 「월랑급재방중수기」(1862)

기문에 따르면 “성묘월랑을 창건한지 이미 칠십여년이 지나 거의 건물이 쓰러질 형편”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70여년이란 근거는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건물이 쓰러지기 일보직전의 퇴락한 상태는 상상이 간다.

공사범위는 “아홉칸의 동우를 새 재목으로 보수하여 새롭게 하고 벽을 종전대로 단청하여 새로 만들었다.”는 내용을 고려하면 이때 월랑은 거의 새로 짓다시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 공기도 상당한 편이어서 1861년 4월에 시작했는데 다음 해 1월에 마무리를 지었으므로 8개월여가 소요되었다.

월랑 외에도 대성전의 자리를 보수하고, 동·서무는 기와가 풀린 것을 번와하고 벽을 새로 고쳤다. 비바람에 퇴락한 동·서재도 손질하여고 풍화되어 낡은 것도 다시 고쳤다.

월랑과 함께 명기된 재방(齋房)은 교임(校任)들이 유숙하는 곳으로 퇴락하지 오래되어 사용하는데 불편이 많았다. 건물 규모나 공사범위를 기록하지 않았지만 공사 이후에 건물이 웅대하고 화려하게 되었으나 이는 보기 좋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선비들을 위한 것임을 강조한 비유로 미뤄 번듯하게 모습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공사를 맡은 장인들에 관해서는 기록하지 않았다.

### - 「성전중수기」(1883)

대성전을 수리한 뒤 쓴 기문으로 “중수하기 위해 전우를 해체하고 보니 구재는 성한 것이 하나도 없어 서까래는 거의 철거하여야 겠고 동량도 많이 교체해야 했다. 지난번 중수할 때 거의 일신한 것이 세월이 오래된 탓으로 또 다시 일신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고 적고 있어 대성전은 이 때 대규모 중수공사를 벌인 것으로 판단된다. 대성전 외에 다른 건물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고, 공사를 맡은 장인도 기록에서 배제하여 자세한 공사범위는 명확하지 않다. 이 공사와 연관해서 강릉부사 이위가 쓴 「성전중수기」(1883)가 별도로 있으나 실무적인 사안은 거의 다루지 않았다.

### - 이후의 기록과 수리공사

기문은 없으나 제출된 보고서를 보면 몇 차례 더 중수한 사실이 나열되어 있으나 전거를 밝히지 않아 이를 참고하되 기문 중심으로 현존 건물의 시기와 건축특성을 파악하는데 주력하였다.

일제강점기인 1925년에 향교를 중수하고 나서 작성한 「향교중수기」(1925)가 있으나 실제 공사에 관한 정보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대성전급명륜당중수기」(2019)는 2019년에 시행된 보수공사를 기록한 기문으로, 대성전 후면 석축을 물려 배수로를 신설하고, 명륜당 장마루를 한식 우물마로도 복원하고 동편의 대량과 서까래를 신재로 교체하고, 단청을 새로 도색하였다.

해방 이후에 여러 차례 수리한 기록이 확인되는데 1989년도에는 대성전과 명륜당, 동·서무를 보수하였으며. 1995년도에 대성전, 동·서무, 주변 정비 등이 시행되었으나 지정 가치를 좌우할 수준은 아니어서 상세하게 검토하지 않았다.

## 2) 건립시기와 건축특성 검토

1480년(성종 11) 왕은 경연관들과 의논하여 하삼도와 경기·강원도의 향교에 학전(學田)을 지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논의의 과정을 보면 성종은 인재가 배출되는 하삼도의 향교에는 전지를 지급하는게 마땅하지만, 강원도에 지급할 이유가 있는가를 물었다. 일찍이 강원도 관찰사를 지낸 이극기(李克基)는 “강릉과 원주만은 선비가 많기로 이름이 났으며 향학에서 학업을 익혀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서로 잇따랐으나 다른 고을은 없었다.”는 부가 설명을 올렸고, 몇몇 신하들이 지역을 구분할 이유가 없음을 아뢰자 경기·강원도·충청도·경상도·전라도의 향교에 학전을 지급하는 쪽으로 결론을 모았다.<sup>8)</sup>

1510년(중종 5)에는 강원도 관찰사 안윤손이 서적을 여러 향교에 비치하여 유생들로 하여금 강습에 편하게 할 것을 정하였다. 이때 강릉 사람들이 학문을 좋아해서 향해(鄉解, 향교에서 거행하는 시험으로 추정)에 참여하는 자가 꽤 많이 이런 칭이 나온 것이었다.<sup>9)</sup>

앞에서 강릉향교를 다룬 기록 가운데 1차 사료라 평가할 수 있는 기문을 「향교중건발」(1413)로부터 「성전중수기」(1883)까지 모두 13건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토목에 관한 기록을 자세하게 남기지 않는 조선시대 기록이 지닌 한계는 있으나 이들 기문에서 적어도 현재 명륜당, 동·서무, 내삼문의 건립한 이후의 변화상은 대략 훑어진다. 따라서 명륜당, 동·서무, 내삼문을 다룬 내용 위주로 하여 건립시기와 중창, 중수를 통한 변화상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그러나 기록은 분명 한계가 있다. 지정 이후에 연륜연대 측정을 통해 기록과 견주어 명확한 시기를 파악하는 일은 반드시 해결해야할 숙제가 아닐 수 없다. 예를 들어 1638년(인조 16)에 강릉 지역에 큰 바람이 불었는데, 모래가 날리고 자갈이 굴렀으며, 불이 나 향교와 민가 60여호가 불탔다는 『인조실록』 기사가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기문 어디에서 향교 화재를 언급한 자료는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 (1) 명륜당

#### 11칸 남루(南樓)의 출현

강릉향교에는 원래 별도의 명륜당이 시설되어 있었으나 어느 특정한 시기에 알 수 없

8) 『성종실록』권116, 성종 11년 4월 16일.

9) 『중종실록』권10, 중종 5년 1월 8일.

는 이유로 누각(南樓)을 명륜당으로 전용한 변화가 일어났다. 남루라 부르던 누각을 명륜당으로 대체하게 된 이유는 규명이 쉽지 않으나, 여러 기문에도 그 연유는 근거를 찾기 어렵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기능이 대체된 시기만이라도 강릉향교에 전해지는 기문을 토대로 접근해보는 것으로 만족하기로 한다.

「향교중건발(鄉校重建跋)」(이맹상, 1413)은 강릉향교의 전체상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포함되어 있다. 아래에 옮긴 간각 항목을 보면 명륜당과 남루가 별도 건물로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①명륜당은 기록으로 미뤄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에 협실을 둔 일반적인 평면으로 추측된다. 정면 칸수만 기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청은 정면 3칸이고 그 좌우에 각각 1칸씩 협실이 연결된 정면 5칸 규모이므로 측면 칸수를 감안하면 최소 10칸에 이르는 건물임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間閣

聖殿 三間 前後退

東西廡 各三間 無退

①明倫堂 三間 東西 夾室 各二間

東西齋 各三間 ②南樓十一間 已上前後退

庫舍 三間 前退 廚舍 三間

馬廄 三間 已上前後退

위의 기록에서 남루로 언급한 건물은 명칭 외에 기능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규모는 11칸이며 전후퇴를 둔 구조로 적혀 있어 규모와 구조는 개략 짐작이 간다. 이 기문을 근거로 이 무렵에는 독립된 건물로서의 명륜당이 강릉향교 안에 존재하고 있었음은 틀림없다.

조금 뒤인 「향교중수기」(1493)에 명륜당이란 당호는 거론이 없으나 강청이 적혀 있어 기능면에서 명륜당으로 추측할 수 있다. 물론 이 기문에도 남루는 별도 건물로 명시되어 있으나, 아쉽게도 남루의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다.

큰 변화는 앞서 간략히 살폈듯이 「명륜당중수기」(1623)에서 나타난다. 임진왜란 이후 여러 해 수리를 못한 처지에서 급히 대성전과 동서무를 먼저 중창한 뒤 이어서 ‘상동주 44칸 층루’를 수리하여 명륜당으로 대체하기에 이른 정황이 파악되기 때문이다. 왜, 그랬을까. 그 연유는 기문에서 파악되지 않는다.

기문에서 확인된 상황을 요약하면 강릉향교는 「향교중건발」(1413)에서 등장한 남루 11칸(전후퇴를 갖춘)이 「향교중수기」(1623)에 적힌 대로 수리를 거쳐 명륜당으로 기능이 대체되고 당호 또한 명륜당으로 고쳐 불렀다고 볼 수 있다.

## 1644년 중창공사 후 명륜당으로 전용

1623년에 수리하고 사용하던 명륜당은 20여년이 경과한 시기에 중창공사를 벌이게 이른다. 그 전후 사정을 적은 「향교중창기」(1644)는 다른 기문 대부분이 ‘중수’라 기록한 데 비해 ‘중창’으로 제목을 표현하였듯이 공사내용도 분명 중수를 넘어서는 중창이었다. 공사기간도 무려 1년이 넘는 장기였고 공사내용은 ‘양동판각(양동판각’ 즉 보와 도리 판재, 서까래까지 목조구조 대부분을 신재로 갈고 있어 이때 공사를 거쳐 건립된 명륜당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현존 명륜당의 건립시기는 「향교중창기」(1644)에서 쓴 명륜당 중창에서 연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의 중수공사는 기록에서 보이듯이 가구구조를 변경하는 대규모 수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 명륜당의 구조와 기법

현존 명륜당의 목구조와 기법에서 기문과 연계한 시기를 명확히 가려낼 수 있으면 지정가치를 규정하기에 용이하겠지만 시기가 중첩된 기법이란 점과 일부 기법에서 고식을 발견할 수 있는 점 외에는 문헌과 일치시킬 근거는 부족하다. 그런 한계를 인정하고 명륜당의 구조와 기법을 중심으로 건축특성을 정리해보기로 한다.

명륜당은 정면 11칸, 측면 2칸의 오량가에 초익공계 맞배집으로 누각구조이다. 평면은 장방형으로 10칸은 트여서 우물마루를 깔았으며, 1칸은 방을 꾸몄다. 내부에는 기둥을 두지 않아 개방된 실내여서 강학이나 집회에 용이하다.

경사진 지대를 살려 전면을 낮게 하고 배면을 높게 조성하였다. 초석은 자연석을 사용하였으나 일부는 가공한 석재가 있어 재사용의 흔적으로 짐작된다.

주칸은 어칸에서 협칸, 퇴칸으로 갈수록 간격을 좁게 했다. 환산한 치수를 적용하면 정면과 배면은 중심 어칸과 어칸 좌우의 협칸은 10~11자로 간살을 잡고, 양 단부의 협칸과 퇴칸은 9~10자로, 좌우 측면은 8~9자로 잡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나름 규칙성이 있어 동시에 간살을 설정하고 이렇게 차이를 둔 것으로 추정된다.

상부의 가구는 전후 변주 사이를 대들보를 걸고, 그 위로 동자주를 설치하고 동자주 위에 보아지와 주두를 얹어 종보를 받는 간소한 구조이다. 일부 대들보는 자연재의 구부러진 형태를 그대로 쓰고 있는데 이로 인해 동자대공 없이 보아지와 주두 위에 종보를 얹었다. 종보 위에는 판대공을 세워 종도리 장여와 종도리를 받친 평주 5량구조이다. 일부 보머리는 삼분두로 마감하였으나 여러 방식이 혼재되어 있어 거듭된 보수의 흔적으로 판단된다.

전후열 24개 기둥 상부는 초익공으로 결구하였다. 초익공 살미는 쇠서형이지만 수평으로 뻗어있어 부재 손실을 최소화한 기법으로 짐작된다. 안쪽으론 보아지 모양으로 다듬어서 대들보를 받쳤다.

전면 11칸은 모두 개폐 가능한 사분합창을 달고, 후면은 11칸 가운데 중앙 7칸만 개폐

가능한 사분합창이며, 협칸 양 단부, 즉 두 번째 칸에는 출입을 할 수 있도록 양여단이 세 살문을 설치하였다.

서까래는 규격 차이가 다양한데 아마도 여러 차례 수리한 흔적으로 판단된다. 천장은 연등천장으로 구조가 그대로 노출되어 가구재를 의장재로 활용하는 동시에 높은 층고를 확보한 장점이 보인다. 바닥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장마루로 바뀌었다가 근래 우물마루로 고쳤다. 동쪽 1칸 방은 원래 교수들이 사용하던 것이나 요즘에는 경비실로 쓰이고 있다.

소소하지만 몇몇 처리는 흥미를 끈다. 상하층 기둥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지름을 약간 키웠는데 착시를 교정하고 안정감을 노린 치목기법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는 민흘림 기법으로 다듬었다. 귀솟음은 유의미한 수치로 나타나나 안쏠림은 뚜렷하지 않은 편이다. 대들보 단면은 보통 보의 폭을 좁게 하고 위, 아래 춤을 높이면 구조적으로 유리한데 비해서 높이를 폭보다 1치 정도 칫수가 작다. 이런 대들보 가공기법은 대성전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어 주목을 끈다. 대들보의 높이보다 폭이 넓은 고려시대 건물은 강랑 임영관 삼문의 향아리보라고 하기엔 부족하지만, 구조상으론 폭이 넓고 춤이 작다는 점에서 강릉지역의 지역색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도리와 장혀가 맞닿는 도리 하부는 수장폭만큼 반듯하게 깎아 도리와 수평으로 접착되게 하였다.

## (2) 동·서무

### 17세기 초 동·서무의 중창

동·서무에 관한 사료는 대성전과 명륜당에 비해 아주 간헐적으로 남아있다. 기록만 드문드문 남아있는 게 아니라 실제 관심도 떨어져 건물의 상태가 몹시 퇴락했을 때나 겨우 중수하는 정도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가장 이른 기록은 당연히 「향교중건발」(1413)로 동·서무 3칸 규모에 뒷간 없는 구조로 나타난다. 이후 「향교중수기」(1493)에는 대성전과 동서무를 지었다고 하므로 1413년 이후 80여년의 경과 시점이란 점을 고려하면 기문에서 언급하였듯이 중수로 판단된다. 이 기문에는 규모나 구조가 언급이 없다.

현재까지 잔존하는 기록 가운데, 임진왜란 뒤 첫 공사 기록은 「명륜당중수기」(1623)인데 이 기문에 의하면 **“대성전과 함께 동·서무를 중창하였다.”**고 적고 있어 관심을 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바로 뒤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이로부터 80여년 뒤인 「성묘중수기」(1740)를 보면 양무는 기와를 벗기고 보니 서까래가 썩어 이를 새로 바꾸고 단청은 새로 칠한 것으로 나타난다. 47년 뒤인 「성묘중수기」(1787)는 성묘와 양무를 수리한 기록으로 기와를 교체하고 새로 단청을 하였으며 목수가 참여한 것으로 볼 때 일부 목공사도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소소한 수리가 계속 이어지는데, 1807년에는 서무만 일부 수리한 기록이 「서재

중수기」(1807)에 남아있다. 1825년에도 대성전과 함께 동·서무를 수리하였음을 「동재중수기」(182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862년에는 동·서무의 기와가 흐트러져서 이를 바로잡는 번와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월랑급재방중건기」(1862)에 기록으로 보인다.

이처럼 여러 기문들은 1623년에 대성전과 동시에 동·서무를 중창한 이후 공사는 번와, 서까래 교체, 단청 개칠, 벽체 수리와 같은 다소 비중이 덜한 공사를 진행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때 기록만으로 보면 강릉향교 동·서무는 1623년 중창한 골격을 토대로 수차례에 걸친 보수를 거쳐 지금에 이른다고 판단이 된다. 문헌 검토로는 동·서무가 17세기 초반의 건물이란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사실 현존 동·서무의 목구조와 기법에서 이 시기로 지적할만한 상황은 아니다. 워낙에 ‘무(廡)’라는 유형은 기능이 단순하고 의례용 건물이기 때문에 독창적인 기법이나 지역색, 장인의 취향이 반영될만한 요소가 많지 않다.

동·서무는 이미 살핀 대로 조선초기 「향교중건발」(1413)에서 규모 3칸, 뒷간 없는 형태로 건립된 이후 현재 건물은 뒷간은 없으나 규모는 5칸으로 늘어나 있다. 언제 5칸으로 증건되었을까. 보유하고 있는 기문 수량은 어느 향교에 뒤지지 않는 강릉향교지만 이를 확실히 작성한 글은 없다. 약간 무리한 추론을 시도하면 「향교중수기」(1493) 시기에 방점을 두고 싶다. 이때 개별 건물의 칸수는 언급이 없는 대신에 전체 칸수로 70여 칸이라 밝히고 있어 이를 토대로 개별 건물의 칸수를 적용하면 대체로 대성전이 5칸이 된 시점으로, 더불어 동·서무도 확장한 중수공사가 아닐까 싶다. 향후 연구를 통해 규명되기를 바란다.

대성전과 동·서무를 5칸으로 확장한 시기는 뒤에 「명륜당중수기」(1623) 시점도 가능성이 있으나 이 무렵 임진왜란 이후 여러 해 수리를 못한 점 그리고 공사비가 부족하여 명륜당과 동·서재 등의 건물 공사가 지연된 상황을 감안하면 대성전과 동·서무를 확장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

### 동·서무의 구조와 기법

동무의 건축특성은 제출된 보고서와 「강릉문묘 대성전 실측조사보고서」<sup>10)</sup>를 토대로 정리하면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동무는 정면 5칸, 측면 1칸의 초익공 맞배집이다. 주칸 간격은 전면의 경우 북측 첫칸과 네 번째 칸은 11자, 나머지 세 칸은 12자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기둥은 약간의 배흘림 기법으로 다듬었다고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은 기둥도 있다. 기둥 하부 직경은 대체로 330mm, 380mm 내외 두 유형이 많아서 수리하면서 규격이 다른 부재를 사용한 흔적으로 짐작된다. 기둥 길이는 지반 높이에 대응하여 지반이 높은 북쪽은 키가 작은 기둥을, 지반이 낮은 남쪽은 키 큰 부재를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건물의 수평을 맞췄다.

10) 문화재청·강릉시, 『강릉문묘 대성전 실측조사보고서』, 2012, 195~198쪽.



기둥머리는 사괘를 터서 창방과 쇠서를 결구시켰으며, 그 위로 주두를 놓아 대들보를 받았다. 주간에는 각 칸마다 이갈소로를 3개씩 놓아서 창방 위로 장여를 받치고 있다. 가구는 단칸집답게 삼량으로 짰는데, 종도리와 주심도리는 대체로 직경 300mm 정도 규격이며, 종보에는 판재 3매를 쌓아서 만든 사다리꼴 모양의 판대공을 세워 종도리와 종도리 장혀를 받치고 있다. 대들보와 기둥 연결부는 장방형 초공을 끼웠으며, 서까래가 드러난 연등천장으로 구조가 그대로 노출된 건물이다.

바닥은 강회다짐으로 마감되어 있으나 원래 바닥재는 확인되지 않는다. 전면 중앙 세 칸에는 이분합 세살문이 설치되어 있고, 좌우 측칸은 사롱창으로 설치하여 나름 고식스런 분위기를 자아낸다. 서까래는 대부분 신재로 교체된 상태지만 직경 150mm, 말구는 120mm 정도 내외로 보인다. 한식기와를 덮고 용마루와 내림마루는 기와를 쌓아 마감하였다. 귀솟음이나 안썰림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서무는 동무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일부 세부에서는 차이가 약간 발견된다. 정면 5칸에 측면 1칸의 초익공(몰익공) 맞배집이다. 북쪽이 높고 남쪽으로 낮아지는 지형을 감안한 처리는 동무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했다. 동무보다 약간 면적이 넓은데 그 이유는 주간에 있다. 전면을 기준으로 북쪽에서 첫칸은 4,080mm(13자)로 잡았으나 둘째·셋째칸은 3,750mm(12자), 나머지 아래 두 칸은 11자 범위에 들기 때문이다. 일부 기둥에서는 동무와 마찬가지로 약간의 배흘림 기법이 확인된다.

기둥머리에 사괘를 틀어서 짠 방식은 동무와 같으나 익공 끝을 쇠서 모양으로 내지 않은 몰익공이란 점은 차이가 있다. 주두 규격은 동무에 비해 조금 작은 편이다. 주간에 설치한 이갈소로도 동무에 쓴 소로에 비해 다소 적은 편이며 춤이 더 높은 형태로 가공하였다. 가구구조를 보면 판대공을 쓴 동무에 비해서凸 자형 각대공을 썼는데 이 역시 기법 면에서 시기가 올라가는 방식으로 본다. 나머지 세부는 동무의 형식과 큰 차이가 없다.

양무의 건축특성 가운데 요점을 정리하면, 공사시기에 따른 변화상이 뚜렷하다. 주간은 양무에서 모두 동일한 여러 시기의 공사를 짐작할 수 있다. 두 채 모두 간살은 세 유형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동무는 촛가지를 낸 초익공인데 비해 서무는 몰익공을 쓰고, 삼량가를 짠 구조에서 동무는 판대공, 서무는 각대공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어느 기법이 어느 시기라고 특정하기엔 향후 세밀한 연구가 필요한 부분으로 여기서는 이 정도에서 그치기로 한다.

### (3) 내삼문 : 전랑·행랑·내랑(內廊)·월랑(月廊)

전랑은 「향교중수기」(1493)에 처음 등장하는 건물이다. 해당 기문에 전랑을 지었다는 기록 외에 다른 언급이 없으나 「성전월랑중수기」(1721)에서 기능과 위치를 분명히 적고 있어 두 기록에서 명칭을 달리한 전랑과 월랑은 동일한 건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해된다.

이후 기록은 시차가 벌어져서 「성전월랑중수기」(1721)에 다시 등장한다. 이 기록은 해당 시기에 수리할 수밖에 없었던 월랑의 퇴락한 모습과 동시에 중수하기 이전 월랑의 규모와 기능을 일부 시사하고 있어 주목을 끈다. 기문을 보면, 최근에 이르러 위로는 성전에서부터 아래로는 강당에 이르기까지 재목이 상하고 단청이 낡은 실상이 드러난다. 그런 와중에서도 월랑 12칸과 신문은 곧 무너질 지경에 이르러 중수공사를 실시한 것이다. 전랑은 수선만으로는 원형을 찾을 수 없었기에 헐어내고 새로 짓되 그 규모를 크게 하여 전의 것에 못지않게 하였다고 한다.

「성전월랑중수기」의 기록대로라면 1721년 이전 강릉향교 월랑은 12칸 규모이며, 신문이 월랑의 일부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12칸에 신문이 포함된 규모일지, 제외하고 산정한 규모일지 알기 어려우나 가운데 신문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을 고려하면 전체는 13칸일 여지도 있다. 이때 새로 짓다시피 한 월랑은 전보다 규모를 크게 했다고만 적었을 뿐 규모는 언급이 없다. 언제부터 12칸 월랑(신문 포함 여부는 논외로 함)이 있었는지는 불확실하지만 적어도 1721년 이전 월랑은 12칸에 달하는 행랑이었음을 알려준다. 그런데 이로부터 150여년이 조금 안된 1862년에 쓴 「월랑급재방중건기」를 보면 월랑의 변모를 짐작할 수 있다. 이 기문에 따르면 1721년 월랑 중수 이후 한차례 월랑을 수리하였을 가능성이 보인다. ①은 성묘월랑을 창건하지 70여년이 지났다고 적고 있어 1721년에서 1862년 사이에 월랑을 재차 수리한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짐작되나 여지는 있다. ②는 규모를 적은 부분인데 9칸으로 밝히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현재 칸수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또한 새 재목으로 보수하여 새롭게 했다는 표현으로 미뤄 1862년 중건은 규모와 자재 면에서 모두 변신한 시기로 판단된다. 12칸에서 9칸으로 변화된 시기는 기문만으로 명확히 규명하기 어렵다.

①성묘월랑을 창건한 지 이미 칠십여년이 지나 거의 건물을 쓰러질 형편이 되었으니...②아홉칸의 동우를 새 재목으로 보수하여 새롭게 하고 벽을 종전대로 단청하여 새로 만들었다. ...

이런 기록을 토대로 보면 현재 강릉향교 월랑은 1862년 중수한 뒤의 모습이 남아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물론 현재 월랑 건물은 19세기 후반기에 중수한 상황이지만 「향교중수기」(1493)에서 처음 출현한 이래 강릉향교 제향영역의 전면에서 지금까지 신문 기능과 동시에 행랑으로서 기능을 면면히 이어온 의미 있는 시설임은 틀림없다.

월랑은 정면 9칸, 측면 1칸으로 가운데 한칸 지붕을 높여 내삼문으로 쓰고 있다. 밖에서 보면 축대 위에 벽체를 막은 구조지만 대성전 마당 쪽으로는 개방된 형태지만 원형 여부는 모른다. 실측된 수치를 기준으로 보면 주간은 7자 또는 8자 간격으로 나타나

구제를 사용한 보수공사의 흔적이 아닐까 싶다. 신문에 세운 4개의 고주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평주를 썼다.

### 3.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 1) 명륜당

##### 장루형(長樓形) 누각의 전통과 17세기 중엽의 중창

현 명륜당은 누각이지만 구조가 간소하고 기법이 단순한 유형이어서 세부기법만으로 건립시기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앞서 수많은 기문을 다시 꼼꼼하게 살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선 기문 검토를 토대로 명륜당의 건립시기를 정리해보기로 한다. 하지만 이들 기문을 적은 기조가 지금의 수리보고서와는 관점이 달라 다소 느슨한 결론이 될 수밖에 없음은 미리 언급해둔다.

「명륜당중수기」(1623)을 보면 임진왜란으로 인한 강릉향교의 직접적 피해는 거의 없거나 크지 않았을 가능성이 보인다. 다만 정국이 어수선하여 수리를 하지 못한 채 1611년까지 시간이 흘렀고, 1611년과 1613년에 강릉부사가 주도하여 대성전과 동·서무를 먼저 중창하였다. 「명륜당중수기」란 기문 제목으로 인해 이보다 먼저 대성전과 동·서무를 중창한 사실은 그간 간과된 점이 없지 않다. 이후 10여년이 지난 뒤에 비로소 ‘상동주 44칸’ 다시 말해서 11칸짜리 누각이 낡고 헐어 골격조차 지탱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이를 중수하고 명륜당으로 쓰기 시작한 것으로 추측이 된다. 한 달이 채 안 되는 단기에 마친 수리여서 그야말로 수리공사로 판단된다. 기존 명륜당을 수리하는 대신에 누각을 명륜당으로 전용한 시기는 이때가 분명하나 연유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 기문 이후 「명륜당중창기」(1644)를 주목하는 이유는 1623년 중수한 이후 불과 20여년이 지난 때라는 점, 공기가 1년 2개월여에 달하는 두 가지 정황에 있다. 또한 대다수 기문이 ‘중수’라 명시된 반면에 이 기문만 ‘중창’이라 명시하고 있어서 1644년 공사에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공사범위라 할 수 있는 교체부재에는 ‘양동판각’ 즉 대들보, 마룻대, 널판, 서까래 등 목조가구를 짜는 주요 부재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게다가 ‘구제를 증익’했다는 표현은 기존 중수와 다른 공사임을 짐작케 한다. 지대가 낮아 습기가 찼던 동쪽은 돌로 쌓고 기둥을 세워 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따라서 현 강릉향교 명륜당의 건립시기는 1644년 중창공사와 연관을 지어 해석하는 게 맞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1696년에도 수리를 했다. 낡고 기운 상황과 더불어 썩은 부재를 신재로 교체하고 전면의 창호 교체, 동쪽 모서리 고주 등을 수리했으나 공기가 4개월여서 부분적인 보수공사로 보아도 무리는 없다.

이후 명륜당 수리는 1813년에 나타난다. 투입된 장인을 감안하면 목공사, 석공사, 단청공사까지 짐작되나 일부 부재를 교체하거나 바로잡고 단청한 정도로 파악된다. 이후에

도 중창에 버금가는 공사기록은 파악되지 않아, 1644년 중창한 이후 크고 자잘한 수리를 거쳐 현재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된다.

### 누각을 명륜당으로 전용한 사례

문헌 검토를 통해 강릉향교 명륜당은 조선초기에는 별도의 건물로 존재하다가 1623년 수리 시점부터 기존의 ‘상동주 44칸 층루’였던 남루를 명륜당으로 대체하기 시작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후 1644년에 명륜당을 중창하면서 강릉향교는 전형적인 명륜당 대신에 남루를 전용한 명륜당을 계속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는지 남루였던 층루를 명륜당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를 규명할 근거는 아직 찾지 못하였다.

1644년 중창한 층루형 명륜당은 이후 여러 차례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지만 기본 골격은 이때 지은 건물을 토대로 하였으며 소규모 수리로 유지된 것으로 판단이 된다.

현재 전국의 향교 가운데 명륜당 없이 향교 전면에 자리한 장루(長樓, 가칭) 형식의 건물을 명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강원도를 비롯한 몇 개 지역에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사례 가운데는 근대 이후의 모습일 가능성도 일부는 있어 기록과 현재 상황 양면에서 강릉향교와 유사한 양양향교를 살펴보기로 한다.

양양향교 명륜당은 정면 7칸, 측면 2칸의 장루(長樓)인데 현 건물은 1954년에 중건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주목할 자료는 홍귀달이 1496년에 쓴 「양양향교중수기」이다. 이 글을 보면 “內樓宇南六間”<sup>11)</sup>이란 구절이 보인다. 규모는 다르지만 향교 전면에 3칸형 누각이 아닌 장루를 두고 이를 당호 대신에 위치에 따른 명칭 즉 남루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양양향교도 이 남루에 연원을 둔 누각을 명륜당으로 쓰고 있는 점은 추후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장루 자체가 예외적 사례는 아니다. 풍화루로 대표되는 향교의 전면 누각 가운데는 3칸을 넘어서는 5칸 이상의 규모를 자랑하는 향교가 여러 곳이기 때문이다. 기록으로도 안동향교는 “재 아래에 9칸의 장루를 세워 제생의 여름철 서식처를 삼게 했다.”는 기록이 있어<sup>12)</sup> 장루 그 자체에 초점을 둘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남루(南樓)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꽤 여러 향교에서 장루를 향교 남쪽에 마련하고 있었던 정황이 파악되나 역시 향후 과제로 남겨둔다. 어쨌든 장루는 일찍부터 기록에 보이지만 명륜당을 대신한 사례는 많지 않다는 점은 강릉향교가 지닌 특색으로 손꼽을만하다.

왜 그런 결정을 내리고 유지하였는가는 숙제로 남겨둔다. 다만 명륜당을 다시 짓지 않은 점이 곧 단서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은 있다. 명륜당이 없어지면서 강릉향교는 넓은 마당을 얻었다. 마당을 넓힌 이유가 관건인데, 역시 나중에 해결될 문제이다.

11) 홍귀달, 「양양향교중수기」, 『허백정집』권2, 기.

12) 이종두, 「안동향교의 연구」, 『안동유문학연구』1집, 2004, 290쪽.

## 2) 동·서무

### 조선초기부터 동·서무를 갖춘 강릉향교

강릉향교의 연원은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당시에 어떤 건물이 향교 안에 마련되었는지를 뒷받침할 자료는 없다. 13세기 초반 향교가 문헌에 등장할 무렵에는 묘학동궁(廟學同宮) 형태로 사당과 낭무, 문, 포주 등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강릉향교에 양무를 갖춘 시기는 「향교중건발」(1413)에서 확인이 된다. 그 이전에 양무를 갖췄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지금까지 파악된 자료로는 분명한 대답이 어렵다.

「향교중건발」(1413)에 강릉향교의 양무는 퇴가 없는 3칸으로 적혀 있어 정면 3칸의 통칸으로 된 건물로 보인다. 1485년(성종 16)에 문서 가운데 개성부와 여러 도의 계수관급 향교만이 양무의 제위를 두루 제사하는 실정이 보고되어<sup>13)</sup> 강릉향교는 조선초부터 양무를 두고 제향을 올렸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까지 주·부·군·현에서는 양무를 짓지 않아 주염계 이하의 위를 종사하지 않았다.

계수관급이라고 해서 모두 양무를 건립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1567년(명종 22) 무렵까지 안동지역도 동·서무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안동부사 윤복(尹復)이 쓴 중수기를 보면, 1566년(명종 21)에 모든 계수관 고을은 배위·종사 외에 동·서무를 더 세워 선현을 증사(增祀)케 하여, 국학과 과감이 없게 하라는 왕명이 있었으나 1년이 지나서야 겨우 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다. 당시 공사를 통해 구재(舊齋)를 헐고 그 터에 동·서무를 지으매, 산을 깎아 넓히고 각각 8칸씩을 지었다. 남계 위에 신문, 좌우협문을 세우고, 남계 아래 명륜당 10칸을 세웠으며, 당 앞 좌우에 동·서재 각 5칸씩을 세우고, 재의 아래에 가로 9칸의 장루(長樓)를 세워 제생의 여름철 서식처를 삼게 했다.<sup>14)</sup>

양무에 배향하는 신위는 읍치의 지위 격상에 따라, 신위의 변화에 따라 위판의 크기가 달라지거나, 이전에 없던 양무를 새로 짓는 경우도 있어 간단치 않다. 조선후기에 들어서 양무 종사 신위는 1714년에 다시 정해졌는데, 개성부와 계수관은 태학에 따르고, 부·군·현은 13현과 송조 2현을 양무에 종사하도록 했다. 또한 1746년에는 송조 4현과 해동 12현을 제사지내고, 1770년에는 송조 6현을 대성전에서 제사지내게 했다. 삼척향교는 1781년에 대성전과 양무를 확장한 기록이 남아 있다.<sup>15)</sup>

1748년(영조 24)에도 향교의 제위는 지역마다 달랐다. 포천은 동·서무가 없었고 12현을 정전에 배향하고 있었다. 제도를 물어서 양무를 더 설치하는 쪽으로 결정이 났다.<sup>16)</sup> 폐하고 가난한 작은 읍에서는 조선말까지도 양무를 건립하지 못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

13) 『성종실록』권181, 성종 16년 7월 10일.

14) 이종석, 「안동향교의 연구」, 『안동한문학회연구』1집, 1990, 289~290쪽.

15) 조상순, 「조선 중기 이전 향교건축의 형성과 전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논, 2012, 153~156쪽.

16) 『영조실록』권68, 영조 24년 8월 11일.

왔다. 이런 양무 건립의 추세를 감안하면 조선초기부터 양무를 갖추고 향사를 지내왔다는 점에 강릉향교 양무가 지닌 역사적 의미는 남다르다.

「향교중건발」(1413)에서 동·서무의 규모는 퇴가 없는 3칸이라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 동·서무 규모는 5칸에 달해 언제인가 2칸을 늘렸음을 알 수 있다. 그 시기는 앞서 검토한 기문에서 분명한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 동·서무의 건축적 가치

1413년에 3칸으로 건립된 동·서무는 언제인가 5칸으로 규모를 늘렸고 1623년에 대성전과 함께 중창한 이후 여러 차례 유지보수를 위한 소규모 수리를 거쳐 지금에 이르는 건물로 판단된다. 양무를 2칸 더 늘인 이유는 향교 설위의 변화 즉 신위가 증가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동·서무는 강릉향교뿐 아니라 대부분 간소한 구조로 지어지는 편이어서 두드러진 건축적 가치를 발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강릉향교 동·서무 역시 초익공에 삼량가의 단칸 건물이어서 이곳만의 차별화된 기법과 시대특징을 발견하기 어렵다. 다만 일시에 지은 건물이 아니라란 점은 북쪽으로는 대성전을, 남쪽으로는 전랑에 근접한 현황을 통해서 짐작이 간다. 현재 동·서무 건물에서도 이러한 시기별 증건을 짐작할 수 있는데, 간살의 차이, 동무는 촛가지를 낸 초익을 쓴 반면에 서무는 몰익공을 사용하였다. 삼량가를 결구한 부재 가운데서도 동무는 판대공으로, 서무는 각대공을 쓰고 있다. 동·서무가 기능은 같지만 시기별로 보수 내지는 중수하면서 당대의 기술력이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가구구조로만 보자면 판대공을 사용한 동무보다凸자형 각대공을 사용한 서무의 기법은 양무의 시기 규명이나 기법 면에서 관심을 둘 요소임은 분명하다.

동·서무는 공통점은 대지 경사를 처리한 방식에 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경사진 대지에 5칸 규모의 건물을 앉히기 위해서 기둥길이에 차이를 두어 지반이 높은 북쪽은 키가 작은 기둥을 쓰고, 지반이 낮은 남쪽은 키가 큰 기둥부재를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건물의 수평을 유지한 점은 돋보이는 대처라고 할 수 있다.

강릉향교 동·서무는 설위에 따라 5칸으로 지었으며, 공문의 제자와 우리나라의 유선(儒先)을 종사하는 사당 형식의 건물로서 격식을 충실히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 3) 전랑(前廊)

제향영역을 구분 짓는 출입문 신문과 좌우로 달린 낭은 하나의 건물인데 강릉향교의 기문에서는 이름이 여럿으로 나타난다. 전랑, 행랑, 내랑, 월랑 등으로 적혀 있어 정리가 필요하다. 빈도수 면에서는 월랑이 많이 쓰였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신문 좌우의 낭이 지닌 의미가 드러나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 신문과 낭의 기능을 겸하는 건물로서

의 의미가 부각된 명칭이 필요한데, 가장 이른 기록에서 사용한 전랑으로 쓰기를 우선 제안한다.

전랑은 「향교중수기」(1493)에 처음 등장한 이래 「성전월랑중수기」(1721)에 다시 나타난다. 규모는 12칸인 시기도 있으나 1800년대를 전후하여 현재와 같은 규모인 9칸으로 정착되었다. 현 건물은 기록으로 보면 19세기 후반에 중건된 모습을 근간으로 한 건물로 보인다.

전랑은 향교의 제향공간을 구분 짓는 건물로 보통은 삼문을 두고 그 좌우는 담장을 쌓아 영역을 분리하는 편이다. 다른 향교에서는 유사한 기록도 거의 찾아지지 않고, 실물은 더욱 드물다. 기록만 남아 있는 사례로는 안성향교를 들 수 있는데, 『학교등록』에 내랑(內廊)이란 건물이 보이고 이름 글자가 시사하듯 강릉향교의 전랑과 같은 기능이 아닐까 싶다.<sup>17)</sup> 물론 실물은 남아 있지 않다.

전랑은 간소한 규모의 건물이어서 구조나 기법면에서 독창성은 드러나지 않으나 9칸에 달하는 긴 형태의 낭을 대성전 앞에 둔 점은 돋보인다. 이처럼 강릉향교 전랑처럼 신문과 행랑을 결합한 사례는 여타의 향교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 독특한 시설임에 틀림이 없다.

#### 4. 종합의견

강릉향교는 영동지방의 거진인 강릉도호부의 향교로서 고려시대에 가장 먼저 건립된 교육기관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이런 가치를 인정받아 이미 대성전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향교를 구성하고 있는 건물 가운데 명륜당과 동·서무, 전랑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가치가 인정된다.

명륜당은 조선초기에 독립 건물로 존재하다가 17세기 초반에 누각을 수리하여 명륜당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명륜당은 1644년 중창하여 이후 소규모 수리를 거쳐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강릉향교의 남루는 조선초기부터 11칸 장루 형태를 취하고 있었으며 17세기 이후 누각을 명륜당으로 전용하여 향교 장루의 전통을 계승한 사례이다. 유사한 사례로 강원도 일부 향교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강릉향교 명륜당은 그 가운데서도 규모가 크고 건축 격식이 뛰어나다.

강릉향교에서는 계수관급 이상 향교에서 갖추는 동서무를 조선초기부터 건립하여 향사를 지냈다. 이 점은 조선전기까지도 많은 여타 군현에서 동·서무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시대여건에 비추어 각별한 의미가 있다. 그 형태는 전퇴를 두지 않은 것으로 조선초기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으며 지방 향교 동·서무 가운데서 이른 시기의 사례에 속하고 17세기 초반에 중창한 건물로서 ‘무’로서의 갖춰야 할 건축적 격식이 충실하다.

17) 『학교등록』권5(규12877) 1680년 윤경신윤팔월십일일, 啓下是白有亦向前安城郡郷校 聖廟東西廡神門內廊等處及大聖位以下檣板 趺方修改時….

전랑은 조선초기 기록에서부터 확인되며 현재의 건물은 19세기 무렵 현재 규모로 정착되었다. 향교 제례공간에 전랑을 두는 방식은 조선전기 향교 의례에서 주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추정된다. 향교의 전랑은 안성향교 등 일부에서 사료가 확인될 뿐이고 현존하는 건물로는 강릉향교 전랑의 거의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종합할 때 강릉향교 명륜당과 동·서무, 전랑은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된다.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0.06.10	대상문화재	강릉향교 명륜당, 동·서무, 내신문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건축역사
	소 속	○○○○○○○학교	직위(직책)	부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 지정문화재 보물		
	문화재 명칭	강릉향교 명륜당, 동·서무, 내신문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 년 10 월 10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1.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강릉은 본래 예(穢)의 땅으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강릉이라는 명칭이 사용된 것은 1308년(고려 충렬왕34) 강릉부(江陵府)로 편제되면서부터이다. 1389년(공양왕1) 강릉대도호부로 승격된 이후 조선시대에도 강원도 제일의 읍치로 기능해왔다. 강릉읍성은 원래 토성이었던 것을 1512년(중종7)에 석성으로 개축하였으며, 둘레가 2,600척, 높이가 10척이었다고 한다. 읍성의 동서남북으로는 가해루, 망신루, 어풍루, 빙허루가 있어서 성문의 기능을 했고, 중심에는 이전부터 존재했던 오래된 관아와 객사가 아직 남아있는데 칠사당 건물과 임영관 삼문이 그것이다. 관청지역은 1990년대 후반부터 발굴조사에 착수하여 2000년대에 중대청과 전대청, 동익현, 서익현을 비롯한 주변 정비공사를 시행하여 복원을 완료했다.

강릉향교는 대도호부로부터 북쪽 3리 떨어진 화부산 자락에 자리를 잡았다. 화부산의 형태는 동쪽으로 약간 열려있는 항아리 모양으로 좌청룡 우백호를 갖추고 있고 트인 앞쪽으로 남대천이 흐르고 있어 풍수론에 의해 입지가 결정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현재 강릉향교가 위치한 지역의 행정명칭은 교동으로서 강릉향교의 오랜 역사와 영향력을 증명하고 있다.

강릉향교는 1313년 김승인이 설립한 것으로 전하며, 이후 1413년 이맹상에 의해 옛 터에 재건되었고, 이후 다수의 중건, 중창 기록은 모두 같은 자리에서의 건축 사업을 기록한 것이다. 근대기에는 1909년에 신문학을 연구하기 위해 화산학교를 명륜당에 개교하였다가 다음 해 한일합방이 이루어지면서 1911년 강제로 폐교되고 양잠전습소가 설립되었다. 또 1922년에는 수선강습소가 설치되었고, 1928년에는 강릉공립농업학교가 개교하였으며, 1938년에 강릉공립상업학교, 1940년에 강릉공립고등여학교, 1943년에 옥천초등학교, 1949년에 명륜중·고등학교 등이 잇달아 개교하였다. 이들 대부분은 모두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명륜당 건물을 주요한 교사로 이용하였다.

1930년대에 발간된 『증수 임영지』에는 강릉향교에 교장 1인, 장의 1인, 유사 2인, 교생 90인, 모입인 40인이 있었다고 했으며, 대성전 15칸, 동·서무 각 5칸, 전랑 9칸, 명륜당 22칸, 동·서재 각 10칸, 제기고 3칸, 생포사 3칸, 석채 때 취반소 3칸이 있었다고 한다. 대성전 내에는 5성과 16철현을 봉안하고, 동·서무에는 중국 97현, 우리나라 18현의 신위를 모셨다.

강릉향교 대성전은 1963년에 보물 제214호로 지정되어 일찍부터 가치를 인정받았다.

대성전은 1486년에 관찰사 홍귀달이 중수한 것을 원형으로 추정하며, 기단, 배흘림기둥, 헛첨차 등에서 조선전기의 양식을 간직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첨차 하단의 연화두형 초각, 살미의 형태, 살미와 보 사이의 간격 등이 양식사의 주요한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 2. 연혁·유래 및 특징 :

강릉향교 건축과 관련된 가장 오래된 기록은 『강릉향교실기문류』에 수록된 강릉도 존무사(江陵道 存撫使) 김승인(金承印)의 시문으로 1313년의 기록이다. 이에 따르면, 옛날에 내외향교가 있었는데 전쟁으로 불에 탄 지 거의 200년이나 흘러 그 옛터가 어느 곳인지 알 수 없게 되었으며, 이후 공부하는 젊은이들이 사찰의 승방에 의지하는 것이 안타까워 향교를 짓게 되었다고 한다. 이어지는 율시 10운에는 건축의 구성을 묘사하는 부분이 등장한다. 곡돌(曲堞)을 설치한 6칸을 나누어 양무(동무와 서무)를 짓고, 난간을 100척이나 두른 남루(南樓)를 세웠다는 부분이다. 곡돌을 취사 또는 난방 설비로 이해한다면 양무는 생활공간을 묘사한 것일 수도 있다. 남루는 화려하고 거대한 누각이었을 것이다.

다음에 등장하는 기록은 강릉대도호부 판관 이맹상의 발문으로서 1413년 8월의 글이다. 여기서 1313년 가을에 창건된 향교가 1411년 겨울에 불에 탔다고 하며, 이에 1412년부터 준비를 시작하여 1413년에 옛터에 향교를 중건했다고 한다. 이 기록은 공사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는데, 향교의 건축물이 성전 3칸 전후퇴, 동서무 각 3칸 무퇴, 명륜당 3칸, 동서협실 각 2칸, 동서재 각 3칸, 남루 11칸 이상 전후퇴, 고사 3칸 전퇴, 주사 3칸, 마구 3칸 이상 전후퇴로 기록했다. 이맹상의 발문에서 1413년 강릉향교 공사가 옛터에 다시 지은 것이라는 점, 또한 대성전과 명륜당이 3칸 전후퇴집이라는 점, 그리고 14세기에 처음 지었던 100척 난간의 남루가 11칸 전후퇴집으로 복구되었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공사는 약 70년 후에 이루어졌다. 당시 강원도 관찰사였던 홍귀달이 1485년 강릉에 방문한 것을 계기로 1486년에 대성전과 동서무를 짓고, 1487년에 동서재, 강청, 전사청, 제기고, 교수아, 유사방을 지었으며, 1488년에 남루와 전랑청을 지어 총 70여 칸의 웅려한 향교가 되었으니 그 규모가 다른 향교와 비할바가 아니라고 했다. 홍귀달은 1493년에 늦게 중수기를 지어 공적을 기념했다.

이후 임진왜란을 겪으며 수리를 하지 못해 여러 건물이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명륜

당중수기」(1623)에 따르면 1610년에서 1613년 사이 부사 김륵과 정경세가 대성전과 동서무를 중수하고, 마당에 연못인 천운지(天雲池)를 파고 동구에 하마비를 세웠으나, 명륜당만은 중수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에 김몽호 등이 의기투합하여 1623년 2월 24일에 공사를 시작해서 3월 18일에 명륜당 중수를 마치게 된다. 이때 중수한 명륜당의 규모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무너져가는 명륜당이 44칸의 층루였다고 하여, 1413년에 지은 11칸 전후퇴집 구조가 계승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0년 뒤 1644년 2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 오래된 목부재를 교체하고 석축을 보강하는 공사가 있었다. 1696년의 공사는 8월에 시작하여 4개월이 소요되었는데, 부재가 낡은 것을 교체하고 건물의 규모를 키웠으며 전면에 판문을 설치하고 동쪽 모퉁이에 고주를 세웠다고 한다. 다음에 등장하는 명륜당 관련 기록은 1813년의 중수기인데, 옛 초석을 따라 2월에 시작한 공사가 7개월이 걸려 준공을 보았다고 하여 평면상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근대기에 1909년 화산학교를 시작으로 1943년 옥천국민학교까지 많은 근대학교들이 명륜당을 교사로 사용하면서 바닥에 장마루를 설치하고 유리창을 설치하는 등의 개조가 있었으나 평면과 구조상의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한 것은 아니었다.

이를 종합해보면, 1413년 재건 이후 강릉향교는 대성전 3칸, 동서무 각3칸, 명륜당 3칸, 동서재 각3칸, 남루 11칸 및 기타 건물로 구성되어, 중수를 지속해왔다. 명륜당 건물은 남루와는 별개의 건물로서 3칸 전후퇴집으로 존속했다. 그런데, 임진왜란 이후의 기록부터는 남루라는 명칭이 사라지고 명륜당이 11칸 건물을 지칭하는 말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므로 현재 명륜당 건물은 처음에 남루로 건축된 건물로서 원래 명륜당 건물이 복구되지 못한 사정에 의해 용도가 변경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또한 1413년에 남루를 전후퇴집으로 기록한 점과 1623년에 무너져가는 명륜당을 44칸으로 표현한 점으로 미루어 원래의 남루는 현재의 명륜당보다 더 큰 규모의 건축물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요컨대, 현재 명륜당 건물은 11칸 남루의 주열을 유지하면서 측면규모 또는 가구 형식을 변경한 결과이며, 이 공사는 1623년 또는 그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1413년의 상황과 현황이 다른 것은 동서무와 동서재의 규모도 마찬가지이다. 동서무와 동서재는 모두 3칸 건물이었으므로, 현재처럼 5칸 건물이 된 것은 적어도 1486년 공사 이후로 볼 수 있다. 또한, 대성전 앞의 전랑과 신문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1721년의 「성전월랑중수기」인데, 여기서는 전랑 12칸과 신문이 곧 무너지게 될 지경이라 수선만으로는 원형을 찾을 수 없었기에 헐어내고 새로 짓되 그 규모를 크게 하여 전의 것에 못지않게 했다고 했다. 현재 전랑이 9칸이고 한 칸의 치수가 7~8척 정도임을 고려하면,

18세기의 13칸 전랑은 지금보다 규모가 더 컸을 수도 있지만, 현재의 전랑이 마당을 딱 채우고 있으므로 가능성은 희박하다. 1862년 「월랑급재방중건기」에서는 월랑이 9칸이며 창건한지 70여 년이 지났다고 했으므로, 전랑의 현황 조성시기는 18세기 말이 유력하다.

현 강릉향교 명륜당은 정면11칸, 측면2칸의 중층건물로서 현존하는 향교 명륜당 중 가장 큰 규모이다. 지붕은 맞배지붕 홑처마로 구성했고, 양곡 등의 처리 없이 직선적인 조형을 구현했으며, 측면에는 풍판을 달지 않고 구조를 노출했다, 경사지에 자리한 명륜당은 자연석으로 세벌대를 바른층쌓기 후 장대석 외벌대로 마감한 기단 위에 놓였다. 기단은 평평하지 않고 전면이 낮아지도록 경사를 두어 배수를 용이하게 했으며, 어칸 아래로는 계단을 두어 마당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했다. 기둥이 놓이는 초석은 자연석에 가까운 형태이지만 최소한의 가공을 더해 상면을 가급적 평평하게 했다. 기단이 경사져 있고 초석의 모양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기둥의 높이를 조절하여 건물의 수평을 맞추었다. 하층 바닥에서 귀틀까지의 높이는 가장 높은 곳이 약 1.8m로서, 후면의 마당 및 동서재 건물과 높이를 맞추기 위해 하층의 비율을 줄인 것으로 예상된다. 명륜당 상층 실내는 내부에 기둥을 두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공간으로 사용하며, 우측 퇴칸 한 칸만 구획하여 생활공간으로 꾸몄다. 그러므로 다른 모든 칸에는 우물마루를 설치했다. 매 칸의 벽체는 머름을 두고, 그 위에 여단이 사분합 세살문을 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전후면에서 동일한 입면 디자인이 나타난다. 창호의 형식은 일제시기에 유리창을 달았던 것을 복구한 것으로 원형은 알 수 없다.

명륜당의 칸 치수는 어칸이 3,440mm로 약 11척에 근접하지만, 동쪽의 다섯 칸은 2,920~3,065mm 사이, 서쪽의 다섯 칸은 3,050~3,460mm 사이로 실측되어 좌우의 칸 치수의 차이가 크다. 이렇게 불균질한 치수가 나타나는 이유는 잦은 수리과정에서 기둥의 위치가 이동했거나 용척이 혼용되었던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가구는 무고주 오량가 형식을 취했으며, 실내에 구획이 없으므로 건물폭 전체를 가로지르는 대들보들이 이루는 장면이 인상적이다. 대들보는 원목의 자연스러운 느낌을 살렸고, 춤은 약 450mm 내외로 측정되었으며, 정방형에 가까운 단면을 취하고 있다. 대들보 위에는 동자기둥을 얹고 보아지와 행공을 짜 맞춘 다음 주두를 얹어 종보와 중도리 장여를 받쳤다. 종보 위에는 판대공을 두었는데 장여와 중도리가 끼워질 수 있도록 홈을 팠다. 도리는 모두 굴도리이며, 도리의 단면치수가 역학적 성능과는 반대로 주심도리, 중도리, 종도리 순으로 점차 굵어지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에는 도리의 밑면을 반듯하게 깎아 장여와 밀착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했는데, 이것은 강릉문묘 대성전 실측조사보고서에도 동일한 내용이 등장하므로 명륜당 건축의 연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명륜당의 익공 부위는 특이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관에서 초익공이 가늘고 창방이 두텁기 때문에 마치 초익공이 창방 위에 걸터앉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또, 주두 위에는 이익공 형식에서 볼 수 있는 도리방향 침차를 올렸다. 그러나 이익공을 두지 않고 보머리를 주두 위에 바로 얹었기 때문에, 침차가 주두에서 좌우로 자라난 것 같은 착시를 일으킨다. 일반적인 초익공 형식에서 창방과 장여 사이의 틈을 소로 높이에 맞추는 것과는 달리, 주심에 침차가 삽입됨으로써 틈이 넓어졌고 매 칸마다 중간에 화반이 삽입되었다. 이와 같이 초익공과 이익공의 절충 형태로 공포가 짜여 있는 점은 강릉향교 명륜당의 가장 큰 양식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형태가 건물의 층고를 높이기 위한 의도적인 장치인지 수리과정에서 융통성을 발휘한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한편, 초익공 위 보머리의 가공은 어칸 부분과 협칸 부분에 서로 차이를 두었는데, 어칸에서는 마구리를 직절하여 오각형 모양을 만들었고 협칸에서는 삼분두 형태로 머리를 내밀었다.

강릉향교에 봉안된 위패의 수는 총 136위인데, 대성전에 21위, 동무에 58위, 서무에 57위를 봉안하고 있다. 동무와 서무는 각각 5칸 건물로 대성전 앞마당의 좌우를 채우고 대성전의 측면까지 뻗어있다. 원래 3칸이었던 건물이 5칸으로 확장된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두 건물은 모두 홀처마 맞배지붕이며, 외별대 기단 위에 막돌 초석을 두고 기둥을 세웠고, 실내에는 방전을 깔았다. 칸 치수는 11척인 것과 12척인 것이 섞여 있으며, 서무에는 13척 치수도 나타난다. 두 건물 모두 전면으로 가운데 세 칸에 이분합 청판 세살문을 설치하였고, 좌우 끝칸에는 사룡창을 설치했다. 사룡창은 중방을 잘라내고 중방의 아래선에 정렬하여 끼웠다. 창틀의 모서리는 연귀 맞춤으로 되어있고, 각 연귀에는 박달나무 못을 사용했다. 살대는 폭이 넓은 막대를 좁은 면이 보이도록 돌려 세웠는데, 안쪽으로 둥글게 파내어 고풍스러운 느낌을 주고 채광과 환기에 유리하도록 제작되었다.

거의 동일한 형식으로 건축된 동무와 서무이지만 목구조 세부에서는 차이가 있다. 동무의 초익공은 외부로는 수서형의 쇠서를 내밀었고 내부의 보아지 부분은 물익공에 가까운 형태로 둥글려졌다. 보머리를 직절한 대신 쇠서형의 장식부재를 부착해서 익공의 장식성을 강화했다. 창방과 장여 사이에는 매 칸 3구씩의 소로를 끼웠다. 이와는 달리 서무의 초익공은 내외부가 모두 물익공의 형태를 취하는데, 외부에서 보이는 익공은 마구리가 직절되어 있고, 실내 보아지 부분은 서로 양식이 다른 형태가 섞여있어서, 수리과정에서 부재의 규격을 맞추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공 부분도 차이가 있다. 동

무의 대공은 3매의 판재를 맞댄 판대공으로서 일반적인 형태이지만, 서무의 대공은 판대공이 아니라 동자대공이며, 아래 부분에 받침을 끼워 철(凸)자형이다. 받침 부재는 끝을 둥글려서 배계의 모양을 취했다. 동무와 서무의 익공에 나타나는 형태와 문양은 대성전의 익공과 양식적인 유사성이 발견된다.

대성전 영역을 감싸는 전랑이 신문을 포함 총 9칸이 된 것은 18세기 말로 추정할 수 있지만, 그 구조와 양식은 그보다 오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주칸은 대략 7척에서 8척 사이로 매 칸이 다르다. 기둥 위는 사괘를 트고 장여와 보를 십자로 맞추어 끼운 후 주두 없이 바로 처마도리를 얹었다. 보머리는 삼분두로 마감했는데, 대성전과 명륜당 협칸의 처리방식과 동일하다. 대들보 위에는 중앙에 동자대공을 세워 종도리와 장여를 받쳤다.

전랑의 가운데 칸은 문을 내어 신문이 되는데, 솟을지붕을 만들기 위해 구조 전체를 높였다. 구조의 높이는 좌우 칸들의 종도리 위치에 어칸의 보를 맞추는 것으로 정리했는데, 이때 종도리 아래 장여를 결구시키기 위해, 보 아래에도 장여와 수장폭이 동일한 부재를 받쳤다. 이에 따라 겹보와 같은 형태가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솟을 대문 아래에서 보뿔목 밑에 초익공과 유사한 장식이 돌출되는 효과를 얻었다. 협칸의 기둥들이 약 1.8m의 높이를 지니는데 비해, 신문의 기둥은 3m에 달하지만, 직경을 두텁게 하지 않아서 규칙적이고 단정한 입면을 형성한다. 출입문은 좌우 협칸의 창방 위치에 맞춘 중방과 주춧돌 위 지방 사이에 문설주를 세워 두 짝 여닫이 판문으로 설치하였고, 중방 위 남은 공간에는 홍살을 설치했다. 솟을지붕의 서까래는 약 120mm 지름의 원형서까래를 사용했는데, 주심도리 바깥으로는 면을 가공하여 사각형의 단면이 드러나도록 했다. 따라서 솟을지붕은 얼핏 겹처마의 인상을 줄 수 있도록 계획되었으며, 삼문의 형식을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 3.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

강릉향교 명륜당, 동·서무, 내신문은 14세기 창건 이후 지속적으로 재건된 건축물로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대한민국의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강릉향교 명륜당은 14세기에 창건된 거대 누각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1313년 김승인에 의한 향교 건설에서 100척의 난간을 두른 남루를 세웠다는 기록이 있고, 이는 1413년에 11칸의 전후퇴를 갖는 누각으로 재건되었으며, 17세기 이후 남루가 명륜당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가구형식을 조정하는 과정에서도 그 위치와 규모를 고수해왔

다. 강릉향교 명륜당은 현존 향교의 건축물 중 가장 규모가 큰 누각으로서 창건 이래 반복적으로 건축되고 수리되면서 강릉향교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둘째, 강릉향교 명륜당은 강릉지역의 오랜 교육의 역사를 증명하고 있다. 14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가는 향학의 역사는 강릉 지역의 특별한 교육 전통을 형성했고 지역민들이 힘을 합쳐 지속적으로 향교를 중수하면서 이어져왔다. 교육사에서 강릉향교가 지니는 상징성은 근대 시기 화산학교, 양잠전습소, 수선강습소, 강릉공립농업학교, 강릉공립상업학교, 강릉공립고등여학교, 옥천초등학교, 명륜중·고등학교까지 모두 강릉향교, 특히 명륜당 건물에서 개교하였다는 점에서도 증명된다. 이를 위해 바닥이 장마루로 바뀌고 유리창을 설치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으나 역할을 다한 후 원상으로 복구되었다.

셋째, 강릉향교 명륜당의 공포 양식은 초익공과 이익공의 절충 양식으로 파악된다. 주심의 첨차와 주간의 화반 등은 이익공 양식의 특징이지만 이익공과 채주두가 생략된 채 주두 위에 바로 보머리를 얹음으로써 독특한 형태의 구성으로 귀결되었다. 이와 같은 형태가 지방색이 반영된 하나의 양식인지 수리과정에서의 우연한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강릉향교의 동무와 서무는 원래 3칸 건물이 5칸 건물로 확대되고 수리과정에서 양식이 혼용되었으나, 정성스럽게 제작된 사룡창, 배개 모양 받침을 갖는 동자기둥, 둥글게 감아올린 보아지의 초각 등에서 고식의 건축기법이 계승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강릉향교의 내신문과 전랑은 18세기 동안 전체 칸수의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보머리의 삼분두 형태 등을 고려해볼 때 그 이전의 구성형식을 계승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 신문으로서의 격식을 드러내기 위해 어칸의 기둥을 높이고, 보아래에 인방재를 추가하여 초익공과 유사한 머리장식을 돌출시켰으며, 서까래의 단면을 조절하여 겹처마의 느낌을 가미한 점 등에서 건축적 탁월성을 보여준다.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0.06.10	대상문화재	강릉향교 명륜당, 동·서무, 내삼문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 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강릉향교 명륜당, 동·서무, 내삼문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강릉향교는 조선 초기 향교건축의 형식을 잘 간직하고 있어, 역사·문화적 가치와 의미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바,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타당함.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 년 08 월 30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강릉향교는 백두대간의 등줄기 중 하나인 대관령으로부터 뺏어 내려온 지맥의 끝자락인 화부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에는 강릉명륜고등학교 정문으로 진입하여 그 오른편에 있으며, 향교 맞은편으로는 고등학교 건물과 운동장이 자리하고 있어, 건립 당시 환경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강릉향교의 건물들은 화부산 자락 경사지에 조성된 상하 두 단에 차례로 놓이는데, 강학공간이 아래의 단에, 제향공간이 위의 단에 놓이는 이른바 전학후묘 배치를 하고 있다. 또한, 다른 향교에 비하여 경사가 비교적 심하여 강학공간과 제향공간 사이에는 높은 석축과 계단이 설치되어 있다.

아래의 연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강릉향교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열악한 교육환경에서도 교육의 장을 제공하여 근대 교육의 맥을 이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 □ 연혁·유래 및 특징

기록에 의하면, 강릉향교는 고려 충선왕 5년(1313)에 강릉 존무사 김승인에 의해 창건되었다. 이후 조선 태종 11년(1411)에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태종 13년(1413) 옛터에 다시 세워졌으며, 성종 16년(1485) 중수가 시작되어 4년만에 완공되었다. 성종 17년(1486)에 성전과 동서무가, 그 다음 해에 동·서재, 강청, 전사청, 제기고, 교수아, 유사방이, 그 다음 해에 남루와 전낭청이 각각 건립되었다. 명종 10년(1555)에는 향교를 중수한 기록이 전해진다.

17세기에 이르러, 광해 2년(1610)에는 동·서무와 명륜당이 중수되고, 명륜당 앞 천운지라는 못이 조성되었다. 인조 원년(1624)에 중수되었고, 인조 22년(1644)에 명륜당이 수리되고, 명륜당 동쪽 석축이 축조되었다. 효종 2년(1651)의 중수 기록이 전해지며, 현종 10년(1669)에 대성전이 중수되었다. 숙종 10년(1648)에 전사청이 조성되었고, 22년(1696)과 26년(1700)에는 각각 명륜당과 동·서무가 중수되었다.

18세기에는 경종 원년(1721)에 대성전, 월랑, 중문이 중수되고, 영조 14년(1738)에 정양재가 중건되었다. 영조 52년(1776)에 재방이, 정조 11년(1787)에 대성전과 동·서무가 각각 중수되었다. 정조 24년(1800)에는 성전이 중수되고 일부 단청이 보수되었다.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순조 7년(1807)에 전무가 수리되고 서재가 중건되었으며, 순조 13년(1813)에 명륜당이, 25년(1825)에 동재가 각각 중수되었다. 철종 13년(1862)에는 성전, 월랑, 재방이 중건되었다. 고종 4년(1867)에는 제기고와 취반소가, 6년(1869)에는 성전, 명륜당, 서재, 직사, 공유소가, 20년(1883)에는 성전이, 28년(1891)에

는 동재가 각각 중수되었다. 광무 원년(1897)과 2년(1898)에는 누방과 동재가 각각 중수되었고, 8년(1904)에는 성전 기와가 교체되고 성전 뒤 낮은 담장과 문이 설치되었다. 이후 융희 원년(1907)에는 동·서재 판문과 누방의 문이 새로 만들어졌고, 3년(1909)에는 명륜당에 화산학교가 개교되었다.

대한제국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1911년에 화산학교가 폐지되고 양잠전습소가 설립되었으며, 1917년에는 동·서무와 명륜당이, 1920년에는 제기고가, 1921년에는 성전과 동·서무가 각각 수리되었다. 1922년 명륜당에 수선강습소가 설치되었고, 1926년에 성전이 수리되었으며, 1928년에는 명륜당에서 강릉공립농업학교가 임시 개교되었다. 1932년 명륜당 기와 및 단청 공사가 실시되었고, 1938년, 1940년, 1943년에는 향교에서 강릉공립상업학교, 강릉공립고등여학교, 옥천국민학교가 각각 개교되었으며, 1949년에는 강릉향교 재산으로 명륜중고등학교가 향교 구내에 설립되었다. 1962년에는 명륜당과 서재가 중수되고, 동재가 중건되었다. 1971년 동·서무가 중수되고 향교 주변 담장공사가 실시되었으며, 1979년에 대성전, 동·서무, 동·서재, 명륜당, 신삼문이 중수되었다. 1984년에 대성전, 동·서무, 명륜당, 전랑의 기와가 교체되고, 전랑 입구 화강석 계단이 설치되었으며, 1987년 동·서무, 재실, 육고 등이 개수되었다. 1989년에는 대성전, 동·서무, 명륜당이 중수되고, 명륜당 앞 출입문과 신문, 우측 출입 소문이 신축되었다. 1992년에는 명륜당, 동·서재가, 1994~95년에는 명륜당, 재실, 삼문, 대성전, 동·서무가 각각 보수되었다. 2000년에 동무 기와가 보수되고, 2001년에 대성전, 중문채, 협문이 보수되었다. 2002년에는 대성전 바닥이 정비되고, 2004년에 재방, 동·서무의 단청이 실시되었으며, 또한 대성전과 명륜당이 보수되었다. 2005년에는 재방이, 2006년에는 동·서재 지붕과 협문이, 2007년에는 서무 지붕이 각각 보수되었다. 2019년에 명륜당 우물마루와 지붕 기와가 교체되고, 단청이 새로 실시되었다.

금번 지정 대상인 명륜당, 동·서무, 내삼문의 건축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명륜당은 강학공간의 중심으로서 유교 이념교육을 실현시키기 위해 건립된 공간이다. 강릉향교 명륜당은 정면 11칸, 측면 2칸의 홀처마 맞배지붕 건물로서 전국 향교 명륜당 중 가장 큰 규모이며, 인근 간성향교와 같은 누각형 건물이다. 따라서, 원래는 누하진입이 가능하였으나, 현재에는 후면 누하주 사이를 목책으로 막아놓아 명륜당 동측 협문으로만 진입할 수 있다. 일부 경사진 기단면에 자연석 초석을 놓고 그 위에 기둥이 설치되었다. 건물 내부는 동측 퇴칸 온돌 시설 이외에는 모두 우물마루로 구성되며, 건물 후면에는 따로 쪽마루 형태의 장마루가 설치되었는데, 이는 후대 변형된 것으로 보인다. 가구 구조는 5량가인데 대들보 위에 동자주를 놓고 중보를 받쳤으며 중보와 중도리 사이에는 판대공이 사용되었다.

동·서무는 선현의 위패를 모시는 공간으로, 제향공간 내 대성전 전면 좌우에 대칭으로 놓인다. 강릉향교 동·서무에는 중국 97현, 우리나라 18현의 위패를 모시고 있으며,

동무에는 홍유후 설총 이하 58위가, 서무에는 문창후 최치원 이하 57위가 각각 봉안되어 있다. 동·서무 건물의 형태나 규모는 거의 같은데, 정면 5칸, 측면 1칸 규모의 단층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외별대 기단에 자연석 초석이 사용되었으며, 건물 내부 바닥은 전돌로 마감되었다. 상부 가구는 3량가이며, 연등천장으로 되어 있다. 정면 5칸 중 중앙 3칸에는 문이, 좌우 퇴칸에는 세로살창이 각각 설치되어 있다. 이 세로살창은 채광과 환기를 위한 것이나, 현재에는 창호지를 발라 놓아 환기에는 불리한 구조이다. 동무와 서무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익공과 종도리 형태를 들 수 있는데, 동무에는 초익공과 판대공이, 서무에는 물익공과 각대공이 각각 사용되었다.

내삼문은 제향공간의 출입문으로 전면 강학공간과 후면 제향공간을 구분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강릉향교 내삼문은 행랑형식으로 되어 있어 특이한데, 이는 향교 내 삼문 형식이 갖추어지기 이전의 형식으로 추정할 수 있다. 내삼문은 정면 9칸, 측면 1칸 규모의 단층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며, 정면 정칸과 좌우 퇴칸에 문이 설치되고, 나머지는 벽체로 마감되었다. 정면 정칸의 문은 솟을대문 형식이며, 문 상부에는 홍살이 설치되었다.

## □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릉향교는 원래의 입지에 위치하며 보물로 기지정된 대성전을 비롯하여 명륜당, 동·서무, 내삼문 등도 이전, 이축없이 건립 당시의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다.

특히, 강릉향교 명륜당과 내삼문은 조선시대 향교건축의 발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조선초 15세기 향교건축에서 명륜당이 건립되기 시작하였는데, 초기 향교에서는 명륜당과 문루가 비슷한 비중을 보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명륜당 대신 문루가 선택되는 경향도 있었다. 강릉향교 명륜당은 다른 일반 향교와는 달리 누각 문루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조선 초기 문루에서 명륜당으로 정착되는 과정의 과도기적 형태로 남아 있는 중요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강릉향교 내삼문도 다른 향교와는 달리 행랑형식을 보이고 있는데, 이 역시 향교 내 삼문 형식이 갖추어지기 이전 형식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강릉향교는 조선시대 완성된 향교건축 형식을 갖추기 이전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 □ 참고문헌

문화재청·강릉시,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 - 강릉향교 명륜당, 동·서무, 내삼문』, 2020.6

조상순, 『조선 중기 이전 향교건축의 형성과 전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국립문화재연구소, 『유교건축총서 제2집 - 강원도의 향교건축』, 2001

### 3. 수원향교 대성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 가. 제안사항

경기 수원시 소재 「수원향교 대성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기 수원시 소재 「수원향교 대성전」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경기도지사
- (2) 대상문화재 :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호 「수원향교」
  -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07-9 (교동 43)
  - 지정일 : 1983. 09. 19.
-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 명칭 : 수원향교 대성전(水原鄉校 大成殿)
  - 소유자(관리자) : 경기도향교재단(수원향교)
  -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07-9 (교동 43)
  - 조성연대 : 조선시대(1636년 건립 추정, 1789년 이건, 1795년 증건)
  - 수량 : 1동
  - 지정면적 : 238.7㎡(보호구역 4,871.3㎡)
  - 양식 : 정면5칸, 측면3칸, 초익공, 2고주 7량가, 겹처마, 맞배지붕

라. 현지조사의견(2020.09.02.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마. 지정조사보고서 : 붙임참조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원안가결 10명, 부결 1명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0.09.02	대상문화재	수원향교 대성전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속		직위(직책)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수원향교 대성전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 년 10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1. 입지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1) 입지현황

수원향교는 조선시대 수원부의 향교로서 현재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07-9에 위치하고 있다. 해발 145.5m 팔달산 아래 구릉지에 자리하고 있으며, 조선후기 수원 읍치와는 3리 거리에 떨어져 있다. 근대 이후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향교 주변은 발 빠르게 변모하였으나 최근에는 다소 낙후된 도심지에 남아 있다. 주변은 저층이지만 현대식 건물들이 밀집해 있어 향교 진입부가 쉽게 눈에 띄지 않는 단점이 있다.

근대 이전의 수원향교 입지는 지금과 달랐다. 야트막한 팔달산을 뒤로 두고 나머지 삼면은 다 트여있는 개활지였다. 서쪽에 위치한 팔달산으로 인해 수원부 관아는 동향으로 배치되었으나 객사만은 북쪽에 앉혀서 남향으로 좌향을 잡았다. 이에 비해서 향교는 남문인 팔달문 밖으로, 수원부의 주요 건물들이 대부분 팔달산 동쪽에 위치한 데 비해서 향교는 팔달산 남쪽에 들어섰다. 1872년에 그려진 「지방지도」를 보면, 해발 582m인 광교산에서 흘러내려온 산줄기가 화성에 닿아있고, 화성 서쪽의 팔달산을 진하게 그려 화성의 진산임을 묘사하고 있다. 팔달산 정상에서 남쪽으로 흘러내린 산줄기가 향교를 서쪽으로 휘감듯 그려져 있으나 지금은 시가지 틈 사이에 있게 된 수원향교에서는 인식하기 어려운 경관변화라 할 수 있다.

현재 향교 앞으로 500m 지점에는 수원천(水原川)이 동북쪽에서 서남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주변으로는 동쪽 담장 밖에 유림회관이, 북쪽 후면에는 수원시립중앙도서관이 있고, 그 서편으로 수원문화원이 자리하고 있다. 향교 서북쪽에는 경기도청 청사가 위치하고, 바로 인근 서쪽에는 인근으로 매산초등학교 등이 있다. 향교 전면은 소규모지만 어린이공원이 있고, 저층 현대식 건물이 밀집해 있어 주변환경은 심각한 상황은 아니나 문화재 주변환경으로서 양호한 입지는 아니라고 보인다.

향교 담 안팎으로 몇 그루 수목이 남아있는데, 수종은 대부분 소나무이다. 특히 내삼문 앞 좌우에 은행나무가 각각 1그루씩 식재되어 있으며, 내삼문 안쪽에는 향나무가 몇그루 식재되어 있다. 서재 후면에는 대추나무가 몇 그루 있다.

외삼문 밖으로 홍살문과 하마비, 외삼문 전면 좌측의 비석군(3기), 협문 등이 향교 외곽에 남아 있다. 협문 밖의 유림회관은 2층, 4층 규모의 콘크리트 슬라브 건물로 예식장 등으로 쓰이고 있다.

### 2) 역사·문화 환경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밝힌 수원도호부의 범위는 현재 수원시를 중심으로 화성시와 오산시 등을 아우를 정도로 넓었다. 조선시대 행정구역은 수원(水原)은 현재 수원시의 경계, 면적과는 크게 다르다. 현 수원향교의 터는 수원부에 향교가 창건된 이후 세 번째 터에 해당된다. 명당으로 손꼽혔던 구 수원부 읍치, 향교 터에 현룡원이 들어서면서 새

수원부 읍치를 따라 향교도 현 위치로 옮겨왔다.<sup>18)</sup>

수원부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물과 연관이 깊은 읍치이다. 고구려 당시에는 매홀(買忽)이라 불렀는데 매(買)는 물의 변이음으로 보고 있고, 통일신라 경덕왕 무렵에 들어서 수성군(水城郡)으로 개칭되었으며, 고려시대에는 수주(水州)가 되었다.<sup>19)</sup> 지명을 낱개 한 물은 수원부에 분포한 여러 하천으로 짐작할 수 있고, 이 하천들은 현재의 남양만과 아산만에 연결되어 서해로 흘러갔으며, 하천 주변에는 창이 있어서 활발한 하천을 이용한 활동을 짐작할 수 있다.

구 수원부의 읍치는 현재 용릉(사적 제206호)가 있는 화성시 태안읍 안녕리 일대 [조선후기의 용복면(龍伏面) 지역] 에 자리하고 있었다. 지리지를 보면 구 읍치는 성황산-화산-홍법산-남산으로 이어지는 능선으로 둘러싸여 서남향을 하고 있다. 화산(花山) 고읍성 아래에 읍치를 두고 관내의 행정을 통할하였다. 산으로 둘러싸인 전형적인 읍치였지만 이곳은 삼남의 요충지이며 동시에 한양에서 하삼도로 내려가는 주요한 간선도로가 읍치를 지났다.

고려후기 이제현의 「운백루기」, 이색의 「수원보객사지정기」와 「규현기」, 조선초기에 신숙주의 「수원부동루기」 등 여러 글이 남아 있는데, 동헌과 서헌, 객사 등의 관아 건물과 객사 동쪽에 운금루라 불린 정자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8세기 말에 들어 수원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다. 정조의 생부 사도세자의 묘소인 현릉원을 옮기고, 더불어 신도시 화성을 축성하는 일이었다. 명당으로 손꼽히던 수원부 위치를 현릉원 이장지로 확정하면서 읍치를 현 수원으로 이읍하게 된 것이다. 구 수원부 읍치의 관아와 시설물은 물론 244호에 달하는 읍민들까지 현 수원시 팔달산 아래로 옮겼다. 정조의 절대적인 지원 아래 이뤄진 이읍으로 인해 이 지방도시는 일약 화성유수부(華城留守府)로 승격되어 서울 다음으로 중요시된 도시가 되었다. 수도를 옹위하는 개성·강화·화성·광주 등 네 유수부 가운데서 화성은 정치·경제·군사·문화면에서 가장 우월한 위치를 인정받아 역사의 전면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정조 사후 화성유수부는 크게 위축·쇠퇴되었다. 지방 행정구역 개편마다 잦은 변화를 거듭하였는데 1895년 지방관제 개편으로 8도제와 유수부체제에서 군으로, 그리고 이듬해에는 13도체제하에서 2등군으로, 일제 강점 후에 시행된 1914년 군·면 통폐합 때 오랫동안 분립되어 왔던 수원군(부)·남양군(부)이 수원군으로 통합, 수원군시대가 1949년까지 이어졌다. 최근 화성시와 오산시가 근래에 분리되어 나갔다.

## 2. 수원향교의 연혁·유래 및 특징<sup>20)</sup>

18) 구읍치는 반룡농주(盤龍弄珠)의 최길지로 지목되어 왔다.

19) 수원시·수원문화원, 『수원지명총람』, 1999, 53~55쪽.

20) 수원시에서 발간한 수원화성 관련 자료, 단행본 외에 김동욱, 『실학정신으로 세운 조선의 신도시 수원화성』, 돌베개, 2010 등 기 연구성과를 참조하였으나 일일이 각주로 밝히지 못하였다.

## 1) 수원향교의 배치

완만한 경사지에 입지한 수원향교는 대지 종단면을 보면 외삼문에서 대성전까지 대략 4개의 단으로 각 영역별 건물이 들어설 대지를 조성하였다. 내삼문을 지나 대성전 앞 마당까지는 약 1.5m의 단차를 두었는데, 대지 경사를 활용하면서 대성전의 위계를 강조한 배치로 보인다.

팔달산 자락에 자리 잡은 수원향교는 남북 방향 중심축을 기준으로 전면에 강학영역을 후면에 제향 영역을 둔 이른바 전학후묘(前學後廟) 배치를 취하고 있다. 산 경사지의 지형을 살려 지대가 높은 위치에 사당을 둔 구성임을 알 수 있다. 강학영역에는 명륜당과 동·서재, 외삼문이 들어서 있고, 제향영역에는 대성전과 동·서무, 내삼문이 있는데 향교를 구성하는 일반적인 건물 구성을 따르고 있다.

이들 주요 시설 외에 대성전 동쪽 담장 밖으로 유림회관이 자리 잡고 있고 결혼식장 등으로 쓰인다.

## 2) 고려~조선전기의 수원향교

향교는 지방 교육을 담당했던 관학기관이었다. 통일신라기 지방교육의 전통 연장선상에서 생각하면 고려시대에 관학 교육기관을 수원에도 설치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sup>21)</sup> 자세한 상황은 확실치 않다. 일반적인 향교 설치 과정과 수원의 행정적 위상을 고려한 추론은 있으나 보다 확실한 수원향교 관련 근거는 생각보다 뒤에 나타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향교가 부의 서쪽 3리 지점에 있고, 문묘는 향교 안에 있다고 기록하였으며, 관원 항목을 보면 부사·관관·교수가 각 1인으로 나타나고 있어 교수가 파견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sup>22)</sup> 이후 『동국여지』에는 향교의 위치를 앞서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달리 부의 서쪽 2리 지점으로 기록하고 있어 그간의 변화를 짐작할 수 있다.

결국 터의 변화를 짐작할 수 있는데, 수원향교의 터는 『수원부읍지』에 따르면 읍치 서쪽 3리에 있던 향교는 현종 2년(1661)에 읍치의 남쪽 2리 독갱산(禿坑山)으로 이진하였다. 수원향교의 위치는 읍치를 중심으로 한 방향과 거리를 고려하며 지금 건릉 자리에 있다가 1661에 현릉원의 안산 자락으로 이전하여 현릉원 천봉 직전까지 운영되었다<sup>23)</sup>고 보고 있다.

구 읍치 시기에 향교에 관한 기록은 많지 않으나, 『학교등록』을 보면 1636년 12월에 일어난 병자호란으로 수원의 교생 최경립(崔敬立) 등 19인이 위판(位版) 28위를 잃어지고 피난을 갔다가 난리가 끝나자 향교에 환안한 공로로 면강(免講)의 은전이 베풀어졌

21) 수원향교 편, 『수원향교지』, 2002, 425쪽; 문화재청·수원시, 「수원향교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 2020, 21쪽에서 재인용.

22) 『신증동국여지승람』 권9, 경기 수원도호부.

23) 정해득, 「정조시대 현릉원 조성의 수원 이음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논, 2009, 175쪽.

다.<sup>24)</sup> 여기서 언급한 28위는 공자와 4성, 공문 10철, 송조 4현 동방 9현을 더한 숫자와 일치하여 17세기 전반 무렵 수원향교에는 대성전과 함께 동무와 서무를 모두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sup>25)</sup>

향교가 현 위치로 옮겨짐에 따라 이 일대의 교육은 명고서원(현 화성시 매송면 원리)과 매곡서원(화성시 매송면 어천리)이 일대의 사림과 재지사족의 근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명고서원은 조익·조복양 부자와 손자를 향사하는 소론계의 서원이며, 매곡서원은 노론계의 서원으로서 일대 향촌사회의 교육과 공론을 주도하였다.<sup>26)</sup>

### 3) 신읍치로 옮긴 수원향교

현릉원 천봉 장소로 수원부와 향교 일대가 결정되면서 읍치 수원부와 향교는 위치를 옮겨 새로 조성되었다. 신읍치 수원 조성과 동시에 수원향교 건립도 신속하게 추진되었다. 터는 신읍치에서 3리가량 떨어진 현재 위치로 결정되었다. 하지만 팔달산 아래에 자리 잡은 향교 터에는 이미 사족들의 선영이 마련되어 있었다. 다른 터를 물색하기도 했으나 여의치 않자 묘소를 이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듯하다. 이 일대에 선영이 있던 이운행(李運行)의 3세(世) 다섯 분묘가 한꺼번에 모두 옮겨지게 되자 이를 가엽게 여긴 정조는 경기감사에서 명하여 장례물품을 넉넉히 지급하게 하고, 이운행을 조용하라고 명하였다.<sup>27)</sup>

향교 공사를 시작한 시기는 불명확하나 이운행의 선영 이장을 비롯한 관련 문서가 집중된 1789년 8월 초 무렵으로 추정하고 있다. 1789년 9월 13일에 수원부 향교를 낙성했다<sup>28)</sup>는 기사가 있고, 같은 달 24일에는 정조가 친히 지은 제문으로 대성전에 고유제를 올리고 있어<sup>29)</sup> 공사가 마무리된 시기를 짐작할 수 있다. 공사기간은 길게 잡아봐야 1달여에 불과했다. 향교의 규모는 전체 51칸이고 중문이 1곳이란<sup>30)</sup> 간략한 설명이 알려져 있다. 공사를 맡은 인물로는 향교감동(鄕校監董)인 전 영장(營將) 신섬(申暹), 향교간역(鄕校看役)인 향소(鄕所) 이종범(李宗範), 패장(牌將)인 출신 이근욱(李根郁)이 활동했는데 이들은 관직이나 상을 받았다.<sup>31)</sup>

그런데 다음해인 1790년에 작성된 문서를 보면 지난 겨울철 이후 새로 지은 ‘신건공혜간수(新建公廡間數)’에 명륜당 10칸이 포함되어 있어<sup>32)</sup> 9월 즈음에 대성전을 짓고 겨울

24) 『학교등록』 1640년(인조 18) 5월 16일, 6월 21일 기사 참조.

25) 문화재청·수원시,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요청 자료보고서 수원향교 대성전」, 2020, 23쪽.

26) 최홍규, 「수원지방의 역사적 변천과 행정구역의 변화」, 『경기사학』4, 43쪽.

27) 『일성록』 정조 13년 8월 4일·7일. 『정조실록』 1978년 8월 7일자 기사에도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28) 『정조실록』권28, 정조 13년 9월 13일.

29) 『각사등록』5, 수원부하지초록1, 기유년(1789) 9월 24일.

30) 『일성록』 정조 13년 9월 26일.

31) 『일성록』 정조 13년 9월 28일.

을 지난 어느 시기에 명륜당을 지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수원향교 조성은 대성전 영역을 먼저 조성한 뒤에 멀지 않은 시기에 명륜당을 건립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1791년 가을에는 외신문과 수직소를 지었다.<sup>32)</sup>

1789년 가을부터 시작된 향교 공사는 1791년 가을까지 계속되었으므로 2년 가까이 시간이 경과되었음을 알 수 있다. 1789년의 51칸에는 대성전 외에 어떤 건물이 포함되는지 불확실하지만 규모로 미뤄 동·서무, 동·서재까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짐작된다. 이어 명륜당을 짓고, 다음해에 외신문과 수직소까지 갖춰 향교로서의 면모를 구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때 조성한 수원향교의 모습은 『원행을묘정리의궤』 가운데 「알성도」(국립중앙박물관 소장)와 『화성능행도』 가운데 한 폭인 「화성성묘전배도」(국립고궁박물관 소장)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수원군읍지』(1899)에는 건물의 명칭과 함께 간략한 정보가 소개되어 있다.

大成殿 南向 七樑二十間 殿內 十七間半 施丹臚  
東西廡 在大成殿前左右各四間半 施丹臚  
內神門 在大成殿前 三間 施丹臚  
又門之東有小門一  
典祀廳 在東齋之東 十八間  
明倫堂 內神門前北向 七樑十間  
東西齋 在明倫堂左右 各九間  
外神門 在明倫堂南 三間 施丹臚  
門外 有紅箭門 立下馬碑(『수원군읍지』(1899))

이렇게 1789~1791년 공사(편의상 1차 공사)를 거쳐 완성된 수원향교에는 대성전, 동·서무, 내신문, 소문, 명륜당, 동·서재, 외신문, 홍살문, 하마비가 있었다. 이들 가운데 대성전과 동·서무, 내신문, 외신문은 단청을 시채한 것으로 기록에 나타난다.

그런데 『화성성역의궤』를 보면 1789~1791년에 벌어진 수원향교 공사에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한 정황을 설명하는 기사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 기사를 보면,

①기유년(1789) 가을 향교를 새 수원부의 남쪽 3리쯤에 옮겨 세웠다. ②힘은 달리고 일이 급하여 재목은 옛 건물에 있던 것을 많이 썼는데, 뜰도 좁았고 습기도 제거해야 했다. ③1795년 봄이 되자 마침내 뒷기둥이 썩어 물러앉아 ④이에 다시

32) 『각사등록』5, 수원부하지초록1, 명륜당 간역은 색리 서윤겸(徐允謙)이 담당하였으며 공로를 인정받아 상이 내려졌다.

33) 『수원부읍지』(규17364) 단묘조, …辛亥秋建外神門及守直所.

지를 것을 장계를 올려 청하였다.(『화성성역의궤』 단묘, 문선왕묘)

는 내용이다.

두 번째 기사는 수원부유수 조신태가 올린 장계인데,

①(본부 판관 홍원섭의 보고서 안에) 본부의 향교터가 땅이 낮고 물이 차서 매번 섬돌과 주춧돌이 물에 잠긴다. ②때문에 대성전 북쪽 벽의 셋째 기둥 하단이 한 자 남짓이나 썩었고 중방의 나무도 그대로 흔들려서 어긋나고, ③동쪽 건물의 북쪽 벽의 중방 나무와 서쪽 건물의 북쪽 벽의 인방 나무 1개가 모두 썩고 상했다. … ④당초 향교를 옮겨 모실 때에 건물을 짓는 것이 너무 빨랐고, ⑤목은 재목이 절반 이상이었을 뿐더러 ⑥또 터 자리가 낮고 물이 많기 때문에 썩고 상하고 어긋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화성성역의궤』 부록2, 장계)

는 내용이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점은 ①·②에 있다. 땅이 낮고 물이 차서 초석까지 물에 잠길 정도였다. 그러다보니 일부 기둥은 썩고 중방도 흔들리는 사태가 빚어졌다. 그 원인으로서는 급히 공사를 진행한 탓에 목은 재목이 절반 이상이였기 때문이지만 무엇보다 터 자체가 낮고 물이 많은 점을 꼽았다.

『원행을묘정리의궤』(1795)에는 『화성성역의궤』에 실린 실상보다 더 상세한 상황이 수록되어 있다. 대성전을 본 정조의 눈에는 불품이 없어도 너무 없었던 모양이다. 궁궐 건물에 익숙한 정조의 눈에 구 수원부 읍치 향교의 건축은 누추하기 짝이 없었을 것이다.

(정조가) 성묘 안으로 들어가 봉심하셨다. 임금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앙은 태학이고, 지방은 향교이나 성묘이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①동우(棟宇)가 이와 같이 불품없이 허술하고 단청이 이와 같이 더럽혀지고 바랬으며 ②의자·상탁·포진·노합 등속이 모두 모양을 이루지 못하였으니 ③그 체모를 높이는 도리에 있어서 지금 당장 수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시니…(『원행을묘정리의궤』권1, 연설, 을묘 윤2월 11일)

위의 『화성성역의궤』와 『원행을묘정리의궤』에 실린 논의의 결론은 수원향교를 다시 짓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음을 알 수 있다. 1789년에 구 수원향교의 대성전을 헐어 와서 쓸만한 구 부재와 신재를 투입하여 대성전을 지었지만 물이 많은 터여서 얼마 되지 않아서 기둥이 썩고 인방이 흔들렸다. 지반이 불안정한 탓에 이런 문제가 단시간에 드러난 것이다.

결정적인 판단은 수원향교 대성전에 들린 정조가 내렸음을 알 수 있다. 구 읍치의 향교를 헐어온 탓에 짓고 난 뒤에 볼품이 없었을 것이다. 구 대성전의 모습은 현재 명륜당을 통해 짐작이 간다. 건물뿐 아니라 실내의 기물이나 단청까지도 맘에 들지 않았던 정조는 결국 다시 짓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 4) 1795년의 수원향교 중건

왕이 윤2월 1일에 향교를 다녀가고 난 뒤 수원향교를 다시 짓는 공사는 5월에 시작되었다. 구 대성전을 헐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앞서 지적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터를 다시 닦았음을 알 수 있다.

을묘년 5월 초6일 진시에 문선왕묘를 옮겨서 터를 닦다. ... 29일 묘시에 문선왕묘 주춧돌을 놓고 기둥을 세우고 유시에 상량하였다. 8월 초9일 문선왕묘를 다시 옮겨 모셨다(석전제 때문에 시기를 맞춘 것이다).(*『화성성역의궤』*권수, 시일)

중건한 수원향교의 규모와 배치를 비롯하여 동시기에 지은 건물에 관한 기초 정보는 *『화성성역의궤』*에 꽤 상세한 설명을 얻을 수 있다. ①은 앞에서 본 내용과 같은데, 구 대성전을 모두 헐고 터를 닦았는데, 그 터를 넓혀 닦았다고 하므로 대성전 규모가 확장되었을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으나, 이 문제는 나중에 남겨둔다. ②는 상하 두 단으로 기단을 넓게 구축한 모습을 설명한 글인데 이를 월대로 이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새 재목을 사용했다고 하므로 이때 신재로 현 대성전을 건립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은 명륜당은 다시 짓지 않고 계속 사용하였음을 알려주는 단서이다.

①길일을 택하여 위패를 이안하고 옛 구조물을 모두 헐고 그 터를 넓혀 닦았다. ②2층 월대를 높게 쌓고 하나같이 새 재목을 써서 대성전은 상대의 위에 중건하였다. 자자오향에 칠량 20칸 규모 [동서 5칸, 남북 4칸] 이다. ... 양무(兩廡)를 세 칸씩 세웠는데 가운데 1칸은 전퇴를 갖추었다. ... 신문 3칸을 세웠다. 문의 좌우는 내담(內墻)을 쌓았다. ... ③뜰 남쪽에는 옛날 세운 명륜당이 있는데, 7량 10칸이고 북쪽이 앞이 된다. ... 동서 양재를 각각 6칸씩 전퇴를 갖추었다. ... 외신문 3칸을 세웠다. ④동재 남쪽에 네모난 연못 1개소를 판고, 동재 뒤편인 동쪽담 밖에 전사청 18칸을 고쳐 세웠다. 정전·동서무·내외신문은 모두 삼토단청을 칠하고 양상도회로 마감하였다. ... 외신문 남쪽으로 14보쯤에 홍살문이 있다.(*『화성성역의궤』*부록1, 단묘, 문선왕묘)

이상에서 살펴본 수원향교의 이건과 중건 과정을 통해 현 대성전의 건립시기는 아주

명확하게 파악이 된다. 구 읍치 향교에서 옮겨온 부재를 사용하여 대성전을 건립하였으나 정조가 불품없다고 평가함에 따라 1795년에 현 대성전을 중건하였기 때문이다.

## 5) 근·현대의 대성전 보수

일제강점기 대성전의 실상을 파악할만한 자료는 드문 편이다. 당시 촬영한 사진이 남아 있으나 건물의 퇴락 여부를 가늠할 정도는 아니다. 광복 이후 1949년에 대성전은 동·서재와 함께 중수하였다. 「대성전중수기」에 적힌 내용을 보면, 수원향교의 상황은 퇴폐된지 여러 해가 경과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대성전에 삼루(滲漏)가 심해 당해의 우기를 넘기기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보수가 시급한 사정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나 공사범위는 명확치 않다. 공사기간을 보면 6월 중순에 시작하여 같은 해 8월 28일에 마무리 짓고 있어 세 채에 달하는 건물을 수리한 점을 고려하면 대규모 공사는 아닌 것으로 짐작된다.

1957년에는 대성전과 함께 명륜당을 중수하였다. 「중수기」(1958)에 따르면 성전은 황폐하여 보수도 못하고, 6·25를 당해 병화와 총탄으로 파괴되고 하고, 혹은 풍우에 의하여 노후하고, 심지어 성위까지 도난당한 참담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공사범위는 ‘대성전의 터를 닦고 공사를 시작하여 약 60여일이 소요’되었다는 표현이 있긴 해도 공기로 미뤄 전면해체가 아닌 부분 보수로 추측된다.

1985년에는 대성전과 동·서무, 내외 삼문, 담장 등을 수리하였으나 대성전은 단청 공사와 함께 전면의 창호 교체만 이루어졌다. 대성전 안의 기물도 이때 새롭게 구비하였다.<sup>34)</sup> 1991년에는 대성전 방화사건이 발생하여 다음해에 어칸과 지붕을 보수하였다. 2016년에도 대성전의 벽체를 보수하였다.

## 6) 수원향교 대성전의 건축특성

### 대성전의 배치와 건축<sup>35)</sup>

수원향교의 현재 모습은 18세기 말 이전 당시의 모습과 규범을 잘 지키고 있다. 완만한 경사지를 살려서 전면에 강학공간을 두고 뒤로 대성전 영역을 배치한 전학후묘 배치를 취하고 있다. 구 읍치 당시 향교의 배치를 짐작할만한 자료가 없어 비교는 어렵지만 이건한 뒤에는 남북축선 상에 둔 배치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성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전후 퇴칸을 둔 익공계 맞배집으로 내부 바닥은 방전(반)으로 마감하고, 지붕은 기와를 올려 양성으로 마무리하였다. 평면은 좌우 측벽은 막고 전면 틈간은 개방시킨 전형적인 형태이다. 장대석 기단 위에 잘 다듬은 원형 초석을 놓고 흘림이 거의 없는 원형기둥을 세웠다. 창방은 전후 모두 단면을 말각방형으

34) 수원향교보수공사준공, 경기도 내무국 문화예술과, 1985, 국가기록원; 요청보고서, 48쪽; 『자료보고서』, 48쪽에서 재인용.

35) 경기도·수원시, 『경기도지정문화재 실측조사보고서 수원향교』, 2009, 71~73쪽.



로 다듬어 결구하였으며 뿔목은 직절하였다. 공포는 초익공인데 외단을 쇠서 모양으로 가공하지 않고 내외를 거의 비슷한 형태로 조각하였다. 고주 익공과 고주 중간에서 뒷보 단부를 받는 보아지도 유사한 형태이다. 어칸 가구는 전후 2고주 7량가로 짚으며, 전면은 개방된 퇴칸이고 후면은 안에서 고주를 두어 퇴칸을 구성하였다. 전후의 뒷보가 각각 전후면 평주와 전후 고주와 결구되어 있으며, 대들보는 전후면 고주 머리를 잇고 있다. 대들보 단면은 말각방형이며, 상면에는 4/1지점에 포대공을 놓고 종보를 받쳤다.

종보는 말각방형 단면의 직재로 상면 중앙에는 파련대공 형식의 종대공을 놓아 종도리를 받았는데, 종도리 하부에는 장여 이외에 뜬창방을 아래에 두어 사이에 소로와 화반을 수장하였다. 측벽가구도 어칸 가구와 동일하게 구성되었으며, 도리는 7량으로 굴도리를 사용하였다.

창호는 전면을 개방형 퇴칸으로 구성하고 각 칸 모두 사분합문을 달았는데 이 부분은 『화성성역의궤』와 차이가 있다. 원래 판문을 사분합문으로 교체한 것이다. 문상방 상부에는 교살창을 두어 광창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좌우 측면과 후면은 각각 중방과 하방으로 기둥을 잇고 사이에 회사벽을 두었으며, 좌우면은 전후 고주를 두어 주고가 높아짐에 따라 2개의 중방을 두어 높이를 해결하였다.

지붕은 맞배지붕이며, 처마는 전후면 모두 겹처마로 되어있다. 서까래는 마구리를 사절하였으며, 평고대는 별재로 구성되어 있다. 지붕 측면에는 끝단이 완만한 호형을 이루고 있는 방풍판을 달았다. 기와는 중기와로 암·수 막새기와를 사용하였고 지붕마루 양성 좌우 끝에 용두를 두었는데, 막새기와의 경우 팔달문, 화서문 등의 것과 동일하며, 용두도 이들과 유사하다. 내부 바닥은 방전으로 마감하였는데 전이 바닥을 파고들어 상면이 하방 하단면과 일치하게 처리하였다. 내부 천장은 연등천장으로 처리하였고, 단청은 굿기단청으로 마무리하였다.

## 평면의 규모

대성전은 정면 5칸, 측면 4칸으로 전퇴를 개방한 방식이며 바닥면적은 149.5㎡에 이른다. 현재 전국의 향교 대성전 평면을 비교한 『한국의 향교건축』에 따르면 약 33㎡에서 160㎡까지 나타난다. 수원향교 대성전은 서울 문묘 대성전(297.2㎡), 나주향교 대성전(159.5㎡), 상주향교 대성전(158.3㎡), 제주향교 대성전(156.9㎡), 대정향교 대성전(154㎡)에 이어 여섯 번째로 면적이 넓다. 경기지역 향교에서는 수원향교 대성전이 가장 넓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면적뿐 아니라 칸수에 있어서도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는 흔치 않은 편으로 현재 전국에 10개소 불과하다. 실제 측면에 쓴 기둥은 3본이어서 3칸으로 구분되지만 『화성성역의궤』에서도 기록하였듯이 4칸으로 볼 정도로 주칸이 넓다. 우측열을 기준으로 보면

전퇴 2,101mm, 어칸은 5,243mm, 후퇴 2,117mm여서 어칸은 2칸으로 봐도 충분한 주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화성성역의궤』에서 4칸으로 기록한 점은 흥미롭다.

### 전퇴 기둥의 뚜렷한 안쏠림 기법

대성전을 보면 전퇴의 기둥이 뚜렷하게 안으로 쏠린 모습을 볼 수 있다. 실측치로 보면, 평면의 전체 길이는 정면의 경우 하부의 길이가 상부의 길이보다 30mm가량 크고, 측면도 하부의 길이가 상부 길이보다 155mm정도 크게 나타나고 있어 안쏠림을 준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안쏠림 기법은 서울 문묘 대성전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어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서울문묘 실측조사보고서(중)』<sup>36)</sup>를 보면 안쏠림을 실측하여 전면열 기둥에서 5~112mm, 배면열 기둥에서 11~109mm 가량 기운 수치를 조사해냈다. 측면열은 좌측면 기둥열은 건물 안쪽으로 5~112mm, 우측면 기둥열은 교란이 심하나 일부 기둥에서 건물 안쪽으로 4~43mm 가량 기울었음을 확인하였다. 기둥 하부 중심과 상부 중심을 찾아낸 뒤 이를 바탕으로 기둥 상부의 쏠림 방향과 정도를 파악하여 기울기를 산정했으나 이에 대한 해석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기둥이 건물 안쪽으로 기운 모양을 과장해서 설명하면 마치 실패 모양을 이루며, 단지 기둥 배열만 안쪽으로 기울인게 아니라 안허리 곡과 연동된 기법으로 이해된다.

화령전은 『경기도건조물문화재 실측조사보고서』<sup>37)</sup>에 조사 결과가 보고되어 있으나 아쉽게도 기둥 안쏠림 기법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를 교란으로 돌렸는데, 육안으로 보면 전면 기둥열은 좌우 양끝의 기둥에 비해 한 가운데 기둥열이 안쪽으로 들어간 편이며, 실측치도 어느 정도 이를 증명하는 것으로 보이나 육안으로 보이는 만큼 실측치로는 확인이 어렵다.

어쨌든 간에 이런 안쏠림 기법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의 고대건축에서도 종종 확인된다. 나라 동대사의 법화당 건물은 9세기 무렵에 지은 것으로 전하는데 이 건물에서도 문묘 대성전과 마찬가지로 평면이 직사각형을 이루지 않고 가운데가 약간 안쪽으로 들어간 상태를 보인다.<sup>38)</sup>

### 경목수(京木手) 정복룡이 지은 건물

수원향교 대성전 공사를 맡은 인물 가운데 대표는 경목수 정복룡을 손꼽을 수 있다. 『화성성역의궤』권4, 공장편에는 화성축성에 종사한 장인의 직종별 명단과 작업 장소가 명시되어 있는데, 목수의 첫머리에 ‘京丁福龍’이라고 적고 730일간 일했으며 구포치목

36) 문화재청, 『서울문묘 실측조사보고서(중)』, 2006, 25쪽.

37) 경기도, 『경기도건조물문화재 실측조사보고서(화령전, 화홍문, 방화수류정)』, 1995

38) 김동욱, 『한국건축 중국건축 일본건축』, 김영사, 2015, 74쪽.

소를 비롯해서 팔달문, 복내당, 낙남헌, 노래당, 경룡관과 북동포루, 북서포루, 북포루 외에 향교 건물에서 편수로 활동했다고 적었다. 또 그가 내수사에 속한 장인이라고 소속을 명시했다.

그가 투입된 공사를 볼 때 정복룡은 내수사에 속한 서울의 목수로, 화성축성에서는 치목소의 작업을 지휘하고, 남문인 팔달문 외에 행궁의 주요 전각 대부분과 포루 2곳과 함께 수원향교를 짓는 목수 우두머리로 일했음을 알 수 있다. 화성축성에는 335명의 목수가 참여했으며 서울 목수 외에도 수원이나 개성, 양주는 물론 멀리 충청도에서도 목수가 오고 강원도의 승려장인까지 참여했다. 이들 목수 가운데 정복룡은 가장 첫머리에 그 이름이 올라있고 팔달문이나 행궁의 주요 전각을 담당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sup>39)</sup>

정복룡은 1789년 사도세자 묘소를 수원으로 옮기는 공사에서 이미 편수로 이름이 올라 있으며 공사를 마치고 공로를 인정받아 상을 받은 사실이 일성록에서 확인된다. 이 때 정복룡이 맡은 작업은 신주를 모신 대거(大學)를 제작하는 작업이었다. 이후 화성축성에서 큰 역할을 하고나서 1800년에는 정조국장에서 목수편수로 일하고 1804년 인정전을 다시 짓는 공사와 1805년 정순왕후 국장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했다. 정순왕후 국장도감의궤에는 여전히 목수 명단의 첫머리에 정복룡의 이름이 올라있다.

앞서 거론하였지만 수원향교는 1789년에 이겼다가 화성축성을 하면서 정조의 명으로 건물을 다시 짓는데 그 공사 전체를 이끈 목수가 바로 정복룡이었다. 정복룡이 편수로 일한 건물 중에는 현재 화성 낙남헌과 수원향교가 남아있다. 두 건물은 건물 성격이나 형태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두 건물을 비교하여 공통점을 찾아내기는 어렵지만, 대공의 형상이나 익공의 세부에서는 유사성도 확인할 수 있다. 또 두 건물이 공통적으로 보방향의 길이를 넓게 잡는 두드러진 특징도 찾아볼 수 있다.

목조건물의 전체형태나 짜임새 및 세부 가공에서 집을 지은 목수의 기법을 찾아내는 작업은 쉽게 답을 얻을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목수의 기법과 건축물의 구조나 세부 특징의 상관성을 파악하는 작업은 한국건축의 기술적 변천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과제의 하나임은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18세기 말 내수사에서 오랜 기간 목수 편수로 일한 정복룡의 활동과 수원향교의 관련성을 음미하는 작업은 향후 건축기술사 연구의 연결고리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섬세하게 초각한 부재 표면

대성전을 짠 목부재 가운데 익공, 보머리, 첩차, 화반, 파련대공 등은 부재 표면을 당초

39) 『화성성역의궤』에 기록된 화성 축성 공사에 종사한 장인들은 모두 22직종에 1,820명에 달하였다. 대부분은 서울에서 활동하던 장인들이었고 일부는 화성부와 개성부, 양주목, 인근 지역에서도 왔다. 흔치 않지만 특정 분야는 멀리 함경도와 경상도, 강원도에서도 소수가 참여하였다. 서울 출신 장인은 1,101명으로 전체의 60%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관청에 속한 장인은 393명이고, 나머지는 사장인(私匠人)들이었다. 화성부에서도 133명에 이르는 인원이 업무를 수행하였다.

무늬를 음각으로 초각한 특징이 있다. 이러한 기법은 보통 궁궐건축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법으로 지방의 건물에서는 흔한 기법은 아니다. 방화수류정은 보아지는 초각하였으나 보머리는 계눈각만 새겼고, 낙남헌은 대성전과 마찬가지로 익공, 보머리 등을 초각한 특징이 있다. 보머리까지 당초무늬를 초각한 사례는 현재 화성 안에서는 낙남헌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화성성역의궤』를 비롯한 충실한 기록

『화성성역의궤』는 1796년 화성 축성 당시에 현장에서 작성된 문서를 토대로 공사 완료 후 만 5년이 지나서 편찬되었다. 화성을 이해하는데 1차 사서로서 전 10권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과 건물 하나하나에 대한 세밀한 그림과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공사에 소요된 자재명세와 참여한 기술자의 인적사항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 의궤에는 수원향교가 포함되어 있다. 「재용」에 적힌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문선왕묘(정전 7량 20칸) 소원주석 24덩이, 소보석 27덩이, 소계석 363덩이, 고막이돌 32덩이 … 고주 12개, 평주 12개, 대량 6개, 동자기둥 12개, 종량 6개, 퇴량 12개, 창방 35개, 주두 36개, 양봉 24개, 소로 129개, 도리 35개, 장혀 35개, 익공 32개, 행공 24개, 대공 6개, 장연 112개, 단연 224개, 부연 112개, 부연셋널 110널, 부연 덮개널 110널, 박공 8개, 모기서까래 122개, 산자널 12립, 평고대 12개, 연합 24개, 중심목 4개, 장연누리개 15개, 부연누리개 15개, 바람널 90널, 사목 24개, 엮음대 92개, 중방 16개, 인방 21개, 벽선 21개, 판문 20척, 사창 5척…<sup>40)</sup>

현재 대성전의 부재는 의궤 기록은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며 후대의 수리로 인한 변화 가운데는 창호가 달라진 점이 눈에 띈다. 의궤에는 판문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지금은 궁궐띠살분합문으로 바뀌었다.

이미 언급하였지만 수원향교의 이건은 화성 축성과 동시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의궤에도 수록된 것이다. 「단묘」, 「재용」 두 항목에서 각각 수원향교를 기록하고 있는데 「단묘」는 규모나 배치, 외형을 주로 다루고 있지만 「재용」편의 실입 항목에는 실제로 소요된 각종 자재를 명시하고 원형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존하게 되는 부분이다. 물론 최근에는 이 의궤가 지닌 한계가 지적되기도 하지만 1차 사료로서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며, 수원향교가 여기에 수록된 점은 의미가 크다.

### 3.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역사적 가치

40) 『화성성역의궤』 부편3, 재용.

1789년 사도세자의 무덤을 양주 배봉산(현 서울시 전농동 서울시립대 자리)에서 수원부 읍치로 옮기는 조치가 단행되었다. 여러 후보지 가운데서 선택된 이장지는 수원부 고을의 주산인 화산(花山) 아래였다. 이로 인해 수원부는 읍치를 현 위치에 새 읍치를 마련하게 되었고, 수원향교도 팔달산 아래로 이관하게 되었다. 이렇게만 적고 보면 별다른 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조선시대에 향교의 이관은 드문 일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향교의 입지를 바꾼 이관 기록은 꽤 많은 편으로 사유의 대다수는 현실 여건에 바탕을 두었다. 일일이 다 적을 수 없지만 주요한 사례를 보면, 읍치 안에 있던 향교를 외곽으로 옮기거나, 대지가 좁거나 낮아서 발생하는 습기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거나, 학업 여건을 향상시키려는 이유 내지는 풍수와 같은 요소를 지적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수원향교를 이관하게 된 배경은 다른 향교와 달랐음을 알 수 있다. 왕실 묘소 이장지로 한 읍치를 이치시키는 과정 속에서 읍치에 속한 향교 역시 새 읍치를 따라 터를 옮기게 된 것이다.

이건공사는 1789년 8월초부터 시작하여 9월 13일에 마무리되었다. 정조의 현릉원 행차에 맞춰 급히 공사를 추진하는 바람에 이때는 제향영역만 공사를 마쳤고, 다음해에 들어서 명륜당을 갖추게 되었다. 당시 이관공사는 구 읍치에 있던 수원향교의 건물을 헐어 와서 신재를 섞어 공사를 추진하였고, 터가 습해서 불과 5년여가 경과한 시기에 부재가 썩거나 흔들리는 문제가 드러났다. 1795년 화성을 방문한 정조는 향교를 봉심하면서 노출된 문제를 놓치지 않았고 나아가 건물과 내부 시설물까지 지적하여 대성전을 다시 짓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

이후 중건공사는 1795년 5월 6일에 시작하여 같은 해 8월 9일에 완성하였다. 터를 새로 닦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동시에 동·서무 이하 여러 건물을 함께 지었다. 구 읍치에 있던 대성전은 3칸으로 추정되며 이때에 규모도 5칸으로 늘어났는데 화성도호부라는 읍치의 위상에 걸 맞는 변화였다. 이 해에 정조가 직접 지은 「성묘고유축문」을 보면 수원향교에 공자와 4성, 공무 10철, 송조 6현의 위해를 대성전에 모시고, 동방 15현을 동·서무에 모셨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수원향교 대성전은 현릉원 이장에 맞춰 읍치를 따라 이관하게 되었고, 정조가 직접 향교를 방문하여 살핀 뒤 그의 지시를 따라서 1795년에 중건하였으며, 도호부에 걸맞도록 이때 3칸에서 5칸으로 규모를 확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정조는 1차 이관공사 때는 물론 1795년 중건까지 직접 제문을 지어 올리는 관심을 보였다. 왕의 지극한 관심 속에서 수원화성 건설과 동시에 지은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큰 향교로서 그 핵심에 대성전이 있다고 평가된다.

## 건축적 가치

화성 건설공사와 동시에 증건된 대성전은 빼어난 관영건축의 계획과 기술력이 반영된 사례로 손꼽힌다. 앞서 살폈듯이 향교는 대체로 해당 지역의 기술과 재력, 자재로 짓는 경우가 주류인데 비해 수원향교 대성전은 서울에서 온 뛰어난 장인의 기술력이 발휘된 흔치 않은 사례로 판단된다.

대성전의 정면 5칸, 측면 3칸이란 평면 규모는 바닥 면적이 149.5㎡에 달해 면적면에서 상당히 넓은 편에 속한다. 전국에서도 여섯 번째로 큰 규모이고, 경기지역에서는 최대 규모이다. 넓은 실내공간을 확보하려는 구조의 대응도 흥미를 끈다. 가구는 2고주 7량 가로 짚으며, 익공을 비롯한 보머리 등은 부재 표면 가공도 특색이 있다. 이들 부재는 표면을 당초무늬로 세심하게 초각을 했는데 이러한 기법은 궁궐건축을 비롯한 위계가 높은 건물에서나 볼 수 있는 품격 높은 기법으로 평가된다. 퇴칸 기둥은 안솔림을 주어 시각적인 안정감을 주고 있다.

이처럼 대성전은 분명한 증건시기를 알 수 있고, 규모와 구조, 세부 치장 등으로 미뤄 화성유수부의 향교로서의 위상을 표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지방 향교 가운데 왕의 각별한 관심을 받은 건물은 거의 없어 이 점 역시 수원향교가 지닌 특징으로 손꼽힌다.

수원화성을 축조할 무렵인 18세기에는 건축기술이 한층 향상되는 추세였고 그런 고급 기술은 서울에 집중되어 있었다. 기술자들은 관영 공사장에 집결되어 궁궐이나 왕실의 사묘, 왕릉 같은 건물을 지었다. 수원향교 대성전은 규모와 구조, 기법 모든 면에서 빼어난 기술력을 지닌 장인의 기예가 충실히 발휘된 건물로 19세기 말 관영건축의 기술력으로 구축된 지방에서는 보기 드문 건물임을 알 수 있다.

## 건축 기술사적 가치

기존 향교를 다룬 사료와 연구성과를 살펴보면 조선시대 지방의 향교 건립은 대체로 해당 지역의 장인과 자재를 투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존하는 향교 건물들이 보여주는 부재 짜임이나 기법은 지역색으로 통칭할 수 있는 건축특성을 대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수원향교 대성전은 지방 향교 건물에서 볼 수 없는 빼어난 모습으로 그 배경에는 넓게는 관영건축, 좁게는 경목수를 비롯한 서울 장인들의 기술력이 반영된 결과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화성 건설에 투입된 여러 장인 가운데 목수 정복룡은 향교 공사에서 편수를 맡았다. 335명의 목수가 동원되었는데 화성 건설 이후 목수 명단 첫머리에 등장하고 있어 상당한 기술력을 갖춘 장인으로 판단된다. 그는 대성전뿐 아니라 화성 내의 여러 건물에 관여했다. 특히 낙남헌은 대성전처럼 대공간을 만들기 위해 과감하게 목구조를 짠 점에서 그의 의도를 읽을 수 있고, 세부 가공도 상당히 유사하다.

목조건물의 전체형태나 짜임새 및 세부 가공에서 집을 지은 목수의 기법을 찾아내는 작업은 쉽게 답을 얻을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목수의 기법과 건축물의 구조나 세부 특징의 상관성을 파악하는 작업은 한국건축의 기술적 변천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과제의 하나임은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18세기 말 내수사에서 오랜 기간 목수 편수로 일한 정복룡의 활동과 수원향교의 관련성을 돼새기는 작업은 향후 건축기술사 연구의 연결고리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 학술적 가치

화성 건설을 마치고 나서 일종의 보고서 격인 『화성성역의궤』를 편찬한 일은 여러 면에서 의미를 지니지만 특히 현존하는 당시 지은 성곽과 건물, 시설물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수원향교를 1789년에 옮긴 과정과 공사의 실상, 이후 1795년에 중건하기까지의 전 과정은 『화성성역의궤』에 상세한 기록과 그림(「문선왕묘도」)으로 남아 있다. 이뿐이 아니다. 『덩니의궤』, 『원행을묘정리의궤』, 병풍 등 왕실 기록에는 그림 [도설] 과 설명이 남아 있어 이 시기 수원향교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사료로 평가받는다. 자료 가운데 그림은 채색화여서 더욱 중요한 단서가 아닐 수 없다.

이들 문헌 가운데 수원향교에 관해서는 『화성성역의궤』의 「단묘」, 「재용」 두 항목에서 자세하게 다뤘다. 「단묘」 부분은 수원향교의 배치와 개별 건물의 규모, 외관 등을 잘 설명하고 있고, 「재용」 부분은 투입된 자재의 유형과 수량 등을 상세하게 적고 있다. 그림인 「문선왕도」는 전체적인 형태와 지붕 장식, 단청까지 확인할 수 있어 중건할 무렵 수원향교를 연구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동시에 수원향교의 가치를 입증한다.

### 4. 종합의견

수원향교는 수원도호부의 향교로서 18세기 말 읍치를 이군하면서 향교도 현 위치로 옮겨 다시 지었다. 읍치 이군과 함께 이군된 독특한 사례로 판단된다. 신읍은 정조가 주도한 화성 축성과 함께 화성유수부로 승격되었는데 서울 다음으로 중요시된 도시로 변모하며 여러 면에서 우월한 위치를 인정받았다. 이런 유수부의 위상에 맞춰 향교 역시 격식을 충실히 갖추었다. 이렇듯이 수원향교는 18세기 신도시의 문묘로서 남다른 역사적 가치를 지녔다.

급히 이군한 탓에 처음에 지은 대성전은 볼품이 없었다. 대성전은 1795년에 새로 짓기에 이르는데 그 배경에는 정조의 관심과 지원이 있었다. 조선시대 향교 건물 가운데 이처럼 왕의 직접 지원으로 건립된 경우는 거의 없어 수원향교가 지닌 또 다른 가치 가운데 하나로 손꼽을 수 있다.

대성전은 규모나 평면, 가구, 세부 기법 모든 면에서 다른 지방도시의 향교와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사례로서, 18세기 말의 성숙된 기술을 바탕으로 관영건축에 종사하던 기술자들의 참여를 통해 지어진 조선후기 향교 대성전 가운데 가장 격식을 갖춘 건물로 평가된다. 또한 목공사를 맡은 목수를 특정할 수 있을뿐더러 이 목수가 지은 다른 사례와 비교를 통해 목수의 기법과 구조, 세부의 상관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건축사의 기술적 변천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지녔다.

더욱이 공사 보고서라 할 수 있는 『화성성역의궤』에 수록되어 있어 중건 당시의 모습과 자재, 기술자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점은 어느 향교에서도 볼 수 없는 점이다. 이러한 1차 사료를 통해 중건 이후의 변화상도 고증이 가능하다는 점 또한 수원향교가 지닌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요약한 나열한 가치를 볼 때 수원향교의 대성전은 국가지정문화재로서 가치를 충실히 갖춘 것으로 인정된다.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0.09.02	대상문화재	수원향교 대성전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건축역사
	소속	○○○○○○○학교	직위(직책)	부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 지정문화재 보물		
	문화재 명칭	수원향교 대성전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 년 10 월 10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1.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수원 지역은 고구려 때 지명인 ‘매홀’부터 물과 관련된 명칭으로 불렸으며, 고려시대에 들어와 10세기에 수주(水州)로 승격되었고, 13세기에 수원도호부(水原都護府)가 되는 등 중요한 행정단위로 기능하였다. 조선시대 수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은 18세기 말에 읍치를 옮긴 일로서, 정조가 생부 사도세자의 묘소를 이장하여 현릉원을 조성하면서 기존 읍치를 팔달산 아래로 옮겨 화성 유수부가 새로 건설되었다. 1789년 천장(遷葬)과 함께 시작된 신도시 건설은 1793년 수원도호부가 화성유수부로 격상하고 1796년에 성곽이 축조되면서 대체로 마무리되었다. 이로써 수원 지역은 개성, 강화, 광주와 함께 수도를 방위하는 중요한 역할이 강조되었으며, 조선 후기 도시사에서 큰 의의를 지니게 되었다.

수원향교 창건과 관련된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전하며, 1291년(고려 충렬왕17)에 처음 건립되었고, 부의 서쪽 3리 되는 곳에 있다고 했다. 향교는 12세기 초 인종 연간에 모든 주에 학교를 세우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보급이 시작되었는데, 수원은 940년에 수주로 승격하였고, 1018년에 지수주사를 두고 일곱 현을 거느린 지역이 되었으며, 1271년 수원도호부로 승격한 것으로 보아, 1291년에 향교의 존재가 확인되는 것은 설득력을 지닌다. 이 장소는 현재 건릉의 자리로 추정된다, 『순조실록』 1821년 4월 21일 기사에 건릉을 이장할 곳을 화성의 구구향교터(舊舊鄉校基)라고 지칭하는 내용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최초 향교의 배치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신위의 개수를 통해 규모를 짐작해볼 수 있다. 『학교등록』에 따르면,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교생 최경립 등 19인이 위판 28위를 잃어지고 피난을 갔다가 향교에 환안했던 일이 있는데, 이 때 위판의 개수로 보아 대성전과 함께 동무와 서무를 모두 갖추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수원향교는 17세기 중반에 한 번 이전되었다. 『수원부읍지』에 의하면, 부의 서쪽 3리에 있었던 문묘를 1661년(현종2)에 부 남쪽 2리 독울산(禿岫山)으로 옮겨 세웠다는 기사가 등장한다. 또한 『학교등록』에는 1662년(현종3) 정월 20일에 지지부진했던 이건공사를 감독한 재임 이강과 유신 등이 몇 개월 만에 일을 끝냈으므로 상을 내려야 한다는 논의가 기록되어 있다. 당시 수원향교의 이전은 효종의 승하 후 장지를 물색하던 과정에서 추진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전된 향교의 위치는 『건릉지』(1821)에 수록된 「능원 침내금양전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1794년 1월 13일 정조가 현릉원에 예를 올린 뒤 옛 향교 터에 올라 지형이 매우 아름답다고 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경치가 빼어난 곳에 자리잡았음을 알 수 있다. 읍치 남쪽으로 이전된 향교의 구체적인 모습은 알 수 없지

만, 1681년 정월 20일 『학교등록』 기사에 위판을 수개하기 위해 향축 및 밤나무를 내려 보낸 기록이 등장하고, 1726년 농한기에 시작하여 1727년 4월까지 명륜당을 중수한 기문이 남아있다. 기문에는 옛 명륜당의 기초공사가 날이 춥고 땅이 젖어 견고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래지 않아 축대가 무너지고 지붕과 기둥이 허물어졌다고 했다. 이를 종합해볼 때, 이전된 향교는 제향역역인 문묘와 함께 강학영역인 명륜당을 갖춘 비교적 큰 규모의 시설이었으나 처음부터 건축물의 보존 상태는 양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수원향교는 18세기 말에 최종적으로 현 위치로 옮겨왔다. 현릉원을 수원부의 기존 읍치에 조성하면서 여러 공사들이 급하게 추진되었는데 향교의 이전도 포함되었다. 새 터를 잡는 일은 1789년 8월 초에 이루어졌다. 찾아낸 터에 민가의 무덤이 있어 무덤 주인에게 이장 비용을 후하게 치루고 관직을 주었던 사정도 기록에 남아 있다. 이후 9월 13일에 대성전이 완공되었고, 9월 24일에 정조가 지은 제문으로 고유제를 지냈다. 공사의 규모는 총 51칸에 중문 한 곳 이었다고 하며, 공사기간은 넉넉히 계산해도 한 달 남짓이다. 향교 공사에 참여한 신섬, 이종범, 이근옥은 관직 또는 상을 받았다. 『각사등록』에 따르면, 이듬해인 1790년 5월에 명륜당 10칸이 신축되었고, 공사를 맡은 서윤겸에게 상이 내려졌다. 또한 『수원부읍지』에 따르면, 1791년 가을에 외신문과 수직서가 지어졌다. 즉, 정조의 원행 일정에 맞추어 급히 문묘의 공사를 먼저 시행하였고, 차차 주변의 건물을 정비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789년의 이건공사는 절반 이상의 부재를 기존 건물에서 재활용했고, 토목공사를 충분히 하지 않아 낮고 좁은 터에 배수가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당시 수원향교의 모습은 『원행정리의궤』 중 「알성도」, 『화성능행도』 중 「화성성묘전배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두 그림에 묘사된 형태가 서로 달라서 신뢰도에 의심이 가지만, 추너를 갖춘 정면3칸의 대성전과 맞배지붕의 동서무, 솟을삼문 형식의 내신문과 외신문, 별도의 영역을 갖는 명륜당의 모습을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정조가 원행에서 실제로 수원향교를 전배한 것은 수년 후의 일이다. 1795년(정조19) 윤2월에 정조는 어머니 혜경궁 홍씨와 함께 화성에 행행하여 회갑연을 열고 현릉원을 참배하였으며, 3일째 되는 윤2월 11일에 향교 대성전에 전배하였다. 『원행을묘정리의궤』에 실린 당시 정조의 연설에서는, 동우가 불품없이 허술하고, 단청이 오염되고 바랬으며, 의자, 상탁, 포진, 노함 등속이 모두 망가져 있으니 당장 수리하지 않을 수 없다는 탄식이 등장한다. 『화성성역의궤』에 따르면, 이후 관관 홍원섭이 보고를 통해, 대성전 북쪽 벽의 셋째 기둥 하단이 한 자 남짓 썩었고 중방의 나무가 흔들려 어긋났으며, 동쪽 건물의 북쪽 벽의 중방 1개와 서쪽 건물의 북쪽 벽의 인방 1개가 썩었다고 했고,

또 봄이 되자 마침내 컷기둥이 썩어 물러앉았다는 기록도 있으며, 이에 조심태가 4월 24일에 장계를 올려, 5월 6일 오전 8시에 위패를 옮기고 공사를 시작하고자 함을 보고했다. 정조의 명에 따른 수원향교의 재건축은 1795년 5월부터 약 3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1795년의 공사는 『화성성역의궤』에 자세한 기록이 전한다. 먼저 1795년 5월 6일 진시에 대성전의 위패를 이안(移安)하고 개기(開基)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5월 29일 묘시에 정초와 입주를 하고, 유시에 상량하였으며, 8월 9일에 모든 건물의 공사를 마치고, 석전제에 맞추어 환안(還安)하였다.

## 2. 연혁·유래 및 특징 :

수원향교의 건축사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1291년 고려 말에 개설되어, 1661년 건릉의 공역을 위해 자리를 이동했고, 다시 1789년 읍치의 이전에 따라 현 위치로 이겼으며, 1795년 전면적인 재건축 공사를 통해 현재의 모습을 완성했다. 1795년 재건축 공사에서는 대성전의 옛 구조물을 모두 헐고 터를 다시 넓게 닦은 다음 두 층으로 된 월대를 높이 쌓았다. 위쪽 월대에 자리 잡은 대성전은 남향하였으며, 정면5칸 측면4칸 규모의 7량가로 건축하였다. 동무와 서무는 각각 3칸으로 좌우에 배치했다. 내신문은 삼문 형식으로 세웠으며, 그 아래에는 널찍한 뜰을 두었다. 아래 뜰에는 1790년에 지은 명륜당을 헐지 않고 그대로 두었는데, 정면5칸 측면2칸의 7량가 건물로서 북쪽의 대성전을 바라보게 되어 있었다. 뜰의 좌우에는 동서재를 각각 6칸씩 세웠는데 퇴를 둔 형식이었다고 한다. 뜰 남쪽에 또 한 층의 단을 두고 외신문 3칸을 세웠다. 동재 뒤에는 전사청 18칸을 고쳐 지었고, 남쪽에는 사각형 연못을 팠다. 신문터의 남쪽에 홍살문이 있었다. 이와 같은 당시의 건축모습은 『화성성역의궤』 중 「문선왕묘도」와 『명륜당의궤』 중 「문선왕묘도」에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반듯한 대지는 총 5단으로 구성되었는데, 외신문을 지나 동쪽에 방형 연못이 있는 첫 번째 마당, 명륜당과 동서재 그리고 동재 동쪽을 감싸는 전사청이 있는 두 번째 마당, 계단을 올라 내신문이 자리잡은 세 번째 마당, 높은 축대위에서 대성전과 마주하고 좌우에 동서무가 자리 잡은 네 번째 마당, 마지막으로 대성전이 놓이고 뒤로 곡장을 두른 다섯 번째 마당이 계획되었다. 마당의 영역은 큼직하게 구획되고 형태가 정형화된 모습으로 정리되었다.

상세한 공사기록과는 달리 19세기 동안 수리 관련 기록은 많지 않다. 일제 강점기에 들어 지도와 사진이 제작되면서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사료들이 등장한다. 1917년 조선총독부에서 제작한 지도에는 대성전과 명륜당의 축선이 정확히 표현되어 있지 않고, 전사청의 규모가 축소되어 있다. 또한 명륜당에 유리창이 설치된 흑백사진이 발

견되어 당시 여러 변형이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특히 1936년에 제작된 「관광의 고도, 수원」 그림에는 서재와 전사청이 없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그 이전에 두 건물이 훼손되었음을 알 수 있다. 광복 이후 1949년 8월부터 두 달에 걸쳐 대성전과 동서재를 중수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전쟁 시기동안 동서재는 소실되었다. 1957년에 다시 대성전과 명륜당이 중수되었고, 1977년 7월에 대성전과 외삼문을 보수했으며, 1981년 6월에 대성전 지붕 변화, 기단 및 계단, 담장 보수가 있었다. 1985년에는 단청을 새로 칠하고 전면 창호를 교체했으며, 동무의 단청, 담장의 설치, 축대의 보수 등 전반적인 정비가 있었다. 1991년 9월에는 대성전 방화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듬해 7월에 보수가 이루어졌다. 서재는 1989년에 6칸 건물로 복원했으나 1990년 6월에 화재로 소실되었고 곧바로 다시 복원했다. 동재 역시 1990년 1월에 복원했으나 1996년 9월에 화재로 소실되어 다시 복원한 상태이다. 전사청은 일제강점기에 이미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1979년에 사무실과 교직사를 신축하면서 자취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동쪽의 유림회관은 1993년에 크게 새로 지은 것이다.

현재 수원향교 대성전은 정면5칸의 맞배지붕 건물이다. 1789년 같은 터에 자리잡았던 대성전의 모습이 『원행정리의궤도』 중 「알성도」와 『화성능행도』 중 「화성성묘전배도」에서 3칸 팔작지붕 또는 우진각지붕 건물로 표현된 것으로 미루어 1795년 공사에서 비로소 5칸으로 확장되고 지붕의 형식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 1795년 정조가 직접 지은 「성묘교유축문」에는 수원향교 대성전에 공자와 4성, 공문 10척, 송조 6현의 위패를 모시고, 동서무에 동방 15현을 모셔 총 36위가 봉안된 것이 나오는데, 이는 병자호란 당시 28위에서 8위, 즉 송조 2현과 동방 6현이 들어난 것으로, 건축물의 확장 사유를 짐작해볼 수 있다. 동시에 1793년 수원도호부가 화성유수부로 격상한 이후 수원향교의 위계 상승을 반영한 조치였다고도 생각된다. 수원향교 대성전의 면적은 약 150㎡로서 현존하는 대성전 건축물 중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크다. 면적이 약 300㎡에 이르는 서울 문묘를 예외로 본다면, 나주향교, 상주향교, 제주향교, 대정향교를 잇는 규모인데 이들 간의 면적 차이는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큰 규모의 집단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경기 지역에서는 단연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여타 주변 향교 대성전에 비해 1.5배 이상 크다. 평면의 형식으로 살펴보아도 정면5칸 측면4칸의 규모는 전국에 10개소에 불과하다. 정면 5칸은 성균관 대성전, 강화, 강릉, 충주, 나주, 순천, 상주, 동래 등 대설위의 기본 형식이며, 경기도에사는 안성, 강화, 교동, 가평 향교가 5칸 형식을 취한다.

계획에 쓰인 영조척은 약 310mm 내외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칸의 크기는 정면에서 여칸이 11척, 나머지 칸은 10척이며, 측면은 퇴칸이 각각 약 6.5척, 중앙이 17척 가량

된다. 기둥은 평주와 고주를 각각 12개씩 사용하여 총 24주를 세웠고, 안쫄림과 귀솟음 기법을 확인할 수 있다. 가구는 2고주 7량가의 대칭구조를 사용했다. 2고주 7량가 구조는 성균관, 나주, 제주, 정의향교 등에 보이는 특징으로, 규모가 크고 격식이 높은 건물에 활용되는 기법이다. 퇴는 약 6.5척을 확보하여 전면의 의례공간과 후면의 봉안공간을 넉넉하게 하였으며, 전퇴에서 겹처마로 길게 뻗어 처마와 함께 넓고 개방된 공간을 형성한다. 전퇴부분은 월대와 구별없이 반방전을 엇갈린 줄눈으로 깔아서 공간감을 더욱 확장시켰다. 평주의 높이는 약 10척에 가까워 주칸의 폭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정면에서 입면 디자인은 정사각형의 단순미가 드러나며, 측면을 4칸 규모로 확대한 것은 지방의 존재감을 크게 부각시켰다. 평주와 고주는 모두 창방으로 연결하였고, 창방 위에는 소로를 두고 도리 아래 장여를 받쳤다. 평주와 고주는 퇴보로 이어지고, 고주와 고주 사이에는 대들보를 얹고 동자주를 놓아 종보를 받도록 했으며, 종보 위에는 대공을 두고 종도리를 지지하도록 했다. 목구조는 특별한 기술이나 조정이 개입되지 않고 단순하고 알기 쉽게 계획되었으며, 측벽을 포함한 보방향 구조 여섯 열이 모두 동일하다.

수원향교 대성전에 쓰인 부재들은 상당한 수준으로 표준화되어 있는 점이 큰 특징이다. 공포는 물익공 형태의 초익공인데, 일반적인 익공재와 같이 끝단을 쇠서로 빼지 않고 내외단을 거의 동일한 형태로 초각했다. 또, 조선 후기 지방건축에 드러나는 배면공포의 약식화 현상 등이 보이지 않으며, 평주, 고주, 동자주 상부에 공포를 모두 같은 형태로 구성하여 양식적 일관성이 뛰어나다. 창방이 설치되지 않은 상중도리 아래에서 동일한 익공을 직교시켜 장여를 받치면서 입체적인 포대공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모습도 우수하다. 익공의 형태와 결구방식은 수원 화성의 여러 건물들과 유사하기 때문에 양식사적 특징으로 간주될 수 있다. 종보 위의 파련대공은 익공의 당초무늬를 반복하면서 3개의 판재를 이어붙인 것이다. 파련대공에는 뜯장여를 끼웠고 뜯장여와 종도리 장여 사이에는 매 칸마다 3개씩 화반을 두었다. 종보, 대들보, 퇴보의 단면은 모두 폭보다 축이 긴 장방형에 네 모서리를 모점이 한 형태이다. 모든 보머리는 규격을 줄이고 상면을 경사지게 다듬은 후 마구리를 단순하게 사절한 형태로 옆면에는 익공과 연속되는 당초무늬를 초각하였다. 평주주두와 고주주두, 동자주주두는 각각 12개씩 사용되었고 크기와 형태가 동일하다. 기둥의 초석은 평주와 고주, 외부와 내부, 정면과 배면의 구별 없이 모두 정평주초 형식의 소원주석 24개로 동일하게 구성했다.

대성전의 전면 퇴칸은 마당 쪽으로 개방했고, 좌우는 벽으로 막았다. 고주열 모든 칸에는 궁판 사분합 세살문을 달았고, 상인방 상부에 교살창을 두어 광창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화성성역의궤』의 기록에 판문과 광창을 설치한 기록이 있고, 특히 「재

용」조에 판문 20척, 사창 5척이라는 내용이 등장하므로, 원래 판문이었던 것이 후대의 수리과정에서 세살문으로 교체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실내는 천장을 가설하지 않고 목구조와 서까래가 드러나는 연등천장으로 마무리했으며, 공자와 4성, 송조 2현, 해동 18현의 위패를 봉안했다. 기단은 정면 어칸과 좌우 퇴칸 전면에 장대석으로 5별대 바른 층 쌓기로 되어 있고, 배면의 기단은 자연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화성성역의궤』의 기록과 같이 대 아래에 3개의 계단이 있고 보석(步石)은 5층이며, 대의 높이도 역시 5척이다. 기단석 상면 모서리의 선을 접은 가공법이나 건물에 사용된 각종 장식철물, 쇠시리 기법은 공들여 제작한 것이며 같은 시기에 건립된 용주사나 용릉, 화령전 등에서 발견된다. 기와는 막새를 사용했고, 용마루 양성 좌우 끝에 취두를 달았다. 막새와 취두는 화성의 팔달문, 화홍문, 방화수류정 등과 유사하여 화성의 여러 건물과 양식적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다.

### 3.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

수원향교 대성전은 1795년에 건축된 유교건축의 중요한 유물로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대한민국의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수원향교의 재건축은 국왕의 직접적인 명령에 따라 추진된 건축 사업으로서, 조선후기 관영건축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 수원향교는 현릉원 조성 공사에 따라 이전된 향교로서 1795년 2월에 정조가 전배하면서 수리를 명하여 같은 해 5월 6일부터 8월 9일까지 약 3개월 만에 공사를 완료한 건축이다. 1795년은 화성의 건설이 한창일 시기이므로 화성성역의 건축자재와 전문인력이 직접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수원향교 대성전의 건축에는 간결한 계획 원칙과 표준화된 부재 사용을 통해 공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간을 단축하는 관영건축의 특성이 잘 반영되어 있다.

둘째, 수원향교 대성전은 향교 대성전 건축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정교한 건축물 중 하나이다. 성균관 대성전의 압도적인 크기를 예외로 한다면, 향교 대성전의 가장 큰 규모는 약 150~160㎡사이에 분포하는데, 수원향교 대성전은 149.5㎡의 규모로서 나주향교, 상주향교, 제주향교, 대정향교와 함께 이 그룹에 속하며, 경기도의 다른 향교 대성전 건물과 비교하면 적어도 1.5배 이상 크다. 또한 정면5칸 측면4칸의 형식을 취하는 향교 대성전 또한 전국에 10개소에 불과하여 유교건축으로서 최고의 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고주 7량가의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구조의 결합부와 부재 형태가 매우 정교하고 아름답게 시공되어 있다.

셋째, 공사에 관한 상세한 기록이 남아있어서 건축계획과 양식을 고찰하는데 중요한 연구자료가 된다. 수원향교 대성전의 공사는 『화성성역의궤』의 단묘조와 재용조의 기록, 문선왕묘도 그림, 또한 더욱 상세하게 묘사된 『덩니의궤』의 문선왕묘도 그림을 통해 전모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재용조의 기록은 수원향교 대성전의 규모와 형태, 재료의 수량에 관한 매우 구체적인 기록으로서 가치가 높다. 한편, 수원향교 대성전은 화성성역의 공사과정에서 다수의 건축물과 함께 지어졌기 때문에, 비교연구를 통해 배치와 평면계획, 구조기술과 장식, 치목과 치석의 기법 등 건축사의 다양한 분야에서 양식을 판정하고 시대상을 고찰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가 된다.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0.09.02	대상문화재	수원향교 대성전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건축역사
	소속	○○대학교	직위(직책)	부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수원향교 대성전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10월 11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1. 입지 현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07-9에 소재한 수원향교(水原鄉校)는 조선 후기 수원유수부(水原留守府)의 읍성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수원 화성(華城)의 주산(主山)인 팔달산(八達山) 남쪽 자락에 남향으로 입지해 있다. 팔달산에서 남쪽으로 뻗은 줄기 하나가 향교 서쪽을 완만하게 감싸 돌면서 내국(內局)을 이루고 있다. 서쪽으로는 얇은 산줄기 너머에 경기도청이 위치하고, 동북쪽으로는 팔달산을 서쪽으로 기대고 입지한 화성의 성벽, 성문을 비롯한 각종 성내·외 방어시설, 봉돈(烽墩), 행궁(行宮) 등이 위치한다.

본래 조선시대 수원부(水原府)는 제22대 왕 정조(正祖, 1776-1800 재위)와 그 생부 사도세자(思悼世子, 1735-1762)의 능인 용건릉(隆健陵)이 있는 지금의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소재 화산(華山) 아래에 있었고, 향교 역시 그 부근에 있었다. 정조가 즉위 후 13년 되던 해인 1789년(정조 13)에 생부의 원침(園寢)을 이곳 화산 아래로 옮겨 현릉원(顯隆園)을 조성하고 이곳에 있던 읍치를 지금의 수원 팔달산 아래로 옮기면서 향교도 함께 이전해 온 것이 지금의 수원향교이다.

## 2. 연혁과 역사문화환경

수원향교는 고려 말 1291년(충렬왕 17)에 창건되었다고 전한다(『수원향교지』). 이에 관한 확실한 증거자료는 전하지 않으나, 구 수원은 이미 940년(태조 23)에 수주(水州)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은 도시였고, 1127년(인종 5)에 모든 주(州)에 학교를 세우도록 조서를 내렸다고 했으므로, 구 수원향교가 1291년에 건립되었다는 전승이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다.

조선 전기 16세기에 간행된 지리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향교가 수원부 읍치의 서쪽 3리 거리에 있다고 되어 있고, 중기 17세기 중엽에 편찬된 『동국여지지』에도 비슷한 위치로 설명되고 있다. 당시 향교가 있던 자리는 지금의 용릉(隆陵) 서쪽의 건릉(健陵) 자리로 추정되며, 이후 이 자리가 1659년(효종 10) 이해에 승하한 효종(孝宗)의 초장지(初葬地)로 조성되면서 한 차례 옮겨졌던 것으로 보인다. 당초 향교가 있던 자리는 일찍이 선조(宣祖)의 능침 후보지로 거론되기도 하였으나 수백 채의 민가를 철거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무산되었고, 이후 효종 승하 후 현종(顯宗)이 다시 능침 조성을 강행했으나, 결국 신하들의 반대로 중단되었다. 결국 이곳에 정조가 생부 사도세자의 현릉원을 조성하면서 읍치를 옮기게 된 것이다. 정조의 능인 건은 원래 사도세자의 능 용릉 남쪽에 있었으나, 1821년(순조 21) 정조의 비 효의왕후(孝懿王后, 1753-1821)가 승하하자 지금의 자리로 천장하고 효의왕후와 합장했다. 이처럼 화산 아래 구 수원부 자리가 왕릉의 입지

로 자주 거론될 정도로 명당의 승지였음을 알 수 있다.

효종 승하 후 한 차례 터를 옮겼던 수원향교는 1661년(현종 2) 재차 부 남쪽의 독울산(禿岫山) 아래로 이견되었다(『수원부읍지』). 『학교등록』에는 이듬해에 이견 공사를 감독한 재임(齎任) 이강(李綱)과 유신(柳迅) 등에 대한 상찬 여부의 논의가 확인된다. 1726년(영조 2)부터 이듬해에 걸쳐 명륜당(明倫堂)의 중수가 있었다(『수원부읍지』).

1789년(정조 13) 정조는 드디어 양주 배봉산에 있던 생부 사도세자의 무덤 영우원(永祐園)의 명칭을 현릉원으로 바꾸고, 구 수원부 읍치가 있던 화산 아래로 옮기기로 결정하고 7월에 공사를 시작했다. 공사 시작과 함께 구 수원부에 있던 향교와 민가를 지금의 수원 화성이 위치한 신읍으로 옮기는 일도 진행되었다. 현릉원 조성 공사는 그해 10월 초에 마무리 되었는데, 그 시기에 정조가 수원으로 행차할 예정이었으므로, 그 안에 신읍을 조성하고 향교와 객사를 비롯한 주요 시설의 공사가 완료되어야만 했다.

신읍의 향교는 1789년 8월에 지금의 팔달산 아래에 터를 정하고, 구읍의 향교를 옮겨와 9월 13일에 완료했고(『정조실록』), 24일에는 정조가 친히 제문을 지어 대성전(大成殿)에서 고유제(告由祭)를 지냈다고 한다(『각사등록』). 향교 이견 공사는 정조의 행행 일정에 맞춰 서둘러 진행되었기 때문에, 대성전 일곽 중심으로 먼저 조성되었고, 이듬해 1790년 5월에 명륜당 10칸이 신축되고(『각사등록』), 1791년 가을에 외신문(外神門)과 수직소(守直所)가 건립되었다(『수원부읍지』).

한편, 정조는 1793년 현릉원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신읍 수원을 화성으로 개칭하고 도호부(都護府)에서 유수부로 격상시켰으며, 이듬해에 시작된 축성 공사는 1796년에 마무리 되었다. 이렇게 해서 수원은 개성, 강화, 광주와 함께 도성을 동·서·남·북 네 방위에서 옹위하는 4개의 유수부 중 하나로 부상하게 된다.

신읍에 새로 조성된 향교의 모습은 1795년 정조가 생모 혜경궁 홍씨를 모시고 화성에 행행하여 회갑연을 열고 현릉원에 참배한 모습을 기록한 『원행정리의궤도』 「알서도」와 『화성능행도』 「화성성묘전배도」에 묘사되어 있는데, 정면 3칸의 외삼문과 명륜당만 있는 강학 영역과, 정면 3칸의 내삼문과 대성전, 동·서무(東西廡)로 구성된 제향 영역이 앞뒤로 배치되어 있는 간략한 형태로 되어 있다. 강학 영역에는 유생들의 기거하며 학문하는 동·서재(東西齋)가 없고, 대성전의 지붕은 팔작 혹은 우진각지붕으로 그려져 있어 사실성에 의구심을 들게 한다.

그런데 1795년 봄 생모의 회갑연과 현릉원 행차를 위해 수원에 행행한 정조는 먼저 향교 대성전에 나가 전배(展拜)하고 경내를 돌아본 뒤 건물의 상태가 열악한 것을 보고 수리할 것을 명했다(『원행을묘정리의궤』). 1789년 당시 향교 이견 공사를 서두르면서 구재를 사용해 건물을 지으면서, 터의 습기를 처리하는 공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는데, 1795년 정조의 행행을 즈음하여 이미 터에 물이 차오르고 습기 때문에 기둥이 썩어 다시 지어야 한다는 장계가 올라가고 있었다(『화성성역의궤』 「부편」

1. 「단묘·문선왕묘」, 「부편」 2. 「장계」).

향교의 중건은 1795년 5월 6일 대성전의 위패를 이안하고 개기(開基)하는 것을 시작으로 진행되어 이해 8월 9일 석전제(釋奠祭) 일정에 맞춰 공사를 마치고 위패를 환안(還安)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화성성역의궤』 卷首 「시일」). 중건된 향교의 규모와 배치는 『화성성역의궤』(「부편」 1. 「단묘·문선왕묘」)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존의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터를 새로 닦은 다음 건물을 지었다. 먼저 제향 영역은 2층으로 월대(月臺)를 조성하고 윗단에 7량가 20칸(정면 5칸, 측면 4칸) 규모의 대성전(大成殿)을 다시 지었다. 정면의 매 칸마다 판문을 달고 위에는 창을 달았으며, 바닥에는 방전(方輦)을 깔았다. 기단의 높이는 5척이고, 앞에 3개의 계단을 설치했는데 디딤판은 5단으로 되어 있다.

대성전 아래의 대는 남-북 길이가 27척이고 동서-폭은 대성전의 정면 길이와 같으며, 그 좌·우 양쪽에 정면 3칸의 무(廡)를 각각 세웠다. 무에는 전퇴가 있으며, 어칸에 4짝 판문을 설치하고, 좌·우칸에는 살창을 설치했으며, 바닥에는 방전을 깔았다. 이 대 아래에 3개의 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디딤판은 4단이며, 대의 높이는 4.5척이다.

대 남쪽 10척 정도 거리에 신문(神門) 3칸을 세웠고, 양쪽은 담장인데, 왼쪽(동쪽) 담장 끝에 협문(夾門) 하나를 냈다.

신문 밖에는 돌을 여러 겹 쌓아 계단을 만들었고, 그 아래에 넓은 마당이 있다. 마당 남쪽에 이전에 건립한 명륜당(明倫堂)이 있는데, 7량가(5량가?) 10칸(정면 5칸, 측면 2칸) 규모이며 북향으로 놓였다. 마당의 양쪽에 동·서재(東西齋)를 지었는데, 각각 6칸이며 전퇴가 있다.

명륜당이 남쪽의 축대 아래로 6-7보 정도 거리에 외신문(外神門) 3칸을 세웠다. 전체 둘레에 담장을 쌓았고, 담장 안 동재 남쪽에 방지(方池) 하나를 판고, 동재 뒤편(동편) 담바깥에 전사청 18칸을 고쳐지었다.

대성전과 동·서무, 내신문과 외신문에는 모두 삼토단청을 칠했고, 용마루 위에는 양성바름(樑上塗灰)을 했다. 외신문 남쪽 14보 정도 거리에 홍살문이 있다.

그리고 『화성성역의궤』에는 중건 공사에 사용된 건축 재료의 종류와 수량에 관한 상세한 정보와 (「부편」 3. 「재용·문선왕묘」), 중건된 향교를 모습을 묘사한 그림(「도설」·「문선왕묘도」)이 수록되어 있어, 1795년 중건 당시 향교의 모습을 파악하고 향후 복원이나 수리하는데 중요한 참고가 된다.

중건된 향교의 배치를 보면, 남북중심축선상에 남쪽에서부터 외신문, 명륜당, 신문, 대성전이 배치되고, 강학 영역을 전면에 두고 제향 영역을 뒤에 배치한 전학후묘(前學後廟) 형식으로 되어 있다.

외신문 안에 높게 축대를 쌓고 넓은 단을 조성하여 명륜당과 동·서재를 배치해 강학

영역의 일곽을 구성했는데, 재사를 강당인 명륜당 뒤에 배치한 전당후재(前堂後齋) 형식이다. 이러한 전당후재 형식의 배치는 명륜당을 대성전을 향해 북향으로 배치한 것과 아울러 제향의 기능이 강조된 배치이다. 신문, 즉 내삼문 안에는 다시 경사지를 깎고 메워 세 개의 단을 조성했는데, 맨 아랫단에 내삼문이 위치하고, 중간단의 좌우에 동·서무를 두었으며, 맨 윗단에 대성전을 남향으로 배치했다. 『화성성역의궤』(「부편」1·「단묘·문선왕묘」)에 기록된 2층으로 만든 월대(月臺)는, 각각 동서무와 대성전이 자리하고 있는 축대를 말한다. 이렇게 제향 중건 공사의 원인이 되었던 습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었으며, 동재 아래에 새로 판 방지 역시 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 판단된다.

외신문, 즉 외삼문 바깥 남쪽에는 홍살문이 있었고, 대성전 서북쪽에는 향사(享祀) 끝에 축문을 태우는 망료위(望燎位)가 마련되어 있었다. 내삼문 동편 담장 끝에 설치된 협문은, 제향 때 준비를 위해 동쪽 담장 바깥에 위치한 전사청으로 통하는 문이다. 전체적으로 전사청과 협문, 방지가 없어진 것을 제외하면 현재 수원향교의 배치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중건 공역이 끝나고 정조 직접 「성묘고유축문(聖廟告由祝文)」을 짓고 고유제를 지냈는데, 당시 대성전에 공자와 4성, 공문 10철, 송조 6현의 위패를 봉안하고, 동·서무에는 동방 15현의 모셨다고 한다(『화성성역의궤』(「부편」2·「어제」). 이 건 이전의 28위보다 8위가 늘어난 중설위로서, 유수부로 격상된 수원의 위상에 걸맞게 봉안 위패의 수를 늘린 것이다.

1795년 중건 이후 일제강점기까지의 연혁은 분명하지 않은데,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서재가 없어지고 전사청의 규모가 축소되었으며, 명륜당에 유리창이 설치된 것 등의 변화가 각종 사진이나 그림 자료를 통해 확인될 뿐이다.

광복 이후 1949년에는 대성전과 동·서재의 중수가 있었으나(「대성전중수기」), 얼마 후 한국전쟁 중에 동·서재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된다(『수원향교지』). 한국전쟁이 끝나고 1957년에는 대성전과 명륜당의 중수가 이루어졌다(「중수기」, 1958). 1977년 대성



문선왕묘도(화성성역의궤)

전과 외삼문 보수, 1980년 담장과 외삼문 보수가 있었고, 1981년에는 대성전 지붕 번와와 기단 및 계단을 보수하고 담장을 수리했다. 일제강점기에 규모가 축소되었던 전사청은 1979년에 사무실과 교직사 등을 신축하면서 완전히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수원향교지』).

1985년엔 대성전의 단청을 새로 고치고 전면의 창호를 교체했으며, 동무의 단청을 보수하고 담장을 설치하는 공사가 이루어졌다. 『화성성역의궤』에 기록된 1795년 중건 당시 대성전에는 판문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때 지금과 같은 세살청판분합문으로 교체된 것으로 보인다. 1986년에는 명륜당 지붕 해체 보수, 동·서무 기단 보수, 대성전 전면 기단 해체 보수 등이 있었고, 1988년에는 명륜당 앞쪽의 석축을 확장하는 공사를 했다. 1989년에는 서재 6칸을 복원하였으나(「서재중수기」), 이듬해 1990년 6월에 화재로 소실되어 다시 짓고(『수원향교지』), 동재 6칸을 지었다.

1991년 9월에는 대성전 방화사건이 발생하여 이듬해 1992년 7월에 대성전 어칸의 창호와 상부 처마의 서까래와 기와를 보수하였다. 1993년 명륜당, 동·서무, 내삼문, 외삼문의 기와를 수리했고, 1996년에는 화재로 소실된 동재를 복원하고, 내삼문 앞의 계단을 보수했다.

최근에는 2008년에 명륜당을 보수하고, 2011년에는 내삼문 지붕을 보수하고, 대성전 기단의 퇴칸을 포함한 정면과 양측면 상부의 전돌을 다시 깔았다. 2012년에는 내삼문을 해체 보수하고, 담장 보수 및 배수로 정비가 이루어졌으며, 2013년에는 외삼문과 좌·우의 담장을 보수했다. 2015년에는 서무를 해체 보수하고, 2016년에는 대성전 벽체를 수리하고, 동무를 해체 보수했다.

### 3. 대성전의 건축적 특징

수원향교 대성전은 1789년 정조가 생부 사도세자의 무덤을 구 수원부의 화산 아래로 옮기고 읍치를 지금의 수원 팔달산 아래로 옮기면서 함께 옮겨 온 것을, 1795년에 정조의 어명으로 다시 지은 것이다. 당시 중건된 수원향교의 건축 구성과 대성전의 규모 및 형태는 『화성성역의궤』에 소상히 전하고 있다.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보수가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일부 변모된 부분도 있다.

팔달산 남록에 남향으로 자리한 수원향교의 대성전은 향교 내에서 가장 위계가 높은 전각으로, 가장 안쪽의 가장 높은 자리에 담장으로 일곽을 구획하고 전방으로 동·서무를 양쪽으로 거느리며 앉아있다. 내삼문 안의 경사지를 세 개의 단으로 조성하고 잘 다듬은 장대석으로 축대를 쌓았다. 가장 아랫단 중앙에 솟을삼문 형식의 내삼문을 내고, 장대석을 네벌대로 쌓은 중간 단의 양측에는 각각 정면 3칸 5량 규모에 전퇴를 구성한 동·서무가 마주보고 있으며, 그 위쪽에 축대 전방으로 장대석 5벌대 기단을 돌출시켜 쌓

은 높은 기단 위에 정면 5칸의 대성전이 당당한 기세로 자리하고 있다. 규모는 정면이 5칸이고, 측면으로는 5량가의 앞·뒤로 퇴칸을 붙인 2고주7량가로, 간살이의 구성으로 보면 측면 3칸이지만, 도리 구성으로 보면 4칸 규모로서, 『화성성역의궤』(「부편」1·「단묘·문선왕묘」)에 기록된 7량가 20칸과 일치한다. 전면의 퇴칸은 전방으로 개방되었고, 지붕은 앞뒤로 겹처마를 구성한 맞배지붕이다.

대성전 기단 전면에는 각각 대성전의 어칸과 좌·우 퇴칸 위치에 맞춰 3개의 계단이 나있고, 계단의 디딤돌은 5단으로 되어있다. 그 아래 동·서무가 위치하는 단의 남쪽 끝에도 대성전 기단에 설치된 계단과 열을 맞춰 3개의 계단을 두었으며 디딤돌은 4단이다. 이러한 축대, 기단, 계단의 구성과 높이는 『화성성역의궤』(「부편」1·「단묘·문선왕묘」)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한편 내삼문 기단 북쪽 끝에서 동·서무가 있는 중간단의 계단, 그리고 그 위 대성전 기단의 계단 사이는 방전을 칸 답도 3열이 이어져 있는데, 이것은 후대에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수원향교 대성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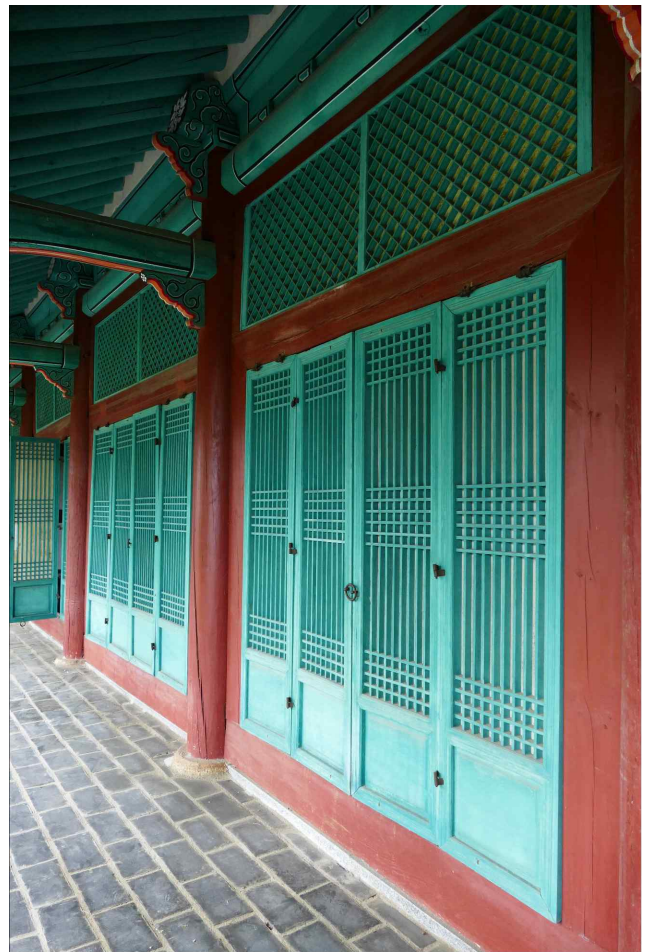
기단의 윗면은 배면을 제외하고 건물 내외부에 정방형의 방전을 반으로 자른 반방전(半方甌)을 깔아 마감했다. 외부의 반방전은 2011년 수리 때 새로 깔 것으로 보인다. 기단 위에 운두가 조금 높은 원형 초석을, 정면 5칸, 측면 3칸의 간살, 정면 5칸에 2고주7량가 구조를 이루는 주망을 따라 배치하고 기둥을 세웠다. 기둥 간격은 정·배면의 어칸이 3,420mm, 양협칸과 퇴칸은 1자를 줄인 각각 3,120mm이며, 양측면은 어칸이 5,250mm이

고 전후 퇴칸은 10자를 줄인 2,120mm이다. 이러한 수원향교 대성전의 규모는 현존하는 조선시대 대성전 중에 서울문묘, 나주향교, 상주향교, 제주향교, 대성향교에 이어 여섯 번째로 큰 규모이며, 경기도 내에서는 가장 크다. 왕이 친림하여 건립을 명한 유수부의 향교 대성전에 어울리는 규모라 할 수 있다.

평면은 정면의 퇴칸만 전면으로 개방하고 나머지 양측면과 배면은 벽으로 막았으며, 정면 고주열에 문을 내어 전내로 드나들게 했다. 내부에도 바닥에는 반방전을 막힌줄눈으로 깔았고, 감주 없이 배면 고주를 전부 세웠다. 전 내부 바닥에 깔린 반방전은 1795년 건립 당시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 내에 봉안된 위패는 공자(孔子)와 4성(四聖), 송조 2현(宋朝二賢), 동국 18현(東國十八賢)으로 구성되는 25위의 소설위(小設位)이다.

기둥은 민흘림이 있는 원기둥을 세웠는데, 전·후 평주에서 현저한 안솔림이 관찰되며, 귀솟음 기법도 사용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기둥 사이에는 전면의 퇴칸은 개방하고, 나머지 세 면 둘레와 정면 고주열 하부의 초석 사이에 고맥이석을 놓고 하방을 걸고, 배면 평주열에는 중인방과 창방, 측면의 어칸에는 중인방, 상인방과 대들보, 전·후 퇴칸에는 중인방과 뒷보를 각각 걸고 심벽을 쳤다. 『화성성역의궤』(「도설」·「문선왕묘도」)에 수록된 그림에는 측면의 중인방 하부에 전돌로 쌓은 화방벽이 그려져 있는데, 지금은 모두 심벽으로 되어 있다. 정면 고주열에는 매 칸마다 하인방과 상인방 사이에 기둥에 면해 문선을 세우고 네 짝 세 살청판분합문을 달았고, 상인방과 창방 사이에는 고정된 빗살 광창을 설치했다. 『화성성역의궤』의 기록과 그림에 의하면 1795년 건립 당시에는 기둥 사이에 우리판문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지금의 문은 1985년 수리 때 교체된 것으로 보인다.



대성전 창호 구성

지붕 가구는 전후 평주와 고주 사이는 뒷보를 걸어 처마도리를 받았고, 전후 고주 사이에는 대들보와 중보를 걸고 대공을 세워 하중도리, 상중도리, 중도리를 받아 7량가를 구성했다.

뒷보의 결구는 평주 머리에 사갈을 트고 창방과 익공을 십자형으로 결구한 다음 주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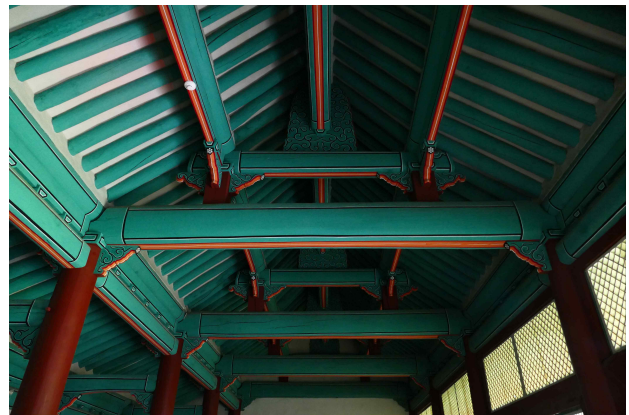


를 놓고 장여와 보머리를 얹어 주심도리를 받았다. 뒷보 뒤초리는 고주에 장부맞춤으로 끼워 넣고 산지를 박아 고정하고, 아래에 보아지를 결구해 보강하고 장식했다. 창방은 굽은 장방형 단면 부재의 모서리를 둥글게 깎은 모양인데 조선 중후기에 일반적으로 사용된 치목 기법이다. 기둥과 맞닿는 면은 기둥의 모양을 따라 둥글게 도려냈고, 뿔목은 끝을 수직으로 잘라 단순하게 처리했다. 익공은 내부를 초각한 보아지형으로 하고, 외부는 촛가지를 빼지 않고 당초문을 초각한 물익공 형식이며, 상부에 얹히는 보머리에 걸쳐 표면에 당초문을 새겼다. 이러한 처리는 수원 화성의 일부 건물에서도 보이는 기법으로, 대성전 건립 당시 화성 건설을 위해 전국에서 동원된 목수들이 대성전을 지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내진고주 사이에는 대들보를 걸고 사분변작보다 약간 중앙으로 치우쳐 중대공 세우고 종보를 걸었다. 고주와 대들보의 연결하고 하중도리를 받는 방식과 구성 부재, 의장은 평주의 것과 동일하다. 중대공은 방형의 동자주의 머리에 사갈을 트고 물익공 형태의 동자주익공과 하부에 초각을 베푼 침차를 十자형으로 짜넣고 주두를 올린 다음, 장여와 보머리를 결구하고 상중도리를 받았다. 침차의 양끝에는 소로를 놓고 장여를 받았다.



대성전 익공 구성



대성전 내부 지붕 가구 구성

종보 위에는 표면에 화려한 당초문을 새겨 장식한 파련대공을 세우고 중도리를 받았다. 도리방향으로 파련대공 사이에 뜯창방을 결구해 횡력에 대한 구조를 보강하고, 뜯창방 위에는 매 기둥 사이에 당초문을 초각한 역사다리꼴 화반과 소로를 3개씩 놓고, 파련대공과 결구되는 위치에는 하부에 초각을 한 침차와 소로를 결구한 다음 장여를 받고 중도리를 올렸다. 뒷보와 대들보, 종보는 모두 곧고 굽을 재목으로 단면을 모를 둥글게 굴린 사각형으로 치목해, 위치에 따라 적절한 크기로 사용했는데,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적절하면서도 강건하게 지붕을 받치고 있다.

내부 천장은 서까래가 노출된 연등천장으로 되어 있고, 서까래도 곧고 일정한 굴기로 치목된 부재를 사용했다. 처마는 전후면 모두 부연을 단 겹처마이고, 서까래 끝은 미세하

게 사절하고 소매걸이는 없으며, 부연 끝은 사절하고 끝에만 살짝 소매걸이를 하여 강건한 모습을 보인다.

박공지붕의 양측면에는 풍관을 달았고, 용마루와 내림마루에는 양성바름을 했으며, 용마루 양 끝에는 용두를 올려 장식했다. 단청은 석간주와 너륙으로 가칠한 위에 선을 넣은 굿기단청으로 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수원화성이 조영될 무렵인 18세기 말 관영건축의 품격을 잘 보여주는 건축이다.

#### 4. 종합의견

수원향교 대성전은 수원 화성의 신읍을 건설하기 위해 1789년 구읍에서 옮겨 온 것을, 1795년 정조의 어명으로 다시 지은 건물로, 향교가 이곳으로 이건되고 대성전이 새로 지어지는 과정은 당시 화성 영건의 전말을 기록한 『화성성역의궤』 등의 문헌에 상세히 전한다. 뿐만 아니라 『화성성역의궤』에는 1795년에 중건된 대성전의 배치, 건축 형태, 사용된 부재의 종류와 규격까지 글과 그림으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재의 건물이 중건 당시의 형태를 충실히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된다. 즉, 수원향교 대성전은 건립 연대가 1795년으로 명확하게 확인되며, 현재까지 건립 당시의 원형을 대체로 잘 유지하고 있는 문화재이다. (3 학술적 가치- 명확성 / 4 공통사항- 보존상태) 정면 5칸에 2고주7량가 규모의 수원향교 대성전은, 정조가 친림하여 살피고 어명을 내려 중건한 유수부의 위상에 부합하는 규모와 격식을 갖추었으며, 현존하는 조선시대 향교 대성전 중에서 수위에 손꼽히는 규모를 가지며, 경기도 내에서는 가장 큰 규모로 주목할 가치가 있다. (1 역사적 가치- 시대성 / 4 공통사항- 동종 문화재와 비교검토)

전체적인 구조를 이루는 가구법이나 주요 부재의 치목기법, 공포와 화반의 간결한 의장기법 등은 조선 후기 익공계 건축의 완성단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18-19세기 조정에서 주도한 관영건축에서 나타나는 건축적인 특징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특징은 또한 같은 시기에 조영되었던 수원 화성의 건축물과도 상통하는 것으로, 당시 대성전이 수원 화성의 건축물과 동일한 장인집단에 의해 동일한 방식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수원향교 대성전은 『화성성역의궤』에 전하는 상세한 정보와 더불어 조선 후기 관영건축의 기법과 생산 방식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1 역사적 가치- 시대성 / 3 학술적 가치 - 연구 기여도)

또한 수원향교 대성전은 조선시대 향교 건축으로서 조정에서 주도한 관영건축의 산물로는 보기 드문 사례이며, 대지를 조성에서부터 기단, 목조 가구구성, 지붕, 세부 의장에 이르기까지 전국단위에서 동원된 기술자들이 양질의 재료를 솜씨 좋게 가공하여 적절한

비례로 완성도 있게 잘 만들어 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2 예술적 가치- 우수성)

이상과 같이 수원향교 대성전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승격 지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평가함.

## 4. 안성향교 대성전, 풍화루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 가. 제안사항

경기 안성시 소재 「안성향교 대성전, 풍화루」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기 안성시 소재 「안성향교 대성전, 풍화루」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경기도지사
- (2) 대상문화재 :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27호 「안성향교」
  - 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명륜동 118
  - 지정일 : 1983. 09. 19.
-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 명칭 : 안성향교 대성전, 풍화루(安城鄉校 大成殿, 風化樓)
  - 소유자(관리자) : 경기도향교재단(안성향교)
  - 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명륜동 118
  - 조성연대 :
    - 대성전 : 조선시대(1630~1660년 재건, 1872년·1883년 등 중수)
    - 풍화루 : 조선시대(1630~1660년 사이 재건, 1687년 벼락으로 수리)
  - 수량 : 2동
  - 지정면적 : 326.1㎡(보호구역 1,524.9㎡)

○ 양 식 :

- 대성전 : 정면5칸, 측면2칸, 1출목 2익공, 1고주 7량가, 전면 겹처마, 후면 홑처마, 맞배지붕
- 풍화루 : 정면11칸, 측면1칸, 민도리, 3량가, 홑처마, 맞배지붕

라. 현지조사의견(2020.09.02.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마. 지정조사보고서 : 불임참조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원안가결 10명, 부결 1명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0.09.02	대상문화재	안성향교 대성전, 풍화루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속		직위(직책)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안성향교 대성전, 풍화루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 년 10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1. 입지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1) 입지현황

『신증동국여지승람』 안성군 조에 의하면 안성의 진산은 비봉산이라고 명시했다. 읍지 등에 의하면 고을 관아는 비봉산 아래 있고 향교는 관아의 북쪽 1리 되는 지점에 있다고 적었다.<sup>41)</sup>

지금도 안성향교는 비봉산 아래 남향해서 자리 잡고 있다. 향교 남쪽 약 400미터 지점에는 안성초등학교가 있는데, 이 자리는 안성의 관아들이 들어서 있던 곳으로 추정된다. 향교는 비봉산의 서남쪽 경사지에 자리 잡고 있으며 좌향으로 보면 약간 서쪽으로 치우친 남향이다. 향교에서 전면을 바라보면 옛 안성현의 읍치를 내려다 볼 수 있다.

현재의 안성시는 인구 18만 명을 웃도는 경기도 남쪽의 큰 도회지이며 비봉산에서 남쪽 안성천 사이의 넓은 시가지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신흥 주거지는 기존 구읍 중심의 서쪽으로 넓게 확장하고 있고 시청은 구읍의 동편 비봉산의 남쪽 기슭에 자리 잡았다. 안성시는 1980년대 이후에 와서 시장이 활발해지고 주거지가 서쪽으로 넓게 확장되었지만 시내 중심부는 여전히 비봉산 남쪽 구읍 중심에서 안성천 사이에 형성되고 있다.

시가지 즉 읍내동 일대에서 예전 조선시대 고을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해발 229m의 비봉산이 시가지 북쪽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예전 고을의 기본 틀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안성향교는 비봉산의 서남쪽 기슭에 자리 잡고 있고 향교 후방은 비봉산의 산자락이 넓게 펼쳐져 있어서 조선시대 자연경관의 일부를 간직하고 있다. 향교는 산자락을 파고 들어가면서 완만한 경사진 대지를 조성하고 들어앉았는데, 그 때문에 남북방향으로 깊게 뻗지 못하고 대신에 지형을 여러 층단으로 나누면서 동서 방향으로 폭을 넓게 잡아서 조성되어 있다.

### 2) 역사문화환경

현재 안성향교를 둔 조선시대 읍치는 안성군에 해당한다. 안성군은 지금의 안성시보다 범위가 좁은 행정단위였다. 지금 안성시는 1941년 행정구역 재편으로 등장하였는데, 조선시대 안성군은 읍내 안성동과 보개면, 대덕면, 금광면, 미양면, 서운면이 그 범위였다. 조선시대에 양성현에 속해 있던 양성면과 원곡면 공도읍, 보개면 일부와 삼죽면, 죽산면, 일죽면은 죽산부에 속한 지역이었다. 양지현에 속해 있던 고삼면도 현재 안성시에 들어왔다. 이런 행정구역 변화에 따라 현재 안성시 안에는 안성군의 안성향교 외에 조선시대 죽산부의 향교인 죽산향교(경기도 문화재자료 제26호), 양성현의 양성향교(경기도 문화재자료 제28호)까지 합쳐서 향교 3개소가 남아 있게 되었다.<sup>42)</sup> 이들 세 향

41)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0, 경기, 안성군. 그런데 『안성읍지』(1899) 학교조에 향교는 ‘在郡北一里’라고 있다.

42)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0, 경기, 안성군 설명을 보면 조선시대 안성군의 경계는 동쪽은 죽산현(竹山縣) 경계까지 16리이고, 남쪽은 충청도 직산현(稷山縣) 경계까지 25리이며, 서쪽으로는 양성현(陽城縣) 경계까지 17리이고, 북쪽으로는 양지현(陽智縣)

교는 지금도 건물이 잔존하고 있다. 죽산향교는 대성전 일곽이 비교적 잘 유지되어 있지만 양성향교는 한 차례 이건하면서 격식을 일부 상실한 모습이다.

또한 안성은 흔히 교통과 교역의 중심지로 일컬어왔는데 그 이유는 두 방면에서 볼 수 있다. 하삼도에서 올라오는 도로와 함께 안성천의 역할이 교통에 큰 영향을 미쳤다면, 17세기 이후 발달한 장시에 힘입어 부상한 안성 장시는 교역의 상징이 되었다. 수공업 면에서도 안성은 서울·개성·전주 등 몇 곳에 지나지 않던 유기를 생산하는 산지로 부상하였다.

이처럼 조선후기 안성군은 장시를 거점으로 한 근·원거리 상품 유통의 확대에 기여한 읍치였다. 점차 장시가 상설 시장화되면서 경제적 중심지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종래의 정치·행정 위주의 전통도시와는 별개로 상업과 수공업 중심지의 도시들이 성장한 것이다. 이 무렵 전국의 15대 장시로 유명했던 지역 가운데 하나가 안성 읍내장이었다.<sup>43)</sup> 『만기요람』에는 가장 큰 장들 가운데 안성 읍내장을 소개하고 있다.<sup>44)</sup> 아쉽게도 안성 장시는 지역적으로 가까운 수원장의 급성장으로 인해 쇠퇴하기 시작하여, 19세기 개항과 동시에 일본산 제품들이 들어오면서 타격을 입고 경부철도의 부설 이후 더욱 쇠퇴 일로를 걸었다.

읍치의 행정 시설을 보면, 『안성군읍지』에는 안성군의 공해로 내아 23칸, 내동헌 8칸, 외동헌 12칸, 외문 5칸, 행랑·중문 10칸<sup>45)</sup> 등이 있었다고 하나 현재 주변은 전부 시가 지화되면서 조선시대 읍치를 구성하던 역사문화환경은 안성향교가 유일하게 남아 있다. 특히 안성군의 객사(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54호)는 조선초기에 건립된 건물로 보고 있는데, 고려시대 수법을 많이 간직한 주심포 건물로서 평가받고 있다. 지금은 시내 보개면으로 이건되어 있다.

## 2. 안성향교의 연혁·유래 및 특징

### 1) 안성향교의 창건과 변천

#### 안성향교의 창건

조선시대 안성군 내에 향교가 언제 처음 건립되었는지는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렵지만 늦어도 태종 연간 이전에 교육시설로서 기능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sup>46)</sup> 『태종실록』에 의하면 1401년(태종 1) 윤조(尹慄)를 학장에 임명했다는 기사가 보이고, 이 보다 앞서서 권근의 문집인 『양촌집』의 「극적루기」에 향학의 장을 서울에 보냈다는 기사가

---

경계까지 89리이며, 서울과의 거리는 1백 52리이다.

43) 국사편찬위원회, 『신편 한국사』30, 조선중기의 정치와 경제, 536~539쪽.

44) 『만기요람』, 재용편5, 각진(各廛), 부(附) 향시(鄕市).

45) 『안성군읍지』, 규17369, 18세기 후반의 안성군 상황을 수록한 읍지이다.

46) 그간 1532년(중종 27) 설이 있었으나 조선초기 향교 확산정책에서 안성만 예외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있는데 기문은 1389년(고려 공양왕 1)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안성군 조에는 향교가 군의 동쪽 2리에 있다고 하여 이미 이 시기에는 향교가 군 즉 읍치의 동편에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인 향교 보급 정책을 들춰서 안성향교에 대입해보면, 세종 무렵에는 ‘1읍1校’ 기준에 따라 전국 고을에 향교를 설치하게 하였고 향교에는 당연히 문묘를 마련하였다. 더욱이 『경국대전』에 의하면 전국 329개 부·군·현에 종6품인 교수와 종9품인 훈도를 파견하게 규정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1401년 학장 임명 기록은 안성향교의 건립시기를 조선초기로 볼 뚜렷한 근거가 아닐 수 없다.

조선시대 안성군은 동쪽에 죽산현, 서쪽에 양성현, 남쪽에 직산현, 북쪽에 양지현으로 둘러싸인 고을이며 동편 죽산 쪽을 제외하고는 평탄한 지형에 물산이 넉넉하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었다. 그러나 문헌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아서 창건 이후 조선전기까지 안성향교가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 17세기 안성향교의 증건

안성과 죽산은 임진왜란 때 왜군의 진로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전란의 피해가 컸으며 이때 안성향교도 소실된 것으로 보인다. 1596년(선조 29) 안성군수를 맡고 있던 이대수는 들판에 터를 닦아 관사를 세웠다고 한다.<sup>47)</sup> 1599년(선조 32) 6월에 안성군수에 제수된 김장생의 연보를 보면 기보(畿輔) 지역이 난리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탓에 살아남은 백성들이 조락(凋落)하였다<sup>48)</sup>는 설명이 이를 잘 대변한다.

어쨌든 간에 시급성이 관사보다는 떨어진 탓인지 향교의 복구는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1630년 이후에 와서 착수된 것으로 추측되는데,<sup>49)</sup> 향교가 예전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게 되는 때는 그로부터 30년이 흐른 1660년(현종 1) 무렵으로 판단된다. 『학교등록』에 의하면 1660년 10월에 성묘를 조성한 공로로 안성의 윤정 등이 관직을 받았다고 하였다.<sup>50)</sup> 이 시기의 향교증건은 규모를 일신하고 대성전을 비롯해서 동무와 서무, 명륜당과 풍화루, 동재와 서재를 갖추는 큰 공사였으며, 현재의 안성향교 기본 골격은 이때 갖추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47) 『청음집』권30, 묘갈명, 증 좌찬성 행 삭녕군수 이공대수의 묘갈명 병서. 좀더 상세한 당시 안성 사정을 읽어보면, 고을 안에는 왜적들이 많았으며, 자주 가혹한 정사를 겪은 탓에 폐허가 되어 버려진지가 한참이나 되었다. 공이 부임해서는 들판에 터를 닦아 관사를 세우고 상처받은 자들을 어루만져 주고 곡식을 실어와 나누어줬는데, 상하 사람들이 모두 정성을 다하고 아전들이 서로 협력해 구제하여 끝내 완전하게 회복시켰다.

48) 『사계전서』권43, 부록 연보 기해년(1599년, 선조 32) 선생 52세). 연보에는 “선생은 온 마음을 다해 보살피 주니,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거의 예전대로 회복되었다. 뒤에 제생(諸生)이 추모하는 생각을 품어 서원(書院)을 건립하여 향사(享祀)하였다.”는 내용도 적혀 있다. 서원은 도기서원으로 안성읍 도기리에 있었으나 조선말기 서원철폐령으로 훼손되었다.

49) 2009년 시행한 안성향교 대성전의 대들보에 대한 연륜연대 조사에서 1630년 이전 벌채한 재목을 사용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경기도지정문화재실측조사보고서』, 안성시, 2009).

50) 『학교등록』 경자 10월 21일 기사.

이번 지정 건과는 직접 연관이 없으나 『학교등록』을 보면 1680년(숙종 6)에 안성군 향교의 성묘와 동·서무, 신문, 내랑<sup>51)</sup>을 적고 있어서 내랑(內廊)이란 건물이 향교 안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등록에서 열거된 건물은 대성전을 비롯하여 동·서무, 그리고 신문인데, 이들은 모두 대성전 영역에 속한 건물로 추측된다. 따라서 내랑은 신문과 연관된 시설로 보이는데, 현재는 강릉향교에 유사한 건물이 남아 있다. 안성향교 내랑은 1919년 공사<sup>52)</sup>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관심을 끈다.

1687년(숙종 13)에 경기감사 신상익이 올린 장계에 의하면, 향교 건물 중에서 풍화루와 동재의 방을 포함해 5곳이 천둥과 벼락으로 깨지고 부서졌다는 기록이 있다.<sup>53)</sup>

### 조선말 이후의 수리

안성향교는 조선말 이후에 가서도 지속적으로 건물을 수리해 나갔으며 19세기말에서 일제강점기를 거쳐 1980년대까지의 대부분의 수리에 대해서는 각종 중건기가 편액의 형태로 향교 내에 현존하고 있어서 그 전모를 파악할 수 있다. 편액은 모두 29개가 있으며 그 중에서 기문은 26점이고 1점을 제외하고 모두 건물의 중수와 관련한 것들이다. 1872년 대성전을 수리한 일을 적은 기록을 시작으로 해서, 1883년, 1893년, 1897년, 1902년, 1906년의 대성전과 부속 건물 수리를 다루었다. 일제강점기에도 안성향교의 수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대성전이나 동서무를 비롯해서 풍화루와 명륜당의 수리가 있었다. 광복 이후에 가서는 1952년 전쟁으로 퇴락한 향교를 수리했으며 1961년에 명륜당 수리, 1965년 풍화루 수리가 있었고 이 해에 삼문 중건도 있었다.

19세기말 수리의 주체는 군수였다. 역대 군수들은 새로 부임하면 사당을 배알하고 향교를 돌아보고 퇴락한 곳이 있으면 향교 유생들과 논의하여 공사를 벌인 정황을 수리 편액에서 읽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893년 대성전 수리를 할 때는 4년 전에 한 차례 지붕수리가 있었지만 그 사이에 건물에 이상이 생겼는데, 새로 부임한 군수가 봉급을 줄여 비용을 마련해서 일을 벌였다고 하며 기와가 썩어서 못쓰게 된 것은 새로 바꾸고 퇴락한 단청을 부분적으로 채색을 더했다고 하였다.<sup>54)</sup> 공사 기간은 한 달 정도였다.

1902년에는 새로 부임한 군수가 명륜당에서 향음례를 거행하고 나서 풍화루와 좌우 재실이 퇴락하고 허물어진 것을 보고 봉록의 일부는 보조하고 유림과 유생 및 주민이 예산을 보내어 공사를 진행했다. 공사는 20일 정도 진행되었으며 건물이 새로워지고 창과 벽이 모두 복구되었다는 내용이 기문에 담겨있었다. 유사한 내용은 일제강점기에 와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역대의 군수가 공사를 주도하고 유림이 힘을 보태어 부

51) 『학교등록』 경신 윤8월 11일.

52) 경기도·안성시, 『향교중수기』, 『경기도지정문화재 실측조사보고서, 안성향교』, 2009, 107쪽.

53) 『학교등록』 경신윤8월11일 기사

54) 경기도·안성시, 『중건기』, 『경기도지정문화재 실측조사보고서, 안성향교』, 경기도, 2009, 105쪽.

분적인 수리를 지속했다. 광복 이후에는 역대 전교들의 개인적인 노력이 두드러져서 1965년 풍화루 중수는 전교의 개인 노력으로 건물을 수리한 사례들이 보인다. 1980년대 이후에 가서는 정부의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어 수리가 이루어지는 일이 계속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 2) 안성향교의 배치

현재의 향교 건물은 남쪽 끝에 풍화루 11칸의 긴 누각이 자리 잡고 있고 그 뒤편 양 끝에 지붕이 연결해서 동재와 서재가 있다. 풍화루 북쪽 마당을 두고 명륜당이 놓여 있다. 명륜당 바로 뒤 경사지 위에 신문이 있고 신문 좌우로 네모반듯한 울타리를 두른 안쪽에 대성전이 남향해서 있고 대성전 전면 마당 좌우에 동무와 서무가 마주해 있다. 대성전 뒤는 완만하게 경사지를 이루면서 비봉산으로 이어지는 울창한 숲이 향교 후방 삼면을 감싼다.

대성전과 동·서무로 이루어진 문묘 일곽은 향교 내에서 후방의 경사진 약간 높은 위치에 남향해서 자리 잡고 있고 남신문에서 좌우로 연결된 담장이 네모반듯하게 일곽을 감싸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질서 있는 외관과 격식을 잘 갖춘 모습이다. 대성전은 정면 5칸으로 일반적인 균현급의 향교 대성전 보다 규모가 크다. 대성전 앞마당은 정면 5칸의 크기에 맞추어 동서 폭이 여유를 갖고 있다. 대성전 마당은 문묘 제례가 있을 때 제례 참여자들이 시립(侍立)하는 곳이며 5칸 길이의 대성전 전면 규모에 맞추어 충분한 공간을 갖추고 있다.

남신문 밖의 학교 영역은 명륜당과 동·서재, 풍화루로 이루어져 있다. 명륜당은 정면 5칸 규모로, 가운데 3칸의 대청마루를 두고 좌우에 각 1칸의 온돌방을 갖추었다. 명륜당의 주 용도는 강론 외에 대성전의 제례를 마치고 나서 전교 등 임원과 유생들이 향음례를 거행하는 것이며 명륜당은 이런 기능을 적절하게 수용한 건물 구성을 보인다.

이 영역의 가장 돋보이는 시설은 풍화루이다. 풍화루는 정면 길이 11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풍화루 자체만으로 11칸 규모인 것은 안성향교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명륜당 앞 마당은 5칸 규모의 명륜당 크기에 맞추어 좌우로 넓게 열려있고, 마당 좌우에는 동재, 서재가 마주해 있다. 풍화루 정면 11칸은 동재와 서재의 바깥 끝 위치에 맞추어져 있어서 향교 일곽이 전체적으로 잘 짜인 모습을 보여준다. 문헌에는 안성향교에 삼문이 세워져 있었다고 했지만 현재 삼문은 남아있지 않다.

향교의 터는 지형이 완만하지만 뚜렷한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그 때문에 남북 방향의 길이 있는 공간 구성보다는 동서 폭을 길게 잡았다. 그 결과 남북 방향이 긴박하게 압축해 있는 구성을 하는 점이 돋보인다. 남북 방향으로 건물이나 마당에 여유가 없고 각 건물들이 밀집해서 늘어선 느낌이 강하다. 특히 학교 영역의 명륜당과 그 뒤 남신문 사이가 비좁아서 명륜당 측면의 계단을 거쳐 남신문으로 오르는 진입이 편안하지

않다. 또 대성전이나 명륜당 앞마당은 좌우 측면이 길고 남북 길이가 짧은 장방형 마당을 이루고 있어서 마당이 깊이 있는 공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약점은 전면의 11칸 풍화루를 통해서 충분히 보완되고 있다. 전면 풍화루는 동서가 긴 배치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향교 전체를 동서 방향으로 길게 감싸면서 동서방향의 짝 짜인 외관을 만들어 내고 있다. 지형의 특성을 잘 읽어내면서 그 특성을 건축적으로 구현해 내는 데에서 큰 성과를 이룬 배치라고 평가된다.

### 3) 풍화(風化)가 지닌 의미

풍화루란 이름은 조선전기에 고을 객사나 향교 등에 널리 지어졌는데,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황해도 수안군에 풍화루가 객관 문루라고 적었고, 충청도 진의현에는 풍화루가 객관 동쪽에 있다고 하였다. 반면에 강원도 영월군의 경우 향교가 ‘군 동1리에 있는데 풍화루가 있다’고 하였고 충청도 단양군에도 향교가 ‘군 남쪽 1리에 있고 풍화루가 있다’는 기사를 볼 수 있다. 현존하는 향교의 문루 이름으로 제일 많이 사용한 것이 바로 풍화루여서 풍화를 강조한 흐름을 살필 수 있다.

‘풍화(風化)’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풍속과 교화를 뜻하며, 교육으로 백성들을 감화시킨다는 의미를 지닌다. 『한서』, 『예악지』에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윙성해 지면 읍양의 의례가 성해지고 따라서 풍화가 천하에 퍼진다고 적었다.<sup>55)</sup> 조선말의 학자 이종기(李種杞, 1837~1902)가 쓴 『만구집』에서는 향교의 의례를 언급하면서 ‘명륜당에서 향음례를 하고 풍화루에서 강론’한다고 하여 명륜당은 향음례를 거행하는 장소로, 풍화루는 강론하는 장소임을 명시하고 있다.<sup>56)</sup> 이와 같은 인식은 향교 공간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로 판단된다.

### 3) 대성전과 풍화루의 건축특성

#### (1) 대성전 건물현황과 특성

##### 평면 규모

대성전은 전면 5칸, 측면 2칸반 규모로 정면 반칸을 퇴칸으로 개방했다. 통상적인 군·현급의 문묘가 정면 3칸 규모인데 비해 안성현에서 5칸 규모로 한 것은 남북 길이가 짧은 배치의 특성을 보완하기 위해 건물을 5칸으로 확장하고 그에 맞추어 앞마당의 가로 폭을 넓게 확보하려는 의도의 결과로 이해된다. 하지만 5칸 대성전을 건립한 이유는 이런 지형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도만은 아닐 것이나 현재로서는 5칸으로 건립한 연유와 시기를 밝히기엔 사료의 한계가 있어 건축적인 면에서의 의미를 강조하고자 한다.

55) 『漢書』, 禮樂志 ‘融雅頌之聲, 盛揖讓之容, 以風化天下’

56) 『晚求先生文集』, 14卷, 墓碣銘, 平山申公墓碣銘并序, ‘或鄉飲於明倫堂, 講論於風化樓’

정면의 주칸 길이는 2009년의 실측조사에서 어칸이 2,517mm, 좌우 협칸이 2,505와 2,530mm, 양끝 퇴칸이 2,557mm와 2,474mm로 평균적인 길이는 2.53m 정도로 수렴된다. 따라서 건립 당초의 주칸 설정은 5칸 모두 8자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측면 주칸은 2,843mm와 2,841mm로 계측되었다고 하므로 당초에는 9자 정도로 잡은 것으로 보인다. 전면의 퇴칸은 보 방향 거리가 1,293mm라고 하였다. 따라서 4자 길이로 판단된다. 퇴칸 길이가 좁은 편이지만, 남북이 좁은 지형에 맞춘 결과라고 하겠다. 전후면 기둥에서 기단 끝까지 거리는 전면이 1,745mm, 후면이 1,593mm이다. 기단에는 3개의 계단이 설치되어 있다.

대성전 평면은 통상적인 사당 건물의 격식을 충실하게 갖추고 있다고 평가된다. 전면 퇴칸을 개방하여 제례가 있을 때 전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헌관을 비롯한 참여자들의 움직임을 대비해 놓았다. 전내는 정면 5칸에 측면 9자 2칸으로 제법 넓은 내부 공간을 확보하여 공자를 위시한 신위를 모실 수 있도록 하였다.

## 가구구조

대성전 건물은 전퇴를 둔 1고주 7량가로 정면 평주열 상부에 1출목 이익공의 공포가 놓여 퇴칸에 설치된 퇴량을 받치고 있다. 퇴량은 고주에 꽂혀 산지로 고정하였다. 배면의 평주와 전면 고주 사이에는 대량을 걸었다. 대량은 전면은 퇴량과 동일하게 고주에 산지로 고정하였으며 배면은 평주 상부의 초익공에 걸었다. 대량은 중앙에 위로 약간 휘어져 올라간 휘어진 곡재로 단면은 원형에 가깝다. 대량 위에 거의 근접해서 중량을 좌우 하중도리에 걸었는데, 중량은 대량과 달리 반듯한 직선재이고 단면은 방형에 가깝다. 중량 가운데 동자주 둘을 올리고 상중도리를 받는 중량을 걸어 완벽한 삼중량 구조를 갖추었다. 처마는 정면은 겹처마, 후면은 홑처마이다. 이와 같이 비대칭 가구구조를 한 대성전으로는 서천 비인향교 대성전과 음성향교 대성전이 있는데, 안성향교와 유사하다. 지붕은 일반적인 사당 건물과 마찬가지로 맞배지붕으로 되어 있다.

정면기단은 장대석 4단으로 쌓아 전면을 꾸몄으며 측면과 후면은 자연석에 가깝게 약간의 가공을 곁들인 석재 1단으로 경계만 드러냈다. 초석은 전면과 나머지가 가공 방식이 다르다. 전면 평주열과 퇴칸 고주열은 거친 정다듬 정도의 주좌가 잇는 원형초석을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자연석초석을 두었다. 전면 고주열 정칸에는 고막이 초석을 사용했다. 기둥은 모두 원기둥을 사용했으며 약한 민흘림을 두었다. 기둥의 직경은 정면 평주가 가장 커서 1자 1치정도이고 배면은 1자가 조금 안 되는 굵기이다. 내부 배면 서쪽 협칸 기둥 앞에 방형의 보조기둥이 하나 서 있는데, 1952년에 수리하면서<sup>57)</sup> 세웠다. 대들보에 생긴 문제를 부재를 교체하는 대신에 보조기둥을 받쳐 계속 사용한 것이다.

57) 경기도·안성시, 「중수기」, 『경기도지정문화재 실측조사보고서』, 2009, 109쪽.

## 세부 가공

정면 공포는 1출목 이익공이며 주칸마다 화반 1좌씩을 올렸다. 배면은 무출목 초익공이다. 전면은 기둥머리에서 창방과 초익공이 십자로 결구되고 그 위에 주두를 놓고 주두에서는 주심행공과 이익공이 십자로 결구되었다. 이익공 위에는 운공을 두었다. 운공은 뒷보 뺨목과 연결되지만 별도의 부재로 처리하였다. 전면 익공 쇠서의 형상은 아래쪽으로 휘어진 간결한 형상이며 초익공 등에는 활짝 핀 연꽃을, 이익공 위에는 연봉을 조각해 올렸다. 운공은 당초모양인데, 양측면은 봉황머리로 했다. 화반은 역사다리 형태의 연화형으로 장혀와 만나는 상단은 운공과 같이 좌우대칭으로 구름을 새겼다. 배면 초익공은 끝이 뾰족하게 가공된 간결한 모습이며 간결하게 사절한 보머리를 받는다. 공포의 세부 가공이나 장식처리로 미루어 1660년 중건 당시의 솜씨로 보기는 어렵고 18세기 이후 수리하면서 수리할 당시의 기법으로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창호는 전면 대청 부분은 세살분합으로, 양끝 퇴칸은 격자살의 광창을 둔 간결한 모습이다.

지붕가구에서는 퇴량 위에 승두를 올린 점이 주목되며 처마 상부의 통평고대도 눈길을 끈다. 승두는 도리 하부에 설치하여 도리와 직교하는 하부 부재를 안정적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부재로, 고려말이나 조선초기 건물에 주로 나타나는 것인데, 대성전 퇴량 상부에서 승두를 확인할 수 있다. 통평고대 역시 후대에는 통재로 쓰지 않는 것이어서 고식에 속하는 부재이며 동시에 기법이다. 초평고대와 착고를 한 부재로 만든 통평고대는 봉정사 극락전을 위시하여 고려시대 건축물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기법이다. 고식의 기법인데 17세기까지도 간혹 쓰였던 고식 기법이다.

## (2) 풍화루 건물현황과 특성

### 평면

중층 누각형태의 정면 11칸, 측면 1칸 규모로 되어 있는 풍화루는 아래층은 기둥만 서고 전체 개방되어 있으며 바닥은 흙바닥으로 마감되어 있다. 1980년대까지는 외부 삼면을 막돌 담으로 가로 막고 정면 중앙 1칸만 개방해서 출입하도록 했다가 1989년 수리하면서 담장을 털어내고 홍살로 벽을 마감하여 통풍이 가능하도록 했다. 상층 누각은 전면에 판문을 달고 좌우 측면은 벽체로 막고 명륜당을 바라보는 후면은 개방했다. 2009년 실측조사에 의하면 중앙 어칸 기둥간격이 3.022mm라고 하므로 대략 10자로 잡았다고 짐작되면 좌우 협칸은 9자 나머지는 8자 정도로 되어 있다. 측면 주칸은 9자 크기이다. 측면 주칸을 9자 1칸으로만 잡은 것은 역시 지형 여건 때문으로 보인다. 남북 방향이 여유가 없는 탓으로 명륜당 마당도 동서를 길게 잡고 남북을 좁게 설정했듯이 누각도 보 방향 길이를 길게 잡을 여유가 없었던 셈이다. 대신에 동서 방향을 길게

만들어 전면 누각의 기능을 충족시킨 흔치 않은 경관을 만들어냈다.

## 가구구조

가구구조는 간결한 삼량의 민도리구조이다. 기둥은 하층은 원기둥, 상층 누마루는 네모 기둥으로 처리하였다. 기둥이 개방되어 있는 하층은 원기둥으로 처리하는 것이 비바람에 견디는 면이나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고, 상층 누각은 민도리 1칸 크기에 걸맞은 간결한 짜임에 맞게 방형으로 마무리하였다. 대공 역시 장식 없는 간결한 사다리꼴이다.

기둥머리는 정면은 창방만 걸고 후면은 창방 아래 장혀를 덧댔는데, 정면은 벽체에 창호들이 있어서 구조적으로 받치는 효과가 있지만 후면은 벽면이 개방되어 있어서 장혀로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사방을 일정한 원칙에 따라 구성하지 않고 집 짓는 상황에 맞추어 위아래 기둥 가공을 달리하고 전후면 기둥머리 구조를 달리하는 등 적시적소에 필요한 응용을 가미한 솜씨가 돋보인다. 여러 시기에 걸친 보수공사의 결과와 맞물린 문제긴 한데, 현 건물에서 구간별로 보수 시기와 변화상을 완벽하게 가리기는 어려워 풍화루의 구조가 지닌 특징으로 보는 수준에서 그치고자 한다.

## 세부가공

풍화루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창호의 중간설주이다. 전면 11칸에 모두 판문이 설치되고 각 판문 중간에 설주를 세웠다. 이 중간설주는 조선중기에 널리 쓰이다가 조선말에 와서는 거의 사라지는 경향을 보이는 점에서 안성향교가 중건되던 17세기의 흔적을 보이는 부분이라고 평가된다. 현재 중간설주가 쓰인 창호는 주로 영남지역에 집중 남아 있으며, 창덕궁에도 일부 건물에서 확인이 되나 경기지역에서는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의미가 크다.

기둥 중에도 일부는 민흘림이 있고 자귀로 거칠게 다듬은 가공흔이 남아있는 것들이 6개 정도 남아있다. 최대한 원목의 직경을 살려 쓰려는 경제적 판단과 함께 누각 기둥이란 조형감을 반영한 장인의 의도라고 판단된다.

## 3.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 1) 대성전

#### 17세기에 건립된 역사적 가치

『학교등록』을 통해서 대성전이 1660년(현종 1)에 중건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09년 대들보에 대한 연륜연대 조사를 1630년 벌채된 목재가 다수 남아있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이 건물 공포 세부는 익공 쇠서에 연꽃이나 연봉이 장식되어서 18세기 이후의 시대적 특징도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건립 시기는 기둥과 보, 지붕 등으

로 이루어진 건물 뼈대를 기준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건립시기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포의 세부 형상이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다.

현재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상당수의 목조건물 중에는 문헌 뒷받침이 없어서 공포의 형상에 따라 건립 시기를 설정한 사례들이 적지 않다. 목조건물에서 공포의 세부형상은 건물의 건립 시기를 판별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지만 공포의 세부는 건물 전체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전체 건물의 짜임이나 구조적인 틀, 공포 이외의 다른 세부들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놓쳐서는 안 되는 점이 적지 않다.

안성향교 대성전의 경우, 건물이 증건된 시점은 17세기 중엽이며 이때 건물 전체의 골격이 잡히고 간살이 정해지고 전체 형태가 완성되었다. 승두가 있고 3중으로 보를 설치한 점도 17세기의 시대 특성을 반영한다. 비록 후대에 부분적인 수리를 하면서 공포 세부에 후대의 시대특징이 담기기는 했지만 대성전에서 공포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물은 17세기에 기본적인 건축형태가 갖추어지고 후대에 세부적인 수리가 가미된 것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 건축형식상의 가치

대성전은 균·현급 문묘지만 정면 칸수를 5칸으로 잡아서 3칸 규모의 일반적으로 현급 문묘보다 크다. 통상 정면 5칸의 대성전은 서울문묘나 경주, 나주 등 부나 목 이상의 큰 도회지에서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예외적인 측면이 있다. 안성향교의 대성전이 정면 5칸 규모를 갖추게 된 정확한 배경은 파악하기 어렵지만 남북 방향이 상대적으로 짧은 지형 여건이 주요한 요인이 아닌가 한다.

안성향교가 자리 잡은 지점은, 전면은 시가지가 시작되는 곳이고 후방은 비봉산의 산자락이 바짝 내려와 있어서 부득이하게 남북이 짧고 동서 폭이 넓은 대지 형태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이런 지형에서 학교영역과 문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남북을 여러 층단으로 나누어 긴밀하게 구성하고 동서는 상대적으로 여유를 갖고 배치하게 마련이며 그 결과 대성전을 5칸으로 확장하여 앞마당을 동서가 넓은 공간으로 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건물은 전면에 퇴칸을 두고 기단에는 3벌의 계단을 두어 중앙을 신주 봉납용, 동계를 오르는 곳, 서계를 내려가는 곳으로 삼는 등 제례의 절차에 맞추어 건축형식을 갖추었다.

### 건축구조상의 가치

3중량은 일반적으로 7량 건물에서 고주를 하나만 둘 때 채택하는 구조방식이다. 현존하는 사례로 보면 1고주 9량이나 11량 건물에서도 3중량의 사례가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것은 7량구조로 알려져 있다. 특히 1고주 7량의 3중량은 17세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시대 특성도 보인다. 주로 향교에서 많이 나타나지만 불교사원에서도 적지 않은



사례가 알려져 있다.<sup>58)</sup>

일반적으로 7량 구조에서는 고주를 전후 둘을 세워 고주 위에 대량을 올리고 그 위에 종량을 올리고 고주 몸에 퇴량을 결구하는 방식이 널리 채택되지만 대성전처럼 고주를 하나만 세워 고주를 세우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또 내부에 기둥을 적게 세워 공간 이용을 원활하게 하는 방식도 17세기에는 널리 채택되었다. 이 경우 상부 대들보가 3중으로 겹쳐지면서 시각적인 효과를 만들어낸다. 특히 대성전에서는 제일 아래 대량은 휘어진 자연재를 사용해서 시각적인 효과를 더해준다. 이렇게 구불구불한 자연재를 잘 사용한 건물은 안성 청룡사나 칠장사 같은 건물에서도 볼 수 있어 시대성 못지않은 지역색으로서의 가치도 추후 평가가 필요하다.

## 2) 풍화루

### 역사적 가치

풍화루는 1687년 벼락을 맞았다고 『학교등록』에서 밝혔으며 이 기록은 안성향교 풍화루가 17세기에 이미 지어져 있었음을 알려준다. 현재의 건물 창호에 남아있는 중간설주나 잔존한 6개의 오래된 기둥의 치목상태는 이 건물이 17세기에 이미 지금과 같은 11칸 규모로 지어져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조선시대 향교의 풍화루는 이미 조선 초기부터 그 존재가 알려져 있지만 실물 차원에서 보면 17세기보다 이른 사례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런 점에서 안성향교 풍화루는 향교에 지어진 풍화루 중에 비교적 이른 시기의 사례로 인정될 수 있다.

향교에서 명륜당과 풍화루가 모두 갖추어진 경우, 명륜당은 향음례를 행하는 장소로 쓰이고 강론은 풍화루에서 거행하는 사례를 19세기 문집인 『만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향교의 풍화루는 많은 사례들이 알려져 있지만 안성향교처럼 그 건립 시기가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사례는 흔하지 않다. 더욱이 문헌을 통해서 17세기 이전 풍화루의 존재가 확인되는 사례도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안성향교 풍화루는 현존하는 17세기 이전 건물의 흔하지 않은 사례로 꼽힌다.

### 지형의 특성을 살린 건물 배치의 특성

안성향교가 서 있는 곳은 경사가 뚜렷하고 후방은 비봉산의 울창한 숲으로 이어진다. 이런 지형 탓에 전체 향교의 구성은 남북이 짧고 동서 폭에 여유가 있는 대지 형상을 하고 있으며 남북은 몇 개의 높낮이가 뚜렷한 층단을 이루고 있다. 특히 풍화루가 서 있는 위치는 전면이 경사를 이루고 있고 후방은 사람 키 높이의 층단 위에 명륜당 마당이 열리는 곳이다. 이런 위치의 성격에 맞추어 11칸으로 긴 중층의 누각을 설치하여 향교 전체를 감싸 안는 장엄한 외관을 이루고 있는 것이 풍화루이다. 풍화루와 동재,

58) 양재영, 「한국목조건축의 삼중량 가구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2008.6

서재는 지붕을 연결하여 전체 ㄷ자 형태를 이루면서 명륜당 마당을 형성하고 있다. 마당 역시 풍화루 11칸의 긴 길이에 맞추어 동서가 길고 남북이 짧은 긴장감 넘치는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조선시대 지방 군현에 있는 수많은 향교 중에도 안성향교처럼 긴장감 있는 공간구성과 전면의 장대간 긴 누각 건물이 전체를 감싸는 구성은 달리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비슷한 구성을 찾는다면 강릉향교를 예로 들 수 있지만 강릉향교의 경우에는 명륜당을 11칸으로 구성하여 그 성격을 달리 한다.

### 건축형태상의 가치

안성향교에서 볼 수 있는 11칸 규모의 풍화루는 현존하는 사례로는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다. 일반적인 향교 풍화루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누문 형태이다. 그런 점에서 11칸 풍화루는 그 자체로 건축적인 희귀성을 갖는다. 안성향교 풍화루는 민도리 3량의 간결한 짜임을 갖추었으며 세부 가공에서도 불필요한 치장을 가미하지 않은 검소한 구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세부에서는 중간설주를 갖춘 창호, 거칠게 면을 쳐낸 기둥 가공의 흔적, 벽체가 없는 후면 기둥 사이에만 창방 아래 장혀를 두는 등 최소한의 가공 작업을 통해 11칸 누각의 장엄한 외관을 갖추는데 특징을 갖는다.

### 동재·서재와의 관계

현재 풍화루와 동재, 서재는 평면상으로는 별개의 시설로 되어 있고 상부 지붕이 연결되어 전체 ㄷ자 형상을 이룬다. 『학교등록』(1687)에 풍화루와 동재가 벼락을 맞았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동·서재는 풍화루가 지어지던 시기에 같이 조성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에 여러 차례 수리가 이루어지면서 원래의 형태에서 변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현재의 동재와 서재는 모두 전면과 후면에 퇴칸을 갖추고 있는 모습인데, 이는 일반적인 향교 동·서재에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후대에 후면 퇴칸을 확장한 결과로 판단된다. 또 동·서재의 구조 방식은 풍화루와는 시대적으로 적지 않은 차이가 있어서 후대에 크게 개조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문화재적 가치 측면에서는 풍화루와 동·서재는 하나로 묶어서 검토하기 보다는 따로 떼어서 풍화루의 고유한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4. 종합의견

조선 태종연간 이전에 건립된 안성향교는 1660년에 와서 현재의 모습으로 다시 지어졌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문헌자료와 물리적인 근거들을 잘 갖추고 있다. 현존하는 대성전과 풍화루는 이 시기에 와서 지어졌으며 이후 수차례에 걸친 수리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대성전은 정면 5칸 규모에 전면이 개방된 퇴칸을 갖추고 있고 건물 앞에는 가로방향이

긴 장방형 마당을 두고 동·서무와 남신문이 둘러싸면서 긴장감 있는 공간구성을 하는 제례용 건축의 전형을 이루고 있다. 대성전은 고주 하나를 둔 7량 구조로, 보를 3중으로 중첩시켜 17세기에 널리 지어지던 시대 특징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구부러진 대들보와 반듯한 직선의 종량, 종량들이 독특한 시각 효과를 만들어낸다. 구조적인 관점에서 대성전은 17세기 문묘의 돋보이는 사례로 손꼽힌다.

풍화루는 정면 11칸의 긴 중층 누각으로, 경사진 지형에 마련된 안성향교 전체를 감싸는 듯한 외관을 구성하여 다른 향교에서 보기 어려운 독특한 경관을 갖추고 있다. 누각은 전체적으로는 간결하면서 힘 있는 형태를 이루면서 세부는 오래된 기법을 간직하여 현존하는 조선시대 향교 풍화루에서는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독창적인 면모를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안성향교의 대성전과 풍화루 두 건물은 국가지정문화재의 가치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평가된다.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0.09.02	대상문화재	안성향교 대성전, 풍화루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건축역사
	소속	○○○○○○○학교	직위(직책)	부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문화재 명칭	안성향교 대성전, 풍화루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 년 10 월 10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1.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안성 읍치는 동쪽으로 죽산, 서쪽으로 양성 및 직산, 남쪽으로 진천, 북쪽으로 양지와 맞닿아 있으며, 지형은 동쪽이 높고 산이 많으며 서쪽과 남쪽으로는 넓은 들을 이룬다. 안성향교는 읍성 밖의 구릉지에 자리 잡았는데, 안성의 진산인 비봉산 동쪽 끝자락의 작은 야산 언덕에서 시내를 바라보며 남서향으로 배치되었다. 안성 관아는 안성향교에서 약 400m 떨어진 지금의 안성초등학교 자리로 추정되며, 『안성읍지』(1899)에서 향교가 관아의 북쪽 1리(里)에 있다고 한 기록과 일치한다.

안성의 교육시설과 관련된 기록은 고려 말부터 등장한다. 양촌 권근의 개인문집인 『양촌집』에 실린 「극적루기(克敵樓記)」에 안성 향학의 장 정한(鄭翰)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으로 미루어, 기문이 기록된 1389년에 향학이 존재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안성은 1362년에 현에서 군으로 승격했고 관민이 합심하여 관아의 동루인 극적루를 건축한 일을 기문으로 남기기까지 했으니, 당시에 공식적인 교육기관을 설립한 것도 충분한 설득력을 지닌다. 이후 『태종실록』에는 1401년에 윤조(尹慄)라는 사람이 안성의 학장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향학의 전통이 조선시대로 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성향교에 대한 보다 자세한 기록은 1468년에 간행된 『동국여지승람』에 등장한다. 안성군에 관한 기록으로서 관원조에서 군수와 훈도가 각 1인이라고 하고, 학교조에서는 향교가 군의 동쪽 2리에 있다고 했다. 같은 해에 완성된 『경국대전』 외관직조에서는 전국 329개 부군현에 종6품 교수와 종9품 훈도를 파견하여 ‘일읍일교’의 원칙을 구현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으며, 안성군에 이미 향교가 제도화된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안성향교의 1533년 창건설이 한동안 지지를 받아왔다. 안성향교 전교를 지낸 이상렬 씨는 1965년 5월 「성군관급안성문묘연혁」이라는 글에서 중건각판, 국사대관, 조선사대계년표 등을 근거로 1533년 창건설을 주장했다. 이후 1965년의 「삼문중건기」, 1984년의 「중건기」, 1989년의 「풍화각 중수기」 등이 모두 이 설을 채용했고, 문화재 안내판에도 동일하게 수록되었다. 그러나 「동국여지승람」 등 안성향교의 역사가 이보다 오래되었다는 근거들이 제시되면서 이 설은 근거를 잃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1533년에 부지의 이전 또는 대대적인 공사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안성향교의 역사를 상고하기 어려운 까닭은 안성향교 소장 문헌들이 1976년 12월 16일에 도난을 당하여 향교의 역사를 자세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극히 부족하기 때문이

다. 따라서 창건으로부터 임진왜란까지의 건축상황은 거의 알 수 없는 지경이고, 임진왜란 당시의 피해 정도 또한 미지수인데, 고을 안에 왜적이 많았고 관아가 모두 소실되었다는 기록 등으로 미루어 안성향교 역시 전쟁의 피해를 크게 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향교의 위치에 대해서는 고지도 중 1750년대 초에 작성된 「해동지도」에서 객사 서쪽에 ‘구향교’라는 표시가 발견되어 창건 후 한두 차례 이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동국여지승람』의 기록에 따르면 향교가 군의 동쪽 2리에 있다고 했는데, 이는 지금의 자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읍기(邑基)와 객사의 서쪽에 표시된 구향교는 적어도 15세기 이전에 지어진 최초의 향교 위치를 가리키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 2. 연혁·유래 및 특징 :

현재 안성향교의 건축물은 임진왜란 이후 17세기에 재건된 것들이다. 안성향교의 복구 기록은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향교등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1660년(현종1) 9월 20일에 성묘를 조성한 공로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안성의 윤정(尹瑄)이 논공 대상에 오른 내용이다. 또, 2009년에 발간된 『경기도지정문화재 실측조사보고서 - 안성향교-』에서는 목재의 연륜연대를 공개했는데, 대성전의 보들이 1630년의 절대연대를 지니고 있어서, 17세기 중반의 재건사업을 증명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임진왜란 이후 1630년부터 1660년 사이에 현 안성향교 대성전이 건축되었음을 판단할 수 있다.

이후 『학교등록』에서 찾을 수 있는 대성전의 수리 기록은 1680~1681년 사이, 1721년에 등장하는데, 내용이 소략하여 구체적인 규모와 범위를 알 수는 없다. 망실된 자료를 제외한 구체적인 기록은 19세기 후반에 와서야 등장한다. 1872년의 대성전 중수기에서는 기둥이 기울었지만 마룻대가 지붕을 견딜만 한 것은 벽체만 다시 발랐고, 썩은 서까래와 깨진 기와는 모두 보충하여 메웠다고 하였으며, 목수, 석수, 니장, 와장, 화공의 이름이 등장한다. 공사의 성격으로 보아 원형을 훼손하지 않고 수리를 한 상황이다. 11년 후 1883년의 중수기에도 썩은 재목을 새것으로 바꾸고 이그러진 곳을 보수하여 50여 일 동안 공사를 한 기록이 있다. 중수기에는 미장 강씨산의 이름이 다시 등장하여 장인의 연속성을 파악할 수 있다. 1893년 중건기에는 대성전의 지붕수리를 했다고 하는데 기와 공사에 동원된 와장에 대한 기록이 없으므로 경미한 수리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1897년 대성전중수기도 남아있는데 낡은 재목과 기와를 교체하고 퇴락된 단청을 부분적으로 채색하여 한 달 가량 공사를 하였다고 한다. 1906년 향교중수기는 기울어진 것을 그대로 두고 지붕과 벽을 수리한 기록이다. 근대기에 들어와서 1921년의 중수공사는 대성전 지붕에 대한 것이었고, 1924년에도 공사 기록이 있으며, 1933년에 비교

적 광범위한 정비가 수행되었다. 한국전쟁 시기인 1952년의 수리 공사는 특이한 변경이 있었는데, 실내의 서쪽 대들보 배면의 보머리가 부러져 그 하부에 방형 단면의 보조기둥을 받친 것이다. 이후 1984년에 대대적인 해체수리공사가 진행되었고, 1952년의 수리공사를 본따 동쪽 대들보 배면에도 보조기둥을 받쳤다.

안성향교 풍화루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1687년 『학교등록』에 등장하는데 풍화루와 동재의 방 등 다섯 곳이 벼락을 맞아 파손되었다는 기록이다. 그렇다면 풍화루는 1630년 이후 1660년 이전에 이루어진 향교의 재건 사업에서 대성전 등과 함께 건축된 건축물일 가능성이 높다. 이후 풍화루의 수리기록은 망실되었으며 구한말에 이르러 1902년 풍화루와 동서재를 수리한 중수기 현판이 전하는데, 허물어져 있던 건물을 20일 정도의 공사 끝에 복구한 것으로 전한다. 1924년에는 풍화루의 문이 기울고 내외담장과 계단 및 초석이 허물어진 것을 복구한 기록이 있다. 풍화루 수리의 기록은 1925년과 1927년에도 등장해서 비교적 간단한 공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42년 봄에는 풍화루 동북쪽 모퉁이가 비로 인해 허물어진 것을 수리한 기록이 있고, 1952년의 수리에서는 풍화루의 판문을 새것으로 교체했다. 1965년으로 기록된 「풍화루 중수기」에서는 전교 도인옥이 개인재산을 회사하여 붕괴된 풍화루의 창과 무너진 벽을 수리한 내용이 나온다. 1971년에는 기와를 교체한 기록이 있으며, 1989년에 전면 해체공사가 시행되었다. 자연석 기단과 배수로를 설치하고 부식된 기둥을 교체 또는 동바리 하였으며 연목과 도리, 장여 등도 부식된 것을 새것으로 갈았다. 기둥은 하층은 7개, 상층은 8개가 신재로 교체되었다. 1989년 풍화루 공사의 중요한 사건은 하층의 벽체를 전면 변경한 것이다. 화방벽으로 되어 있던 풍화루의 하층벽은 습기로 인해 기둥부재가 크게 부식되어 있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체 벽을 홍살로 교체했다고 하는데, 원형을 고증한 것인지에 대해 기록이 전하지 않는다. 이후 2002년에 풍화루를 한번 더 수리한 기록이 있다.

현재 안성향교는 전면에 하마비와 홍살문이 있고 거대한 풍화루가 건축군의 정면을 형성한다. 풍화루 하층 대문을 지나 마당에 오르면 정면에 명륜당이 자리하고 좌우에 동서재가 있는 강학영역이 등장한다. 대성전과 동서무가 자리잡은 제향영역은 강학영역 뒤편으로 언덕위에 자리 잡고 있으며, 중앙에 계단을 두고 삼문과 담장으로 영역을 구획했다. 대성전 앞 신문의 존재는 1680년대의 수리기록에 등장하지만, 이때는 내랑이 있었다고 했으며, 1919년에도 내랑을 수리했다는 기록이 있어서, 대성전 영역이 지금과 같이 담장으로 구획된 모습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삼문은 1965년에 중건한 것으로 삼문중건기가 전한다.

안성향교 대성전은 비교적 건립연대와 양식적 특징이 분명한 건물이다. 정면 5칸의 7량가 건물로서 정면으로 퇴칸을 개방하고 남은 폭을 반분하는 위치에 측벽 기둥을 세웠기 때문에 측면에서 보면 2.5칸 건물로 인식된다. 대성전의 용척은 1척이 약 315cm로 조선중기 이전의 용척 양상을 보인다. 정면의 칸 치수는 중앙을 강조하지 않고 모두 동일하게 약 8척 크기로 통일했으며, 보방향으로는 전퇴칸을 4척으로 하고, 나머지 18척을 반으로 나눈 위치에 측벽 기둥을 세웠다. 정면 5칸은 규모가 큰 대성전에서 적용하는 형식이다. 그러나 퇴칸을 4척 크기로 한 것은 다른 전각들의 사례에 비해 상당히 축소된 크기이다. 전퇴 부분은 외부로 개방되어 있고 바닥은 흙으로 마감했으며 좌우는 화방벽으로 막았다. 벽체는 좌우면에만 화방벽을 쌓았는데, 화방벽은 중방까지이며 창은 전혀 없고 중간에 칸을 구별하지 않고 기둥을 매립한 통화방벽을 설치했다. 전면 고주열에 가설된 창호는 중앙으로부터 좌우로 가며 두 짝 세살청판문, 외짝 세살청판문, 불박이 정자살 광창을 달아 개방성과 위계에 차별을 두고 시각적인 안정을 꾀했다. 실내는 바닥에 우물마루를 깔았는데, 향교 대성전에 마루가 가설되는 것은 조선중기 이후의 경향이므로, 17세기 이후 중창의 결과로 추정된다.

안성향교 대성전의 지배적인 건축적 특징은 건물 전후의 구조와 양식이 비대칭이라는 점이다. 먼저 1고주 7량가는 비대칭의 구조를 만드는 흔치 않은 가구법이다. 그리 크지 않은 건물에서 7량가를 적용한 것은 상징적인 퇴칸의 크기를 줄이고 실내공간을 넓게 쓰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인 7량가 건물이 2고주를 적용하는 것에 비해 실내의 기둥을 하나 생략했기 때문에, 상부 가구가 복잡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대량, 중량, 종량의 3중량 구조의 형태는 대성전의 실내에 특별한 느낌을 제공한다. 크게 흰 나무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잘 살린 여러 겹의 중첩된 들보가 만들어내는 광경은 안성향교 대성전의 대표적인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3중량 방식은 17세기 이전에는 사례를 찾을 수 없고 17세기 전반기에 다수의 사례가 발견되는 특징도 있어서, 목재연륜 연대측정 결과와 함께 대성전의 연대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도 있다. 나아가 과거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편입해 있었던 지역의 양성향교와 죽산향교에서도 동일한 3중량 형식을 발견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지역양식으로 전파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가구의 비대칭에 더해 안성향교 대성전의 전면에는 1출목 2익공의 포를 사용한 반면 후면에는 초익공을 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전면의 공포는 출목을 가진 이익공 양식으로 화려하게 꾸몄다. 초익공과 이익공은 등에 연봉을 새긴 쇠서로 마감되었고 뒷보의 뺄목 위치에 운공을 부착했다. 이익공과 행공의 교차부 위에 올라가야 하는 재주두를 생략한 것은 이 건물의 특징이다. 행공의 옆면은 사절하였고 밑면은 연화두형으로 장식하였으며 같은 형태가 실내의 보아지들에 반복되었다. 전면 익공과는 달리 배면은



초익공 형식으로 주두 위에서 장혀와 보머리가 직접 결구되었다. 초익공과 직교하는 창방은 폭이 좁고 춤이 높은 부재를 사용했다. 처마 역시 전면에는 부연을 깊게 뺀 겹 처마를 사용해 권위를 한껏 뽐냈지만 후면은 홑처마로 구성했다. 초석 또한 전면 평주 열과 퇴칸 고주열에는 정다듬을 한 주좌가 있는 원형초석을 사용한 반면 나머지 기둥에는 자연석 초석을 사용했다. 한편 전면 고주열의 어칸에는 건축의 형태와 무관하게 고막이가 있는 초석을 사용하고 있어서, 중건 시 다른 건물의 초석을 재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건축의 비대칭 경향은 전각 건축의 경제성과 현실성을 고려한 조치로서 조선 중기 이후 지방 건축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특징이다. 안성향교 대성전에서는 측면과 배면의 구조와 장식을 약화하는 대신 시각적 초점이 되는 부분의 형태를 크게 강조했다. 처마선의 안허리곡과 양곡이 확연한데, 정면과 배면의 수치가 두 배 정도 차이를 보이며, 정면 처마의 부연은 2척 이상 돌출하여 비례상 길고 수평적인 이미지를 연출했다. 처마에 통평고대를 사용한 것 역시 조선 중기 건축의 고전성을 표현하고 있다. 서까래는 자연목의 형태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 많으며 이는 실내 축부의 형태와 잘 어울린다. 기둥에서는 민흘림과 귀솟음 등 전각의 격식을 높이기 위한 기법들이 충실히 적용되었다. 실내가구에서는 동자주가 잘 드러나지 않고 뜯장여와 보아지 결합부에 주두를 삽입한 것이 특징이다. 또, 뜯장여가 보 위에 걸터앉은 모습도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보아지와 주두가 결합된 포의 형태는 건물 전체에 격조와 통일감을 제공한다. 대공은 항아리 형태의 판대공으로 두 개의 부재를 쌓아 구성했으며 주간에 한 구씩 놓인 화반은 역사다리꼴의 구름무늬를 새겼다. 두 개의 대들보 후면에 세워진 방형의 받침 기둥은 각각 1952년과 1984년에 보머리가 부러진 것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 세운 것으로 원형과는 무관하다.

안성향교 풍화루는 11칸의 건물로서 현존하는 향교의 누문 중 가장 크다. 풍화루는 향교 정문의 명칭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약 30개소의 향교에서 발견되는데 대체로 정면3칸 측면2칸의 중층 구조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안성향교 풍화루는 누문의 기능과 누각의 기능을 하나로 합친 것으로서 드문 사례로 평가된다. 칸의 크기는 중앙칸이 10자이고 좌우 협칸이 9자이며 나머지는 8자로서 중앙의 세 칸이 특별히 강조된 것을 알 수 있다. 향교 정문으로서 외삼문의 성격이 반영된 계획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이유이다.

풍화루의 초석은 자연석 초석을 사용했으며 하층에는 원기둥, 상층에는 각기둥을 세워 자연스러운 하층의 흐름을 표현했다. 하층의 기둥은 여러 차례 교체되었고 17세기의

원형이 남아있는 것은 몇 개 되지 않는다. 특히 전면의 기둥은 화방벽에 매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습기로 인해 대부분 부식되었다고 하며, 이에 따라 전면 기둥 1개, 배면 기둥 5개 정도를 원형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층 기둥 중에는 대패를 사용하지 않고 자귀로 다듬은 흔적이 남아있어서 고식으로 평가되며 민흘림이 확연하다. 하층 기둥 위에는 인방재를 십자로 걸고 그 위로 마루 귀틀을 올렸다. 귀틀 위에는 방형 기둥이 올라갔는데 직경이 7치, 높이는 평균 7자로서 소박한 규모로 지어졌다. 기둥은 세밀하게 다듬지 않고 원목의 단면 크기를 최대한 이용하고자 했다. 기둥 위로는 공포를 사용하지 않고 기둥머리에서 보와 도리를 직접 결구했다. 그러나 명륜당 마당쪽 배면은 벽체와 창호가 없이 개방된 곳이므로 도리 아래 장혀를 덧대 도리의 처짐을 방지했고, 결과적으로 명륜당에서 보이는 시각적 안정감이 보완되었다. 이때, 처마도리를 두겹주먹장으로 보와 만나게 하여 처마를 약간 높이고 보머리와 서까래 사이의 간섭을 예방한 것에서 장인의 세밀한 솜씨를 엿볼 수 있다. 도리는 특별한 가공 없이 모서리를 살짝 굴린 납도리를 사용했다. 삼량가를 가로지르는 보는 직선형이 대부분이지만 부분적으로 곡선형을 설치한 곳도 있다. 보 중앙에는 사다리꼴의 판대공을 두고 장여와 종도리를 엮었다. 풍화루의 양쪽 두 칸씩은 각각 동·서재와 직각으로 만나는 부분으로서 동·서재 오랑가 가구와 직교할 수 있도록 폭이 맞추어져 있으며, 동·서재의 처마도리가 이어져 풍화루의 보가 되고, 동·서재의 박공부분이 풍화루의 지붕을 타고 앉았다.

풍화루의 양식적 특징 중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창호이다. 풍화루 창호의 특징은 비교적 고식으로 간주되는 영쌍창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풍화루 전면의 모든 칸은 머름동자를 규칙적으로 설치하지 않고 통청판을 끼운 통머름을 설치했고, 머름상하방과 동자의 맞춤 또한 연귀가 아니라 축맞춤으로 간단히 처리한 투박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 이에 더해, 상인방과 머름상방 사이에는 벽면 전체 폭을 4등분하여 가운데에 두 짝 판문을 달았는데, 문얼굴의 중간에 설주를 세운 영쌍창의 형식을 취해 고풍스러운 느낌이 배가된다. 영쌍창의 존재는 풍화루 건물이 17세기 양식을 보존해오고 있다는 근거가 된다. 다만, 풍화루의 영조척이 303mm에 가깝게 추정되어 일제 강점기의 곡척에 부합하고 있고, 중앙 5칸과 나머지 칸이 종도리 규격과 장귀틀의 뺄목 길이가 다른 점이 지적되는 등, 근대기 이후 규모가 확장된 결과일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풍화루 하층을 지나 명륜당 마당으로 통하는 계단을 오르면 작은 차양을 세웠던 초석이 남아있는데, 이는 일제 시대의 수리에서 보이는 특징으로서 여러 변형의 가능성을 예상케 한다. 마찬가지로 1989년 철거된 하층 전면 화방벽의 연혁과 역할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성향교 풍화루의 영쌍창 형식의 판문은 근대기에 우연하게 적용된 장식이 아니라 창건 당시 풍화루의 양식 계승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 3.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

안성향교 대성전과 풍화루는 17세기 중반에 건립된 유교건축의 중요한 유물로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대한민국의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비교적 뚜렷하게 건축연대가 밝혀져 있다. 2009년 안성향교 대성전의 목재연륜연대 측정의 결과 보 부재의 절대연대가 1630년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660년에 성묘를 조성한 공로로 포상을 논의한 『향교등록』의 기사와 대체로 부합한다. 이에 따라 현 안성향교는 임진왜란 이후 17세기 초중반에 재건된 건축물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이 확실하다. 풍화루의 목부재는 목재연륜연대 측정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지만 풍화루의 존재는 17세기 후반 문헌에서 확인되므로 풍화루 역시 대성전과 비슷한 시기에 건축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후 조선후기의 공사에 대해서는 기록이 충분치 못하지만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는 동안 지속적으로 수리를 하여 원형을 계승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둘째, 조선 중기 이후 건축의 양식적 특징이 잘 드러나 있다. 안성향교 대성전과 풍화루는 조선 중기 이후 지방의 건축에서 건축의 상징성과 경제성의 조화를 추구하는 계획적 특징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양식사의 기준이 되는 특별한 기법을 보유하고 있다. 대성전에서는 1고주 7량가의 비대칭적 가구 구성과 삼중량의 사용, 건물 전후면의 공포와 처마형식 및 초석형태의 차별, 실내에서 발견할 수 있는 포형 대공의 의장과 처마 장식의 고전성 등이 대표적이며, 풍화루에서는 투박하고 방어적인 외관에 더해 영쌍창의 형식이 계승되는 모습과 경제성을 고려한 치목기법을 확인할 수 있으며 두겹주먹장을 이용해 공포를 사용하지 않는 구조의 개방성을 높인 점들을 지적할 수 있다.

셋째, 안성향교 풍화루는 현존하는 향교 문루 건축 중 최대 크기이다. 11칸 규모의 문루는 강릉향교 명륜당을 제외하면 다른 향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형식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향교의 지역적, 사회적 기능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유물로 평가된다. 또한 건축사학의 입장에서 조선시대에 확대되는 문루 건축의 특징으로서 병산서원 만대루 등 강학 공간의 전면을 길게 막아서는 건축물과 화암사 우화루 등의 복합기능을 하는 사찰 누각과의 관계를 살피고 보편성과 특수성을 논의하기 위한 흥미로운 대상이 된다.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0.09.02	대상문화재	안성향교 대성진, 풍화루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건축역사
	소속	○○대학교	직위(직책)	부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안성향교 대성진, 풍화루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10월 10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1. 입지 현황

경기도 안성시 향교길 90-4에 소재한 안성향교(安城鄕校)는, 조선시대 안성군(安城郡) 읍치(邑治)가 있던 현 안성초등학교, 안법고등학교 일원의 동북쪽 약 300m 거리에 위치해 있다. 뒤로는 안성의 진산(鎭山)인 비봉산(飛鳳山)에서 남으로 뻗어 내린 줄기의 서쪽 기슭에 기대어 남남서향으로 입지했다.

비봉산 줄기는 안성향교를 지나 남쪽으로 내려가 좌청룡(左靑龍)의 내맥을 이루며 현재 안성시청 자리에서 안성천(安城川)과 조우해 멈춘다. 안성의 내명당수(內明堂水)를 이루는 안성천은 향교에서 내려다보이는 안성 구시가지의 남쪽 경계를 형성하며 서류하여 서해로 흘러든다. 안성천 남쪽으로 대략 3km 범위까지 너른 들판이 펼쳐지고 그 남쪽으로 야트막한 산들이 솟아 있어 향교의 안대(案對)를 이룬다.

조선시대 안성군의 읍치는, 현재 안법고등학교 일대에 수령인 군수(郡守)의 집무처인 동헌(東軒)과 내아(內衙)가 있었고, 그 서쪽에 인접한 안성초등학교와 안성교육지원청 일대에 객사(客舍)가 있었으며, 그 인근에 고려 말에 안성 백성들이 홍건적(紅巾賊)을 물리친 것을 기념해 건립한 극적루(克敵樓)가 있었다고 추정되고 있다. 현재 동헌, 내아와 극적루는 남아있지 않고, 객사는 일제강점기 이후 여러 곳으로 이견되었다가 지금은 보개면 소재 안성문화원 경내에 옮겨져 보존되고 있다. 객사는 통일신라 때 안성지역의 지명을 따 백성관(白城館)으로 불렸고, 국내에 현존하는 유일의 고려시대 객사 정청으로서 귀중한 문화재이다.

## 2. 연혁과 역사문화환경

안성향교의 시작은 조선 초까지 올라간다. 양촌(陽村) 권근(權近, 1352-1409)의 문집 『양촌집(陽村集)』에 수록된 「극적루기(克敵樓記)」(1398)에는, 1398년(조선 태조 7)에 안성군수로 부임한 권근의 벗 정수홍(鄭守弘)이 극적루의 수리를 마치고 향학(鄕學)의 장(長) 정한(鄭翰)을 한양의 권근에게 보내 공사의 전말을 전하고 기문을 청하는 내용이 나온다. 향학은 고려시대에 지방에 설치한 교육기관으로 조선시대의 향교에 해당한다. 이 기문에 따르면 적어도 1398년에는 안성에 교육기관으로 향학이 있었다는 것은 확인된다. 고려시대의 안성은 안성현(安城縣)으로 인근의 주·군·현의 간접 통치를 받는 속현(屬縣)으로 있다가, 1362년(공민왕 11) 안성 백성들이 홍건적을 물리친 공로를 인정받아 안성군으로 승격되고 지군사(知郡事, 군수)가 파견되었는데, 당시에 객사를 비롯한 읍치의 관아 시설이 확충되면서 향학도 건립되었을 가능성은 크다. 『조선왕조실록』 태종조의 기사에는 1401년(태종 1) 당시 안성의 학장(學長) 윤조(尹槁)라는 인물이 보이므로 역시

조선 초 향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1481년(성종 12)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는 안성향교가 군 동쪽 2리에 있다고 했고, 이후에 간행된 각종 읍지나 지도 류에도 표현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지금의 위치에 해당하는 군 동쪽, 혹은 북쪽으로 표기하고 있다. 그런데 18세기 중엽에 제작된 「해동지도(海東地圖)」에는 여타 지리서와 마찬가지로 비봉산 아래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면서 향교, 읍기(邑基), 객사가 차례로 표기되어 있으나, 다시 그 서쪽에 ‘舊鄕校’가 기입되어 있다. 이것에 비추어 짐작컨대, 조선 초까지 안성향교는 당시 객사의 서쪽에 위치해 있다가, 늦어도 『동국여지승람』이 편찬된 15세기 후반 이전에 지금의 위치로 옮겨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의 안성향교는 임진왜란 때 소실된 이후 재건된 것이다. 산자락의 경사지를 여러 단으로 조성해 터를 만들고, 전면에 명륜당(明倫堂), 동·서재(東西齋), 풍화루(風化樓)로 구성되는 강학공간을 두고, 후면에 대성전과 동서·무(東西廡)로 일곽을 이루는 제향공간을 구성하는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방식으로 건물을 배치했다. 강학공간의 배치는 유생들이 기거하며 공부하는 재사(齋舍)를 강당인 명륜당 앞에 두는 전재후당(前齋後堂) 형식으로 되어있다. 강학공간 전면에는 전방으로 펼쳐지는 자연을 바라보며 호연지기를 기르는 유식(遊息) 공간인 풍화루가 있다. 각 영역의 핵심 시설인 대성전, 명륜당과 풍화루는 좌향에 약간의 변화는 있으나 대체로 중심축을 이루며 일직선상에 배치되어 있다. 외문은 별도로 두지 않고 풍화루를 문루 형태로 만들어, 아래층의 외곽 기둥 사이에 홍살을 설치하고, 정면 어칸에 문을 달아 외문의 기능을 하도록 했다. 제향에 사용하는 기물을 보관하는 전사청(典祀廳)은 동재 동북쪽에 있었으나 현재는 터만 남아있고, 향교를 관리하는 고직사(庫直舍) 대신 수복사(守僕舍)를 두었는데 현재 향교 동남쪽에 있었다.

조선 중기 이후 예조에서 향교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기록한 『학교등록(學校謄錄)』(1629-1784, 전 8책)에 1660년(현종 1) 10월 20일에 성묘(聖廟)를 조성한 공로로 안성의 윤정(尹理)을 비롯한 세 명에 대한 상찬 논의가 있어(造成聖廟之功令吏曹論賞), 1660년 무렵에는 향교가 재건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근래에 시행한 목재연륜연대조사 결과, 현재 대성전(大成殿) 보에 사용된 목재가 대체로 1630(인조 8)에 벌채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합하면 임진왜란 때 폐허가 된 이래 30년 이상 지나 재건 공사를 시작해 1660년 무렵에 완료한 것으로 추정된다. 1630년에 재목을 벌채해 1660년 무렵 완공까지 30년 가까이 걸린 셈인데, 그 사이 1636년부터 이듬해까지 병자호란(丙子胡亂)까지 겪으면서 공사가 원활이 진행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목재연륜연대조사를 통해 지금의 대성전이 임진왜란 이후 17세기 중반에 재건된 당시의 건물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대성전의 지붕 가구가 흔하지 않는 삼중량 구조로 되어 있는데, 관련 연구<sup>59)</sup>에 의하면 삼중량 구조는 임진왜란 전에는 없고, 임진왜란 직후

59) 양재영, 「한국 목조건축이 삼중량 가구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17권3호, 한국건축역사학

부터 1650년 사이에 건립된 건물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며, 비율로 볼 때 향교 대성전이 많다고 한다. 따라서 지붕 가구가 삼중량 구조로 되어 있는 대성전은 17세기 중반 건립 당시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서까래 위에서 부연을 받는 평고대가 초메기와 착고판을 한 몸으로 만든 통평고대로 되어 있는 것 역시 고식의 기법으로 17세기 건립 당시의 흔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풍화루에 설치된 창은 문얼굴 중앙에도 설주가 있는 영쌍창 형식인데, 이러한 창호 형식 역시 임진왜란 직후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현재의 풍화루 역시 창건 당시의 형태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임진왜란 이후 17세기 중반 재건 당시 기본적으로 현재와 같은 건물 구성과 배치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학교등록』에는 재건 이후 1680년(숙종 6)부터 이듬해에 걸쳐 대성전 일곽과 위패를 수리하고, 1687년에 벼락의 피해를 입은 풍화루와 동재의 방 등을 수리했으며, 1721년에 대성전과 동·서무를 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명륜당 등에는 총 29개의 현판이 걸려 있는데, 대부분 조선 말 19세기 후반 이후에 신임 군수가 부임하여 향교에 예를 올리고 경내를 시찰 한 다음 크고 작은 중수를 시행하고 그 내력과 군수의 공을 적은 것들이다. 신임 군수가 부임해 올 때마다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중수였기 때문에, 공사의 주기가 대체로 10년 이내로 짧았고, 공사의 내용과 범위도 그다지 크지 않았으며, 공사 기간도 짧았다.

이중 가장 시기가 빠른 1872년(고종 2)의 「중수기」에 기록된 중수는, 『승정원일기』를 통해 신임 군수 임태준(任泰準)이 전임 군수 정기석(鄭箕錫)이 준비해 둔 대성전의 수리를 진행해 지붕을 수리하고 벽과 단청을 보수한 것이 확인된다. 1883년에는 역시 전임 군수 민영순(閔泳純)이 마련한 재목을 이용해 신임 군수 조성호(趙性鎬)가 대성전을 수리하고(「대성전중수기」), 1893년에도 대성전의 지붕과 서재를 수리했다(「중건기」). 1897년(광무 1)에는 신임 군수 윤영렬(尹英烈)이 사재를 출연해 대성전과 동·서무를 수리했고(「대성전중수기」), 1902년에는 새로 부임한 군수 이종두(李鐘斗)가 풍화루와 동·서재를(「중수기」), 1905년에는 그 전 해에 부임한 군수 김현순이 1년 만에 상부의 재가를 받아 대성전과 재실을 수리했다(「향교중수기」, 1906).

신임 군수들에 의한 향교 수리는 일제강점기에 들어와서도 계속되었다. 1919년의 「향교중수기」에는 내랑(內廊)과 담장을 수리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수리했는지 알 수 없고, 현재 내랑에 해당하는 건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1921년에는 군수 서상준(徐相準) 대성전의 지붕과 동·서무의 마루를 수리했고(「중수기」), 군수 이기주(李起鑄)은 1923년에 경내의 여러 전각을 수리(「중수문」), 이듬해 1924년에도 대성전과 풍화루를 수리했다고 한다(「안성교궁중수기」). 1925년에는 군수 홍종국(洪鐘國)이 동·서무와 전사청, 중삼문과 풍화루의 지붕을 수리하고(「중수기」), 1927년에는 군수 신현대(申鉉

---

회, 2008. 6.

泰)가 동무의 인방, 명륜당의 온돌방, 풍화루의 판문과 벽체를 수리했다(「중수기」). 1933년에는 향교 직원 이희원(李熙元)이 사재를 내어 대성전과 명륜당, 동·서무, 풍화루를 시작해 이듬해 끝냈다(「교궁중수기」). 1936년에는 군수 안창환(安昌煥)이 대성전과 동·서무의 계단을 보수했다(「중수기」). 1939년에는 오래 전에 쓰러져 없어진 홍살문을 다시 세웠다(「홍살문중건기」, 1940). 이 홍살문은 이후의 도시화로 사라지고 지금은 남아있지 않다. 1942년에는 풍화루와 전사청의 창호를 수리하고, 명륜당 배면의 기둥을 수리했다(「풍화루중수기」).

해방 후에는 한국전쟁 막바지 휴전협정이 진행 중이던 1952년에 대규모 수리가 이루어졌다(「중수기」). 대성전 배면 서쪽의 보머리가 부러져 전 내부에서 보아지 근처에 보조기둥을 세워 보강했다. 1984년에는 배면 동쪽 보머리가 부러진 것을 같은 방식으로 전 내부에 보조기둥을 세워 보강했다. 이 두 보조기둥은 현재에도 그대로 남아있다. 이 밖에 동·서무의 계단을 쌓고, 명륜당의 창호를 수리, 풍화루의 판문을 교체, 대성전 일곽 담장의 기와를 수리하고 명륜당 둘레에 철책을 설치했으며, 온돌방의 도배를 새로 하고 기타 퇴락한 곳을 보수하고 벽을 발랐다.

1961년에는 명륜당과 대성전의 단청 공사가 있었고(「명륜당단청수식기」), 1962년에는 풍화루의 창과 벽을 수리했다(「풍화루중수기」). 1965년에는 내삼문을 중건했고(「삼문중건기」), 1971년에는 풍화루와 서재, 전사청의 오래된 기와를 교체하고 벽체를 수리했다(「풍화루보수기」). 1979년부터 이듬해에 걸쳐 당시 향교 소유였던 구포동 174-5번지(현재 안성초등학교 운동장) 땅을 안성교육청에 매각하고 그 돈으로 향교를 중수했는데, 명륜당 일곽을 두르는 철책을 철거하고 토석담을 쌓고 건물 단청을 새로 했다고 한다. 1984년에는 대성전과 명륜당의 해체수리가 있었다(「중건기」). 대성전을 서까래 이상의 해체하여 부식된 부재를 신재로 교체하고, 일부 기둥의 부식된 뿌리를 잘라내고 동바리이음으로 수리하고, 배면 동쪽의 부러진 보머리를 1952년의 수리 예에 따라 전 내부에 보조기둥을 세워 보강했다. 서까래 위의 평고대도 교체했으나, 원래의 형식을 그대로 따라 통평고대로 만들어 설치했다. 명륜당은 기둥 이상을 해체수리하여 많은 부재의 교체가 이루어졌다.

1986년에는 동·서무와 내삼문 및 담장의기 기단과 기와를 보수하고 일부 부식된 부재를 교체했으며 단청을 보수했다(「중수기」). 1989년에는 풍화루의 전면 해체공사가 이루어졌다(「풍화루중수기」). 자연석으로 기단과 배수로를 설치하고, 부식된 기둥을 교체하거나 동바리이음으로 수리하고, 서까래와 도리, 장여 등도 부식된 것을 교체했다. 그리고 아래층 외곽 전면에 걸쳐 설치되어 있던 화방벽을 철거하고, 기둥 사이에 홍살을 설치했다. 공사 과정에서 화방벽 속에 묻혀 있던 기둥이 습기로 인해 부식되는 것을 확인하고 홍살로 교체한 것이다. 이 밖에 동·서재의 평면을 고증을 통해 복원하고, 콘크리트 기단을 철거하고 자연석 기단을 설치했으며, 일부 부식된 목부재를 교체하고 벽체를 수리했다.



최근에도 2000년에 내삼문의 문짝을 교체하고 화장실을 신축했다. 이어서 2002년에 풍화루와 동·서재 수리, 2004년에 대성전과 동무의 목부재 수리와 변화 공사, 2005년에 서무의 변화 공사, 그리고 2006년에는 명륜당의 변화와 서무의 미장 공사가 각각 있었다(이상 「향교중수기」, 2006).

### 3. 건축적 특징

#### 1) 대성전

대성전은 『학교등록』의 기록을 통해 1660년(현종 1) 무렵에는 건립되어 있었고, 근래 실시한 목재연륜연대조사 결과, 주요 부재들에 사용된 재목의 벌채 시기가 1630년으로 확인됨에 따라,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가 17세기 중엽에 재건된 것을 알 수 있다. 건립 이후로 현재까지 많은 수리가 이루어졌으나, 건립 당시의 형태, 구조, 기법을 잘 유지하고 있다.

조선시대 향교의 대성전은 강학영역의 대성전과 더불어 장수(藏修) 공간의 핵심 전각으로, 유교를 집대성한 공자(孔子)와 그 제자, 그리고 중국과 우리나라의 대유(大儒)의 위패를 봉안하고 제향을 올리기 위한 건물이며, 향교 내에서 가장 위계가 높다. 안성향교 대성전은 조선시대 향교 배치의 일반적인 방식에 따라 명륜당 뒤에 담장을 둘러 일곽을 형성하고 위치해 있다. 명륜당 오른쪽을 돌아가면, 높은 축대 위의 중심축선상에 내삼문이 있고, 그 안쪽으로는 경사지를 3단으로 조성하여 일곽을 조성했다. 내삼문을 지나 제2단에 오르면 양쪽으로 동·서무가 배치되고 있고, 가장 높은 제3단의 정면에 대성전이 당당하게 자리한다. 향교 내의 가장 안쪽, 가장 높은 곳에 자리를 잡아 전각 배치상의 위계를 구현했다.



안성향교 대성전 전경

잘 다듬은 장대석을 네벌대로 쌓은 기단 위에 정면 5칸의 대성전을 올렸다. 기단 전면에는 어칸과 양퇴칸 위치에 각각 장대석 계단을 하나씩 두었는데, 근래에 수리한 흔적이 있다. 현존하는 조선시대 향교 대성전의 정면 규모는 3칸 경우가 많은데, 안성향교 대성전은 군현 단위의 향교로서는 큰 규모에 해당한다. 기단 윗면은 강회다짐으로 마감하고 전면에는 원형으로 주좌를 새긴 다듬은 초석을, 후면에는 자연석 초석을 놓았다.

간살의 구성은 정면 5칸, 측면 2칸의 몸체 전면에 반 칸규모의 퇴칸을 덧붙인 형태이다. 기둥 위에는 전면에 일출목이익공을 짜고 맞배지붕을 올렸으며, 처마는 전면이 겹처마, 후면은 홑처마로 만들었다. 간살이 구성을 보면, 정·배면은 어칸, 협칸, 퇴칸 모두 8자로 동일한데, 대성전 간살이로서는 조금 작은 편이다. 측면 간살이는 몸체의 2칸은 모두 9자로 동일하며, 전면 퇴칸은 4자로 좁은 편이다. 전면의 퇴칸은 개방되어 있고, 그 안쪽의 고주열에 내·외부 공간을 구획하고 창호를 달았으며, 양 측벽은 중인방 높이까지 외편을 넣은 화방벽을 쌓았고, 배면은 모두 심벽으로 되어 있다. 기둥은 모두 민흘림을 둔 원기둥을 사용했는데, 전면에 조금 굵은 기둥을 사용하여 기둥 아래의 초석, 위의 공포, 처마 등과 더불어 정면성을 강조하고 있다. 내부에는 바닥에 우물마루를 설치하고, 공자와 4성(四聖), 송조4현(宋朝四賢)과 동국18현(東國十八賢)의 위패 총 27위로 구성되는 소설위(小設位)가 봉안되어 있다. 우물마루 귀틀에는 고식의 자루대패로 치목한 흔적이 남아 있다고 보고되었다.



대성전 내부

기둥 사이는 하인방, 중인방을 설치하고 머리에 창방을 결구해 축부를 고정했는데, 측면의 기둥 사이는 상부에 창방 없이 보를 걸어 고정했고, 정면의 뒷기둥(평주) 사이에는 하인방, 중인방 없이 창방만 결구했다. 창방의 단면은 정면 뒷기둥 머리의 것만 굵을 부재를 사용했고, 배면의 것은 수장폭 규격의 부재를 사용해 정면성을 강조했다.

지붕 가구는 정면 고주와 배면 평주 사이에 대들보를 걸었다. 배면 평주와 대들보의 결구는 기둥머리에 사갈을 트고 창방과 익공을 결구한 다음, 주두를 놓고 장여와 보머리를 짜고 주심도리를 받았다. 익공의 외부는 초기 형태로 수서형의 짧은 촛가지를 내고 하부는 구름 모양으로 둥글게 깎았고, 내부는 끝을 사절하고 하부에 초각을 배푼 보아지 형태로 만들었다. 정면 고주에서는 기둥 상부에 보를 장부맞춤으로 결구하고 산지를 박아 고정하고, 아래에 보아지를 끼워 보를 안정적으로 받도록 하면서 배면 기둥 상부의 보아지와 의장을 통일했다. 배면의 좌·우협칸과 퇴칸 사이의 기둥과 대들보가 만나는 부근에는 각기둥을 세워 보강했는데, 왼쪽의 것은 1952년에 보머리가 부러진 것을 보강하기 위한 조치였고, 오른쪽의 것은 1984년 해체수리 때, 기존의 방식을 따라 보강한 것이다. 대들보 위의 중보와 종보를 걸어 1고주 7량가의 삼중량 가구를 형성했다.



대성전 내부 지붕 가구

중보는 배면쪽으로는 대들보 위에 도리방향으로 뜯창방을 걸고 이것과 직교되게 익공을 걸구한 다음, 주두를 올리고 장여와 보머리를 얹혀 하중도리를 받았고, 정면 고주쪽에서는 고주머리에 사갈을 트고 창방과 고주익공을 걸구한 다음, 주두를 올리고 장여와 보머리를 걸구하고 하중도리를 받았다. 중보를 받는 익공은 모두 외부는 촛가지를 내지 않고 구름 모양으로 굴곡린 물익공이고, 내부는 끝을 사절하고 하부에 초각을 베푼 보아지 형태로 되어있다. 뜯창방과 장여 사이에는 소로를 놓아 구조와 의장적 효과를 구현했다. 어칸과 좌협칸 사이의 고주 부근에서 대들보와 중보를 띠쇠로 감아 고주에 장부맞춤한 대들보가 처지지 않도록 보강했다.

중보는 중보 위의 사분변작 위치에 짧은 동자주를 세우고, 도리방향으로 뜯창방을 걸구해 고정된 다음, 동자주 익공을 끼우고 주두를 올려 장여와 보머리를 걸구하고 상중도리를 받았다. 동자주 익공의 외부는 끝을 수직으로 자른 간단한 형태이고, 내부는 초각한 보아지형이다. 뜯창방과 장여 사이에는 소로를 끼웠다. 중보 위 중앙에 윤곽을 향아리 혹은 연봉 모양으로 둥글게 초각한 운형대공을 세우고 뜯창방을 걸어 고정 한 다음, 소로를 놓고 장여와 중도리를 받았다.

양 측면의 가구는 맨 아래의 대들보 대신 정면 고주와 배면 평주 사이의 중앙에 기둥을 세우고, 기둥 머리에 이갈을 깊게 트게 보아지를 끼운 다음 앞·뒤의 보를 끼워 걸구한 맞보 형태로 만들것만 다르고, 그 상부의 구조는 내부의 것과 동일하다.

삼중량 가구는 현존하는 유구로 볼 때, 시기적으로 임진왜란 직후 1650년대 이전에 집중되어 나타나며, 건물의 종류로는 향교의 대성전, 사찰의 불전, 관아 등의 정청, 궁궐에서 주로 보이는데 이 중에서 향교의 대성전이 많다. 향교 대성전 중에서도 삼중량 구조의 비

율은 15% 정도에 지나지 않아 조선시대 중기 이후 향교 대성전의 구조를 대표하는 형식은 아니며, 지역적으로는 기호지방보다 영·호남지방에 주로 분포한다. 한편 안성 지역에서는 안성향교 대성전 외에도 양성향교 대성전(1774년)과 죽산향교 대성전(19세기)에서도 삼중량이 적용되었다. 이러한 정황을 보면 삼중량 구법은 안성지역 향교 대성전 건축의 특징이며, 안성향교 대성전이 그 효시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양성향교 대성전 삼중량 구조

정면의 뒷기둥 위에는 일출목이익공을 짜올려 길게 뻗어나온 처마를 받치며 장식했다. 먼저 기둥머리에 사갈을 트고 굽은 창방과 초익공을 十자형으로 짜넣은 다음, 주심과 일출목 위치에 각각 주두와 소로를 하나씩 놓았다. 이 위에 도리방향으로 주심행공과 출목행공을 얹고 이와 직교되게 이익공을 짜고, 마찬가지로 주심과 일출목 위치에 각각 소로를 하나씩 놓고 상부의 주심도리장여와 외목도리장여를 받았다. 이 위에 뒷보머리를 걸고 외목도리와 주심도리를 받았는데, 주심도리 아래에는 별도로 승두를 놓아 도리가 구르지 않도록 했다. 초익공과 이익공의 외부는 끝을 쇠서형으로 하고 쇠서 위에 연봉을 하나씩 조각했으며, 하부는 당초문을 조각했다. 내부는 상·하 두 부재를 하나의 보아지로 만들고 하부에 당초문 조각을 베풀었다. 이익공 위의 보머리 위치에는 당초문양을 조각한 운공을 별재로 만들어 끼웠는데, 양 측면의 것은 봉황머리 모양으로 되어 있다. 주심장여와 출목장여 사이에는 소로 위에 순각판을 끼워 마감했다.



대성전 정면 일출목이익공



대성전 배면 초익공

정면의 매 뒷기둥 사이의 창방 중앙에는 화반을 하나씩 올리고 소로를 놓아 주심도리장여를 받도록 했다. 화반의 역사다리꼴 판재의 윤곽을 구름모양으로 둥글게 다듬고 중간높이 위치에 좌우로 연봉을 하나씩 조각하고, 상부는 당초문양 조각을 베풀어 마감한 형태로 간결하면서도 조형성이 있는 작품이다. 이에 반해 배면 평주 위에는 기둥 위에 간단한 초익공을 짜고, 기둥 사이에는 창방과 장여 사이에 소로만 올려 장식했다.

지붕은 맞배지붕이고 양 측면에는 풍판을 달았다. 처마의 형식은 전면만 서까래 위에 부연을 달아낸 겹처마이고, 후면의 부연이 없는 홑처마이다. 특히 전면의 서까래 위에는 부연을 설치하기 위한 초메기와 착고판을 통채로 만든 고식의 통평고대가 사용되었는데, 1984년 해체 수리 당시 평고대도 교체되었으나, 원래의 방식대로 통평고대 기법으로 교체하여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서까래는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재 가운데 섞여 있는 굵은 것들이 본래의 부재로 보이며, 끝은 약간 비스듬하게 깎고 소매걸이도 말구 쪽에서 짧게 처리하여 강직하게 보인다. 부연은 다른 건물에 비해 길며 끝도 현저하게 사절하고 소매걸이도 확연하여 고식이면서도 경쾌한 느낌을 준다. 이러한 기법은 경기도내 건축문화재 중에서는 흔하게 볼 수 없다.

창호는 전면 고주열에만 설치되어 있다. 어칸에는 두 짝 세살청판분합문, 좌·우협칸에는 외짝 세살청판문을 달아 출입할 수 있도록 했고, 양 단의 퇴칸에는 불박이 정자살 광창을 설치했다.

단청은 전체적으로 뇌록과 석간주만 사용한 간결한 가칠단청으로 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유교건축을 대표하는 향교의 대성전으로서 엄숙함과 검박함을 잘 유지하면서, 일출목이익공의 공포를 통해 의장상의 위계를 표현했다. 제한된 조영 여건 속에서 맨 아래의 초석부터, 기둥, 공포, 화반, 처마의 구성에 이르기까지 정면 위주로 의장을 집중시킨 점도 특징이다.

## 2) 풍화루

풍화루는 『학교등록』에 1687년(숙종 13)에 풍화루를 수리한 사실이 기록된 것으로 보아, 임진왜란으로 폐허가 된 향교를 재건한 17세기 중엽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후 수 차례의 수리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강학공간의 전방에 위치하여 위층은 유생들이 전방으로 펼쳐지는 자연을 바라보며 유식하거나 유림들의 회합, 향교의 주요 행사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며, 아래층은 벽으로 막고 문을 내어 향교로 드나드는 외문의 역할을 겸하도록 하는 누문 형식의 누이다.



풍화루 전경

경사지의 일부를 가로로 길게 평탄하게 만들어 터를 조성하고, 정면 11칸, 측면 1칸의 장대한 길이를 갖는 누문을 세웠다. 이 11칸은 배후에 배치된 강학공간의 서재 서쪽 끝에서 동재의 동쪽 끝까지에 해당하는 길이이다. 즉, 이 풍화루의 건축 규모는 밖에서 향교를 올려다 볼 때, 안쪽의 강학공간 전체를 가릴 수 있는 길이와 높이로 계획되었음을 알 수 있고, 결과적으로 그 의도는 성공적으로 구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존하는 조선시대 향교 전면에 위치한 문루의 규모는 대체로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로 되어 있고, 아래층 측면 가운데 기둥 위치에서 담장이 이어지고, 그 사이 3칸에 문을 달아 삼문형식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안성향교 풍화루는 현존하는 조선시대 문루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며, 담장과 문을 설치하는 방식도 달라 주목된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경북 예천의 용궁향교 세심루가 있는데, 안성향교 풍화루보다 조금 늦은 1687년(숙종 13)에 건립되었고, 규모는 정면 11칸으로 작지만, 아래층의 전면 외곽 기둥 사이를 벽으로 막고 어칸 1칸에만 문을 다는 방식은 같다.



예천 용궁향교 세심루

(원래는 아래층 전면 기둥 사이가 벽으로 막혀있었고, 중앙의 여칸에만 문을 단 문루였다)

전면 중앙에 길게 계단이 나있어 누 아래의 기단으로 오르도록 했고, 누 아래를 통과하면 바로 명륜당 앞마당으로 오르는 계단이 시작된다. 아래층은 가로로 길고 세로로 좁은 기단을 평평하게 만들고 윗면을 흙다짐한 다음 커다란 자연석 초석을 놓고 두리기둥을 세웠다. 간살이는 정·배년 여칸이 10자, 좌우의 제1협칸은 9자, 나머지 칸은 모두 8자로 해 중앙을 강조하고, 양측면은 9자로 잡았다. 기둥에는 약하게 민흘림이 있고, 기둥머리에는 사갈을 트고 종횡으로 상인방을 결구하여 축부를 고정했다. 당초 정면과 양측면 전체에 걸쳐 두꺼운 화방벽이 감싸고 있었으나, 1989년 해체 수리 때 이 화방벽으로 인해 기둥의 통기가 불량해져 부식이 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화방벽을 철거하고 부식된 기둥을 교체하거나 하부를 동바리이음으로 수리하고, 매 기둥 사이에는 중·하인방을 결구하고 홍살을 설치해 지금의 모습으로 정비하였다. 일부 남아있는 당초의 기둥은 자귀로 면을 죽여가며 다듬은 치목흔이 남아있어 17세기 치목기법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된다. 정면 여칸에는 양 기둥에 접해 문설주를 세우고 안으로 열리는 두 짝 널판문을 달았고, 출입의 편의를 위해 하인방은 설치하지 않았다.

하층 기둥 위에 장귀틀과 여모귀틀, 동귀틀을 결구해 틀을 짜고 상층 기둥을 세우고, 귀틀 사이에는 청판을 끼워 우물마루를 만들었다. 상층 기둥은 약하게 민흘림을 준 각기둥이며, 상하층 기둥 모두 과도하지 않고 건물 규모에 맞는 적절한 단면 크기로 되어 있어



시각적인 안정감과 적절한 비례를 이루고 있다. 정면의 모든 칸에는 아래에 머름을 설치하고, 머름 위에 밖으로 열리는 두짝 널판창을 달았다. 머름은 기둥 사이에 머름상방과 머름하방을 결구하고 양측에 어의동자를 설치한 다음 통청판을 끼운 통머름이며, 외부에 만 중앙에 쪽머름동자를 붙여 장식했다. 머름 상부에는 상인방을 설치하고 양쪽에 문설주를 세워 창얼굴을 형성하고, 외부의 상인방과 머름상방에 둔테를 밖아 고정한 다음 널판창을 달았다. 모든 창은 창얼굴의 중앙에도 설주를 세운 영쌍창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영쌍창은 임진왜란 직후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고식의 기법으로 학술적 가치가 크며, 동시 이 창의 형식이 임진왜란 이후 재건된 당시의 것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창얼굴의 양쪽과 윗부분은 심벽으로 되어있다.



풍화루 하층 내부



풍화루 상층 내부

양 측면은 기둥 사이에 하인방과 중인방을 걸고 심벽으로 막았다. 명륜당쪽 배면의 간살은 하부에 명륜당 앞마당으로 오르는 계단이 있는 어칸에만 통머름을 설치하고 나머지는 모두 벽이나 창호 없이 개방하였으며, 난간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누 위층 바닥과 명륜당 앞마당 남측 축대 사이가 아주 가깝고 높이도 60cm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난간은 필요없어 보이며, 마당에서 누에 바로 오를 수 있도록 총 4개의 낮은 나무 계단이 설치되어 있다.

상층 기둥의 머리에서 축부를 고정하는 방식은 정면과 배면이 각각 다르게 되어 있다. 정면은 기둥머리에 사갈을 트고 바로 보머리와 처마도리를 십자 모양으로 결구한 반면, 배면에는 기둥머리에 사갈을 튼 다음 먼저 장여를 결구하고 나서 보머리와 주심도리를 교차시켜 결구했다. 즉 정면은 창방 없이 처마도리가 창방의 기능을 겸하는 민도리집 형식이므로 되어 있고, 배면은 기둥머리에 장여를 결구하여 축부를 고정하고 도리를 받도록 한 장여집으로 되어 있다. 기둥머리의 부재 결구만 보면 장여를 사용해 기둥 사이를 연결한 배면쪽이 구조적으로 더욱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정면은 하부에 머름과 창을 설치하기 위해 3개의 인방이 기둥 사이를 잡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구조적인 안정성을 확보

하고 있어서 기둥머리에는 별도로 장여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왜란과 호란이 연이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향교를 재건할 당시, 제한된 재목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구조적 효율성을 극대화 시킨 장인의 기술이 돋보인다.

지붕 가구는 3량가의 간단한 구조이다. 대들보 중앙에 1-3매의 판재를 이어 사다리꼴로 다듬은 판대공을 세우고, 장여와 종도리를 결구해 지붕틀을 구성했다. 당초의 것으로 보이는 몇몇 대들보는 적당히 흰 재목을 형태를 유지하면서 피죽을 살려 치목해 위로 굽은 모양이 되도록 설치하여 시각적, 구조적 안정감을 살렸다. 목재의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목재를 사용하면서 건축적 완성도를 이루어낸 솜씨라 할만하다.



풍화루 지붕 가구

주심도리와 종도리는 모두 모서리를 굴린 납도리를 사용했다. 지붕은 맞배지붕이며 처마는 부연을 달아내지 않은 흘치마로 되어 있다. 서까래는 끝을 직절하고 소매걸이를 하지 않은 것이 많은데, 대부분 후대의 수리 과정에서 교체된 것이다. 배면 좌우 양끝의 각 2칸은 그 북쪽에 인접한 동·서재의 5량가 전후퇴 구조의 지붕과 이어져 있는데, 동·서재의 주심도리와 종도리를 각각 풍화루의 주심도리와 종도리 위에 얹어, 지붕이 풍화루를 올라타도록 구성하고, 풍화루 용마루 위에서 형성하도록 했다.

한편, 풍화루 아래에서 명륜당 앞마당으로 오르는 계단 끝의 양쪽에 기둥을 받는 초석이 하나씩 놓여 있는데, 이것은 계단을 덮기 위해 풍화루 배면의 어칸 상부의 지붕 일부를 길게 뻗 부분을 받치기 위한 기둥을 설치했던 흔적인데, 일제강점기 수리 때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신사나 사찰 건축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으로 코하이(向拜)라 부르는데, 1989년 수리 때 철거되었고, 지금은 그 흔적으로 초석만 남아있다.

건물 전체에 뇌록과 석간주의 가칠 위에 검은색 먹과 흰색 분을 복선으로 그은 굿기단청이 배풀어져 있는데, 근래에 새로 칠한 것이다.

## 4. 종합의견

### 1) 대성전

안성향교 대성전은 임진왜란 때 소실된 향교를 17세기 중엽에 재건할 때 건립된 사실이 문헌과 목재 연륜연대조사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 되었고, 지금까지 수 차례 중수를 거치면서도 건축을 이루는 형태와 구조, 의장 등 전반에 걸쳐 건립 당시의 고식 기법을 잘 유지하고 있다. (3 학술적 가치- 명확성, 4 공통사항- 보존상태)

정면에 개방된 퇴칸을 구성하고 맞배지붕을 얹은 조선시대 사묘건축의 전형적인 형태를 하고 있으며, 정면 5칸의 간살 구성은 조선시대 군·현 단위 향교의 대성전으로서는 규모가 큰 편에 속하는 유구라 할 수 있다. (1 역사적 가치- 시대성 / 4 공통사항- 동종 문화재와 비교검토)

지붕 가구의 삼중량 구성은 국내에서 임진왜란 직후 17세기 전반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분명한 시대성을 가지며, 기호지방에는 남아있는 사례가 많지 않은데 그중에서 본 건물 외에도 양성향교와 죽선향교 대성전 등 안성 지역 향교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성을 보인다. 그리고 본 건물의 삼중량 구조는 안성 지역의 현존 사례 중에 시기적으로 가장 앞서는 것으로 의의가 있다. (1 역사적 가치- 시대성 / 3 학술적 가치- 지역성, 특이성)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제한적으로 공급될 수밖에 없었던 건축 재료와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배치뿐만 아니라 건축 의장의 측면에서도 향교의 핵심 시설로서 대성전이 갖는 위계적 의미를 과도하지 않게 잘 구현해 내었고, 특이 이것은 건물의 정면 의장에서 잘 표현되어 있으며, 조형적으로도 우수한 편이다. (2 예술적 가치- 특수성, 창의성)

삼중량 구법 이외에 정면 서까래 위의 통평고대는 근래의 수리 때 교체된 것이지만 17세기 건립 당시의 기법이 유지되고 있고, 정면 툃보 위에서 주심도리를 감싸고 있는 승두의 사용, 그리고 서까래와 부연 및 우물마루 귀틀의 치목 기법 등에 고식의 기법이 잘 남아 있어 조선 중기 건축 기법의 연구에 좋은 학술적 자료가 된다. (3 학술적 가치- 연구 기여도)

이상과 같이 안성향교 대성전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승격 지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평가함.

### 2) 풍화루

안성향교 풍화루는 임진왜란 때 소실된 향교를 17세기 중엽에 재건할 때 건립되었고, 지금까지 수 차례 중수를 거치면서도 하층의 벽체에 큰 변화가 있었으나, 이를 제외하면 대

체로 건립 당시의 형태와 구조, 그리고 건축기법을 잘 유지하고 있다. (3 학술적 가치- 명확성)

정면 11칸의 장대한 규모를 가지며, 유식을 위한 누와 향교 출입을 위한 외문의 역할을 겸하는 문루로서, 현존하는 조선시대 문루 중에 가장 규모가 큰 유구이다. (3 학술적 가치- 특이성 / 4 공통사항- 동종 문화재와의 비교검토) 경사지라는 입지여건의 특징을 잘 살려 외부에서 향교 내부가 들여다보이지 않도록 향교 전면을 효과적으로 가리면서도, 측면 규모를 1칸으로 작게 잡아 내부의 명륜당에서 내다볼 때 위압적이고 답답해 보이지 않도록 적절한 높이와 규모를 잡아 낸 목수의 뛰어난 안목이 돋보인다. (2 예술적 가치- 특수성, 우수성)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제한적으로 공급될 수밖에 없었던 목재를 경제적으로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전체적인 시각적 안정감과 조화로운 비례를 갖춰 건축 조형미를 잘 구현해내었다. (2 예술적 가치- 우수성, 창의성)

그리고 하층 기둥에 일부 남아있는 건립 당초 기둥의 자귀질 치목흔이나, 17세기의 시대적 특징을 잘 유지하고 있는 영쌍창 등은 조선 중기 건축 기법 연구에 좋은 학술적 자료가 된다. (3 학술적 가치- 연구 기여도)

이상과 같이 안성향교 풍화루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승격 지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평가함.

## 5. 산청 단성향교 명륜당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 가. 제안사항

경남 산청군 소재 「산청 단성향교 명륜당」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남 산청군 소재 「산청 단성향교 명륜당」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경상남도지사
- (2) 대상문화재 :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88호 「산청 단성향교」
  - 소재지 :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교동길 13-15 (강누리 595-1)
  - 지정일 : 1974. 02. 16.
-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 명칭 : 산청 단성향교 명륜당(山淸 丹城鄉校 明倫堂)
  - 소유자(관리자) : 단성향교
  - 소재지 :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교동길 13-15 (강누리 595-1)
  - 조성연대 : 조선시대(1725년 창건, 1864~1865·1909년 보수)
  - 수량 : 1동
  - 지정면적 : 132.7㎡(보호구역 3,365.3㎡)
  - 양식 : 정면5칸, 측면3칸, 익공계 맞배지붕, 대청 5량가, 온돌방 3량가, 곱처마+홀처마

라. 현지조사의견(2020.09.02. / 전)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대학교 ○○○)

- 전)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대학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마. 지정조사보고서 : 불임참조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원안가결 10명, 부결 1명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0.09.02	대상문화재	산청 단성향교 명륜당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건축사
	소 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산청 단성향교 명륜당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10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1.소재지 : 경남 산청군 단성면 교동길 13-19
- 2.소유자 : 단성향교
- 3.문화재 지정종별 :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88호(지정 1974년 2월 16일)
- 4.유형 및 성격 : 조선시대 지방 교육기관인 향교의 명륜당
- 5.건축시기 : 1725년 명륜당 중건  
1864~65년 명륜당, 동·서재 수리, 단청  
1885년 향교 중수  
1909년 동재, 명륜당 보수  
1962년 명륜당, 서재 보수  
1987년 명륜당 수리

## 6.단성향교 연혁

### (1) 연혁

단성향교(그림.1)는 옛 단성현(丹城縣)에 설치되어 있던 향교이다. 단성(丹城)이란 지명은 조선조 세종 때 단계(丹溪)·강성(江城)의 두 현(縣)을 통합할 때 이들 현(縣)의 명칭에서 한 자씩 따서 만든 것이다. 이 지역은 1599년(선조 32)에는 산음(山陰, 옛 산청군)에 속했으나 1613년(광해군 5)에 복구되어 치소를 강성(江城)으로 옮겼으며, 1731년(영조 7)에 다시 내산(來山)<sup>60</sup>으로 옮겼다. 조선말기인 1895년(고종 32) 단성군(郡)으로 승격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산청군에 병합되어 지금은 산청군 단성면이 되었다. 조선시대 단성현은 지금의 산청군 단성면으로 소백산맥에서 발원한 남강의 본류인 경호강과 그 지류인 양천강과 단계천이 흘러서 진주의 진양호로 유입되는 그림 17 단성향교 모습



곳에 위치하고 있다. 산청군의 서남단에 위치하는 단성면은 경남 하동군 옥종면과 진주시 대평면과 접하고 있으며, 교통은 국도 20호선과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어 내륙 교통이 편리하다.

단성향교는 조선시대 소설위 향교로, 1127년(고려 인종 5)에 금잔방(金盞坊 : 지금의

60) 경상남도 산청군의 단성면 성내리에 있는 산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단성)에, “내산(來山)은 현 북쪽 1리 지점에 있으며 진산이다. 지리산은 현 서쪽 41리 지점에 있다.”고 하였다.



강누리 九印洞)에 건립한 것이 시초라고 한다. 운창 이시분(雲窓 李時黼)이 쓴 『운창지(雲窓誌)<sup>61)</sup>』에는 단성향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단성향교는 현 위치인 교동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금잔방(金盞坊)에 있었고, 15세기 초(조선 세종 대)에는 단성에서 문가학(文可學)의 변란이 있고 난 뒤 현청(縣廳)을 내산 아래로 옮기고, 향교를 서쪽 산의 북편 기슭으로 옮겼다’고 했다. 이 기록만으로는 당시 단성향교의 정확한 위치를 알기 어렵다.

이밖에 1530년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향교. 현(縣)의 북쪽 5리 지점에 있다.’는 기록이 보인다. 그리고 1680년(숙종 4)에 현감 윤식이 쓴 「성묘중수기(聖廟重修記)」에 ‘향교는 예전 구인마을에 있었는데 영락연간(永樂年間 : 1403~1424)에 이곳으로 옮겼으며, 1599년(선조 32, 己亥) 정유재란 때도 성묘(聖廟, 대성전)가 보존되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것으로 보아 16세기말까지 단성향교가 유지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지도(古地圖)에서 단성향교 위치를 살펴보면, 대개 읍치(邑治)의 북서쪽에 위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표.1) 『영남읍지(1871년)』에 수록된 고지도에는 향교를 정면 3칸 규모의 건물로 표기했으며, 『여지도』, 『해동지도』에도 향교라고 쓰고 건물 1동을 그려놓았다. 고지도 『지승』에는 향교 자리에 대성전과 내삼문으로 추정되는 건물을 그려 놓았다.

앞에서 살펴본 단성향교의 연혁을 요약하면 1127년(고려 인종 5) 강누리 구인동에 처음 건립되었던 단성향교는 조선 세종 초에 지금의 교동으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 그 후 명륜당이 중건(건립?)된 1725년 이전에는 대성전만 두고 춘추 석전 등의 제향 위주로 운영된 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단성향교의 연혁을 바탕으로 남아있는 상량문과 향교중수기의 기록을 중심으로 명륜당의 건축연혁(표.2)에 대해 살펴본 바는 다

표 23 고지도에 보이는 단성향교



61) 1635년경에 사찬한 지방지로 경상도 단성현의 연혁·인문지리·행정 등을 수록하고 있다.

음과 같다.

현존하는 단성향교 명륜당은 18세기 초(1725년)에 건립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명륜당(明倫堂上樑文)(1725년)」과 「명륜당기(明倫堂記: 1728)」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명륜당상량문(1725년)」에는 1725년 이전까지 단성향교에는 문묘만 있고 명륜당이 없어<sup>62)</sup> 1725년(영조 1)에 비로소 명륜당을 건립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단성현감이 1728년에 쓴 「명륜당기, 1728」의 내용도 전술한 「명륜당상량문(1725)」과 다르지 않다. 좀 더 자세하게 「명륜당기,1728」를 살펴보면 당시 단성현 유림들이 1724년(경종 4)에 모여 의논하여 말하기를 ‘지금 영감(令監, 현감)께서 긴급한 공무는 대부분 처리했으나 읍민(邑民) 모두가 바라는 학사(學舍, 명륜당)를 건립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 내용으로 보아 단성현감이 읍민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명륜당을 건립했음을 알 수 있다. 단성현감은 창고 안에 있는 재목을 모은 다음 신망 있는 선비에게 공역을 맡겨 1725년 봄에 명륜당 건축공사를 마치고, 이 일을 기록하기 위해 1728년에 「명륜당기」를 지었다.

표 24 단성향교 명륜당 연혁

1127년 단성향교 창건
15세기 초 향교 이건(강루리 구인동 → 단성면 교동)
1680년 대성전 중수
<b>1725년 명륜당 증건</b>
<b>1752년 현 위치로 향교 이건</b>
1794년, 1841년 대성전 중수
<b>1864~65년 관선문, 명륜당, 동·서재 수리, 단청</b>
<b>1895년 향교 대성전(문묘), 명륜당 중수</b>
<b>1909년 대성전, 내삼문, 동재, 명륜당 등 보수</b>
1914년 대성전 중수
1922년 대성전 중수
1937년 대성전 수리
1940년 권두희가 사재로 교공 보수
<b>1962년 대성전, 명륜당, 서재 및 부속건물 보수</b>
<b>1987년 명륜당</b>
1988년 동·서재 수리
2007년 대성전 중수

1725년에 명륜당을 건립하고 136년이 경과한 1864년에 향교 내 노후 건물들을 수리하는 큰 공역이 있었다. 1864년의 중수공사는 「향교중수기,(1865년)」에 기록되어 있다. 이 중수기를 보면 ‘1864년(甲子)년 5월에 중수 공사를 시작하여 이듬 해(1865) 4월에 완공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것으로 보아 당시의 향교 중수가 약 1년이라는 긴 기간에 걸쳐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향교중수기,1865」의 기록 중에 ‘비가 새는 곳은 기와를 새로 덮고, 재목이 썩은 것은 신재로 교체하고, 기울어진 부분은 바로 잡고, 기운 건물은

다시 세웠으며, 퇴색한 단청은 선명하게 개칠(改漆)하고, 무너진 계단을 수리했다’<sup>63)</sup>고 한 것으로 보아 매우 광범위한 중수공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1864년부터 1865년까지 약 1년에 걸쳐 대성전과 명륜당, 동·서재 및 대문 등을 수리했으며, 이 공사에 2만냥(萬兩)이 넘는 많은 경비가 소요되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1865년의 중

62) 당시 단성향교에는 어떤 연유로 명륜당이 없었는지는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으며, 다만 상당한 기간 동안 대성전(문묘)만 남아 있었다는 것은 「명륜당기(明倫堂記: 1728)」를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다.

63) ... 神座慘漏之患門于傾倒講舍齋館無有支完...(중략)... 甲子之五月告訖於明年之四月積日恰一年爲費 過二萬繼滲濡者新異瓦朽敗者易以木或有傾側而復正者顛倒而復位者丹碧之漫患者鮮明階級之凌吏者齊正大小內 外煥然一新歛...

수 공사로 단성향교는 모습을 일신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865년의 중수공사를 마치고 30여년이 경과한 1895년에 또 다시 문묘와 명륜당 등을 보수했다. 이 때의 향교 중수 공사를 「현학중수기(縣學重修記),1895년」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사(多士)들이 호응하여 백성들이 부담하지 않고도 성묘(聖廟,문묘)를 일신시켰다. 대문, 학관(명륜당), 회랑, 부엌, 재사 등이 차례로 복구되어 문물이 찬연히 빛나고 ... 춘추 대향(大享)시 향례(享禮)가 제대로 갖추어져 전일처럼 소홀하고 누추하지 않게 되었다’고 했다.

위 내용으로 볼 때 1895년에 문묘를 비롯 명륜당 · 동서재 등 여러 건물을 수리했음을 알 수 있다. 1895년에 중수공사를 하고 불과 15년 밖에 경과하지 않은 1909년(己酉)에 또다시 향교의 노후 건물을 보수하는 일이 있었다. 이때의 일은 「향교중수기,1909년」를 통해 살펴 볼 수가 있다. 향교중수기에는 당시 향교 모습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향교 마당에 추초(秋草)가 가득하고 교생이 없어 적막했으며, 건물들은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문이 썩어 내려앉고, 여러 건물에 눈비가 스며들고 동재와 누각(명륜당으로 추정됨)이 전복(顛覆)되고 장관은 파손된 채로 있었다’

위 내용으로 방치되어 허물어진 채로 있던 단성향교의 모습을 추정해 볼 수 있다. 훼손된 채로 방치되어 있는 단성향교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 이양수(李亮洙)와 권찬용(權燦容)이 주도하여 수리 공사를 했는데, 당시 중수공사는 1909년 6월 1일(음력)에 시작되어 7월 보름에 끝났다.<sup>64)</sup> 공사기간이 약 45일이라는 점을 볼 때 무너지고 허물어진 향교를 대대적으로 수리하여 모습을 일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후 일제말기인 1940년에 권두희가 사재(私財)를 털어 단성향교를 수리한바 있고,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난 1962년에 또다시 명륜당을 비롯 대성전, 서재 및 부속건물을 수리했다. 이로부터 27년이 경과한 1987년에 명륜당에 대한 전면적인 수리와 동서재의 보수가 있었다. 이때 문화재 수리비를 지원 받아 명륜당을 대대적으로 수리했으며, 현재의 명륜당은 이때의 수리로 일신된 모습에 근거를 두고 있다. 당시의 수리 내용을 살펴보면 전면 기단의 해체 수리, 후설된 후면 유리창 철거, 내부의 널문과 띠살문 교체, 마루귀틀과 청판 교체, 지붕과 연목 등의 수리가 있었다. 1987년 이전까지 명륜당 전면(남)과 좌우 측면에는 견치석으로 쌓은 높은 석축형 기단이 조성되어 있었는데, 이때 견치석으로 쌓은 석축형 기단을 모두 철거하고 지금처럼 방형의 석재를 사용하여 평축했다. 뿐만 아니라 북측 기단을 뜯어 수리하고, 내부의 널문과 띠살분합문을 수리 및 교체했다. 아울러 마루청판과 귀틀을 교체하고, 부식된 연목과 부연을 교체하고 변화했다. 온

64) ...校宮之頹敗當此滿庭秋草寂無人之際寺門之朽敗各舍之滲漏東齋翼閣之顛覆版籍之藏修...六月朔試役至七月望屹工於是乎校宮燦然重輝...去乙酉乙未不佞參焉...

돌방 주위 고막이와 구들, 아궁이를 해체하고 수리했다.

전술한 내용을 종합해볼 때 단성향교 명륜당은 1725년에 건립(중건)된 후 여러 차례의 대소 수리를 거쳐 오늘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특히 1987년에는 문화재 수리비를 지원받아 훼손부의 정비를 포함한 대대적인 수리공사가 실시되었다. 즉 1725년에 건립된 후 1864~65년, 1895년, 1909년, 1940년, 1962년, 1987년까지 여러 차례 보수하면서 노후 부식재 교체, 번와, 드잡이, 해체수리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단성향교 명륜당은 1987년에 모습을 일신하는 대대적인 수리 즉 석축형 기단을 새로 쌓고 상당량의 부식재를 교체한 이후의 모습이다. 하지만 평면형식과 주요 구조부 · 공포 · 공(工)자형 지붕 등은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 제시한 자료는 단성향교 명륜당의 연혁관련 상량기문(상량문과 중수기)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 명륜당 연혁 관련 기문(記文) 발췌

#### ①명륜당 상량문(1725년, 牧使 尹基慶)

“시세가 어렵고 힘이 모자라 명륜당을 건립하지 못한 것을 몇 번인가 탄식했다. 이에 학교가 있고, 이에 당(堂)을 갖췄으니 새로 지은 건물(명륜당)의 찬란함을 보겠다 ...돌아보건대 이곳 10실(室)의 작은 고을에는 유독 서까래 몇 개의 학교(작은 학교)마저 없었다. 생도들이 공부할 장소가 없어 현송(絃誦)하는 소리마저 적막했고, 사림은 의귀할 자리가 끊겨 풍교가 무너졌다. 명륜당 창건할 계획에 어찌 종전부터 뜻이 없었겠는가...(중략)다행히도 지금의 어진 원님이 부임하더니 한(漢)나라 북해상(北海相)인 공융(孔融)처럼 학생들을 모아 학문 성취에 뜻을 북돋았고, 옛날 훌륭한 수령의 흥학(興學)한 일을 흠모하더니 춘추시대 서하교수(西河教授)를 지낸 자하(子夏)처럼 강석(講席)을 마련하여 제일 먼저 공부를 권장했다. 이에 수레에서 내리자마자 대성(大聖)을 배알하고, 사당은 있으나 명륜당이 없음을 탄식했다. 재상들을 초청하여 순순히 자문하여 상의했고, 장인을 불러 부지런히 설계하고 경영했다. 하루라도 없을 수가 없으니 어찌 넉넉하고 모자람을 따지겠는가. 수개월의 녹봉(祿俸)을 출연(出捐)하여 서둘러 조치하고 시행했다. 일월성신(日月星辰)이 모이는 날에 터를 닦아서 세 철 농사의 여가로 공사를 다스렸다. ... 날이 좋고 때가 맞으니 동량(棟梁)이 우뚝 높이 솟았다. 삼문(三門)과 사표(四表)는 주(周)나라 학교처럼 옛 제도를 따랐고, 복벽(複壁)과 중란(重欄)은 노나라 반궁(半宮)처럼 좋은 규모를 모방했다. 규모를 알맞게 완비하니 사치스럽거나 화려하지 아니하고 밝고 빛내게 꾸몄으니 날아갈 듯 산뜻하다. 문득 풍채를 새롭게 드러내니 누구인들 기쁘게 쳐다보지 아니하랴. 영조 1년(1725) 을사 2월 19일 65)”

#### ② 「명륜당기(明倫堂記, 1728년)

65) ...屆於時而屆於力幾歎闕典之未行有是校則有是堂聿觀新構之載煥...十室雷封獨欠數椽覺舍生徒無講肄之所絃誦 寥寥士林絕依歸之所方風教實謀始設期豈無意於...唯我國朝之興實闡右文之化內而國學(外而)鄉校俱有明倫堂而惟丹獨闕焉中間興廢今不可徵而齋聚失所藏修無地則久爲邑 子之所羞而鄉之者儒輩居(중략)校中諸生合辭以請曰今我聖后作其即位重以儒教之尚而興學(校一事又是)守土諸之首務也今 候公務之緊急者舉皆整頓焉則蓋於學舍思所補葺之...

“...향교에는 명륜당이 있는데 오직 단성만 유독 비어있었다. 중간에 흥하고 폐한 것은 지금 알 길이 없고, 재실(齋室)에 모여서 마음을 집중하여 공부하지 못한 것이 오래되니 읍(邑) 사람들이 부끄럽게 여기고 나이 많은 유림들이 항상 탄식해 마지않던 차 경종(景宗) 4년(1724,갑진) 봄에 불영(不佞)이 부임하니 마침 추계석채(秋季釋菜)를 올리는 정일(丁日)이라 향교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합의하여 청원하기를“지금 우리 성군(聖君)이 즉위하여 시작한 것은 유교를 중히 여기고 항상 융성하기를 바라고 향교의 일과 또 고을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 일을 첫째로 여겼습니다. 지금 영감(令監)께서 긴급한 공무는 대부분 정돈하였으니 이제는 모두가 바라는 학사(學士,명륜당)를 새로 지어 줄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에 내가 이를 시인하고 바로 만나서 대답하기를“이는 참으로 뜻있는 일이나 겨를이 없어서 감히 선뜻 응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참고 안에 있는 재목들을 모아 신망있는 선비를 선출하여 일을 맡겼더니 다음해 봄에 낙성을 보아 고하였다.(下略) 영조 4년(1728) 무신 6월 16일 적산(商山) 宋徵賢 謹記

### ③ 「향교중수기(1865)」

단성향교의 중수는 이미 백여 년이 되었는데, 중간에 한두 번 수리했으나 영구적인 계획은 아니었다. 근세 이래 구학전당(舊學殿堂)의 수호가 전일보다 크게 뒤떨어져 신좌(申坐)에 비가 새는 근심이 생겼으며, 대문이 기울어지고 강사(講舍)와 재관(齋館)은 완전한 것이 없다. 하루는 군(단성군)의 여러 선비들이 특별히 와서 성묘(聖廟)를 알현하고, 인하여 주위를 돌아보고는 탄식하면서 말하기를“우리 부자(夫子)를 숭봉하는 전당이고, 뛰어난 선비들이 강학하는 당(堂)인데 이처럼 퇴폐하도록 놓아두었는가. 이는 군(郡)의 학교로 윗사람의 책임이지만 사정상 그럴지 않은 정도 있으니 이는 우리들의 책임이다...”라고 했다. ...이에 갑자(甲子,1864)년 5월에 일을 시작하여 이듬 해(1865) 4월에 일이 끝나 고유하였으니 시일은 1년이 걸렸고, 비용은 2만냥(萬兩)이 넘게 들었다. 비가 새는 곳은 기와를 새로 덮고, 재목이 썩은 것은 나무를 교체했으며, 기울어진 부분은 다시 바로 잡고 넘어간 곳은 다시 세웠으며, 퇴색한 단청은 선명하게 하였고, 무너진 계단은 바르게 수리하여 대소와 내외가 찬연히 일신되었다... 내가 마침 향교의 일을 맡아 능히 그 중수 전말을 상세히 안다고 하여 기문을 명하므로 비록 그 합당한 사람이 아니기는 하지만 감히 사양할 수 없었다. 이에 위와 같이 서술하고 또 노숙(老宿)한 분들 이 면려한 바를 첨부하여 뒷날의 참고로 삼게 한다. 을축(1865) 청화절(淸和節) 함안(咸安) 이진보(李鎭輔)謹記

### ④ 「성묘중수기(聖廟重修記),1680」

“뭇난 내가 속소(속종) 무오년(戊午, 1678,속종 4)에 이 현(단성현)으로 부임하자 현의 선비들이 성묘(聖廟)의 수리가 시급하다고 아뢰었다. 몸소 나가 살펴보니 전우(殿宇)가 무너져 참으로 며칠을 지탱하기 어려운 지경이었다. ... 관찰사를 통해 조정에 알려줄 것을 청했더니 2년 후 경신(庚申,1680) 5월 서울에서 교지가 내려왔다. 이에 위패를 재각(齋閣)으로 이봉(移奉)하고 공사를 시작하여 3개월 만에 완공하고 그해(1680) 7월 9일에

위패를 새 문묘(新廟)로 옮겨 모셨다.(중략)묘당(廟堂)이 이미 완공됨에 제생(諸生)이 나에게 기문을 청했다. ...현지(縣誌)에 단지‘향교는 예전 구인(九印) 마을에 있었는데 永樂年間(1403~1424)에 이곳으로 이건했다. 선조 기해년(1599)에 왜란으로 현(縣, 단성현)을 산음(山陰)과 합쳤다가 광해 계축년(1613)에 복읍(復邑)했다’고만 기록되어 있고, 그간에 연혁과 수령(守令)들의 이름은 모두 상세하지 못하니 개탄스럽다. ...이에 대략 전말을 기록한다. 이여옥(李如玉)과 권전(權顛)이 공사를 다스린 노고는 또한 칭송하지 않을 수 없으니 아래에 기록했다. 세(歲) 상장군탄 숙종 4년 경신(1680) 맹추 상한 지주 파평 윤식 제 성조 유사 이여옥 권전<sup>66)</sup>”

### ⑤ 「성묘중수기(聖廟重修記, 1841)」

...내가 부임한 이래 3년 동안 남아있는 적폐로 인해 관청이 쇠퇴하고 수년 동안 해마다 흉년이 든 다음이라 힘이 다 빠진 민력이니 이를 보완하려 해도 결함이 많아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 현종 7년(1841, 辛丑) 초봄에 권대아(權大雅)·호명보(顛明甫)가 와서 말하기를“성묘(聖廟)의 수리는 오래 전 갑인(甲寅), 경신(庚申, 1680)년의 일로 세월이 많이 흘렀다. 이에 전우(殿宇)의 기와가 허물어져 비바람이 스며들고, 동우(棟宇)가 썩어 못쓰게 되었으며, 단청의 무늬도 없어져 참으로 한시도 지탱하기 어렵다. 이번에는 중수공사를 어떤 일이 있어도 그만둘 수 없으니 관력(官力)이 미치지 못하고 민정이 어려운 형편이라 하여 그대로 구물거리고만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내가 이에 친히 살펴보고 감영에 직접 아뢰어 약간의 수리를 더하였다. 여러 고을에서 행한 예(例)를 따라 향축예물(香祝禮物)은 관(官)에서 경건히 마련하고, 그 나머지 경비의 모금과 목석(木石)의 공사를 지체 없이 시작했다. 윤 3월 3일에 고하고 성현의 위판을 동재(東齋)로 이안(移安)하고 기한을 정하여 공사를 감독했다. 예전 기와를 그대로 덮고 서까래를 새것으로 교체하여 한 달 남짓 이 넘는 기간 동안의 공사를 마치고 5월 6일 구묘(舊廟)에 환봉(還奉)하였다. 삼영(三楹)의 교궁(校宮)은 단청이 다시 새로워졌고, 오성의 신위는 상탁(床卓)이 옛 모양과 변함이 없으니 아! 아름답지 아니한가. 이는 사림이 주관한 힘이니 내가 어찌 감히 기재하여 후일(後日)에 증명하겠는가. 전말(顛末)을 약서(略叙)하여 여러 군자들이 성인(聖人)을 추모한 정성을 밝혀둔다.<sup>67)</sup> 신축년(1841) 5월 지현(知縣) 채신영(蔡臣永) 記, 도검(都檢) 권채하(權采夏) 성주유사(成主有司) 이재범(李在範) 권의추(權宜樞)

### ⑥ 「현학중수기(縣學重修記), 1895」

...작년(1894) 겨울에 현감 윤후(尹後) 태일(泰駟)이 부임하여 맨 먼저 선성(先聖)을 배알하고 물러나 명륜당에 앉아서 두루 살펴보고는 개탄함을 금하지 못했다. ...드디어 그 담당자를 물리쳐 해임하고 사실을 엄격히 조사하여 향교의 모든 전답을 모두 환수했으니 영을 내린지 얼마 못되어 일향이 풍동(風動)하고, 다사(多士)들이 호응하여 백성들이 부

66) ...當廟戊午來茲縣縣之士以聖廟修改之急謁余躬既奉審焉殿宇傾圮實有時日難支之勢顧邑力力簫條事工浩大前後守宰率莫敢生意興作以致牽架矣遂乃慨然從按使求以轉聞于朝越二年庚申榴夏香冊自京師至乃移案齋閣經始治工三月而告 訖以其年七月九日還奉新廟...

67) ..聖廟營修粵在甲寅庚申之久而荏苒至此殿瓦頽圯風雨滲漏棟宇朽敗丹青無文實難時日支過而(중략)三月三日迺告聖位移安東齋刻期董役因舊瓦而覆之更新椽而架之滋月餘功告訖粵五月六日還奉舊廟三楹之宮丹雘重新...

담하지 않고 서도 성묘를 일신시켰다. 대문, 학관, 회랑, 부엌, 재사 등이 차례로 복구되어 문물이 찬연히 빛나고, 또 개울 아래 논2걸을 교전으로 구획하여 세입을 넉넉하게 했으니 춘추대향(大享)시 향례가 제대로 갖추어져 전일처럼 소홀하고 누추하지 않게 되었다. ...5월 26일로 날을 잡아 낙성하니 구경꾼들이 담을 에워싸듯 모였다..., 원님은 파평인(坡平人)이니 엄격하고 강직하여 무릇 정사를 시행할 적에 자기의 뜻을 곧게 행하면서 주위 사람들의 간섭에 굴복하지 않고 시종 그 일을 찬조하여 능히 달성한 분이다. ...  
고종 32년 을미(1895) 단오 현인(賢人) 상산(商山) 김인섭(金麟燮)記  
 도검(都檢) 이상찬(李尙讚) 감역(監役) 권헌규(權憲奎)

⑦ 「단성향교 보존사실기, 1940」

...지난 갑인년에 단성군이 폐지되어 산청(山淸)에 귀속되고 교궁(校宮)도 또한 관(官)에 편입되었다가 뒤이어 훼손되었다. 이에 고을 인사들이 서로 한숨 쉬고 탄식하면서 유지할 방도가 없음을 근심하였다. 권공(權公) 두희(斗熙)는 향리의 망족(望族)인데 대중에게 제창하여 말하기를 “군(郡)이 폐지된 것은 내가 참으로 알바가 아니지만 교궁은 우리 유림의 소관이다. 우리가 유자(儒者)인데도 교궁(校宮) 하나를 보존하지 못한다면 선성(先聖)과 선현(先賢)에게 무엇이라 하겠는가. 내 청컨대 가재(家財)를 털어 교궁을 다시 세우고, 춘추로 향사(享祀)를 모두 자담(自擔)하여 봉행하리니 제군(諸君)들은 무엇을 근심하는가.” 라고 하였다.

경진년(1940) 2월 일 문소(聞韶) 김극영(金克永) 근기(謹記)

⑧ 「단성향교 중수기, 1962.7」 .

...이에 통문을 작성하고 이로부터 법령에 따라 전교(典校) 권재문(權載文), 장의(掌儀) 이병석(李炳碩), 박희상(朴熙杉), 도채규(都塚圭), 유기형(柳基馨) 등에게 부촉하여 온 고을을 두루 찾아다니며 그 뜻을 알리니 사람들이 흔쾌히 따르지 않음이 없었다.

몇 달에 걸쳐 비로소 이를 모두 수합하여 넉넉히 큰 돈이 마련되니 이에 문묘에 나아가 비가 새는 기와와 썩은 목재와 허물어진 벽을 모두 새롭게 고쳤다. 그리고 명륜당(明倫堂)과 서재 및 부속건물에 이르기까지 무너진 것을 세우고, 기울어진 것을 바로 잡았으며, 또 약간의 토지를 구매하여 수호할 밀천으로 삼았다. 이 역사에는 전교와 장의 여러 분들이 힘과 정성을 다하였고, 이군(李君), 지락(志洛)이 돈을 가장 많이 희사했으니 모두 기록할 만하다. 임인(1962) 7월 安東 權昌鉉 謹記

⑨ 「단성향교 중수기, 1987」

...그간의 6~7년 이래 또 연이어 보수하여 기울어진 것을 바로 세우고, 훼손된 것을 새롭게 하더니 작년(1988년) 가을에 이르러 공사를 마쳤다. 대개 세상이 격변한 이래로 향교에는 여유자금이 없어 무릇 공사가 있게 되면 오로지 관청에서 그 조목을 지정하여 경비를 지출하므로 그 형세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전우(殿宇)가 우뚝하고 당실(堂室)이 정결해졌으니 마치 천운(天運)이 다시 돌아 온 것 같다. ...이 역사(役事)는 이병

길(李炳吉), 권진경(權震慶) 두 전교를 거쳐 완공했는데 대성전의 중수는 병길군(炳吉君) 재임시에 하였고, 명륜당(明倫堂) 공사는 일이 거창하고 때마침 관비가 궁핍하여 거의 절망적이었으나 진경씨(震慶氏)가 포기하지 않고 상하로 다니면서 백방(百方)으로 탐지하여 마침내 완공하였다. 그 다음해(1988년)는 시세가 더욱 어려웠는데도 또 능히 동재(東齋), 서재(西齋)를 모두 새롭게 고쳤으니 특서(特書)할 만하다. ...  
 己巳(1989) 정월 일 安東 權泰根 謹記

## 7. 건축 특성

### 1) 입지

단성향교는 산청군 단성면 강루리 교동마을 북측의 산자락에 자리 잡고 있다. 즉 천마봉에서 동남쪽으로 뻗어 내린 산줄기의 말단부에 앉아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남강을 향해 자리 잡고 있다. 향교의 좌우는 뒷산에서 뻗어 내린 나지막한 좌청룡과 우백호에 의해 포근하게 둘러싸여 있다. 단성향교는 정남에서 약간 동으로 틀어 앉아 남동향(壬坐丙向)하고 있는데, 이는 주변의 지형지세를 우선 고려하여 향(向)을 결정한 데 따른 결과이다.

단성향교는 교동 마을의 가장 안쪽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남쪽의 사직단로 257번 길에서 분기(分岐)된 교동길을 따라 북으로 300여m 들어온 교동마을 안쪽 깊숙이 위치하며, 향교 주위에는 크고 작은 농가들이 자리 잡고 있다. 향교의 서편에는 대나무 군락이 숲을 이루고 있다. 입구에 홍살문을 세워 여기서부터 향교 영역이 시작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 홍살문을 지나 북쪽으로 50m 정도 더 올라가면 향교의 외대문에 해당하는 관선문에 나온다. 이 문은 근년에 지은 건물로, 경사지에 높게 석축하고 건축했다. 관선문은 3칸의 솟을대문 형식이며, 그 좌우에는 각 2칸 규모의 행랑이 딸려 있다. 관선문을 지나 직진하면 정면 높은 곳에 누각형 건물인 명륜당이 자리 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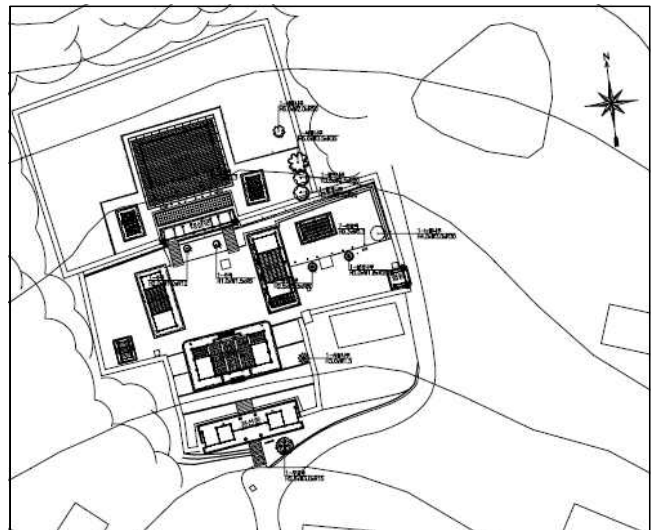


그림 21 단성향교 배치도

단성향교의 배치(그림.5)는 전학후묘형으로 전면(前面, 남)에 강학영역을 두고, 북측에 대성전과 전사청, 제기고로 이루어진 문묘를 배치했다. 강학영역의 건물 배치는 전당후재형(前堂後齋形)으로, 앞쪽(남)에 명륜당을 두고, 그 뒤쪽(북)에 있는 마당 좌우에 동서재를 마주보게 배치했다. 단성향교와 같은 전학후묘형의 배치는 조선시대에 경



사지에 입지하는 지방 향교에서 많이 채택되었다. 단성향교는 산지 경사지를 크게 3단으로 구분하고 건물을 배치했는데, 가장 낮은 곳에 행랑을 거느린 관선문을 짓고, 그 윗단에 명륜당과 동서재를 건축했다. 명륜당 북쪽 높은 곳에 대성전과 전사청, 제기고로 이루어진 문묘를 배치했다. 지형적으로 가장 높은 곳에 위계가 가장 높은 문묘를 두고, 그 아랫단에 명륜당과 동서재는 배치하여 향교의 건축적 위계를 뚜렷하게 표현했다. 이 형식을 따른 향교로는 단성향교를 비롯 장수향교, 순천향교, 강릉향교, 남원향교, 사천향교 등이 있다. 단성향교 강학영역의 건물 배치는 전당후재형으로, 이는 기호지방 향교에서 나타나는 형식으로 경남에서는 단성향교가 유일하다.



그림 22 단성향교 옛사진  
박왕희, 한국의 향교건축, 147쪽

단성향교의 외삼문 격인 관선문을 들어서면 앞쪽에 명륜당의 누하(樓下)로 오르는 돌계단이 나타난다. 단성향교의 명륜당과 같은 누각형 명륜당은 그 사례가 매우 드문 것이다.(그림.6,7,8) 관선문에서 바라볼 때 명륜당은 마치 높은 기단 위에 지은 누각형 건물처럼 보이나 뒤쪽(북) 마당에서 명륜당을 볼 때는 외별대 기단 위에 지은 소박한 단층 건물로 인식된다. 이처럼 명륜당은 전후면의 입면구성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그림 23 명륜당 대청의 누하부(2004)

단성향교의 특징은 명륜당 전면(前面) 하부를 누각형으로 처리한 것으로, 누각 형식의 명륜당 대청 밑을 통과해야 비로소 동서재가 있는 강학영역에 진입할 수 있다. 관선문이 없었던 조선후기에는 명륜당 대청 하부의 누하공간이 문루처럼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24 명륜당 후면(북) 모습

이러한 단성향교 명륜당의 독특한 구조는 경사지의 원지형을 살려 명륜당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경사지 아래쪽에 해당하는 명륜당 전면(前面)에는 거칠게 다듬은 방형 석재로 석축형의 높은 기단을 형성하고, 그 위에 온돌방의 기둥을 세웠다. 대청 하부에는 좌우측 온돌방처럼 기단을 높게(8단) 쌓지 않고, 비교적 낮은 세별대의 기단을 조성하고, 그 위에 2열의 누하주를 세워 통로를 사용하고 있다. 반면 경사지 위쪽 명륜당 후면(북)에는 외별대의 낮은 기단을 두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웠다.

단성향교 명륜당에서 볼 수 있는 누각형 구조와 누하 진입은 그 사례를 찾기 힘든

것이다. 이러한 독특한 건축형식은 1725년에 명륜당을 지을 때 중당협실형 평면에 향교 풍화루의 누각 구조를 부가 절충하여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명륜당의 마루 밑을 지나 여러 단의 돌계단을 오르면 동·서재가 나타나고, 대성전은 강학영역보다 한 단 높은 곳에 앉아 남향하고 있다. 대성전 앞쪽에는 3동의 문으로 구성된 내삼문이 있고, 그 뒤쪽에 대성전을 가운데 두고 전사청(東)과 제기고(西)를 튼 ㄱ자 모양으로 배치했다. 동재 뒤쪽에는 단성현의 호적 장적을 보관했던 향안실(鄉案室)이 자리 잡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소설위 향교인 단성향교는 경사지를 크게 3단으로 조성하고 향교의 주요 건물을 남북축선상에 배치한 사례로, 가장 큰 특징은 공(工)자형 지붕을 가진 명륜당의 대청 하부를 누각형식으로 건축한데 있다. 그리고 강학영역의 동·서재를 문묘와 명륜당 사이의 마당에 전당후재형(前堂後齋形)으로 배치한 점도 특징 중의 하나이다. 이처럼 단성향교의 특징은 동서무가 없는 소박한 문묘 건축 그리고 지형의 고저차를 고려한 공(工)자형 지붕을 한 누각형 명륜당에서 잘 나타난다. 1725년에 건립된 명륜당에는 18세기 초의 건축적 수법이 남아 있고, 금번 조사대상은 아니지만 대성전도 임란 직후의 17세기 중엽의 고졸한 건축양식이 잘 남아 있어 지역의 역사와 문화 및 향교건축사의 측면에서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

## 2)명륜당의 각부 특성

### (1) 평면

단성향교 명륜당은 일반적인 중당협실형 평면에 누각식 건물의 구조를 절충한 독특한 건물이다. 건물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규모이며, 평면구성은 중앙에 정면 3칸의 넓은 대청을 두고 그 좌우 퇴칸에 온돌방(1×2칸)을 들이고, 앞쪽 전퇴를 꾸민 형태이다.(그림.9) 즉 북측에 있는 문묘를 향해 개방된 퇴칸이 있는 중당협실형으로, 이러한 평면은 경상도 지방의 명륜당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명륜당의 정면은 문묘와 마주보고 있는 후면(북)이다. 왜냐하면 전면(前面)에서는 누상(樓上)의 대청과 온돌방 등으로 직접 출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성향교 명륜당의 특징은 경사지에 입지하는 불리한 조건을 누각식 건물의 특징을 적극 수용하는 방식으로 해결했다는데 있다. 건물 전면에 거칠게 다듬은 돌을 사용하여 가운데가 낮고(3단) 좌우가 높은(8단) 기단을 조성하고, 기단이 낮은 대청 하부에 2열의 누하주를 세워 누각형 건물의 특징을 잘 살렸다.(표.3) 누하주가 있는 대청의 하부공간은 관선문에서 명륜당과 동·서재 및 문묘로 출입하는 통로로 쓰였다. 그리고 대청 좌우측 온돌방 아래에 놓인 높은 석축형 기단(8단)은 온돌방의 방바닥과 대청 바닥의 높이를 일정하게 형성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명륜당에는 여러 종류의 초석이 쓰였다. 어칸의 누하주에는 높이가 다른 방형 또는 원형 초석을 사용했고, 기단 위에 놓인 초석은 대개 받침이 없는 원형 초석이다. 또한

후면 귓기둥 앞에 세워 놓은 활주 초석은 팔각 단면의 장주형이다. 정초할 때는 기둥 하부를 그랭이질하여 주초(柱礎)와 밀착시켰다.

전술한바와 같이 단성향교 명륜당은 누각형의 중당협실형 건물이다.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의 건물로 가운데 넓은 대청을 꾸미고, 그 좌우에 온돌방(1×2칸)을 들인 형태이다. 온돌방과 대청의 앞(북)에는 측면 1칸의 긴 퇴칸을 꾸며 놓았다. 명륜당으로 출입했던 정면은 문묘와 마주보는 후면(북) 즉 북측이다. 후면 어칸의 뒷마루 끝(여모귀틀)에는 평난간의 동자주를 꽂았던 흔적이 남아 있으며, 이 평난간은 근 현대에 들어와 마루 끝에 미서기 유리문을 시설하면서 철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 평난간을 시설한 것은 바로 아래에 누하 진입의 통로와 돌계단이 있어 사용자의 안전과 추락을 방지할 목적으로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 (2) 상부가구

공(工)자형 지붕을 한 명륜당에는 5량가와 3량가의 구조가 함께 사용되었다. 주간이 넓은 대청 상부는 무고주 5량가의 구조로(그림.12,13,15), 좌우측의 온돌방 상부는 간략한 3량가로 되어 있다. 측면 중앙 칸의 좌우 기둥에서 대청 상부의 대량 위로 층량(230×250mm)을 걸어, 익사의 측면 지붕을 구성하는 장연을 받치도록 하고, 층량 상부에는 판대공을 놓아 좌우 익사의 종도리를 지지하도록 했다. 온돌방과 대청이 접속되는 부분에서는 대청과 온돌방의 경계에 놓인 대량(230×250mm)을 주심도리로 사용했다.

명륜당에 사용된 구조재 중 기둥에 대해 살펴보면 평주 14본, 우주 4본, 보조기둥 2본, 누하주 6본 등 총 26본의 기둥이 사용되었으며, 이들 기둥은 모두 원주이다. 평주와 우주의 굵기는 대개 400mm이며, 전후면 우주 앞에 세운 활주의 굵기는 160mm로,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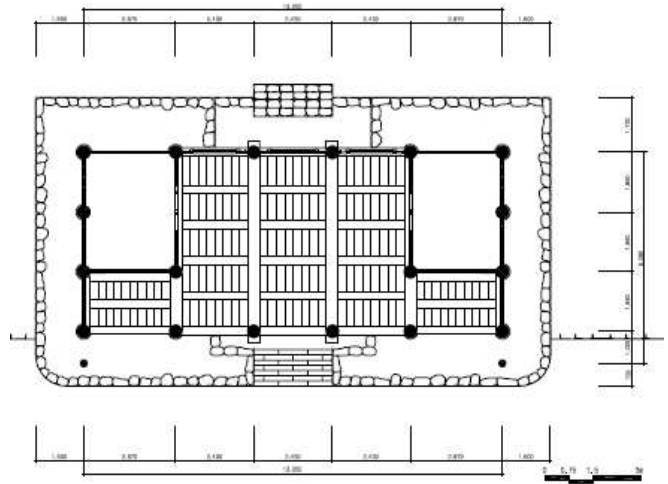


그림 25 명륜당 평면도



표 25 명륜당의 기단과 초석 및 누하주

주보다 가늘다. 누하에는 거칠게 치목한 6본의 두리기둥이 사용되었다. 이중 일부 기둥에는 24각으로 치목한 흔적이 남아 있다. 누하주(樓下柱)로는 누상의 원주보다 직경이 큰 재목을 사용했다.



그림 28 명륜당 대청 상부의 가구

대청 상부의 구조형식에 대해 살펴보면 대량(390×440mm) 위에 삼분변작법에 따라 종량을 걸었다. 종량(230×270mm)은 간략한 포대공 형식의 받침재 위에 놓여 중도리를 받고 있으며, 종량의 중앙부에 세운 제형 판대공은 중도리를 지지하고 있다. 대량의 단면은 폭보다 축이 큰 말각 방형으로, 모서리를 둥글게 깎고 양 단부로 가면서 조금씩 가늘어지게 치목하여 사용했다. 종량도 대량처럼 보의 상하 네모서리를 둥글게 치목했으며, 보의 중앙부가 좌우 중도리보다 약간 높아지게 원호(圓弧) 모양으로 다듬어 사용했다. 종량의 양 끝부분 즉 중도리가 놓이는 부분은 중도리의 단면형태에 맞추어 종보의 윗면을 반원형으로 따내고 결구했다. 종도리 밑에는 통장혀를 사용했는데, 통장혀 아래를 소로높이 만큼 이격시켜 뜯장혀를 걸고 그 사이에 일정한 간격으로 소로를 끼워 수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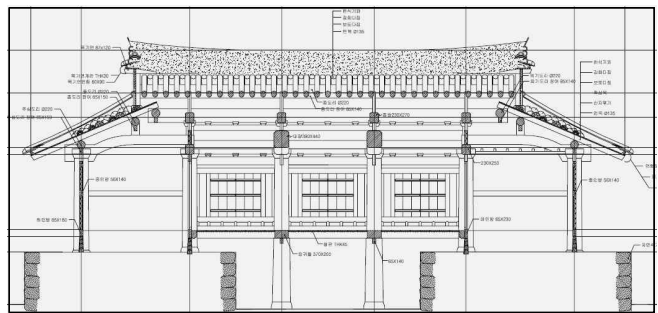


그림 29 명륜당 횡단면도

대청의 상부가구에 사용된 도리로는 주심도리, 중도리, 종도리가 있으며, 이들 도리는 모두 굴도리이고 굵기는 모두 220mm이다. 도리의 하부에는 통장여외에 뜯장여를 사용하여 보강했다. 즉 주심도리, 중도리, 종도리의 바로 밑에는 모두 통장여(85×140mm)를 사용했으며, 특히 중도리 받침장혀 아래에는 뜯장여(85×140mm)를 추가로 사용하여 종보 받침과 견고하게 결구했다. 중도리를 받는 통장여와 뜯장여의 사이에도 소로를 사용하여 수장했으며, 주심도리 하부의 통장여와 창방(115×220mm) 사이에도 소로로 수장했다.



그림 30 대청 상부에 꾸민 간략한 포대공 형식의 종보 받침

전술한바와 같이 명륜당의 지붕은 공(工)자형이다. 즉 대청 상부에 형성되어 있는 동-서 방향의 높은 맞배지붕과 대청 좌우측의 온돌방 상부에 놓인 남-북 방향 박공지붕이 직교하여 공(工: 영어의 H)자 모양의 독특한 지붕을 이루었다. 온돌방 앞뒤에 3

량가의 맞배지붕이 반 칸씩 돌출되어 工자형의 특징적인 외관을 완성했다. 온돌방 상부 익사 지붕의 마감을 살펴보면 전면으로 돌출된 맞배지붕 끝에는 방풍판을 시설한 반면 후면에 돌출된 맞배지붕 끝에는 방풍판을 시설하지 않아 상부가구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좌우측 익사 지붕의 중앙부에 합각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는 대청 상부의 높은 지붕보다 좌우 익사의 지붕이 한단 낮아서 생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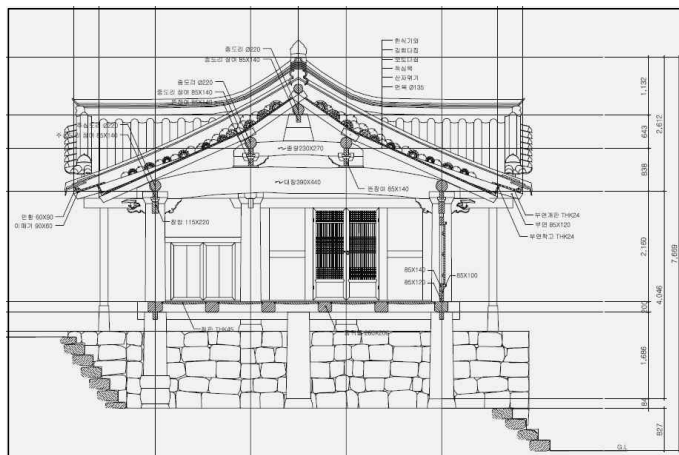


그림 31 명륜당 종단면도

### (3) 공포

단성향교 명륜당에는 독특한 이익공(그림.16)과 직절 익공이 사용되었다. 정면 3칸의 대청 전후 면에는 무출목 이익공식 공포가, 대청보다 위계가 낮은 좌우 온돌방 쪽 기둥에는 직절익공이 사용되었다. 명륜당에 사용된 이익공식 공포는 일반적인 익공식 공포와는 다르다. 하나의 익공에 초익공과 이익공의 짧은 쇠서를 조각한 독특한 형태이며, 상하의 두 쇠서 사이에는 연화(蓮花)를 새겼다.(그림16,17) 익공부재에 조각한 두 개의 익공쇠서의 형태는 달라서 초익공의 쇠서는 짧고 끝을 사절한 양서형이고, 이익공 쇠서는 가늘고 긴 끝이 뾰족한 수서형이다. 그리고 초익공 쇠서의 아래에는 연봉을 조식(彫飾)했다. 익공의 내단(內端)은 보아지 모양이며, 끝에는 작은 연봉 문양을 새겨 장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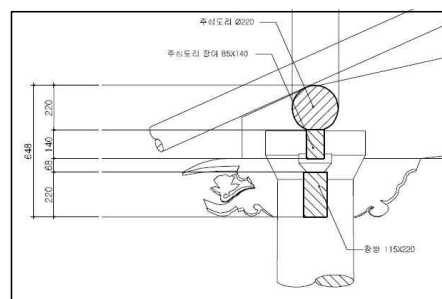


그림 32 명륜당 기둥 상부의 이익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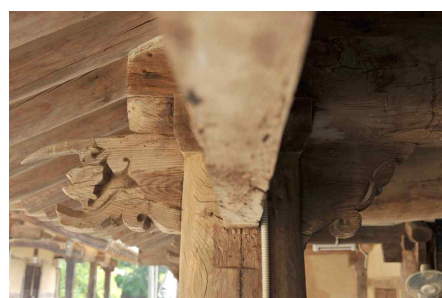


그림 33 명륜당의 익공

대청 주위 공포 상부의 주량작을 살펴보면 전후 평 주 머리의 사괘에 보 방향으로 이익공 형식의 익공재와 창방을 걸고 그 위에 주두를 놓아 대량의 머리 및 주심도리와 장혀를 지지하도록 했다. 반면에 온돌방 주위에는 대량 밑에 쇠서를 조각하지 않은 간략한 직절익공을 사용했다. 이익공이나 직절익공 위에 놓인 모든 대량의 끝은 직절되어 있다. 끝으로 대청의 앞뒤 평주에만 이익공 공포를 사용한 것은 강학의 중심공간인 대청의 높은 건축적 위계를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단성향교 명륜당의 익공식 공포의 특징은 하나의 행공과 제주두가 없는 간략한 이익공으로 하나의 통재에 초익공과 이익공의 쇠서를 구분하여 조각했다는 데 있다.

#### (4) 지붕부

단성향교 명륜당의 지붕은 공(工 : 영어 H)자형이다. 대청 상부의 높고 큰 지붕과 좌우 익사(협칸 부분)의 낮고 작은 맞배지붕이 직교하여 공(工)자형을 이루고 있다.(그림.19) 대청 상부의 크고 높은 지붕(5량가) 양 끝에 좌우 익사(온돌방 부분)의 낮은 맞배지붕(3량가)이 접속되어 앞뒤로 반 칸 정도 돌출된 형태이다. 대청 상부의 큰 지붕과 좌우 온돌방 상부의 간략한 맞배지붕이 접속되는 부위에는 안쪽으로 회침골이 형성되어 있다. 돌출한 익사의 맞배지붕에서 특징적인 것은 용마루를 중심으로 내외 측의 연목 길이를 다르게 처리했다는 점이다. 내측 처마에 외측보다 짧은 연못을 처리했는데, 이는 대청 상부와 좌우 익사의 처마 높이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명륜당의 입면을 통일적으로 구성하려는 목수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이다. 단성향교 명륜당과 같은 공(工)자형 지붕의 사례는 조선중기에 지은 경북지방의 반가(班家) 및 일부 서원(그림 26), 재사(齋舍) 등에서 볼 수 있으나 향교 명륜당에 적용된 사례는 거의 없다.

지붕은 연목 위에 산자를 짜서 덮고 그 위에 적심재를 채우고 보토다짐을 한 다음 강회다짐을 하고 그 위에 한식기와를 올려 용마루와 내림마루를 만든 것이다. 용마루는 착고와 부고 위에 7단의 적새를 쌓고 솟마루장을 올려 마감했으며, 내림마루는 착고 위에 3단의 적새를 쌓아 만들었다. 전면(南) 좌우 익사의 박공에 설치한 풍관은 판재(너비 60mm)와 줄대를 사용하여 만든 것으로, 풍관 상부에 지붕물매를 따라 목기연과 박공널을 설치했다.



그림 34 명륜당 온돌방 북측 지붕

온돌방 상부의 익사 지붕도 대청 부분의 지붕과 같은 방식으로 시공했으며, 대청 상부 지붕의 내림마루는 좌우 익사의 용마루와 연결되어 있다. 내림마루는 착고 위에 3단의 적새기와를 쌓는 정도로 낮게 처리했다. 익사의 후면(북) 박공에는 방풍판을 시설하지 않았다. 익사의 후면의 돌출된 지붕이 처지지 않도록 장혀 하부에 까치발과 보조기둥(활주)을 사용하여 보강했다.

명륜당의 처마는 겹처마와 홑처마가 혼용되었다. 지붕이 높은 대청의 전·후에만 부연을 사용하여 겹처마로 꾸미고, 좌우 익사는 홑처마로 처리했다. 이는 공간의 위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명륜당 전·후면의 겹처마 구성은 장연 위에 초매기와 부연을 놓고, 그 사이는 착고로 막았다.(그림.21) 부연 위에 이매기를 걸고, 그 위에 연합을 놓

아 암기와를 받도록 했다. 연목과 부연 및 평고대 등의 부재는 근년에 수리하면서 대부분 신재로 교체했다. 대청 전·후면의 처마 내밀기는 약 1,568mm인데, 이를 구분해 보면 장연의 내밀기가 1,095mm, 부연 내밀기가 492mm 정도이다. 대청 상부의 가구는 5량가로, 중도리에서 주심도리 사이에 장연, 중도리와 중도리 사이에 단연을 걸어 지붕틀을 구성했다. 장연은 전·후면에 25개씩 모두 50개를 사용했으며, 연목의 굵기는 135mm 정도이다. 부연의 수는 연목의 수와 같았다. 한편 대청 좌우측의 익사 처마는 장연만 사용한 홑처마로, 연목 위에 초매기를 걸고 연합을 놓아 암기와를 받게 했다. 연목내밀기는 1,334mm 정도이고, 외기도리에 장연의 뒷뿌리를 연결하여 고정했으며, 굵기는 135mm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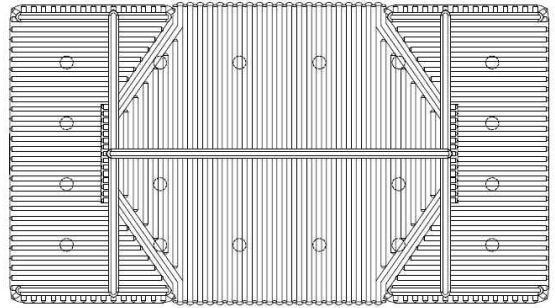


그림 35 명륜당의 지붕평면도

대청 상부 지붕에만 사용된 부연은 단부를 비스듬히 깎고, 밑부분을 약한 곡률로 걸어 올린 형태로, 장연 끝에 초매기를 걸고 설치했다. 부연은 안쪽에서 밖으로 가면서 조금씩 가늘어지게 치목하여 사용했으며, 상면은 거의 수평이나 좌우 측면의 아랫부분에는 볼 건기를 했다. 신재로 교체된 부연에서는 이러한 세밀한 기법을 찾아보기 힘들다. 처마에 사용된 초매기와 이매기의 크기는 90×60mm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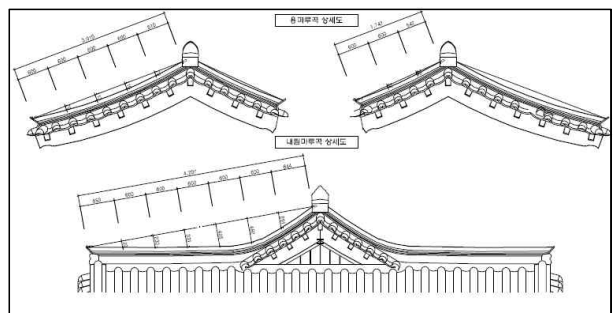


그림 36 명륜당 지붕 마루곡

전술한바와 같이 단성향교 명륜당의 지붕 형태는 독특한 공(工)자형이다. 대청 상부의 높은 지붕과 좌우 익사의 낮은 맞배지붕이 만나 공(工)자형 지붕을 형성했다. 이 같은 공(工)자형 지붕을 가진 향교 명륜당으로는 단성향교 명륜당이 유일하다. 조선 초기의 반가 및 서원 강당 중에 지붕을 공(工)자형으로 처리한 사례는 소수가 있다. 그렇지만 조선시대 교학건축의 상징인 명륜당 중에 지붕을 공(工)자형으로 처리한 것은 단성향교 명륜당이 유일하다. 이 같은 희소성과 역사성을 고려할 때 단성향교 명륜당은 문화유산으로서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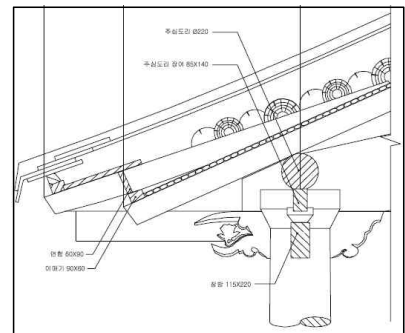


그림 37 명륜당의 겹처마

### (5) 창호, 천장 및 단청

단성향교 명륜당에는 널문과 세살분합문이 함께 사용되었다.(그림.22) 이중 쌍여닫이 띠장 널문은 대청(3칸) 전면에 시설되어 있다. 대청 전면 매칸의 하부에 짜는 머름을 꾸미고, 그 위에 두 짝의 밖여닫이 띠장널문(1,400×1,143mm)을 달았다. 1987년에 명륜당을 수리하면서 문울거미와 문짝 등을 대대적으로 수리함과 동시에 많은 부재를 신재로 교체했으며, 이로 인해 당초 모습이 잘 남아 있지 않다.

그리고 좌우 온돌방과 대청 사이의 청방간(廳房間)에는 두 짝의 키 큰 띠살 분합문(1,282×1,805mm)이 달려 있다. 띠살 분합문은 하부에 궁창널을 끼우고, 그위에 띠살문의 문살을 넣은 것으로 보존상태로 볼 때 근년에 교체된 것으로 보인다. 좌우 온돌방의 앞(북측)에는 청방간에 달린 띠살 분합문과 유사한 두 짝의 여닫이 띠살문(1,238×1,520mm)이 시설되어 있는데, 세부 기법과 보존상태로 볼 때 1987년의 수리시 교체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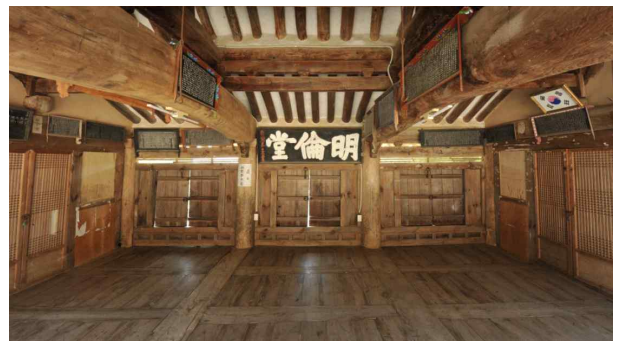


그림 38 명륜당 대청 주위 창호

이밖에 온돌방 앞쪽 퇴칸의 좌우 양 끝에는 외쪽의 울거미널문(1,250×1,130mm)이 달려있다. 이 울거미 널문도 보존상태와 세부기법으로 볼 때 1725년 중건 당시의 것이 아니고, 후대 개변된 것으로 보인다. 문묘에 면한 명륜당 후면의 뒷칸의 경우 지금은 창호 없이 개방되어 있으나 이전에는 매 칸에 세 짝의 미서기 유리문이 달려 있었다.(그림.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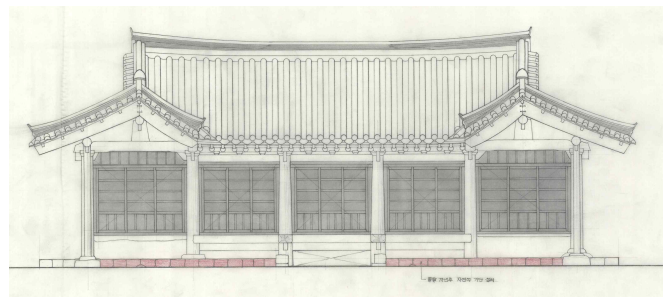


그림 39 1987년 명륜당 수리시 도면(유리창이 있는 모습)

1987년에 명륜당을 수리하면서 마루 끝

에 달았던 미서기 유리문을 모두 철거하여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되었다. 그리고 창과 문이 달려 있지 않은 내외 벽은 회사벽으로 마감했다.

명륜당에서 가장 넓은 공간인 대청의 상부는 연등천장으로 연목과 양벽(仰壁)이 노출되어 있다. 좌우 온돌방의 천장은 고미반자로, 각형의 고미반이에 가는 서까래 모양의 고미가래를 걸고 그 사이에 양벽을 바른 형태이다. 근년에 수리하여 예스러움을 많이 상실했다. 온돌방의 방바닥에는 장판지로 마감했다.

대청과 후면의 뒷마루는 공히 장귀틀과 동귀틀로 정(井)자형의 마루 틀을 짜고 그 사이에 청판을 끼워 넣은 우물마루이다. 1987년 수리 시 대부분의 청판(廳板)과 귀틀을 신재로 교체하여 고태(古態)를 많이 상실했다. 온돌방에 군불을 때던 아궁이는 방



의 측면에 있으며, 배연용 굴뚝은 온돌방 배면에 있다. 명륜당의 후면 뒷마루 바로 앞에 화강석을 다듬어 만든 정료대가 있다.

현존하는 단성향교 명륜당은 단청을 하지 않은 백골집이다. 일부 연목 등의 목 부재에 뇌록을 칠한 흔적이 아주 희미하게 남아 있으나 문양과 색상을 전혀 알 수 없다. 단성향교의 여러 건물 중 대성전에 모로단청, 내삼문에 가칠단청을 했고, 명륜당을 비롯 동서 양재, 관선문은 단청하지 않은 백골집 상태로 있다.

표 26 문화재 가치 평가

문화재명		단성향교 명륜당				
지정기준		평가지표	우수	보통	미흡	해당없음
역사성	시대성	사회·문화·정치·경제·교육·예술·종교·생활 등 당대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가	√			
	역사적 인물	저명한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그가 제작하였는가		√		
	역사적 사건	역사상 특수한 목적을 띠고 기념비적으로 만들었는가		√		
	문화사적 기여도	우리나라 문화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가	√			
	종합					
예술성	보편성	인류의 보편적인 미적 가치를 구현하였는가	√			
	특수성	우리나라 특유의 미적 가치를 잘 표현하였는가		√		
	우수성	구조, 구성, 형태, 색채, 문양, 비례, 필선 등이 조형적으로 우수한 가		√		
	창의성	제작자의 개성이 뚜렷하고 작품성이 높은가	√			
	종합					
학술성	대표성	특수한 작가 또는 유파를 대표하는가		√		
	지역성	해당 지역의 특징을 잘 구현하였는가	√			
	특이성	형태, 품질, 기법, 제작, 용도 등에 현저한 특이성이 있는가	√			
	명확성	명문, 발문 등을 통해 제작자, 제작시기 등에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는가	√			
	연구기여도	해당 학문의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가		√		
종합						
공통	동종문화재와 비교 검토	동종문화재와 비교했을 때 특별한 가치가 있는가?	√			
	희소성	동종의 문화재 중 연대가 오래되거나, 전래되는	√			

사 향		문화재가 유일하거나 적은가				
	보존 상태	제작 당시의 원형을 크게 변형, 훼손하지 않고 보존상태가 양호한 가		√		
	완전성	구성의 완결성을 어느 정도 보유했는가		√		
	종합					

## 8. 조사자 의견

단성향교 명륜당은 1725년에 중건하고 그 후 여러 차례 수리하여 오늘에 이른 전통 목조 건물이다. 앞에서 수리연혁을 살펴본바 1725년에 중건된 후 1864~65년, 1895년, 1909년, 1940년, 1962년, 1987년에 중수 또는 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금의 대성전은 1987년에 대대적인 수리를 한 후의 모습이다. 이때 견치석으로 쌓은 기단부 석축을 모두 헐고 새로 쌓았으며, 상당량의 노후 부식재의 교체 및 후면(북측)에 있던 미서기 유리창을 철거했다.

1725년에 중건된 명륜당의 규모와 모습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기록은 없으며, 중건 이후에 있었던 여러 번의 보수공사의 범위와 내용도 자세하게 알 수 없다. 다만 1987년의 보수공사는 당시에 작성된 도면이 남아있어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남아있는 상량문 등의 기록에 명륜당이 철거 또는 소실되었다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1725년에 중건된 후 큰 변화 없이 유지해온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부식재에 한해 교체하고, 파손부 위주로 수리하는 방식을 따랐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볼 때 현 단성향교 명륜당은 1725년 중건된 건물로, 여기에 후대의 다양한 건축기법이 부가되어 지금의 모습으로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0 회인향교 명륜당

단성향교는 경사지에 입지한 조선시대 소설위 향교로, 남북 주축 선에 전학후묘(前學後廟) 배치원리에 따라 건물을 배치했다. 즉 전면(前面)에 명륜당과 동서재로 구성된 강학영역을 두고, 그 북측에 대성전이 중심이 된 문묘를 배치했다. 근래에는 명륜당 앞쪽에 관선문을 지어 향교의 외대문으로 사용하고 있다. 강학영역은 전당후재형(前堂後齋形)으로, 남쪽(앞)에 명륜당을 두고 그 뒤쪽에 동서 동·서 양재를 마주보게 배치했다. 전당후재형 배치를 통해 의례의 중심인 문묘와 강학공간이 유기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했다. 북측에 있는 대성전을 향해 명륜당을 짓고, 그 사이에 동재와 서재를

배치하여 문묘와 강학영역을 공간적으로 통합했다. 단성향교는 경남에서 유일하게 전당후재형 배치를 따른 향교로, 이 같은 전당후재형 배치는 기호지방의 향교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단성향교의 전당후재형(前堂後齋形) 배치는 기호 지방 향교건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성현이 기호지방과 가까운 경남 서부지역에 위치하고, 특히 18세기이후 빈번했던 두 지역의 인적, 물적 교류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단성향교 명륜당은 중당협실형 건물의 대청 하부에 누각식 구조를 가미했다는 데 큰 특징이 있다. 전후 지형의 고저 차를 이용하여 대청 하부에 2열의 누하주를 세워 통로로 사용하고, 누상의 대청 좌우측에 온돌방을 꾸민 모습이다. 전퇴를 둔 양방형(兩房形) 평면은 주로 경상도 지방 향교 명륜당에서 많이 사용되었으나 대청 하부를 누각처럼 구성한 사례는 경남의 단성향교가 유일하다. 단성향교 명륜당은 대청 하부의 낮은 기단에 누하 공간을 만들어 출입용 통로로 사용하고, 좌우의 높은 기단에 온돌방을 시설한 독특한 평면이다. 단성향교 명륜당과 유사한 사례로는 회인향교 명륜당(충북 보은군, 그림.24)이 있다.

상부구조의 특징은 대청 상부를 5량가, 좌우 온돌방 상부를 3량가로 처리한 데 있다. 대청 상부의 무고주 5량가의 높은 지붕에 좌우 온돌방 상부의 낮은 3량가의 지붕이 접속되어 독특한 공(工)자형 지붕을 형성했다. 이 같은 공(工)자형 지붕은 아산 맹씨행단(그림.25)을 비롯 도산서원 농운정사, 안동 호계서원 강당(그림.26) 등에서 볼 수 있으나 향교 명륜당으로는 단성향교 명륜당이 유일하다. 이 점에서 단성향교 명륜당에 사용된 공(工)자형 지붕은 학술적으로 큰 가치가 있다.

단성향교 명륜당은 전반적으로 간략한 의장이 특징으로, 대청의 앞뒤 기둥에만 간략한 이익공식 공포를 사용했다. 즉 대청 앞뒷면에 서 있는 기둥에만 무출목 이익공의 공포를 사용하고, 온돌방 주위 기둥에는 간략한 직절이익공을 사용했다. 이익공재에 두 개의 쇠서를 조각한 이익공식 공포를 사용했다는 점 외에는 뚜렷한 특징이 보이지 않는다.

단성향교 명륜당의 특징은 유교적 조형미관에 따라 공포형식, 가구법, 창호 및 대공



그림 41 아산 맹씨행단 정면(工자형 지붕)



그림 42 안동 호계서원 강당(工자형 지붕)

과 들보 등을 검박하게 처리했다는데 있다. 대청의 전후 기둥에만 공간의 위계를 고려하여 무출목 이익공의 공포를 사용했으나 통재의 익공재에 두 개의 쇠서를 조각한 것 외에는 큰 특징이 없다. 상부가구를 구성하는 들보는 재목의 형태를 최대한 살려 치목했으며, 부재의 결구는 소박하면서도 견고하다. 대청 전면(前面)의 짜는머름 위에 시설된 띠장널문은 고졸하지만 1987년의 수리시 많은 부재를 교체하여 옛 모습을 많이 잃었다. 온돌 주위에 시설한 두 종류의 띠살문도 1987년 수리시 새로 만든 것으로 가치를 논하기 어렵다.

끝으로 단성향교 명륜당의 가장 큰 특징은 지형의 고저 차를 살려 중당협실형 건물의 대청 하부에 누각의 특징을 가미하고, 지붕을 공(工)자형으로 처리했다는데 큰 특징이 있다. 즉 건물 중앙부의 높은 지붕(5량가)과 좌우 익사(온돌방) 쪽의 낮은 지붕(3량가)이 접속하며 특징적인 공(工)자형 지붕을 형성했다. 단성향교 명륜당은 공(工)자형 지붕을 한 유일한 명륜당이라는 점에서 희소성의 가치가 있다. 단성향교 명륜당은 검소하고 소박한 건축미를 잘 보여주는 건물로 화려하고, 세련된 구조미와 장식적인 요소는 찾아보기 힘들다. 단성향교가 조선시대 작은 고을의 소설위 향교라는 점을 감안하여 세부보다는 독특한 건축형태, 구조형식, 평면구성의 특징을 중심으로 문화재 지정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1725년에 중건된 단성향교 명륜당은 그 후 여러 차례의 수리과정에서 당초 원형을 잃기도 했으나 누각형식을 수용한 독특한 평면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공(工)자형의 독특하고 고졸한 지붕형태와 가구형식을 한 유례가 드문 건물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학술적으로 큰 가치가 있다. 조선후기 소설위 향교의 명륜당 건축과 유교문화, 지역문화를 이해하는데 귀중한 자료이며, 학술적·예술적·역사적 측면에서도 보물로 승격시킬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제언 : 보물로 승격되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범위를 반경 500m까지로 확대해야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조정해야 함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0.09.02	대상문화재	산청 단성향교 명륜당	
조사자	성 명	○ ○ ○	전공 분야	전통건축
	소 속		직위(직책)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산청 단성향교 명륜당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10월 일

제출자

○ ○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1. 지정가치 및 근거 기준

### 가. 역사적 가치

단성현은 조선 세종 8년(1436) 강성현(江城縣)과 단계현(丹溪縣)의 두 명칭을 따서 단성현이라고 하였다. 고려시대 1390년(고려 공양왕 2)에 강성현에 감무(監務)가 파견되어 단계현을 겸임하였다. 조선시대 단성현에는 종6품의 현감(縣監)이 파견되었다. 단성현은 임진왜란 직후인 선조 32년(1599)에 산청현(山淸縣)에 통합되었다가 광해군 5년(1613)에 복구되었다. 숙종 29(1703년)에는 옛 강성현 읍치로 중심지를 옮겼다가 영조 7년(1731)에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다. 고종 32년(1895)에 단성군이 되었으나, 1914년에 단성군이 폐지되고 그 영역은 산청군에 병합되었다. 조선시대에 단성현은 현재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지역을 중심으로 편성되었다.

단성향교는 역사가 전국에서 오래된 향교 중의 하나로서, 고려 인종5년(1127) 정미년에 금잔방(金盞坊) 지금의 강누리(江樓里) 구인동(九印洞)에 창건하였다<sup>68)</sup>고 전한다. 운창이시분(雲窓 李時黼)이 쓴 『운창지』<sup>69)</sup>에 보면, 현 위치인 교동에 이건하기 전까지 금잔방(金盞坊)에 있었고 현청(縣廳)은 강루평(江樓坪)에 있었으나, 조선 세종 때(15세기 초)에 단성고을에서 문가학의 변(變)으로 인하여 현청(縣廳)은 내산 아래로 옮겨지고, 향교는 서쪽산의 북편 기슭으로 옮겼다는 기록이 있으나 위치가 확실치 않다. 1530년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향교는 현의 북쪽 5리 지점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숙종4년(1680)에 현감 윤식이 쓴 「성묘중수기(聖廟重修記)」의 기록에서 보면, 향교는 예전 구인마을에 있었는데 영락(永樂) 연간(1403~1424)에 이곳으로 이 건했고 선조32년(1599) 기해년 임진왜란 때에도 성묘(聖廟)는 보존되었다는 기록이 전해지는 것으로 보아 조선초기에도 향교가 경영된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현재 남아 있는 중수기를 통하여 단성향교의 연혁 및 중수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1680년에 작성된 「성묘중수기(聖廟重修記)」를 보면, “못난 내가 스승(숙종) 무오년(1678)에 이 현(縣)으로 부임하자 현의 선비들이 성묘(聖廟)의 수리가 시급하다고 나에게 아뢰었다. 몸소 나가 살펴보니 전우(殿宇)가 무너져 참으로 몇 일을 지탱하기 어려운 지경이었다. 돌아보건대 고을의 물력이 빈약하고 공사가 거대한 지라 전후 수령들이 감히 뜻을 내어 일을 시작하지 못한 것이다. 드디어 개연히 관찰사를 통하여 조정에 알려줄 것을 청했더니 2년 후 경신(庚申) 5월에 교지가 서울에서 내려왔다. 이에 위패(位牌)를 재각(齋閣)으로 이봉(移奉)하고 공사를 시작

68) 사찬읍지인 『雲窓誌』에 전하고 있으나 다른 기록에서는 단성향교의 창건년대는 보이지 않는다. 단성현이 1426년에야 그 명칭이 나타나는데 여기에는 좀 더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강누리’는 강성현의 옛 터다.

69) 한강 정구의 문인인 이시분(1588~1663)이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변화된 단성 지역의 사회상과 지역상을 정리하기 위해 경상도 단성현의 연혁·인문지리·행정 등을 수록하여 1635년경에 편찬한 사찬읍지

하여 3개월만에 완공하였으니 그해 7월 9일에 위패(位牌)를 신묘(新廟)로 환봉(還奉)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 1680년에 성묘 즉 대성전을 중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725년(영조1년)의 「명륜당상량문(明倫堂上樑文)」에 의하면,

“시세가 어렵고 힘이 모자라 명륜당을 건립하지 못함은 몇 번인가 탄식했다. 이에 학교가 있고, 이에 당을 갖췄으니 새로 지은 건물의 찬란함을 보겠다.....돌아보건대 이곳 10실(室)의 작은 고을에는 유독 서까래 몇 개의 학교마저 없었다. 생도들은 공부할 장소가 없어 현송(絃誦)소리 적막했고, 사림은 의귀할 자리가 끊겨 풍교가 무너졌다. 명륜당 창건할 계획에 어찌 종전부터 뜻이 없었겠는가.....”,

라고 하였고, 1728년(영조4년)의 「명륜당기(明倫堂記)」에 따르면,

“오직 우리 나라가 흥한 것은 실로 널리 문(文)을 숭상하여 중앙에는 성균관이 있고, 지방에는 향교(鄕校)가 있기 때문이다. 향교에는 명륜당이 있는데 오직 단성만 유독 비어있었다. 중간에 흥하고 폐한 것은 지금 알 길이 없고, 재실(齋室)에 모여서 마음을 집중하여 공부할 수 없는 것이 오래되니 읍 사람들이 부끄럽게 여기고 나이많은 유림(儒林)들이 탄식해마지 않던 차... 경묘 갑진년(景廟 甲辰年, 1724)에 향교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합의하여 청원하기를 “지금 우리 성군(聖君)이 즉위(卽位)하자 시작한 것은 유교(儒教)를 중히 여기고 항상 융성하기를 바라고 향교의 일과 또 고을을 지키는 사람들이 일을 첫째 일로 여겼습니다. 지금 영감(令監)께서 긴급한 공무는 대부분 정돈하였으니 이제는 모두가 바라는 학사(學舍)를 새로 지어 줄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영감(令監)은 그 이듬해(1725년)에 창고 안에 있는 재목을 모아 신망있는 선비를 선출하여 일을 맡겼고 다음해 봄에 낙성(落成)을 보아 고(告)하였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오랜 세월 동안 명륜당 없이 오직 대성전만을 보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1724년부터 강당을 지을 계획을 세우고 1728년에 완공을 하여 당(堂)의 호를 명륜(明倫)이라하여 향교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1728년에 완공한 명륜당이 영조 28년(1752) 현재 위치로 이건<sup>70)</sup>하였다고 하는데 어떠한 연유로 이건하고 구재를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으며, 이 사실조차도 언급한 곳이 없어 정확한 건물의 연대를 알 수가 없다.

그 뒤 몇 번의 수리기록은 있었다. 명륜당에 해당하는 것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65년 을축년에 작성된 「향교중수기(鄕校重修記)」에 의하면,

“대문(大門)이 기울어지고 강사(講舍)와 재관(齋官)은 완전한 것이 없다. .... 비가 새는 곳은 기와를 새로 덮고, 재목이 썩은 것은 나무를 교체했으며, 기울어진 부분은 다시 바로 잡고 넘어간 곳은 다시 세웠으며, 퇴색한 단청은 선명하게 하였고, 무너진

7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위키백과, 국가문화유산포털 등에서 언급하고 있으나 근거자료는 기록하지 않았다.

계단은 바르게 수리하여 대소와 내외가 찬연히 일신되었다.....”

1909년 「향교중수기(鄕校重修記)」에는

“고궁의 문이 썩어 내려앉고, 여러 집들이 눈비가 스며들고 동재(東齋)와 누각이 전복되고 장관이 허물어졌으니.....6월 초하루에 일을 시작하여 7월 보름에 공사를 마치니 이에 교궁이 찬연히 다시 빛나고, 판적은 손질하지 않아도 절로 새로워졌다.....”

1962년 壬寅年 7월에 작성된 「단성향교중수기(丹城鄕校重修記)」에 의하면,

“그리고 명륜당과 서재 및 부속건물에 이르기까지 무너진 것을 세우고, 기울어진 것을 바로 잡았으며,”

위의 내용으로 보면 1752년 이후로 명륜당에 대한 보수는 몇 번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 내용들은 훼손된 부분만을 보수하였고 형태를 바꾸거나 중건한 내용은 없는 걸로 보아 18세기에 건립된 명륜당은 크게 변형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나. 학술적 가치

단성향교 배치는 전학후묘형(前學後廟型)으로 강학구역이 전면에 들어서고 그 뒤쪽으로 문묘구역이 오는 한국 향교건축 배치의 일반적인 유형이다. 이 배치유형을 결정짓는 요소는 지형에 의한 것으로 야트막한 야산의 경사지에 보통 3단으로 정지한 다음 낮은 단부터 진입구역, 강학구역, 그리고 제일 높은 곳에 문묘구역이 들어서 상·중·하의 위계성이 드러난 형태이다. 전학후묘형(前學後廟型)에서도 두가지 형태로 나뉘어 있는데, 강학공간내에서 명륜당과 동·서재의 위치에 따른 구분이다. 일반적으로 명륜당 앞쪽 좌우에 배치(前齋後堂型)되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동·서재가 명륜당 뒤쪽에 위치한 전당후재형(前堂後齋型)이 형식이 있다. 단성향교는 전당후재형에 속한다. 이러한 전당후재형은 장수향교, 순천향교, 남원향교 등 호남지역에는 30여군데가 있고, 충청지역에는 옥천향교, 정산향교, 서천향교 등 19곳이 이러한 배치를 취하고 있으며, 경기도 10곳, 강원도 6곳, 경북에도 6곳 정도가 현존하고 있다. 즉, 전당후재형은 호남지역에서는 일반적인 배치구조이고, 충청지역에서도 그러하다. 그러나 경남지역에는 단성향교 1곳만 전당후재형을 취하고 있어 이 지역에서는 매우 특이한 배치구조이다.

단성향교 명륜당은 다른 향교와 다르게 누각형식으로서 진입공간과 강학공간의 단차를 극복하기 위해 석축을 쌓아 누각형식으로 세워 누하진입을 통해 강학공간의 영역으로 출입하게 하였다. 이러한 누각형식의 명륜당은 전재후당형식에서 보이는데, 명륜당 기능과 누각의 기능을 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향교 수는 30곳인데 그 중 20곳이 누각을 건립하고 있으며 대부분 1800년대에 많이 건립하였다. 이러한 루에 대한 지역 유림들의 인식은 모든 향교에서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단성향교에서는 지형을 이용한 루에 대한 건축적 욕망을 루형 명륜당으로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

단성향교 명륜당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익공계 맞배지붕의 누각식 건물이다. 중앙 3칸은 2층의 누각으로 만들고, 양측 협간은 누하부분에 석축을 쌓고, 누상 부분에 방을 만들었다. 일반적인 향교와 달리 양재가 명륜당보다 안쪽에 배치되었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내삼문 쪽이 앞면이 되고 앞쪽의 대문쪽은 뒷면이 된다.

기둥 상부는 어칸 전·후면 기둥에 초익공을 두어 어칸의 중심성을 강조하였고 나머지는 물익공 처리하였다. 지붕은 특이하게 공(工)자형<sup>71)</sup>이며 상부 가구는 무고주 5량가이다. 창호는 대청 배면으로 각 칸에 쌍여닫이 판문을 두었고 온돌방 전면에는 쌍여닫이 굽널이 있는 세살문을 두었다. 일반적으로 온돌방 전면의 창호는 머름을 둔 쌍여닫이 창을 두는 데 단성향교 명륜당의 굽널세살문은 개체(改替)되었음을 의미한다.

대청마루의 가구구조를 살펴보면, 대량위에 포대공을 세워 종량을 받도록 하였고 종량위에 제형판대공을 얹어 종도리를 받고 있다. 종도리는 포대공으로 하고 뜯장혀를 두어 격을 높였는데, 종도리는 뜯장혀도 두지 않고 장식없이 간략하게 처리한 모습이 의외다. 변형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공포의 형식은 어칸 전·후면 기둥에만 초익공을 두었다. ‘工’자형 지붕가구 구조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 어칸에 사용된 초익공은 하부는 양서형으로, 상부는 수서형으로 초각하였고 중간에는 연꽃 모양으로 초각하였는데 건립 당시의 모습으로 보기에 의구심이 따른다.

## 2. 종합의견

단성향교는 고려 인종 5년(1127)에 창건되었다고 하나 명확하지는 않다. 조선 세종조에는 향교의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 이전에는 향교가 있었던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단성향교 명륜당 건물은 1728년에 완공하였다는 「명륜당기(明倫堂記)」에 정확한 기록이 있다. 그러나 1752년에 현재 위치로 이건하였다고 하는 내용이 여러 군데 인용되고 있는데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어 좀 더 정확한 고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단성향교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경남지역 유일의 전당후재형(前堂後齋型)의 루형 명륜당이라는 점이다. 전국에서는 전당후재형은 배치하는 많은 예가 있지만, 루형 명륜당을 지닌 곳은 강릉향교, 옥천향교, 청양향교, 금산향교, 곡성향교, 옥과향교, 삼척향교, 양양향교 등 10곳도 되지 않는다.

또한 지붕의 형태가 ‘工’자형 지붕으로 처리한 것인데 이러한 지붕형태는 전국 향교 명

71) ‘工’자형 지붕은 향교에서는 경북의 영양향교 명륜당, 인동향교 명륜당에서 볼 수 있다.

륜당건물에서 단성향교 포함 3곳 밖에 없는 독특한 양식이다.

이렇게 경남지역에서 유일한 루형 명륜당을 채택한 것은 향교에서는 루가 당연히 있어야 한다는 지역 유림들의 인식과 그 요구를 해결하고자, 단성향교에서는 지형을 이용하여 중층 명륜당이라는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본 건물은 일부 부재에서 건축당시의 원형을 온전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 힘든 부분이 있지만, 경남지역에서는 찾을 수 없는 전당후재형 배치에서 오는 특수성과 ‘工’자형 지붕이라는 개별성을 감안한다면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의미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0.09.02	대상문화재	산청 단성향교 명륜당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건축사
	소속	○○○○○○대학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산청 단성향교 명륜당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10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1. 입지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1) 입지

단성향교(丹城鄉校)는 산청군 단성면 강누리 595-1번지에 위치해 있다. 단성면(丹城面)은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부터 ‘단읍(丹邑)’이라고도 하였는데, 그 뜻은 ‘붉은마을’이란 의미로 그 유래는 신라시대부터이며, 적촌(赤村)이라고 불리어오다가 경덕왕 때에 동일한 의미의 ‘단읍(丹邑)’으로 개칭되었다. 이후 하천가에 있다고 하여 단계(丹溪), 성을 쌓은 고을이란 의미에서 단성(丹城)으로 고쳐 불리었지만, ‘붉다’라는 의미는 지명에서 줄 곳 이어지고 있다.

한편, 고려시대 성종 14년(995)에는 단계현(丹溪縣)으로 개칭되었으며, 조선시대에 들어와 세종 14년(1432)에 강성현(江城縣)과 단계현(丹溪縣)을 통합하여 만들어졌는데, 두 현의 이름으로부터 한자씩 따서 단성현(丹城縣)이 되었다. 고종 32년(1895)에는 단성군(丹城郡)으로 승격시켰다가 일제강점기 전국 지방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단성면(丹城面)으로 강등시켜 산청군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단성면(丹城郡)의 경역은 동쪽으로 신안면(新安面)과 진주시 명석면(鳴石面), 북쪽으로 산청읍(山淸邑), 남쪽으로 하동군 옥종면(玉宗面)과 진주시 수곡면(水谷面)·대평면(大坪面), 서쪽으로 삼장면(三壯面)·시천면(矢川面)에 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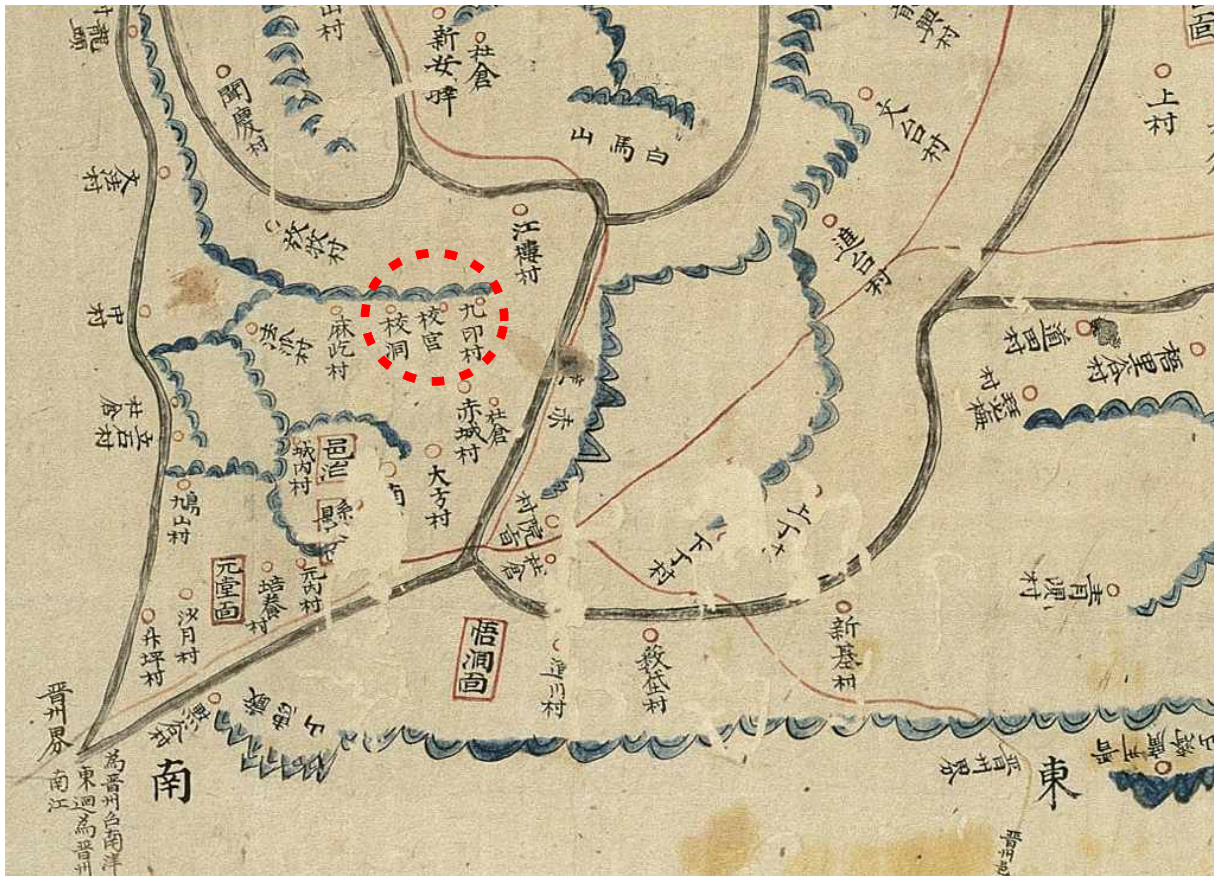
단성면의 산세는 태석봉(1,093m)·수양산(502m) 등 험준한 산지가 서쪽으로 에워싸고 있으며, 단성향교(丹城鄉校)는 이러한 주산과 좌우산맥으로 완벽하게 둘러싸여 있는 곳에 위치하는데, 특히 여맥인 석대산(534m)에서 남동으로 뻗어 내린 산자락에 입지하고 있다. 그리고 소백산맥에서 발원하여 남강으로 흘러드는 경호강과 그 지류인 양천강과 단계천이 흘러서 진주의 진양호로 유입되는 입수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단성향교(丹城鄉校)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 통영대전고속도로 단성IC로 들어와 국도 20호선을 타고 진주방향으로 1.3km 정도 가면 단성중·고교 앞 사거리가 나오고 여기에서 단성중·고교 옆으로 난 강누리방목로로 접어들어 따라가다가 다시 사직단로 257번길로 가면 교동마을입구가 나온다. 여기에서부터 교동길을 따라 북쪽방향으로 직진하면 마을주차장과 홍살문이 나온다. 이 홍살문이 있는 곳에서부터 경사지형 상에 외삼문, 명륜당, 내삼문, 대성전으로 이어지는 직선축 선상에 단성향교의 전각이 놓여 있다.

### 2) 역사문화환경

단성향교(丹城鄉校)가 있는 지역은 북쪽의 산자락지역과 남쪽의 산자락지역의 사이에 남강유역을 기반으로 넓은 평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연마을로는 구릉말, 법하, 서재곡, 양정, 행정, 교동마을 등이 있다. 여기에서 구릉마을은 강루 남쪽에 있는 마을로 단성향교(丹城鄉校)가 최초 창건된 지역으로, 강성현 때 아홉사람의 벼슬아치가 다리 위에 모여 의논했다고 하는 구인교가 있다고 하여 구인동 또는 구교, 구릉말이라고 불

렸다. 서재곡은 미흘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신안정사(新安精舍;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291호)<sup>72)</sup>가 있다. 양정마을은 하운원(河允源; 1322~1376)<sup>73)</sup>이 지어놓고 해를 보냈다는 양정이 있어 양정마을이라 한다. 북쪽에는 은행나무가 있었다하여 행정마을이라 하였다. 이와 같이 단성향교(丹城鄉校)가 있는 강누리(江樓里)는 조선시대 단성현(丹城縣) 읍치(邑治)의 북쪽에 위치하면서 향교를 중심으로 나뉠대로의 경역을 형성해 왔다.



1872년 지방도 단성현지도상의 향교와 그 주변마을  
 출처: 서울대학교규장각 주1:○의 교궁(校宮)이 단성향교임. 주2:단성향교는 영락연간(永樂年間;1403~1424)에 인접지인 구인촌(九印村)에서 서쪽의 북쪽 산기슭인 현 위치로 이전

단성향교(丹城鄉校)가 있는 교동마을<sup>74)</sup>은 주산인 석대산의 지맥으로 형성된 좌청룡 우백호의 형상의 산자락에 둘러싸인 입지적 특징으로 인하여 전면이 반개방성으로 위치하고 있다. 단성향교(丹城鄉校)는 북서방향을 등지고 남동방향을 바라보는 입지에 향을 놓았다. 즉, 향교는 전면은 외부로 반개방되어 있고, 후면의 위요성도 양호한 임좌

72) 이 정사는 조선시대인 중종 33년(1538)에 중국 신안(新安)에 있는 주자(朱子:1130~1200)의 사당을 본받아 이 지역에 사는 안동권씨(安東權氏)와 성주이씨(星州李氏)가 창건하였으며, 주자 영정을 모시고 유생교육을 시키던 곳으로 2001년 2월 22일 경상남도문화재자료 제291호로 지정되었다.

73) 하운원(河允源;1322~1376)은 본관이 진주(晉州), 자는 담지(湛之), 호는 고헌(苦軒)으로 고려후기 전교교감, 전리총랑, 대사헌 등을 역임한 관리이며 문신이었다.

74) 교동마을은 향교를 기반으로 3호의 부농주택을 포함한 민가들이 향교아래에 옹기종기 모여 있다.

병향(壬座丙向)의 명당 터에 입지하였다.

단성향교(丹城鄉校)의 배치특성을 살펴보면, 경사지형을 이용하여 강당(講堂)이 있는 강학구역이 전면에 배치되고 대성전(大成殿)이 있는 문묘구역이 후면에 배치되는 우리나라 향교배치 유형의 가장 일반적인 형식인 ‘전학후묘형(前學後廟形)’ 배치로 되어 있다. 이러한 배치형식은 지형적인 특성 대부분이 고저기복이 있는 경사지에 형성되어 위계질서를 고려하여 전당을 배치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문묘구역은 향교에서 가장 신성시 되는 구역으로 공자를 비롯한 성현을 모시고 유생들의 몸가짐과 사상을 전수받아 인격을 닦을 수 있도록 제사를 지내는 엄숙한 영역이기 때문에 성현을 모시는 대성전(大成殿)과 동무(東廡)와 서무(西廡), 기타 제향의식에 필요한 제기고(祭器庫), 전사청(典祀廳) 등을 배치한다. 여기에서 조선시대에는 관찰사가 상주하는 주(州)의 행정구역에서는 대설위(大設位), 부(府), 군(郡)은 중설위(中設位)로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어 제향의식에 필요한 부속시설을 문묘구역에 설치하지만, 현(縣)과 같은 소규모 행정단위에서는 소설위(小設位)를 취하고 대성전과 동무와 서무만을 배치하는데, 단성향교(丹城鄉校)도 현(縣)의 향교였기 때문에 대성전과 동무와 서무만을 배치시켰다. 강학구역은 공자의 사상 등을 교육하기 위한 강당과 유생들의 거처인 동재와 서재를 배치하는데, 강당인 명륜당과 동재, 서재의 위치에 따라 전당후재형(前堂後齋形), 전재후당형(前齋後堂形) 배치로 구분된다. 단성향교는 대성전과 명륜당이 서로 마주보게 하는 전당후재형(前堂後齋形)으로 강학구역과 문묘구역이 상호 대칭되게 배치하였는데, 이것은 문묘영역의 진입을 원활하게 하고 시각적으로 넓은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문묘제향의식에 더 역점을 둔 향교배치형식을 따르고 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서부터 국가로부터 토지·전적·노비 등을 지급받아 교관이 정원 30명의 교생을 교육시켜오다가 갑오개혁 이후 신학제 실시에 따라 교육적 기능은 없어지고 현재에는 성현만을 봉안하는 기능만 남게 되었다. 즉, 대성전(大成殿)에는 5성(五星)과 10철(十哲), 송조6현(宋朝六賢), 한국 18현(十八賢)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는데, 봄·가을에 석전(釋奠)을 봉행하며 초하루·보름에 분향을 하고 있다. 한편, 향교에 보관되어 온 ‘단성현호적대장(丹城縣戶籍大帳)’<sup>75)</sup>은 경상남도유형문화재 제139호로 지정되어 있다.

## 2. 연혁 · 유래 및 특징

### 1) 연혁 · 유래

단성향교(丹城鄉校)는 고려 인종 5년(1127)에 금잔방(金盞坊)인 지금의 강누리(江樓里) 구인동(九印洞)에서 창건되었다. 운창(雲攄) 이시분(李時黼; 1588~1663)<sup>76)</sup>이 쓴 『운창

75) 이 대장은 선조35년(1606)에서부터 고종 25년(1888)까지의 단성현 관내의 호구를 조사하여 면리(面里)별로 정리하여 작성한 대장으로 당초 단성향교에 보관 중이었으나 도난 등을 고려하여 현재는 경상대학교박물관에 있다.

76) 이시분(李時黼)은 조선 중기 유학자로 고려 이임간(李林幹)의 후손이다. 자는 여문(汝聞)이고, 호는 운창(雲攄)이다. 경상남도 단성현(丹城縣) 어은동(漁隱洞)에서 태어났다. 철종 1년(1850)에 경상남도 함안군 칠

지(雲廳誌)』 77)에서 보면, 현 위치인 교동으로 이건하기 전까지 금잔방(金盞坊)에 있었고 현청(縣廳)은 강루평(江樓坪)에 있었으나, 세종 때(15세기 초)에 단성현(丹城縣)에서 문가학(文可學)의 변란(變亂)이 일어나 현청(縣廳)은 내산 아래로 옮겨지고, 향교는 서쪽의 북편 산기슭으로 옮겨졌다는 기록이 있으나 위치가 확실치 않다.<sup>78)</sup> 그리고 이에 대하여 숙종 2년(1678) 현감으로 부임한 윤식(尹弼)이 쓴 『성묘중수기(聖廟重修記)』 79)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현지(縣誌) 가운데 단지 향교는 예전 구인(九印)마을에 있었는데 영락연간(永樂年間; 1403~1424)에 이곳으로 이 건했다. 선조(宣祖) 기해년(己亥年; 1599)에 왜란으로 인하여 현(縣)을 산음(山陰)<sup>80)</sup>과 합쳤다가 광해(光海) 계축년(癸丑年; 1613) 복읍하였다고만 기록되어 있고 그간에 연혁 월일과 수령들의 이름자는 모두 상세하지 못하니 개탄스럽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 15세기 세종 때에 현 위치로 이 건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기록에 의하면 대성전이 숙종 4년(1680)에 중수되었는데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금상(今上:肅宗) 무오년(戊午年; 1678)에 이 현으로 부임하자 현의 선비들이 성묘의 수리가 시급하다고 나에게 알려왔다. 몸소 나가 살펴보니 전우(殿宇)가 무너져 참으로 며칠을 지탱하기 어려운 지경이었다. 돌아보건대 고을의 물력(物力)이 빈약하고 공사가 거대한지라 전후 수령들이 감히 뜻을 내어 일을 시작하지 못한 것이었다. 관찰사를 통하여 조정에 알려 줄 것을 청했더니 2년 후 경신(庚申) 5월에 교지가 서울에서 내려왔다. 이에 위패를 재각(齋閣)으로 이봉하고 공사를 시작하여 3개월 만에 완공하였으니 그해 7월 9일에 위패를 신묘(新廟)로 환봉하였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 이 건 후 대성전의 중수사실과 재각(齋閣)으로 위패를 이봉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명륜당(明倫堂)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명륜당(明倫堂)의 창건에 대한 기록은 영조 원년(1725)에 쓰여진 『명륜당상량문(明倫堂上樑文)』 81)을 통해 알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시세가 어렵고 힘이 모자라 명륜당(明倫堂)을 건립하지 못함을 몇 번인가 탄식했다. 이에 학교가 있고, 이에 당을 갖췄으니 새로 지은 건물의 찬란함을 보겠다. 유림이 반가워함은 성묘를 처음 세웠기 때문이요, 행인들이 쳐다 보는 것은 강당을 아울러 수리했기 때문이다. 명륜당 편액은 삼강과 오류의 근본이고 현사(賢士)들의 소임은 동하(冬夏)로 시례(詩禮)를 강론함 일세 이

원에 건립된 청계서원에서 제향되고 있다.

77) 이시분(李時黼)이 인조 13년(1635)에 편찬한 경상도 단성현(丹城縣)의 사찬읍지(私撰邑誌)이다.

78) 중종 25년(1530)에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향교는 현의 북쪽 5리 지점에 있다’라고 하였다.

79) 『성묘중수기(聖廟重修記)』은 명륜당 대청에 편액으로 걸려 있으며, 현감 윤식(尹弼)이 숙종 4년(1680)에 쓰고 성조(成造)는 이여옥(李如玉)과 권전(權顛)이 하였다.

80) 현 산청군의 옛 지명

81) 『명륜당상량문(明倫堂上樑文)』은 명륜당 대청에 편액으로 걸려 있으며, 옹정(雍正)3년(三年)을사(乙巳)이월(二月)십구(十九)정해일(丁亥日)병오시(丙午時) 목사(牧使) 윤기경(尹基慶)로 쓰여 있어 상량문이 작성된 시기는 영조 원년(1725)에 목사 윤기경이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런 까닭으로 여러 고을 곳곳에 큰 건물이 우뚝하지 않음이 없다네. 돌아보건대 이곳 10실(室)의 작은 고을에는 유독 서까래 몇 개의 학교마저 없었다. 생도들은 공부할 장소가 없어 현송(絃誦)소리가 적막했고 사림의 의귀할 자리가 끊겨 풍교가 무너졌다. 명륜당 창건할 계획에 어찌 종전부터 뜻이 없었겠는가.....(중략), 사당은 있으나 명륜당이 없음을 탄식했다. 재상들을 초청하여 순수이 자문하여 상의 했고, 장인들을 불러서 부지런히 설계하고 경영했다. 하루라도 없을 수가 없으니 어찌 넉넉하고 모자람을 따지겠는가. 수 개월의 녹봉(祿俸)을 출연하여 서둘러 조치하고 시행했다....(중략) 삼문(三門)과 사표(四表)는 주(周)나라 학교처럼 옛 제도를 따랐고 복벽(複壁)과 중란(重欄)은 노나라 반궁(泮宮)처럼 좋으니 날아갈 듯 산뜻하다.” 그리고 영조4년(1728)에 쓰여진 『명륜당기(明倫堂記)』<sup>82)</sup>를 통해 창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오직 우리나라가 흥한 것은 실로 널리 문(文)을 숭상하여 중앙에는 성균관(成均館)이 있고, 지방에는 향교(鄕校)가 있기 때문이다. 향교에는 명륜당(明倫堂)이 있는데, 오직 단성만 유독 비어있었다. 중간에 흥하고 폐한 것은 지금 알 길이 없고, 재실(齋室)에 모여서 마음을 집중하여 공부할 수 없는 것이 오래되니 읍 사람들이 부끄럽게 여기고 나이 많은 유림(儒林)들이 항상 탄식해 마지않던 차 경종(景宗) 4년(1724) 갑진 봄에 불영(不佞)이 부임하니 마침 추계석채(秋季釋菜)를 올리는 정일(丁日)이라 향교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합의하여 청원하기를.....(중략), 모두가 바라는 학사(學舍)를 새로 지어 줄 것을 바라 마지 않습니다.” 하기에 내가 이를 시인하고 바로 만나서 대답하기를 “이는 참으로 뜻있는 일이나 겨를이 없어서 감히 선뜻 응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창고 안에 있는 재목들을 모아 신망 있는 선비를 선출하여 일을 맡겼더니 다음에 봄에 낙성(洛成)을 보아 고(告)하였다.”

이상과 같은 옛 기록들을 통해 명륜당(明倫堂)에 대한 창건내용을 알 수 있는데, 목사 윤기경(尹基慶)이 향교를 경종 4년(1724)에 방문했을 때, 유림(儒林)의 청원에 의하여 일이 시작되었으며, 그 지역 유지의 각출과 녹봉, 관에서 가지고 있던 재목 등을 모아 그 해에 착공하여 그 다음해인 영조 원년(1725) 음력 2월 19일에 상량되었고 그해 봄에 준공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명륜당(明倫堂)의 현 위치는 성균관이 언급된 것으로 보아 성균관과 같이 기존의 동재와 서재 앞에 명륜당(明倫堂)이 있는 전당후제형(前堂後際形) 배치로 하고, 복벽(複壁)과 중란(重欄)이라는 문구에서 현재와 같은 높은 석축이 있는 누형식의 건물로 창건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그리고 명륜당(明倫堂)은 창건된 이후 여러 차례 보수되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고종 2년(1865)에 쓰여진 『향교중수기(鄕校重修記)』<sup>83)</sup>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

82) 『명륜당기(明倫堂記)』은 명륜당 대청에 편액으로 걸려 있으며, 상지(上之)사년(四年)무신(戊申)계하(季夏) 기망(既望) 적산(商山) 송징현(宋徵賢) 근기(謹記)로 쓰여 있어 이 글이 작성된 시기는 영조 4년(1728)에 적산(商山) 송징현(宋徵賢)이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83) 『향교중수기(鄕校重修記)』는 명륜당 대청에 편액으로 걸려 있으며, 을축(乙丑) 청화절(淸和節) 함안(咸安) 이진보(李鎭輔)



다. “대문(大門)이 기울어지고 강사(講舍)와 재관(齋館)은 완전한 것이 없다...(중략) 갑자년 5월에 일을 시작하여 그 다음 해 4월에 일이 끝나 고유하였으니 시일은 1년이 걸렸고, 비용은 2만냥이 넘었다. 비가 새는 곳은 기와를 새로 덮고 재목이 썩은 것은 나무를 교체했으며, 기울어진 부분은 다시 바로 잡고 넘어간 곳은 다시 세웠으며, 퇴색한 단청은 선명하게 하였고, 무너진 계단은 바르게 수리하여 대소와 내외가 찬연히 일신되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명륜당을 포함한 향교 내 전각의 수리는 고종 1년(1864) 음력 5월에 착공하여 그 다음해인 고종 2년(1865) 음력 4월에 준공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909년에 쓰여진 『향교중수기(鄕校重修記)』<sup>84)</sup>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고궁의 문이 썩어 내려앉고, 여러 집들이 눈비가 스며들고 동재(東齋)와 누각이 전복되고 장판이 허물어졌으니...(중략). 금년 봄에 동지인 이양수(李亮洙), 권찬용(權燦容)과 더불어 함께 걱정하고 힘을 합하여 이를 보수할 방책을 세웠다. 4월에 특별히 직원(直員) 소임을 제수받아 문묘(文廟)를 지키고, 향교 내의 서무를 맡아보니 더욱더 황송함을 이길 수 없었다. 6월 초하루에 일을 시작하여 7월 보름에 공사를 마치니 이에 교궁이 찬연히 다시 빛나고 판적은 손질하지 않아도 절로 새로워졌다.”



1954년 항공사진



2018년 항공사진

단성향교 1954년과 2018년 항공사진 비교 출처:국토정보지리원

그 이후 1962년이 될 때까지 명륜당(明倫堂)에 대한 보수는 없었으며, 이 당시 모습은 1954년과 2018년에 촬영된 단성향교 항공사진을 비교 분석해 보면, 현재와 같이 관선문, 명륜당, 내삼문, 대성전으로 이어지는 축선과 전각은 현재와 동일하며, 동재 우측편의 향안실과 협문이 있는 곳이 지금과 많이 달라진 것을 알 수 있고, 강학구역은 명륜당 좌우

근기(謹記)로 시기는 고종 2년(1865)에 송오(松塢) 이진보(李鎭輔;1875~1945)가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84) 『향교중수기(鄕校重修記)』는 명륜당 대청에 편액으로 걸려 있으며, 고종자 탄강 2460년 기유(1909) 7월 15일에 행직원 이상찬(李尙燦)이 썼다.

측면의 경역이 약간 달라졌을 뿐, 관선문, 명륜당, 동재, 서재, 화장실은 그 위치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문묘구역은 대성전의 후면 경역부분이 약간 확장된 것 말고는 기존의 내삼문, 동무, 서무, 대성전은 그대로 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1974년 2월 16일에 명륜당(明倫堂) 1동과 면적 3,497㎡가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88호로 지정되었다. 한편, 명륜당(明倫堂)은 1962년과 1987년에 보수가 있었다. 우선 1962년에 쓰여진 『단성향교중수기(丹城鄉校重修記)』<sup>85)</sup>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문묘에 나아가 비가 새는 기와와 썩은 목재와 허물어진 벽을 모두 새롭게 고쳤다. 그리고 명륜당(明倫堂)과 서재 및 부속건물에 이르기까지 무너진 것을 세우고, 기울어진 것을 바로 잡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한편, 1989년에 쓰여진 『단성향교중수기(丹城鄉校重修記)』<sup>86)</sup>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명륜당(明倫堂)의 공사는 일이 거창하고 때마침 관비가 궁핍하여 거의 절망적이었으나 진경씨(震慶氏)가 이로서 포기하지 않고 상하로 다니면서 백방(百方)으로 탐지하여 마침내 완공하였다.”여기에서 명륜당(明倫堂)에 대한 대대적인 해체보수는 1987년에 있었는데, 이 당시 보수내용<sup>87)</sup>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사기간은 1987년 5월 15일에 시작하여 그해 7월 9일 준공되었다. 사업내용은 명륜당을 완전해체하여 부식목 교체(굴도리 7본, 중도리 6본, 장연 38본, 단연 62본, 부연 39본, 양측칸외부연목 44본, 내부연목 44본, 상층기둥 3본, 찰주 1본, 종보 2본, 주두 6개, 장귀틀 1개, 동귀틀 8개), 기와보충 90%, 외위고 재사벽치기, 창호보수(5개소), 목부 고색내기, 후면 자연석기단설치, 방충방연제도포 등을 시행하였다.

85) 『단성향교중수기(丹城鄉校重修記)』는 명륜당 대청에 편액으로 걸려 있으며, 임인(1962) 7월 권창현(權昌鉉)이 썼다.

86) 『단성향교중수기(丹城鄉校重修記)』는 명륜당 대청에 편액으로 걸려 있으며, 기사(1989) 정월 권태근(權泰根)이 썼다.

87) 문화재청, '87년도 문화재수리보고서, 1989, pp1050~1054.



명륜당 배면(보수전 모습)



명륜당 배면(보수후 모습)



명륜당 측면(보수전 모습)



명륜당 측면(보수후 모습)

1987년 단성향교 명륜당 보수 전후 모습 (출처: 문화재청 '87년도 문화재수리보고서)

이 당시 보수전후 모습을 살펴보면, 명륜당(明倫堂) 배면의 대청마루 전면에는 1962년 보수하면서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목재 미서기유리문이 1987년 보수하면서 완전히 철거하고 현재의 모습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으며, 기둥을 포함한 가구재는 일부 교체되었지만 기존의 것을 충실히 따른 것으로 보여 당초의 모습에서 크게 변형됨 없이 보수된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좌우 온돌방의 전면 창호는 좌우 문설주 등을 고려해 보면 머름이 있는 창문으로 구성되어야 하나, 두짝여닫이세살문으로 되어 있어 당초의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 이후 명륜당(明倫堂)은 큰 변화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 2) 건축특징

명륜당(明倫堂)은 향교에 있어서 유생들을 교육하는 공간이면서 일부 교수나, 훈도가 기거하는 공간으로 활용되는 시설이었다. 단성향교(丹城鄉校)의 명륜당(明倫堂) 또한 가운데 대청마루를 놓고 좌우에 온돌방을 설치하는 전형적인 공간구성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이 명륜당(明倫堂)의 공간구성은 문루형식을 빌어 누하부는 대문으로 하고 상부는 풍화루(風化樓)와 강당(講堂)의 기능이 한데 묶여진 복합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것

이 매우 특징적이다. 또한 경사지형에 배치되는 관계로 ‘전당후재(前堂後齋)’형으로 동·서재보다 전면에 배치되었으며, 외삼문보다 4.5m정도 높은 지대에 배치되어 있다. 건축 형식은 정면 5칸 측면 3칸, 익공계 공(工)자형 맞배지붕의 누각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경사지형에 건물을 놓기 위해 8단의 높은 기단 석축으로 쌓고 가운데만 누하부분으로 진출입이 가능한 문루형식으로 하고, 나머지 좌우측면에는 일반건물형식과 같이 기단위에 초석을 놓고 건물이 앉히는 독특한 방식으로 공간을 구성하였다. 특히, 정면의 누하 진입부는 가운데 어칸에서 좌·우협칸의 중간정도까지 확장한 폭으로 주칸으로 따져보면 2칸정도로 넓게 잡은 반면, 배면의 누하 진입부는 어칸의 1칸정도 폭으로 줄여 줌으로써 시각적 긴장감을 노렸다.

명륜당(明倫堂)의 평면적 특징을 살펴보면, 정면은 5칸, 측면은 전퇴를 포함하여 3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면의 규격을 실측해 본 결과, 도리방향은 좌측부터 우측으로 2,870mm, 2,430mm, 2,450mm, 2,430mm, 2,870mm의 치수분포를 보이고 있고, 좌우측면은 각각 1,860mm, 1,860mm, 1,860mm의 치수분포를 보인다. 조선중기의 용척(用尺)인 영조척(營造尺) 1척(尺) 당 306mm<sup>88)</sup>를 적용하여 환산해 보면, 대청마루가 있는 주칸은 대략적으로 8척(尺)을 기준으로 하고, 좌우온돌방은 주칸은 대청마루보다 1.5척(尺) 넓은 9.5척(尺)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좌우측면 주칸은 6척(尺)을 기준으로 간살을 잡은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서 좌우온돌방의 폭을 상대적으로 1.5척(尺) 넓게 잡은 것은 가운데 대청마루는 누(樓)형식의 강당으로 하고, 좌우온돌방은 누(樓)형식이 아닌 교수나 훈도가 거주하는 공간으로 동·서재와 유사한 기능을 설정한 관계로 횡축의 강당과 동·서재와 같은 방향인 종축의 온돌방이 결합된 공(工)자형 평면이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한 건물로 구성하되, 온돌방은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주칸의 간격을 약간 넓게 잡은 것을 알 수 있다.

명륜당(明倫堂)은 정면 5칸, 측면 2칸의 겹처마 맞배지붕으로 구성된 익공계 건축양식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기단은 바른층쌓기로 하여 높은 기단을 조성하였다. 초석은 평평한 자연석 그대로를 사용한 덩벙초석이 대부분이고 일부 주좌가 있는 가공초석이 혼재되어 사용되었다. 초석 위에는 민흘림이 있는 원주(圓柱)를 세워 창방 위에 주두를 놓고 공포(栱包)를 짜 넣어 지붕을 받쳤다. 여기에서 명륜당(明倫堂)의 공포 짜임새에 대한 특징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포는 초익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청마루가 있는 어칸에만 사용되었으며, 정면과 배면에 사용된 익공은 동일한 것이 사용되었다. 익공의 살미 쇠서는 양서와 수서가 동시에 조각되어 있는 형식인데, 상부의 수서는 약간 세장하고 끝을 뾰족하게 하여 수평으로 짧게 뽑아 아래로 내려오며, 하부의 양서는 연화를 포함하여 끝단을 직절시켜 짧

88) 명륜당(明倫堂)이 조선중기인 1725년에 중건되어 이 당시 용척(用尺)인 영조척을 적용하였으며, 이 용척은 단지, 평면의 간살 잡이를 얼마정도의 비율로 설정했는가를 보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하였다. 근본적인 용척의 해석은 아님.

게 위로 올리고 있다. 익공의 내단은 보아지와 같이 쌍s자로 초각되어 있으며 짧게 하여 대량을 받고 있다. 전체적인 조각의 수법이 조선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과도적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둘째, 주두는 굽의 단면형이 직선으로 사절되고 굽받침이 없다.

셋째, 대량(大樑)의 보머리를 수평으로 뺀어 주두 및 초익공 위에서 걸쳤으며, 봉두는 사용하지 않았다.

넷째, 주심도리는 주두와 대량 위에 직교되어 놓였다.

다섯째, 주칸의 창방 가운데 위에는 주심도리 받침장여 사이에 소로를 넣어 소로수장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명륜당(明倫堂)의 공포짜임과 함께 익공계 공(工)자형 맞배지붕으로서의 가구(架構) 짜임새 특징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청마루는 외진평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좌우온돌방은 외진평주와 내진평주로 구성되었는데, 모두 원주(圓柱)<sup>89)</sup>에 민흘림으로 치목되어 있다.

둘째, 대청마루를 구성하는 상부가구에 있어서는 주심도리, 중도리, 종도리로 5량가의 삼분변작으로 하였으며, 좌우 온돌방은 주심도리, 종도리에 의한 3량가로 처리하였다. 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팔작지붕에서 볼 수 있는 가구짜임으로 좌우측면의 외진평주에서 대량으로 수평에 가까운 충량을 걸고, 지붕이 교차하는 상부에는 박공이 구성되었다.

셋째, 대청마루 부분은 외진평주에서 곧바로 대량을 받았고, 대량위에 보아지 형식의 포동자주를 세워 종량과 중도리를 받았으며, 종량 위에는 판대공으로 종도리를 받았다. 좌우온돌방과 연결되는 부분은 높이가 맞지 않아 포동자주 대신에 높은 동자주로 대신하였다.

넷째, 그리고 동자주가 받고 있는 중도리 받침장여에 뜬장여를 한 번 더 걸구하여 구조적으로 보강하였으며, 주심도리 및 중도리는 각각 대량과 종량 위에 직접 놓았다.

다섯째, 좌우온돌방의 종축으로 길게 돌출된 박공부분에 있어, 정면은 도리받침장여뿔목에 가로재를 걸구하고 풍판을 설치한 반면, 배면은 풍판을 설치하는 것 대신에 이 건물의 좌우측면으로 길게 돌출된 도리받침장여뿔목 하부에 활주를 설치하고, 대청마루와 교차하는 도리받침장여뿔목 하부에는 까치발을 설치하여 보강하였다.

이상과 같이 명륜당(明倫堂)의 공포와 가구짜임을 종합해 보면, 우선 공포는 초익공으로 살미의 쇠서는 이익공형식에서 보이는 양서와 수서가 혼합되어 조각되어 있다. 상부는 수서형식으로 수평에 가깝게 약간 아래로 구부러져 내려오고 하부는 연화가 조각되어 있는 짧게 올라가는 형식으로 고졸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명륜당의 익공조각

89) 좌우 온돌방의 내진평주도 외진평주와 같은 굽은 원주가 사용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횡축의 대청마루와 종축의 온돌방이 별개의 기능을 담당하는 건물을 하나로 묶어 공(工)자형 모습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수단으로 굽은 원주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은 조선중기에서 조선후기로 넘어가는 과도적 초각수법을 보여 주고 있다. 이 건물의 가구짜임을 살펴보면, 우선 횡축의 문루형식의 5량 맞배집에 종축의 좌우에 3량의 맞배집을 붙여 놓은 형식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팔작지붕의 가구짜임과 유사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즉, 정면의 3칸인 대청마루는 주심도리, 중도리, 종도리가 있는 5량가 삼분변작으로 구성되어 있고, 좌·우퇴칸의 온돌방은 주심도리, 종도리가 있는 3량 구조로 횡축보다 약간 낮게 하여 횡축의 가구에 결구시켜 놓았는데, 팔작지붕의 가구짜임과 같이 좌우측면 외진평주에서 수평에 가까운 층량을 대량위에 결구하였고, 지붕이 직교하는 상부지점은 박공으로 처리하였다.

### 3.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88호‘산청 단성향교(山淸 丹城鄉校) 명륜당(明倫堂)’를 현지 조사하여 검토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가지정 보물 승격의 당위성이 있다. 첫째는 명륜당이 영조 4년(1725)에 현 위치에 창건된 이후 온전한 상태로 남아 있어, 조선시대 경사지에 건립된 전형적인 향교배치 형식 중의 하나인 강당(講堂)이 전면에 배치되고 대성전(大成殿)이 후면에 배치되는 전학후묘형(前學後廟形)의 전형을 잘 보여 주고 있다. 특히, 단성향교(丹城鄉校)는 대성전(大成殿)과 명륜당(明倫堂)이 서로 마주보게 하는 ‘전당후재형(前堂後齋形)’배치로 강학구역과 문묘구역이 상호 대칭되게 배치하였는데, 이것은 문묘영역의 진입을 원활하게 하고 시각적으로 넓은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문묘제향의식에 더 역점을 둔 향교배치형식을 따르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향교건축으로도 손색이 없다. 둘째는 명륜당(明倫堂)은 유생들이 담론하고, 시를 짓고 휴식하는‘누(樓)’의 기능이 포함된 횡축의‘강당(講堂)’, 교수나 훈도가 거주하는 종축의‘방(房)’, 유생들이 바른 몸가짐을 하고 긴장된 상태에서 강학구역으로 들어가기 위한 누하의‘문(門)’등이 3차원으로 통합되어 나타나는 공(工)자형 누각건물이라는 독특한 건축형식미를 보여주고 있어 건축문화재로서도 그 가치가 매우 높다.

그러므로 산청 단성향교(山淸 丹城鄉校)는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을 대표하는 옛 교육기관으로서의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이중에서도 명륜당(明倫堂)은 다른 향교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공(工)자형 누각건물이라는 점에서 건축문화재로서 그 우수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지정 문화재(보물)’로 승격 지정할 만한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 6. 밀양향교 대성전, 명륜당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 가. 제안사항

경남 밀양시 소재 「밀양향교 대성전, 명륜당」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남 밀양시 소재 「밀양향교 대성전, 명륜당」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경상남도지사
- (2) 대상문화재 :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14호 「밀양향교」
  - 소재지 :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향교3길 19 (교동 733)
  - 지정일 : 1983. 08. 12.
-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 명칭 : 밀양향교 대성전, 명륜당(密陽鄉校 大成殿, 明倫堂)
  - 소유자(관리자) : 경상남도향교재단(밀양향교)
  - 소재지 :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향교3길 19 (교동 733)
  - 조성연대 :
    - 대성전 : 조선시대(1602년 중건, 1617년·1820년 이건, 1803년 중수)
    - 명륜당 : 조선시대(1618년 중건, 1803년 중수)
  - 수량 : 2동
  - 지정면적 : 350.6㎡(보호구역 5,819.4㎡)

○ 양 식 :

- 대성전 : 정면3칸, 측면2칸, 외1출목 2익공, 5량가, 겹처마, 맞배지붕
- 명륜당 : 정면5칸, 측면2칸, 외1출목 2익공, 5량가, 겹처마, 맞배지붕

라. 현지조사의견(2020.09.10. / 전)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대학교 ○○○)

- 전)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대학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마. 지정조사보고서 : 불임참조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원안가결 10명, 부결 1명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0.09.10	대상문화재	밀양향교 대성전, 명륜당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전통건축
	소속	(전)○○대학교	직위(직책)	(전)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밀양향교 대성전, 명륜당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 년 10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1. 연혁, 유래 및 특징 :

### (1) 대성전

밀양향교는 고려중기에 창건되었다고 전해지나 임진왜란으로 인해 많은 문헌이 소실되어 창건시기, 관련내용 등 조선전기 밀양향교에 대한 기록은 매우 부족하다. 다만 밀양의 향토지인 『밀주구지(密州舊誌)』에 정수홍(鄭守弘)의 <밀양향교 중신기>에 향교가 임진왜란 때 병화로 실전(失傳)되었다<sup>90)</sup>는 기록이 보인다. <밀양향교 중신기>를 쓴 정수홍은 고려 공양왕 2년(1390년) 예부시(禮部試)에 합격하였고 조선조 태종과 세종조에 활동하였고 밀양부사를 역임하면서 밀양향교를 새롭게 중건하고 <밀양향교중신기>를 쓴 시기는 밀양이 도호부로 승격된 1415년 이후로 추정된다. 또한 1458년(세조 4)에 유효담(柳孝潭)이 밀양교수(教授)로 임명되었다는 조선왕조실록의 기사<sup>91)</sup>를 통해 밀양향교가 15세기 중엽에도 밀양향교가 경영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임진왜란 이후 밀양향교는 건물들이 소실되는 큰 피해를 입었으나 건물을 복구할 여력이 부족하여 1602년에 이르러 밀양부사 최기(崔沂, 1553~1616)가 용가역 인근 역촌(驛村)에 있던 밀양향교를 읍치(邑治)와 가까운 밀양시 교동으로 옮기고 지금의 터에 대성전을 중건하고 공부자(孔夫子)를 비롯 사성(四聖) 십철(十哲)을 봉안했다. 그 후 1614년(광해군 6)에 밀양부사 성진선(成晉善)이 동무와 서무를 중건하였고 1616년(광해군 8) 봄에 중건한 대성전의 가운데 들보가 부러지는 일이 발생하여 이를 계기로 밀양부사 이홍사(李弘嗣) 및 손기양(孫起陽, 1559~1617) 등의 향중 유림들은 대성전의 전면적인 재건을 조정에 건의했다. 당시 밀양부사 이홍사는 문묘 동남쪽의 낮은 터, 즉 현 명륜당 배면 동측에 1617년(광해군 10년) 가을에 대성전을 이건(移建)하고, 이듬해 대성전 전방 서쪽에 정면 5칸 규모의 명륜당을 중건(重建)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향교의 배치는 1820년(순조 20)에 밀양부사 이현시(李玄始)가 대성전을 현 위치로 이건(2차)하면서 형성되었다. 2차 이건 당시의 내용을 기록한 「교궁이건기(校宮移建記)」와 「향교중수등록(鄕校重修騰錄)」에 따르면 대성전의 터가 낮아서 좋지 않다는 향중의 의견에 따라 현재의 위치로 이건하게 되었다는 내용과 공사재원, 공사기간 및 건물 규모가 수록되어있다. 그러나 기록된 건물내용 중 장서각(藏書閣), 장기실(藏器室), 주방(廚房) 등은 남아 있지 않다.

#### 1) 배치

밀양향교는 서측이 높고 동측이 낮은 대지의 특성을 이용하여 높은 곳인 서측에 남

90) 밀양향교지간행위원회, 『밀양향교지』, p.238.2004

91) 조선왕조실록, 세조 4년(1458 무인) 7월 18일 2번째 기사, 司諫院啓: “柳孝潭嘗守永川, 以貪汚見罷, 今授密陽教授, 臣等以爲未可。” 傳曰: “當問罷黜之由以正之。”

향으로 대성전(大成殿)을 중심으로 구성된 제향영역(祭享領域)을, 전면 동측 낮은 곳에 남동향으로 명륜당(明倫堂)을 중심으로 구성된 강학영역(講學領域)을 배치한 우묘좌학(右廟左學)의 병렬식배치법(竝列式配置法)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향교로의 출입은 강학공간 전면에서 자리한 중층루각(重層樓閣) 풍화루(風化樓) 하부를 통하도록 하였고 대성전으로 진입은 진입 후 좌측편 높은 곳에 방형토장(方形土牆)을 둘러 공간을 분리하고 전면의 내삼문(內三門)을 통하여 제향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처리하였다. 그리고 향교를 관리하는 관리인이 거처하는 교직사(校直舍)가 자리 잡고 있다. 관리사는 명륜당(明倫堂) 좌측 전면 쪽으로 방형 담장으로 공간을 분리하고 외부에서 직접 출입도록 전면에서 사주문(四柱門)을 두었다.

경상남도 30여개 향교 가운데 밀양향교와 같이 병렬식배치법을 취하고 있는 향교는 거창향교를 비롯하여 4곳으로 직렬식배치법(直列式配置法)의 다른 향교와는 차별성을 보이며, 특히 대성전과 명륜당이 좌향(坐向)을 달리하는 경우는 밀양향교가 유일하다.

## 2) 건축적 특성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익공양식 겹처마 박공지붕건축물이다.

대성전을 경사진 대지 위에 건립하기 위하여 먼저 대성전이 자리할 위치에 석축을 쌓고 기단을 조성하여 전면에서 볼 때는 기단이 상당히 높다. 전면기단은 하부에 지대석(地臺石)을 두고 상부에 5단으로 장대석(長大石)을 쌓아 기단을 조성하였다. 장대석은 크기가 일정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그랭이질하여 조적(造積)한 모습도 보인다. 그리고 대성전을 오르는 계단은 양협간 전면에서 7단으로 설치되어 있다. 디딤돌은 대부분 통석(通石)을 사용하였으며 모서리가 쇠시리된 석재들도 다수 있어 폐석재(廢石材)를 재활용한 듯하다. 그리고 배면과 양측면은 자연석 허튼층쌓기로 처리하였다. 전면기단은 장대석기단 위에 상부 장대석 뒤쪽으로 물려 전돌 1매를 도리방향으로 배열하고 양측면은 우주(隅柱) 초석(楚石)에 기대어 보방향으로 2열, 어간(御間) 중간으로도 2열로 전돌을 깔고 바닥다짐을 하여 2단으로 기단(基壇)이 조성된 듯하다.

기단을 조성한 후 상부에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평면을 앉혔다. 전면의 초석은 운두와 고매이가 있는 방형초석(方形楚石)을 사용하였고 그 외 초석은 상면이 평평한 자연석을 설치하였다. 전면에 주좌(柱座)와 고매이가 치석된 초석은 주변 폐사지에서 수습하여 사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평면의 도리방향 간살은 어간(御間)을 협간(夾間)보다 1자 정도 더 넓게 잡았다. 기둥 10본은 모두 원형이며 치목수법은 약한 배흘림을 주거나 민흘림으로 처리하여 치목시기(治木時期)가 상이함을 보여준다. 대성전 내부는 근래에 시설된 것으로 보이는 장마루를 깔았으나 원형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원래의 바닥재료는 알 수 없었다. 그리

고 정면에 매간 둔대가 설치된 쌍여단이 통널판문을 설치하였다.

정면을 제외한 양측면과 배면에는 주선(柱楨)과 상, 중, 하방(下枋)을 설치하고 중것을 세워 비틀림에 대한 구조적 보강을 하였다. 특히 측면 매간마다 상방과 대량 사이에 1구씩, 하부에 1구씩 상, 하 2구씩 환기구멍을 둔 것도 상례는 아닌 성 싶다.

상부가구는 외1출목 5량구조이다. 대량(大樑)은 전, 후 기둥위에 통재(通材)로 걸치고 상부에 3분변작(三分變作)하여 중대공(中臺工)을 설치한 후 종량(宗樑)을 얹고 종대공(宗臺工)을 세워 종도리를 받도록 가구를 꾸몄다. 중대공은 접시받침을 두어 종량을 받도록 하면서 도리방향으로 종도리 받침장여 아래 소로받침하여 뜯장여를 걸쳤다. 이는 간살이 넓은 관계에 기인된 것으로 추측되며 보방향으로는 당초문(唐草紋)을 선각(線刻)한 판재(板材)를 겹쳐 세웠다. 그리고 상부의 종대공은 파련각(波蓮刻)한 판재를 삼단(三段)으로 겹쳐 파련대공(波蓮臺工)을 세우고 종도리와 같이 뜯장여를 두었다. 그러나 양측면 상부의 중, 종대공은 초각(草刻)하거나 새김질이 생략된 판재를 겹쳐 세워 여간의 장식성을 높였으며 대공이 높아 내부 공간이 훤히 훑힌다.

대량(大樑)은 처마도리 하부를 지나 양두(樑頭)를 운공형(雲工形)으로 처리하여 외목도리를 받게 하였고 대량 위에 승두를 얹고 처마도리를 받게 하였다. 그러나 양측면 상부 대량은 여간 양쪽 대량보다 한 단 낮게 걸쳐 외목도리를 받도록 하고 주심침차외단(外斷)으로 처마도리를 지지토록 하였다. 그리고 우주에 짜인 초익공 뒷뿌리가 측면 대량하부 받침장여를 지지하고 그 하부에 상인방을 두어 우주(隅柱)의 비틀림을 억제하는 구법(構法)을 택했다.

공포의 구성은 전, 후 동일하게 외일출목 이익공양식이나 살미의 형태에서 차별을 두었다. 전면공포는 보머리를 봉두초각(鳳頭刻)하여 외목도리를 받도록 하였고 초익공살미는 단부(斷部)가 사절(斜切)된 양서형(仰舌形)으로 하여 상부에 연화(蓮花)를, 하부에 연봉(蓮峯)을 초새김하였고 이익공은 날카롭게 뺀 수서형(垂舌形)이며 하부에 연봉을 초각하였다. 그리고 출목침차(出目檐遮)는 하부에 당초문(唐草紋)을 초각하고 단부는 사절하여 상부에 소로를 얹은 반면 주심침차(柱心檐遮)는 하부에 초각을 하지 않고 단부를 궁글린 교두형(翹頭形)으로 처리하여 장식성이 강조된 후기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배면 공포도 이익공양식이나 전면과 달리 살미는 단부가 날카로우면서 길게 뺀 수서형이며 상부의 운공 역시 둥글게 궁글린 당초형초각으로 출목도리(出目道里)를 받고 있는 공포모습이 초기 익공형태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익공살미의 내단(內斷)도 배면쪽 보아지가 전면보다 길며 초각의 형태도 전, 후가 상이하다. 따라서 대성전의 전, 후 익공의 형식차이를 두고 추론해 볼 때 전, 후면 공포가 동시에 치목된 것이 아니라 정면 공포는 이견시 신재(新材)로 치목하였고 배면 공포는 구재(舊材)를 활용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전, 배면 창방 위 주간(柱間)마다 1구씩 화반(花盤)을 두었는데 이 또한 정, 배면 모

양새가 상이하다. 정면은 화병(花瓶)에 연봉을 꽂은 모양의 투각형화반(透刻形花盤)이나 배면은 장식하지 않은 장방형화반(長方形花盤)으로 대신하였다.

전체적으로 대성전은 정면과 어간의 의장성을 높인 건축물이며 이건시 기둥, 공포, 창호 등 구재와 신재가 혼용된 목가구법을 보여주고 있다.

## (2) 명륜당

명륜당 역시 대성전과 동일하게 임진왜란때 소실되어 현 위치에 1602년 대성전(大成殿)에 중건되고 1617년 대성전이 이 건된 후 이듬해인 1618년(광해군 10)에 대성전 전방 서쪽에 정면 5칸 규모의 명륜당(明倫堂)을 중건(重建)했다. 당시 향교의 건물 명칭과 규모, 위치는 『밀주구지(密州舊誌)』에 기록되어 있다<sup>92)</sup>. 그 후 1803년(순조 2) 밀양부사 박종우(朴宗羽)에 의해 훼손이 심한 명륜당을 중수하였으며 공사내용이 「명륜당중수기(明倫堂重修記, 1803. 9월)」에 기록되어있다. 1820년 현재의 위치로 대성전과 동서무(), 내삼문() 등을 이 건()하면서 명륜당과 동, 서재(東, 西齋)의 번와공사도 시행되었다. 그리고 1904년 8월 밀양군수 조종서(趙鍾緒)가 명륜당을 해체하여 수리한 바 있고, 1906년(광무 10)에 설립된 진성학교(進成學校)가 한때 명륜당을 교실로 사용하였고, 일제강점기인 1920년부터 1925년까지는 밀양 집성학교가 명륜당을 교실로 이용하였다. 1958년에 명륜당 지붕을 번와하였고, 1971년에는 대성전과 함께 단청했다. 1997년에는 명륜당을 부분적으로 수리한바 있고, 2004년 명륜당 단청공사, 2019년 가을부터 2020년 8월까지 명륜당 기둥 드잡이 및 부식재 교체, 지붕 번와 수리가 있었다.

### 1) 배치

밀양향교는 동서로 긴 대지의 특징을 살려 대성전과 명륜당을 우묘좌학(右廟左學)형식으로 배치한 향교로, 조선시대 병렬식 향교 배치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즉 우묘좌학(右廟左學)의 배치원리에 따라 서측 구릉지에 문묘(右, 서측), 그 맞은편(동측) 낮은 곳에 명륜당 중심의 강학영역(左, 동측)을 두었다.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은 지형적인 특성을 살려 지대가 높은 서편에 위계가 높은 대성전과 동서무, 내삼문으로 구성된 문묘를 배치하고, 동편 낮은 곳에 명륜당과 동재·서재 및 풍화루(風化樓)로 구성된 강학영역(講學領域)을 배치했다. 그리고 강학영역의 동편에는 향교의 부속 건물로 관리인이 거처하는 교직사(校直舍)가 자리 잡고 있다.

강학영역은 남향하는 명륜당 전면 좌우에 동, 서재를 짓고, 그 남측에 정면 3칸 규모의 풍화루를 배치한 형태이다. 밀양향교에서 볼 수 있는 병렬식(竝列式) 배치는 전학후

92) 5칸명륜당을 중심으로 그 좌우에 동재와 서재 각 5칸을 두었다.

묘식(前學後廟式) 향교에 비해 사례가 매우 적으며, 그중에서도 밀양향교는 우묘좌학식 배치의 전형을 잘 보여준다.

## 2) 건축적 특성

밀양향교 명륜당은 정면 5칸, 측면 2칸의 규모의 겹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경사진 대지 위에 자리한 관계로 전면에 자연석 허튼층쌓기한 기단(基壇)을 높게 구축하고 상부를 평평하게 대지를 조성한 후 양측면과 배면은 1자정도 높이의 기단을 조성하고 건물을 앉혔다. 그리고 당에 오르는 계단은 어간(御間) 중앙에 장대석(長大石)을 9단으로 쌓아 설치하였다.

평면의 간살은 대청 3칸은 13자 정도로 간살이 상당히 넓은 편이며 좌, 우온돌방은 마루간살보다 1.6자 정도 작게 잡았다. 그리고 측면간살은 10.5자 정도로 도리방향 간살보다는 다소 작게 잡았다.

외진주(外陣柱) 14본 모두를 원형기둥으로, 내진주 4본은 네모기둥으로 치목하였고 우주(隅柱)의 직경을 평주(平柱)보다 다소 크게 잡았다.

평면구성은 어간과 양협간(兩夾間)에 걸쳐 넓은 대청을 두면서 교관(敎官, 교수)의 거쳐 공간으로 사용된 온돌방을 양퇴간에 배치한 중당협실형(中堂夾室形)으로 꾸몄다. 그리고 온돌방 전면에 4자 정도 폭의 전퇴간(前退間)을 두고 기단에 댕돌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직접 온돌방으로 들 수 있도록 하였다. 양측 온돌방은 전면쪽으로 하부에 머름을 두고 쌍여닫이 세살문을 달았다. 그리고 대청쪽으로는 내진주(內陣柱)를 중심으로 하부에 머름을 두지 않고 후편에는 가운데 불발기가 설치된 3짝들문을 달고 앞쪽은 동일모양의 쌍여닫이문을 설치하여 필요에 따라 온돌방과 대청을 서로 통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좌측 온돌방 측면 외부쪽 후편에 외짝 들창을 설치하였으나 우측 온돌방에는 창틀은 남아있으나 창은 설치하지 않고 심벽으로 막았다.

중앙의 6칸 규모의 넓은 대청은 전면은 개방되고 배면쪽은 판벽과 쌍여닫이 둔테를 둔 판문을 매간 설치하였다. 일반적으로 문 하부에 설치되는 머름동자와 머름청판으로 구성된 머름은 설치하지 않고 통머름방식으로 문지방부채크기를 키워 머름을 대신하였다. 문지방 상부 중앙에 과거 중간설주를 설치한 홈이 남아있어 과거 고식(古式)의 창호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고재(古材)를 재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상부가구는 전, 후 기둥 위에 통재(通材)로 대량(大樑)을 얹고 상부는 3분변작(三分變作)으로 중도리위치를 결정하고 마룻대공을 얹었다. 그러나 방과 대청이 접하는 부분 상부 대량은 하부에 받침방재(枋材)를 내진주에 전, 후로 걸쳤고 내진주는 대량을 하부에 받추도록 결구하였다. 따라서 살미 뒷뿌리를 보아지형태로 치목하여 대량을 보강토록 처리한 대청부분과는 달리 방부분 살미뒷뿌리는 대량받침방재를 지지하면서 초각()

은 생략하였다. 그리고 종량 받침 중대공(中臺工)은 도리방향으로 대공침차를 끼우고 보방향으로 선각(線刻)한 판재로 중대공을 세웠다. 중대공의 높이를 다소 높게 잡아 대청에서 상부의 깊이감을 높이고 있다. 초각의 형태는 익공의 초각과 동일하게 당초문(唐草紋)으로 새김질하였고 종량(宗樑) 상부에 파련대공(波蓮臺工)을 세워 종도리를 지지토록하였으나 주간이 넓은 관계로 비틀림에 대한 보강으로 뜯창방을 첨가하였다. 그러나 온돌방부분 중대공과 종대공은 선각하지 않은 제형종대공(梯形宗臺工)과 중대공을 세우고 당초문을 시채하였다. 방부분의 대공들은 초각하지 않고 제형으로 처리한 것은 대청부분의 장식성을 돋보이게 하면서 불필요한 장식은 배제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양측면 구조는 대량하부에 기둥을 세우고 주두를 얹어 대량을 받추도록하고 하부에 창방(昌榜)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대량과 창방사이 방형각재(方形角材)를 끼워 보강하였다. 또한 건물의 규모가 다소 큰 관계로 전면을 제외한 3면에는 창방하부에 받침장여와 벽선을 온연귀수법으로 결구시켜 설치하여 구조보강을 하였다.

공포는 1출목 이익공이며 익공쇠서는 전면으로 곧게 뻗어나온 수서형(垂舌形)으로 초기익공형식과 유사한 모습을 지니고 있으며 보머리는 운공형(雲工形)으로 둥글게 굴러왔다. 그리고 살미내단(山彌內端)은 대량을 받추는 보아지형식으로 선각하였다.

전, 후면 익공살미의 형태는 동일하나 침차의 형태는 전면인 경우 침차하면(檐遮下面)을 초각한 반면 배면은 단부(端部)만 사절(斜切)한 교두형(翹頭形)으로 처리하여 정면의장성을 강조한 듯하다. 그리고 보의 처짐을 감안하여 설치된 주간(柱間)사이 창방 위에 화반(花盤)을 1구씩 설치하였다. 정면은 당초문(唐草紋)과 연봉(蓮峰)을 선각(線刻)한 파련형화반(波蓮形花盤)을 설치한 반면 배면은 대성전과 동일하게 선각이나 조식(彫飾)을 하지 않은 장방형 판재를 세운 후 당초문양으로 대신하였다.

밀양향교 명륜당의 반자구성은 다소 독특하다. 일반적으로 익공양식건물 대청 상부는 연등천장으로 구성되고 지붕이 팔작(八作)인 경우 때로는 외기부분에 우물반자가 설치되는 것이 통례이나 우협간 온돌방쪽 상부에 중도리 사이 용도와 설치사유를 알 수 없는 우물반자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온돌방의 반자는 난방시 온기를 보존하기 위하여 고미반자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 통례이나 여기서는 우물반자를 설치하고 육관연화문양(六瓣蓮花紋樣)의 단청까지 시채(施彩)하였다. 또한 온돌방 전면 뒷간마루 상부에도 우물반자를 설치하여 온돌방의 위격(位格)을 표현한 듯하다.

## 2. 조사자 의견 :

### (1) 대성전

전술한 바와 같이 밀양향교는 창건 후 현재에 이르는 동안 여러 차례의 변화과정을

겪으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특히 향교의 배치법은 경남의 향교 가운데 대성전과 명륜당이 좌향을 달리한 병렬식배치법을 지니고 있다. 그 가운데 대성전은 임란때 소실된 후 1602년에 중건되고 1617년, 1820년 2차에 걸친 이건을 하였으나 건립년대가 다소 오래된 건축물에서 접할 수 있는 승두를 이용한 건축가구법과 기둥, 익공, 창호 등에서 구재를 재사용하여 고식의 기법들이 보존되어 있어 보물로 승격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 (2) 명륜당

밀양향교 명륜당은 1618년에 중건된 건물로, 최근까지 여러 차례의 수리가 있었고 중수에 관한 기록들도 잘 보존되어있다.

규모가 큰 명륜당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중당협실형 평면을 잘 보존하고 있고 특히 익공형태가 17세기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며 규모에 따른 구조적 보강법도 경남지역 명륜당건물에서 흔하지 않는 사례이다. 또한 대청 배면 고식창호의 흔적과 창방의 모접기 기법 등 고식의 치목기법이 남아있고 다양한 반자형식 등에서 건축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0.09.10	대상문화재	밀양향교 대성전, 명륜당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전통건축
	소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 지정문화재 보물		
	문화재 명칭	밀양향교 대성전, 명륜당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1.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밀양시의 진산인 화악산(931.5m) 동쪽 줄기가 남으로 뻗어 내려 시가지와 맞닿은 경사지 끝자락에 향교가 위치해 있다. 밀양 손씨 집성촌인 교동 마을 배후의 북측이며 밀양 교동3길 19번지에 해당하는 장소이다. 밀양 아리랑 공원과 시청을 잇는 밀양대로에서 교동마을 안으로 접어들어 북측으로 끝까지 올라오면 명륜당이 있는 강학영역으로 출입할 수 있는 위풍당당한 풍화루와 마주 대하게 된다.

향교는 산록의 끝단에 위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사지를 따라 위에서 아래로 대성전과 명륜당을 차례대로 배치하는 일반적인 배치법을 따르지 않고 좌우로 길게 터를 닦고 두 영역을 병렬식으로 배치하였다. 서쪽이 약간 높고 동쪽이 비교적 낮은 지형적인 특성을 살려 지대가 높은 좌측에 위계가 높은 대성전과 동서무, 내삼문으로 구성된 문묘영역을 두고, 우측 낮은 지대에 명륜당과 동재·서재 및 풍화루로 구성된 강학영역을 위치시키다 보니 병렬식 좌묘우학의 배치가 되었다. 그리고 강학영역의 동편에는 향교의 부속 건물로 관리인이 거처하는 교직사(校直舍)를 위치시켰다.

문묘와 강학영역은 모두 가운데 마당을 중심으로 한 ㄷ자형 배치로 가운데 대성전과 명륜당을 남향 배치하고, 그 앞의 좌우에 각각 동·서무와 동재·서를 대향하게 앉힌 다음 남쪽에 출입문인 삼문을 세워 반듯하게 일곽을 구획하였다. 다만 강학영역의 출입문은 외삼문 형식으로 하지 않고 중층의 루문을 세우고 누하로 진입하는 형식으로 하였다.

그런데 밀양향교 배치에서 눈에 띄는 것은 문묘와 강학 등 중심 두 영역을 나란하게 병렬로 배치하였지만 주축을 서로 맞추지 않고 좌향을 서로 다르게 설정하였다는 점이다. 강학영역은 동남향으로 앉혔는데 반해 문묘 영역은 이 방향을 따르지 않고 이보다 훨씬 남쪽으로 방향을 돌려 정남향을 지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두 영역의 좌향을 같게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문묘 이건시 터가 좁아서 명륜당과 주축을 맞출 수가 없었던 지형적 조건 때문이 아니었나 추정된다. 현재의 동무(東廡)가 위치한 자리의 지대가 낮아 명륜당 쪽으로 석축을 내어 쌓고 지반을 확장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고, 또한 대성전 일곽이 명륜당과 서재 사이의 빈터를 이용하면서 강학영역 안으로 바싹 들어와 배치된 모습이 좁은 터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한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유교적 이념에 근거하여 배치의 전형성을 추구해 왔던 그 동안의 관습적인 배치와는 달리 지형적 조건에 따라 주축과 좌향을 조정한 밀양향교의 사례는 형식과 준칙에 얽매이지 않는 조선 후기의 융통성과 활용적 건축 사고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 **2. 연혁·유래 및 특징**

○ 밀양향교의 연혁 및 유래 : 밀양향교 창건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찾을 수 없다. 다

만 고려시대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3경(京) 12목(牧)을 비롯한 각 군현에 박사와 교수를 파견하고 지방에 유학을 교육하기 위해 향교를 설립하였다는 사실과 고려 인종 5년(1127) 3월에 ‘제주(諸州)에 학교를 세우도록 조서를 내렸다.’는 기록을 토대로 이 시기에 즈음하여 밀양향교도 세워진 것이 아닌가 추정할 따름이다. 밀양향교에 대한 최초 기록을 찾아 볼 수 있는 사료는 고려중기 문인 임춘(林椿)의 문집 『서하집(西河集)』 93)에 실린 시이다. 이 시는 임춘이 밀양향교를 방문하여 사당을 참배하고 그 감회를 적은 것인데 여기에 나오는 ‘궁장(宮牆)과 성진(聖眞)’은 사당과 성인의 화상’을 가리키는 말로 이 구절을 통해 임춘이 활동한 시기인 12세기 중엽에 밀양 향교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당까지 갖춘 상당히 체계적인 향교의 구성을 하고 있음을 더불어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고려 후기 학자인 권근(權近)이 쓴 『양촌집(陽村集)』 남행록(南行錄)에는 밀양향교 풍화루에 관한 기록이 전해오는 바 당시 누각을 갖춘 꽤 큰 규모의 향교였음도 더불어 알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등장하는 이 향교가 애초부터 현 위치에 세워졌던 것은 아닌 듯하다.

밀양향교의 위치에 대한 가장 이른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학교조(學校條)’에 보이는데, ‘향교는 부에서 북쪽으로 6리 지점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밀주지』에서는 ‘용지리(龍池里)에 향교의 옛터가 있다’고 하였다. 용지리는 역마을인 용가역(龍駕驛)과 지동(池洞)이 합쳐진 마을이며, 부의 중심에서 북쪽으로 6리쯤 되는 곳은 지동과 용지리의 중간쯤이 되므로 이 두 기록을 종합해 볼 때 구(舊) 밀양향교는 대략 현 향교에서 북서방향 1 ~ 2km 근처인 용포마을과 지동마을 사이에 위치해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불행하게도 용가역(龍駕驛) 인근 구 밀양 향교는 임진왜란의 병화를 입어 소실되어 버렸다. 향교의 중건은 곧 유림에서 도모되었지만 수년 동안의 전쟁으로 인해 재정이 열악하여 전체적인 복구에 앞서 대성전만 우선 중건하게 된다. 선조 35년(1602)에 부사 최기(崔沂)의 주도로 향중 유림들과 함께 향교 대성전을 중건하게 되는데 이 때 위치를 원래의 용가역 인근에서 읍치(邑治)에 다소 가까운 현 위치인 교동으로 옮겼다 한다. 당시 대성전에는 공자(孔子)를 비롯하여 사성(四聖) 십철(十哲)을 봉안했고 이어 12년 후인 1614년(광해군 6)에는 부사 성진선(成晉善)이 동무와 서무를 중건하면서 문묘 영역을 완성하고 송조 4현(宋朝四賢)과 우리나라 9현(九賢)의 위패를 모셨다 한다. 그러나 광해군 8년(1616)에는 대성전의 중앙 들보가 부러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

93) 鄉校諸生見招會飲作詩謝之 향교학생들의 초대를 받아 여럿이 술을 마신 후 시를 지어 사례하다

昨入宮墻拜聖眞 어제 사당에 들어 성현의 진상에 절하니  
衣冠高會杏賣春 의관 갖춘 고상한 모임은 향교의 봄이더라  
祇因曾點初成服 다만 증점이 봄옷 만들어 입음에 기인함이니  
..升堂多吉士 좋은 풍채로 당을 오르내리는 많은 선비들  
陶陶滿座盡嘉賓 화려한 좌석에는 훌륭한 손님들이 다 모였고  
老儒久歎斯文喪 늙은 선비가 유학의 상실을 개탄한지 오래인데  
始喜名都禮義新 비로소 이름난 고을에 예절 새로움을 기뻐하네

일을 계기로 부사 이홍사(李弘嗣)와 손기양(孫起陽 1559 ~ 1617) 등 향중 선비들은 조정에 대성전의 전면적인 재건을 건의하였다. 건물의 들보가 갑자기 내려앉은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여론과 함께 지금의 자리가 길지가 아니라는 감여가(堪輿家)들의 의견에 따라 부사 이홍사는 마침내 원래의 위치에서 동남쪽으로 다소 지대가 낮은 곳(현 명륜당의 동측 배후면)을 선택하여 문묘의 건물을 이진하기로 하고 이를 감영(監營)에 청원하였다. 그 결과 이듬해인 광해군 9년(1617) 가을에 대성전을 이진 복원이 완료되게 되었다. 또한 곧 이어 1년 후인 광해군 10년(1618)에는 문묘의 서쪽에 강당인 5간의 명륜당을 건립하면서 비로소 문묘와 강학공간을 제대로 갖춘 향교가 완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밀주구지(密州舊誌)에는 당시 향교의 건물과 규모 등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보면 대성전과 동·서무 그리고 신문으로 구성된 문묘 영역과 명륜당 및 동·서재가 있는 강학영역의 두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어 완결된 향교의 모습을 갖추었음을 알 수 있고 문묘에는 제기고(祭器庫)와 제복고(祭服庫), 신주(神廚) 등의 건물이 함께 건립되어 있음을 더불어 알 수 있다. 특히 독루(讀樓)와 소루(小樓) 등의 누각 건물과 현관이 머무는 별도의 재실(齋室)과 교아(敎衙) 그리고 정자 건물인 자미정(紫薇亭) 등은 왜란의 병화로 사라졌으나 함께 짓지 못했다는 기록이 있어 이전 구 향교의 위용과 당당한 면모를 짐작하게 해 준다.

향교 완성 직후 한동안의 중수나 증건 기록은 찾아지지 않는다. 이후의 기록은 중수기 등 현판에 집중적으로 남아있는 조선 후기의 중·보수 기록이다.

순조 2년(1802) 2월에 밀양부사로 부임한 박종우가 쓴 「명륜당중수기(明倫堂重修記)」에는 재장(齋長)인 손치동(孫致東)에게 책임을 맡겨 8월 임오일(壬午日)에 일을 시작하여 9월 신해일(辛亥日)에 공사를 마쳤다는 기록이 있다. 한 달 만에 공역을 마치는 비교적 간단한 보수로 보인다.

곧 이어 순조 20년(1820) 5월 밀양부사 이현시가 지은 교궁이건기(校宮移建記)」에는 대성전을 현 위치로 재차 옮기기로 한 내용이 있다.<sup>94)</sup> 이진하고자 한 이유는 대성전의 자리가 낮고 둘러싸인 곳에 있어 좋지 못하다는 고을 선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당초의 위치로 옮기기로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는 감여가(堪輿家)들이 복지(卜地)의 잘못으로 고을의 인재가 나지 않는다고 한 것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음을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이건기(移建記)에는 재원과 공사기간, 건물의 규모에 대해서도 밝

94) ....중략...移設校宮而易其制廟東而堂西又違爽塲而就汚下自是密州之士魯聲不復振鄉人病之思有以復其舊而未能焉今歲稔民樂政成官閒而工役可興狀以請...중략...崇禎三庚辰五月丙子府使李玄始謹記 都有司 李錫龍. (...중략...중년에 교궁(校宮)을 옮겨지어서 그 체제를 바꾸었는데, 문묘(文廟)는 동쪽으로 하고 명륜당(明倫堂)은 서쪽으로 하였으며, 또 높직하고 확 트인 곳을 피해 더럽고 낮은 곳으로 옮기니, 이로부터 밀주의 선비들이 쇠퇴하여 다시는 명성이 떨치지 않게 되었다. 고을 사람들은 그것을 한스럽게 여겨 그 옛 모습을 복원하려고 생각을 했으나 이루지 못하였다. 금년에는 풍년이 들어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행정도 잘 이루어져서 관청에서도 거름이 생겼으니, 공사를 일으킬 만하다”하고 청원을 하였다....중략...승정후(崇禎後) 세 번째 경진(庚辰, 純祖 20년(1820)) 5월 병자(丙子) 부사(府使) 이현시(李玄始)는 삼가 쓰다)

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중략...이에 밀양의 선비들이 그 돈 27만을 거두어 들임으로써 돕고, 밀양의 주민들이 그 인력(人力) 8,200명으로 부역(賦役)을 했으며, 정월(正月) 을축일(乙丑日)에 그 일을 시작하여 여름인 5월 신미일(辛未日)에 이르러 준공(竣工)을 고하였다. 문묘가 3간이고 동·서무(東·西無)가 6간인데, 모두 그 방향을 바꾸어 높고 맑으며 상쾌하고 밝은 기운을 쫓았다. 책을 보관하는 집(藏書閣)과 집기를 보관하는 방(藏器室)은 문의 오른쪽(東)에, 주방은 문의 왼쪽(西)에 설치하니, 옛 것을 바꾸어 거듭 새롭게 한 것이 또한 36개의 기둥이라, 명륜당과 동·서재는 모두 그대로 두고 지붕을 이었다...중략..<sup>95)</sup>

이 기록을 보면 대성전 이건 공역은 5개월동안 이루어진 것으로 음력 1월에 시작하여 5월에 마쳤으며 밀양 유림과 주민 등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기록속의 대성전과 동·서무 형식이 지금의 향교 모습과 일치함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장서각(藏書之閣)과 제기실(藏器之室) 그리고 부역(庖) 등을 출입문(내삼문) 좌우에 두어 옛 것을 바꾸어 새롭게 하였다는 것을 보면 밀주구지에 기록된 대로 현 위치에 있던 최초의 향교에 갖추어졌던 제기고(祭器庫)와 제복고(祭服庫), 신주(神廚) 등을 이 당시에 복원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세 부속 건물은 현 내삼문 좌우로 연결된 긴 행각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현재의 향교 배치는 1820년에 부사 이현시가 명륜당 동쪽의 낮은 곳에 있던 대성전과 동서무 등(문묘 일곽)을 지금의 위치로 이건하면서 완성되었다. 이건할 당시 기존의 대성전을 허물고 가용 부재들은 다수 재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대성전의 주요 구조재나 의장재 그리고 공포재 등에서 시대적 차이가 보이는 것이 이러한 연유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 후 고종 18년(1881)에 부사로 있던 오장묵(吳章默)이 기울어가는 풍화루(風化樓)를 중수하였는데 향중에서 흉년을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으나 급한 대로 자기의 봉급(俸給)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10월에 시작하여 이듬해 3월에 복원을 마쳤다 한다. 이 때 대성전과 동·서무의 벽이 갈라지고 비가 새는 곳도 수리하였다고 한다. 1904년 8월에는 밀양군수 조종서(趙鍾緒)가 명륜당을 해체하여 수리하였는데 큰 부재의 교체 없이 연목정도의 교체와 단청 시채 그리고 부대공사로 담장을 보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공사 이후 일제강점기와 해방이후까지 향교의 보수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광무 10년(1906) 3월에 향교 명륜당을 교사(校舍)로 삼아 사립밀양진성학교(私立密陽進成學校)로 개교하였으며, 1920년 3월에는 명륜당 전면에 유리문을 다는 등 건물을 수리

95) ...중략..於是密之士率其錢二十七萬以助密之民出其力八千二百以赴正月乙丑始其事至夏五月辛未功告訖焉廟三間廡六間而皆易其方向以就高朗爽明之氣藏書之閣藏器之室左庖右戶易舊而重新者又三十六楹齋堂齋序則皆因以葺之是役也..중략

하여 사립밀양집성학교(私立密陽集成學校)로 개교하였다. 1953년 4월에는 ‘재단법인밀양명륜학원’의 인가로 명륜고등학교(明倫高等學校)가 밀양향교에서 개교되었고 그 해 7월에는 교명을 밀성고등학교(密城高等學校)로 바꾸어 운영되었다.

1958년에는 풍화루의 해체보수와 명륜당의 번와공사, 동재 보수 및 담장공사를 하였다. 공사는 이 고을출신의 목수 이흥만(李興萬)이 하였다. 이어서 1960년에는 서재를 보수하였다. 이때의 전교는 이원태(李元泰)로 그가 지은 「향교중수기(鄉校重修記)」에 대략의 보수과정이 나온다.

1971년에는 향교건물 전반에 대한 부분적인 수리와 함께 전면 단청공사를 하였다. 그리고 교직사(校直舍)를 확대 개조하여 그곳에 전교실(典教室)을 새로 마련하였다. 이때의 전교는 김정환(金正煥)이며, 공사의 대략적인 경과는 신성규(申晟圭)가 지은 「향교중수기(鄉校重修記)」에 전하고 있다.

1982년에는 향교의 명륜당과 풍화루의 일부 번와공사, 풍화루의 계자난간 교체가 있었으며, 대성전의 내삼문을 보수하였다.

1988년에는 대성전, 서무, 내삼문의 부분보수가 있었으며, 1990년에는 풍화루, 1997년에는 대성전, 명륜당 및 내삼문의 부분보수가 있었다. 2004년에는 서무의 해체 보수와 명륜당의 전

체적인 단청보수가 있었다. 이어서 2005년에는 관리영역의 보수가 있었는데, 관리사의 번와공

사 및 창고의 보수가 있었다. 2006년에는 외삼문의 해체보수가 있었다.

이상의 밀양향교 중건과 중수 및 보수 공사를 차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고려중기 : 창건추정
- 임진왜란 : 소실 (소실되기 전의 향교는 용가역 인근에 위치)
- 선조 35년(1602) : 현 향교 위치로 옮겨 대성전을 중건함
- 광해군 6년(1614) : 동·서무를 중건함
- 광해군 8년(1616) : 대성전 들보 부러짐, 대성전의 재건을 청원함.
- 광해군 9년(1617) : 현 명륜당 동측 배후지로 대성전을 이건함
- 광해군 10년(1618) : 명륜당을 중건하고 동·서재 등을 갖추어 완결된 향교 모습으로 일신함.
- 순조 3년(1803) : 명륜당을 가볍게 보수함
- 순조 20년(1820) : 대성전을 현 위치로 재차 이건함
- 고종 18년(1881) : 풍화루 중수함. 대성전과 동서무를 보수함.
- 1904 : 명륜당 수리 및 담장 보수

- 1906 : 명륜당을 진성학교(進成學校)로 전용
- 1920 : 명륜당을 진성학교 교실로 전용
- 1958 : 풍화루 해체 보수, 명륜당 변화, 동재 및 담장 보수
- 1960 : 서재 보수
- 1971 : 향교 전반적인 부분수리, 단청공사
- 1982 : 명륜당 및 풍화루 변화, 내삼문 보수
- 1988 : 대성전 및 서무, 내삼문 보수
- 1990 : 풍화루 부분보수
- 1997 : 대성전, 명륜당, 내삼문 보수
- 2004 : 서무 해체 수리, 명륜당 전체적인 단청 도채
- 2006 : 대성전 단청 부분 보수
- 2018 : 대성전 변화, 연목 풍관 수리
- 2019 : 명륜당 기둥 드잡이, 부식재 교체, 변화, 단청

### ○명륜당의 건축적 특징

밀양향교 명륜당은 정면 5칸, 측면 2칸 외1출목 2익공 형식의 5량가 겹처마 박공지붕 건물이다. 평면은 전퇴가 있는 중당협실형으로, 가운데 3칸의 넓은 대청을 두고 그 좌우에 정면 1칸 크기의 온돌방을 들였고 대청 뒤쪽으로 길게 쪽마루를 설치한 평면이다.

대청과 온돌방 사이 청방간(廳房間) 구성은 동·서실이 같은데, 가운데 기둥을 사이에 두고 앞과 뒤에 각각 가운데 방형 불발기를 둔 정자(井字)형 양개 출입문이 삼분합 들어 열개가 시설된 형식이며 대청 배벽 매 칸에는 밖으로 열리는 양개 울거미 널창이 설치되어 있다.

이들 널창은 춤이 큰 통머름 좌우에 세운 문선을 문 상방과 연귀 맞춤하여 문얼굴을 형성하고, 상하 둔테의 장부구멍에 문장부를 꽂아 여단을 수 있는 구조로 하였고 널창 좌우 문얼굴과 주선 사이에는 판벽으로 폐쇄한 형식이다.

창의 문인방을 기둥과 직접 결구하지 않고 주선에다가 장부 맞춤한 것으로 비교적 오래된 수법이며 특히 주목되는 것은 문 인방의 하부와 지방 상면에 가운데 설주를 꽂았던 홈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청 배벽에는 원래 모두 영쌍창이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조선시대 전기와 중기인 16세기로 부터 시작하여 특히 17세기와 18세기에 걸쳐 서원 및 향교 그리고 사찰과 주택 등에 널리 유행하던 고식의 창호로 조선 후기에 들면 사용빈도가 급격히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 창호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영쌍창이 설치된 건물은 건축연대를 추정할 때 종종 이들의 설치 여부와 형식 등을 근거 기준으로 들어 건물 나이를 추정하기도 한다. 따라서 명륜당이

기록에 보이는데로 17~18세기에 중건되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온돌방 양 측면에도 상인방과 주선을 연귀로 맞춘 고식의 기법이 남아 있다.

명륜당 기단은 자연석을 허튼 층으로 쌓았는데 경사지를 따라 정면은 높고 후면과 좌우측은 낮게 구성되었다. 어칸 중앙에 놓인 석계(石階)는 다듬은 돌을 쌓아 만들었다. 기단 상부에 놓인 자연석 초석은 대개 상면이 편평하며, 다만 서북쪽 우주(隅柱)의 초석은 폐석탑의 옥개석을 옮겨와 사용한 것이다. 자연석 초석 위에 놓인 기둥은 밑면을 그랭이질하여 주초와 밀착시켜 세워 상부구조를 지지하도록 했다.

명륜당 기둥은 모두 원주이고 좌우 온돌방 내측 청방간(廳房間)에만 방주가 사용되었다. 명륜당의 기둥들은 조선시대 중후기에 많이 사용된 민흘림기법으로 치목한 것으로, 건물의 정면성과 착시를 고려하여 모서리 우주(隅柱)와 전면에만 약간 굽은 부재를 사용했다.

명륜당 대청 상부 가구는 무고주 이중량(二重樑) 5량가로, 전후(前後) 기둥 사이에 긴 통재의 장통보를 걸고, 그 위에 종량을 올려 상부를 지지하도록 하였으나 청방간에는 대청보다 굽기가 작은 보를 걸은 다음 가운데 처집을 방지하기 위해 간주를 받쳐 세우는 구조로 하였다.

대량은 위로 자연스럽게 만곡된 목재를 치목하여 사용했으며, 대청 상부의 장통보는 구조적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양 볼을 크게 깎아 내지는 않았으나 간주(間柱)를 세워 받친 청방간 대량은 면치기를 많이 한 형태이다.

대량은 3분 변작하여 상부에는 초각 화반형 중대공을 놓고 그 위에 종량을 올려 중도리를 지지하도록 했다. 종량은 방형 단면으로, 보머리는 직절한 양 단부의 상면을 빗깎은 형태이다. 그리고 종량의 중앙 상부에는 당초문을 새긴 파련대공을 세워 중도리를 받도록 하였다.

명륜당 공포는 대성전과 같은 외1출목 이익공 형식으로, 공포의 구성과 익공 살미의 세부 의장은 정면과 배면이 같다. 다만 출목 소첨과 주심 첨차의 경우 그 형태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즉 정면 공포에는 초각한 첨차를 쓴 반면 배면에는 마구리를 사절(斜切)한 첨차가 쓰였다.

명륜당 익공 쇠서는 강직하고 활달한 형태로 연봉(蓮峰)이나 연화(蓮花)로 장식되지는 않았다. 초익공 쇠서의 형태는 이익공 쇠서보다 짧고 강직하며 살미 밑면은 운궁형으로 조식(彫飾)하였다. 출목 도리의 밖으로 돌출한 대량 머리는 익공과 동일하게 폭을 줄여 깎고 운두각하였다. 운궁형 초각은 익공을 비롯 주심첨차와 화반, 창방 뺨목, 화반형 중대공 등에 공통적으로 사용되었다.

전후면의 기둥 사이에 놓인 화반은 창방 위에서 주심 도리와 장혀의 처집을 방지하는 기능과 함께 건물의 조형성을 더욱 높이는 역할을 한다. 명륜당에 사용된 화반은 두



종류로 운공형으로 초각한 장식 화반과 간략한 방형의 화반인데 이들은 각각 정면과 배면에 따라 위치별로 상이하도록 사용되었다.

종보를 받는 화반형 종대공은 판재형 화반과 침차를 마치 물익공 형태로 짜 맞춘 것이다. 종보 상부에 세워 종도리를 받는 대공은 파련대공과 간략한 판대공의 두 종류가 있는데 특히 파련대공은 단부를 당초문을 조식하여 꾸민 것으로, 도리 방향의 뜯창방과 장혀 및 종도리 등과 견고하게 결구되어 있다. 반면 대공의 끝을 초각하지 않은 간략한 판대공은 노출되지 않는 측면의 벽체부에 사용되었다.

도리를 받는 장혀는 출목과 주심에서 각각 크기를 다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심도리 장혀를 겹장혀로 하여 구조를 보강하였다. 출목장혀의 높이는 210mm인데 주심의 겹장혀는 아래쪽 장혀가 260mm, 위쪽 장혀가 120mm로 모두 380mm이다. 출목과 주심의 장혀 높이가 약 170mm 정도나 차이가 발생하는데 주심도리 장혀의 높이를 이렇게 높여 둔 까닭은 출목도리와 주심도리 높이의 차를 맞추어 보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높이가 높게 걸린 주심도리는 대들보 좌우단의 승어턱에 단단하게 끼이게 결구되지 않고 어정쩡하게 보 위에 겨우 걸터앉아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 위에 승두를 올려 주심도리를 보완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주심도리를 승두에 받쳐 올리는 기법은 비교적 고식으로 밀양향교 명륜당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주심도리가 제대로 단단하게 보와 결구되지 않으면 건물의 구조 내력이 허술해지기 쉽다. 더구나 명륜당처럼 지붕이 높고 그에 따라 종도리가 높게 걸리면 이러한 구조적 약점은 더욱 커지게 마련이다.

명륜당 종도리를 받는 화반형 종대공에는 이러한 구조적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인지 장혀 아래에 장혀와 폭이 같은 뜯창방이 결구되어 있다.

명륜당은 전후면 지붕처마 끝부분에 부연을 둔 겹처마 맞배지붕 건물로, 양 측면에 풍판을 시설했다. 전후면 처마는 기둥 중심에서 2,400mm 정도 돌출되어 있는데 이는 대성전과 거의 같다.

연목은 부연은 끝부분을 소매건이하여 날렵하게 다듬었으며 부연의 양곡은 경쾌한 곡선을 이룬다.

지붕은 맞배지붕으로, 용마루는 착고, 부고 위에 5단의 적재를 쌓고 맨 위에 수키와를 올려 마감했으며, 내림 마루는 당골 위에 3단의 적재를 쌓아 만들었다. 전면에만 막새기와를 사용하여 마감하였으며 배면과 측면은 와구토로 마감하여 차별하였다.

천장은 대청 상부를 연등천장으로 꾸미고 온돌방은 우물반자로 하였으며 온돌방 앞 텃마루 상부에도 방과 같이 우물반자를 꾸몄으나 수법으로 보아 후대에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대청과 동측 온돌방 사이의 천장에는 연등천장 아래(교관의 자리)에 간략한 보개(寶蓋) 형식의 작은 우물반자를 꾸며 놓았는데 이는 교관의 지위와 위계 및 상징성을 건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타 향교 명륜당에서는 볼 수 없는 것으로 주목된다.

아궁이는 좌우 온돌방의 후면에 있고 굴뚝은 양 측면에 노출되어 있다. 이밖에 기단의 앞쪽에 야간에 불을 밝히던 2기의 정료대(庭燎臺)가 남아 있는데 팔각형의 간주석 상부에 별도의 받침을 시설하지 않은 간략한 형태이다. 간주석을 정료대로 사용하기 위해 윗면을 오목하게 다듬어 거기에 관솔 등으로 불을 피울 수 있도록 했다.

### ○대성전의 건축적 특징

밀양향교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외1출목 2익공 5량가 박공지붕 집으로 내부를 통칸으로 하여 마루를 깔고 공자를 비롯한 성현들의 위패를 봉안하였다.

대성전 정면 매 칸에는 고식의 양개 띠장 널문이 설치되어 있다. 이 출입문은 띠장을 박으면서 국화쇠를 걸들이는 등 다른 향교에서 보기 드물게 고졸한 형식으로 하였고 좌우 측면과 배면은 창호 없이 토벽으로 마감하여 감실형 평면이 되게 하였다. 널문은 정면 매 칸의 문 안쪽 상하에 시설한 긴 둔테에 문지도리를 꽂아 여닫을 수 있게 된 구조이다. 토벽을 치기 위해 창방과 접하여 상인방을 걸고 여기에 주선을 연기로 맞춤 하였으며 하인방을 기둥 하부에 걸구하였다. 특히 좌우측과 배면의 중방은 기둥에 직접 흙을 파 넣지 않고 좌우 주선에다 걸구시켰는데 이러한 유형은 주로 경북지방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중방 상하에는 다시 벽선을 넣어 벽을 작게 분할하였는데 이는 19세기 대성전을 지금의 위치로 재차 이건설 당시의 형식으로 보이며 양 측면 상하에 설치된 환기구 역시 후설한 것으로 보인다.

대성전 전면의 기단은 다듬한 장대석을 여섯 단 쌓아 올려 구조하였는데 장대석의 높이와 크기가 일정하지 않으며, 상하 돌 사이 틈새는 강회로 메워가며 쌓은 찰쌓기 방식이다. 기단석 중에는 고맥이로 보이는 쇠시리가 있는 돌이 보이고 이와 함께 전열 기둥 초석중에는 주좌와 고맥이가 같이 새겨진 고식의 초석 등이 보인다. 기둥과의 크기가 약간 맞지 않고 맞춤이 정교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대성전 이건설 인근의 폐사지에서 옮겨와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면 기단을 제외한 좌우 측면과 후면의 기단은 자연석을 허튼 층으로 쌓아 만들고 그 외곽으로 우수를 배출하기 위한 배수로를 설치해 놓았다. 대성전에 오르는 석계(石階)는 모두 2기로 정면의 좌우 협칸 앞쪽에 1기씩 설치되어 있다. 이들 석계는 다듬은 돌을 쌓아 만든 것으로, 크기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계단의 좌우 소맷돌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자연석을 사용했다. 동쪽 석계의 정면 왼쪽에 거칠게 다듬은 세운 방향의 돌이 놓았는데, 이는 제향시 관세대(盥洗臺)의 받침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대성전의 상부 가구는 무고주 이중량 5량가 구조이다. 건물의 외진에 놓인 초석에 약한 배흘림이 있는 원주를 세우고 전후에 장통보를 걸어 상부가구를 지지하도록 하였는데 좌우 측벽에는 비교적 약한 보를 걸고 그 중앙 하단에 간주를 세워 처짐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이 구조는 명륜당의 청방간 구조와 거의 같은 형식으로 유사성을 느끼게

한다.

중앙의 상부 가구를 보면 전후 평주에 장통보를 걸고 그 위에 화반형 중대공을 놓아 종량을 받고 다시 종량 상부에 초각한 판대공을 세워 종도리를 지지하도록 한 구조이다.

상부 가구를 형성하는 들보와 각종 도리 및 화반형 종보 받침과 판대공은 비교적 견실하게 짜여진 것처럼 보이나, 명륜당의 경우처럼 주심도리가 대들보 양단의 송어턱에 맞춤되지 않고 보 위에 설치한 승두를 타고 결구되어 있다. 이럴 경우 횡력에 약한 구조가 되어 집 전체가 좌우로 흔들리게 되는 구조적 약점이 발생한다. 이 약점을 대성전에도 명륜당처럼 뜬 창방을 걸어 보완하는 수법을 채택하였다. 다만 중대공만 뜬 창방으로 결구한 명륜당과는 달리 대성전에는 중대공과 중대공 모두를 뜬 창방으로 결속하여 상부의 흔들림에 훨씬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만들어 두었다. 처마도리와 출목도리의 높이 차로 인한 구조적 약점을 뜬 창방으로 보완해 둔 조선 후기 융통성있는 건축적 해결방법의 한 사례로 평가 할 수 있다.

대성전 상부 장통보는 약한 곡율(曲率)이 있는 자연목을 치목하여 사용하였는데 단면이 비교적 굵고 위로 만곡한 것은 중앙 어칸에 사용한 반면 비교적 가늘고 직재에 가까운 것은 좌우 퇴칸에 사용하였다. 대량의 단면 형태는 구형(矩形)으로, 도리와 결구되는 대량의 어깨 부분만 둥글게 치목하여 사용했다. 건물 양 측면의 장통보는 중앙부의 것보다 단면이 작고 처집에 약해 보인다. 따라서 중앙에 간주(間柱)를 세워 보강해 두었다.

대량은 이익공 상부에서 외1출목 장혀 및 도리 그리고 그 안쪽에서 주심장혀와 견실하게 결구되어 있다. 외1출목 장혀 밖으로 돌출된 대량 머리는 수장 폭에 맞추어 가늘어져 다듬고 봉두각 혹은 운두각 해 두었다. 즉 건물 전면(前面)에는 봉황을(鳳頭), 배면에는 운궁형으로 각각 조식(彫飾)하였다.

종량은 대량 상부의 중대공에 걸려있다. 종량 치목은 대량과 비슷하고 머리는 사절(斜切)한 후 직절(直切)한 형태이다. 종량을 지지하는 화반형 중대공은 수장폭 두께의 판재를 겹쳐 결구하였고 외단을 물익공 모양, 내단을 보아지형으로 조식한 것으로, 상부에는 주두를 놓아 종량을 받고 있다.

종량 상부 중앙에는 파련대공 또는 간략한 판대공을 두어 종도리를 받았는데 중앙에는 파련대공으로 하고 좌우 초각하지 않은 간략한 형태의 판대공을 사용했다.

대성전의 전면과 배면의 기둥 상부에는 모두 외1출목 이익공의 공포가 짜여 있다. 전면과 배면에 사용된 공포는 세부형식과 조성 시기에서 다소간 차이를 보인다. 전면은 이건 시기인 1803년에 교체된 것으로, 익공 살미가 화려하게 초각하고, 보머리를 봉두(鳳頭)각한 형태인 반면 배면 공포는 고졸한 이익공식 공포로 돌출된 대량의 단부를 운궁형으로 처리했다. 출목의 간격은 명륜당과 같은 360mm이며, 출목 사이는 순각판으

로 막았다.

전면 포는 초익공을 양서형으로 하고 그 위에 수서형 이익공을 놓았으며, 최상단에 돌출한 대량의 머리끝에는 봉두(鳳頭)각 하였다. 초익공과 이익공 사이에 외1출목 첨차를 결구하고 첨차 좌우 양단에 소로를 놓아 출목도리 받침 장혀를 받도록 하였다. 초익공은 상부에 연꽃을 새기고 하부에는 연봉(連峰)을 화려하게 조식(彫飾)하였으며 수서형 이익공 역시 밑면에 연화두식(蓮花頭飾)이 있는 출목첨차와 교차하고, 상하에 연봉을 조각하여 장식하는 등 조선 후기의 장식적인 경향이 잘 살아나는 특징이 있다. 이익공 상부에 놓인 조각은 돌출된 대량 머리를 봉두로 사실적으로 조각한 것이다. 익공살미 내단은 모두 보아지로 처리하고, 단부에는 운공을 조식했다.

대성전 배면의 공포도 정면과 같은 외1출목 이익공식이나 초익공과 이익공의 쇠서 상하에 연봉(蓮峰)이나 연화(蓮花)를 전혀 조식(彫飾)하지 않은 고졸한 형태이다. 정면 공포의 봉두 대신 고식(古式)의 운공형 부재를 사용한 것도 배면 공포의 특징이다. 초익공과 이익공의 쇠서는 양서형이며, 특히 이익공 쇠서는 짧고 활달하며 강직하고 간결하다. 이익공 살미 상부의 고졸한 형태의 운공은 주심(柱心) 밖으로 돌출한 대량 머리를 운두각한 것이다. 대성전의 배면 공포의 고졸한 익공 살미와 운공은 이 건물이 17세기 초에 중건되었다는 연혁과도 잘 부합한다.

대개 건물 내부의 보아지와 첨차 등도 통일적인 형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밀양향교 대성전에는 다양한 형태의 보아지와 첨차가 사용되었다. 주심첨차를 살펴보면 정면에는 마구리를 사절한 첨차, 배면에는 마구리를 직절한 첨차가 각각 사용되었다. 이 같은 차이는 출목 첨차에서도 볼 수 있다. 화려하고 장식성이 강한 전면 공포는 1820년에 대성전을 현 위치로 이건할 때 바뀐 것이며, 반면에 배면의 고졸한 공포는 1602년 중건 당시의 공포로 추정된다. 배면에 남아 있는 고식의 공포는 수 차례의 이건에도 불구하고 구재(舊材)를 재사용하고 부족분만 보충하는 조선의 특징적인 건축 문화때문에 보존될 수 있었다. 대성전 전면에만 19세기 초의 장식적인 공포형식을 채택한 것은 건물의 정면성을 강조하려는 의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 이밖에 전후면 주간에 사용된 화반은 두 종류로, 꽃문양으로 조식한 장식적인 화반은 정면에, 장식성이 낮은 간략한 방형의 화반은 배면에 사용했다.

창방은 전면과 배면의 주심(柱心)과 측면 대량 아래 결구되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기둥 가운데 맞추어 창방을 일치시켜 걸지 않고 창방의 내측을 수장 면에 맞추어 결구하였다는 점이다. 이러다 보니 창방이 수장재 폭보다 밖으로 더 돌출되게 되었다. 이는 타 사례에서 찾아 볼 수 없는 것으로 일반적인 수법과는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성전 내부에는 5성(五聖)위를 위시하여, 송조 2현(宋朝二賢), 우리나라 18현(十八賢)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위패 봉안제도는 중앙 정위(正位)에 주향인 공자 위패를 두고, 그 앞 동쪽에 안자와 자사의 위패를, 서쪽에 증자와 맹자의 위패를 배향(配享)하였

다. 대성전 동쪽 벽에는 설총, 정호, 안유, 김굉필, 조광조, 이황, 이이, 김장생, 김집, 송준길의 위패를, 서쪽 벽에는 최치원, 주희, 정몽주, 정여창, 이언적, 김인후, 성혼, 조헌, 송시열, 박세채의 위패를 종향했다. 봄·가을 석전(釋奠)을 봉행(奉行)하며, 음력 초하루와 보름에도 분향하고 있다.

#### 4. 지정가치 및 종합의견

밀양향교는 좌묘우학(左廟右學)의 배치를 보이는 병렬식 향교의 대표 사례로 초창은 뚜렷하지 않지만 지금의 자리로 이건한 후의 역사는 비교적 명확하다.

임진왜란으로 향교의 전각들이 모두 소실된 후 1602년에 밀양부사 최기(崔沂)가 용가역의 역촌(驛村) 근처에서 읍성 북측의 현재 위치로 향교를 옮겨 중건한 후 대성전을 두 차례 이건한 원인이 그 과정이 비교적 뚜렷하게 기록에 잘 남아 있다.

중건 후 두 번의 이건과 중건을 통해 17세기와 19세기의 건축수법과 형식, 기술 등이 혼재된 상태로 남아 있어 시대적 건축기술의 흐름과 특징을 한자리에서 비교 분석해 볼 수 있는 등 학술적인 가치와 함께 역사적인 가치를 함께 지니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1820년 대성전 이건 공사가 소실되거나 퇴락한 대성전을 다시 새롭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합리적이라는 판단 아래 허물어지지 않은 대성전의 이건을 통해 일부 부재를 재사용하는 등 건축 규모와 구조, 양식 등을 과거의 형식을 그대로 따를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때 정면 공포만 당시의 유행하던 형식대로 교체하면서 19세기의 양식을 띄게 되었다. 따라서 화려하고 장식적인 정면의 조선후기 형식과 배면의 원래 형식으로 보이는 고졸한 공포를 비교를 통해 건축 양식사적 관점에서 시대적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사실은 밀양향교의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이밖에도 대성전 내부의 화반 대공의 형식 그리고 벽선과 인방의 결구에 사용된 고졸한 연귀 맞춤은 17세기의 수법으로 높게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명륜당은 경남지역 향교 건축 중 보존상태가 양호한 건물로, 임란 때 소실된 것을 1618년에 중건한 것이다.

1618년에 중건한 후 여러 차례의 수리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으나 건물의 구조와 평면 형식, 공포 등의 세부기법 등에서 중건 당시의 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어 조선 중기 명륜당의 건축 특성을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가 된다.

고졸한 형식의 외1출목 이익공 형식으로 연봉이나 연화로 장식고디지 않은 쇠서의 형태와 대청 배벽에 남아있는 고졸한 형식의 영쌍창은 1618년 중건 당시의 모습으로 17세기 건축형식의 일면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대성전과 명륜당의 결구에서 승두에 받쳐진 주심도리와 이로 인한 구조적 내력

보강을 위한 뜬창방의 결구는 조선 후기 건축 수법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좋은 사료로 평가된다.

밀양향교 대성전(1602년 중건)과 명륜당(1618년 중건)은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타 지역의 대성전 또는 명륜당 등에 비해 중건 시기가 빠른 편에 속하며, 수 차례의 수리에도 불구하고 조선중기의 향교건축의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으며, 그 상태도 양호하다. 전퇴가 없는 폐쇄적인 평면형식의 밀양향교 대성전과 전형적인 중당협실형의 명륜당은 경남 동부지역(낙동강 동쪽) 향교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이는 경상좌도(현 경북)의 향교건축과도 문화적으로 유사한 점이 있다. 밀양향교 대성전과 명륜당은 평면구성과 상부가구, 공포형식 및 세부기법 등에서 조선중기 향교건축의 특징을 잘 보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 있는 건물이라 하겠다.

전술한 바와 같이 밀양향교 대성전(1602년에 중건)은 평면형식, 상부가구, 공포형식 등에서 조선중기 지방 문묘 대성전의 건축적 특징을 잘 보여준다. 특히 정면에 남아있는 긴 둔테에 고정된 고식(古式)의 판문을 비롯 건설하고 고졸한 결구수법, 화반과 파련대공에 보이는 뛰어난 조형성도 이 대성전의 건축사적(학술적), 문화재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요인이다. 이 같은 특성은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타지방의 향교 대성전과 비교해도 문화재적, 학술적 가치 면에서 전혀 손색이 없다. 이처럼 밀양향교 대성전은 17세기 초 중건 당시의 원형을 잘 가지고 있는 보존상태가 양호한 향교건축으로 보물로 승격시키는데 필요한 충분한 학술적, 문화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바 금번에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밀양향교 명륜당은 1618년에 중건된 건물로, 최근까지 여러 차례의 수리가 있었음에도 평면과 공포형식, 구조, 부재 등에 중건 당시의 원형이 잘 남아 있다. 전형적인 중당협실형 평면을 따른 명륜당은 배면의 판문의 고졸한 구성과 영쌍창에 사용된 중간설주의 흔적을 비롯 대성전과 유사한 치목 및 결구수법, 상부가구와 수장재의 고졸한 구성, 여러 면에서 조선중기 명륜당의 제 특징을 잘 보여준다.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타 명륜당과 비교해도 학술적 문화재적 가치 면에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밀양향교 대성전과 명륜당은 조선중기의 특징적인 목조 건축으로 우수한 학술적, 문화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바 금번에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0.09.10	대상문화재	밀양향교 대성전, 명륜당	
조사자	성명	○○일	전공 분야	건축사
	소속	○○○○○○대학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밀양향교 대성전, 명륜당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10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1. 입지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1) 입지

밀양향교(密陽鄉校)는 밀양시 밀양향교 3길 19(교동)에 위치해 있다. 교동은 밀양시의 동북부에 위치하며 서쪽으로는 내이동, 남동쪽으로는 활성동, 동쪽으로는 산외면, 북쪽으로는 상동면과 접하고 있다. 밀양시청의 소재지이기도 하고 밀양IC에서 밀양으로 들어오는 동쪽의 관문역할을 하는 곳이다. 또한 밀양향교가 있는 곳은 밀양의 진산(鎭山)인 화악산(華嶽山;932m)의 산맥에서 남쪽으로 뻗어 내린 산자락의 약간 높은 구릉지에 위치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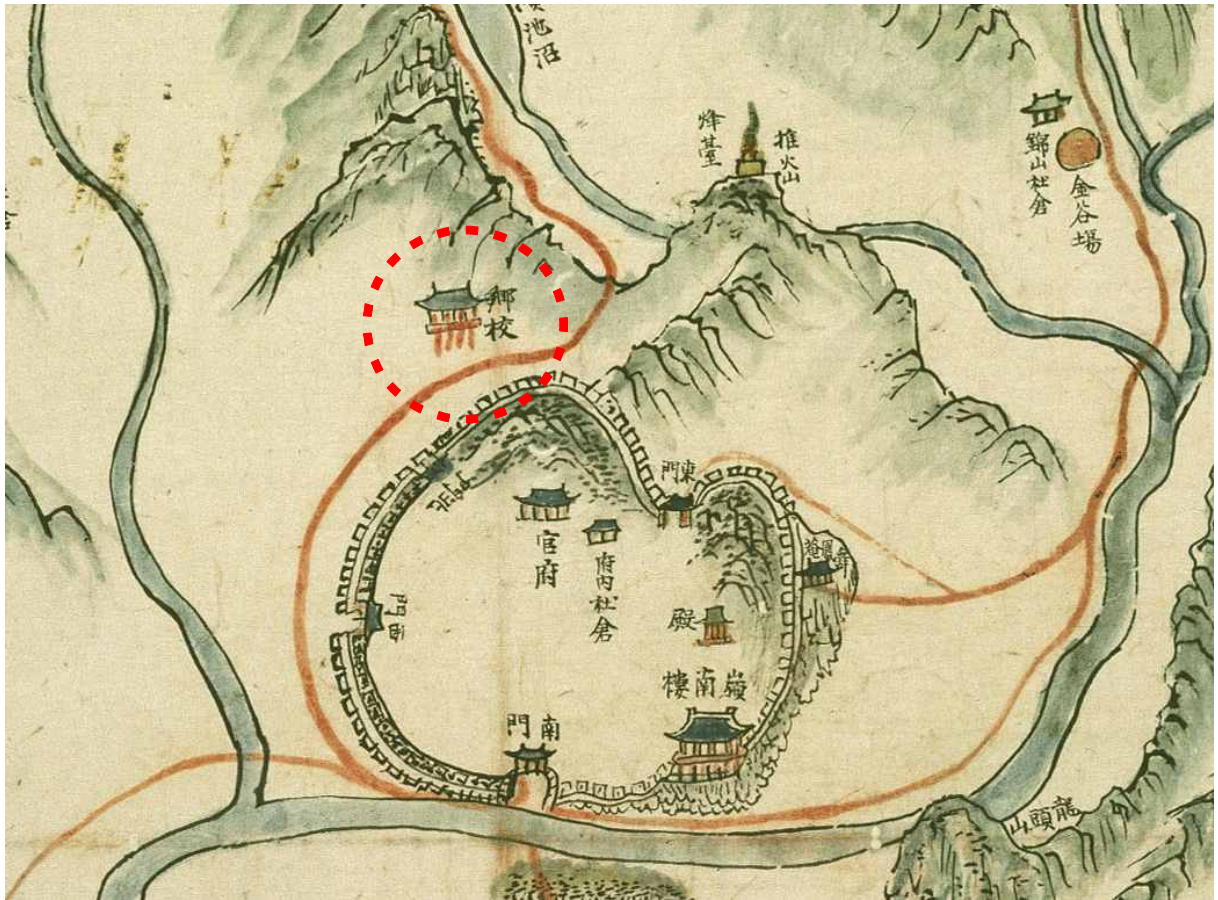
밀양향교(丹城鄉校)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 중앙고속도로(부산-대구) 밀양IC로 들어와 국도 24호선인 밀양대로를 타고 밀양시청 방향으로 2.5km정도 가면 밀산교가 나오고 여기에서 범무고개길을 넘어 밀양아리랑전시관이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130m정도 내려가면 교동마을 입구가 나온다. 여기서 밀성 손씨 집성마을길인 밀양향교 3길을 따라 북쪽방향으로 200m정도 직진하면 올라가면 풍화루가 전면에 있는 향교주차장이 나온다. 이 풍화루를 중심으로 강학구역인 명륜당, 동재, 서재가 있고, 좌측에는 문묘구역인 내삼문과 대성전, 동무, 서무가 놓여 있으며, 우측으로는 부속건물 구역인 교직사 등이 자리 잡고 있다.

### 2) 역사문화환경

밀양향교(密陽鄉校)가 있는 교동(校洞)은 북쪽의 산자락과 남쪽의 넓은 평지로 이루어져 있다. 교동(敎洞)은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부터 밀양향교(密陽鄉校)가 소재하고 있어 향교리(鄉校里), 교리(校里)라고 부른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밀양부(密陽府) 부내면(府內面) 지역이었는데, 향교(鄉校)가 있는 마을이라 하여 일명 ‘사동리(社洞里)’라고도 불리었다. 일제강점기인 1918년에는 밀성군(密城郡) 밀양면(密陽面)으로 개칭되었다가 1931년 밀양읍(密陽邑)으로 승격되어 밀양읍 교리(校里)라고 칭하였다. 그리고 1989년 밀양읍(密陽邑)이 시로 승격되어 밀양시 교동(校洞)으로 개칭되었다. 현재 밀양향교(密陽鄉校)가 있는 곳은 교동 1동 북쪽으로 산골짜기가 있는데 이곳을 안골이라 하였고, 안골 남쪽에 있는 들을 내동들이라고 하였는데, 들은 이미 주택지로 바뀌었다. 특히, 밀양향교가 있는 인접 교동 3통 일대의 추화산(推火山; 240m) 8부 능선에는 추화산성(推火山城:경상남도 기념물 제94호)이 있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이나 향토지인 『밀주지(密州誌)』, 『밀주구지(密州舊誌)』, 『교남지(嶠南誌)』, 『밀양읍지(密陽邑誌)』 등의 기록에 의하면, 이 산성은 신라말 또는 통일신라시대에 축조되어 조선시대까지 사용된 성인데, 조선시대 영남루(嶺南樓)가 있는 읍성(邑城)이 축조되기 전까지는 밀양의 거점인 관아가 있었던 곳이었다. 한편, 이 추화산성 내에는 밀양 손씨 입향조이자 중시조인 손공훈(孫兢訓)<sup>96)</sup>의 소상(塑像)<sup>97)</sup>을 모신



성황사(城隍祠)가 성내 정상부에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밀양향교(密陽鄉校) 아래에 형성된 교동마을은 입향조인 손공훈(孫兢訓)이 정착한 이래 밀양 손씨 집성촌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밀양향교와 함께 형성되어 왔다. 이러한 마을형성 배경에는 이 마을 뒤편에 밀양시의 진산인 화악산 지맥이 내려오는 지산이 등지고 마을 앞에 응천강(凝川江)이 흐르며, 전망이 확트인 넓은 평야가 형성되어 있어, 교동마을은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지세를 가진 명당 터에 형성된 결과로 볼 수 있다.



1872년 지방도 밀양부지도상의 밀양향교  
출처:서울대학교규장각 주1:○은 밀양향교, 주2:그림은 밀양향교의 풍화루가 표현되어 있음

교동마을의 밀양 손씨와 관련된 건축문화재로는 밀양 교동 손씨고가(密陽 校洞 孫氏 古家;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61호), 밀양 교동 손대식 고가(密陽 校洞 孫大植 古家;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75호), 밀양 교동 손병순 고가(密陽 校洞 孫炳淳 古家;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84호), 밀양 교동 손정식 고가(密陽 校洞 孫正植 古家;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86호), 밀양교동밀성손씨고가(密陽校洞密城孫氏古家;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

96) 손공훈(孫兢訓)은 고려 건국공신으로 태조 왕건을 도와 후백제 견훤의 아들인 신검을 황산전투에서 사로잡은 공로로 좌명공신에 선정되었고, 광리군에 봉해졌으며, 그가 죽은 후에 삼중대광사도에 추증되었다.

97) 이 소상은 삼중대광사도광리군 목상(三重大匡司徒廣理君 木像;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214호)으로 성황사에 보관되어 오다가 현재는 밀양시립박물관에 보관 중이다.

399호), 밀양 교동 근대 한옥(密陽 校洞 近代韓屋;국가등록문화재 제151호) 등이 지정 관리되고 있다.



1951년 밀양향교와 교동마을 모습 (출처:1951-1953 Photographer Tom Grasco 촬영, 주:○ 밀양향교)

밀양향교(密陽鄉校)의 배치특성을 살펴보면, 경사지형을 이용하여 대성전(大成殿)이 있는 문묘구역과 명륜당(明倫堂)이 있는 강학구역이 병렬식으로 놓인 좌묘우학형(左廟右學形) 배치로 되어 있어 조선시대 병렬식 향교의 대표 격으로 그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배치형식은 지형적인 특성상 고저기복이 있는 경사지의 세로 폭이 좁은 경우, 위계질서를 고려하여 격이 높은 대성전(大成殿)을 좌측에 명륜당(明倫堂)보다 조금 뒤인 경사지에 후퇴시켜 놓은 배치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문묘구역은 향교에서 가장 신성시 되는 구역으로 공자를 비롯한 성현을 모시고 유생들의 몸가짐과 사상을 전수받아 인격을 닦을 수 있도록 제사를 지내는 엄숙한 영역이기 때문에 성현을 모시는 대성전(大成殿)과 동무(東廡)와 서무(西廡), 기타 제향의식에 필요한 제기고(祭器庫), 전사청(典祀廳) 등을 배치한다. 여기에서 조선시대에는 관찰사가 상주하는 주(州)의 행정구역에서는 대설위(大設位), 부(府), 군(郡)은 중설위(中設位)로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어 제향의식에 필요한 부속시설을 문묘구역에 설치하지만, 현(縣)과 같은 소규모 행정단위에서는 소설위(小設位)를 취한다. 밀양향교(密陽鄉校)는 공자를 비롯한 25위의 성현을 모시는 중설위(中設位) 향교였기 때문에 대성전(大成殿)과 동무(東廡)와 서무(西廡) 외에 부속시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54년 항공사진에서

보면, 내삼문 밖 현재 공터인 곳에 2동의 건물이 보이는데, 제향에 필요한 부속건물로 추정된다.<sup>98)</sup> 강학구역은 문루인 풍화루(風化樓)와 공자의 사상 등을 교육하기 위한 강당인 명륜당(明倫堂)과 유생들의 거처인 동재(東齋)와 서재(西齋) 등이 일곽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밖에 우측편에는 교직사 등의 부속시설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대성전(大成殿)에는 공자(孔子)를 주향(主享)하고 사성(四聖)과 송조6현(宋朝六賢)중 2위(位), 신라 2위(位), 고려 2위(位)를 배향(配享)하였고, 동무와 서무에는 조선 14위(位)를 봉안하고 있다. 조선시대는 국가로부터 토지와 전적·노비 등을 지급받아 교관이 교생을 가르쳤으나, 갑오개혁 이후 신학제 실시에 따라 교육적 기능은 없어졌다. 봄·가을 석전(釋奠)을 봉행(奉行)하며, 초하루·보름에 분향을 하고 있다. 이 향교는 1983년 8월 12일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14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전교(典校) 1명과 장의(掌議) 수명이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 2. 연혁 · 유래 및 특징

### 1) 연혁 · 유래

밀양향교(密陽鄉校)의 창건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고려 인종 5년(1127) 3월에 ‘제주(諸州)에 학교를 세우도록 조서를 내렸다.’는 기록을 토대로 밀양향교도 이 당시 창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추정은 고려중기 문인인 임춘(林椿)<sup>99)</sup>의 『서하집(西河集)』에 실린 시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향교학생들의 초대를 받아 여럿이 술을 마신 후 시를 지어 사례하다. 어제 사당에 들어 성현의 진상에 절하니...(중략)’ 이를 통해 12세기인 고려 인종 때에 밀양향교(密陽鄉校)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권근(權近; 1352~1409)<sup>100)</sup>의 『양촌집(陽村集)』 남행록(南行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권근(權近)은 공양왕 2년(1390)에 스승인 목은(牧隱) 이색(李穡)을 도와 창왕을 임금으로 추대하였다하여 그해 겨울 영해로 유배를 당한다. 이듬해 봄에는 다시 흥래를 거쳐 윤4월에는 김해에 적소를 옮기게 되었다. 권근(權近)은 김해로 가는 길에 영천을 지나 밀양을 경유하게 되었는데, 당시 밀양 지군(知郡)으로 있던 여공(余公)과 향교 교수관으로 있던 박공(朴公)이 위로하기 위해 은어를 선물로 보냈다.” 즉, 향교 교수관 직책이 나오므로 이 당시에 향교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98) 이 건물에 대한 정보가 없어, 현재로서는 건물용도 및 명칭 등에 대하여 알 수 없다.

99) 임춘(林椿)은 자는 예천 임씨의 시조로 기지(耆之) 호는 서하(西河)로 생몰연대는 알려지지 않으며, 의종 24년(1170) 정중부의 난때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는 기록과 이인로(李仁老), 오세재(吳世才) 등과 함께 강좌칠현(江左七賢)이었다. 예천 옥천정사에 제향되었다. 따라서 임춘이 활동하던 시기를 고려해 보면, 고려 인종 5년(1127) 전국(州)에 지방향교가 창건될 당시, 밀양도 함께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100) 권근(權近)은 자가 가원(可遠), 호는 양촌(陽村)으로 고려말인 공민왕 1년(1352)에 태어나 조선 태종 9년(1409) 사망하였는데, 이색을 스승으로 모셨으며, 조선 유학계승에 크게 기여하였다.

조선시대 들어와서는 밀양향교가 임진왜란 이전과 이후로 구분되는데, 임진왜란 이전 향교 위치는 지금의 위치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밀주지(密州誌)』<sup>101)</sup>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용지리(龍池里)<sup>102)</sup>에 향교의 옛터가 있다”라고 하였다.<sup>103)</sup>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보아 이 당시에 밀양향교(密陽鄉校)는 대성전과 명륜당이 잘 갖추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현재의 위치가 아닌 곳에 있었는데, 이 위치는 밀양성내의 읍치에서 멀어 불편함이 있어 임진왜란 이후 가까운 현 위치로 옮긴 것으로 볼 수 있다.



1954년 항공사진



2018년 항공사진

밀양향교 1954년과 2018년 항공사진 비교 출처:국토정보지리원

밀양향교(密陽鄉校)는 임진왜란으로 인하여 모든 전각이 소실되었다. 이러한 전란에 의한 피해는 곧바로 복구되지 못하고 선조 35년(1602)이 되어 밀양부사로 부임한 최기(崔沂;1553~1616)<sup>104)</sup>가 이 지역 유림(儒林)과 함께 현 위치로 옮겼는데, 이 당시 우선 대성전(大成殿)만을 중건하였다.<sup>105)</sup> 광해군 5년(1613)에는 부사 성진선(成晉善;1557~?)이 주도하여 동무와 서무를 중건하고, 송조 4현(宋朝四賢)과 우리나라 9현(九賢)의

101) 박수현저, 1932년 밀양군향교 발행.

102) 용지리(龍池里)는 옛날에 역마출인 용가역(龍駕驛)과 지동(池洞)이 합쳐진 마을이다.

103) 세조 4년(1458)에는 유효담(柳孝潭)이 밀양교수(密陽教授)로 임명되었다는 기록과 함께, 부사 강숙경과 청도군수 이약동, 영산현감 최계동, 교수관 유효담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밖에 점필재 김종서는 성종 13년(1482) 4월에 '밀양향교 재학생에게 보내는 편지인 『여밀양향교제생서(與密陽鄉校諸生書)』에서 한 고을의 풍속이 무너지고 장유의 예절과 신구의 질서가 문란한 것은 그 책임이 향교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중종 13년(1518) 전후 경상도 관찰사인 김안국은 무너진 여문(旌門)을 수리하고 각 고을의 향교를 수축하게 하고는 직접 『이륜행실도(二倫行實圖)』와 『언해여씨향약(諺解呂氏鄉約)』을 만들어 배포하였다.

104) 최기는 본관은 해주, 자는 청원, 호는 서촌·쌍백당으로 1602년 밀양부사, 1604년 정주목사, 1607년 충청도 관찰사가 역임하였다. 1616년 이이첨의 미움을 받아 투옥 후 옥사하였다. 인조반정 후 신원되어 이조판서로 추증되었다.

105) 선조 40년(1607)에는 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복구되었다.

위패를 모셨다. 광해군 8년(1616)에는 대성전(大成殿)의 가운데 대량이 부러지는 피해가 발생하여 부사 이홍사(李弘嗣; 1554~1635)<sup>106)</sup> 및 손기양(孫起陽; 1559~1617)<sup>107)</sup> 등의 유림이 조정에 대성전(大成殿)의 중건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광해군 9년(1617)에 이르러 대성전(大成殿)을 동남쪽의 낮은 터<sup>108)</sup>로 이건 되었으며, 그 다음해인 광해군 10년(1618)에는 대성전(大成殿) 서쪽에 명륜당(明倫堂)을 새로이 건립하였다.<sup>109)</sup> 『밀주구지(密州舊誌)』에는 이 당시 향교(鄕校)를 모습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대성전(大成殿) 3칸과 동무와 서무 각 3칸, 문묘의 남쪽에 신문(神門) 3칸, 서쪽에는 제기를 보관하는 제기고(祭器庫)와 제복을 보관하는 제복고(祭服庫), 신주(神廚) 3칸을 두었다. 명륜당(明倫堂) 5칸을 중심으로 그 좌우에 동재와 서재 각 5칸을 두었다. 독루(讀樓)와 그 서쪽에 소루(小樓)가 있었지만,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어 당시에는 없었다고 했다. 명륜당(明倫堂) 동쪽에는 대제(大祭)시 헌관이 머무는 별도의 재실(齋室)과 교아(敎衙)가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외에 명륜당(明倫堂)의 동북쪽에 있었던 자미정(紫薇亭)도 없어졌다”

그리고 조선후기인 19세기에 들어와 명륜당(明倫堂)을 중수하고 기존의 대성전(大成殿)을 현재의 위치로 이건하였으며, 풍화루(風化樓)를 중수하는 등 향교의 건물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되었다. 이에 대한 내용 중 우선 순조 3년(1803)에 쓰여진 『명륜당중수기(明倫堂重修記)』<sup>110)</sup>의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고을의 학교에는 강당(講堂)이 있다. 강당을 세운 햇수가 오래되면 기울어지고 무너지는데, 이것이 지나치면 장차 못 쓰게 되는 것이다. 이에 급히 유사(有司)에게 명하기를 그런대로 온전한 것은 그대로 두되, 지붕을 손질하고 심하게 훼손이 된 곳은 고쳐서 새롭게 하라고 함으로써 이해 8월 임오일(壬午日)에 일을 시작했는데, 달을 넘긴 9월 신해일(辛亥日)에 공사가 끝났음을 고해왔다. 재장(齋長) 손치동(孫致東)군이 사실상 이를 경영하였고, 도감(都監) 박명덕(朴明德)이 또한 이를 감독했으며, 장의(掌議) 조기문(曹起文)과 이억(李億)이 그 일을 좌우에서 도왔다. 재목을 모으고 비용을 지출한 것은 대부분 관청에서 임기응변으로 조치하였다. 그리고 순조 20년(1820)에 쓰여진 『교궁이건기(校宮移建記)』<sup>111)</sup>의

106) 이홍사는 1603년 길주목사, 1607년(선조 40) 충청수영우후를 거쳐 1618년 현감 재임 중 왜구를 물리친 공으로 밀양부사에 임명되었다.

107) 손기양은 본관이 밀양(密陽), 자는 경징(景徵), 호는 오한(鰲漢)·송간(松澗)으로 광해군 2년(1610) 창원부사를 지냈으며, 광해군 4년(1612) 낙향하여 후학을 양성한 성리학자였다.

108) 대성전은 명륜당을 기준으로 현 위치(\*본래 위치)의 반대방향인 동남쪽으로 1617년 이건 되었는데, 1618년 명륜당이 대성전보다 높은 곳에 건립되었고, 향교 전각의 위계적 질서를 고려해 대성전이 명륜당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야 함으로, 1820년 명륜당의 서쪽인 원래 위치로 다시 이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09) 대성전의 들보가 부러진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는 여론과 그 터가 길지(吉地)가 아니라는 감여가(堪輿家)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어 문묘를 감영(監營)에 청원하여 이건 되었다.

110) 『명륜당중수기(明倫堂重修記)』는 명륜당에 편액으로 걸려 있으며, 순조 3년(1803) 계해 9월 부사 박종우(朴宗羽)가 썼다.

111) 『교궁이건기(校宮移建記)』는 명륜당에 편액으로 걸려 있으며, 순조 20년(1820) 5월 병자일에 부사 이현시(李玄始)가 썼다.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밀양의 주민들이 그 인력 8,200명으로 부역을 했으며, 정월(正月) 을축일(乙丑日)에 그 일을 시작하여 여름인 5월 신미일(辛未日)에 이르러 준공을 고하였다. 문묘가 3칸이고 동·서무가 6칸인데, 모두 그 방향을 바꾸어 높고 맑으며 상쾌하고 밝은 기운을 쫓았다. 책을 보관하는 장서각과 집기를 보관하는 장기실(藏器室)은 문의 오른쪽에, 주방은 문의 왼쪽에 설치하니, 옛 것을 바꾸어 거듭 새롭게 한 것이 또한 36개의 기둥이라, 명륜당과 동·서재는 모두 그대로 두고 지붕을 이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순조 2년(1802) 2월에 박종우(朴宗羽)가 밀양부사로 부임하여 밀양향교가 황폐화된 것을 보고 순조 3년(1803) 8월에 명륜당(明倫堂)의 지붕 및 훼손된 곳을 보수하여 9월에 준공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순조 19년(1819) 밀양부사로 부임한 이현시(李玄始)의 주도로 순조 20년(1820)에 현 명륜당(明倫堂)의 동쪽에 위치해 있던 대성전(大成殿)을 포함한 문묘구역의 전당을 본래 위치(현 위치)로 이 건 정비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건된 대성전(大成殿)은 기존의 부재를 그대로 사용되었고 일부 부식된 부재를 교체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sup>112)</sup> 특히, 선조 35년(1602)에 중건된 대성전(大成殿) 위치로 다시 돌아왔다는데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후에도 1904년 8월에 밀양군수로 부임한 조종서(趙鍾緒)에 의하여 명륜당(明倫堂)이 중수되었다.<sup>113)</sup> 그 후 광무 10년(1906)에는 명륜당(明倫堂)이 진성학교 교실로 사용되었고, 일제강점기인 1920년부터 1925년까지는 밀양 집성학교의 교실로 사용되었다. 근대학교로 사용될 당시에도 명륜당(明倫堂)의 기본골격은 변경되지 않았다. 그밖에 1958년 명륜당(明倫堂)의 변화 보수가 있었고, 1971년 대성전 및 명륜당 단청공사, 1982년 명륜당 지붕 변화공사, 1988년 대성전, 서무, 내삼문의 변화 보수, 1997년에도 대성전 및 명륜당 부분이 보수되었다. 2002년 대성전 구역 담장보수, 명륜당 온돌방 보수가 있었으며, 2004년에는 명륜당 단청공사, 서무 해체 보수공사가 있었다. 2006년 대성전 단청부분이 보수되었으며, 2018년 대성전 연목이상 해체보수공사를 통해 지붕 변화 및 부식된 연목과 풍판 등의 수리가 있었다. 또한 2019년 10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명륜당 기둥 드잡이 및 부식재 교체, 지붕 변화 보수, 단청공사 등이 있었다.

## 2) 건축특징

### (1) 대성전

대성전(大成殿)은 5성(五聖), 송조 2현(宋朝二賢), 우리나라 18현(十八賢)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대성전(大成殿)의 평면적 특징을 살펴보면,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

112) 이 건 당시 대성전(大成殿)은 선조 35년(1602)에 중건된 건물의 골격을 그대로 하였지만, 공포부재 등에서 조선중기의 형식과 조선말기의 형식의 혼재되어 있어 이러한 정황을 파악할 수 있다.

113) 이에 대한 기록은 광무 8년(1904) 갑진년 7월에 쓰여진 『명륜당중수기(明倫堂重修記)』에 나와 있다.

부바닥은 장마루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장마루는 근래에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당초에는 방전이 깔려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평면의 규격을 살펴 본 결과, 도리방향으로는 어칸이 4,140mm, 좌우협칸이 3,750mm 정도로 총길이 11,640mm 정도의 치수분포를 보이고 있고, 보방향으로는 각각 3,530mm, 3,460mm 정도로 총길이 6,990mm 정도의 치수분포를 보인다. 평면의 정면과 측면의 비율은 1.67 : 1의 비율로 구성되어 정면과 측면의 비는 황금비에 가까운 비율로 나타났다. 한편, 조선중기의 용척(用尺)인 영조척(營造尺) 1척(尺) 당 306mm<sup>114</sup>를 적용하여 환산해 보면, 정면 어칸은 13.53척(尺), 좌우협칸은 12.26척(尺)이 나온다. 측면 주칸은 각각 11.54척(尺), 11.31척(尺)이 나온다. 실측 및 시공오차 등을 감안해 보면, 정면의 어칸은 대략적으로 13.5척(尺)을 기준으로 하고, 좌·우협칸은 어칸보다 1척(尺) 정도 줄여 12.5척(尺)으로 설정하여 간살을 잡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좌·우측면의 주칸은 각각 11.5척(尺)을 기준으로 간살을 잡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정면의 어칸 폭을 좌·우협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1척(尺)정도 넓게 잡은 것은 위계에 의한 시각적 안정감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성전(大成殿)의 공포와 가구짜임을 살펴보면, 이 건물은 선조 35년(1602)에 명륜당(明倫堂) 동남쪽 아래에 중건되어 있다가 순조 20년(1820)에 명륜당(明倫堂)의 서쪽인 본래 위치(현 위치)로 이건 되었다. 이건 당시 기존의 목부재 중 부식재 등은 신부재로 교체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가져와 사용되었다. 즉, 현재 건물의 공포는 정면과 배면의 익공이 다르게 조각된 것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200년이란 시차를 두고 조선중기와 조선후기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건축양식사 차원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물이다.

이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겹처마 맞배지붕으로 구성된 익공계 건축양식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기단은 긴 장대석을 이용하여 5단에 의한 갑석으로 마무리한 높은 기단을 조성하였다. 초석은 주좌가 있는 가공초석과 평평한 자연석 그대로를 사용한 덩벙초석이 혼재되어 있다.<sup>115</sup> 초석 위에는 민흘림이 있는 원주(圓柱)를 세워 창방 위에 주두를 놓고 공포(栱包)를 짜 넣어 지붕을 받쳤다. 여기에서 대성전(大成殿)의 공포 짜임새에 대한 특징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포의 출목수는 외1출목으로 초익공, 이익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면과 배면에 사용된 익공과 첨차의 조각수법이 다르다. 즉, 배면은 1602년 중건 당시의 것이고, 정면은 1820년 이건 이후 것으로 다른 형식적 특징을 보여준다. 우선 정면의 공포를 보면, 초익공과 이익공 살미의 쇠서 길이는 건물에 비례하여 적정하며, 약간 세장하고, 초익공 살미의 쇠서는 약간 짧은 양서로 상하에 연화와 연봉

114) 대성전(大成殿)이 조선중기인 선조 35년(1602)에 중건되어 이 당시 용척(用尺)인 영조척을 적용하였으며, 이 용척은 단지, 평면의 간살잡이를 얼마정도의 비율로 설정했는가를 보기 위한 수단으로만 적용하였다. 근본적인 용척의 해석은 아님.

115) 주좌가 있는 가공초석은 이 건물의 것이 아니고 중건 당시 다른 곳에서 가져온 초석으로 추정된다.

이 초각되어 있으며, 이익공 살미의 쇠서는 수서형으로 상하에 연봉이 초각되어 있다. 정면 초익공과 이익공의 내단은 쌍S자형으로, 배면의 내단보다는 짧게 처리되었다. 전체적으로 운문에 의한 연화와 연봉으로 매우 화려하게 초각되었다. 그리고 외목도리를 받고 있는 행공침차는 쌍S자형의 운문이 초각되어 있는 반면, 주심도리를 받고 있는 주심침차는 교두형으로 간단하게 되어 있어, 침차의 쓰임에 따라 다른 양상의 모습을 보여 준다. 그리고 배면의 공포를 보면, 초익공과 이익공 쇠서는 거의 유사한 형식으로 초각되어 있다. 이 모두는 정면의 것과는 다르게 약간 세장하고 끝을 뾰족하게 하여 수평으로 길게 뽑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운문으로 초각되어 있다. 초익공과 이익공의 내단 또한 정면과는 다르게 약간 길게 뽑아 대량을 받고 있다. 그리고 침차는 정면과 같은 형식으로 외목도리를 받는 행공침차는 쌍S자형의 운문이 초각되어 있고, 주심도리를 받고 있는 주심침차는 교두형으로 간단하게 되어 있다.

둘째, 주두는 굽의 단면형이 직선으로 사절되고 굽받침이 없다.

셋째, 대량(大樑)의 보머리를 수평으로 뺀어 이익공 위에서 걸쳤으며, 정면에는 대량의 끝에 봉두가 배면에는 운공이 끼워져 있다.

넷째, 주심도리는 대량 위에, 외출목도리는 이익공 위에 놓였다.

다섯째, 주간의 창방 가운데 위에는 정면의 익공 쇠서의 연봉과 유사한 모습의 연봉과 꽃병 등이 화려하게 조각되어 있는 화반이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대성전(大成殿)의 공포짜임과 함께 익공계 맞배지붕으로서의 가구(架構) 짜임새 특징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건물은 외진평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둥은 원주(圓柱)에 민흘림으로 치목되어 있다.

둘째, 상부가구는 외출목도리와 주심도리와 중도리, 종도리로 5량가의 삼분변각으로 처리하였다.

셋째, 이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내진기둥이 없으며, 외진평주에서 곧바로 대량을 받았고, 대량위에 포동자주를 세워 종량과 중도리를 받았으며, 종량 위에는 대공으로 종도리를 받고 있다. 어칸과 좌·우협칸 대량위에 사용된 포동자주와 대공은 어칸에 사용된 것과는 다른 형식의 것이 사용되었다. 어칸의 포동자주와 대공은 화려한 운문으로 조각된 반면, 좌·우협칸의 포동자주는 빗각의 판재와 대공은 상부가 아치형으로 조각되어 있어, 고행(古形)의 수법이 적용된 수수한 모습으로 처리되었다.

넷째, 주심도리 및 중도리는 각각 대량과 종량 위에 직접 놓았으며, 중도리받침장여와 종도리받침장여 사이에는 뜯장여를 한번 더 걸쳐 구조적으로 보강되었다.



이상과 같이 대성전(大成殿)의 공포와 가구짜임을 종합해 보면, 우선 공포는 정면과 배면에 설치된 익공의 양식적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면의 초익공, 이익공 살미의 쇠서는 연화연봉 양서형 및 연봉 수서형으로 장식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배면의 초익공과 이익공 살미의 쇠서는 강직하고 가늘게 수평에 가깝게 약간 위로 구부러져 올라갔는데, 명륜당(明倫堂)에서 보여주는 공포와 거의 같은 고풍(古形)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정면의 것은 19세기인 조선후기의 화려한 장식성이 강한 익공의 모습을 보여주고, 배면의 것은 쇠서나 운공에서 고풍의 수법이 일부 남아 있는 17세기 조선중기의 익공계 형식수법이 일부 남아 있다. 이 건물의 가구형식(架構形式)은 외출목도리, 주심도리, 중도리, 종도리로 구성된 5량가로 구성하였다. 외진평주(外陳平柱)는 이익공 위에서 대량을 받았으며, 대량과 종량 사이에는 포동자주를 세우고, 뜬장여를 직교시켜 중도리를 받았는데, 구조적 취약성을 뜬장여로 한번 더 보강함으로써 상부로부터 오는 하중을 합리적으로 분산 처리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주었다. 이러한 특징은 명륜당(明倫堂)의 가구형식과 상당히 유사하며, 조선중후기 향교건축의 가구구성 수법에서 많이 적용되었다. 따라서 한 건물에서 조선중기의 모습과 조선후기의 수법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정면 주칸마다 각각의 출입문이 이 설치되어 있는데, 창호를 설치하기 위해 반연귀맞춤으로 된 굵은 문설주에 두짝여단이판장문의 고졸한 모습도 이러한 맥락에서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 (2) 명륜당

명륜당(明倫堂)은 향교에 있어서 유생들을 교육하는 공간이면서 일부 교수나, 훈도가 기거하는 공간으로 활용되는 시설이었다. 밀양향교(密陽鄉校)의 명륜당(明倫堂) 또한 가운데 대청마루를 놓고, 좌우에 온돌방을 설치하는 전형적인 공간구성으로 되어 있다. 즉, 정면 기준으로, 좌우퇴칸은 전면에 뒷마루가 있는 온돌방으로 구성하고 나머지 어칸과 좌우협칸인 3칸은 대청마루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대청마루 배면쪽에는 쪽마루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좌·우측 온돌방 전면에는 각각 머름 위에 두짝여단이세살창이 설치되어 있으며, 대청마루에서 출입문은 각각 두짝여단이격자살문과 분합문이 설치되어 있다. 대청마루 후면 주칸마다 판벽에 의한 두짝여단이당판문이 설치되어 있다.

명륜당(明倫堂)의 평면적 특징을 살펴보면, 정면 5칸 측면 2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면의 규격을 살펴 본 결과, 도리방향으로는 어칸이 3,900mm, 좌·우협칸이 3,900mm, 좌우퇴칸이 3,420mm 정도로 총길이 18,540mm 정도의 치수분포를 보이고 있고, 보방향으로는 각각 3,180mm 정도로 총길이 6,360mm 정도의 치수분포를 보인다. 조선중기의 용척(用尺)인 영조척(營造尺) 1척(尺) 당 306mm<sup>116)</sup>를 적용하여 환산해 보면, 정면기준으로, 어

116) 명륜당(明倫堂)이 조선중기인 광해군 10년(1618)에 중건되어 이 당시 용척(用尺)인 영조척을 적용하였으며, 이 용척은 단지,

칸과 좌·우협칸은 13.75척(尺), 좌·우퇴칸은 11.18척(尺)이 나온다. 측면 주칸은 각각 10.39척(尺)이 나온다. 실측 및 시공오차 등<sup>117)</sup>을 감안해 보면, 정면의 어칸과 좌·우협칸은 대략적으로 13.75척(尺)을 기준으로 하고, 좌·우퇴칸은 어칸과 좌·우협칸보다 2.5척(尺)정도 줄여 11.25척(尺)으로 설정하여 간살을 잡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좌우측면의 주칸은 10.5척(尺)을 기준으로 간살을 잡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정면의 어칸과 좌우협칸의 주칸 폭을 좌우퇴칸보다 상대적으로 2.5척(尺) 넓게 잡은 것은 강론을 펼치는 강당으로서의 대청마루를 강조하고, 시각적 안정감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명륜당(明倫堂)의 공포와 가구짜임을 살펴보면, 이 건물은 광해군 10년(1618)에 현 위치에서 건립되었다. 건립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수리되었으나, 큰 변화 없이 중건당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sup>118)</sup> 따라서 대성전(大成殿)과 건축 특징적 측면에서 유사성을 발견되고 있으며, 조선중기의 건축양식적 양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건축양식사 차원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물이다.

이 건물은 정면 5칸, 측면 2칸의 겹처마 맞배지붕으로 구성된 익공계 건축양식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기단은 자연석을 바른층쌓기로 하여 높은 기단을 조성하였다. 초석은 평평한 자연석 그대로를 사용한 덩벙초석으로 되어 있다. 초석 위에는 민흘림이 있는 원주(圓柱)를 세워 창방으로 결구하고 기둥 위에 주두를 놓고 공포(栱包)를 짜 넣어 지붕을 받쳤다. 여기에서 명륜당(明倫堂)의 공포 짜임새에 대한 특징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포의 출목수는 외1출목으로 초익공, 이익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면과 배면에 사용된 익공과 첨차의 초각수법이 거의 동일하다. 여기에서 사용된 익공은 대성전(大成殿)의 배면에 있는 것과 같은 초각수법이 적용되었다. 즉, 초익공과 이익공의 살미 쇠서는 거의 유사한 형식으로 초각되는데, 약간 세장하고 끝을 뾰족하게 하여 수평으로 길게 뽑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운문이 초각되어 있다. 초익공과 이익공의 내단은 놓이는 위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대청마루가 있는 어칸과 좌우협칸의 것은 대성전(大成殿) 배면의 초익공, 이익공 내단과 같이 약간 길게 뽑아 대량을 받고 있다. 온돌방이 있는 익공 내단의 경우, 이익공의 내단이 주두 위에서 온돌방의 가운데 기둥까지 연장되어 대량을 받치는 인방부재로 구성하였고, 초익공은 이익공의 내단 하부에 간단하게 직절된 짧은 부재로 받치고 있다. 그리고 첨차는 정면과 배면이 다른 형식의 것이 사용되었다. 정면 외목

평면의 간살잡이를 얼마정도의 비율로 설정했는가를 보기 위한 수단으로만 적용하였다. 근본적인 용척의 해석은 아님.

117) 밀양향교 기록화조사보고서에 수록된 명륜당 실측조사도면은 보수도면의 실측치와 같아 정밀실측에 의한 정확한 치수데이터가 아니므로 중건당시의 용척을 적용한 분석은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음.

118) 명륜당이 현 위치에서 1618년 중건된 이래 현종연간(1660~1674), 1803년, 1904년, 1971년, 1982년, 1997년, 2004년, 2020년 등 수리가 있었다.

도리를 받는 행공첨차는 쌍S자형의 운문이 초각되어 있고, 주심도리를 받는 주심첨차는 연화가 좌우에 있는 쌍S자형으로 초각되어 있다. 배면은 외목도리를 받는 행공첨차와 주심심도리를 받는 주심첨차 모두가 교두형으로 되어 있다.

둘째, 주두는 굽의 단면형이 직선으로 사절되고 굽받침이 없다.

셋째, 대량(大櫟)의 보머리를 수평으로 뺀어 이익공 위에서 걸쳤으며, 대량의 끝에는 운공이 끼워져 있다.

넷째, 주심도리는 대량 위에, 외출목도리는 이익공 위에 놓였으며, 주칸 가운데 창방 위에는 화반이 설치되어 있는데, 정면의 것은 연봉과 운문이 초각되어 있는 반면, 배면의 화반은 판재에 운문이 단청된 것이 설치되었다.

그리고 명륜당(明倫堂)의 공포짜임과 함께 익공계 맞배지붕으로서의 가구(架構) 짜임새 특징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건물은 외진평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둥은 원주(圓柱)에 민흘림으로 치목되어 있다.

둘째, 상부가구는 외출목도리와 주심도리와 중도리, 종도리로 5량가의 삼분변작으로 처리하였다.

셋째, 이 건물은 정면 5칸 측면 2칸으로 온돌방을 제외한 대청마루에는 외진평주에서 곧바로 대량을 받았고, 대량위에 포동자주를 세워 종량과 중도리를 받았으며, 종량 위에는 대공으로 종도리를 받았다. 대성전(大成殿)과 마찬가지로 대청마루와 온돌방 대량위에 사용된 포동자주와 대공의 형식이 다르게 사용되었다. 대청마루 대량위의 포동자주와 대공은 화려한 운문으로 조각된 반면, 온돌방 대량위의 포동자주는 빗각의 판재로 되어 있으며, 대공은 일반적인 판대공으로 되어 있다.

넷째, 주심도리 및 중도리는 각각 대량과 종량 위에 직접 놓았으며, 종도리받침장여 사이에는 뜯장여를 한번 더 걸쳐 구조적으로 보강하였다.

이상과 같이 명륜당(明倫堂)의 공포와 가구짜임을 종합해 보면, 우선 공포는 정면과 배면에 설치된 익공의 양식적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면의 초익공, 이익공 살미의 쇠서는 대성전(大成殿)의 배면에 있는 익공과 같이 강직하고 가늘게 수평에 가깝게 약간 위로 구부러져 올라가 고행(古形)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대성전의 익공과 비교해서 17세기 중건 당시의 익공계 초각수법을 보여주고 있다.

이 건물의 가구형식(架構形式)은 외출목도리, 주심도리, 중도리, 종도리로 구성된 5량가로 구성하였다. 외진평주(外陳平柱)는 이익공 위에서 대량을 받았으며, 대량과 종량 사이에는 포동자주를 세우고, 종량과 직교시켜 중도리를 받았다. 종도리는 구조적 취약성을 뜯장여로 한번 더 보강하므로서 상부로부터 오는 하중을 합리적으로 분산 처리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주었다. 이러한 특징은 대성전(大成殿)의 가구형식과 상당히

유사하며, 조선중후기 향교건축의 가구구성 수법에서 많이 적용되었다.

### 3.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14호로 지정된‘밀양향교(密陽鄉校)’중 대성전(大成殿)과 명륜당(明倫堂)을 현지 조사하여 검토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가지정 보물 승격의 당위성이 있다. 첫째는 밀양향교(密陽鄉校)는 남북이 좁고 동서로 긴 경사지에 위치한 좌묘우학(左廟右學)의 병렬형 배치 향교로,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유형의 향교를 대표하는 사례로 그 중요성이 있다. 그리고 대성전(大成殿)과 명륜당(明倫堂)에 대한 창건 시기는 불명확하나 여러 문헌기록을 종합해 볼 때, 고려 중기로 추정되는데, 현재의 건물들은 아니며 이러한 건물들은 임진왜란 당시 소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 당시 위치도 현 위치가 아닌 용가역(龍駕驛)이 있던 용지리(龍池里)에 있었는데, 임진왜란으로 향교의 모든 전당이 소실되어 선조 35년(1602) 부사 최기(崔沂)가 향교를 읍치(邑治)에서 가까운 현 위치로 옮겨 대성전(大成殿)을 우선 중건했다. 그런데 광해군 8년(1616)에 대성전(大成殿)의 대량이 부러지는 피해가 발생하여 유림에 불길하다 하여 원래 위치에서 명륜당(明倫堂) 기준으로 낮은 터인 동남쪽으로 이건하였으며, 광해군 10년(1618)에는 현재의 위치에 명륜당(明倫堂)이 중건되었다. 200여년이 흐른 순조 20년(1820)이 되어 부사 이현시(李玄始)의 주도로 대성전(大成殿)을 비롯한 문묘의 건물들을 현 위치로 이 건했는데, 이것은 당초 위치인 곳으로 되돌아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그렇기 때문에 대성전(大成殿)과 명륜당(明倫堂)에 대한 정확한 기록과 함께 조선중기에서 조선후기에 걸쳐 이 건 및 수리에 대한 내역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조선중기인 17세기 중건 당시의 모습을 어느 정도 간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 둘째, 순조 20년(1820) 대성전(大成殿)을 이 건하면서 기존의 부재를 가져와 조립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일부 부식재를 교체하였는데, 정면과 배면의 공포부재 조각 수법이 다른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즉, 대성전(大成殿)을 이 건하면서 1602년 중건 당시의 익공 살미와 첨차 중 잘 남아있는 것은 배면에 재사용하고, 새로이 채택된 장식성이 강한 익공과 살미와 더불어 화반까지 새로운 익공형식으로 변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변화된 모습은 1618년에 중건된 명륜당(明倫堂)과 1820년에 이 건된 대성전(大成殿)의 공포부재 등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에 17세기 조선중기에서 19세기 조선후기의 건축조형수법이 혼재되어 있어 200년이란 시차를 두고 나타난 변화된 모습은 건축양식사 차원에서도 그 가치가 매우 높다.

그러므로‘밀양향교(密陽鄉校)’는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을 대표하는 옛 교육기관의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또한 대성전(大成殿), 명륜당(明倫堂), 동무(東廡), 서무(西廡), 내삼문(內三門)도 조선중기의 건축특징을 보여주고 있고, 이중에서도 대성전

(大成殿)과 명륜당(明倫堂)은 향교를 대표하는 건축물로 공포의 구성과 세부형식, 건설한 결구 등에서 건축문화재로서의 우수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지정 문화재(보물)’로 승격 지정할 만한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 7. 상주향교 대성전, 동무·서무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 가. 제안사항

경북 상주시 소재 「상주향교 대성전, 동무·서무」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북 상주시 소재 「상주향교 대성전, 동무·서무」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경상북도지사
- (2) 대상문화재 :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55호 「상주향교 대성전」
  - 소재지 : 경상북도 상주시 신봉2길 111 (신봉동 203-1)
  - 지정일 : 1982. 02. 24.
-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 명칭 : 상주향교 대성전, 동무·서무(尙州鄕校 大成殿, 東廡·西廡)
  - 소유자(관리자) : 경상북도향교재단(상주향교)
  - 소재지 : 경상북도 상주시 신봉2길 111 (신봉동 203-1)
  - 조성연대 : 조선시대(대성전 1610년 재건, 1617년 중건/동무·서무 1612년 중건)
  - 수량 : 3동
  - 지정면적 : 지정구역 839.5㎡(보호구역 7,259.5㎡)
  - 양식 :
    - 대성전 : 정면5칸, 측면3칸, 2익공, 양 측면 2고주 7량가, 내부 1고주 7량가, 겹처마, 맞배지붕

- 동무 : 정면10칸, 측면1.5칸, 민도리, 1고주 5량가, 홑처마, 맞배지붕
- 서무 : 정면10칸, 측면1.5칸, 민도리, 1고주 5량가, 홑처마, 맞배지붕

라. 현지조사의견(2020.06.24.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연구소 ○○○)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연구소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마. 지정조사보고서 : 붙임참조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대성전 영역을 한 건으로 지정하며, 명칭은 “상주향교 대성전·동무·서무”로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원안가결 1명, 조건부가결 9명, 부결 1명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0.06.24	대상문화재	상주향교 대성전, 동·서무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속		직위(직책)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상주향교 대성전, 동·서무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 년 10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1. 입지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1) 입지현황

상주향교는 상주시 신봉2길 111, 상주 시내 중심가에서 약간 떨어진 신봉동에 위치하고 있다. 주위는 비교적 완만한 구릉지로 산세를 보면 비봉산을 주산으로 삼고 안산은 우면산이다. 터는 남산 구월봉(九月峯) 산자락을 뒤로 두고 남향으로 좌향을 잡았다. 완만하게 경사진 구릉지에 정남향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상주목의 향교에 관해 “주 남쪽 5리에 있고 남루(南樓)가 있다. 선덕(宣德) 초년에 판목(判牧) 조치(曹致)가 세웠다. 홍여방(洪汝方)이 기를 지었다.”고 기록하였다. 『상산지』에도 상주향교의 위치는 “鄉校在州南五里有” 지점으로 적혀 있다. 조선시대 향교의 위치는 지역마다 미세한 차이는 있으나 읍치에서 4리 정도 거리를 둔 지점에 자리를 잡는 경향을 보인다. 상주향교는 상주목에서 5리 지점에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상주향교의 위치를 두고 구월봉 북쪽에 있다가 중년에 현재 자리로 옮겼다는 기록이 『상주지』(1989, 122쪽)에 있으나 원전이 확실치 않은 문제가 있다. 구월산 북쪽은 급경사지여서 향교가 들어설 입지조건을 갖추지 못한 흔적도 없어 현재 위치는 창건 당시부터 유지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sup>119)</sup>

대지의 경사를 이용하여 전면에 강학영역을 두고 후면에 제향영역을 배치하였으며, 명륜당 뒤로 동·서재를 둔 전당후재 배치를 취하고 있다. 동재 후면에 교직사를 비롯한 시설이 들어서 있다. 내삼문 안에 남북 방향으로 동·서무를 두고, 중앙에 대성전이 자리 잡은 배치를 취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지의 경사를 활용하여 남북 종축선상에 대성전과 명륜당을 두었는데, 대지 형상으로 인해 강학영역은 동서로 넓은데 비해 제향영역은 마당이 남북으로 긴 편이다.

하지만 현재 상주향교 주변은 담장이 미흡하고 시가지화로 인해 진입부가 다소 어수선한 편이어서 정비가 필요하다.

### 2) 역사문화환경

상주는 삼한시대부터 낙동강을 중심으로 농경문화가 발달하였고 수륙 교통이 교차하는 요충지였다. 삼한시대에 고대국가 가운데 하나인 沙伐國이 존재했고, 삼국시대에는 사벌주로 불리다가 상주(尙州)로 이름을 고쳤다. 통일신라시대에는 전국 9주(州) 가운데 한 주로 자리 잡았다. 고려시대에 들어서 983년(성종 2) 12목을 설치하면서 상주에는 상주목을 두었다. 고려조 이후에는 상주목이 되어 경상도를 관할하는 절도사가 있었다. 이제현은 “동남로(東南路) 주군 가운데 경주가 가장 크고 상주가 그 다음이다. 그 도의 이름이 경상인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사명을 받는 자는 반드시 먼저 상주를 거친

119) 정명섭·조영화, 「상주향교의 배치형식 변천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40호, 2004 참조.

뒤 경주에 이르는 까닭에 풍화(風化)의 유행은 상주를 말미암아 남으로 갔지 일찍이 경주를 말미암아 북상한 적은 없었다.”<sup>120)</sup>고 적고 있어 고려시대에 상주가 지닌 문화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조선조에 들어서서는 1408년(태종 8) 경주에서 상주로 감영을 옮긴 이후 200여년동안 경상감영이 이곳에 자리하였다. 1601년(선조 34) 경상감영은 대구도호부로 이전하였지만 상주는 성읍국가시대부터 조선중기까지 영남지방 정치경제의 중심지였다. 조선시대 상주목에는 선산도호부와 성주목, 군이 3개(합천, 초계, 금산), 속현 7개(청리, 화령, 중모, 단밀, 산양, 공성, 영순), 현이 7개(고령, 개령, 함창, 용궁, 문경, 군위, 지례) 있었다. 조선말까지도 상주목(함창 포함)은 31개 면, 1,591.63km<sup>2</sup>정도의 행정구역 면적을 가진 대읍이었다.<sup>121)</sup> 1895년에는 안동부 상주군으로 개편되었으며, 이듬해에 경상북도 상주군으로 개편하였다. 1986년 상주시가 설치되었고, 1995년 상주시 일원과 상주군 일원을 관할로 도농 복합 형태의 상주시가 설치되었다.

조선전기 200여년간 경상감사의 본영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던 상주목은 동시에 물류의 거점이었다. 낙동강에 접하면서 강의 하류인 부산에게 내륙까지 큰 화물선이 올라와 큰 장시를 이룬 곳이 낙동진(洛東津)이었다. 이곳에서는 중부 내륙에 공급되는 소금 등 생필품이 거래되는 집산지였으며, 해상과 육지의 물류가 이동하는 종점이었다. 지방 행정의 세곡, 물류의 이동은 낙동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주목의 역할은 비중이 높았다. 상주목의 관할 구역을 낙동강을 따라 물류가 이동하는 구역은 상주목 관할 구역으로 정하여 상주목사와 경상감사가 수행하도록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sup>122)</sup>

또 다른 측면에서 상주향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 사족층의 형성과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주는 15세기 이후부터 타 지역의 많은 사족들이 상주의 토성토족(土姓土族)이었던 상산김씨(尙山金氏)와 혼인을 통해 상주로 이거하였다. 이들은 재지사족으로 성장하여 향교와 서원을 세력 근거지로 삼아 상주지역에 사족사회를 이끌어내었다. <sup>123)</sup>

조선시대의 향교는 서원과 함께 재지사족층이 출입하며 향론을 만들어가던 곳으로 일종의 향촌기구의 성격을 띠었다. 이런 향교의 기능은 동일 지역내에 성격을 달리하는 각각의 사족세력들에게 새로운 경쟁을 부추겼다. 각 세력들은 향교의 장악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18세기 노론 세력의 확장에 따라 향교의 주도권을 놓고 각 세력이 대립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세력간 대립은 향교의 향촌내의 위상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17세기 상주향교의 양반사족들은 『청금록』을 작성하여 스스로를 청금유생

120) 이재현, 『익재난고』 권5, 序, 送安大夫赴尙州牧序, 1343년 상주목사로 부임하는 근재 안축에게 준 서문.

121) 김상호, 「고지도로 본 상주의 역사문화」, 『옛 지도로 재현하는 경상도 상주』, 2015, 10~11쪽.

122) 김상호, 「고지도로 본 상주의 역사문화」, 『옛 지도로 재현하는 경상도 상주』, 2015, 13~14쪽.

123) 권오덕·최기척, 「조선후기 상주향교 소장 고서의 서지적 분석」, 『서지학연구』81, 2020, 210쪽

이라 칭하며 향교 운영을 독점하였다.<sup>124)</sup>

임진왜란 전후 서원 건립이 본격화되어감에 따라 향교의 교육기능이 점차 서원으로 대체되어 가는 추세였지만, 그에 반해 제례기능은 더욱 강화된 측면이 있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향교는 공자와 선현의 위패를 모신 곳으로, 유학의 상징이었으며 지방민들에게 유교이념을 보급하는 교화의 중심지로서 기능이 컸다.

또한 향교는 각종 제례의 장소인 동시에 제례 후 향중 범사를 논의하는 중요한 일종의 회의소 역할도 지니고 있었다. 상주향교에서도 대제(大祭) 후 향교 운영의 책임자인 도유사(都有司)를 정출하고 각 지역 도유사는 상주의 수원(首院)인 도남서원의 재임(齎任)과 함께 과거응시 도목(都目)인 부거도목(赴學都目)을 작성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sup>125)</sup> 다시 말해서 조선후기 향교는 교육 보다는 유교이념의 상징으로서 향사기능을 유지한 가운데 지방 유림들의 집결 장소로 존재하고 있었다.

현재 상주향교는 매년 음력 2월과 8월 초정일에 향사를 거행하며, 문서 등의 자료가 다수 전해지고 있는데 상주박물관이 위탁·관리하고 있다.

## 2. 상주향교의 연혁 유래 및 특징

### 고려시대의 상주향교

고려시대 향교의 설치는 지방제도 정비와 깊은 관계에 있다. 서경 이외의 지방에 관한 기구를 설치한 시기는 983년(성종 2)인데, 상주는 12목 가운데 하나였으므로 이 무렵에 향교를 마련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근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상주향교의 존재를 알려주는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이른 기록은 최자(崔滋, 1188~1260)가 쓴 글로 『보한집』에 보인다. “1247년(고종 34) 봄에 왕명을 받들고 동남로(東南路)에 출진하였는데, 상락(上洛, 상주의 옛 이름)을 순력하게 되었다. 목수(牧守, 목사)로부터 향교의 여러 유생(鄉校諸生)에 이르기까지 시가(詩歌)와 인(引가)과 계(啓)를 바치기 위해 줄지어 선 것이 길을 가득 메울 정도였다.”는 내용이다. 최자는 상주의 장서기(掌書記)를 거쳐 나중에는 오두(遨頭, 수령)이 된 인물로 임기가 끝난 뒤 4년째 되는 이 해에 상주를 순력하며 상주향교의 유생들에게서 시가 등을 받은 것이다. 이날 나이가 칠팔십 여세 되는 네 명의 노인(尙原四老)은 짧은 인(引)과 절구시(絕句詩) 4수를 최자에게 바쳐<sup>126)</sup> 환영하였다.

『보한집』에서 최자가 언급한 향교제생은 상주향교의 여러 유생을 지칭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은 향공을 준비하는 유생들로 보고 있다.<sup>127)</sup> 이들과 별도로 상원사로는 상주

124) 유기선, 「17~8세기 상주향교의 청금유생」, 『한국서원학보』 제5호, 52~67쪽.

125) 유기선, 「17~8세기 상주향교의 청금유생」, 『한국서원학보』 제5호, 38쪽.

126) 최자, 『보한집』 권하, 고려시대사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국사편찬위원회.

를 대표하는 인물로 여겨진다. 이들이 읍은 가시와 인계로 미뤄 유학과 더불어 활발한 문학 활동을 짐작할 수 있다.

1343년(충혜왕 복위 4)에 상주목사로 부임한 안축(安軸, 1287~1548) 「상주객관중영기」를 남겼는데, 여기에 당시 상주향교를 비롯한 읍성 내 주요 시설의 실상이 드러나 있다. “상주는 최근 몇 년 사이 학정(虐政)에 시달려 백성과 물산이 유리되고 흩어져 마을이 쓸쓸하였고, 예전의 관사(官舍)·학교(學校)·신사(神祠)·불사(佛寺) 등이 모두 이미 무너져 있었다. 그런데도 오직 객관(客館)만은 온전하여 크고 높으며 으리으리한 것이 영남의 으뜸이었다.”<sup>128)</sup>고 적었다. 상주가 퇴락하게 된 연유는 학정에 있었고, 관사를 비롯하여 학교, 신사, 불사 등 주요 공공시설이 모두 이미 무너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 조선전기 상주향교의 건물과 배치

조선전기 상주향교를 이룬 건물과 배치를 가늠할만한 사료는 드문 편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학교 조에 “향교는 주 남쪽 5리에 있고, 남루가 있다. 선덕(宣德) 초년에 판목(判牧) 조치(曹致)가 세웠다. 홍여방(洪汝方, ?~1438)이 기를 지었다.”는 짧은 내용이 전해진다. 사료 조에는 문묘가 향교에 있다는 기록이 있다.<sup>129)</sup>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을 정리하면, 선덕(1426~1435) 초년에 판목사였던 조치가 향교에 남루를 세웠으며, 문묘는 향교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 이 기록을 좀 더 확대해본다면, 향교 시설로는 남루만 부가하면 될 상황이었고, 문묘는 제향에 불편이 없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여타의 상황은 추론에 불과하다.

상주향교는 강구손(姜龜孫, 1450~1505) 목사가 부임한 뒤에 향교를 수리하였다. 강구손은 1486년 중시문과에 이등으로 급제하여 상주목사로 나가게 되었다.<sup>130)</sup> 당시 상황은 홍귀달이 기문으로 남겼는데, 「상주향교 중수기」<sup>131)</sup>이다. 홍귀달의 문집에 실린 연보를 보면 1492년인 성종 23년(임자) 그의 나이 55세 되던 해에 「상주향교중수기」를 지었다.<sup>132)</sup> 강구손이 목사로 부임한 시기를 감안하면 향교를 중수하고 나서 6년이 지나고 난 뒤에 기문을 지었음을 알 수 있다.

「상주향교중수기」 가운데서 건축공사와 관련된 내용만 발췌해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127) 문화재청·상주시, 「상주향교/대성전 동·서무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 2020, 16쪽.

128) 안축, 『근재집』 권2, 보유, 記, 상주향교중영기. 1327년(충숙왕 14)에 상주목사로 부임한 김영후가 지은 객관에 대한 기문을 뒤에 안축이 지었다.

129)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8, 경상도, 상주목.

13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표제어: 강구손.

131) 『허백정집』, 허백정문집 권2, 기, 상주향교중수기.

132) 『허백정집』, 허백정집속집 허백정연보. 문화재청·상주시, 「상주향교/대성전 동·서무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 2020, 17쪽에서는 「상주향교지」에 근거하여 강구손의 중수시기를 1486년(성종 17)로 제시하였으나 『허백정집』에 실린 홍귀달의 연보로 미뤄 1492년이 합리적인 해석으로 풀이된다.

보기로 한다.<sup>133)</sup> ①은 1486년 중수 이전 상주향교의 실상을 시사하는 단서를 적고 있다. 대성전이 3칸이며 누각은 5칸, 동재 5칸이란 규모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②강당의 존재를 알려준다. ①에 언급한 누각과 강당은 기록 방식으로 미뤄 별개 건물로 봐도 무리는 없다. 퇴락한 향교의 실상을 접한 목사는 재목을 모으고 기와를 구워 향교를 수축하는 공사를 추진하였다.

① 상주 고을의 향교는 건축한 지 오래되어 대성전 세 칸과 누 다섯칸의 기둥이 흔들려 기울어졌으며 서까래는 부러져 비가 줄줄 썩니다. 그리고 바람이 몰아쳐서 단청이 모두 벗겨지고 그림도 뭉개졌습니다. 동재(東齋) 다섯칸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 역시 창과 벽이 허물어지거나 파괴되었습니다. 담장 또한 부서지고 무너져 가슴이 아픈 채 장차 선성(先聖)을 편히 모시고 교사와 서생이 거처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②강구손 목사는 부임하자마자 선성과 선사를 배알하고 강당에 앉아 서생들에게 예를 받은 후에 전당과 재사를 돌아보고는 … 재목을 모으고 기와를 구해 향교 수축의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③목사께서는 백성들의 부역을 번거롭게 하지 않고 일을 상주 관아에서 직접 관장했습니다. 목사께서 직접 감독하여 일을 시키니 오랜 시일이 지나지 않아 기둥이 흔들리는 것은 바로 일으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부러진 서까래는 새로 갈아 넣고 재사의 허술한 곳에 창과 벽을 하여 정비하고 담장이 무너진 곳까지 모두 개축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의 인용한 중수기 가운데서 ③은 당시 벌어진 공사의 범위를 추측케 하는 실마리로 보인다. 백성들을 번거롭게 하지 않고 관아에서 공사를 직접 관장했다는 말도 관심을 끌지만 흔들리는 기둥을 바로 일으켜 세우고(드잡이) 서까래를 교체하고(연목 교체), 재사는 허술한 창과 벽을 하여 정비하고(미장공사) 무너진 담장을 개축했다는 말로 미뤄 이전 건물을 유지하면서 대대적으로 수리할 것으로 봐도 무리는 없다. 이후에는 1506년에 중창했다는 기록이 있으나 확실치 않다.

### 17세기초 상주향교의 중건

지리면에서 요충지였던 탓에 상주는 임진왜란의 피해를 심하게 입었다. 향교는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다. 전란을 겪고 난 뒤 17세기 상주·선산지역의 사림은 지역사회의 재건을 선도하면서 예교(禮敎)의 재건이 가장 중요한 급무로 이해하였다. 이들은 먼저 학교의 재건을 꾀하였다. 이는 상주·선산권 사람들만의 인식은 아니었다. 영남사람들의 공통된 인식이었다. 임진왜란으로 인해 파괴된 서원·향교의 복설이 진행되면서 서원

133) 「상주향교 중수기」 해석문은 문화재청·상주시, 「상주향교/대성전 동·서무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 2020, 30~31쪽을 참고.

의 창건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sup>134)</sup>

임진왜란 이후 상주향교는 1610년(광해군 2)에 대성전을 다시 지었다. 난이 평정된 뒤라 해도 사정이 여의치 않았을 텐데 급선무로 향교 중건을 목표로 삼은 것이다. 당시 중건공사는 지금 대성전 건물에 목서로 남아 있다. 강인은 1609년(광해군 1)에 상주목사로 부임한 인물로서<sup>135)</sup> 1612년까지 목사 자리에 있었다. 목서에서 이듬해 윤3월에 대성전을 완공한 것으로 적고 있어서 그는 부임하면서 곧바로 향교 중건에 착수한 것으로 짐작된다.

“皇明萬曆三十八年庚戌潤三月二十二日 大成殿成 牧使 晉昌君 姜綱 都廳前 掌令 趙翊 都有司 生員 金鳳儀 前洗馬 李堧 進士 黃廷幹 生員 金遠振 都色 尹希文 劉億 提督官 高尚顏 進士 康應哲 生員 高進(馬+展)運 進士 趙光璧 生員 金克誠 都色 尹希文 劉○ 木手 呂玉 李守 ○”<sup>136)</sup>

목사를 맡은 강인 외에도 여러 사람이 공사에 관여하였는데 중앙의 벼슬아치를 비롯하여 상주의 사족에서 아전에 이르기까지 두루 참여하였을 알려준다. 이들 가운데 이전(李堧)은 상주향교 대성전과 명륜당 상량문을 쓴 이준의 형이다. 이들 형제는 중앙관과 지방관을 역임한 인물로서 목사와의 교류를 나눴다.

1610년 대성전을 짓고 난 뒤 두해가 지난 1612년(광해 4)에는 목사로 부임한 한술이 주도하여 향교의 동·서무와 연당(蓮塘)을 창건하였다고 한다. 동·서무 건립시기 추정에 도움을 주는 이 사료는 『상주목선생안』에 실려 있다고 한다.<sup>137)</sup>

대성전에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들만한 사료는 바로 『商山誌』이다. 이 책은 1617년에 이준(李堧)이 사찬한 상주읍의 지방지로 목사로 부임한 강복성(康復誠)의 후원으로 시작하여 뒤를 이은 정호선(丁好善)의 재임기간에 완성하였다. 정호선은 1617년 2월에 상주목사에 제수되었다.<sup>138)</sup> 임진왜란 이후 상주목사로 온 인물 가운데는 흥미 있는 이력이 확인되는데, 강인, 강복성 두 사람은 광해군이 잠저에 있을 때 사부였다.<sup>139)</sup>

『상산지』에서 다른 향교에 관한 내용은 간략하다. 편의상 번호를 부여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①은 정덕 초에 목사 조치가 남루를 지었으며 흥여방의 기문이 있음을 기록하였

134) 『17·18세기 상주·선산권 지역사회와 서원·사우의 동향』, 127쪽.

135) 『광해군일기』 광해군 1년 6월 29일.

136) 문화재청·상주시, 『상주향교/대성전 동·서무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 2020, 19쪽. 해당 보고서에서는 목서 가운데 ‘大成殿成’을 누락하였으나 이 보고서를 쓰면서 원문을 바로 잡았다.

137) 문화재청·상주시, 『상주향교/대성전 동·서무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 2020, 20쪽.

138) 『광해군일기』 광해군 9년 2월 25일. 순암 안정복이 지은 『강원감사를 지내고 영의정에 추증된 고 동원 정공의 유사』를 보면 상주목사 재임 기간 그가 보인 행적은 목민관으로서 모범을 삼을만하였으며 청백하려고 스스로 노력하였다. 다른 기록에서는 부임하지 않았다고 하나 이 점은 순암의 기록과 다르다.

139) 『광해군일기』 광해군 2년 5월 17일. 광해군은 전주 부윤(全州府尹) 강복성(康復誠), 상주 목사(尙州牧使) 강인(姜綱), 판결사(判決事) 조진(趙振), 삭령 군수(朔寧郡守) 신응구(申應渠)를 뽑았다.

다. ②는 성화 연간에 목사 강귀손이 향교를 중창하였는데 그 대상은 성전, 재·루였으며 이를 흥귀달이 기문으로 남겼음을 알려준다. ③은 임진왜란으로 교사 전체가 소실되었다는 상황을 전해준다. ④는 난이 안정된 이후 목사로 온 정호선이 증언한 사실에 더해 이준이 지은 상량문의 존재를 알려준다.

- ① 正德初判牧曹致建南樓洪汝方有記
- ② 成化年間牧使姜龜孫重創聖殿及齋樓洪貴達有記
- ③ 壬辰亂校舍皆見燒
- ④ 亂定後牧使丁好善重建李竣作上樑文<sup>140)</sup>

그런데 이 기록에서 왜, 대성전에 목서로 남은 ‘만력38년(1610)’ 공사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단순한 누락으로 봐야할까. 그 단서는 중수 상량문에서 찾아진다. 이 상량문은 언급하였듯이 이준이 지은 글인데, 대성전 건축공사를 거론한 부분만 주목해보기로 한다. ①은 1610년 대성전 건립을 의미하는 글로 보인다. ②는 제향을 거행한 사실이고, ③에서 지적한 ‘오가의 형체는 넓지가 못하네’란 내용은 1610년에 건립한 대성전 실내가 비좁았을수 있음을 시사한다. ④는 이전 제도를 고치는 동시에 새롭게 했다는 말이다. ⑤는 대들보를 비롯한 큰 목재 등을 구하게 한 정황을 실었다.

... ①상주에 묘우가 건립된 것은 당시 전쟁이 종식되었을 때부터라네. ②오른쪽에는 두(豆)를 놓고 왼쪽에는 변(籩)을 놓아 이정(二丁)에 제향을 거행하였지만, ③굵은 기둥 [重楹] 과 겹겹이 쌓인 받침목 [疊栱] 과 오가(五架)의 형체는 넓지가 못하네. ④학궁의 담장은 바라봄에 걸맞지 않고, 높은 건물은 화려하게 고쳐야 한다네. 이에 이전의 제도를 고쳐서 널리 모방하여 혁신하였다네. ... 관하(館下)에서 제생을 부르니 경영과 서무를 꺼리지 않고, ⑤목수에게서 큰 나무를 구하게 하니 대들보와 기이한 재목에 부합되네. ...<sup>141)</sup>

결국 위에서 본 상량문의 내용을 통해 전란 직후 급히 대성전을 지었으나(규모는 불확실, 3칸일지 5칸일지 모호함) 규모가 제례를 지내기에 웅색하여 얼마 지나지 않은 1617년에 다시 지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1631년(인조 9)에 수리한 기록이 있으나<sup>142)</sup> 결국 현 대성전 건물은 1617년에 벌인 공사를 통해 지은 건물로서 이후 몇 차례 수리는 거쳤지만 현 대성전의 건립시기는 17세기 초반으로 설정해도 지나치지 않다.

140) 『상산지』v1, 한국학디지털아카이브, 한국학중앙연구원.

141) 문화재청·상주시, 『상주향교/대성전 동·서무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 2020, 25~26쪽

142) 문화재청·상주시, 『상주향교/대성전 동·서무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 2020, 20쪽

## 19세기 상주향교의 수리

도광 4년(1824), 도광신축(1841)<sup>143)</sup>으로 새겨진 명문와를 통해 이 시기에 수리는 추측되나 범위나 대상이 어느 건물인지는 불확실하다. 관심을 끄는 수리 기록은 1832년에 상주목사로 부임한 유병주가 남긴 「향교명륜당중수기」인데, 이에 의하면 불우(佛宇)를 헐어다가 제도를 키웠다<sup>144)</sup>는 내용이 들어있다. 현재 향교 안에서 발견되는 가공된 석재로 미뤄 충분히 납득이 가는 기문이며, 공사대상은 명륜당인데 부재는 곳곳에 산재되어 있어 당시 명륜당 외에 다른 건물도 수리를 했거나, 명륜당이 소실된 뒤 그 자제를 향교에서 재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1841년(현종 7)에는 대성전 개수 공사를 추진하였다. 아래 옮긴 인용문은 『승정원일기』에 실린 내용이다. 이 무렵 상주향교의 대성전은 오래되어 퇴비 즉 무너져 내렸다고 기술할 정도로 퇴락한 상태였다. 개수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처해 있어 공사 전후에 위패를 이안·환안하는 제향에 쓸 향축을 마련하는 문제가 거론되었다.

又以禮曹言啓曰，卽接慶尙監司洪在喆移文，則以爲尙州牧鄉校聖殿，年久頽圯，不及今修改，告由移還安祭香祝，自本曹啓稟下送云矣。<sup>145)</sup>

1871년(고종 8)에도 한 차례 대성전 수리를 시행하였다. 전후 정황은 『승정원일기』에 실려 있는데 기록은 간략하지만 공사 범위는 개략 짐작이 된다. 인용한 글은 경상감사가 아뢴 내용인데 상주향교는 그 무렵 계속된 비로 인해 대성전은 물이 새서 퇴락한 상황에 처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又啓曰，卽接慶尙監司金世鎬移文，則以爲尙州牧鄉校聖殿，屢徑潦霖，滲漏頽圯，不及今修改，告由移還安祭香祝，自本曹啓稟下送云矣。<sup>146)</sup>

경상감사가 작성한 공문이 올라오는 기간을 감안하면 상주에 계속된 비는 여름철 장마를 가리키며, 긴 비로 인해 대성전에 누수가 발생하는 바람에 건물 일부가 퇴비된 상태였던 것이다.

대성전에 비해서 동·서무를 수리한 기록은 자세하지 않다. 현존 건물의 상태로 미뤄 시기가 다른 기법이 섞여 있어서 1612년 중건 이후 수리는 짐작되나 명확하게 시기를 구별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143) 국립문화재연구소, 『경상북도의 향교』, 2002, 160쪽.

144) 문화재청·상주시, 「상주향교/대성전 동·서무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 2020, 20쪽

145) 『승정원일기』2392책, 현종 7년 7월 11일.

146) 『승정원일기』2766책, 고종 8년 7월 28일.



### 근·현대의 상주향교<sup>147)</sup>

1950년 북한군이 향교를 거처로 사용하고, 위패를 비롯한 제례용품을 소각하였으나 1952년에 위판을 다시 봉안하였다. 한때는 난민수용소로 쓰이는 통에 완전히 폐쇄될 지경에 처하기도 했다. 1951년에는 상주고등공민학교의 후신인 남산중학교에서 동·서무를 개조하여 교실로 사용하고, 대성전은 강당으로 사용하였으며, 동재는 향교 우측 언덕으로 이건하였다. 1952년에 향회를 열어 오성위복주(五聖位復主)를 의결하고, 1954년에 비로소 동재를 임시 대성전으로 정하고 위패를 봉안한 뒤 석전을 봉행하기 시작하였다. 남산중학교에서 대성전을 계속 강당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득의하게 벌어진 일이었다. 남산중학교의 교사로 쓰기 위해 향교 근처 독산에 있던 태평루를 이건하여 음악실로 쓰기도 하였다.

1959년에 들어서 겨우 국고보조를 받아 대성전 내부를 수리한 후 오성위를 다시 봉안하였다. 아쉽지만 남산중학교 교수로 사용하던 명륜당이 1961년에 소실되었다. 그 자리에는 교실이 지어졌다. 1966년에야 대성전을 중수하고 동국 18현과 송조 2현을 복위하였다. 이를 기화로 상주향교는 옛 모습을 되찾기 시작하여 현재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 3.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 1) 대성전

##### 17세기 초에 중창된 건물

상주향교 대성전의 건립시기와 수리를 통한 변화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문헌과 현 대성전의 건축특성을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서 문헌 분석을 통해서 현 상주향교는 임진왜란 뒤 중건하였고 그 시기는 불과 7년 차이로 1610년, 1617년 공사 기록을 확인하였다. 두 시기 가운데 언제를 현 대성전의 건립시기로 봐야할까.

먼저 만력 38년(1610, 광해군 2) 목서에서 단서를 풀어보기로 한다. 목서에는 시기와 공사를 주도한 목사를 비롯한 인물들의 이름뿐이어서 당시 공사의 명확한 범위는 파악하기 어렵다. 하지만 목서에 적힌 ‘大成殿成’을 풀이하면 이 때 대성전을 지었음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분명히 전란으로 소실된 대성전을 이 시기에 다시 지은 것은 틀림없다. 목서에 적힌 인물들 가운데 주목할 사람은 목수 여옥,<sup>148)</sup> 이수○ 2인이다. 이름으로 미뤄 여옥은 승장으로, 이수○은 민간장인으로 판단된다. 승장 1인과 민간장인 1인이 대성전을 짓는데 목수로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皇明萬曆三十八年庚戌潤三月二十二日 大成殿成 木手 呂玉 李守○

147) 문화재청·상주시, 「상주향교/대성전 동·서무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 2020, 22~23쪽.

148) ‘여옥’으로 불교 관련한 기록을 검색하였으나 동시기에 목수로 활약한 승려 여옥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로부터 불과 7년 뒤인 1617년(광해군 9)에 쓰인 「향교대성전상량문」은 무엇 일까. 이미 살펴봤듯이 상량문에는 전쟁이 종식된 뒤 곧바로 묘우를 건립하였고, 건물이 제향을 지내기엔 다소 부족한 분위기를 담고 있다. “이전의 제도를 고쳐서 널리 모방하여 혁신”했다는 표현을 통해서 7년 만에 다시 지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포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표현했으면 좋으련만 문학적 수사를 하는 바람에 애매하긴 해도, ‘이전의 제도를 고쳐서’는 전과 다른 규모나 평면변화를 시사한다고 판단된다. ‘널리 모방하여’라는 말은 다른 지역 향교 대성전을 참고하였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마지막으로 ‘혁신’했다는 말로 미뤄 임진왜란 이전의 대성전과는 사뭇 다른 묘우를 건립하였을 것으로 풀이되어, 1617년에 대성전 공사는 임진왜란 이전과는 차별화된 대성전을 건립했으리란 견해를 과감히 피력해본다. 이후 여러 차례 중수를 거치는 동안 자잘한 변화는 일어난 것으로 보이나 기본골격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 대성전의 건축가치

상주향교가 언제부터 대설위를 모셨는가는 분명치 않다. 설위의 변화가 동·서무 건립에만 국한된 사안일지, 대성전의 규모 변화(3칸→5칸)와 연계된 변화인지도 단언하기는 어렵다. 이 두 건은 제향역역 대지 면적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향영역이 확장되는 시기가 곧 변화된 시기라고 추측은 된다.

대성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으로 익공계 겹처마에 맞배집이다. 평면은 3칸이지만 실은 어칸을 중심으로 전후에 퇴칸을 꾸민 전후퇴 구조이다. 실내바닥은 전돌로 마감하였다. 전퇴는 개방하고 후퇴는 실내에 포함시켜 내부는 통칸으로 개방되었다. 초석은 정면 퇴칸 기둥 하부만 팔각형 또는 원형으로 거칠게 다듬고 상면은 평형하게 다듬은 초석을 쓴 반면에 나머지 기둥에는 호박돌 초석을 쓴 차이가 보인다. 게다가 장초석, 이중초석도 보여서 여러 차례 수리나 부재 재활용을 짐작할 수 있다.

기둥은 모두 원기둥으로 일부는 배흘림 기법이 확인되어 수리시기의 흔재로 인한 흔적일지, 타 건물의 부재를 재활용한 상황일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창호는 『조선고적도보』에 실린 사진은 좌우 텃간은 살창을 가운데 세칸은 두짝 판문을 설치한 모습인데 현재 모습과는 다르다. 창호는 전면에만 두었고 나머지는 벽을 쳤다. 후면 어칸 중방 상부에 창호 흔적이 남아 있는 문선 부재가 있어<sup>149)</sup> 수리하면서 부재를 재활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가구는 양 측면은 2고주 5량가로, 가운데는 1고주 5량가로 구성하였다. 보는 비교적 정연하게 치목한 부재를 사용하였다. 어칸에서 전면에 고주를 두고 고주 측면에 대들보와 뒷보 뿌리를 끼워 넣었으며, 중대공과 종종대공은 포대공을 구성하였다. 실내는 연등천장이어서 구조가 잘 드러나 있다.

149) 국립문화재연구소, 『』, 163쪽.

공포는 출목을 두지 않은 이익공으로 짚는데, 전면의 고주는 초익공을 결구하였다. 익공 형태는 외단은 수서형으로 치목하고, 내단은 파련조각형으로 새겼다. 화반은 위치에 따라서 형태를 달리 하였다. 전면 퇴칸의 주간에는 삼소로+연꽃파련형, 본체 후면 주간에는 삼소로+두공침차 화반을 두었다.

석간주로 기둥을 칠하고 창방 이상 단청은 모로단청으로 최근 다시 칠한 상태여서 원래 채색을 짐작하기가 어렵다.

대성전은 칸수면에서도 현재 여러 향교 가운데서도 단연 수위에 든다. 서울 문묘 대성전은 5×4칸(297.1m<sup>2</sup>), 강릉향교 대성전 5×3칸(103.8m<sup>2</sup>), 나주향교 대성전 5×4칸(148.5m<sup>2</sup>), 경주향교 대성전 3×3칸(119.6m<sup>2</sup>)인데 상주향교 대성전은 5×3칸에 면적은 156.2m<sup>2</sup>에 달한다.

보통 대성전 평면은 퇴칸의 유무와 퇴칸 양 끝을 개방하는가, 혹은 벽체를 치는가에 따라 구별이 된다. 5칸 대성전은 대개 전퇴를 두는 편이나 경북에서는 퇴를 두지 않은 통칸형이 수적으로 많다. 그런 점에서도 상주향교 대성전은 지역의 일반적인 대성전 실내와는 다른 특색을 지녔다.

대성전 공포를 전후 모두 무출목계 익공을 쓴 점은 동시기 향교에서 널리 채택된 방식이지만 본체 전후면의 주간 화반은 마구리를 사절하고 하단부는 조각된 두공침차를 사용한 점은 보기 드문 사용 예로 보고 있다. 반면 대공은 위치에 따라 모양이 다르지만 세부수법은 일반적인 편이며, 익공·대공·화반의 조각은 파련이 가장 일반적인데 상주향교 대성전도 양상은 동일하다.

세부기법면에서 통평고대를 쓰고 부연 마구리가 거의 방형인 점도 건물의 시기를 조선 중기로 보는 중요한 근거로 보인다.

## 2) 동·서무

### 동·서무 건립시기

상주향교 동·서무를 처음 지은 시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선전기 향교의 동·서무 건립 시기를 살필 필요가 있다. 1485년(성종 16) 예조에서 아뢴 대성전의 위차에 관한 논의를 보면 조선전기 전국 향교의 동·서무 건립 기준이 간략하나마 언급되어 관심을 끈다.

아래에 옮긴 글을 보면 행정 단위의 위계에 따라 향교를 구성하는 건물이 달랐음을 알려준다. ①에는 주현의 학교에는 양무를 두지 않았고, ②현학은 대성전 안의 10위도 면제하고, ③은 양무를 짓고 제사를 올린 행정 단위가 개성부와 여러 도의 계수관급에 국한되었음을 보여준다. ④는 앞의 세 논의의 결론인데, 계수관급에 동무와 서무가 있으나 나머지 주·부·군·현은 모두 무가 없었던 당시 실정으로 요약된다. 어쨌든 간에 계수관급에는 양무를 마련하고 제향을 지내는게 어느 정도의 분위기였던 점은 이해할 수

있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의례상정(儀禮詳定)》 안에 ‘①주학(州學)·현학(縣學) 등은 양무(兩廡)의 제위(諸位)를 제사함을 면제하고, ②현학은 대성전(大成殿) 위의 10위(位)도 아울러 면제하며, 오직 ③개성부(開城府) 및 여러 도(道)의 계수관(界首官)만이 양무(兩廡)의 제위(諸位)를 두루 제사한다. 주염계(周濂溪)·정명도(程明道)·정이천(程伊川)·주문공(朱文公)의 4위(位)와 설충(薛聰)·최치원(崔致遠)·안유(安裕)는 현학(縣學) 이상에서 모두 제사한다.’고 하였는데, 전교(傳敎)를 본조(本曹)에서 이미 받았습니다. 위의 항목의 상정(詳定)에 의하여 시행한다면, ④여러 도의 계수관은 동무(東廡)와 서무(西廡)가 있으니, 그 나머지 주(州)·부(府)·군(郡)·현(縣)은 모두 무(廡)가 없어서 주염계(周濂溪) 이하 4위와 설충(薛聰) 등 세 분을 종사(從祀)하기 어렵습니다.<sup>150)</sup>”

상주향교는 어땠을까. 기존 연구에서는 1486년 강구손의 상주향교 중수를 적은 「상주향교중수기」에 양무를 언급하지 않았던 기록에 착안하여, 1486년 이후 임진왜란 이전에는 양무를 갖춘 것으로 배치의 변화를 해석하였다. 대설위로 승격된 시기 즉 양무를 건립할 근거가 마련된 시기를 고려하여, 1559년에 대설위로 승격될 때 그 제도 규범에 따라 지금과 같은 규모(10칸)를 갖추고 대성전도 3칸에서 5칸으로 확장된 것으로<sup>151)</sup> 보았다.

조선전기까지 감사의 행영(行營)이었던 상주의 위상을 고려하고, 상주목사는 물론 감사 역시 상주향교 문묘에 자주 알성했다는 정황, 그리고 위의 ④를 감안하면 상주향교 동·서무 건립은 시기가 올라갈 가능성이 엿보이나 명확한 시기 파악은 숙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그렇다 쳐도 현 동·서무를 언제 건립하였는가는 규명이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임진왜란 이후 상주향교의 복구는 1610년 대성전에서 시작되었다. 동·서무 중건은 목사 한술이 주도하였는데 『상주목선생안』에 기록으로 남아 있다. 1610년 대성전에 이어서 1612년에는 동·서무를 다시 지음으로써 향교의 제향영역을 완비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

150) 『성종실록』권181, 성종 16년 7월 10일. 사실 소규모 행정 단위에서는 조선후기까지도 동·서무를 건립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현존 향교에서도 동·서무를 두지 않은 사례를 볼 수 있어 향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1661년 (현종 4) 논의를 보면, “당초에 6현을 이미 종사한 뒤에 현의 학교도 모두 제사하도록 허락했는데 지금 여러 도의 현의 학교는 제사하는 곳도 있고 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군의 학교는 응당 전상 십위를 제사해야 하는데 그 역시 하는 곳도 있고 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계수관이 되는 주의 학교도 제사 지내는 대상이 태학과 다른 곳이 있습니다. 막중한 사전에 일정한 규칙이 없으니 이번 기회에 여러 도로 하여금 주·부·군·현에서 제사 지내는 대상을 상세히 기록하여 모두 아뢰게 하고 해조로 하여금 상세하게 고쳐 바로 잡도록 하소서”하니 상이 모두 따랐다. 『현종실록』권8, 현종 4년 2월 14일.

151) 정명섭·조영화, 「상주향교의 배치형식 변천에 관한 연구」, 40호, 2004 참조.

런데 동·서무도 19년 뒤인 1631년에 연당과 함께 중수한 기록<sup>152)</sup>이 있으나 수리범위는 짐작할 단서가 없다. 동·서무에 관한 기록은 부족한 편이나 대체로 1612년 중건 이후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고쳐나간 것으로 짐작된다.

### 동·서무의 건축가치<sup>153)</sup>

동·서무는 정면 10칸 측면 1.5칸 규모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자연석 단층 기단 위에 역시 자연석 초석을 놓았는데 일부 초석은 치석한 석재도 쓰였다. 기둥은 방형기둥으로 기둥머리는 사괘를 트고 장혀와 뒷보를 결구하여 바로 도리를 받쳤다. 전체 가구구조를 보면 전면에만 고주를 둔 1고주 5량가이며 4분변작 지점에 동자주를 놓고 종보를 받쳤다. 종보 중앙에 동자주를 놓고 종도리를 받쳤는데 구조는 간결하다. 처마는 겹처마에 암수키와를 덮었다. 좌우 측면은 방풍판을 설치하였다. 출입문과 살창으로 된 창호를 시설하여 입면은 간소하다.

서무는 동무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제일 북쪽에 위치한 칸의 남측 초석에 탑신재가 사용되었다. 출입문 전면에 계단이 놓인 점도 다르긴 한데 건축특성을 좌우할 요소는 아니다.

학교로 쓰기 위해 개조된 흔적이 남아 있다. 전체적으로 세 공간으로 나뉘는데, 북쪽 3칸, 가운데 3칸, 남쪽 4칸씩으로 구분되어 있다. 학교 교사로 사용되면서 원래 통칸이던 건물을 구획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어쨌든 간에 이 구획도 그냥 이뤄진 것은 아닌데, 10칸 규모의 단일 건물의 대지가 지닌 경사를 건물에 대응하였는데 기단 전체를 3단으로 나누고, 하방과 상방의 높이가 한단씩 감소되도록 입면을 구성하고 있다. 단순히 지형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인지, 내부에 모셔진 위패에 필요한 구분인지는 확실치 않다.

대지의 경사에 맞는 평면 처리는 지붕과도 연계되어 있는데, 처마도리는 기둥길이를 차츰 길게 하여 지반의 경사도보다 완만하게 조치하였다. 지붕이 처져 보이지 않게 하려는 시각적 효과를 고려한 목수의 배려로 보고 있다.

초석 가운데 가공초석은 치석 기법으로 미뤄 다른 건물(사찰로 추정)에서 옮겨온 부재로 보인다. 특히 남측 어칸의 남쪽 초석은 방형 초석인데 원형 주좌를 두 단으로 새겨 그러한 정황을 방증한다. 동무 북측 담장 하부에는 석탑재로 추정되는 부재가 포함되어 있어 1832년 중수 공사를 통해 사찰의 건축부재를 재사용한 정황은 인정이 된다.

10칸에 달하는 동·서무의 규모는 대설위 향교에 걸 맞는 이런 규모의 양무는 흔치 않다. 계수관급 향교의 동·서무를 보면 성균관 11칸, 개성 문묘 14칸, 경주향교 1칸, 전주향교 9칸, 나주향교 3칸, 강릉향교 5칸, 원주·충주향교 7칸, 청주향교 5칸 등으로 나타

152) 정명섭·조영화, 「상주향교의 배치형식 변천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40호, 2004 참조.

153) 국립문화재연구소, 『경상북도의 향교건축-남서부편』, 2004, 163~164쪽을 토대로 이번에 제출된 보고서를 비교하며 서술한 부분이다.

나 상주향교 동·서무는 상위에 드는 규모임을 알 수 있다. 상주향교가 지닌 경상도 지역에서의 위계나 중요성을 건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보통 향교의 동·서무는 보방향 칸수가 단칸인 경우가 많은 편인데 상주향교는 전퇴를 둔 점도 색다르다. 서울 문묘 동·서무도 측면 1.5칸 규모로 전면 퇴칸을 개방한 방식을 따랐다. 계수관급 향교로 앞서 비교한 경주향교, 개성 문묘 등도 동·서무는 단칸이어서 차별화된 평면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 4. 종합의견

조선전기에 경상감사의 본영이었던 상주목은 낙동강에 접하여 물류의 집산지로서 사회 경제적 역할이 컸던 곳이다. 15세기 이후 이곳으로 유입된 사족층들은 지역의 향교와 서원을 근거지로 삼아 상주지역의 사족사회를 이끌어 나갔다. 조선후기에 들어서 교육 보다는 향사에 치중하지만 지방 유림들이 향론을 만들고 결집하는 장소로 향교의 기능이 확대된 대표 사례 가운데 한 곳이 바로 상주향교이다.

상주향교의 역사는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조선전기의 상황은 상세하지 않은 편이다.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었지만 다른 어떤 지역보다 먼저 향교를 중건하고 지역사회 재건을 도모하려 한 재지 사족층의 역할이 두드러진 점도 상주향교가 지닌 가치 가운데 하나이다.

전란 뒤 대성전을 1610년에 급히 지었으나 불과 7년 뒤인 1617년에 중건하고 있어 현 건물의 건립시기는 17세기 초로 추정할 수 있다. 대성전은 전면 퇴칸을 개방한 사당 건물의 평면인데, 일반적으로 이 지역 대성전이 퇴칸을 두지 않는 방식인 반면에 상주향교 대성전은 서울 문묘 대성전처럼 전퇴를 두어 제례를 지내는 데 손색이 없다. 대설위 향교답게 규모도 5칸인데 이 역시 전국 향교 가운데서도 몇 안 되는 사례로 손꼽힌다. 세부 기법면에서도 조선중기의 시대·지역의 특징을 잘 갖추고 있어 조선시대 향교 대성전의 뛰어난 사례로 인정된다.

경상감사의 행영을 둔 상주목의 위상에 맞춰 상주향교에서는 다른 지방보다 일찍부터 동서 양무를 짓고 제향을 지냈다. 이 점은 조선전기까지도 많은 여타 군현에서 동·서무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시대여건에 비추어 각별한 의미가 있다. 지방 향교 동·서무 가운데서 이른 시기의 사례에 속하고 ‘무’로서의 갖춰야 할 건축적 격식이 충실하다.

지금의 동·서무 건물은 1612년에 중건한 이래 기록으로는 심각한 변화가 발생한 공사는 확인되지 않아 이때 지은 건물을 기본골격으로 하여 현재에 유지되는 것으로 되었다고 판단된다. ‘무’라는 형식의 건물이 워낙 간소한 편에 속해 두드러진 특색은 없다. 하지만 대개 향교의 무가 보칸을 단칸으로 지은 반면에 상주향교 동·서무는 전퇴를 둔 형식으로 격식이 높은 무로 평가된다. 게다가 다른 향교의 무에 비해 월등하게 큰 규모를 자랑하는데 11칸인 서울 문묘 동·서무 다음으로 큰 10칸에 이른다. 5칸 대성전뿐

아니라 10칸 무는 상주향교가 지닌 경상도 지역에서의 위상과 중요성을 건축적으로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특징이다.

상주향교 대성전과 동·서무는 평면 형태에 있어 서울 문묘의 대성전과 동·서무처럼 전퇴를 두고 개방한 형식을 취하고 있어 향교 규모나 평면 형식면에서 주목받을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위에서 열거한 이런 점에 근거하여 상주향교 대성전과 동·서무 건물은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0.06.24	대상문화재	상주향교 대성전, 동무·서무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상주향교 대성전, 동무·서무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 년 10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1. 연 혁 :

상주향교는 고려 시대부터 조선 초기까지 계수관(界首官)으로서의 읍격을 가지고 있는 계수관향교로서 고려 성종 때에는 경학박사(經學博士)가 파견되었고, 문종 때에는 문사(文士)가 파견되었으며, 고려 말에는 교수관(教授官)이 파견되었던 곳이다.

상주향교의 창건과 관련된 기록상의 문헌은 없으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기록은 여러 곳에 보이는데, 고려 성종 2년(983) 전국에 12목(牧)을 설치하고 외관(外官)을 파견한 데 이어 성종 6년(987)에는 12목에 주군학사(主郡學舍)를 설립하였으며, 성종 11년(992)에는 경학박사(經學博士)와 의학박사(醫學博士) 각 1명을 파견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12목의 하나였던 상주에도 향교가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경상도 내의 상주와 더불어 12목에 속하는 경주와 진주에 향교가 있었다는 기록이 이를 반증한다. 따라서 상주향교 창건과 관련된 기록은 없지만, 12목의 일원인 경주와 진주에 향교가 있었고 이후에도 계수관으로서 위상을 가진 상주에 향교가 설치되었을 것은 분명하다.

상주향교에 대한 문헌상 최초의 기록은 고려 고종 34년(1247) 최자(崔滋)의 『보한집(補閑集)』(권하)에 “...상주목사를 비롯하여 향교의 제유(諸儒)가 가시(歌詩)와 인계(引繼)를 바치는데...”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당시 상주에 향교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후에도 고려 숙종 연간에 10여 년간 상주 목사를 역임한 한충(韓冲, 재임 1096~1106)과, 충렬왕 때 우리나라 최초의 주자학자로 칭송되는 안향(安珦), 충혜왕 연간에 재임한 안축(安軸, 재임 1343~1344) 등이 상주 목사를 역임하면서 상주향교 교육에 큰 역할을 하였음을 기록으로 보여준다.

조선 개국 초기인 1395년(태조 4) 전국의 각 군·현에 향교의 재정을 충당할 수 있도록 기반으로 학전(學田)과 학노비(學奴婢)를 공급하고 생도(生徒)를 모집한 데 이어 1398년(태조 7)에는 전국에 향교 시설물을 건립하였고, 이에 따라 각 군·현에 향교 창건과 관련된 기록이 있지만, 상주향교는 전국의 여타 군·현의 향교들과 달리 고려 시대에 이미 설립되어 있었기에 그 당시 현존하던 상주향교를 그대로 이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조선 시대에 상주향교 창설과 관련된 기록은 없다.

1408년(태종 8) 상주목에 경상도 감영(監營)이 설치되어 조선 전기동안 명실상부한 경상도 지역의 행정·사법·군사 중심지로서 많은 관료와 현사들이 상주향교를 방문하여 상주향교의 위상 또한 높아지게 되었을 것이고, 당시 향교의 운영 책임자는 지방의 수령이었던 만큼 여러 관찰사와 목사가 향교의 흥학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기록으로 보여준다.

1486년(성종 17)에 향교 중창을 하였고, 임진왜란 때에 소실되어 1610년(광해군 2)에 그 자리에 다시 중건하였으니 고려 시기 창설 당시에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자리

로 추정한다.

1610년(광해군 2)에 진창군(晉昌君) 강인(姜綱) 목사 재임 시에 대성전을 중건하였다. 같은 해 후임으로 부임한 한술(韓述) 목사는 동·서무(東西廡)와 연당(蓮塘)을 만들었다. 1617년(광해군 9)에는 정호선(丁好善) 목사가 명륜당을 중건하여 임진왜란 이전의 규모로 복구하였다.

1631년(인조 9) 대성전이 한 번 더 중수되었고, 1966년 대성전 중수 시에 도광 4년(道光 四年)이라는 기와 명문이 수습되어 1824년(순조 24)에도 향교를 중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1832년(순조 32) 목사 유병주가 쓴 「鄉校明倫堂重修記」에 의하면, 지역의 유력 인사인 강세륜(姜世綸)과 강세규(姜世揆) 등의 협조로 수개월 만에 향교 중수를 마무리하고, 이로 인해 대성전과 명륜당, 동·서재(東西齋)이 위용을 갖추었으며, 이때 사찰 건물(佛宇)을 헐어 중수 재로 사용했다.

고종 조의 민종렬(閔種烈)(재임 1885~1890) 목사는 5년 동안 상주 목사를 역임하면서 향교를 중수한 후 이를 기념하고 앞으로 향교의 유지와 발전을 당부한 교원절목비를 세웠다.

일제강점기에 박해령(朴海齡) 군수가 향교를 중수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미상이고, 1923년 신현구(新鉉求) 군수 당시에는 향교에 주자(朱子)의 영각(影閣)을 건립하고 기념비를 세웠다고 하나 현존하지 않는다.

1947년 모일에 향교의 건물을 상주중학교 교사로 사용코자 하는 ‘상주3교승격기승회’의 요청에 따른 향회에서 사고로 위패(位牌)가 소실되어 그 해에 ‘상주향교복구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위패를 다시 만들어 설치하였다.

1949년 6월 4일에 개최한 성균관 전국유림대회의 결정에 따라 동·서무에 우리나라 18현의 위패를 대성전에 올려 5성위에 송조 2현 등 25현을 합사하고, 공문 10철과 송조 4현, 동·서무의 중국 현사 84현의 위패를 매안하였다. 이후 비어 있던 동·서무를 학교 교실로 개조하였다. 같은 해 9월 1일에는 인봉동에 있던 상주고등공민학교를 상주향교로 이전하였고, 이후 1951년 남산중학교로 발전하여 1986년까지 38년 동안 상주향교의 전통적 상징성은 뒤로하고 남산중학교 교정으로 사용되었다.

1950년 6·25전쟁 시에는 향교에 북한군이 주둔하여 군 기지로 사용하였고, 수복 후에는 피난민 수용소로 사용됨으로 인해 대성전의 위패가 또다시 없어지게 되었다.

1952년 전쟁의 와중에도 향교복주위원회(鄉校復主委員會)를 구성하여 대성전에 위패를 복원하고자 하였으나 경제 사정으로 못하다가 1953년 정전(停戰) 이후 5성위만 복원하고, 1954년 8월 27일 동재에 5성위를 봉안하고 추계 석전(釋奠)을 봉행하였다.

남산중학교 39년 동안 대성전(大成殿)은 학교 강당으로, 명륜당은 학교 교무실로 사용하다가 1961년 부주의로 소실되어 같은 해에 향교 동편에 있던 관아 외문루였던 태

평루(太平樓)를 뜯어 향교로 옮겨 학교 교무실로 사용하였다.

남산중학교가 계속 운영되고 있는 상태에서 외형의 회복이 불가능한 실정이었고, 이후 수년 동안에는 동재의 4성위에 겨우 석전을 이어오다가 1959년 국고보조 50만 원으로 남산중학교 강당으로 사용하던 대성전을 정비하여 5성위를 환안하였다.

이후 5·16군사정권이 민간정부로 이어져 강력한 경제정책을 시행하였던 1966년도에 정부의 지원으로 대성전을 중수하여 25위 성현의 위패를 새로 만들어 봉안하고 제구(祭具)를 갖추는 등 제향 시설을 완비하여 향교의 일차적 기능을 회복하고 계속하여 외형의 복원을 진행하였다.

1982년에는 대성전이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1986년 남산중학교가 퇴거한 이후 남루(南樓)와 동·서재의 복원 등 크고 작은 시설의 복구가 계속되다가 2000년 경북북부 지구 유교문화권 개발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명륜당을 복원하였고, 동·서재를 확장·복원하였으며, 사무 교육시설로 충서당(忠恕堂)을 신축하였다. 또한, 향교와 가까운 곳에 상주유림회관을 신축하여 상주향교가 유림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였다.

2006년도에는 대성전에 25위의 성현을 승봉(承奉)하여 오던 것을 공문 10철과 송조 4현을 추배하여 성균관과 같이 39위로 승사(陞祀)하여 대설위 상주향교의 위상을 다시 정립(定立)하였다.

## 2.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상주향교의 입지(立地)는 읍치 남서쪽 5리의 남산 구월봉 산자락에 배산하여 남동향을 하고 있는데, 문헌 및 고지도 등의 자료로 보아 현재 자리인 것으로 보인다. 흔히 향교는 읍치에서 1~3리에 동쪽 또는 북쪽에 입지하는 것이 일반적 예인데 상주향교는 거리상 읍치와 약간 떨어진 곳에 자리하고 있다. 그 이유는 상주읍성이 평지에 입지함에 따라 읍성 밖 가까운 곳에 배산하여 향교가 입지할 장소가 없었기 때문이다. 경사지에 배산하여 그 앞에 병선천과 그 천변의 넓은 들판을 향해 배산임수 하였기에 이러한 지형적 특성은 다른 향교와 별반 다르지 않다.

상주향교의 배치는 산자락의 경사지를 이용하여 3개의 단으로 크게 구분하여 입구부터 진입공간, 강학공간, 제향공간 순으로 배치하였다. 각 공간별 높낮이는 진입공간과 강학공간이 2m 정도이고, 강학공간과 제향공간과는 5m 정도이다. 이는 공간별로 유교적 위계성을 나타내기 위해 자연 지세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건물 구성은 제향공간에 대성전을 중심으로 동·서무, 내삼문이 중정을 에워싸는 하나의 원으로 구성되고, 강학공간은 명륜당을 중심으로 동·서재, 남루가 중정을 둘러싸는 하나의 원으로 전체적으로 2개의 원으로 구성되어있다. 약간 틀어진 중심축 선상에 남루와 명륜당 내삼문, 대성전이 배치되고, 그 좌우에 동·서재와 동·서무가 배치되어 있다. 그 외 부속건물인 충

서당을 비롯한 고직사, 화장실 등이 축 구성으로부터 자유로이 배치되어 있다. 따라서 전체적 배치형식은 강학공간이 앞에, 제향공간이 뒤에 배치되는 전형적인 전학후묘형(前學後廟形)을 하고 있다. 현재의 전학후묘형을 이루기까지 시기별 배치형식을 학술연구(정명섭·조영화, 상주향교의 배치형식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건축역사학회지, 2004.12)를 토대로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임진왜란 이전까지 상주향교의 창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 정확한 배치형식은 알 수 없지만, 관련 문헌에 의한 시기별 건축구성을 살펴보면, 첫 번째(창건~1429)는 제향과 강학의 기능이 함께하는 묘학동궁(廟學同宮)의 제도에 따라 대성전 전방에 동·서재를 대칭으로 배치하고 전방에 출입문을 둔 형식으로 추정되는 시기이고, 두 번째(1430~1485년)는 1428년에 남루가 건립됨에 따라 1단계의 출입문 자리에 남루가 배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이다. 세 번째(1486~임란 전)는 전학후묘 형식에 제향공간은 5칸 대성전 앞으로 10칸 동·서무와 내삼문의 배치된 시기이다. 네 번째는 임진왜란 때 향교가 소실되고 그 이후 대대적인 중창과 중수가 이루어진 뒤 일반적인 규범에 따라 배치체계를 갖춘 시기이다. 임진왜란 직후의 건축 연혁을 보면, 1607년에 우선 명륜당이 중창되었고, 그다음 1610년에 대성전 중창, 1612년에 동·서무와 연당이 초창되고, 1617년에 교사가 중건되었다. 여기서 중건된 교사는 동·서재를 지칭한 듯하다. 다섯 번째는 한국전쟁 이후로 전쟁으로 인해 서재가 소실되고, 훼손을 입은 향교를 중건 및 보수해 남산중학교 교정으로 사용하던 시기이다. 이 시기에 대성전은 학교 강당으로, 명륜당은 교무실로, 동·서무는 교실로 사용하였다. 그 후 한국전쟁 시에 소실된 서재는 복원하지 못했고, 동재는 향교 우측 담장 밖 언덕으로 이전되었다. 1961년에는 명륜당마저 화재로 소실되어 관아 외문루였던 중층 태평루를 뜯어다가 단층으로 개조 설치해 교무실로 사용했다. 이 강당 옆에 교사를, 교사 남쪽에는 고직사를 각기 건립해 일곽을 이루었다. 이 시기에는 강학공간의 건물 배치에 큰 변화가 있었으며, 건물별로도 벽체, 창호 등의 변형이 이루어졌다.

여섯 번째는 1990년대 이후로 강학공간의 주요 건물을 대대적으로 복원, 신축하여 일곽을 정비한 시기로, 1909년에 동재를, 1991년에는 남루를 복원해 명륜당으로 이용하였다. 1992년에는 태평루를 임란북천적전지로 이관하고 그 자리에 3칸 서재를 복원했다. 1994년에 고직사를 이관하고, 1995년에 남루 전방에 외삼문을 신축한 뒤 담장을 쌓았다. 2004년에는 동재 뒤로 부속건물인 충서당을 신축했다. 2007년에는 남루와 3칸 동·서재를 지금과 같은 5칸으로 증축 중건했고, 5칸 명륜당을 중창 복원하는 등 한국전쟁 이후로 큰 변화를 보인 강학공간은 몇 번의 중창을 거쳐 오늘에 이른다.

### 3. 건축 현황 및 특징 :

### 1) 대성전(大成殿)

대성전의 규모는 정면 5칸에 측면 3칸이고, 길이는 가로 17.3m에 세로 9.0m이다. 정면 주간은 어칸이 3,700mm이고 좌우의 협칸과 퇴칸은 3,410mm로 어칸이 다른 칸보다 1척가량 커 중심성과 위계성을 고려하였음을 알 수 있다. 주간 측면은 전면 퇴칸이 2,260mm이고, 중앙칸이 4,380mm이며, 뒷칸이 2,370mm로 중앙칸이 가장 크다. 정면과 측면의 비는 1.89:1이고, 면적은 156.2㎡로 47.25평이다.

현재 대설위 향교로 알려진 곳의 대성전은 3칸x3칸(경주, 남원), 5칸x3칸(상주, 수원, 강화, 강릉, 동래, 순천 등), 5칸x4칸(성균관, 제주, 나주 등)로 구분되는데, 대설위 대성전의 규모는 5칸x3칸과 5칸x4칸 위주였음을 알 수 있는데, 상주향교는 5칸x3칸의 예를 따랐다. 칸수에 따른 건물면적은 성균관이 297.1㎡로 가장 크고, 그다음으로 제주향교 대성전과 상주향교 대성전이 156.2㎡, 수원향교 대성전이 149.4㎡, 나주향교 대성전 148.5㎡, 경주향교 대성전 119.6㎡, 순천향교 대성전 109.4㎡ 등의 순이다.

상주향교는 조선조 행정구역이 주(州), 부(府), 규모가 큰 군(郡)의 대설위에서 주로 사용된 5칸 x 3칸이고, 면적은 156.2㎡로 서울 문묘 성균관의 대성전에 이어 제주향교 대성전과 함께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건물이다. 퇴칸 전면이 개방되어있지만, 좌우는 벽으로 막혀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내부는 벽이 없는 통칸으로 되어있어 신위 배치와 제를 지낼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배후의 산 경사지에 자리 잡은 관계로 지대가 낮은 전면에 석축 겹 기단을 높게 조성해 건물을 앉혔고, 이에 따라 전면 기단은 높이가 높은 장대석을 3단으로 쌓고, 맨 윗단에는 높이가 낮은 장대석 1단으로 마감해 전체적으로 4별대 장대석 기단으로 되어 있다. 기단 상면의 바닥 사면에는 전돌을 깔아 마감했다. 전면 기단 좌우에는 오르내리는 돌계단 2개가 건물 컷기둥 밖으로 설치되어 있다. 계단은 통행이나 출입의 용도와 더불어 제향 의식 기능에 따른 진입 방향제시와 위계성을 나타내는데, 일반적으로 전면에 3개를 설치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상주향교의 경우 전면 좌우에 2개를 설치했다.

초석은 덩벙주초로 자연석 상면을 일부 다듬어 설치하였다. 기둥은 원기둥인 두리기둥으로 일부 기둥은 약간의 배흘림이 있다. 공포는 무출목계로 전면과 후면 평주에는 이익공으로 되어있고, 출입문이 있는 전면 고주는 초익공으로 되어있다. 익공의 형태는 외단이 수서형으로, 내단은 파련조각형으로 되어있다. 즉 전·후면 모두 익공계로 이것은 서울 문묘 대성전을 제외한 지방향교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검약을 강조하는 유교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주간의 화반은 2종류로 전면 퇴칸은 연꽃파련형으로, 배면 주간에는 두공첨차화반으로 되어있다. 즉 전·후면의 주간 화반은 마구리를 사절하고 하단부는 조각된 두공첨차를 화반으로 사용한 점은 주요 특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창호는 전면 어칸에 쌍여단이 청판 세살문으로, 양 협칸에는 외여단이 창판 세 살문으로 되어 어칸과 협칸의 창호를 서로 달리하여 위계성을 강조하였다. 협칸 출입문의 열리는 방향이 서로 다른 점 또한 특징적이다.

지붕 가구를 구성함에 양 측면은 2고주 7량가이고, 내부는 1고주 7량으로 내외부를 서로 달리한 것이 특징적이다. 종도리 밑의 대공은 파련대공으로 되어있고, 종도리 밑의 대공은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데 내부는 파련대공과 유사하지만 일반적 파련대공의 형태와는 매우 다른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으며, 양 측면에 면한 종도리 대공은 일반적 형태인 사다리꼴 판대공으로 되어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대성전의 건축적 특징을 요약하면, 1486년(성종 17)에 3칸을 중건한 뒤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고, 1610년(광해군 2)에 중건하면서 하면서 정면 5칸에 측면 3칸의 규모로 변형된 것으로 보인다. 전·후면의 기둥 위의 공포는 이익공으로 되어있고, 전면 퇴칸의 고주 위에는 초익공으로 되어있다. 가구구조는 양 측면은 2고주 7량가이고 내부는 1고주 7량가로 서로 달리하였다. 대공은 위치에 따라 서로 형태를 달리하여 파련대공과 사다리꼴 판대공, 사다리꼴 판대공에 특이한 문양으로 파고들어 간 매우 특이한 판대공을 설치하였다. 이것은 여러 번 중수하면서 이렇게 위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조선 중기의 전형적인 대설위 평면 및 구조형태, 세부 수법을 잘 간직하고 있다.

## 2) 동·서무(東·西廡)

상주향교 동·서무 규모는 정면 10칸, 측면 1.5칸이고, 면적으로 135m<sup>2</sup>로 약 40.9평이다. 규모 면에서는 우리나라 동·서무 중 세 번째로 서울 문묘 동·서무(11칸x2칸, 307.7m<sup>2</sup>)와 경주향교 동·서무(12칸x1칸, 139.6m<sup>2</sup>) 다음으로 크다. 평면은 전면에 퇴칸을 두고 원래 내부는 하나의 통칸으로 되어있었는데, 해방 이후 학교 교실로 사용하면서 3칸으로 나누어 사용했기에 현재 통칸이 아닌 3칸으로 나누어져 있다.

기단은 적석식(積石式) 자연석 기단으로 허튼 층으로 쌓았고, 서무가 동무보다 높게 되어있다. 초석은 자연석 판석으로 설치하였으며, 그 위에 각기둥을 그랭이질하여 세웠다. 양 단부의 기둥에는 횡방향으로 긴 넓적한 자연석 초석 위에 처마도리를 받치는 일종의 활주를 세운 것이 특징적이다.

북에서 남쪽으로 경사진 지형에 따라 기단을 설치함에 따라 처마도리도 같은 경사를 유지하였다. 가구구조는 1고주 5량가로 현재 서울 문묘 동·서무와 같은 가구구조를 하고 있다. 해방 후 남산중학교 교실로 사용하기 위해 개조한 탓에 입면(벽체, 창호 등) 일부는 변화가 있었다.

건축적 특징을 요약하면, 동·서무는 1612년(광해군 4)에 중건한 뒤 1631년(인조9), 1841년(현종 7)에 중수했으며, 이후에도 여러 번의 중수가 있었다. 규모는 서울 문묘 성균관, 수원 등 대설위 향교에 걸맞은 정면 10칸, 측면 1.5칸이고, 가구구조는 1고주 5

량가 민도리형식의 맞배지붕으로 해방 이후인 1949년에 내부를 개조해 남산중학교 교실로 이용함에 따라 기둥과 도리, 보 등 주요 구조재는 원래의 모습을 유지해온 것으로 판단되지만, 학교 교실로 사용하면서 내부 벽면의 칸막이와 벽체 입면 구성 방식에서 여전히 과거의 변형된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이 흠이다. 동무에는 가칠단청 흔적이 일부 남아 있는데, 정확한 시채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사용된 안료가 대성전과 같은 것으로 보아 예전 대성전 단청 시에 행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가로로 긴 입면임에도 경사진 지형에 따라 기단과 처마도리 높이가 결정되었으나 건물 전체의 용마루 수평 높이는 일정한 독특한 지붕 가구 구성이 돋보인다.

#### 4. 지정가치 및 종합의견 :

상주향교의 연혁과 대성전 및 동·서무의 건축적 특징을 살펴본 결과, 대성전 및 동·서무는 임진왜란 이후인 조선 중기에 중건된 연대가 명확하고, 중건 이후로 몇 차례 중수가 있었지만, 중건 이후의 모습을 비교적 잘 간직해 왔다. 평면은 서울 문묘 대성전을 비롯한 여타 국가지정 향교와 같은 유형이다. 규모는 대성전의 경우 가장 큰 서울 문묘 성균관 대성전 다음으로 크고, 동·서무의 경우는 서울 문묘 성균관, 경주향교 다음인 세 번째로 크다. 또한, 가구구조도 대성전의 경우 2고주 7량가와 1고주 7량가가 혼합된 구조이고, 동서무의 경우 전면 퇴칸이 있는 1고주 5량가로 서울 문묘 바로 다음 단계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동·서무는 기단과 처마도리를 경사지에 맞춰 건물 전체 높이는 같게 맞추고, 양 단부의 횡방향으로 긴 넓적한 자연석 초석 위에 처마도리를 받치는 보조기둥을 세운 가구 구성이 돋보인다. 전체적으로 기단과 창호, 공포, 대공, 주두와 소로 등에서 조선 중기 이후 향교 건축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상주향교 대성전과 동·서무는 건립된 시대가 분명하고, 후대 보수가 있었으나 공포 및 가구구조에서 조선 중기 중건 당시의 기법이 잘 남아 있고, 규모 역시 우리나라에서 큰 규모에 속해 조선 중기에 건립된 향교의 특성을 밝히는데 역사적, 학술적, 건축적으로 가치가 커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서 손색이 없다고 판단된다.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0.06.24	대상문화재	상주향교 대성전 및 동·서무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속		직위(직책)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 현재 경상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음		
	문화재 명칭	상주향교 대성전 및 동·서무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붙임2>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붙임1>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붙임(4)>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역사적, 건축적으로 상주향교 대성전 및 동·서무는 조선중기 대설위 한국 향교 건축사를 특성을 밝힐 국보로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08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1. 연혁과 현황

### 1) 상주향교 연혁

상주향교는 경상북도 상주시 신봉동 230-1번지에 위치한다. 현재 상주향교 대성전이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55호로(1982년 2월 24일 지정)지정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향교는 고려와 조선시대의 지방에서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관학교육기관을 가르킨다. 조선시대 향교는 문묘 선현봉사,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 지역 사회의 민풍교화의 기능을 갖고 있었다. 즉 선현봉사는 유교적 이념의 계승을 위한 의례적 공간인 문묘를 통해 선현을 받들어 제사하는 것이다. 교육은 유교적 이념에 입각한 도덕적 규범에 의한 교육과 이를 통한 백성의 교화를 의미한다. 이런 의미로 향교는 지방행정체제에 있어 관아와 함께 가장 핵심적인 공공시설이기도 했다.

상주향교의 창건 연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다.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으로는 최자(崔滋, 1188년~1260년)가 1254년(고려 고종 41년)에 기존 「과한집」의 내용을 보충해 속편으로써 간행한 문학 비평서이자 시화집(詩話集)인 「보한집(補閑集)」에 상주향교에 관한 기록이 있다.

“1247년(고려 고종 34) 봄에 동남로 출진 중 상락(상주의 옛 이름)을 순력할 때 목사 군수로부터 향교 제유에 이르기까지 가시와 인계를 바치느라 많은 사람이 도로를 메웠다. 네 대로(덕망 높고 나이 많은)가 있어 나이가 7·80이 넘었는데 자신들을 상원4로라 부르며 짙막한 인(서문같은 문체) 및 절구시 네 수를 바치었다”

위 기록에서 향교라는 단어가 나오므로 이 시기에 상주향교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고, 향교제유(鄕校諸儒)가 지역의 대표 향유로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조선시대에 들어 상주향교에 관한 기록은 고려시대보다 많은 문헌이 남아 전하고 있다. 먼저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에는 “향교는 주 남쪽 5리 구월봉 아래에 있다. 남루(南樓)가 있는데 선덕 초년에 관목 조치(曹致)가 세웠으며 홍여방(洪汝方)의 기가 있다”라는 기록이 있다. 여기서 ‘선덕(宣德)’은 세종 8~17년(1426년~1435년)을 가르키며<sup>154)</sup>, 조치가 상주목사로 재임하던 시기(1428년~1429년)에 향교 남루를 건립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당시 상주향교의 위치는 ‘남쪽 5리 구봉산(九峰山) 아래에 있다는 기록이 있어 지금의 위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당시 향교의 위치는 이후 현재까지 한 번도 옮긴 적 없이 줄곧 한 자리를 지켜 온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1617년(광해군 9년) 목사 강복성(康復誠)의 후원으로 상주의 대표 명현학자인 이준(李俊, 1560년~1635년)이 편찬한 경상도 상주의 읍지인 『상산지(商山誌)』에는 “숙헌 장구손(瀟憲 姜龜孫, 1450년~1505년)이 목사로 부임하여 성화(成化) 연간에 성전(聖殿)

154) 『商山誌』(청대본·증보본), 「향교」 조에는 연호를 정덕(正德, 1506~1521)으로 표기되어 있음. 목사 조치의 재임(1426~1435)연도와 ‘정덕’의 연도가 서로 달라 ‘정덕’은 ‘선덕(재임 1426~1435)’의 오키로 보임

3칸, 루 5칸, 동재 5칸 등을 중창했다, 성전과 재루(齋樓)에 홍귀달의 기가 있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런 내용은 허백정 홍귀달(虛白亭 洪貴達, 1438~1504)이 문집인 『허백정집(虛白亭集)』 쓴 「상주향교 중수기(尙州鄉校 重修記)」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목사 강구손의 재임기간이 1486~1486년이므로 이 시기에 상주향교의 주요 건물이었던 성전, 루, 동재를 크게 고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산지』에는 중창, 『허백정집』에는 중수로 기록되어 있어 수리 정도는 알 수 없다.

역대 상주목사의 명단록인 「상주목선생안(尙州牧先生案)」에는 1581년(선조 14) 봄에 목사 유명길(柳永吉, 재임기간 1581년~1586년)이 성묘(聖廟)를 중창하고 유기제구(鑰器祭具)를 마련했다는 기록이 있다. 또 상주의 대표 문인인 송량(宋亮, 1534년~1618년, 자는 경명(景明), 호는 우곡(愚谷))의 『우곡집(愚谷集)』 임진왜란 당시 상주향교의 위급한 상황에 대한 대처 상황을 살필 수 있다. 즉 임진왜란때 송량의 맏아들인 송이회(宋以誨)를 향교로 보내 성묘위판(聖廟位版)을 깨끗한 땅에 묻도록 했다. 이로 인해 향교는 전소되어도 위판은 보존하게 되었다고 전한다. 임진왜란 때 상주향교는 완전히 전소된 것으로 보인다.

임진왜란 직후인 광해군대에 대대적으로 복구가 이루어졌음이 『상산지』 「향교 대성전 상량문」, 「향교 명륜당 상량문」, 「상주함창목민관」 <상주목선생안> 등의 기록을 통해 일견 살필 수 있다. 당시의 상황과 건축적 현황을 보면, 1610년(광해군 2)에 제일 먼저 대성전을 중창하고, 담장을 설치하는 등 향교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자 건물이 복구되었다. 대성전의 중창은 1610년(광해군 2) 윤 3월 22일에 강인(姜綱, 재임 1609년 2월~1612년 1월) 목사가 향교 대성전을 중창하고 상량했다고 한다. 「향교 대성전 상량문」에 따르면 “(중략) “삼가 공경하고 생각하여 변방의 군병을 철수하고서부터 제물을 올려 춘추 석전을 비록 거행하였으나 중로(重櫨), 첩공(疊拱)”, 오가(五架)의 형체가 아직 정비되지 못하였고, 학구의 담장조차 체통에 어울리지 않았다.(중략) 옛 제도를 없애고 원대한 계획을 새롭게 한다.(중략)중영(重楹)과 첩공(疊拱) 등 오가(五架)의 묘우에 형체는 넓지 못하였다. 궁장은 관침의 칭찬을 듣지 못하였고, 환륜(奐輪)은 진요(震耀)하여 개수가 적의하였다. 이에 구제(舊制)는 혁거하였고, 광대한 규모는 옛 것을 혁신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한편 2005년도에 대성전을 중수할 때 종도리 바닥에서 상량 목서가 발견되었다. 목서에는 “皇命 萬曆 三十八年 庚戌 閏 三月 二十二日 牧使 晉昌君 姜綱(중략)”이란 기록이 있다. 여기서 황명 만력 38년은 1610년(광해군 2)이다. 임진왜란때 소실된 성전은 임진왜란 직후인 1610년에 대성전이란 이름으로 중창했고, 당시의 문헌과 상량 목서의 기록이 있다. 대성전을 중창한 2년 뒤인 1612년(광해군 4)에는 동무·서무와 연당을 창건했다. 1612년(광해군 4) 봄에 한술(韓述, 재임 1612년 봄~가을 9월 )목사가 향교 동무와 서무, 연당(蓮塘)을 창건하였다. 임진왜란에 전소된 상주향교는 1610년~1612년에

걸쳐 대성전, 동무, 서무 등 제일먼저 제향공간의 주요건물을 건축해 정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향교의 제향공간이 복구된 뒤 5년 후인 1617년(광해군 9)에는 정호선(丁好善, 재임 1617년 4월~1619년 10월)목사가 부임하여 향교 명륜당을 중수했고, 이준이 상량문을 지었다는 기록이 있다. 명륜당까지 중수함에 따라 향교는 이 시기에 어느 정도 옛 제도를 갖추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임진왜란 때 전소된 향교는 광해군대에 복구를 통해 정비된 것으로 보인다. 제일 먼저 대성전을 중창(황폐하거나 허물어진 것을 다시 새롭게 지음)하고 그 다음으로 동무·서무와 연당을 창건(건물을 처음으로 세움)해 제향공간을 옛 모습대로 정비했다. 그런 후 강학영역의 명륜당을 중수(또는 중건, 낡은 건축물 따위를 다시 손질하여 고침)함으로써 향교의 제도를 일단락 갖춘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대성전이 중창, 명륜당은 중건(『상산지』에는 중건 또는 중수(『수계집』에는 본주 향교 명륜당 중수기라 기록되어 있음), 동무·서무·연당은 창건이란 점이다. 따라서 기록상 임진왜란 이후 광해군대 상주향교의 건물 복구정비의 대상은 대성전, 명륜당, 동·서무 등이었다. 다만 임진왜란 이전과 비교해 큰 차이점은 먼저 건물명이 달라진 점(성전→대성전), 새로운 건물이 등장한 점(동무, 서무, 명륜당 등), 이전 건물이 없어진 점(남루, 동재) 등이다. 특히 대성전과 동·서무는 제향영역의 주요 건물이고, 명륜당은 강학영역의 중심 건물임을 고려하면 제향영역과 강학영역은 엄격한 분리 및 각 영역별 배치가 임진왜란 이전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강학영역 윗단에 위치하는 제향영역에는 대성전을 중심으로 전방에 마당을 두고 그 좌우로 동무와 서무가 마주보며 배치된 구성인데, 이런 배치구성은 임진왜란 직후에 성립된 것으로 보여진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대성전을 비롯한 동무와 서무, 명륜당이 임진왜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규모와 형태로 새롭게 계획 건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향교 대성전 상량문」에 따르면 “묘우는 넓지 못하고 담장은 개수가 필요하므로 옛 제도를 고쳐 큰 규모로 혁신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다. 임진왜란 이전에 성전 3칸이던 것이 1610년 중창시에는 대성전 5칸 규모로 바뀌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임진왜란 이전의 기록에 보이지 않던 동·서무와 연당이 1612년에 새로 건립된 점은 향교의 배치구성과 제향공간의 배치구성에 변화가 있었음을 암시한다.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상주목의 대설 위 향교에 걸맞는 배향 인물의 위패를 안치할 수 있는 동·서무가 건립됨으로써 향교의 품격이 재정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631년(인조 7) 목사 유항(柳恒, 재임 1630~1631년 윤 11월)이 지역 사림의 도움을 받아 동·서무와 연당을 중수하였다. 그 이후 한참 동안 건물을 보수, 중수한 기록이 없다가 1824년(순조 24)에 이르러 대성전을 중수 또는 번와공사에 관한 기록이 있다.

1966년 대성전을 중수할 때, 도광사년(道光四年, 1824년)이란 명문와가 수습되었기 때문이다. 곧이어 1832년(순조 32)에 목사 유병주(兪秉柱)가 사림과 협력하여 명륜당을 중수하였다. 『상산지』 권 6, 상량문, 「향교 명륜당 중수기」에 따르면, 지역 사림의 협력을 받아 폐사(廢寺)의 목재를 보태어 명륜당을 중수하였다. 1840년(헌종 6)에는 동·서무를 중수하였는데, 2004년 11월 보수공사시에 나온 종도리에서 당시의 중수 상량목서가 확인되었다.

근대에 들어 일제강점기인 1910년에는 군수 박해령(朴海齡, 재임 1910년 8월~1914년 8월) 재임시에 향교를 중수하였다. 1923년에는 군수 신현구(申鉉求, 재임 1923년~1926년)가 향교 구내에 주자의 영각을 창건하고 기념비를 건립하였다. 1923~1926년에 걸쳐서는 상주향교내에 사립 대성강습회(私立大成講習會)를 설립하고, 향교 대성전에서 수업이 이루어졌다. 1949년에는 동·서무에 우리나라 18현의 위패를 대성전으로 올려 25위로 합사하고, 동·서무에 있던 108위 위패를 향교 뒷산 주변에 묻었다. 동·서무가 공실로 남아 있자 상주 고등공민학교에서 교실로 개조하여 이용하였다. 1950년 한국전쟁 때에 대성전 일부가 훼손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 1951년에 한국전쟁때 훼손된 대성전을 보수하고 향교 구내에 남산중학교가 설립됨에 따라 동·서무를 교실, 대성전을 강당으로 사용하였다. 또 동재는 향교 동쪽 담장 밖으로 이전하였다. 동재는 조선후기의 기록에는 등장한 바 없는 건물로 근대기에 건축된 것으로 보여진다. 1959년에 강당으로 사용되던 대성전에 옛 모습으로 정비해 5성위를 다시 안치하였다. 1961년 남산중학교 교무실로 사용되던 명륜당이 화재로 소실되었다. 이에 상주시 신봉동에 있던 일제강점기때 이전한 상주목 관아 정문이었던 태평루를 향교내로 이전하여 단층 강당으로 사용하였다. 1966년에 도비와 군비를 들여 중수하고 단청을 하였다. 1974년에 대성전 기단과 석축을 보수하였고, 1982년에 대성전을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55호로 지정되었다.

경상북도 문화재지정 이후로는 1985년에 대성전의 번와공사, 서무의 연목을 교체하는 보수가 있었다. 1987년에 동무의 번와공사, 1989년에 동·서무의 벽체를 보수하고 내삼문을 신축하였다. 1990년에 동재를 복원했고, 1991년에 2층의 남루를 완공하여 명륜당으로 사용하였다. 1992년에는 서재를 복원하고 강당으로 사용하던 태평루를 임란북천전지로 이전하였다. 1994년에 고직사를 건립하고, 1995년에 외삼문과 복합 건물인 남루를 중창하고 주위에 담장을 설치하였다. 1998년에 대성전 실내 바닥에 전돌을 설치하고 담장을 보수하였다. 2001년 대성전에 단청을 하였고, 2005년에 대성전, 동·서무를 중수하였다. 이때 대성전 종도리에서 1610년(광해군 2)에 강인 목사가 지역 유림의 협력을 받아 대성전을 중창 상량한 목서를 확인하였다. 또 동·서무의 종도리에서는 1840년(도광 20, 헌종 6)에 상량했다는 목서가 확인되었다. 동무 기와 중에 도광 신축(道光辛丑, 1841년(헌종 7)의 명문와가 확인되어 1840년 동·서무를 상량한 그 이듬해에 번와공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2006년 6월에 대성전에 기존 25위(5성위, 송현 2현, 동국 18현)를 봉향하던 것을 성균관과 같이 39위(5성위, 공문 10철, 송현 6조, 우리나라 18현)로 승합사 봉안하였다. 2007년 남루와 동·서재를 증축 증건하였고, 2009년에 명륜당을 증창 복원하여 옛 모습을 찾았다. 2015년 대성전 기와를 보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상과 같이 상주향교는 고려 말부터 존속해 온 뒤 오늘날까지 다른 곳으로 옮긴 적 없이 한자리를 줄곧 지켜 온 오랜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상주는 삼국시대에 사벌주(沙伐州)에서 상주로 개칭되었고, 통일신라시대에는 전국 9주 중에 하나로 거읍, 대도시이었다.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는 상주목(1392년~1600년)으로 경상도 지역의 행정, 사법, 군사의 업무를 위한 감영이 있었다. 당시 지방 행정적 위계상으로 상주향교의 설위 형식은 대설위<sup>155)</sup>에 해당된다. 상주향교가 대설위 향교<sup>156)</sup>에 걸맞은 규모와 면모를 갖춘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 알 수 없다. 다만 임진왜란 때 큰 피해를 입었고, 광해군대 대성전 증창, 동·서무와 연당 건립, 명륜당 중수 등 대대적인 복구가 있었다. 향교에서 가장 위계가 높은 제향공간에 대성전, 동·서무가 먼저 복구되었고, 그 다음으로 강학공간의 명륜당이 차례로 건축되었다. 특히 대설위 향교의 품격에 걸맞는 대성전, 동·서무가 갖추어지게 된 시기는 임진왜란 직후인 1612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17세기 복구이후 조선후기까지 대성전, 명륜당, 동·서무 등 향교 주요 건물을 주로 중수가 이루어졌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임진왜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건물 및 배치구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제향공간은 임진왜란 이전보다 강화된 반면 강학영역은 큰 변화성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지역의 많은 명현학자들의 존재와 그들이 사학공간이었던 서원·서당·정사 등이 어느 지역보다 많았던 것이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조선후기에서 근대에 걸쳐 향교 건물은 지속적으로 중수 등의 건물 보존관리가 이루어졌다. 이는 향교가 공익의 교육과 교화로 지역사회의 중심역할을 했음을 암시한다. 하지만 한국전쟁 등을 거치면서 또 다시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고 이후 지역 학교가 향교를 이용함에 따라 건물은 교사, 강당으로 사용되는 변화를 겪었다. 특히 1961년에 학교 교무실로 사용되던 명륜당이 화재로 소실, 동재가 이건되는 등 강학공간내 주요 건물 및 공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82년 경상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제향공간내 건물의 보수와 소실된 명륜당, 동·서재의 신축이 이루어졌고, 2006년

155) 각 지방의 행정 중심지인 계수관 및 주·부·목·대도호부에 세워진 향교에 취해진 설위 형식이다. 대설위의 위패는 공자 앞에 사성(四聖-안저, 증자, 자사, 맹자)을 배향하고, 사성 뒤에 공자의 수제자인 십철(十哲-민손, 염경, 염옹, 재여, 단목사. 염구, 증유, 언언, 복상, 전손사) 및 송조육현(宋朝六賢-주돈이, 정호, 정이, 소옹, 장재, 주희)을 종사한다. 또 동·서무에는 공문(孔門) 72현과 한당(漢唐) 22현 및 우리나라 18현유(설충, 최치원, 안향, 정몽주, 김굉필, 조광조, 이황, 정여창, 이언적, 이이, 성혼, 김장생, 송시열, 송준길, 박세채, 김인후, 조현, 김집)를 종사한다.

156) 경북지역에서 대설위 향교는 상주향교를 비롯해 경주향교, 안동향교가 있다. 전국적으로는 서울문묘, 강릉향교, 나주향교, 제주향교, 전주향교 등이 있다.

에는 대설위 형식에 맞춰 위패를 재봉안하는 등 옛 제도에 따라 정비하여 오늘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으로 보인다.

## 2) 대성전 연혁

상주향교 관련문헌에서 대성전 연혁만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제일 먼저 보이는 기록은 허백정 홍귀달(洪貴達, 1438년~1504년)의 『허백정문집』 권2 기(記)와 『상산지』 문한편에 실려 있는 「상주향교 중수기」이다.

“(중략) 삼가 생각하건데 우리 주의 향교가 건축된지 오래되어 성전(聖殿) 3칸, 루(樓) 5칸의 기둥이 흔들려 기울고 서까래가 부러져 비가 새고 바람이 들어쳐 단청이 모두 벗겨지고 뭉개졌다. 다만 동재 5칸이 있는데 이 역시 창과 벽이 허물어지거나 없어지고 난간과 담장 또한 부서지고 무너져서 금포(衿抱)가 성글고 허하여서 장차 선현을 편히 모시고 교사(教師)와 서생(書生)이 거처할 수 없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목사가 부임한 초에 먼저 선성과 선사를 배알하고 강당(講堂)에 앉아 서생들의 예를 받은 후에 전당(殿堂)과 재사(齋舍)를 둘러 보고 슬프다.(중략) 이에 재목을 모으고 기와를 구워 역사를 함에 백성들의 부역을 번거롭게 하지 않고 관에서 직접 담당하며 목사가 몸소 감역하여 많은 시일이 걸리지 않고 기둥이 흔들린 것을 바로 일으켜 세우고 서까래가 부러진 것을 새로 교체하고 재사의 허물어 곳에 창과 벽을 정비하고 담장이 허물어진 곳까지 모두 개축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편히 거처하고 잠자며 그 중에 송독하게 된 것은 다 목사의 힘이다.(중략)”

위의 기록은 1486년(성종 17) 목사 강구손(姜龜孫, 재임 1486년~?)이 상주향교를 중수한 내용이고, 허백정 홍귀달이 중수기를 쓴 것이다. 중수시에 등장하는 당시의 건물은 성전 3칸, 루 5칸, 동재 5칸이고, 시설로는 담장 등이다. 성전은 임진왜란 이후에 기록인 이준의 『상산지(1617)』에 보이는 대성전(大成殿)을 가르키는 것으로 보인다. 루는 1429년(세종 11) 판목사 조치(曹致, 재임 ?~1429)가 향교에 남루(南樓)를 세웠는 기록이 『상산지』 향교조에 기록되어 있다. 한편 경상도 도관찰출척사 홍여방(洪汝方, 재임 1428년 12월 2일~1429년 12월)이 남루의 기를 썼다고 하나 전하지 않는다. 향교의 남쪽에 건립한 루라고 볼 수 있는데, 용도는 정확히 밝혀진 것이 없다. 동재는 강학영역내 명륜당 앞·뒤로 배치되어 유생들이 거처하며 공부하던 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로써 1486년에 상주향교의 중수는 성전, 남루, 동재이고, 향교를 구획했던 담장이었다.

1486년 성전을 중수한지 100여년 뒤 임진왜란이 발발할 때까지 별다른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임진왜란 때 대성전은 다른 건물과 함께 불타 소실되었다. 그 뒤 광해군대에 이르러 대대적인 복구가 이루어지는데, 가장 먼저 대성전을 중창하고 상량했다. 대성전 중창에 관한 자료는 이준(李俊)의 대성전 상량문<sup>157)</sup>, 1966년 대성전 중수시에 확

인된 종도리 상량 묵서<sup>158)</sup> 등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대성전 상량문의 내용을 보면, “(중략) 삼가 공경하고 생각하여 변방의 군병을 철수하고서부터 제물을 올려 춘추 석전을 비록 거행하였으나 중로(重櫨), 첩공(疊栱)”, 오가(五架)의 형체가 아직 정비되지 못하였고, 학구의 담장조차 체통에 어울리지 않았다.(중략) 옛 제도를 없애고 원대한 계획을 새롭게 한다.(중략) 중영(重楹)과 첩공(疊栱) 등 오가(五架)의 묘우에 형체는 넓지 못하였다. 공장은 관침의 칭찬을 듣지 못하였고, 환륜(奂輪)은 진요(震耀)하여 개수가 적의하였다. 이에 구제(舊制)는 혁거하였고, 광대한 규모는 옛 것을 혁신하였다”(중략)”

위 기록에서 주목할 것은 첫째, 임진왜란 이전에 보이던 성전이란 명칭 대신에 대성전이라 명칭이 사용된 점, 옛 제도의 잘못된 점을 찾아 광대한 규모로 혁신했다는 점 등이다. 즉 임진왜란 이전에 성전 3칸을 1610년 중창시에 이전보다 큰 규모로 지금과 같은 대성전 5칸으로 건축된 것으로 보여진다.<sup>159)</sup>

대성전은 중창이후 214년 뒤인 1824년(순조 24)에 1차 중수한 기록이 있다. 당시에 중수한 범위는 알 수 없다. 중수 이후로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향교 시설은 다소 황폐화되었다. 근대기에 향교는 남산중학교 교정으로 사용되면서 대성전은 한국전쟁 때 훼손된 것을 보수해 강당으로, 동·서무는 교실로 각기 사용되었다. 1824년에 1차 중수한지 142년만인 1966년에 2차 중수가 있었다. 1974년과 1977년에 기단을 보수했고, 1982년에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55호로 지정되었다.

경상북도 문화재로 지정된 이후로는 1985년에 동·서무와 함께 연목이상 해체하여 기와, 서까래 등을 교체 보수했고, 1998년에는 모르타르마감의 실내 및 기단 상면을 전돌로 교체 보수하였고, 2015년에 기와를 교체보수했다.

이상과 같이 상주향교 대성전은 1486년에 성전 3칸을 중창한 뒤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고, 1610년에 지금의 위치에 현재와 같은 5칸으로 중건한 것으로 보인다. 중건 이후 214년 뒤인 1824년에 1차 중수가 있었고, 1950년대에 향교 내에 설립된 남산중학교의 강당으로 사용되면서 창호 등에 변화가 있었다. 1966년에 2차 중수(변와, 단청 등)가 있었고, 1974년에 기단 및 석축 보수, 1985년에 연목이상 해체 및 원형을 찾아 보수하였다. 2015년에 기와를 교체하는 등 일련의 보수를 통해 옛 모습대로 보존관리되어 왔다. 현재 대성전의 위치, 규모, 구조형태는 후대 몇 차례 중수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1610년 중창때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남산중학교 강당으로 사용된 뒤 보수하면서 예전과 다른 전면 창호(「조선고적도보」 사진에 창호 자료가 있

157) 『상산지(商山誌)』, 이준(李竣), 향교대성전상량문(鄕校大成殿上樑文)

158) 皇命萬曆三十八年 庚戌潤三月二十二日 牧使晉昌君姜綱...

159) 정명섭·조영화, 상주향교의 배치형식 변천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제13권 5호, 2004. 12.에는 1559년에 상주향교가 대설위로 승격될 때 그 제도규범에 따라 대성전을 3칸에서 5칸으로, 동·서무도 지금과 같은 10칸으로 확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음)와 종대공에 남은 단청은 고증을 통해 원형대로 복원할 필요가 있다.

### 3) 동·서무 연혁

동·서무는 현재 제향공간내 대성전 전방의 마당 양편으로 동일한 규모 및 형태로 서로 마주보며 동서로 배치되어 있다. 동·서무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상주목의 목사 명단을 기록한 「상주목선생안(尙州牧先生案)」에 1612년(광해군 4) 한술 목사가 향교 동·서무, 연당을 창건하였다는 내용이다. 임진왜란으로 큰 피해를 입은 상주향교는 광해군대에 대대적으로 복구정비가 이루어졌다. 이 당시에 제일 먼저 건축한 건물은 향교에서 가장 위계가 높은 대성전이었고, 그 다음으로 동·서무였다.

향교에 배향하는 인물은 공적, 국가적인 기준에 의해 선정되었으며, 향교의 대소 규모에 따라 종사자의 설위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 이는 대설위, 중설위, 소설위로 구분되며, 설위 절차 및 배열형식은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었다.<sup>160)</sup> 상주향교에서 제향공간에 배향을 위한 주 건물은 대성전과 더불어 동·서무가 주요건물이다. 배향 인물의 기준은 대체로 지방행정단위의 위계에 따라 대성전과 동·서무의 존재여부, 배향하는 인물이 향교마다 다소 차이가 있었다. 어쨌든 동·서무는 대설위와 중설위 향교에서 확인되는 제향을 위한 주요 건물이다. 1612년에 상주향교에 동·서무가 새로 건립된 것은 배향 인물이 이전보다는 늘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며, 이는 지방행정 위계가 향교 규모를 결정하였던 결과를 반영한 이라하 할 수 있다.

상주는 고려 때인 983년(성종 2)에 12목을 설치할 때 상주목이 된 뒤 몇 차례 변화가 있었으나 조선 건국과 함께 경상도 감영이 1600년까지 설치 운영되는 등 경상도의 대응을 유지해 왔다. 지방 행정 중심지인 계수관 및 주, 부, 목, 도호부에 세워진 향교에는 대설위로 상주목은 여기에 해당된다. 대설위는 대성전에 공자를 비롯해 사성(四聖), 공자 수제가 십철(十哲), 송조6현(宋朝六賢)을 배향하였고, 동·서무에는 공문(孔門) 72현과 한당(漢堂) 22현, 우리나라 18현을 배향하였다. 중설위에는 주로 도호부, 군에 설치된 향교의 설위형식으로 대성전에 공자를 비롯해 사성, 10철, 송조6현, 동·서무에는 우리나라 18현을 배향하였다. 당시 상황으로 보아 일찍이 경상도의 대응이었던 상주목에 향교는 대설위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임진왜란 이전의 기록에 등장하는 건물은 성전 3칸, 남루(루) 5칸, 동재 3칸 뿐이다. 성전 3칸의 규모는 알 수 없으나 대설위에 해당하는 많은 위패를 모두 안치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1612년에 대성전과 함께 동·서무가 건립된 것은 대설위의 위패 안치를 고려한 결과로 보여진다. 이는 지방 행정의 위계가 곧 향교의 설위형식으로 연동된 것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하야튼 상주목에 대설위 향교의 제도와 격식을 갖추게 된 것은 1612년에 동·서무가 건립된 시점부터라 할 수 있다.

160) 문화재관리국, 한국의 향교건축, 1998



특히 1949년 6월 4일에 개최한 성균관 전국유림대회의 결정에 따라 동·서무에 안치되었던 우리나라 18현의 위패를 대성전으로 옮겼다. 대성전에는 5성위, 송조 2현에 동·서무 18현을 합쳐 총 25현이 안치되었고, 대성전에 있던 공문 10철과 송조 4현 동·서무의 중국 현사 94현의 위패는 땅에 묻었다고 한다. 이런 일련의 상황으로 보아 조선 후기에 동·서무에는 우리나라 18현을 비롯해 중국 현사 94현 등 총 112현의 위패가 안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동·서무 건립이 상주향교가 대설위의 격식을 따른 위패가 안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동·서무가 창건되고 19년 후인 1631년(인조 9)에 1차 중수가 있었다. 동무는 1차 중수이후 210년 뒤 1840년(헌종 6)에 2차 중수가 있었다. 1차와 2차 중수 당시에 각 건물의 보수 범위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근대에 들어 1949년에는 동·서무에 안치되었던 우리나라 18현의 위패를 대성전으로 옮겼고, 나머지 중국 현사 94현의 위패를 땅에 묻음에 따라 공실로 남아 있던 동·서무를 상주 고등공민학교 교실로 개조해 사용하기도 했다. 이후 상주 고등공민학교가 남산중학교로 개칭되었고, 동·서무는 여전히 교실로 사용되었다. 당시 교실로 사용하기 위해 동·서무에는 실내를 3칸으로 칸막이벽을 설치했던 것으로 보인다. 동·서무 실내에 칸막이벽이 설치된 예는 현재 서울 문묘 및 대성전(보물 제141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울러 전면 벽체가 퇴칸까지 확장해 여기에 출입문과 창호를 달았음이 1979년 사진에서 볼 수 있다. 1985년에 동·서무는 연목이상 해체하여 기와 · 서까래 등을 교체 보수했고, 1987년에 남산중학교 교실로 사용할 때 바뀐 벽체 및 창호를 원형대로 보수했고, 기둥 동바리와 드잡이 등 3차 중수가 있었다. 하지만 동·서무의 실내에 설치되었던 칸막이벽은 그대로 두었다.

이상과 같이 동·서무는 임진왜란 직후인 1612년에 제향영역내 대성전 전방에 초창된 뒤 1631년, 1840년에 각기 중수가 있었다. 1949년부터 남산중학교 교실로 사용되면서 실내 칸막이 설치 및 전면 벽체의 퇴칸으로 확장하고 창호를 설치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1985~1987년에 옛 모습대로 중수하였고, 규모 및 형태와 구조가구는 창건 당시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 2. 건축현황과 특징

### 1) 입지 및 배치

상주향교는 상주시 신봉동 230-1번지에 위치한다. 이곳은 상주시내 남쪽으로 동쪽에는 병성천과 그 너머 식산, 서쪽으로는 북천에 흘러드는 개운천이 가까이 있다. 두 하천사이에 독립된 구릉의 북단 남쪽에 배산하여 남향하고 있다. 옛 관아가 있던 왕산에서 남쪽 직선거리로는 약 1.1km지점이다. 상주향교의 위치와 관련된 기록은 『상산지』에 ‘향교재주남오리유(鄉校在州南五里有)’라고 기록되어 있다. 지금까지 전하고 있는

조선후기 상주목의 각종 지도를 보면 옛 읍치 및 상주읍성은 북쪽으로 서에서 동으로 흘러 낙동강으로 합류하는 북천과 남에서 북으로 흘러 역시 북천에 합류한 뒤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병성천사이의 넓은 충적지에 위치한다. 읍치의 중심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나지막한 동산인 왕산을 중심으로 주위에는 읍성 안에 관아를 비롯한 주요 지방행정 기관이 자리잡고 있었다. 우리나라 향교는 전통적으로 읍치 또는 읍성 밖 1~3리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주목의 경우에 읍치를 에워싸며 흐르는 하천과 그 천변의 충적평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경관이 뛰어나고 한적한 곳에 배산하여 향교가 들어설 곳이 적당치 않은 편이다. 그래서 읍치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남쪽 구릉에 배산해 입지한 것으로 보인다. 향교는 구릉 남쪽 경사지에 배산하여 전방으로 낙동강 지류인 병성천과 그 천변으로 펼쳐진 넓은 들을 향해 남향하고 있다.

배치는 구릉 남쪽의 경사지를 이용하여 출입영역, 강학영역, 제향영역 3단으로 나누고, 각 영역별로 주요 건물을 배치하였다. 제일 낮은 단부터 출입, 강학, 제향영역 순으로 위계 및 영역을 엄격히 분리했다. 제향영역에는 대성전, 동·서무, 내삼문, 강학영역에는 명륜당, 동재, 서재, 출입영역에는 남루, 부속시설로 고직사, 화장실, 강학당 등이 있다. 현재의 배치형식은 전학후묘형, 전재후당형을 취하고 있다. 특히 근대기에 남산중학교가 향교 건물을 이용할 때 강학영역에 있던 건물의 이전, 철거 등의 변형이 많았다. 이후 1990년 동재 복원, 1992년 서재 복원, 1995년 남루 중창, 2009년 명륜당 중창 등이 이루어졌다. 이에 반해 제향공간은 임진왜란 이후 광해군대 중창, 창건된 뒤 근대기에 남산중학교의 강당, 교사 등으로 일시 이용되긴 했으나 배치상의 변화는 없었다.

- 임진왜란 이전

문헌상에 등장하는 임진왜란 이전의 상주향교 건물은 1428년에 남루 건립, 1486년에 성전 3칸, 누 5칸, 동재 5칸 중수 등이다. 기록에 강당이란 단어가 나오긴 하나 이것이 명륜당을 지칭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일부 연구자는 당시 강학과 관련된 건물로는 기록상의 남루 또는 루가 강당의 기능을 하였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한다.<sup>161)</sup> 물론 임진왜란 이전의 문헌에 대성전, 명륜당이란 명칭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 향교 배치도 건물의 기능상 제향의 성전, 강학의 동재(서재?), 남루(누)가 기능적 공간분리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고려말~조선초에 공자를 모신 사당과 공부하는 강당이 함께 있는 묘학동궁(廟學同宮)의 배치형식을 취했다는 향교가 있어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묘학동궁이라면 제향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성전과 강학과 관련된 문루(루)가 중심축선상에 배치되고 두 건물 사이에 동재(서재?)가 배치된 형식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 임진왜란 이후~조선후기

161) 정명섭·조영화, 상주향교의 배치형식 변천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제13권 5호, 2004. 12.

임진왜란으로 향교가 소실되었고, 뒤이어 광해군대에 대대적인 복구정비가 이루어졌다. 가장 먼저 복구한 건물은 1610년에 대성전 중창이고, 뒤이어 1612년에 동·서무, 연당의 창건이었다. 또 1617년에는 명륜당을 중건(중수)해 제향과 강학의 기본적인 골격을 갖추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의 기록에서는 1823년에 대성전 중수, 1840년에 동무 중수 등이 있었으나 그 외 다른 건물의 존재는 조선후기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즉 임진왜란 이전의 기록에 등장하는 성전, 남루, 동재는 임진왜란 이후로는 대성전, 동무, 서무, 명륜당이란 명칭이 새로 등장한 점, 동·서무가 창건된 점, 남루와 동재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록상에 임진왜란~조선후기까지의 등장하는 향교 건물은 대성전, 동무, 서무, 명륜당 뿐이고, 그 외 부속시설로 담장이 있다. 다른 건물의 존재여부는 기록이 나타나지 않아 알 수 없다.

특히, 대성전과 동·서무의 존재는 제향공간의 격식과 함께 임진왜란 이전의 의식행위 및 배치형식에 큰 변화를 가졌왔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대성전과 동·서무의 제향영역과 명륜당을 중심으로 한 강학영역으로 영역별 엄격한 공간분리와 지형을 이용한 전학후묘형식이 지금처럼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 근대~현재

일제강점기때 제작된 『조선고적도보(1915년~1935년)』 사진에 상주향교 기록이 남아 있다. 근대기에 향교를 남산중학교로 이용하면서 대성전은 강당, 동·서무는 교실, 명륜당은 교무실로 사용되었다. 1961년에 명륜당이 화재로 소실되었고, 같은 해 옛 상주관아의 정문이었던 태평루를 이진해 와 강당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등 다소간 변화가 있었다, 1954년 항공사진에는 제향영역은 이전 시기 그대로이고, 강학영역은 ㄷ자형 명륜당, 태평루, 고직사 등만 확인된다. 이후 1989년 내삼문 신축, 1990년 동재 신축, 1991년 남루를 복원해 명륜당으로 이용, 1992년 서재 복원과 태평루·고직사 이전, 1995년 외삼문 신축, 2004년 충서당 신축, 2007년 남루와 동·서재(3칸→5칸)를 증축 중건, 2009년 명륜당 중창으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1961년 명륜당이 소실된 이후 40여년 사이에 강학영역에는 건물의 소실, 신축, 이전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 2) 대성전 건축 현황

- 규모

대성전 규모는 정면 5칸(17.3m) 측면 3칸(9.0m)이다. 주칸은 정면 어칸이 3,700mm, 그 외는 3,410mm 내외이다. 어칸이 다른 칸보다 1척 가량 넓세 설정해 위계성을 표현하였다. 측면은 전면 퇴칸이 2,260mm내외, 본체 앞칸이 4,380mm내외, 뒷칸이 2,370mm내외이다. 전체 규모는 전면이 17.36m, 측면 9.0m로 전체 평면의 면적은 156.24㎡(약 47.26평)이고, 정면 : 측면 비는 1.89 : 1이다. 현존 향교 대성전의 정×측면의 칸수는 3칸×3칸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5칸×3칸, 3칸×2칸, 3칸×4칸, 5칸×4칸, 5칸×2칸 순이다. 현재 대

설위 향교로 알려진 곳의 대성전은 3칸×3칸(경주, 남원향교), 5칸×3칸(상주, 수원, 강화, 강릉, 동래, 순천향교 등), 5칸×4칸(성균관, 제주, 나주향교 등)로 구분된다. 즉 대설위향교의 대성전 규모는 5칸×3칸과 5칸×4칸 위주로 건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칸수에 따른 건물 면적은 서울 문묘 및 성균관의 대성전(보물 제141호, 1601년~1602년 건축)이 297.1㎡로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제주향교 대성전과 상주향교 대성전이 156.2㎡, 수원향교 대성전이 149.4㎡, 나주향교 대성전 148.5㎡, 경주향교 대성전 119.6㎡, 순천향교 대성전 109.4㎡ 등 297.1~109.4㎡로 차이가 많다. 더욱이 경주·홍주향교 대성전은 3칸×3칸이지만 규모는 5칸×3칸 규모와 같은 면적을 가진 예이고, 5×3칸 중에 동래·강화향교 대성전은 3칸×3칸 규모로 작은 예도 있다. 건물의 칸수와 주칸이 직접적으로 연동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지방행정제도의 위계에 따른 대설위향교의 대성전은 칸수 및 주칸에서 중·소설위 대성전보다 대체로 큰 규모를 보였다. 이는 대설위향교라는 권위 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상주향교 대성전의 규모는 당시 상주목으로 조선조 행정구역이 계수관, 주, 부, 목, 도호부에 세워진 향교의 설위형식에 해당하는 건축 규모와 면적을 가지고 있다. 특히, 대성전의 규모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진 서울 문묘 및 성균관의 대성전(보물 제141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인 제주향교 대성전(보물 제1902호)과 동일 규모이다.

- 평면구성

평면은 전면에 개방된 퇴칸을 두되 양단에 벽을 쳐 막았다. 본체 내부는 벽없이 한 공간으로 넓은 통칸이다. 현재 대성전 평면은 퇴칸의 유무와 퇴칸 양단에 벽체 유무에 따라 일반적으로 구분한다. 5칸 대성전의 경우에 전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퇴칸 측면에 벽체없이 개방된 것과 벽체가 있는 것과는 수적으로 비슷하다. 5칸 전퇴개방형 평면을 가진 대성전은 국가지정문화재 5개소 중에 4개소이고, 그 외는 시도지정문화재이다. 또 전퇴의 측면이 개방된 것 중에 국가지정문화재는 3개소이다. 상주향교 대성전처럼 전퇴의 양단에 벽을 친 국가지정문화재는 제주향교 대성전 1개소이고, 그 외는 시도지정문화재이다.

- 기단부

기단은 경사지에 대성전이 입지한 탓에 지형적 여건을 고려해 전면은 4벌대 장대석 기단, 후면은 외벌대 자연석기단이다. 기단 상면은 전돌깔기이다. 장대석으로 마감된 기단석에는 탐재로 추정되는 부재 몇개도 확인된다. 기단은 1972년과 1977에 각기 보수한 바이다. 전면 기단에는 출입용 돌계단 2개가 건물 췌기둥 밖에 설치되어 있다. 대성전이 배후의 산 경사지에 입지한 관계로 지대가 낮은 전면에 석축 겹 기단을 높게 조성해 건물을 앉혔다. 전면 기단의 축조양상은 큼직한 장대석 3단을 바른층쌓기했고, 맨 윗단에는 장대석 1단으로 마감했다. 기단 상면의 처마 밑 사면으로는 전돌로 마감

했다. 전면 기단의 양측에는 뒷기둥 밖으로 들계단 각 1개씩이 설치되어 있다. 계단 단수는 9단이고, 근년에 수리하면서 예전 모습이 다소 변형되었다.

계단은 통행이나 출입의 용도와 더불어 제향의식 기능에 따른 진입 방향 제시 및 위계성을 나타낸다. 계단의 수는 1~3개로 구분되고, 위치는 전면, 측면, 전면+측면으로 구분된다. 현존 대성전 전면 출입계단은 전면에 3개가 설치된 것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전면 2개, 무계단, 측면 2개, 계단 1개 등의 순이다. 전면 기단에 2개의 출입계단을 뒷기둥 밖에 설치한 예는 3칸의 양구향교 대성전, 고흥향교 대성전 등이 있다.

- 구체부

초석은 전반적으로 8각형 또는 원형으로 다듬은 초석을 사용했다. 후면 어칸 동측 평주에는 별재의 이중초석, 후면 서측 뒷기둥은 장주초석도 보여 다양한 초석을 재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둥은 모두 두리기둥이고, 좌향해 좌측면 본체 앞열 기둥은 배흘림의 흔적도 일부 확인된다. 본체 기둥의 실내쪽 하단에는 예전 남산중학교 강당으로 사용할 때 바닥을 설치했던 테두리마감 흔적이 남아 있다.

공포는 전면 퇴칸의 평주 및 본체칸 후면 평주에는 무출목 이익공, 본체 전면의 고주에는 초익공이다. 익공의 외단 형태는 수서형, 내단은 파련조각형이다. 각 주간에는 2종류의 화반을 두었다. 전면 퇴칸에는 삼소로+연꽃파련형 화반이고, 본체에는 삼소로+두공침차형 화반이다. 대성전 공포가 전·후면 모두 무출목계 익공계인 점은 전국 향교에 보편적 양상이다. 다만, 본체 전·후면의 주간에 사용된 삼소로+두공침차형 화반은 보기드문 예이다.

창호는 전면 어칸과 협칸에만 설치되어 있다. 어칸에는 쌍여닫이 굽널살문, 협칸에 외여닫이 굽널살문이다. 이런 창호형식을 가진 향교는 화순(5×3칸, 1611년 중건) · 울진향교 대성전(5×3칸, 1697년 이건)이 있다. 다만 협칸의 출입문이 열리는 방향은 서로 다른 점이 특이하다. 한편 『조선고적도보』에 실려 있는 상주향교의 대성전 사진에 전면 창호는 지금의 것과 조금 다르다. 어칸과 협칸에는 쌍여닫이 울거미띠장널문이고, 양 퇴칸에는 넓고 큰 광창을 두었다. 이런 전면 벽체 및 창호의 구성 예는 대구향교 대성전과 유사하다. 현재 대성전의 본체 전면의 창호는 『조선고적도보』 등의 고증자료를 통해 원형대로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지붕부

지붕가구는 측면이 2고주 7량가, 내부는 1고주 7량가이다. 1고주 7량가의 예는 양성 · 죽산 · 교동 · 안성 · 광주 · 충주 · 음성 · 청풍 · 여주 · 장수향교 대성전이 있다. 대공은 위치에 따라 3종류이다. 중·하중대공은 파련대공, 중대공은 내부에 파련대공, 양측면은 제형판대공으로 위치에 따라 다르나 세부수법은 동 시기 건물과 같은 수법이다. 현존 조선후기 대성전의 익공 내단 형태 및 대공, 화반에 조각된 형태는 파련문 위주인데, 상주향교 대성전도 동일한 양상이다. 실내 천장은 연등천장이고,

근년에 서까래 등을 교체 보수했다. 지붕은 겹처마에 맞배이고, 양측면에는 방풍판이 설치되어 있다. 특히 단·장연 위에 덧서까래가 설치되어 있다.

단청은 기둥에만 석간주 가칠했고, 전면 퇴칸과 본체 전면의 창방 이상은 모로단청으로 되어 있다. 본체 실내는 창방 이상으로 간소한 굿기단청으로 되어 있어 종대공 등에 남아 있는 고졸한 단청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 3) 동·서무

- 규모<sup>162)</sup> 및 평면

상주향교 동·서무 규모는 정면 10칸(33.3m), 측면 1.5칸(5.23m)로 동일하고, 면적은 174.15m<sup>2</sup>(약 52.68평)이다. 현존 우리나라 향교의 동·서무는 서울 문묘 및 성균관 동·서무(보물 제141호, 1603년~1604년 건축)가 11칸×2칸(44.38m×6.93m)에 308.42m<sup>2</sup>(93평)로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상주향교 동·서무이다. 경주향교(보물 제1727호)는 12칸×1칸에 139.6m<sup>2</sup>(42평)로 세 번째 규모이다.

평면은 전면에 퇴칸을 두고 내부는 3칸(3칸통+3칸통+4칸통)으로 실을 나누어져 있다. 원래 평면은 통칸이던 것을 과거 남산중학교에서 교실로 사용하면서 칸을 나눈 것으로 보인다. 실 내부에 칸을 나눈 예는 서울 문묘 및 성균관의 동·서무에서도 볼 수 있다.<sup>163)</sup> 그 외 대부분의 향교의 동·서무 실내는 통칸이다.

- 기단부 및 구체부

기단은 자연석기단인데, 동무는 외벌대, 서무는 세벌대로 건물간에 높이 차가 있다. 이런 상황은 서무가 동무보다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탓에 동무처럼 완전한 대지 조성보다는 최대한 원지형을 이용하다 보니 발생한 결과로 보여진다. 이런 지형적 상황은 서무 자체에서도 확인된다. 즉 서무가 자리한 대지도 전면은 낮고 후면은 높으므로 이에 맞춰 전면 기단은 높게, 후면 기단은 낮게 축조해 전·후면 기단 높이에도 차이를 둔 것으로 보인다.

초석은 자연석초석과 가공초석이 섞여 있다. 특히 가공석초석은 자연석에 1단 원형 주좌를 가공한 것이 동무 전퇴 일부 기둥에 사용되었고, 석탑재로 추정되는 부재를 초석으로 사용한 것은 서무의 퇴칸 기둥 1곳이 있다. 기둥은 모두 민흘림의 네모기둥이다. 전면 퇴칸 기둥은 신재로 교체되었다.

입면은 전면 퇴칸은 개방되어 있는데, 1949년에 남산중학교 교실로 사용할 때 전면

---

162) 현존 동·서무의 규모는 2칸×2칸, 3칸×2칸, 4칸×1칸, 4칸×2칸, 5칸×1칸, 7칸×1칸, 9×2칸, 10×2칸, 11칸×2칸, 12칸×1칸으로 구분된다. 면적은 서울 문묘 및 성균관 동·서무가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경주향교·상주향교, 강릉향교 순이다.

163) 문화재청, 『서울 문묘 실측조사보고서』, 2006. 서울 문묘 및 성균관의 동·서무는 1955년부터 성균관대학교에서 강의실로 사용된 바 있다. 또 1931년에 발간된 『조선고적도보』 제11권의 배치도 및 동무 실내사진에는 내부 간벽이 나타나지 않아 후대에 설치된 벽체로 판단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퇴칸까지 벽을 치고 여기에 출입문과 창을 달아 다소 변화가 있었다. 1989년 보수시에 옛 모습대로 보수했다. 벽은 안팎으로 회사벽으로 마감했고, 전면 북측에서부터 3, 6, 9 번째 칸에 쌍여단이 굽널살문을 가운데 설치하고 양편으로는 고창을 두었다. 특히 입면의 구성에서 주목되는 것은 건물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면서 경사진 지형을 따라 기단을 흘림기단으로 조성했다. 이에 반해 처마도리와 종도리 높이는 흘림기단과 상관없이 동일 높이를 유지시킨 특성을 보였다. 지형적 특성을 최대한 이용한 흘림기단에 대응해 각 기둥의 높이를 조정해 주상부 이상의 지붕가구와 지붕을 동일 높이로 맞춘 것은 매우 보기드문 예이다. 자연지형을 최대한 이용함과 동시에 길고 큰 건물의 시각적 착시현상을 고려한 지혜라고도 볼 수 있다. 흘림기단에 따른 기둥의 높이를 조정한 것과 연동해 본체 전면 벽체에 가설된 상·중·하인방의 위치도 전체적으로 3단의 단 차이를 두고 결구되는 되는 등 입면에서 독특한 의장적 특성도 보이고 있다.

주상부는 전퇴에 사괘를 틀어 퇴보와 처마도리+장혀를 결구하였고, 본체 후열 주상부는 대들보와 처마도리가 서로 직접 결구하였다. 지붕가구는 1고주 5량가<sup>164)</sup>인데, 현재 서울 문묘 및 성균관, 수원, 부평, 영주향교 등 대·중설위 향교에 동·서무 지붕가구의 특성을 갖고 있다. 대량은 본체 전면의 고주 몸통과 후열 평주상의 처마도리와 결구되어 있다. 종량은 본체 전면의 고주에 칸막이도리와 결구하였고, 뒷면은 대량 위에 세운 동자주 위의 중도리와 결구하였다. 중도리는 종량 위에 동자주를 세워 중도리를 받쳤다. 도리는 모두 납도리이다. 중도리 위치로 본 지붕변작법은 삼분변작법과 사분변작법사이에 다소 애매한 수법이 구사되었다. 내부바닥은 강회다짐하였고, 천장은 연등천장이다. 처마는 흘처마에 맞배지붕이고, 양측면에는 방풍판이 설치되어 있다. 건물의 양측면으로 도리 및 장혀 뺄목에는 가는 두리기둥을 활주처럼 세워 받쳐 놓았다. 옛 목부재에는 녹간주 가칠이 남아 있다.

#### 4)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 (1) 역사적으로 가치

- 임진왜란 직후 중창된 제향영역은 원 위치에 큰 변형없이 유지해 온 역사성

대성전과 동·서무는 제향영역내 중심건물로 임진왜란때 향교가 소실된 뒤 1610년에 대성전 중창(3→5칸 규모 확장)과 1612년에 동·서무를 창건했다. 임진왜란 이전 시기와는 전혀 다른 배치와 건물구성, 배향 인물의 위패 안치 등을 새로운 변혁기를 맞이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성전의 규모 확장과 동·서무의 창건은 당시 상주목에 상주향교가 대설위의 격식과 면모를 제대로 갖추게 된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근대기에 향교내 남산중학교가 설립됨에 따라 대성전은 강당, 동·서무는 교실로 사용하는 등 일

164) 동·서무의 가구는 3량가, 전퇴 3량가, 5량가, 1고주 4량가, 1고주 5량가로 구분된다. 3량가가 가장 많다.

부 공간적 변화가 있었으나 대성전과 동·서무의 제향공간은 원위치에서 큰 변형없이 규모, 구조형태가 오늘날까지 유지해 온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 임진왜란 직후 중창과 창건된 건물의 원형을 잘 간직해 온 역사성

대성전은 1486년에 3칸으로 중건한 성전이 임진왜란 때 소실된 뒤 1610년에 5칸으로 중창, 1824년 중수, 1951년 남산중학교 강당으로 사용, 1966년과 2005년에 각기 중수한 바 있다. 남산중학교 강당으로 사용되면서 실내의 공간 및 창호(추후 「조선고적도보」 사진에 근거 창호 복원이 필요함) 건물은 조선중기의 원형을 잘 간직해 온 것으로 보여진다.

동·서무는 임진왜란 직후 향교를 대대적으로 복구할 당시에 대성전 다음으로 1612년에 창건된 건물로 1631년과 1840~1841년에 중수, 1949년에 남산중학교 교실로 이용, 1985~1987년에 도리이상 해체보수, 1989년에 벽체, 창호, 기둥 보수 등 일련의 보수정비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49년에 남산중학교 교실로 이용할 때 실내 칸막이 설치, 전면 퇴칸에 벽체 및 창호를 설치하는 변형이 있었으나 1989년에 옛 모습대로 복원하였다. 동·서무의 규모 및 구조형태는 조선중기 창건 당시의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2) 건축적 가치

- 조선시대 지역 향교의 건물 및 배치구성에서 시기적 변화를 밝힐 건축사적 가치가 크다

상주향교는 임진왜란 이전에 성전, 남루, 동재를 갖추었다가 임진왜란때 소실된 뒤 광해군대 대대적인 복구정비가 이루어졌다. 이때 복구된 건물은 대성전, 동무, 서무, 명륜당, 연당 등이었다. 즉 임진왜란 이전 시기에는 없던 동·서무, 명륜당이 창·중건됨에 따라 건물 및 배치가 오늘날처럼 정연하게 재구성된 시기적 특성을 살필 수 있다. 이와 연동해 임진왜란 이후로 향교의 기능에 따른 강학과 제향을 위한 공간적 분리와 기능적 위계성에 근거한 엄격한 배치구성이 완성된 시기였다. 이후 건물의 중수 및 보존관리와 운영 등에 향현들의 지원과 주도하는 양상이 돋보이는 시기적 특성도 잘 반영하고 있다. 또 상주는 고려 초기부터 상주목이 된 경상도의 대도시로 조선시대 향교의 설위형식으로는 대설위에 해당하나 실제 적용된 것은 임진왜란 이후의 17세기 초로 지역별 설위형식의 시기적 특성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건물이다.

상주향교 대성전과 동·서무는 조선시대 향교의 기능에 따른 건물과 배치구성, 지방행정체계에 대한 설위형식이 지역별로 시기적 변화양상이 있었음을 밝힐 중요한 건축사적 특성을 가진 중요한 건물이다.

- 우리나라 대설위 향교 중에도 큰 규모를 가진 대성전과 동·서무의 건축성

대성전의 5칸 전퇴개방형 규모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를 가진 서울 문묘 및 성균



관 대성전(사적 141호) 다음으로 큰 제주향교 대성전(보물 제1902호)과 같은 규모이다. 동·서무 역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인 서울 문묘 및 성균관 동·서무(사적 141호) 다음으로 큰 규모를 가지고 있다. 큰 규모와 연동해 지방가구도 서울 문묘 및 성균관, 수원향교, 부평향교, 영주향교 등 대·중설위 향교의 특성을 잘 가지고 있다.

상주향교 대성전, 동·서무의 규모, 구조형태는 조선중·후기 상주목에 대설위 향교의 위상과 품격을 잘 반영하는 건축적 특성을 갖고 있다.

- 동·서무의 크고 긴 건물을 지형과의 조화 및 착시현상을 고려한 기단 및 입면구성의 탁월성

크고 긴 동·서무는 대성전 전방에 서쪽에서 동쪽, 북쪽에서 남쪽으로 경사진 지형에 위치하므로 지형 조건에 순응한 계단(동무는 외벌대, 서무는 세벌대, 서무의 전면은 후면보다 기단이 더 높음)이 돋보인다. 또 기단은 경사진 지형에 맞춘 흘림기단에 기둥높이로 건물 전체의 수평 높이를 조정하고, 기둥간의 인방도 3단의 단차이로 결구한 독특한 입면 구성이 돋보인다.

동·서무는 불규칙한 경사지에 크고 긴 건물을 배치함에 있어 인위적으로 지형을 조성하는 대신에 지세의 순응과 시각적 착시현상을 교정하기 위한 상주향교만의 지혜롭게 독특한 입면적 구성이 특징이다.

이상 상주향교 대성전과 동·서무는 건축 연혁이 명확하고, 조선중기에 중창된 뒤 원 위치에 변형없이 배치와 건축 원형이 잘 간직해 왔을 뿐만 아니라 대설위 향교의 품격에 맞은 큰 규모, 지형과의 조화 및 착시현상을 고려한 동·서무의 탁월한 입면구성 등은 우리나라 향교건축의 지역별, 시기별 변화양성을 밝히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어 국가지정문화재로써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8. 경주향교 명륜당, 동무·서무, 내삼문 국가지정문화재(보물)

### 지정 검토

#### 가. 제안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경주향교 명륜당, 동무·서무, 내삼문」에 대한 국가지정 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북 경주시 소재 「경주향교 명륜당, 동무·서무, 내삼문」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경상북도지사
- (2) 대상문화재 :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91호 「경주향교」
  -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교동 17-1
  - 지정일 : 1985. 10. 15.
-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 명칭 : 경주향교 명륜당, 동무·서무, 내삼문  
(慶州鄉校 明倫堂, 東廡·西廡, 內三門)
  - 소유자(관리자) : 경상북도향교재단(경주향교)
  -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교동 17-1
  - 조성연대 :
    - 명륜당 : 조선시대(1614년 중건)
    - 동무·서무·내삼문 : 조선시대(동무·서무 1604년 중건/내삼문 1602년 중건)
  - 수량 : 4동

○ 지정면적 : 886.7m<sup>2</sup>(보호구역 9,839.1m<sup>2</sup>)

○ 양 식 :

- 명륜당 : 정면5칸, 측면3칸, 1출목 2익공, 어칸 1고주 5량가, 양 협칸 2고주 5량가, 겹처마, 맞배지붕
- 동무 : 정면12칸, 측면1칸, 초익공, 3량가, 홑처마, 맞배지붕
- 서무 : 정면12칸, 측면1칸, 초익공, 3량가, 홑처마, 맞배지붕
- 내삼문 : 정면3칸, 측면2칸, 초익공, 3량가, 홑처마, 맞배지붕

라. 현지조사의견(2020.09.08.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마. 지정조사보고서 : 불임참조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동무·서무·내삼문은 1건으로 지정하고, 내삼문은 “신삼문”으로 명칭 수정.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원안가결 1명, 조건부가결 9명, 부결 1명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0.09.08.	대상문화재	경주향교 명륜당, 동·서무, 내삼문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19호 )	
조사자	성 명	○ ○ ○	전공 분야	건축사
	소 속	○ ○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경주향교 명륜당, 동·서무, 내삼문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 년 9 월 22 일

제출자

○ ○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1.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경주 향교는 경주시 교동 17-1번지에 자리하고 있다. 향교가 있어서 조선후기에도 향교골, 교촌, 교리 등으로 불리었으며, 1914년 행정구역개편 때 교리(校里)가 된 이래 법정행정구역이 되었고, 현재의 행정동은 월성동에 속한다. 위치는 월성과 계림의 서쪽, 남천의 북쪽으로, 인근하여 국가민속문화재 제27호인 경주 최부자택이 자리하고 있으며, 최근 재건된 월정교도 가깝다. 조선시대의 기록인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과 『동경잡기(東京雜記)』에는 부(府)의 남쪽 3리, 계림(鷄林)의 서쪽, 문천(蚊川)의 북쪽에 자리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실제 조선시대의 경주부 읍성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거리가 2km가 채 되지 않는다.



그림 49 경주향교 위치도 (카카오맵)

일반적으로 조선시대의 향교가 읍성 바깥의 산기슭에 자리하는 것과 다르게, 경주 향교는 비록 읍성의 바깥이기는 하지만, 읍에서 가까운 평지에 위치하는데, 이것은 신라 신문왕 때 세워진 국학의 터를 그대로 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혁편에서 다루기로 한다.

경주향교가 대성전 등이 이루는 묘(廟)의 영역을 앞에 두고, 명륜당이 중심이 되는 학(學)의 영역을 뒤에 두는 전묘후학(前廟後學)의 배치형식을 갖는 것도, 그 하나는 신라의 고도였다는 위상에 걸맞게 서울 성균관의 예를 쫓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평지에 위치한 향교로서 더 중요한 것을 앞에 두는 원칙을 따랐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덧붙여 신라와 고려로 이어지는 옛 제도를 따른 영향일 가능성도 있으나, 신라의 국학이나 고려의 향학의 건축 제도에 대해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추측에

그칠 뿐이다.

전체 배치는 남쪽으로부터 외삼문과 내삼문을 지나 대성전과 동서무가 이루는 묘의 영역이 등장하고, 대성전 뒷 담장에 있는 협문을 지나면 명륜당과 동서재가 이루는 강학 영역이 있다. 명륜당 뒷마당으로는 석단으로 한단 높인 둔덕에 송림이 조성되어 있다. 전묘후학의 배치형식을 가지면서 향교 전체의 대문인 외삼문과 대성전 영역의 정문인 신문(神門)으로서 내삼문을 나란히 두게 되었는데, 같은 전묘후학의 배치를 갖는 나주향교는 이와 같고, 전주향교에서는 외삼문 자리에 만화루를 두었다. 한편, 서울 성균관이나 영광향교에서는 따로 외삼문을 두지 않고 신문만 있기도 한다. 묘와 학의 공간으로 이루어진 향교의 주 공간과 나란하게 그 동편으로는 전사청과 고직사, 전교실, 그리고 최근에 지은 예절관, 체험관, 화장실 등의 부속시설들이 앞뒤로 길쭉하게 붙어 있고, 서편 담장 밖으로도 최근에 건립한 예절관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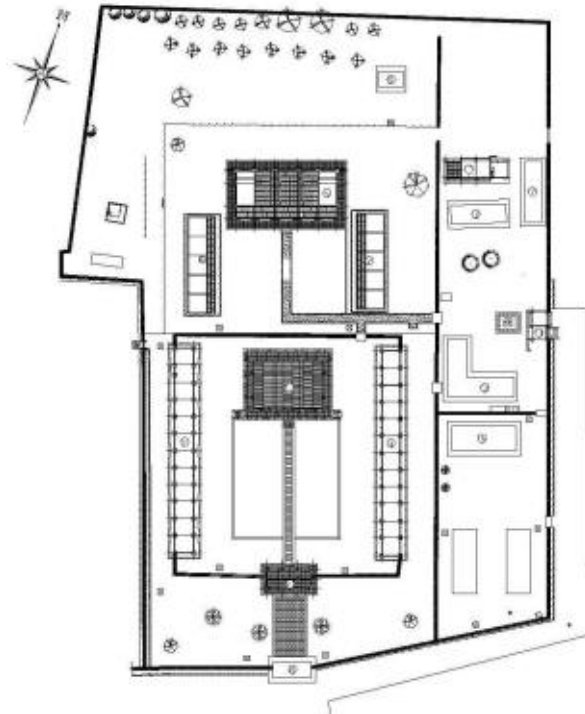


그림 50 경주향교 배치도 (『경주향교자료보고서』에서 전재, 이하 『보고서』)

경주향교의 배치가 갖는 특이한 점은, 내삼문과 동서무, 대성전이 이루는 묘의 영역을 독립된 담장으로 둘러서, 향교 안의 다른 공간과 구분하고, 후면으로는 작은 협문 하나만을 두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것은 항공사진을 통하여 추정하자면 1968년과 1977년 사이에 조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외삼문을 지나서 내삼문을 지나지 않고 묘의 영역을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돌아서 가면 명륜당과 동서재가 이루는 학의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다. 전묘후학의 배치를 취하면서도, 대성전을 지나지 않고 명륜당으로 출입할 수 있게 만든 고려이다. 하지만, 일상적인 출입은 다른 전묘후학형 향교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쪽의 협문을 통하여 한다. 또, 시내에 가까운 평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명륜당 뒤로 송단(松壇)을 조성하여 학교 공간이 여염으로 바로 붙는 것을 막은 것도 경주 향교의 배치가 갖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송단의 조성에 대해서는 연혁에서 다시 다루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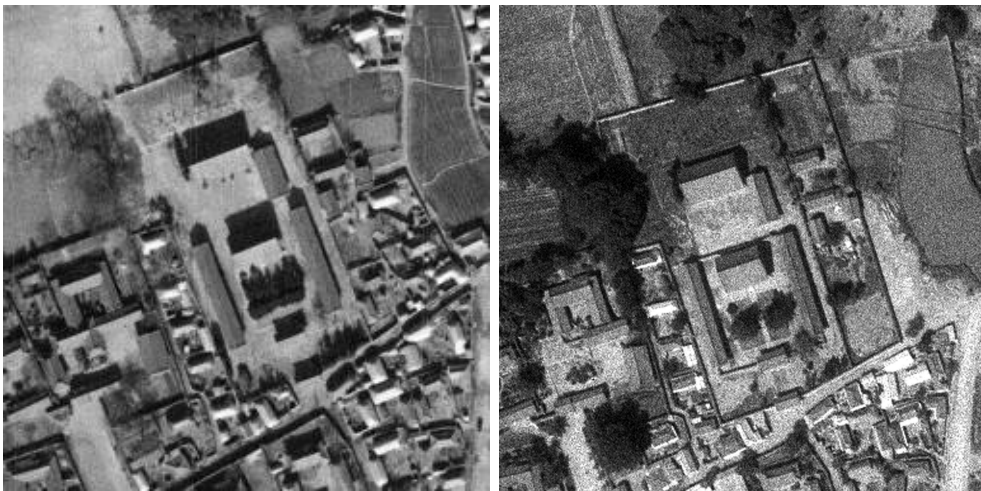


그림 51 1968년(왼쪽)과 1977년(오른쪽)의 항공사진, 내삼문과 동서무를 연결하고 대성전 뒤로 두르는 담장은 1968년과 1977년 사이에 조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재는 두 사진에서 모두 멸실된 채로 나온다. (『보고서』에서 전재)

## 2. 연혁

경주는 신라의 고도로서, 경주 향교의 연혁 역시 신라시대의 국가 교육기관인 국학(國學)까지 소급한다. 국학이 설립된 것은 『삼국사기』에 의하면 682년(신문왕 2)의 일이고, 『삼국유사』에 따르면 그 자리는 원효와 요석공주, 그리고 설총과 관련이 있는 요석궁터라고 전한다. 또, 『삼국사기』에는 717년(성덕왕 16) 9월에 당에 갔던 대감 수충(守忠)이 돌아와 공자와 십철, 72제자의 도상을 헌납하여 대학(大學)에 비치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로서 묘와 학을 갖춘 유교적 교육기관이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935년 신라의 멸망으로 그 제도가 폐지되었으나, 경주에는 고려시대에도 그 자리에 학원, 향학, 학궁이 있어서, 교육기관이 계속 유지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즉, 『삼국유사』에서는 요석궁의 자리가 ‘지금의 학원(學院)’이라 하였고, 1845년 성원묵(成原默)이 증보 편찬한 『동경잡기』에는 신라 국학의 자리에 고려시대에는 향학(鄉學)이 운영되었다고 전하고 있고, 조선 중기 정극후(鄭克後)의 『송단기(松壇記)』에도 경주 향교의 옛터는 신라의 국학의 자리를 잇는다고 기록하고 있다.(麗氏以來. 國學變爲鄉學.

而學宮之基則仍舊焉。卽今之鄉校其地也.)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1492년(조선 성종 23) 부윤 최응현(崔應賢)이 향교를 중수하였고, 임진왜란을 당하여 향교가 소실되었으나 1600년(선조 33)에 관찰사 이시발(李時發)에 의해 대성전과 전사청이 중건되었고 그 다음해인 1601년(선조 34) 제독(提督) 손기양(孫起陽)이 제생(諸生)과 함께 향교 주변에 소나무 약 천여 그루를 이식하였다고 한다. 한편, 보다 자세한 사정을 전하는 「경주향교 대성전 상량문」에 의하면 관찰사 이시발(李時發), 부윤 윤안성(尹安性), 대목 승인 덕림(德林), 부목 우개문(宇介文) 등, 철장 박말질동(朴末叱同), 번와장 승 탄희(坦熙) 등이 구지(舊址)에 동일 향으로 대성전과 남문(南門)을 복원하였으며, 1602년(선조 35) 2월 8일 현재의 대성전이 상량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아마도 1600년 발의한 공사가 1602년 초에 완공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경주 향교 대성전의 지붕에서는 ‘萬曆二十九年(1601)’명의 암막새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곧 이어서 1604년(선조 37) 부윤(府尹) 윤성(尹暻)이 동무, 서무를 각 각 12칸의 규모로 중건하였으며, 1614년(광해군 6)에는 부윤 이안눌(李安訥)이 명륜당 5칸과 동·서재 각 5칸, 그리고 명륜당 동쪽 담 밖에 제독청(提督廳) 4칸을 갖추었다. 한편, 1982년에 적은 「향교중수기」에서는, 이때 대성전도 1600-1602년의 중건때 3칸으로 지었던 것을 5칸으로 고쳐 지었다고 하는데, 그 전거를 따로 적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한편, 그 때 제독청 전면에 연못과 작은 누대(樓臺)를 꾸몄다. 제독은 선조조에 향교의 부흥을 위하여 각도에 파견한 교육 담당 관료를 말하며, 오래지 않아 이 제도가 폐지되고 대신 훈도(訓導)로 이름을 바꾸어 각 향교에 상주하게 되었다.

1655년(효종 6)에 명륜당 북쪽에 송단(松壇)을 쌓은 내용은 쌍봉 정극후(鄭克後, 1577-1658)의 송단기(松壇記)에 자세히 전한다. 즉, 대성전을 중건한 다음해인 1601년(辛丑) 봄에 손기양(孫起陽)이 향교 직임을 받아 부임하여 교생들과 함께 문 앞과 뒷담 뒤에 소나무를 옮겨 심었는데, 이미 50여년이 지나 하늘에 닿을 듯 자랐고, 1655년 봄에 일꾼들을 시켜 돌로 앞은 세척 높이의 단을 쌓고 흙을 다져넣고 뒤는 여러 길 길이의 담장을 쳐서 송단을 만들었다고 한다. (就以植物之人所共見者言之。學宮之傍。舊無松栢之樹。往在重新聖廟之翌年辛丑春。密城孫公起陽領教事于茲。率諸生取松于南山之雨。移種於前門之前後牆之後者凡若干株。於今五十有餘年。拱把而欲參天。顧以樹在牆後。人以未得日對歲寒之姿爲歎焉。今年春。遂用役夫。運石而砌之。前爲三尺之階。闢地而築之。後有數仞之牆。恢恢然作一松壇。) 이렇게 송단을 만든 것은 곡부의 공묘에 있는 행단의 예를 따른 것으로, 경주 신문왕대의 국학에서 유래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교육기관으로서 경주 향교가 갖는 자부심이 잘 드러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조선후기의 경주향교 보수 이력은 향교 내에서 보수 공사 중 발견된 상량문서와 명륜당에 걸려있는 중수기문 등을 통하여 비교적 상세히 알 수 있다. 이를 연대순으로 보



면, 임란 후 중건한 이래 백년 가까이 흐른 1705년(숙종 31)에 관찰사 김연(金演), 부윤 여필용(呂必容), 목수 배명견(裴命堅), 변수 허건입(許建立), 개와 박사백(朴士伯) 등이 명륜당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해인 1706년(숙종 32)에는 진사 임인중(任仁重)이 관찰사와 부윤의 도움으로 교궁(校宮)을 중수하였다.

다시 숙종조의 중수 이후 백수십년이 지난, 1829년(순조 29)에는 대성전과 동·서무를 보수하고 송단을 보식(補植)하였다고 하는데, 대성전의 지붕에 사용된 ‘道光十年(1830)’의 명문이 있는 망와가 이 시기의 보수공사를 증거한다. 1841년(헌종 7)에는 부윤 정취조(鄭取朝)가 명륜당과 대성전을 중수하였으며, 1844년(헌종 10)에는 대성전 앞의 명대석(明臺石)을 수축하였고, 1856년(철종 7)에는 부윤 송근수(宋近洙)가 존경각을 중신(重新)하였다.

이러한 중수 사업은 이후에도 계속되어서, 1873년(고종 10)에 대성전과 명륜당을 중수하였으며, 1880년(고종 17)에는 부윤 민치서(閔致序)가 명륜당을 중수하였다. 1885년(고종 22)에 교궁을 중수하고, 1889년(광무 3)에는 교궁을 수리하였다.

근대에 들어서도 지방 유림들에 의한 향교의 보존 사업은 계속 이어져서, 1919년에 유림들이 모성계(慕聖契)를 조직하여 교궁을 중수하였으나, 한국전쟁 중에 서재와 직원실(현재의 전사청)이 소실되고 1952년에는 계림중학교(현 선덕여자중고등학교)의 임시 교사로 활용되기도 하였으나, 1956년에 다시 모성계를 다시 조직하여 1958년에 전교실(典校室)을 중건하였으며, 1978년에 명륜당과 대성전, 동재, 내삼문, 외삼문 및 담 등 향교 일곽을 중수하였고, 1981년에 서재를 복원하였다.

1985년 경주향교는 유형문화재 제191호로 지정되었으며, 1988년에 전사청 4칸을 중건하였고, 1990년에는 명륜당, 동·서재를 보수하고, 송단과 존경각, 축대를 보수하였다. 1991년에 대성전, 서무와 명륜당의 벽체 일부를 보수하였으며, 이듬해인 1992년에 관리자 주실(廚室) 2칸을 증축하고, 소실되었던 명대석을 복원하였다. 1994년에는 명륜당을 번와 보수하였고, 대성전에 관세대(盥洗臺)와 망료대(望燎石)을 복원하였다. 1995년에 대성전과 동무를 보수하고 담 일부를 보수하였으며, 1997년에는 유림회관이 완성되었다. 1998년에는 동무와 내삼문을 보수하고 담과 송단 일부를 보수하였다.

2000년에는 대성전 도리 이상 해체보수 하여 부식된 부재를 교체하였고, 이 때 1600년 대성전 중건 당시의 묵서명이 발견되었다. 2001년에 동재를 번와 보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경주향교 대성전은 2011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주공간의 담장 바깥에 있는 주변 공간을 정비하고 교육관, 예절관, 체험관 등을 신축한 것은 모두 2000년대 이후의 일이다.

이상과 같이 경주 향교는 17세기 초 복원된 이래 대개 수십 년 터울로 끊이지 않고 진행된 중수 공사를 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니, 향교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이 얼마나

켰는지를 충분히 짐작하고 남음이 있다. 단순히 교궁 중수라고 하여 전체적인 상황을 다룬 것을 제외하고 각 건물을 특정한 기록만을 간추린 이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실제로 1813년, 1885년, 1899년, 1919년 의 향교(교궁) 중수기를 보면, 대부분 서까래가 무너지고 담장이 흐트러진 이곳저곳을 수리하였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대성전은, 1600~1602년 중건(상량문 유) 이래, (일부 기록에서는, 3칸으로 중건하였던 것을 1614년 5칸으로 개건한 이래) 1829~1830년의 보수, 1841년의 중수, 1873년의 중수, 그리고 1978년, 1991년 등의 보수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동서무는, 1604년의 중건 이래 1829년의 보수, 1995년의 동무 보수를 거쳤다.

명륜당은, 1614년 중건 이래 1705년의 중수, 1841년의 중수(상량문 유), 1873년의 중수, 1880년의 중수(상량문 유), 그리고 1978년, 1990년의 보수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동서재는, 1614년 중건 이래 따로 기록은 없으나, 1978년 동재를 보수하고, 1981년 서재를 복원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최소한 서재는 중간에 한번 멸실되었던 것을 알겠고, 2001년에는 동재의 변화보수 공사가 있었다.

함께 지정 신청이 있는, 내삼문은 대성전이 중건되는 1602년에 함께 중건되었으며(南門으로 표기), 보수나 중수 역시 대성전과 함께 이루어졌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이후 1978년, 1995년의 보수 등의 기록이 있다.

### 3. 건축적 특징

#### 3-1. 경주향교 명륜당

경주 향교 명륜당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단층 맞배집으로, 기단은 2층으로 쌓았으며, 갑석은 대성전에서와 비슷하게 앞으로 돌출하게 가공한 돌을 사용하였다. 이외에도 탑재로 여겨지는 석재를 기단에 사용한 예를 볼 수 있다. 기단 상면은 전돌로 마감하고, 초석은 원형 주좌가 있는 초석과 자연석 초석을 섞어서 사용하였다. 여러 차례의 중수 과정에서 섞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네 모퉁이에 창방 뺨목을 받치는 활주를 두었는데 20세기 전반기에 촬영된 『조선고적도보』에서는 활주가 없는 것으로 나와서, 그 이후에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평면은 도리방향의 가운데 세 칸은 대청으로 양협칸은 전면에 뒗마루를 두고 그 뒤로 온돌방을 들였다. 측면이 세 칸이라고는 하나, 2고주 5량가의 가구에 맞추어 측면 어칸은 4,370mm (12자) 크기의 온칸이고, 앞뒤로는 2,200mm (7자) 크기의 퇴칸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가운데 대청부분은 전면에 뒗기둥을 가진 개방된 공간으로 처리하고, 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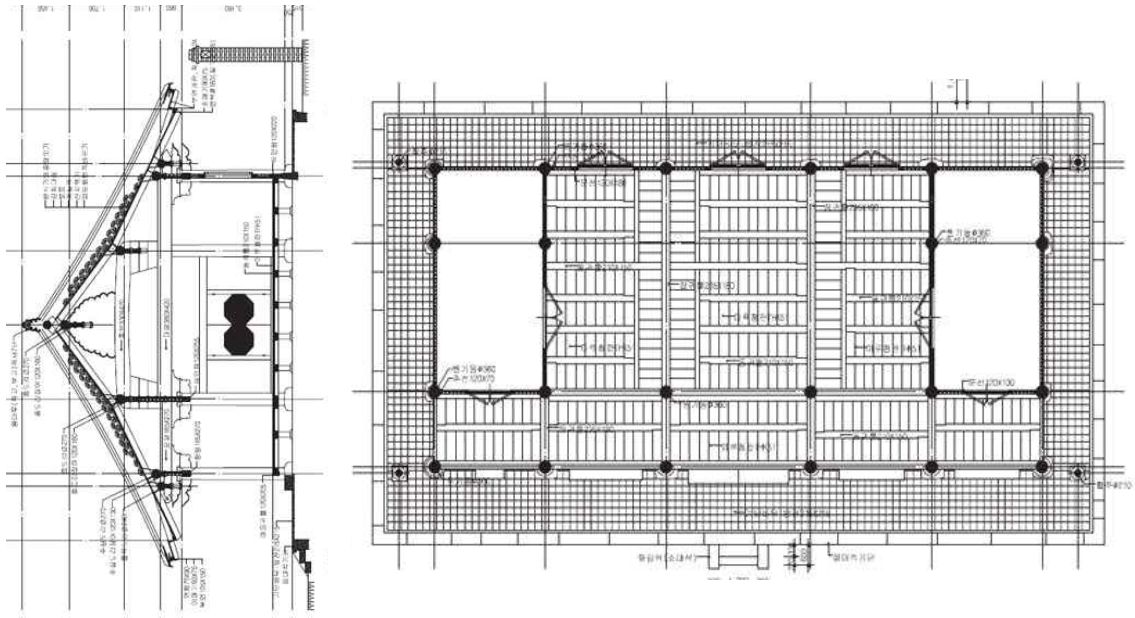


그림 52 경주향교 명륜당 평면도와 단면도(『보고서』에서 전체)

우의 온돌 부분은 뒷마루를 전면에 둔 온돌방으로 꾸몄다. 가구 역시 가운데 어칸 부분과 좌우의 협칸 부분을 구분하여, 어칸은 전 고주를 둔 1고주 5량가, 양 협칸은 앞뒤로 고주를 둔 2고주 5량가로 하였다. 전체적으로 보칸의 치수가 26자가 넘는 큰 지붕틀인데 가구는 5량으로 처리한 단순한 구성을 갖는다. 개방된 대청에 뒷기둥을 둔 것 역시 이렇게 큰 보칸 치수 때문으로 보인다. 대성전이 치수는 석자반이 클 뿐인데 (25자반) 7량가의 가구를 갖는 점과 차이가 있다. 도리방향으로는 매칸의 치수를 달리 하였는데, 중앙 어칸이 제일 커서 4,450mm, 그 좌우 칸을 3,720mm, 그리고 마지막 좌우 협칸을 3,390mm로 하여, 각각 14자반, 12자, 11자로 줄어나갔다.

전체적으로 경주향교 명륜당은 정면 18.6m, 측면 8.7m가 넘는 크기로 전체 면적이 163.1m<sup>2</sup>에 달하는, 성균관이나 나주향교의 명륜당처럼 객사형 평면을 갖는 것을 제외하고 단일 건물로 된 것 가운데서는 전국에서 가장 큰 명륜당 건물이라고 할 수 있다. 비슷한 규모를 갖는 것으로 개성 성균관의 명륜당을 꼽을 수 있는데, 그것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맞배집이고, 가구는 전체를 2고주 7량가로 하였다.



그림 53 『조선고적도보』의 명륜당 사진 - 기단이 지금보다 높아서 하단이 면석처럼 보이고, 처마끝의 활주가 없다. 또 온돌방 앞의 창호도 현황과 다르다. (『보고서』에서 전재)



그림 54 명륜당 전경 (『보고서』에서 전재) - 2020년 9월 해체수리공사 이전의 모습

공포는 1출목 2익공의 형식을 취하였는데, 익공쇠서의 모양은 초익공과 이익공을 따로 구분하여 초각하였고, 안쪽으로는 운궁처럼 한 몸으로 엮어 초각하였다. 주두 아래에서 초익공이 앞뒤로 뻗어있고, 주두 위에서 이익공이 주심첨차 및 출목첨차와 같은 높이에서 서로 직각으로 짜이며, 그 윗단에서는 보와 초각한 보빨목이 앞뒤로 뻗은 가운데 출목도리의 장여, 주심도리의 장여가 서로 직각으로 짜인다. 주심도리 아래에는 장여를 두 단 두어서 보 위로 올라가 앉았고, 출목도리는 장여 위에서 보빨목 위에 얹혀있다. 익공의 초각 모양은 위치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이익공이 좀 더 궁궐의 익공형태에 가까운 긴 삼각형의 비례를 갖는데 비하여 초익공의 초각은 길쭉한 사각형 모양의 외

곽선 비례를 가져 지방색을 드러낸다. 대성전의 공포에 비하여 더 두툼한다. 좌우의 마지막 기둥 위에서는 창방이 뿔목에도 초각을 하여 장식적으로 꾸몄다.



그림 55 명륜당의 배면 공포 - 주심첨차와 출목 첨차를 사용한 1출목 2익공 공포, 겹처마와 단청 (2020년 9월 8일 촬영)

도리는 모두 굴도리를 사용하였고, 대공은 중대공, 마루대공을 다르게 하고, 또 어칸과 협칸을 다르게 하였다. 대청에서 올라다 보이는 어칸의 마루대공은 파련대공으로 초각한 반면, 좌우 협칸 위의 벽에 붙어있는 마루대공은 삼각형으로 사절한 간단한 판단공으로 하였다. 중대공은 거꾸로 대청 어칸의 중대공은 사다리꼴의 판대공으로 하고, 퇴칸에서는 첨차를 겹쳐 쌓은 포대공으로 처리하였다.

창호는 좌우 온돌방의 전면으로는 세살창이, 온돌방과 대청의 사이에는 불발기를 두었고, 대청의 전면은 개방하고 후면으로는 골판문이 달리 두 짝 여닫이창을 달았는데, 대청 좌우 칸의 창 인방에서 영쌍창의 설주를 기웠던 홈이 보인다.

### 3-2. 경주향교 동서무

경주 향교 동서무는 각각 정면 12칸, 측면 1칸의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로서, 향교의 무(廡) 가운데 가장 정면 칸수가 크다. 이보다 큰 것은 개성 성균관의 동서무가 정면 14칸 측면 1칸의 규모를 갖고, 서울 성균관의 동서무는 정면은 11칸이지만 측면이 2칸으로서 전체적인 규모로는 최대이다. 전술하였듯이 경주향교의 제향 영역은 전체 향교 영역 가운데 독립된 담장으로 구획되어서, 대성전과 명륜당이 앞뒤로 놓이면서도 대성전 영역이 전체 영역 안에 들어가는 이중성을 갖는다. 대성전 영역을 둘러싸는 담장은 남쪽은 내삼문의 좌우로 뻗어서, 좌우로는 동서무의 바깥 벽을 담으로 삼고, 북으로는 대성전의 후면에 가깝게 붙어서 둘러쳐있다. 대성전의 후면에 있는 담장에 명륜당 앞마당으로 나가는 작은 협문을 하나 두었을 뿐이다. 이렇게 하면, 대성전 영역이 명륜당 영역의 앞에 놓이면서도, 명륜당 영역으로의 일상적 출입이 가능하게 된다.

동서무는 규모가 큰 것에 비하여 전체적인 외관은 지극히 간단하고 무덤덤한 외관을

갖는다. 낮은 기단 위에 기둥과 인방이 만들어내는 격자형의 골격에 하얀 회벽이 가득



그림 56 경주향교 동무의 마당측 입면 - 3칸 단위로 가운데 문을 두었는데, 제2칸의 출입문만 다르다. (2020년 9월 8일 촬영)

하고, 일부 제한된 칸에만 문을 두었으며, 홀처마의 맞배지붕을 이고 있다. 마당에 면한 전면에는 출입을 위한 문이, 바깥을 향한 배면에는 환기를 위한 창을 두었을 뿐인데, 그마저도 1999년 수리 전후해서 배면의 창은 막아서 사실상 창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동무의 경우 대성전쪽의 제1칸과 제2칸의 배면에 중방 위로 창을 가로로 긴 창을 두었고, 또 이 두 칸은 동무의 다른 공간과 내부에서 벽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전면의 문도 문인방을 지방에 맞추어 낮춰 놓아 다른 문과 구분되게 하였다. 이는 동무의 북쪽 두 칸을 다른 용도로(전사청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최근에 개변한 결과이다. 사진 자료를 통하여 추정하면 1984년부터 1999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마당으로 면한 전면으로는 출입을 위한 문을 두었는데, 동서무 모두 대성전 쪽으로부터 제2칸, 제5칸, 제8칸, 제11칸 등 4곳에 문을 두었다. 즉 12칸을 3칸씩 4등분한 다음, 그렇게 나뉜 3칸 단위마다 가운데 칸에 문을 둔 형식이다. 동서무는 대성전에 미처 모시지 못한 선현의 위패를 모셔두는 사당 건물이기 때문에 제향시 제관의 출입을 단위별로 하기 위한 고려라고 생각된다. 3칸 단위로 가운데에 문을 둔 것은 3칸 사당의 예를 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성균관의 동서무에서는 아예 11칸을 4칸, 3칸, 4칸으로 실을 구분하고 그 각 실마다 하나씩 3개의 출입문을 두었다.

외별대의 낮은 기단 위에 상면을 회로 마감하고, 초석을 두었는데, 원형 주좌를 새긴 것과 자연석, 전체적인 형태가 방형인 것, 연화를 새긴 것 등 여러 종류의 초석이 뒤섞여 사용되었다. 이 역시 오랜 기간에 걸친 잦은 수리공사의 결과로 보인다. 현재 남아 있는 창호 역시 아래에 궁관을 끼우고 그 위의 3분의2 정도에 세 살을 끼운 형식으로 중건시의 것으로 보긴 어렵다.

도리방향으로는 성균관의 동서무보다도 길지만, 보 방향으로는 단칸에 11자(3,40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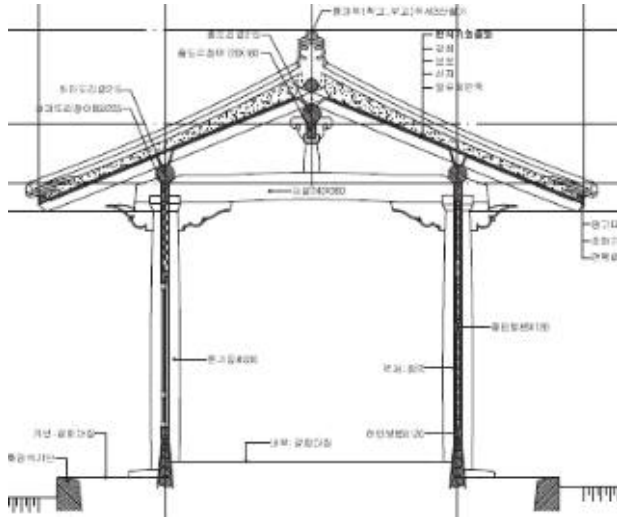


그림 57 경주향교 서무 단면도 (『보고서』에서 전제)



그림 58 경주향교 동무의 내부 (2020년 9월 8일 촬영)

내외)의 작은 규모에 그치고, 상부 가구 역시 전후 기둥에 대들보를 걸치고 그 가운데에 대공을 두어 종도리를 받치는 3량가이고, 처마도 긴서까래만을 좌우로 경사지게 걸은 흘처마이다. 공포도 출목 없는 초익공으로 간단하게 하였고, 단청 역시 가장 간단한 굿기단청으로 마감하는 등 소박하게 마감하였다. 눈에 띄는 것은 대들보 위에서 종도리 장여를 받치는 대공의 모양인데, 사각의 동자주가 중간 부분에서 사다리꼴로 좁아드는 고식의 형태를 가지고, 그 위로 소로를 두고 그 위에 운공 형태의 부재를 두어 도리 및 장여와 함께 짜여지도록 하였다.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다가 중간에서 사다리꼴로 줄어드는 대공의 형태는 양동마을 향단의 안대청, 독락당의 대공과 비슷한데, 그 줄어드는 비율이나 전체적인 크기, 그리고 도리방향으로 짜여지는 장어나 이에 직각방향으로 짜여지는 초방의 형태 등은 조금씩 다 다르다.

전체적으로 보아서, 경주향교 동서무는 대설위의 수요에 맞추어서 규모는 크지만, 그 꾸밈은 소박하고 고졸하며, 창호에서 일부 변화가 있었으나, 익공과 대공의 형식으로 보아 17세기의 지방 향교 건축에 어울리는 시대적 특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 3-3. 경주향교 신삼문

경주향교 내산문, 즉 신삼문(神三門)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흘처마 맞배집으로, 가운데 기둥 옆에 맞추어 세칸에 모두 문얼굴을 설치하고 두짝 여단이 널판문을 두었다. 화강석 장대석 기단을 두른 기단 윗면에는 방형의 전돌을 깔았고, 그 위에 대개 방형으로 가공된 초석을 두었다. 초석 가운데 원형의 주좌를 세긴 것도 여럿 있는데 주좌의 모양으로 보아 원래의 것이 아니고 다른 곳의 초석을 옮겨와 사용한 것으로 짐작된

다. 기둥은 전후의 바깥열에는 원기둥으로 하고, 가운데 문짝을 놓이는 가운데 열은 모두 각기둥으로 하였다. 문짝이 매 칸마다 주칸보다 작은 크기를 가져서 기둥과 구분된 문선을 매 칸 쌍으로 가지고 있고, 이들 문선 역시 모두 각기둥으로 가공되어 있다. 문선과 기둥 사이는 궁판을 끼운 골판벽으로 막았다. 가운데 열의 각기둥 아래에도 원형의 주좌를 가지거나 원형으로 가공된 초석이 사용되었는데, 역시 여러 곳으로부터 가져온 구부재를 초석으로 사용하면서 생긴 결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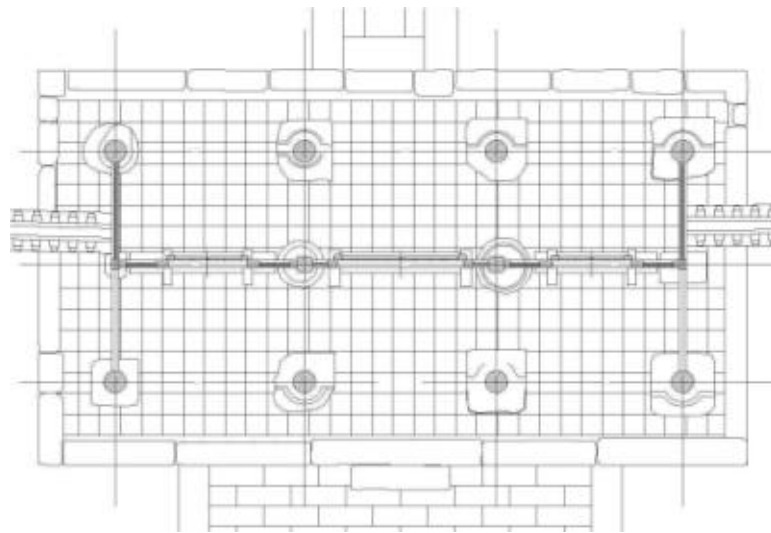


그림 59 내삼문 평면도 (『보고서』에서 전재)

공포는 출목 없는 초익공으로 하였고, 익공의 모양은 대성전의 것과 비슷하게 앞으로 길게 뿌리를 뺀고 있다. 주두 아래에 초익공과 주심침차를 직각으로 짜고 그 위에 주두와 소로를 놓아서 보와 주심도리 장여를 받치고 있다. 미세하지만 이러한 익공 초각의 차이 또한, 대성전과 신삼문은 같은 시기에, 그리고 명륜당은 다른 시기 혹은 다른 장인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추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신방목의 끝은 원형으로 가공하여 동심원을 새겨넣었고, 각 문짝에는 가운데에 큰 태극을 그려 넣었다. 문얼굴의 크기는 어칸의 것을 크게 좌우 협칸을 작게 하여 구분하였고, 높이 역시 가운데 어칸의 문이 좌우 협칸의 문보다 높게 하였다. 문인방위로는 풍혈을 뚫은 궁판을 두고 그 위로 종도리 아래까지 홍살을 둔 것은 세 칸 모두 같다.





그림 60 신삼문 정면 (2020년 9월 8일 촬영)



그림 61 신삼문의 공포와 대성전의 공포 (2020년 9월 8일 촬영)

가구는 전후열에 맞추어 들보를 걸고 들 보 위에 대공을 두고 종도리를 받치는 3량가의 구성이다. 대공의 아래에는 보 위에 보와 나란하게 킴목을 두고, 대공 위에 종도리 장여와 짜이는 부분에는 초방을 두었으며, 대공 자체는 증가보다 윗부분에서 사다리꼴로 줄어드는 고식의 형태를 갖는다. 동서무의 대공과 비슷한데, 여기서는 대들보 위에 놓이는 부분에 킴목을 추가한 점이 다르다.

#### 4. 종합 검토의견

경주 향교 명륜당은 1614년 중건 이래 18세기와 19세기의 중수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는 오래된 건축물로서, 정면 5칸 측면 3칸의 5량가 맞배집으로서,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향교 명륜당 가운데 단일 건물로는 가장 규모가 큰 사례이다. 또한 중수기 등의 문헌 기록이 풍부하게 남아있어 그 건축 연혁을 자세히 알 수 있고, 기단과 초석에 사용된 석재의 가공, 익공의 초각, 지붕 가구의 구성 등에서 17세기 건축의 면모를 볼 수 있어서, 같은 시설 내에 있는 대성전(보물 제1727호)과 호응하는 규모와 품격을 가지고

있다.

경주향교 동서무는 1604년의 중건 이래 1829년의 보수, 1995년의 동무 보수를 거쳐 현재에 이르며, 대성전과 함께 경주 향교의 제향 공간을 구성하는 건축물이다. 정면 12칸으로서 우리나라의 현존하는 문묘의 무 건축물 가운데 가장 큰 도리칸의 규모를 갖고 있다. 장식을 지극히 억제하고 기둥과 인방재가 가로세로로 이루는 격자형의 골격에 회벽으로 마감한 단순한 벽면과 홀처마의 맞배지붕, 수를 줄인 최소한의 창호와 3량가의 가구구성 등에서 조선시대 제사건축의 이념을 잘 보여주고, 초석과 대공의 형태 등에서 17세기 중건 시의 건축 상황과 양식을 잘 남기고 있다고 판단된다.

경주향교 내삼문은 기록상으로 대성전이 중건되는 1602년에 함께 중건되었다고 확인되며(南門으로 표기), 보수나 중수 역시 대성전과 함께 이루어졌으리라 추정되는 오래된 건축물로서, 정면 3칸 측면 2칸의 3량가 단층 맞배집으로서, 평삼문의 형식과 문짝, 문 얼굴, 홍살 등의 세부 형식에서 향교 제향 공간의 신문으로서의 역사적 모범이 될 만하며, 기단과 초석에 사용된 석재의 가공, 신방목과 대공 등의 부재 가공과 양식 등에서 고식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들 경주향교의 명륜당과, 동서무, 내삼문은 모두 임진왜란 이후인 17세기 초에 재건된 향교건축으로서, 지방의 공공 건축을 중심으로 익공계의 건축양식이 활발하게 보급되어가던 시기적 모습을 잘 담아내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규모와 형식의 면에서 경주라고 하는 고도 웅부의 위상에 걸맞게 여타의 향교 건축을 뛰어넘는 최고의 수준을 갖추고 있어서, 국가지정 문화재(보물)로서 갖추어야 할 역사적, 양식사적 가치를 충분히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보물 승격 지정에 앞서 기지정된 대성전과의 관계를 고려한 지정명칭과 번호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각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성격별로 구분하여, 동서무와 내삼문은 대성전과 함께, 그리고 명륜당은 별도로 구분하여 지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되고, 또 이에 더하여 내삼문은 현판에 쓰여 있는 대로 신삼문으로 지정명칭을 고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0.09.08	대상문화재	경주향교 명륜당, 동·서무, 내삼문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전통건축
	소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경주향교 명륜당, 동·서무, 내삼문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 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1.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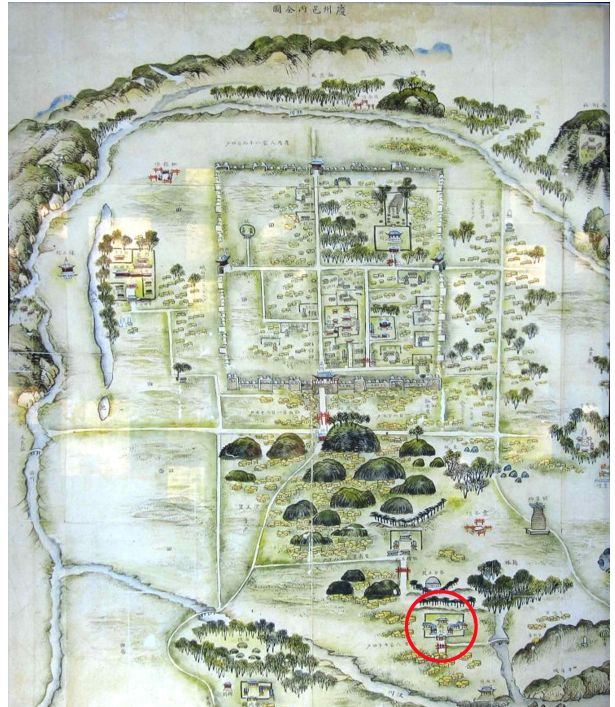
경주향교가 위치한 교동마을은 경주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선 후기 경주군 부내면(府內面)에 속한 지역으로 향교골, 교촌 또는 교리라 불리우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천원리(泉源里)를 통합하여 교리가 되었다.

교동마을은 신라시대에 요석공주가 기거했던 석궁이 있던 자리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터에 경주향교가 자리를 잡고, 1700년경에 경주최씨의 종가집이 세워졌다. 최씨 종가집은 12대에 걸쳐 300여 년간 부를 유지한 집안으로 원래는 아흔 아홉칸으로 지어졌으나, 1970년 사랑채와 별당채 등 여러 건물들이 화재로 소실되어 현재는 몇 채 남아 있지 않았으나, 최근 복원 및 정비공사를 거치면서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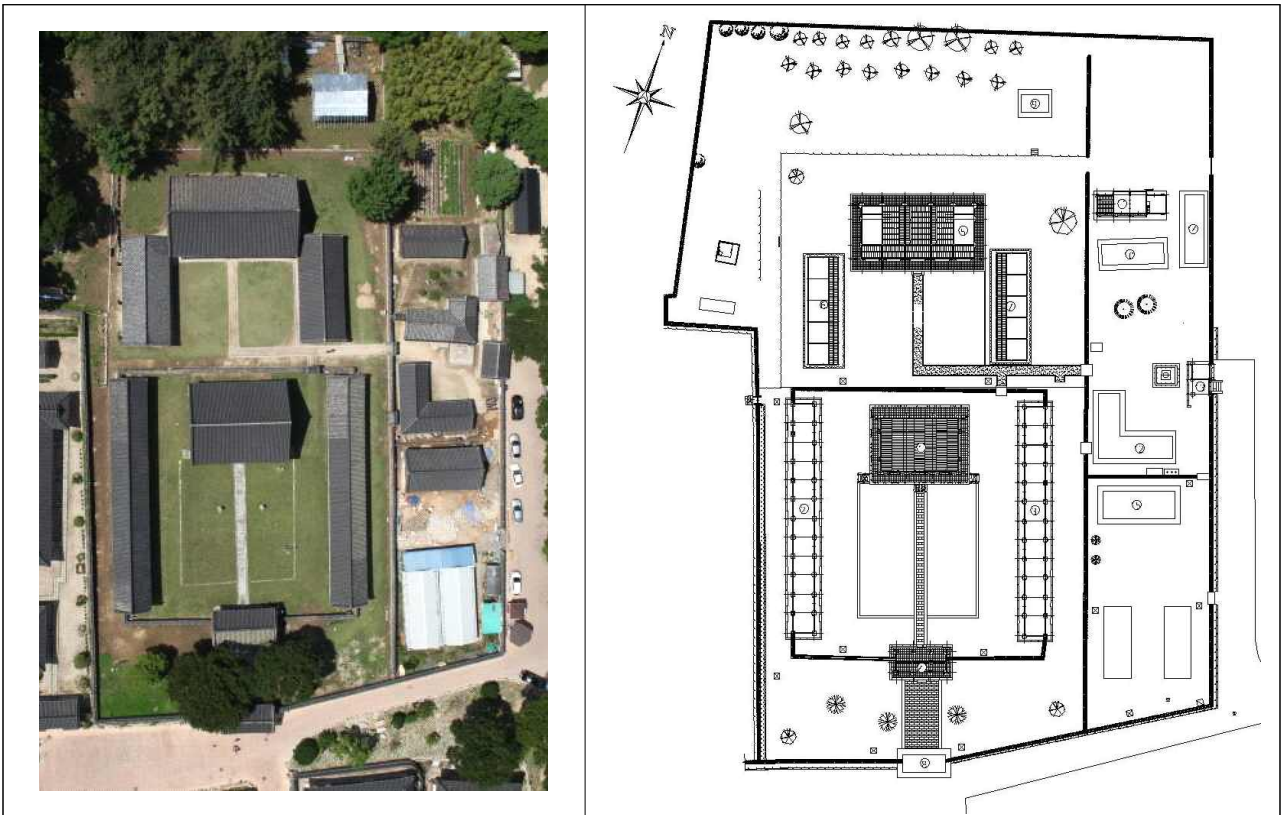
경주향교 주변 문화재로는 경주 교동 최씨고택(국가민속문화재 제27호), 경주 사마소(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2호), 경주 천관사지(사적 제340호), 경주 교동 범주(중요무형문화재 제86-3호) 등이 있다. 유적으로는 계림김씨조비각, 영귀정(詠歸亭) 터 등이 있다. 영귀정은 순조 3년(1803)에 건립되었으며, 명문은 남공철(南公轍)이 지었고 글씨는 최헌중(崔獻重)이 썼다.

향교의 주변으로 동편 멀리는 명활산, 북으로는 소금강, 서편으로는 선도산이 남으로는 경주의 신산인 남산이 마주하고 있으며, 향교 전면으로 남천이 동에서 서로 흐르고 있는 길지다. 경주 교동 최씨고택이 서편에 위치하며, 반월성이 동편에 입지하고, 북으로는 고분군이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주변에 선비들의 회합장소인 사마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자제들의 학문과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교육환경과 역사성을 가지는 최상의 조건을 갖춘 지역이다. 특히 풍수가로부터 거봉토육형, 반룡와수형, 비봉형, 단전형이라 불릴만큼 길지로 손색이 없다. 향교의 뒤편은 비보림으로 조성된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었으나 일제강점기때에 일부는 벌목되고 많은 수량이 고사되어 과거의 풍치는 훼손되었다.

경주향교는 대설위(大設位)향교로 자리하고 있는 대지는 평탄한 지형으로 외삼문, 신삼문, 대성전, 명륜당이 남향하여 일직선축을 이루고 있으며, 제향영역이 강학영역 전



면에 위치하는 주로 평지에서 나타나는 배치형식으로 전형적인 전묘후학(前廟後學)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전묘후학형 배치는 조선 초기 각 지방의 주요 읍치에 건립된 향교배치형식에서 나타나는데, 성균관, 전주향교, 나주향교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동무와 서무는 대설위 향교에 따른 신위의 규모에 맞추어 12칸의 장대한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지원영역은 제향 및 강학영역의 우측에 배치되어 있다.



## 2. 연혁

경주향교의 초창 및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의 향교배치에 대하여는 알 수 없으나, 삼국사기에는 신라시대 682년(신문왕 2) 6월에 국학을 설립(立國學)하여 경 1인을 두고(置卿1人) 또, 공장부감 1인(又置工匠府監1人)과 채전감 1인(彩典監1人)을 두었다는 기록과 717년(신라 성덕왕 16) 9월에 당에 갔던 대감 수충이 돌아와(入唐大監守忠廻) 문선왕, 십철, 72제자의 도상을 헌납(獻文宣王, 十哲, 七十二弟子圖)하여 대학에 비치하였다(卽置於大學)는 기록으로 보아 삼국시대에 국학과 대학 등의 교육기관이 설립되어 있었으며, 공자와 십철, 72제자의 도상을 대학에 비치하였음은 알 수 있다.

1492년(조선 성종 23) 부윤 최응현(崔應賢)향교를 중수하였고, 그 제도는 성균관을

본때 대성전 뒤에 명륜당을 세웠다 한다. 그 후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향교는 소실되었으나, 위패는 흑림촌(黑林村)에 살고 있던 문익점(文益漸)의 후손 문응성(文應星)이 대성전(大成殿)과 양무(兩廡)에 모셔진 위패를 자옥산(紫玉山) 서북 봉우리인 도덕산 도덕암(道德菴)에 임시로 봉안하여 보호하여 난이 끝나고 대성전 중건 이 후 다시 봉안할 수 있었다.

소실된 대성전과 전사청 1600년(선조 33)에 관찰사 이시발(李時發)에 의해 각 각 3칸의 규모로 중건되었고, 다음해 제독(提督)16) 손기양(孫起陽) 이제생(諸生)과 함께 향교 주변에 소나무 약 천여 그루를 이식하였다고 한다. 상량 목서명에 의하면 1602년(선조 35)에 관찰사 이시발(李時發), 부윤 윤안성(尹安性), 대목 덕림(德林), 철장 박말길동(朴末叱同), 번와장 탄희(坦熙) 등이 대성전을 복원하였으며, 동년 2월 8일 현재의 대성전이 상량되었음을 알 수 있다.

1604년(선조 37) 부윤(府尹) 윤성(尹暎)이 동무, 서무를 각 각 12칸의 규모로 중건하였으며, 1614년(광해군 6) 부윤 이안눌(李安訥)이 명륜당 5칸, 동·서재 각 5칸, 명륜당 동쪽 담 밖에 제독청(提督廳) 4칸을 갖추었다.

1655년(효종 6)에 명륜당 북쪽에 송단(松壇)을 쌓고 사부(師傅) 정극후(鄭克後)가 송단기(松壇記)를 지었다. 1669년(현종 10) 송단 동쪽에 존경각(尊經閣)을 신축하고 동·서무를 중수하였다. 이 때 부사(府使) 민주면(閔周冕)이 유생과 상의하여 임해전(臨海殿) 터에 있던 고 석물들을 가져다 과거에 없었던 계단과 정로(正路)를 만들었다고 한다.

현재 명륜당에는 경주향교의 중수기문과 대성전과 명륜당의 상량문 등이 보존되어 있다. 명륜당에 걸려 있는 기문 중에서 1614년(광해군 6)에 중창된 지 92년 후인 1705년(숙종 31)에 관찰사 김연(金演), 부윤 여필용(呂必容), 목수 배명건(裴命堅), 변수 허건입(許建立), 개와 박사백(朴士伯) 등이 중수한 사실을 기록한 기문(萬曆甲寅重脩後九十二年乙酉八月重修..)으로 보아 임진왜란 때 소실된 명륜당을 1614년(광해군 6)에 중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706년(숙종 32)에는 진사 임인중(任仁重)이 관찰사와 부윤의 도움으로 교궁(校宮)을 중수하였으며, 1829년(순조 29)에는 대성전과 동·서무를 보수하고 송단을 보식(補植)하였다. 1841년(헌종 7)에 부윤 정취조(鄭取朝)가 명륜당과 대성전을 중수하고, 이 때 진산 한문건(韓文健)이 상량문을 찬(撰)하였다. 1844년(헌종 10)에는 대성전 앞의 명대석(明臺石)을 수축하였고, 1856년(철종 7)에는 부윤 송근수(宋近洙)가 존경각을 중신(重新)하였다. 1873년(고종 10)에 대성전과 명륜당을 중수하였으며, 1880년(고종 17)에는 부윤 민치서(閔致序)가 명륜당을 중수하였다. 1885년(고종22)에 교궁을 중수하고, 1889년(광무 3)에는 교궁을 수리하였다.

1919년에 유림들이 모성계(慕聖契)를 조직하여 교궁을 중수하였고 한국전쟁 중에 서재와 직원실(현재의 전사청)이 소실되었으며, 1952년에는 계림중학교(현 선덕여자중고등학교)의 임시 교사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1956년에는 유림들이 다시 모성계를 다시 조직하여 1958년에 전 교실을 중건하였으며, 1978년에 명륜당과 대성전, 동재, 내삼문, 외삼문 및 담 등 향교 일곽을 중수하였고, 1981년에 서재를 복원하였다.

1985년에 유형문화재 제191호로 지정되었으며, 1988년에 전사청 4칸을 중건하였고, 1990년에는 명륜당, 동·서재를 보수하고, 송단과 존경각, 축대를 보수하였다. 1991년에 대성전, 서무와 명륜당의 벽체 일부를 보수하였으며, 이듬해인 1992년에 관리사 주실(廚室) 2칸을 증축하고, 소실되었던 명대석을 복원하였다. 1994년에는 명륜당을 번와 보수하였고, 대성전에 관세대(盥洗臺)와 망료대(望燎石)을 복원하였다.

1995년에 대성전과 동무를 보수하고 담 일부를 보수하였으며, 1997년에는 유림회관이 완성되었다. 1998년에는 동무와 내삼문을 보수하고 담과 송단 일부를 보수하였다. 2000년에는 대성전 도리 이상 해체보수 하여 부식된 부재를 교체하였고, 이 때 1600년 대성전중건 당시의 묵서명이 발견되었다. 2001년에 동재를 번와 보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시대	년도	건축 내용	비고	
신라	682	유학교육기관인 국학 설치		
	717	문선왕과 십철·공문, 72도의 화상을 태학에 안치		
고려	935	국학을 향학으로 개편		
조선	1492	향교 중수		
	임진왜란	향교 소실		
	1600	향교 중건(대성전 3칸, 전사청 3칸 등)		
	1601	향교 전후에 소나무 약 천여 그루 이식		
	1604	향교 중건(동·서무 각 12칸, 전사청 2칸)		
	1614	향교 중건(명륜당 5칸, 동·서재 각 5칸, 제독청 4칸)		
	1655	송단 설치		
	1669	존경각 신축, 동·서무 중수		
	1706	교궁 중수		
	1829	대성전과 동·서무 보수, 송단 보식		
	1841	명륜당과 대성전 중수		
	1844	명대석 설치		
	1856	존경각 중건		
	1873	대성전과 명륜당 중수		
	1880	명륜당 중수		
	1885	교궁 중수		
	1899	교궁 중수		
	근현대	1919	교궁 중수	
		한국전쟁	서재, 직원실(현재의 전사청) 소실	
1952		계림중학교(현 선덕여자중고등학교)의 임시 교사로 활용		
1958		전교실 중건		
1978		명륜당, 대성전, 동재, 신삼문, 외삼문 및 담 등 향교 일괄 중수		
1981		서재 복원		
1985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91호로 지정		
1988		전사청 4칸 중건		
1990		명륜당, 동·서재 보수, 송단과 존경각, 축대 보수		
1991		대성전, 서무, 명륜당 벽체 일부 보수		
1992		관리사 주실 2칸 증축, 명대석 복원		
1994		명륜당 번와보수, 대성전 관세대와 망료석 복원		
1995		대성전, 동무 보수, 담 일부 보수		
1997		유림회관 완공		
1998		동무와 신삼문 보수, 담과 송단 일부 보수		
2000		대성전 도리 이상 해체보수		
2001	동재 번와보수, 중문 보수			
2011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대성전)			
2020	명륜당 해체 보수			



<상량문 및 중수기문 일람표>

문헌 및 기문	내 용
대성전 상량문 (宣祖35年,萬曆30年;1602)	임란으로 대성전, 명륜당, 양무, 삼문, 누대, 관사 등 전소-옥서(玉書)와 목주(木主)는 보존, 만력(萬曆)30년 임인년(1602) 윤이월(潤二月) 관찰사가선대부(觀察使嘉善大夫) 이시발(李時發) 중건 - 구지(舊址)에 동일 향으로 대성전, 남문 등 중건(참여직책 : 성조감관(成造監官), 모곡도감(募穀都監), 당장(堂長), 장의(掌議), 전곡유사(錢穀有司), 伐木監官(伐木監官), 번와감관(燔瓦監官), 寫字(寫字), 도색수서원(都色首書員), 번와도색서자(燔瓦都色書者), 벌목도색(伐木都色), 대목(大木), 부목(副木), 철장(鐵匠), 번와장(燔瓦匠)) 2000년 보수 시 상량문 발견, 현재 대성전에 보관 중
송단기(1655)	1655년에 송단을 쌓고 사부(師傅) 정극후(鄭克後)가 송단기(松壇記)를 지음
향교중수기 (萬曆甲寅重建後九十二年乙酉;1705)	건축내용은 없고 참가인명 및 직책(감역도감(監役都監), 감역색리(監役色吏), 목수(木手), 변수(邊手), 개장(蓋匠), 고자(庫子) 등)만 기록
명륜당중수상량문 (崇禎後四辛丑年;1841)	만력 중건 후 명륜당이 쇠락하여 중수 - 규모와 제도는 과거와 동일하게 하였음. 서까래는 과거보다 견고하게 보수
향교중수기 (上之十年癸酉;1873)	대성전, 명륜당, 중당(中堂:대성전 전면마당), 담장 등 수리
명륜당중수기 (崇禎紀元後五庚辰;1880)	드잡이, 탈락부분 수리, 번와, 금관(金冠), 제복(祭服), 십삼령(十三領)제작
향교중수기 (崇禎紀元後五乙酉;1885)	마루대, 서까래, 기와보수, 담장보수
향교중수기(光武三年;1899)	폭우로 인해 대성전 동편 어귀, 서재 기와 및 서까래, 창벽 훼손, 전사청, 담장 훼손에 따른 보수
존경각기(1990)	존경각 보수
향교중수기(己未年;1919)	대성전, 명륜당, 동, 서재 부식부재교체 및 드잡이, 도색, 담장 및 창호보수
향교중수기(壬戌年;1982)	조선조 향교 내력 기술(성종 갑오년(1474) 향교 동편 소학당 건립, 임자년(1492) 학사 중수, 선조 임진년 향교 소실(1592), 경자년(1600) 대성전, 전사청 중건 위판 봉안, 제독관 손기양이 소나무 이식, 1614년 명륜당 5칸, 동, 서재 각 5칸, 제독청 4칸(현 전교실) 대성전 동쪽 담장 밖에 건립 동편에 연못조성, 연못 가운데 대 조성, 1655년 송단조성, 1669년 동,서무 개수 정로 축조, 존경각 송단 동편에 건립, 숙종 을유년(1705) 학사 중수, 영조 갑자년(1744) 명륜당 동편에 옥영재 건립
향교중수기(癸酉年;1993)	관리사 주실 2칸 증축, 명대석 복원
대성전중수상량문 (光復後庚辰年;2000)	대성전 도리 이상 해체보수

### 3. 건축적 특징

#### 1) 명륜당

명륜당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단층 맞배집이다. 다듬은 돌로 마감한 낮은 기단을 쌓은 위에 전돌을 깔아 기단 바닥면을 마감하였다. 그 위에 초석을 놓았는데, 대부분 쇠시리가 있는 주좌가 있는 초석이지만 일부는 자연석초석을 사용하고 있다. 이들 초석 위에 기둥을 세웠는데, 모두 원기둥을 사용하였고 도리를 외부로 길게 빼내고 이를 지지하는 활주를 세워 처짐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조선고적도보에 실린 명륜당 사진에는 활주가 없는 것으로 보아 나중에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지붕은 맞배지붕으로 양 측면의 박공면에는 풍관을 설치하였다.

평면구성은 중앙 3칸의 대청마루를 중심으로 양쪽에 각 1칸의 온돌방을 두었으며, 전면에는 퇴칸을 두었다. 대청 배면에는 매 칸마다 둔테가 있는 두짝 여단이 창을 설치하였으며, 온돌방 쪽으로는 두짝 여단이문을 두었는데, 맹장지 형식의 문에는 팔각의 불발기창을 두었다. 온돌방의 전면에는 고적도보 사진으로는 세쌍의 세살문을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는 칸의 중앙에 머름 없이 두짝 여단이 창문을 설치하였다.



가구구성은 형식은 1고주 5량을 기본으로 하되 실제로 고주의 위치엔 고주가 아닌 평주를 세우고 초익공 형식으로 두공으로 대들보와 퇴보를 맞보로 잇고, 그 위 동자주 위치에 판대공형식으로 단을 쌓아올려 중도리를 받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종보 위에는 둥그런 형태의 파련대공으로 포대공을 만들고 중도리를 받치고 있다. 반면, 대청과 마주한 온돌방 부분은 2고주 5량으로 2개의 고주를 세워 종보를 받고 그 위에 사다리꼴 모양의 판대공으로 중도리를 받치고 있다. 이때 퇴보는 평주와 같은 높이에서 고주의 측면에 끼이도록 처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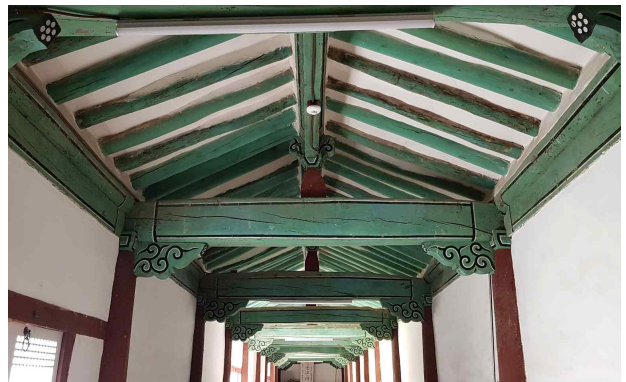
명륜당의 공포 양식은 대성전과 같은 외1출목 주심포 형식으로 헛침차와 살미, 침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살미 위에는 퇴량머리가 돌출되어 초각한 부재가 있다. 살미와 헛침차의 형상은 대성전과 비슷하게 날카로우나 길이는 대성전의 것보다 짧은 편이다. 침차는 마구리가 직절된 교두형으로 주심침차는 1개만 사용하고 있는데, 두 개의 판재를 포개어 하나로 하여 운두를 높게 하였다. 창방 위에 1개씩의 화반을 두고 있다.

퇴보머리의 형상은 정면과 배면의 구성이 약간 다른데, 정면에는 보머리 끝을 살미와 같은 두께로 하고 끝을 둥글게 말아올린 권비형(捲蜚形)인데 비하여, 배면 보머리는 삼분두형과 권비형의 두종류가 있다. 대청칸은 권비형이고 귀기둥과 온돌방을 구성하는 기둥상부에는 삼분두로 처리하였다. 일반적으로 삼분두형이 권비형보다 고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고식인 삼분두형이 배면 일부에 남아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귀포의 형상도 창방뿔목과 외부로 돌출된 침차를 살미 형태로 조각하여 장식적인 효과를 더하였다.

## 2) 동무 서무

경주향교는 대설위 향교로서 대성전을 비롯한 동서무의 규모가 큰 편인데, 동서무 모두 정면 12칸 규모로 정면 칸수로 보면 정면 11칸 규모의 성균관보다도 큰 규모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 그렇지만 현재는 대성전에만 25현의 위패를 모시고 있고 동서무는 비어 있다.

홀처마 맞배지붕 건물로 초익공 형식의 3량 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둥 위에 살미가 있는 초익공 부재를 주두와 함께 짜고 그 위에 대량을 얹었다. 두공은 생략되었고, 살미의 형태는 하단을 쌍S자로 초각하여 끝을 뾰족하게 하였다. 마루대공의 형태는 동자주 상부를 제형으로 깎고 소로를 얹어



종도리장여를 받게 하고 운궁으로 소로와 장여 종도리를 가싼 방식으로 고식으로 마감하였다.

### 3) 내삼문(신삼문)

평삼문 형태의 신삼문은 전면 3칸, 측면 2칸의 흘처마 맞배집이다. 갑석을 두른 기단 위에 다듬은 돌을 초석으로 사용하고 그 위에 원형기둥을 세운 초익공계 3량가 구조이다. 기둥머리에 사괘를 트고 도리방향으로 첨차를 결구한 다음 짚막한 익공을 결구하였는데 살미와 첨차의 형태는 대성전과 거의 같다. 문지방엔 신방목을 끼우고 그 밑에 신방석을 깔았다.

초석 가운데 일부는 고대 고급건축의 초석에서 볼 수 있는 원형 주좌와 신방석의 결합 형태로 구재(舊材)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 고주열의 초석은 원형이고, 전후면의 초석은 거친 방형 대좌형으로 다듬었다. 또한 전후 평주 위에 걸친 대들보 중앙에는 짚막한 동자주 대공을 세웠는데, 보 방향으로 짚막한 침목을 고아 고정했다. 동자주 대공은 상단을 소로 밑면에 맞추어 깎아내고 그 위에 소로를 올린 형태이다. 대공 위에 종도리 장혀와 함께 보 방향으로 짚막한 운공을 결구하였다. 각 칸에는 판문을 달았으며, 문 상부를 안상을 뚫은 궁창널과 홍살로 꾸몄다.



어칸에는‘神三門’이라고 새긴 현판을 걸었다. 건물 좌우에 풍판을 시설했다. 단청은 간략한 굿기단청이며, 전면 매 판문에는 이태극(二太極) 문양을 그려 놓았다.

## 4. 종합: 지정 가치 및 근거

현재 경주향교 안에는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대성전을 비롯하여 금번 보물로 승격신청한 명륜당, 동서무, 내삼문 등의 주요건물이 배치되어 있다. 그러한 건물 중에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륜당과 동서무, 내삼문은 조선시대 중기 임진왜란 이후 복원중건된 건물로 부분적인 변화와 수리 등이 있었으나 비교적 그 연혁이 분명하고 조선시대 중기 건축기술과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건물로 대성전과 함께 보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0.09.08	대상문화재	경주향교 명륜당, 동·서무, 내삼문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건축계획
	소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경주향교 명륜당, 동·서무, 내삼문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경주 향교는 신라 신문왕 2년(682) 국학이 설치되어 최고 중앙 교육기관인 국학이 설치된 장소에서, 고려시대 학원, 조선시대 향교로 이어져 유교 교육기관으로서 역사적으로 의미가 매우 큰 곳이다. 대설위 향교로서 경상북도에서 규모가 가장 큰 향교이며, 건물의 배치는 문묘를 앞쪽에 두고 뒤에 강학공간을 둔 전형적인 전묘후학의 배치형식을 따르고 있다. 현재의 배치형태는 조선 성종 23년(1492) 당시 모습을 토대로 임진왜란 후에 중건하여 오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16세기말 임진왜란으로 향교가 전소된 후 17세기 초(1602년)에 대성전이 있는 문묘 일곽, 1614년에 명륜당을 비롯하여 강학영역의 건물을 중건한 후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온 것으로 보인다.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검토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 년 10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1. 경주향교 연혁

경주향교는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과 『동경잡기(東京雜記)』 에 의거하면 부(府)의 남쪽 3리 계림 서쪽 문천(蚊川) 북쪽에 있다고 하였는데, 현재의 경주시 교동 17-1에 해당한다.

경주는 이미 통일신라의 신문왕2년(682)에 본격적인 유학교육기관인 국학(國學)이 설치되었고, 진덕여왕 16년(717)에 태감(太監) 김수충(金守忠)이 당(唐)에 갔다 오면서 공자(孔子)·공문10철(孔門十哲)·공문72제자의 화상(畫像)을 가져와 국학에 안치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후 고려 인종 5년(1127)에 향교가 등장하기 전부터 여러 차례 향학(鄉學)의 이름으로 향교가 존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터가 변하지 않고 같은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한다.

경주향교의 창건시 모습이나 고려 때 배치형식에 대하여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문헌을 토대로 임진왜란이후 향교 중건과정을 살펴보면, 임란 직후인 1600년에 문묘(文廟)의 중심 건물인 대성전과 전사청을 우선적으로 중건하고 그로부터 4년 후인 1604년에 동·서무를 중건하고 이어 전사청을 확장했다.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614년에 명륜당과 동·서재, 제독청을 중건했다. 특히 제독청은 일반 향교에서는 건립되는 예가 드문 건축물로 연지(蓮池)에 누대(樓臺)까지 갖추고 향교 담 밖에 위치했으나 현재까지도 복원되지 못했다.

1655년에는 명륜당 북쪽에 송단(松壇)을 쌓고 사부(師傅) 정극후(鄭克後)가 기(記)를 지었고, 1669년 가을에는 존경각을 신축하고, 동무와 서무를 중수하였다. 대성전 전면에 옛날에는 계단과 정로(正路)가 없었는데 이때 부사 민주면(閔周冕)이 유생과 상의하여 안압지 임해전의 옛 터에 있던 고(古) 석물(石物)들을 가져다가 계단과 정로를 설치하였으며, 존경각을 송단 동쪽에 세웠다.

표.1 경주향교 연도별 건축연혁

연도	건축 연혁
682	유학 교육기관인 국학(國學) 설치
717	문선왕과 10철(哲) · 공문 72도의 화상(畫像)을 태학에 안치
1127	<b>향교 창건</b>
1492	향교 중수(성균관 모방)
임진왜란	<b>향교 소실</b>
1600	임란으로 대성전, 명륜당, 廊廡 三門, 樓臺, 官廬 등 전소 - 萬曆30年 壬寅(1602) 潤二月 觀察使 李時發이 옛터에 大成殿, 南門 등을 중건(대성전 3칸, 전사청 3칸 등)
1601	향교 전후에 소나무 약 천여 그루 이식(移植)

1604	향교 중건(동·서무 각 12칸, 전사청 2칸)
1614	향교 중건(명륜당 5칸, 동서재 각 5칸, 제독청 4칸)
1655	송단(松壇) 설치
1669	존경각 신축, 동서무 중수
1706	교궁(校宮) 중수
1829	<b>대성전</b> 과 동서무 보수, 송단 보식(補植)
1841	<b>명륜당</b> 과 <b>대성전</b> 중수
1844	명대석 설치
1856	존경각 중건
1873	<b>대성전</b> 과 <b>명륜당</b> 중수
1880	<b>명륜당</b> 중수
1885	마루대, 서까래, 기와보수, 담장보수
1899	폭우로 대성전 동편 어귀, 서재 기와 및 서까래, 창 벽, 전사청, 담 훼손 수리
1919	대성전, 명륜당, 동·서재 부식재 교체 및 드잡이, 도색, 담장 및 창호 보수
한국전쟁	서재, 직원실(현재의 전사청) 소실
1952	계림중학교(현 선덕여자중고)의 임시 교사로 활용
1958	전교실 중건
1978	향교 일곽 중수(명륜당, 대성전, 동재, 신삼문, 외삼문 및 담 등)
1981	서재 복원
1985	<b>경북 유형문화재 제191호로 지정</b>
1988	전사청 4칸 중건
1990	명륜당, 동서재 보수, 송단과 존경각, 축대 보수
1991	<b>대성전, 서무, 명륜당 벽체 일부 보수</b>
1992	관리사 주실(廚室) 2칸 증축, 명대석 복원
1994	명륜당 번와 보수, <b>대성전에 관세대(盥洗臺)와 망료석(望燎石) 복원</b>
1995	<b>대성전</b> , 동무 보수, 담 일부 보수
1997	유림회관 완공
1998	동무와 신삼문 보수, 담과 송단 일부 보수
2000	<b>대성전 도리 이상 해체 보수</b>
2001	동재 번와 보수, 중문 보수
2011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대성전)
2020	명륜당 도리 이상 해체 보수

따라서 경주향교의 배치는 17세기 초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17세기 중엽에 송단과 존경각이 설치됨으로써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 후 2세기가 지난 19세기에도

수차례에 걸쳐 보수 및 중수공사가 있었으며, 1841년과 1873년 두 차례에 걸쳐 대성전과 명륜당을 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 때 서재와 전사청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한때 계림중학교 임시 교사로 활용되기도 했다.

1958년 전교실, 1981년 서재, 1988년 전사청이 중건되고 향교 내 건물들이 보수되었다. 특히 2000년에 있었던 대성전 도리이상 해체 공사시 종도리에서 발견된 상량문은 임진왜란이후 경주향교의 변화 양상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현재 경주향교에는 제향공간에 대성전, 동·서무, 신삼문 등 4동이 배치되어 있으며, 강학공간에는 명륜당을 중심으로 동·서재 2동과 명륜당 우측 뒤편에 존경각 등 4동이 남아 있다. 향교의 주출입문인 외삼문을 포함하여 모두 9동이 배치되어 있고, 이밖에 향교 동측 담 밖에 전교실, 교직사(校直舍), 전사청(典祀廳), 화장실 등 4동이 위치하고 있다.

지방향교들은 대개 제향공간과 강학공간의 동선이 분리 또는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경주향교는 향교 전 영역의 외곽에 담을 쌓고 또다시 대성전과 동·서무, 신삼문 등 제향공간을 에워싸는 내담을 쌓아 제향공간의 영역성과 건축적 위계를 뚜렷하게 표현했다.

따라서 제향영역으로는 남측에 있는 외삼문과 근접한 신삼문을 통해 직접 출입할 수 있으나 강학공간인 명륜당으로는 제향영역 서측 내담과 외곽담 사이 통로를 이용하거나 동재의 동측에 위치하고 있는 교직사와 전사청 마당을 통해야만 출입할 수 있다.

## 2. 입지 및 배치

경주는 신라천년의 수도로서 많은 문화재와 유적지가 남아 있는 고도이다. 경주는 조선시대에도 큰 고을을 유지했지만, 현재 남아 있는 조선시대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성벽 일부만 남아있는 경주읍성과 월성 서쪽편에 자리잡고 있는 경주향교를 들 수 있다.

경주향교가 자리잡고 있는 곳은 경주에서 손꼽히는 부호였던 ‘경주최부자택’을 중심으로 반촌이 형성되어 있는 교촌마을이다. 이곳은 원래 신라 신문왕 682년에 최고의 교육기관인 국학을 세웠던 자리로 고려시대에는 향학이, 조선시대에는 향교가 자리하면서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곳이다. 경주향교 부지는 신라 때 요석궁(瑤石宮)이 있던 곳이라 전해오며, 향교는 정남에서 동쪽으로 약 10도 가량 틀어져 앉아 있다.

경주향교는 대설위(大設位)<sup>165)</sup>향교이다. 평지에 입지하고 있는 경주향교는 외삼문(外

165)공자를 중심으로 4성(四聖), 10철(十哲), 송조6현(宋朝六賢), 우리나라 18현(十八賢)을 모신 문묘를 중설위(中設位)라 한다. 여기에 공자의 72제자와 한·당·송·원의 선유(先儒)까지 합하여 모신 곳을 대설위(大設位)라 한다. 1949년 6월에 전국 유림대회를 개최하여 공자와 안연(顔淵), 증자(曾子), 자사(子思), 맹자(孟子), 정자(程子), 주자(朱子), 그리고 우리나라 18현을 모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소설위(小設位)이다. 전국 향교가 이에 준하여 문



三門), 신삼문(神三門), 대성전, 명륜당이 남북 축선상에 자리잡아 남향하고 있으며, 문묘영역이 강학영역 앞쪽에 위치하는 전형적인 전묘후학(前廟後學)의 배치형식을 따르고 있다.

전묘후학(前廟後學)의 배치는 평지에 입지한 향교에서 주로 나타나는 배치형식으로, 서울의 성균관을 비롯하여 조선 초기 지방의 주요 읍치(邑治)에 건립된 전주향교, 나주향교 등에서 볼 수 있다. 또한 동무(東廡)와 서무(西廡)는 대설위 향교로서의 격과 배향 신위(神位) 수를 고려하여 정면 12칸의 장대한 규모를 갖추고 있다. 대성전에는 공자를 비롯한 오성(五聖)과 송조2현(宋朝二賢), 우리나라 18현(賢)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전사청·전교실·관리사 등 부속건물은 제향 및 강학영역의 우측면에 배치되어 있다. 현재의 경주향교 출입은 동측에 따로 설치된 상용문(일각문)을 통해 이루어진다.

### 3. 명륜당, 동·서무, 신삼문의 건축적 특성

#### 1) 명륜당(明倫堂)

##### 가. 평면

명륜당 평면의 구성은 정면 5칸 측면 3칸으로, 좌·우 측간에 2통칸의 온돌방을 들이고, 중앙 3칸은 우물마루로 구성하였으며, 전면 1칸을 모두 퇴칸으로 구성하였다. 정면은 어칸을 4,450mm로 가장 넓게 잡고, 좌·우협칸을 3,720mm, 좌·우퇴칸을 3,390mm잡았으며, 측면도 어칸을 4,370mm로 가장 넓게 잡고 전·후면 퇴칸을 어칸의 반 정도인 각각 2,200mm로 좁게 잡았다. 전체 면적은 163.1㎡(49.34평)로 전국에서 나주향교 명륜당 다음으로 큰 규모이다.

##### 나. 입면

명륜당은 정면5칸, 측면3칸의 단층 맞배지붕으로 되어 있다. 정면5칸 중 양 옆 퇴칸에 온돌방을 두고, 가운데 3칸은 대청을 둔 형태로 각 방의 전면에는 두 짝 세살문을 설치하고 대청쪽에는 두 짝 여닫이문을 두었는데 문 중앙에는 팔각의 불발기창을 둔 맹장지문이다.

대청의 배면에는 각 칸마다 두짝 여닫이 울거미 널창을 둔테에 꽂아 사용하고 있다. 측면부와 온돌방 배면에는 창호를 두지 않고 회벽으로 처리하였다.

지붕은 맞배지붕이며, 용마루는 착고와 부고로 구성하고 그 위에 암키와를 7단으로

---

묘제례 즉 석전(釋奠)을 올리고 있다.

쌓았다. 내림마루는 5단쌓기를 하였다. 박공면에는 방풍판을 설치하였고, 박공널이 모이는 상부에는 지내철로 마무리하였다.

#### 다. 가구 구성

가구 구성은 측벽과 대청-방간의 기둥에서 2고주 5량가로 하고, 어칸에서 1고주 5량가로 구성하였다. 두 번째 주열(柱列)에 내진고주와 평주를 혼용하였는데, 온돌방 앞에는 내진고주를, 대청 앞에는 내진평주를 각각 사용하였다. 내진주의 창방 상부는 토벽을 치고 회로 마감했다. 대들보는 내진고주와 후면 평주 사이에 걸었으며, 전퇴칸에는 퇴보를 걸구하였다. 대청 부분의 내진주 상부 벽에는 침차를 4단으로 쌓아 올려 대들보와 뒷보를 받게 하고, 그 위에 중도리를 받게 구성한 것이 특징적이다. 후면 고주 열의 중대공은 보 방향으로 판대공을 놓고 도리방향으로 침차와 뜯창방을 걸구하였다. 대청 부분의 중대공은 반타원에 가까운 파련대공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제형판대공으로 처리했다.

#### 라. 기단

기단은 장대석과 구(舊)탑재를 섞어 1단으로 쌓은 가구식 기단이며, 정면 동측 모서리와 중앙계단 동측에는 형태가 완전한 탑신석(塔身石)을 사용했다. 하부석재에는 우주와 탕주가 표현되어 있고, 상부에는 단부를 외부로 돌출시켜 다듬은 갑석이 올려져있어 그 기법이 매우 우수하다. 기단 상면은 방형 전돌을 덮어 놓았다.

#### 마. 초석

초석은 원형 주좌를 새긴 초석을 놓고 그 위에 흘림이 약한 원기둥을 세웠다. 건물의 네 모서리에는 활주(活柱)를 세웠는데, 활주 초석도 방형 초반(礎盤)에 운두를 두고 원형의 주좌를 새긴 형태이다. 주좌가 있는 초석은 모두 동일한 형태가 아니어서 명륜당 중건과정에서 혼용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바. 기둥

기둥은 양 측면 2주열과 3주열 및 온돌방과 대청사이 2주열과 3주열에서 고주를 사용하여 2고주 5량가로 하고 2주열을 뒷칸으로 처리하여 내진주를 두었으나 대청부분은 평주로 하고 창방 상부는 벽체를 친 특이한 구조를 두었다.

기둥은 모두 흘림이 약한 원기둥이다. 또한 건물 각 모서리에는 활주(活柱)를 세웠는데 활주는 도리뿔목의 처짐을 막기 위하여 근년에 새로 보강하였다. 이는 조선고적도보의 사진에는 활주가 없음이 확인된다. 활주 상부에는 보방향으로 짚막한 운공을 끼워 전면쪽으로는 외목도리장여를 받고, 안쪽으로는 소로를 하나 없어 주심도리장여

를 받고 있다.

#### 사. 공포

경주향교 명륜당 공포 양식은 대성전과 같은 외1출목의 주심포구성으로 헛첨차, 살미 및 첨차로 구성되며, 살미 위에는 퇴보 머리가 돌출되어 있으며 초각한 부재가 있다.

살미와 헛첨차의 형상은 대성전과 비슷하게 날카로우나 길이가 대성전의 것보다 짧아 활달하지 못한 느낌을 준다. 첨차는 마구리가 직절된 교두형이다. 주심첨차는 1개만 사용하고 있는데 두 개의 판재를 포개어 하나로 하여 운두를 높게 하였다.

퇴보머리의 형상은 정면과 배면의 구성이 약간 다른데, 정면에는 보머리 끝을 살미와 같은 두께로 하고 끝을 둥글게 말아올린 권비형(捲蜚形)인데 비하여, 배면 보머리는 삼분두형과 권비형의 두 종류가 있다. 대청칸은 권비형이고 귀기둥과 온돌방을 구성하는 기둥 상부에는 삼분두로 처리하였다. 일반적으로 보머리 장식은 삼분두형에서 좀 더 장식적인 권비형으로 진행되는데, 경주향교의 경우는 고식인 삼분두형이 배면 일부에 남아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귀포의 형상도 창방뿔목과 외부로 돌출된 첨차를 살미의 형태로 조각하여 장식적인 효과를 더하였다. 활주 상부에서는 보 방향으로 짚막한 운공을 끼워 밖으로는 외목도리 받침장혀를 받도록 하고, 안으로는 소로를 하나 얹어 주심도리 받침장혀를 지지하도록 했다.

#### 아. 보, 도리, 창방, 대공, 화반

명륜당에 사용된 보의 종류는 대들보, 종보, 퇴보로 구분되는데, 대들보와 종보는 직재(直材)에 가까운 자연재를 사용하였으나 부재의 굵기가 얇아 약한 느낌을 준다. 대들보는 전면 고주와 후면 평주에 걸쳤으며, 전면 퇴칸에는 퇴보를 걸구하였다.

도리는 위치에 따라 종도리, 중도리, 주심도리, 외목도리로 구분된다. 모두 굴도리를 사용하였다. 창방은 정면과 배면, 양 측면의 퇴칸에 설치하였다. 창방과 기둥의 결합은 창방접합부를 둥글게 깎아 고식의 수법인 소매견이수법을 사용했다.

대청 부분의 내진주 상부에는 첨차를 4단으로 쌓은 중첩형 대공으로 대들보와 뒷보를 받게 하고 그 위에 중도리를 받게 구성한 예는 매우 특이한 모습이다. 후면 고주열의 중대공은 보방향으로 판대공을 놓고 도리 방향으로 첨차와 뜯창방을 걸구하였다. 대청 상부부분의 중대공 역시 도리 방향으로 첨차와 뜯창방을 걸구한 둥근형태의 파련대공으로 한 포대공인데, 대청 상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파련대공 대신 제형판대공으로 하였다.

이처럼 경주향교 명륜당의 중대공과 중대공은 모두 포대공으로 꾸며 다른 향교 명륜당에서 쉽게 보기 힘든 매우 격이 높은 수법을 사용하였다.

화반은 정면과 배면의 창방 위에 각 칸마다 1매씩 올려놓았다. 정면부에 사용된 화반은 양 측면을 파련각하고 가운데를 좁게 한 장구 모양을 하고 있는데 비하여 배면부 화반은 장식없는 역사다리꼴 형태의 판재를 올려놓아 배면보다 정면을 강조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자. 창호

명륜당의 창호는 온돌방의 정면으로 쌍여닫이 세살창을 두고, 대청으로 2짝의 불발기문을 내어 출입하도록 하였다.

대청 후벽의 3칸에는 둔테가 달린 쌍여닫이 울거미 널창이 각각 달려있는데, 3곳 중 정칸을 제외한 양 옆의 창 윗틀에서 중간설주(영쌍창)를 쫓은 구멍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 창틀 하부에는 부재가 모두 교체되어 그 흔적이 남아 있지 않지만, 이 중간설주의 존재로 보아 명륜당의 건축연대를 17세기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 2) 동무(東廡)와 서무(西廡)

#### 가. 평면

동무와 서무는 각각 전면 12칸, 측면 1칸의 홀처마 맞배지붕으로 되어 있다. 경주향교는 대설위 향교로서 대성전과 동·서무에 모두 143현의 위패를 모셨다고 하며, 따라서 동·서무의 크기가 클 수밖에 없다. 현존 우리나라 향교의 동·서무 규모를 보면, 서울 문묘 동·서무가 11칸×2칸(44.38m×6.93m)에 307.7㎡(93평)로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경주향교가 12칸×1칸에 139.6㎡(42평)이며, 상주향교 동·서무가 10칸×1칸으로 세 번째 큰 규모이다. 정면 칸수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칸수이다. 현재는 25현의 위패를 대성전에만 모시고 있어 동서무는 빈 건물로 남아 있다.

서무는 내부를 통칸으로 하였으나, 동무는 북측 2칸을 별도의 실로 구분하여 창고로 사용하다가 최근 벽체를 허물고 통칸으로 구성하였다.

두 건물은 제향영역의 담과 맞닿아 이어져 있어, 명륜당에서 제향영역으로 들어오지 않고서도 서무 후면의 좁고 긴 공간을 통하여 신삼문 앞 공간으로 통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나. 기단과 초석

동무와 서무는 단층 기단 위에 초석을 놓고 원형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3량 구조의 초익공을 결구하였다. 동무와 서무 기단에서는 장대석을 사용하거나 탑재 등 구(舊)부재를 사용하였으며, 서무 기단 일부에서는 연화무늬를 새긴 기단석도 보인다. 초석은 방형초반에 원형주좌를 둔 구(舊)석재들부터 자연석초석까지 다양한 종류가 사용되었

다.

#### 다. 기둥 및 상부

기둥은 전후면 모두 원주를 사용하였고 흘림이 약한 민흘림기둥이다. 기둥상부는 주두와 초익공, 보머리로만 구성되었으며, 첨차와 소로는 생략되었다. 초익공의 형태는 하단을 쌍S자로 초각하여 끝을 뾰족하게 하였으나, 대성전이나 신삼문과 같이 날카롭게 뺄어나가지 못하였다.

#### 라. 보, 도리, 대공

보는 직선에 가까운 부재를 사용하였는데 단면의 형태는 방형에 가까운데 모서리를 둥글게 굴러 깎았다. 외부로 돌출된 보머리는 상부를 ㄸ자로 깎고 하부를 둥글게 굴린 형태와 하부 역시 역ㄸ자로 깎아 놓은 두 종류가 사용되었다. 도리는 모두 굴도리를 사용하였다.

동·서무의 마루대공은 동자주 상부를 제형으로 깎아 소로를 얹어 종도리장혀를 받게 하고 운공(雲工)으로 소로와 장혀, 종도리를 감싼 방식으로 독락당 옥산정사, 향단 안대청, 인동향교 명륜당 등 17세기 초반 건립된 건축물에서 채택된 고식의 수법을 지니고 있다.

#### 마. 창호

동·서무 전면에는 북쪽을 기준으로 각 2, 5, 8, 11번째 칸 등 4군데에 두 짝 세살문을 달았다. 동무의 전면 2번째 칸에는 다른 칸과는 달리 하인방을 낮춰 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배면 우측 2칸에는 중방 상부에 창호를 두었다. 또 동무 우측면 풍판 안쪽의 종도리하부에는 2개의 방형의 창을 두었는데 따로 문을 달지 않았으며, 좌측면에는 창을 내지 않았다.

서무는 후면에 별도의 창호를 설치하지 않지만, 창호가 설치된 흔적이 남아 있다. 또 서무는 좌측면과 우측면 종도리하부 풍판 안쪽에 각각 하나의 방형창을 내었다.

### 3) 신삼문(神三門)

#### 가. 평면

일반적으로 제향의식이 행해지는 문묘구역의 주된 출입문은 내삼문이라 하고 신문, 신삼문, 묘삼문 또는 내신문으로 불리기도 한다.

경주향교에서 대성전으로 출입하는 문은 외삼문과 신삼문의 2중으로 되어 있는데, 외

부에 직접 접하는 외삼문을 거쳐 신삼문을 통하게 되어 있다. 대성전에 들어오기 전 좀 더 엄숙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한 방법이다.

신삼문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평면을 가지고 있다. 화강석 장대석을 두른 기단 상면은 전돌을 깔았으며, 그 위에 다듬은 돌을 초석으로 사용하고 원형 기둥을 세웠다. 문은 3칸 모두에 두짝 여닫이 판문을 달았는데 측면 중앙에 문을 설치하였다.

#### 나. 건축구조

신삼문은 초익공 3량가로 정면 3칸, 측면 2칸의 홑처마 맞배지붕의 건물이다. 화강석 장대석으로 된 기단 위에 다듬은 돌을 초석으로 사용하고 그 위에 민흘림이 있는 원형 기둥을 세웠다. 기둥머리에 사괘를 트고 도리방향으로 침차를 결구한 다음 짝막한 익공재를 결구하였는데 익공과 침차의 형태는 대성전과 거의 유사하다. 문지방엔 대성전과 유사하게 원호가 새겨진 신방목을 끼우고 그 밑에 신방석을 깔았다.

문은 세 칸 모두에 쌍여닫이 문을 두고 그 위에 홍살을 끼웠다. 대들보 위에 동자대공을 세웠는데 수법이 동서무의 대공과 유사하다.

#### 다. 기단과 초석

기단은 장대석으로 테두리를 두르고 상부 바닥은 방형 전돌을 놓았다. 기단에 사용된 갑석은 대성전 및 명륜당의 것과 유사한 형태로 고식이다.

초석은 구(舊)석재들을 사용한 듯 방형초반에 원형주좌를 둔 것을 주로 사용하였는데 형태는 다양하다. 초석 가운데 일부는 원형 주좌와 고막이의 결합 형태로 다듬어져 있어 고대 사찰이나 궁전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중앙열의 초석은 원형이며, 전후열의 초석은 거친 방형으로 다듬어진 점이 특이하다.

경주향교 내신문의 구조상 특이한 것은 문지방으로 사용되는 하인방의 하부에 신방목과 신방석이 남아 있는 점이다. 이러한 것은 대성전에도 있어 신라시대의 수법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 매우 주목되는 부분이다. 신방목의 형태는 단부를 둥글게 하고 옆면을 동심원으로 초각하였다. 후에 교체된 신방목은 모양이 다르고 옆면에 조각이 없다.

#### 라. 기둥

기둥은 외진주와 내부에 문을 고정하기 위한 보조기능을 가진 내진주로 구분되는데 외진주는 모두 원기둥으로 하였고, 내부 기둥은 네모기둥에 모서리를 깎아 놓았다. 외진주는 상부에 주두를 올리고 대량을 받게 하였는데 내진주는 대량하부에 바로 꽃혀 있다.

마. 보, 도리, 대공

대들보 단면의 형태는 방형에 가까운데 모서리를 둥글게 굴러 깎았으며, 외부로 돌출된 보머리는 상부를 사자로 깎고 하부를 둥글게 굴린 형태로 동·서무의 수법과 같다.

전후 평주 위에 걸친 대들보 중앙에는 짙막한 동자주 대공을 세웠는데, 보 방향으로 짙막한 침목을 고아 고정했다. 동자주 대공은 상단을 소로 밑면에 맞추어 깎아내고 그 위에 소로를 올린 형태이다. 대공 위에 종도리 장혀와 함께 보 방향으로 짙막한 운공(雲工)을 결구하였다. 동·서무의 대공 모습과 같으나 보방향으로 침목고임이 있는 것이 다르다.

바. 창호

정면의 각 칸에는 쌍여닫이 판문을 달았으며, 상부에는 안상을 뚫은 궁창널과 홍살로 꾸몄고, 어칸에는 ‘신삼문(神三門)’ 현판을 걸었다. 정면 각 판문에는 2태극문양이 그려져 있다. 문얼굴은 가운데 칸에는 높이를 높게 하고 양 옆은 낮게 하였을 뿐 아니라 문 폭도 양 측칸을 좁게 하여 격(格)을 달리 하였다. 문얼굴의 결구는 문윗틀은 연귀맞춤하고 하부는 맞댄맞춤하였는데 문지방엔 신방목을 끼우고 그 밑에 신방석을 깔았다. 문틀의 결구방식과 신방목의 설치방식은 대성전과 동일한 방식이다.

#### 4. 명륜당, 동·서무, 신삼문의 지정가치

##### (1) 역사적 가치

경주향교는 원래 신라 신문왕 682년에 최고의 교육기관인 국학을 세웠던 자리로 고려시대에는 향학이, 조선시대에는 향교가 자리하면서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곳이다. 경주향교 부지는 신라 때 요석궁(瑤石宮)이 있던 곳이라 전해오며, 향교는 정남에서 동쪽으로 약 10도 가량 틀어져 앉아 있다.

대설위 향교로서 경상북도에서 규모가 가장 큰 향교이며, 건물의 배치는 문묘를 앞쪽에 두고 뒤에 강학공간을 둔 전형적인 전묘후학의 배치형식을 따르고 있다. 현재의 배치형태는 조선 성종 23년(1492) 당시 모습을 토대로 임진왜란 후에 중건하여 오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16세기말 임진왜란으로 향교가 전소된 후 17세기 초(1602년)에 대성전이 있는 문묘 일곽, 1614년에 명륜당을 비롯하여 강학영역의 건물을 중건한 후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온 것으로 보인다.

## (2) 건축적 가치

### 가. 명륜당

경주향교 명륜당은 전퇴를 둔 중당협실형(中堂夾室形)의 일반적인 평면형식이나 그 규모면에서는 전국에서 나주향교 명륜당 다음으로 큰 규모이다. 뿐만 아니라 상부 가구구성면에서도 특이한 형식을 갖추고 있다. 즉, 대청부문의 내진주 상부는 첨차를 4단으로 쌓아 올려 대들보와 뒷보를 결구한 점과 종대공과 중대공을 모두 포대공으로 꾸몄다는 점은 다른 향교 명륜당에서 쉽게 보기 힘든 매우 격이 높은 수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명륜당 배면부의 보머리 장식을 삼분두형으로 구성한 점과 기둥과 결합되는 창방접합부를 둥글게 깎아 소매건이수법을 사용한 점 등 고식의 수법을 사용한 것도 특이하다.

장대석과 구(舊)탑재를 섞어 쌓은 기단부도 하부석재에는 우주와 탕주가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상부에는 단부를 외부로 돌출시켜 다듬은 갑석이 올려져있어 그 기법이 매우 정교하고 우수하다.

### 나. 동무(東廡)와 서무(西廡)

경주향교 동무(東廡)와 서무(西廡)는 대설위향교로서의 격과 배향 신위(神位) 수를 고려하여 각각 정면 12칸의 장대한 규모를 갖추고 있다. 면적으로는 서울 문묘(정면11칸×측면2칸)의 동·서무에 비해 절반 정도밖에 안되지만, 정면 칸수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

동·서무 모두 단층 기단 위에 초석을 놓고 원형 기둥을 세웠으며 그 위에 3량 구조의 초익공을 결구하였다. 초석은 방형대좌에 원형주좌를 둔 것에서부터 자연석까지 종류가 다양하다.

동·서무에서 특이한 점은 마루대공의 구성이다. 대들보 위의 동자주 상부를 제형으로 깎아 소로를 얹어 종도리장혀를 받게 하고 운공(雲工)으로 소로와 장혀, 종도리를 감싼 방식으로 독락당 옥산정사, 향단 안대청, 인동향교 명륜당 등 17세기 초반 건립된 건축물에서 채택된 고식의 수법을 지니고 있다.

### 다. 신삼문

신삼문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평면을 가지고 있다. 기단은 장대석으로 테두리를 두르고 상부 바닥은 방형 전돌을 놓았다. 기단에 사용된 갑석은 대성전 및 명륜당의 것과 유사한 형태로 고식이다.

초석은 구(舊)석재들을 사용한 듯 방형초반에 원형주좌를 둔 것을 주로 사용하였는데



형태는 다양하다. 초석 가운데 일부는 원형 주좌와 고막이의 결합 형태로 다듬어져 있어 고대 사찰이나 궁전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중앙열의 초석은 원형이며, 전후열의 초석은 거친 방형으로 다듬어진 점이 특이하다.

경주향교 내신문의 구조상 특이한 것은 문지방으로 사용되는 하인방의 하부에 신방목과 신방석이 남아 있는 점이다. 이러한 것은 대성전에도 있어 신라시대의 수법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 매우 주목되는 부분이다.

전후 평주 위에 걸친 대들보 중앙에는 짙막한 동자주 대공을 세웠는데, 보 방향으로 짙막한 침목을 고아 고정했다. 동자주 대공은 상단을 소로 밑면에 맞추어 깎아내고 그 위에 소로를 올린 형태이다. 대공 위에 종도리 장혀와 함께 보 방향으로 짙막한 운공(雲工)을 결구하였다. 동·서무의 대공 모습과 같으나 보방향으로 침목고임이 있는 것이 다르다.

## 5. 종합 검토의견

경주향교 경내 건물들은 원형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명륜당은 나주향교 명륜당 다음으로 전국에서 큰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상부 가구는 다른 향교 명륜당에서 쉽게 보기 힘든 매우 격이 높은 수법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보머리 장식이나 창방접합방식에서 고식의 수법을 사용한 것도 특이하다.

동·서무는 정면 칸수로는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이며, 마루대공의 구성이 특이하고 고식의 수법을 보이고 있다.

내삼문 또한 기단, 초석, 신방목과 신방석의 형식이 신라시대의 수법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 매우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와 같이 경주 향교는 유교문화의 전통성과 학술적 문화사적 가치를 잘 살펴 볼 수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므로, 대성전(보물 제1727호)과 함께 경주 향교 내 명륜당, 동서무, 내삼문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 9. 예천 용궁향교 대성전, 명륜당, 세심루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 가. 제안사항

경북 예천군 소재 「예천 용궁향교 대성전, 명륜당, 세심루」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북 예천군 소재 「예천 용궁향교 대성전, 명륜당, 세심루」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경상북도지사
- (2) 대상문화재 :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10호 「용궁향교」
  - 소재지 :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용궁향교길 59 (향석리 266)
  - 지정일 : 1985. 10. 15.
-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 명칭 : 예천 용궁향교 대성전, 명륜당, 세심루  
(醴泉 龍宮鄉校 大成殿, 明倫堂, 洗心樓)
  - 소유자(관리자) : 경상북도향교재단(용궁향교)
  - 소재지 :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용궁향교길 59 (향석리 266)
  - 조성연대 : 조선시대(대성전 선조35년(1602), 명륜당 현종3년(1662), 세심루 숙종13년(1687))
  - 수량 : 3동
  - 지정면적 : 지정구역 393.7㎡(보호구역 2,339.9㎡)

○ 양 식 :

- 대성전 : 정면3칸, 측면3칸, 익공계 2고주 5량 , 겹처마, 맞배지붕
- 명륜당 : 정면5칸, 측면2칸, 2익공 5량가, 겹처마, 팔작지붕
- 세심루 : 정면7칸, 측면2칸, 중층, 초익공 5량가, 홑처마, 맞배지붕

라. 현지조사의견(2020.08.11.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문화재위원 ○○○ : 대성전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명륜당·세심루 가치 미흡)

○ 문화재전문위원 ○○○ : 대성전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명륜당·세심루 가치 미흡)

○ 문화재전문위원 ○○○ : 대성전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명륜당·세심루 가치 미흡)

마. 지정조사보고서 : 불임참조

바. 의결사항

○ 부결

- 지정 가치 미흡.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부결 11명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0.08.11	대상문화재	예천 용궁향교 대성전, 명륜당, 세심루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건축역사
	소속	○○대학교	직위(직책)	연구석좌교수

주요 지정 사항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보물)
	문화재 명칭	예천 용궁향교 대성전, 명륜당, 세심루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붙임1>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붙임2>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붙임3> 참조
검토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해당사항 없음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해당사항 없음

종합의견	<p>본 예천 용궁향교 대성전/명륜당/세심루는 건립 연대가 분명하고 건립당시의 상황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조선시대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유구들을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차례로 지어진 대성전과 명륜당, 세심루를 비교하여 건축 구조와 결구수법 등의 시기적 변천과정을 알 수 있어 의미가 크다. 비교적 건립초기의 상태를 잘 보존하고 있으며 훼손이 적어 조선시대 초, 중기에 지어진 향교건축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우수한 사료로 평가된다.</p> <p>여느 목조건축에 비하여 조형성이 떨어지지 않으며, 향교건축의 양식과 학술적 의미 등을 고려했을 때 국가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판단된다.</p>
------	---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10월 10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붙임 1]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소재지 : 경북 예천군 용궁면 용궁향교길 59 (향석리)
- 소유 및 관리자 : 경상북도 향교재단, 예천군
- 수 량 : 대성전, 명륜당, 세심루 각 1동 전체 3동

- 용궁향교는 예천군의 서남쪽 배산임수형에 대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은 특히 퇴계의 학문적 근거지였던 예안과 가까워 퇴계의 학문적 영향력을 받은 곳이다.

용궁향교는 여느 향교와 마찬가지로 문묘로서 공자를 비롯한 유교의 선현들께 제향을 모심과 아울러 용궁현 지역에서 뛰어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문을 강론하고 교육하기 위해 건립된 국가기관이다. 조선 태조 7년(1398) 현 위치에서 동쪽으로 100m 떨어진 곳에 처음 세워졌으나, 임진왜란(1592)으로 불타 없어졌던 것을 선조 36년(1603)에 대성전과 명륜당을, 인조 14년(1636)에 세심루를 새로 지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sup>166)</sup>

- 예천군에는 2020년 6월 기준으로 총 96건의 문화재가 지정·등록되어 있는데, 소재지 및 주변의 지정·등록 문화재 분포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예천 회룡포(명승 제16호)
- 예천 금남리 황목근(천연기념물 제400호)
- 무이서당(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31호)
- 예천 향석리 석조여래좌상(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147호)
- 예천 무이리 청원정(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533호)

- 현재의 보존 상태는 양호하고 현재 특별히 보호·관리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없다고 생각된다. 다만, 부재들이 노후되고 활용도에 있어서는 다소 미흡한 편이라고 느껴진다.

## [붙임 2] 연혁, 유래 및 특징

### 1) 연혁과 유래

- 용궁향교는 지방의 문묘로서 제향을 드림과 아울러 옛 용궁현 지역의 인재를 양성

---

166)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 용궁향교 대성전/ 명륜당/ 세심루, 문화재청 예천군, 2020, 9

특 본인의 보고서는 위의 신청서의 내용과 자료를 전반적으로 참고, 인용하여 작성된 것임을 밝힌다.

하기 위해 학문을 강론, 연구하며 교육하기 위해 세워진 지방의 관학이다. 조선 태조 7년(1398) 현 위치에서 동쪽으로 100m 떨어진 곳에 처음 세워졌으나,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현의 서쪽 2리에 향교가 위치하고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현 위치는 예천군의 서남측에 해당된다.

한편, 임진왜란(1592)으로 불타 없어졌던 것을 선조 36년(1603)에 대성전과 명륜당을, 인조 14년(1636)에 세심루(洗心樓)를 새로 지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용궁지역의 정치·사회·문화현상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유구이다.

- 공문 5성위를 비롯하여 송 4현 및 국내 18현 등 27위의 성현 위패를 봉안하고 매년 봄과 가을에 석전제를 지내고 있어 유교 의식적 공간으로 현재도 제례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 전통적 유교의식이 구현되는 장소이다. 또한, 주변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건축물에서는 향촌사회의 미풍양속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유학적 규범을 지키고 있어 교육이나 체험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 2) 배치형식

용궁향교는 완만한 경사지인 산 아래 부분에 입지하여 중심축이 되는 일직선상에 아래로부터 외삼문-세심루-명륜당-대성전을 배치시킨 '前學後廟'형식이다. 상대적으로 제향공간이 좁고 강학공간이 넓은 것은 당연한 선택이다. 향교의 좌향은 서남향을 바라보고 있다.

전체적으로 자연지형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크게 3단으로 구분하여 단계적인 공간 위계를 이루고 있다. 가장 낮은 외삼문이 표고 약 68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장 높은 대성전은 약 77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니 각 건물의 전면 향을 향한 시경관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대지한 것이다.

우선 외삼문을 들어서면 다소 넓은 마당이 자리하며 마당 뒷면으로 축대를 설치하고 그 위에 2층 누각인 세심루가 위치시켰다. 세심루 전면에는 화단이 조성되어 있다. 세심루 배면의 대지에는 다소 높은 축대 위에 두벌대 기단을 두고 그 위에 명륜당이 자리하고 있다. 명륜당 전면으로는 서로 바라보는 방향으로 동재와 서재가 바라보고 있는 소위 '前齋後堂'형의 배치이다. 명륜당 내부에는 다수의 기문과 현판이 게시되어 있다.

명륜당 모서리에 위치한 협문을 지나 보면 웅장하지만 호화롭지 않아 단아한 3칸 대성전이 맨 윗 단의 공간에 자리하고 있다. 소설위(小設位)인 까닭에 동무(東廡)와 서무(西廡)가 있었을 가능성은 적다.

외삼문은 1989년에 신설하면서 건물 주위를 기와담장(瓦牆)으로 둘렀다. 서재는 200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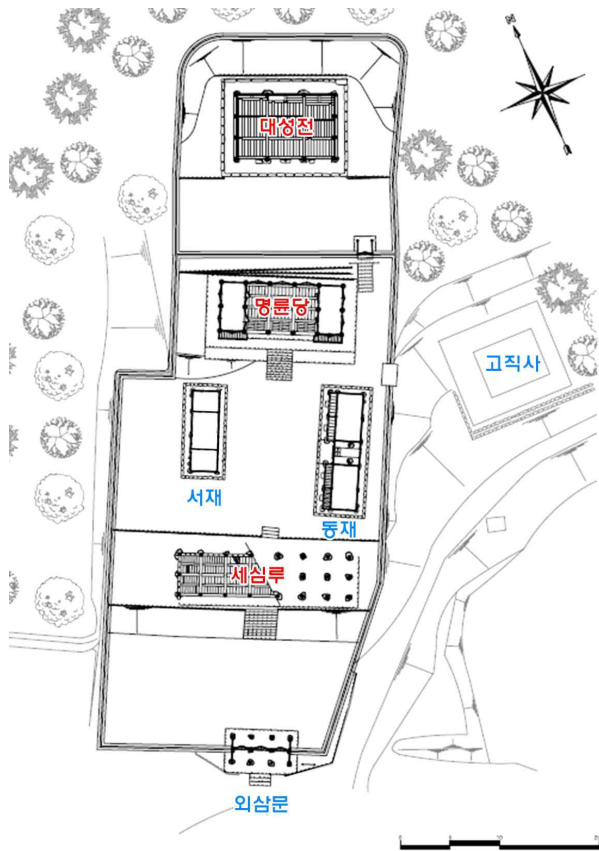


그림 73 용궁향교 배치도(예천군 제출도면 인용)

에 새로 건립한 것으로 기존의 동재보다는 다소 작은 규모로 지어졌다. 담 밖 동쪽에는 ‘口자형’의 고직사가 있고 서측에는 현대식 건물인 유림회관이 위치하고 있다.

### 3) 건축적 특징

#### ■ 대성전

용궁향교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익공계 건축이다. 가구구조는 2고주 5량가 흘치마 박공지붕 형식으로 규모가 크지만 장식적이지 않고 단아한 모습이다. 경사지형을 2단으로 낮고 평탄하게 고른 후 대성전과 함께 사주문 형식의 신문을 전면의 모서리에 배치한 다음 주위를 한식 토석담장으로 방형으로 돌려 별도로 구획하여 제향공간을 마련하였다.

대성전 내부는 전체를 통칸으로 구성하고 바닥은 우물마루를 설치하였다. 주벽 중앙에 있는 공자의 위패를 중심으로 좌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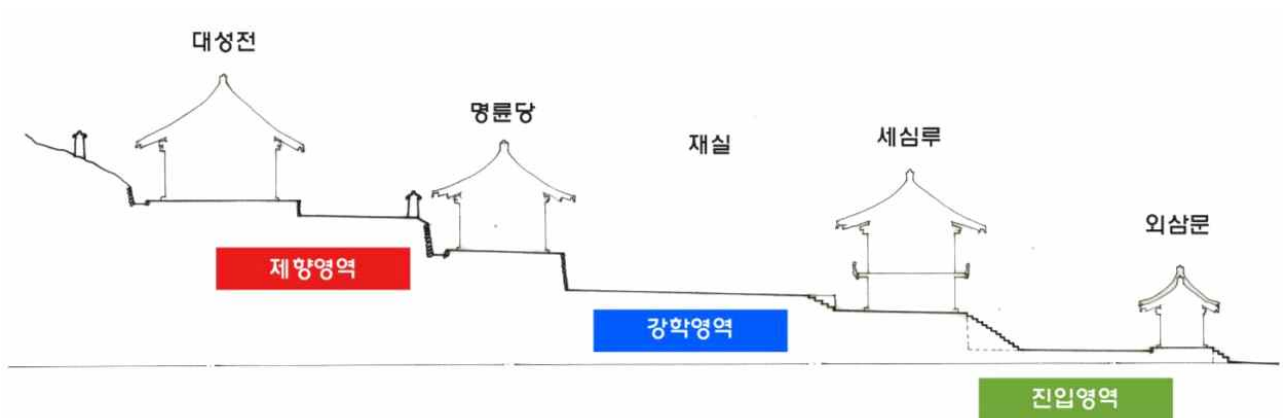


그림 74 용궁향교 영역의 단면도(예천군 제출도면 인용)

안자, 증자, 자사, 맹자 등 공문 4성位와 송조 4현, 국내 유학자 18현 등 모두 27위의 위패가 배향되어 있다.

3칸 대성전의 간살은 정면은 어칸과 좌우 퇴칸을 각각 3700mm와 3100mm로 다르게 하여 어칸이 더 넓다. 이에 비교해 측면은 3칸이 모두 2150mm로 폭을 같게 하였다.

이처럼 어칸을 크게 한 것은 건물의 중심성을 강조하여 시각적인 안정감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대성전 전면을 제외한 좌·우측과 배면에는 창호를 내지 않고 벽체 마감하였는데 특히 좌·우측 외벽에는 사람높이 정도로 화방벽을 쌓았다. 이에 비하여 전면에는 모든 주칸에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다. 문짝과 문틀, 문선 등의 상태로 보아 원래의 것이 아니라 후대에 바뀐 것이 아닌가 한다.

기단은 전면부와 그 외의 부분이 좀 다르다. 기단의 폭은 전면이 1800mm로 넓고 좌·우측과 배면은 모두 1500mm 정도이다. 전면부는 자연석을 이용한 허튼층 쌓기 방식으로 3벌대 정도로 쌓은 다음 그 위에 다시 가구식 기단의 갑석처럼 생긴 화강석 재질의 장대석을 덮어 마감한 방식이다. 반면 좌·우측과 배면은 지형 차로 인해 전면보다 낮은 외벌대로 축조되었다. 기단 상면에는 오래되지 않은 전돌이 깔려 있는데 대성전 내부 바닥에 우물마루가 깔려 있음을 고려할 때 원래의 형식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기단 위에는 편평하고 널찍한 자연석을 이용하여 덩벙 주초를 놓고 기둥을 세웠는데 정면과 배면 초석 중 일부에서 주좌를 돌출시킨 흔적이 보인다. 정평 초석이 아닌 자연석 초석에 주좌를 새긴 것은 흔하지 않은 것인데 대성전을 건축하거나 보수할 때 다른 건물에서 사용하던 초석을 가져다 쓴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초석에는 하부를 그랭이질 하여 면과 맞추어 세운 두리기둥이 세워져 있다. 일부 기둥에는 약간의 배흘림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둥 하부의 하인방은 기둥과 기둥 사이에 빠짐없이 결구되었다. 중인방은 우측면과 배면에만 있을 뿐 좌측면에는 사용하지 않았다.

전·후면의 평주 사이에 결구된 창방은 기둥머리에 사개를 터서 창방을 위에서 아래로 눌러 끼우는 방식으로 하였는데 다른 수장재에 비해 폭이 두꺼워 끝부분을 궁굴려 깎은 다음 기둥과 맞추었다.

정면의 포작은 초익공 형식으로 기둥의 화통가지에 창방과 교차하게 익공을 끼우고 그 위에 주두를 올린 다음 보를 받게 하였으며 보머리와 교차해서 첩차가 짜이면서 주심도리 장혀를 받는 전형적인 초익공 형식이다. 익공 외단은 수서형 살미로 깎은 다음 그 아래로는 초각하였고 내단은 초새김한 보아지 형태로 하여 보를 직접 받았다. 대성전이 명륜당 보다 앞선 건물이고 권위적으로 높은 건물이기 때문에 치목을 보다 정교하게 한 것이라 생각된다.

배면의 평주 포작 역시 정면과 같은 초익공 형식이다. 모든 구성과 결구가 정면의 것과 같지만 익공 외단에 촛가지를 새기지 않고 운공형식의 몰익공으로 처리한 점이 다르다.

대성전 외부 구성 중 특이한 것은 귀포가 전후면 평주 포와는 다른 구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즉 귀포는 평주 포와 같은 초익공이 아니라 촛가지가 하나 더 많은 이익공 형식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이처럼 살미 자체가 하나 더 많은 경우는 흔하지 않다. 이들 귀포에 결구된 두 개의 익공 중 아래쪽 초익공에 해당하는 살미는 고주와 연결되는 측면 창방의 뺄목이 초각된 것이며 주두 위 두 번째 촛가지는 역시 고주에 걸리는 퇴보의 머리를 수장재 폭으로 줄여 깎고 쇠서를 새긴 것이다. 보통 폭이 넉넉하게 두툽한 보의 경우에도 밖으로 돌출된 머리를 위만 빗 깎아 그대로 돌출시킨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들 귀포에서조차 이익공 쇠서 형태가 좌측면과 우측면의 것이 달라 눈길을 끈다. 우측면의 앞과 뒤의 귀포는 이익공 살미가 초익공과 같게 아래로 굽은 수서 형식인데 반해 좌측면은 앞, 뒤 모두 위로 굽은 양서 형태로 양측이 다르다.

보는 대성전 내부를 가로 지르는 장통보 2본, 우주에서 측면 고주 몸통에 걸리는 퇴보 4본,

최상단의 종보 4본 등 총 10본이 사용되었다.

이들 중에서 장통보 2본은 대성전에 사용된 부재 중 가장 굵고 긴 부재로 나무의 굴곡면을 그대로 살려 원형에 가까운 단면으로 치목되었다. 장통보 위에는 3분변작한 지점에 양단을 초엽 및 당초문 등으로 정교하게 초각한 화반 대공이 올라가 종보를 받치고 있고 종보 양단에 자리를 파 중도리를 자리하게 하였다. 중대공 위에 걸린 종량은 장통보 보다는 직경이 작고 왜소하지만 장통보와 비슷한 형태로 원형 단면에 가깝도록 치목해 두었다.

좌우 측벽에 자리한 고주에는 약 2/3 정도 높이의 몸통 한가운데 전 후 우주에서 건너 지른 퇴량이 꽃혀 있다. 퇴량은 부재가 왜소하고 폭이 작아 기둥머리를 결구하는 창방이나 인방과 비슷한 크기이다.

고주 위에도 역시 장통보 상부의 것과 동일한 크기의 종보가 올라가 있지만, 결구 방식은 서로 다르다. 중대공은 가운데 이중량(二重樑)구조 상부의 것과 측벽 고주 구조 상부의 것이 달라 형태가 두 가지로 나뉜다.

연목은 장연과 단연 그리고 목기연 등이 있으며 장연이 길게 빠져 나와 처마를 구성하는 홀처마로 구성되었다. 연목은 명륜당의 것보다는 굵고 건설하고 근래 교체된 몇몇을 제외하고는 원래의 것이 오랜 기간 잘 지탱하여 온 것처럼 보인다. 장연 마구리는 약하게 사절하여 자르고 말구를 줄여가며 홀렸다. 지붕은 홀처마로 장연 위에 초맥이 평고대를 올리고 연합을 설치한 다음 한식 중와를 올렸다.

지붕의 용마루는 아래에서부터 착고와 부고를 놓고 그 위에 6단의 적새를 쌓고 그 위에 암마루장과 숫마루장을 덮은 형식이다. 또한 지붕의 좌우에는 방풍판을 달았다.

외부 단청은 전체적으로 풍화로 인해 훼손된 상태이며 내부는 원형이 남아 있는 곳이 있다. 대성전의 기둥과 보, 창방, 도리와 연목 등에 도채된 단청은 외부는 비바람을 맞아 거의 사라진 반면 내부는 일부 모로 단청 등이 잘 남아 있다.

### ■ 명륜당

용궁향교 명륜당은 정면 5칸, 측면 2칸 2익공계 5량가 팔작지붕 집이다. 정면 5칸 중 우물마루가 깔린 가운데 3칸을 중심으로 좌·우측에 온돌방이 대칭적으로 배치되었고 방 앞에 좁은 쪽마루가 설치된 평면형식을 하고 있다. 비교적 급한 남측 경사면에 향교가 자리하고 있어 중심축선상에 있는 건물 상호간의 단차가 심하다.

대청 3칸의 우물마루는 전후면의 기둥에 긴 장귀틀을 건너지른 다음 이를 정확하게 4등분한 지점에 동귀틀을 직교하여 짜 맞추었다. 그런데 동귀틀과 여모귀틀사이에 직각으로 다시 귀틀을 걸치고 청판을 짧게 끼워 우물마루 청판 구성이 일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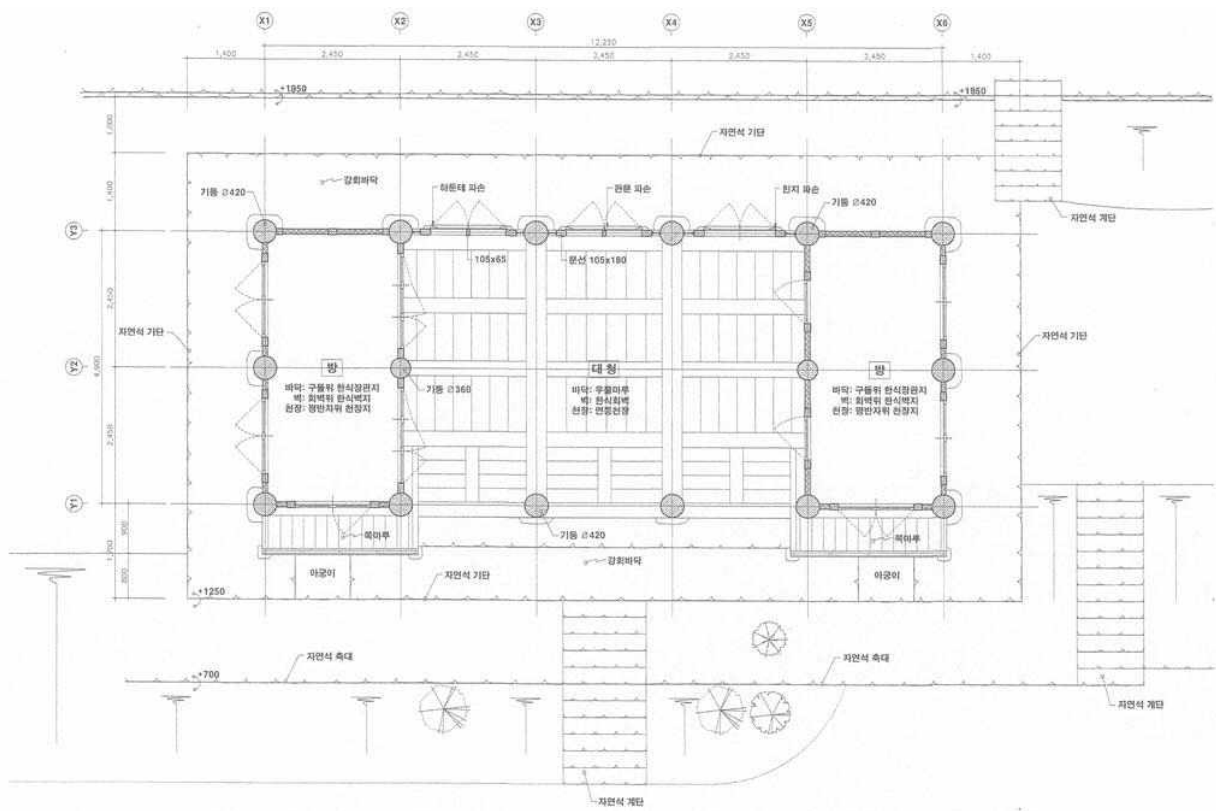


그림 75 <명륜당 평면도(2015)>

-자료 : 예천군, 「예천 용궁향교 대성전 기단 보수 및 주변정비사업」, 2015

명륜당 전면 기둥 옆에는 여러 군데 자국이 남아 있는데 이는 난간 돌란대 등의 부재

가 결구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원래 전면 바깥으로 현함이나 난간 등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현재 대청 전면은 모두 개방되어 있으나 배벽(背壁) 3주칸에는 판장문이 설치되어 있다.

대청 배벽 어칸과 좌협칸에는 조선 시대 경상지역 서원 및 향교 그리고 사찰과 주택 등에 널리 유행하던 영쌍창이라는 고식의 창호가 보인다.

중앙 대청의 양쪽에는 온돌방이 있다. 이들은 대청과 쪽마루로 연결된다. 앞쪽에는 같은 형식의 이분합 띠살문이 설치되어 드나들 수 있게 되었다. 일견 같은 모습이라 느껴지나 부분적으로는 좀 다르다. 온돌방 외측 창호의 형태가 각각 다르고 온돌방과 마루 사이의 창호 역시 양쪽 방의 구성이 다르다. 특히 좌측 온돌방이 창호의 가변성이 좋아 마루와 온돌방의 공간적 통합이 용이하고 마루를 통하지 않고서도 외부로 직접 출입할 수 있는 구조로 하였다.

양쪽 방 모두 천장은 평반자이며 내부는 벽지 도배 마감이다. 온돌방 앞쪽 전면 쪽마루 하부에 함실 아궁이가 있어 난방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굴뚝은 후에 개보수 과정을 거치면서 모두 없어진 것인지 흔적을 찾을 수 없다.

기단 위에 자연석 덩벙 주초를 놓고 기둥을 세웠는데 전면부와 좌우 측면의 초석은 크기도 크고 대부분이 밖으로 드러나 있지만 배면부는 초석이 작고 대부분이 기단 면에 묻혀 있어 밖으로는 윗면만 보인다. 기단면을 후에 보수하면서 덜 썩은 것으로 보인다. 기둥은 모두 원기둥으로 16본이 사용되었다. 이 중 외진주는 14본이며 나머지 2본은 온돌방과 청방 간에 자리한 내진주인데 내진주 역시 외진주와 같은 평주이다. 기둥은 보기 드물게 굵은 부재로 주선과 벽체 등에 가려져 정확하지 않지만 대부분 민흘림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청 전면에 있는 2본의 원주는 외견상 배흘림이 완연하다.

기둥은 하단부를 그랭이질하여 초석과 맞춘 다음 일정한 높이로 여모중방 및 하인방 등과 결구하고 머리 부분은 창방을 걸어 건물의 뼈대를 이룬다. 굵은 지름의 기둥에 비해 주두의 크기가 작아 기둥머리에서의 맞춤이 매우 어색하다.

기둥 위에 결구된 포작은 주심첨차가 있는 이익공 형식이다. 기둥머리를 네 개로 나누어 화통가지를 만든 다음 창방과 교차하여 보 방향의 초익공을 끼우고 그 위에 다시 주두를 올려 이익공과 주심첨차를 교차되게 받고 있다. 포작의 짜임은 간결하나 결구나 치목 상태는 정교하지 않다.

보는 대청의 전·후간 기둥을 연결하며 걸쳐진 장통보 2본, 온돌방 청방간의 내진 평주 위에서 만나는 맞보 4본, 양 측면에서 내진주로 연결되는 총량 2본과 종량 4본 등이 있다. 외진주 밖으로 돌출된 장통보와 퇴량 및 총량의 머리는 서까래와의 간섭을 줄이고 모양을 내기 위함인 듯 운두형식으로 초각하였다.

맞보 위에도 중대공이 올라가고 그 위에 종보가 걸구 된다. 종보를 걸면서 동자주 머리를 사갈하여 보와 도리 방향으로 보아지와 침차를 끼우고 주두를 올리는 형식은 장통보 위의 동자주와 같다.

장통보와 맞보 위에 걸린 종보 상부에는 4개의 판재를 겹쳐 올린 다음 좌우단을 둥글게 모양을 낸 운형대공이 올라가 종도리를 받고 있다. 명륜당에는 총 4구의 마루대공이 있는데 각각의 대공이 종도리 장혀로 연결되고 양단에 소로를 올린 침자가 대공에 끼워져 장혀를 보강하고 있다.

단연과 장연은 종도리 위에서 교차하고 장연은 길게 내려와 처마를 형성한다. 장연의 마구리는 거의 직절한 모습이고 끝부분은 홀트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정면과 양 측면의 겹처마는 서까래 위에 초막이 평고대를 올리고 부연을 설치하여 길게 빼낸 다음 개판과 부연착고를 막았다. 처마의 모서리에는 추너가 빠져 나와 있고 그 위에 덧달아 사래가 올라가 있다. 사래는 모두 바뀐 것으로 보인다.

지붕 기와는 근래 번와 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처마 끝부분은 와구토 마감이다. 용마루는 착고와 부고를 놓고 그 위에 적새를 쌓고 숫마루장을 덮었다. 내림마루와 귀마루 끝에는 모두 망와와 망새 등으로 장식하고 그 아래 방초와를 두어 마무리 하였다.

명륜당은 단청을 칠하지 않은 백골집처럼 보인다. 그러나 내부 부재중에 단청 밑그림이 비교적 선명하게 남아 있고 도리 하단에 도채된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 단청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명륜당은 세부적인 수법에서 살미의 치목이 거칠고 길며 두꺼워 대성전 보다는 다소 늦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기둥 지름에 비해 작고 어색하게 올라가 있는 주두, 창방과 인방 등 그 외 부재의 치목과 결구, 초각 수법이 정교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거칠게 다듬은 느낌이 들어 건립 후 개보수 공사 시에 교체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 ■ 세심루

세심루(洗心樓)는 명륜당, 동·서재와 함께 강학공간의 구성을 위해 중요한 건물이다. 당호가 뜻하는 것은 마치 불가에서 들을 수 있는 이름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여느 향교

에서처럼 유생들의 휴식과 강학, 자연경관 완상과 담소 등을 위한 장소이며 그 하층에는 향교를 드나들 수 있는 출입문이 설치되어 중층의 문루 형식을 취하고 있다.

명륜당 전면의 넓은 마당을 2단으로 나누어 조성한 다음 앞쪽 낮은 단에 세심루를 배치하고 그 하부를 통과하여 명륜당에 이르도록 하였다. 누 앞에는 근래에 새로이 외삼문을 건립하였는데 세심루보다 훨씬 더 낮은 곳에 있어 명륜당에서 세심루를 거쳐 외삼문에 이르는 강학 구역의 건물은 크게 3단 지형으로 나누어 배치된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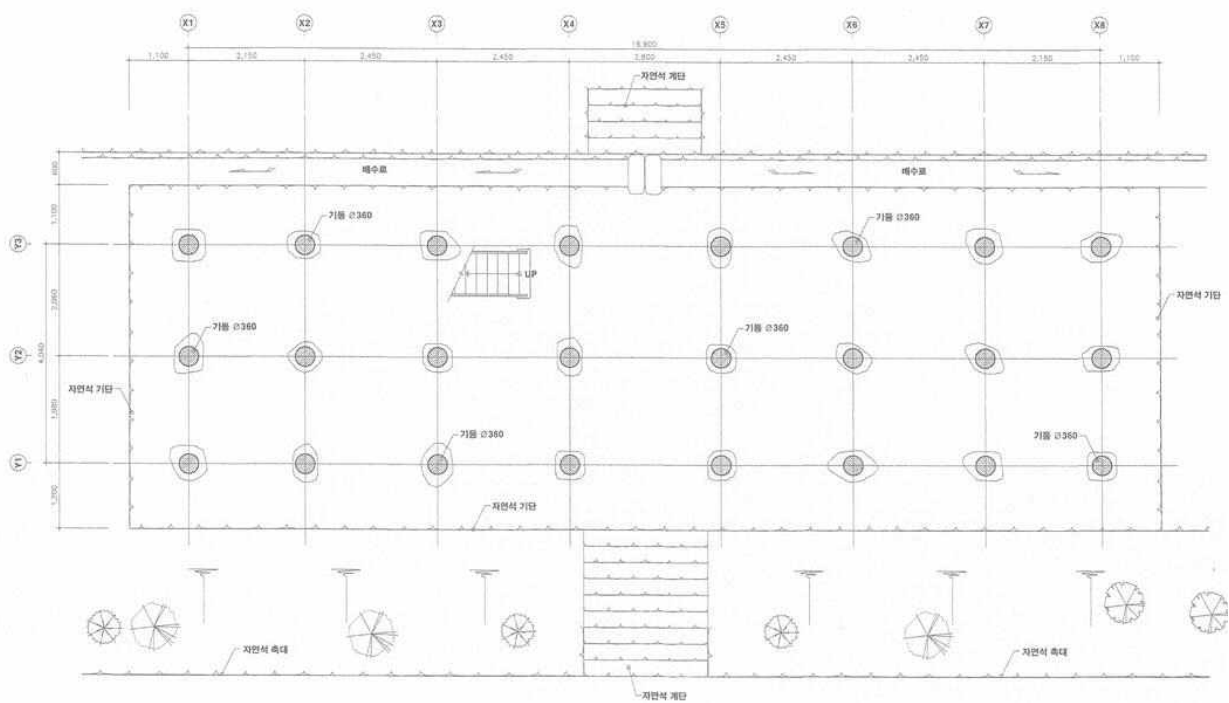


그림 76 <세심루 1층 평면도(2015)>

-자료출처 : 예천군, 「예천 용궁향교 대성전 기단 보수 및 주변정비사업」, 2015

용궁향교 문루인 세심루는 정면 7칸, 측면 2칸의 비교적 긴 중층 건물로 초익공계 5량가 흘처마 박공지붕 형식이다. 우리나라 향교의 문루로서는 가장 큰 규모에 속하는 용궁향교 세심루는 정면 7칸, 측면 2칸으로 같은 간살 구성을 하고 있는 병산서원 만대루와 비교된다.

세심루는 상하 모두 둥근기둥을 사용하여 상하층을 따로 결구하였는데 하층은 모든 기둥을 빠짐없이 가로와 세로로 열을 맞추어 세우고 상부 구조를 받은 데 비해 상층은 안기둥을 세우지 않고 통칸의 내부 공간으로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하였다. 상층은 우물마루를 깔았고 하층은 땅 바닥을 그대로 두었다.

2층의 마루는 전후 기둥 사이에 장귀틀을 건너지르고 이와 직교하여 3분의 동귀틀을

같은 간격으로 걸어 짠 우물마루이다. 마루 청판과 귀틀의 치목 및 결구 수법과 노후도 등으로 보아 새롭게 수리한 흔적을 찾기 힘들니 초창된 원래의 상태가 아닌가 한다.

가운데 위치한 기둥 열에 걸린 동귀틀은 누하에 서있는 안기둥 머리 위에서 장귀틀과 장부 맞춤하여 짜이지만 기둥 사이에 걸린 동귀틀은 장귀틀 옆면에 홈을 내고 끝을 얇게 깎아 결구한 다음 그 아래쪽에 썸기를 박아 높이를 맞추었다.

건물의 크기에 비하여 간살이는 넓지 않다. 가운데 칸을 9자로 하고 옆으로 가면서 한 자씩 줄여서 8자, 7자로 잡은 모습이다. 이에 비해 측면 간살은 전면과 후면이 각각 7자 정도이다. 루 하층은 따로 창호가 설치되지 않고 모두 개방된 상태인데 반해 상층은 전면을 모두 판벽으로 막고 두 짝으로 된 널판 창을 두어 개폐하게 하였다. 상층의 나머지 측면과 배면은 모두 개방된 상태인데 안전을 위해 평난간만 기둥과 기둥 사이에 설치했다.

평주 상부의 포작은 전후 모두 동일한 초익공 형식으로 기둥 화통가지에 창방과 교차되게 살미를 끼우고 그 위에 十字形으로 사갈된 주두를 올린 다음 보와 주심도리 및 장혀를 직교되게 결구하였다. 살미 아래로는 운공형으로 초각한 모습이고 안쪽은 끝을 경사지게 깎고 하부를 초새김한 형태로 다듬어 보아지처럼 보 하단을 직접 받치고 있다. 살미의 끝은 수서형으로 뾰족하게 깎은 모습이 명륜당의 것과 유사하다.

누의 상부 가구를 이루는 보는 장통보 6본과 맞보 4본 그리고 종보 8본 등 총 18본이다. 누의 전후 간 평주 사이를 연결하는 장통보는 가장 크고 긴 대들보로 자연 그대로의 휘어진 굴곡을 잘 살린 형태이다.

종보 중앙부 상단에는 종대공을 놓고 그 상단에 종도리를 받게 하였다. 종대공은 2~3단의 판재를 겹쳐 쌓은 사다리꼴 모양의 판대공 형식이며 최상단 중앙에 도리 자리를 둥그렇게 파내 종도리를 직접 받치고 있다.

처마는 홑처마이며 서까래는 장연과 단연으로 이루어졌다. 종도리로부터 중도리까지 걸리는 단연은 장연에 비해 경사가 급하고 중도리 위에서 장연과 엇갈리게 설치되었다.

### [붙임 3] 지정 가치 및 근거 기준

용궁향교는 조선 초기인 1398년(태조 7년)에 초창된 후 화재와 임진란으로 두 차례 소실되었다. 현 향교는 삼창(三創)을 통해 다시 세워진 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초, 중창에 대한 내용은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현 향교 건물은 몇 몇의 기록물에 근거하여 건축연대를 추정하고 있다.

국가문화재지정을 위한 신청서에 의하면 금번에 향교의 건축 이력이 상세하게 담긴 명륜당기(明倫堂記)와 문루기(門樓記)의 정확한 해석을 통해 두 건물의 건축연대를 바르게 밝힐 수 있었다고 한다. 즉 이를 통해 대성전이 1602년, 명륜당이 1662년, 그리고 세심루가 1687년에 건립된 것을 알 수 있다. 세 건물을 한 번에 같이 건축하지 못하고 여러 해에 걸쳐 차례대로 건축된 것은 임란의 참화가 점차 치유하는 과정에서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였고 현감이 자신의 녹봉을 내어 주면서까지 명륜당의 건립을 독려할 정도로 재정이 궁핍하였던 당시의 사회적 상황 때문이라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세 건물 간 양식과 치목수법 등을 비교하여 당시 건축 기술 및 결구 수법 등의 변천과정을 일견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열악한 재정적 상황 아래서 향교 일곽을 차례대로 구성해 나가는 순차적인 건축 해결책도 파악할 수 있어 역사성과 함께 학술적인 가치가 있다.

다소 급한 경사지를 활용하여 높낮이를 조절하고 지형에 순응하면서 축을 맞춘 전학후묘 형식의 전형적인 향교 배치와 함께 중당협실형 명륜당의 평면, 병산서원 만대루에 버금가는 크기의 세심루라는 문루를 두루 갖춘 점에서 조선시대 지방 관학의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다.

건축구조에서도 주목되는 점이 있다. 대성전 상부가구에서 파련대공과 중대공 화반의 정교하고 세밀한 투조와 함께 익공의 간결한 포작 결구, 활달하고 짧은 촛가지, 보아지와 화반의 초새김 등은 조선 중기의 장식적 치목수법이 잘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성전 측벽 고주 상부 동자주 대공과 명륜당 대청의 배면 영쌍창은 고식으로 건축 연대와 관련하여 건축 기술의 시기적 특성을 확인해 볼 수 자료라 하겠다. 그 뿐만 아니라 퇴량 머리를 밖으로 깎아 내어 촛가지를 만든 대성전 귀포는 주심포와 다포에서 볼 수 있는 형식으로 다포나 주심포에서 익공으로 넘어가는 초기 익공계 공포의 적절한 방식이라 생각된다.

5량가, 7칸 건물로 규모가 큰 세심루는 향교 문루로서는 사례가 드물 정도로 크고 익공을 내고 소로를 수장하여 장식하였으나 단출한 동자주 중대공과 판대공 그리고 자연스러운 굴곡을 살린 대들보 등으로 꾸며 전반적으로 소박하고 변잡스럽지 않게 구조한 건물이다. 명륜당 보다 늦게 지어지기도 했지만 격을 한 단계 낮추어 지으려 했던 노력이 엿보인다. 명륜당과의 비교를 통해 건축 결구 방식에서 오는 위계성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세 건물 모두 기단부를 비롯하여 일부가 보수되었지만 전반적인 상부가구와 부재 등

은 원래의 것으로 보이며 크게 훼손되지 않고 보존되어 있다. 다만 목재에 전반적인 노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각 건물의 건축 연대 및 건립 과정이 비교적 명확하고 조선 중기의 향교건축의 수법과 구조 및 양식, 배치규범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임란이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새로운 건축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비교적 원래의 상태를 잘 보존하고 있으며 훼손이 적어 조선시대 초 중기에 지어진 향교의 건축적 특성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우수한 사료로 평가된다.

다만 용궁향교의 대성전, 명륜당, 세심루 각 1동 전체 3동에 대한 명칭을 포괄적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각각의 대상을 열거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조사자는 각 건물이 지니는 문화재적 가치를 고려하여 대성전만을 국가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제안한다.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0.08.11.	대상문화재	예천 용궁향교 대성전, 명륜당, 세심루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 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예천 용궁향교 대성전, 명륜당, 세심루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세부내용 별첨 참조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세부내용 별첨 참조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9월 29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1.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 환경

용궁향교는 옛 용궁현 지역에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세워진 교육기관이다. 예천군청에서 15.8km 거리로 예천군의 서남쪽 배산임수 지형에 위치하고 있다. 예천군청에서 예천농공단지 방향으로 경서로 문경 충주방면으로 좌측도로 7km 이동하여 용개로 개포방면으로 우측도로 177m 이동, 용개로 우측도로 1km 이동, 용개로 용궁 방면으로 좌회전 후 5.2km 이동 후 우회전 후 113m 이동하여 좌회전 13m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예천군은 경상북도 북서부에 위치하여 동쪽으로 안동시, 서쪽으로 문경시, 남쪽으로 상주시·의성군, 북쪽으로 영주시와 충청북도 단양군에 접하고 있다. 지형은 소백산맥이 충청북도와 경계를 이루며 군의 북부는 높이 1,000m 이상의 산지가 연속되어 있다. 동쪽과 서쪽의 근계에도 높은 산이 많으며, 남쪽으로 가면서 높이가 점차 낮아져 구릉지로 변한다. 화강암 산지가 많아, 예천군에서도 북부의 높고 험준한 산맥의 능선부는 편마암류로 이뤄져 있으나 중·남부의 화강암지대는 내성천(乃城川)·한천(漢川) 등 하천의 침식작용으로 분지와 저지가 발달하였다. 용궁면은 예천군의 서쪽에 있는 면으로 북쪽에 왕의산(342m)이 있고 대체로 구릉성 산지를 이루고 있다. 내성천이 면의 남부를 곡류하며, 금천이 서남쪽 경계를 흘러 내성천에 합류한다. 조선시대에는 용궁현에 해당하는 지역이었다. 1914년 구읍면(15개 동리)에 서면(1개 동리), 북상면(4개 동리), 문경군 산동면(5개 동리), 화장면(1개 동리)이 합쳐져 용궁면(龍宮面)이 되었다. 조선시대 현의 명칭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sup>167)</sup> 용궁은 본래 신라시대에 축산현(竺山縣) 또는 원산현(園山縣)으로 불리었던 곳으로 고려 995년(성종 14)에 용주로 승격되었고 자사를 두었다가 1012년(현종 3)에 용궁군으로 재편되어 상주목의 속현이 되었다. 1172년(명종 2)에는 감무(監務)를 두었고, 조선 1413년(태종 13)에 감무를 현감으로 하였다. 그 뒤 1895년(고종 32)에는 안동부 소관의 용궁군이 되었다가 다음해 경상북도 소속 군이 되었으며, 1914년 행정구역개편 때 예천군에 통합되어 용궁면이 되었다. 용궁이라는 지명은 수중의 용궁과 같이 지상에도 용궁을 만들어 보자는 의미가 있다고 전한다.<sup>168)</sup> 이후 1895년(고종 32)에는 안동부 소관의 용궁군이 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예천군에 편입되었다. 현재도 일부 지역이 예천군 용궁면으로 남아있다.<sup>169)</sup>

예천·용궁지역은 일찍부터 토성의 상경종사가 활발하여 타읍 출신 사족들의 내왕이 많았는데, 특히 퇴계의 학문적 근거지였던 예안과 지리적으로 가깝다보니 퇴계의 학문적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곳이기도 했다. 이 지역은 특히 퇴계의 학문적 근거지였던 예안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퇴계의 학문적 영향력이 크게 미친 곳이다.

167)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168) 국립문화재연구소, 경상북도의 향교건축 - 북동부편, 2003, p.335

169) 「신증동국여지승람 제25권」,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등 다수 참고

영남지역 퇴계 문인의 분포는 경상좌우도 중 좌도 지역이 전체의 약 94%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았으며, 예안과 안동을 벗어난 지역 중에서는 수적으로 예천 지역이 많았다. 용궁현은 비교적 작은 규모의 고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원·진사 38명, 문과 51명이 급제하였고 음사 59명, 문사 41명을 배출하였다. 기호사림에 비해 출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영남권 현들 중에서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용궁향교의 소장된 자료는 문헌류<sup>170)</sup>, 기문류<sup>171)</sup> 등이 있다. 용궁향교에서 소장하고 있는 교임록 3책·입의·청금록 등을 통해 향교의 운영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 교임록은 1799년(정조 23)부터 1814년(순조 14년)까지의 424명의 교임자 명단으로 도유사로 역임했던 인물은 총 111명이다. 19세 초반 용궁향교 도유사를 역임하며 영향력을 행사했던 가문들로 볼 수 있다. 청금록(1683년-1698년)은 유생 193명(액내교생 182명, 액외교생 11명), 용궁관유생성책(1683-1698) 유생 108명, 청금록(1701~1702)에는 유생 118명(액내교생 99명, 액외교생 19명)이 있다. 1876년 「향교절목책(鄉校節目冊)」에는 용궁향교 운영에 있어 지켜야 할 완의(完議)와 절목(節目), 제물등록(祭物騰錄) 등을 수록해 놓은 자료이다. 장의를 역임한 교말(校末) 안정중(安挺中)이 작성한 「용궁향교 향교절목책」(1876)은 경제적 기반인 전답 등의 관리, 향사와 공궤 비용 관리, 강학전 관리, 임원에 대한 관리, 손님 접대, 경로소 운영, 교록(校錄) 작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세종실록」에 용궁향교를 소로(小路)등급으로 분류하고 공수위전 10결을 지급하라는 기록이 있다. 1610년과 1618년에 작성된 「용궁향교 교중입의」는 재정 확보방안(전곡이자, 회계 등)과 더불어 서책의 관리, 향사의 운영 등에 대한 규칙들을 정하고 있고, 1902년에 작성된 「鄉校田畓查定案」에는 향교 소유 전(田) 167두락, 밭(畓) 185두락으로 총 352두락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경작자는 대체로 노비가 주류였으며 성씨가 기재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양인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17세기 이후에는 학문적 연원에 따라 크고 작은 시비와 갈등이 있었다. 용궁향교의 유생 정두섭 외 32명은 경주의 손씨 문중이 「경절공실기(景節公實紀)」를 두찬(杜撰)한 것에 대하여 비판하면서 경정공실기 판본을 없애도록 조치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용궁향교는 옛 용궁현 지역에서 뛰어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문을 강론하고 연구하

170) 駿奔錄(준분록, 辛酉二月 및 庚申二月)4), 鄉校田畓查正案(향교전답사정안, 壬寅九月), 慕聖契(모성계, 丙午), 靑衿錄(청금록, 壬午八月 및 丙子二月), 鄉案錄(향안록, 乙未七月), 任負錄(임부록, 甲午十一月), 時到錄(시도록, 甲戌), 任員錄(임원록, 癸丑五月 및 壬申二月, 乙酉八月 등 3권), 校任錄(교임록)5), 鄉校節目冊(향교절목책), 龍宮官儒生成冊(용궁관유생성책), 교중입의(校中立議), 龍宮鄉校備品坵帳(용궁향교비품대장, 丙寅八月) 외 3책

171) 庠舍養士記(상사양사기, 上之十年甲申, 1464년), 門樓記(문루기, 己巳年, 1689년), 明倫堂記(명륜당기, 癸卯(1663년)), 典祀廳重修記(전사청중수기, 庚申(1860년)), 明倫堂重修記(명륜당중수기, 癸亥(1863년)), 鄉校重修記(향교중수기, 甲子(1864년)), 西齋重修記(서재중수기, 癸卯(1873년)), 鄉校節目(향교절목, 同治十二年癸酉, 1873년), 講學所創建記(강학소창건기, 丁亥(1887년)), 樞所重修記(유소중수기, 戊子(1888년)), 鄉校樞所重修記(향교유소중수기, 戊子(1888) 및 壬辰(1892년)), 鄉候功績記(정후공속기, 癸巳(1893년)), 聖殿重修記(성전중수기, 癸巳(1893년)), 校宮重修記(교궁중수기, 丁酉(1897년) 및 癸卯(1903년, 2개)), 鄉校重創實記(향교중창실기, 丁巳(1917년)), 鄉校重修記(향교중수기, 癸酉(1933년)), 大成殿重修記(대성전중수기, 戊寅(1938년)), 明倫堂修繕記(명륜당수선기, 壬午(1942년)), 鄉校重修記(향교중수기, 庚子(1960년)), 龍宮鄉校重修記(용궁향교중수기, 丁未(1967년)) 등

기 위해 세워진 교육기관이다. 조선 1398년(태조 7) 현 위치에서 동쪽으로 100m 떨어진 곳에 처음 세워졌으나, 1400년(정종 2)에 화재로 소실된 이후 1512년(중종 7)에 현 위치에 중창된 것으로 전하고 있다. 초창과 이축에 관한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지만 용궁현으로서 일읍일교(一邑一校)에 따라 초창되었을 것이다. 1597년(선조 30) 임진왜란으로 불타 없어졌던 것을 1602년(선조 35)에 대성전(大成殿)과 1662년(현종 3) 명륜당(明倫堂)을 건립하고, 1663년(현종 4) 木齋 洪汝河가 명륜당기를 작성한다. 1686년(숙종 12) 세심루 건립이 발의되고, 1687년(숙종 13) 세심루가 건립된 후 1689년(숙종 15) 漁洲 全五倫에 의해 문루기가 작성되고, 1704년(숙종 30) 문루기가 판각(崇禎紀元後甲申)된다. 1863년(철종 14) 명륜당을 중수하고, 1873년(고종 10) 서재 및 대성전을 중수한다. 1893년(고종 30) 대성전 중수, 1938년 대성전 중수, 1942년 명륜당 중수 등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78년 대성전, 명륜당 보수, 1981년 동재 및 명륜당 보수, 1986년 명륜당 연목 이상 해체 번와 보수, 1989년 외삼문, 담 보수, 1990년 대성전 연목 이상 해체 번와 보수, 1991년 신문, 대성전 주변 담 보수, 세심루와 명륜당 및 재실 기단, 석축 보수, 1998년 세심루 산자 이상 해체 보수, 2002년 서재 건립, 2015년 대성전 기단 보수, 명륜당 및 세심루 판문 보수 등으로 지속적인 원형 보존이 있었다.

용궁향교는 전형적인 배산임수 지형에 위치하고 있다. 축산(竺山)으로 불리던 구릉지(150m)를 주산으로 하고 있으며 축산은 과거 용궁현의 주산이기도 했으며 향교는 축산의 서측 자락에 자리하고 있다. 비룡산(240m), 달봉산, 천마산 등의 구릉들이 이어지고 있으며 향교 전면 700m 거리에 내성천이 흐르고 있는데, 회룡포(명승 제16호)를 돌아 굽이쳐 흐르는 내성천이 향교의 남서측 2.4km 거리에서 남천과 합류하여 1km 정도 흐르다 낙동강에 합류한다. 전면의 달봉산 자락을 바라보고 있어 이를 안산으로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용궁향교가 자리하고 있는 곳은 풍수적으로 ‘옥녀탄금(玉女彈琴)’의 명당지라고 전하고 있다.<sup>172)</sup> 내성천 일대는 비룡산 등의 구릉성 산지들이 이어지고 어우러져 아름다운 비경을 이루고 있다.<sup>173)</sup> 용궁향교는 축산이 남서로 흐르는 자락에 입지하여 굽이쳐 흐르는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3단의 지형으로 구분되어 대성전, 명륜당, 세심루, 외삼문을 중심 깊고 위계적으로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를 하고 있다. 향교는 전체적으로 서남향을 바라보고 있다. 외삼문을 들어서면 마당을 두고 석축 위에 2층 누각인 세심루가 자리하고 있다. 세심루를 지나면 다시 석축이 명륜당의 마당을 형성하고 계단을 올라 마당에 이른다. 마당을 중심으로 후면에 명륜당이 있고 동재와 서재<sup>174)</sup>가 좌우로 배치된 전재후당의 배치로 된 강학영역을 이루고 있다. 지형적인 특성으로 이단의 기단을 조성하고 명륜당이 높게 자리하고 있다. 명륜당 뒤로 높은 석축을

172) 예천군, 「예천군지」, 2005, 참조

173) 하천의 발달과정(하성단구, 하성도, 범람원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174) 서재는 2002년에 새로 건립한 것으로 기존의 동재보다는 다소 작은 규모로 지어졌다.

조성하여 대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제향영역을 구성하고 있다. 명륜당을 오른쪽으로 계단을 올라 사주문을 들어서면 묘정을 두고 한 단의 석축과 기단 위에 대성전이 자리하고 있다. 대성전 좌우로 동서무는 없는데 소설위(小說位)이므로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외삼문 밖 전면에는 주차장을 넓게 조성하고 동쪽에 口자형의 주사(廚舍)와 서쪽에 유림회관이 위치하고 있다. 2층 7칸의 세심루는 자연 경관을 품은 향교건축의 조영의식을 이해할 수 있다. 대성전은 공문 5성위를 비롯하여 송조 4현 및 국내 18현 등 27위의 성현 위패를 봉안하고 매년 봄, 가을 석전제를 지내고 있다. 현재 용궁향교는 2003년 건립한 서재를 제외하고 5동(대성전·명륜당·세심루·동재·외삼문)이 1985년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10호로 지정되어 있다.

용궁면에는 대은리의 예천회룡포(醴泉回龍浦, 명승 제16호), 금남리의 예천금남리의황목근(醴泉琴南里의黃木根, 천연기념물 제400호), 무이리의 무이서당(武夷書堂,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30호), 예천향석리석조여래좌상(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147호), 덕계리에 예천덕계리관물당(醴泉德溪里觀物堂,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465호), 예천무이리청원정(문화재자료 제533호), 향석리토성(鄉石里土城) 등이 있다.

## 2. 연혁·유래 및 특징

『예천군지』(2005)와 『경상북도 문화재 대관』(2003)에는 현 대성전과 명륜당이 1603년(선조 36)에 같이 지어졌다 기록되어 있다.<sup>175)</sup> 명륜당기(明倫堂記)<sup>176)</sup>에는 1602년 대성전만 완공되고 명륜당은 짓지 못하였고, 그 후 기사년(己巳年) 문루기의 임인(壬寅)년 1662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명륜당 건립 후 목재 홍여하(木齋 洪汝河, 1620~1674)가 명륜당기를 쓴 계묘년(癸卯年)은 1663년(현종 4)이다. 세심루는 『예천군지』와 『경상북도 문화재대관』에는 1636년(인조 14)에 중건되었다고 한 반면 『경상북도의 향교건축』에는 1626년(인조 4)에 창건되었고 1636년(인조 14)에는 중건되었다<sup>177)</sup>고 하나 병인년 발의 후 명륜당이 지어진 이십오년 후인 1687년(숙종 13) 완공된

175) 『예천군지』 2005 와 『경상북도 문화재 대관』 3권, 2003.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경상북도의 향교건축 - 북동부편』에는 명륜당이 이보다 1년 전인 1602년(선조 35)으로 기록한 것은 교임 어주(漁洲) 전오륜(全五倫)이 기사년(己巳年)에 지은 문루기(門樓記)의 “歲壬寅. 余在校任. 發明倫堂瓶立之議,....중략...”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1602년이 아니라 1662년이다. 문루기는 판각되어 누에 걸려 있으며 또한 그의 6세손 秉一이 유고를 수습하여 목판본으로 간행한 어주선생문집(漁洲先生文集)에 세심루기라는 제목으로도 실려 있다.

176) “.....喪亂建文廟而俎豆之齋廚夾室具如儀式而明倫堂未遑作焉廟之南夾室之北空其地者六十年蓋有持也逮李侯某之至慨然興歎捐俸而相之然後乃克始役擇儒士安君喘微監董閱幾朔而堂成屬余為記余方隨忽氏於縣境願為之民義有不得而辭者...중략....州縣莫不有學有學莫不有斯堂而斯邑也無之...중략....癸卯夏岳林洪汝河記”

177) 국립 문화재연구소 편 『경상북도의 향교건축』은 어주 선생의 문루기를 근거로 문루를 짓자는 발의가 된 병인년을 1626년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이다. 문루기의 ‘명륜당은 건립되었지만 문루는 아직까지 완성을 보지 못하였다. 재력이 부족하여 일시에 모두 다 짓기는 어려웠다’는 내용과 끝 무렵에 쓰인 ‘누는 명륜당이 지어지고 난 이십오년 후에 지어졌다’는 구절을 고려해 보면 당시의 상황이 1662년 건립된 명륜당보다 문루가 앞서 건립되지 않을 것이다. “歲壬寅” 余在校

것으로 추정된다.<sup>178)</sup> 이후에도 1848년(헌종 14), 1863년(철종 14, 長周炳重修記), 1873년(고종 10, 高永鎭重修記), 1893년 등 수 차례에 걸쳐 명륜당, 대성전 등의 중수가 있었다. 여러 차례의 중수와 보수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상과 같이 주요 건물의 연혁은 1602년(선조 35)에 대성전(大成殿)과 1662년(현종 3) 명륜당(明倫堂)을 건립하고, 1687년(숙종 13) 세심루가 건립되고 있다.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익공계 홑처마 맞배지붕집이다. 경사 지형을 2단으로 조성하여 아랫단에는 묘정과 윗단에는 대성전을 배치하고 있다. 동쪽에 치우친 사주문 형식의 신문에 맞대어 주위를 토석담장으로 둘러 제향영역을 구성하고 있다.

간살은 정면은 정칸(3,700mm)과 퇴칸(3,100mm)으로 정칸을 약 600mm 정도 넓게 위계를 부여하고 있다. 측면은 주칸을 모두 2,150mm 정도로 잡고 있다. 정면과 측면비는 1.53 : 1 정도이다. 정면의 정칸의 간살을 크게 잡은 것은 중심성을 강조하는 위계적인 구성을 하고 있다.

기단은 전면부를 3벌대 정도의 자연석허튼층쌓기 위에 화강석 재질의 장대석을 갑석처럼 덮고 있다. 좌·우측과 배면은 지형에 따라서 전면과 같은 외벌대의 화강석 장대석 기단을 쌓고 있다.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기단을 새로 조성한 것인지 아니면 이전의 것과 같이 복원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창평향교 대성전에도 보이고 있어 추후에 검토해야 할 것이다. 기단 상면은 전돌로 마감하고 있어 원래부터 원형과 같이 복원한 것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기단 위에는 평편한 자연석 덩벙주초를 놓고 있는데, 일부 상면부만 노출되어 있지만 정면과 배면 초석 중에는 주좌를 쇠시리한 흔적이 보이고 있다. 일부 자연석 초석에 주좌를 새긴 것은 다른 건물에서 사용하던 것을 옮겨온 것인지 아니면 초창 장소에서 가져온 것인지 혹은 그 자리에 있던 사찰의 초석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초석에는 그레이질 한 위에 두리기둥을 세우고 있고, 일부 기둥에는 약간의 배흘림이 보인다. 외진주에 평주 8본과 좌우 측벽에 각각 2고주를 세우고 있다. 우측 벽 전후의 우주 2본과 고주 2본은 교체되었지만 나머지는 원래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둥과 기둥은 모두 상하부에 창방과 하인방, 우측면과 배면에만 중인방을 걸구되고 있다.<sup>179)</sup>

任。發明倫堂泐立之議。堂既成而門 樓未遑作焉。蓋以財力綿薄。有難一時並舉也。多士 之慨然興嗟者。久矣。歲丙寅。有儒會于校中。余偶然叅座。...중략....顧左右而言曰。吾鄉雖十室之邑。實多士之所 也。釋業若文會之日。每以齋室狹隘爲病。近年來。連 值凶歉。雖不可輕議鉅役。而得其人以任之。則功役 之成。特料理中一事耳。諸君其念之。左右皆曰。然。於是。擇士人李君之興。使先爲經理焉。財力既具。遂經 始之。閱幾月而告訖。仍屬余爲記。以前後創議皆由 不佞。不敢以文拙辭。竊唯有宮墻者。必有門。門者人 所出入必由者也。余乃名其門曰入德。門上有樓。高 大而有伉。洞豁而無礙。樓者以君子之入此門者。必有攸濟也。總而額其樓曰。洗心。蓋取易繫辭中語也。...중략....樓之作 在於堂之成。二十五年之後....중략.... 己巳陽月下竺山全五倫記.....중략 ....崇禎紀元後甲申三月日刻”

178) 문루기가 쓰인 기사(己巳)년은 누가 완성된 2년 뒤인 1689년에 해당하고 기 끝에 적힌 崇禎紀元後甲申三月은 1644년이 아니라 1704년으로 기를 판각한 해로 추정된다.

179) 중인방이 다른 부재와 비교해 작기도 하지만 오래되어 보이지 않고 주칠 등의 단청 흔적이 없음을 볼 때 후대 새로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와 같이 바뀌게 된 시기가 우측면 4본의 기둥이 한꺼번에 교체될 때로 추정하고 있다.

전후면의 평주머리를 결구한 창방은 폭이 눈에 띄게 두껍고 소매걸이로 궁굴려 깎고 있고, 측면 창방은 사갈된 우주 머리와 고주의 2/3 정도 높이에서 통맞춤되어 있다. 모서리 우주에 전면 빨목과 측면 빨목을 교차하고 외단을 살미나 운궁형으로 초각하고 있다. 기둥 상부의 익공은 정면과 배면이 다르고 평주와 우주의 것이 각각 달라 변화에 대한 흔적을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면 평주 포작은 기둥머리에 주두를 올린 다음 직접 보머리를 받게 하였으며 보머리와 교차해서 첩차가 짜여 주심도리 장혀를 받는 전형적인 초익공 형식이다. 익공 외단은 수서형 살미로 아래를 초각하고 내단은 초새김한 보아지 형태로 보를 받고 있다. 익공 살미가 짧지만 정교한 치목과 결구 등에서 고식이 보이고 있다. 대성전이 소실된 후 건립된 1602년 이전의 양식으로 추정된다. 보머리는 송어턱맞춤이고 끝은 직절하고 상단은 빗깍기 하고 있다. 주심 첩차는 양단을 사절하고 그 아래를 초새김한 첩차이며 상단 양쪽에 소로를 올려 장혀를 받고 있다. 배면의 평주 포작은 전면과 같은 초익공 형식이지만 익공 외단을 간략하게 초각한 운궁형식의 물익공으로 처리하고 있다. 귀포는 평주와 달리 이익공 형식으로 처리되어 아래쪽 초익공은 고주와 연결되는 측면 창방빨목이 초각되고, 주두 위 이익공은 고주에 걸리는 퇴보의 머리를 쇠서로 초각하고 있다. 익공에서 살미 형식이나 보머리를 밖으로 돌출시켜 쇠서와 운두각 등으로 장식하는 특성은 앞으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창방을 주두와 송어턱으로 맞춤한 것과 달리 퇴보는 첩차처럼 폭을 줄여 깎아 주두와 결구되고 밖으로 길게 훑가지로 장식하고 있다. 귀포의 이익공 쇠서 형태가 우측면 살미가 아래로 굽은 수서 형식이고, 좌측면은 위로 굽은 양서 형태이다. 중수하면서 세부나 형식에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귀포 측면에는 창방 빨목, 첩차 외단, 장혀와 도리 빨목이 겹쳐 있고 장혀와 첩차의 외단은 사절되고 창방 빨목은 초각하고 있다. 정·배면 창방 위의 화반은 정면 쪽에 판재 초각화반이고 배면은 단순한 방형 화반이다. 정면은 위계와 격식을 갖추어 의장을 하고 있다.

가운데 가구는 굴도리의 통칸 5량가로 후면 평주 위에 나무의 굴곡을 그대로 살려 원형에 가까운 단면의 대들보를 걸어 그 위에 양단을 초엽 및 당초문 등으로 정교하게 초각한 화반 대공을 놓고 종보를 받치고, 종보와 장혀 받친 종도리를 결구하고 파련대공 위에 종도리를 결구하고 있다. 화반 대공의 외단은 물익공과 같이 운각되었고 내단은 보아지처럼 깎아 종보 하단을 직접 받고 위에는 소로가 설치되고 있다. 좌우측면 가구는 2고주 5량가이고, 가운데 가구와 다른 것은 종량 위에 동자주를 세우고 종도리를 받고 있다. 고주에 우주에서 건너지른 퇴량이 결구되고 있다. 종대공은 가운데 이중량구조 상부에는 판재를 3~4점으로 층층이 쌓고 좌우단에 연봉과 연화를 장식하여 투조(透彫)한 파련대공이고, 좌우측면의 고주 위 종대공은 짧은 부재를 기둥처럼 세운 동자주이다. 파련대공과 화반대공의 초각 및 투각이 세밀하여 건립 당시 조선 중기의 수법이라고 추정된다. 동자주 대공은 동주자 뿌리에 가로로 받침목을 피고 상단에는 종도리에 직교한 초공이 올라가 공(工)자

형식으로 대공과 도리를 보강하고 있다. 이러한 형식은 은혜사 거조암 영산전이나 부석사 무량수전과 조사당 등에서 보이는 고식으로 인동향교 명륜당과 안동 예안향교 대성전 등에서 보이고 있다.

장연은 마구리를 약하게 사절하고 소매견이를 하고 있다. 장연 위에는 초택이 평고대를 올리고 연합을 설치한 다음 한식 중와를 올린 홀처마 지붕이다. 지붕 용마루와 내림마루는 아래서부터 착고와 부고를 놓고 그 위에 6단의 적새를 쌓고 그 위에 암마루장과 솟마루장을 덮은 형식이다. 지붕의 좌우에는 풍판을 달았다. 단청은 내부에 원형이 남아 있는 곳이 있다. 창호는 좌우측과 배면에는 창호가 없고, 전면에는 주칸마다 띠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정칸에는 중앙에 맞추어 쌍여닫이지만 좌우 퇴칸에는 정칸 기둥에 접하는 외여닫이로 되어있다. 원형을 알기 어려워 아쉬움이 남는다. 좌·우측 외벽에는 반화방벽을 쌓아 토석 담장 위에 와편 담장을 쌓고 한식기와를 올리고 있다. 내부는 통칸으로 우물마루를 깔고 있다. 배벽 중앙에 있는 공자의 위패를 중심으로 좌우에 안자, 증자, 자사, 맹자 등 공문 4성 위와 송조 4현, 국내 유학자 18현 등 모두 27위의 성현 위패가 배향되어 있다.

용궁향교 명륜당은 정면 5칸, 측면 2칸 규모의 이익공계 팔작지붕집이다. 평면은 가운데 3칸의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 양쪽에 온돌방이 배치된 중당협실형이고, 방 앞에 좁은 쪽마루가 설치되어 있다. 간살은 대청 3칸은 2,400mm이고, 온돌방은 2,460mm로 온돌방을 약 60mm 정도 크게 잡고 있다. 측면은 2,460mm 정도로 잡고 있다. 정면과 측면비는 2.46 : 1 정도이다.

기단은 가파른 지형 차로 인하여 이중기단으로 비교적 고른 방형의 자연석을 수평을 맞추어 가면서 가지런하게 쌓은 자연석쌓기이다. 3~4벌대 정도인 상단보다 상단을 4~5벌대 정도로 높게 쌓았다. 계단은 폭 1100mm 내외의 자연석 계단을 설치하고 있다. 부분적으로 허튼층쌓기가 보이는데 어느 것이 원형인지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단 위에는 자연석 덩벙주초를 놓고 있는데, 배면부는 일부 상면부만 노출되어 있고 작은 편이다. 초석은 그레이질 한 위에 배흘림이 있는 두리기둥을 세우고 있다. 외진주에 평주 14본과 온돌방 내진주 2본도 평주를 세우고 있다. 기둥뿌리는 과 기둥은 모두 상하부에 창방과 하인방, 우측면과 배면에만 중인방을 결구되고 있다. 기둥은 일정한 높이로 여모중방 및 하인방 등을 결구하고 머리에는 직사각형 단면의 창방을 결구하고 있다. 기둥 위에 주두가 작은 편이다. 기둥 위에 결구된 포작은 주심첨차가 있는 절충형 이익공 형식이다. 기둥머리에 창방과 직교하여 보 방향의 초익공을 끼우고 그 위에 주두를 놓고 주심첨차와 직교하여 이익공을 놓고 있다. 초익공과 이익공의 외단은 길게 뻗어 있고 끝은 훑가지를 내어 뽕족하게 다듬고 하부는 초각한 수서 형태이다. 내단은 초각한 형태로 보 하단을 보강하고 있다. 살미 형태가 대성전의 것보다는 치목에서 정교하지 않고 변경되었을 것으로도 추정된다. 보머리는 끝을 메뚜기머리처럼 궁굴려 운두각 하고 있는데 대청의 초



각에 위계를 부여하고 있다. 주두 위에 주심첨차는 양단 마구리를 사절하고 하단에는 초각을 하고 있다. 익공은 쇠서 외에는 보아지 역할의 이익공과 주심첨차 등 주요부재로만 간결하게 구성되고 있다. 우주의 익공은 창방의 뿔목과 주심첨차 외단을 초각하고, 익공 사이에 양갈 소로를 끼워 받치고 있다. 이익공 위에 장혀 뿔목은 운두각하고 주심도리 뿔목은 직절하고 있다. 기둥에 짜인 창방 상부에는 화반을 설치하여 주심도리 장혀를 받고 있다. 화반은 온돌방 전후에만 양단을 초각하고 나머지는 단순한 원형이다.

가운데 가구는 굴도리의 통칸 5량가로 후면 평주 위에 폭보다 춤이 큰 단면의 대들보를 걸어 그 위에 보아지와 첨차 등이 끼워진 동자주를 놓고 종보와 장혀 받친 중도리와 송어 턱맞춤으로 결구되고 파련대공 위에 중도리를 결구하고 있다. 대공의 보아지의 형태는 외단은 직절하고 내단은 초각하고 있다. 온돌방이 있는 좌우측면 가구는 맞보 5량가로 가운데 가구와 같은 형식이다.

처마의 추녀 위에 사례가 설치되고 있다. 정면 좌우측 추녀에 삼단으로 단을 내고 나선형으로 깎은 추녀각이 남아 있다.

장연은 마구리를 직절하고 소매건이를 하지 않고 있고, 단연은 엇걸이하고 있다. 전면과 좌우 측면은 겹처마이고 배면은 홑처마이다. 장연 위에는 초맥이 평고대를 올리고 부연을 설치하고 개판과 착고를 설치하고 있다. 지붕 용마루는 내림마루는 아래서부터 착고와 부고를 놓고 그 위에 7-9단의 적새를 쌓고 그 위에 솟마루장을 덮은 형식이고, 내림마루와 귀마루도 같으나 내림마루는 적새를 4-5단 쌓고 귀마루는 부고를 두지 않고 적새를 쌓고 있다. 각 끝에는 모두 망와와 망새 등을 세워 장식하고 그 아래 방초와를 두고 있고, 처마 끝부분은 와구토 마감이다.

대청 3칸의 우물마루에서 대청의 뒤쪽 3/4 부분은 일반적인 우물마루 형식인 데 반해 앞쪽의 1/4은 동귀틀과 여모귀틀 사이에 직각으로 다시 귀틀을 걸치고 청판을 짧게 끼운 형식이다. 일부 청판이 길게 연장되어 양쪽 온돌방 전면 쪽마루를 같이 결구하고 있다. 지대가 높아 비가 들어쳐 나중에 교체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원형인지는 알기 어렵다. 전면 기둥에는 여러 곳에 부재 및 난간 돌란대 등이 결구되었던 흔적이 있어 대청 전면 바깥으로 헌함이나 난간 등이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청 전면은 모두 개방되어 있으나 배벽은 판벽 구성에 판문이 설치되어 있다. 좌측 두 칸은 낮은 쌍여단이 띠장널 영쌍창이지만 우협간에는 큰 두 짝의 널문을 설치하여 밖으로 나갈 수 있다. 이러한 형식은 대성전과 연결을 고려한 처리라고 추정되는데 다른 곳에서 보기 힘든 형식이다. 배면의 영쌍창은 창건 당시의 형식을 유지하는 고식을 드러내고 있다. 쪽마루로 연결되는 양쪽 온돌방 앞쪽에는 같은 형식의 쌍여단이 띠살문이 설치되어 쪽마루로 나아가 전망을 바라보기 위한 구조이다. 우측 온돌방 바깥쪽 전후 주간에는 높은 중인방과 창방 사이에 환기 및 채광만 가능한 쌍여단이 띠살창이 설치되어 있다. 좌측 방 외측에는 마루를 통하지 않고 직접 드나들 수 있는 두 짝의 띠살문이 달려 있다. 온돌방과 마루 사이의 우측 온돌방 창호는 외여단이

정자살문이고, 좌측 방은 들어열개 3분합 여단이 떠살문이다. 양쪽 방 모두 천장은 평반자이며 내부는 벽지 도배 마감이다. 온돌방 앞쪽 전면 쪽마루 하부에 함실 아궁이가 있고 굴뚝은 흔적이 없다. 명륜당은 백골집이지만 익공과 대공 보아지 그리고 초공 등에 밑그림이 남아 있어 단청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용궁향교 세심루는 정면 7칸, 측면 2칸 규모의 초익공계 맞배지붕집이다. 휴식과 담소 등을 위한 장소로 하부에는 출입문이 설치된 중층 문루 형식이다. 간살은 정칸이 2,800mm이고, 협칸과 차협칸은 2,450mm이며 퇴칸은 2,150mm으로 정칸강조형이고, 측면 간살은 전면 1,980mm, 후면이 2,060mm이나 동일형으로 추정된다. 정칸강조형은 출입과 위계 그리고 시각적인 안정감을 주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정면과 측면비는 4.18 : 1 정도로서 안동 병산서원 만대루와 같은 칸수이고 향교 문루로서는 큰 규모이다.

경사진 지형을 앞과 뒤의 석축을 쌓고 그 사이에 문루를 조성하고 있다. 석축 위에 뒤로 물러 기단을 쌓았는데 자연석쌓기로 3벌대 정도이다. 상부의 기단은 크기가 일정한 자연석을 쌓고 틈새에 작은 돌을 메꾸어 쌓은 방식이고 하부 석축은 다양한 모양의 자연석의 마구리를 빈틈없이 쌓고 있다.

기단 위에는 자연석 덩벙주초를 놓고 있는데, 정면과 좌우측면의 외진주 초석은 크면서 높고 안기둥과 배면 초석은 작고 납작하다. 초석 위에 민흘림이 있는 두리기둥은 누하주 24본과 누상주 18본을 세우고 있다. 누하주(360mm 정도)보다 누상주(270mm 정도)가 작다. 누하주는 하인방 없이 세우고, 기둥머리에 멩에창방을 연결하고 우물마루를 올리고 있다. 우물마루의 장귀틀과 동귀틀 누하주와 결구하고 그 위에 누상주를 세우고 있다. 정면과 배면 그리고 측면 기둥까지 창방을 돌리고 있는데, 측면 창방은 높이의 반 정도만 기둥머리에 끼우고 나머지 반은 옆갈을 낸 주두에 끼워 맞추어 운두의 반 정도에 걸리도록 하여 귀포와 높이를 맞추고 있다.

평주 상부 포작은 초익공 형식의 전후동일형으로 창방과 교차되게 초익공을 끼우고 그 위에 주두를 올리고 주심도리 장혀와 보를 승어턱 맞춤으로 결구하고 있다. 우주 위에는 전면과 측면의 창방 뺄목을 살미로 초각하고 좌우단의 뺄목은 끝을 사절하고 하부는 원호로 치목하여 교두형 첨차처럼 치목하고 있다. 익공 외단은 수서형 살미로 뽕족한 초각이 짧으나 명륜당과 유사하다. 살미 아래는 운형으로 초각하고 안쪽 내단은 끝을 사절하고 하부를 역시 초새김한 형태로 보아지와 같이 보인다. 짧지만 첨예한 익공 살미가 정교하지는 않지만 창건 당시의 형식으로 추정된다. 기둥 사이의 창방 위에 양갈 소로는 간살이 작은 양쪽 퇴칸에 2구와 나머지 칸에 3구씩을 배치하고 있다.

가운데 가구는 굴도리의 통칸 5량가로 후면 평주 위에 자연 그대로의 휘어진 굴곡을 잘 살린 단면의 대들보를 걸어 그 위에 양단이 직절하고 하부가 원형인 보아지를 보강한 주두 올린 동자주를 놓고 종보와 장혀 받친 중도리와 승어턱맞춤으로 결구되고 2-3단의 판

재를 쌓은 사다리꼴 제형 판대공 위에 장혀 받친 종도리를 결구하고 있다. 좌우측면 가구는 맞보 5량가로 가운데 가구와 같은 형식이다. 맞보가 만나는 평주 머리에 바깥쪽은 둥그렇게 깎고 안쪽에 운궁형의 초공이 설치되어 기둥머리에서 보 하단부까지 올라가고 있다. 보머리는 승어턱맞춤한 것도 있고 끝을 직절하여 서까래 사이의 앙토와 닿게 되어 있다.

장연은 마구리를 직절하고 소매견이를 하지 않고 있고, 단연은 엇걸이하고 있다. 처마는 흘처마이며 서까래 끝단에 평고대를 올리고 연함을 설치하고 중와를 올리고 있다. 지붕용마루는 내림마루는 아래서부터 착고와 부고를 놓고 그 위에 5단의 적새를 쌓고 그 위에 암마루장과 솟마루장을 덮은 형식이고, 내림마루는 착고 없이 부고 위에 적새를 3단 쌓고 있다. 처마 끝부분은 와구토 마감이고, 앙토와 당골은 재사벽 바름이다.

우물마루이고 여모중방과 피중방 바깥으로 귀틀 뺨목만 길게 빼 둔 채로 마감하고 있다. 기둥 사이에는 평난간을 설치하고 있다. 누하는 모두 개방되어 있고, 누상은 전면은 모두 판벽과 쌍여닫이 판문이고 후면은 개방되어 있다. 전면 정칸 누하주 하단에 문지방을 걸은 통장부 맞춤 자국이 있고 상부 명에에 문선 결구홈과 함께 둔테목이 남아 있다. 그리고 좌우 협칸과 퇴칸의 명에 하단부에도 축구멍이 남아 있다. 이는 누하가 폐쇄되고 정칸에 대문이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누상주 좌측면에 통장부 맞춤과 쌍장부 맞춤 자국 등은 문인방과 문지방의 흔적으로 추정된다. 원형인지 추후에 달은 것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양측면에도 작은 크기의 판벽과 판문이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3.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예천 용궁향교에 대한 역사적인 가치는 다음과 같다. 명륜당기와 문루기를 통하여 연혁을 살펴볼 수 있다. 용궁향교는 조선 1398년(태조 7) 현 위치에서 동쪽으로 100m 떨어진 곳에 처음 세워졌으나, 1400년(정종 2)에 화재로 소실된 이후 1512년(중종 7)에 현 위치에 중창된 것으로 전하고 있다. 1597년(선조 30) 임진왜란으로 불타 없어졌던 것을 1602년(선조 35)에 대성전(大成殿)과 1662년(현종 3) 명륜당(明倫堂)을 건립하고, 1663년(현종 4) 木齋 洪汝河가 명륜당기를 작성한다. 1686년(숙종 12) 세심루 건립이 발의되고, 1687년(숙종 13) 세심루가 건립된 후 1689년(숙종 15) 漁洲 全五倫에 의해 문루기가 작성되고, 1704년(숙종 30) 문루기가 판각(崇禎紀元後甲申)된다. 1863년 명륜당, 1873년 서재 및 대성전, 1893년 대성전, 1938년 대성전, 1942년 명륜당 등의 중수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78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원형 보존을 위한 보수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용궁면에는 예천회룡포를 비롯하여 인근 삼강주막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여정에 위치하여 파급효과

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원 내에도 1602년 대성전이 건립된 이후에 1662년에 건립된 명륜당, 1686년에 건립된 세심루 등이 있어 자원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예천 용궁향교에 대한 학술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 용궁향교는 과거 용궁현의 주산이기도 했던 축산(竺山)의 서측 자락에 자리하고 회룡포를 돌아 굽이쳐 흐르는 내성천이 남천과 합류하여 낙동강에 합류하는 전형적인 배산임수 지형에 위치하고 있다. 풍수적으로 ‘옥녀탄금(玉女彈琴)’의 명당지로 구룡성 산지들이 이어지고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을 바라볼 수 있다.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3단의 지형으로 구분되어 대성전, 명륜당, 세심루, 외삼문을 중심깊고 위계적으로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를 하고 있다. 명륜당과 동서재가 전재후당의 배치로 된 강학영역을 이루고 소설위의 대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제향영역을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진입공간에는 2층 누각인 세심루가 자리하고 있다. 명륜당 대청 배면을 통해 대성전과 연계되는 문의 형식은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특성이다. 17C에 건립된 대성전, 명륜당, 세심루의 양식과 치목수법 등의 차이와 변화를 건축 기술 및 결구수법 등에서 엿볼 수 있고 열악한 재정적 상황 아래서 향교 일곽을 차례대로 구성해 나가는 순차적인 건축 대안 등을 살펴볼 수 있어서 역사성과 함께 학술적인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옥녀탄금의 풍수적인 길지인 만큼 경사지를 활용하여 지형에 순응하면서 전학후묘와 전재후형의 배치가 잘 어우러진 경관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지형을 이용한 중당협실형 명륜당과 큰 규모의 세심루 등에서 주변의 자연경관을 담을 수 있는 경관은 인상적이라고 판단된다.

예천 용궁향교의 구조와 조형적인 특징에서 학술적인 가치는 다음과 같다. 1) 대성전은 정칸을 넓게 하여 중심성을 강조하는 위계적인 구성을 하고 있다. 익공에서 살미 형식이 나 보머리를 밖으로 돌출시켜 쇠서와 운두각 등을 장식하는 특성은 학술적인 측면에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공포는 초익공 형식으로 수서형 살미가 짧지만 정교한 치목과 결구 등에서 고식이 보이고 있다. 정면의 초각화반이나 대들보 위에 양단을 초엽 및 당초문 등으로 정교하게 초각한 화반대공은 위계와 격식을 갖춘 의장이 돋보이고 있다. 이중량구조 상부의 파련대공은 판재를 쌓고 좌우단에 연봉과 연화를 장식하고 투조(透彫)하여 건립 당시 조선 중기의 수법으로 추정된다. 동자주 대공은 동자주 뿌리에 가로 받침목과 상단 종도리에 직교한 초공이 공(工)자 형식으로 대공과 도리를 보강하고 있어 은혜사 거조암 영산전이나 부석사 무량수전과 조사당 등에서 보이는 고식으로 학술적인 가치가 크다고 판단된다. 2) 명륜당은 정면 5칸, 측면 2칸 규모의 이익공계 팔작지붕집으로 중당협실형이다. 공포는 주심첨차가 있는 절충형 이익공 형식이다. 살미 형태가 대성전의 것보다는 치목에서 정교하지 않고 변경되었을 것으로도 추정된다. 평면구성에서 특성을 보이는데 대

청 우면 좌측 두 칸은 낮은 쌍여단이 띠장널 영쌍창이고 우협칸에는 큰 두 짝의 널문을 설치하고 있다. 영쌍창은 창건 당시의 형식을 유지하는 고식으로 보이며 널문은 대청에서 대성전과 연결을 고려하고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3) 세심루는 정면 7칸, 측면 2칸 규모의 초익공계 맞배지붕집으로 중층 문루형식이다. 정면과 측면비는 4.18 : 1 정도로서 안동 병산서원 만대루와 같은 칸수이고 향교 문루로서는 큰 규모이다. 간살은 정칸에서 퇴칸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정칸강조형으로 출입과 위계 그리고 시각적인 안정감을 주고 있다. 우주 위에 전면과 측면의 창방 뿔목을 살미로 초각하고 좌우단의 뿔목은 끝을 사절하고 하부는 원호로 치목하여 교두형 첨차처럼 치목하고 있다. 익공은 수서형 살미로 뽕족한 초각이 짧으나 명륜당과 유사하여 창건 당시의 형식으로 추정된다.

대성전과 명륜당 그리고 세심루가 모두 17C의 변화과정과 관계를 볼 수 있다고 보여진다. 명륜당은 영상창이나 정교하진 않지만 변화된 살미, 그리고 평면구성에 후면에 문 등이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세심루는 사례가 드물 정도의 큰 규모와 명륜당과 유사하지만 위계를 고려한 살미 등이 특성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성전이 가장 먼저 건립된 것이 확인되고 가구와 부재에서 화반과 화반대공 그리고 파련대공의 의장, 익공의 간결한 포작 결구와 촛가지 그리고 대성전 측벽 고주 상부 동자주 대공 등 조선 중기의 치목수법과 이전의 고식 수법이 드러나고 있다고 판단된다. 용궁향교는 건립 연대가 명확하고 당시 건립상황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통해 조선시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건축을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차례로 지어진 대성전과 명륜당, 세심루를 비교하여 건축 구조와 결구수법 등의 시기적 변천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비교적 원래의 상태를 잘 보존하고 있으며 훼손이 적어 조선시대 중기에 지어진 향교의 건축적 특성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우수한 사료로 평가된다.

따라서 각 건물의 건축 연대 및 건립 과정을 통해 모두 건립 당시의 건축 수법과 구조 및 양식을 잘 간직하고 있다고 보이나 그 중에서 대성전에서 조선 중기의 가구와 치목수법이 드러나고 있어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예천 용궁향교 대성전은 역사적, 학술적, 조형예술적인 측면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 지정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문화재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기를 바란다.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0.08.11	대상문화재	예천 용궁향교 대성전, 명륜당, 세심루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건축역사
	소속	○○대학교	직위(직책)	부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예천 용궁향교 대성전, 명륜당, 세심루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10월 2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1. 입지 현황

용궁향교(龍宮鄉校)가 소재한 경북 예천군 용궁면 일대는 삼국시대에는 신라 영토에 속해 축산현(竺山縣) 혹은 원산현(園山縣)으로 불렸다. 고려시대에 들어와 995년(성종 14)에 용주(龍州)로 승격되었다가 1012년(현종 3) 용궁군(龍宮郡)으로 강등되어 상주목(尙州牧)의 속군이 되었고, 1172년(명종 2)부터 감무(監務)가 파견되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1413년(태종 13) 용궁현(龍宮縣)으로 바뀌고 현감(縣監)을 두었다.

용궁향교는 조선 초 1398년(태조 7)에 현재의 위치에서 동쪽으로 100m 떨어진 곳에 창건되었으나, 1400년(정종 2)에 화재로 소실되었고, 이후 1512년(중종 7)에 지금의 자리로 옮겨 중창했다고 전한다.

현재의 용궁향교는 용궁현의 주산이었던 축산(竺山)을 주산(主山)으로 하여 그 서측 자락에 기대어, 전방으로 내성천(乃城川)이 수태극(水太極) 산태극(山太極)을 이루며 굽이도는 회룡포(回龍浦, 명승 제16호)와 그 서쪽의 비룡산(飛龍山)을 안산(案山)으로 두는 배산임수의 명당에 자리하고 있다. 동쪽에서 서류하는 내성천은 회룡포에서 비룡산을 돌아 남쪽으로 흘러 삼강(三江)에서 안동을 거쳐 흘러온 낙동강과 합류해 남쪽으로 흘러 내린다.

## 2. 연혁과 역사문화환경

1512년(중종 7) 현재 자리에 중창된 용궁향교는 1592년(선조 25)에 발발한 임진왜란의 병화로 소실되고 말았다. 이후의 재건 과정은 용궁향교의 교임(校任)을 지냈던 어주(漁洲) 전오륜(全五倫, 조선 후기 17세기 후반)이 1689년(숙종 15)년에 짓고 1704년에 새겨 현재 세심루(洗心樓)에 걸려있는 「문루기(門樓記)」, 1663년(현종 4) 목재(木齋) 홍여하(洪汝河, 1620-1674)가 짓고 지금 명륜당에 걸려있는 「명륜당기(明倫堂記)」를 통해 대요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왜란이 종식되고 나자 사당인 대성전(大成殿)이 가장 먼저 1602년(선조 35)에 재건되었다. 이후 60년 동안 대성전만 있는 상태로 있다가, 1662년(현종 3)에 당시의 현감이 자신의 녹봉까지 보태어 강당인 명륜당(明倫堂)을 건립했고, 전면의 누각인 세심루(洗心樓)는 다시 25년이 지난 1687년(숙종 13)년에 완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란 이후 1602년에 대성전이 처음으로 재건된 이래 90년 가까이 지난 1687년에 가서야 누각인 세심루까지 갖추어지면서 비로소 향교의 전모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전란 이후의 열악했던 사회, 경제적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재건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문루기」라는 명칭과, 이 기문의 내용 중에 ‘門上有樓’라는 문구를 통해 추정할 수 있듯이, 당시 용궁향교는 지금과 달리 외삼문을 따로 두지 않고, 세심루가 문의 기능을

겸하는 문루의 형태로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의 주요 연혁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863년(철종 14)에 명륜당 중수가 있었고, 1873년(고종 10)에는 서재(西齋)와 대성전의 수리가 이루어졌다. 1893년에 다시 대성전을 수리했고,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1938년에도 대성전의 수리가 있었으며, 1942년에는 명륜당을 중수했다. 해방 후 1979년에 대성전과 명륜당을 수리했고, 1981년에는 동재(東齋)와 명륜당 보수공사가 이루어졌다. 1986년과 1990년에는 각각 명륜당과 대성전의 연목 이상 해체 및 번와 보수 공사가 있었다. 이듬해 1991년에는 대성전 일곽의 신문과 둘레 담장을 보수했고, 세심루와 명륜당 및 동서재의 기단과 석축을 수리했다. 1998년에는 세심루의 산자 이상 해체 보수가 있었고, 최근의 2015년에는 대성전 기단을 수리하고, 명륜당과 세심루의 판문을 보수했다.

현재 용궁향교는 축선 서측 자락의 경사지에 남남서향으로 입지해 있다. 경사지를 여러 개의 단으로 조성하고 각각의 영역을 배치했다. 외삼문을 들어서면 마당 건너에 정면 7칸의 장대한 세심루가 2단으로 조성한 축대 위에 막아서고 있다. 세심루 아래를 지나면 바로 한 단의 축대가 있고 중앙의 계단을 오르면 양쪽으로 동재와 서재가 마주하고 전방으로 2단의 높은 축대위에 정면 5칸의 명륜당이 막아선다. 명륜당 우측으로 돌아서면, 명륜당 후면 기단에서 바로 대성전 영역을 담는 축대가 높이 솟고, 축대 위에는 담장이 막아서고 있으며, 이 담장의 동쪽 끝 지점에 계단을 내고 사주문(四柱文) 형태의 신문(神門)을 세워 드나들도록 했다. 대성전 일곽은 경사지를 2단으로 만들어 전방의 아랫단은 제향 때 활용하는 마당으로 두고, 윗단에 정면 3칸의 대성전을 지었으며, 대성전 뒤로 산으로 이어지는 경사지가 시작된다. 외삼문 좌우에서부터 대성전 뒤까지 향교 영역 전체를 담장으로 둘러고, 동측 담장 바깥에 고직사(庫直舍)가 있다.



용궁향교 전경



전체적으로 향교의 핵심시설인 대성전, 명륜당, 세심루가 동일한 중심축선상에 배치되어 있다. 핵심 영역의 배치 방식을 보면, 강학공간을 전면에 두고 그 뒤의 높은 곳에 제향공간을 구성하는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로 되어있고, 강학공간의 구성은 강당 앞쪽에 재사(齋舍)를 두는 전재후당(前齋後堂) 방식으로, 영남지역 향교 배치의 일반적인 방식을 따랐다.

현재 용궁향교에는 조선시대 향교의 운영과 향촌 교화의 실상을 연구하고 향교의 연혁을 알 수 있는 다양한 문서와 문헌, 기문 류가 남아있다. 먼저 1799년(정조 23)부터 1814년(순조 14)년까지, 그리고 1834년(순조 34)부터 일제강점기 1920년까지 향교의 교육과 운영을 총괄했던 교임(校任)의 명단을 각각 기록한 『교임록(校任錄)』과 『임원록(任員錄)』이 전하고 있다. 그리고 1683년(숙종 9)부터 1698년(숙종 24), 1701년(숙종 27)부터 1802년 사이에 용궁향교에 소속되어 있던 유생들의 명부인 『청금록(靑衿錄)』 3책이 전하고 있어서, 교임록과 더불어 당시 향촌사회에서 사족의 동향과 향교와의 관계, 즉 조선시대 향교에 관한 사회사적 연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것 외에도 1876년(고종 13)에 안정중(安挺中)이 작성한 『향교절목책(鄕校節目冊)』은, 향교 운영을 위해 논의하고 결의한 내용을 기록한 완의(完議)와 그 구체적인 사항을 적은 절목(節目), 그리고 제물등록(祭物騰錄) 등을 수록한 것이다. 이것은 당시 향교의 경제 기반이었던 전답의 관리를 비롯해 향사(享祀), 임원, 접객, 경로소 운영, 교록(校錄) 작성 등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어, 조선 후기 향교의 운영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또 용궁향교의 운영을 위한 경제적 기반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자료로, 1610년(광해군 2)과 1618년에 재정의 확보방안(전곡이자, 회계 등)과 서책의 관리, 향사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기록한 「교중입의(校中立議)」, 1902년(고종 6)에 향교 소유의 전답과 경작사 현황을 기록한 「향교전답사정안(鄕校田沓查定案)」이 있다.

그리고 용궁향교와 그 운영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기문류로는 「상사양사기(庠舍養士記)」(1464), 「문루기(門樓記)」(1689), 「명륜당기(明倫堂記)」(1663), 「전사청중수기(典祀廳重修記)」(1860), 「명륜당중수기(明倫堂重修記)」(1863), 「향교중수기(鄕校重修記)」(1864), 「서재중수기(西齋重修記)」(1873), 「향교절목(鄕校節目)」(1873), 「강학소창건기(講學所創建記)」(1887), 「유소중수기(儒所重修記)」(1888), 「향교유소중수기(鄕校儒所重修記)」(1888), 「향교유소중수기」(1892), 「정후공속기(鄭候功續記)」(1893), 「성전중수기(聖殿重修記)」(1893), 「교궁중수기(校宮重修記)」(1897), 「교궁중수기」(1903), 「향교중창실기(鄕校重創實記)」(1917), 「향교중수기(鄕校重修記)」(1933), 「대성전중수기(大成殿重修記)」(1938), 「명륜당수선기(明倫堂修繕記)」(1942), 「향교중수기(鄕校重修記)」(1960), 「용궁향교중수기(龍宮鄕校重修記)」(1967) 등 다수가 남아있다.

### 3. 대성전의 건축적 특징

대성전은 임진왜란이 끝난 직후 비교적 이른 시기인 1602년(선조 35)에 재건되었고, 이후 조선 말 1873년(고종 10)과 1893년, 일제강점기 1938년, 해방 후 1979년, 1990년에 중수되었고, 1991년 대성전 일곽의 신문과 돌레 담장 보수, 그리고 최근의 2015년 대성전 기단 수리를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대성전 전경

유학을 집대성한 공자(孔子)와 그 제자, 그리고 중국과 우리나라의 유학 명현들의 위패를 봉안하고 제향하는 묘우(廟宇)로, 정면 3칸, 측면 3칸의 간살 구성을 한 익공계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현재 내부에는 공자를 중심으로 그 앞에 안자(顔子), 증자(曾子), 자사(子思), 맹자(孟子)의 공문 4성, 그리고 동·서 양측벽에 송조 4현과 동국 18현의 총 27위의 위패가 배향되어 있다.

경사지를 2단으로 조성하여 일각의 터를 닦고, 윗단 중앙에 축대 일부를 기단으로 삼아 건물의 기초를 만들었다. 기단은 자연석을 열을 맞춰 3단으로 쌓고 위에 장대석을 놓아 마감하고 윗면은 전돌을 깔았는데, 원형은 아니고 근래에 보수된 결과이다. 계단은 따로 설치하지 않았고, 기단 좌우로 이어지는 축대 앞에 디딤돌을 하나씩 놓아 이곳을 통해 기

단의 양측면으로 오르내리도록 했다. 초석은 커다란 자연석을 사용한 덩빙주초로 되어 있는데, 전면의 일부는 원형 주좌를 새긴 가공한 초석으로 되어있다. 이들 초석 외에도 전면 기단 좌우 축대 앞에 놓인 디딤돌도 쇠시리가 새겨진 가공된 석재가 사용되었는데, 인근에 있던 이전시대의 건물터에서 가져온 것인지, 혹은 이 터에 이전부터 있던 건물의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대성전 초석



대성전 우측 축대 디딤돌

평면의 간살은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잡았고, 정면은 어칸의 간살이를 3,700mm, 좌우 퇴칸의 간살이를 3,100mm로 설정해 중심을 강조했고, 측면 3칸의 간살이는 모두 2,150mm으로 동일하게 했다. 내부는 기둥이 없는 무주 공간으로 되어있고 바닥은 우물마루를 깔았다.

기둥은 대부분 민흘림을 둔 원기둥을 사용했는데, 정면 어칸 좌우의 두 기둥은 배흘림을 두어 중심의 의장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오른쪽 측면의 기둥 4개는 모두 근래에 교체된 것이다. 기둥의 아래에는 마루 높이에 하인방을 설치하고, 위에는 상인방을 설치하고 머리에 창방을 걸구해 축부를 고정했다. 중인방은 좌측 벽에는 없고, 우측과 배면 벽체에만 설치했는데, 이것 역시 후대에 더한 것으로 우측면 기둥 교체가 이루어질 때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좌우 양 측벽의 중인방 아래에는 화방벽을 쌓아 우수로부터 처마가 구성되지 않는 맞배지붕의 측면 벽체 하부를 보호하도록 배려하였다.

전내로 드나드는 출입문은 정면 3칸에 각각 설치했는데, 어칸에는 중앙에 두 짝 세살청판 분합문을, 좌우 퇴칸에는 중앙이 아니라 어칸 기둥에 접해 외 짝 세살청판문을 각각 달았다. 그런데 하인방 위에 별도로 문지방을 놓고 문얼굴을 구성한 점, 문얼굴과 문의 구성부재가 건물 규모에 비해 약하고 치목 상태가 정교하지 못한 점을 볼 때, 이 문들은 원래의 것이 아니라, 후대에 다른 건물의 문을 가져와 그 문에 맞게 다시 문얼굴을 만들어 설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붕 가구는 5량가인데, 내부에 기둥이 없는 어칸 좌우는 무고주 5량가로 만들고, 양측면

은 2고주 5량가로 어칸과 다르게 구성하여 횡력에 약한 맞배지붕 건물의 구조적 안정을 도모했다. 어칸 좌우의 가구 구성은, 전후 평주 위에 대들보를 걸고, 대들보 위에는 삼분 변작 위치에 연잎과 당초문양을 조합해 윤곽을 초각하고 단청을 베푼 화반대공을 놓고, 끈게 치목한 종보를 엮어 이중보 구성을 이룬다. 종보의 양 단에는 중도리를 받았고, 중앙에 판재를 4단 이어 연잎과 연꽃, 당초문양을 조합해 복잡하고 화려한 윤곽을 도려내고 단청을 올린 파련대공을 놓고 장여와 중도리를 받았다. 어칸의 단면 가구를 구성하는 대들보 위의 화반대공과 종보 위의 파련대공은 본 건물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재들로서, 이 건물이 재건된 17세기 초, 즉 조선 중기 중에서도 이른 시기의 정연한 기법을 잘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대성전 어칸 지붕 가구



대성전 측벽 지붕 가구

2고주 5량가로 된 양 측벽의 가구 구성은, 우선 모든 간살에 전·후 평주의 것과 같은 높이에 창방을 설치해 축부를 고정했다. 그리고 전·후 퇴칸의 창방 위에 다시 고주와 평주 사이를 연결하는 뒷보를 결구하였다. 이 뒷보는 부재 단면이 그 바로 아래의 창방보다 조금 작는데, 구조적으로는 상부의 하중을 지탱하지 않고 수평 방향의 힘에만 견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재 단면을 크게 할 필요가 없으며, 이 뒷보를 사용함으로써 측면 모서리의 축부 고정과, 기둥 상부의 귀포 구성이 구조적으로 더욱 안정화 되는 효과를 얻게 되었다. 어칸의 고주 위에는 주두 없이 기둥머리에 사개를 트고 바로 중도리 장여, 종보, 중도리를 결구했는데, 주택의 민도리집과 같이 단순한 구조이다. 종보 위에는 동자주를 안정적으로 세우기 위해, 먼저 종보 중앙에 보방향으로 창방과 비슷한 단면의 짧은 부재를 놓고, 여기에 동자주를 결구해 세웠다. 동자주 머리에는 도리방향으로 양갈을 트고 소로를 끼운 다음 중도리 받침 장여를 결구하고, 다시 이 장여와 직교하도록 승두를 결구한 위에 중도리를 안정적으로 결구했다. 이상과 같이 좌·우 측면의 가구는 전·후 평주와 고주 사이, 그리고 종보와 동자주, 중도리 사이의 수평, 수직 방향의 구조를 안정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목수의 의도가 잘 나타나 있으며, 이것 역시 조선 중기의 초기적 수법으로

주목할 만하다.

공포는 출목 없이 익공 하나만 사용해 기둥 상부의 구조를 보강하고 의장적 효과를 내는 초익공 구조로 되어있다. 정면 평주의 공포는, 기둥머리에 사개를 트고 창방과 초익공을 十자형으로 짜넣은 위에 주두를 올리고, 도리방향으로 주심첨차 하나를 놓고 보머리를 얹은 다음 장여와 주심도리를 결구해 완성했다. 익공의 외부는 끝을 짧고 강직한 수서형으로 하고 하부에 초각을 베풀어 장식했고, 내부는 초각한 보아지형으로 되어있다. 주두 위에 결구되어 첨차는 하부에 초각 장식을 베풀었고, 상부에는 양 끝에 소로를 하나씩 얹고 장여를 받았다. 보머리는 끝을 직절하고 상부는 서까래와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보서리 부분을 빗깍기 처리했다. 배면 평주의 익공 구성은 정면과 같지만, 익공의 외단부를 쇠서형으로 뺀어 나오게 하지 않고 둥글게 깎아 단순한 형태로 처리한 점이 정면과 다르다. 공포 의장에서 정면성을 강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대성전 정면 평주 익공 구조와 의장



대성전 배면 평주 익공 구조와 의장



대성전 좌측 귀포 구조와 의장



대성전 우측 귀포 구조와 의장

우주 위에 구성되는 귀포 구조와 의장은 평주의 것과 다르게 이익공으로 되어있는데, 이는 우주 위에 결구되는 부재의 종류가 평주와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우주 머리에 사개를

트고 도리방향과 보방향의 창방을 우주 위치에서 수장폭으로 축소시켜 직교하도록 짜넣고, 도리방향 창방 뺄목은 끝을 사절하고 아래에 초각 장식을 베풀고, 위에 소로 하나를 놓고 주심침차를 받았으며, 보방향 창방 뺄목은 평주 위의 초익공처럼 쇠서형으로 만들었는데 창방의 단면 높이를 이용해 조각했기 때문에 쇠서의 높이가 평주의 초익공보다 낮다. 이 위에 주두를 놓고 주심침차와 뒷보 머리를 결구했는데, 뒷보 머리를 수서형으로 조각해 내밀어 이익공을 이루었다. 주심침차 양 끝에 소로를 하나씩 올리고 장여를 받고, 이것과 직교하도록 뒷보 머리 위에 승두를 결구 한 다음 주심도리를 받았다. 승두를 사용한 이유는, 뒷보의 단면 크기가 대들보보다 훨씬 작아서 도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승두를 결구해 도리를 감싸며 안정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만, 좌우 귀포의 이익공 형태가, 우측의 것은 수서형, 좌측의 것은 짧은 앙서형으로 서로 다르게 되어 있는데, 좌측의 것이 당초의 원형일 것이다.



대성전 정면 화반



대성전 배면 화반

정면과 배면의 각 간살에는 창방 위에 화반을 하나씩 설치하여 주심도리 장여를 받았는데, 정면의 것은 초각을 베풀어 장식하고 위에 소로 하나를 놓아 장여와 결구했고, 배면의 화반은 장식이 없는 단순한 방향으로 만들고 역시 소로 하나를 놓아 장여를 받았다. 정면의 의장적 위계를 강조한 표현이다.

본래는 단청이 칠해져 있었으나, 외부의 단청은 풍화되어 거의 남아있지 않다. 내부에는 모로단청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몇 차례 수리된 흔적은 있으나 당초의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도 상당히 남아있어 향후 면밀히 조사할 만한 가치가 있다.

#### 4. 대성전 종합의견

용궁향교 대성전은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가 1602년(선조 35)에 재건된 이래 여러 차례 수리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대성전의 재건 시기는 향교에 전하는 기문을 통해

확인되며, 현재 건물의 가구법이나 의장 등을 종합해 볼 때 전반적으로 재건 당시의 모습을 충실히 유지하고 있다. (3 학술적 가치- 명확성)

유교 국가였던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건축 문화재 중의 하나로서, 정제 향교 경역 내에서 가장 위계가 높은 사묘 건물이지만, 당시 성리학자들이 추구했던 특유의 검박함을 잘 구현하여 과도하지 않은 규모와 의장으로 조영되었다. (1 역사적 가치- 시대성)

정면 어칸 좌우에 배흘림 기둥을 사용한 점, 측면 가구 구성에서 창방과 뒷보를 이용해 횡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축부 구조를 강화한 점, 어칸 양측 지붕 가구 구성에서 정교한 조각 장식이 배풀어진 종대공의 파련대공과 중대공의 화반대공, 간결하고 힘있는 익공의 의장 처리 등은 조선 중기 이전의 기법을 보여주는 요소로서 가치가 크다. (1 역사적 가치- 시대성 / 3 학술적 가치- 특이성, 연구 기여도)

이상과 같이 용궁향교 대성전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승격 지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평가함.

## 5. 명륜당의 건축적 특징

명륜당은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었다가 1662년(현종 3)에 재건되었고, 이후 1863년(철종 14), 일제강점기 1942년, 해방 후 1979년, 1981년, 1986년의 중수, 1991년의 기단 및 석축 보수, 2015년의 판문 보수를 거쳐 지금에 이른다.

향교에서 강학 공간의 핵심 건물로서, 전방에 동·서재가 있고, 뒤로는 중심축선상에 대성전이 위치한다. 대성전 일곽으로 이어지는 급경사지를 절토해 내고 전면에 높은 축대를 2단으로 조성하여 정면 5칸, 측면 2칸의 이익공 홀처마 팔작지붕 건물을 앉혔는데, 뒷단은 기단을 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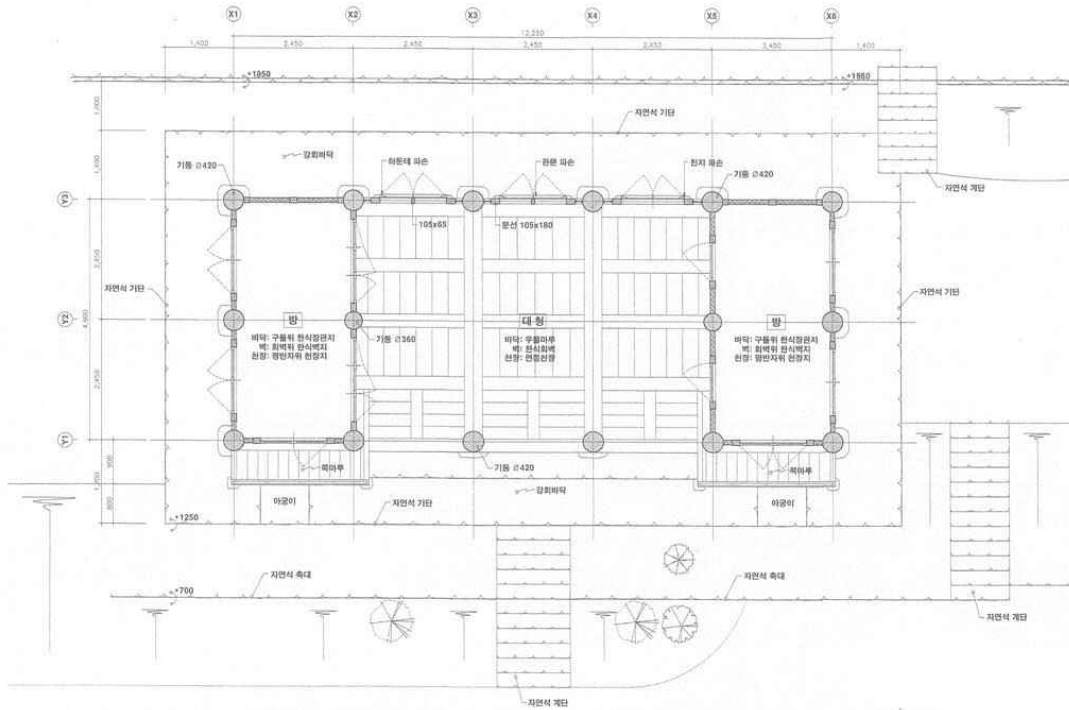
명륜당 전경

기단을 겸하는 상·하의 축대는 비슷한 크기의 자연석을 면과 줄눈을 맞춰 쌓고, 전면 중앙 1개소에 역시 같은 방식으로 돌을 쌓아 계단을 놓았는데 모두 근래에 보수를 거치면서 바뀐 것이다.

향교의 강당 기능에 충실하게 평면을 정면 5칸, 측면 2칸의 간살로 구성하고, 중앙의 3칸 부분은 강학을 위한 대청을 들이고, 좌·우의 각 1칸에는 교관이 거쳐하기 위한 온돌방을 들였는데, 두 방 모두 보방향으로 2칸을 터서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었다. 간살이는 정면의 대청 3칸은 모두 2,400mm로 동일하고, 좌·우 양측의 온돌방은 2,460mm로 대청의 간살이보다 약간 크게 했으며, 측면의 간살이는 2칸 모두 2,460mm로 동일하다.

대청은 우물마루를 깔았고, 좌우 온돌방 앞에는 쪽마루를 설치하고 그 외곽에 간단한 형태의 평난간을 들렸으며, 쪽마루 아래에는 아궁이가 있다. 대청의 우물마루 까는 방식이 독특한데, 기본적으로 보 방향으로 장귀틀을 걸고, 이것을 사등분 하도록 도리 방향으로 동귀틀을 걸구한 다음 청판을 횡방향으로 늘어서도록 끼우는 방식으로 되어있으나, 전면의 1/4 부분은 동귀틀과 전면의 여모귀틀 사이의 중앙에 다시 보 방향으로 귀틀 하나를 건 다음, 청판을 종방향으로 늘어서도록 끼워 완성했다. 이 부분은 후대의 변형 가능성이 보고되어 있다.





명륜당 평면도(출처: 국가지정 문화재 등의 지정 요청 자료 보고서, 2020)

기단 위에는 자연석 초석을 놓고 모두 원기둥을 세워 주방을 구성했다. 기둥은 대체로 민흘림으로 다듬었는데, 정면 대청 중앙의 기둥 2개는 다른 것보다 더 굵고, 배흘림을 두어 시각적으로 정면의 중심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어칸 좌·우의 기둥에만 배흘림을 두어 강조하는 기법은 대성전에서 볼 수 있어 일관성을 갖는다.

대청 부분은 전면은 문을 달지 않고 전체를 개방했고, 배면에는 판벽과 창호를 설치했는데 조금 독특하다. 배면의 어칸과 좌협칸에는 기둥 사이에 상인방을 걸고 그 아랫부분에 판벽과 널판창을 설치했다. 널판창은 밖으로 열리는 쌍창 형식이고 가운데에 설주, 즉 영(檣)이 있어 영쌍창처럼 보이지만, 이 설주는 근래에 보수과정에서 추가된 것이다. 상인방 위의 창방 아래까지는 흙을 바른 심벽으로 마감했다. 한편 우측 협칸은 창이 아니라, 하인방과 창방 사이 전체에 걸쳐 좌우 기둥에 면해 판벽을 세우고, 중앙에는 밖으로 열리는 두 짝 널



명륜당 배면 벽체 및 창호 구성

(출처: 국가지정 문화재 등의 지정 요청 자료 보고서, 2020)

판벽을 세우고, 중앙에는 밖으로 열리는 두 짝 널

판문을 달아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향사 때 대성전 일곽으로 드나들 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의도로 판단되지만, 재건 당초의 원형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후대의 변형 여부와 상관없이 향교의 강당 배면에 출입문을 두어 대성전 영역으로 바로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든 사례로서는 특기할 만하다.

온돌방에 설치된 창호는 좌·우 방의 구성이 조금 다르다. 오른쪽 방은 쪽마루에 면한 전면에 두 짝 세살분합문, 대청에 면한 전·후칸에는 각각 외짝 세살문을 달았고, 우측면에는 전·후칸 모두 두짝 세살분합창을 설치해, 대청과 전면의 쪽마루로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왼쪽의 온돌방에는 전면에 쪽마루에 면해서는 오른쪽 방과 가찬가지로 두 짝 세살분합문을 냈고, 대청에 면해서는 전·후칸 모두 칸 전체에 세 짝 세살분합문을 달아 칸 전체가 개방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좌측면에는 앞쪽 칸에도 출입할 수 있는 두 짝 세살분합문을 달았고, 뒤쪽 칸에는 오른쪽 방과 마찬가지로 두 짝 세살분합창을 달았다. 즉, 왼쪽의 온돌방은 대청을 통하지 않고 좌측면에서도 출입할 수 있도록 배려했고, 필요에 따라서는 대청 공간으로 완전히 개방될 수 있는 형태이다. 이를 보아 오른쪽(동쪽) 방이 공간의 활용이나 형식의 측면에서 위계가 더 높게 처리한 것을 알 수 있다.

기둥 위에는 창방을 결구해 축부를 고정한 다음, 이중보를 걸고 5량가의 팔작지붕 가구를 구성했다. 지붕 가구는 대청과 온돌방 부분이 다르게 되었다. 대청 부분은 어칸 좌·우의 전·후 평주 사이에 기둥 없이 바로 굽은 대들보를 걸고 지붕 구조를 받았다. 대들 위의 삼분변작 위치에 사각형 단면의 동자주를 세워 중대공을 구성했다. 동자주 머리에 사개를 트고 보아지와 침차를 十자 모양으로 결구한 다음 주두를 놓았는데, 보아지와 침차가 함께 주두를 물고 안정하게 고정하고 있다. 보아지의 외단은 직절해 단순하게 처리했고, 내단부는 끝을 사절하고 아래에 초각 장식을 베풀었으며, 침차 역시 양 끝을 사절하고 아래에는 초각 장식을 했다. 침차 위 양 끝에 소로를 하나씩 놓아 주두와 높이를 맞춘 다음 장혀를 받았고, 그 위에 종보 머리를 얹고 중도리를 결구했다. 종보 중앙에는 판재를 겹쳐 윤곽을 가공한 운형대공을 세우고, 대공 상부를 수직으로 파내고 일두삼승의 침차를 결구한 다음 장여와 중도리를 받았다.



명륜당 대청 상부 지붕 가구



명륜당 온돌방 상부 지붕 가구

대청과 온돌방 사이에는 전·후 평주 사이의 중앙에 평주와 같은 높이의 기둥을 세우고 주두 위에서 전·후 평주 사이에 각각 보를 걸친 맞보 형식을 만든 다음 상부의 지붕 가구를 받았다. 이곳의 전·후 평주와 중앙 기둥 사이에는 창방을 설치하지 않고, 주두 위의 보로만 수평 방향의 연결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횡력에 대해서는 취약한 측면이 있으며, 측벽 부분에서 횡력에 대응하기 위해 창방, 뒷보 등으로 기둥 간 연결을 강화했던 대성전과는 차이가 나는 방식이라 하겠다. 맞보 위에 구성되는 중대공, 종보, 종대공, 종도리의 결구 방식과 부재의 의장 처리 방식은 대청 상부의 것과 동일하다.



명륜당 정면 이익공 외관

(출처: 국가지정 문화재 등의 지정 요청 자료 보고서, 2020)



명륜당 정면 이익공 내부

(출처: 국가지정 문화재 등의 지정 요청 자료 보고서, 2020)

기둥 위의 공포는 전체적으로 무출목 이익공으로 되어있다. 기둥머리에 사개를 트고 수장쪽의 단면을 갖는 창방을 끼운 다음, 창방과 직교하도록 초익공을 결구하고 주두를 놓았다. 이 위에 이익공을 얹고, 주심첨차, 보머리, 장혀, 주심도리를 차례로 결구해 이익공을 완성했다. 초익공과 이익공은 상하로 밀착되어 기둥머리, 주두, 주심첨차를 고정하고, 내부는 하나의 보아지 형태로 초각하여 보를 받쳤고, 외부는 각각 수서형으로 촛가지를 만들어 내었다. 주심첨차는 끝을 사절하고 하단에 초각을 베풀었으며, 윗면의 양 끝에 소로 자리를 도려내고 소로를 놓아 장여를 받았기 때문에, 첨차 전체가 장여와 밀착되어 있다. 이 점은 대성전 익공의 주심첨차와 다른 것으로, 60년이라는 건립 연대의 차이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보머리는 수장쪽으로 단면을 줄여 내밀어 상·하의 부재들과 결구하고, 끝을 직절하지 않고 둥글게 깎아 장식했다.

보머리가 결구되지 않는 귀포의 구성은 평주 위의 것과 다르다. 먼저 수장쪽의 양 방향 창방을 그대로 기둥 밖으로 내밀어 뿔목을 만들어 초익공을 이루고, 이 위에 주두를 놓고 양 방향의 주심첨차를 교차시켜 결구했다. 전면의 창방뿔목은 끝을 수서형의 촛가지로 만들었지만, 배면의 것은 끝을 사절하고 하부에 초각을 한 모습으로 서로 차이가 난다. 주심첨차의 내단부 처리 방식은 평주 위의 것과 같고, 외단부는 주두 밖으로 길게 빼서

수서형의 촛가지를 만들어 이익공을 형성했다. 창방 뿔목의 초익공과 주심첨차 뿔목이 만드는 이익공 사이에는 주두에 인접해 소로를 끼워 상·하 부재간 긴결을 강화했다. 이익공을 이루는 주심첨차 위에 장여, 원형 단면의 주심도리를 결구했다. 교차되어 빠져 나온 장여의 머리는 보머리와 비슷하게 등글게 깎아 장식했다.

건물 둘레로 매 칸마다 창방 중앙에 화반을 놓고 소로를 결구해 주심도리 장여를 받았다.

화반의 모양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전면과 배면의 어칸과 양 끝의 퇴칸에는 초각한 화반을 사용했고, 나머지 칸에는 단순하게 원형으로 다듬은 것을 사용했다.

사면 둘레의 처마 구성은, 정면과 좌·우 측면은 서까래 위에 부연을 달아낸 겹처마로 되어 있고, 배면의 처마는 부연을 사용하지 않은 홑처마로 되어있으며, 서까래는 대부분 후대에 교체된 것들이다. 정면에서 보이는 추녀의 양곡을 과도하게 잡아 어색한 느낌을 준다.

전반적으로 기둥 굵기에 비해 주두가 작고, 창방과 인방 및 공포를 구성하는 부재들의 치목이 거칠고 초각 수법도 정교하지는 않은 편이다. 한편, 조선시대 향교 건축은 공포 의장을 포함해 건축 형태상으로 명륜당의 위계를 대성전 보다 낮게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데, 용궁향교 명륜당의 경우 공포 의장을 무출목 초익공으로 된 대성전보다 격을 높게 되어있어, 통상적인 조선시대 향교에서 볼 수 있는 건축 구성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대의 대대적인 건물의 개수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면밀한 추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명륜당 귀포의 이익공 구조와 의장(배면)

## 6. 명륜당 종합의견

용궁향교 명륜당은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가 1662년(현종 3)에 재건된 이래 여러 차례 수리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기문의 내용을 통해 건립 시기가 명확히 확인되는 유구이기는 하지만, 조선시대 유교 건축을 대표하는 향교의 강당으로서 건축의 의장적 위계를 사당인 대성전보다 높게 설정함으로써, 향교 건축의 전체적인 건축 구성의 질서를 잃고 말았다. 이는 후대의 변형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떠나서 조선시대 향교의 강당 건축으로서의 일반성과 대표성을 상실한 부분으로 아쉬움이 있다.

17세기 후반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건립된 건물이기는 하나, 좋은 목재를 구해 잘 치목한

기둥 및 들보에 비해, 창방과 인방, 공포 구성 부재 치목이 거칠고 초각 수법이 정교하지 못해 전반적인 건축적 완성도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또한 건물의 규모에 비해 추녀의 양곡을 과도하게 잡아 전통건축에서 볼 수 있는 미려한 곡선미를 잃었다. 원형의 맛을 충분히 유지해 내지 못했던 후대의 수리가 아쉽다.

이상과 같이 현재의 명륜당 건물은, 건립연대가 분명히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대성전을 정점으로 하는 조선시대 향교의 건축 구성상의 질서를 상실했고, 외관으로 드러나는 주요 부재 완성도의 균형과, 전통건축 팔작지붕의 유려한 곡선미를 잃고 있어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승격 지정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평가함.

## 7. 세심루의 건축적 특징

세심루는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었다가 1687년(숙종 13)에 재건되었고, 이후의 수리로는 1991년의 기단과 석축 수리, 1998년의 산자 이상 해체 보수, 그리고 최근 2015년의 판문 보수 등이 확인된다.

향교에서 강학 공간의 전방에 위치해 유생들이 자연을 바라보며 호연지기를 기르는 유식을 위한 건물로 뒤로는 동·서재와 강당인 명륜당이 배치되어 있으며, 핵심 건물인 대성전, 명륜당과 함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다. 산자락의 경사가 시작되는 위치에 입지하여, 경사지를 깎아 3개의 단으로 조성하고, 이 중에서 중간 단을 기단으로 삼아 정면 7칸, 측면 2칸 규모에 초익공을 짜고 홀처마 맞배지붕을 얹은 장대한 이층 누각을 지었다. 현존하는 조선시대 교육 시설인 향교와 서원을 통틀어 유래가 드문 장대한 누각으로, 인근 안동의 병산서원 만대루(晩對樓)에 비견된다.



세심루 전경

누 안에 걸려 있는 「문루기」라는 기문의 명칭과 그 내용 중에 나오는 ‘門上有樓’라는 문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1687년 건립 당시 세심루는 하층을 향교로 출입하는 문으로 이용하는 문루였다. 현재 세심루 앞에 있는 외삼문은 근래에 추가된 것이

누 아래의 축대는 자연석을 큼직하게 잘라내 면을 맞춰 쌓았는데 근래에 추가된 것이며, 누의 기단을 겸하는 두 번째 축대는 대체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크기가 일정한 자연석을 면을 맞춰 허튼층으로 쌓았다. 정면 중앙에 계단을 내어 누 아래에 오르도록 했고, 누 밑을 지나면 다시 명륜당 앞마당 전면 축대를 안으로 파내고 설치한 계단을 올라 명륜당 일곽으로 들게 된다.

기단 위에 7칸×2칸 간살의 모든 기둥자리에 자연석 덩빙주초를 놓고 원기둥을 세우고, 각각의 기둥머리에 사개를 트고 창방을 결구해 축부를 고정했다. 간살이는 정면의 어칸이 2,800mm, 좌·우의 협칸과 차협칸은 2,450mm, 양 끝의 퇴칸은 2,150mm로 잡아, 어칸에서 양 끝의 퇴칸으로 가면서 대략 3자 정도씩 간살이를 줄여 중심을 강조했다. 측면의 간살이는 전·후 2칸 모두 2,020mm로 동일하게 잡았다. 정면 어칸의 양쪽 기둥에는 동일한 높이에 문지방을 결구했던 통장부맞춤 홈이 남아있고, 상부 창방에도 하부에 문선을 결구했던 홈과, 안쪽에 판문을 걸기 위해 설치한 문둔테가 그대로 남아있어, 당초 이곳에 판문을 달아 개폐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좌우로 이어지는 협칸과 퇴칸의 창방 아랫면에도 벽체를 구성하는 부재를 맞춰 끼웠던 홈이 남아있다. 이를 종합해 보

면, 세심루 건립 당시에는 누하주의 기둥 사이를 벽으로 막고, 중앙의 어칸에 판문을 달아 향교로 출입한 것을 알 수 있다. 당연히 향교 좌우의 담장도 지금과는 달리 세심루 좌우로 이어져 있었을 것이다.

창방으로 고정된 누하주의 주방 위에, 전·후 평주 사이에 장귀틀과 외곽 들레로 여모귀틀을 각각 설치하고, 장귀틀 사이를 종으로 4등분하도록 동귀틀을 3분씩 걸어 마루귀틀을 짜 축부를 단단히 고정한 다음, 2층의 누상주를 귀틀 위에 축맞춤으로 고정해 세우고 청판을 끼워 우물마루를 깔았다. 누상주는 정·배면과 양측면의 평주만 세우고 내부는 기둥이 없는 통칸으로 만들었으며, 기둥 형태는 단면이 둥근 원기둥이며, 전반적으로 약하게 민흘림을 두었다. 누상으로 오르는 계단은 배면 좌협칸 여모귀틀 안쪽에 한 곳만 설치했다.



세심루 2층 내부 전경



세심루 지붕 가구 구성

기둥머리에 사개를 트고 창방을 끼운 다음 초익공을 十자 모양으로 짜 넣은 위에 주두를 결구해, 초익공을 매개로 기둥머리와 창방, 주두를 고정했다. 초익공의 외부는 끝을 수서형으로 다듬고 하부는 초각했으며, 내부는 보아지형으로 되어 있다. 익공의 형태가 명륜당의 것과 비슷한데 초가지의 길이는 짧다. 명륜당의 익공 부재와 마찬가지로 치목 상태가 다소 거칠고 정교하지 못하다. 이 위에 장여와 보머리를 결구하고 주심도리를 받았다. 보머리는 단면 크기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나오게 해서 끝만 수직으로 잘라 단순하게 마감했다. 매 칸마다 창방과 장여 사이에 소로를 세 개씩 끼워 장식했다.

전·후 평주 사이에 걸친 대들보는 구불뒷하게 생긴 재목으로 그대로 사용했고, 삼분변 작 위치에 동자대공을 세우고, 대공머리에 운두가 높은 교두형 침차 모양의 보아지를 끼우고 주두를 올려 결구한 다음, 장여와 종보머리를 서로 직교하도록 짜고 종보를 받았다. 종보 중앙에 사다리꼴의 판대공을 세우고 종도리를 받아 지붕 가구의 틀을 완성했다. 판대공의 상부 중앙을 둥글게 도려내고, 다시 그 아래로 깊게 파낸 다음 교두형 침차를 끼우고 장여를 결구한 위에, 종도리를 받았다.

양 측면에는 중앙에 전·후 평주와 같은 높이의 기둥을 세우고 머리에 창방을 결구해 축부를 고정했는데, 기둥 상부의 부재 결구방식이 전·후 평주와 다르다. 기둥머리에 사개를 트고 초익공을 먼저 꽃은 다음 보방향으로 창방을 결구하고, 반대쪽 끝은 우주 머리에 도리방향 창방과 직교하도록 결구하고 익공 촛가지 모양의 뺄목을 내밀었다. 초익공은 상부에 보가 없고 외부는 박공의 풍판에 가려지기 때문에 내·외부를 길게 빼서 보아 지나 수서형의 촛가지를 만들지 않고 둥글게 깎아 단순하게 처리했다. 또 창방의 단면 형상과 크기는 전·후 평주 위의 것과 같지만, 창방 윗면의 높이를 전·후 평주 머리에 결구되는 익공의 윗면에 맞춰 설치함으로써, 구조적으로는 우주 위에서 기둥머리와 주두를 안정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과 동시에, 입면에서 초익공의 의장적 통일을 이루는 효과를 내게 되었다. 그 결과 측면 중앙 기둥 위에서 맞보 형태로 걸리는 보는 창방 윗면과 밀착되어 있다. 한편, 측면 중앙의 기둥은 보방향으로는 창방과 맞보가 결구되어 고정이 되지만, 도리방향으로 결구되는 인방재가 없기 때문에 도리방향의 횡력에 취약한 구조가 되었다.



세심루 2층 우주의 익공 구성



세심루 2층 측면 평주의 창방과 익공 구성

정면 매 간살에는 밖으로 열리는 두 짝 널판창을 달아 필요에 따라 개폐할 수 있도록 했는데, 널판창은 근래에 교체된 것이 많다. 창 아래에는 머름상방을 가로질러 설치하고 그 아래의 여모귀틀과 머름상방 사이에 청판만 끼워 넣은 간단한 판머름을 만들었다. 위로는 창방 아래에 상방을 설치하고, 상방과 머름상방 사이에 벽선, 설주를 수직으로 결구해 얼굴을 만들었으며, 상방과 머름상방 바깥에 둔테를 밝아 창을 달았다. 벽선과 설주 사이는 판벽이다. 현재 배면과 양 측면의 기둥 사이에는 모두 창호가 없이 개방되어 있고 단순한 형태의 평난간만 설치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양 측면의 기둥 사이에는 인방을 걸고 창을 달았던 흔적이 남아있어, 당초에는 누상의 양 측면에도 창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심루 2층 정면 창과 머름의 구성

지붕은 맞배지붕이며 양 측면의 박공에는 풍판을 달았다. 처마는 정·배면 모두 부연을 달지 않은 흘처마이고, 처마를 구성하는 서까래는 대부분 끝을 직절하고 소매견이를 하지 않았는데 근래에 개수된 결과이다.

## 8. 종합의견

용궁향교 세심루는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가 1687년(숙종 13)에 재건된 사실이 기문을 통해 확인되어 건립 연대를 명확히 알 수 있다.

향교의 강학공간 전면에 배치되어 전방으로 펼쳐지는 장대한 자연을 감상하며 유식하는 누로써, 정면 7칸의 장대한 규모를 가지며 아래층은 벽으로 막고 문을 달아 향교로 드나드는 문의 역할을 겸했던, 유례가 드문 유구라 할 만하다.

조선시대 향교의 전체적인 건축구성의 측면에서, 지붕의 형태와 공포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건축 의장을 대성전, 명륜당보다 격을 낮춰 표현함으로써, 건축구성의 위계적 질서를 구현하고자 의도한 점이 잘 드러난다.

17세기 후반에 어려운 여건에서 건립된 건물이기 는 하나, 공포를 구성하는 부재들의 치목이 거칠고 정교하지 못하고, 기둥 굽기에 비해 창방과 귀틀의 단면이 작아 섬약해 보이고 전체적인 부재 간의 조화를 잃어 예술적 가치를 결여하고 있다.

당초 누 아래에 설치되어 있었던 벽체와 문이 모두 철거되어 원형을 잃은 상태이고, 상층의 창호와 지붕의 서까래 등 교체, 변형된 부분이 많다.



명륜당에서 바라본 세심루

누의 기단 높이를 높게 잡아 명륜당에서 조망되는 전방의 경관을 누의 지붕이 완전히 가리고 있고, 더불어 명륜당 마당과 누마루 사이의 연결도 원활하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 주변의 경관을 살피고 경사지를 잘 활용하여 외부의 자연 경관을 경내로 끌어들이며, 밖에서는 폐쇄적인 건축의 군집으로 보이는 것과 대조적으로, 경내에서는 밖으로 적극적으로 시선이 개방되는 조선시대 향교 및 서원 건축의 특징점을 충분히 살려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본 건물은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승격 지정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평가함.

## 10. 담양 창평향교 대성전, 명륜당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 가. 제안사항

전남 담양군 소재 「담양 창평향교 대성전, 명륜당」에 대한 국가지정 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전남 담양군 소재 「담양 창평향교 대성전, 명륜당」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전라남도지사
- (2) 대상문화재 :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04호 「창평향교」
  - 소재지 : 전라남도 담양군 고서면 교촌길 43-11 (교산리 138)
  - 지정일 : 1985. 02. 25.
-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 명칭 : 담양 창평향교 대성전, 명륜당(潭陽 昌平鄉校 大成殿, 明倫堂)
  - 소유자(관리자) : 창평향교
  - 소재지 : 전라남도 담양군 고서면 교촌길 43-11 (교산리 138)
  - 조성연대 :
    - 대성전 : 조선시대(1479년 이건, 1689년 중수)
    - 명륜당 : 조선시대(1600년대 중건 추정)
  - 수량 : 2동
  - 지정면적 : 지정면적 278.5㎡(보호구역 3,265.6㎡)

○ 양 식 :

- 대성전 : 정면3칸, 측면3칸, 2고주 5량가, 겹처마, 맞배지붕
- 명륜당 : 정면4칸, 측면3칸, 우측면 5량가, 홑처마, 맞배지붕

라. 현지조사의견(2020.07.22.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마. 지정조사보고서 : 붙임참조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원안가결 10명, 부결 1명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0.07.22	대상문화재	창평향교 대성전, 명륜당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건축역사
	소속	○○대학교	직위(직책)	연구석좌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보물)		
	문화재 명칭	창평향교 대성전, 명륜당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붙임1>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붙임2>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붙임3>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영향 행위기준 (안)	해당사항 없음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해당사항 없음		
종합의견	<p>창평향교의 건립연대는 邑誌에 1399년(정종 1)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분명하지는 않다. 그러나 『동국여지승람』(1488)에도 전라도 57개 향교중 하나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1689년(숙종15) 현령 朴世雄에 의한 대성전과 명륜당의 대대적 수리에 관한 기록이 있다.</p> <p>전체 배치형식은 ‘ㄱ자’형으로 독특하다. 사찰 주불전 앞 좌우에 승방이 있고 그 앞에 누각이 있는 것과 유사하다. 이러한 배치는 보기 힘든 형식이다.</p> <p>대성전의 공포는 향교건축에서 헛침차 구성이 특이하다. 헛침차가 있으므로 상부 살미는 소로받침 높이만큼 간격이 생기는데, 이는 서로 붙어있는 익공계 공포와 구분이 된다. 다만 제공의 쇄서가 익공화 경향을 보이는 현상만큼은 피할 수 없다. 헛침차 구성은 수덕사 대웅전, 강릉 객사문, 송광사 하사당 등이고, 나주향교 대성전도 창평향교 대성전 공포와 전체 짜임이 유사하다.</p> <p>명륜당 주심포양식은 향교 명륜당 건물로는 이례적이다. 파련대공이나 살미의 조형적 우수성이 돋보인다. 언제 현재의 모습으로 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500년대 후반, 또는 1600년대 정도로 여겨진다. 비록 작은 현의 고을 명륜당이었지만 당시 수령의 관심과 고을 목수의 뛰어난 건축적 안목의 산물로 여겨진다.</p> <p>배치형식의 특이성, 목조건축의 우수한 조형성, 향교건축의 형식과 학술적 의미 등을 고려했을 때 국가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된다.</p>			

---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10월 10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 [붙임 1]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소재지 : 전남 담양군 고서면 교촌길 43-11(교산리 138)

○ 소유 및 관리자 : 담양군

○ 수 량 : 대성전, 명륜당 각 1동 전체 2동

창평향교는 전남 담양군 고서면 교촌길 43-11에 위치하고 있다. 창평면소재지에서 남서쪽에 있고 지형적으로는 무등산 북변 산줄기에 자리한다. 향교 남측 들녘을 지나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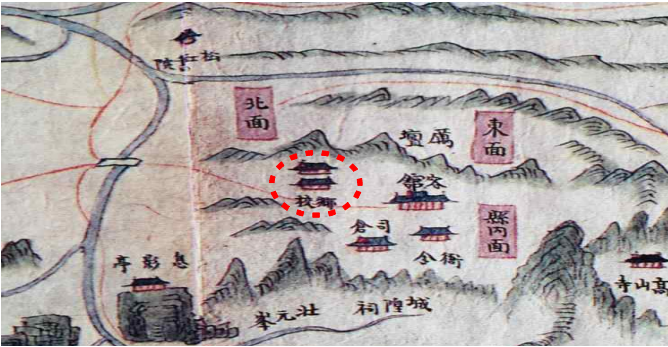


그림 104. 여지도서(1757-1765). 창평현 지도

호계곡으로 향하면 수남 학구당, 식영정, 소쇄원 등의 정자문화권과도 이어진다.

향교의 배면은 낮은 구릉인데 전면으로는 증암천이 흐르는 넓은 들녘이 펼쳐 있다. 전형적인 배산임수가 이루어진 평야를 앞둔 형국으로 이러한 입지는 평지형 보다 입지적 특성이 돋보이는 향교 건축의 우월적인 입지이다.

담양군 창평은 무등산에서 뺀 산줄기가 동서로 감싸면서 북쪽으로 뻗어 있고, 그 사이에 견암천(甄巖川)과 고산천(高山川)이 넓은 퇴적평야를 만들면서 영산강의 지류인 동강(桐江)에 합류하고 있는 곳에 있다. 지금은 남해고속도로가 뜰을 가로질러 좁아 보이지만 아주 넓은 토지를 이루는 곳이다. 창평을 중심으로 광주·담양·동북·장성 등지와 연결되는 도로망이 발달하였고, 동강유역에는 외창(外倉)이 있었다. 동남쪽은 월봉산(454m)을 비롯한 산지가 발달되어 있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100m 이하의 낮은 산지와 평야를 이루고 있다.

관학인 향교는 사학인 서원과 달리 일반적으로 목이나 현 등 치소(治所) 가까운 곳에 자리하고 있다. 이는 향교가 관학으로서 수령칠사(守令七事) 중 ‘학교흥(學校興)’이라는 책무가 있었기 때문에 보통 치소와 5리 이내에 향교를 둔 것이다. 또한 지방민의 교화사업도 향교의 중요한 임무였기 때문에 치소 가까이에 두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9권/전라도 창평현 조에 향교의 위치를 현의 북쪽 5리에 있다고 표기했다. 실제로 치소에서 옛길로 하면 약 1.5km 지점이 된다. 이로 보아 여지도서에서도 치소와 가까운 거리에 향교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창평현 치소는 고산면 고읍리에서 1793년에 객사와 동헌 등 관아 전체를 옮겼다. 치소가 옮겨짐으로서 향교와는 상당한 거리를 두게 됐다. 현재의 도로 길로 측정한 결과 약 6.3km가 된다. 치소 이전 100여년 후에 작성된 전라도지도(1872)를 보면 치소 및 향교의 위치, 건물 구성, 주변 산천 등이 비교적 상세히 묘사되어 있다.<sup>180)</sup>

180) 본 조사보고서는 아래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였고 <국가문화재 지정신청서>의 도면이나 사진을 인용하여 작성되었음을 밝힌다.

## [붙임 2] 연혁, 유래 및 특징

### 1) 연혁과 유래

창평현은 1474년(성종 5) 강구연(姜九淵)이 현령 전순도(全順道)를 능욕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폐현되고 광주에 예속되었는데 이때 창평향교도 일시 폐교되었다. 그 후 1478년(성종9) 다시 현이 복구되었는데 향교도 그 무렵에 복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105. 창평향교 전경

창평현은 정조 17년(1793)에 읍치를 고산(高山)에서 반용산 아래인 동면 삼지천리로 옮겼다.<sup>181)</sup> 이전 사유는 당시 수재가 빈번하여 이건을 했다고 전해지는데 지형적으로도 후면의 높은 산들이 병풍처럼 고을을 감싸고 있는 배산형 형국으로 치수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창평향교의 창건 연대는 읍지에 1399년(정종 1)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분명하지는 않다. 그러나 창평이 고려 중기 이후부터 독립적인 현으로서 자리했고 이는 조선 초까지 이어진 점으로 미루어 보아 조선 초 ‘일읍일교(一邑一校)원칙에 따라 1399년 창건도 맞는 것으로 보여 진다.

창평향교는 성종 10년(1479)에 지금의 자리, 즉 치소 동쪽 산기슭에서 반대 편 북서쪽으로 옮겼다.<sup>182)</sup> 구전에 의하면 여느 향교와 마찬가지로 호랑이 출몰이 원인이었다고 한다. 원 자리는 당시 치소의 오른쪽에 있는 목맥산(木麥山)골로 지금도 마을 주민들은 그곳을 향교골 부르고 있는데 목맥산은 매우 산세가 깊고 험하다. 한편 이 시기는 1479년 현의 복현 시기와 맞물리므로 이 과정에서 새롭게 향교 이건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 2) 배치형식

김동수, 담양군의 연혁, 담양군의 문화유산 학술조사 (전남대학교 박물관). 1995년  
전형택·김지민, 전남의 향교(창평향교 편), 전라남도, 1987년 8월  
창평향교지, 담양군지 등

181) 김동수, 담양군의 연혁, 담양군의 문화유산 학술조사(전남대학교 박물관). 1995년

182) 창평향교지, 담양군지 등



창평향교 건물구성은 비교적 단순하다. ‘현(縣)’ 고을에 설립되는 소설위(小設位) 향교라는 여건에 기인한 것이다. 대성전이 정면 3칸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다른 건물의 규모도 크고 화려하지 않다. 문묘에는 대성전, 강학구역에는 명륜당과 동재, 서재가 있으며 지원 건물로서는 고직사가 문묘 우측에 있다. 향교의 주 출입문으로 건립되는 외삼문은 본래 없었고, 문묘의 출입문인 내삼문은 건립되지 않았다. 대신 협문식인 사주문과 일각대문이 외삼문과 내삼문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은 전후방향으로 터가 협소하고 급한 지형적 여건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창평향교는 지형적으로 상당히 급경사지에 위치하고 대지는 종 방향 보다는 횡 방향으로 건물들이 자리하고 있다. 제향(문묘)과 교육공간의 설정은 경사지 입지의 규범인 ‘전학후묘(前學後廟)’으로 형식으로 되어있으나 두 구역의 지반 차는 약 1.2m 로 큰 차이는 없다.

강학구역은 호남지방 향교의 특징인 ‘전당후재(前堂後齋)’인데 대지가 협소한 관계로 동재와 서재가 대성전에 매우 근접해 있어 마치 다른 향교의 동서무인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창평향교의 전체 배치모습은 평면적으로 ‘口자’형과 같은 독특한 형식이다. 사찰로 보면 주불전 앞 좌우에 승방이 있고 그 앞에 누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배치는 아주 드문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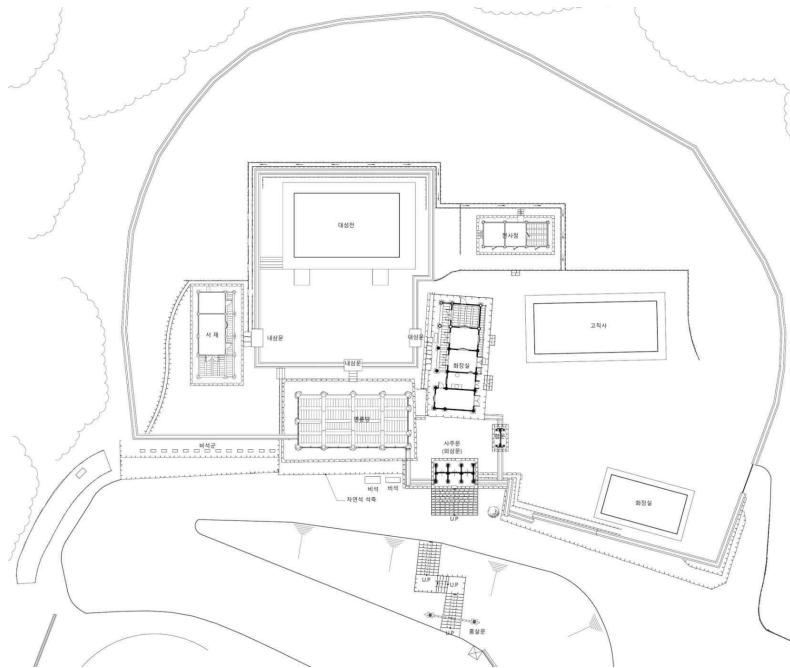


그림 106. 창평향교 배치도, 디딤건축사무소 2019

향교 출입은 명륜당 우측 아래쪽의 사주문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 아래로는 경사가 매우 급해 계단을 설치했다. 그후 이 구역은 진입이 불편하여 최근 2020년에 진입로를 일부 변경했고 사주문 자리에 새로이 외삼문을 건립했다.

창평향교 배치와 구역설정에서 주목되는 시설은 대성전 앞마당의 담장설치다. 즉 문묘의 신성함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대성전 앞마

당 좌·우 쪽, 즉 동·서재 앞에 별도의 담장을 설치했다. 이 담장의 설치의 문묘의 위계를 지키기 위해 문묘와 강학구역인 명륜당을 구획한 것으로 보인다. 담장에는 출입용 일각대문 3동을 명륜당과 동재, 서재 방향에 각각 설치했다.

### 3) 건축적 특징

#### ■ 대성전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이며, 지붕은 양면에 풍관을 단 맞배지붕에 처마는 앞, 뒷면에 겹처마를 설치하였다. 평면은 전면의 열주가 개방되어 벽면이 한 칸 뒤에 위치하는 개방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형식은 사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전면 기둥이 열주식으로 되어 있어 넓고 심연성이 있으며, 기능적으로도 제사를 모실 때 유용하다. 종묘와 성균관 대성전, 그리고 전라도와 제주, 강원도 향교의 대성전 등이 개방형으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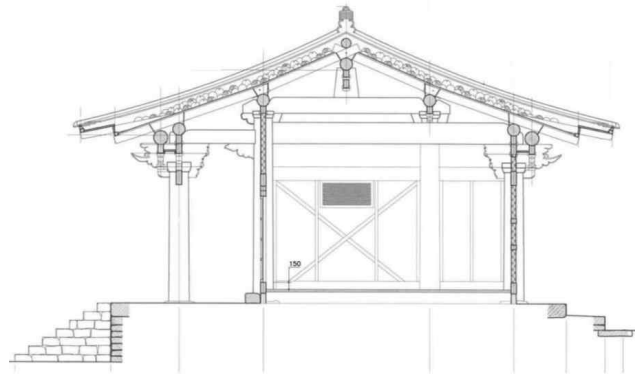


그림 107. 대성전 단면도(지정신청 보고서에 의함)

반면에 보물인 경상도 영천, 성주, 경주향교 대성전은 폐쇄형이다.

정면 주칸 규모는 정칸과 양 협칸 모두 3.950mm로 같으며, 측면은 정칸은 3.650mm, 양 협칸은 1.850mm로 같다. 보 방향과 도리 방향 비는 1 : 1.61로 정면이 측면보다 60% 정도 더 긴 장방형이다.



그림 108. 1987년 당시의 초석

기단은 건립 당시 경사지형을 그대로 이용하여 전면은 1.35m 높이의 막돌허튼층 쌓기로, 양 측면과 후면은 자연석 막돌 외벌대로 쌓았다. 특별한 구조적 특징과 장식은 없으며 다만 전면 기단 상부만은 장대석으로 마감하여 기단부 전체에 안정감을 준다. 건물 진출입을 위해 양 협칸 끝으로 2

곳에 계단을 두었다. 동측 계단은 진입만, 서측 계단은 출입으로 사용하는 의례 규범에 따른 것이다.

모든 14개의 초석 형상은 제각각이나 대체로 상부가 평평한 막돌을 사용했다. 특히 전면 열주 4개는 1987년에는 석탑이나 석등 등 불교관련 석재를 그대로 초석으로 사용하였었는데 현재는 막돌초석으로 교체되어 있다. 아마 유교 건축에서 불교적인 의장요소를 지우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기단 바닥 보수과정에서 바닥면을 높여 좌측 편 일부 초석은 드러나지 않는 것도 있다.

기둥은 모두 원통형 두리기둥을 세웠으며, 굵기는 직경 420~450mm가 된다. 14개 기

등 중 부분적으로 교체 시기가 다른 게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하다. 기둥 윗몸은 창방으로 결구하였고 창방과 주심도리의 장혀 사이로는 주칸 마다 화반을 1구씩 배치하였는데 섬세하고 화려하게 모두 파련각을 하고 있다.

가구는 앞 외진의 퇴주와 후방 내진의 평주 사이에 내고주를 세워 퇴량과 대량을 걸고 대량 위로는 십자로 침차를 짜고 주두를 놓아 내고주 상부와 함께 종량을 엮힌 1고주 5량가로 되어 있다. 종량 위에는 화려하게 초각된 파련대공을 놓았다. 양측면은 어칸의 기둥을 고주로 하여 3량가로 하였다. 전체적인 가구는 전후로 퇴보를 둔 2고주 5량가이다. 보위의 대공은 판대공이다.



그림 109. 대성전 전면 퇴칸 모습

도리는 모두 굴도리다. 각 칸 벽체에는 x자 형으로 큰 가새를 대어 구조적 안정을 취했다.

대성전의 공포형식은 건물 규모에 맞게 간결하며 짜임새가 있다. 기둥 위에 만 공포가 자리한 주심포형식으로 전후면 모두 같다. 공포짜임은 기둥머리에 밑면이 교두형(翹頭形)으로 된 헛침차를 끼우고 헛침차 바깥쪽 위에 소로를 놓아 행공침차를 받고 있다. 제공살미는 끝이 약간 뽕쪽하며 형상은 쇠서와 양서형의 중간 정도로

구분이 모호하다. 초제공 위로는 외목도리에 붙어있는 장식화 된 운공이 있다.

대성전 공포는 향교건축에서 드문 헛침차 구성으로 특이하다. 헛침차가 있으므로 제공살미는 소로받침 만큼 간격이 있는데, 이는 이것이 서로 붙어있는 익공계 공포와 구분이 된다.

창호는 전면 어칸에는 쌍여단이 판장문을, 양 협간은 외여단이 판장문을 설치했다. 또한 다른 향교에서는 보기 힘든 측면에 조그만 창을 양측 중앙 칸 상부에 두어 채광용으로 하였다.

## ■ 명륜당

명륜당은 정면 4칸, 측면 3칸(우측면은 2칸)규모의 맞배집이며 처마는 홑처마이다. 양박공 면에는 풍판을 설치하지 않아 목구조가 잘 드러나 보인다.

내부는 모두 우물마루를 깔 대청 형이다. 일반적으로 명륜당은 강학과 함께 훈도 등의 기숙 처로 양측에 온돌방 1~2개를 두는 것이 보통인데 창평향교에서는 온돌방을 두지 않았다. 아마 동재의 방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전남에서 창평향교 외에 곡성향

교와 옥과향교 명륜당도 온돌방이 없다.

정면 주칸 규모는 정면 2칸은 3.300mm로 같으며, 양 협칸 또한 2.840mm로 같다. 좌측면 어칸은 2.800mm, 양 협칸은 1.500mm로 같다. 정면이 측면보다 110% 정도 더 긴 장방형이다.

전면 기단은 막돌로 낮게 형성되어 있으며, 후면은 지형상 막돌바른 층 석축위에 다시 전면과 같은 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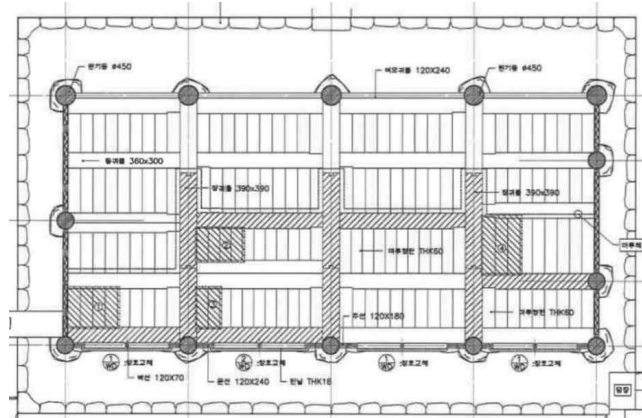


그림 110. 명륜당 평면도(지정신청 보고서에 의함)



그림 111. 정면 우주 초석

으로 낮은 기단을 조성하였다. 초석은 자연석을 거칠게 방형으로 다듬은 것으로 비교적 크다. 초석 중 전면 우주 것만은 정교하게 물딩등을 둔 방형의 다듬들로 형상과 재질이 다른 초석과 다르다. 대성전 본래 초석과 같이 불교 관련건축의 부재로도 여겨진다.

기둥은 모두 원통형 두리기둥을 세웠으며, 굵기는 13본 모두 직경 390mm 가량이다. 이 들 중 부분적으로 다른 것이 육안으로 구별된다. 1783년과 1854년의 명륜당 중수기에도 기둥 보수에 관한 언급이 있다



그림 112. 명륜당의 가구구조

한다. 기둥 윗몸은 창방으로 결구하였고 주두가 놓이고 그 위에 포작을 앉혔다. 창방 위로는 주 칸 모두에 화반이나 소로를 두지 않고 개방시켰다.

건물 중앙부의 가구구조는 전후방 평주 위에 다듬은 장통보 형식의 대량을 걸치고 그 위에 다시 종량을 올린 5량 구조다. 대들보 위의 동자주 상부는 보아지형으로 받치고 있으며 종량 위의 커다란 파련대공 중앙으로는 대성전에 없던 뜬창방을 설치하여 구조미가 드러난다.

우측면 벽체 가구는 3평주 5량구조이며 종량위로는 판대공을 놓아 종도리 장혀를 받고 있다. 좌측면은 2고주 5량가로 우측면과 구조를 달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량과 동자주 등 수직부재와 대량 등 수평부재가 만나는 하부에는 잘 조각된 보아지를 두어

부재의 맞춤에 잘 대응한 의장성을 보인다. 본 건물의 가구는 짜임새가 강직하며, 특히 풍관이 없이 그대로 노출된 측면의 가구는 단순하지만 안정되고 균형미가 있다.

명륜당 공포는 대성전과 거의 유사한 주심포 형식으로 전후면 모두 같다. 부재의 짜임은 기둥머리에 헛침차를 끼우고 헛침차 바깥쪽 위에 소로를 놓아 행공침차를 받고 있다. 대성전에서는 헛침차 밑면이 단순한 교두형이나 명륜당은 정교하게 곡선으로 초각을 하여 의장성이 돋보인다. 전체적으로는 포작이 전면으로 나와 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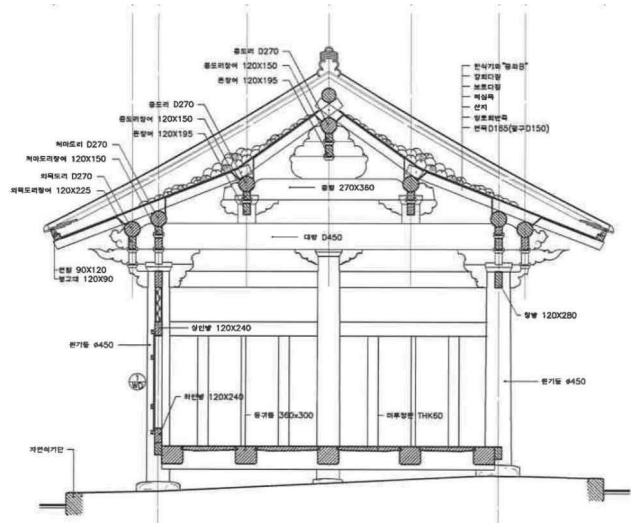


그림 113. 명륜당 종단면도(지정신청 보고서에 의함)



그림 114. 명륜당 파런대공



그림 115. 명륜당 공포형식

처마의 하중을 잘 떠 받고 있다. 제공살미는 끝이 대성전 보다 더 뾰족하며 형상은 쇠서형이다. 초제공 위로는 외목도리에 붙어있는 장식화 된 운공이 있다.

창평향교 명륜당 주심포양식은 전국 향교 명륜당 건물로는 강직하고 건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수작이다. 여러 자료들에 의하면 1600년대 정도에 현재의 모습으로 안착된 것이라 생각된다. 비록 작은 고을의 명륜당이었지만 수령의 높은 관심과 고을 목수의 뛰어난 안목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된다.

창호는 후면에는 쌍여닫이 판장문을 달았으며, 전면은 모두 개방시켰다. 판장문은 하나의 판재가 아닌 4개의 널은 띠장으로 연결한 널 판문이다. 울거미가 매우 크며 그 사이에는 세

로 깃대를 세워 마치 영남지방에서 볼 수 있는 영쌍창과 같은 모습인데 이는 구조적으로 문의 안정성과 외풍 등에 적응한 것 같다. 한편 우측면에도 후면과 같은 창호 흔적이 있는데 현재는 벽체로 마감됐다.

대성전을 향하는 전면은 창호 없이 모두 개방되어 있다. 이는 호남지방 향교에서는 극히 드문 사례다. 호남지방은 대청 전면에 창호를 설치한 반면 영남지방에서 거의 개

방시켰기 때문에 이례적인 예라고 하겠다.

### [붙임 3] 지정 가치 및 근거 기준

창평향교의 건립연대는 읍지에 1399년(정종 1)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분명하지는 않다. 그러나 『동국여지승람』(1488)에도 전라도 57개 향교중 하나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1689년(숙종15) 현령 박세웅(朴世雄)에 의한 대성전과 명륜당의 대대적 수리에 관한 기록이 있다.

1600년대 이후 창평향교 일련의 건축적 사실(중수)을 잘 보여주는 것은 『학교등록(學校謄錄)』과 향교에 보존되어 있는 현판기(懸板記)다. 특히 대성전과 명륜당의 중수 내용이 현판기에 있으며 두 건물의 현재 모습도 1600년대에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향교의 배치형식은 ‘口자’형으로 독특하다. 대성전 앞에 마당을 담장으로 구획하고 그 밖의 좌우에 東西齋를 두고 축선에서 약간 치우쳐 명륜당을 두었다. 사찰 주불전 앞 좌우에 승방이 있고 그 앞에 누각이 있는 것과 유사하다. 향교건축에서 이러한 배치는 보기 힘든 형식이다.

강학구역은 호남지방 향교의 특징인 ‘전당후재(前堂後齋)’형식인데 대지가 협소한 관계로 동재와 서재가 대성전에 매우 근접해 있어 마치 다른 향교의 동서무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창평향교의 전체 건물의 배치형식은 평면적으로 ‘口자’형식이다.

대성전의 공포는 향교건축에서 밀면이 교두형(翹頭形)으로 된 헛첨차 구성이 특이하다. 헛첨차가 있으므로 상부 살미는 소로받침 높이만큼 간격이 생기는데, 이는 서로 붙어있는 익공계 공포와 구분이 된다. 헛첨차 바깥쪽 위에 소로를 놓아 행공첨차를 받고 있다. 초제공 위로는 외목도리에 붙어있는 장식화 된 운공이 있다. 다만 제공의 쇠서가 익공화 경향을 보이는 현상만큼은 피할 수 없다. 헛첨차 구성은 수덕사 대웅전, 강릉 객사문, 송광사 하사당 등이고, 나주향교 대성전도 창평향교 대성전 공포와 전체 짜임이 유사하다.

기둥 윗몸은 창방으로 결구하였고 창방과 주심도리의 장혀 사이로는 주칸 마다 화반을 1구씩 배치하였는데 섬세하고 화려하게 모두 파련각을 하고 있다.

창평향교 명륜당 주심포양식은 향교 명륜당 건물로는 강직하고 건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수작이다. 1500년대 후반, 또는 향교 중수기 등 여러 자료로 보면 1600년대 정도로 여겨진다. 비록 작은 현의 고을 명륜당이었지만 당시 수령의 큰 관심과 고을 목수의 높은 안목으로 이루어진 작품으로 여겨진다.

명륜당 부재의 짜임은 기둥머리에 헛첨차를 끼우고 헛첨차 바깥쪽 위에 소로를 놓아 행공첨차를 받고 있다. 대성전에서는 헛첨차 밀면이 단순한 교두형이나 명륜당은 정교

하게 곡선으로 초각을 하여 장식화의 의지가 나타난다. 전체적으로는 포작이 전면으로 나와 긴 처마의 하중을 잘 떠 받고 있어 구조적 안정을 이루고 있다. 채공살미는 끝이 대성전 보다 더 뽀족하며 형상은 쇠서형이다. 초제공 위로는 외목도리에 붙어있는 장식화 된 운공이 있어 더욱 의장성이 돋보인다. 특히 아름답고 튼실한 것은 잘 새겨진 파련대공이다.

본 창평향교의 대성전과 명륜당은 배치형식의 특이성, 목조건축의 우수한 조형성, 주심포 짜임, 가구구조의 튼실함, 향교건축 형식과 건축사적 의미 등을 고려했을 때 국가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0.07.22.	대상문화재	담양 창평향교 대성전, 명륜당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속	○○○○○학교	직위(직책)	문화재전문위원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담양 창평향교 대성전, 명륜당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세부내용 별첨 참조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세부내용 별첨 참조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9월 29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1.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 환경

담양군 고서면 교산리 교촌마을 뒤에 위치한 창평향교는 조선시대 1399년에 창건하여 옛 창평현의 구심점이 된 교육시설인 향교건축이다. 창평향교가 있는 고서면은 담양군 남서부에 위치하여 북쪽으로 봉산면(鳳山面), 남쪽으로 광주광역시와 남면(南面), 동쪽으로 창평면(昌平面), 서쪽으로 광주광역시와 접하고 있다. 창평향교가 위치한 곳은 옛 창평현 읍터인 지금의 창평면 소재지에서 서남쪽으로 2km 정도 떨어진 전남 담양군 고서면 교촌길 43-11(교산리 138)번지이다. 향교는 관학으로서 수령칠사(守令七事) 중 ‘학교흥(學校興)’ 지방민 교화라는 책무 때문에 치소와 5리 이내에 향교를 두었다.<sup>183)</sup> 실제로 치소에서 옛길로 하면 약 1.5km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 창평은 광주·담양·동북·장성 등지와 연결되는 도로망이 발달하였다. 창평향교는 담양군청에서 16.6km 거리로 군청 남쪽으로 담양공용버스터미널 중앙로 죽향대로(29번 도로) 장성 광주 방면에서 11.6km 이동 후 고서 창평 소재원 방면으로 우측도로 2.3km 가서 가사문학로 광주댐 소재원 화순온천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900m 가서 교촌길 좌회전 후 586m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창평은 무등산에서 북산을 거쳐 에서 뺨은 산줄기가 동서로 감싸면서 북쪽으로 뺨쳐 있고, 호남정맥이 까치봉에서 소재원으로 흐르고 계속 뺨어 흐르다 장원봉으로 흘러 식영정으로 흐르며 다시 이어져 명옥현 원림까지 흐르고 있다. 창평향교는 명옥현 원림으로 흐르는 맥이 서쪽으로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형성된 구릉에 자리하고 있다. 수계는 그 사이에 견암천(甄巖川)과 고산천(高山川)이 넓은 퇴적평야를 만들면서 영산강의 지류인 동강(桐江)에 합류하고 있는 곳에 있다. 퇴적평야를 이루는 동강유역에는 외창(外倉)이 있었다. 무등산 북쪽으로 뺨은 맥이 계곡을 이루면서 증암천을 이루고 창평천과 합류하여 영산강으로 흐르고 있다. 향교 뒷산은 구릉성 산지이며 창평향교에서 앞으로는 안산을 바라보고 있으며 앞으로는 증암천이 흐르고 있다. 동남쪽은 월봉산(454m)이나 까치봉 그리고 덕봉산에 이르는 산지가 발달되어 있고, 그 밖의 주변은 대체로 낮은 산지와 퇴적평야를 이루고 있다. 창평향교의 뒷산은 구릉성산지이고 전면으로는 증암천이 흐르는 넓은 들녘이 펼쳐있다. 전형적인 배산임수 형국으로 이러한 입지는 향교건축의 최적의 입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곳에 창평향교가 자리한 것은 지명이 공자의 탄생지와 같고 산수가 수려하며 지령인결하는 명승지지였기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창평면(昌平面)은 전라남도 북쪽에 위치한 담양군 내 12개 읍면중 하나다. 창평은 조선시대 현 담양군 남쪽지역인 창평면, 고서면, 대덕면, 남면, 수북면 등을 관할한 독자적인 고을(현)로 자리했다. 창평은 백제 때는 굴지(屈支)라 하였고, 757년(경덕왕 16) 기양(祈陽)으로 개칭되고 무주(武州)의 영현이 되었으며, 940년(태조 23)에 창평(혹은 鳴平)으로 개칭되었다. 고려 초에는 나주목의 임내였다가 중기에 한 현리(縣吏)가 남적(南賊) 이연년

183)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9권 전라도(全羅道) 창평현(昌平縣). 조현(치소)의 북쪽 5리에 있다.

(李延年)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웠으므로 승격시키고 현령관을 설치하였다. 1391년(공양왕 3) 광주목 임내 장평부곡(長平部曲)과 갑향(甲鄉)이 편입되었고, 조선 초기에는 직촌(直村)으로 편입되었다.

1474년(성종 5) 현인 강구연(姜九淵)이 현령 전순도(全順道)를 능욕하는 사건이 발생한 창평현은 폐현되어 광주에 예속되면서 창평향교도 일시 폐교되었다. 그 후 1478년(성종 9) 다시 현이 복구되면서 창평향교도 복구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창평현은 정조 17년(1793)에 읍치를 고산(高山), 현 고산면 고읍리 덕촌마을 지역에서 반용산 아래인 동면 삼지천리로 옮겼다. 창평현의 치소가 이전하게 된 근거로는 여지도서(1757-1765)에 치소의 왼쪽 가까운 거리에 향교가 표기되어 있으나 치소 이전 후 작성된 전라도 지도(1872)의 창평현 지도에는 향교의 위치에서 좌측 상단 북서쪽에 치소가 있고 주변의 산과 하천 그리고 건물 구성 등이 묘사되어 있다. 창평현 치소는 고산면 고읍리에서 1793년에 객사와 동헌 등 관아 전체를 옮기고 있어 치소와 약 6.3km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치소를 이전한 이유는 수재가 빈번하여 이건을 했다고 전해지는데 지형적으로도 후면의 높은 산들이 병풍처럼 고을을 감싸고 있어 유역면적이 넓어 치수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도 마을 입구에는 1600년대 재임했던 현령들의 선정비와 불망비 등 여러 개가 한데 모아 자리하고 있다. 1895년 창평은 지방관제 개편에 의해 남원부 산하 20개 군 중의 하나가 되었고, 1896년 8월에는 전라남도 소속 창평군이 되었다. 1914년에 창평군이 담양군과 합병되면서 담양군 내 12개 읍면 중 하나가 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전남 담양군 고서면 교촌마을 뒤쪽 언덕에 자리 잡은 창평향교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읍지에 1399년(정종 1)에 창건하여 임진왜란으로 일부가 소실된 후 1620년(광해군 12) 중수되었다. 이후 대성전과 명륜당은 1689년(숙종15) 현령 박세웅에 의해 대성전과 명륜당이 대대적인 수리를 거치고, 1783년(정조 7) 현령 이의백에 의해 명륜당의 중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후 1854년 명륜당, 1879년, 1900년 대성전, 1971년 대성전, 1976년 대성전 등 여러 차례 중수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창평현은 작은 고을이지만 창평 면소재지에서 남서쪽에 있고 지형적으로는 무등산 북변 산줄기와 증암천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산수를 배경으로 송강 정철, 양산보, 양자징 등과 같은 유학자를 배출하면서 가사문학이 크게 발전하고 있다. 주변에는 교육기관으로서 수남 학구당, 수북 학구당, 죽림재 등이 발달했고, 정자문화권을 이루어 송강정, 식영정, 명옥헌, 소쇄원 등도 융성하고 있다. 현재에도 ‘창평향교 은행나무 학교’라는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을 통해 인성교육을 이어오고 있다.

이상과 같이 치소가 옮겨짐으로 인해 향교가 변화가 없이 온전히 보존될 수 있었으며 주변에는 수려한 산수를 배경으로 가사문학과 정자문화권 내에 역사문화 환경을 이루고 있다.

## 2. 연혁·유래 및 특징

창평향교(昌平鄕校)는 읍지(邑誌)에 1399년(정종 1)에 창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확인하기는 어렵다. 창평이 고려 중기 이후부터 독립적인 현이었고 조선 초까지 이어져 일읍일교(一邑一校) 원칙에 따라 창평향교에도 학교를 세웠다면 기록이 정확할 것으로 추정된다. 성종 대에 완성된 『경국대전』 외관직제에 의하면 창평은 현령(종5품)이 파견된 고을이었고, 『동국여지승람』(1488)에도 전라도 57개 향교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다. 성종 10년(1479)에 당시의 치소(고읍리 중심 자리)의 동쪽 산기슭에서 반대편 북서쪽으로 옮겼는데 이건의 이유는 알기 어려우나 호랑이 출몰이 원인이었다고 전하고 있다.<sup>184)</sup> 이는 현의 복현 시기와 같으므로 복현되면서 이건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창평향교는 성묘중수기(1689)에 따르면, 1620년(광해군 12)에 중수하였다는 기록을 통해 임진왜란으로 규모는 알기 어려우나 많은 피해를 입은 후 중수된 것으로 보인다. 1686년 현령 박세웅이 벽이 갈라지고, 기와가 파손되어 비가 새고, 상량보와 서까래가 썩어가는 대성전을 보수하기로 결정하고 전라감사를 거쳐 조정에 상계 후 승낙을 받아 1689년 3월 초부터 4월 말까지 향교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성전의 보수 규모는 전면 기둥은 존치하고 후면 기둥은 신재로 교체, 서까래 교체, 벽체 보수, 단청 등이고, 남은 비용으로 명륜당, 동·서재, 존경각, 양현고 등을 수리하고 있다. 1869년 후면 기둥을 교체하는 중수로 현재의 대성전의 격식을 갖춘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자리를 변경하면서 규모의 변화가 있었는지 알기 어려우나 이전의 가구 구조를 유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명륜당 중수기(1783)에 따르면, 1780년 7월 현령 이의백(李宜白)이 부임 후 명륜당 창건이 200년이 넘었고 수십 년 동안 퇴락하여 보수하기로 하여 한 달 동안 기둥과 서까래 보수, 변와 공사 등이 있었다. 그렇다면 현재의 명륜당은 1689년은 간단한 수리였고, 1500년대 후반의 가구구조와 공포 등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명륜당 중수기(1854)에 따르면, 1854년 현령 정기대(鄭基大)가 백성에게 부담 없이 기둥, 서까래, 툇마루를 보수하고 창문까지 새로 교체하고 단청까지 한 달 만에 마쳤다고 한다. 주요 건물 퇴락을 우려하여 보수를 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백성에게 부담 없이 한 달 만에 간단한 보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명륜당 중수기(1879)에 따르면, 현령 임백헌(任百憲)의 명륜당을 한 달 만에 보수했다고 한다.

이상과 같이 명륜당 중수기(1783)에 명륜당은 1689년 간단한 수리였고, 1500년대 후반의 가구구조와 공포 등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성묘중수기(1689)에 1620년(광해

---

184) 원 자리는 당시 치소의 오른쪽에 있는 목맥산(木麥山)골로 지금도 마을 주민들은 그곳을 향교골 부르고 있는데 목맥산은 매우 산세가 깊고 험하다.

군 12)에 중수하였고, 1689년(숙종 15) 대성전은 후면 기둥을 교체하고, 명륜당의 수리하고 있는데 자리를 변경하면서 규모의 변화가 있었는지 알기 어려우나 이전의 가구 구조를 유지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기록을 종합해 보면, 현재의 모습은 1689년에 갖추어진 것으로 가구구조와 공포 등은 1500년대 후반까지 연대가 올라갈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변화는 양식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서 앞으로 연구에 의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1900년 대성전 중수, 1934년과 1954년에 향교 전반 보수, 1971년과 1976년 대성전 중수가 있었다. 이후 1981년 대성전 기와 보수, 1984년 명륜당 보수, 986 대성전 및 서재 보수, 1988년 대성전 보수, 1993년 명륜당 마루 보수, 2000년 대성전 뒤 석축정비와 명륜당 마루 보수, 2001년 명륜당 보수, 2005년 대성전 박석 깔기, 2010년 대성전 기와 보수, 2015년 대성전 정밀안전진단 등이 있었으나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시대 창평현은 소설위에 해당되어 대성전에 공자와 사성(안자, 자사, 증자, 맹자), 송조 6현 중 정이, 주돈이, 정호, 주희 등 4인, 그리고 우리나라 학자 18인 등 모두 27위를 배향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949년 이후에 현재의 설위로 변화되었다. 창평향교 제례는 춘추중월상정(春秋仲月上丁)에 석전제(釋奠祭)에 약 90명 정도가 참여하였는데 고령화되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초헌관은 담양군수가 창평향교와 담양향교를 춘추에 따라 번갈아가며 맡고 있다.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유림 15명 정도가 참석하여 삭망분향제(朔望焚香祭)를 올리고 있다.

창평향교는 현(縣)의 소설위(小設位)이고 경사가 심한 지형에 수평적으로 긴 제비집과 같은 협소한 터에 자리하여 규모가 크지 않다. 급경사인 지형 때문에 중심이 얇고 횡축에 의해 조성되고 있다. 제향영역인 대성전과 강학영역에 명륜당과 동재, 서재가 있고, 고직사가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의 외삼문은 없었고, 제향영역은 묘정을 두고 담장을 둘렀으며 전면과 양측면에 일각대문이 있다. 배치는 전학후묘(前學後廟) 형식으로 협소하여 좁은 영역에 밀집되어 있지만 영역 간의 높이 차는 약 1.2m 정도로 구분되고 있다. 강학영역은 전당후재(前堂後齋)의 배치를 하고 있으며 대성전 묘정의 좌우에 동재와 서재가 배치되어 동서무와 같이 보인다. 창평향교의 배치는 ㄷ자형을 이루고 있는 사동중정형으로 담장에 의해 영역이 구분되는 독특한 배치를 하고 있다. 좁은 대지의 여건에 맞게 담장으로 제향영역과 강학영역을 구분하여 영역별로 독립성을 주면서 제향공간의 위계를 확보하고 있다.

1)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풍판을 설치한 맞배지붕 겹처마이다. 대성전은 전퇴를 갖는 개방형으로 의례를 수용하면서 의례공간의 격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사당건축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정면 주칸은 정칸과 양 협칸 모두 3,950mm이고, 측면 정칸은 3,650mm, 양 퇴칸은 1,850mm이다. 보 방향과 도리 방향비는 1: 1.61로 긴 장방

형이다.

기단은 전면 1.35m 높이의 막돌허튼층 쌓기이고 양 측면과 후면은 외벌대의 자연석 막돌 쌓기이다. 전면 기단 상부는 장대석으로 마감하여 갑석과 같이 누르면서 안정감을 주고 있다. 기단에는 양 협칸 끝에 조계와 서계를 두고 있다. 기단 위에 초석은 상부가 평평한 자연석 초석이다. 전면 초석은 석탑이나 석등 등의 부재를 사용하였다<sup>185)</sup>고 하는 것을 보면 창건 연대와도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초석 위에 직경 420~450mm의 두리기둥을 세우고 있다. 1689년 중수기문에 후면 기둥을 교체했다고 하는데 후면 기둥 2본이 당시의 것으로 추정된다. 기둥머리는 창방과 결구하고 창방과 주심도리의 장혀 사이에 주칸에 화반을 1구씩 배치하고 있다. 상부에 소로를 둔 화반은 화려하게 조각한 파련각으로 의장성이 드러나는데 승장이 참여하였음을 추정하게 한다.

가구(架構)는 내고주를 세워 대들보와 뒷보를 걸고 대들보 위로는 십자로 침차를 놓고 주두를 놓아 내고주와 종보를 짜서 종보 위에 초각된 파련대공을 놓고 종도리를 받치고 있다. 굴도리의 1고주 5량가이고, 측면 가구는 2고주 5량로 보 위에 판대공을 설치하고 있다. 화려한 파련대공의 의장성은 화반과 같이 승장이 참여하였음을 추정하게 한다.

공포는 주심포 형식으로 전후면 동일형으로 기둥머리에 밑면이 교두형으로 된 헛침차를 설치하고 헛침차 바깥쪽 위에 소로를 놓아 행공침차를 받고 있다. 제공살미는 끝이 약간 뽕쪽하고, 양서에 가까운 수서와 양서의 중간 정도의 쇠서이다. 초제공 위에는 장식화 된 운공이 있다. 대성전의 헛침차는 향교건축에서 보기 드문 형식으로 고식이 드러나고 있다. 헛침차는 수덕사 대웅전, 강릉 객사문, 송광사 하사당 등에 나타난다. 주심포계 양식에 익공식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나주향교 대성전에도 헛침차가 나타나는데 나주향교보다 고식이 드러나고 있다고 추정된다. 벽체에는 각 칸마다 큰 가새를 사용하여 횡력에 대한 응력을 보강하고 있다. 창호는 전면 정칸에는 쌍여닫이 판장문, 양 협칸에 외여닫이 판장문을 설치하고 있다. 양측면 정칸 상부에 장방형의 격자창을 채광하기 위해 설치하고 있다.

2) 명륜당은 묘정에서 보았을 때 정면 4칸, 측면 3칸(우측면은 2칸) 규모의 풍관이 없는 홑처마의 맞배집이다. 명륜당에는 일반적으로 양측에 온돌방 1~2개를 두는데 온돌방을 두지 않고 있다. 가구 구성상 우측면에 측면 1칸 규모로 내어달았을 것으로 추정되나 언제 변경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정면 주칸 규모는 정면 2칸 3,300mm, 양 협칸 2,840mm 정도이다. 좌측면 정칸은 2,800mm, 양 협칸은 1,500mm이고, 우측면은 각 2,900mm이다. 보 방향과 도리 방향비는 1:2.11로 정면이 긴 장방형이다. 후면은 지형 상 자연석바른층쌓기하고 그 위에 전후면 자연석을 낮게 조성하고 있다. 초석은 비교적 큰 자연석을 거칠게 네모나게 다듬은 것으로 전면 우주에 정교하게 쇠시리한 방형의 다듬은 초석으로 불교건

185) 향교 근처의 심향사(尋香寺)에서 가져온 초석이라고 한다.

축 관련 부재로 추정된다. 그 위에 직경 390mm 정도의 두리기둥을 세우고 있고, 1783년과 1854년의 명륜당 중수기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여러 차례 보수한 것이 확인된다. 기둥머리는 창방으로 결구하고 그 위에 주두를 놓고 공포를 배치하고 있다. 창방 위로는 주 칸 모두에 화반이나 소로 없이 개방되어 있다.

가운데 가구는 전후면 평주 위에 다듬은 대들보(450mm)를 걸고 그 위에 동자주를 세우고 종량(270mm×360mm)과 결구한 후 종량 위에 파련대공을 세워 뜯창방을 결구하고 종도리를 받치고 있는 통칸 5량가이다. 좌측면 가구는 2고주 5량가이고, 가운데 가구와 다른 것은 종량 위에 사다리꼴 판대공을 설치하고 있다. 우측면 가구는 3평주 5량가이고, 가구로 보아 온돌방을 내어달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둥머리와 대들보가 연결되는 부분을 보강해주는 보아지는 초각이 정교하고 의장적으로 뛰어나다. 작은 규모의 건물이지만 가구가 짜임새가 있고 수려하다.

명륜당 공포는 주심포 형식으로 전후면 동일형으로 대성전과 유사하다. 기둥머리에 교두형으로 된 헛첨차를 설치하고 헛첨차 바깥쪽 위에 소로를 놓아 행공첨차를 받고 있다. 대성전의 헛첨차 밑면은 단순한 교두형이나 명륜당은 정교하게 초각하여 의장성이 수려하고, 보 방향으로 길게 나와 장혀받친 외목도리를 받고 있으며 날렵하고 수려하게 보인다. 제공살미는 끝이 대성전 보다 더 뽀쪽하며 형상은 쇠서형이다. 제공살미는 대성전보다 끝이 뽀쪽하고, 양서형의 쇠서이다. 초제공 위에는 장식화 된 운공이 있다. 명륜당의 헛첨차는 향교건축에서 보기 드문 형식으로 고식이 드러나고 있다. 헛첨차는 수덕사 대웅전, 강릉 객사문, 송광사 하사당 등에 나타나는데, 주심포계 양식에 익공식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나주향교 대성전에도 헛첨차가 나타나 고식이 드러나고 있다고 추정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체적으로 1689년에 갖추어진 것으로 보이나 가구구조와 공포 등은 1500년대 후반까지 연대가 올라갈 것으로 추정된다.

창호는 묘정에서 보았을 때 전면은 기둥을 노출시킨 개방형이고, 후면 주칸에만 쌍여닫이 판문을 설치하고 있다. 판문은 4개의 넓은 띠장으로 연결한 널판 형식이며, 판문 가운데 설주를 설치한 영쌍창은 고식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전면 개방형이나 영쌍창 등은 호남 지방 향교에서 찾아보기 힘든 사례로 지역적이고 역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우측면에 창호 흔적이 있는 데 현재는 벽체로 마감한 것으로 보아 방을 내 달았을 것으로 추정되나 언제 변경되었는지는 연구가 필요하다.

### 3.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창평향교 대성전과 명륜당의 역사적인 가치는 다음과 같다. 창평현 치소는 고산면 고읍리에서 1793년에 객사와 동헌 등 관아 전체를 옮기고 있어 치소와 향교와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무등산 북쪽 줄기를 배경으로 정철, 양산보, 양자징 등과 같은 유학자를 배출하면서 가사문학, 교육기관(수남 학구당, 수북 학구당, 죽림재 등), 정자문화(송강정, 식영정, 명옥헌, 소쇄원 등) 등이 발달하여 역사문화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었다. 창평향교는 조선시대 창평현에 위치한 교육시설로 1399년 창건된다. 임진왜란으로 일부가 소실된 후 1620년(광해군 12) 중수되었다. 이후 대성전과 명륜당은 1689년(숙종15) 현령 박세웅에 의해 대성전과 명륜당이 대대적인 수리를 거치고, 1783년(정조 7) 현령 이의백에 의해 명륜당의 중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후 1854년 명륜당, 1879년, 1900년 대성전, 1971년 대성전, 1976년 대성전 등 여러 차례 중수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의 모습은 중수기를 통해 1689년에 갖추어진 것으로 가구구조와 공포 등은 1500년대 후반까지 연대가 올라갈 것으로 추정되고 이후의 보존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드러나고 있다. 중수 당시 경제, 문화, 사회적인 배경과 백성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노력 등이 드러나고 있다.

창평향교 대성전과 명륜당에 대한 학술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 창평향교는 지명이 공자의 탄생지와 같고 지형적으로는 무등산 북변 산수가 수려하고 증암천이 흐르고 있어 지령인 걸하는 명승지지로 전형적인 배산임수 형국의 입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창평향교 대성전은 현(縣)으로 소설위(小設位)에 맞는 규모나 치장 등을 보이지만 사당건축의 규범을 잘 갖추고 있다. 석탑이나 석등 등 불교관련 석재 등을 통해 학술적으로 조선시대 유불교체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배치는 전학후묘(前學後廟) 형식이고, 강학영역은 호남지방의 특징인 전당후재(前堂後齋)이다. 대지가 협소하여 동재와 서재가 중첩되고 있어 제향영역이 틈口자를 이루고 있는 사동중정형의 독특한 배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형과 지형에 따른 배치와의 관계 그리고 공간의 중첩에 따라 영역별로 독립성을 부여하면서 전체를 통합해가는 공간구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현의 향교이지만 치소 이전에 따라 고식을 잘 보존하고 있어 학술적 가치가 있다. 교두형으로 된 헛첨차 등은 향교에서 보기 드물고 고식을 보여주고 있다. 헛첨차는 수덕사 대웅전, 강릉 객사문, 송광사 하사당 등에 나타나고, 주심포계 양식에 익공식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나주향교 대성전에도 헛첨차가 나타나는데 나주향교보다 고식을 보이고 있다고 추정되는 등 학술적인 가치가 크다고 판단된다.

창평향교 대성전과 명륜당의 구조와 조형적인 특징에서 예술적인 가치는 다음과 같다. 공포는 향교건축에서 보기 드문 헛첨차를 둔 주심포 양식이다. 기둥머리에 밑면이 교두형으로 된 헛첨차를 설치하고 헛첨차 바깥쪽 위에 소로를 놓아 행공첨차를 받고 있다. 제공살미는 끝이 약간 뽕쪽하고, 양서에 가까운 수서와 양서의 중간 정도의 쇠서이다. 초제공 위에는 장식화 된 운공이 있다. 소로를 둔 화반은 화려하게 초각한 파련각이고 화려한 파련대공은 의장성이 드러나는데 승장이 참여하였음을 추정하게 한다.

창평향교 명륜당은 비록 규모는 작지만 온돌방이 없는 전면 개방형의 평면(우측면에 측면 1칸 규모로 내어달았을 것으로 추정되나 언제 변경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2고주 5량가와 3평주5량가 그리고 통칸 5량가 등 가구의 구성, 보아지의 초각이 정교한 의장성, 작은 규모의 건물이지만 짜임새 있는 가구, 보와 도리 등 부재의 치목 상태, 헛침차 교두형의 대성전과 달리 정교한 초각과 수려한 의장성, 대성전보다 날카로운 양서형의 제공살미, 호남지방에서 보기 힘든 판문 가운데 설주를 설치한 영쌍창 등은 창평향교 명륜당의 특징이다. 창평향교의 대성전과 명륜당을 통해서 주심포양식과 헛침차 등의 차이가 분명히 비교가 되며 의장성이 뛰어나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창평향교 대성전과 명륜당은 역사적, 학술적, 조형예술적인 측면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 지정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문화재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기를 바란다.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0.07.22	대상문화재	담양 창평향교 대성전, 명륜당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전통건축
	소속		직위(직책)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담양 창평향교 대성전, 명륜당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10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1. 지정가치 및 근거 기준

### 가. 역사적 가치

창평향교(昌平鄕校) 창건 연대는 읍지(邑誌)에 1399년(정종 1)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분명하지는 않다. 그러나 창평이 고려 중기 이후부터 독립적인 현으로서 자리했고 이는 조선 초까지 이어진 점으로 미루어 보아 조선 초 ‘일읍일교(一邑一校)원칙, 즉 모든 고을에 학교를 세우는 당시 통치 규범에 따라 1399년 창건도 맞는 것으로 보여 진다. 창평향교는 임진왜란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당시 어떤 건물이,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다만 ‘성묘중수기’(1689)에 1620년(광해군12)에 중수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이때 임란 시 파괴된 건물(대성전)의 보수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1600년대 이후 창평향교 일련의 건축 사실(중수)을 잘 보여주는 것은 『학교등록(學校騰錄』과 향교에 보존되어 있는 현판기(懸板記)다. 특히 대성전과 명륜당의 중수내용이 현판기에 있으며 두 건물의 현재 모습도 1600년대에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주요 보수 이력을 알 수 있는 4개의 중수기 현판 기문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성묘중수기(1689년, 숙종15)

현령 박세웅(朴世雄)에 의해 향교 중수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있다. 그 요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경신년(1620) 보수와 개축 사실이 있고 그 이후 대성전이 퇴락하여 고을 선비들의 한탄이 있음. 당시 보수는 임란 시 파손 된 부분을 수리한 것으로 여겨짐.
- 1686년 겨울 현령 박세웅 부임. 벽이 갈라지고, 기와가 파손 되 비가 새고, 보와 서까래가 썩어가는 대성전의 상황을 현장에서 깊이 인식하고 보수하기로 결정. 전라감사를 거쳐 조정에 상계 후 승낙을 받음
- 1689년 3월초부터 4월 말까지 향교 보수. 특히 대성전의 구체적 보수 사실을 언급 (전면 기둥은 존치하고 후면 기둥은 신재로 교체, 서까래 교체, 벽체 보수, 단청 등)
- 남은 비용으로 명륜당, 동·서재, 존경각, 양현고도 수리.

1689년 보수는 기둥과 서까래를 교체할 정도의 큰 중수로 여겨져 이때 현재의 대성전 모습이 완성된 것으로 여겨짐. 또한 당시 보수는 그 전의 가구구조와 공포 등을 그대로 두고 부재 교체와 번와, 단청 등으로 마무리 했을 가능성도 있다.

#### 나) 명륜당 중수기(1783년, 정조 7)

1780년 7월 현령 이의백(李宜白)이 창평현 수령으로 부임 후 바로 향교에 들러 명륜당의 퇴락함을 보고 수리하기로 함. 중수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명륜당 창건이 200년이 넘었고 퇴락한지 수 십 년이 됨. 보와 서까래가 썩고 기와가 부서져 겨우 한 모퉁이에서 비를 피할 정도임
- 기둥과 서까래 보수, 번와 공사
- 공사는 한 달이 걸림.

당시 보수는 그 전의 가구구조와 공포 등을 그대로 두고 부재 교체와 번와 등으로 마무리 했을 가능성이 높다. 명륜당 창건이 200년이 넘는 다고 했는데 전체적인 건물의 형태와 규모는 건립 당시(1500년대 후반)의 모습일 가능성이 있다.

#### 다) 명륜당 중수기(1854년, 철종 5)

1854년 현령 정기대(鄭基大)가 창평현 수령으로 부임 후 바로 향교에 들러 명륜당의 퇴락함을 보고 수리하기로 함. 중수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명륜당과 재실은 물론 대성전의 퇴락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으나 그간 재력이 없어 보수를 하지 못했음
- 정기대 현령의 부임으로 백성에게 부담 없이 공사를 한 달 만에 마침
- 기둥(櫳), 서까래(桷), 뒷마루(欄)를 보수하고 문열굴(楣)까지 새로 교체. 단청까지 새로 하여 화려하기가 옛 모습임.

이 중수는 뒷마루, 단청, 대성전 등의 용어가 나오므로 비록 명륜당 중수기이지만 대성전도 보수했을 가능성이 있음.

#### 라) 명륜당 중수기(1879년, 고종 16)

이 중수는 현령 임백헌(任百憲)의 도움으로 이루어 졌고 중수기에 특별한 건축적인 언급은 없고 퇴락한 명륜당을 보수했다는 단순한 기록만 있다. 중수기 대부분이 군자, 성현, 교육 등 유교의 일반적 규범을 중시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 조선 말기에도 향교에 대한 지역 유림들의 기대가 몹시 컸 음을 알 수 있다.

- 명륜당이 몹시 퇴폐하여 새로 보수함.
- 공사는 한 달 만에 마침.

이상의 기록에서 보면, 본 향교는 이건의 기록이 없다. 대성전은 1620년에 개축된 이후로 1689년 중수 기록이외는 마땅한 기록이 없다. 이는 중건 당시의 건물의 형태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명륜당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두 건물의 규모와 구조, 양식 등이 당시에 정착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명륜당 현판에 “辛味二月”이라고 양각되어 있는데 이는 위의 기록들과 비교해보면 가장 신빙성이 높은 것은 1691년으로 보인다. 성묘중수기(1689년)에 의하면 “남은 비용으로 명륜당, 동·서재, 존경각, 양현고도 수리”했다고 한 것과 현존하는 건물의 상태 등 여러 정황들을 보아 건축기법은 시기가 아닐까 여겨지나 전체적인 건물의 형태와 규모는 그 이전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외 중수기에서 볼 수 있는 건축적인 변화는 1854년 문열굴을 새로 교체했다는 내용이 있어 주목할 부분이다.

## 나. 학술적 가치

창평향교 건물구성은 비교적 단순하다. ‘현(縣)’ 고을에, 소설위(小設位) 향교라는 제약된 여건에 기인한 것으로도 여겨진다. 건물 규모도 대성전 정면 3칸 등 장대하고 화려한 건물이 없다. 문묘에는 대성전, 강학구역에는 명륜당과 동재, 서재가 있으며 지원 건물은 문묘 우측에 있다. 향교의 주 출입문으로 건립되는 외삼문은 본래 없었고, 문묘의 출입문인 내삼문은 건립되지 않았다. 대신 협문식인 사주문과 일각대문이 외삼문과 내삼문의 역할을 했다. 이러한 구성은 협소한 향교 터와 전면의 급한 지형적 여건에서 나온 것으로 여겨진다.

창평향교는 지형적으로 상당히 급경사지에 위치하고 대지는 종(從)축 보다는 횡(橫)축에 조성되어있다. 제향(문묘)과 교육구역 설정은 경사지 입지의 규범인 ‘전학후묘(前學後廟)’으로 형식으로 되어있다.

강학구역은 호남지방 향교의 특징인 ‘전당후재(前堂後齋)’인데 대지가 협소한 관계로 동재와 서재가 대성전에 매우 근접해 있어 마치 다른 향교의 동서무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창평향교의 전체 배치모습은 평면적으로 ‘口자’형과 같은 독특한 형식이다.

이러한 배치는 전남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보기 힘든 배치형식이다.

### 1) 대성전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이며, 지붕은 양면에 풍판을 단 맞배지붕에 처마는 전후면 겹처마로 되어 있다.

대성전 평면은 전면 개방 여부에 따라 폐쇄형과 전퇴형이 있는데 창평향교는 전퇴형으로 되어있다. 전퇴형은 전면 기둥이 열주식으로 되어있어 장엄함과 심연성이 있고 기능적으로도 향사에 유용하다. 종묘와 성균관 대성전은 물론 보물로 지정된 강릉, 나주, 장수, 제주향교 대성전 등도 개방형으로 되어있다. 즉 개방형은 사당건축의 한 규범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보물인 경상도 영천, 성주, 경주향교 대성전은 폐쇄형으로 경북지

역에는 폐쇄형이 일반적이다.

모든 초석 형상은 제각각이나 대체로 상부가 평평한 막돌을 사용했다. 한편 기단 바닥 보수과정에서 바닥면을 높여 좌측 편 일부 초석은 드러나지 않는 것도 있다. 한편 전면 기둥 4개는 향교 근처 고찰인 심향사(尋香寺)에서 가져온 것으로 전해지는 석탑이나 석등 불교관련 석재를 그대로 초석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sup>186)</sup> 지금은 막돌초석으로 교체되어 있다.

기둥 윗몸은 창방으로 결구하였고 창방과 주심도리의 장혀 사이로는 주칸 마다 화반을 1구씩 배치하였다. 화반은 섬세하고 화려하게 모두 파련각을 하고 상부에 소로를 두어 의장성이 돋보인다.

가구(架構)는 전방 외진의 퇴주와 후방 내진의 평주 사이에 내고주를 세워 퇴량과 대량을 걸고 대량 위로는 십자로 첨차를 짜고 주두를 놓아 포대공으로 구성하였다. 내고주 상부에 종량(宗樑)을 얹힌 1고주 5량가로 되어 있다. 종량위로는 화려하게 조각된 파련대공을 놓았다. 양 측면 가구는 어칸의 기둥을 고주로 하여 3량가로 하고 전후로 퇴보를 둔 전체적으로 2고주 5량가로 되어있다. 보위의 대공은 판대공이다. 각 칸 벽체에는 x자 형으로 큰 가새를 대어 구조적 안정을 취했는데 후설(後設)한 것 같다.

대성전 공포는 기둥 위에만 짜여진 주심포 형식으로 전후면 모두 같다. 짜임은 기둥머리에 밑면이 교두형(翹頭形)으로 된 헛첨차를 끼우고 헛첨차 바깥쪽 위에 소로를 놓아 행공첨차를 받고 있다. 제공살미는 끝이 날카로우며 곧게 뻗어 있다. 이제공은 끝을 둥글게 말아 올린 운공형이다. 대성전 공포는 향교건축에서 보기 드문 헛첨차 구성에 주목이 간다. 헛첨차 구성은 수덕사 대웅전, 강릉 객사문, 송광사 하사당 등이 대표적이고, 전남 나주향교 대성전도 창평향교 대성전 공포와 전체 짜임이 유사하다. 건축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다.

창호는 전면 어칸에는 쌍여단이 판장문을, 양 협간은 외여단이 판장문을 설치했다.

판장문은 사당건축에서 실내를 엄숙하고 차분한 분위기로 유도하는 폐쇄성 문으로 향교건축 대성전에 주로 쓰인 창호다. 대성전에서 창호가 판문으로만 구성될 경우 내부 채광을 위한 광창의 설치가 필요한데, 3칸인 경우에는 주로 측면에 채광창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창평향교 대성전도 측면에 자그마한 광창을 두었는데 어설픈 설치하여 원래의 모습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많다.

## 2) 명륜당

186) 김지민 외 5명, 『전남의 향교』, 진라남도(1987). p.821

명륜당은 정면 4칸, 측면 3칸(우측면은 2칸)규모의 맞배집이며 처마는 홑처마다. 양 박공 면에는 풍판을 설치하지 않아 목구조가 잘 드러나 있다.

내부는 모두 우물마루를 놓은 대청형으로 되어있다. 일반적으로 명륜당은 강학과 함께 선생의 기숙 처로 양측에 온돌방 1~2개를 두는 것이 보통인데 창평향교에서는 온돌방을 두지 않았다. 광주·전남에서 창평향교 외에도 곡성, 옥과, 광양, 무안향교 명륜당도 온돌방이 없는 대청형이 없다(27곳 중 6곳). 충남·대전의 경우는 24곳 중 10곳이 대청형이다. 전북지역은 20곳 중 4곳이다. 영남지역은 한 곳도 없어 지역적으로 비교가 된다.

기둥 윗몸은 창방으로 결구하였고 주두가 놓이고 그 상부로 포작을 두었다. 창방위로 는 주 칸 모두에 화반이나 소로 설치 없이 개방시켰다. 전후방 평주 위에 다듬은 대량을 걸고 그 위에 다시 종량을 올린 5량 구조다. 대량 위의 동자주 상부와 종량 위의 파련대공 중앙으로 는 대성전에 없던 뜯장혀를 설치하여 구조미가 한층 드러난다. 17~8세기에 많이 사용되었던 기법이다.

우측면 벽체 가구는 3평주 5량 구조이며 종량위로는 판대공을 놓아 종도리 장혀를 받고 있다. 좌측면은 2고주 5량가로 우측면과 구조를 달리했다. 그 의도가 분명하지 않으나 측면벽체에 창호설치를 위한 것이 아닐까 짐작된다.

대량과 동자주 등 수직부재와 대량 등 수평부재가 만나는 하부에는 정교하게 초각된 보아지를 두었다. 본 건물의 가구는 비록 작은 규모의 건물이지만 짜임새가 강직하며, 특히 풍판이 없이 그대로 노출된 측면의 가구는 단순하지만 안정되고 균형미가 있다.

명륜당 공포는 대성전과 거의 유사한 주심포 형식으로 전후면 모두 같다. 짜임은 기둥 머리에 헛첨차를 끼우고 헛첨차 바깥쪽 위에 소로를 놓아 행공첨차를 받고 있다. 대성전에서는 헛첨차 밑면이 단순한 교두형이었으나 명륜당은 정교하게 굴곡으로 초각을 하여 의장성이 돋보인다. 제공살미는 끝이 대성전 보다 더 뾰족하며 형상은 쇠서형이다. 이제공은 대성전과 같은 형상의 운공형이다.

출목을 둔 주심포양식은 향교 명륜당 건물로는 매우 이례적이다. 맞배지붕으로 외1출목 주심포계열은 경주·밀양·김해향교가 있고, 팔작집으로 외1출목의 주심포계는 익산·풍기향교 정도이다. 그리고 2출목의 주심포계열은 순천향교뿐이다. 언제 현재의 모습으로 안착이 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500년대 후반(명륜당 중수기, 1783), 또는 향교 중수기 등 여러 자료로 보면 1600년대 정도로 여겨진다. 비록 작은 현의 고을 명륜당이었지만 당시 수령의 심과 고을 목수의 뛰어난 안목의 산물로 여겨진다.

명륜당에서 또하나 주목되는 것은 창호의 구성인데, 창호는 후면 주 칸 모두에만 쌍여닫이창을 설치했고, 전면은 모두 개방시켰다. 창이 칸 전체에 설치됐기 때문에 울거미가 매우 크며 가운데에 설주를 대어 구조적 안정을 기하고 창의 기밀성을 높였다. 창틀은 상하 모두 연귀맞춤으로 하였고, 창틀과 설주의 결구는 제비초리맞춤이다. 이러한 창을 영쌍창(檣雙窓)이라고 하는데 주로 가옥 사랑채, 권위건축, 사찰건축 등 다양한 곳에서 많이 발달했다. 주로 1600년대의 건물에서 많이 보이며 1800년대 까지도 간혹 사용되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창은 하부에 머름을 두고 그 위에 창틀을 올리는 것인데, 창평향교 명륜당에서는 하부 머름없이 여모중방위에 바로 올린 것이 특이하다. 1854년 명륜당중수기에 문얼굴을 새로 교체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배면 창호틀 교체일 것으로 보이는데, 형태의 변화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한편 우측면에도 후면과 같은 창호 흔적이 있는데 현재는 벽체로 마감됐다.

전면은 창호 없이 모두 개방되어 있는데 이러한 형식은 특히 호남지방 향교에서는 극히 드문 사례다. 오래된 향교에서 자주 보이는 수법이다.

## 2. 종합의견

### 1) 역사성

昌平鄉校는 조선시대 창평현에 위치한 교육시설로 창건은 1399년(邑誌), 즉 14세기다. 당시 조선의 유교 화 정책의 하나인 ‘一邑一校’ 원칙을 충실히 준수, 600여년의 역사와 시대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한편 조선후기 일련의 건축 사실(중수)을 자세하게 알 수 있는 懸板記 4매(1689, 1783, 1854, 1879)가 있어 향교 역사를 규명하는데 신뢰감이 든다.

창평향교의 대성전과 명륜당은 현존하는 건물의 상태 등 여러 기록에서 나타나는 정황들을 볼 때 건축기법은 1600년대 후반으로 여겨 아닐까 여겨지나 전체적인 건물의 형태와 규모는 그 이전의 것일 가능성이 있다. 명륜당은 특히 1700년대, 1800년대 등 시기별 중수 이력이 잘 드러나 있어 향교 사회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

### 2) 학술성

창평향교의 배치수법은 호남지방 향교의 특징인 ‘전당후재(前堂後齋)인데 대지가 협소 관계로 동재와 서재가 대성전에 매우 근접해 있어 마치 다른 향교의 동서무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창평향교의 전체 배치모습은 평면적으로 ‘口자’형과 같은 독특한 형식이 되었다.

## 가. 대성전

대성전은 縣高을, 小設位 위계에 맞게 규모나 치장 등에서 장대하거나 화려하지 않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사당건축의 규범은 타 향교 못지않게 잘 갖추고 있다. 특히 공포는 향교건축에서 보기 드문 헛첨차를 둔 주심포 양식이다. 매우 고식의 수법으로 판단된다. 헛첨차 구성은 수덕사 대웅전, 강릉 객사문, 송광사 하사당 등이 대표적이고, 전남 나주향교 대성전(보물)도 창평향교 대성전 공포와 전체 짜임이 유사하다.

창평향교 대성전은 건립과 중수 이력이 비교적 잘 드러나 있고 특히 공포형식에 독특성이 있다. 보존 상태도 양호하므로 현 지방문화재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승격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 나. 명륜당

창평향교 명륜당은 비록 규모는 작지만 온돌방이 없는 대청형 평면구성은 지역성이 다분하며, 창호구성에서 고식의 수법인 영쌍창의 존재가 건축시기와 부합하고 있으며, 공포의 형태와 가구수법 및 부재의 초각기법 등에서 고식의 수법이 많이 보인다.

또한 맞배지붕에서 외1출목의 주심포양식은 전국 향교 명륜당 건물로는 경주·밀양·김해향교에서만 유례가 있어 희귀성이 있다.

창평향교 명륜당은 정확한 건립년도와 상세한 중수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으나 건립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건축기법에서 전반적으로 1600년대 건물로 볼 수 있다. 또한 보존 상태도 양호하므로 현 지방문화재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승격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 11. 순천향교 대성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 가. 제안사항

전남 순천시 소재 「순천향교 대성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전남 순천시 소재 「순천향교 대성전」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전라남도지사
- (2) 대상문화재 :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27호 「순천향교」
  - 소재지 : 전라남도 순천시 향교길 60 (금곡동 182)
  - 지정일 : 1985. 02. 25.
-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 명칭 : 순천향교 대성전(順天鄉校 大成殿)
  - 소유자(관리자) : 순천향교
  - 소재지 : 전라남도 순천시 향교길 60 (금곡동 182)
  - 조성연대 : 조선시대(1649년 건립, 1780·1801년 이건)
  - 수량 : 1동
  - 지정면적 : 지정구역 225.2㎡(보호구역 5,781.8㎡)
  - 양식 : 정면5칸, 측면3칸, 2출목 3익공, 1고주 5량가, 겹처마, 맞배지붕

라. 현지조사의견(2020.07.14. / 전)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전)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마. 지정조사보고서 : 불임참조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원안가결 10명, 부결 1명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0.07.14	대상문화재	순천향교 대성전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건축사
	소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순천향교 대성전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 년 9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1. 소재지 : 전남 순천시 향교길 60(금곡동 183 외)
2. 건립연도 : 1407년(태종 7) : 창건, 16세기말 정유재란으로 소실  
1610년(광해군 2) : 순천읍성 서쪽 구지(舊址) 북편에 이건  
1649년(인조 27) : 대성전 중건  
1780년(정조 4) : 흥내동으로 향교 이전, 대성전 이전  
1801년(순조 1) : 현재 자리로 이건, 대성전 이건 중수  
1946년, 1986년 : 대성전 보수  
2006년 : 대성전 전면 해체 수리
3. 대지면적 : 6,007m<sup>2</sup>
4. 문화재 지정 종별 : 전남 유형문화재 제127호
5. 문화재 지정일 : 1985년 2월 25일
6. 소유자 : 순천향교

## 7. 순천향교 대성전의 연혁

### 7.1 17세기 이전, 대성전의 건축 연혁

순천향교 대성전은 1985년 2월 25일에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27호로 지정되었으며, 소유자는 순천향교재단이다. 조선시대 순천향교의 연혁을 살펴보면 1407년(태종 7)에 순천성 동쪽 7리에 건립된 후 순천이 도호부(都護府)로 승격되면서 1550년(명종 5) 순천성 동쪽 5리되는 자리로 옮겼다. 그 후 정유재란 때 소실되어 1610년(광해군 2)에 다시 순천성 서쪽 옛 터(舊址)의 북쪽으로 옮겨 중건했다. 그곳에서 수차례 수해(水害)를 입어 1649년(인조 27)에 대성전을 대대적으로 중수했으며, 그 후 1780년(정조 4)에 흥내동으로 이전했다. 또다시 19세기 초인 1801년(순조 1)에 현 위치로 옮겨왔다. 이처럼 순천향교가 여러 차례 이전할 수밖에 없었던 주된 원인은 전란(戰亂)과 수해(水害) 때문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에 순천향교는 남원향교와 함께 전라좌도(全羅左道)를 대표하는 향교로 발전했으며, 그 영향으로 순천에서는 유림이 전통적으로 강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 조선 초기 이후 지방 교육기관인 향교는 급속히 발전했으며, 당시 위정자들은 새로운 통치이념인 유교를 널리 보급하고 관리를 양성하기 위해 관학(官學)인 향교를 발전시키는데 큰 관심을 가졌다. 이 같은 흥학(興學) 정책에 따라 지방 군현(郡縣)마다 향교를 건립하도록 했다. 태조는 즉위 교서에서 인재 양성을 위해 성균관과 향교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으며, 태종은 지방관이 힘써야 할 수령칠사(守令七事) 중 하나로 ‘수명학교(修明學敎)’를 넣어 수령의 근무 실적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1413년(태종 13)이 되어 향교에 학전(學田)을 지급한 것은 향교의 발전과 운영에 커다란 전기가 되었다. 향교의 보수와 신설은 지방 수령과 교관, 지방 양반들의 긴밀한 협력으로 이루어졌다. 수령은 흥학(興學)을 위해 향교 설립에 앞장섰고, 교관들은 교육적인

관심에서 향교 설립과 운영에 관여했다. 지방 양반들은 고을의 발전과 안정을 위해 향교의 수리와 신설에 적극 협조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1432년(세종 14) 이전에 수령이 파견된 대부분의 고을에 향교가 건립되었다. 조선 성종 때에는 전국 대부분의 군현에 향교가 건립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성종 대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6 순천향교 현황

이제부터는 순천향교의 건축연혁(표.1)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7세기 초에 간행된 순천지방 읍지(邑誌)인 『승평지(昇平誌)187』에는 순천향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옛날에는 읍성에서 동(東)으로 7리 되는 곳에 있었는데, 뒤에 읍성의 서(西) 3리로 이 건했다. 1550년(명종 5, 嘉靖 庚戌)에 읍성의 동쪽 5리로 옮겼고, 1610년(광해군 2, 萬曆 庚戌)에 또 읍성의 서쪽으로 옮겼는데, 옛 향교의 북쪽에 해당한다. 모두 풍수지리를 보는 사람들의 말에 따른 것이다. <1881년(辛巳, 고종 18)에 新增한 것이다>

위 기록을 통해 순천향교의 위치가 여러 번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처음에(연대불명) 읍성에서 동(東)으로 7리 되는 곳에 자리 잡고 있다가 뒤에 읍성의 서(西) 3리 되는 곳으로 이 건한 것으로 보인다. 읍성의 동쪽 7리 되는 곳에 있었던 향교는 고려시대에 건립한 것으로 보이며, 조선 초기인 1407년(태종 7)에 비로소 읍성의 서쪽으로 3리 되는 곳으로 옮겨 조선시대 순천향교를 건립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순천향교는 이전시기(고려) 묘학동궁식(廟學同宮式) 향교와 크게 다른 묘학이궁식(廟學異宮式)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즉 문묘와 학교가 분리된 형식의 향교였을 것이다. 1407년에 건립된 순천향교는 여러 차례 홍수 등의 수해(水害)를 입었으며, 이에 1550년(명종 5)에 읍성에서 동(東)으로 5리 되는 곳으로 향교를 옮겼다. 조선시대 인문지리서인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순천향교의 연혁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옛날에는 읍성에서 서(西)로 3리 되는 곳에 있었는데, 뒤에 읍성의 남쪽 흥동으로 이 건하였고, 1801년(순조 1, 辛酉)에 읍성의 서쪽 3리로 옮겼는데, 이는 옛날 향교의 남쪽으로 청명대(淸明臺)에서 서쪽에 해당한다.

위에서 살펴본 『승평지(昇平誌)』와 『동국여지승람』의 기록으로 볼 때 순천향교는 조선 초기인 1407년에 건립된 후 여러 차례의 이건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

187) 1618년에 이수광이 편찬한 전라도 순천부의 읍지.

다. 조선시대의 순천향교는 1407년(태종 7)에 읍성의 서쪽 3리 되는 곳에 묘학이궁식으로 건립되었으며, 그 후 1550년(명종 5)에 다시 읍성의 동쪽 5리 되는 곳으로 이겼음을 알 수 있다. 이곳에 있던 순천향교가 정유재란으로 소실되는 큰 피해를 입자 전후(戰後 : 1609~1610년)에 향교를 다시 읍성의 서쪽으로 옮겼음을 알 수 있다.

## 7. 2 17세기이후 대성전 건축연혁

조선중후기의 순천향교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6세기말에 일어난 정유재란으로 향교의 건물이 소실되는 큰 피해를 입게 되자 1609년(광해군 1)에 순천향교를 읍성의 서쪽으로 옮기고 대성전을 중건하는 공사에 착수했다. 1609년 당시의 향교 터는 1550년(명종 5)에 이겼던 향교 터의 북쪽에 해당하는 곳이었으며, 1609년에 시작된 대성전 중건 공사는 되어 순천부사로 유영순이 부임한 1610년(광해군 2)에 끝났다.<sup>188)</sup> 이때의 대성전 중건공사에 대해서는 류몽인이 쓴 「순천향교중수기」<sup>189)</sup>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류몽인은 「순천향교중수기」에서 ‘정유재란 때 문묘가 소실(燒失)되어 부득이 임시로 읍성 북쪽에 다시 세웠으나 비탈지고 시끄러워 1609년(광해군 1)에 읍성 서쪽의 조용한 곳으로 성묘(聖廟, 문묘)를 옮기는 공사를 시작했으나 미처 마치지 못하고 이듬해(1610)에 유영순이 부사로 부임하여 문묘 이건 및 중수공사를 마쳤다’고 했다. 아래는 류몽인이 쓴 「순천향교중수기」 중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전략)승평부에는 옛날에 향교가 성 동쪽으로 4리 떨어진 산기슭에 있었는데, 정유재란으로 소실되었다. 난이 끝나자 임시로 성 북쪽에 다시 세웠으나 비탈지고 대로변이라 시끄러워 기유년(1609)에 성 서쪽의 조용한 곳에 성묘(聖廟)를 지었으나 미처 마치지 못해 이듬해(1610)에 유공(부사 유영순)이 와서 완성하였다. 이듬해인 1610년 봄 상정일(上丁日)에 선성현(先聖賢)의 위패를 이안(移安)하고, 모든 제기들을 다 갖추어 묘(廟) 동북쪽 구석의 고(庫)에 보관하였고, 그 옆에 주방도 설치했다. 강독할 책과 쌀, 배 약간 그리고 납속노비(納贖奴婢) 몇 구로 선비들을 공향(供餉)하게 하였다<sup>190)</sup>.

이처럼 1609~1610년에 향교를 옮겨 대성전을 중건한 후에도 여러 차례의 중수 공사가 있었다. 40여년이 경과한 1649년(인조 27)에 부사 김종일(1597~1675)이 기운 문묘가 무너질 것을 우려하여 중수한 바 있는데, 이때의 사정은 그가 감영에 올린 서면 보고(牒呈)에

188) 유영순 부사의 선정(善政)을 기리기 위해 순천 사람들은 선정비를 세우기도 했다.(현재 향교에 있음)

189) 柳夢寅, 於于集 後集 卷4

190) 昇平府舊有鄉校, 在城東四里所山之麓 丁酉之亂, 盡爲兵火之所蕩, 難已, 便草創于城北, 地勢傾側, 又邊大路喧擾, 甚不合妥我聖靈。歲己酉, 諸生等擇地于城西山下僻靜處, 建聖廟, 未及修繕。越明年庚戌(1610年), 柳公來, 慨然不違他, 鳩良工輦美材, 而壁而門而丹堊之, 又作東西兩廡以翼之, 墻垣以繚, 扃鑰以固, 不終歲克有成。於是報方伯, 轉啓于朝, 而香祝降焉。辛亥(1611年)春上丁之日, 移安先聖賢位, 又新奉五賢臣位, 從祀于東西廡, 以釋菜之。簠簋、饗豆、犧尊、象尊, 無不整備, 庫于廟之東北隅以藏之, 又作祀廚于其傍, 爲視牲具饌所。神門之外, 除地坦蕩, 起明倫堂比三椽, 東西齋各三楹。輯書策若而卷, 以資講讀, 米若而斛, 布若而段, 以權其子母, 納贖奴婢若而口, 以周多士之供餉, 而經始之事畢矣(후략)

잘 나타나있다.

(순천)향교를 전란(壬亂) 뒤에 중건했습니다. 그 때 순천부(관아)는 전란의 피해도 심하고 인민과 물력도 탕진되어 읍성에서 가까운 터에 임시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터가 물가였지만 일을 시작한 후라 때를 기다려 다시 지으려고 했습니다. 갑자년(1624, 인조 2) 가을에 불행히도 물난리를 만나 대성전 서쪽 담이 유실되고 서재(西齋) 뒤쪽이 무너졌습니다. 낮고 저습한 땅이어서 이견하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올 여름에 또 수재(水災)를 만나 무너진 곳이 더 허물어졌습니다. 『學校謄錄』 권1, 인조 26년(1648) 7월 18일

위 서면 보고(牒呈)에서 순천부사 김종일은 향교의 이권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향교를 이권해야 하는 이유로 ‘1624년(인조 2, 갑자) 가을에 물난리를 만나 대성전의 서쪽 담이 유실되고 서재(西齋) 뒤쪽이 무너졌으며, 1648년(인조 26) 여름에도 수해를 입어 무너진 곳이 더 허물어졌으니 향교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순천부사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조정에서는 향교의 이권을 허가하지 않았다. 부득이 순천부사는 지역 양반들의 협조를 받아 허물어진 향교를 1649년(인조 27)에 대대적으로 수리했다. 한편 2006년에 대성전을 해체하여 수리할 때 1649년 중수시 종도리 밑면에 붓으로 쓴 상량문서<sup>191)</sup>(그림.2, 3)가 발견되어 당시 공사 내용을 알 수 있게 되었다.(그림.2, 3참조)

1649년(인조 27)에 대성전 등을 중수 이후에도 여러 번 향교 건물이 침수되는 큰 수해를 입어 1780년(정조 4)에 향교를 읍성의 남쪽에 있는 <안동(雁洞)>으로 옮겼다. 이때의 향교 이권 및 건물 중수를 기록한 상량문(자료.1, 1780년 10월 13일)도 발견되어 당시 사정을 자세하게 알 수 있다. 한지에 쓴 상량문(1780년, 조현범)은 여러 번 접어 종도리에 파 넣은<sup>192)</sup> 것으로, 2006년에 대성전을 해체 수리할 때 발견되었다.

191) 이 상량문서에는 “己丑順治六年三月十七日上樑府使通訓大夫兼知製教金宗一丁亥秋直講來...(중략).木手都料匠○○副僧信○...石手金成浩...차年 三月初五日開基 辛坐乙向”이라고 쓰여 있다. 공역에 참여했던 감역인과 관리 및 장인 명단이 들어있다.

192) 1780년에 있었던 향교 이권과정에 참여한 조현범은 부사 김종일이 1649년(인조 27)의 대성전 중수시 종도리 밑면에 붓으로 써놓은 상량문서(墨書)를 발견하고 그 감격을 이기지 못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겼다. 현 대성전의 종도리 밑면에는 1649년에 쓴 상량문서가 그대로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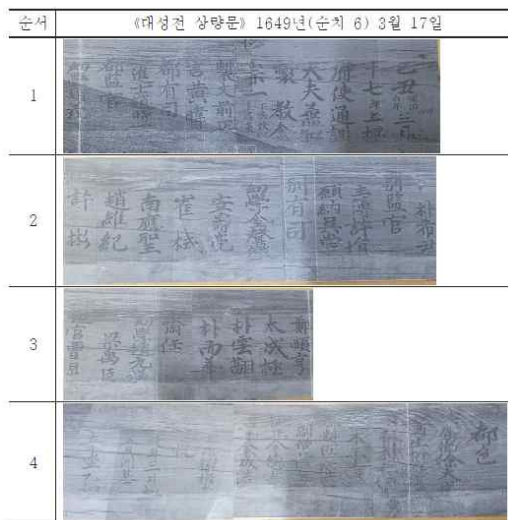


그림 117 1649년 중수시 상량목서(사진)



그림 118 종도리 밑면에 쓴 상량목서(1649년 중수시)

(2006년 전면 해체 수리시 발견)

1780년에 향교를 안동(雁洞) 새 터로 이건(네 번째 이건)하고 조현범<sup>193)</sup>이 지은 상량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료.1 1780년 중수시 상량문

“순천도호부 서쪽 신좌을향(辛坐乙向)에서 안동(雁洞) 새 터로 향교를 이건했는데 순치(順治 6년(1649, 己丑)에 지을 때 쓴 글자의 먹이 어제처럼 쓴 것처럼 완연했다. 선배 유적을 뒤쫓아 공경하는 느낌이 일어나 지워 없애지 못하고 같은 칸에 이봉(移奉)하여 이 해로부터 억만년 드리우게 했다.<sup>194)</sup>” (아래 원문의 밑줄 친 부분)

원문 : 乾隆四十五年庚子十月十三日 製文 府使 金夢華 都有司 李琦 監董有司 李濟樑柳漢坤 朴思禮 都監 張學祖 監官 李徹賚 色吏 金陽振 朴守倫 錢穀有司 鄭錫喆 許崧 色吏 金昌廈 伐木都監 鄭坤 監官 方泰一 色吏 徐永修 具汝瞻 瓦窯都監 李東臣 監官 姜聖采 色吏 金履運 書色 朴鍊玉 鄉校執綱 都有司 鄭任重 掌議 李炫 許崧 齋任 梁聖學鄭運福 地師 通政大夫 前谷城縣監 金尙鉉 子坐午向 甲得午破 開基九月十五日 采礎十月初九日上樑同月十三日 自府西申坐乙向移建于雁洞新址而順治六年乙丑 營建時所題字墨宛然 如昨先輩遺蹟追起敬感不敢抹改移奉同間以垂億萬斯年 後學 趙顯範 謹記 鄉校典穀 金起商 李廷燁 都木手 僧壯碩 副木手 僧亞贊 僧式雲 公員 朴興道 掌務 僧學聰等二十六人 冶匠 李尙友 石手 僧正汗等二人 座首 李宗輔 吏房 丁孝宅 戶房 金陽振 金昌宇(대성전 상량문 1780년(건릉 45) 10월 13일)

1780년에 향교를 안동으로 옮기면서 실시되었던 대성전 중수공사에는 다수의 승장(僧匠)이 참여했다. 즉 도목수로 승려 僧 壯碩, 부목수로 僧 亞贊 · 式雲이 일했으며, 그 외

193) 『강남악부(江南樂府)』의 저자, 2006년의 대성전 수리시 발견된 김종일 부사의 상량목서와 한지에 쓴 조현범의 상량문은 일체의 훼손함이 없이 당초 자리에 그대로 두었다고 한다.

194) 짐자리를 고쳐 잡음



僧學聰 등 26명이 참여했다. 이밖에 야장 李尙友, 석수 僧 正汗 등 2인도 장인으로 참여했다. 야장(冶場, 대장장이)을 제외한 목수와 석수가 모두 승장(僧匠)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상량문에 기록이 없어 승장(僧匠)들의 소속 사찰은 알 수 없으나 송광사 등 인근의 대소 사찰에 속한 승려로 짐작된다.

1780년에 순천향교 대성전을 이건 중수했음에도 1649년(인조 27)에 쓴 상량묵서(墨書)가 대성전 종도리 밑면에 보존되어 있다는 것은 1649년에 중수한 대성전의 건축형식이 그 후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음을 말해준다. 1780년 이후에도 옥천의 범람으로 순천향교는 여러 차례 수해(水害)를 입었으며, 그래서 1801년(순조 1)에 또다시 향교를 다시 지금의 금곡동으로 이건했다. 현재의 순천향교가 위치하는 곳은 조선시대 순천읍성에서 서쪽으로 3리 떨어진 곳으로, 청명대의 서편에 해당한다. 전술한바와 1407년 이후 순천향교를 여러 차례 이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전란(정유재란)과 반복되는 수해 때문이었다.

순천향교의 마지막 이건은 1801년에 있었다. 아래의 대성전 상량문(자료.2)은 1801년에 향교를 읍성의 서쪽 3리(현재 금곡동)로 이건할 때 쓴 것으로, 2006년에 대성전을 해체 수리할 때 발견되었다. 이때 1801년 이건시 상량문과 함께 한지에 적어 종도리에 파 넣은 1780년 이건시 상량문(1780. 10. 13)을 비롯 종도리 밑면에 묵서한 1649년의 상량묵서도 함께 발견되었다. 1801년(순조 1)에 있었던 마지막 이건공사 때 쓴 대성전 상량문을 국역한 것은 다음과 같다.

## 자료.2 : 1801년 중수시 상량문

(전락) 몇 길의 향교터를 개복(改卜)<sup>195)</sup>하여 세 번 사당을 지어 옮겨 오성(五聖)을 타령(妥靈)<sup>196)</sup>했습니다. 바라건데 승평부(순천부)는 큰 고을이라 문선왕 제향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길 바랍니다. ... 대저 홍곡(鴻谷)<sup>197)</sup>에서 이건한 날은 언제이며 봉록(鳳麓)<sup>198)</sup>에 전안(奠安)하던 터를 취하지 않았을까. 북쪽이 아니고 남쪽이라고 어찌 언의(言意)가 둘로 갈렸을까요? 여기를 버리고 거기를 취한지가 오라라 사람이 탄식했습니다. 아마도 점지(占地)한 공의(共宜)하니 옆에서 바람을 받고 위에서 비를 받을 뿐입니다. 또한 축토(築土)한 것이 동쪽이 무너지고 서쪽이 기울었지 굳이 역치(易置)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고을에 (부사로) 부임하였는데, 대사를 여러 사람과 논의하게 하여 성현을 향사하는 곳을 얻었는데 땅을 등지고 바다를 받아들인 곳입니다. 부로(父老)들이 전해 오는 말 그대로 하느님이 감춰두고 땅이 숨겨두었다는 말고 딱 맞습니다. 오래도록 평소 문선왕을 타안(妥安)하는 터가 될 것입니다. 정사(政事)는 청금(靑衿)이 의귀(依歸)하는 정성에 합당합니

195) 영혼을 평안히 모심

196) 잔치를 열어 대접하는 풍습

198) 난봉산 기슭

다. 다행이 성상의 윤택을 얻었습니다. 비로소 길지가 있어 짓기 시작했습니다. 상하 동우(棟宇)를 정돈해 행단(杏壇)에 봄바람과 완연하니 품에 안은 동남의 산천으로 한수(寒水)의 가을 달을 상상합니다. 경자년(1780년)에 잘못 정하여 얼마나 척강(脊崗:등마루)이 위태로움을 한탄하겠습니까? 묘유정방(卯酉正方)이니 여기에 머무르며 갱장(羹牆)<sup>199)</sup>이 뒤를 따르리라.(하락)

대성전 상량문(1801년) 원문

伏以 爲萬世之師表俎豆式陳 倣數仞之宮墻基地改卜 三遷建廟 五聖采靈願茲昇平府 雄州尤重文宣王享 廟貌克壯湖南五十邑所無 饗儀孔嘉海東四百年遺制 夫何鴻谷移建之日 不取鳳麓奠安之基 不北而南胡爲言議之歧貳 舍此取彼久矣士林之咨嗟 盖占地之共宜偏受旁風而上雨 亦築土之不固易致東圯而西傾 治不佞新莅于茲而大事爰謀於衆 得聖賢享祀之地負海涵叶父老傳來之言天慳神秘 久爲素王妥安之址 政合青衿依歸之誠 幸蒙 聖上之允俞遷有吉地營始 整上下之棟宇宛然杏宣春風 抱東南之山川想像寒水秋月 庚子誤卜幾歎脊崗之危 卯酉正方斯寓羹牆之慕 夫孰曰無地起也是所謂自天佑之 瞻殿廡之感新宣合春秋之奠幣擬齋舍之復舊將見朝暮之通經 龍盤之基始占太守何有 駿奔之禮式備賢士所關 及知小江南嘉名聊陳短唱(하락)本府使 沈銖撰 後學李馨集 書

위에 제시한 1801년(순조 1) 이건설 상량문에 “경자년(1780년, 정조 4)에 (터틀) 잘못 정하여 얼마나 척강(脊崗:등마루)이 위태로움을 한탄하겠습니까?”라고 한 것이 있는 것으로 볼 때 1780년에 정한 터에 문제가 있어 건물이 위태로워지자 1801년에 다시 이건설한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성술한 바와 같이 순천향교를 보존하기 위해 여러 차례 이건설과 중수를 거듭했지만 1894년 갑오개혁으로 교육기능을 사실상 상실하고, 향교 재산은 공립소학교의 재원으로 편입되었다.

조선말기에 이르러 순천향교는 『구한국관보』의 기록으로 보아 1896년 9월에 순천에도 학부지정학교로 순천공립심상소학교가 설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후 1946년에 국비와 유림의 성금으로 대성전을 보수한바 있고, 1956년에도 대성전·명륜당·동무를 보수하고, 풍화루를 건립했다. 이 후에도 수차례의 보수공사가 있었다. 1970년에 서무(西廡)와 양사재, 1977년에 내삼문, 1982년에 동재, 1986년에 대성전(보수, 단청, 기둥교체, 전돌 깔기), 1987년에 명륜당을 수리(번와, 서까래)했다. 2006년에는 노후한 대성전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해체 수리가 실시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대성전의 건축 연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임란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609~1610년에 향교를 이건설하고 대성전을 비롯한 여러 건물들을 중수했으며, 그 후 1649년(인조 27)에 부사 김종일이 대성전을 남동향(辛坐乙向)으로 중수했다. 그때 종도리 밑면에 붓으로 쓴 상량목서가 현 대성전에 보존되어 있다. 이 것으로 보아 지금의 대성전은 1649년에 중수한 건물을 근간으로 그 후 두 차례의 이건설(1780년, 1801년) 및 20

199) 나라의 큰 제사에 폐백 드리는 일

세기 이후 수차례 중수 공사(1922년, 1946년, 1956년, 1986년) 그리고 2006년의 전면 해체 수리 공사를 거쳐 오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대성전의 연혁은 문헌 기록과 기문 등으로 입증이 가능하다,

표 60 순천향교 건축 및 수리 연혁

고려 시대	
987년(고려 성종 6) 8월	: 순천(당시 昇州)를 비롯 12목에 경학박사와 의학박사 각 1명씩 파견
992년(고려 성종 11) 1월	: 교서를 내려 서재(書齋)와 학사(學舍)를 짓고 토지를 주어 비용을 충당하도록 함
조선시대	
1407(태종 7)	: 순천읍성 동쪽 7리에 건립연도 미상, 성 서쪽 3리로 이건
1550(명종 5)	: 순천읍성 동쪽 5리로 이건
1610(광해군 2)	: 순천읍성 서쪽(옛 향교 터 북쪽)으로 이전 순천향교중수기(1610)
1649(인조 27)	: <b>신좌을향(辛坐乙向, 남동향)으로 중건</b> (부사 김종일, 이건 건의) - 대성전 상량문(1649)
1780(정조 4)	: 순천읍성 남쪽 10리, <b>홍내동에 이건 - 대성전 상량문(1780)</b>
1801(순조 1)	: 순천읍성 서쪽 금곡동에 이건, 현 위치에 이건-대성전 상량문(1801)
근·현대	
1922년	: 대성전 중수 - 문묘중수기(朴箕陽 撰)
1946년	: 대성전 보수
1956년	: 대성전, 명륜당, 동서무, 동서재 보수. 풍화루 중건 - 순천향교중수紀積碑
1970년	: 유사실 보수 - 순천향교 유사실 보수비
1977년	: 내삼문 보수 - 신문(神門) 3동 보수 단청 기념비
1982년	: 동재 보수 - 동재 개학사실기
1986년	: 대성전 보수 - 단청, 기둥 교체, 전돌 깔기
1987년	: 명륜당 보수 - 번와, 연목 교체
2006년	: 대성전 - 완전 해체 수리
2020년	: 명륜당 보수

### 7.3 순천향교의 운영

조선시대 지방 향교는 서울에 있는 성균관의 축소형으로 공자를 비롯한 오성현의 위판을 봉안한 대성전과 선현(先賢)들의 위판을 모신 동·서무로 이루어진 문묘에 학생들을 교육했던 명륜당과 동·서재의 학교가 배속된 형태로 건축되었다. 향교의 건축에는 통일된 형식과 규범을 중심으로 약간의 지역특성이 가미되는 형태로 건축되었으며, 따라서 순천향교도 입지와 배치 및 공간구성 면에서 타 군현의 향교와 큰 차이가 없었다.

순천향교는 조선초기인 1407년에 건립된 후 다섯 차례나 이 건했음에도 향교의 기본 구조에는 큰 변화는 없었다. 순천향교는 대성전과 동무 · 서무로 구성된 문묘 및 명륜당과 동재 · 서재로 형성된 학교, 부속 건물인 교직사(校直舍)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양사

재(養士齋)와 풍화루는 조선 후기에 건립되었다. 양사재는 1718년(숙종 44)에 부사 황익재가 주선하여 지은 건물로, 향교의 교육기능을 대신했다. 현 위치에 향교를 옮기고 나서 중도에 폐지되었던 양사재를 복설(復設)했다. 풍화루는 양사재와 같이 지은 건물로, 고을 유림들의 모임 장소로 활용되었다.

문묘의 제도에서 거기서 거행하는 석전(釋奠) 의식은 조선 초기에 재정비되었다. 태종대에 마련된 석전의례에 따라 지방 향교를 군현의 격에 따라 대설(大設), 중설(中設), 소설(小設)로 구분<sup>200)</sup>하고, 건물의 규모와 그리고 봉안하는 위판의 수에 차이를 두었다. 조선 시대에 순천은 도호부였으므로 향교의 규모는 중설위 향교에 해당되었다.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표방한 조선왕조는 공자에 대한 제례를 중사(中祀)에 넣어 중시했으며, 향교가 교육기관으로서 절대적 권위를 가지는 것은 바로 공자를 비롯한 성현들을 봉사하는 문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이후 문묘의 제례는 정기적인 것과 부정기적인 것으로 구분되며, 정기적인 것에는 2월, 8월의 상정일(上丁日)에 거행하는 춘추 석전제(釋奠祭)와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거행하는 삭망분향제(朔望焚香祭)가 있다. 부정기적인 것으로는 건물을 수리할 때 위패를 다른 곳으로 옮겨 보관할 때 거행하는 이안제(移安祭)와 환안제(還安祭)를 비롯 문묘에 재난(도난, 화재, 뇌우 등)이 있을 때 올리는 위안제(慰安祭)를 비롯 문묘에 위패를 새로이 봉안하거나 제외시킬 때 거행하는 예성제(禮成祭) 등이 있다.

조선초기 향교의 교관제도는 중앙에서 교관을 파견하는 고려 말의 방법을 그대로 답습했다. 중앙에서 파견되는 교수관은 유학교수관과 훈도(訓導)로 구분되었는데, 이는 향교가 있는 군현의 대소에 따라 구별한 것이다. 『경국대전』에는 교수와 훈도의 품계에 대해 ‘교수는 종 6품, 훈도는 종 9품’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군현의 규모에 따른 교수와 훈도의 수는 다음과 같았다. 즉 주부(州府)에 교수 72명, 군현(郡縣)에 훈도 257명 등 모두 329명을 향교 교관으로 파견했다. 순천은 도호부였으므로, 향교 교관으로 교수를 파견했다. 이에 따라 1407년(태종 7)에 순천향교가 건립된 후 부터 중앙에서 교수가 파견되어 향교 교육을 담당하였으나 향교의 교육기능이 크게 쇠퇴된 조선중후기에는 교관의 부족, 향교 교육의 부진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sup>201)</sup>.

조선시대에 지방 향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나이는 17세 이상이었으며, 『경국대전』에 규정되어 있는 “부 · 대도호부 · 목의 교생은 각각 90명으로 16세 이하인 자는 액내(額內)에 두지 않았다. 도호부 · 군 · 현도 같다”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16세 미만인 자들은 동몽(童蒙)이라 하여 교생과 구분했다. 교생의 나이 상한은 40세였으며,<sup>202)</sup> 교생이 될 수

200) 주, 부, 군의 향교는 공자를 비롯 4성, 10철, 송조 6현을 대성전에 우리나라 유학자들을 동·서부에 봉안하였고, 현의 향교는 주, 부, 군에서 10철을 제외하였다. 군현의 격에 따라 문묘 중사자에 차등을 두는 것 때문에 계속 논란이 이어졌다. 조선 초기부터 중국 유현(儒賢) 가운데 부분적인 송출(陞黜)이 있었고, 양명학은 수입될 당시부터 이항으로부터 배척을 받았기에 명에 중사되었던 육구연(陸九淵), 왕수인(王守仁) 등은 우리나라 문묘에서 제외되었다. 우리나라의 유현으로 승무(陞廡)되는 사람들이 늘어나 조선 말기에는 모두 18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201) 1618년에 순천부사였던 이수광이 편찬한 읍지인 『승평지(昇平志)』에 “교수는 1원으로 정유란(丁酉亂) 뒤부터는 두지 않았다”고 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임진왜란 이후, 늦어도 17세기 이후에는 순천향교 교관이 파견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있는 자격은 법으로 명시된 바는 없으나 평민 이상이면 교생이 될 수 있었다. 향교에서는 같은 교생이라도 신분의 차이에 따라 서로 구별하였다.

순천향교에는 현종 2년부터 고종 18년까지 220년에 걸쳐 49건의 유생안(儒生案)과 청금록(靑衿錄)이 남아 있다. 숙종 이전의 유생 안에는 교생을 상액(上額), 중액(中額), 하액(下額)으로 구분되어 있다. 향교에 남아 있는 유생안을 보면 교생을 출신 신분에 따라 상액, 중액, 하액으로, 또는 액내, 액외에 구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 상액이 액내, 중액과 하액이 액외에 해당한다는 것과 상액과 액내 안에 양반 유생의 명단인 청금록과 과거응시자 명단인 부거안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상액인 액내 교생은 양반, 중액, 하액인 액외교생은 양반이 아닌 신분으로 보인다.<sup>203)</sup>

## 8.순천향교 대성전의 건축 특성 및 문화재적 가치

### 8.1 건축 특성

#### 1)순천향교의 입지와 배치

순천향교는 현 도심의 서북쪽 구릉에 위치하고 있다. 해발 546.9m의 난봉산 자락의 구릉에서 동천을 동향(東向)하고 있다. 조선시대 순천향교는 조선 초기인 1407년에 건립된 후 여러 곳으로 옮겨 다녔으며, 1801년에 비로소 지금의 장소로 옮겨온 후에는 이견하지 않았다. 조선후기에 작성된 여러 고지도에는 향교가 읍성의 서쪽에 위치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1740년에 만들었다고 짐작되는 『해동지도』 중 순천부지도를 비롯 1765년(영조 41)에 만든 『여지도서』, 1872년에 작성된 『전라도지도(그림.4)』에는 순천향교가 읍성의 서쪽에 위치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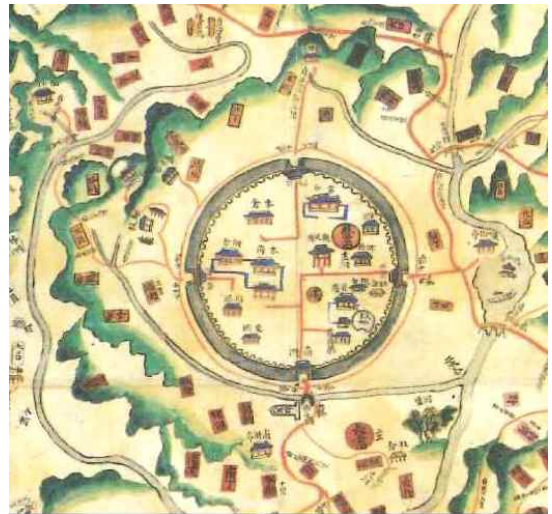


그림 119 순천부 지도(1872년, 규장각소장)

지금의 순천향교는 대성전, 제기고, 동무 · 서무, 동재 · 서재, 명륜당 · 내삼간(문) · 외삼간(문), 양사재, 풍화루(風化樓), 홍살문, 고직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향교 입구에 세워놓은 하마비와 홍살문을 지나면 외삼문이 나오고, 이 문을 지나 몇 단의 계단을 오르

202) 교생은 균역의 면제 특전이 주어졌는데, 면학에 뜻이 없는 자들이 향교에 머무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40세로 제한하려고 하였다. 실제로는 40~60세의 교생이 존재했다. 교생을 늘리자는 주장이 계속되어 성종 대 대폭 증원하여 곧 부, 대도호부, 목은 90명, 도호부는 70명, 균은 50명, 현은 30명이었다. 이는 조선말기까지 변동이 없었다.

203) 순천향교에 남아있는 향교제복유생안(鄕校祭服儒生案), 「객사집사유생안(客舍執事儒生案)」, 「수영객집유생안(水營客執儒生案)」 등은 평민 교생들의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작성한 유안이다. 즉 「향교제복유생안」은 향교에서 거행하는 각종 제례에 집사를 담당했던 교생들의 명단이고, 「객사집사유생안」은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순천부사가 객사에 모셔져 있는 왕을 상징하는 전패에 나아가 예를 올리는 망궐례(망궐)에서 집사를 담당했던 교생들의 명단을 기록한 것이다.

면 명륜당 후면(後面)의 마당에 도달한다. 순천향교의 배치형식은 전학후묘식(前學後廟式)으로, 앞쪽에 강학공간을 두고 뒤쪽에 문묘 일곽을 배치했다. 명륜당과 내삼문, 대성전은 정확히 동서 축선 상에 배치되고, 외삼문만 축선에서 약간 좌측으로 이동 배치되어 있다. 문묘와 강학공간과는 구별되는 양사재, 풍화루, 교직사, 서고 등의 건물은 향교의 정면 좌측(남측)에 배치되어 있다. 양사재 등으로 출입하기 위한 별도의 삼문이 있다. 양사재는 대지의 형편상 서재의 위쪽에서 남동향하고, 풍화루는 그 전면(前面)에 자리 잡고 있다. 풍화루 아래의 서재 왼편에 교직사가 위치하고 있다. 명륜당 정면 왼편에는 수령이 150년 정도 된 은행나무가 있고, 그 옆에는 이진비, 중수비, 공적비 등을 한데 모아 놓은 일종의 비림(碑林)이 있다.

명륜당을 중심으로 한 강학영역의 건물 배치는 전당후재형(前堂後齋形)으로 앞쪽(동)에 명륜당을 두고 그 후면(서)에 동서 양재를 배치했다. 전당후재형의 배치는 기호지방 향교의 강학영역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며, 순천향교도 이 같은 향교 건축의 지역성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강학공간 뒤쪽(서)의 한단 높은 터에 대성전과 동서 양무로 구성된 문묘가 자리 잡고 있다. 문묘 외곽에 반듯하게 담을 쌓아 외부공간과 구분했으며, 정면에 있는 내삼문을 통해 문묘 안으로 출입하도록 했다. 내삼문을 들어서면 대성전을 중심으로 동무(東廡)와 서무(西廡)가 좌우 대칭으로 배치되어 있고, 대성전의 정면 왼편에는 제향(祭享)시 필요한 제기를 보관하는 제기고(祭器庫)는 자리 잡고 있다. 순천향교 문묘는 정방형의 일곽구성, 대칭적인 건물 배치 등에서 유교적 제향공간의 특징인 엄숙하고, 신성한 공간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

## 2)대성전의 건축양식 및 특성

순천향교 대성전(그림.7,8)은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의 맞배지붕 건물이다. 상부가구는 1고주 5량가이고, 지붕은 겹처마 맞배지붕이다. 다듬은 석재를 사용한 낮은 기단 위에 다듬은 초석을 놓고 원주(圓柱)을 세워 상부가구를 지지하게 했으며, 정면에는 개방된 전



그림 120 1939년, 순천향교 모습(우측 건물- 대성전)



그림 121 순천향교 대성전과 내삼문의 옛 사진



그림 122 순천향교 대성전 정면

퇴를 시설했다. 내부 중앙에 오성(五聖)의 위판을 소목제에 따라 배치하고, 동서 측벽에 공문십철(孔門十哲)과 송조육현(宋朝六賢)의 위판을 봉안했다.

대성전은 문묘에서 가장 위계가 높고 상징적인 건물로 향교 내 타 건물에 비해 규모 · 구조 · 양식 및 의장적인 측면에서 월등하며, 이로써 문묘의 중심 건물인 대성전의 높은 상징성과 위계를 잘 표현했다. 전면(前面) 어칸 상부에는 “大成殿”이라고 새긴 큰 현판이 걸려 있다. 현재의 순천향교 대성전은 2006년에 전면 해체 수리를 한 후의 모습이며, 이때 상당량의 노후 부식재를 신재로 교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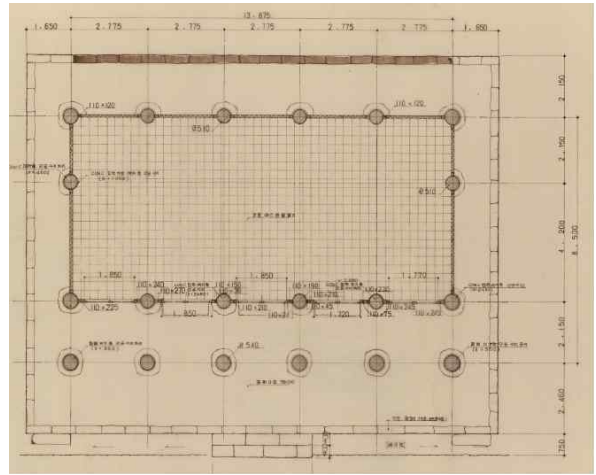


그림 123 순천향교 대성전 평면도

### (1) 평면

대성전의 평면형식(그림.9)은 전면(前面)에 퇴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구분된다. 전면(前面)에 퇴칸이 있는 개방형 평면이 전 향교의 약 67%(약 150 개소)로 개방형 평면이 폐쇄형보다 다수이다. 개방형은 지역적으로 경상도를 제외한 경기 · 강원 · 충청 · 제주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반면 경북에서는 전퇴가 없는 폐쇄형 평면이 전퇴가 있는 개방형 평면보다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124 순천향교 대성전의 우측면과 배면

개방형의 순천향교 대성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규모이다. 건축면적이 117.93㎡(35.67평)으로, 전남에 분포하는 정면 5칸 규모의 대성전 중 나주향교(48.3평), 화순향교(36.8평) 다음으로 규모가 크다. 주간에 대해 살펴보면 정면의 매칸은 2,775mm이고, 측면은 어칸만 4,200mm이고, 좌우 협칸은 2,150mm이다. 내부 바닥에는 전돌을 사용했는데(그림.10), 이는 1986년에 대성전을 수리하면서 아스타일을 철거하고 새로 시공한 것이다.



그림 125 순천향교 대성전 내부

대성전의 규모는 정면 칸수가 3칸인 것의 전체의 약 80%이며, 정면이 5칸인 것은 성균관 대성전을 비롯 순천 · 수원 · 춘천 · 강릉 · 충주 · 나주 · 상주 · 동래향교 등 대체로 규모가 큰 고을의 대성전에 주로 채용되었다. 창호는 정면 매 칸에 두 짝 여닫이문을 시설하고, 나머

지 삼면에는 토벽 위에 회를 발라 마감했다.

## (2)기단과 초석 및 기둥

대성전의 기단은 다듬은 화강석 또는 방형 석재를 사용하여 조성한 것이다. 전면 기면(그림.11)에만 정교하게 다듬은 돌을 사용하여 두벌대로 쌓고 나머지 삼면은 외벌대로 처리했다. 배면과 양 측면에는 거칠게 다듬은 방형 석재로 외벌대 기단을 축조했다. 잘 다듬은 돌을 사용한 정면기단은 맨 아래에 낮고 긴 장대석을 깔고 그 위에 면석 모양의 석재를 세워 놓은 형태이다. 사면의 기단 상면에는 강회다짐을 했다. 배면과 좌우 측면에는 기단 끝에 붙여 배수호가 조성되어 있는데, 상태로 보아 근년에 시설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26 순천향교 대성전의 기단 및 초석

전면(前面) 기단의 3개소(중앙, 좌우측)에 대성전으로 오르는 석계(石階)가 있다. 계단의 단 수는 2단 정도이며, 너비는 가운데 계단이 크고, 그 좌우 계단이 좁은 형태이다. 전면(前面) 기단과 계단 사이의 지붕 낙수가 떨어지는 구간의 바닥에는 화강석 판석과 시멘트 몰탈을 발라 놓았다. 대성전에 사용된 초석은 주좌 받침과 주좌를 새긴 것으로, 초석의 표면을 정을 사용하게 거칠게 다듬어 사용했다. 이러한 초석은 대성전의 전후 면 및 좌우 측면에도 사용되었다.

대성전에는 우주(隅柱) 4본, 평주 8본, 고주(高柱) 8본 등 총 20본의 원주가 사용되었다. 2006년에 해체 수리하면서 상당수의 노후 및 부식한 기둥을 신재로 교체한바 있고, 재사용이 가능한 것은 보강하여 사용했다. 해체 수리시 후면의 대부분의 기둥 및 고주 14본 중 4본이 신재로 교체되었으며, 기둥 4본은 동바리 이음 후 재사용했다.

2006년에 전면 해체 수리 때 작성된 실측자료를 토대로 기둥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면, 우주는 민흘림한 원주로 상부 직경(굵기)이 421~540mm, 하부 직경이 421~560mm이다. 평주도 민흘림한 원주이며, 직경은 상부가 468~494mm, 하부가 527~555mm이다. 고주(高柱)도 민흘림한 원주인데, 굵기는 상부가 460~483mm, 하부가 535~561mm이다. 험칸에 사용한 고주가 어칸 좌우 기둥보다 가 22mm 더 길었는데, 이는 귀솟음 기법의 적용과 관련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성전의 전후면에는 각각 6본씩 모두 12본의 창방이 사용되었다. 창방의 크기는 120×305mm로, 폭에 대한 높이의 비는 1 : 2.54으로 나타났다. 창방의 폭은 수장 폭과 같으나 두께가 얇아서 좌굴이나 뒤틀림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방뿔목은 끝을 직절(直切)한 형태로 밑면에 초각하지 않았다. 기둥 중심에서 좌우 창방을 이을 때 주먹장이음을 하지 않고 기둥의 사괘에 통으로 파 넣어 결구하는 방식을 채택했으며, 초익공 살미의 측면과 창방은 맞닿아 있다.



### (3) 상부가구

순천향교 대성전의 상부가구(그림.12,13)는 1고주 5량가로, 기둥 위에 대량, 종량 및 뒷보 등의 다양한 들보를 걸쳐 지붕하중을 지지하도록 했다. 이 중 대량은 제2열에 세운 고주의 윗몸과 후면 평주 상부에 놓인 공포 사이에 결구되어 있다. 대량 상부에서 종도리를 받는 종량은 고주의 머리와 대량 위에 세운 키 작은 동자주 위에 걸려 있다. 종량의 중앙부에는 키 큰 파련대공을 세워 상부의 종도리와 받침장혀를 지지하도록 했다. 대성전 전면에 개방된 전퇴를 형성하기 위해 뒷보를 걸었는데, 뒷보는 외진 평주 상부의 공포와 고주의 윗몸 사이에 걸려 있다. 뒷보는 고주 윗몸의 내측에 결구되어 있는 대량 높이에 맞추어 고주 외측에 맞보 형식으로 걸려 있다. 고주에 대량과 뒷보를 결구할 때 가로로 축을 꽂아 보강했다. 즉 들보 끝에 만든 장부를 고주 몸의 장부구멍에 밀어 넣고 밖에서 가로로 축을 끼워 장부가 빠지지 않게 했다.

이처럼 대성전에는 대량, 종량, 뒷보 등 다양한 보가 사용되었다. 대량의 단면은 구형(矩形)으로, 자연재의 굴곡과 형태를 최대한 살려 치목했다. 대량의 굽기는 중앙부가 398×550mm 이고, 그 장단변의 비는 1 : 1.38 정도이다. 주두 · 익공 · 장여 및 보아지와 대량이 접촉되는 부위는 그 크기만큼 하부를 깎고 결구했다. 대량 상부에 종량을 받는 동자주를 세울 때는 윗면을 편평하게 다듬은 다음 거기에 장부 홈을 만들고 동자주 하부의 장부를 끼워 고정했다.

대성전에 사용된 종보는 모두 6본으로, 대량 상부에 4본, 양 측면 고주 상부에 각 1본이 사용되었다. 종보는 고주와 대량 상부 동자주 사이에 걸려 있다. 즉 전면 고주와 대량에 고정된 동자주 머리에는 끝이 직절된 익공을 끼우고 주두를 놓아 결구했다. 주두 밑에 끼워 넣은 직절익공은 끝을 직절한 형태로, 내단에는 초각을 베풀었다.

고주 상부에는 장여와 두께가 같은 창방을 걸고, 종보의 승어 턱에 종도리와 받침장혀



그림 127 대성전 상부가구 및 내부 단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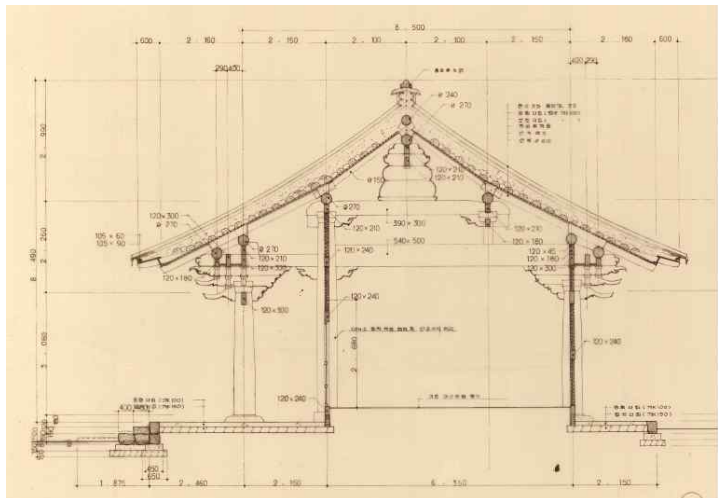


그림 128 순천향교 대성전 종단면도

를 결구했다. 주두와 맞추어지는 종보 머리의 밑면을 주두 모양으로 따냈으며, 중도리 받침장여와 결구되는 종보의 측면도 단면을 따내고 결구했다. 그리고 중도리가 놓이는 종보의 좌우 머리도 반원형으로 따내고 거기에 중도리를 걸었다. 종량도 대량과 같이 자연재(材)의 형태를 살려 치목했으며, 보 상부에는 파련대공을 세워 중도리와 받침장혀를 받도록 했다.

전퇴 상부와 양 측면의 후퇴에는 총 8본(전면 6본, 측면 2본)의 뒷보가 사용되었다. 2006년에 대성전을 해체 수리하면서 이중 2본이 신재로 교체되었다. 전후 고주 몸에 걸려 있는 뒷보는 대량의 하부높이에 맞추어 고주와 장부맞춤하고, 밑에는 끝을 초각한 보아지를 끼워 보강했다. 뒷보는 네 모서리를 죽인 각재(角材) 모양으로, 굵기는 168×247mm이다. 뒷보의 장단변의 비는 약 1 : 1.47로, 춤이 폭의 1.5배 정도이다.

대성전에는 각각 10본의 주심도리, 출목도리, 중도리 및 5본의 종도리가 사용되었다. 이들 도리는 원형 단면의 굴도리로, 굵기는 직경 300mm 정도이다. 2006년 수리시 총 35본의 각종 도리 중에서 주심도리 4본, 출목도리 1본, 중도리 1본이 신재로 교체되었다. 창방은 전면에 6본, 배면에 6본 등 모두 12본이 사용되었으며, 크기는 120×305mm 정도이다. 창방 뺨목은 끝을 직절한 형태이며, 단부는 초각(草刻)하지 않았다. 창방의 경우 춤은 비교적 크나 폭이 수장 폭과 같아 좌굴이나 뒤틀림에 약하다. 도리 하부에는 받침장혀와 가침장혀(뜯장혀, 덧장혀)가 사용되었는데, 그 총수는 50본이다. 주심도리 받침장혀 4본, 중도리 받침장혀 1본, 출목도리 받침장혀 1본, 가침장혀가 1본 등이 2006년의 해체 수리시 신재로 교체되었다. 일반적인 장혀의 크기는 120×210mm이고, 주심의 덧장혀는 통부재로 크기는 120×300mm 정도이다.

종보 상부에 판대공을 세워 중도리와 받침장혀를 받게 했다. 건물 내부의 판대공은 판재의 외곽을 초새김한 간략한 파련대공이나 양 측벽에 놓인 대공은 도리를 올려놓는 부분의 어깨를 살짝 굴린 전형적인 제형 판대공의 형태이다. 천장은 반자를 꾸미지 않은 연등천장으로 되어 있는 순천향교 대성전의 경우 대공의 외곽에 간략한 파련 초각을 하는 수법으로 건물의 높은 위계를 표현했다. 대량 위에 놓여 종량을 받치는 동자주는 키 작은 각주로, 머리에 사괘를 내 고주익공과 창방을 십자로 결구하고, 그 위에 주두를 놓아 종량을 지지하도록 했다. 대성전에 사용한 재목의 상태를 보면 전면 평주에는 구재(舊材)가 많이 남아 있으나 배면의 평주는 대부분 신재이다. 전퇴 안쪽 고주(高柱, 제2열)는 6본 중 5본이 신재(新材)이고, 1본은 수리 후 재사용한 것이다. 우측면 기둥은 보강하여 재사용한 1본 외에 대부분 신재이다. 그리고 대성전 외벽의 하인방, 중인방, 상인방 등도 대부분 신재로 교체되었고, 삼면의 외벽은 2006년에 해체하고 새로 친 것이다.

#### (4) 공포

순천향교 대성전의 공포는 외2출목 삼익공식(그림.14,15,16)이며, 전후면의 공포는 공포

의 구성과 세부형식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전후(前後) 외진 평주 상부에 삼익공식 공포를 짜 올려 출목도리를 받치고, 주간의 창방 위에는 화반을 사용했다. 외2출목 삼익공식 공포는 기둥머리에 긴 초익공을 결구하고, 주상(柱上)에 주두를 놓아 이익공, 삼익공 부재와 첨차를 십자로 결구하여 출목(외1,2출목)도리를 받치게 했다. 익공 부재의 내단(內端)은 긴 보아지 형태이다.

익공살미의 끝에 다포식 공포의 쇠서와 유사한 형태의 쇠서를 새겼는데, 초익공과 이익공에는 양서형 쇠서, 삼익공에는 짧고 끝이 뾰족한 수서형 쇠서를 각각 조각했다. 초익공과 이익공의 쇠서는 연봉이나 연꽃 등을 조식(彫飾)하지 않은 간결한 형태이고, 삼익공 쇠서의 밑에만 길쭉한 형태의 연봉을 새겼다. 초익공과 이익공의 쇠서는 곡율이 적고 끝이 사절(斜切)된 형태로, 다포식 공포의 쇠서와 매우 유사하다. 이처럼 순천향교 대성전의 쇠서 형태가 전형적인 익공식과 차이를 보이는 것은 조선 중기이후 다포식 공포의 특징을 수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전면 공포의 삼익공 위에서 이출목도리 밖으로 길게 돌출한 뒷보는 끝을 마치 삼분두형에 가까운 형태로 깎고, 밑에 작은 연봉을 조식한 형태이다.

주심(柱心)과 출목에서 초익공과 이익공 부재는 교두형의 행공 또는 출목첨차와 십자로 짜여 있다. 주심의 행공 및 출목첨차의 경우 좌우 양끝에 소로를 놓고 상하 부재를 중첩했다. 주심에 사용된 대소 행공은 상하 부재가 맞닿아 있는 반면, 대소 출목첨차의 사이는 소로의 운두만큼 이격되어 있다. 익공 부재(살미)의 내단은 고주 쪽으로 길게 뻗어 외진 평주와 뒷보의 결구부를 보강하고 있으며, 빗변으로 처리한 보아지 끝에는 간략한 곡선형의 당초문과 연봉이 선각(線刻)되어 있다. 단 측벽에 문힌 익공 부재의 내단은 끝을 비스듬히 자른 간략한 역삼각형 모습을 하고 있다. 주간(柱間)의 창방 상부에는 화반을 사용하여 주심도리 장혀를 받치도록 했는데, 그 형태는 전·후면이 다르다. 전면(前面) 화반은 두꺼운 (수장 폭과 동일) 판재를 사용하여 만든 것으로, 반원형 받침 위에 좌우 끝을 곡면으로 사다리꼴의 부재를 올린 형태이다. 화반의 최상단에 두 개의 소로를 사용하여 장혀를 지지하도록 했다. 후면의 주간에 사용된 화반은 간략한 방형으로, 끝을 직절한 장방형의 판재 세 장을 겹쳐 만들었다. 이 화반의 상단 중앙에 소로를 놓아 장혀를 받고 있다. 익공식의 포작은 무출목이거나 출목이 있어도 외1출목에 한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순천향교 대성전은 외이출목 삼익공식 건물로, 출목의 간격은 1출목이 2출목보다 넓다. 대성전에 사용된 공포의 수는 모두 12구이며, 이 중 3구는 2006년 수



그림 129 대성전 정면 공포



그림 130 대성전 배면 공포

리시 신재로 교체되었다.

순천향교 대성전의 공포에는 대소 출목첨차가 쓰였다. 즉 외1출목에 소첨차와 대첨차, 외2출목에 소첨차가 각각 사용되었다. 공포에 사용된 첨차는 단부의 1/2을 직절한 다음 그 하부를 둥글게 굴린 교두형으로 다포식 공포에 많이 사용되었다.

대성전 기둥 상부의 주두는 굽 받침이 없고 굽을 사절(斜切)한 형태로, 보 방향으로 익공과 보아지가 결합되는 부분은 옆갈을 따내고 결구했다. 위치에 따라 평주 주두, 우주 주두, 대들보 상부의 동자주 주두, 고주 주두 등 여러 종류의 주두가 사용되었다. 주두는 총 24본으로, 이 중 4본은 수리시 신재로 교체되었다. 소로는 이갈소로, 알통보강 이갈소로, 양갈소로 등이 사용되었으며, 이들 소로는 공포의 행공과 출목첨차 및 화반, 뿔목 등에 사용되었고, 이밖에 중도리를 받는 행공첨차, 중도리 하부의 뜯장혀, 대공에도 사용되었다. 한편 공포재의 보존상태를 살펴보면 배면의 평주 상부에 놓인 주두 중 4개는 신재(新材)이며, 정면 좌측 우주의 주두는 중앙부가 파손되어 있다. 정면 좌우 우주의 이익공과 삼익공 부재도 신재(新材)이며, 배면 공포의 익공재와 첨차 중 상당수는 신재로 교체되었다.

위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순천향교 대성전에 사용된 외2출목 삼익공식 공포는 세부에서 전형적인 익공식 공포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주두와 첨차, 행공, 소로, 쇠서 등은 다포식 건축의 세부형식을 따랐는데, 이는 조선 중기이후 다포식 공포의 세부특징이 익공식 공포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순천향교 대성전은 공포의 형태와 세부형식에서 17세기이후 익공식 공포의 변화양상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있다.

### (5) 처마와 지붕

순천향교 대성전의 지붕은 맞배지붕이며, 전후면 처마는 장연 위에 부연을 올린 겹처마로 되어 있다.(그림.16) 연목 중 40~50%는 신재로 교체되었다. 구재(舊材)는 정면의 장연 10여개, 부연의 20~30% 정도이다. 특히 근년에 교체된 장연과 부연의 경우 치목수법이 크게 달라 육안으로도 쉽게 구재(舊材)와 신재(新材)를 구별할 수 있다. 근년에 교체한 연목은 말구의 처리와 뱃바닥과 양 옆면 볼의 치목기법에서 구재와 큰 차이가 있다. 부연 중 구재(舊材)는 정면에 23개, 배면에 8개 정도 남아있고, 나머지는 모두 신재로 교체되었다. 오래된 부연은 춤보다 너비가 더 큰 장방형으로, 처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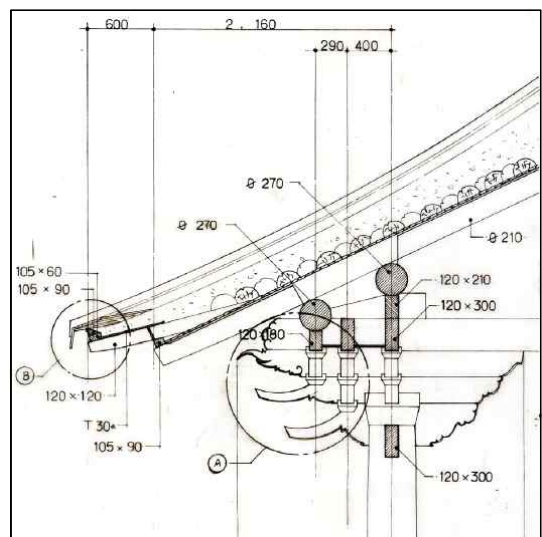


그림 131 순천향교 대성전 공포(외2출목 삼익공식)

곡에 맞추어 밑을 후리고 말구를 사다리꼴로 만들었으나 근래에 만든 부연에서는 이 같은 세부수법을 찾아보기 힘들다.

지붕의 양 측면의 방풍판은 판재와 졸대를 사용하여 만든 것이며, 2006년에 해체 수리하면서 모두 신재로 교체하여 구재(舊材)가 남아있지 않다. 지붕의 용마루 하부에는 날개기와가 돌출되어 있다. 날개기와는 착고기와 위에 1단의 부고를 올려놓고 그 위에 용마루선과 직교하게 암수기와를 덮은 것이다. 날개기와 위에 다시 5단의 적재를 겹쳐 놓고, 솟기와의를 덮었다. 용마루에 사용된 날개기와는 경남 서부지역과 호남 일부지역의 권위건축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건축의 지역성을 잘 보여준다. 지붕 좌우 끝부분의 내림마루는 1단의 당골막이를 놓고, 그 위에 3단의 적재를 쌓은 다음 1단의 솟기와의를 덮어 마감했다.



그림 132 대성전 용마루의 날개기와

(그림.17)

지붕에 사용한 기와는 구(舊)기와 문양을 본 떠 새로 제작한 것이며, 이전의 구(舊)기와는 내림마루와 용마루의 적새기와로 사용했다. 처마 끝에는 와구토를 대신 암수 막새기와를 사용했으며, 기와의 보존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데, 이는 2006년에 해체 수리를 하면서 새 기와로 변화 했기 때문이다.

### (6) 입면구성 및 창호, 벽체

창호는 대성전 전면에만 시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면 3칸인 대성전에서는 매 칸에 창호를 시설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예외적으로 영산향교 대성전처럼 어칸에만 세 짝의 문을 시설한 경우도 있다. 정면 5칸의 대규모 대성전에서는 대개 어칸을 중심으로 좌우 협칸 또는 좌우 퇴칸에 창호를 시설하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순천향교 대성전과 같이 정면의 5칸인 건물의 전 칸에 창호를 시설한 사례도 있는데, 여기에 속한 사례로 개성향교, 수원향교, 강화향교, 순천향교 대성전이 있다.



그림 133 순천향교 대성전 정면 창호

정면이 5칸인 순천향교 대성전에는 정면 매 칸에 두 짝의 여닫이문(그림.18)이 달려있고, 여닫이문외에 별도 광창은 시설하지 않았다. 대성전 정면의 문울거미와 문짝은 근년에 해체 수리하면서 대부분 신재로 교체한 것으로 이로 인해 고태(古態)를 많이 상실했다. 전면의 여닫이 문은 울거미 널문과 빗살문 세설창이 복합된 형식이다. 문은 궁창널이 있는 빗살문형<sup>204</sup>이다. 문 하부의 2단 궁창널 위에 가는 살대로 빗살문을 넣은 것이다.

상부의 빗살은 실내 채광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기까지 성현(聖賢)의 위판을 모신 대성전에는 주로 띠장 널문 또는 울거미 널문이 많이 시설되었으나 조선후기 이후 근대로 오면서 실내 채광을 위해 고정된 광창을 따로 시설하거나 아니면 세살창과 궁창널이 복합된 형식의 문을 다는 경향이 늘어났다. 이점에서 순천향교 대성전의 창호는 19세기 이후의 경향을 보여준다. 그리고 창호를 시설하지 않은 대성전 양 측면과 후면의 벽은 토벽 또는 사벽을 치고 그 위에 회를 바른 것이다.



그림 134 순천향교 대성전의 외부 단청

순천향교 대성전의 단청(그림.19)은 외부에 노출되는 부재에만 간략한 모로단청을 하고, 밖에서 볼 수 없는 실내에는 적록(赤綠)의 안료만으로 가칠단청을 했다. 외부에 노출되는 띠보, 창방, 출목도리, 장혀, 보아지, 장연 등에 베푼 모로단청은 대개 부재의 양 끝에만 간략한 머리초를 그려 넣고, 머리초 사이는 먹선으로 굵기만 한 것이다. 공포를 구성하는 대소 첨차와 살미 및 보아지 등에는 간단한 당초문을 그렸으며, 연목의 끝에는 곱팡이 문양에 간략한 휘를 더했으며, 부연의 뱃바닥에는 굵은 먹선으로 굵기만 했다. 부연개관의 바닥에는 단순한 여의두문을, 초맥이의 착고에는 연화를 각각 그렸으며, 출목의 순각판에는 먹을 사용하여 운문을 그렸다. 건물 내부의 대량과 종량, 주심도리, 창방, 장혀에는 문양 없이 뇌록을 사용하여 가칠하고, 기둥과 벽선, 인방재 등에는 주홍(朱紅)색을 칠해 적록(赤綠)의 보색 대비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했다. 대성전의 단청은 2006년 전면 해체 수리 시 전면 개체한 것으로, 유교건물의 특징을 살려 간략 소박하게 단청한데 특징이 있다.

### (7)타 향교 대성전과 비교

순천향교 대성전의 연혁과 건축적 특징에 대해서는 전술한바 있다. 여기서는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타 향교 대성전과의 비교를 통해 순천향교 대성전의 특징을 들어내고자 한다.(표.2) 현존하는 순천향교 대성전은 1649년에 대대적인 중수(중건)했던 모습을 근간으로 거기에 수차례의 이건(移建) 및 중수(보수)시의 건축기법이 절충되어 있는 건물이다.

순천향교 대성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의 겹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전면에 전퇴

204) 대성전에 사용된 창호양식은 판문형과 궁창널이 있는 띠살문형으로 구별된다. 판문형은 모두 광창을 두었고, 띠살문형은 광창을 두거나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5칸 모두에 띠살문을 설치한 경우는 광창을 두지 않았다. 대성전에 별도의 광창을 둔 경우도 있는데, 5칸 건물의 경우는 문을 두지 않은 협칸(서울문묘, 나주향교, 대정향교, 제주향교, 평해향교, 해주향교 등) 또는 퇴칸(상주향교, 영천향교, 춘천향교, 동래향교, 충주향교 등)에 창을 설치한 경우가 있다. 평양향교와 같이 협칸·퇴칸에 광창을 설치한 예도 있고, 통풍을 위해 측면에 창을 설치한 예(강릉향교, 울진향교)도 있다.

가 있는 개방형 평면의 건물로, 전돌 바닥으로 처리한 내부에 오성(五聖)의 위판을 소목제에 따라 배치하고, 동서 측벽에 공문십철(孔門十哲)과 송조육현(宋朝六賢)의 위판을 봉안했다.

상부가구는 1고주 5량가로, 다듬은 돌로 조성한 낮은 기단 위에 놓인 반듯한 초석을 놓고 원주를 세워 상부 하중을 지지하도록 했다. 공포는 외2출목의 삼익공식으로 전후 평주 상부에만 공포를 짜 올리고, 주간에는 화반을 사용했다. 초익공과 이익공의 익공살미 외단에는 양서를 조각했으며, 익공살미의 내단은 뒷보의 하중을 받아 기둥에 전달하기 용이하도록 보아지 형태로 처리했다. 주심(柱心)과 출목에는 익공살미와 직교하는 방향으로 간략한 형태의 행공 또는 출목첨차를 걸어 견고한 공포를 구성했다. 행공과 첨차에 모두 소로를 사용했음에도 행공은 상하 부재가 맞닿아 있는 반면 출목도리 하부 다소 첨차는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 있다. 초익공과 이익공의 살미와 첨차는 다포식 공포의 법식에 따라 짜 맞춘 것으로, 조선 중기에 주심포식과 다포식 그리고 익공식의 특징들이 절충하는 가운데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2006년에 전면 해체 수리시 상당량의 재목을 신재로 교체한 것이 아쉽다.

표 61 순천향교 대성전과 나주향교 대성전의 건축특성 비교

	순천향교 대성전	나주향교 대성전 <보물 제394호(1963.9.2)>
건축시기	1649년(인조 27) 중수	1602년(선조 35) 중건
규모,지붕	정면 5칸, 측면 3칸, 겹처마 맞배지붕 전퇴를 둔 개방형 평면	정면 5칸, 측면 4칸 겹처마 팔작지붕 전퇴를 둔 개방형 평면
기단,초석 기둥	다듬은 돌로 조성한 낮은 기단 위에 주좌를 새긴 원형 초석을 놓고 원주를 세워 상부 하중 지지	다듬은 돌을 바르게 쌓은 정교한 기단. 연꽃무늬 새긴 둥근 주춧돌 배흘림 있는 원주
바닥,천장	전돌 바닥(근년에 수리), 연등천장	장마루, 연등천장
상부가구	1고주 5량가, 전퇴 안쪽의 고주 윗몸과 후면 평주 사이에 대량을 걸고, 고주와 동자주 사이에 종보를 걸고, 종보 위에 파련대공 놓아 종도리 받침	2고주 7량가, 전후 고주 사이에 대량을 걸고 그 위에 동자주를 세우고 종량을 받침. 종량 위에 파련대공 놓아 종도리를 받침
공포	외2출목의 삼익공식, 주간에 화반 사용 초익공,이익공의 익공살미 외단에 양서 조각, 익공살미 내단은 보아지로 처리. 살미첨차 사이가 하나의 판처럼 붙어 있음 주심과 출목에 익공살미와 직교하는 행공 또는 출목첨차 걸어 공포 구성 초익공과 이익공의 살미, 첨차의 세부는 다포식 공포의 법식을 따랐음, 조선중기에 주심포식과 다포식,익공식 공포의 특징들이 절충되면서 나타난 공포형식	·주두를 놓고 첨차를 짜 올린 주심포계 ·외1출목, 기둥 윗몸에 짧은 헛첨차 내어 보 방향 살미첨차를 받게 했음. 초제공, 이제공의 끝은 양서 ·제공의 내단을 기둥과 보의 연결을 보강하는 보아지로 처리 ·살미첨차 사이가 하나의 판처럼 붙어 있음. 헛첨차, 행공첨차의 밑면은 초각 ·공포는 주심포식에서 익공식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모습 ·주간의 창방 위에 화반 놓아 주심도리 받침장혀를 받도록 함

위 비교표(표.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순천향교 대성전과 나주향교 대성전은 규모, 평면형식 등 여러 면에서 유사성이 높다. 1602년(선조 35)에 중건된 나주향교 대성전은

조선시대 지방 문묘 대성전의 정수를 보여주는 건물로 입면구성과 기단과 초석을 비롯한 세부 및 상부가구등 여러 면에서 다소 질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 하지만 순천향교 대성전도 건축연혁이 분명하고, 중도리 밑면에서 1649년(인조 27)에 쓴 상량목서가 확인되어 17세기 중엽의 건축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분명하고 현존 상부가구와 공포형식 등이 고졸하고 보존상태도 비교적 양호한 우수한 호남지방 문묘건축이라고 할 수 있다.

표 62 순천향교 대성전과 나주향교 대성전





순천향교 대성전	나주향교 대성전
 외2출목 삼익공식	 외1출목 주심포식
 화반	 화반

표 63 문화재 가치 평가

문화재명		순천향교 대성전				
지정기준		평가 지표	우수	보통	미흡	해당없음
역사성	시대성	사회·문화·정치·경제·교육·예술·종교·생활 등 당대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가	○			
	역사적 인물	저명한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그가 제작하였는가		○		
	역사적 사건	역사상 특수한 목적을 띠고 기념비적으로 만들었는가		○		
	문화사적 기여도	우리나라 문화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갖는가	○			
	총 합					
예술성	보편성	인류의 보편적인 미적 가치를 구현하였는가	○			
	특수성	우리나라 특유의 미적 가치를 잘 표현하	○			



		였는가				
	우수성	구조, 구성, 형태, 색채, 문양, 비례, 필선 등이 조형적으로 우수한가	○			
	창의성	제작자의 개성이 뚜렷하고 작품성이 높은가	○			
	<b>총 합</b>					
<b>활 술 성</b>	대표성	특수한 작가 또는 유파를 대표하는가		○		
	지역성	해당 지역의 특징을 잘 구현하였는가	○			
	특이성	형태, 품질, 기법, 제작, 용도 등에 현저한 특이성이 있는가	○			
	명확성	명문, 발문 등을 통해 제작자, 제작시기 등에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는가	○			
	연구 기여도	해당 학문의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가	○			
	<b>총 합</b>					
<b>공 통 사 항</b>	동종문화재와 비교검토	동종문화재와 비교했을 때 특별한 가치가 있는가	○			
	희소성	동종의 문화재 중 연대가 오래되거나, 전래되는 문화재가 유일하거나 적은가	○			
	보존상태	제작 당시의 원형을 크게 변형, 훼손하지 않고 보존상태가 양호한가		○		
	완전성	구성의 완결성을 어느 정도 보유했는가		○		

## 9. 조사자 의견

순천향교는 989년(고려 성종 6) 8월에 왕명으로 중앙에서 경학박사와 의학박사를 각 1인씩 파견한데 기원을 두고 있다. 고려 성종 때 학교가 설치된 3경(京) 12목(牧) 가운데 전라도에 속한 군현은 순천을 비롯 전주, 나주의 세 곳이었다. 이처럼 순천향교의 연원은 매우 오래되었다. 조선시대의 순천향교는 1407년에 순천도호부에 속한 관학으로 처음 설치되었다.

순천향교 대성전은 1649년(인조 27)에 중수시 건물로 추정되며, 그 후 여러 차례의 이건과 중수를 거듭하여 오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1649년의 중수 때 종도리 밑면에 쓴 상량묵서(墨書)와 1780년(정조 4)과 1801년(순조 1)의 중수 시 지은 상량문으로 보아 현존하는 건물은 17세기 중엽에 건축(중수)된 후 그 후 수차례의 이건과 중수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대성전의 건축양식과 공포 및 구조형식, 창호형식, 세부수법 등을 볼 때 1649년(인조

27) 중수시 모습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1649년 이후에 있었던 여러 차례의 이건과 보수 때도 부식재 또는 훼손된 부재만 골라 교체함으로서 17세기 중엽의 건축양식이 보존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누차에 걸친 수리로 인해 건물에는 새로운 변화가 가미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창호재와 수장재 및 단청 등은 수리시 유행하는 형식으로 바뀌었던 것으로 보인다. 순천향교 대성전은 전퇴가 있는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의 대규모 건물(35.7평)로, 호남을 대표하는 대성전인 나주향교 대성전(48.3평), 화순향교 대성전(36.8평) 다음으로 규모가 크며, 이는 지역에서 순천향교의 위상이 상당했음을 말해준다.

순천향교 대성전(정면 5칸×측면 3칸)은 다른 향교 대성전에 비해 규모가 큰 중설위 향교의 대성전이라는데 특징이 있다. 그리고 구조 · 공포 · 수장 · 단청 등의 여러 면에서 고졸하면서 검박한 호남지방 문묘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공포는 다포식과 익공식이 절충된 외2출목 삼익공식으로, 다포식의 주두와 교두형 첨차, 쇠서 형태를 받아들인 공포구성은 대성전의 건축연대를 17세기 중엽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장식이 배제된 검박하고 간결한 구조형식과 견실한 결구도 특징이다. 하지만 2006년의 전면 해체 수리시 연목 · 부연 · 공포재, 창호 등의 상당수 부재가 신재로 교체되면서 전통적인 건축기법을 다소 상실한 것이 아쉽다.

앞에서 상술한바와 같이 순천향교 대성전은 건축연혁이 분명한 17세기 중엽의 유교건축으로, 나주향교의 대성전과 함께 호남을 대표하는 목조건축이라 할 수 있다. 외2출목 삼익공의 특징적인 공포형식, 간결하고 소박한 가구 수법 등에 시대성 및 조선후기 유교건축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어 학술적 · 역사적인 측면의 가치가 크다. 따라서 조선시대 향교건축과 전통건축의 특성과 세부기법을 잘 가지고 있고, 지방사 연구의 귀중한 자료라는 점에서 보물로 승격시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 ※보완할 사항

- 보물로 승격될 경우 현상변경허용기준은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 지정신청서에는 제1구역에 대해 ‘순천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다’고 했는데, 이는 불합리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좀 더 세분하고, 각 구역에 맞는 적절한 건축 제한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명륜당의 경우 향교 활용을 위해 개방된 전면에 창호를 시설하는 등의 개변이 있었으며, 보물로 승격 후 문화재 활용이 원형을 훼손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0.07.14	대상문화재	순천향교 대성전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순천향교 대성전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07월 20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1.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현재 순천향교는 순천 난봉산(鸞鳳山)을 배산하여 동향으로 경사지에 자리 잡고 있다. 원래 순천향교는 읍성 밖 동쪽, 서쪽, 남쪽으로 여러 번의 이건 과정이 있었고, 1801년 지금 서있는 자리인 금곡동, 즉 순천읍성의 서문 바로 바깥쪽에 위치하게 되었다.

순천향교는 난봉산 자락 경사지에 지어져서 조망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도심 내 많은 건물들로 인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하지만 조영 당시에는 향교 맞은편 동쪽으로 약 1km에 거리에 있는 동천(東川)과 죽도봉(竹島峯)이 한 눈에 들어와 유리한 조망권이 있는 입지 조건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향교 남쪽으로 약 150m 거리에 옥천(玉川)이 있는데, 옥천 주변에는 조선시대 사림의 도학 정신이 깃들어 있는 옥천서원(玉川書院), 임청대(臨淸臺) 등의 유교유적이 남아 있다. 이와 같이 순천의 유교유적은 순천향교를 중심으로 15개의 서원과 사우, 누정과 정려, 제각, 비 등의 건조물과 유형물 등이 잘 남아 있다. 이중 순천향교는 관학교육기관으로서 순천의 대표적 유교문화유적이라고 할 수 있다.

## 2. 연혁 · 유래 · 특징 :

### (1) 연혁과 유래

기록에 의하면 고려시대 성종 대에 설치된 12목에 승주(升州, 순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순천 지역에도 향교와 같은 교육시설이 세워졌을 것으로 추측하지만, 순천 어느 지역에, 어느 규모로 세워졌는지 구체적인 기록이 없다. 하지만 성종 대 학교가 설치된 호남지역은 순천을 비롯해 나주와 전주 등 3곳 밖에 없었기 때문에 당시 순천향교의 건축적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이라한 중요성 때문에 조선 건국 초 순천도호부의 향교로 설치되어 여수, 광양, 돌산 등 인근 군현들의 향교를 관할하게 되었다.

조선시대의 순천향교는 1407년(태종 7)에 순천부의 동쪽 7리에 건립되었다고 전해진다. 고려시대의 향교 위치와 일치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후 순천향교는 여러 차례 이건을 하였다. 순천의 읍지인 『승평지(昇平誌)』에 따르면, “향교. 옛날에는 성에서 동쪽으로 7리에 있었는데, 뒤에 성 서쪽 3리로 이건하였다. 가정 경술년(1550, 명종 5)에 성의 동쪽 5리로 옮겼고, 만력 경술년(1610, 광해군 2)에 또 서쪽으로 옮겼는데 이곳은 예전 향교의 북쪽이었다.” 이때까지의 문헌 상 기록에 따르면 순천향교는 임진왜란 직후까지 3번(성의 동→서→동→서)을 옮겨 다녔다. 특히 1610년에 있었던 서쪽으로의 세 번째 이건은 임진왜란으로 인해 성 동쪽에 있던 향교건물이 심하게 파손되었고, 따라서 향교를 서쪽으로 이건하되 시급하게 지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그 자리는 옥천 물가에 지어져서

이후 홍수의 범람으로 인해 건물의 파손이 심해지자 1649년(인조 27)에 향교를 대대적인 중건을 하게 되었다.

상량문에 따르면, 그 후에도 옥천의 범람에 따른 물 피해를 자주 입자 1780년(정조 4)에 향교를 성 남쪽으로 10리 떨어진 홍내동으로 또 이전하였고, 그로부터 20년 뒤인 1801년(순조 원년)에 현재의 위치인 금곡동으로 다시 향교를 이迁하였다. 따라서 순천향교는 모두 다섯 번에 걸친 이迁이 있었고 현재의 순천향교 대성전 건축은 1801년도에 지어진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대성전은 1922년, 1946년, 1956년, 1986년, 2006년에 중수와 보수가 이루어졌다.

## (2) 특징

### ① 배치

순천향교는 경사지 위에 동향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위쪽부터 대성전 영역, 명륜당 영역, 외삼문으로 이어지는 축이 있고, 이 영역의 남쪽으로 양사재, 풍화루, 교직사 등이 있는 관리 영역으로 양분된다. 우선 제향공간으로서 대성전 영역은 대성전을 중심으로 전면 양쪽으로 동무와 서무가 있으며 대성전 남쪽으로 제기고가 바로 붙어 있다. 대성전의 전면인 동쪽 아래에는 명륜당 영역이 있는데, 명륜당의 좌우에는 동재와 서재가 좌우대칭으로 구성되고 외삼문이 명륜당 전면에 놓여 있다. 따라서 순천향교는 경사지에 위치한 향교의 일반적인 배치수법인 전학후묘 방식으로 하였다. 명륜당의 정면은 대성전을 바라보고 있고 그 앞으로 동재와 서재를 배치했으므로 전당후재 배치방식을 따랐다. 이 방식은 호남과 호서지방에 주로 사용하는 배치 유형으로 알려져 있다.

향교 입구에 세운 하마비와 홍살문을 지나 향교에 이르면 외삼문과 명륜당 배면이 나오는데, 외삼문의 위치는 대성전까지 이어지는 직선 축에서 약간 벗어나 있다. 명륜당과 대성전 사이에는 단차가 있기 때문에 대성전으로 통하는 내삼문은 축대 위에 세워졌다. 이와 같이 순천향교는 대성전과 명륜당의 엄격한 공간 구분은 물론, 각 영역은 네모지게 구성되는 공간 틀과 그 안에서 대칭으로 형성된 각 건물들의 조합을 통해 유교의 신성하고 엄숙한 공간감을 자아낸다.

그밖에 관리공간은 양사재, 풍화루, 교직사, 서고 등이 있으며, 이 구역으로 용이한 출입을 위해 별도의 삼문을 두었다. 양사재는 대지의 형편 상 편리하게 서재 북쪽으로 남동향을 하며 위치하고 있으며, 풍화루는 그 전면에 자리하고 있다. 풍화루 아래, 서재 남쪽으로 교직사가 있다. 명륜당 남쪽으로 수령이 150년 이상 된 은행나무가 있고 그 옆으로 이견비, 중수비, 공적비 등이 모여 있다.

### ② 건축양식

대성전은 정면 5칸, 전후 뒷간이 달린 측면 1칸 규모의 1고주 5량집이다. 전퇴 부분을 개방하였는데, 이는 대성전의 일반적인형식을 따른 것으로, 제향의식에 따른 공간 활용 면에서 폐쇄형 보다 합리적인 평면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대성전의 일반적인 정면 칸수는 3칸이 대부분이지만 순천향교 대성전은 5칸이다. 정면 5칸의 평면구성은 성균관 대성전을 비롯해 순천, 수원, 춘천, 강릉, 충주, 나주, 상주, 동래 등 대체로 규모가 큰 고을에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전남 지역에서 정면 5칸을 한 웅장한 대웅전 중 나주향교와 화순향교 다음으로 규모가 큰 건물로 파악된다. 바닥은 모두 전돌로 마감하였는데, 1986년도 보수공사 때 아스타일(마루재)을 전돌로 교체한 것이다.

대성전의 기단은 장방형의 화강석을 3~4단으로 쌓은 후 별도의 두겹돌 없이 마감하였고, 기단 상부는 강회다짐으로 마감했다. 초석은 원형초석으로 주좌받침과 주좌를 등글게 쇠시리하는 형태로 다소 거칠게 조각되었고, 이는 건물의 전, 후, 측면 모두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향교 내 다른 어느 건물보다도 화려하고 위계성이 부여된 초석의 마무리 형식은 대성전의 건물 조영시기를 1801년보다 그 이전으로 앞당길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기둥은 모두 원주를 사용하였고, 상부를 가늘게 흘림을 두어 민흘림 양식으로 하였다. 대성전의 포작은 기둥 상부에만 포가 형성되어 있어서 주심포계 형식의 포작이라 할 수 있으나, 세부 수법을 살펴보면 2출목의 익공계 양식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선 중기에 주심포 계열의 수법들이 자취를 감추고, 주심포와 다포, 익공의 각 양식들이 상호 절충의 수법이 성행하면서 나타난 표현의 한 단면으로 보인다. 초각의 형태는 살미 외부는 초익공과 이익공의 쇠서는 양서이고 삼익공은 수서로 되어있는데, 초익공과 이익공 살미의 윗면에 연봉이나 연꽃 등의 장식 없이 단순하게 처리하였고, 살미의 끝부분은 직절하였다. 삼익공의 살미는 쇠서 형태로 끝을 날카롭게 처리하고 살미의 하부는 연봉을 초각하였다. 삼익공 위에는 퇴량 머리에 살미를 연결하여 초각하고 하부에 연봉을 넣었다. 이러한 모습은 1800년대 이전의 모습으로 여겨지며, 1801년 이전 시 구 부재를 적극 활용한 것이 아닌가 한다.

대들보와 종보는 2006년 전면 해체 보수공사 때 전량 재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이는 적어도 최근에는 변경이 없었음을 의미하지만, 건물의 전체 규모와 비교해서 볼 때 그 크기가 작아 보인다는 의견이 있다. 즉 1801년 혹은 그 이전의 건물의 부재가 지금까지 남아 있어서 그 가치를 평가하고자 할 때, 적어도 보 부재는 제외될 수 있다는 뜻이다. 건물 가구구성의 핵심인 대들보의 연한을 추후 조사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퇴량은 정면의 뒷간에 설치된 보로서 단면이 세로가 긴 장방형을 하고 있다. 전체 형상은 곡선으로 휘어지지 않고 모만 살짝 죽인 각재에 가까운 형태로 하였다. 제향의식이 행해지는 엄숙한 공간으로 인해 장식이나 화려한 표현은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 대성전에 사용된 대공은 2종류로 분류된다. 양 측면에 세워진 대공은 도리를 엮는 부분의 어깨를 살짝 굴린 전

형적인 형태의 판대공이지만, 내부의 대공은 판재의 외곽에 초새김이 들어간 일종의 파련 대공이라고 할 수 있다. 살짝 간략화 되었지만 **파련대공 형식의 대공을 사용하였다는 점도 대성전이 1801년 이전의 양식을 간직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전후 모두 겹쳐마로 구성된 맞배지붕 건물이다. 측면에는 방풍판을 설치하였는데, 모두 대성전의 일반적인 형식을 따르고 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사묘공간에서의 창호의 설치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과는 달리 기능상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만을 개방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면 5칸의 대성전의 경우 통상적으로 어간을 중심으로 양 협간이나 양 뒷간에 각각 1곳에 문을 두어 모두 3칸에 문을 둔다. 하지만 순천향교의 경우 5칸 모두에 문을 달았는데, 이는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다. 또한 대성전에는 출입문 외에 광창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그 위치는 5칸 건물일 경우 문을 두지 않은 협간 또는 뒷간에 창을 설치한 예가 상당수 있다. 하지만 순천향교의 경우 대성전 정면 창호는 5칸 모두에 2분합 여단으로 설치되고 광창은 두지 않았다. 창호양식은 상부에는 빗살무늬, 하부에는 띠장을 댄 판장문 형식의 복합형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문의 상부를 광창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광창은 별도로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 3. 지정 가치 및 종합의견

순천향교 대성전은 1801년 현재의 위치에 세워진 건물이다. 그러나 도리 하부에 쓰인 상량문은 1649년의 것인데, 그 후 1780년 이건할 때 이 건물의 주요 부재를 그대로 옮겨서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1801년 이건할 당시에도 부재들은 대부분 사용하여 같은 규모로 건립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점에 대한 근거는 초석과 공포부재 및 결구 방식과 대공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건물의 건축연대는 1649년까지도 올라 갈 수 있다.

순천향교 대성전은 개방된 전퇴를 둔 정면 5칸의 건물로서 규모가 비교적 웅장하며, 전남 지역에서도 나주, 화순 다음으로 규모가 크다. 또한 타 지역 대성전과 비교해 보면 규모, 구조, 양식, 의장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공포는 전·후면이 모두 교두형 첨차로 짜인 외2출목의 주심포계(익공계 절충식) 건물로 분류되는데, 이러한 공포 구성은 건축물의 연대를 1700년대 또는 그 이상으로 올려 볼 수 있는 부분으로, 도리 하부에 기록된 상량문의 연대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순천향교 대성전은 중건 연대, 규모, 초석과 대공, 공포의 양식 등 의장적인 측면과 순천도호부의 향교라는 위상을 고려했을 때,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서 건축적, 학술적, 역사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0.07.14.	대상문화재	순천향교 대성전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 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순천향교 대성전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아래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아래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아래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아래 참조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아래 참조		
종합의견		아래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9월 29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1.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 환경

순천향교는 순천 향교길 60(금곡동)에 위치하는 1407년(태종 7) 건립하여 여러 차례의 이건과 중수를 거쳐 1801년에 중수된 순천도호부 중설위의 교육시설인 향교건축이다. 전라남도 동남부에 위치한 순천의 구도심 서쪽 산자락 끝에 위치한다. 순천시청에서 서쪽으로 1.6km 거리에 위치하여 장명로를 따라 370m를 가서 남교오거리에서 중앙로로 우회전하여 420m 이동하여 중앙사거리에서 서쪽으로 좌회전하면 400m 거리에 선비문화체험관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순천시는 동쪽은 광양시, 서쪽은 화순군·보성군, 남쪽은 순천만의 여수시·보성군, 북쪽은 구례군·곡성군과 접하고 있다. 중앙사거리에서 순천향교에 이르는 읍성을 가로지는 구도심 중심거리인 문화의 거리에 면해서 위치하고 있다. 치소와 5리 이내에 향교를 두고 있는데 순천향교는 읍성 서쪽 100m 여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소백산맥의 자락에 자리 잡고 있어 크고 작은 산지가 발달해 있고, 북쪽과 서쪽이 높고 기복이 심하며 남동쪽이 낮다. 시에는 산악이 중첩해 있는데, 중앙에 조계산(曹溪山, 884m), 동쪽에 수리봉(550m)·국사봉(526m)·갈미봉(渴味峰, 639m)·비봉산(飛鳳山, 550m), 남쪽에 고동산(鼓動山, 709m)·금전산(金錢山, 668m)·제석산(帝釋山, 563m), 서쪽에 망일봉(望日峰, 652m)·모후산(母后山, 919m), 북쪽에 희아산(戲娥山, 764m)·봉두산(鳳頭山, 753m) 등이 있다. 조계산 북동쪽에 있는 고치(鼓峙)와 송치(松峙)를 분수령으로 해 이사천·동천이 남류해 순천만으로 흘러든다. 이사천(伊沙川)은 승주읍 유치산 남사면에서 발원해 산간 지대를 곡류하면서 상사면 봉래천·상사천과 합류하고 동천과 합류해 순천만으로 흘러 순천시를 관류하는 가장 긴 강이다. 계족산(鷄足山, 726m)에서 발원해 시의 동부를 관류하는 동천(東川)은 중간에서 석현천·옥천 등과 합류한 뒤 남쪽으로 흘러 순천만으로 흘러들며, 하천 유역에는 비옥한 순천평야가 형성되어 있다.<sup>205)</sup> 순천향교는 국사봉과 난봉산에서 남동쪽으로 뻗어내린 능선이 다시 솟으며 양쪽으로 갈라지는데 북쪽 자락에서 남쪽으로 이어져 다시 솟은 봉우리 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남쪽 자락 바깥에서 굽이치며 흐르는 옥천이 동쪽으로 흐르다 동천과 합류하여 순천만 습지로 빠져나가고 있다. 안산은 봉화산에서 남쪽으로 뻗다가 남서쪽 자락이 서쪽으로 뻗은 죽도봉을 바라보고 있다.

백제시대에는 감평군(歆平郡) 또는 사평(沙平), 무평(武平)이라 불렀고, 757년(경덕왕 16)에 감평군은 승평군(昇平郡)으로 개칭되었으며 승평군은 예하에 부유현과 지금의 여수·돌산 지역까지 영속하였다. 983년(성종 2) 12목 설치 당시 승주목이 되어 외관이 파견되었고, 996년에 연해군절도사(兗海軍節度使)가 되었다. 1036년(정종 2)에 다시 승평군으로 복구되고 1309년(충선왕 1)에 다시 승주목으로 승격되었다가 이듬 해 다시 순

205)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참조.

천부로 강등되었다. 충렬왕 때 팔마비(八馬碑)가 건립된다. 1413년(태종 13)에 순천도호부가 되고 세조 때 진관체제에 따라 주진으로서 전라도 동남부 지역의 중심지가 되었다. 광해군 때 부사로 부임한 이수광(李睟光)은 『승평지(昇平志)』를 저술해 이 지방의 문물을 보존해 주었다. 영조 때 엮은 『여지도서(輿地圖書)』에 따르면, 순천은 전주·나주 다음가는 인구수를 보유하고 있었다. 1895년의 지방제도 개혁으로 순천군이 되었으며, 1911년 소안면과 장평면이 합쳐져 순천면이 되었으며, 1931년에 순천면이 읍으로 승격하였다. 1962년 8월 27일 순천 시내의 동천제방이 붕괴되면서 대홍수가 발생해 200여 명이 사망하는 큰 재해를 입기도 하였다.<sup>206)</sup>

순천시의 관련 유교문화재는 순천향교(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27호)를 비롯하여 옥천동에 옥천서원(玉川書院,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4호), 연향동에 옥계서원(玉溪書院,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5호), 금곡동에 용강서원(龍岡書院,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21호)·청수서원·송천서원(松川書院)·오천서원(鰲川書院)·울봉서원(栗峰書院)·이천서원(伊川書院)이 있다. 사우로는 이순신을 배향한 충무사를 비롯해 옥천동에 김굉필을 배향한 경현당(景賢堂), 저전동에 장윤(張潤)의 사액서원인 정충사(旌忠祠), 조례동에 허일(許鎰)을 배향한 충렬사(忠烈祠,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6호) 외에 월계사(月溪祠)·문천사(文泉祠)·충민사(忠愍祠)·겸천사(謙川祠)·학산사(鶴山祠)·육충사(六忠祠) 등이 있다. 기타 유적으로는 비문으로 순천의 상징인 순천팔마비(順天八馬碑,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76호)가 영동에 있으며, 김굉필·조위를 추모하기 위해 이정(李禎)이 세운 순천임청대(順天臨淸臺,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77호)가 옥천동에 있다. 순천향교 주변에는 배산에 순천용강서원(문화재자료 제121호), 남쪽으로 순천옥천서원(문화재자료 제4호)과 순천임청대(유형문화재 제77호), 동쪽으로 순천팔마비(順天八馬碑,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76호) 등이 있다.

순천향교는 원래 1407년(태종 7)에 성 동쪽 7리에 순천부읍성 밖에 건립되어 성 서쪽 3리로 이진, 1550년(명종 5) 성 동쪽 5리로 이진, 1610년(광해군 2)에 성 서쪽(옛 자리의 북쪽)으로 이진, 1780년(정조 4)에 성 남쪽 흥내동에 이진, 1801년(순조 1)에 성 서쪽 금곡동 현 위치에 이진 등 전란과 수해 등으로 5차례의 이진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진 이외에도 1649년(인조 27)에 신좌을향으로 중건, 1922년 중수, 1946년 대성전 보수, 1956년 대성전, 명륜당, 동서무, 동서재 보수, 풍화루 중건, 1970년 유사실 보수, 1977년 내삼문 보수, 1982년 동재 보수, 1986년 대성전 보수(단청, 기둥 교체, 연목 교체), 2006년 대성전 완전 해체, 2020년 명륜당 보수 등을 통해 보존과 관리에 노력하고 있다.

순천향교는 배산이 내려오는 자락에 정동향(正東向)으로 자리잡고 있고 대성전, 제기고, 동무, 서무, 동재, 서재, 명륜당, 내삼문, 외삼문, 양사재, 풍화루(風化樓), 흥전문, 고

206) 같은 책 참조.

직사 등이 있다. 두 영역으로 구성되는데 전면의 강학영역에는 명륜당을 중심으로 동재와 서재가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고, 후면의 제향영역에는 대성전을 중심으로 동무와 서무가 좌우대칭을 이루어 있다. 향교의 지형의 차이를 이용한 일반적 전학후묘의 배치형식을 하고 있다. 향교 입구의 하마비와 홍살문을 지나 외삼문이 나오고 이 문을 지나 여러 단의 계단을 오르면 명륜당이 있다. 강학영역은 명륜당 후면의 마당을 중심으로 양쪽에 동재와 서재가 대칭으로 배치된 전당후재형(前堂後齋)의 배치이다. 명륜당 왼쪽에는 150년 정도 된 은행나무와 그 옆으로 이건비, 중수비, 공적비 등이 있으며, 명륜당 오른쪽에는 100년 정도 되는 나무가 서 있다. 지형 차이로 두 영역이 구분되어 몇 계단을 올라 제향영역이 구성되고 있다. 내삼문에 면해서 전후면으로 약간 긴 장방형의 영역을 담장으로 두르고 있다. 묘정을 중심으로 중앙에서 뒤로 물러 대성전이 자리하고 전면 좌우측에 동무와 서무를 대칭으로 배치하고 있다. 대성전 좌측에 제기고를 두고 있다. 중심축선상에 명륜당, 내삼문, 대성전이 높이고 외삼문은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있다. 이러한 중심축과 직교되어 양사재, 풍화루, 교직사, 서고 등과 출입을 위한 별도의 삼문 등이 남쪽 영역을 이루고 있다. 양사재와 풍화루는 배산의 주축을 따라 남동향으로 배치되어 있고, 풍화루 아래쪽 서재의 왼쪽에 교직사가 있다. 동향한 제향영역은 대칭적 배치이고 담장으로 둘러 어수선하지 않고 신성한 공간을 드러내고 있다. 생활공간은 남쪽으로 배치하여 별도의 문을 통해 영역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건물 외에도 경내에는 승평지 등 다양한 고문헌과 홍학비 등 15기의 역사적인 금석문을 소장하고 있다. 그리고 문서류는 1661년(현종 2)부터 1881년(고종 18)까지 220년에 걸친 49건의 유생안(儒生案)과 청금록(靑衿錄)이 남아 있다. 「향교노비안(鄕校奴婢案)」(1801), 양사재별고완문절목(1876), 『향교집강안(鄕校執綱案)』(1801), 양사재유사안(1848), 양사재별고유사안(1857) 등이 있다.<sup>207)</sup> 순천향교에 남아있는 유안 가운데 청금록이나 청금수행안은 양반 유생들을, 향교유생안(鄕校儒生案), 서재유생안(西齋儒生案) 등 평민 교생들의 명단을 담은 것이다. 양반 유생들은 향교에서 공부를 하고 과거에 합격하는 것이 목표였으므로 향교에 대한 임무가 없었고, 평민 교생들은 균역을 면제받는 대신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하여야 했다. 순천향교에 있는 「향교제복유

207) 순천향교에 소장되어 있는 고문서 가운데 절목류들을 살펴보면, 「순영절목(巡營節目)」은 1745년(영조 21)에 감영에서 향교, 서원, 양사재 등에 보내어 각종 폐단을 시정하도록 지시한 내용을 담고 있고, 「순천부교원폐단이정정식절목(順天府校院弊端正定節目)」은 1765년(영조 41)에 전라도관찰사 심이지(沈履之)가 향교와 서원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관내의 각 고을에 보낸 것으로, 「교원교폐절목」, 「교원폐단절목」, 「향교서원절목」, 「향교폐단이정절목」 등의 제목으로 다른 향교에 소장되어 있거나 향교지 등에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향교나 서원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내린 절목 이외에 관청과 관련된 절목이 많이 눈에 띈다. 「보민고신변절목(裨民庫新變節目)」은 1790년(정조 14)에 작성된 것으로 좌의정 채제공의 건의로 순천부의 과다한 잡역세 징수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지소절목(紙所節目)」은 1868년에 지소에서 관청과 관내의 향교, 서원, 사우 등에 지물을 공급하는 운영 원칙을 담은 것이고, 1882년에 이를 다시 시정한 「지소교폐절목(紙所矯弊節目)」도 있다. 그리고 백성들의 과다한 진상과 각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 「순천부가봉진상절목(順天府加封進上節目)」(정유년), 「순천부민막교리절목(順天府民漠矯蠲節目)」(1900년)도 있다. 그밖에 흉년이 들어 굶주리는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 곡식과 돈을 나누어 준 것을 기록한 「기구분진사실성책(飢口分賑查實成冊)」과 「진자전래상용하구별책(賑資錢來上用下區別冊)」도 있고, 순천으로 유배를 온 죄인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데 참고하려는 「정배죄인양료이정절목(定配罪人糧料?正節目)」등도 있다.

생안(鄕校祭服儒生案)」, 「객사집사유생안(客舍執事儒生案)」, 「수영객집유생안(水營客執儒生案)」 등은 평민교생들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작성한 유안이다.<sup>208)</sup> 순천향교에 남아 있는 유안 가운데 「향교이건원납유생안(鄕校移建願納儒生案)」(1780년), 「향교제복원납유생안(鄕校祭服願納儒生案)」(1817년-1828년) 등은 향교를 옮기거나 운영에 부족한 재원을 충당할 목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액외교생에 입속시킨 예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현판과 비문은 정유중수시출양자명단(1957), 16기의 비, 문묘중수기(1922), 흥학비음기(1703), 양사재비음기(1722), 흥학비각기(1795), 흥학비각중수기(1880) 등이 있다. 소장서적으로는 교원우지 15, 경자류 26, 사류 49, 시문집류 67 등이 있다.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 등 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할 수 있는 수장고 및 전시관 등이 필요할 것이다. 그 외에도 제기, 제복, 제상, 악기 등이 있다. 제향은 음2월과 8월 상정일(上丁日) 2회가 있고,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거행하는 삭망분향제(朔望焚香祭) 등의 유교의례가 진행되었다.<sup>209)</sup> 최근 문화재야행(夜行) 등 선비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5차례의 이건 과정을 통해 성 서쪽 금곡동 현 위치에 이 건된 것은 1801년(순조 1)이고, 구도심의 문화의 거리에 접하여 다양한 문화체험이 가능하며 많은 고문서 등을 소장하는 등의 역사문화 환경을 이루고 있다.

## 2. 연혁·유래 및 특징

고려시대 성종대의 조치<sup>210)</sup>에 따라 987년 경학박사와 의학박사 1인씩 각각 파견<sup>211)</sup>되고, 992년(성종 11) 어디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교육시설이 설립되고 교관이 파견되어 교육을 시행하게 된다. 전라도 지역의 최초 관학기관이 설립되고 있다. 인종대에 이르러 전국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아 순천의 향교도 정비되고 시설이 확대되었을 것이다. 원 간섭 이후 향교의 부흥은 중소지주층이나 향리의 자손들이 향교 교육을 받고

208) 「향교제복유생안」은 향교에서 거행하는 각종 제례에 집사를 담당하는 교생들의 명단이고, 「객사집사유생안」은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순천부사가 객사에 모셔져 있는 왕을 상징하는 전패(殿牌)에 나아가 예를 올리는 망궐례(望闕禮) [객사삭망지례(客舍朔望之禮)]에서 집사를 담당하는 교생들의 명단을 담은 것이었다. 「수영객집유생안」은 여수에 있는 수영에서 수사가 망궐례를 거행할 때 집사를 담당하는 교생들의 명단을 담은 것이다.

209) 부정기적인 것은 향교를 수리할 때 위패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전후로 거행하는 이안제(移安祭)와 환안제(還安祭), 문묘에 불시의 재난(도난, 화재, 뇌우 등)을 입었을 때의 위안제(慰安祭), 문묘에 위패를 새로이 봉안하거나 제외시킬 때의 예성제(禮成祭) 등이 있었다. 석전제와 예성제는 수령이 친행하고 나머지 제례는 교임과 지방 양반들이 거행하였다.

210) 고려 초 성종대 흥학책으로 12목(牧)에 지방관을 파견하여 지방세력가들의 자제 260명을 개경에 불러들여 53명만 남기고 귀향시킨 207명을 위하여 987년(성종 6) 8월에는 12목에 경학박사(經學博士)와 의학박사(醫學博士)를 각각 1명씩 파견하였다. 그리고 992년(성종 11) 1월에는 교서를 내려 서재(書齋)와 학사(學舍)를 지어 학교시설을 마련케 하고 또 토지를 주어 교육경비에 충당하도록 조치하였다.

211) 989년(성종 8)에 나주목의 경학박사인 전보인(全輔仁)이 교육에 큰 효과를 거두어 포상을 받았다고 한다.

과거를 통하여 관료로 진출하는데 크게 이바지 하였을 것이고 중수나 신설되었을 것이다. 고려 후기의 향교는 공민왕 이후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되고<sup>212)</sup>, 수령에게 지방교육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도에 교수관(教授官) 1명씩 파견하는 등<sup>213)</sup> 고려 말의 신흥사대부에 의해 지방교육을 진작시키고 있다. 고려시대에는 제례를 지내는 문묘(文廟)와 교육을 위한 강당(講堂)이 한 건물에 있어 교육을 중심으로 제례가 부수되었다. 조선 초기에 ‘일읍일교(一邑日教)’의 원칙에 따라 수령이 파견된 군현에는 관학인 향교를 설치하였다. 순천향교는 1407년(태종 7)에 부의 동쪽 7리에 건립되었다고 한다. 고려시대의 향교 위치와 일치하는지는 알기 어렵다. 원래 1407년(태종 7)에 성에서 동쪽 7리에 건립되어 성 서쪽 3리로 이진, 1550년(명종 5) 성 동쪽 5리로 이진, 1610년(광해군 2)에 풍수지리를 보는 사람들의 말에 따라 성 서쪽(옛 자리의 북쪽) 3리로 이전, 1780년(정조 4)에 침수로 인하여 향교 건물이 피해를 입어 남쪽 홍내동에 이진, 1801년(순조 1)에 성의 서쪽으로 3리에 있는데 옛날 향교의 남쪽 방향으로 청명대(淸明臺)에서 서쪽(금곡동 현 위치)에 이진 등 전란과 수해<sup>214)</sup> 등으로 5차례의 이진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sup>215)</sup> 1894년의 갑오개혁으로 교육기능을 상실하고, 재산은 공립소학교의 재원으로 편입되어 갔다. 5차례의 이진 이외에도 1649년(인조 27)에 신좌을향으로 중건, 1922년 중수, 1946년 국비와 유림의 상금을 모아 대성전 보수, 1956년 대성전, 명륜당, 동서무, 동서재 보수, 풍화루 중건, 1970년 유사실 보수, 서무 및 양사재, 1977년 내삼문 보수, 1982년 동재 보수, 1986년 대성전 보수(단청, 기둥 교체, 연목 교체), 2006년 대성전 완전 해체, 2020년 명륜당 보수 등을 통해 보존과 관리에 노력하고 있다. 보수공사(2006년) 시 종도리에 적힌 상량문과 종도리에 넣은 한지에 적은 상량문이 발견된다. 특히 종도리에 적힌 상량문에는 1780년 네 번째 이진 때에 『강남악부(江南樂府)』의 저자 조현범이 찬(撰)한 상량문<sup>216)</sup>이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1780년 이진하는 과정에서 1649년(인조 27) 부사 김종일이 중건할 때 종도리 기록된 상량문을 발견하였고,

212) 향교 학생을 시험 보아 12도와 성균관생에 올려 수학한 후에 과거에 응시하도록 상소하고 있다.

213) 창왕대에는 수령의 지방교육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1389년(공양왕 원년)에는 도에 교수관(教授官) 1명씩 파견하여 군현에 교육을 독려하고, 유사(儒士)를 교도로 뽑아 향교 교육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214) 임진왜란으로 순천의 향교는 심하게 파괴되었고 시급히 재건하여야 했다. 1610년(광해군 2)에 순천부사로 부임한 유영순이 관청과 향교를 중수하였다는 것이 이를 말한다(『승평지』 선생안). 이를 기리기 위하여 순천민들은 선정비를 세우기도 하였다(현재 향교에 있다). 향교가 중건된 뒤에 여러 차례 이진을 거듭한 것은 옥천(玉川)의 범람으로 향교가 자주 물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었다.(1624(인조 2) 가을에 불행히도 물난리를 만나 대성전의 서쪽 담장이 유실되고 서재(西齋)의 뒷면이 무너졌습니다. 그리하여 낮고 저습한 땅이었지만 이진하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을 여름에 또 수재를 만나 허물어진 곳이 더 허물어졌습니다. 『학교등록』 권1, 인조 26년 7월 18일, 1649년 순천부사 김동일 첩정)

215) 승평지 참조. 또한 조선 후기의 지도는 1740년에 만들어졌다고 짐작되는 『해동지도』 순천부지도, 1765년(영조 41)에 만들어진 『여지도서』, 1872년에 작성된 『전라도지도』에 의하면 모두 향교의 위치를 읍성 서쪽으로 표시하고 있어 조선 후기 순천의 향교는 대체로 현재의 위치와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다.

216) “순천도호부 서쪽 신좌을향(辛坐乙向)에서 안동(雁洞) 새터에 이진(移建)했는데 순치(順治) 6년(1649) 기축(己丑)에 지을 때 쓴 글자 먹이 어제처럼 쓴 것처럼 완연했다. 선배 유적을 뒤쫓아 공경하는 느낌이 일어나 지위 없애지 못하고 같은 칸에 이봉(移奉)하여 이 해로부터 억만년 드리우게 하였다. - 후학 조현범 근거(謹記)”

1780년 조현범이 그 뜻을 이어 훼손하지 않고 당초 그 자리에 그대로 재설치하고 있다. 상량문이 나온 종도리를 같은 칸에 봉안한 것은 이견 당시에 구부재를 최대한 사용한 것이라고 추정되며 종도리의 상태는 그것을 입증한다고 추정된다. 1780년의 이견 하면서 1649년과 같은 칸에 이봉하였는데 유적을 쫓는다는 조건은 많은 구부재가 사용되었을 것이며 대성전 종도리의 상태로 보아 이를 뒷받침한다고 판단된다. 규모·구조·양식 및 의장·세부 등에서 1649년의 형식이 많이 남아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순천은 도호부로 순천향교에 파견된 교관은 교수였다. 1407년(태종 7)에 순천향교가 건립된 이후 중앙에서 교수가 파견되어 향교 교육을 담당<sup>217)</sup>하다가 교관이 더 이상 교육과 운영을 책임질 수 없는 상태<sup>218)</sup>가 되자 고을 양반들이 교임(校任)이라 하여 도유사, 장의, 색장 등의 직임을 두고 향교를 운영하게 된다.<sup>219)</sup> 순천향교는 전답을 마련하여 이를 바탕으로 교육활동, 정치·사회적 활동을 전개하였다. 순천향교에 소장되어 있는 「향교전답병인가량안(鄉校田畓丙寅改量案)」이 순천향교 전답의 지목(地目)과 규모를 기록해 놓은 토지대장이다.<sup>220)</sup> 순천향교에 소장되어 있는 「향교노비안(鄉校奴婢案)」(1891년)을 보면 노비 21구 가운데 향교에서 일하는 노비는 11구, 낙안, 벌교, 송광에 외거하면서 신공을 바치는 노비는 4구, 도망노비는 6구였다. 순천향교에 있는 「향교완감촌연급전식본절목(鄉校完減村捐給錢殖本節目)」은 식리전의 운영을 보여주고 있다. 유문(諭文)을 반포하거나 나라에서 간행하는 여러 가지 서적들을 간행하여 반포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삼강행실이나 이륜행실, 향약 등 교화를 위한 교재들도 비치하고, 우리나라 유현들의 문집과 저서들도 반포하였다. 책을 판각하고 인쇄하여 향교에 나누어주고, 새로 책을 인쇄할 때 향교에 보관 중인 좋은 판본을 이용하기도 하였다.<sup>221)</sup> 『보부록(寶部錄)』은 1638년(인조 14)까지 부사가 주 기증자로 금전과 물품을 기증한 내력을 기록한 것이다. 순천향교는 중간에 여러 차례 이건을 하였지만 앞에 배치에 언급한 것처럼 향교의 기본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었을 것이다. 대성전, 동무, 서무의 제향영역과 명륜당, 동재, 서재의 강학영역이 있고, 부속 건물로 교직사(校直舍)가 있었을 것이다. 양사재(養士齋)와 풍화루(風化樓)는 조선 후기에 만들어지는데, 양사재는 1718년(숙종

217) 1618년 순천부사였던 이수광에 의하여 편찬된 읍지인 『승평지(昇平志)』에 “교수는 1원으로 정유란(丁酉亂) 뒤부터는 두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임진왜란 이후, 늦어도 17세기 이후에는 순천에 향교 교관이 파견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향교와 마찬가지로 교관 부족, 향교 교육 부진의 문제에 부딪치고 있다.

218) 영조대에 편찬되는 『속대전(續大典)』에는 교관 파견의 규정이 없어지게 된다.

219) 순천향교에 전해지는 『향교집강안(鄉校執綱案)』은 역대 교임 명단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1801년부터 1900년 사이에 순천향교의 교임을 맡은 사람들은 성씨별로 집계한 통계에 의하면, 순천지역의 저성(著姓)으로 알려진 옥천(玉川) 조(趙), 경주(慶州) 정(鄭), 제주(濟州) 양(梁), 목천(木川) 장(張), 양천(陽川) 허(許), 광산(光山) 이(李), 양성(陽城) 이(李), 상주(尙州) 박(朴)의 7성(姓) 8문(門) 출신이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 조, 정 두 문중에서 전체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220) 1912년의 향교계단이 답(答) 24만 9,609평, 전(田) 8,589평, 대지 1,936평, 신종지(新種地) 2,084평에 달하였다.

221) 1744년(영조 20)에 순천향교에 있는 『성리대전(性理大全)』을 저본으로 삼아 전주 감영에서 다시 인쇄(印出)하고 있다.

44)에 부사 황익재가 주선하여 설립한 것으로 향교의 교육기능을 대신하다가 폐지된 것을 현 위치로 이견하면서 다시 복설되었고, 풍화루는 양사재와 같이 만든 것으로 교육장소와 모임 장소로 활용되었을 것이다. 태종대에 마련한 석전의례(釋奠儀禮)에 의하여 외방 향교는 각도의 계수관, 주, 부, 군, 현으로 군현의 격에 따라 3등분하여 각기 대설(大設), 중설(中設), 소설(小設)로 구분하였다. 순천은 조선시대에 도호부였으므로 향교의 규모는 중설위에 해당된다.

대성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의 익공계 겹처마 맞배지붕집이다. 제향영역을 이루는 묘정을 중심으로 대성전과 동서재로 구성되는데 지형을 2단으로 조성하여 윗단에는 대성전을 배치하고 아랫단에는 동서재에 묘정을 배치하고 있다. 남서쪽으로는 내삼문을 설치하고 삼문에 맞대어 주위를 담장으로 둘러싸고 있다.

대성전의 일반적인 평면형식은 전면의 퇴칸 유무에 따라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대별하면, 순천향교는 전면에 퇴칸을 둔 개방형으로 전체 향교의 약 67%(약 150개소)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적인 형태이다. 제향영역의 중심을 이루는 대성전은 의례공간으로 전면은 의례를 수용하는 전퇴를 모두 노출시킨 개방형이고 모셔진 위패의 측면에서 측면과 후면은 폐쇄적으로 닫혀있는 합리적인 평면구성이다.<sup>222)</sup>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의 대성전은 성균관 대성전을 비롯해 순천·수원·춘천·강릉·충주·나주·상주·동래향교 등 규모가 큰 고을에서 나타나고 전남지역에서 나주향교 대성전(48.3평), 화순향교 대성전(36.8평) 다음으로 규모가 큰 것이라고 한다. 정면의 간살은 2,775mm 정도로 모두 같은 동일형이고, 측면은 정칸을 4,200mm이고 협칸은 2,150mm 정도로 정칸중심형이다. 순천향교만의 평면적인 특성보다는 향교건축으로 정형화된 평면을 보이고 있다.

기단은 전면부에 장방형의 화강석을 3단으로 쌓은 위에 두겹돌 없이 마감하고 있다. 좌·우측과 배면은 전체적으로 지형을 조성하였으므로 외벌대의 화강석 장대석 기단을 쌓고 있다. 기단 상면은 강회회다짐바닥으로 마감하고 있다. 기단의 좌우측면에 면해서 의례에 필요한 진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2단 정도의 조계와 서계를 덧붙여 설치하고 있다. 어계는 기단 전면 2단 계단에 거칠게 정다듬 한 각석을 놓아 신로보다 크게 설치하고 있다. 기단에 면해서 삼계 형식을 갖추고 있다. 기단에 면해서 하부에 배수로를 두는 형태로 정비가 되었다. 기단 위에 초석은 다듬은 원형초석으로 주좌받침과 주좌를 둥글게 쇠시리하는 형태로 거칠지만 초각이 드러나고 있다. 초석의 바닥은 평편하게 정평하여 격식을 높여주고 있다. 이러한 초석을 전후측면에 모두 사용하고 있으며, 원형으로 다듬은 형태를 통해 대성전의 권위를 표현하고 있다. 또한 정면의 초석이 측면이나 후면의 초석보다 높고 비교적 정형화된 초석을 설치하여 정면성을 강조하고 있다. 초석 위에는 평편한 주좌 위에 두

222) 경기·강원·충청·제주지역은 일반적으로 전퇴개방형 평면을 취하지만,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개방형과 폐쇄형의 평면형을 혼용하는 경우가 있다. 경북지역은 오히려 폐쇄형 평면구성이 많이 있다.

리기둥을 세우고 있다. 두리기둥은 평주 8본과 꺾기둥 4본 그리고 고주 8본이 있다. 외진주에 평주 8본과 좌우 측벽에 각각 2고주를 세우고, 내진주에는 평주 4본을 세우고 있다. 우주의 상부 직경은 421~540mm이고, 하부 직경은 421~560mm이다. 평주의 상부 직경은 468~494mm이고, 하부 직경은 527~555mm이다. 두리기둥에 상부를 흘림을 주어 다듬었다는 것이고, 일부 기둥에는 약간의 배흘림이 보이고 있다. 기둥은 2006년 대성전 해체 수리 시 정밀실측 자료와 비교하면 2016년도 해체수리 시에 많은 부분이 신재로 교체되거나 보수가 되고 있다. 배면기둥은 모두 신재로 교체되었으며, 고주는 14본 중 4본이 신재로 교체되었고, 동바리이음도 4곳에 이른다. 고주의 상부 직경은 460~483mm이고, 하부 직경은 535~561mm이다. 정칸 좌우 고주보다 협칸 고주의 기둥 길이가 22mm 더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창방은 평주와 평주의 기둥머리를 사갈로 결구되고 있다. 창방은 전면 6본, 배면 6본으로 모두 12본이다. 창방의 크기는 120mm×305mm 정도로 폭과 높이의 비가 1:2.54이다. 창방은 장방형으로 응력에 잘 견디는 장방형의 단면이지만 창방의 폭이 수장폭과 같이 얇게 되어 좌굴이나 뒤틀림에 취약하다고 추정된다. 우주에서 도리 방향으로 바깥쪽으로 초각이 되어있지 않는 직절한 형태의 창방뿔목을 하고 있다. 창방은 기둥머리에서 일반적인 주먹장으로 결구되지 않고, 기둥의 사괴에 통으로 물린 형태로 초익공의 측면에 맞닿아 있다. 기둥머리에 주두를 올리고 있는데 주두의 형태는 일반적인 형태로 굽받침이 없고 굽이 사절된 평굽으로 되어 있다. 보 방향으로 외면의 익공과 내면의 보아지와 결구되는 옆갈을 내고, 도리 방향으로 첩차가 결합되고 있다. 위치상으로 평주주두, 우주주두, 대보상(동자주)주두, 고주주두 등 모두 24본이 있고, 4본이 교체되었다. 포작은 기둥 상부에만 포가 형성된 주심포 형식의 포작이고, 세부 수법에서 2출목의 익공계 형식이다. 익공 형식은 주심첩차와 출목첩차가 있는 절충형이다. 맞배지붕의 형식으로 정배면의 12개(3본은 교체) 기둥 상부에 익공 및 보아지가 있으며 주심에는 보 방향으로 살미를 맞닿도록 쌓고 도리 방향으로 소로를 받친 교두형의 첩차와 행공 첩차가 있다. 보 방향으로는 다포와 같으며 도리 방향으로는 교두형 주심포와 같이 꾸미고 있다. 기둥 상부의 익공은 전면과 후면 그리고 평주 동일형이고 우주만 내부가 다른 형식으로 되어 있다. 기둥머리에 창방과 직교하여 결구되고 주두를 놓아 주상에 공포를 배치하였다. 창방과 직교하여 보 방향의 초익공과 그 위에 주심첩차와 직교하여 이익공을 놓고 있다. 초익공과 이익공의 제공 뿌리 형상은 외부로 초각한 정형화 된 수서 형태이고, 내부로 초각한 형태로 보 하단을 보강하고 있다. 그 위에 삼익공의 살미는 외부로 상부는 날카로운 쇄서 형태이며 하부는 연봉 같은 초각을 하여 외중 쇄서와 같이 보이고 있고, 내부는 보아지 형식으로 초각되어 있다. 삼익공 위에는 상부에 퇴량머리에 끝을 매뚜기머리처럼 궁굴려 운두각하고 하부에 연봉을 초각하고 있다. 초익공 상부에 소로를 놓고 행공첩차를 짜서 장혀를 받고, 이익공 상부에 소로를 놓고 행공첩차를 짜서 장혀 받친 외목도리를 받고 있다. 첩차는 단부는 직절하고 하부는 원호로 치목한 교두형 첩차이다. 익공 포작은 무출목이거나 주심포와 같이



외1출목이 일반적이지만 외2출목으로 짜이고 2출목보다 1출목이 약간 넓은 간격으로 되어 있다. 귀포 측면에는 창방뿔목, 장혀와 도리뿔목의 외단이 직절되어 겹쳐 있고 창방뿔목은 짧게 되어있다. 정·배면 창방 위의 화반은 정면 쪽에 판재 초각화반이고 배면은 단순한 방형 화반이다. 정면은 위계와 격식을 갖추어 의장을 하고 있다. 우주 귀포의 내부는 초각 없이 사절하고 있다. 교두형 침차는 보 방향으로는 다포와 같이 꾸미고 도리 방향으로는 절제되면서도 입체적인 교두형 주심포와 같이 꾸미고 있어 고식이 보이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1801년 이견하면서 구 부재를 활용한 치목과 결구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조선 중기의 주심포 계열의 공포에서 주심포와 다포 그리고 익공의 각 양식들의 상호 절충한 수법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둥에 짜인 창방 상부에는 화반을 설치하여 주심도리 장혀를 받고 있다. 화반은 전면에만 하부에 반원형의 위에 초각하여 상부에 소로를 받치고 있으나 나머지는 단순한 장방형이다. 보아지는 하부에 반원형으로 초각하면서 연봉이 초각되어 있다.

가운데 가구는 굴도리의 1고주5량가이고 양측면은 2고주5량가이다. 전면 삼익공 위의 굴굴린 운두각은 퇴량과 연결되어 고주 2/3에 결구되고, 내부로는 내진고주와 원형에 가까운 단면과 장방형 단면의 대들보가 운두각 형태로 연결된 후면 평주와 결구되고 있다. 대들보 위에는 동주자주와 주두를 놓고 보 방향의 종보와 하부 외단을 직절한 보아지와 장혀 받친 중도리를 결구하고 있다. 그 위에 파련대공 위에 뜯장혀와 장혀 받친 중도리를 결구하고 있다. 내진고주는 끝은 직절하고 상단은 빗잡기 한 의 보머리는 승어턱맞춤이고, 고주 및 하부 보아지에는 연봉을 초각하고 외부는 직절하고 있다. 좌우측면 가구는 2고주 5량가로 가운데 가구와 다른 것은 종량 하부에 보아지가 직절된 간결한 형식이고 종보 위에는 사다리꼴 형태의 판대공을 설치하고 있다. 치목이나 결구방식의 차이를 통해서 가운데 칸의 위계를 살펴볼 수 있다. 대들보는 내부 고주와 후면 평주에 걸리는 대들보, 고주 상부와 대들보 위 동자주 위에 결구된 종보, 외진주와 내진고주 사이에 걸치는 퇴량으로 되어 있다. 대들보는 나무의 굴곡과 형태를 최대한 살린 원형 단면과 장방형(398mm×550mm 정도, 비 1:1.38 정도)의 단면형태이 있다. 종보는 고주와 동자주에 보아지를 끼우고 주두를 놓은 위에 설치되고 있다. 종보(300mm×400mm 정도)의 단면비는 1:1.33로 장방형이고 자연곡재의 형태로 자연스럽게 다듬어져 있다. 정면의 퇴칸에 설치된 퇴량(168mm×247mm 정도)의 단면 비는 약 1:1.47로 세로로 긴장방형으로 모를 살짝 죽인 형상이다. 8본 중 2본을 교체하였다. 도리는 직경 300mm 정도이고 주심도리가 4본 교체, 출목도리가 1본 교체, 중도리가 1본 교체되었다. 창방(120mm×305mm 정도)은 높이는 확보되었으나 폭이 수장폭과 같이 얇게 되어 좌굴이나 뒤틀림에 취약한 형태이다. 장혀(120mm×210mm 정도)는 도리하부의 장혀와 가침장혀(뜯장혀, 덧장혀는 통부재로 120mm×300mm 정도) 등 50본이 있고, 주심도리장혀 4본, 중도리장혀 1본, 출목도리장혀가 1본, 가침장혀가 1본 등 7본이 교체되었다. 대공은 가운데 칸의 파련대공과 양측면의

사다리꼴대공이다. 파련대공은 대공의 외곽에 초새김이 들어가 있고, 사다리꼴 대공은 도리를 엮는 부분의 어깨를 살짝 굴린 전형적인 형태의 판대공이다. 종보를 받치고 있는 동자주는 상부는 4갈이 터져 창방과 보아지를 끼우고 그 위에 주두를 얹어 종량을 받고 있다. 첨차는 소첨차와 대첨차가 있고, 소첨차 크기의 출목첨차가 있다. 첨차는 양측면은 직절 후 그 하부를 호형곡선으로 깎은 교두첨차로 육안으로 보기에 호형 곡선이 모양이 달라 추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소로는 이갈소로, 알통보강 이갈소로, 양갈소로 등이 사용되었다. 주심에서는 두공 및 화방상부, 뿔목부분에 사용되고 있으며 중도리에서는 행공첨차, 중도리에서는 뜯장허 상부와 대공 연결부위에서 사용하고 있다.

전후 모두 겹처마로 구성된 맞배지붕으로 측면에 방풍판을 설치하고 있다. 장연 위에는 초맥이 평고대를 올리고 부연을 설치하고 개판과 착고를 설치하고 있다. 장연은 마구리를 약하게 사절하고 소매견이를 하고 있고, 단연은 엇걸이하고 있다. 지붕 용마루는 아래서부터 착고와 부고를 놓고 그 위에 5단의 적새를 쌓고 그 위에 숫마루장을 덮은 형식이고, 내림마루는 적새를 3단 쌓고 숫마루장을 덮고 있다. 처마 끝부분은 막새기와이다. 일반적인 대성전에는 정칸, 좌우 협칸이나 퇴칸에 1칸씩에 창호를 설치하여 제향을 올리기 위한 의례에 필요한 문을 설치하는데, 순천향교 대성전은 정면 5칸 모두에 문을 두는 있는 특성이 나타난다.<sup>223)</sup> 제향공간 자체가 위패를 두는 전면만 의례를 수용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개방되고 나머지는 폐쇄되는 것이 일반적인 형식이지만 왜 5칸 모두 개방하였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동향한 대성전으로 빛의 양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한다. 창호는 좌우측과 배면에는 창호가 없고, 전면에는 주칸마다 2분합 여닫이문이 설치되어 있고, 광창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sup>224)</sup> 창호양식은 상부에는 빗살무늬, 하부에는 띠장을 댄 2단 궁판의 판장문 형식의 복합형으로 되어 있다. 문의 상부는 광창 대신에 광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양 측면과 후면은 회로 마감한 벽체로 구성되고, 바닥은 모두 전돌로 마감하였다. 바닥은 1986년도 보수시에 기존의 아스타일 마감을 전돌로 교체하였다고 한다. 전면 정칸 상부에는 “大成殿”이란 현판이 걸려 있다. 순천은 조선시대에 도호부였으므로 향교의 규모는 중설위에 해당한다. 내부 중앙에 있는 공자의 위패를 중심으로 좌우에 안자, 증자, 자사, 맹자 등 공문 4성 위와 동서벽에 공문10철(孔門十哲)과 송조6현(宋朝六賢) 그리고 동서무에 우리나라 유학자 18현 등이 배향하고 있다.

### 3.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223) 이러한 형식은 개성향교, 수원향교, 강화향교, 순천향교 등에 나타나고 있다.

224) 대성전에는 광창을 두기도 하는데 5칸 건물일 경우는 문을 두지 않은 협칸(서울문묘, 나주향교, 대정향교, 제주향교, 평해향교, 해주향교 등) 또는 퇴칸(상주향교, 영천향교, 춘천향교, 동래향교, 충주향교 등)이나 평양향교와 같이 협칸·퇴칸 모두에 설치하거나 측면에도 통풍을 위하여 창을 설치(강릉향교, 울진향교)하기도 한다.

순천향교에 대한 역사적인 가치는 다음과 같다. 고려시대 성종대의 조치에 따라 987년 경학박사와 의학박사 1인씩 파견되고, 992년(성종 11) 어디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교육시설이 설립되고 교관이 파견되어 교육을 시행하게 된다. 전라도 지역의 전주와 나주와 더불어 최초 관학기관이 설립되고 있다. 순천향교는 1407년(태종 7)에 순천도호부의 향교로 성 동쪽 7리에 순천부읍성 밖에 건립되어 성 서쪽 3리로 이건, 1550년(명종 5) 성 동쪽 5리로 이건, 1610년(광해군 2)에 성 서쪽(옛 자리의 북쪽)으로 이전, 1780년(정조 4)에 성 남쪽 흥내동에 이건, 1801년(순조 1)에 성 서쪽 금곡동 현 위치에 이건 등 전란과 수해 등으로 5차례의 이건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건 이외에도 1649년(인조 27)에 신좌을향으로 중건, 1922년 중수, 1946년 대성전 보수, 1956년 대성전, 명륜당, 동서무, 동서재 보수, 풍화루 중건, 1970년 유사실 보수, 1977년 내삼문 보수, 1982년 동재 보수, 1986년 대성전 보수(단청, 기둥 교체, 연목 교체), 2006년 대성전 완전 해체, 2020년 명륜당 보수 등을 통해 보존과 관리에 노력하고 있다.

5차례의 이건과정을 거쳐 현 위치에 이건된 것은 1801년(순조 1)이다. 그러나 보수공사(2006년) 시 상량문이 적힌 종도리와 종도리에 넣은 상량문이 발견되는데 1780년의 이건하면서 1649년과 같은 칸에 이봉하는데 유적을 쫓는다는 것을 통해 구부재가 많이 사용되었을 것이며 대성전 종도리의 상태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판단된다. 규모·구조·양식 및 의장·세부 등에서 1649년의 형식이 많이 남아있다고 추정된다.

순천향교에 대한 학술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 순천향교는 국사봉과 난봉산에서 뺨어내린 능선 자락에 자리하고 옥천이 동쪽으로 흐르다 동천과 합류하여 순천만습지로 빠져나가고 있다. 안산은 봉화산에서 남쪽으로 뺨다가 남서쪽 자락이 서쪽으로 뺨은 죽도봉을 바라보고 있다. 풍수지리를 보고 동향하여 배산임수에 자리하고 있다. 경내에는 승평지 등 다양한 고문헌과 흥학비 등 15기의 금석문, 1661년(현종 2)부터 1881년(고종 18)까지 220년에 걸친 49건의 유생안(儒生案)과 청금록(靑衿錄) 등의 문서류, 「순영절목(巡營節目)」(1745년) 등의 절목류, 교원우지 15, 경자류 26, 사류 49, 시문집류 67 등의 소장서적, 제기, 제복, 제상, 악기 등이 있어 수장고 및 전시관 등이 필요할 것이다. 구도심의 문화의 거리에 접하여 다양한 문화체험이 가능하며 많은 고문서 등을 소장하는 등의 역사문화 환경을 이루고 있다. 순천향교 대성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건물로서 전남지역에서도 나주, 화순 다음으로 규모가 크고 웅장하다. 대성전의 상량문을 통하여 1780년에 이건하면서 주요 부재를 많이 사용하고, 1801년 이건할 때도 많은 부재를 사용하여 건립한 것으로 추정되어 규모·구조·양식 및 의장·세부 등에서 1649년의 형식이 많이 남아있다고 추정된다.

순천향교의 구조와 조형적인 특징에서 예술적인 가치는 다음과 같다. 대성전은 위패를 모신 측면과 후면은 닫힌 구조이고 의례를 수용하는 전퇴를 모두 노출시킨 개방형의 평면이다. 공포는 주심포 형식으로 교두형 첨차로 짜여진 2출목의 익공계 형식이다. 보 방향으로 다포와 같이 꾸미고 도리 방향으로 절제되면서도 입체적인 교두형 주심포와 같이 꾸미고 있다. 이러한 형식은 상량문의 1780년이나 1649년 이상으로 올려 볼 수 있는 조선 중기의 주심포 계열의 공포에서 주심포와 다포 그리고 익공의 각 양식들의 상호 절충한 수법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화반은 정면 판재 초각화반이고 배면은 단순한 방형 화반으로 위계와 격식을 갖춘 의장을 하고 있다. 첨차는 양측면 직절 후 그 하부를 호형곡선으로 깎은 교두첨차로 육안으로 보기에 호형 곡선이 모양이 달라 추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순천향교 대성전은 역사적, 학술적, 조형예술적인 측면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 지정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문화재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기를 바란다.

## 12. 완주 고산향교 대성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 가. 제안사항

전북 완주군 소재 「완주 고산향교 대성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전북 완주군 소재 「완주 고산향교 대성전」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전라북도지사
- (2) 대상문화재 :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16호 「고산향교대성전」
  - 소재지 :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147-23 (읍내리 143)
  - 지정일 : 1985. 08. 16.
-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 명 칭 : 완주 고산향교 대성전(完州 高山郷校 大成殿)
  - 소유자(관리자) : 전라북도향교재단(고산향교)
  - 소재지 :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147-23 (읍내리 143)
  - 조성연대 : 조선시대(1397년 창건, 1630년,1653년 중창, 1762년,1877년 중수)
  - 수 량 : 1동
  - 지정면적 : 지정구역 202.9㎡(보호구역 6,644.4㎡)
  - 양 식 : 정면3칸, 측면3칸, 1고주 7량가, 2출목 3익공, 겹처마+홀처마, 맞배지붕

라. 현지조사의견(2020.09.09. / 전)문화재위원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전)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마. 지정조사보고서 : 붙임참조

바. 의결사항

- 부결
  - 지정 가치 미흡.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부결 11명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0.09.09	대상문화재	완주 고산향교 대성전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완주 고산향교 대성전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 년 10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1. 향교 창건 및 중수

高山은 백제시대에 高山縣으로 자리했던 역사가 깊은 고을이다. 그 후 여러 번 행정 구역 변동이 있다가 조선 태조부터 줄 곳 다시 현 고을로 정착, 조선말까지 지속되었다. 그 후 근대기인 1914년에 전주부에 부속됐고, 이어 1935년에 전라북도 완주군 소속이 되었다.

고산향교 창건은 1397년(태조 6년)<sup>225)</sup>, 1419년(세종 1)<sup>226)</sup> 등 기록과 연구자에 따라 다소 연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조선 초 ‘一邑一校’ 원칙, 즉 모든 고을(縣 이상)에 학교를 세우는 당시 통치 규범에 따라 1397~1419년 사이 창건이 맞는 것으로 보여 진다. 성종 대에 완성된 『經國大典』 외관 직제에 의하면 고산은 현감(종6품)이 파견된 고을이었고, 『東國輿地勝覽』(1488)에도 전라도 57개 향교 중 하나로 기재되어 있다. 당시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전국 8도에 모두 329개소의 향교가 건립되었는데 이는 조선 초 지방 수령들이 신왕조의 유교 화 정책에 적극 참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선 초기 고산향교의 창건 사실은 그대로 받아들여도 문제는 없다.

고산향교는 임진왜란 시 전체가 소실된 것으로 전해진다. 소실 후 몇 차례의 향교 중수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601년(선조 34)에 대성전, 1604년에 명륜당을 건립하였다고 전해지나, 규모나 형태 등을 알 수 있는 원문이 없다. 임란 바로 직후라 중건이 아무래도 허술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進士 鞠涵(1573~1653)의 문집에 대성전 상량문이 실려 있다. 내용은 옛 건물의 좁고 낮아서(문묘의 규모를 2칸 정도로 언급)새로 지었는데 집이 높고 대들보가 훤히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상량 일시가 언제인지는 언급이 없다. 국함미 진사에 합격한 연대가 1613년이므로 그 이후에 문묘의 중수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임란 시 소실 후 바로 지은 대성전이 매우 부실하여 이때 새로 지은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2004년 대성전 보수 시 ‘上樑名帖’에 ‘崇禎三年’(1630)이라는 간지가 있어 국함문집의 상량문이 이때의 것으로도 추정된다.

셋째, 2004년 대성전 전면 해체 보수 시 도리 하단에서 ‘崇禎紀元之戊辰環甲戌辰之越六年0酉’란 보수 목서명이 발견됐다. 이 시기는 1693년에 해당한다. 또한, 당시 공사 전반에 걸친 창고관리는 德先이 맡았고, 식량창고는 頗好가 맡았다는 목서명도 나왔다. 국함 문집에 나온 보수 이후에 새로 보수가 있었던 것이다.

1877년 8월 13일에 쓴 ‘聖廟重建上梁文’ 도 있다. 내용은 사당이 기울고 훼손되어 옛 모습으로 새로 수리를 했다는 일반적인 내용이다.

225) 전북향교원유대관, P 90, 전북향교재단, 1994.

226) 고산향교지



고산향교 대성전은 위 두 번째, 세 번째 기록과 현 대성전의 기둥과 보 등 주요부재의 상태, 양식 등을 종합해 보면 1630년과 1693년 보수 당시의 구조와 양식이 큰 변화 없이 현재까지 이어져 온 것으로 여겨진다. 즉 고산향교 대성전은 1600년대 건물로 여겨진다.

근대기 이후에도 향교는 지속적 보수가 있었다. 1877년 성묘(공부자 영당) 중건, 1954년 대성전 보수, 1961 향교 보수, 1970년 향교 중수, 1985년 향교 중수가 있었고, 2004년에는 포 부재와 연목 일부 교체, 번와 등 대성전 전면 해체 보수가 있었다. 이상의 보수는 부재 노후 등으로 인한 일상의 개보수로 본 구조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 2. 입지환경 및 배치 형식

고산향교는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산 143번지가 현 소재지 주소다. 남북 방향에서 보면 현 고산읍 소재지 우측 편에 위치한다. 즉 창건 이래 줄 곳 현 위치에 자리했다. 전국의 많은 향교는 임란 시 소실되어 새로 좋은 장소로, 또는 풍수적인 사유(서향, 선비가 나오지 않음)와 현실적인 수재, 호랑이 출몰 등으로도 옮겨 세웠는데 고산향교 만큼은 제자리를 지켰다.

향교 위치는 『東國輿地勝覽』 學校條에 ‘鄉校-在縣東二里’, 文廟는 祀廟條에 ‘文廟在鄉校’ 로 되어있어 관아 동쪽 2리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동헌이 있는 읍치에서 불과 2리 동쪽에 향교가 있었는데 이는 1872년에 제작된 高山縣 지도에도 상세히 표기되어 있다. 읍치에는 동헌, 내아, 객사와 일반 관원이 머물렀던 여러 동의 관아가 있고 향교는 이들과 아주 가까이 동쪽에 자리했다. 즉 그림 상으로는 거의 관아 경역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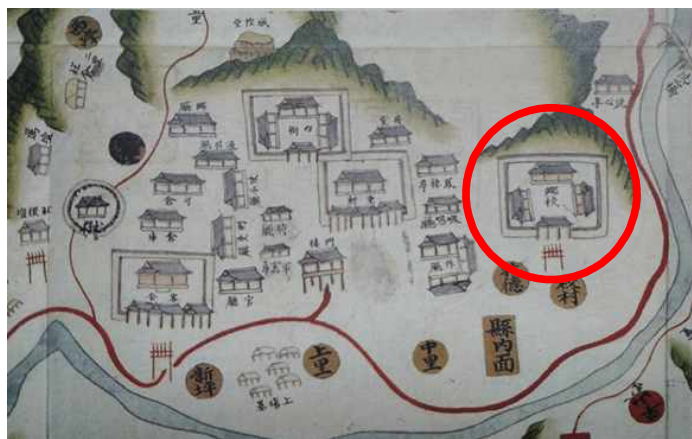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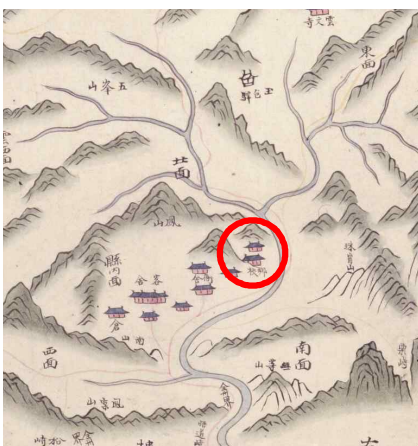


그림 139 해동지도(1750년대 초) 상의 고산현 읍지(1872년) 상의 향교 위치  
고산향교 위치

그림 140 고산현 읍지(1872년) 상의 향교 위치

고산향교는 전형적인 구릉성 산지 경사지에 위치한다. 북으로는 주출산이 있고 남으로는 남천이 흐르고 그 주변에는 넓은 들녘이 펼쳐있다. 전형적인 배산임야 형국으로 이러한 입지는 특히 지방 작은 고을 향교에서 보편적으로 보이는 입지 특성이다.

향교 전체배치 구성은 경사지 배치의 규범인 ‘前學後廟’ 형식을 따랐다. 현재 조성된 현황은 첫째 단에 외삼문과 관리사를 둔 진입부를 두었는데 이 구역은 1980년대 새로 조성된 것으로 여겨진다.(1978년 항공사진에는 외삼문이 나타나지 않고 구역도 불명확함) 2번째 단에는 명륜당과 동재, 서재가 있는 강학공간이 있는데 이 구역은 호남지역 특징인 ‘전당후재’ 형이다. 즉 앞쪽에 명륜당이 있고 문묘 쪽으로 동재와 서재가 있다. 세 번째 맨 상단은 대성전과 내삼문이 있는 문묘구역이다. 東廡와 西廡는 당초 향교가 小設位 향교로서 처음부터 건립이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대지 여건으로도 그렇고, 동·서무 건립에 관한 그 어떠한 기록도 보이지 않는다.<sup>227)</sup> 현재 고산향교 대성전에는 5성과 송조 4현, 그리고 우리나라 18현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다. 우리나라 성현의 대성전 안치는 1949년 전국유림대회에서 결정한 이후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향교는 전체적으로 남북 일축 선상에 문묘와 강학구역이 형성되어 있어 정연한 배치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한편 고산향교에는 진입부 서쪽 높은 곳에 다른 향교에서는 볼 수 없는 공자의 영정을 모신 성묘가 있다. 영정은 명나라에서 오도자가 그린 것을 송영구가 가져온 것으로 전해진다.

### 3. 대성전 건축양식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이며, 지붕은 양면에 풍판을 단 맞배지붕이다. 처마는 전면은 겹처마, 후면은 홑처마로 되어 있다.

대성전 평면은 전면 개방 여부에 따라 폐쇄형과 개방형이 있는데 고산향교는 개방형으로 되어있다. 개방형은 전면 기둥이 열주 식으로 되어있어 장엄함과 심연성이 있고, 제향 시에도 전면 공간이 넓어 매우 편리하다. 종묘와 성균관 대성전은 물론 보물로 지정된 강릉, 나주, 장수, 제주향교 대성전 등도 개방형 구조다. 즉 개방형은 기능과 의장 측면에서 사당건축의 한 규범으로 여겨진다.

기단은 건립 당시 경사지형을 그대로 이용하여 전면은 약 1.00m 높이의 장대석 쌓기로, 양 측면과 후면은 자연석 막돌 1벌대로 쌓았다. 특별한 구조적 특징과 장식은 없지만 전면 2벌대의 장대석 구조는 석재 자체가 매우 크고, 쌓기도 바른층형식이나 중간 중간에 엇물림을 두어 구조적 안정을 취했다. 계단은 양 협칸 앞으로 각각 2곳을

227) 『고산향교 대성전』 자료보고서(문화재청) P 71에 ‘高山縣圖’(1872)를 근거로 동·서무 건립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는데, 당시 지도상의 향교 그림은 대부분이 고산향교와 같이 개념도이기 때문에 고산현도만으로 건물 현황을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정확도도 떨어진다.

두었다. 동쪽 계단은 진입만, 서쪽 계단은 출입으로 사용하는 의례 규범에 따른 것이다. 향교는 의례는 물론 평상시에도 진입과 출입 동선을 엄격히 구분했는데 특히 내·외 삼문의 경우도 이 원칙을 따랐다. 전반적으로 기단부는 1600년대 중건 이후 변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더 나아가 1400년대 초창 당시의 구조로도 여겨진다.

초석은 모두 14개로 특별한 가공이 없는 자연석이나 전면 퇴주 4개만은 방형에 주좌가 있는 것도 있다. 기둥은 고조, 평주 모두 원통형 두리기둥을 사용했다.

架構 형식은 중앙 칸 2열은 1高柱7樑架, 양 측면은 2高柱7樑架로 되어있다. 보통 대성전 가구는 고을 크기, 건립시기 등에 관계없이 1고주 5량 형식이 일반적이고 7량구조는 드문 편이나 고산향교 만큼은 縣 고을, 小設位 享祀 향교임에도 7량 구조를 채택했다. 현재 보물로 지정된 7량구조 대성전은 성균관 대성전 외 나주, 경주, 제주, 장수향교 등이 있는데 특히 전북 장수향교도 조선시대 소설위 향교였다.

가구의 주 부재인 보는 대량, 중량, 종량, 퇴량이 있는데, 이중 대량과 중량은 매우 휨이 강한 곡재를 사용했다. 보와 기둥의 결구는 전후면 퇴주와 평주 사이에 고주를 세우고 고주위에 중보를 걸다. 도리는 모두 굴도리이며, 대공은 종량위로는 판대공을, 나머지 대량과 중량 위로는 주두와 침차가 있는 간결한 포대공을 설치했다.

전면 창방위의 화반은 당초문양에 연봉으로 장식한 방형으로 크기가 매우 크고 화려하다. 한편 화반 좌우로 다른 향교에서는 볼 수 없는 대공 형식의 수직 부재가 설치되어 있어 주목이 된다. 파련각 형상의 퇴량 하부 보아지도 매우 크며, 고주 상부 보아지는 초익공식으로 처리했다.

공포는 전후면 모두 외 2출목 3익공식이다. 일반적으로 향교 대성전 공포는 의장효과를 극대화한 경우도 외 1출목 2익공식을 벗어나지 않는데 고산향교 만큼은 특별하다. 특히 후면은 전면보다 보통 한 단계 낮추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포형상은 초제공과 이제공 살미가 가늘고 길게 뻗은 양서형이며, 삼제공 살미는 수평으로 짧게 내밀은 후 연봉으로 장식했다. 침차는 위치마다 하단부에 변화를 두었다. 후면 공포 중 서쪽 2열 공포는 살미 형상이 다른데 이는 보수과정에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며, 4번째 열도 2004년 보수 시에 전면 형상으로 개보수했다. 대성전 공포는 전반적으로 7량 가구형식과 함께 매우 돋보이는 의장 요소다.



대성전 전경



전면 공포



내부 1고주 7량 가구



기단부



전면 퇴칸



전면 화반

벽체는 전면 퇴칸은 판재를 수직으로 댄 판벽이며, 나머지 3면은 전통 형식의 외 위은 회벽이다. 창호는 전면 3칸 모두에 울거미를 둔 쌍여닫이 판문을 설치했다. 근대기에 많은 향교에서 살림집 창호인 띠살문으로 교체를 했는데 고산향교는 옛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 4. 고산향교 대성전의 문화재적 가치

고산향교 대성전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유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 가치가 있다.

첫째, 전라북도 고산은 조선시대 내내 독립된 ‘縣’ 고을을 유지했던 곳으로 당시 조선의 儒敎化 정책, 즉 ‘一邑一校’ 원칙에 의해 향교가 건립됐고 그 유구는 현재까지 잘 유지되고 있다.(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 116호) 창건은 조선 초나 아쉽게도 임란 시 향교 전체가 소실되어 1630년 중건이 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비단 고산향교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향교가 그러한 이력을 갖고 있다. 보물로 지정된 성균관 대성전, 경주향교 대성전도 임란 시 소실 후 1600년대에 새로 중건된 것이다.

고산향교는 창건 이래 줄 곳 현 위치를 유지했다. 전국의 많은 향교는 임란 시 소실되어 새로 좋은 장소로, 또는 풍수적인 사유(서향, 선비가 나오지 않음)와 현실적인 수재, 호랑이 출몰 등으로도 옮겨 세웠는데 고산향교 만큼은 제자리를 지켰다. 장수향교(보물 272호)의 경우도 수재가 반복되어 1681년에 현 위치로 옮겨 세운 향교이며, 제주향교(보물 1902호)도 5차례의 이건 과정을 거쳐 1827년에 현 위치에 정착했다. 고산향교는 약 600여 년간 제자리에서, 대성전은 400여 년간 현 구조와 양식을 유지해온 유적이다. 따라서 시대와 장소성 등에서도 이미 지정된 보물급 대성전 건축과 뒤지지 않는다.

둘째, 조선시대 고산은 현감(중6품)이 고을을 다스렸던 아주 작은 고을로서 재정적 형편이 큰 고을에 비해 열악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을 현감은 조선시대 수령의 7가지 책무 중 ‘學校興’(향교 건물을 잘 유지 보수하고, 학업을 권장)을 잘 지켰던 것으로 여겨진다. 우선 대성전 건물이 외 2출목 7량가 구조로 이러한 형식은 전국에서 전북 장수향교(보물 272호)와 함께 2곳뿐이다. 전면 퇴칸 형식, 기단구조부터 벽체와 창호 등 전반적으로 비례와 균형감에서 건축적 완성도도 높다. 특히 다소 화려함이 보이는 공포의 쇠서와 침차, 용두 장식 등 외 2출목 3익공 양식도 조선 중후기 대성전 건축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그간 목조 건조물의 보물 지정은 목구조 자체의 양식과 가구미에 지나치게 치중했고 관심을 가졌다. 유형과 역사 및 사회적 관계 파악을 멀리했고, 그것도 주로 불교건축에 집중됐다. 상대적으로 당시 유교 진흥을 국시의 하나였음에도 유교건축은 절제와 검소함이 보편적이었다. 이제 유교건축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인식 전환이 요구되고 그 중심에 향교가 있다.

한국의 향교는 고려 중기 창건 이후 조선시대에 크게 번창한 교육과 제향기능을 한 경역에서 완벽하게 소화한 유적으로, 혼란의 근대기를 거쳐 지금까지도 한국유교의 맥을 지켜오고 있다. 중세시대 아주 작은 고을에 까지, 더구나 신분과 관계없이 국가에서 체계적인 교육기관을 세운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중국을 제외하고 없었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과 달리 근대기 이후 제향의 맥이 멈췄다.

2019년에 전국 9개 서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향교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가치가 충분히 있고(역사, 분포도, 건축, 경관 등) 그 준비 단계로 아직 덜 알려진 향교의 보물지정(현재 7곳 보물 지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중 하나가 아주 작은 산중 고을에서 백성에게 유교 사상을 심어주고 공부를 시켰던 고산향교 대성전이다.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0.09.09	대상문화재	완주 고산향교 대성전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건축
	소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유교/목조건축물)
	문화재 명칭	완주 고산향교 대성전
주요 지정 사항  검토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p>고산향교는 고산읍 소재지의 우측에 위치하고 있는데 고산로를 따라 고산에서 화산으로 가는 길의 좌측에 있다. 전면에는 만경강 지류인 고산천이 만의 형태를 이루면서 흐르고 있으며 뒤에는 낮은 언덕이 위치하고 있다.</p> <p>1392년 조선을 개국한 태조 이성계는 부목군현(府牧郡縣)에 향교를 짓도록 했다. 고산향교도 현유의 위패를 봉안, 배향하고 지방의 중등교육과 지방민의 교화를 위하여 1398년(태조 7) 대성전과 명륜당을 중심으로 창건되었다.</p> <p>대성전에는 5성(五聖), 송조4현(宋朝四賢), 우리나라 18현(十八賢)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으며, ‘대성지성문선왕(大成至聖文宣王)’이라 쓰인 공자의 영정은 조선 중기 송영구(宋英耆)가 당나라의 화가 오도현(吳道玄)의 작품을 받아온 것이라 전한다.</p> <p>조선시대에는 국가로부터 전답과 노비·전적 등을 지급받아 교관이 교생을 가르쳤으나, 현재는 교육적 기능은 없어지고 봄가을 석전(釋奠)을 봉행(奉行)하고 초하루와 보름에 분향을 하고 있으며, 전교 1명과 장의(掌議) 6~7명이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p> <p>이 향교에는 효종 6년(1655)부터 영조 때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서적 및 광해조 때부터 전해오는 족자 등이 있다.</p>
	연혁·유래 및 특징	<p>고산향교 대성전은 1397년(태조 7) 명륜당과 같이 초창되었으나 터가 가라앉았다. 1399년 화재로 소실되자 1400년(정종 2)에 재건되고 1419년(세종 1)에 다시 중건되었다. 1597년(선조 30)에 임진왜란으로 대성전, 명륜당, 동·서재 등이 소실되자 1601년(선조 34)에 중창되었으며, 1626년(인조 4)에는 대성전이 중건되었다. 1630년(인조 8)과 1653년(효종 4)에 대성전의 중창이 또다시 이루어진다. 이후 1762년</p>

(영조 38) 대성전이 중수되고 1810년(순조 10)에 대성전의 대 개축공사가 이루어진다. 1877년(고종 14)에도 대성전의 중수가 이루어진다. 1948년에는 대성전에 대하여 전면보수가 실시되고 1956~1961년, 1971년, 1975년에도 대성전 보수가 이루어 졌다. 1981년 대성전 단청공사, 1984년에는 대성전 보수가 실시되었다. 1988년 산자이상 대성전 해체보수가 진행되었고 1990년에는 대성전 해체복원, 2004년에는 대성전 전면해체 실측과 보수가 실시되었다. 1985년 8월 16일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16호로 지정되었다.

고산향교는 추출산 산록의 경사지에 외삼문-명륜당-내삼문-대성전을 축으로 형성하면서 건물을 배치한 전형적인 전학후묘(前學後廟)형 배치 형태이다. 즉, 경사진 대지를 3단으로 나누고 건물을 배치하고 있는데 가장 아랫단에는 외삼문과 관리사를, 두 번째 단에는 명륜당을, 마지막 상단에는 대성전을 배치하여 위계를 표현하고 있다. 명륜당 좌우에는 유생들의 주거공간인 동재와 서재를 마당을 중심으로 배치하고 있으며 내삼문 뒤에는 대성전을 배치하고 있다.

고산향교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전면 1칸은 개방되어 있고 후면 건물 내부는 사당으로 되어 있다. 구조는 지반위에 자연석 화강암을 가공하여 이별대의 장대석 기단을 정교하게 쌓았는데 전면의 기단은 좌우 측면보다 2배 가까이 크게 해서 넓은 공간으로 구성했다. 초석은 방형, 원형초석과 자연석 덩벙주초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일부 가공한 초석 가운데는 원형 2단 주좌를 구성한 것도 있다.

기둥은 모두 두리기둥인데 내부에 고주를 사용해서 전퇴를 구성했다. 기둥 상부는 창방으로 결구하고 그 위에 공포를 짜 올려 주심포 양식으로 하였다. 이 공포는 전면의 경우 2출목 3익공 구조이고 내부는 보아지 형식으로 되어 주심포식을 이루고 있지만 첨차·소로·살미첨차들이 모두 다포식 계통의 모양을 하고 있다. 헛첨차나 살미첨차의 양서형과 연꽃무늬, 첨차 상부의 봉두 장식 등이 조선 후기의 전형적인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기둥 위 공포 사이에는 화반을 두 개씩 엮어 놓아 주심도리의 장여를 받치고 있다. 이는 다른 건축의 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수한 구조법이다.

가구는 7량집으로 되어 있고 내부는 통칸으로 처리했다. 대들보는 앞뒤 평주에 놓고 이 위에 판형으로 높이가 낮은 동자주를 세워 중도리와 중보를 받치고, 중보위에 다시 중보를 올렸다. 천장은 연등

		<p>천정으로 가구를 노출했는데 종보부터 우물천장을 가설해 서까래를 가리고 있다. 처마는 전면만 겹처마로 구성하고 후면은 홑처마로 구성된 맞배지붕 건물이다.</p>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p>고산향교는 현유의 위패를 봉안하고 지방민의 중등교육과 교화를 위하여 1398년 초창한 이후 여러 차례의 중수와 중건, 보수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p> <p>추록산의 경사지를 이용하여 외삼문과 명륜당, 대성전을 축으로 하는 전학후묘형의 배치를 이루면서 위계를 표현하고 있다.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전퇴개방형 공간을 형성하면서 이별대의 화강석 기단위에 다양한 주초를 놓고 두리기둥을 세운다음 창방과 결구하고 있다. 주두위에 주심포양식의 공포를 올리고 있다.</p> <p>공포는 전면의 경우 2출목 3익공 구조이고 내부는 보아지 형식으로 되어 주심포식을 이루고 있지만 첨차·소로·살미첨차들이 모두 다포식 계통의 모양을 하고 있다. 헛첨차나 살미첨차의 양서형과 연꽃무늬, 첨차 상부의 봉두 장식 등이 전형적인 조선 후기 양식을 보여준다. 그리고 기둥 위 공포 사이에는 화반을 두 개씩 얹어 놓아 주심도리의 장여를 받치고 있는 특수한 구조법이다.</p> <p>우리나라 향교의 대성전의 경우 고산향교 대성전과 같은 시기에 건축 사례로는 서울 성균관 문묘(1398, 보물 제 141호), 강릉향교 대성전(1313, 보물 214호), 나주향교 대성전(1398, 보물 394호), 영천향교 대성전(1513, 보물 616호), 장수향교 대성전(1407, 보물 272), 성주향교 대성전(1398, 보물 1575), 경주향교 대성전(1492, 보물 1727), 제주향교 대성전(1394, 보물 1902), 김제 관아와 향교(1404, 사적 482), 나주목 관아와 향교(사적 483) 등이 있다. 따라서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국가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판단된다.</p>
지정 대상 및 범위		<p>&lt;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gt;</p> <p>&lt;보호물&gt;</p> <p>&lt;보호구역&gt;</p>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고산향교는 1398년 초창한 이후 여러 차례 중건과 중수를 거쳤지만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데 당시 건축된 다른 향교는 대다수가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건축적인 측면에서 고산향교는 경사지를 이용하여 외삼문-명륜당-내삼문-대성전이 전학후묘형의 배치를 보여주면서 위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건축적 수법에 있어서 조선 초기의 주심포양식과 조선 중후기의 다포계 침차양식, 헛침차, 살미침차의 양서형 연꽃무늬, 침차 상부의 봉두장식 등에서 고산향교만의 건축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활용측면에서도 향교를 이용한 증효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지금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할 때 고산향교는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0.09.09	대상문화재	완주 고산향교 대성전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속		직위(직책)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완주 고산향교 대성전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 년 10 월 25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1. 입지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고산향교는 고산읍 소재지의 우측에 위치하고 있는데, 전면에는 만경강 지류인 고산천이 만의 형태를 이루면서 흐르고 있으며 뒤에는 낮은 언덕이 위치하고 있다. 고산향교는 북으로 추출산과 잇닿아 그 아래 세심정이 있고, 동쪽으로 왕사봉, 남으로 남천 주변으로 들에 면하고 있다. 배산임수의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자연의 지세와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

고산향교는 조선후기 고산현에서 동쪽단부에 위치한다. 즉 향교의 우측으로 관사가 있었고, 그 우측에 객사가 있었다. 관사가 있었던 곳 가까이 위로부터 봉루정(鳳樓亭), 흡창청(吸唱廳), 작청(作廳)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향교 뒷산너머에 세심정(洗心亭)이 있고, 우측으로 시내(南川)가 흐르고 있다.

향교의 중심에 있는 대성전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고, 정면에 내삼문이 있다. 그 앞쪽 단차를 두고 동서재와 명륜당이 있으며, 아래쪽에 외삼문이 있다. 앞쪽으로 고산초교 교정에 홍살문이 설치되었었다.

향교의 전체적인 배치는 남북이 긴 장방향으로 자좌오향(子坐午向)으로 자리를 잡았다. 고산초등학교 북쪽의 구릉에 향교가 자리하는데 산쪽으로 바짝 붙여서 대성전이 자리 잡았다. 대지는 정면 아래쪽으로 약간의 하향구배를 가지고 있다. 향교의 입구가 되는 외삼문이 가장 낮은 지대에 있고, 내부에 들어서게 되면 서쪽 구릉 위에 사당인 성묘(聖廟)에 명나라에서 오도자가 그려 송영구가 가져 온 공자의 영정(影幀)이 모셔져있다. 그리고 우측에는 근래 지어진 관리사가 자리한다. 정면 자오축선상의 자연석 계단을 오르면 다른 지형적 위계에 명륜당이 위치하고 있다.

명륜당 뒤편에는 동·서재가 있으며 가운데에 마당이 있고, 이 마당 뒤편 중앙 높은 곳에 대성전으로 들어가는 내삼문이 있다. 내삼문을 지나면 주축선상의 경내의 제일 높은 위치에 대성전이 자리하고 있다.

## 2. 연혁·유래 및 특징

### 연혁·유래

고산향교는 《全北鄕校院宇大觀》에 의하면, 지방의 중등교육과 지방민의 교화, 현유(賢儒)의 위패 봉안, 배향을 위하여 1397년(태조 6)에 창건되었다고 전하고 있으며, 1399년(정종 1)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다가 다음해에 복원하였다.

고산향교와 관련된 기록은 《東國輿地勝覽》 《新增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 《邑誌》 등에 나타나고 있는데, 고산향교의 연혁이나 기문 등에 대해서 자세한 기록은 없고, 다

만 향교의 위치에 대한 언급이 있으며, 여지도서에는 영당(聖廟)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임진왜란 때 다시 소실되었다. 이후 1601년(선조 34) 대성전을, 1604년 명륜당을 건립하였다고 최근의 설명에서 많이 인용되고 있으나 원문은 찾기 힘들다. 그 뒤 대성전에 관련된 확실한 기록은 환성 국함(喚醒 鞠涵, 1573~1653)의 문집에 고산문묘 대성전 상량문이 실려 있는데, 여기에도 창건에 대한 내용이나 그간의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새로 짓게 된 이유가 나타난다. 상량문을 기록한 연대가 없다. 다만 ‘進士 鞠涵’으로 기록하였는데 환성공이 진사시에 합격한 해가 1613년이므로 이 글은 그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명궁재려(明宮齋廬: 명륜당, 대성전, 동재, 서재)가 좁고 낮아서 다 옛날 제도에 병폐가 되었는데 높다란 집과 대들보가 흰하게 드러나 있으니 새로운 공사로 크게 밝아졌다. -중략- 안에는 근궁(芹宮:문묘)과 밖에는 황당(龔堂:명륜당)이니 집집마다 현송(絃誦:거문고를 타면서 시를 읊음)소리 넘쳐나고 -중략- 지난번에 한 고을의 물력의 조잔으로 인하여 겨우 두어칸의 낮고 좁은 문묘를 지었으므로 이미 영령을 안치하는 것만도 오히려 어렵건만 하물려 감히 많은 현인을 배향할 수 있을까? -중략- 현송하는 일에 어찌 강습(講習)의 집이 없으며, 서재와 동재를 바야흐로 차례대로 건립 할 것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위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향교건물의 규모는 대개 좁고 낮아서 선현들을 모시고 제사지내기가 불편하였기 때문에 새로이 건축한 것으로 보인다. 향교내의 건물들은 대성전, 명륜당, 동·서재가 있었으며, 새로 짓는 건물들은 기존의 것보다는 크고 화려한 것이었다. 상량문을 쓸 당시에는 대성전과 명륜당만이 건축된 것으로 보이며 동재와 서재는 아직 건립이 안된 것으로 판단된다.

2004년에 대성전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가 이루어졌다. 이 때 지붕의 도리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도리하부에 묵서명과 또 다른 도리에서 상량문함이 발견되었다. 묵서명에서‘崇禎紀元之戊辰環甲戌辰之越六年 ○酉’라는 명문은 1693년으로 볼 수 있고, 상량문함에서 나온 상량명첩(上樑名帖)의‘崇禎三年’이라는 간지는 1630년에 중창 또는 중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 기록과 진사 국함의 생몰연대를 비교하여 볼 때, 국함이 쓴 상량문은 1630년의 중창에 대한 상량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 뒤 고산향교 대성전에 관련된 기록은 매우 적으며 1762년, 1810년에 중수 기록이 있다. 그 후 1954년부터 중수기록이 나타난다. 그 사이에 향교의 다른 건물에 대한 기록은 간간이 기록되어 나타난다.

1634년에 창건한 양사재(養士齋)인 정안당(靜安堂)에 대한 1686년(숙종12 丙寅)과 1840년(승정기원후 4경자, 헌종6)에 중수 상량문이 있다.

성묘에 대한 기록은 1877년의 성묘(聖廟)중건상량문, 1893년의 공부자영당계서(孔夫子影堂契序) 및 1896년의 공부자영당기(孔夫子影堂記)가 있다. 명륜당에 대한 기록은 1942

년, 1977년 등이 있다. 동서재에 대한 기록은 1877년 중건상량문 등이 있다.

### 건물현황과 특성

고산 향교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단층 맞배집이다. 대성전의 전면 1칸은 퇴칸으로 개방하였고, 내부바닥은 우물마루로 되어있다. 전면 3칸의 모든 칸에는 밖으로 양여단이 울거미널문을 달았으며, 양측면과 뒷면은 벽체로 마감하였다. 주목할 점은 대성전은 주심포식이나 공포의 짜임은 다포계의 첨차들로 이루어져 있어 조선중기의 주심포에서 다포계열이 시작되는 공포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외2출목 3익공의 모습이다. 다른 향교 대성전의 공포는 대체로 초익공 또는 이익공을 많이 취하는데 외1출목을 두는 경우도 흔하지 않다. 특히 소설위 향교로서는 보기 드물다.

기단은 정면은 화강석을 장대석으로 가공하였으며 좌우 양측면과 배면은 자연석으로 설치되었다. 기단 바닥은 강회다짐으로 마감되었으며 주초석은 모두 자연석 덩벙 주초를 놓았다.

기둥은 민흘림 두리기둥으로 측면 중앙부에 셋기둥으로 보강하였다. 벽면에는 하인방, 중인방으로 기둥에 맞춤을 하였고 벽의 하부는 고막이벽으로 처리해서 환기구를 두었으며, 벽면은 외벽은 흙벽으로 회사벽 바르기 마감하였다. 지붕은 맞배지붕으로 건물 전면에는 부연을 두어 겹처마로 하였으나 배면은 홑처마로 처리하였다.

고산향교 대성전의 가구는 전면에 퇴칸을 둔 1고주 7량의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양측면은 2고주 7량 방식을 취하고 있다. 가구의 짜임은 굴도리, 주심포 구조로 외1출목 7량가로 내부는 통간으로 처리하였다. 1고주에 퇴보와 대들보를 연결하고, 고주와 고주의 상부에는 중보를 걸고 그 위에 동자주가 중보를 받치고 있으며 판대공이 종도리를 받치고 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산향교 대성전은 소설위 향교이면서 2출목조의 1고주 7량이라는 매우 드문 가구법을 가지고 있으며 세부기법에서도 기교를 많이 사용한 조선시대 중기의 다포형의 첨차처리 기법을 지닌 주심포양식이라 하겠다.

### 3.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고산향교 대성전은 1398년(태조 7) 명륜당과 같이 초창되었으나 1399년 화재로 소실되자 1400년(정종 2)에 재건되고 1419년(세종 1)에 다시 중건되었다 하나 정확한 기록은 확인하기 어렵다. 1597년(선조 30)에 임진왜란으로 대성전, 명륜당, 동·서재 등이 소실되자 1630년(인조 8)에 대성전의 중창이 이루어진다. 이후 1762년(영조 38) 대성전이 중수되고 1810년(순조 10)에 대성전의 대 개축공사가 이루어진다.

1877년(고종 14)에도 대성전의 중수가 이루어진다. 이후 1948년에는 대성전에 대하여 전면 보수가 실시되고 1956~1961년, 1971년, 1975년에도 대성전 보수가 이루어 졌다. 1981년 대성전 단청공사, 1984년에는 대성전 보수가 실시되었다. 1988년 산자 이상 대성전 해체보수가 진행되었고 1990년에는 대성전 해체복원, 2004년에는 대성전 전면해체 실측과 보수가 실시되었다. 1985년 8월 16일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16호로 지정되었다.

고산향교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정면 1칸이 개방된 전퇴개방형 구조이다. 따라서 전면 1칸은 기단으로 개방되어 있고 후면 2칸은 사당으로 되어 있는데 개방한 종심(縱深)이 깊은 형태를 하고 있다. 구조는 기단을 2단의 바른층 쌓기로 하였는데 타 향교 대성전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은 아니다. 초석은 원형의 2단 주초와 방형의 2단 주초를 가공하여 주로 전면에 사용하고 후면과 측면에는 자연석 화강암 덩벙 주초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두리기둥을 세우고 창방과 결구하였다. 공포는 기둥 상부에 짜 올려 주심포 양식을 이루고 있다. 가구는 7량집이고 내부는 통간으로 처리하였다. 지붕은 겹처마의 맞배지붕 양식이다. 건물의 기단이나 원형의 민흘림기둥, 주두위의 쇠서의 장식 등 중요 부분에서 조선중기의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가구 구조를 보면 자연스러운 형상의 긴 대들보를 앞뒤 평주에 걸고, 이 위에 판형의 낮은 동자주를 세워 중도리와 중보를 받치고 있으며, 이 위에 다시 중보를 걸치고 있다. 그러나 내부에서 보면 중보부터 우물천장을 가설하여 서까래를 가리고 있는 관계로 보이지는 않는다.

공포는 기둥 위에만 짜 올린 주심포 양식으로 외부는 2출목이고, 내부는 보아지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침차소로, 살미침차가 모두 다포식 계통의 모양을 하고 있다. 특히 헛침차나 초제공이 놓이는 살미침차의 끝은 섬약한 양서로 되어 있고 연꽃무늬를 새겼으며 안쪽으로는 한판으로 연꽃을 조각하고, 침차의 상부에 봉두를 장식한 것이 조선 후기적인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기둥위의 공포사이에는 화반을 한개씩 엮어 놓아 주심도리의 장여를 받치고 있다. 특히 기둥 중심에 놓이는 소침차 위의 대침차는 옆의 기둥 중심에 놓이는 소침차 위의 대침차와 커다란 하나의 부재로써 마치 장여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위에 소로를 놓아 주심도리 밑의 장여를 받치게 한 것은 특수한 구조법이라 하겠다.

대성전은 전체적으로 중건할 당시인 조선중기의 주심포 구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여러 차례의 중수과정을 거치고 조선후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다포계의 포와 장식이 첨가되지만 건물의 전면주의 부재를 화려하게 장식하였지만 과하지는 않게 처리하여 대성전 건물의 특성을 잘 유지하고 있다.

#### 4. 종합의견

고산향교 대성전은 인진왜란으로 소실된 후 조선 중기인 1630년에 증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다른 국가문화재에 비하여 결코 시대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건축적 특징에 있어서 건물의 기단이나 원형의 민흘림기둥, 주두위의 쇠서 장식 등이 조선 중기의 형식을 보여주고 있고, 첨차의 상부에 봉두를 장식한 것이 조선 후기적인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기술적인 면에서 소첨차 위에 놓이는 대첨차가 옆에 있는 기둥의 대첨차와 같이 커다란 하나의 부재로써 마치 장여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 위에 소로를 놓아 주심도리 밑의 장여를 받치게 한 기법은 다른 건물에서는 볼 수 없는 특수한 구조법이다.

이처럼 고산향교 대성전은 건물의 기단이나 원형의 민흘림기둥, 주두 위의 쇠서의 장식 등 중요 부분에서 조선중기의 형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소설위 향교로서 외2출목 7량가의 건물은 전국에서도 보물로 지정된 장수향교 대성전 이외에는 찾아볼 수 없는 건물이다.

또한 전체적으로 창건할 당시인 조선중기의 주심포 구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여러 차례의 중수과정을 거치고 조선후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다포계의 포와 장식이 첨가되지만 부재를 화려하지만 과하지 않게 처리하여 대성전 건물의 특성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향교 대성전 건물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조선 중기 이후 건축의 흐름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문화재(보물)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 13. 구미 금오서원 정학당, 상현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 가. 제안사항

경북 구미시 소재 「구미 금오서원 정학당, 상현묘」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북 구미시 소재 「구미 금오서원 정학당, 상현묘」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경상북도지사
- (2) 대상문화재 : 경상북도 기념물 제60호 「금오서원」
  - 소재지 :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유학길 593-31 (원리 276)
  - 지정일 : 1985. 10. 15.
-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 명칭 : 구미 금오서원 정학당, 상현묘(龜尾 金烏書院 正學堂, 尙賢廟)
  - 소유자(관리자) : 금오서원
  - 소재지 :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유학길 593-31 (원리 276)
  - 조성연대 : 조선시대(1602년 중건)
  - 수량 : 1동
  - 지정면적 : 지정면적 339.4㎡(보호구역 5,237.6㎡)
  - 양식 :
    - 정학당 : 정면5칸, 측면3칸, 5량가, 2익공, 겹처마, 팔작지붕
    - 상현묘 : 정면3칸, 측면3칸, 1출목 2익공, 2고주 5량가, 겹처마, 맞배지붕

라. 현지조사의견(2020.06.16.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마. 지정조사보고서 : 붙임참조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원안가결 10명, 부결 1명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0.06.16	대상문화재	구미 금오서원 정학당, 상현묘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 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구미 금오서원 정학당, 상현묘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 년 10 월 5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1. 창건과 변천

정학당은 금오서원의 강당에 해당하는 건물이다. 현재는 경상북도 기념물 제60호로 지정되어 있다. 현재 금오서원은 구미시 선산읍 원리의 남산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나 처음 창건 때에는 금오산 아래에 있었다.

길재를 배향하는 것을 목표로 선산부사 송충기의 건의로 경상도관찰사에 의해 조정의 허락을 받아 길재가 학문연구와 후진양성에 주력하였던 금오산 기슭에 금오서원을 초창하게 되었다. 그리고 1572년(선조3) 봄에 길재의 위패를 모시는 사당이 건립되었고 1575년에는 조정으로부터 사액을 받아 서원전과 서책들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창건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임진왜란이 발발하였고 선산부를 대표하는 의병장 노경임은 부대장 박수일과 함께 금오서원을 부대의 작전 지휘소로 사용하면서 일본인들의 표적이 되었다. 따라서 일본군에 의해 모든 건물이 전소되는 사태를 맞이하였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금오서원의 중건을 논의하였는데 금오산 아래는 터나 협소하므로 장소를 옮기자는 것이 중론이었다. 그 결과 선산부사 김용의 주도로 지금의 위치인 남산 아래로 이건하여 중창하기에 이르렀다. 금오서원이 있는 원리는 비봉산의 지맥인 남산(해발 169m)이 떨어져 나와 감천과 낙동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형성된 연화도수형의 명당터이다. 주변으로는 보물로 지정된 구미 낙산리 삼층석탑, 구미 해평리 석조여래좌상과 사적으로 지정된 낙산리 고분군 등이 있다.

새로 중창한 금오서원은 경상도 관찰사 류영순의 건의로 1607년 다시 사액을 받았다. 그리고 1619년에는 길재의 학통을 잇는 선산부와 연고가 있는 김종직, 정봉, 박영이 추가로 배향되었고 1642년에는 다시 장현광이 추가 배향되어 배향 인물이 5인이 되었다. 1697년에는 숙종이 길재의 절의 정신을 기리는 글을 내렸는데 현재 ‘숙묘어제어필’이란 제목의 현판으로 제작되어 서원에서 보관하고 있다. 그리고 임금의 교지는 구미 시립 민속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금오서원의 역사적 변천과 사액서원으로서의 중요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금오서원은 1871년 흥선대원군에 의한 서원철폐령에도 제외되었던 47개 서원 중에 하나로 그 원형이 보존되어 있다. 서원중수기와 중수일기록에 따르면 1891년 퇴락한 서원을 선산부사 김사철과 선산 유림들이 합심하여 수리하였다. 1928-1930년에도 중수가 있었다. 그 중수기록은 현판으로 서원에 게시되어 있다. 상현묘, 정학당, 동서재, 문루와 담장에 이르는 전체적인 중수공사였다. 1960년에는 누각의 대들보와 서까래 및 기둥과 연목, 담장 등이 수리되었다. 1979-1980년에도 문루와 동서재에 대한 수리가 있었다. 임란직후 현재 위치에 새로 짓고 1891년까지의 중수기록이 없는 것은 아쉬움이다.

## 2. 건축구조 및 양식

현재의 금오서원은 임란 직후 새로 창건된 것이며 선산읍 원리 276번지에 위치한다. 원리는 비봉산의 지맥인 남산(해발 169m)이 빠져나와 감천이 낙동강과 합류되는 지점에 위치한다. 감천은 서에서 동으로 흘러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낙동강과 합류하게 되는데 금오서원은 남산을 배산으로 하고 남쪽에 임천에 접하고 있는 배산임수형국이다. 풍수적으로는 동쪽과 남쪽으로 각각 낙동강과 감천, 북쪽과 서쪽으로 남산에 둘러싸인 연화도수형국이다.

금오서원은 맨 앞에 외삼문으로 읍청루가 있으며 강당으로 정학당, 내삼문, 사당으로 상현묘가 중심축선상에 배치된 전형적인 전학후묘 배치이다. 지형은 상당한 경사 지형으로 읍청루도 입구에서부터 8m가량 높은 곳에 있고 사당으로 갈수록 점차 높아져 상현묘는 입구보다 15m 높은 곳에 있다. 완벽한 중심축선의 설정과 단차에 의한 배치의 엄격성은 서원의 위엄성을 충분히 나타내고 있다. 외삼문인 읍청루는 중심축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2.4도 정도 기울여 배치했는데 이는 지형에 의한 것보다는 정축에 놓지 않는 한국건축의 특징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4도는 감지될 정도는 아니어서 서원 배치의 엄격성과 권위성은 지키면서 건축의 역동성은 살린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금오서원의 강당인 정학당은 정면5칸, 측면 3칸으로 15칸 규모이다. 전후퇴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칸이 10자이고 전후퇴가 7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퇴의 간살을 넘는 규모이다. 정칸과 퇴칸의 중간 정도이기 때문에 협칸 정도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전후퇴집과 비교하면 웅장한 느낌을 준다. 간살의 설정이 공간에 대한 느낌을 전혀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리칸은 정칸과 좌우 협칸이 10자인데 반해 온돌이 있는 좌우 퇴칸을 11자로 가장 크게 했다. 일반적으로는 정칸이 가장 크고 퇴칸이 가장 작은 것과는 반대인 독특한 간살법을 갖고 있다. 특별히 온돌을 크게 만들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정칸을 가장 크게 하는 조선후기의 기법보다는 조선전기의 간살법이 반영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온돌은 정칸과 후퇴 쪽에 좌우 각 2칸씩 두었으며 동쪽의 온돌에는 북쪽에 벽장을 주었고 측면에 쪽마루를 설치하여 서쪽 온돌과는 구성을 달리했다. 좀 더 살림 중심이어서 두 방의 쓰임이 달랐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기단과 초석은 자연석을 사용했으며 기둥은 모두 원기둥이다. 대개는 온돌방과 같이 벽체가 있는 곳은 방형기둥을 사용하는 것과 대비되며 훨씬 웅장함과 장중한 느낌을 준다. 기둥은 민흘림 정도의 기법을 사용하였고 높이가 높다.

공포는 초익공처럼 보이지만 그 구성법은 소주두만 없을 뿐 행공이 사용된 이익공형식이다. 다만 이익공이 익공형이 아니라 두공과 같이 처리해 이익공형식으로 보이지 않

는다. 즉 기둥머리에는 주두를 올리고 주두 아래에서 창방과 초익공이 십자로 맞춤되었고 주두 위에서 행공과 두공이 다시 십자로 결구 되었다. 행공 양쪽에서는 소로를 올려 장혀를 받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익공과 두공은 보를 직접 받치고 있다. 도리는 굴도리이며 창방과 장혀 사이에는 주 칸마다 하나씩의 화반을 두었다. 익공은 밑으로 숙지 않고 수평으로 날카롭게 뻗었으며 이중곡선으로 처리했다. 그 하단의 연화는 두 단으로 처리했는데 강직한 익공의 모습은 조선 후기와는 다른 조선전기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행공은 춤이 높지 않으며 높이보다 길이가 길어 날씬하며 옆면은 사절했고 밑면은 호형으로 가공했다. 내부에서는 익공과 행공이 두 단으로 보아지를 형성하였다. 가구법은 대청 부분은 이평주오량가이며 방부분은 이고주오량가이다. 내부 고주와 동자주에서도 익공과 행공이 쓰였으며 같은 행공이 종도리 뜬장혀 아래에도 사용되었다. 대공은 파련대공이며 종도리 아래에서는 장혀와 뜬장혀 사이에 소로수장하였다. 종도리에서는 뜬장혀가 사용되지 않았다. 고주와 동자주 및 종도리에 행공과 익공을 사용한 것은 비록 조각은 없지만 건물의 화려함과 격식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다. 앞뒤 공포도 자르지 않고 같은 형식이다. 처마는 겹처마이며 지붕은 팔작지붕이다.

대청은 연등천장이며 방은 우물반자이다. 대청은 우물마루인데 한 칸에 동귀틀을 하나만 설치하여 마루청판이 길어서 장마루와 같은 느낌을 준다. 목재를 풍부하게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임란 후임에도 불구하고 목재의 공급이 원활했으며 의도한 조형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대청 배면 3칸에는 두 짝 널판문을 달았다. 문지방 아래에 머름은 없으며 하인방과 문지방 사이를 일반 벽체와 같이 회벽 처리했다. 문설주와 상인방은 반연귀맞춤으로 했고 문얼굴 중앙에도 설주가 있는 령쌍창으로 처리했다. 중앙 설주와 문지방이 만나는 모서리에는 철물로 원산을 만들어 설치했다. 널판문이면서도 우리판문과 같이 문턱이 있는 정교한 구성을 보인다. 령쌍창은 임란 후 서원과 향교건물에서 흔히 보이는 것으로 조선후기에는 문짝의 고정방식이 발달하고 중간 설주가 있으면 기능상 불편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라지고 드물게 사용하는 기법이다. 따라서 령쌍창의 존재로도 정학당은 임란 직후 중창되어 변형 없이 존속한 건물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 3.정학당의 지정가치

금오서원은 길재를 포함하여 선산부와 연고가 있는 김종직, 정봉, 박영이 배향된 유수한 서원으로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도 없어지지 않고 사액 된 47개 서원 중 하나이다. 숙종이 길재의 절의 정신을 기리는 글을 내렸는데 현재 ‘숙묘어제어필’이란 제목의 현판으로 제작되어 남아 있으며 조선후기의 중수기록이 현판으로 제작되어 정학당에 게시되어 있다. 또 정학당에 걸려있는 ‘금오서원’ 현판은 ‘만력35년(1607)’이라는 명문이 있어서 금오서원을 임란 직후 금오산에서 원리로 옮겨 새로 창건한 것을 증명하고 있

다.

따라서 정학당은 임란 직후 현재 위치에 새로 건립하여 이전과 변형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증명하는 기록과 현판들이 남아 있어서 서원의 역사와 변천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점만으로도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건축 양식적으로는 령쌍창이 남아 있어서 임란 직후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으며 건축 시기를 증거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 간살방식이 전후 퇴가 7자 정도로 매우 크며 정면 칸의 경우 정칸과 협칸은 10자로 같고 오히려 퇴칸은 11자로 크다는 것이 다른 건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이다. 전후 퇴를 크게 한 것은 기능과 용도에 부합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구조적으로는 장연을 길게 하여 처마를 깊게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 기둥을 높이고 공간을 넓게하여 웅장한 느낌을 준다. 여기에 온돌방 부분까지도 원기둥을 사용하고 부재의 규격을 크게 하였으며 장식은 오히려 배제함으로서 더 엄격하고 웅장하며 남성적인 느낌을 준다. 여기에 고주와 동자주에는 행공과 익공을 사용하였고 공포는 구성은 이익공형식인데 시각적으로 초익공처럼 보이도록 하여 절제미를 보여준다. 이러한 미학적 해석이 건축의 양식적 가치와 조형미를 돋보이게 하는 미적가치라고 할 수 있다.

또 정면 간살의 경우는 정칸에 비해 퇴칸을 한 자 정도 크게 하였는데 다른 건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고유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기능적으로는 온돌방을 크게 쓰려는 의도이겠지만 이러한 관점으로만 보기는 어려운 고도의 미학적 관점이 스며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학당은 서원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면서도 지역적 특징과 고유한 특성을 간직하고 있다. 또 건축 미학적 가치가 뛰어나며 임란 직후 창건된 것으로 조선 중기 강당 건축의 모범을 보인다는 측면에서도 역사, 학술, 미학적 가치가 충분하다. 따라서 국가 문화재로 승격하는데 손색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4. 상현묘의 지정가치

상현묘는 금오서원의 사당이다. 건축양식과 구조 및 규모는 다르지만 건축에 사용된 기법과 형식으로 미루어 강당과 함께 임란 직후 중창되어 현재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상현묘는 정면3칸, 측면3칸 이지만 정면은 12자 정도로 정칸과 협칸이 동일하고 주칸이 커서 보통 3칸의 다른 사당에 비해 규모가 큰 편이다. 평면은 퇴가 없는 통칸으로 바닥에는 모두 전이 깔려 있다. 기둥은 모두 원기둥이며 기둥과 창방 등이 보통 건물보다 굵어서 육중하고 장중한 느낌을 준다. 전면은 각 칸마다 두 짝 우리판문을 달았으며 측면과 배면은 화방벽 없이 모두 심벽으로 처리한 것도 특징적이다.

이 건물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기둥 아래 하방의 위치와 맞춤이다. 보통 인방은 기둥이 먼저 서 있는 상태에서 장부로 맞춤되기 때문에 상하에 유격을 두고 인방재를 끼운 다음 썰기를 박아 고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상현묘의 하방은 장부맞춤이지만 기둥과 같은 높이로 초석 면에 바로 올라가 있고 상부에 썰기를 박을만한 유격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인방을 먼저 놓고 기둥을 세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기법은 매우 오래된 고식으로 마루가 도입되기 이전의 고려시대 건축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부석사 무량수전과 같은 건물을 참고하면 고맥이 초석을 사용하고 하방 아래에 고맥이석을 받쳤으며 기둥 하부에 하방선이 일치하도록 설치하였다. 지금은 마루이지만 원래는 방전 등으로 마감하였던 건물임을 알 수 있다. 보통 사당에 마루를 까는 것은 후대에 도입된 것으로 방전을 깔았을 때에는 상현묘와 같은 방식이었겠지만 후대에 마루로 교체되고 수리되면서 이러한 기법은 모두 사라졌다. 따라서 상현묘는 기둥 하부와 하방의 맞춤 기법 하나만으로도 고식기법을 볼 수 있는 중요한 건축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맞춤의 경우는 하방이 동일 한 높이로 걸려야 하기 때문에 높이가 같은 가공 초석을 사용한 건물에서 쓰이는 것이 보통인데 상현묘는 높이를 일정하게 맞추기 어려운 자연석 초석을 사용한 건물임에도 이러한 기법을 사용했다는 데 더욱 가치가 있다.

가구는 내부는 이평주오량가이고 양측면은 이고주오량가이다. 정학당과 같은 가구법이다. 오량가에서 대들보 없이 이고주에 종보만을 걸어 가구한 건물은 매우 드물다. 공포는 일출목 초익공형식으로 초가지의 모양과 구조형식은 강당인 정학당과 유사하여 같은 장인 내지 계통에서 건축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출목이 있고 출목침차는 주심의 행공과 달리 측면을 사절하고 하단을 당초로 조각하였다는 면에서 보다 격식을 높이려는 목적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은 내부의 동자주에서도 익공과 행공을 사용하고 주두와 소로를 사용한 것으로도 표현되었다. 지붕은 겹처마 맞배집인데 처마는 약간의 양곡은 있으나 안허리곡은 없는 망구메기에 가까운 기법을 사용했다. 망구메기도 남아 있는 사례가 많지 않은 기법중 하나이다.

상현묘는 단청을 새로 해 정학당보다 늦게 건축된 것으로 보이지만 건축기법 및 치목수법, 가구법, 공포의 모양, 부재의 풍화도 등으로 미루어 정학당과 함께 임란 직후 건립된 것으로 조선 중기 사당건축의 모범을 보여주는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 하방과 기둥의 맞춤, 이고주오량가라고 하는 가구법, 평면구성과 마감 및 간살의 설정 등은 고식기법이며 조선 중기 건축기술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정학당과 함께 서원을 이루는 하나의 조합으로 국가문화재로 승격하기에 손색이 없다고 판단된다.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0.06.16	대상문화재	구미 금오서원 정학당, 상현묘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속		직위(직책)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구미 금오서원 정학당, 상현묘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 년 10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1. 입지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1) 입지현황

금오서원은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원리(유학17길 9-9)에 소재하고 있다. 조선시대 선산부는 경상도를 대표하는 굴지의 고을이었다. 선산부의 읍치인 행정 중심부는 비봉산(飛鳳山, 해발 122.9m) 아래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객사와 관청이 우뚝했다. 읍치 선산부는 동편에 남동강이 흐르고 부 남쪽은 감천(甘川)을 끼고 넓은 평야가 펼쳐진 곳이었다. 지리지에는 금오서원의 위치를 두고 ‘선산부 동쪽 10리 위치’로 기록하고 있다.

현재도 선산은 조선시대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예전 부가 있던 중심부는 현재 선산읍내가 되었으며 비봉산 아래 객사 자리에는 선산초등학교가 있다. 초등학교에서 북쪽으로 1km되는 곳에는 선산향교(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123호)가 남아있다. 금오서원은 읍내에서 동편 약 4km되는 지점의 남산 아래에 제 위치를 잘 지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서원이 들어선 곳은 선현의 유허지에 세우는 사례들이 많으며 이런 경우 서원의 입지는 읍치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금오서원의 경우에는 이미 길재가 사망하고도 근150년이 지나서 건립하였고 또 처음 세웠던 금오산 기슭에서 현재 위치로 이전했기 때문에 입지 선정에서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즉, 서원 건립 주체가 선산부사였기 때문에 부사가 실제로 제례에 참여하기 적당한 위치 즉 부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 선택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금오서원 주변은 저층 농촌주택으로 둘러싸여 있고, 소규모라 할 수 있는 원1리 마을 뒤편에 있어 보존환경은 양호한 편이다. 서원은 앞으로 낙동강을 두고 뒤로는 남산 남쪽 방향 가파른 산 밑 기슭에 자리를 잡아 금오산을 바라보고 있다. 전체적으로 자연지형의 고저차를 이용하여 강학공간을 전면에 배치하고 제향공간을 뒤로 둔 전학후묘 배치를 취하였으며, 서원 전면에는 문루인 누각(읍청루)을 배치하였다. 서원 오른쪽으로 낮은 지대에 부속공간을 건립하여 서원 경관에 큰 영향은 없는 편이다. 전체적으로 산록의 지형을 크게 변형시키지 않고 건물을 배치한 장점은 지녔지만 이로 인해 각 영역은 다소 협소한 편이고 제례나 평소 이동하는데 어려움은 있다.

### 2) 역사문화환경

현재 구미시에 통합된 선산읍은 조선시대 선산도호부였다. 고려시대부터 선산은 사실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한 편으로 인근의 안동이나 성주에 비해 정치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지역으로 분류된다. 고려 개국공신이 나온 안동, 성주가 주요 지역으로 부각되어 외관(外官)이 파견된 주읍(主邑)이 되어 영남을 대표하는 수읍(首邑)으로 성장한 반면에 선산과 해평은 상주목의 속읍이 되었다. 1143년(인종 21)에 일선군으로 독립한 선산은 인근 지역을 속현으로 삼아서 경주·상주·성주와 같은 전통적인 대응으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후 선산은 급속하게 발전하는데 12세기 이래 지역의 여러 인재

들이 중앙으로 진출한 결과였고, 그 중심에는 길재가 있었다. 그는 여말선초 절의과를 상징하는 인물로, 조선 성리학의 가교 역할로서도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선산이 역사상 가장 절정기를 이룬 시기는 15세기로 평가된다. 14세기 후반에 현에서 주(州)로 승격된 선산은 읍세도 확대되었다. 1415년(태종 15)에 군(郡) 중에서 인구가 1,000호 이상인 지역을 도호부로 승격시키면서 도호부가 되었다.<sup>228)</sup>

조선초기 선산이 발전하게 된 배경에는 낙동강이라는 천혜의 수로 조건, 그리고 서울과 부산을 잇는 영남대로의 부설과도 관련이 있다. 게다가 일찍부터 수전농업이 발전하였는데 수전(水田)의 규모와 저수지 축조 같은 농업환경은 영남의 다른 지역을 압도하는 수준이었다. 선산의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이끌어낸 주도층은 바로 이곳의 재지 사족층이었다.<sup>229)</sup>

선산지역은 성리학을 배우고 실천하는 도학자의 산실로 손꼽힌다. 길재를 이어 김치(金峙), 김숙자(金叔滋), 김종직(金宗直)으로 이어진 선산의 인물들은 이곳을 성리학의 원지로 만드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이들 이은 김굉필, 정붕, 박영과 같은 뛰어난 학자들이 선산과 직·간접으로 관계를 이어감으로써 16세기 전반까지 성리학의 선도 지역으로 널리 인정받았다. 17세기 전반까지에 국한되지만, 선산은 조선시대 단일 읍치로서는 서원 건립이 꽤 많았던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요약하면, 선산지역은 높은 농업생산력을 기반으로 15세기말에서 16세기 초 조선 도학의 중심지 가운데 하나였고, 길재의 도통을 이은 김숙자와 김종직을 배출한 곳으로, 그 구심점은 바로 금오서원이었다.

## 숙종어제와 영조·정조의 치제

선산부는 경상도의 큰 고을이었으며 금오서원은 선산부를 대표하는 서원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금오서원의 위상은 조정에서도 널리 인정되어 1697년(숙종 23) 숙종은 길재의 절의정신을 기리는 글을 내렸다. 그 내용은 현재 ‘숙묘어제어필(肅廟御製御筆)’로 제작되어 지금 서원 안에 보존되어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1768년(영조 44)에 영조는 태종의 제사 날을 맞아 길재가 태종과 함께 성균관에서 공부한 옛일을 되살리면서 예관을 보내어 제사지내도록 하고 직접 제문을 지어 내려 보냈다.<sup>230)</sup> 정조도 금오서원의 치제를 행하였는데, 이때 경상도의 유생 수천 명이 서원에 운집했다고 한다.<sup>231)</sup>

## 2. 금오서원의 연혁·유래 및 특징

228) 조선시대 도호부는 세종 때는 38개, 『경국대전』에는 44개, 『대전회통』에는 75개에 이르렀다. 선산도호부는 1894년 갑오개혁 당시 군으로 통합, 폐지되었다.

229) 1430년(세종 12)에 『농사직설』을 편찬한 정초는 선산부 연봉리 출신이다.

230) 『영조실록』권110, 영조 44년 5월 10일.

231) 『정조실록』권49, 정조 22년 10월 5일. 『홍재전서』권24, 제문 6, 금오서원 치제문이 수록되어 있다.

### 야은(治隱) 길재(吉再, 1353~1419)

길재는 고려말·조선초기 학자로 호는 야은(治隱), 금오산인(金烏山人)으로 불렸다. 그는 고려가 망하자 새 왕조의 부름을 거부하고 금오산에 들어가 학문에 정진하고 후학을 키우는데 주력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길재의 위상은 15~16세기를 거치면서 달라졌다. 조선 초에 봉상박사에 임명되었으나 두 왕을 섬기지 않는다는 뜻을 펴니 충신의 대명사로 일컬어졌다. 세종 연간에 『삼강행실도』를 편찬하면서 정몽주와 함께 충절의 표본으로 수록하자 충신으로의 위상은 더욱 공고해졌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16세기에 사람이 성장함에 따라 조선의 도학의 계보 [道統]가 정립되면서 길재에 대한 평가는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1798년(정조 22) 금오서원 치제 이후 길재의 시호를 개정하자는 의견을 유생들이 제기하였다. 유생들의 의견을 전달받은 이익운(李益運)은 정조에게 타당성을 설명하였다. 즉, 길재에게는 이미 충절이란 시호가 있었지만 길재를 심학(心學)쪽에 배치한 이황의 견해를 따라 대체로 길재가 이룩한 학문의 공이 절의보다 훨씬 비중이 크므로 시호에 충절만 거론한 것은 현인을 본받게 하는 의리에 부족하니 다시 검토하자는 의견이었다.<sup>232)</sup>

### 야은사(治隱祠)와 금오산 시기 금오서원

금오서원에 앞서서 길재를 기린 야은사가 등장하는데, 관찰사 남재(南在)가 1403년(태종 3) 을곡에 사는 길재에게 가서 가묘를 짓고, 그의 유상을 걸고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sup>233)</sup> 하지만 야은사란 이름은 그의 호를 딴 것으로, 이외 규모나 성격에 관해서는 알려진 자료가 충분치 않다.

16세기에 들어 선산지역에서는 그의 학문을 계승한 김숙자, 김종직 등으로 이어지는 영남사림의 도학적 학통을 확립하였다. 즉, 16세기에 들어와 선현을 추모하고 학문을 이어가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선산부 선비인 최응룡, 김취문이 고을 여러 부로와 선비들과 함께 선산부사 송기충에게 서원 건립을 청하였고 부사는 경상도 관찰사에게 서원 건립의 뜻을 보고하고 관찰사가 조정에 아뢰어 1572년(선조 3) 건립이 이루어졌다.<sup>234)</sup> 서원의 위치는 길재가 학문연구와 후진양성에 주력하였던 서원을 금오산 기슭이었다. 서원이 건립되자 조정의 지원도 이어져서 1575년(선조 6)에는 조정으로부터 사액이 되었으며 토지와 노비, 서책을 지원받았다. 아울러 학규와 원규 등을 마련하여 서원을 운영하기에 이르렀다.<sup>235)</sup>

232) 『정조실록』권49, 정조 22년 10월 5일.

233) 『일선지』권1, 야은사당; 『조선후기 선산지역 재지사족의 동향과 원라 건립 추이』, 『민족문화논총』73집, 126쪽에서 재인용. 이때 가묘를 지은 곳은 길재가 살던 집으로 보고 있다.

234) 『일선지』, 규장각 15484, 서원조. 김취성과 김취문의 사망 시기로 미뤄 실제 서원의 낙성은 최응룡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임근실, 『16세기 선산지역 서원 건립에 나타나는 道統意識』, 『퇴계학보』137집, 207쪽).

그런데 사림의 도통에 대한 인식은 생각이 달라서, 금오서원 건립을 주도한 송당학파는 정몽주-길재-김숙자-김종직-김굉필-정봉-박영으로 이어지는 도통을 주장한 반면에 퇴계학파는 정몽주-길재-김숙자-김종직-김굉필-조광조-이언적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송당학파의 도통의식에 공감할 수 없었던 류운룡은 퇴계학파의 도움을 받으며 길재의 묘소가 있는 인동(仁同)에 길재만을 모시는 오산서원(吳山書院)을 1580년대에 건립하기도 하였다.<sup>236)</sup>

건립하고 얼마 되지 않은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벌어지면서 상주 읍내가 전화를 입는 와중에 금오서원도 휘말렸다. 이때 금오서원은 전소된 것으로 전해진다. 1606년(선조 39) 경상감사 유영순(柳永詢)이 올린 문서를 보면 병화에 잿더미가 된 도내 사우를 언급한 가운데 금오서원도 포함되어 있고,<sup>237)</sup> 의병부대의 지휘소로 쓰였다고 하므로 피해는 짐작하고도 남는다.

금오산 시기 금오서원의 모습은 어땠을까. 이를 밝힐만한 자료는 드문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오산서원을 지은 류운룡은 『오산지』, 『오산서원기』를 남겼는데, 참고삼아 적어 둔다. 오산서원은 오태산(吳泰山) 나월봉(蘿月峯) 아래, 길재의 묘소 앞에 건립하였으며, 묘(廟), 강당, 동·서재, 문루가 있고, 동몽을 위한 서당과 청과창고도 만들었다. 강당에는 충효당(忠孝堂)이란 현판을 걸고, 동서에 두 칸의 온돌방을 두고 동쪽 방을 명성(明誠), 서쪽 방을 직방(直房)이라 했다. 동재는 함일재(涵一齋), 서재는 성인재(省三齋)를 짓고 그 앞에 문루를 지어 아래 세 칸의 훈덕문(薰德門)과 위 5칸의 청풍루(淸風樓)를 지었다. 동재 동쪽에 양정(養正)이란 서당을 만들어 아이들의 공부방으로 사용하였다.<sup>238)</sup>

### 선산부(善山府)를 대표하는 금오서원

금오서원은 조선시대 선산부를 대표하던 서원으로 여말선초 절의를 상징하는 성리학자인 야은 길재(吉再)를 필두로 현재는 김종직, 정봉, 박영, 장현광 등 5인을 배향하고 있다. 임진왜란 이후 재건되면서 선산에 세거하고 있던 각 사족 문중의 조상, 즉 6인의 향현(鄉賢)들을 중향하려는 논의가 불거졌으나 장현광의 반대로 금오서원의 배향인물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임란 이전의 4인으로 정리되었으며, 이후 장현광을 추가하여 현재 5인을 모시게 된 것이다.

김종직은 길재의 고제 김숙자의 아들로 성종연간 사림파의 영수로 평가되는 인물이며, 정봉은 선산부에서 태어나 성종연간 촉망받는 신진관료로 활동하였고 도학정치를 폈

235) 『일선지』, 규장각 15484, 서원조.

236) 임근실, 「16세기 선산지역 서원 건립에 나타나는 道統意識」, 『퇴계학보』137집 참조.

237) 『선조실록』권206, 선조 39년 12월 26일.

238) 『오산지』권4, 고증, 「오산서원기」, 임근실, 「16세기 선산지역 서원 건립에 나타나는 道統意識」, 『퇴계학보』137집, 2015, 215~216쪽에서 재인용. 서원을 건립할 때 류운룡은 인동의 승려들을 동원하였다.

다. 송당 박영은 드물게 무관출신으로 선산에 내려와 정봉에게 수학하면서 성리학에 큰 깨달음을 얻고 제자들을 키웠다. 마지막의 장현광은 퇴계 이황의 학통을 계승한 영남의 대표적이 학자로 인동에서 출생하여 학문을 쌓았으며 여러 차례 관직 제수를 받았지만 나아가지 않고 학문연구와 후진양성에 추려한 대표적 산림처가로 명망이 높았다. 이처럼 금오서원은 길재로부터 시작하여 영남의 대표적인 학자들을 봉향한 서원으로 그 위상을 높였다.

### 17세기 초 금오서원 증건

왜란이 끝난 후 복구는 여러 방면에서 시작되었지만 당시 선산부사로 있던 김용(金湧)은 1600년(선조 33) 선산향교 복구를 시작하여 대성전을 먼저 지었다. 장현광을 비롯한 선산부의 유림은 서원의 복구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금오산 기슭의 옛 터가 협소한 것을 꺼려 새로운 터전을 모색하였다.

이에 선산부사 김용에게 금오서원의 증건을 청하여 선산부 동편 20리 되는 곳의 남산(藍山) 아래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여 서원을 증건하게 되었다. 이 건 시기는 「藍山書院移建後吟示諸生」에서 임인년으로 밝히고 있어 1602년(선조 35)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sup>239)</sup>

창석 이준이 쓴 「금오서원 상량문」에 전하나 건축에 관한 상황은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만약 큰 규모로 개수하지 않는다면, 어찌 많은 선비들이 성대한 뜻이라고 칭송하겠는가. … 물려주신 제도보다 넓혀서 사당을 새로이 옮겼고…”<sup>240)</sup>라는 말로 미뤄 이전보다 사당을 확장했을 가능성은 엿보이나 구체적인 변화상은 파악되지 않는다.

어쨌든 간에 서원이 이루어지자 1606년(선조 39) 12월에 경상감사 류영순(柳永詢)이 금오서원을 비롯해서 성주 천곡서원, 현풍 쌍계서원, 함양 남계서원의 재사액을 청원하여 왕의 허락을 받았다.<sup>241)</sup> 현존하는 금오서원의 편액 중에는 만력 24년(1607년) 2월 선액(宣額)이라는 부기가 붙은 ‘金烏書院’현판이 있어서 이 시기 서원을 증건하고 재사액된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터를 옮겨 서원이 들어선 위치는 서쪽에 낙동강 본류가 흐르고 남쪽은 지류인 감천이 본류와 만나는 곳으로 뒤에는 남산이 감싸고 있고 앞은 선산의 넓은 평야가 펼쳐진 곳이었다. 17세기 초 증건할 때 건물의 명칭이나 규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관련기록이

239) 김용, 『운천집』권1, 시, 藍山書院移建後吟示諸生, 起廢四賢廟 移來一善傍 英靈如左右 山水更高長 太守謀迂拙 諸生志激昂 願言相勉勵 終始襲餘芳.

240) 『창석집』, 금오서원상량문.

241) 『선조실록』권206권, 선조 39년 12월 26일. 선조는 일찍이 이미 사액되었던 곳은 사액하고 새로 세운 곳에 대한 사액을 천천히 하도록 하라는 별도의 지시를 함께 내렸다. 위치를 옮겼지만 이미 사액되었던 곳에 해당하는 금오서원은 옛 이름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 근거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당시 금오서원 원생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불거졌던 것으로 짐작된다. 「금오서원 원생들과의 문답」(『한강집』권6, 문답)에서 분위기가 살피진다. 원생들은 남산의 남쪽 낙동강 가로 옮겼으므로 마땅히 편액을 고쳐야 할 것 같은데 조정에서 또 옛 이름을 사액한 상황과 함께 과연 고쳐달라고 청하는 게 좋은가를 질문하고 있다.

거의 전하지 않지만 후대 중건기 등을 통해 이 시기에 사당인 상현묘(尙賢廟)와 강당인 정학당(正學堂), 그리고 동재(輔仁齋)와 서재(講義齋)를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저령든 간에 임진왜란으로 인해 금오서원이 전소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구 부재를 재사용 여부는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1619년(광해군 1)에는 선산부와 연고가 있던 김종직, 정봉, 박영 세 사람의 위패를 추가로 배향하고, 1642년(인조 20)에는 금오서원의 중건과 강학 등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던 장현광(張顯光)의 위패도 추가로 배향하여 사당에는 모두 5인을 제향하기에 이르렀다.

### 18세기 금오서원의 수리

이만부(1664~1732)가 쓴 「答金烏書院院長」을 보면 금오서원을 수창하고 상량문을 부탁받았으나 변려문을 지을 실력이 부족하여 거절<sup>242)</sup>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만부의 생몰년을 감안하면 18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금오서원은 상량문을 지을 정도로 수창하는 공사는 짐작이 되나 어디를 어떻게 수리했는가 실상은 파악되지 않는다.

18세기 후반에도 금오서원을 중수하였다. 『노상추일기』에 따르면, 1768년(영조 44) 4월 서원을 찾았는데 서원의 묘우와 여러 재에 들어가 보니 한결같이 옛 모습 그대로였지만 그 퇴락한 모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sup>243)</sup> 이로부터 3년 뒤인 1771년 4월에는 금오서원을 중수하는 곳에 갔다는 기록이 있어 수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구조를 바꾸거나 부재를 대대적으로 교체하는 공사는 아니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그 근거는 앞에서 언급한 『노상추일기』 가운데 1768년 기록에서 찾아진다.

### 19세기 서원 존속과 이후의 수리

1871년(고종8), 흥선대원군은 전국 서원 가운데 47개소만 남기고 모두 훼철할 것을 명하였다. 이 명령에 따라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던 서원들은 위패를 땅에 묻고 사당을 철거하는 조치를 당했다. 금오서원은 고려말의 대표적 학자 길재의 위상과 선산부의 지위를 인정받아 훼철을 면하고 존속하였다.

이후 금오서원은 역대 수령들의 관심과 유림의 노력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시설의 수리와 관리가 이어지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중수사실을 들면 1891년(고종28)의 수리, 1930년의 중수와 1960년 및 1980년의 수리를 들 수 있다. 1891년의 수리는 선산부사 김사철이 자신의 녹봉을 중수 비용에 지원하고 지역 유림들도 각기 자금을 모습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서원중수기」(신묘, 1891)에 언급되었다. 아래에 옮긴 글 ①을 보면 공사기간은 합쳐서 5개월이나 걸렸다. ②에는 강당을 비

242) 『식산집』 권10, 서, 답금오서원원장.

243) 『노상추일기』 1768년 4월 10일; 문화재청·구미시, 「금오서원,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 2020, 122쪽에서 재인용.

릇한 동·서재, 문루의 지붕공사로 보여 정학당의 구조나 부재를 교체하는 범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①공사는 1891년 3월 12일에 시작하여 5월 10일까지 우선 진행되었다. 이후 농사일로 잠시 공사를 정지하였다가, 6월 19일부터 다시 재개하였다. 이렇게 재개된 공사는 8월 9일에 마치게 되었다. ... 정묘(사당)의 기와를 수보하여 고치고, 묘문 3칸이 무너져 이를 개건하였으며, ②강당과 동·서재, 문루는 수증하여 일신하고, 동협문 1칸, 고자옥 4칸, 수노옥 3칸을 새로 지었으며 비각을 문루 동쪽에 건립하였다.<sup>244)</sup>

1926년에는 군수 오재순이 서원이 황폐함을 보고 유럽과 함께 1928년에 시작하여 1930년 사이에 서원을 중수하였다. 정학당에 걸려 있는 「중수기」에 의하면 이때 상현묘와 정학당, 동·서재와 문루, 담장과 계단을 예전대로 복원하였다고 밝혔다. 이 기록에서 비로소 금오서원의 건물 명칭이 문헌에서 확인된다.

1960년의 수리는 「금오서원중수기」에서 확인되며 이때는 읍청루의 중수가 기록되었다. 1980년에는 관의 지원과 배향된 인물의 후손들이 모금한 재원으로 문루와 동·서재를 중수한 내용이 「금오서원읍청루중수기」(1980)에 기록되었다.

### 금오서원의 배치

금오서원은 관련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조선시대 건물구성이나 건물 명칭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현존하는 편액들이나 19세기말 이후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 현재의 서원 모습이 적어도 17세기 초에 현재 위치에 이 건한 모습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짐작된다.

현재 금오서원은 출입문 겸 누각으로 쓰이는 읍청루가 약간 경사진 언덕 위에 남향해서 서 있고 누각 안쪽으로 들어가면 북쪽에 강당인 정학당이 남향해 있고 앞마당 좌우에 동재와 서재가 마주하고 있다. 읍청루는 중층 누각 형태로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이고 동·서재는 각각 정면 3칸 측면 1칸 반 규모이다. 정학당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당당한 규모를 갖추고 있다. 정학당의 바로 뒤편에는 사당으로 진입하는 신문이 있고 신문 좌우로 담장이 둘러쳐져서 사당을 감싼다. 사당은 약간 높은 기단 위에 남향해 있는데, 신문과 사당 사이 간격이 좁아서 마당이 거의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당에서 제례가 있을 경우 참여자들이 시립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확보되지 못하는 제약이 따른다. 또 제례에 참여하기 위해 헌관을 비롯한 제례 참여자들이

244) 「금오서원 중수 일기록」(1891); 「자료보고서」, 「금오서원,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 2020, 129쪽에서 재인용.



강당의 건물 동편을 거쳐 강당 뒤편의 비좁은 통로를 지나 남신문 앞 계단을 올라서 사당 마당에 나아가야 하는데 이 동선도 궁색하기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남신문 진입 동선이나 사당 앞마당 공간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못한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 대지가 남산 기슭의 경사지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후방의 절토를 최소화한 결과가 아닌가 짐작할 뿐이다.

사당 진입로와 사당 앞마당이 비좁은 것과 대조적으로 강당 앞마당은 반듯하고 넓은 편이다. 금오서원의 원규는 전하는 것이 없지만, 보통 강당 앞마당에서는 유생들이 상읍례(相揖禮)를 치르고, 또 강당에 올라 향음례(鄉飲禮)를 거행하게 되는데, 정학당의 공간구성 역시 이런 의례에 적합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 모습이다. 또한 서원 전체에서 보아도 정학당은 가장 중앙부에 자리 잡고 있고 건물이 우뚝하여 서원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 상현묘의 건축특성

현재의 상현묘는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출목 2익공 5량가의 맞배지붕 건물이다. 평면 구성은 전면에 퇴칸을 설정하지 않고 전후 평주 사이에 벽과 출입문을 설치하여 사당 내부 공간을 넓게 확보한 점이 눈에 띈다. 출목 2익공의 세부 형상은 17세기의 시대특징을 간직하고 있으며 내부 지붕틀은 대들보와 종보를 걸고 장식이 가미된 대공을 설치하였다.

평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각 기둥 간격이 정면 어칸과 좌우 협칸이 거의 3,640mm로 동일한 것이 특징이다. 17세기 영조척을 1자 0.32m로 본다면 11자가 조금 넘는 정도이다. 어칸을 협칸 보다 넓게 잡는 일반적인 간살 방식과 다르다. 측면 간살은 어칸이 2.430mm, 전퇴가 1,782mm, 후퇴가 1,825mm로 계측되었는데, 환산하면 어칸은 8자가 조금 안되고 퇴칸은 6자에 조금 모자르다.

내부는 바닥을 전돌로 마감하여서 18세기 이후 대다수 사당 내부 바닥이 마루로 마감되어 있는 점과 차이를 보인다. 벽체는 좌우 측면과 후면은 사벽으로 마감하고 전면만 중앙에 2짝의 여단이 판문을 달고 좌우를 역시 사벽으로 하였다. 사당 전면 출입문 역시 18세기 이후 사례들이 대개 세살문을 단 것과 구분된다.

전면 기단은 5~6단의 자연석으로 쌓았으며 좌우 측면으로 가면 거의 한 단 정도의 자연석으로 기단을 이루었다. 높이는 1,560mm 정도이다. 초석은 자연석 초석인데, 초석 상면을 비교적 반듯하게 다듬었으며 초석의 크기는 일정하지 않지만 대략 긴 것이 1,000mm에 이른다. 기둥은 전체 두리기둥이며 외벽을 따라 12개를 세웠다. 이 중 좌우 측면 중앙 2개는 고주가 되어 종보 아래까지 뻗고 나머지 기둥들은 모두 평주로 되어 있다. 기둥머리를 잇는 창방은 단면 형상이 세로가 높은 장방형 단면을 이루어서 18세기 이후 창방의 두께가 두꺼워지기 이전의 시대 특징을 보여준다.

공포는 출목 2익공이며, 초익공은 쇠서를 갖춘 모습이고 이익공은 몰익공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런 공포 형태는 대체로 17세기 사묘 건물에서 유사한 사례를 볼 수 있으며 경내에 있는 강당인 정학당에서도 동일한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 즉, 초익공 끝은 짧고 뾰족한 쇠서로 다듬고 아래는 초새김한 형태이고 몸체에는 입체적인 조각 새김을 하였다. 내측은 운궁형으로 초새김하였으며 이익공 내단과 함께 한 몸처럼 보이게 하였다. 전면과 배면 기둥 사이는 1개의 화반을 두었다. 화반 형태는 판재의 양단을 당초문 등으로 초새김하였으며 장식을 축소한 간결한 구성이다.

보는 전후 평주 위에 대보 2개가 걸리고 그 위에 종보를 올렸다. 보의 단면은 위아래가 약간 긴 타원형이며 모서리의 모를 접어 각은 직재에 가까운 형태의 단면을 보여준다. 대공은 판재를 겹쳐 올리고 좌우 단을 당초와 초엽무늬로 화려하게 조각한 파련대공이 세워져 있다. 대공은 모두 4개가 세워졌다. 이런 파련대공 역시 후대에 사당에서 흔하게 쓰인 판대공과는 시대 차이를 보인다.<sup>245)</sup>

전체적으로 보아서 상현묘는 일반적인 사당에서 볼 수 있는 전면 개방된 퇴칸을 두지 않은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전면에 퇴칸을 두지 않은 이유는 쉽게 단정하기 어렵지만, 경사진 지형 여건에 맞추어 나타난 결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당의 경우, 제례가 있을 때 전면에 마련한 개방된 퇴에 제수를 진설하기도 하고 제례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대기공간으로 사용하거나 제례를 돕는 사람들의 대기 공간으로 쓰는 등 그 용도가 다양하다.

중국에서는 규모가 큰 사당은 전면에 월대를 두고 사당 건물은 사방에 뿔기둥을 설치하고 그 안쪽에 벽체를 세워서 사당 건물의 외관을 돋보이게 하고 전면의 개방된 퇴를 제례의 보조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동관왕묘에 이와 유사한 형식이 남아있다. 그 외에는 조선의 사당은 사방에 뿔기둥을 두지는 않고 전면에만 개방된 퇴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지형 여건 등으로 전면 개방된 퇴를 두어 내부 사당 공간이 지나치게 협소해 지는 경우에는 전면 퇴를 생략하고 상현묘처럼 전퇴 없이 실내를 넓게 확보하는 사례들도 적지 않다. 현존하는 사당 건물로는 상현묘 건물이 비교적 이른 시기의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또한 간결한 출목 익공의 구성과 파련대공의 형태는 17세기의 시대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어서 이 건물이 중건된 1602년의 역사 기록과 적절하게 부합되는 점을 꼽을 수 있다.

### 정학당의 건축특성

정학당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단층 팔작지붕 건물로 이익공의 공포를 갖추고 있다. 가운데 3칸 대청을 두고 좌우에 온돌방 각 1칸이 마주하고 있으며 온돌방 전면으로 뿔

245) 이외 지붕을 덮은 기와는 근대에 새로 설치된 것으로 보이며 용마루와 내림마루를 갖춘 평범한 모습이다.

마루가 놓인 모습이다. 우측 온돌방 바깥쪽에 좁고 긴 쪽마루가 설치되어 있고 뒤쪽에는 벽장이 부설되어 있다. 건물 전면은 4자 가량의 막돌 기단을 쌓고 중앙에 계단이 하나 놓여 있다. 측면과 후면은 한 벌의 잡석으로 기단을 조성하였다. 초석은 자연석을 거칠게 가공한 모습이며 전면부 초석들이 나머지 부분보다 크고 높게 가공되어 있고 좌우 모서리 초석은 특히 크고 돋보인다. 기둥은 두리기둥이며 대청부분은 고주 없이 전후 평주 위에 보를 걸어 넓게 개방된 공간을 확보하였고 그 위에 종량을 걸어 대공을 받치고 있다. 좌우 온돌방은 고주 둘을 세우고 고주에 퇴보를 끼워 평주와 연결하고 고주 상부에 짧은 보를 걸어 대공을 받치도록 하였다.

이런 구성방식은 17세기 서원 강당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던 것이며 장학당의 경우 각 기둥과 보는 반듯한 가공과 단정한 짜임이 특히 돋보인다. 앞서 연혁에서 살폈듯이 금오서원은 1602년 현 위치로 옮겨 중건한 뒤 보수공사는 수차례 시행되었지만 정학당의 경우 골격을 변화시키는 대대적인 수리는 아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다시 말해서 17세기 초에 건립된 건물을 근간으로 큰 변화없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는 뜻이다.

정학당의 구조에서 특별히 주목되는 부분은 공포의 짜임이 17세기의 전형적인 시대 특징을 간직한 점과 창호에서 볼 수 있는 간결하면서 정돈된 짜임새이다. 정면 기둥 상부 익공은 초익공 위에 몰익공 형태가 겹쳐진 모습이며 초익공 쇠서는 수평방향으로 곡선을 그리면서 날카롭게 뾰은 형상이 조선초기 주심포의 쇠서를 연상시키는 측면이 있다. 또 이익공을 몰익공 형태로 하여 쇠서가 2중으로 중첩되는 번잡함을 피하고 있는 점도 서원 강당의 간결한 세부를 꾸미는데 기여하고 있다. 내부 보아지는 초각 형태가 유려하면서 절도가 있는 굴곡을 갖추어 주심포식의 세부 가공과 상통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런 초각 형태는 대들보 상부 종량을 받치는 쇠서에서도 반복해서 나타나서 내부 지붕틀 구성의 격식을 높여준다. 화반 역시 파련대공에 가까운 울동감을 갖춘 초각을 이루고 있어서 연등천장의 시각적 아름다움을 더해 준다.

대청 후면 창호는 흙벽으로 머름을 한 고식 기법을 보여주며 창틀 중앙에는 중간설주가 세워져 있다. 중간설주는 조선중기 건물에서 집중적으로 쓰이던 것으로 이 건물이 17세기에 조성된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특히 설주 하단에는 판문을 고정할 수 있도록 설치한 원산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눈길을 끈다.

대청에 면한 온돌방 창호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동·서 온돌의 창호가 서로 형태를 달리하고 있다. 동쪽 온돌의 경우, 중앙 고주열 사이 창호와 후면 주칸 창호는 모두 전체를 들어 열수 있도록 하여 대청에서 행사가 있을 때 동온돌과 전체를 개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주열 창호는 중앙에 외여단이 문을 두어 평상시 출입에 대비하였는데 문 중앙에는 불발기를 두어 시각적인 차이를 두었다. 후면 창호 중앙에는 독창을 두되 역시 창살 모양을 세 살로 꾸며서 주변의 격자살과 차별했다. 이런 방식의 대청과 방 사이

의 창호설치는 영남지방의 향교에서도 볼 수 있는 것으로 17세기에 와서 널리 조성되어 18세기로 확산된 방식이다. 서온돌 창호는 동쪽과는 약간 기법을 달리하여 고주열은 외여닫이 출입문을 중앙에 설치하고 후면 주칸은 중앙에 작은 독창 하나를 냈다.

### 3.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 역사 환경적 가치

길재는 절의를 중시한 고려말·조선초를 대표하는 학자의 한 사람이었으며 제자들을 통해 영남사림의 도학적 전통을 세운 인물로 평가된다. 길재가 우거하던 금오산을 비롯한 선산지역은 조선초기 성리학이 기틀을 잡아 나간 지역으로 전한다. 이후 상주·선산 지역은 퇴계학파의 예학적 학문관이 영향력을 받으며 학문적 성장을 이루었다.

유성룡이 상주목사를 역임하면서 그 위상은 한층 굳건해져 정경세, 이준 등 지역 인사들을 배출하기에 이르렀고 장현광에 와서 성리학의 새로운 영역을 형성하였다. 금오서원은 이러한 상주·선산지역을 대표하는 서원이며 사당에 모신 다섯 신위는 모두가 이 지역의 학문을 빛낸 인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17세기에 와서 선산부 인근 남산 아래 다시 지어진 금오서원은 특정 인물이나 문중에 한정하지 않고 널리 조선초기 성리학을 연 학문적 연원과 지역성을 상징하는 서원으로 그 존재 의미가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점은 19세기 전국 대부분 서원들이 되는 과정에서도 존속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다. 지금도 금오서원은 중건 당시의 위치에서 당대의 규범을 충실하게 유지하면서 지역 유교문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아 오고 있다.

#### 서원 배치에서 보는 상현묘와 정학당의 가치

금오서원의 현재 모습은 17세기 초 중건 당시의 규범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남산 자락의 경사지에 자리 잡은 서원은 경사진 지형조건을 살려 남쪽에 출입문 겸 누각인 읍청루가 서고 그 뒤 마당을 사이에 두고 정학당이 자리 잡고 정학당 뒤로는 남신문과 사당인 상현묘가 일직선 축에 놓여 있다. 16세기 서원이 처음 지어지던 시점에서, 사당과 강당의 배치관계는 이와 다른 측면을 지녔다. 즉, 초기 서원들의 경우 사당과 강당은 남북 일직선 상에 놓이지 않았다. 예를 들어 최초의 서원으로 알려진 소수 서원은 사당의 동쪽에 강당을 두었고 초기 영남 서원으로 퇴계 이황이 간여한 것으로 전하는 예안 역동서원이나 성주 영봉서원의 경우, 서원의 중심은 강당이고 그 동편 일곽에 사당을 두는 배치형식을 취했다.<sup>246)</sup> 뒤에 이황을 봉향한 도산서원이나 제자 유성룡을 모신 병산서원 역시 강당이 서원의 중심을 차지하고 그 북쪽 약간 동편에 사당을 둔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246) 퇴계 이황이 기문을 쓴 「영봉서원기」와 「역동서원기」에 의하면, 성주 영봉서원(뒤에 천곡서원 개명)과 예안 역동서원의 경우 강당과 동·서재를 아울러 서원이라 칭하고 그 동편에 사당을 두었다고 밝혔다(『퇴계집』, 권4, 기).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서원이 재건되는 과정에서 이런 배치방식과 달리 강당과 사당이 서로 일직선 상에 나란히 놓이는 배치방식이 자리 잡게 되었으며 그 전형적인 사례가 17세기 초에 중건된 금오서원이며 이밖에 같은 시기에 중건된 함양 남계서원을 들 수 있다. 이후 17, 18세기에 지어지는 대다수 서원의 건물 배치는 사당을 동편에 두던 초기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금오서원이나 남계서원처럼 사당과 강당을 일직선 상에 두는 방식을 취하여 조선조 서원의 전형을 이루게 된다. 금오서원의 상현묘와 정학당의 건물배치는 17세기 이후에 와서 강당과 사당이 일직선 상에 배치되는 초기의 사례에 속한다.

16세기에서 17세기로 넘어가면서 나타나는 사당과 강당의 배치 방식의 변화는 서원이 갖는 기능 및 서원의 사회적 위상과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6세기 이황의 서원기에는 강당과 동·서재 일곽을 서원이라고 칭하고 사당은 서원의 동편에 있다고 언급하여 초기 서원에서 강당이 차지하는 비중을 크게 삼은 것을 볼 수 있다. 이후에 서원의 제향이 강조되면서 강당의 교육기능보다는 사당의 제향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변화를 엿볼 수 있다.

다만, 금오서원의 경우에는 비록 사당과 강당이 남북 일직선에 놓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강당이 서원의 중심을 이루는 16세기의 잔영을 남기고 있다고 판단된다. 금오서원에서 강당과 그 앞마당 및 동·서재는 서원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하여 사당은 강당 뒤에 급한 경사지를 이용해서 웅색하게 마련되어 있다. 배치상으로 보아도 금오서원의 중심은 강당인 정학당에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는 후대 서원에서 사당이 서원의 가장 돋보이는 위상을 차지하는 사례들과 구분된다.

### 상현묘의 건축적 가치

상현묘 건물의 건축 가치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이 건물이 전퇴를 두지 않은 사당 건물의 현존하는 비교적 이른 사례라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이 건물이 17세기 초 출목익공식을 갖춘 사당 건물의 뛰어난 사례인 점이다.

조선시대 사당 건물은 비록 중국의 사당처럼 사면에 텃기둥을 두르고 전면에 월대를 갖추는 격식을 취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전면에는 개방된 퇴칸을 갖추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종묘 정전을 비롯해서 서울 문묘 대성전이나 나주 문묘 대성전이 좋은 사례이며, 도산서원 상덕사, 경주향교 대성전 등 대다수 건물에서 유사한 사례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전면의 개방된 퇴를 갖추지 않은 사당 건물들도 적지 않게 발견되는데 이런 경우는 대개 지형 여건 때문에 사당 건물의 깊이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는 사례들이 보인다. 금오서원 상현묘는 현존하는 사례 가운데서는 비교적 건립 시기가 이른 17세기 초에 속하는 건물이다.

금오서원은 1602년에 현재 위치로 이전해서 중건하면서 경사진 지형을 살리되 경내 중

양에 강당을 두고 동서재를 갖추어 교육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나서 그 뒤 경사진 곳을 개척하여 사당을 마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사당의 공간은 충분한 여유를 갖추지 못하였다. 그 때문에 내신문은 강당 뒤편 비좁은 공간 사이 급한 계단 위에 마련하고 내신문에서 넓은 마당을 두지 못하고 바로 사당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또한 사당은 전면에 개방된 퇴칸을 두게 되면 내부 사당 공간이 지나치게 협소해 질 우려가 있어서 부득이 전면 퇴칸 없는 사당건물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17세기 이후 많은 사당들이 상현묘처럼 전면 개방된 퇴 없는 평면을 갖추고 있으며 이런 평면은 조선도 사당의 하나의 유형을 이루고 있다. 후대 사당에서 전면 개방된 퇴칸을 두지 않은 것은 여러 다양한 원인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단순히 비좁은 지형 조건만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전면 퇴칸이 없는 사당 가운데 상현묘가 현존 사례로는 가장 이른 건물의 하나인 점은 분명한 셈이며 그런 의미에서 조선시대 사당건물의 주요한 건축적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출목익공은 익공식의 공포를 구성하면서 처마 내밀기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외출목을 갖추어 처마 서까래를 지지하도록 한 것이며 현존하는 이른 시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종묘 정전 건물을 들 수 있다. 종묘 정전은 1395년(태조 4)에 창건되고 명종 때 한 차례 증축이 있었다가 1592년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었다가 1608년(광해군 원년)에 다시 지어졌으며 이후 영조와 현종 때에 들어서 신실의 증축공사가 있었지만 서쪽에서 11칸 신실까지는 광해군 때 지어진 건물이 지금까지 남아있다.

종묘 정전의 공포는 전형적인 출목 2익공이며, 그 세부 형상은 상현묘의 익공과 흡사한 점이 있다. 다만 종묘 정전은 규모도 크고 전체 건물 격식이 특별하였기 때문에 세부의 짜임에서 상현묘와는 차원이 다른 구성을 하고 있기는 하다. 또한 익공은 상하 모두 쇠서를 갖춘 모습이어서 상현묘처럼 이익공을 몰익공으로 처리한 것과 구분된다. 또한 화반의 초새김도 종묘 정전이 훨씬 정교하고 격식이 있다.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건물의 기본적인 익공의 결구 방식은 동일하다. 이런 점에서는 상현묘 역시 17세기 초 출목 익공의 좋은 사례로 꼽을 수 있으며 시기적으로는 오히려 종묘 정전보다 6년 앞서는 사례가 되기도 한다.

### 정학당의 건축적 가치

정학당은 17세기 서원 강당의 가장 정형적이 형태를 갖춘 건물로 평가된다.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에 가운데 3칸을 대청으로 삼고 좌우에 온돌방 각 1칸을 둔 모습이며 대청 정면은 개방하고 좌우 온돌방은 창호의 형식을 통해서 동온돌을 서온돌보다 위계를 높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서원 강당은 16세기, 소수서원이나 도산서원 등에서 보듯이 정면 4칸을 기본으로 삼았던 것이 17세기로 넘어가면서 정면 5칸으로 바뀌게 된다. 초기 강당은 3칸의 대청 한쪽에 온돌방 1칸을 두는 것을 기본으로 삼았는데,

이런 정학당의 평면형식은 사당이 강당 동편에 놓이던 초기 배치규범과 연관이 있거나 또는 강당에서 거행하던 향음례의 절차상의 문제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그 배경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는 것이다.

17세기로 넘어가면서 강당 평면은 몇 가지 형식적 실험이 시도된 듯하여 금오서원과 같은 시기에 재건된 남계서원은 여전히 정면 4칸 규모를 취하되 중앙 대청을 2칸으로 삼고 좌우에 각 1칸의 온돌을 마련한 모습이였다. 금오서원 강당 정학당에서 볼 수 있는 정면 5칸에 중앙 3칸 대청에 좌우 온돌방을 둔 형식은 17세기 초기 강당의 비교적 이른 사례에 속한다. 이후 대다수 서원에서 강당은 정학당과 유사한 형식을 갖추게 된다.

정학당의 건물 세부는 이 건물이 17세기 초기 건축의 시대 특징을 온전히 간직하고 있는 점을 잘 보여준다. 기둥 상부의 익공 짜임은 주심포식 쇄서를 연상시키는 독특한 곡선장식의 초익공과 그 상부 몰익공 형태의 이익공을 두어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화반의 치장도 17세기 초의 시대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또 창호구성에서는 대청 후면 판문의 중간설주 설치, 대청 좌우 동쪽 온돌방의 전면 들어여는 문 사이에 설치한 여닫이 문이나 광창의 구성 등 17세기 향교에서 볼 수 있는 특징적인 세부 구성을 갖추고 있다.

#### 4. 종합의견

선현에게 제사를 드리고 후학들에게 학문을 전수하는 서원은 조선시대 유교와 관련한 대표적인 시설의 하나였으며, 선산의 금오서원은 조선 유학의 학문적 기틀을 연 학자 중 한 사람인 길재를 봉향한 곳으로 그 역사적 의미가 큰 곳이다. 금오서원은 선산도호부를 대표하는 서원으로서 특히 19세기 말에 서원철폐에서 제외된 47곳 서원 중 한 곳으로도 남다른 평가와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는다.

이러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 금오서원을 구성하고 있는 제향 상현묘와 강학 정학당은 건축사적으로도 뛰어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사당인 상현묘는 17세기 초에 현 위치에 건립된 건물로 전면에 퇴칸을 두지 않은 평면의 이른 사례를 대표한다. 강당인 정학당도 상현묘와 함께 17세기 초에 와서 현재 서원 자리에 지어진 건물로 17세기 초 건축 세부의 특징을 갖추고 강당이 강조된 시기를 대표하는 사례로 판단된다.

서원배치에서 금오서원은 강당과 사당이 남북 일직선상에 배치되는 비교적 초기 사례로 꼽히며 특히 정학당은 서원의 중심 영역을 차지하여 강당의 비중이 높았던 초기 서원의 면모를 잘 간직하고 있다. 아울러 금오서원 상현묘와 정학당은 17세기 초기 서원의 사당과 강당 건물의 특징을 갖추어, 조선시대 서원건축의 뛰어난 사례로 인정된다. 두 건물 모두 세부 면에서 17세기의 시대적 특징을 충실하게 간직하고 있어 조선시대 서원건축의 시대적 변화와 건축기술 면에서 지역특색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학술적 가

치를 지니고 있다.

이런 점에서 금오서원의 상현묘와 정학당 건물은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평가된다.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0.06.16	대상문화재	구미 금오서원 정학당, 상현묘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전통건축
	소속		직위(직책)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구미 금오서원 정학당, 상현묘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 년 10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1. 지정가치 및 근거 기준

### 가. 역사적 가치

구미 금오서원은 지금의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원리 남산(藍山)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선시대 선산부(善山府)를 대표하던 서원이다. 선산부 출신으로 여말선초(麗末鮮初)의 대표적인 절의(節義) 인사이자 성리학자인 야은(冶隱) 길재(吉再)를 포함해 모두 5인을 배향하고 있다.

처음 금오서원이 건립된 곳은 길재가 노년을 보냈던 구미 금오산(金烏山)이었다. 융경(隆慶) 연간인 1567(명종 22)~1572년(선조 3) 사이, 선산부의 선비인 최응룡(崔應龍)과 김취문(金就文)이 고을의 여러 부로(父老) 및 사자(士子)와 함께 선산부사(善山府使) 송기충(宋期忠)에게 길재를 배향하는 서원과 사당 건립을 청하였다. 이에 선산부사 송기충은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에게 서원 건립의 뜻을 보고하였고, 경상도 관찰사가 조정에 아뢰어 서원 건립을 윤허 받게 된다. 그리고 1572년(선조 3) 봄, 길재의 위패를 모시는 사당을 건립하였으며, 최응룡(崔應龍)이 위패 봉안문(奉安文)을 작성하였다.<sup>247)</sup> 서원이 건립되자 조정의 지원도 이어졌다. 1575년(선조 6) 조정으로부터 사액(賜額)을 받았는데, 이때 토지와 노비, 서책(書冊)을 지원받았다. 이렇게 사액서원이 됨으로써 관의 지속적인 관심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이를 막기 위해 선산 지역에서도 의병이 봉기하여 금오서원에 의병 부대의 작전지휘소를 설치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일본군이 금오서원을 공략하였고, 불을 질러 모든 건물이 소실되고 말았던 것이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 선산부의 유림들은 전후 복구를 위해 노력하였다. 먼저 선산향교(善山鄉校)를 중건하였고, 이어 사액서원이었던 금오서원 중건을 논의하였는데, 금오산 기슭의 옛 터가 너무 협소하다는 이유로 이건(移建)을 결정하게 되었다. 이건할 곳을 논의할 때 '금오산은 외진 곳이어서 서원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앞쪽으로 감천이 흐르고 뒤쪽으로 남산이 보호해주는 명당인 남산 기슭이 적지'라 상소하였고, 그 결과 선산부사 김용(金涌)의 주도로 원리 남쪽에 서원을 이건<sup>248)</sup>하였다.

원리에 새롭게 터를 잡은 금오서원은 1607년(선조 40) 재사액이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금오서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류영순의 요청은 곧 선조의 윤허를 받게 되었고<sup>249)</sup>, 김종직(金宗直)·정봉(鄭鵬)·박영(朴英) 3인의 위패를 추가로 배향하였다. <sup>250)</sup> 이어 1642년(인조

247) 金烏書院奉安文 降慶壬申春 鄉人崔應龍 學造篤信. 義析毫釐. 時危世亂. 潔身言歸. 富貴不淫. 貧賤亦樂. 採薇空谷. 終始一節. 綱扶大東. 德顯吾鄉. 立宮尊祀. 昭格洋洋\_(冶隱先生言行拾遺卷中)

248) 일선지(一善志) 원(元)\_서원조(書院條) 民父老子子以烏山地僻而土瘠難於守護共請于府使金涌遂移卜府東十里藍山之陽 隆慶初鄉斯文崔應龍金就文與士子父老共請于府使宋期忠呈牒云治隱吉先生忠孝兼全加以性理之學於斯文大有功今若立廟書院于先生終老之金烏山麓庶幾使先生有享祀之所諸生有藏守之處其於化倫成俗之方庶幾有所補益也府使宋公轉報監司聞于 朝乃建

249) 선조실록 206권, 선조 39년 12월 26일기사 \_ 金烏書院, 因治隱先生吉再所居之鄉.....중략..... 川谷, 金烏, 雙溪, 藍溪四書院, 平時特賜, 扁額額名以此書之, 令本道相考啓聞後, 特令申賜爲當. \_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20)에는 금오서원의 중건과 강학 등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던 장현광(張顯光)의 위패를 추가로 배향하여<sup>251)</sup>, 지금까지 금오서원은 모두 5인을 제향(祭享)하고 있다.

건립 이후 금오서원은 선산부를 대표하는 서원으로 자리매김하였는데, 1697년(숙종 23) 숙종은 길재의 절의 정신을 기리는 글을 내렸다. 이는 현재 ‘숙묘어제어필(肅廟御製仰筆)’이란 제목의 현판으로 제작되어 금오서원에 보존되어 있다. 또한 영조는 금오서원에 예관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으며, 직접 제문(祭文)을 지어 내려 보냈다<sup>252)</sup>. 영조에 이어 왕위에 오른 정조도 금오서원에 치제(致祭)하였는데, 이때 경상도의 유생 수천 명이 금오서원에 운집했다고 한다.

이러한 금오서원의 위상으로 인해 1871년(고종 8), 고종 연간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 집권기에 있었던 전국적인 서원 훼철령에도 제외된, 미훼철 원사(院祠) 47개소 중 하나가 되어 현재까지 그 원형을 보존하게 되었다.

이후 수차례 진행된 중수와 중건을 하였다. 1891년(고종 28) 선산부사 김사철(金思轍)과 선산의 유림들이 서원을 중수하였다. 이러한 기록은 서원중수기와 중수일기록에 전하고 있다.

이어 1928~1930년에도 금오서원을 중수하였다. 이때의 기록은 현판으로 제작되어 정학당에 걸려 있으며 구체적인 중수 내용은 기록하지 않고 있으나 “무진(戊辰1928)년 봄에 일을 시작하여 경오(庚午1930)년에 공(功)을 마쳤다고 고(告)하였다. 무릇 상현묘(尙賢廟)와 정학당(正學堂)과 동·서재(東·西齋)와 문루(門樓)와 담장과 계단도 옛날대로 복원하여 완성하지 않음이 없었다.” 라는 기록을 통해 변형 없이 수리한 것으로 알 수 있다.

1960년 경에<sup>253)</sup>에도 수리가 있었는데 누각(樓閣)의 대들보와 서까래와 기둥과 연목(椽木)과 기와와 들보와 담장의 썩고 부패한 것을 수리하였다.

1979년~1980년에는 문루와 양재(兩齋)를 중수하였다.

금오서원은 사액서원이자 미훼철 서원으로서의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아, 1985년 10월 15일 경상북도 기념물 제60호로 지정받았다.

현재 금오서원 정학당의 상량문 및 중수기 등의 직접적인 연혁 관련자료는 아직까지 알

250) 인제선생연보 \_四十七年己未 先生五十七歲 三月。與主倅金雲川涌，張旅軒會書院。奉安四賢。書院舊在金烏山下。兵火之後。不免蕩析。地且偏遠。不便於學子往來。故移建于藍山

251) 여헌선생연보\_인조 20년(壬午, 1642) 선산의 선비들이 선생의 위패를 금오서원에 봉안하고, 영정을 원당(元堂)에 봉안하였다.

252) 영조실록 110권, 영조 44년 5월 10일 정유 1번째기사 \_ 丁酉/上御崇政殿月臺，行望拜禮。是日即皇朝太祖忌辰，亦我太宗大王忌辰。命儒臣讀《明史》，又命讀《太宗朝寶鑑》。教曰：“《寶鑑》中令群臣直言得失，又於經筵，令諫官入侍，隨事規諫，此一條不覺極然。臺諫無直言，以傾軋爲事，寔予之過。次對兩司同入，即倣此例，而謄傳故紙，猶不爲也。官師相規，亦何聞也？今日朝鮮成體此意。”至吉再事，上曰：“吉再賢矣而子孫亡矣。有書院乎？”都承旨具允鉦對曰：“在善山地矣。有文集乎？”曰：“有一卷冊，而使其子仕本朝時，有以吾事高麗之心，事汝主之言矣。”教曰：“高麗門下注書吉再事，曾見《三綱行實》，而於聖祖，同學于成均館，兩次陳章，心亘宇宙。兩聖之特許所請，樹風礪世之盛德，幾百載之下，不覺仰欽。豈特前朝忠臣？寔我獻陵太學故舊也。今日聞此，豈無表意？遣禮官，特爲致祭於金烏書院。製下祭文。奉祀孫，令該曹調用，文集亦令入之。”

253) 중수기에 작성연도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김병은의 활동시기와 금오서원중수계안(경자1960)에 중수기가 실린점을 미루어 볼때 볼 때 1960년 경으로 추정된다.

려진게 없다. 최근들어 1989년에 정학당을 연목이상 해체 복원하였고, 1999년에 정학당기와 및 서재를 보수하였다.

정학당에는 「정학당(正學堂)」을 비롯하여 「칠조(七條)」, 「금오서원중수기(金烏書院重修記)」, 「서원중수기(書院重修記)」, 「일건재명(日乾齋銘)」, 「시민재명(時敏齋銘)」 등 12개의 현판이 걸려 있는데, 서원의 중수에 관한내용을 담은 중수기와 양측 온돌방의 이름을 풀이하여 적은 「일건재명」·「시민재명」, 공부하는 사람들이 범하면 안되는 금기(禁忌)를 적은 것 「칠조」<sup>254</sup>현판 등이 있다. 2006년 이전에 양측의 온돌방에는 각각 「일건재(日乾齋)」·「시민재(時敏齋)」 현판이 걸려있었는데, 현재 현판은 각각 동·서재에 걸려있다.

위의 열거된 내용을 근거로 판단하면 현재의 금오서원 건물(상현사, 정학당)은 1602년 현 위치에 재건된 후 그 당시의 규모나 형태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원군때에 훼손되지 않은 서원으로서의 가치도 충분하며 당시 경상도의 옹부였던 선산부를 대표하는 서원으로, 야은 길재를 배향하는 서원으로서의 지역에서의 상징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숙종이 친히 보낸 ‘숙묘어제어필(肅廟御製仰筆)’이나 영조, 정조의 금오서원에 대한 관심은 지극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일반적인 다른 서원에 비해 매우 그 위상이 높은 것으로 우리나라 서원을 대표할 만한 것이라 하겠다.

#### 나. 학술적 가치

금오서원은 임란때 소실되어 다시 금오서원의 복원이 논의될 때는 ‘금오산은 외진 곳이어서 서원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앞쪽으로 감천이 흐르고 뒤쪽으로 남산이 보호해주는 명당인 남산 기슭이 적지’라 상소하였고 이곳은 야은 출생지인 선산군 봉계리(현 고아읍 봉한리)를 보고 남향으로 지을 수 있는 위치라는 점도 이전 복원지의 장점으로 꼽혔다. 금오서원은 뒤쪽으로 나지막히 솟은 남산이 서원을 감싸고 있으며 금오산을 바라보고 있다. 서원 앞으로는 감천이 흐른다.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지형을 갖추고 있으며. 풍수적으로도 동쪽과 남쪽으로 각각 낙동강과 감천, 북쪽과 서쪽으로는 남산에 둘러싸인 연화도수형(蓮花到水形)<sup>255</sup> 명당자리로 유명하다.

현재 금오서원은 전형적인 전학후묘(前學後廟)의 형식에 따라 건물이 배치되어 있다. 사당(祠堂)인 상현묘(尙賢廟)를 비롯해 강당(講堂)인 정학당(正學堂), 문루(門樓)인 읍청루(揖淸樓), 동재(東齋) 시민재(時敏齋), 서재(西齋) 일건재(日乾齋), 부속 건물로 고직사(庫

254) 서원이나 가정에서 지켜야 할 생활규범 일곱 가지 조항을 적고서, 이 규칙을 어긴 사람이 있으면 돌아갈 것이며, 만약 오지 않았다면 절대로 오지 말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원에서 금하는 일곱 가지는 ‘창과 벽에 낙서하는 것’, ‘책을 손상시키는 것’, ‘놀기만 하고 공부하지 않는 것’, ‘함께살면서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 ‘술과 음식을 탐하는 것’, ‘난잡한 이야기를 하는 것’, ‘웃차림이 단정하지 못한 것’ 등이다.(이호일, 「조선의 서원」, 도서출판 가람기획, 2006년, p.98.)

255) 풍수지리 형국의 물형론(物形論)에서는 연화부수형(蓮花浮水形)과 연화도수형(蓮花到水形)이 있다. 이는 내룡지세(來龍地勢)에 따라서 부수형(浮水形)과 도수형(到水形)으로 논하는데, 평탄하고 원만한 곳이면 연화부수형이 되고, 지세가 경사면을 이루고 있으면 연화도수형이라고 한다.

直舎)가 있는데, 하나의 축선 상에 건물을 배치하는 을 보이면서, 유생들이 기거하던 동·서재가 좌우의 대청을 이루는 중심축선형 구성형식을 취하고 있다. 조선중기 서원건축의 대표적인 형식이다.

정학당은 금오서원의 강당으로 정면 5칸, 측면 3칸의 단층 팔작지붕의 건물로 겹처마로 되어 있고 가구는 오량가(五樑架)이다. 평면은 중앙의 3칸은 대청으로 우물마루를 깔았고, 양측의 뒤쪽 2칸씩은 온돌방으로 꾸며져 있다. 서원 강당의 전형적인 중당협실형이지만, 대청이 3칸이 되는 경우는 큰 규모에 속한다.

정학당에 사용된 기둥은 평주 14본과 고주 4본으로 이루어졌는데 대청-방간에 고주를 세웠다. 17세기까지 자주 사용되던 가구법이다.

기둥 위에는 이익공으로 장식하였다. 초제공은 쇠서가 파도형으로 끝이 날카로우며, 이 제공은 몰익공형태의 운두각(雲頭刻)으로 장식하였으며, 익공의 뒷몸은 보아지가 되었다. 창방과 주심장혀 사이에 화반을 하나씩 놓았다.

가구는 오량이나 고주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에 다른 수법을 보이고 있는데, 고주 없는 부분에는 대들보를 얹은 후에 짧은 방형 동자주를 세워 첩차를 놓고 주두를 놓아 포대공으로 꾸몄다. 포대공 중 행공첩차는 하부를 쌍S자로 초각하였고, 대첩차는 바깥 끝을 쇠서로 만들었으며, 쇠서의 모양은 평주의 공포와 같은 모습을 하였다. 중보 위에는 파련대공을 놓고 종도리 장혀와 종도리를 차례로 얹었는데 장혀 하부에 뜯장혀를 첨가하였다. 파련대공과 첩차의 장식수법은 오래된 수법이고 서원의 강당 건물로는 최대한의 사치를 베풀었다.

특히 강당에서 눈여겨 볼만한 부분은 창호의 구성이다. 창호에 사용된 중간설주이고 또 하나는 중간설주가 사용된 문 얼굴의 구성이다. 나머지 하나는 청-방간의 창호의 형태이다.

중간설주는 대청 배면의 3칸 마루칸과 양 협칸 온돌방 전면에 사용되고 있다. 영쌍창은 조선시대 전기와 중기인 16세기로 부터 시작하여 특히 17세기와 18세기에 걸쳐 서원 및 향교 그리고 사찰과 주택 등에 널리 유행하던 고식의 창호로 조선 후기에 들면 사용빈도가 급격히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 창호이다. 특히 온돌방에 사용된 중간설주의 하부에는 세모꼴에 가까운 철물인 원산을 박아 사용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온돌방 외벽에 설치된 영쌍창에 원산을 사용한 예는 독락당 계정, 경주 향단, 안동 탁청정 등에서만 보이는 극히 드문 예이다. 창 얼굴의 구성수법을 살펴보면 창 얼굴의 맞춤은 반연귀와 온연귀수법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고, 세로 창틀이 하인방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창 밑틀의 연결 모습을 보면 후대로 가면 밑틀이 기둥으로 연결되는 경향이 보이는데 정학당에서는 세로틀 사이에서만 형성되는 수법이다. 이는 창밑틀이 기둥까지 연결되기 이전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 창틀의 구성방식은 외부 측면에서 보이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영쌍창 자체도 고식의 모습이지만 정학당에 사용된 창호구성수법은 창건당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창호 구성 변천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자료이다. 청-방간의 창호의 형태는 아칸의 문 구성은 3분합 들어열개문인데 그 중 가운데문에는 중간에 불발기창을 만들어 놓았다. 후퇴칸의 문은 한쪽문을 벽면과 동일한 쪽으로 한 후 들어열개문으로 만들었다. 문 가운데에 세살창을 두었는데 세칭 눈썹제기창이다. 이 청방간문은 문살이 그대로 노출된 명장지문이다. 명장지문은 조선후기에서 주로 나타나는 수법인데 아마 개변(改變)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상현묘는 금오서원의 사당이다. 정면3칸, 측면3칸의 규모로 1출목의 주심포계열로 2고주 5량가의 건물로 겹처마 맞배지붕이다. 서원의 사당건물로서는 큰 편에 속한다.

정면 3칸 모두에 두짝 울거미판문을 설치하였다. 문윗틀 위와 창방사이에는 교자살의 광창을 넣었는데 창살은 투밑이기법인데 살의 두께를 얇게하고 끝을 둥글게 치목하였는데 고식의 수법이다.

살미의 형태는 강당과 유사하다. 강당은 2익공이지만 초제공은 파도형의 끝이 날카로운 살미이고, 이제공은 물익공형태인데 반해 사당의 것은 초제공의 형태는 같으나 이제공은 권형(捲形)으로 끝을 둥글게 말은 것이 차이가 있다. 행공침차는 하부를 쌍S자로 초각하였으나 주심침차는 둥글게 한 모습이다.

사당의 내부의 바닥은 전돌로 마감하였는데 고식의 모습이다. 대량은 직재에 가까운 모습으로 춤이 높지 않아 날렵하게 느껴진다. 대량위의 중대공은 판대공과 초각한 침차를 서로 교차시킨 후 중도리 장혀와 종량을 받게 하였는데 뜯장혀는 생략하였다. 종량위의 대공은 파련대공으로 침차를 직교하여 끼워 놓았고 뜯장혀 역시 생략하였다. 중대공에서 보방향의 판재는 보머리쪽으로는 사당과 강당의 살미형태와 동일한 모습으로 초각하였고 안쪽으로는 보아지와 같은 모습이다.

주심도리 밑에는 장혀와 뜯장혀를 놓고 그 아래에 창방이 지나가는데 그 사이에 화반을 두었다.

상현묘는 전반적으로 살미의 형태나 대공의 모습을 볼 때 창건당시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강당과 건축수법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 2. 종합의견

구미 금오서원은 조선시대 선산부(善山府)를 대표하던 서원으로 여말선초(麗末鮮初)의 대표적인 절의(節義) 인사이자 성리학자인 야은(冶隱) 길재(吉再)를 포함해 모두 5인을 배향하고 있다.

처음 금오서원이 건립된 곳은 길재가 노년을 보냈던 구미 금오산(金烏山)으로 1572년(선

조 3) 봄에 창건하였나 임진왜란때 모든 건물이 소실되고 말았다. 그 후 1606년 현지로 이건하였다.

숙종과 영조 및 정조임금이 야은에 대한 절개를 높이 사서 금오서원에 많은 관심을 보였던 곳이기도 하고 야은을 봉향하는 장소이며, 영남의 대표적인 서원이라는 위상으로 인해 1871년(고종 8), 고종 연간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 집권기에 있었던 전국적인 서원 훼철령에도 제외되어 현재까지도 그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유서깊은 서원이다.

정학당의 건축적 구성은 2익공의 5량가 건물이다. 정학당은 건축이후 중건 기록없이 당시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그러한 모습은 청방간의 가구구성이 고주를 사용한 거나, 영쌍창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창틀구성 수법이 고식인 점 등에서 당시의 모습을 잘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청방간의 눈썹채기 창을 가진 벽면 전체를 한짝 들어열개문은 전국에서도 그 예가 많지 않은 매우 귀한 문구성이다.

정학당의 전체적인 건물의 모습은 강당건물로는 규모가 큰 편에 속하면서 공포의 격식이 나 가구구성에서 품격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상현묘의 건축적 구성은 1출목 2익공의 주심포계 5량가 건물이다. 상현묘 역시 건축이후 중건 기록없이 당시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그러한 모습은 살미의 형태나 대공의 모습을 볼 때 창건당시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강당과 건축수법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상현묘의 전체적인 건물의 모습은 사당건물로는 규모가 큰 편에 속하면서 공포의 격식이 나 가구구성에서 품격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창건 및 이건, 사액 등 건립과정의 기록이 비교적 명확하고, 건축당시인 조선중기의 건축구조 및 양식을 잘 유지하고 있으면서 품격있는 모습을 가진 전국에서도 몇 안되는 건물임을 감안할 때, 정학당과 상현묘는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 14. 안동 병산서원 만대루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안동 병산서원 만대루」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북 안동시 소재 「안동 병산서원 만대루」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경상북도지사
- (2) 대상문화재 : 사적 제260호 「안동 병산서원」
  - 소재지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병산길 386 (병산리 31)
  - 지정일 : 1978. 03. 31.
-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 명칭 : 안동 병산서원 만대루(安東 屏山書院 晩對樓)
  - 소유자(관리자) : 병산서원(안동시)
  - 소재지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병산길 386 (병산리 31)
  - 조성연대 : 조선시대(1717년 이전 건립)
  - 수량 : 1동
  - 지정면적 : 76.2m<sup>2</sup>
  - 양식 : 정면7칸, 측면2칸, 3량가, 홑처마, 팔작지붕



라. 현지조사의견(2020.08.12.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마. 지정조사보고서 : 불임참조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원안가결 10명, 부결 1명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0.08.12.	대상문화재	안동 병산서원 만대루 (사적 제 260 호)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건축사
	소 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안동 병산서원 만대루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 년 9 월 20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1.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안동 병산서원 만대루가 속한 병산서원은 이미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이중 등재되고(한국의 역사마을, 한국의 서원), 또 사적(제260호)으로도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화유산적 가치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만대루라고 하는 독립된 건물을 다시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병산서원은 서애 류성룡(1542-1607)을 주향으로, 그의 셋째 아들인 수암 류진(1582-1635)를 배향으로 모시고 있는 서원으로서, 풍악서당으로 시작하여 1613년 존덕사를 건립하고 1614년 서애 건생의 위패를 모심으로써 서원으로서의 격식을 갖추었고, 1864년에 사액되었으며, 1868년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서도 화를 면한 47개 서원 가운데 하나로써 전통시대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드문 사례이다. 서애 류성룡은 인근 한 하회마을 출신으로 퇴계 이황에게서 수학하였고, 1564년(명종19) 사마시를 거쳐 1566년(명종21)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올라 봉사하였으며, 특히 임진왜란을 당하여 비변사의 도제조 겸 의정부 영의정, 도체찰사로서 국란 극복에 공이 크다. 또 그는 『서애집』을 비롯한 많은 문집을 남겼으며, 특히 임진왜란 당시의 경험을 기록한 『징비록』은 편찬 당시부터 많은 주목을 받아 임진왜란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자료가 되고 있다.

한편, 병산서원은 그 족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풍산 류씨의 집성촌인 하회마을과는 직선거리로 3km 가량 떨어진 경승지에 자리하고 있는데, 낙동강이 U자형으로 돌아가면서 이룬 반도형의 땅 한 가운데에 위치한 화산을 주산으로 삼아, 경사가 완만하게 내려가는 서측에 하회마을이 자리하였다면, 병산서원은 낙동강을 향해 급경사를 이루며 내려가는 남쪽에 자리하였다. 병산(屏山)이라는 이름은 강 건너편에 자리한 산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강에 면하여 수직면을 이루는 절벽이 마치 병풍을 두른 듯 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병산서원 만대루는 이렇듯 강과 그 건너편의 절벽을 마주 보고 자리한 병산서원의 공간 구성 때문에 생겨난 시설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만대루가 길게 앞을 가로막고 있음으로서 강당과 동서재가 이루는 병산서원의 안마당이 아늑하게 감싸인 포근한 공간이 될 수 있었고, 그러면서도 꼭 닫힌 건물이 아니라 기둥만으로 이루어진 개방형 건물이기 때문에 강당 마루에서도 안마당에서도 만대루 건너편의 병산의 경치를 즐길 수 있었다. 또 이층 높이의 누각으로 만든 것은 병산서원이 자리한 급경사지의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만대루의 바닥 높이는 강당 앞마당의 높이와 큰 차이가 없어서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였고, 반대로 외부 진입로 상에서 보면 2층으로 된 만대루가 강당앞마당을 가려서 들여다보이지 않게 하였다.

## 2. 연혁

만대루의 정확한 창건을 알려주는 자료는 없다. 다만 관련 자료를 통하여 만대루의 건립을 병산서원의 창건기라고 할 수 있는 17세기로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 자료는 병산서원을 읊은 시문과 기사 등의 문헌자료와 만대루 건축에 사용된 영조척과 세부 기법 등에서 알 수 있는 양식사적 추정이다.

병산서원의 모태가 된 것은, 풍악서당(豊岳書堂)이다. 풍악서당에 대해서는 안동의 지리지인 『영가지(永嘉誌)』(1608)에 가정 계해(嘉靖癸亥) 창립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1563년임을 알 수 있다. 풍악서당의 건립자는 생원 권경전(權景綏)으로서, 16세기 후반은 퇴계 이황(李滉, 1501-1570)의 영향으로 안동 일대에 서당, 서재, 정사 등의 건립이 활발하던 시기였다. 하회마을만 보더라도, 서애와 그의 형인 겸암 류운룡(柳雲龍, 1539-1601) 등이 마을 내에 원지정사(1573년경)와 빈연정사(1583년경), 강 건너 부용대 절벽 위에는 겸암정사(1567년)와 옥연정사(1587년) 등을 세웠다. 처음 풍악서당은 풍산 현치 부근(豊山縣 北一里)에 위치하였으나, 나중에 서애 류성룡이 길가에 위치하여 공부터(藏修之所)로 적당치 않다고 하여 병산 아래로 옮겼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 옮긴 연혁에 대해서는, 『서애집』의 「시풍악서원유사(示豊嶽書院有司)」를 통해 1572년의 일로 추정한다. 그런데 1573년 서애 선생은 부친상을 당하여 하회에 돌아와 삼년상을 치루었으며, 이 시기에 하회마을 안에 원지정사를 세워 수학처로 삼았다. 풍악서당의 이전 역시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행해진 일로 볼 수 있다.

다시 『영가지』를 따르면, 풍악서당은 임진왜란 중 적병이 불을 질러 타버리고, 乙巳年(1605)에 남쪽 기슭의 남북방향(子坐午向)의 터에 옮겨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 현재 병산서원이 자리한 곳이라 생각된다. 1598년 임진왜란의 거의 막바지에 사직하고 다시 고향에 돌아온 서애 선생은 1605년 풍산 서미동으로 거처를 옮겼고 그곳에서 1607년 생을 다한다. 이후 1613년 존덕사(尊德祠)를 건립하여 1614년 서애 선생의 위패를 봉안함으로써 병산서원은 서원으로서의 격식을 갖추게 된다. 이는 우복 정경세(鄭經世, 1563-1633)의 「병산서원봉안서애선생제문(屏山書院奉安西厓先生祭文)」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서애 선생의 위패는 1620년 여강서원(廬江書院, 후에 虎溪書院)으로 옮겼다가 1629년 다시 병산서원으로 돌아오는 한 차례의 이동이 있었을 뿐 현재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1608년에 편찬된 『영가지』에 실린 「풍산현도」에 이미 ‘병산서원’이라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병산서원은 서애의 위패를 모시기 이전에 이미 서원으로 간주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서애의 문인들이 중심이 되어 서애 선생의 사후 1607년부터 바로 사우 건립의 논의가 시작되었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만대루의 이름이 문헌에 등장하는 것은 1717년의 「병산서원기사(屏山書院記事)」가 처음이다. 원규와 절목 등 서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인데, 그 가

운데 “앞으로 倡優(광대)들을 숭교당 앞으로 들이지 말고, 연회를 보고 싶으면 만대루 밖에 가설무대를 설치하게 하라 (今後則使倡優不得入崇教堂前若欲觀戲茅設於晚對樓外)<sup>256)</sup>”는 내용 중에 만대루가 등장한다. 만대루를 강학 공간의 경계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7세기후반에 활동한 권성구(權聖矩, 1642~1708)의 『구소집(鳩巢集)』에 실려 있는 「우경차관천지생물기상운(右敬次觀天地生物氣象韻)」 중의 “晚對樓名好”, “屏山晚對樓洞主權亨叔”, “晚對樓也獨” 등의 구절에서 만대루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권성구의 생몰년을 감안하면, 1717년 기록 이전인 17세기에 이미 만대루가 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서애 선생의 시구에 등장하는 ‘晚臺’는 정확히 누각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만대루와의 관련성을 생각해볼 수 있는 자료가 되며, 권구(權榘, 1672~1749)의 「병산잡록(屏山雜錄)」 중의 “당 앞에 고루가 있어 강건너의 절벽을 마주한다(堂前一高樓 臨江對層壁)”라는 구절에 등장하는 고루(高樓) 역시 만대루를 의미하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처럼 만대루의 창건에 관련해서는, 적어도 17세기에는 이미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곳이 앞에 놓인 병산 절벽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는 곳으로 당시에 시인묵객의 탐승지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헌 자료 외에, 영조척의 추정을 통하여, 만대루가 존덕사, 신문, 복례문 등과 같은 조선 영조척을 사용하였고, 강당인 입교당과 동서재, 장관각과 주소는 당척(唐尺)을, 그리고 전사청은 곡척(曲尺)을 사용하였으리라는 연구도 있으나, 연대를 추정하는데 사용하기에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또 현판의 글씨체를 쫓아 ‘병산서원’, ‘입교당’, ‘존덕사’ 등의 글씨체와 ‘만대루’ 등이 유사하므로 같은 시기의 조성이라고 추정하는 것 역시, 만대루의 건립 연대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하다.

비록 사액은 늦었지만, 병산서원은 많은 서원이 훼손되는 대원군의 서원철폐령 속에서 살아남은 47개 서원 가운데 하나로써, 안동에서는 유일한 사례가 된다. 덕분에 병산서원은 사우를 포함한 서원 건물 전체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후 병산서원의 모습을 크게 바꾼 것은 일제 강점기인 1921년과 1937년에 있었던 대대적인 정비 공사의 결과이다. 강당은 1921년, 사당은 1937년에 중수하였다. 또, 현재 만대루 앞에서 정문의 역할을 하는 복례문 역시 1921년에 이전하였고, 만대루 동서에 두 칸씩 장관각과 장서실을 설치했다는 내용이 「입교당 중수일기」에 전한다. 같은 자료에 1921년 이전의 정문은 만대루의 동편에 있었다고 전하는데, 이는 외부에서 병산서원으로 진입하는 방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56) 원문은 『지정요청 자료보고서』 p.22에서 재인용



그림 147 1921년 정비 이전의 만대루 사진(국립중앙 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사진) .. 만대루가 잔면에 바로 나와 있다.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요청 자료보고서- 안동병산서원 만대루』에서 전재, 이하 『보고서』)

위의 사진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유리건판 사진으로, 1921년 정비 이전 병산서원의 모습을 전해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여기서 건물 부분만을 조금 확대해보면 아래와 같다.



그림 148 위 사진의 부분

사진을 보면 만대루의 모습은 지금과 큰 차이가 없는데 반해, 서원을 두르는 담장은 만대루에서 끝나고, 만대루 전면에는 무언가 작은 부속 건물인 듯한 것이 보이지만 지금 있는 복례문(shots 삼문 형식을 취함)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시 말해 1921년 정비 이전의 병산서원은 만대루가 서원의 전면에 자리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오히려 남계서원(濼溪書院)이나 도동서원(道東書院)에서와 같이 루가 문을 겸하는 문루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이후 근래에 들어서서는, 1971년 만대루의 보수 공사가 있었고, 1978년 병산서원이 사적으로 지정된 이후, 1979년부터 2년간 병산서원 전체에 대한 보수 공사가 있었으며, 이후에도 1992년 만대루의 진입 계단 보수, 2002년 만대루 보수 등이 이어졌다.

### 3. 건축적 특징

만대루가 자리한 병산서원의 배치 구성을 보면, 정문인 복례문을 시작으로 앞마당에 방형의 두 개의 연지를 두고 그 사이에 난 길로 올라가 축대 위에 정면 7칸의 당당한 누각인 만대루가 자리하고, 그 뒤로 다시 한 단 위의 대지에 강당인 입교당과 동서재가 마당 둘레로 자리하여 서원의 안마당을 구성하고 있다. 강당 영역의 뒤로도 경사가 이어져서, 오른쪽 위로 한 단 높게 신문과 담장을 갖춘 사우인 존덕사가 자리하고, 그 왼편 경사지에는 장관각, 그 오른편 담장 바깥으로는 전사청과 주사가 들어서 서원이 갖추어야 할 강학공간과 제향공간, 지원공간의 기본적인 건물을 두루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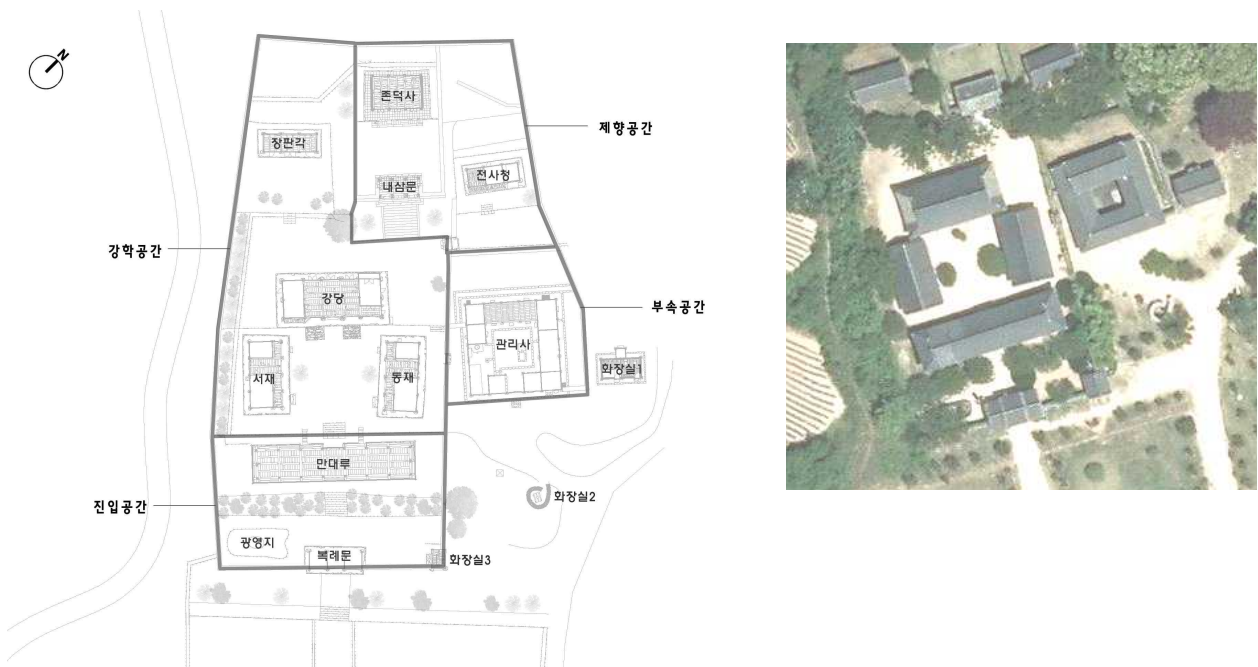


그림 149 병산서원 전체 배치도와 항공사진 (『보고서』에서 전재) - 만대루의 길이는 강당 앞 마당과 동서재를 모두 가릴 만큼 크다.

체적으로 병산서원은 남동향을 취하고 있으며, 경사지의 지세를 따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여러 단을 만들어 각각의 성격별로 공간을 조성하였는데, 만대루는 강당과 동서재가 이루는 강학공간을 보호하는 동시에 서원 전체의 정면을 구성하는 경계의 역할을 담당한다. 1921년 그 앞으로 다시 연지가 있는 작은 마당을 둘러싼 담장과 정문인 복례문을 두었지만, 단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만대루는 2층의 높은 누각의 형식을 취하

기 때문에 여전히 만대루는 병산서원의 얼굴과 같은 역할을 한다.

만대루가 정면 7칸이라고 하는 유례없이 긴 평면 규모를 갖는 것은 병산서원이 자리한 특수한 지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함께 세계 유산에 등재된 남계서원이나 도동서원의 문루가 정면 3칸의 규모와 비교가 되는데, 개활지에 자리한 남계서원이나 역시 강변에 자리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전면이 특 터진 도동서원과 달리, 병산서원은 서원 앞의 강 건너편을 막아서는 절벽이 마주 보고 있어서, 경관의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인다. 즉 대개의 루가 '사방을 조망하기 위한' 시설로서 높이 서 있다면, 만대루의 경우는 그와 동시에 전면의 경관을 적절하게 가리는 역할도 함께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만대루와 같은 규모를 갖는 서원의 루각은 경주 옥산서원 무변루(無邊樓)가 유일하다. 이외에 정면 5칸의 규모를 갖는 것으로 안동 길안의 묵계서원(默溪書院)과 하회마을의 겸암 류운룡을 모신 화천서원(花川書院), 상주의 옥동서원(玉洞書院) 등의 예를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병산서원 만대루는 우리나라 서원의 루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옥산서원 무변루가 맞배지붕으로 되어 있고 외부로 향하여 관벽과 창호 등으로 닫혀있는 폐쇄적인 입면을 갖는 것과 비교한다면, 규모가 클 뿐 아니라 가장 개방적이고 활달한 인상을 갖는 루각이라고 평할 수 있다.

실제로 강당이나 강당의 앞마당에서 멀리 강변의 절벽을 바라보는 전면의 경관은 만대루가 만드는 시각적 프레임에 의해 여러 폭으로 펼쳐진 병풍 그림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러면서 기둥과 지붕, 바닥의 마루판과 난간들이 이루는 반개방적인 구조물로 인해 안마당은 외부로부터 보호 받는 내밀한 공간감을 형성한다. 앞서 인용한 「병산서원기사」에서 광대의 연회를 만대루 앞에서 하라고 한 것은 이러한 공간인식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생각된다.

실제로 만대루의 이름은 두보(杜甫)의 시 「백제성루(白帝城樓)」의 '翠屏宜晚對 白谷會深遊(푸른 병풍처럼 둘러쳐진 산수는 늦을 녀 마주 대할만 하고, 흰 바위 골짜기는 여럿 모여 그윽이 즐기기 좋구나.)'에서 따온 말이라고 한다. 이렇듯 병산서원의 '병산'과 만대루의 '만대'가 하나의 이미지로 연결되고, 만대루가 병산서원의 얼굴이라는 점은 단지 만대루가 병산서원의 앞에 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만대루의 건축은 단단하고 소박하다. 도리칸 7칸, 보칸 2칸의 주망을 따라, 내주를 모두 생략하고 둘레 기둥만으로 각층 18주씩 두었으며 모두 원기둥이다. 다만 실제 사용하는 공간인 상층의 기둥은 반듯하게 가공한 원기둥을 사용한 데 반하여, 하층의 기둥은 자연목의 굵거나 흰 모습을 그대로 살려가며 간단한 다듬기로 그쳤다. 주칸은 도리방향으로는 2,933mm~2,973mm로 큰 차이 없이 10자로 규격화되어 있고, 보방향으로는



1,823mm~1,894mm (상층 기준)로 6자 크기로 맞추어 지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하층의 주칸은 차이가 이보다 커서 도리 방향의 경우, 최소 2,865mm부터 최대 3,011mm 까지, 보방향의 경우 최소 1,755mm부터 최대 1,870mm까지 서로 다른 칸치수를 갖는다. 주칸의 치수에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것은 시공 오차이거나 건립후의 부재 변형에 의한 것인데, 특히 하층의 경우는 휘어진 부재를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 오차값이 더 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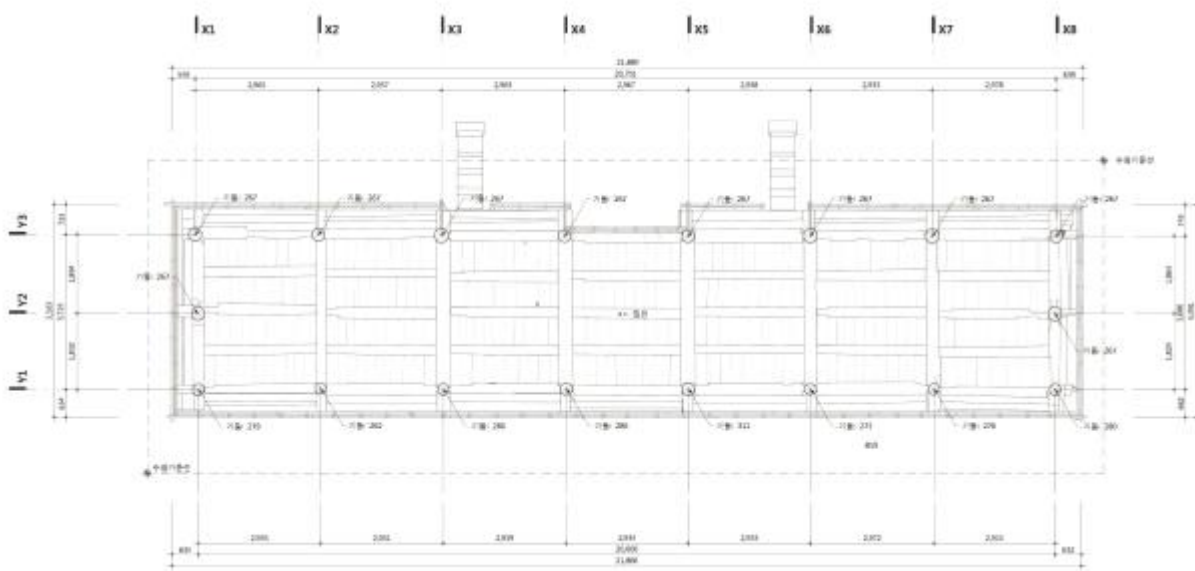


그림 150 병산서원 만대루 상층 평면도 (『보고서』에서 전재)

만대루가 구조적으로 간단하고 소박하다는 말은 단층의 막돌 기단과 자연재를 활용한 덤벙 주초, 그리고 외단을 전혀 장식 가공하지 않고 직절한 익공의 외단 처리, 긴서까래를 앞뒤로 경사지게 걸친 3량가의 도리 구성, 반자 없이 서까래가 그대로 노출된 연등 천장의 사용, 마루대공에 사용된 사다리꼴의 간단한 판대공, 단청을 사용하지 않은 점, 막새기와를 사용하지 않고 와구토로 막은 홀처마로 지붕을 꾸민 점 등에 모두 적용할 수 있다.

구조적으로나 장식적으로 조금 의도를 갖추고 공을 들인 부분이 있다면, 측면 2칸으로 층량을 하나밖에 두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붕을 팔작지붕으로 만들기 위해 종도리 양단을 처리한 부분, 사방에 계자각 난간을 설치하고 시반문의 풍혈을 둔 점, 익공의 내단에 초각을 한 부분, 서까래의 단부를 소매걸이로 가공하여 그 끝을 가볍게 보이게 한 점, 안마당 쪽으로 모퉁이 추녀 두 곳에 알추녀를 가공하여 멋을 부린 점. 용마루와 내림마루, 추녀마루의 끝에 망와를 사용한 점 정도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이 정도의 가공은 조선후기 주택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수준의 가공으로서 그 자체로 고급의 격식기

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만대루의 건축은 건축의 기법이나 양식적인 측면에서 17세기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특별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고급 기법이나 양식이 적용된 양식적 가치를 갖는다고 보기도 힘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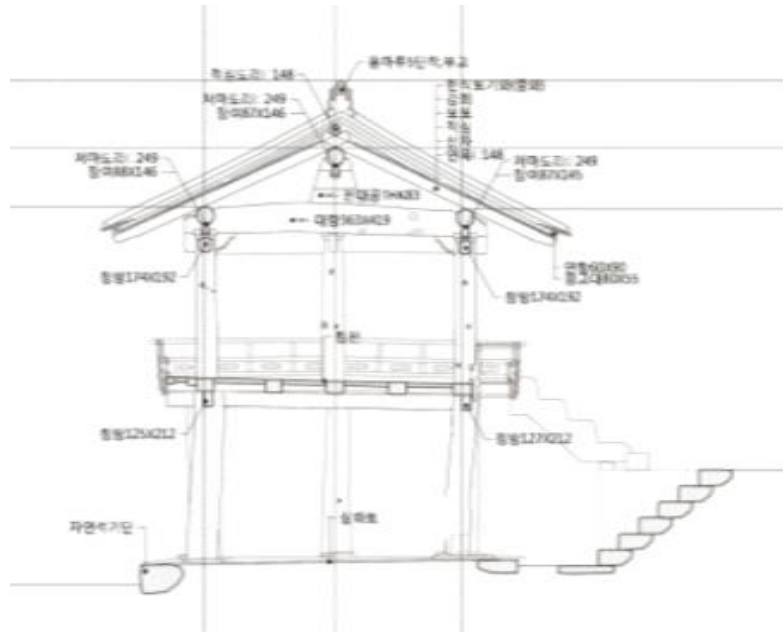


그림 151 병산서원 만대루 단도 (『보고서』에서 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산서원의 만대루는 경관적 가치에서 독보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향교와 서원을 가리지 않고 조선시대의 지방 교육시설에서 누각은 즐겨 사용되었는데, 병산서원 만대루는 정면 7칸 측면 2칸이라는 압도적인 규모에, 팔작지붕을 가지고 그 전체가 개방되어 있어 다른 곳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외관을 가진다. 이것은 경사지에 자리한 병산서원의 강학공간과 제향공간을 외부로부터 막아주는 방어막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병산서원의 맞은 편에 있는 강과 절벽이 이루는 승경을 서원 내부로 끌어들이는 시각적 프레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자연의 경치를 그대로 두고 건축물의 조정을 통하여 그 아름다움을 최대한으로 살려내는 전통적인 조경수법인 ‘차경(借景)’의 전략을 가장 잘 살린 예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보기 싫은 부분을 가리는 ‘억경(抑景)’, 보고 싶은 부분만을 틀로 담아내는 ‘광경(匡景)’의 기법까지도 모두 만대루에서 볼 수 있다.

#### 4. 종합 검토의견

향교나 서원에 누각을 두는 것은, 장수(藏修)와 유식(遊息)이라고 하는 교육적 수련의 두 가지 방편 가운데 주로 유식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서원의 누

각은 사찰의 강당과 비슷하게 여럿이 모이는 대규모의 집회활동에 봉사할 뿐 아니라, 자연과 합일하여 궁극의 진리에 도달하는 성리학의 학습에 필수적인 시설이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서원, 그리고 향교는 강당과 사우 외에 누각을 가지게 마련이고, 그 규모와 위치로 인하여 향교나 서원의 인상을 좌우하는 시각적 초점이 된다.

병산서원의 만대루는 그러한 서원 누각의 역할을 웅변하는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규모가 크고 주변의 경관을 끌어들이고 서원의 내부 공간을 막아내는 솜씨가 일품이다. 그 건립은 17세기 서원의 창건기에 비롯하였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현재의 건물이 그 당시의 것 그대로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박하고 단단한 가구의 구성과 세부 기법의 처리를 보아서 조선 후기 건축에서 보이는 번잡함이나 장식적 기울기가 보이지 않는 조선중기적 특색을 유지하고 있다. 또 병산서원이 자리한 지형과 주변의 경관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여러 번의 중수가 있었을지라도 대개의 규모와 위치는 창건기의 것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병산서원 만대루는 서원 누각이 가져야 하는 기능을 잘 유지하면서, 경관을 이용하는 전통적인 조경 기법을 잘 살렸고, 인공적 조작과 장식을 억제하고 건축의 기본에 충실한 성리학적 건축관을 잘 보여주는, 우리나라 서원 누각의 대표작이라는 점에서 국가 지정 보물로 승격지정함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생각된다.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0.08.12	대상문화재	안동 병산서원 만대루	
조사자	성 명	○ ○ ○	전공 분야	한국건축역사
	소 속	○ ○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안동 병산서원 만대루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09월 02일

제출자

○ ○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1. 입지 및 배치의 특성

병산서원은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병산리 낙동강 변에 서애 류성룡(1545~1607)의 학문과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건립한 서원이다. 병산서원은 북측 주산인 화산을 등지고 강 건너 병산을 바라보고 있는데, 서쪽으로 하회마을이 있고 동측으로 병산리 가옥과 진입로가 있다. 이 진입로는 1985년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확장한 것으로 풍산들에서 병산까지 개설된 2km 정도의 비포장길이다.

병산서원은 병산리 서쪽 안쪽에 치우쳐 있으며, 주변 지형 중 제일 높은 곳에 터를 잡고 남향을 하고 있다. 병산서원 정면에는 백사장과 낙동강, 강 건너 병풍 같은 병산(屏山)이 있다. 병산과 낙동강 그리고 모래는 병산서원의 중요한 경관을 제공하고 있다.

병산서원의 배치는 강학공간이 앞에 있고 제향공간이 뒤쪽에 있는 전학후묘(前學後廟)의 형식을 따르고 있으나, 중심축 상에 외삼문-누각-강당-내삼문-사당을 배치하는 전형적인 서원의 배치형식과 달리 사당의 제향 공간이 중심축에서 벗어나 있다. 이는 사당이 강당 이후에 만들었기 때문이거나, 학문적 성향과 서애 류성룡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당을 생각한 결과로 판단된다.

병산서원의 터는 경사가 완만하여 제향공간과 강학공간의 높이 차가 있는데, 만대루와 강학공간을 오르는 계단보다 제향공간을 오르는 계단을 길게 꾸며 제향공간이 높게 보이도록 했다. 병산서원은 건물 간 위계를 위하여 복레문-만대루-강당의 강학공간 축을 일치시켰고, 강학공간의 축에서 벗어나 동쪽에 제향공간을 배치했다. 제향공간인 존덕사가 건립되기 전의 병산서원은 이와 같은 사당의 배치를 수용하기에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있었고, 입교당 동쪽 공지는 강학공간과 제향공간인 사당을 연결하는 매개공간이 된다.

병산서원은 강학공간과 제향공간으로 나뉘는데, 강당과 동서재와 장판각이 강학공간을 구성하고 있으며, 존덕사와 내삼문, 전사청이 제향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이외에 고직사의 부속공간과 복레문과 만대루의 진입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교당과 만대루 사이 마당 좌우에 있는 동재와 서재는 서로 마주 보고 있는데, 동재가 안쪽으로 틀어져 만대루 쪽에 면한 부분의 마당 폭이 입교당 쪽보다 좁아지게 되어 있어 시선과 동선이 동재 방향으로 흐르도록 했다. 제향공간 담장 너머 좌우에는 전사청과 장판각이 있는데, 약간 어긋나 있다. 관리사인 고직사는 일반적으로 위계가 낮은 서원의 서쪽에 있지만, 병산서원의 고직사는 서원 담장 너머 동쪽에 있다. 이는 하회마을이 병산서원 서쪽에 있기 때문이다.

만대루 전면 계단 아래에는 광영지와 복레문, 화장실이 현재 있다. 복레문은 존덕사 건립한 후 1921년 이전에 동측 모서리에 있었는데, 이후 현 위치로 이축했다. 입교당의

대청마루는 만대루를 통해 병산과 낙동강이 보이는데, 만대루의 7칸 기둥 사이로 하늘과 병산과 낙동강이 7폭 병풍이 되어 펼쳐지는 풍경이 산수화와 같다.

이러한 만대루는 진입공간에서 그 자체에 시선이 머무는 시각적 대상이기보다 만대루 너머로 보이는 원경에 대한 시각적 프레임(frame)의 역할이 더 크다. 만대루를 매개로 한 강학공간과 서원 외부공간의 시각적 연속성은 만대루의 독특한 시각적 특성에 의하여 더욱 긴밀해진다. 즉 만대루는 강학공간을 외부로 확장하고 정면의 원경을 건축공간이 품게 하도록 주변 다양한 자연을 건축 경관 요소로 삼도록 했다.

## 2. 연혁·유래 및 특징

병산서원은 1977년 민속마을로 지정된 풍산 류씨(柳氏) 집성촌인 하회마을과 화산을 사이에 두고 있는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병산리에 있으며, 사적 제260호로 지정되어 있다. 병산서원은 화산의 동쪽에 있고, 하회마을은 그 반대쪽에 있다. 서원은 낙동강 물줄기가 흘러 내려오다가 화산을 만나 센 물살이 되어 휘감아 돌아 남쪽으로 흘러나가는 강가 언덕에 있다.

병산서원은 1572년 고려 중기부터 있던 풍산 류씨의 교육기관인 풍악서당(豐岳書堂)을 모체로 하여 건립되었으며, 서당은 본래 풍산읍에 있었는데, 서애 류성룡이 서당을 현재의 위치로 옮겼으며, 이후 임진왜란 때 풍악서당은 소실되었다. 이후 병산서원은 1613년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 1563-1633) 등 지방 유림이 서애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존덕사를 건립한 후 향사를 지내게 되었고, 1629년 수암(修巖) 유진(柳軫, 1582~1635)이 추존 되었다.

병산서원은 1863년 ‘병산(屏山)’이라는 사액을 받아 병산서원이 되었고, 1871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 때 훼철되지 않고 존속되었다. 정문인 복례문은 본래 1921년 만대루 동쪽에 있던 것을 정면 세 칸, 측면 한 칸, 규모의 솟을대문으로 이진 되었다. ‘복례(復禮)’는 『논어(論語)』 「안연(顔淵)」 편에 나오는 ‘극기복례위인(克己復禮爲仁)’에서 인용한 것으로 ‘자기를 누르고 예로 돌아감이 인이다’라는 뜻이며, 세속적인 자신의 마음과 자세를 극복하고 예를 다시 갖추라는 뜻이다.

만대루의 ‘만대(晩對)’는 당나라 시인 두보(杜甫)의 시 백제성루(白帝城樓)의 한 구절인 ‘취병의만대(翠屏宜晩對) 백곡회심유(白谷會深遊)’에서 따온 말로, ‘푸른 병풍처럼 둘러쳐진 산수는 저물 무렵에 마주 대할만하고, 흰 바위 골짜기는 여럿이 모여 늦도록 즐기기 좋다’는 뜻이다. 이는 주변의 빼어난 경관과 잘 어울리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만대루의 건립 및 존재 유무를 알 수 있는 기록은 다음과 같다.

1717년 병산서원 원장 이협(李浹)이 쓴 『병산서원기사屏山書院記事』 「원사절목院事

節目」에 “서원 급제자들이 귀향하면 광대 패들이 유희를 벌이는데, 절대 서원 안에는 들어오게 하지 말고 만대루 바깥에서 연회를 벌이게 하라”라는 기록이 있다.

만대루 관련 기록은 서애 류성룡(1542~1607)의 서애 문집의 권3의 49시 “江樓”, 권4의 78시 “晚臺”가 있고, 또한 권성구(權聖矩 1642~1708)의 구소집(鳩巢集) 우경차관천지 생물기상운(右敬次觀天地生物氣象韻)의 “晚對樓名好”, “屏山晚對樓洞主權亭叔”, “晚對樓也獨”의 기록이 있다.

이외에 만대루 관련 기록은 병곡 권구(權渠 1672~1749)가 작성한 병곡문집 병산잡기(屏山雜錄)에 당 정면 고루(高樓)를 언급하고 있다. 이 시에서 병산서원 “서루”로 표기되어 있고 시 차병산동주운(次屏山洞主韻)과 기개중(寄介仲)에서도 고루(高樓)로 표기했다. 따라서 만대루는 권구가 살았던 1642~1749년 사이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1717년 ‘원사절목’의 기록을 보면, 만대루는 1717년 이전에 건립한 것으로 추정된다.

### 3. 건축 현황과 특징

만대루는 정면 7칸 측면 2칸의 중층누각 건물로 상·하층 기둥 사이에 벽체를 꾸미지 않고 통칸으로 구성하여 휴식과 강학의 복합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층은 자연석 기단, 자연석 초석, 자연 상태의 누하주 등을 최대한 자연 상태에 가까운 재료로 사용했다. 하층 주칸은 서원 진입로로 바닥을 삼화토로 마감했다. 상층 바닥은 우물마루 구조로 강학과 휴식의 복합공간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하층은 서원 내측 석축에 조성한 계단을 통해 강당 앞마당으로 오르게 되어 있으며, 상층 마루의 진입은 마루와 중정을 연결한 통나무 계단을 이용하도록 했다.

하층 기둥은 자연목 상태인데 상층 기둥은 원통형 기둥으로 마름질 되어 있다. 하층 기둥 상부는 사개를 튼 후 청방을 결구한 후 상층 마루 귀틀을 받도록 했으며, 상층 기둥은 귀틀 위에 놓아 상부 하중을 아래로 전달하도록 했다. 상층 기둥 상부는 보방향의 초익공이 창방과 사개맞춤을 한 후 주두를 놓고 보와 장여를 받도록 한 초익공식으로 짜여 있다. 익공은 외부 끝은 직설하였고, 내부는 초각했다. 주칸은 도리받침장여와 창방 사이에 소로를 끼워 입면을 장식했다. 이와 같은 기둥 상부의 결구방식은 조선 후기 건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직절형 초익공식으로 결구되어 있다.

상층 가구는 삼량으로 대량을 걸고 대공을 세워 종도리를 받도록 했다. 만대루에 사용된 보는 대량과 충량인데, 대량은 정면과 배면의 평주를 연결하며, 충량은 좌·우측 평주와 대량을 연결한다. 보는 좌·우측면만을 치목하고 상하 윗면은 자연목 상태를 그대로 두었다. 대량 위 대공은 판대공으로 장부 홈에 소로를 놓고 좌우 도리받침장여,

장혀 위에 좌우 종도리를 결구하도록 했다.

처마는 홑처마이고 지붕은 합각지붕이다. 만대루는 종도리와 주심도리로 구성된 삼량가구로 외기를 구성할 수 없으므로, 측면 층량 위에 연장한 종도리를 받도록 대공을 세운 후 전후 추녀 뒤초리를 걸도록 하였다. 팔작지붕은 용마루, 내림마루, 추녀마루로 구성되어 있으며, 용마루는 착고, 부고 위 적새 5단을 쌓았고, 내림마루는 착고 위 적새 3단을 쌓았고, 추녀마루는 착고 위 적새 3단을 쌓아 마감했다. 좌우 합각벽은 기와와 회바름으로 마감했다.

#### 4. 지정 가치 및 종합의견

만대루는 퇴계 이황의 문인으로 조선 중기 대표 문신·학자인 류성룡과 류진을 모신 병산서원의 누각건물로 유생들이 유식하고 주변 산천의 풍광을 보며 시회를 가졌던 공간이며 18세기 초 이전에 건립된 건물이다. 만대루는 정면 7칸 측면 2칸 규모의 한국 서원의 대표적인 누각 건축물로서 조선후기 영남 유림들의 정치 사회적 활동과 유림의 회합 공간으로서 중요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만대루의 가구는 최소한의 구조부재만을 이용하여 공간을 조성하여 주변 자연경관과 하나가 되도록 조영하여 한국 누각 건물의 조영미와 절제미를 보여주고 있다. 즉, 만대루는 우리나라 서원의 문루 중 긴 장방형 평면과 벽체 없는 기둥과 간결한 가구 구조를 통해 서원 내 외부공간과 입교당에서 주요 경관 요소 병산과 낙동강, 모래를 조망될 수 있도록 한 대표적인 누각 건물로 건축사적 가치가 높다.

만대루는 주변의 탁월한 입지환경을 기반으로 내부에서 외부로의 시각적 경관성을 고려했으며, 강학 영역보다 낮게 조성한 대지위 절제된 건축은 주변 건물과 조화성을 반영한 점이 서원의 본질적 질서체계와 건축 조영원리를 따르면서 병산서원만의 독자적인 입지 선정 및 지형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으로 만대루는 역사적, 건축사적 및 경관적 측면에서 가치가 뛰어나며, 또한 성리학자의 자연미와 절제미 등을 바탕으로 조영 의식을 엿볼 수 있어 지속적으로 보존할만한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0.08.12.	대상문화재	안동 병산서원 만대루 (사적 제 260 호)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 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안동 병산서원 만대루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 년 9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1. 연 혁 :

병산서원(屏山書院)은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병산리 30번지에 있는 서원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 1542~1607)과 그의 셋째 아들 수암(修巖) 류진(柳軫, 1582~1635)을 함께 배향하고 있다. 지금의 풍천면은 조선시대에 경상도 안동부의 속현(屬縣)인 풍산현(豐山縣)으로 존재했던 고을로서 풍산현이 위치한 안동부는 일찍이 인근 예안현(禮安縣) 출신의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의 영향을 받아 비교적 빠른 시기인 16세기에 서원이 건립되었고, 병산서원의 본격적인 서원 건립 논의는 류성룡의 문인들로 그의 사후 2년인 1607(선조 40)부터 대두되기 시작하여 안동 지방 사림의 지원을 받아 병산서원 건립을 주도하였다. 그들은 류성룡의 학문과 정신을 계승하고 그를 제사 지내기 위해 1613년(광해군 5) 병산서당 뒤에 존덕사(尊德祠)라는 사당을 짓고, 그 이듬해인 1614년(광해군 6)에 완성하여 위판을 봉안함으로써 제사 기능과 교육 기능을 겸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는 류성룡의 대표적인 문인인 정경세(鄭經世 1563~1633)를 비롯하여 안담수(安聃壽)·김윤사(金允思) 등의 노력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최초 풍악서당에서 출발한 병산서원은 병산서당을 거쳐 명실상부한 서원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다.

병산서원은 도산서원·호계서원과 더불어 안동권을 대표하는 서원으로 자리 잡았으나, 조정으로부터 사액(賜額)을 받은 시기는 상대적으로 늦은 1863년(철종 14) 교리(校理) 이계로(李啓魯, 1828~?)가 조정에 사액을 청하는 상소를 올리게 됨에 따라 비변사(備邊司)를 거쳐 왕의 재가를 얻음으로써 사액서원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바로 철종이 사망함에 따라 왕이 내리는 새로운 이름의 현판은 받지 못하였다. 이런 연유로 사액서원이지만 다른 사액서원들처럼 국왕이 직접 내린 현판 이름 대신 종전에 사용하였던 ‘병산(屏山)’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또한, 병산서원은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 이하응(李昞鷹, 1820~1898)의 서원 훼손 정책 속에서도 병산서원은 전국 47개 서원 중의 하나로 살아남음으로써 서원의 주요 건물이 지금까지 고스란히 존립할 수 있었다. 일제강점기 하인 1921년에 강당을, 1937년에 사당을 대대적으로 보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1969년 병산서원이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아 사적 제2690호로 지정될 수 있었다.

병산서원의 대표적 건물은 만대루(晩對樓)로서 만대루의 ‘만대(晩對)’는 당나라 시인 두보(杜甫)의 시 백제성루(白帝城樓)의 한 구절인 ‘취병의만대(翠屏宜晩對) 백곡회심유(白谷會深遊)’에서 따온 말로, “푸른 병풍처럼 둘러쳐진 산수는 저물 무렵에 마주 대할 만하고, 흰 바위 골짜기는 여럿이 모여 늦도록 즐기기가 좋다”는 뜻으로 이는 병산서원이 위치한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리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문헌상의 만대루와 관련된 기록으로 첫 번째는 『병산서원기사』의 「원사절목(院事節目)」에 “서원 급제자들이 귀향하면 광대 패들이 유희를 벌이는데, 절대 서원 안에는

들어오게 하지 말고 만대루 바깥에서 연회를 벌이게 하라”라는 내용이 있어 1717년 이전에 만대루가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존덕사(1613)와 만대루의 영조척 분석을 통해 그 건립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데, 그 이전부터 있었던 입교당은 당척을, 건립연대가 확실한 존덕사는 조선영조척을, 만대루는 존덕사와 같은 조선영조척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만대루와 존덕사는 비슷한 시기에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는 과거 문헌에서 나타나는 시문에서 만대루를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서애 류성룡(1542~1607)의 서애문집 권3의 49시에서 “강루(江樓)”, 권4의 78시에서 “만대”(晚臺)“ 두 단어를 확인할 수 있고, 권성구(權聖矩, 1642 ~ 1708)의 구소집(鳩巢集) 우경차 관천지생물기상운(右敬次觀天地生物氣象韻)에서 “晚對樓名好”, “屏山晚對樓洞主權享叔”, “晚對樓也獨” 세 구절이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권구(權槩, 1672~1749)의 병곡문집(屏谷文集) 중 병산잡기(屏山雜錄)에서 당 앞에 높은 누각(高樓)으로 나타나고 있어 권선구와 권구 생전(生前)에 활동했던 그 이전에 건립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 2.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병산서원 입지는 병산마을 안에서도 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며, 주변 지형 중 제일 높은 지반에 낙동강을 바라보며 남향하고 있다. 병산서원 앞으로는 굽이쳐 흐르는 낙동강과 이에 접한 백사장, 강 건너 절벽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는 병산(屏山)이 서로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고 있다.

병산서원의 배후산지인 화산(338m)은 낙동강이 휘돌아 나가는 곳에 있어 남쪽의 병산과 단절되고 북쪽은 평야에 접해있다. 이런 지형적 이유로 병산서원은 완경사의 화산 산지 사면이 낙동강과 만나는 산자락의 완경사지에 자연 경사를 그대로 이용하여 세워지게 되었다. 즉 병산서원은 북북서 방향의 화산을 등지고 남남동 방향으로 낙동강을 내려다보며, 강 건너 병풍 모양으로 막아선 병산(屏山)을 안산(案山)으로 하여 정면에 마주한다. 이 두 지맥 사이로 낙동강이 흐르며, 이들 산계가 마주하며 대응하는 곳에 병산서원이 위치한다. 이에 따라 병산서원은 비교적 경사가 급한 전형적인 전저후고(前低後高)의 지형에 입지하여, 전망경관을 매우 개방적으로 만듦으로써 강당과 만대루에서 바라보는 낙동강과 병산의 자연경관이 막히지 않고 시원하게 트여 보이도록 하였다. 병산서원 전면의 낙동강은 폭이 300m 이상의 큰 강이고 병산 역시 300m 정도의 높은 산으로 이처럼 큰 강과 높은 산을 근접거리에서 마주 대하게 함으로써 서원에서 바라보는 강과 산은 매우 개방적이면서 압도적 경관이 되게 하였다. 이러한 점이 병산서원이 우리나라 서원건축의 백미로 꼽히는 주요 인자가 되게 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복례문을 들어서면, 만대루에 의해 강학 공간의 전체를 전망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

지만, 복례문의 기단이 끝나는 지점에 서서 만대루와 병산서원, 입교당의 현판이 시선과 90° 각도로 마주하게 된다. 이러한 점 역시 바라보는 사람의 시선을 고려한 배치로 시선을 집중시키고 진입 축의 방향을 강조하는 것으로 방문자가 내부 공간에 기대감과 긴장감을 느끼도록 만들었다.

병산서원의 배치는 강당이 앞에 있고 사당이 뒤쪽에 위치하는 전학후묘의 형식을 따르고 있으나, 중심축 상에 외삼문-누각-강당-내삼문-사당을 배치하는 전형적인 서원의 배치형식과는 다르게 사당 공간이 중심축에서 벗어나 있다. 이는 사당의 건립 시기로 볼 때, 사당 공간이 강당 공간보다 나중에 만들어졌기 때문이거나, 학문적 성향과 서애 류성룡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당(堂)에 대한 생각으로 이러한 공간 배치가 나타났다는 주장이 있다. 류성룡은 묘와 당이 일직 선상에 놓이는 것은 묘가 당의 뒤를 바라보고 앉는 형상이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중심축선 상에서 벗어나 동쪽으로 배치한 듯하다. 그와 같은 생각은 1604년 정경세가 도남서원(道南書院)을 건립하면서 류성룡과 나눈 다음의 문답에 잘 나타나 있다.

<정경세> “...중략...묘와 당이 비록 서로 마주하나 높이가 현격해서 뒤로 앉힐 때 가로막히는 미안함은 없을 듯합니다...중략...”

<류성룡> “...중략...지세가 비록 하향한다 해도 뒤로 앉히는 것은 끝내 편안치 못합니다. 역동서원(易東書院)은 이미 선생(퇴계)의 지침에 따라 정해진 것입니다. 그 제도가 반드시 일시적으로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선 역동의 규제에 따라 동쪽에 가깝게 하는 것이 아마도 무방할 듯합니다.”

이런 연유에서 완만한 지형 경사를 이용하여 제향 공간의 높이가 강학 공간과 크게 차이 나지 않으나 건물 간의 위계를 나타내기 위하여 복례문-만대루-강당의 축을 일치시키고, 제향 공간은 축에서 벗어나 동쪽에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형 경사가 완만하여 제향 공간의 높이가 강학 공간과 크게 차이 나지 않으나 만대루와 강학 공간을 오르는 계단보다 제향 공간을 오르는 계단을 길게 설치함으로써 제향 공간이 더욱 시각적으로 높게 보이도록 만들었다.

입교당과 만대루 사이에 있는 동재와 서재는 동재가 안쪽으로 틀어져 있어 만대루 쪽에 면한 부분의 마당 폭이 입교당 쪽보다 좁아지게 되어있으며, 사당 양측에 각각 위치한 장판각과 전사청 또한 대칭인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약간 어긋나 있다. 이렇게 엄격한 질서를 강조하기보다 공간과 공간이 살짝 어긋나거나 비껴나게 한 공간구성은 병산서원의 전체 건물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제향 공간 안에 전사청이 배치되는 데 반해, 병산서원의 경우 전사청이 제향 공간과 분리되어 별도로 배치된 것이 특징이다. 전사청을 제향 영역 내에 배치할 경우 제향 공간이 넓어지게 되는 장점이 있으나, 고직사 뒤에 위치하게 되어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고직사의 뒷면을 바라보게 되므로 기능상 불편함이 있더라도 담장으로 차폐시키고자 전사청을 별도로 분리하여 제향 영역을 좁힌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비들이 기거하는 고직사는 일반적으로 위계가 낮은 서원의 서쪽에 위치하지  
만, 병산서원은 동쪽에 배치하게 함으로써 일반적 기준과 다른데, 이는 류성룡의 연고  
지가 하회마을로 병산서원의 서쪽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 3. 건축 현황 및 특징 :

병산서원이 갖고 있는 기능적 경관적 특성이 가장 잘 응축되어 표현된 것이 바로 만  
대루이다. 측면을 향해서는 좁은, 전면을 향해서는 넓고 긴 평면형태를 취함으로써 만  
대루는 복례문을 통해 들어오는 진입공간에서나 강학 공간 어느 곳에서도 건물 전체를  
한눈에 지각할 수 없는 특이한 구성을 이루고 있기에 시각적으로 하나의 독립된 건물  
로 보이기 어렵게 되어있다. 하나의 건물이기보다 영역을 구획하는 투과성의 벽체와  
같은 느낌을 준다.

만대루는 정면 7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을 한 장방형 건물로, 유생들이 휴식도 하고  
풍광을 보며 시회(詩會)를 가졌던 곳으로, 누에 오르면 서원이 입지한 뛰어난 주변 경  
관을 한눈에 들어오도록 만들었다. 면적은 75.94m<sup>2</sup>(22.97평)이고, 중층의 2층 누각 건물  
로 상·하층 모두 통칸으로 구성되어있다. 하층의 경우 진입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기  
둥의 간격은 도리 방향으로 2,933mm~2,973mm로 형성되어 있고 보 방향으로 1,755m  
m~1,894mm로 형성되어 있다. 상층과 하층 모두 사면이 개방된 통칸으로 구성되어있으  
며, 하층은 서원 내측으로 형성된 석축의 계단을 통해 중정으로의 진입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이 중정에서 상층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마루와 중정을 연결한 통나무계단을  
통해 진입이 이루어진다. 상층의 경우 강학과 휴식을 위한 복합 공간으로 우물마루에  
연등천장으로 되어있다.

기단은 자연석을 별다른 가공을 하지 않고 쌓은 자연석 기단으로 경사지를 계단식으  
로 만든 편평한 지형 위에 자리하고 있어 사면의 높이가 비슷하다. 기단은 1단으로 지  
형에 맞춰 수평으로 축조하였다.

초석은 상부의 하중을 받아 지반에 전달하는 구조적 역할 뿐 아니라 바닥의 습기나  
우수로부터 기둥을 보호해주는 부재로 자연석 기단 위에 각기 모양이 다른 자연석 초  
석을 사용하였고, 초석의 상부 레벨은 일정하지 않게 설치하였다. 이는 초석의 상면을  
다듬지 않았기 때문에 요철이 있고, 상부에 기둥을 그레질하여 올려놓았기 때문이다.

가구재는 기둥, 창방, 보, 도리 및 장여, 대공 등으로 나뉘는데, 가구의 구성을 살펴  
보면 상부 기둥 앞뒤로 대량을 걸고 주심도리를 받았다. 대량 상부 중앙에 대공 위치  
를 잡은 다음, 대공을 세우고 종도리를 받는 3량집을 구성하였다. 하층 기둥 상부에 사  
괘를 틀어 청방을 직교하여 결구하고 상부의 귀틀을 지탱하고 있다. 상층기둥 역시 사  
괘를 틀어 보와 창방을 결구하고 상부에 주두를 얹어 대량을 받고 있다.

처마는 부연 없이 연목으로만 구성된 홑처마로 추녀부에 선자연이 설치되어 있으며,

종도리와 주심도리로 구성된 3량가로 외기를 구성할 수 없으므로 종도리를 연장하여 총량 위에 동자주를 세워 견고하게 결구시킨 다음, 그 상부에 추녀 2개가 교차하여 측면 가구부를 구성하고 있다.

지붕은 팔작지붕으로 용마루, 내림마루, 추녀마루로 구성되어있다. 각 마루의 구성을 살펴보면 용마루는 착고, 부고 위 적새 5단, 내림마루는 착고 위 적새 3단, 추녀마루는 착고 위 적새 3단을 올렸으며, 솟마루장을 덮어 마감하였다. 각 지붕마루의 단부에는 망와를 설치하여 마감하였으며, 망와 밑에는 머 거불 기와를 받치고 회반죽을 주변에 발라 틈이 생기지 않도록 마무리하였다. 기와의 단부에는 막새 대신에 와구토로 마감하였으며, 내림마루의 경우 목기연 상부에 올라가는 짧은 처마의 기와인 너새기와를 설치하였다.

만대루의 정면 처마 중앙에 만대루(晩對樓)라 새긴 현판을 걸었다. 현판은 사면에 테두리목을 경사지게 들렀으며, 상·하부 테두리목을 빼내어 운공형으로 조각을 하였다. 창건 당시 만대루를 포함한 병산서원의 당실문(堂室門) 현판은 곡강정 江亭) 이호(李瑚, 1553~1626)가 써서 걸었다고 하나 현재의 것이 그의 글씨인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 4. 지정가치 및 종합의견 :

만대루는 주변 자연의 아름다운 환경을 존중하고 비교적 인공을 덜 가하여서 자연과 조화되도록 구성함으로써 자연의 아름다움을 방문하는 사람 누구나 나름대로 즐기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건축적 우수성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배치와 공간구성에 있어 만대루를 매개로 한 강학 공간과 서원 외부공간의 시각적 연속성은 만대루의 독특한 시각적 특성에 의하여 더욱 긴밀해지는 것으로, 즉 만대루는 강학 공간을 외부로 확장하고 전면의 풍광을 건축에 끌어들이어서 주변 자연까지도 건축적 요소로 차용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만대루는 장방형 서원루이며 비교적 이른 시기에 건립되어 표준화된 누문 형식이 아닌 7칸 장방형의 누각 형태로 건립되었다. 전면으로 수려한 경관의 병산이 위치하며 낙동강을 끼고 있기에 누상부를 전면 개방하여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입교당에서 병산을 향해 바라보는 전경은 만대루 지붕 위로 병산의 모습, 상부 기둥 사이로 보이는 낙동강 줄기, 하부 기둥 사이로 보이는 복례문과 진입로까지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어 그 경관성과 장소성이 매우 뛰어나다 할 수 있다.

만대루의 경우 3량 구조로 소규모의 건물에 주로 사용되는 구조를 적용하였으나, 측면 넓이는 5량가의 건물과 유사하며, 휘어진 대량과 대공을 반복하는 구조로 7칸의 도리 길이를 해결하였다. 현재 남아있는 영남지방 서원루 중 가장 길지만, 3량의 간결한 구조는 얇은 지붕 면을 가능하게 하여 누각 상층은 내부 천정 높이를 확보하면서, 입

교당에서 병산을 바라보는 시선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3량가로 외기를 구성할 수 없으므로 층량 상부에 동자주를 세워 종도리 끝단을 보강하여 양측 추녀를 받도록 하였다. 이런 점에서 만대루는 정면 7칸 규모로 장방형임에 불구하고 3량 구조의 가구를 채택하여 팔작지붕 구성하기 위해 종도리와 종도리 장여 뺄목을 길게 뽑아 층량 상부에 올린 동자주와 결합하여 받치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장방형 건축물에서 쉽게 나타나지 않는 형태로서 만대루만의 건축적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병산서원의 경관성과 입지성, 장소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만대루만의 건축적 기능성과 조형성은 병산서원을 우리나라 서원건축을 대표하는 백미라고 보는 사람 누구나 인정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국가 보물로서의 지정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15. 안동 도산서원 도산서당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안동 도산서원 도산서당」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북 안동시 소재 「안동 도산서원 도산서당」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경상북도지사
- (2) 대상문화재 : 사적 제170호 「안동 도산서원」
  - 소재지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도산서원길 154 (토계리 680)
  - 지정일 : 1969. 05. 28.
-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 명칭 : 안동 도산서원 도산서당(安東 陶山書院 陶山書堂)
  - 소유자(관리자) : 도산서원(안동시)
  - 소재지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도산서원길 154 (토계리 680)
  - 조성연대 : 조선시대(1561년 건립)
  - 수량 : 1동
  - 지정면적 : 28.9m<sup>2</sup>
  - 양식 : 정면3칸, 측면1칸, 3량가, 맞배지붕



라. 현지조사의견(2020.09.03.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마. 지정조사보고서 : 붙임참조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원안가결 10명, 부결 1명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0.09.03	대상문화재	안동 도산서원 도산서당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 속		직위(직책)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안동 도산서원 도산서당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 년 10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1. 입지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1) 입지현황

도산서당은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680번지(도산서원길 154)에 있는 도산서원 안에 자리잡고 있다. 안동시에서 북쪽, 예안읍에서 낙동강 상류를 따라 약 5km 올라간 강변 북쪽의 낮은 언덕으로 둘러싸인 곳에 도산서원이 자리 잡고 있으며 서원의 앞쪽 동편에 도산서당, 그 서남쪽에 농운정사가 놓여 있다. 1976년 안동댐이 세워지면서 수위가 상승하여 서원 전면은 과거의 진입로 등이 모두 물에 잠기고 현재는 남쪽에 새로 조성된 진입도로를 따라서 접근할 수 있다.

도산서당 터는 서쪽 인근 해발 442m인 영지산의 산줄기가 동쪽으로 이어져서 이황이 도산이라고 이름을 지은 작은 봉우리와 그 좌우로 갈라진 낮은 언덕으로 감싸인 경사진 곳이다. 퇴계는 ‘도산잡영 병기’에서 ‘영지산 한 줄기가 동쪽으로 나와 도산이 되었다’고 하여 영지산과 도산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전면에는 낙동강 상류 물길이 근접해 있고 물 한 가운데는 과거 이곳에서 과거시험을 치른 일을 기념해서 세운 시사단이 있다. 강 건너는 과거 의인촌이라는 집성마을이 있었지만 현재는 수몰되었다.

서당을 기준으로 보면 왼편에 동취병, 오른편에 서취병이라고 이름 지은 낮은 봉우리가 있고 동취병 가는 길에 천연대, 서취병 가는 길에 천광운영대가 있어서 대에 올라 휴식을 취하고 주변 경관을 바라볼 수 있다. 도산서당에서 북쪽으로 언덕을 하나 넘으면 토계리가 되며 이곳에 퇴계종택이 있고 종택(시도 기념물 제42호)에서 동쪽으로 길을 따라 내려가면 퇴계 묘소에 이르게 된다.

도산서당의 변천과정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조선후기의 그림은 여러 점이 남아 있다. 이정이 그린 「도산서원도」, 월탄 김충석의 「분강촌도」(1710), 겸재 정선의 「도산서원도」(1721)와 「도산서원도」(1735), 표암 강세황의 「도산서원도」(1751) 등이 알려져 있다. 이들 그림과 1954년 이후의 항공사진을 비교해 보면 전체적인 배치와 형태에서 큰 변화 없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역사문화환경

이 일대는 조선시대 예안현인데, 고려시대 안동부의 임내(任內)였다가 1391년(공양왕 3) 무렵 감무를 두고 이웃한 의인현(宜仁縣)을 병합하면서 탄생한 행정구역이다. 1425년 『경상도지리지』에 따르면 예안현과 속현인 의인현을 합쳐 273호였다. 이웃한 안동부와 비교할 때 호수는 1/7, 토지는 1/12정도가 되며, 논의 비율도 안동의 2/7에 비하여 낮은 편이다. 조선전기 내내 예안은 전국에서 손꼽히는 잔읍(殘邑)이었고, 16세기에 들어서도 여전히 잔읍으로 존재하였고, 통폐합이 논의되고 하였다.<sup>257)</sup>

이렇듯이 토착세력이 미약한 예안으로 여말선초 무렵부터 여러 성씨들이 들어오면서

257) 박현순, 「15~16세기 예안현 사족층의 성장과 향촌 사회의 재편」, 『조선시대사학보』26, 2003, 117쪽.

이주자들은 서로 혼인관계를 형성하며 지역 정착의 기반을 구축해나갔다. 16세기에도 여러 가계들이 지속적으로 이주해오면서 새로운 주거지들이 형성되었다. 그 가운데 온계(溫溪)는 진성이씨 이계양(李繼陽)이 시거한 지역으로 이곳을 중심으로 계상, 상계와 하계 등으로 점차 분화되었다.

하지만 예안현에서는 15세기말부터 16세기 전반까지 많은 수의 문·무과 급제자와 생원·진사를 배출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이현보, 이후, 김연, 이황·이해 형제, 이중량 등은 고위 관직에 진출하기도 하였다. 잔읍에 지나지 않았지만 예안현은 과거제도를 매개로 사족층의 성장이 빠르게 진행된 지역이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16세기 후반에는 지역 출신인 이황이 강학을 시작하면서 지역 청년층이 그 문하에서 도학자로 성장하여 예안은 퇴계학파의 구심으로 자리 잡았다.<sup>258)</sup>

퇴계 종택 개울 너머 경사지에는 도산서당과 함께 이황이 사용하였던 계상서당이 있었다. 계상서당은 오랫동안 빈터로 있다가 지난 2000년에 복원하였다. 도산서당에서 북쪽으로 토계 물줄기 상류의 온혜리는 이황이 태어난 생가가 있다. 또 온혜리 계곡을 따라 북쪽으로 가면 도산서당을 지었던 승려 법연과 정일이 머물던 용수사 절이 지금도 남아있다. 이처럼 도산서당 주변 일대는 지금까지도 이황과 연관을 지닌 유물과 유적이 산재해 있다.

현재 도산서원으로 대표되는 유적 안에는 도산서당과 농운정사, 역락서재를 비롯하여 사당인 상덕사(尙德祠, 보물 제211호, 정문 포함), 전교당(보물 제210호), 전사청, 한존재, 동·서재, 광명실, 장관각, 유물전시관 등이 있다. 서원의 배치는 이른바 전면에 강학 공간을, 후면에 사당을 둔 전학후묘 배치인데, 이는 퇴계 생전에 사용하던 서당과 정사를 유지하면서 뒤로 터를 확장하여 서원을 조성한데서 비롯한 배치이다. 매년 봄과 가을에 상덕사에서 향사를 지내고 있으며, 제품(祭品)은 7변(籩) 7두(豆)로 마련한다. 상덕사 안에는 퇴계를 주향으로 모시고 제자인 월천 조목을 종향으로 모셨다.

1969년부터 70년까지 정부의 고적 보존정책에 힘입어 성역화 대상으로 지정되어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시행하였다. 2019년 “한국의 서원((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으로 다른 8개소의 서원과 더불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 2. 도산서당의 연혁·유래 및 특징<sup>259)</sup>

### 1) 도산서당의 구상과 퇴계의 성취

#### 터 선정에서 건물 구상

퇴계 이황은 1549년 49세 되었을 때 학문에 몰두하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삶을 실천하려고 스스로 벼슬을 버리고 고향 예안에 내려갔다. 낙동강 지류인 토계에 자리 잡은

258) 박현순, 『16세기 예안현 사족층의 수학과 관직 진출』, 『교육사학연구』17집, 2007, 81쪽.

259) 이하 글은 제출된 지정 요청 자료고서와 안동군·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도산서원 실측조사보고서』, 1991; 김동욱, 『도산서당 선비들의 이상향을 짓다』, 돌베개, 2012 등 기존 연구성과를 참고하였다.

이황은 1551년 살림집 가까운 곳에 작은 서당(계상서당)을 짓고 머물렀으며 근처에 서재를 지어 원근에서 가르침을 얻으려는 제자들이 모여들었다. 점차 학생들이 늘어나 서재가 비좁아지자 새로운 장소 물색을 위해 애를 쓴 끝에 1557년 알맞은 곳을 찾아서 터를 매입하였다. 새 서당 터는 영지산 자락의 아늑한 곳으로 삼면이 언덕으로 감싸고 앞에는 낙동강 상류 큰물이 흐르는 곳이었다.

그는 스스로 벼슬에서 물러났지만 나라의 부름을 완전히 외면하지 못하고 향리와 서울을 오가는 생활을 계속하면서 이황은 집 지을 계획을 구체화하여 1559년에는 공사를 시작하였다. 이듬해에 서당을 먼저 완성하고 1561년에는 주변 연지나 화단 등을 가꾸고 또 제자들이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정사를 완성했다. 서당은 도산(陶山), 정사는 농운(隴雲)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도산은 서당 뒷산의 이름에서 유래하였고 농운은 중국 시인의 시 구절에서 따왔다.

### 도산서당에서 지낸 10년의 성취

건물이 지어지자 이황은 이곳에서 10년 동안을 지내며 『주자서절요』나 『성학십도』 등 주요한 성리학의 저술을 완성하고 수많은 제자들을 키워냈다. 제자들은 인근 예안은 물론 안동지역에서 찾아오고 멀리 서울에서도 이황의 명성을 듣고 찾아왔다.

도산서당이 있는 곳은 여름에는 관청에서 은어 잡이를 하였고 때문에 이황은 출입을 삼갔고 한 겨울에는 낙동강의 찬 강바람을 피해서 역시 머물지 않았다. 이황은 도산서당 주변의 강물이나 바위, 언덕 등에 하나하나 이름을 지어놓고 이들 자연물을 주제로 한 시를 짓고 틈틈이 제자들과 함께 소요하였다. 이황의 도산서당 생활은 단지 서당에만 한정하지 않고 주변의 산과 강, 바위 등 자연물을 아우르는 생활이었으며 이런 자세는 송나라 성리학자 주희에서부터 비롯되어 조선의 선비들이 향촌에 머물면서 지내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 2) 도산서원의 건립과 도산서당

### 도산서원의 건립

이황은 1570년 12월에 숨을 거두었다.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 조목 등이 앞장서서 선생을 위한 서원 건립을 준비했다. 서원 세우는 일은 3년상이 지난 1573년에 시작해서 이듬해 여름에 완성되었다. 예안의 선비는 물론 원근 제자들이 힘을 모았다. 서원을 건립하면서 이황이 세웠던 서당 건물과 농운정사는 그대로 존치하고 두 건물의 뒤편으로 서원 출입문을 세우고 강당과 사당을 만들었다. 주변의 연못이나 화단, 샘물 등 이황의 자취가 남은 시설들도 모두 온전하게 남겼다. 1613년에는 사당 안에 수제자 조목의 위판을 배향했다. 조목은 퇴계의 제자들 중에 연장자로 선생 생존 당시에 가장 가까이에서 스승을 모셨으며 스승 사후에는 묘소를 조성하는 일에서부터 문집 편집과 서원 건

림에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었다.

### 건물의 수리 이력과 현재

도산서당은 이황 사후에도 건물을 그대로 남겨두고 선생이 사용하던 기물이나 서책 등을 그대로 보존하여 선생의 자취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서당 뒤로 서원이 건립된 이후에는 서원에 들르는 사람들이 서당을 방문하여 그 자취를 엿보았다. 따라서 서당 건물은 거의 고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었다.

변형이 이루어진 부분을 든다면, 건물 동편 암서헌의 처마를 덧댄 부분을 추가에서 기와로 바꾸었고, 흙바닥이었던 바닥을 살마루를 설치했다는 전언이 있는 정도이다. 퇴계는 이덕홍의 조부가 살던 집은 사랑이 1칸이라 손님을 대접하기도 어려웠고, 지붕은 띠로 이었고, 광현(廣軒)은 널빤지였는데, 퇴계는 매양 불 때마다 그 검소함에 탄복하여 추가로 덮었다. 하지만 암서헌의 지붕은 기와로 바뀌었으며, 이는 선생의 본의가 아니었다 한다.<sup>260)</sup>

뒤에 한 서원 원장이 도산서당 실내 도배지를 새롭게 바꾸었다가 선생의 자취를 없애 버렸다고 비난 받고 문적에서 쫓겨났다는 일화가 전해질 정도였다. 「알도산서원기」를 보면, 선생의 수택(手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누추하고 낡았지만 감히 개수하지 못하던 중에 아무개 원장이 종이를 많이 얻어서 벽을 모두 새롭게 도배해버려 한 글자도 남지 않았다고 한다.<sup>261)</sup>

원형을 잘 유지해 오던 서당 건물은 1969년 퇴계 탄생 4백주년을 맞아 정부에서 거행한 도산서원성역화 사업 과정에서 일부 변경이 있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본래 막돌로 간소하게 되어 있던 진입 부분이 장대석으로 바뀌고 주변 막돌 담장도 사괴석으로 바뀌었다. 지붕에도 당초에 없던 막새를 올렸다. 기둥 10개, 도리 6개를 비롯해서 서까래 마루널 등이 신재로 교체되었다.

도산서원은 안동댐 건설로 자칫 수몰 위험이 있었지만 댐 수위를 조절해서 서원을 보존했다. 성역화 사업을 하면서 진입로가 달라지고 주변 경관이 바뀌고 유물전시관 등 새로운 시설이 들어서면 변화가 있었지만 도산서원은 큰 틀에서 본래 모습을 보존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서원 건립의 단초가 되었던 도산서당 건물도 선생이 세우고 10년간 머물던 모습을 거의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 3) 도산서당의 건축특성

#### 도산서당의 배치

도산 일대에서 제일 처음 지어진 건물은 도산서당이며 뒤에 농운정사가 지어졌다. 일

260) 『퇴계집』, 언행록2.

261) 「알도산서원기」, 안동시, 「안동 도산서원 도산서당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 2020, 76쪽에서 재인용.

마 후 이황 생존 당시에 농운정사 앞으로 제자들이 거처할 수 있는 역락서재<sup>262</sup>)가 들어서서 제자들의 영역이 확장되었다. 이황 사후 도산서원이 서당과 정사 후면에 들어서게 되었는데, 진도문을 들어서면 동서 광명실, 전교당 그리고 이황의 위패를 모신 상덕사가 차례로 자리 잡고 있다. 서원이 세워진 후에는 도산서당이나 농운정사 등은 모두 도산서원 경내 시설로 합쳐졌다.

도산서원의 배치는 영남지역 서원에서 가장 많은 유형인 전학후묘를 따르고 있으나 이는 말했듯이 생전에 지어진 건물을 그대로 두고 후면에 서원을 조성한 데서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도산서원의 배치를 퇴계가 경영한 도산서당의 배치 정신을 계승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퇴계는 동쪽에 도산서당, 서쪽에 농운정사를 설립하여 동쪽과 서쪽의 위상과 기능을 다르게 설정하여 서당을 경영하였고, 이런 퇴계의 의도는 도산서원에도 반영되어 동쪽 영역에 사당과 장판각 등을 배치하여 제향과 강학공간이 돋보이게 하였고, 서쪽으로 전사청을 비롯한 지원 시설을 두었다<sup>263</sup>)는 것이다.

도산서당 주변에는 이황이 직접 이름을 짓고 시를 읊은 많은 시설들이 둘러싸고 있다. 서당 바로 앞마당에는 방형의 작은 연못인 정우당(정우당), 그 바깥 울타리에는 유정문(유정문)이라는 이름의 사립문, 서당 동편 개울 건너에는 절우사(절우사)라는 화단이 있고 서당 남쪽 진입로 부근에 맑은 샘물이 나오는 몽천(몽천)이, 그리고 예안읍에서 서당으로 진입하는 첫 입구인 곡구암이 있었다. 이 가운데 곡구암은 수몰되어 찾아 볼 수 없고 나머지 시설들은 모두 제 자리에 잘 남아있다.

## 건물의 특성

도산서당은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로, 평면 구성을 보면 동쪽부터 마루 1칸, 가운데 온돌 1칸, 서쪽에 부엌 1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황은 마루방은 암서헌(암서헌), 온돌방은 완락재(완락재)라고 이름을 지었다. 암서헌은 손님을 맞이하고 의례를 거행하는데 이용했으며, 완락재는 책을 읽고 잠을 자는 곳이었다. 북쪽과 서쪽은 텃기등을 세워서 공간을 약간 확장할 수 있도록 하고 동쪽은 반칸 크기의 텃지붕을 설치하였다.

아래에 옮긴 글은 이황이 건물을 짓고 나서 쓴 글이다. 암서헌과 완락재 이름이 지닌 의미와 근거를 풀이하였으며 이를 모두 합쳐서 도산서당이라 불렀음을 밝히고 있다.

“...정일이 이어받아서 정사로부터 신유에 이르기까지 다섯 해 만에 당이니 사니 하는 두 집이 대략 이룩되어 머물 수 있게 되었다. 당은 3칸인데 1칸은 ①‘완락재’이니, 이는 주 선생(주자)의 「명당실기」 중에 ‘즐거 완상하며 일생을 마친다 하여도 싫증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라는 구절에서 따 온 말이다. 동쪽의 1칸은 ②

262) 역락서재는 원래 농운정사보다 더 서쪽에 자리를 잡았으나 퇴계 사후에 현 위치로 이진된 것이다. 안동시, 「안동 도산서원 도산서당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 2020, 93쪽.

263) 이상해, 「도산서당과 도산서원에 조영된 퇴계의 서원 건축관」, 2001, 561~562쪽.

‘암서헌’이니, 운곡 시의 ‘스스로 신실하여지려고 오래 노력하였어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바위틈에 숨어 살면서 조금 보탬이 있기를 바라노라’라는 말에서 글자를 따온 것이다. 그러고는 또 ③합하여 도산서당이라 하였다.”

덧지붕 부분은 이황의 제자 금난수가 쓴 「도산서당영건기사」에 익침이라고 적었다. 기둥 간격은 정면쪽 3칸이 모두 다른데, 암서헌이 2.76m, 완락재가 2.46m, 부엌이 2.14m로 당시 척수로 환산하면 대략 9자, 8자, 7자가 된다. 위계에 따라 기둥 간격을 1자씩 차등을 두었다고 짐작된다.

흥미로운 시설은 살평상인데, 암서헌 동쪽 끝에 달아맨 평상으로 상면 전체를 덮지 않고 살대처럼 만든 독특한 평상이다. 이 살평상은 이황이 제자인 이덕홍의 조부 이현우의 집에서 배운 것이라고 한다. 이현의 집은 비좁아서 처마 밑에 방을 달아매 사용하였다. 그것을 본 이황은 검소함에 찬탄을 금치 못하여 ‘모름지기 선비란 이리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 처마 밑에 달아맨 방을 도산서당 한쪽에 가져다 놓았다고 한다.<sup>264)</sup> 그런데 이 살평상을 설치한 시기에 관해서는 퇴계 당시에는 없었으나 제자인 정구가 안동부사 시절에 유의(遺意)를 받들어 나중에 만들었다고 한다.<sup>265)</sup>

퇴계는 서가를 잠자리 아래쪽에 두지 않았다. 도산서당 평면을 보면 방 가운데 서북쪽 벽에 서가를 꾸미고 서쪽 면은 높은 길이의 절반 정도를 두어 격리하였으며 그 사이를 비웠다. 서가 설치 위치를 두고 의문을 제기하는 제자 금난수에게 퇴계는 ‘잠자며 기거하는 곳인데 성현의 경전과 훈계를 등 뒤에 두는 것은 온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연유를 밝혔다.<sup>266)</sup>

집은 막돌 한 단을 쌓은 낮은 기단 위에 마련하였고 주춧돌도 거의 가공이 없는 자연석을 사용하였다. 기둥은 네모기둥인데, 암서헌 주변의 기둥들은 모서리를 비스듬하게 다듬었다. 구조는 민도리 3량으로 가장 간결한 방식을 택했다. 도리는 사찰던 단장혀를 사용하였는데, 일부는 나무축을 박아 고정시켰다. 몸체 부분은 처음부터 기와를 올렸고 익침 부분은 바로 앞에서 거론하였듯이 처음에는 이엉을 엮었다가 후대에 기와로 바꾸었다.<sup>267)</sup>

창호들은 암서헌에서 완락재 사이에 세 짝의 판문을 두고 완락재 남쪽 벽에 낮은 살문, 남쪽 부엌 칸에 좁은 출입문과 살창을 두었는데, 창문 형태가 모두 다르고 개폐방식에 차이가 있지만 하나 같이 가공이 간결하고 소박한 모습이다.

중간설주는 쌍여닫이 창의 중간에 세운 설주를 가리키며, 조선중기에 널리 쓰인 창호

264)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안동문화대전, 검색어; 도산서당.

265) 안동시, 「안동 도산서원 도산서당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 2020, 76쪽.

266) 금난수, 「도산서원영건기사」; 김동욱, 「도산서당 선비들의 이상향을 짓다」, 돌베개, 2006, 113쪽에서 재인용.

267) 「퇴계선생언행록」에는 암서헌의 덧댄 처마가 근래에 기와로 고쳤는데, 선생의 본래 뜻이 아니었다는 글이 있고 또 18세기 문인 오희상의 문집 『노주집』 권15 도산기행에도 암서헌은 옛날에는 짚으로 지붕을 덮었는데 지금은 기와로 고쳤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



부재의 하나이다. 지금도 예천 야옹정, 상주 양진당 등 영남지방의 16세기 건물에서 널리 찾아 볼 수 있으며 대전 동춘당이나 예산 추사고택 등 17세기 이후 호서 지방에서도 드물게 확인된다. 또 창덕궁 성정각, 육상궁 내 냉천정 등 궁궐이나 왕실 사묘에서도 드물지만 사례가 남아있다.

도산서당에서는 암서재 북쪽에 설치한 쌍여단이 판창 중간에는 설주가 남아있다. 설주의 두께는 창틀과 동일한 90mm로, 견고하고 안정적인 짜임이다. 도산서원에는 전교당의 대청 후면과 측면 창호 다섯 곳에 모두 중간설주가 설치되고 온돌방 남쪽 여단이창에도 중간설주가 남아있어서 서당 건물이나 이 보다 10 여년 늦게 세워진 서원 강당 건물 모두에서 중간설주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중간설주는 후대에 가서 창호를 수리하면서 제거되는 경향을 보인다. 도산서당과 같은 시기에 지은 농운정사에서는 지금 중간설주 설치된 창호를 확인할 수 없는데, 후대에 건물을 수리하면서 제거한 것으로 추측된다.

중간설주는 창호의 기술적 변천과정을 보여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으며, 건물의 조성 시기나 시대적 특징을 반영하는 요소로 각별한 가치가 있다. 도산서당은 내부 도배지 한 장도 함부로 교체하지 않고 퇴계선생의 자취를 최대한 남기려는 자세를 유지해온 것으로 전하며, 암서재 북쪽 창호의 중간설주는 이 건물이 16세기에 지어진 이래로 지금까지 그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 3.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 인문적 가치

이 건물은 이황이 말년 10년을 지낸 곳으로 조선시대 성리학의 주요한 업적으로 평가되는 많은 저서들의 산실이었다. 「전습록논변」(1566), 「무진육주소」(1568), 「성학십도」(1568) 등이 이황이 도산서당에 거쳐하던 시절에 찬술한 그의 업적들이다.

이황은 이 건물에 거쳐하면서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쳤다. 이황이 가르친 제자들은 3백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가운데는 도산서당에서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 중에는 조목, 금난수 등 예안 출신 제자들 외에 예천 권문해, 안동의 권호문, 유운룡, 유성룡, 김성일 형제, 그리고 멀리 서울에서 사는 김취려 등이 확인된다. 이들은 농운정사에 머물면서 수시로 인접한 도산서당에 찾아가 이황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고 짐작된다. 이황은 때때로 제자들과 함께 서당 주변의 경승을 즐기거나 멀리 청량산까지 이동하여 자연을 벗 삼기도 하였다.

도산서당은 퇴계학으로 불리는 조선 성리학의 큰 학문적 결실이 이루어진 현장인 동시에 스승과 제자가 함께 공부하고 자연을 소요하던 행적이 오롯이 남아있는 현장이다. 그와 같은 학문과 교육의 현장은 조선시대에는 전국에 걸쳐 지어지고 운영되었지만 대

다수는 사라지고 없으며 도산서당은 본래 모습이 잘 남아있는 많지 않은 유적에 속한다.

### 경관적 가치

이황은 도산서당에 머물면서 주변 곳곳의 자연물에 이름을 붙이고 시를 지어 무생물에 지나지 않는 자연물을 인문 세계로 끌어들었다. 이황이 지은 7언절구 17수에는 암서헌과 완락재는 물론 입구의 곡구암, 천연대, 천광운영대, 반타석, 탁영담, 동취병, 서취병 등 서당 주변 자연물이 주제로 등장하며 오언절구 26수에는 더 멀리 외곽의 시냇가 벼들, 안개 낀 숲, 갈매기 모래톱, 강가의 절 등이 주제가 되었다. 또 이황은 국문으로 노래로 부를 수 있는 도산십이곡을 지었다.

이황이 산천을 벗 삼아 자연을 노래하는 모습은 궁궐에도 전해졌다. 명종은 이황에게 벼슬을 내리고 서울로 올라오도록 했지만 이황은 병을 핑계로 가지 않았다. 명종은 이황에게 병 조리를 잘 하라는 당부를 내리고 화공을 시켜 도산의 경승을 그림으로 그리도록 하고 병풍으로 만들어 자신의 침소에 둘러치라고 명하기도 하였다.<sup>268)</sup> 아쉽게 이런 도산서당 주변의 경관은 지금은 많은 부분이 사라지거나 달라졌지만 기본적인 지리의 틀이나 물리 환경은 잘 남아있는 편이다.

### 건축적 가치

도산서당은 한 선비가 조용히 학문에 침잠하고 또 찾아오는 손님을 맞이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을 갖추고 있다. 그러면서 군더더기가 없는 최적의 규모로 이루어져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면 3칸에 측면 1칸 규모는 선비가 홀로 사색하며 지내기에 알맞은 규모라고 할 수 있으며 마루, 온돌방, 부엌으로 이루어진 실내는 선비의 거처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최적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규모의 서당이나 정자는 16세기 영남지방에서 널리 지어졌다고 짐작되는데, 지금도 권벌이 지은 봉화의 충재, 이연적이 지은 경주 독락당 계정, 금난수가 지은 예안 성성재 등에서 유사한 사례를 볼 수 있다. 17세기 이후에는 선비들의 서당이나 정자는 규모가 커져서 정면 3칸에 측면 2칸이 일반적인 규모가 된다. 이 시기에 들어오면 선비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경제 여건도 향상되며 문중이나 동료 문인간의 교류가 활발해 지는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도산서당은 16세기 조선의 성리학이 학문적인 성취에 충실하던 시기의 문화적 성향을 건축으로 잘 드러낸 대표적인 건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도산서당은 후면과 서측면에 뒷기둥을 두어 실내 공간을 확장하였는데 완락재 후면 뒷기둥 사이는 서책이나 집기를 두는 선반으로 활용하고 서측면 뒷기둥은 부엌을 확장하

268) 『명종실록』권32, 명종 21년 5월 22일.

는데 이용했다. 또 완락재와 부엌 사이에는 반침을 두어 생활 집기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측면에는 익침을 설치하여 암서재 마루방에 비가 들이치는 것을 막았다. 이 점은 비슷한 시기 권별이 봉화에 세운 층재가 뒷기둥이나 익침 없이 단순히 3칸만으로 구성된 점과 구별된다. 16세기 3칸 서당 건물 중에서도 도산서당은 후면에 뒷기둥을 세우고 측면에 익침을 추가하여 공간의 여유를 만들어 낸 점에서 16세기 지어진 선비의 건축에서 한 걸음 나아간 공간 구성을 보여준다.

#### 4. 종합의견

도산서당은 16세기가 배출한 뛰어난 성리학자인 퇴계 이황이 여러 해에 걸쳐 고심을 거듭하여 만들어낸 건축물이다. 집이 들어선 터는 선비가 학문에 침잠하고 자연을 관상하기에 알맞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건물은 전체 3칸의 작은 규모지만 후면과 서측면에 뒷기둥을 세우고 동측면에는 익침을 두어 한 사람의 선비가 거처하기에 부족함 없는 공간을 갖추고 있다. 이황 사후에 도산서원을 세우면서는 서당 건물과 농운정사를 그대로 둔 채 그 뒤로 서원을 조성하여 선현의 유적을 온전하게 보존하였다.

이런 인물적, 역사적 가치와 더불어 이 건물의 건축적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도산서당은 조선 성리학의 큰 학맥을 이룬 퇴계 이황이 말년의 10년을 보낸 곳으로, 선생 생전의 건물모습이 거의 달라지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 이곳에서 선생은 주요한 저술 작업을 하고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쳤다. 도산서당은 16세기 선비들이 추구한 건축적 이상이 잘 구현된 건물로 평가된다. 정면 3칸, 측면 1칸 최소한의 규모 안에 마루와 온돌, 부엌 각 1칸의 간결한 실내 구성을 하여 선비의 일상을 담고 있으며, 소박하면서 기능적인 다양한 형태의 창문을 설치하여 단정한 건물 외관을 이루고 있다. 선생 사후에는 서당을 그대로 남겨 두고 그 뒤편으로 서원을 조성하여 선현의 유적과 서원이 경내에 함께 남아있는 드문 사례가 되었다.

이런 점에서 도산서원 내 도산서당 건물은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된다.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0.09.03.	대상문화재	안동 도산서원 도산서당	
조사자	성 명	○ ○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 속	○ ○ ○ ○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안동 도산서원 도산서당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9월 29일

제출자

○ ○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1.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 환경

안동 도산서당은 1561년에 퇴계 이황이 직접 설계하여 건립한 서당으로 퇴계의 말년에 강학공간으로 사용되었다. 도산서당은 안동 도산서원과 함께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에 위치하고 있다. 안동은 지리적으로 경상북도 북부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 동에는 영양과 청송, 서에는 예천, 남에는 의성, 북에는 영주와 봉화가 인접한 교통의 중심지이다. 태백산맥이 줄기차게 뻗어 그 지맥을 이루고, 낙동강은 북에서 남으로 흐르다가 시가지 동측에서 반변천과 합류하여 서쪽으로 관통하여 흐르고 있다. 안동시에서 북동쪽으로 27.4km 떨어진 곳에 있으며 시내에서 35번 도로를 따라 한국국학진흥원을 지나 도산서원길에서 도산서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1.4km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이 산지로 북부 면계에는 산성산(山成山, 481m), 용두산(龍頭山), 국망봉(國望峰, 481m) 등이 솟아 있어 북쪽이 높고 면의 동부를 낙동강이 굽이치면서 흐르고, 그 남동부에는 비교적 넓은 충적평야가 형성되어 있다. 도산면의 지명유래가 되는 ‘도산’은 예안 고을의 9곡 가운데 제4곡과 제5곡사이에 위치하는 산으로 현재 도산서당이 자리 잡은 부근의 지명이다.<sup>269)</sup> 주변으로 동쪽으로 왕모산(648m), 북쪽으로 건지산, 서쪽으로 영지산이 자리하고 남쪽으로 낙동강이 굽이쳐 흐르고 있다. 왕모산은 동에서 남으로 돌아돌고 영지산은 서에서 북으로 돌아드는데, 도산은 영지산에서 돌아드는 산에 남쪽으로 자리하고 있다. 도산은 북쪽으로 계상에 토계천이 흐르고 퇴계종택과 건너편에 한서암과 계상서당이 자리하고 동쪽으로 건지산을 따라 내려오는 남쪽 자락에 퇴계선생묘소가 자리하고 있다. 남쪽으로는 남서쪽으로 흐르는 산이 구불거리며 남쪽으로 동취병과 서취병으로 갈라지고 동취병쪽으로 몽천수가 흘러 곡구암을 거쳐 낙동강에 합류된다. 도산서당은 배면에 도산과 정면에는 낙동강(안동댐)을 바라보는 좌좌정향의 좌향에 배산임수형으로 자리하고 있다. 영지산을 조산으로 하는 도산의 혈자리에 해당하는데 마치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모습인 봉화포란형이라고 한다.<sup>270)</sup> 퇴계의 도산서당 입지 선정에서 퇴계집과 도산잡영 병기 등에 동기감응론(同氣感應論)적인 측면과 풍수 용어를 사용한 시와 산문을 통해 풍수를 활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퇴계이황은 서원 건립에 적극적이었으며 이를 통한 성리학의 토착화에 노력하였다. 서원은 지방교육의 상징적 기구로 강학(講學)과 장수(藏修)를 근본으로 하는 사학이다. 서원을 통해 조선시대 사대부의 정신세계와 자연관을 읽어볼 수 있고 건축에 어떻게 스며들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주세붕과 우탁, 정몽주, 이숭인, 길재 등이 영남사

269) 안동시 도산면 홈페이지 - <http://www.andong.go.kr/csc/dosan/contents.do?mId=0202000>

270) 박정해, 퇴계학과 유교문화, 도산서당의 전통 입지환경, 2012. 퇴계는 ‘영지산 한 줄기가 동쪽으로 나와 도산이 되었다’고 하여 조산(祖山)은 영지산이고 주산(主山)은 도산(陶山)이라고 밝히고 있다. 도산은 거문(巨門) 토성체(土星體)인데, 탐랑(貪狼) 목성체(木星體)와 무곡(武曲) 금성체(金星體)와 더불어 삼길성(三吉星)이라고 한다. 도산서당은 도산을 주산으로 안산은 거문(巨門) 토성체(土星體)이고 혈형(穴形)은 와혈(窩穴)이다.

림의 줄기가 되고 농암 이현보와 퇴계 이황에 와서 꽃을 피우고 이후 학봉 김성일, 서애 류성룡, 경당 장흥효, 갈암 이현일, 대산 이상정 등이 퇴계의 학맥을 잇고 있다.

퇴계학파를 잇는 문인은 도산급문록을 통해 정지운(鄭之雲)을 비롯하여 40명, 조목(趙穆)을 비롯하여 35명, 김명원(金命元)을 비롯하여 59명, 유근(柳根)을 비롯하여 131명, 금응석(琴應石)을 비롯하여 4명 등 총 309인이 수록되어 있다고 한다. 조선시대 전국적으로 퇴계가 제향된 서원은 31개소로 퇴계 제향의 서원 중 도산서원은 으뜸가는 지위를 가진 수원(首院)이다. 또한 1868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 때에도 남은 47개의 서원 중 하나이고 세계문화유산 중 하나로 서원의 전신인 도산서당은 중요한 문화재라고 할 수 있다.

도산서당은 도산잡영, 도산서당영건기사(1530-1604), 도산기(1561), 알도산서원기(2007), 퇴계집, 퇴계선생문집(1600), 계유묘우수리시일기(1813 추정), 암서헌수리일기(1929), 농운정사수리일기부(1932), 등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 이 지역의 선비문화와 영남학파의 관계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수리 등에 대한 기록도 도산서원수리일지에 기록되어 있으며, 도산사원도(1721, 겸재 정선), 도산사원도(1581-?, 허주 이징), 분강촌도(1710, 월탄 김창석), 도산사원도(1751, 표암 강세황), 도산전도(연도미상, 고봉), 도산서원도 부채(연도미상, 겸재 정선), 도산사원도(작가미상, 조선후기) 등의 옛 그림이 남아있어 이를 통해 시대별 도산서당 및 도산서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현대의 성역화 이전의 사진을 보면 변형된 부분이 다소 남아 있어서 원형을 복원하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안동 도산서당은 1561년 퇴계 이황이 직접 설계한 건축물로 퇴계의 건축관이 잘 드러나 있다. 설계도 ‘옥사도자’를 그렸던 기록과 택지 및 공사와 관련된 기록, 설계 의도 등이 고문헌에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다.

도산면 유교문화재에는 도산서원(사적 제170호), 예안향교(시도유형문화재 제28호), 궁구당(시도유형문화재 제32호), 농암사당(시도유형문화재 제31호), 시사단(시도유형문화재 제33호), 애일당(시도유형문화재 제34호), 용암정(시도유형문화재 제41호), 농암사당(시도유형문화재 제31호), 고산정(시도유형문화재 제274호), 월천서당(시도기념물 제41호), 퇴계종택(시도기념물 제42호), 안동서부송곡고택, 변남고택(국가민속문화재 제268호), 안동토계동계남택(시도민속문화재 제8호), 퇴계태실(시도유형문화재 제3호), 수졸당 및 재사(시도민속자료 제13호) 등이 있다. 인접한 문화재는 강 건너에는 시사단, 남동으로 안동 변남고택, 북측으로 퇴계종택, 동측으로 수졸당 및 재사가 위치하고 있다. 안동 도산서원(사적 제170호) 경내에는 안동 도산서원 전교당(보물 제210호), 당(보물 제21호), 상덕사 및 삼문(국가민속문화재 제211호) 등이 있다. 그 외에도 도산서당의 기둥과 벽면에 걸려있는 도산서당, 완락재, 암서헌 등의 편액은 퇴계의 친필로 전해지고 있으며, 원본이 퇴계 유물전시관 ‘옥진각’에서 보존되고 있다.

도산서원은 1570년(선조 3) 퇴계가 세상을 떠나고 이듬해 조목 등 예안사족들이 주축이 되어 도산서당의 위쪽 부지에 추진하고 있다. 일읍이원(一邑二院)의 문체와 건립비용의 부담으로 안동과 예안으로 대별되는 퇴계학과 내부의 갈등 이후 1574년(선조 7) 봄에 착공하여 1년 여의 공사로 1575년(선조 8)에 준공하고, 퇴계의 위패봉안은 1576년(선조 9) 2월 12일에 거행하고 있다. 도산서원의 기능은 퇴계의 강학과 장수를 위해 설립한 도산서당을 포함하여 상덕사(尙德祠)에 매년 2월과 8월 중정일에 춘추향사를 거행함으로써 제례, 경전을 강론하는 강학, 수신하는 장수(藏修) 등을 수행하고 있다.<sup>271)</sup> 안동 도산서원은 퇴계의 생전에 건립한 도산서당, 농운정사, 역락서재 그리고 퇴계 사후에 건립된 전교당, 상덕사 등의 서원 건축물 등이 있다. 도산서원의 배치는 전학후묘의 배치로 영남지역의 일반적인 배치이다. 퇴계가 지은 건축물을 그대로 두고 후면에 건축된 서원이다. 동쪽에 강학공간이자 퇴계가 거주하던 도산서당과 서쪽에 퇴계의 문하생들이 공부하던 농운정사가 가장 중요한 건물이고 후에 이를 그대로 두고 후면으로 확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후에 퇴계 생전에 지헌 정사성이 문하생으로 들어올 때 그의 부친 죽헌 정두가 건립한 역락서재가 농운정사 서쪽에 건립되고 있다.<sup>272)</sup> 선현의 위패를 모신 사당인 상덕사를 가장 높은 북동쪽에 배치하여 제향영역을 이루고, 강당인 전교당과 마당을 두고 좌우에 동서재를 배치하여 강학영역을 이루고 있다. 제향영역의 지원시설인 전사청을 상덕사의 서쪽과 전교당의 지원시설인 상고직사를 서쪽 배치하고, 전교당의 동쪽과 상덕사의 남동쪽에 장판각을 배치하고 있다. 내대문의 좌우로는 동서광명실을 배치하고 있다. 농운정사는 풍광을 감상하고 휴식공간인 관란헌을 정사의 서측 전면과 문하생들의 공부방인 시습재를 정사의 동측 전면에 배치하고, 문하생들이 거처하던 지숙료는 중심부 4칸에 배치하고 있다. 건립 당시에 고직사가 없었던 도산서당의 부엌과 고방으로 추정되는 배면 두 칸의 실이 배치되고 있다. 도산서당과의 관계에서 거리가 있고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것지만 서당에서 볼 수 있는 동쪽에 강학공간을 배치하고 있다. 서당 앞의 마당에는 방형의 연못을 만들어 정우당이라 이름 짓고 담장의 가운데 사립문을 달아 유정문이라 이름하고 있다. 담장 밖에는 샘이 있어 몽천이라고 하고 그 동쪽에는 절우사라는 화단을 가꾸었다. 서당의 남쪽에는 우물을 만들어 열정이라 이름지었으며, 몽천을 따라 남으로 내려가면 산의 문처럼 생긴 바위가 있어 곡구암이라 하였다고 한다. 절벽에는 대를 쌓아 서쪽에는 천광운영대, 동쪽에는 천연대라 이름지어 풍경을 감상하는 장소가 되었다. 외에도 탁영담, 반타석, 서취병, 동취병 등등의 자연, 또는 자연에 인공적인 가미를 하여 이름 붙여 서당의 건축을 확장시켰다.<sup>273)</sup>

271) 위패봉안 이전인 1575년(선조 8)에 조정으로부터 편액을 받아 경제적 토대로 구축할 수 있었을 것이다.

272) 현재의 역락서재는 퇴계 사후에 이진된 것이지만 농운정사 서쪽에 위치한 것은 같으나 확인하기 어렵다.

273) 도산잡영의 유정문, 정우당, 절우사, 탁영담, 천연대천운대, 몽천열정 등과 안동시,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도산서원 실측조사보고서, 191, p24~25

도산서원은 전역이 사적으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도산서당 동측 암서헌의 가섭지붕은 본래 초가지붕이던 것을 후에 바꾸었고, 동측 퇴칸 마루는 퇴계의 유의(遺意)를 받들어 설계대로 한강 정구가 안동부사 시절에 만들고 있다. 이 또한 역사의 한 단면으로 보존되어야 하고, 퇴계가 직접 지은 건축물로 함부로 손대지 못하고 손을 댄 자는 그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으로 기록되어 잘 보존되어 온 것이 확인된다. 그러나 상덕사를 문화재로 지정할 당시 묘우를 둘러싼 토담을 포함하였지만 보수공사 때 돌담장으로 바꾸면서 제외되고, 성역화 과정에서 대대적인 중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단은 자연석 기단이지만 사용된 석재의 크기가 다르다. 지붕의 변화가 많이 보이는데 수키와는 언강노출로 마감되고 바닥기와는 암기와이다. 내림마루의 끝이 가섭지붕의 내림마루와 맞물려 있으며 머거불이 수직하고 있고, 용마루의 쌓기와 내림마루의 끝에는 망와 등이 다르다. 정우당은 자연석 쌓기로 축조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변형은 추후 보수공사 시 원형 회복을 위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조선고적도보의 사진을 통해 자연석 석축과 정문과 비슷한 높이의 낮은 토석담 등이 확인되는데 현재는 높아져 경관이나 위요감을 다른 공간감을 주고 있다. 최소한 정화사업으로 변형되어 공간감을 해치고 있는 부분은 최소한 원형 복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도산서당은 서당건축의 초기적인 형태인 3칸 구성이지만 좌실우당형의 보기 드문 평면으로 최소한의 공간에 주칸의 너비를 다르게 하거나 퇴칸을 활용하는 등의 변형을 통하여 효용성을 높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퇴계가 건축에 직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건축가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고, 고문헌을 통해 건축 참여인물과 관련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철저한 보존 및 보수로 관리되어 왔다. 나아가 학문 및 수양과 연계된 공간의 관계와 자연으로의 확장 등 최소한의 공간이지만 공간의 확장을 통해 자연과 합일되는 시적 거주를 하고 있다.

## 2. 연혁·유래 및 특징

도산서당은 퇴계가 말년에 강학을 위해 지은 건축물로서 1551년에 건립된 2칸의 계상서당(溪上書堂)을 전신으로 문도가 늘자 수용이 어려워 문인들의 고쳐 짓자는 세 번의 소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1557년 3월 자리에 대한 영감<sup>274)</sup>을 받고 짓는다고 확정하자 용수사(龍壽寺)의 승려인 법련(法蓮)이 자원하여 건축을 맡았다. 1558년 3월 먼저 후에 천연대인 창랑대(滄浪臺)를 쌓고 조경을 시작하고 있다.<sup>275)</sup> 11월 초에 옥사도자(屋舍圖

274) 퇴계선생문집 內集 卷2, 葉39~40;尋改卜書堂地 得於陶山之南有感而作二首 … 萬化窮探吾豈敢 願將編簡誦遺音.



子) 두 종류를 장자 준에게 보내 법련과 의논하여 정하게 하고, 설계도에 미진한 부분을 그려 이문량(李文樑)과 조목(趙穆)에게 보내면서 법련과 상의하게 하하고 있다.<sup>276)</sup> 1559년 정월에 법련이 사망하자 이문량이 건축을 담당할 용수사의 승려인 정일(靜一)에게 맡기고 있다.<sup>277)</sup> 1561년<sup>278)</sup> 당 3칸으로 마루 암서헌과 온돌방 완락재라고 하고 도산서당이 준공되고 있다. 같은 해 서당의 서쪽에 정사(精舍) 8칸을 지어, 휴식 공간인 헌(軒)은 관란(觀瀾), 학생들이 공부하는 장소인 재(齋)는 시습(時習), 잠자는 공간인 요(寮)는 지숙(止宿)으로 하여 농운정사(隴雲精舍)라 이름하고 있다. 이러한 1557년 택지하여 1561년 완공까지 5년의 과정을 거쳐 완성되고 있다.<sup>279)</sup> 1562년에 어린 나이의 학생들이 독서하고 거처할 장소로 지은 역락서재는 제자 정사성(鄭士誠)이 처음 학문을 배우러 왔을 때 그의 아버지 침(琛)이 아들을 위해서 지어준 별채로 처음에는 동몽재(童蒙齋)라고 하고 있다.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로 동쪽부터 마루, 온돌방, 부엌으로 구성되어 전면에 쪽마루가 놓여있다.<sup>280)</sup> 이후 관직으로 상경하였던 일부 기간 외에는 도산서당에서 학문의 연구와 강론에 매진하고 있고, 1670년(선조 3) 2월에 역책<sup>281)</sup>하고 있다. 일읍이원(一邑二院)의 문제와 건립비용의 부담으로 안동과 예안으로 대별되는 퇴계학과 내부의 갈등 이후 1574년(선조 7) 봄에 착공하여 1년여의 공사로 1575년(선조 8)에 준공하고, 퇴계의 위패봉안은 1576년(선조 9) 2월 12일에 거행하고 있다.<sup>282)</sup> 이후 암서헌의 뒷간의 마루는 없었으나 한강 정구가 안동부사 부임(1607년-1608년) 당시 유의를 받들어 만든 것으로, 기존의 마루와 구분하기 위해 살마루로 하고 있다.<sup>283)</sup> 도산서원은 퇴계가 지은 도산서당이 갖는 상징성으로 후대의 문인들이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선불리 보수 등을 하지 않고 있다. 1561년 도산서당, 농운정사 건립(퇴계집) 이후의 보수 이력은 1813년 묘우수리 암서헌 허물어진 곳 수리((癸酉廟宇修理時日記), 1929년 암서헌 수리 비 새고 파손되는 부위 점검 및 수리, 번와 보수(巖栖軒修理時日記, 己巳), 1931년 곡구도로 수선 절우사 및 정우당 제축 보수, 유정문 바깥담 개축, 암서헌 동쪽 담 보수(谷口道路修繕時日記附, 辛未), 1932년 농운정사 수리 암서헌 바깥

275) 도산잡영, 퇴계선생문집고증권지2 제2권, 58年 戊午 3月條, 築滄浪臺 後改天淵 …

276) 여리대성, 여조사경

277) 답조사경

278) 도산서당의 준공은 ‘서애보(西涯譜)’에 1560년으로 기록되었으나 ‘광희보유본(廣瀨補遺本)’에 1561년(61세)라 하는데 문화재청에서 간행한 『안동 도산서원 전교당, 상덕사 및 삼문 정밀실측조사 보고서(상)』 p64의 내용에 따라 1561년으로 한다. 퇴계의 갑년(甲年)은 신유년(1561년)이고 월천(越川) 조목(趙穆)에게 보낸 2통의 편지의 간지를 근거로 한다. 도산기, 도산잡영 병기 e,dd: 기록되어 있다.

279) 성재(惺齋) 금난수(琴蘭秀)의 성재문집 “도산서당영건기사(陶山書堂營建記事)”

280) 도산서원 실측조사보고서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1, P.28. 현재 역락서재는 농운정사 서남방에 위치하고 있지만 서애보(西涯譜)나 표암 강제황(1713~1791), 허주 징(1581~?), 월탄 김창석(1652~1720)의 ‘도산서원도’를 살펴보면 농운정사의 서쪽 언덕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역락서재의 위치가 어떠한 바깥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의 위치도 도산서당과 농운정사의 배치에서 비켜선 곳에 배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281) 역책(易簣)은 증자(曾子)가 죽을 때를 당하여 샅자리를 바꾸었다는 것에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의 죽음이나 임종을 이르는 말로 사용한다.

282) 『선조실록』, 『인조실록』에 나타난다. 권기환, 도산서원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2016, p.30 참조

283) 이익, 성호전집 53, 알도산서원기, 국립문화재연구소, 서원향사(소수서원, 도산서원), 201, p.171.

문 층계 신축, 유정문 외로 수선(隴雲精舍修理時日記附, 壬申), 1969-1970년 보수정화사업(문공부 직영) 도산서당 전면 해체 보수, 석축 및 담장 개축(도산서원중수지), 1977년 서원 광장 조경 마당 정비, 유정문 교체(경상북도 문화재정보화), 1989년 장관각 및 도산서당 보수(확인 불가), 2007년 도산서당, 장관각 및 협문 변화 보수 부식재 교체 및 변화, 벽체 공사(수리자 블로그) 등이다.

도산서당은 지형에 따라 대지를 조성하고 서당을 중심으로 앞마당과 뒷마당을 조성하고 연못과 출입구를 제외하고 담장으로 두르고 있다. 정면의 담장에는 유정문이 있고, 남동쪽에 연못을 조성하고 뒷마당에는 화단을 조성하고 있다.

도산서당은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一’자형의 목조기와집이다. 평면구성은 좌우측면과 배면에 퇴칸을 내고, 왼쪽부터 부엌, 온돌방(완락재), 대청(암서헌)으로 구성되고 있다. 주칸은 부엌 폭 약 2,140mm, 온돌방 약 2,460mm, 대청 약 2,760mm로 달리하고 있다. 강학이 주로 이루어지는 대청을 크게 마련하고 방은 작은 대신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한 것으로 추정된다. 퇴칸의 주칸도 좌측면 약 980mm, 배면 약 410mm, 우측면 약 1,930mm로 다른 것은 쓰임새에 따라 간살을 잡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루는 동귀틀이 사용되지 않은 대청의 우물마루와 퇴칸의 살마루<sup>284)</sup>로 구성된다.

완락재는 서가와 방으로 구성되고 있다. 서가는 하인방이 바닥으로부터 떨어져 설치되고 좌측에 작은 외짝 창호가 설치되어 있다. 우측에는 문설주와 같은 부재가 설치되어 있으나 창호 없이 개방되어 있다. 창호의 문상방 위는 뚫려있으며, 좌측 두 번째 문설주의 중심부에는 뒤의 벽과 연결되어 있는 목부재가 설치되어 있다. 완락재의 북측면의 서가는 하인방 높이의 단을 설치하고 상방에 수평부재를 걸고 개방되어 있다. 방은 연등천장이고, 서가의 상부는 종이반자로 되어 있다. 암서헌은 우물마루로 짜여진 대청과 살마루로 짜인 퇴칸으로 되어 있다. 우물마루는 동귀틀을 사용하지 않고 장귀틀만 이용하여 구성하였다. 전후의 중앙에 장귀틀을 가로로 놓고 긴 마루청판을 끼웠다. 살마루는 전후의 중앙에 장귀틀을 가로로 놓고 장선을 걸쳐 설치되며, 약 10mm의 마루널을 약 50mm 정도의 일정 간격으로 틈새를 두고 못을 사용해 고정시키고 있다.

대청을 위주로 하는 공간구성으로 온돌방에서 대청 그리고 자연으로 확장되는 공간을 구성을 하고 있다. 대청은 퇴칸의 살마루로 확장되고 부엌의 일부는 온돌방이다. 온돌방의 서가는 부엌으로 넘어가 기둥 밖에 마련하고, 후면으로 내어 달고 있다. 방과는 인방재를 통해 구분되고 있다. 부엌의 온돌방은 골방으로 좌측 퇴칸과 배면의 퇴칸을 이용하고 있다. 부엌 아궁이에서 온돌방의 난방을 하고 온돌방 후면 오른쪽의 아궁이에 굴뚝이 설치되어 있다.

대청은 개방형이지만 후면은 벽에 영쌍창을 내고 있다. 온돌방은 대청과 연결되는 삼

284) 살마루는 퇴계 사후에 제자 정구가 안동부사 시절에 설치한 것이다.

분합들어열개문을 주로 출입으로 하고, 서가의 남쪽에도 문을 내어 출입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쪽 서가의 왼쪽에 작은 외여단이문은 서가와 방을 연결하고 있다. 부엌은 좌측면에 관문을 설치하여 드나들며 격자살창을 설치하고, 부엌방은 부엌 진입 후 방 앞에 외여단이문을 설치하고 있다. 도산서당을 경영하면서 주위의 자연에 이름을 붙였는데 도산서당의 아랫단에 몽천(蒙泉), 도산서당 양능선에 대를 쌓아 천연대와 운영대, 도산서당 앞 연못 정우당(淨友塘), 몽천수 건너편에 매, 죽, 송, 국을 심은 절우사(節友社), 남쪽의 바위를 부수고 생긴 터인 곡구암(谷口巖), 도산서당에 들어가는 사립문인 유정문(幽貞門), 도산서당의 우물인 열정(冽井), 탁영담(濯纓潭)과 반타석(盤陀石) 등을 통해 자연과 합일하려는 의지를 볼 수 있다.<sup>285)</sup>

대청은 학생들의 강학을 위하여 사용되고 방은 생활이나 휴식공간이자 필요시 강학공간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방에서 문을 열면 대청까지 확장되고 자연으로 확장되고 있다. 서당이라는 독립적인 공간이지만 주변의 지형을 읽고 활용하여 산으로 에워싸이면서 자연으로 확장되어 하나 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최소한의 공간이지만 각 방은 쓰임새에 따라 효용성 있게 확장되고 적절한 척도로 구성되고 있다. 도산서당은 학문과 수양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지만 공간의 확장을 통해 자연과 합일되는 시적 거주를 하고 있다.

도산서당은 지형이 경사진 곳에 위치하여 서당 앞과 뒤로 석축을 쌓아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정면에 4단의 장대석 석축을 쌓고 남쪽에 장대석 계단을 통해 진입하고 있다. 도산서당을 중심으로 앞 뒷마당을 조성하면서 토석담장으로 두르고 있다. 담장은 남북으로 약간 긴 장방형으로 연못과 동선을 고려한 남동서쪽의 출입구를 끊어 담장을 두르고 있다. 정면의 담장에는 싸리가지로 만든 사립문인 유정문이 있고, 남동쪽에 연못을 조성하고 뒷마당에는 화단을 조성하고 있다. 서당의 동쪽으로는 개울이 흘러 여유공간이 적으므로 개울 건너 산으로 연결되고 있다. 기단은 자연석 허튼층쌓기로 지형에 따라 정면에 2단, 배면과 우측면은 1단으로 되어 있다. 기단의 상부는 강회다짐하고, 정면 기단 앞에는 장대석 디딤돌을 두고 있다. 좌측면에 기단은 대지 높이에 따라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우측면 기단 상부에는 기둥이 강회마감에 묻혀 작은 배수홈을 파 조성하고 있는데 원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기단 위의 초석은 자연석 덩벙주초로 일부는 기단에 파묻혀 있어 기단 상부 마감 높이를 잘 잡아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자연석 초석 위의 기둥은 사모기둥으로 일부는 모접기를 하고 있고, 가섭지붕의 기둥은 위를 삼각형 형태로 치목된 멈춘 모접기의 팔모기둥으로 되어 있다. 동자주는 대청 하부의 장귀틀과 퇴칸 살마루를 받치고 있다. 기둥 측면에 수직 부재를 덧댄 것은 안쪽에 배목을 통해 창호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85) 이상해, 도산서당과 도산서원에 반영된 퇴계의 서원 건축관, 2001, pp. 546~547

가구는 삼칸집에 좌우로 퇴칸을 구성하고 있지만 간결한 삼량가이다. 기둥머리에 도리와 보가 직접 결구된 민도리집으로 처마도리는 하부에 실모접기를 한 납도리이다. 도리 하부에는 사절된 단장혀이고 대청에는 나무축을 박고 있다. 보는 바닥을 약간 둥글리고 모접기한 보 4개가 사용되고 있다. 전면 기둥에서 후면 기둥을 연결되는 대들보 위에는 동자주와 사절된 단장혀를 걸어 굴도리의 종도리를 받치고 있다. 좌측 퇴칸의 종도리는 정면과 배면 상인방에 동자주대공을 세워 받치고, 처마도리는 하부에 받침장혀를 두고 있다. 동측 퇴칸의 기둥 중상부에는 상인방을 결구하여 팔모기둥과 결구되고, 상인방의 중심부에는 동자주대공을 세워 종도리를 받치고 가섭지붕을 올리고 있다. 팔모기둥의 상부에는 처마도리와 받침장혀가 결구되고 있다.

지붕은 맞배지붕에 좌우에 가섭지붕을 달은 형태이다. 간살구성에 따라 좌측 지붕이 짧고 우측의 지붕이 길다. 한식기와이고 끝을 막새기와로 마감하고 있다. 용마루는 착고와 부고 위에 5단의 적새를 쌓고 그 위에 솟마루장을 덮고, 용마루의 끝에 2단의 머거불과 망와가 사용되고 있다. 몸채와 가섭지붕의 내림마루는 착고 위에 3단의 적새를 쌓고 그 위에 솟마루장을 덮고 내림마루의 끝에 1단의 머거불과 망와가 사용되고 있다. 좌측면의 가섭지붕은 막새기와 마감이고 우측면의 가섭지붕은 와구토마감이다. 박공벽은 좌측면을 흑색 벽돌의 조적조로 하고, 우측면은 회벽으로 마감하고 있다.

완락재의 정면 좌측에 서가로 통하는 세살문은 문얼굴과 문고리의 배목을 국화정으로 하고, 그 하부에 별도의 국화정 장식을 하고 있다. 창살에 쌍사가 초각되어 있고 내부에서는 문하방에 문고리가 설치되어 있다. 완락재 서가와 방을 연결하는 용자살과 같은 형식으로 우측에 문고리가 설치되고, 문설주에 배목이 설치되어 있다. 완락재 정면의 세살창은 서가의 세살문과 같으나 높이가 낮고 폭이 넓다. 온돌방과 대청을 연결하는 삼분합문은 우측의 두 짝이 연결되어 있다. 분합문의 가운데는 쌍사가 있는 세살문을 설치하고 있다. 양측면은 판문으로 세살문과 같이 하부에 궁판이 있고 상부는 가운데 좁은 판자 양쪽에 넓은 판자로 되어 있다. 판문 상부에 비녀장과 문하방의 문고리를 통해 들어걸개문인 것을 알 수 있다. 대청의 배면에 널판문은 배목은 중앙의 문설주를 설치하고 외부측으로 띠장목을 연결시키고 있다. 부엌으로 통하는 널판문은 넓은 판자 한 개와 좁은 판자 한 개를 연결하여 만들고 있다. 부엌 남쪽의 가로로 긴 격자살창은 고정창으로 광창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살창의 문얼굴은 외부에 문얼굴의 맞댄 부분이 사선이나 내부에 수직이다. 골방의 쌍사가 있는 세살창으로 배목 없이 문고리만 설치되어 있다.

도산서당은 은곡서당, 자양서당, 월천서당, 두릉서당 등과 같이 16세기에 건립된 서당이지만 은곡서당과 자양서당은 댐의 건설로 이견되었고 월천서당과 두릉서당은 퇴계선생의 제자가 건립한 것으로 16C의 빠른 시기에 건립되고 있다. 대부분 중당협실형의 평면인데 좌실우당형과 좌당우실형은 사례가 적고 좌실우당형은 보기 드문 평면형태를

보이고 있다. 나아가 퇴계선생이 직접 참여하여 최소한의 공간이이지만 쓰임새가 있고 자연과 합일되고 있어 서당이 국가지정 문화재가 없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지정되어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 3.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안동 도산서당에 대한 역사적인 가치는 다음과 같다. 서원 건립에 적극적으로었던 퇴계의 성리학의 토착화에 대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방의 사학교육기관으로 강학(講學)과 장수(藏修)를 근본으로 사대부의 정신세계와 자연관을 살펴볼 수 있다. 주세붕과 우탁, 정몽주, 이숭인, 길재 등에서 농암 이현보와 퇴계 이황에서 꽃을 피우고 학봉 김성일, 서애 류성룡, 경당 장흥효, 갈암 이현일, 대산 이상정 등으로 이어지는 영남사림의 줄기의 핵심에 있다. 도산서원은 퇴계학파를 잇는 문인 309명을 확인할 수 있으며 조선시대 퇴계가 제향된 서원은 31개소나 되고, 대원군의 서원철폐령 때에도 남아 세계문화유산의 중요한 문화재이다. 퇴계라는 인물을 통한 조선 중기의 대학자로서 성리학 연구 업적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아들, 후학, 친우 등과의 관계를 통해 인간적인 면모가 잘 드러나고 있다. 저서로는 천명도설(天命圖說), 계몽전의, 주자서절요 등과 자성록(自省錄) 그리고 성학십도(聖學十圖) 등이 있다. 도산서당은 퇴계가 말년에 강학을 위해 지은 건축물로서 자리에 대한 영감을 통해 자리를 확정하고 승려 법련(法蓮)이 천연대를 쌓고 조경을 먼저 시작하고 있다. 이는 옥사도자(屋舍圖子)를 비롯한 다양한 기록에 나타나고 있다. 이후 용수사의 승려인 정일(靜一)이 말아 도산서당과 농운정사(隴雲精舍)를 준공하고, 이후 어린 나이의 학생들이 독서하고 거처할 장소로 지은 역락서재가 건립되고 있다. 이후 내부의 갈등과 도산서원의 준공과 수리 등이 확인된다. 그 과정에서 퇴계가 지은 도산서당이 갖는 상징성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보수를 하지 않으면서 수리 과정에서도 잘 보존되어 오고 있다. 퇴계의 친필인 편액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 퇴계가 설계하고 법련과 정일이 건립한 서당으로 도산서당에 참여한 인력과 관계 그리고 내용 및 과정 등이 퇴계의 기록으로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안동 도산서당에 대한 학술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 도산서당은 도산잡영을 비롯한 다양한 기록과 그림 등에서 서원의 관련 인적 구성과 규모, 서책 관리와 도서관의 기능, 출판 문화, 정치 사회적인 역할과 갈등, 배치와 주변의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도산서원의 주변은 선비문화를 엿볼 수 있는 수많은 문화재들이 벨트를 이루어 교육 및 관광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가로서 퇴계가 직접 참여하여 진행과정을 기록한 서신과 기록 등은 당시 상황과 문화를 이해하고, 도산서당의 봉화포란형의 입지에서 풍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학술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도산서당은 퇴계의 건축관이 반영된 초기 형태의 서당으로 16세기의 건축형식과 독자적인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서당건축의 초기적인 형태인 3칸 구성이지만 좌실우당형의 보기 드문 평면으로 최소한의 공간에 주칸의 너비를 다르게 하거나 퇴칸을 활용하는 등의 변형을 통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퇴계가 건축에 직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건축가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고 문헌을 통해 건축 참여인물과 관련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철저한 보존 및 보수로 관리되어 오고 있다.

안동 도산서당의 구조와 조형적인 특징에서 학술적인 가치는 다음과 같다. 도산서당은 자리를 잡는 과정과 조경을 먼저하고 주변의 자연을 읽어가는 과정이 잘 드러나고 있다. 특히 주변에 이름을 붙여 건축과 자연의 관계 그리고 택목이나 인공물의 배치 등과 담장을 꾸는 등 그에 대응하는 시적인 고양으로 잘 드러나고 있다. 도산서당은 부엌과 서가와 침소로 구성된 온돌방인 완락재, 대청인 암서헌과 살마루로 구성되고 있다. 평면은 일반적인 배치에서 벗어나 좌실우당형으로 하면서 간살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완락재와 암서헌의 배치 및 그 외의 실과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도산서당은 一자형의 정면 3칸, 측면 1칸의 규모로 조선시대 선비들의 건축 형식을 보여주지만 최소한 공간을 쓰임새에 따라 간살을 변화시키고 있다. 농운정사는 관란헌을 서쪽, 시습재를 동쪽에 배치하였는데 도산서당에서 보이는 것에 강학하는 공간을 배치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유식공간을 배치하고 있다. 나아가 서당 주변의 자연과 인공물 등으로 연계되고 확장되어가고 있다. 도산서당은 서당건축의 초기적인 형태인 3칸 구성이지만 좌실우당형의 보기 드문 평면으로 최소한의 공간에 주칸의 너비를 다르게 하거나 퇴칸을 활용하는 등의 변형을 통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퇴계가 건축에 직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건축가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고, 고문헌을 통해 건축 참여인물과 관련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철저한 보존 및 보수로 관리되어 왔다. 나아가 학문 및 수양과 연계된 공간의 관계와 자연으로의 확장 등 최소한의 공간이지만 공간의 확장을 통해 자연과 합일되는 시적 거주를 하고 있다.

도산서당은 성역화 과정에서 기단, 가섭지붕, 기와, 머거불, 망와, 정우당 자연석 쌓기 등이 변형된 것으로 확인되어 추후 보수공사 시 원형 회복을 위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자연석 석축과 낮은 토석담 등은 경관이나 위요감 등으로 인해 공간감을 해치고 있어 최소한 원형 복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도산서당이 갖고 있는 자연과 인공요소를 어떻게 구성하며 건축적 의미를 확장시키고 있는지를 찾는 노력이고 회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안동 도산서당은 역사적, 학술적, 조형예술적인 측면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 지정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문화재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기를 바란다.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0.09.03	대상문화재	안동 도산서원 도산서당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건축계획
	소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안동 도산서원 도산서당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p>동·서 산줄기가 감싸고 있는 아늑한 경사지에, 앞으로는 맑은 물이 흐르는 전형적 배산임수 배치를 하고 있으며, 변화한 곳에서 떨어져 있으나 외치지 않은 포근하고 아늑한 곳이어서 퇴계는 심신 수양의 최적지로 여겼다.</p> <p>한편, 사화로 어지러운 세상을 조심스럽게 살아가고, 나아가서 벼슬하면서 경론(經論)을 펴는데 기대를 가지지 않고 학문을 하는 것이 자기에게 부여된 사명을 다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도산에 자리를 잡고 도산서당을 조성한 것이다.</p>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도산서당은 조선 성리학의 대학자인 퇴계 이황이 기거하며 강학하던 장소이며, 퇴계의 ‘삼간지제(三間之制)’의 계획원리로 조영된 서당건축의 초기적인 형태로써 퇴계의 삶이 그대로 느껴지는 공간이다. 각 실은 기능에 따라서 면적에 차이를 주는 등 공간구성에 전혀 구속됨이 없이 조영하였으며, 또한 서당과 자연과의 일체감을 구현하여 자연의 이치를 터득하기 위한 건축수법을 적용한 것은 매우 탁월하다. 이와 같이 도산서당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하기 위한 역사성이나 건축적 가치가 뛰어난 것으로 사료된다.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 년 10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1. 퇴계의 생애<sup>286)</sup>

퇴계 이황은 1501년 경상도 예안현 온계리(溫溪里)에서 7남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집안은 여러 대 전부터 온계리에 정착하였고 조부는 진사(進士)를 지낸바 있다. 퇴계가 출생한 때에는 부친은 비교적 탄탄한 경제력을 쌓아 중소지주 이상의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부친이 처가로부터 많은 서적을 인수받아 집안에 많은 귀한 서적을 갖추고 있었다고 한다. 고향에서 작은 아버지로부터 학문을 닦은 퇴계는 27세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한 것을 계기로 한 동안 서울로 올라가 성균관에 들어가 공부하였으며, 34세에 정식으로 문과 급제하여 관직생활을 시작하였다.

당시 정계는 사림파와 훈구파의 대립으로 극도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1945년 을사사화가 일어나자 45세에 몸이 아프다는 구실을 대어 관직을 버리고 낙향하였다. 이 후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고향에서 지내면서 성리학의 학문 탐구에 몰두하였다. 고향에 내려온 이후에도 완전히 관직에서 떠나지는 못하여서 풍기군수를 비롯하여 성균관대사성(成均館大司成), 홍문관부제학(弘文館 副提學)에 제수(除授)되고 나이 68세 때에는 대제학으로 근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관직생활은 잠시 동안에 그치고 항상 고향에 되돌아와 학문에 정진하였다.

퇴계의 문하에서 배운 그 시대의 석학으로는 조목, 유성룡, 김성일, 정구, 기대승 등이 있으며, 이것은 한 시대에 성리학이념을 사회적으로 실현하는 업적에 머무르지 않고, 그 이후 조선시대를 통하여 성리학을 철학적으로 심화하고 학풍을 일으켜 사회이념의 성리학적 기반을 확고하게 확립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정몽주에서 시작하여 길재, 김종직, 정여창 등으로 이어지는 영남학파의 성리학적 연구 성과를 집대성하여 우리나라 성리학의 최고봉이 되었고, 이러한 업적으로 김굉필·정여창·이언적 등과 더불어 문묘에 향사되는 동방 5현 중 한사람이 되었다.

고향에 내려온 후에 퇴계는 온계리 생가에서 조금 떨어진 퇴계에 터를 잡고 살 집을 새로 짓고, 또 몇 군데 학문과 수양을 위한 건물이나 대(臺)를 지었다. 고향에 내려온 이듬해 46세가 되던 1546년에 양진암(養眞庵)을 지었다. 퇴계 생가인 온계리 집은 비교적 사람의 출입이 잦은 길가에 면하고 있었다. 처음에 퇴계는 이 집 남쪽에 작은 집을 짓고 지낼 생각이었지만 주변에 민가가 많아 한적한 맛이 없었기 때문에 집에서 동남 방향 약 3km되는 계곡 깊은 곳에 작은 암자를 지어 양진암이라고 하였다. 양진암 앞쪽의 시냇물인 "토계(兔溪)"를 퇴계(退溪)로 고쳐 부르고 이 퇴계라는 이름을 자신의 아호로 삼았다. 다시 잠시 풍기군수를 지내고 고향에 내려와 계류 서쪽에 한서암(寒棲菴)을 지었다.

<안동문화> 9집에서는 “선생은 50세에 고향 토계의 시냇가에 한서암을 짓고 그 앞

286) 김동욱, 퇴계의 건축관과 도산서당, 건축역사연구 제5권 1호 통권9호, 1996.6 재정리함

에 광영당(光影塘)이라는 연못을 팠다. 이때부터 선생은 독서와 사색을 벗 삼고 제자를 가르치는 데 정성을 다하였다. 한서암에서 5년 동안 살았는데 그의 인격을 흠모하여 모여드는 학생들이 날로 늘었다. 이에 선생은 이듬해에 계상서당(溪上書堂)을 지었다.” <안동향토지>에서는 “한서암은 퇴계 이황이 도산서당을 짓기 전에 독서를 하던 곳으로, 그 건너편인 시냇물 동편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새집을 짓고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였으나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여 다시 집 뒷산인 영지산 반대편 낙동강 상류물이 크게 꺾여 흐르는 강가에 집터를 마련하여 공부에 몰두할 장소를 얻었다. 이곳에 작은 서당을 짓고 또 거쳐하며 수양할 정사를 지었다. 이것이 바로 퇴계의 마지막 거쳐가 된 도산서당과 농운정사이다. 서당 주변과 영지산 일대 명소에 수많은 인공과 자연의 경승지를 찾아 이름을 짓고 경치를 감상하였다.

퇴계는 40대말부터 관직을 떠나 고향에 내려가 적어도 다섯 군데 이상의 건물을 신축하였고, 자연을 감상하는 여러 대(臺)를 쌓았다. 선비가 자신의 고향 주변에 학문을 위한 서당이나 정사 등을 짓는 것은 오랜 역사를 지닌 관행이었다고 하겠다. 번잡한 관직생활을 떠나 시골에서 한가한 전원생활을 노래한 당대(唐代) 도연명(陶淵明)의 시는 이러한 경향을 널리 유행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퇴계는 어려서부터 도연명의 시에 심취하였으며, 말년에 도산서당을 짓고 그곳에 있으면서도 늘 도연명의 시를 애송하였다고 한다.

표 1. 퇴계의 생애(김동욱, 퇴계의 건축관과 도산서당, 건축역사연구 제5권 1호 통권9호, 1996.6, p21 인용)

연대	주요내용
1501	은계리에서 좌찬성 이식(李植, 1463~1502, 39세) 7남1녀 막내로 출생
1512(12세)	숙부 송재공(松齋公) 이우(李堦)에게 논어 배움
1514(14세)	도연명의 시를 즐겨 읽음
1527(27세)	진사시(進士試) 합격
1528(28세)	사마시(司馬試) 급제. 성균관에 들어감
1533(33세)	재차 성균관에 들어감
1534(34세)	문과 급제. 승문원 부정자(承文院副正字)로 관계에 발들임
1537(37세)	모친상으로 3년간 복상
1539(39세)	홍문관 진출
1543(43세)	성균관 사성. 이해 성묘를 구실로 낙향
1544(44세)	2월 홍문관 교리로 소환. 이후 낙향과 소환을 거듭함
1546(46세)	양진암 짓고 독서와 구도. 이 때 토계를 퇴계로 고치고 자호(自號)로 함
1548(48세)	단양군수를 거쳐 풍기군수

1549(49세)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감
1550(50세)	한서암 지음. 광영당 팜
1552(52세)	4월 홍문관 교리로 환도. 7월 홍문관 대사성에 오름
1556(56세)	홍문관 부제학
1557(57세)	3월 도산 남쪽에 서당터 얻음
1558(58세)	3월 창랑대(滄浪臺) 세움(후에 천연대(天淵臺)로 고침) 윤7월 왕명으로 입도. 10월 성균관대사성
1560(60세)	11월 <b>도산서당 건축</b>
1561(61세)	절우사 세움. <b>농운정사 건축</b>
1564(64세)	여러 차례 관직에 복직되었다가 고향으로 돌아옴
1568(68세)	8월 홍문관대제학. 여러 차례 사직을 청하였으나 허락받지 못함
1570(70세)	12월 임종

## 2. 도산서당의 입지 분석

도산서당은 현재 경북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에 위치하고 있다. 퇴계가 주변 사람에게 보낸 편지에는 도산에 터를 정한 배경을 찾을 수 있다.

퇴계가 만년의 집터와 강학의 터로 도산을 정한 배경에는 그의 요산요수관(樂山樂水觀)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sup>287)</sup> 이러한 퇴계의 요산요수관(樂山樂水觀)은 그가 제자이자 종외손인 권호문(權好文)에게 준 글인 “답권생호문논요산요수(答權生好文論樂山樂水)”에서 비교적 잘 나타나고 있다.

“산을 좋아하고 물을 좋아한다는 말은 산이 곧 어짐이고 물이 곧 슬기라는 뜻이 아니고 사람과 山水의 性이 같다는 말도 아니다. 다만 어진이는 산과 비슷하기 때문에 산을 좋아하고, 슬기있는 사람은 물과 비슷하기 때문에 물을 좋아한 것이다. 비슷하다는 것은 어진이와 슬기있는 이의 기상과 의사를 두고 한 말이다. 이것은 사람들이 어떤 형상을 통하여 근본을 구하고 본보기의 극치를 삼으려는 것이지, 산과 물에서 어짐과 슬기를 구하게 하려는 것은 아니다.

참으로 내 마음에 어짐과 슬기의 내용이 가득차서 밖으로 나타나기만 한다면 요산요수는 간절히 구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얻게 될 것이다“.

이상에서처럼 퇴계는 산수의 어떤 형상을 통하여 사물의 근본을 구하는, 즉 자연이 주는 인간에 대한 교육에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퇴계가 벼슬을 사양한 뒤 말년의 은신처로 자리 잡은 곳은 계상서당(溪上書堂)<sup>288)</sup>으

287) 김영모, 최기수, 퇴계집을 통하여 본 도산서당의 조영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Vol.21, No1, 1993.4, pp.96~97

로, 배움을 간청하는 이들을 위한 강학 공간이었다. 도산잡영(陶山雜詠)<sup>289</sup>에서는 “내가 계상에 터를 잡고 시냇가에 두어 칸 집을 엮어서 서책을 간직하고 심성을 기르는 곳으로 삼았다. 그런데 이미 세 번이나 이사를 하게 되어 갑자기 비바람에 무너지기도 하고 또 계상은 너무나 고요하고 적막한 곳에 치우쳐있어 마음을 넓히기에 알맞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다. 즉, 공부란 마음을 넓히기 위한 것으로 ‘너무나 고요하고 적막한 곳에 치우쳐’있는 곳은 수양하기에 적당한 행태를 지원하지 못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계상서당에서 강학의 공간으로서 적합한 다른 장소를 찾아 지은 것이 바로 도산서당이다.

도산잡영의 도산서당 입지에 관한 다음 기술을 통해 강학공간으로써 적합한 입지라는 퇴계의 생각을 살펴볼 수 있다.

“영지산(靈芝山) 한 가지가 동(東)으로 뻗어내려 도산이 되었다... 산이 그다지 높거나 크진 않으나 그 골짜기가 휘연하고 형세가 끊인듯하고 또 그 낮은 위치가 외지지 않았으므로 곁에 있는 봉우리와 멧부리와 시내와 동학이 모두를 이 산을 향하여 팔짱끼고 읍하며 감싸 돌아싼 것 같았었다. 산이 그 왼편에 있는 것을 동취병이라 하고 오른편에 있는 것을 서취병이라 이름하였는데, ... 동취병과 서취병이 서로 바라보면서 남(南)으로 달리되 굽어 감돌아 팔구리쯤 되어서 東에서 온 것은 西로 돌고 西에서 온 것은 東으로 돌아 남쪽 들판 아득한 곳에서 합세하게 되었다. 물이 이 산의 뒤에 있는 것을 퇴계라 하고, 남에 있는 것을 낙천이라 하였으며 시냇물이 메의 北을 둘러서 산 발꿈치에 이르러 넓고 맑고 쌓이고 출렁거려 몇 리 사이를 오르내려 보면 그 깊이가 가히 배를 저울 수 있으며, 금빛 모래와 흰 자갈이 깔리고 맑고 깨끗하고 푸르고 차가우니, 이것이 이른바 탁영담(濯纓潭)<sup>290</sup>이다....(중략)... 또 퇴계는 짝지게도 고요하기는 하나 금회를 밝게하고 넓힘에는 알맞지 못하기에 다시금 옮길 것을 생각하여 메 남쪽에서 이 땅을 발견하였다. 이에 작은 동학 하나가 있으니, 앞으로는 낙동강을 굽어 그윽도 하고 고요도하고 멀기도 하고 넓기도 할뿐더러 바위와 멧부리가 밝고 돌샘이 달고 차가우니, 선비가 수양할 곳에 알맞게 되었다.”<sup>291</sup>고 기술하고 있다.

288) 계상서당(계당)은 도산서당의 시작이며, 퇴계의 본격적 교육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퇴계선생이 풍기군수를 사직하고 돌아온 후 물려드는 제자들을 위해 1551년에 계상서당을 지었다. 서재로도 쓰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학당으로 쓰기 위해서였다. 58세 때 23세 율곡 이이가 찾아와 3일간 머무르면서 가르침을 청했던 곳이 바로 이 계당이였다. 선생의 학문 활동의 절정기로서 ‘주자서절요’ 등 수많은 저술이 이루어진 곳이다. 학봉 김성일, 겸암 류운룡, 월천 조목, 간재 이덕홍 등을 비롯한 퇴계제의 많은 초년 제자들이 이곳에서 배출되었다. 지금의 계상학림(계상서당, 한서암, 계재)은 선생 서세 후 440여 년간 폐허가 되어 있었다가 2011년 4월에 복원하였다.

289) 도산잡영은 퇴계가 57세부터 66세까지 약 10년 동안 쓴 시 중에서 도산서당 안팎에서 지은 시를 모아 둔 것이다. ‘도산잡영’이라는 말은 “도산(서당)에서 이것저것 생각나는 대로 시로 읊는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퇴계의 시만 약 3,000수에 가까운데, ‘도산잡영’에는 40제 92수가 담겨 있다.

290) 탁영담은 갯끈을 씻는 못이라는 뜻이며, 낙동강의 흐름이 도산서원 입구 천연대 앞에서 잔잔한 못을 이룬 곳을 말하는데 지금은 수몰이 되어서 볼 수 없다.

291) 퇴계전집, 권3, 도산잡영, pp.281~282

이상의 글을 종합해 보면, 퇴계가 선택한 도산서당의 입지요인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주변의 자연이 주는 인간에 대한 **교육에 적합**하다는 생각을 가졌다.

둘째, 왼쪽으로는 청량산에서 이어나온 동취병 산줄기가, 오른쪽으로는 영지산에서 이어나온 서취병 산줄기가 감싸고 있는 아늑한 경사지에, 앞으로는 맑은 물이 흐르는 **전형적 배산임수 배치**를 하고 있어 산세와 수세가 적합하여 심신 수양의 최적지로 여겼다.

셋째, 변화한 곳에서 떨어져 있으나 **외지지 않은 포근하고 아늑한 곳**이어서 선비가 수양하기에 알맞은 곳이라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사화로 어지러운 세상을 조심스럽게 살아가고, 나아가서 벼슬하면서 경론(經論)을 펴는데 기대를 가지지 않고 **학문을 하는 것이 자기에게 부여된 사명을 다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도산에 자리를 잡고 도산서당을 조성한 것이다.

### 3. 퇴계의 건축관

#### 1) 3칸 제도(三間之制)와 내부공간의 확장

“암서헌의 위치와 형세는 남쪽을 면했고, 3칸의 제도를 사용했다. 3면에는 퇴주를 세우고, 동쪽 면에는 익침(翼簷)을 달아서 매우 맑고 깨끗하였다. 방 가운데 서북쪽 벽에 서가(書架)를 만들고 서쪽에는 격장을 두어서 반은 잠자리로 남겨두었다. 퇴계 제자 중의 한 사람인 성재(惺齋 琴蘭秀, 1530~1604)가 문기를 서가를 잠자리 아래에 놓지 않은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선생이 말씀하시기를 이곳은 내가 잠자고 기거하는 곳인데 성현의 경훈(經訓)을 등 뒤에 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지 때문에 이와 같이 한 것이라고 하였다.”<sup>292)</sup>

위의 글은 <도산서당영건기사>에 실려 있는 내용이다. 글에 의하면 서당은 ‘삼칸의 제도(三間之制)’에 따라 지어졌다고 되어있으니, 마루-방-부엌의 3칸으로 되어있는 건물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3칸이 아니다. 부엌 쪽으로 반 칸을 늘렸고, 마루 쪽은 아예 한 칸을 늘려 익침(가적지붕)까지 달았다. 그래서 칸 수만으로도 본다면 4.5칸의 집이라고 보아야할 정도이다. 그러나 퇴계는 어디까지나 3칸이 변형 확장된 것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암서헌(巖栖軒)’ 옆으로 확장이 되어 붙어있는 마루를 정식 한 칸으로 인식하지 않고 여러 가지 차별을 두었다.

본채에는 모두 두터운 사각기둥을 사용했지만, 이 부분만은 얇상한 팔각기둥을 세워

292) 『惺齋先生文集』(1996), 『陶山書堂營建記事』韓國歷代文集叢書: v.1732, 景仁文化社

확장부임을 표시하였다. 또 여기에 놓여진 마루는 통상적인 우물마루가 아닌 청판과 청판 사이가 떨어져 땅바닥이 내려다보이는 줄마루를 가설했다. 정식의 대청과 구별하기 위한 가설용 형태인 것이다.<sup>293)</sup> 이곳은 겨울보다는 여름을 위한 공간이었으므로, 여름에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암서헌’ 마루 공간이 확장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줄마루만 확장한 것은 아니다. 부엌의 서쪽 확장부의 내부를 막아서 장작칸으로 썼고, 완락재(玩樂齋)와 암서헌의 뒤쪽 역시 45cm 정도 내어 달았다. 보통 집들에도 뒤쪽 벽을 내어 벽장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도산서당은 약간 양상이 다르다. 도산서당의 뒷기둥들은 본 기둥과 마찬가지로 두꺼운 정식의 기둥을 사용했다. 따라서 비록 칸은 좁지만 정식의 퇴칸을 만들었다.

3칸의 북동서쪽에 서로 다른 크기의 퇴칸을 달아서 외연적으로 확장했다면, 내부의 칸막이 벽 들을 이동시킴으로써 내부적인 확장을 시도했다. 완락재와 부엌을 경계 짓는 격벽은 기둥과는 무관하게 설정되었다. 다시 말해 완락재 서쪽 벽을 부엌 쪽으로 밀어 세워 확장된 공간에 서가를 설치해 1000여권의 고서를 꽂았다고 한다.<sup>294)</sup>

도산서당의 이러한 변화는 퇴계 사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퇴계의 직접 고안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미 퇴계가 당초 서당의 그림을 그릴 때 퇴를 달아 공간을 확장하고자 했던 것을 이문량(李文樑)<sup>295)</sup>에게 보낸 편지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3칸을 명분으로 삼고 실용에 따라 건물을 확장해 나간 것이 이 건물의 큰 특징이며 퇴계의 건축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2) 행례(行禮)를 위한 공간으로서의 건축

퇴계가 집을 설계함에 있어, 자연을 어떻게 끌어들이는가가 설계의 중요한 초점이었지만, 퇴계는 성리학자였기 때문에 건물을 지으면서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은 예에 맞는 건물을 세우는 것이었다.

도산서당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법련이 제시한 도토마리 옥제를 쓰지 않고 정남향을 하는 3칸까지의 집으로 지어졌다. 그것은 ‘이번 집의 제도를 당은 반드시 정남향으로 하는 것은 예를 행하기에 편리하도록’이라는 이유를 대고 있는데, 퇴계는 유학자였던 만큼 예를 행한다는 것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다.

《예서(禮書)》에서는 의례 때 방위 설정에 있어서 기준의 좌향(坐向)은 남향(南向)을 전제로 하며, 《가례서(家禮書)》에서도 의례의 장소가 되는 주 건물은 반드시 ‘남향을 원칙’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중심 건물이 남향을 하게 되면 자연의 절대 방위와 예서의 각 의례에서 나타나는 동서남북 방위는 서로 일치하게 된다. 그래서 퇴계

293) 김봉렬(1997), 「최소의 구조, 최대의 건축-도산서당과 도산서원」, 이상건축, p.95

294) 김동욱(1996), p.31

295) 1498(연산군 4)~1581(선조 14). 조선 중기의 학자. 본관은 영천(永川). 자는 대성(大成), 호는 벽오(碧梧) 또는 녹균(綠筠). 아버지는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이현보(李賢輔)임

는 이와 같은 예 제도에 따른 방위 체계를 인식하고 있었기에 당의 건물의 좌향은 반드시 남향으로 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당의 건물을 도토마리 형식으로 하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는 3칸의 제도를 사용하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상류주택에서는 의례 공간인 대청의 칸수를 3칸으로 하는데, 이것은 ‘고제(古制)’에서 예를 행하는 장소인 전당의 크기 및 조상의 신위를 모시는 가묘의 칸수가 3칸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에서 연유한 것이다. 그래서 퇴계도 가설을 하는 형태를 취하더라도 형식적으로는 3칸을 유지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농운정사’의 경우, 동쪽 방의 출입문은 두 짝이지만 서쪽 방은 한 짝뿐이다. 이것은 상·하급반의 위계를 표현한 것으로 보여 진다. ‘고례(古禮)’에서는 서쪽을 상위로 인식하였으나,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실천윤리로서 그들의 의식과 행동을 규제했던 ‘오례(五禮)’와 ‘가례(家禮)’에서는 그 방위의 질서 체계가 변화되어, 신주(神主)를 모실 때를 제외하고는 모든 예를 행할 때 동쪽을 상위로 하였다. 그래서 향교의 경우, 같은 향교유생이라도 ‘동재유생’과 ‘서재유생’간에는 신분상의 현격한 차이가 있었고, 서원의 ‘동재’와 ‘서재’도 위계적 질서를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동쪽 방에 두 짝의 출입문을 만듦으로써 위계적 질서를 시각적으로 나타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퇴계는 유학자로서 예학의 명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퇴계는 조선후기의 예학론자들과는 분명히 달랐다. 만약 ‘도산서당’이라는 건물이 여기서 그치고 말았다면 그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겠지만, 퇴계는 명분으로서 끝나지 않았다. 3칸의 건물이 실용적인 면을 고려해서 조금씩 가설이 되어 확장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퇴계는 예라는 것은 때에 알맞게 변통이 되어야 한다고 할 만큼 실천성, 실용성을 근본으로 삼았다. 그래서 퇴계는 예의 명분에 맞추어서 3칸의 건물을 지어놓고 실천성, 실용성 등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가설하는 형태로 집을 지었던 것이다. 퇴계는 예학의 지식 기능적 측면에 대한 탐구는 물론, 자신의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을 더욱 중시하였다. 예라는 것이 항상성과 변용성 그리고 예의 제도와 풍속 사이의 관계에 대한 주장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처럼 건축에서 이것을 하나의 건물 형태의 시각적인 이미지로서 보여준 것이다.

### 3) 정원의 조성 과 외부공간의 확장

도산서당은 그 자체만으로는 3칸의 작은 건물이다. 선비의 절제된 생활철학이 최소 규모의 건축으로 응축되어있는 곳이다. 그러나 이 최소 규모의 건축은 주변의 자연을 끌어들이함으로써 무한한 크기로 확장될 수 있었다. 퇴계는 서당 주변에 인공적인 시설을 가미하고 또 서당을 둘러싼 자연물 여기저기에 서당과 연관된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도산서당을 다른 어느 건축물에 못지않은 무한한 크기의 건축으로 확장시킬 수 있었다.<sup>296)</sup>

건물은 3칸의 명분은 유지하면서도 퇴의 가설(加設)을 통하여 1차적인 공간을 확장하였고, 2차적인 확장은 정원을 통하여 시도된다. 퇴계는 도산서당을 둘러싼 모든 장소에 하나하나 이름을 붙이고 의미를 붙여줌으로써 이러한 조형물들을 도산서당의 공간 안으로 포함시켰다.

퇴계가 제자인 조목<sup>297)</sup>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대저 강산과 풍월은 천지간의 공물(公物)인데 이를 만나고서 완상할 줄 알지 못하는 이도 많지만, 혹 승지를 점유하여 자기의 개인 것으로 생각하는 이도 또한 어리석은 것입니다.”<sup>298)</sup>라고 하였으니, 퇴계가 아무리 자연을 도산의 절경 속에 포함을 시켜 즐겼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혼자 독차지하여 자신만이 즐기자 한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퇴계가 도산서당을 완성한 후에 읊었던 도산잡영(陶山雜詠)의 병기문(併記文)인 도산기(陶山記)에서는 퇴계의 이러한 의도가 잘 드러나 있다.

“... 중 법련(法蓮)이 그 일을 맡았더니, 얼마 아니 되어 법련이 죽고 정일(淨一)이 이어받아서 丁巳(1557)로부터 辛酉(1561)에 이르기까지 다섯 해만에 당(堂)이니 사(舍)니 하는 두 집이 대략 이루어졌으니, 가히 깃들만큼 되었었다. 당(堂)이 모두 세 칸이니 그 중간의 한 칸은 완락재(玩樂齋)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주선생(朱先生)의 명당실기(名堂室記) 중에 ‘즐거 완상하여 죽히 나의 일생을 마치어도 싫음이 없으려다.’라는 말씀 취한 것이요, 동편 한 칸은 암서헌(巖栖軒)이라 이름하였으니, 운곡시(雲谷詩) 중의 ‘스스로 믿으려도 오랫동안 못했기에 바위에 깃들어서 약간 효과 바라노라’라는 말씀을 취한 것이다. 그리고는 또 합하여 도산서당이라 하였고, 사(舍)가 모두 여덟칸인데, 재(齋)의 이름을 시습(時習)이요, 요(寮)는 지숙(止宿)이라 하고, 헌(軒)은 관란(觀瀾)이라 하여 합하여 농운정사라 하였다. 서당의 동편에 조그마한 모난 못을 파고는 그 가운데에 연을 심고 정우당(淨友塘)이라 이름하고, 또 그 동편이 몽천(蒙泉)이요, 몽천 위 멧기슭을 파서 암서헌과 마주보게 하여 평평하게 단을 쌓고는 그 위에다 매화·대·솔·국화 등을 심고는 절우사(節友社)라 이름하고, 서당 앞 나드는 곳에 싸리문을 달았으니, 이를 유정문(幽貞門)이라 하고, 유정문 밖 가는 길이 개울물을 따라 내려가 동구에 이르면 두 멧부리가 서로 마주 대해 있었다. 그 동쪽 멧부리의 옆구리에다 바위를 뜯고 터를 닦으니 작은 정자를 세울 만하나 힘이 미치지 못하여 그 터만을 두었고 흡사 산문(山門)처럼 생긴 것이 있으니, 그 이름이 곡구암(谷口巖)이요, 이로부터 동으로 두어 걸음을 굴러가면 멧기슭 험한 절벽바로 탁염담(濯纓潭) 위에 버티어서 커다란 바

296) 김동욱(1996), p.35

297) 조목(趙穆 : 1524(중종 19)~1606(선조 39))은 조선 중기의 문신·학자. 자는 사경(士敬)이며, 호는 월천(月川). 본관은 횡성(橫城)이며 퇴계 이황(李滉)의 문인임

298) 퇴계전서6, 문집 권23, 조사경에게 드림(경신 1560)



위가 층층이 깎아 있으니, 여남은 길이가 되었다. 그 위에 쌓아서 대(臺)를 만들었더니, 소나무 그늘이 해를 가리우고 위엔 하늘아래에는 물이어서 솔개는 날며 고기는 뛰노니 고 좌우 취병의 그림자가 푸른 숲 속에 울렁거리게 되었고, 한 번 눈을 들면 강산의 아름다운 경치가 모두 앞에 나타났으니 이를 천연대(天淵臺)라 불렀고, 서편 멧부리에 역시 그와 같이 대를 쌓고는 천광운영(天光雲影)이라 이름하였으니, 그 아름다운 경계가 천연대에 비하여 손색이 없을 것이다. 반타석(盤陀石)은 탁영담 속에 있는데, 그 꼴이 넓적하여 배를 매어 두고 술잔을 나눌 수 있었다. 매양 장맛물이 부풀으면 오목한 물배구멍과 함께 물 밑으로 들어갔다 물이 줄어가고 물결이 맑은 뒤에 비로소 들내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먼저 7언으로 된 18절을 읊었는데, 도산서당의 완락재, 암서헌에서 출발해서 유정문, 정우당, 절우사로 나아간다. 서당을 출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싸리문인 유정문으로 서당의 내부 공간은 규정이 되고, 그 안쪽으로 연꽃을 심어놓은 연못이 만들어지고, 동쪽으로 있는 개울을 건너면 퇴계의 작은 정원인 절우대가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도산서당은 단순한 3칸 건물을 벗어나 외부 공간을 갖춘 건축으로 확장되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의 공간인 농운정사의 관란헌, 시습재, 지숙료가 포함되고, 곡구암, 천연대, 천광운영대, 탁영담, 반타석, 동취병산, 서취병산, 부용봉으로 나아간다.

곡구암이 산문(山門)이 되면서 도산서당의 자연으로 들어오는 입구가 된다. 퇴계가 경영하고자 했던 도산의 대자연은 이렇게 시작되어 동편의 바위 위에 쌓은 천연대, 서쪽의 천광운영대까지 이어진다. 동편의 대는 소나무 그늘이 해를 가리우고 위엔 하늘, 아래엔 물이 있어 솔개는 날아다니며 고기는 뛰놀고 좌우 취병의 그림자가 푸른 숲 속에 울렁거리게 되었고 한번 눈을 들면 강산의 아름다운 경치가 모두 앞에 나타난다. 이렇게 해서 도산 주변의 좌우 취병산과 탁영담까지 퇴계가 경영하는 도산서당 안에 포함되어 주변의 자연 경관으로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처럼 퇴계는 자연을 자기 수양을 도와주는 대상으로서도 바라보았다. 그래서 퇴계는 서당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도 역시 수양을 하도록 도와주는 자연물을 인공적으로 직접 만들어서 조영하고 경영을 하고자 하였다.

#### 4) 건축에 대한 관심과 조예

퇴계는 건축 자체에 남다른 관심과 조예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당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를 후배에게 일러주는 과정에서 기둥의 배열과 신위(神位) 설치 방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가 하면 자신의 집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를 자식에게 자세하게 일러주기도 하는데서 그런 점을 알 수 있다.

청주목사를 지낸 후에 후학 이정(李楨)이 퇴계에게 사당제도와 관련한 몇 가지 질문 중에 이런 부분이 있다. 사당 건물은 3칸인데 모셔야 할 신위가 4대일 경우 실내에서

신위 배열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하는 것이다. 조상에 대한 신위는 조선초까지만 해도 고례(古禮)에 따라 3대조까지를 봉향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주자는 군주와 신하가 닮음이 없다는 주장을 펴고 귀천을 막론하고 모두 4대 봉사를 하도록 하였다.<sup>299)</sup> 조선시대에 성리학이 널리 확산되면서 조선의 선비층에서도 종래의 3대 봉사에서 4대봉사로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였다. 이때 문제로 대두된 것이 사당 건물 칸수였다. 당시에는 사당 건물은 3칸으로 짓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사당3칸에 4개의 감실을 나누는 것이 궁급하다고 하였는데 과연 그 뜻을 참고할 만한 글이 없습니다. 가례본주(家禮本註)에 소위 5가옥(架屋)이란 것이 있는데, 즉 지금의 소위 전후퇴옥(前後退屋)을 말합니다. 지금 3칸에 넷을 주어 균형이 흐트러짐을 면하고자 한다면 그 후퇴(後退) 제2架의 중간 두 기둥을 세우지 말고 그 두 들보를 그냥 보내어 제3架의 기둥머리에 걸리게 합니다. 그러면 후퇴의 전면에 기둥 없는 곳을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위에 걸린 들보에 횡으로 창방을 걸치고 아래는 귀틀목에 지방목을 걸고 나서 4재로 나누되 매 재에 하나의 감실을 두면 비로소 균등히 나누어져 크고 작은 차이가 생기는 잘못을 없게 될 것입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어 치수에 대해서도 매 칸을 8척으로 하면 전체가 24척이 되고 그 가운데 동서 양 측면 4척씩을 비워두고 나머지 16척을 각 4척씩으로 나누면 4척씩의 감실 넷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퇴계는 실내 전후퇴를 갖춘 건물구조에 대해서 소상한 지식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후퇴 기둥을 세우지 않고 그 공간을 넷으로 등분해서 감실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또 구체적인 치수까지 정해주어 하나의 사당 공간의 설계를 제시하고 있다.

서울에 올라와 있는 동안 퇴계리 집에 살고 있던 아들에게 준 편지속에는 집의 습기차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일러주기도 하였다.

“네가 사는 집 방의 구들이 습하고 냉하여 거쳐할 수 없는 지경이다. 내가 병을 얻은 곳도 그 곳이니라. 너는 삼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 방의 뒷담이 낮고 물길이 막혀서 수기(水氣)가 방 안으로 스며든다. 지금 마땅히 그 담장을 헐어내고 물이 통하도록 하여 고인물이 안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 담을 허물지 않아 물이 잘 흐르지 못한다면 구들을 고쳐도 무익할 것이니라.” 이런 편지에서도 구체적인 건물의 지식을 갖추고 또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된다.

퇴계는 57세 되던 1557년 영지산 기슭 낙동강 상류 큰 물길이 흐르는 바로 강가에 서당 터를 잡고 서당과 정사 건립을 계획하게 된다. 그러나 이듬해 뜻하지 않는 나라의 부름을 받고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다. 퇴계는 농암 이문보의 아들 이문량과 퇴계의 제자로 서당터가 바라다 보이는 하류 약 4km 거기에 살고 있던 월천 조목 두 사람에게 집 짓는 일을 계속 진행시켜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1558년 윤

299) 장철수, 사당의 역사와 위치에 관한 연구, 문화재연구소, 1990

7월 가을경 이문량에게 아래와 같은 편지를 보냈다.

“..... 연승<sup>300</sup>은 도토마리(都吐麻里)옥제(屋制)<sup>301</sup>를 좋게 생각하고 있으나 그 제도는 굽은 곳이 많아서 낙숫물이 생기고 지붕을 덮기도 어렵습니다. 또 房, 室, 廳, 堂이 궁박하게 마주하여 좋지 않습니다. 이번 집의 제도는 당을 반드시 정남향으로 해서 예(禮)를 행하는데 편하게 하고 재(齋)는 반드시 서쪽에 두고 뒤뜰을 마주하도록 하여 아늑한 정취가 있도록 할 것이며 그 나머지 방, 실, 부엌, 곳집, 문, 마당, 창호도 모두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니 이 구조가 바뀌지나 않을까 염려됩니다.

남쪽 변의 세 칸에 보와 도리는 모두 8척, 북쪽 변 네 칸은 도리는 남쪽과 같이 하고 보는 7척으로 하는데 그 뒤에 가첨(假簷)을 달기 때문입니다. 중앙의 동쪽과 서쪽 두 칸은 보 8척, 도리 7척이 되게 하십시오. 이와 같이 하면 뜰이 너무 작아 뒷박처럼 매우 좁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칸은 비록 지붕이 매우 낮지만 짧은 처마를 사용하기 때문에 빛을 받아들일 수 있으니 뜰이 좁은들 무슨 지장이 있겠습니까? 더욱이 당(堂)과 재(齋)를 이용할 때는 모두 뜰 안쪽을 향하게 하지 말고 다만 부엌 부뚜막만 밝게 하면 될 듯싶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편지를 보면 퇴계는 자신이 직접 서당과 정사를 위한 집의 평면을 계획하고 집의 치수까지 상세하게 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집의 환경문제에까지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 4. 도산서당의 공간분석

##### 1) 건축적 특성

퇴계는 서당 내 공간의 명칭뿐만 아니라 주위의 자연물이나 인공물에도 일정한 도학적 함의를 가진 명칭을 붙여주었다.<sup>302</sup> 도산서당(陶山書堂)은 완락재와 암서헌을 포함하는 전체 초당의 이름이다. 도산서당의 평면을 보면 여러 곳에 조금씩 부가된 것들이 많지만 건축을 주관한 퇴계는 3칸이 변형, 확장된 것으로 이해했다. 3칸에 자그마한 퇴칸을 달아냈을 뿐이라는 것이다.

##### 가. 배치

도산서당은 강학공간이자 퇴계가 거주하는 공간이었다. 따라서 당시의 가장 중요한

300) 안동 용수사의 법련(法蓮)스님을 말함. 이 절의 승려 법련은 건축공사 일에 익숙한 장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퇴계는 법련에게 서당 짓는 일을 맡겼으나 법련의 갑자스런 타계로 몹시 애석해했다고 한다. 이후 서당공사는 법련의 제자인 정일(淨一)스님에 의해 1560년 7월에 착수하여 그해 11월에 준공을 보게 된다.

301) 도토마리 옥제는 가운데가 비어 있는 일종의 ㄷ자형 평면과 비슷한 내용을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김동욱, 퇴계의 건축관과 도산서당, 건축역사연구 제5권 1호 통권9호, 1996.6, p24)

302) 안민선 외,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3권 5호 통권 46호, 2004.10, p7

건물이었고 문하생들이 공부하던 농운정사는 상대적으로 격이 낮은 건물이었다. 그러한 도산서당을 동쪽에 배치하고 서쪽이자 상대적으로 낮은 대지에는 농운정사를 배치하였다.

도산서당은 서쪽과 동쪽, 그리고 남동쪽의 연못이 있는 일부를 제외하고 4면을 담장으로 두르고 있다. 정면의 담장에는 출입문인 유정문이 위치하고 있다. 서당 뒤편에는 화단이 마련되어 있다

퇴계는 서당 주변에 인공적인 시설을 가미하고 또 서당을 둘러싼 자연물 여기저기에 서당과 연관된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도산서당을 다른 어느 건축물에 못지않은 무한한 크기의 건축으로 확장시킬 수 있었다.<sup>303)</sup>

서당 앞의 마당에는 방형의 연못을 만들어 정우당이라 이름 짓고 담장의 가운데 사립문을 달아 유정문이라 이름하였다. 담장 밖에는 샘이 있어 몽천이라 명명하고 그 동쪽에는 절우사라는 화단을 가꾸었다. 서당의 남쪽에는 우물을 만들어 열정이라 이름지었으며, 몽천을 따라 남으로 내려가면 산의 문처럼 생긴 바위가 있어 곡구암이라 하였다고 한다. 절벽에는 대를 쌓아 서쪽에는 천광운영대, 동쪽에는 천연대라 이름지어 풍경을 감상하는 장소가 되었다. 이 외에도 탁영담, 반타석, 서취병, 동취병 등등의 자연, 또는 자연에 인공적인 가미를 하여 이름 붙여 서당의 건축을 확장시켰다.

#### 나. 평면

도산서당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一’자형으로 건립되었는데, 이러한 3칸 규모는 조선시대 선비들의 일반적인 건축 형식이었다. 선비가 학문과 수양하는데 필요한 최소이자 최대의 공간이었는데, 퇴계는 배면과 좌·우측면에 퇴칸을 내어서 공간의 확장을 시도하였다. 좌측부터 부엌, 온돌방, 대청으로 구성되며, 부엌의 일부는 온돌방으로 할애되었다.

주칸(柱間)길이를 보면 부엌의 폭은 214cm, 방은 246cm, 대청은 276cm로 각 기둥 사이의 길이가 다르다. 부엌보다 방이, 방보다 대청의 규모가 조금씩 더 크다. 여기에는 적은 예산으로 마련한 공간을 합리적으로 구획하여 넓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퇴계의 의도가 깔려 있다.

퇴칸의 주칸도 마찬가지로 제각기 다른 길이를 가지고 있다. 배면의 퇴칸은 약 410mm, 좌측면의 퇴칸은 약 980mm, 우측면의 퇴칸은 약 1,930mm로 구성되는데, 이는 각 용도별 필요면적에 의해 설계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부엌은 좌측면의 판장문을 통해 출입하며, 부엌 진입 후 좌측에는 작은 방이 설치되어 있다. 이 방은 좌측면의 퇴칸과 배면의 퇴칸을 이용하여 마련되었다. 부엌 내부에는 각각의 온돌방 측면에 아궁이가 위치하고 있으며, 남측으로 창 하나가 마련되어 있다.

303) 김동욱, 건축역사연구 Vol.5. No.1, 퇴계의 건축관과 도산서당, 1996

아궁이와 연결된 골뚝은 각각의 방 배면에 위치하고 있다. 부엌 동측 상부에는 완락재 서쪽 서가의 천장 상부 공간이 비어있다.

온돌방인 완락재는 동측의 대청과 연결되는 삼문을 통해서 출입하는 것으로 보이며, 남측으로 창이 마련되어 있다. 방의 서쪽과 북쪽은 인방재가 있어 서가를 구분시키고 있다. 서쪽의 서가는 부엌으로 내어달린 형태이며, 서가의 남측에 문이 설치되어 있어 출입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서쪽 서가의 좌측에는 작은 창호가 있어 서가와 온돌방을 연결하고 있다. 서가의 문은 방보다 높이 설치되어 있는데, 퇴계선생이 선현들의 가르침이 담긴 책을 우러르고 받든다는 뜻에서 자기 방보다 높이 문을 설치한 것이라고 한다.

방과 대청 사이에는 삼분합들문을 달아 두 공간이 하나의 공간이 될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문을 닫았을 때에 이들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바깥에 있는 대청이 방 안으로 연장되어 있다. 이는 방의 모서리에서 보여지는 나무로 짠 골격으로 알 수 있다. 대청을 이루고 있는 골격이 방의 천장에서 그대로 노출된 점은 안과 밖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기 위한 의도라고 볼 수 있다.

대청의 마루를 살펴보면 두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본 영역인 암서헌은 동귀틀이 사용되지 않은 우물마루이고, 동쪽으로 덧붙여진 퇴칸 영역은 널판이 가느다란 살마루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마루는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기도 하지만 정식 대청마루보다 위계가 낮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살마루는 퇴계 사후에 제자 정구가 안동부사 시절에 설치한 것이라 한다.

#### 다. 석축과 담장

도산서당은 산지의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다. 경사는 남에서 북으로, 서당으로 보면 정면에서 배면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경사로, 서당 정면에 4단의 장대석 석축을 쌓았으며, 장대석 계단을 이용해 서당 출입 할 수 있다. 담장은 서당의 전면과 좌측면부는 토석담장으로 되어 있으나, 서당의 우측 및 배면으로는 사고석 담장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상부에는 한식기와가 올려져 있다. 담장은 서당을 감싸고 있는데, 출입문과 연못이 있는 부분과 서측과 동측으로 출입하기 위한 공간은 트여있다.

#### 라. 기단

기단은 자연석 기단으로 허튼층 쌓기로 되어 있다. 정면에는 2단이고 배면과 우측면은 1단으로 쌓여져 있는데 이는 산지의 경사가 남에서 북으로 높아짐에 따라 경사에 순응하여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정면의 기단 앞에는 장대석 디딤돌을 두었고 기단의 상부는 강회다짐하였다. 좌측면에는 별도의 기단이 마련되어 있는데 서당의 서측 대지 높이와 서당 기단의 높이가 같기 때문에 별도로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우측면 기단

상부에는 기둥 초석이 강회마감 내부에 문힘에 따라 빗물을 배출하기 위한 작은 배수 홈이 파져 있다.

#### 5) 초석

초석은 자연석 덩벙주초로 하였다. 대부분의 초석은 기단 상부에 노출되어 있으나, 온돌방과 대청 사이 초석은 흙 등에 파묻혀 확인되지 않고, 대부분의 초석은 기단에 파묻혀 상부면만 확인이 가능하다

#### 마. 기둥

본체는 모두 사각기둥을 사용했지만, 퇴칸의 살마루 부분의 퇴주는 네모서리의 모를 접은 가느다란 팔각기둥이 세워져 있다. 대청의 하부에는 5개의 동자주가 사용되어 장귀틀을 받치고 있으며, 퇴칸의 살마루 하부에는 3개의 동자주가 사용되었다.

#### 바. 기둥 상부 결구부

도산서당은 민도리집으로 침차, 익공 등의 부재가 사용되지 않고 기둥에 도리와 보가 직접 결구되어 있다. 처마도리는 납도리가 사용되었으며, 하부면에는 실모접기를 하였다. 보의 결구에는 별도의 보받침 등의 부재가 사용되지 않았으나 도리의 결구에 있어서는 사절된 단장혀를 사용하였는데, 일부에는 나무축을 박아 넣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동측 퇴칸 기둥 상부는 본채 기둥머리에 꽃혀 있는 퇴보와 가적지붕의 장여로 결구되어 있으며, 장여 상부에 처마도리가 얹혀 있다. 퇴보 중간에 동자주를 세워 종도리를 받치고 있다.

#### 사. 지붕

도산서당의 지붕은 맞배지붕에 좌우로 가적지붕을 달아놓은 형태이다. 퇴칸의 면적에 따라 좌측 지붕이 짧고 우측의 지붕이 길다. 맞배지붕은 한식기와가 사용되었으며, 끝을 막새기와로 마감하였다. 용마루에는 착고와 부고 위에 5단의 적새기와가 얹어져 있으며 숫마루장으로 마감되었다. 용마루의 끝에는 2단의 머거불과 망와가 사용되었다. 좌측면 박공부 벽면은 전벽돌로 마감되어 있다.

#### 아. 창과 문

도산서당의 창과 문을 보면 문은 띠살로 창은 정자살로 이루어져있음을 볼 수 있다. 도산서당에서 나타나는 창과 문은 필요한 만큼만 내어내 활용에 문제가 없이 하였는데, 이는 정갈하고 소박한 퇴계의 성품이 담겨져 있다. 최소한의 기둥과 보만으로 추상

입면의 회화성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도산서당의 완락재와 암서헌 중간에 위치한 문은 여단이 문이 아닌 들어열개문으로 되어 있어 필요에 따라 공간의 개·폐가 가능해 공간의 확장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암서헌 배면에는 설주가 있는 영쌍창을 달고 창호는 관장문으로 되어 있다. 창호를 열어두면 건물의 앞뒤 공간이 하나로 연결되어 확장되는 느낌을 준다.

이처럼 도산서당에서는 삼차원의 목구조체를 이차원으로 투영하면서 회화성이라는 새로운 미학적 가치가 만들어지고 있다.

## 5. 지정가치

### (1) 역사적 가치

- 도산서당은 16세기의 대표적인 서당건축이자 이후 '선비 건축'의 모델이 됐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건축물이다. 도산서당은 규모가 크거나 화려하지 않지만 퇴계가 살아생전 기거한 공간을 그대로 존치하여 선현의 머물렀던 자리를 바탕으로 제사와 학문을 계승하려한 서원 건립의 정신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살아생전 높은 관직을 여러 번 마다하고 후학 양성과 학문 연구에 몰두하였던 퇴계의 삶이 그대로 느껴지는 공간이다.

- 퇴계가 궁극적으로 찾고자 한 것은 '학문을 완성할 수 있는 서당'이었다. 몇 차례 시행착오 끝에 61세 때 완성한 도산서당에서 퇴계는 10년을 지내며 조선 성리학의 수준을 끌어올렸고, 서애 류성룡(西厓 柳成龍)과 한강 정구(寒岡 鄭述, 1543~1620) 등을 비롯해 약 130여명의 기라성 같은 제자들을 길러냈다. 퇴계 학문이 이곳에서 꽃피웠고 보석 같은 시가 탄생한 곳이다.

- 도산서당은 고문헌을 통해 건축 참여인물과 관련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철저한 보존관리 방침 및 보수 절차에 의해 관리되어오고 있어, 건립 후 약 450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

- 도산서당의 기둥과 벽면에 걸려있는 도산서당, 완락재, 암서헌 등의 편액은 퇴계의 친필로 전해지고 있으며, 원본이 퇴계 유물전시관 '옥진각'에서 보존되고 있다.

- 도산서당은 도산잡영, 도산서당영건기사, 알도산서원기(謁陶山書院記), 퇴계집 등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 당대 선비들의 문화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수리 등에 대한 기록도 도산서원수리일지에 기록되어 있으며, 겸재 정선(謙齋 鄭敼, 1676~1759년), 허주 이징(虛舟 李澄, 1581~1563이후), 월탄 김창석(月灘 金昌錫, 1652~1720), 표암 강세황(豹菴 姜世晷, 1713-1791) 등의 옛 그림이 남아있어 각 시대별 도산서당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2) 건축적 가치

- 도산서당은 퇴계 본인의 건축관을 바탕으로 설계도 ‘옥사도자(屋舍圖子)’를 그려 건축한 건축물이다. 3칸으로 지어진 도산서당은 고문헌의 ‘삼칸지제(三間之制)’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16세기 선비들의 학문 장소의 전형을 보여준다. 퇴계는 이에 정면을 제외한 각 면에 퇴칸을 내고, 좌우측면에는 가적지붕을 달아 3칸의 절제된 형식을 유지하면서도 공간을 확장시키는 독자적이고, 실용적이고, 이상적인 건축 형태를 만들어냈다.

- 도산서당은 강학(講學)·장수(藏修)의 기능을 갖고 있는 당(堂)이라는 공간에, 독자적인 휴양(休養)·유식(遊息)의 공간을 동시에 담아내고자 하는 계획원리로 조성된 서당 건축의 초기적인 형태로서 이후 서원건축의 건립에 표본으로 계승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좌측부터 부엌, 완락재(온돌방), 암서헌(대청)으로 구성된 도산서당은 퇴칸 이외에도 건물의 주칸을 다르게 하여 부엌보다는 온돌방을, 온돌방보다는 대청을 넓게 하여 각기 면적을 다르게 하였다. 또한 부엌과 방의 실 분리를 기둥 열에 맞춰서 하지 않고 부엌의 일부를 방의 서가로 구성하는 등 기능에 따라서 면적에 차이를 주는 등 공간구성에 전혀 구속됨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 도산서당에서 절제되고 소박한 건축물만큼이나 특징적인 것은 바로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이다. 퇴계는 학문을 수학하고 건문을 넓히는데, 자연의 이치와 원리를 깨닫는 것도 병행하여야 된다고 여겼다. 따라서 사색과 휴식이 필요하며, 이들 과정을 통하여 성리학적 체계를 정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기 위해 서당 동쪽 편에 매화·국화·대나무·소나무를 심고, 서당 앞에 연못을 조성하였다. 또한 담장을 다 잇지 않고 중간 중간 개방하여 설치한 것도 서당과 자연과의 일체감을 구현하여 자연의 이치를 터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16. 안동 도산서원 농운정사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안동 도산서원 농운정사」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북 안동시 소재 「안동 도산서원 농운정사」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경상북도지사
- (2) 대상문화재 : 사적 제170호 「안동 도산서원」
  - 소재지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도산서원길 154 (토계리 680)
  - 지정일 : 1969. 05. 28.
-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 명칭 : 안동 도산서원 농운정사(安東 陶山書院 隴雲精舍)
  - 소유자(관리자) : 도산서원(안동시)
  - 소재지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도산서원길 154 (토계리 680)
  - 조성연대 : 조선시대(1561년 건립)
  - 수량 : 1동
  - 지정면적 : 1필지 109.4m<sup>2</sup>
  - 양식 : 정면4칸, 측면3칸, 그자형 평면, 민도리, 홑처마, 맞배지붕

라. 현지조사의견(2020.09.03.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마. 지정조사보고서 : 붙임참조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원안가결 10명, 부결 1명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0.09.03	대상문화재	안동 도산서원 농운정사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속		직위(직책)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안동 도산서원 농운정사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 년 10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1. 입지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1) 입지현황

농운정사(隴雲精舍)는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680번지(도산서원길 154) 위치한 도산서원 안에 자리하고 있다. 이 일대는 낙동강 상류에 해당하며 영지산·도산(陶山) 등에 둘러싸여 있으며, 낙동가의 지류인 분강(湓江)이 흐르고 있다. 배산으로는 해발 442m인 영지산(靈芝山)이 있고 산줄기가 동쪽으로 1.5km 가량 이어지면서 작은 봉우리를 형성하고 이 봉우리에서 남쪽으로 좌우로 언덕이 이어지는 안쪽에 서원이 자리를 잡았다. 서원 앞으로는 낙동강 상류의 물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른다. 산 반대쪽은 퇴계의 살림집이 있는데 집과 서당은 직선거리로 약 1.5km 정도 떨어져 있다.

퇴계는 서당 터를 가리켜 ‘도산 아래’라고 불렀다. 이런 이름은 산이 두 번째로 이루어졌다는 의미와 옛날에 도자기를 굽는 가마가 있어서 유래되었다는 설을 기록으로 남겼다.<sup>304)</sup>

원래 서당이나 정사로 가는 진입로는 낙동강 강가를 따라 난 샛길을 통해서 곡구암이라는 바위 곁을 지나도록 되어 있었다. 안동댐을 건설하기 전 지도를 보면 퇴계의 집이 있는 상계리에서 동남쪽으로 물길을 따라 내려가다가 산모퉁이를 돌아 강변을 따라 남쪽으로 가는 길이 나 있어서 서당으로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976년 안동댐이 만들어지면서 진입부가 물속에 잠기게 되자 경사지 중간 위치에 새로 진입로를 내고 도로 폭을 확장했다. 이로 인해 전면의 강폭이 대폭 넓혀지는 바람에 경관은 크게 달라진 셈이나 안동호가 만들어내는 경관도 색다르다.

서원의 여러 건물 가운데는 도산서당의 서남쪽에 농운정사가 있다. 서당에서 직선거리 20미터가 안 되는 지점이다. 정사 서남쪽 근접한 곳에는 별도의 수행처로 쓰였던 역락서재가 세워져 있다. 이들 세 건물은 퇴계 생존할 때 마련한 건물이란 특징이 있다. 퇴계 사후에 비로소 서당 뒤편으로 서원(도산서원)이 건립되었다. 농운정사와 도산서당 등은 서원 전면부에 자리를 잡았는데, 나중에 들어선 서원이 뒤편으로 터를 마련하면서 이러한 배치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원 안에는 농운정사 바로 뒤로는 하고직사, 서원의 강당, 서쪽으로 상고직사가 각각 들어서서 있다. 1970년대에 와서는 정사 서쪽 근접해서 유물전시관이 지어졌다.

농암정사의 변천과정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조선후기의 그림은 여러 점이 남아 있다. 이정이 그린 「도산서원도」, 율탄 김청석의 「분강촌도」(1710), 겸재 정선의 「도산서원도」(1721)와 「도산서원도」(1735), 표암 강세황의 「도산서원도」(1751) 등이 알려져 있는데 이들 그림과 1954년 이후의 항공사진을 비교해 보면 전체적인 배치와 형태에서 큰 변화 없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04) 『도산전서』, 유보 내편, 김동욱, 「퇴계의 건축관과 도산서당」, 『건축역사연구』9호, 8쪽에서 재인용.

## 2) 역사문화환경

예안현은 고려시대 안동부의 임내(任內)였다가 1391년(공양왕 3) 무렵 감무를 두고 이웃한 의인현(宜仁縣)을 병합하면서 탄생한 행정구역이다. 1425년 『경상도지리지』에 따르면 예안현과 속현인 의인현을 합쳐 273호였다. 이웃한 안동부와 비교할 때 호수는 1/7, 토지는 1/12정도가 되며, 논·밭의 비율도 안동의 2/7에 비하여 낮은 편이다. 조선전기 내내 예안은 전국에서 손꼽히는 잔읍(殘邑)이었고, 16세기에 들어서도 여전히 잔읍으로 존재하였고, 통폐합이 논의되고 하였다.<sup>305)</sup>

이렇듯이 토착세력이 미약한 예안으로 여말선초 무렵부터 여러 성씨들이 들어오면서 이주자들은 서로 혼인관계를 형성하며 지역 정착의 기반을 구축해나갔다. 16세기에 들어와 여러 가계들이 지속적으로 이주해오면서 새로운 주거지들이 형성되었다. 그 가운데 온계(溫溪)는 진성이씨 이계양(李繼陽)이 시거한 지역으로 이곳을 중심으로 계상, 상계와 하계 등으로 점차 분화되었다.

하지만 예안현에서는 15세기말부터 16세기 전반까지 많은 수의 문·무과 급제자와 생원·진사를 배출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이현보, 이후, 김연, 이황·이해 형제, 이증량 등은 고위 관직에 진출하기도 하였다. 잔읍에 지나지 않았지만 예안현은 과거제도를 매개로 사족층의 성장이 빠르게 진행된 지역이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16세기 후반에는 지역 출신인 이황이 강학을 시작하면서 지역 청년층이 그 문하에서 도학자로 성장하여 예안은 퇴계학파의 구심지로 자리 잡았다.<sup>306)</sup>

현재 도산서원이라 하면 1561년(명종 16) 퇴계 이황(李滉, 1501~1570)이 건립한 도산서당, 농운정사와 그가 타계한 뒤 문인들의 발의로 건립된 서원을 통칭한다. 퇴계가 죽자 그의 학덕을 추모하는 문인과 유생들이 결의하여 사당인 상덕사를 짓고 이어서 전교당과 동·서재를 지어 1575년에 서원을 완공하고 같은 해에 사액을 받았다.

퇴계는 서원을 지을만한 장소의 기준, 즉 입지조건을 첫째, 존경받을만한 선현의 일정한 연고지여야 하고, 둘째로는 동시에 사람들이 은거하여 수학하며 독서하기에 좋은 곳, 다시 말해서 산수가 뛰어난 곳을 꼽았다.<sup>307)</sup> 선현의 연고지는 출생지나 고향, 성장지, 유배지, 충절과 연관된 장소, 관리로 근무하던 곳, 은거하여 후학을 지도하던 곳, 묘소 등으로<sup>308)</sup> 그 범위는 넓고 다양하다. 입지조건으로 꼽은 두 번째 기준을 꼽은 이유는, 산천경계가 수려하고 한적한 곳에 머물며 환경의 유혹에서 벗어나 학문을 닦음으로써 교육의 성과가 크다고 보았다. 도산서당과 농운정사를 모태로 확장된 도산서원은 이런 점에서 퇴계의 서원 건축관이 잘 적용된 서원건축임을 짐작할 수 있다.

305) 박현순, 「15~16세기 예안현 사족층의 성장과 향촌 사회의 재편」, 『조선시대사학보』26, 2003, 117쪽.

306) 박현순, 「16세기 예안현 사족층의 수학과 관직 진출」, 『교육사학연구』17집, 2007, 81쪽.

307) 퇴계의 상소문, 이범직, 「조선전기 서원의 교육기능」, 『한국사론』8, 1981, 95쪽; 이상해, 「도산서당과 도산서원에 반영된 퇴계의 서원 건축관」, 『퇴계학보』110집, 519쪽에서 재인용.

308) 이상해, 『서원』, 열화당, 1998, 349쪽.

도산서원 안에는 농운정사와 도산서당, 역락서재를 비롯하여 사당인 상덕사(尙德祠, 보물 제211호, 정문 포함), 전교당(보물 제210호), 전사청, 한존재, 동·서재, 광명실, 장관각, 유물전시관 등이 있다. 매년 봄과 가을에 상덕사에서 향사를 지내고 있으며, 제품(祭品)은 7번(籩) 7두(豆)로 마련한다. 상덕사 안에는 퇴계를 주향으로 모시고 제자인 율천 조목을 종향으로 모셨다.

1969년부터 70년까지 정부의 고적 보존정책에 힘입어 성역화 대상으로 지정되어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시행하였다. 2019년 “한국의 서원((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으로 다른 8개소의 서원과 더불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 2. 농운정사의 연혁·유래 및 특징<sup>309)</sup>

### 1) 농운정사의 건립과 유지·관리

#### 농운정사의 건립

퇴계 이황은 49세 되던 1549년(명종 4) 벼슬을 버리고 고향 예안으로 내려가 학문에 전념하며 제자들을 키우는 삶을 시작했다. 1545년(명종 즉위년) 을사사화의 광풍을 피해 고향인 온혜로 내려왔다가 1547년까지 칩거를 계속하였다. 중간에 안동부사직이 내려졌지만 나아가지 않았다. 그러다가 1547년 홍문관응교 직 주어지자 할 수없이 상경하였으나 혼란한 정국에 염증을 느낀 그는 지방관을 자청하여 단양군수, 풍기군수 직을 맡았다. 풍기에서 백운동서원을 만난 퇴계는 평생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소망을 꿈꾸며 사직 상소를 올린 뒤 왕의 윤허가 떨어지기 전에 짐을 꾸려 풍기를 떠난 것이다. 34살에 벼슬살이를 시작한 지 15년이 되는 해였다.<sup>310)</sup>

16세기 안동지역은 20여개의 서당이 존재할 정도로 문풍이 진흥된 지역이었다.<sup>311)</sup> 고향으로 돌아온 퇴계는 여러 곳을 전전한 뒤 1551년에는 살림집 건너편 개울 너머에 자신이 머물 곳으로 계상서당(溪上書堂)을 마련하고 근처에 계남서재(溪南書齋)를 지어 제자들이 기숙할 곳을 마련하였다.<sup>312)</sup> 1552년(명종 7)부터 3년 가량을 서울에서 머물며 벼슬살이를 하다가 1555년(명종 10)에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낙향하였다. 계상서당이 퇴락하고, 가르침을 청하는 학생 즉 제자들이 늘어나자 집이 비좁아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기 시작하였으며, 1557년 도산 아래에서 알맞은 땅을 구할 수 있었다. 이황은 이곳에다 자신을 위한 학문 연마 장소와 함께 제자들이 거처할 공간도 갖추어 구상을 하였다. 본격적인 강학을 위한 열망을 실현하고자 더욱 넓은 강학 터를 찾아 나선 끝에 터

309) 이하 글은 제출된 지정 요청 자료고서와 안동군·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도산서원 실측조사보고서』, 1991; 김동욱, 『도산서당 선비들의 이상향을 짓다』, 돌베개, 2012 등 기존 연구성과를 참고하였다.

310) 디지털안동문화대전, 검색어; 농운정사, 고향으로 향하는 이황의 집 보따리는 책계 두 짝이 전부였다. 궤는 관의 물건이라 하여 뒤에 되돌려 보냈다고 한다. 조정의 윤허없이 임지를 떠났으므로 이황에게는 고신 박탈에 2등급 강등의 벌이 내려졌다.

311) 이남옥, 『16세기 퇴계학파의 서당 경영』, 『민족문화논총』69집, 2018, 141쪽,

312) 『퇴계집』, 유집외편에는 1556년 매헌 琴輔가 한서암 남쪽 시내 위에 溪齋를 지었다고 했으며, 퇴계전서에 화암 곁에 계남서재가 지어졌다고 하였다.(정석태 편저 『퇴계선생년표월일조록』 2권)

를 구하게 된 것이다. 도산잡영(陶山雜詠)과 도산기(陶山記)에 자세하게 적혀 있는데, 퇴계는 높고 깊은 골짜기를 빠지지 않고 다녔다. 하지만 터를 마련하고 건물을 세우려는 즈음에 나라의 명이 있어서 서울에 올라가 다시 벼슬살이를 하였지만 오래 머물지 않고 고향에 내려왔으며, 이후에도 수차에 걸쳐 서울과 고향을 오갔다.

도산에 새로운 서당을 짓는 공사는 1559년에 시작하여 1560년 서당을 먼저 완성하고 주변 연못과 화단 등을 가꾸고 나서 1561년(명종 16)에는 제자들이 기거할 수 있는 정사를 완성하였다. 서당은 도산서당, 정사는 농운정사(隴雲精舍)로 이름을 지었다. 정사(精舍)는 본래 불교의 승려들이 모여서 수행하는 곳을 가리켰지만 송대에 오면 학자들이 제자들과 함께 공부하고 생활하는 곳을 지칭하는 곳으로 널리 통용되었다. 주희가 무이산에 지은 무이정사가 대표적인 사례였다. 농운은 ‘고개에 걸린 구름’을 뜻하는데, 농운정사를 두고 이황이 지은 시에서는 6세기 양나라의 학자 도홍경(456~536)이 산에 들어가 은거생활을 하자 무제가 산 속에 무엇이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 ‘고개 위에 흰 구름이 많다’고 답하였다는 고사를 언급하였다.<sup>313)</sup> 공부하는 선비의 청빈함을 비유한 말이다. 관란은 『맹자』에서, 시습은 『논어』에서 나왔으며, 지숙은 무이정사의 오른쪽 숙소인 지숙료에서 이름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sup>314)</sup>

도산서당이나 농운정사는 처음에 예안 용수사의 승려 법연(法蓮)이 일을 주관하였으나 마치지 못하고 죽자 그의 제자 정일(靜一)이 뒤를 이어 완성되었다. 용수사는 농운정사가 지어지고 나서 한동안 정일이 머물며 집을 관리하다가 제자들이 모여들면서 제자들이 기거하는 곳으로 사용하게 되었다.<sup>315)</sup> 사실 농운정사는 규모로 미뤄 큰 건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충분치 못한 공사비는 결국 공기를 늘어뜨리는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sup>316)</sup>

## 퇴계 제자들의 건물 이용

농운정사 건립의 의의는, 앞서 계상서당에 딸린 계재를 설명하였지만 계재는 집이 좁아서 여러 명을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편이 따랐는데 도산서당을 세우면서 곁에 새로 널찍한 정사를 지어 제자들이 공부할 장소인 농운정사를 마련한데서 찾을 수 있다.<sup>317)</sup>

313) 시의 원뜻은 청빈한 선비가 관직에서 물러나 농산 기슭에 살았는데 어느날 옛 동료들이 그를 방문하였을 때 달리 내놓을 것이 없자 “물 한 그릇 떠놓고 농산이 굽이굽이 걸려 있는 구름과 이 물이면 소님 집대에 죽하리다”하고 물 그릇을 내놓은 고사에서 비롯되었다.

314) 김동욱, 『도산서당, 선비들의 이상향을 짓다』, 돌베개, 2012, 144~145쪽.

315) 『학봉집』 雜著, 退溪先生言行錄에 ‘初作陶山書堂。欲令僕隸守之。惡其不潔。令山僧別居隴雲精舍以守之。蓋亦朱子俾道士守雲谷之意也’라고 하였는데, 이 때 산승은 정일을 가리킨다.

처음에 일을 맡았던 법연은 1559년 정월에 갑자기 죽었다. 이후 이문량에게 다른 승공을 찾게 하여 정일이 뒤를 이어 공사를 마치게 된 것이다.

316) 용수사는 온혜종택에서 서북쪽에 있는 사찰로 퇴계의 조부 이계양이 온혜로 거처를 옮겨 정착하면서 이 절을 가속(家塾)으로 삼고 가학(家學)을 일으키면서부터 인연이 시작되었다.

317) 김동욱, 『도산서당, 선비들의 이상향을 짓다』, 돌베개, 2012, 146쪽.

일단 농운정사가 완성되자 예안은 물론 안동에서도 제자들이 몰려오고 멀리 서울에서도 와서 이황의 가르침을 받았다. 농운정사는 이황이 거쳐하던 도산서당의 서쪽 근접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수시로 스승을 찾아가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다고 짐작된다. 제자들이 남긴 「퇴계선생언행록」에 따르면, 퇴계는 틈나는 대로 제자들과 함께 주변 경승지를 찾아 자연을 음미하며 대화를 나누었다고 적었다.

농운정사만으로 학생들을 수용하기에 부족하자 제자들은 곁에다 독서와 학습하는 건물을 짓기를 건의하여 퇴계의 허락을 얻었다. 하지만 추진하는 제자가 일을 키우는 바람에 중단을 시켰으나 얼마 뒤 정사성이 이들과 함께 집을 짓고 역락재라 이름을 지었다. 이 건물은 동몽들의 학업을 위한 공간으로 동몽재로도 불렸다. 이 서재는 농운정사보다 더 서쪽에 지었는데, 현재 위치는 퇴계 사후에 이진된 것이지만 농운정사보다 더 서쪽에 위치한 점은 변함이 없다.<sup>318)</sup>

퇴계의 학문을 계승한 여러 제자들은 자신들의 연고지에 정사나 서당을 지어 수양하고 강학하며 동시에 학문을 전수하는 장소로 삼았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김성일이 지은 석문정사와 옥병서재, 류성룡의 원지정사와 옥연서당을 들 수 있다.

### 퇴계 사후의 건물 유지와 관리

1570년 퇴계가 숨을 거두고 나서는 더 이상 농운정사에서 제자들이 기거하는 일은 없었다고 짐작된다. 1574년 도산서원이 세워지면서도 도산서당과 농운정사는 그대로 남겨두고 그 뒤편으로 서원을 세웠다. 서원이 세워진 후에 도산서당은 퇴계가 쓰던 지팡이나 서책 등을 실내에 보존하여 서원을 방문한 사람들이 참배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하며 농운정사에 대해서는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불분명하다. 17세기 후반에 도산서원을 방문한 한 선비는 농운정사가 퇴락하고 황량하여 사람이 기거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기록을 남기기도 하였다.<sup>319)</sup>

이후에 건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수리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되는데, 기록에서 확인되는 것으로는 「계유묘우수리시일기」(1813)에서 시습재를 수리한 일과 「농운정사 수리기일기부」(1932)에 정사 앞과 서쪽, 뒷담을 쌓은 일과 정사 뒷면의 퇴당(退堂)을 복구하고 동쪽에 주문(柱門)을 세운 일이 확인된다. 이후 수리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 도산서원 보수정화사업(1969)

1969년 퇴계 탄신 4백주년을 기념해서 도산서원 성역화 사업을 벌이면서 동시에 농운정사에 대한 대대적인 수리가 진행되었다. 공사전과 공사후의 사진을 비교해보면, 정사

318) 안동시, 「안동 도산서원 도산서당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 2020, 93쪽.

319) 『損菴集』권4, 記, 尋陶山書院日記에 ‘隴雲精舍。而此則頽歎荒涼。人不可居’라는 기사가 보인다.



건물 자체는 거의 달라지지 않았지만 주변은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건물 기단이 장대석으로 고쳐졌고 건물 주변 담장도 사고석으로 바꾸었다. 관란헌의 당호에서 암시하듯, 남쪽 담장은 본래 2자 정도의 높이여서 정사 마루에서 앞이 잘 보였다고 짐작되지만 농운정사 서쪽에 유물전시관을 세우면서 대지를 돋우고 담장을 높이는 바람에 전망을 가렸다.<sup>320)</sup>

## 2) 농운정사의 건축특성

### 배치

도산서원의 배치는 영남지역 서원에서 가장 많은 유형인 전학후묘를 따르고 있으나 이는 말했듯이 생전에 지어진 건물을 그대로 두고 후면에 서원을 조성한 데서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도산서원의 배치를 퇴계가 경영한 도산서당의 배치 정신을 계승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퇴계는 동쪽에 도산서당, 서쪽에 농운정사를 설립하여 동쪽과 서쪽의 위상과 기능을 다르게 설정하여 서당을 경영하였고, 이런 퇴계의 의도는 도산서원에도 반영되어 동쪽 영역에 사당과 장판각 등을 배치하여 제향과 강학공간이 돋보이게 하였고, 서쪽으로 전사청을 비롯한 지원 시설을 두었다.<sup>321)</sup>

### 공(工)자형 평면(도토마리 옥제)

도산 아래 서당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이황은 용수사 승려 법연에게 집 짓는 구체적인 일을 맡겼다. 이황이 이대성(이현보의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의하면, 법연은 새로 짓는 건물을 ‘도토마리옥제(都吐麻里屋制)’로 하려는 뜻을 밝혔다고 하며, 이황은 도토마리 옥제가 굽은 곳이 많아서 빗물이 모이고 어둡다는 이유로 자신의 서당은 반듯한 一자 형태로 하였다.<sup>322)</sup>

도토마리 옥제란 무엇일까. 이는 안동지방 민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도토마리집 형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안동의 도토마리 집은 가운데 一자형 몸체가 있고 몸체 끝 부분 전면과 후면에 돌출부가 있는 평면을 가리킨다. 본래 도토마리는 베틀의 앞부분을 가리는 工자 형태의 받침대를 말하며 도토마리집은 그와 유사한 工자 형태의 평면을 갖춘 집을 일컫는다.

퇴계가 구상한 농운정사 평면은 이와 달랐다. 그의 의도는 이문량에게 보낸 편지에서 살필 수 있다. 그는 도토마리집이 아니라 국자형 평면으로 된 건물을 구상하고 있었으며, 이를 구체화한 아래 인용문을 보면 뜰을 중심으로 아늑하게 짜인 집을 마음에 두

320) 대통령이 현지조사 후 지적사항 중심으로 공사가 실행되었는데, 창건 당시부터 남아 있는 계목 등 원자재를 손실하지 않도록 한 원형유지 항목과는 대조적으로 담장을 현재보다 높이고 사고석으로 지시하는 등 경내 분위기를 달라지게 만든 지적도 있었다.

321) 이상해, 「도산서당과 도산서원에 조영된 퇴계의 서원 건축관」, 2001, 561~562쪽.

322) 『도산전서』권17, 與李大成, 戊午.

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번에 법연의 편지를 보니, 그는 토토마리집 제도를 좋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도는 굽은 곳이 많아서 낙수물이 많이 흐르며 띠풀로 지붕을 덮기도 어렵고 또 방, 실, 청, 당도 매우 좁아서 좋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편지에 언급한) ... 이 제도를 바꿔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쪽 부분 세 칸은 들보와 도리의 길이가 모두 8척이고, 북쪽 부분 네 칸은 도리는 남쪽과 같으나 들보의 길이는 7척입니다. 이는 그 뒤에 가침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동서 두 칸은 들보가 8척, 도리가 7척입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그 뜰은 매우 작아서 국자(斗) 모양과 같아 질 것입니다. ...<sup>323)</sup>

도토마리집의 단점을 언급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자신의 계획을 내세워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당과 재, 4칸의 실, 부엌으로 공간을 구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위의 퇴계의 구상을 추정한 도면과 현재 농운정사를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보인다. 바로 부엌인데 퇴계 구상안에는 부엌이 계획되어 있었다. 재정적인 문제로 현 농운정사에 부엌을 생략한 것인지, 강학과 유식을 보전하려 했던 것인지 알 수 없다. 구상안의 북쪽 4칸은 조금 달라졌지만 현재 중앙의 4칸(지숙료)로 유지되어 있고, 재와 당을 구분하여 전면에 위치시키는 구성은 현재 농운정사 평면에서도 어느 정도 지켜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sup>324)</sup>

결과적으로 보면, 1561년 완성된 농운정사의 평면은 법연이 의도했던 대로 도토마리옥제로 지어졌다. 즉, 가운데 一 자형의 몸체가 있고 전면 양 끝에서 1칸의 마루가 돌출해 있으며 후면 역시 양 끝에서 1칸이 돌출해 있다. 전체는 8칸인데, 몸체는 정면 4칸, 측면 1칸 크기로 한 가운데 간막이를 두어 내부를 둘로 나누었다. 온돌방으로 되어 있는 이 몸체는 이황의 제자들이 기거하며 공부하던 곳이다. 전면의 마루는 휴식을 취하는데 이용되었다고 짐작된다. 이황은 동편 마루를 시습재, 서편 마루를 관란헌, 숙소인 요는 지숙이라 이름을 짓고, 합하여 농운정사라 하였다. 후면의 돌출부는 따로 이름을 붙이지 않았는지 고방(庫房)으로 부르고 있다.

전면에 마루로 꾸민 시습재와 관란헌은 마루의 구성은 동일하나 시습재는 이름 그대로 강학공간으로, 관란헌은 휴식공간으로 구분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기숙생활의 거점이었던 지숙료, 뒤로 고방을 연결시켜 교육과 기숙생활하기 용이한 평면으로 구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실 도산서당 쪽에서 바라보면 농운정사의 평면은 工자형이 되는데, 이는 학생들의 공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은 계획으로 풀이한다.

323) 정기철, 「17세기 사림의 묘침제 인식과 서원 영건」,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9, 267쪽.

324) 정기철, 「17세기 사림의 묘침제 인식과 서원 영건」,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9, 270~271쪽.

### 간결한 가구구조

도산서당과 마찬가지로 농운정사 역시 아무런 치장이 없는 간소하고 질박한 형태의 건물이다. 잡석 기단 위에 자연석 주춧돌을 놓고 네모기둥을 세운 3량의 민도리 집이다. 기단부는 현재 장대석으로 고쳐졌지만 수리하기 이전의 사진에 촬영된 모습들로 미루어 잡석기단으로 판단된다.

지붕은 일자형의 평면에 맞추어 기와를 이었는데, 몸채 보칸 길이가 2.3m인데 비해서 돌출부 마루나 고방의 길이가 2.4~2.5m로 오히려 몸채보다 길어서 몸채 용마루보다 좌우 돌출부 용마루가 더 높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 통상은 돌출부 기둥 간격이 짧고 몸채 보칸 길이가 길어서 몸채 지붕을 더 높고 크게 하고 돌출부가 몸채 지붕보다 낮게 꾸며지게 되지만 여기서는 반대가 되었다.

현재 정면 기단 상면은 방형의 전돌이 깔려 있지만 이황 생존 당시에 제자들이 기거하던 곳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이 부분은 원형에서 벗어난 듯하며 1970년 성역화 사업으로 인한 변화로 판단된다.

건립공사에 승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뚜렷한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장 고유의 기예가 반영된 세부를 가려내기는 쉽지 않다. 아마도 워낙 간소한 건물인데다가 사용자의 의도가 강하게 반영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3.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 인문적 가치

퇴계의 제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아서 영남의 큰 학맥을 형성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퇴계 생존 시부터 선생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도 많았다. 황준량이나 조목은 가장 일찍 제자의 반열에 오른 인물이며, 예안의 토호라고 할 수 있는 금보나 금난수, 금응협, 그리고 인근 오천의 김부륜, 김부인 형제가 있다. 이들은 1546년 퇴계가 토계 상류 상계에 집을 마련할 때부터 가르침을 받던 제자들이었다.

뒤이어 안동에서 권호문이 찾아오고 학봉 김성일과 그 형제들도 모두 제자에 들었다. 1561년 농운정사가 지어지자 많은 제자들이 정사에 머물면서 공부했는데, 조호익, 정사성 외에 안동에서 유운룡, 유성룡 형제와 정유일이 찾아오고 성주에서 정구가 찾아와 정사에 묵었다.

서울에서도 김명원, 이함형 등이 멀리 예안까지 내려와 가르침을 받았다. 제자들 중에는 일찍 과거시험에 합격하여 중앙 관직에 나간 사람도 적지 않았다. 정유일은 1558년 대과에 합격하였고 뒤를 이어서 권문해, 유성룡, 김성일이 급제하여 중앙에서 벼슬살이를 하였다.

이들은 모두 학문에서나 정치 활동에서 큰 업적을 남겼다. 또 16세기말에 벌어진 임진

왜란의 국난을 극복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 농운정사는 이처럼 16세기에서 17세기로 이어지는 시기에 퇴계의 가르침을 받으며 성장하여 나라의 동량을 맡은 실력 있는 학자들의 학문 산실이였다.

퇴계학파로 불리는 이들 문인들 즉 퇴계문인록은 『도산급문제현록』(이칭으로 계문제자록, 도산문현록 등으로 불림)이 있다. 이 자료는 조선중기 퇴계학파의 범위와 그 학통을 연구하는데 꼭 필요하다. 총 5권 2책으로 1권에서 4권은 본록이고, 5권은 속록이다. 권1은 권지운 등 40인, 권2는 조목 등 35인, 권3은 김명원 등 59인, 권4는 유근 등 131인의 기록이 실려 있고, 권5에는 금응석 등 44인의 기록이 실려 있다. 이후 몇 차례 추가를 거쳐 9대손 이야손은 모두 260명을 수록하였다. 이후에도 몇 명이 추가되었다.<sup>325)</sup>

### 입지가 지닌 특성

농운정사는 도산서당과 함께 지어졌으며 그 위치는 서당에서 서남쪽으로 불과 10m 떨어진 곳이었다. 한 쪽에 스승이 거처하고 있고(도산서당) 다른 쪽에 제자들이 기숙하면서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스승과 제자 사이의 불가분의 관계가 건축적으로 잘 구현된 위치임을 알 수 있다.

이보다 앞서서 짓고 사용한 계상서당에는 제자들이 지숙(止宿)하는 계재(溪齋)가 마련되어 있었다. 초기에 계상서당은 온돌이 없는 허술한 집이었으며, 가구는 매우 검소하였고 돌 평상과 부들자리를 깔아 거처하는 형편이었다. 계상서당 동쪽으로는 도산서당의 농운정사와 같은 역할을 한 계재를 지었다.<sup>326)</sup> 계상서당의 실상은 퇴계가 지은 시에도 여실히 드러나 있는데 “비바람 치는 계당 책상 하나 못 가릴 제”란 표현을 통해 불편한 거처가 짐작이 된다.

조선시대 수많은 선비들이 고향에 내려가 학문에 전념하면서 인근의 젊은이들에게 학문을 가르쳤으며 대다수 선비들이 자신의 거처 인근에 제자들이 기거할 수 있는 환경을 꾸미고 있었다고 짐작된다. 그 모델은 송나라 주희가 무이산에 정사를 짓고 제자들을 가르친 경험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이런 스승과 제자 간의 교육 현장이 물리적인 시설로 남은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개는 스승이 죽고 나면 제자들은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흩어져가고 시설들은 관리하는 손길 없이 퇴락하여 사라지게 마련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도산서당과 농운정사의 경우에는 제자들이 스승의 발자취를 남기려는데 진력했다. 이에 비하여 계상서당은 퇴계 사후 관리가 소홀해졌는지, 결국 허물어지고 그 흔적이 사라진 것으로 판단된다. 퇴계의 제자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문과에 급제하거나 천거제(薦擧制)를 통해 유력한 사회적 지위를 얻었고, 또 고향에 남은 제자

325)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안동문화대전, 검색어; 계문제자록(溪門諸子錄). 권오봉은 「퇴계교육의 전개과정」에서 도산서당에 입문수학한 연구가 명백한 제자들 밝히고 있다.

326) 권오봉, 『퇴계의 연가와 사상형성』, 82쪽 ; 이상해, 도산서당과 도산서원에 반영된 퇴계의 서원 건축관, 523쪽에서 재인용.

들도 일정한 경제력을 유지하면서 스승의 자취를 남기는데 힘을 보탬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도산서원을 세우면서 스승의 자취인 도산서당과 농운정사를 그대로 남겨 둔 점은 무엇보다 큰 원동력이 되었다. 이런 노력 덕분에 퇴계가 거처하던 도산서당과 제자들이 기거하며 공부하던 농운정사가 서로 일정한 관계를 갖고 지금까지 남아있게 되었다.

### 건축적 가치

농운정사는 工자형으로 평면구성이 독특하다. 조선시대 수많은 선비 관련 시설 가운데 농운정사처럼 工자 형태의 평면을 갖춘 곳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과거에 이런 평면이 나타나게 된 배경을 두고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工자 형태를 취했다는 이야기가 근거 없이 나돌았지만, 퇴계가 남긴 편지글을 통해 이러한 평면이 용수사 승려 법연이 구상한 도토마리 옥제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살펴봤듯이 도토마리 옥제는 안동지방에 뿌리를 내린 지역성 강한 건축형태의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지금은 몇 군데에 남은 민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유학자가 머무는 서당으로 이런 평면 형식을 설정하고 그것도 사찰의 승려의 구상으로 나왔다는 점을 보면, 적어도 조선중기에 도토마리 옥제라는 工자형의 평면은 단지 민가에 그치지 않고 다른 유형의 건물에서도 널리 쓰였다고 짐작된다.

도토마리 옥제와 유사한 건축평면으로는 18, 19세기 중부지방 소규모 불교사찰에서 널리 유행한 대방(大房)이라고 부르는 건물이 있다. 대방은 가운데 염불을 하는 커다란 몸채 건물을 두고 전면 모서리에 돌출한 누마루를 두고 후면에도 돌출한 부엌 등을 두는 사례들이 보인다. 남양주 흥국사 대방이나 서울 흥천사 대방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농운정사는 이런 유형의 현존하는 가장 이른 사례가 되는 셈이다.

규모가 크지 않은 반면에 농운정사에는 창호를 많이 설치하여 채광에 용이하다. 건물 평면은 좌우 대칭이지만, 창과 문은 대칭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높이와 크기를 조정하였다. 전면 가운데 두칸에 달린 남쪽 창호는 실내에 앉아서 문을 열었을 때 눈높이에 맞게 낮게 달려 있다. 또한 농운정사 평면은 각 실이 향하는 면을 모두 다르게 함으로써 하루 중 별과 그들이 고르게 들도록 고려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327)</sup> 지숙료의 창호 가운데 동쪽 방은 쌍여닫이문이지만, 서쪽방은 외여닫이여서 상·하급반의 위계<sup>328)</sup>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건물은 간소하지만 창호는 기법면에서 상당한 공을 들였음을 볼 수 있다.

327) 이상해, 537쪽.

328) 김봉렬, 1999, 보고서 150쪽에서 재인용.

#### 4. 종합의견

농운정사 건물이 지닌 가치는 아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조선시대 향촌에서 선비와 제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학문과 교육의 현장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드문 사례이다. 퇴계 이황은 벼슬을 버리고 향촌에 내려가 학문에 전념하기 위해 도산서당을 지었으며 그에 인접해서 제자들이 기거하며 공부할 수 있는 농운정사를 지어서, 스승과 제자가 적절한 거리를 두고 하나의 영역 안에서 거처하는 모습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이런 모습은 조선시대 다른 곳에서도 널리 이루어졌겠지만 대부분 사라지고 말았으며 도산서당과 농운정사는 드물게 남아있는 사례의 하나로 꼽을 수 있다.

둘째, 농운정사는 조선의 학문세계나 정치활동에서 큰 활동을 한 영남 선비들이 젊은 시절 퇴계의 가르침을 직접 받으며 공부하던 산실이며 그 원형이 잘 남아있는 유적이다. 이 건물에서 공부한 인물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 중에는 도산서원에 배향된 퇴계의 제자 조목을 비롯해서 영남의 큰 학맥을 이룬 학봉 김성일, 임진왜란의 국난을 헤쳐나간 서애 유성룡이 있었고 그 밖에도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 이 건물을 거쳐 갔다.

셋째, 건축형태에서 농운정사는 도토마리 집의 원형을 살려 지은 교육시설의 뛰어난 사례로 꼽힌다. 그 평면은 가운데 몸채를 두고 전면과 후면 양 끝에 마루방과 헛간을 갖춘 工자 형태를 이룬다. 농운정사의 도토마리 옥제는 도산서당 건립을 맡았던 승려장인 법연의 구상에 근거한 것이며 그의 제자 정일에 의해 완성되었다. 도토마리 집은 지금도 안동지역 민가에 일부 남아있으며 농운정사가 지어지던 16세기에는 더 넓은 범위에서 수용되었던 건축형태였다고 판단된다. 18, 19세기 중부지방 사찰의 대방은 도토마리 옥제와 유사한 형태로 꼽힌다. 이런 점에서 농운정사의 도토마리 옥제는 건축사적으로 의미 있는 건축형태의 하나라고 평가된다.

이상의 특성을 종합해 볼 때 농운정사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된다.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0.09.03.	대상문화재	안동 도산서원 농운정사	
조사자	성 명	○ ○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 속	○ ○ ○ ○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안동 도산서원 농운정사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9월 29일

제출자

○ ○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1.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 환경

안동 도산서당과 농운정사는 1561년에 퇴계 이황이 직접 설계하여 건립한 서당과 정사로 퇴계의 말년에 강학공간으로 사용되었다. 농운정사는 안동 도산서원과 함께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도산서원길 154(토계리 680)에 위치하고 있다. 안동은 지리적으로 경상북도 북부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 동에는 영양과 청송, 서에는 예천, 남에는 의성, 북에는 영주와 봉화가 인접한 교통의 중심지이다. 태백산맥이 줄기차게 뻗어 그 지맥을 이루고, 낙동강은 북에서 남으로 흐르다가 시가지 동측에서 반변천과 합류하여 서쪽으로 관통하여 흐르고 있다. 안동시에서 북동쪽으로 27.4km 떨어진 곳에 있으며 시내에서 35번 도로를 따라 한국국학진흥원을 지나 도산서원길에서 도산서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1.4km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이 산지로 북부 면계에는 산성산(山成山, 481m), 용두산(龍頭山), 국망봉(國望峰, 481m) 등이 솟아 있어 북쪽이 높고 면의 동부를 낙동강이 굽이치면서 흐르고, 그 남동부에는 비교적 넓은 충적평야가 형성되어 있다. 도산면의 지명유래가 되는 ‘도산’은 예안 고을의 9곡 가운데 제4곡과 제5곡 사이에 위치하는 산으로 현재 도산서당이 자리 잡은 부근의 지명이다.<sup>329)</sup> 주변으로 동쪽으로 왕모산(648m), 북쪽으로 건지산, 서쪽으로 영지산이 자리하고 남쪽으로 낙동강이 굽이쳐 흐르고 있다. 왕모산은 동에서 남으로 돌아들고 영지산은 서에서 북으로 돌아드는데, 도산은 영지산에서 돌아드는 산에 남쪽으로 자리하고 있다. 도산은 북쪽으로 계상에 토계천이 흐르고 퇴계종택과 건너편에 한서암과 계상서당이 자리하고 동쪽으로 건지산을 따라 내려오는 남쪽 자락에 퇴계선생묘소가 자리하고 있다. 남쪽으로는 남서쪽으로 흐르는 산이 구불거리며 남쪽으로 동취병과 서취병으로 갈라지고 동취병쪽으로 몽천수가 흘러 곡구암을 거쳐 낙동강에 합류된다. 도산서당과 농운정사는 배면에 도산과 정면에는 낙동강(안동댐)을 바라보는 계좌정향의 좌향에 배산임수형으로 자리하고 있다. 영지산을 조산으로 하는 도산의 혈자리에 해당하는데 마치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모습인 봉화포란형이라고 한다.<sup>330)</sup> 퇴계의 도산서당 입지 선정에서 퇴계집과 도산잡영 병기 등에 동기감응론(同氣感應論)적인 측면과 풍수 용어를 사용한 시와 산문을 통해 풍수를 활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퇴계이황은 서원 건립에 적극적이었으며 이를 통한 성리학의 토착화에 노력하였다. 서원은 지방교육의 상징적 기구로 강학(講學)과 장수(藏修)를 근본으로 하는 사학이다. 서원을 통해 조선시대 사대부의 정신세계와 자연관을 읽어볼 수 있고 건축에 어떻게

329) 안동시 도산면 홈페이지 - <http://www.andong.go.kr/csc/dosan/contents.do?mId=0202000>

330) 박정해, 퇴계학과 유교문화, 도산서당의 전통 입지환경, 2012. 퇴계는 ‘도산잡영 병기’에 ‘영지산 한 줄기가 동쪽으로 나와 도산이 되었다’고 하여 조산(祖山)은 영지산이고 주산(主山)은 도산(陶山)이라고 밝히고 있다. 도산은 거문(巨門) 토성체(土星體)인데, 탐랑(貪狼) 목성체(木星體)와 무곡(武曲) 금성체(金星體)와 더불어 삼길성(三吉星)이라고 한다. 도산서당은 도산을 주산으로 안산은 거문(巨門) 토성체(土星體)이고 혈형(穴形)은 와혈(窩穴)이다.



스며들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주세붕과 우탁, 정몽주, 이숭인, 길재 등이 영남사림의 줄기가 되고 농암 이현보와 퇴계 이황에 와서 꽃을 피우고 이후 학봉 김성일, 서애 류성룡, 경당 장흥효, 갈암 이현일, 대산 이상정 등이 퇴계의 학맥을 잇고 있다.

퇴계학파를 잇는 문인은 도산급문록을 통해 정지운(鄭之雲)을 비롯하여 40명, 조목(趙穆)을 비롯하여 35명, 김명원(金命元)을 비롯하여 59명, 유근(柳根)을 비롯하여 131명, 금응석(琴應石)을 비롯하여 4명 등 총 309인이 수록되어 있다고 한다. 조선시대 전국적으로 퇴계가 제향된 서원은 31개소로 퇴계 제향의 서원 중 도산서원은 으뜸가는 지위를 가진 수원(首院)이다. 또한 1868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 때에도 남은 47개의 서원 중 하나이고 세계문화유산 중 하나로 그 중에 서원의 전신인 도산서당과 같은 해에 지어진 농운정사는 중요한 문화재라고 할 수 있다.

도산서당과 농운정사는 도산잡영, 도산서당영건기사(1530-1604), 도산기(1561), 알도산서원기(2007), 퇴계집, 퇴계선생문집(1600), 계유묘우수리시일기(1813 추정), 암서헌수리일기(1929), 농운정사수리일기부(1932), 등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 이 지역의 선비문화와 영남학파의 관계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수리 등에 대한 기록도 도산서원수리일지에 기록되어 있으며, 도산사원도(1721, 겸재 정선), 도산사원도(1581-?, 허주 이정), 분강촌도(1710, 월탄 김창석), 도산사원도(1751, 표암 강세황), 도산전도(연도미상, 고봉), 도산서원도 부채(연도미상, 겸재 정선), 도산사원도(작가미상, 조선후기) 등의 옛 그림이 남아있어 이를 통해 시대별 도산서당 및 도산서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현대의 성역화 이전의 사진을 보면 변형된 부분이 다소 남아 있어서 원형을 복원하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안동 도산서당과 농운정사는 1561년 퇴계 이황이 직접 설계한 건축물로 퇴계의 건축관이 잘 드러나 있다. 설계도 '옥사도자'를 그렸던 기록과 택지 및 공사와 관련된 기록, 설계 의도 등이 고문헌에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다.

도산면 유교문화재에는 도산서원(사적 제170호), 예안향교(시도유형문화재 제28호), 궁구당(시도유형문화재 제32호), 농암사당(시도유형문화재 제31호), 시사단(시도유형문화재 제33호), 애일당(시도유형문화재 제34호), 용암정(시도유형문화재 제41호), 농암사당(시도유형문화재 제31호), 고산정(시도유형문화재 제274호), 월천서당(시도기념물 제41호), 퇴계종택(시도기념물 제42호), 안동서부송곡고택, 번남고택(국가민속문화재 제268호), 안동토계동계남택(시도민속문화재 제8호), 퇴계태실(시도유형문화재 제3호), 수졸당 및 재사(시도민속자료 제13호) 등이 있다. 인접한 문화재는 강 건너에는 시사단, 남동으로 안동 번남고택, 북측으로 퇴계종택, 동측으로 수졸당 및 재사가 위치하고 있다. 안동 도산서원(사적 제170호) 경내에는 안동 도산서원 전교당(보물 제210호), 당(보물 제21호), 상덕사 및 삼문(국가민속문화재 제211호) 등이 있다. 그 외에도 도산서당의 기둥과 벽면에 걸려있는 도산서당, 완락재, 암서헌 등의 편액은 퇴계의 친필로 전해지고

있으며, 원본이 퇴계 유물전시관 ‘옥진각’에서 보존되고 있다.

도산서원과 농운정사는 1570년(선조 3) 퇴계가 세상을 떠나고 이듬해 조목 등 예안사족들이 주축이 되어 도산서당의 위쪽 부지에 추진하고 있다. 일읍이원(一邑二院)의 문제와 건립비용의 부담으로 안동과 예안으로 대별되는 퇴계학과 내부의 갈등 이후 1574년(선조 7) 봄에 착공하여 1년여의 공사로 1575년(선조 8)에 준공하고, 퇴계의 위패봉안은 1576년(선조 9) 2월 12일에 거행하고 있다. 도산서원의 기능은 퇴계의 강학과 장수를 위해 설립한 도산서당을 포함하여 상덕사(尙德祠)에 매년 2월과 8월 중정일에 춘추향사를 거행함으로써 제례, 경전을 강론하는 강학, 수신하는 장수(藏修) 등을 수행하고 있다.<sup>331)</sup> 안동 도산서원은 퇴계의 생전에 건립한 도산서당, 농운정사, 역락서재 그리고 퇴계 사후에 건립된 전교당, 상덕사 등의 서원 건축물 등이 있다. 도산서원의 배치는 전학후묘의 배치로 영남지역의 일반적인 배치이다. 퇴계가 지은 건축물을 그대로 두고 후면에 건축된 서원이다. 동쪽에 강학공간이자 퇴계가 거주하던 도산서당과 서쪽에 퇴계의 문하생들이 공부하던 농운정사가 가장 중요한 건물이고 후에 이를 그대로 두고 후면으로 확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후에 퇴계 생전에 지헌 정사성이 문하생으로 들어올 때 그의 부친 죽헌 정두가 건립한 역락서재가 농운정사 서쪽에 건립되고 있다.<sup>332)</sup> 선현의 위패를 모신 사당인 상덕사를 가장 높은 북동쪽에 배치하여 제향영역을 이루고, 강당인 전교당과 마당을 두고 좌우에 동서재를 배치하여 강학영역을 이루고 있다. 제향영역의 지원시설인 전사청을 상덕사의 서쪽과 전교당의 지원시설인 상고직사를 서쪽 배치하고, 전교당의 동쪽과 상덕사의 남동쪽에 장관각을 배치하고 있다. 내대문의 좌우로는 동서광명실을 배치하고 있다. 농운정사는 풍광을 감상하고 휴식공간인 관란헌을 정사의 서측 전면과 문하생들의 공부방인 시습재를 정사의 동측 전면 배치하고, 문하생들이 거쳐하던 지숙료는 중심부 4칸에 배치하고 있다. 건립 당시에 고직사가 없었던 도산서당의 부엌과 고방으로 추정되는 배면 두 칸의 실이 배치되고 있다. 도산서당과의 관계에서 거리가 있고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서당에서 볼 수 있는 동쪽에 강학공간을 배치하고 있다. 서당 앞의 마당에는 방형의 연못을 만들어 정우당이라 이름 짓고 담장의 가운데 사립문을 달아 유정문이라 이름하고 있다. 담장 밖에는 샘이 있어 몽천이라고 하고 그 동쪽에는 절우사라는 화단을 가꾸었다. 서당의 남쪽에는 우물을 만들어 열정이라 이름 지었으며, 몽천을 따라 남으로 내려가면 산의 문처럼 생긴 바위가 있어 곡구암이라 하였다고 한다. 절벽에는 대를 쌓아 서쪽에는 천광운영대, 동쪽에는 천연대라 이름지어 풍경을 감상하는 장소가 되었다. 외에도 탁영담, 반타석, 서취병, 동취병 등등의 자연, 또는 자연에 인공적인 가미를 하여 이름 붙여 서당의 건축을 확장시켰다.<sup>333)</sup>

331) 위패봉안 이전인 1575년(선조 8)에 조정으로부터 편액을 받아 경제적 토대로 구축할 수 있었을 것이다.

332) 현재의 역락서재는 퇴계 사후에 이진된 것이지만 농운정사 서쪽에 위치한 것은 같으나 확인하기 어렵다.

333) 도산잡영의 유정문, 정우당, 절우사, 탁영담, 천연대천운대, 몽천열정 등과 안동시,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도산서원

도산서원은 전역이 사적으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도산서당 동측 암서헌의 가섭지붕은 본래 초가지붕이던 것을 후에 바꾸었고, 동측 퇴칸 마루는 퇴계의 유의(遺意)를 받들어 설계대로 한강 정구가 안동부사 시절에 만들고 있다. 이 또한 역사의 한 단면으로 보존되어야 하고, 퇴계가 직접 지은 건축물로 함부로 손대지 못하고 손을 댄 자는 그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으로 기록되어 잘 보존되어 온 것이 확인된다. 그러나 상덕사를 문화재로 지정할 당시 묘우를 둘러싼 토담을 포함하였지만 보수공사 때 돌담장으로 바꾸면서 제외되고, 성역화 과정에서 대대적인 중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도산서당의 기단은 자연석 기단이지만 사용된 석재의 크기가 다르고, 지붕의 변화가 많이 보이는데 수키와는 언강노출로 마감되며 바닥기와는 암기와이다. 또한 내림마루의 끝이 가섭지붕의 내림마루와 맞물려 있으며 머거불이 수직하고 있고, 용마루의 쌓기와 내림마루의 끝에는 망와 등이 다르다. 정우당은 자연석 쌓기로 축조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변형은 추후 보수공사 시 원형 회복을 위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농운정사도 조선고적도보와 전경 사진(관리사무소)을 통해 자연석 석축과 정문과 비슷한 높이의 낮은 토석담 등이 확인되는데 현재는 높아져 경관이나 위요감 등을 다른 공간감을 주고 있다. 최소한 정화사업으로 변형되어 공간감을 해치고 있는 부분은 최소한 원형 복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농운정사는 건축가로서의 퇴계가 직접 참여하여 도산서당과 같이 지어져 초기적인 형태의 복학적 공간구성을 보이며 쓰임새에 따른 창의적인 평면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학문 및 수양과 연계된 공간의 관계와 자연으로의 확장 등 도산서당의 자연과 합일되는 시적 거주를 농운정사에서도 체험하도록 하고 있다.

## 2. 연혁·유래 및 특징

도산서당과 농운정사는 퇴계가 말년에 강학을 위해 지은 건축물이다. 1551년에 건립된 2칸의 계상서당(溪上書堂)을 전신으로 문도가 늘자 수용이 어려워 문인들의 고쳐 짓자는 세 번의 소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1557년 3월 자리에 대한 영감<sup>334)</sup>을 받고 짓는다고 확정하자 용수사(龍壽寺)의 승려인 법련(法蓮)이 자원하여 건축을 맡았다. 1558년 3월 먼저 후에 천연대인 창랑대(滄浪臺)를 쌓고 조경을 시작하고 있다.<sup>335)</sup> 11월 초에 옥사도자(屋舍圖子) 두 종류를 장자 준에게 보내 법련과 의논하여 정하게 하고, 설계도에

실측조사보고서, 191, p24~25

334) 퇴계선생문집 內集 卷2, 葉39~40;尋改卜書堂地 得於陶山之南有感而作二首 … 萬化窮探吾豈敢 願將編簡誦遺言.

335) 도산잡영, 퇴계선생문집고증권지2 제2권, 58年 戊午 3月條, 築滄浪臺 後改天淵 …

미진한 부분을 그려 이문량(李文樑)과 조목(趙穆)에게 보내면서 법련과 상의하게 하하고 있다.<sup>336)</sup> 1559년 정월에 법련이 사망하자 이문량이 건축을 담당할 용수사의 승려인 정일(靜一)에게 맡기고 있다.<sup>337)</sup> 1561년<sup>338)</sup> 당 3칸으로 마루 암서헌과 온돌방 완락재라고 하고 도산서당이 준공되고 있다. 같은 해 서당의 서쪽에 정사(精舍) 8칸을 지어, 휴식 공간인 헌(軒)은 관란(觀瀾), 학생들이 공부하는 장소인 재(齋)는 시습(時習), 잠자는 공간인 요(寮)는 지숙(止宿)으로 하여 농운정사(隴雲精舍)라 이름하고 있다. 이러한 1557년 택지하여 1561년 완공까지 5년의 과정을 거쳐 완성되고 있다.<sup>339)</sup> 1562년에 어린 나이의 학생들이 독서하고 거처할 장소로 지은 역락서재는 제자 정사성(鄭士誠)이 처음 학문을 배우러 왔을 때 그의 아버지 침(蹠)이 아들을 위해서 지어준 별채로 처음에는 동몽재(童蒙齋)라고 하고 있다.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로 동쪽부터 마루, 온돌방, 부엌으로 구성되어 전면에 쪽마루가 놓여있다.<sup>340)</sup> 이후 관직으로 상경하였던 일부 기간 외에는 도산서당에서 학문의 연구와 강론에 매진하고 있고, 1670년(선조 3) 2월에 역책<sup>341)</sup>하고 있다. 일읍이원(一邑二院)의 문제와 건립비용의 부담으로 안동과 예안으로 대별되는 퇴계학과 내부의 갈등 이후 1574년(선조 7) 봄에 착공하여 1년여의 공사로 1575년(선조 8)에 준공하고, 퇴계의 위패봉안은 1576년(선조 9) 2월 12일에 거행하고 있다.<sup>342)</sup> 이후 암서헌의 뒷간의 마루는 없었으나 한강 정구가 안동부사 부임(1607년-1608년) 당시 유의를 받들어 만든 것으로, 기존의 마루와 구분하기 위해 살마루로 하고 있다.<sup>343)</sup>

도산서원은 퇴계가 지은 도산서당이 갖는 상징성으로 후대의 문인들이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선불리 보수 등을 하지 않고 있다. 1561년 도산서당, 농운정사 건립(퇴계집) 이후의 보수 이력은 1813년 묘우수리 암서헌 허물어진 곳 수리((癸酉廟宇修理時日記), 1929년 암서헌 수리 비 새고 파손되는 부위 점검 및 수리, 번와 보수(巖栖軒修理時日記, 己巳), 1931년 곡구도로 수선 절우사 및 정우당 제축 보수, 유정문 바깥담 개축, 암서헌 동쪽 담 보수(谷口道路修繕時日記附, 辛未), 1932년 농운정사 수리 암서헌 바깥

336) 여리대성, 여조사경

337) 답조사경

338) 도산서당의 준공은 ‘서애보(西涯譜)’에 1560년으로 기록되었으나 ‘광희보유본(廣瀨補遺本)’에 1561년(61세)라 하는데 문화재청에서 간행한 『안동 도산서원 전교당, 상덕사 및 삼문 정밀실측조사 보고서(상)』 p64의 내용에 따라 1561년으로 한다. 퇴계의 갑년(甲年)은 신유년(1561년)이고 월천(越川) 조목(趙穆)에게 보낸 2통의 편지의 간지를 근거로 한다. 도산기, 도산잡영 병기 등에 기록되어 있다.

339) 성재(惺齋) 금난수(琴蘭秀)의 성재문집 “도산서당영건기사(陶山書堂營建記事)”

340) 도산서원 실측조사보고서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1, P.28. 현재 역락서재는 농운정사 서남방에 위치하고 있지만 서애보(西涯譜)나 표암 강세황(1713~1791), 허주징(1581~?), 월탄 김창석(1652~1720)의 ‘도산서원도’를 살펴보면 농운정사의 서쪽 언덕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역락서재의 위치가 어떠한 바뀐 바뀐 것은 알 수 없으나 현재의 위치도 도산서당과 농운정사의 배치에서 비껴선 곳에 배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341) 역책(易簣)은 증자(曾子)가 죽을 때를 당하여 샅자리를 바꾸었다는 것에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의 죽음이나 임종을 이르는 말로 사용한다.

342) 『선조실록』, 『인조실록』에 나타난다. 권기환, 도산서원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2016, p.30 참조

343) 이익, 성호전집 53, 알도산서원기, 국립문화재연구소, 서원향사(소수서원, 도산서원), 201, p. 171.

문 층계 신축, 유정문 외로 수선(隴雲精舍修理時日記附, 壬申), 1969-1970년 보수정화사업(문공부 직영) 도산서당 전면 해체 보수, 석축 및 담장 개축(도산서원중수지), 1977년 서원 광장 조경 마당 정비, 유정문 교체(경상북도 문화재정보화), 1989년 장관각 및 도산서당 보수(확인 불가), 2007년 도산서당, 장관각 및 협문 변화 보수 부식재 교체 및 변화, 벽체 공사(수리자 블로그) 등이다.

농운정사는 동재서헌의 유교적 위계질서를 적용하여 동측에 제자들이 공부하는 마루를 시습재(時習齋), 서측에 휴식하는 마루를 관란헌(觀瀾軒), 가운데 잠자는 공간을 지숙료(止宿寮), 그리고 고방으로 구성되고 있다. 시습재는 논어의 첫 구절의 ‘학이시습지불역 열호(學而時習之不亦說乎)’에서 따온 것으로 제자들이 공부하던 곳이다. 유교적 위계질서에 따라 나이가 많은 제자들은 동측의 방을 사용하고, 내부는 단칸의 사각형 마루형태로 네 명 정도가 앉기에 적당한 크기이다. 서측은 개방시키고 나머지 면은 벽으로 막았고, 벽에는 사방으로 창문을 내어 채광과 맑은 공기가 흐르도록 하고 있다. 동측의 창을 통하여 절우사가 일직선상에 보이고 북동측으로는 도산서당 그리고 전면 창으로는 낙동강이 보이고 있다. 관란헌은 ‘觀水有術必觀其瀾’ 라는 구절에서 따온 것으로 마루에서 낙동강의 푸른 물을 굽어보고 풍광을 감상하는 휴식공간이었다고 한다. 동측을 개방한 것 외에는 시습재와 동일하고 대칭되게 구성하고 있다. 지숙료는 유생들이 생활과 윤리의 내재적·자율적 실천을 전제로 거처하는 공간으로 온돌을 설치하고 있다. 지숙료에는 높이와 크기가 각기 다른 창호를 설치하여 채광, 환기, 조망 등에 유리하도록 하고 있다. 전면의 창으로 담장 너머로 낙동강이 보이고, 동측으로는 도산서당, 서측으로는 서취병이 보이고 있다. 고방은 좌·우로 한 칸씩 조성되어 있으며, 내부에는 벽장이 설치되어 있다. 고방은 날개채 좌·우 후면에 한 칸씩 조성되고 방 쪽 상부에는 벽장이 설치되고 있다.

농운정사를 중심으로 앞 뒷마당을 조성하면서 사괴석 담장을 두르고 있다. 장대석 1단을 놓고 방형으로 가공하여 비슷한 크기로 사괴석을 쌓고 있다. 사괴석과 내민 줄눈을 겹겹이 쌓고 담장 위에는 기와를 얹고 있다. 전면과 배면, 좌·우측면을 각각 다르게 쌓은 것은 지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담장은 남북으로 약간 긴 장방형으로 우측면 남동쪽의 협문에 맞대어 담장을 두르고 있다. 농운정사의 담장은 원래 토석담장이었으나 보수정화사업 당시 도산서당 주위를 제외한 전체가 현재와 같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담장의 높이가 전체적으로 높아져서 농운정사의 마루와 방에서 바라보는 전면 경관을 가리고 있어 시급하게 원형 복원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협문은 맞배 지붕의 출입문으로 이용되고 있고, 자연석 기단 위에 세로로 긴 방형의 초석을 놓고 네모기둥을 세워 상부가구를 받고 있다. 정사의 동쪽 후면으로 도산서당이 자리하고 서쪽 전면으로 역락서재가 자리하고 있다. 농운정사는 경사진 곳에 위치하여 지형에

따라 앞에 석축을 쌓아 대지를 조성하고 있다. 전면으로 석축을 쌓아 1단은 앞마당을 조성하고, 2단은 지숙료 몸채와 관란헌과 시습재를 놓고 3단은 뒷날개채와 뒷마당으로 자연 경사지형에 따라 자리를 만들고 있다. 1969년에 중수 및 보수정화사업으로 화강석 장대석으로 변화되고 있고, 화강석을 장대석으로 다듬어 층층이 쌓아 경사 지형에 따라 쌓은 높이가 차이가 난다.

기단은 전면과 우측면에는 4단으로 쌓고, 전면 가운데 뒷마루 부분에는 2단으로 쌓아 오를 수 있는 장대석 디딤돌을 놓고 있다. 기단은 지형의 경사에 따라 배면 1단, 좌측 3단에서 2단, 1단으로 자연스럽게 조성되고 있다. 기단 상부에는 정방형의 방전으로 마감하고 있다. 전면과 좌측면, 배면 기단에 함실아궁이를 설치하고 후면에 기단굴뚝을 설치하고 있다.<sup>344)</sup> 기단 위에 크기와 형태가 다른 자연석 초석을 놓고 있다. 전면 초석은 기단면과 거의 편평한 높이로 맞추었고 그 외 기단은 높은 것을 사용하여 지형 차에 따른 기둥의 높이를 조절하고 있다. 초석 상면에 맞춰 기둥 하부를 그랭이질하여 네모기둥을 사용하고 있다. 지형이 후면으로 갈수록 높아지므로 전면 기둥이 배면 기둥보다 높다. 쪽마루 하부에는 동바리기둥을 사용하고 있다.

마루는 실마다 쓰임새에 따라 다르게 구성하고 있다. 전면과 배면으로는 쪽마루를 달아 출입이 편리하도록 하고 있고, 시습재와 관란헌은 줄대를 대고 그 위에 청판을 얹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방식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숙료는 장판을 깔았으며, 고방은 흙으로 마감하고 있다.

가구는 간결한 3량가 홀처마의 민도리집으로 사시헌과 관란헌, 지숙료, 고방이 다른 차이가 있다. 사시헌과 관란헌의 가구는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량 중앙에 판대공을 놓아 종도리와 받침 장여를 받고 있다. 판대공의 형태는 양측면이 조금 다른 형태를 띠는데 한쪽은 세로로 긴 형태의 판대공이고 다른 한쪽은 가로로 긴 판대공이다. 이는 회침 없이 지붕 물매 높이를 조절하여 양측 실의 높이를 다르게 구성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좌측보다 우측을 더 높게 구성한 것은 공부하는 공간인 ‘시습재’가 더 중요한 공간으로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부에는 창방을 걸어 받도록 하였고, 보아지는 내부만 사절되어 있다. 지숙료의 가구는 좌측면만 판대공을 세워 종도리와 받침 장여를 받고 있고, 중앙과 우측면에는 대공 없이 대량 위에 받침 장여와 종도리를 올리고 있다. 고방의 가구는 좌·우측이 동일한 형태로 한쪽 측면을 대량 위에 받침 장여와 종도리를 바로 받고, 받침이 있는 부분은 대량 중앙에 육각형의 대공을 세워 받고 있다.

지붕은 홀처마 맞배지붕인 몸채와 양날채를 연결하여 일자형으로 구성하고 있다. 시습재와 관란헌의 지붕은 더 높고 지숙료의 지붕면을 낮추어 구성하고 있다. 지숙료의 중

344) 1991년 도산서원실측조사보고서에 수록된 농운정사 배면 사진에는 후면 마당에 지붕 높이만 한 굴뚝이 설치되어 있는데 언제 철거되었는지는 알 수 없고 현재는 기단 굴뚝이 설치되어 있다. 원형으로 복원한 것인지 확인을 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도리가 시습재와 관란헌의 종도리에 결구되어 회첩 없이 지붕을 구성하고 있다. 양 날개채는 맞배지붕으로 꾸미고 그 사이를 맞배지붕으로 연결하여 工자형 지붕이 되고 있다. 양 날개채의 전면 박공에는 풍관을 설치하고 있으나 후면에는 설치하지 않고 있다. 박공은 ‘人’자 모양으로 관재 위에서 2개의 부재가 중앙 상부를 중심으로 양쪽 지붕곡을 따라 처마 끝까지 연결되는 통부재이다. 내·외부 벽체는 회사벽이고, 지숙료는 기숙사로 거주하는 공간이므로 내부를 종이반자로 마감하고 있다. 몸채 상부 박공지붕의 용마루는 양측의 지붕을 따라 올라가 용마루와 연결하고 있고, 착고와 부고 위에 적새를 올리고 5단의 적새를 쌓고 있다. 내림마루는 5단의 적새를 쌓고 숫마루장을 올려 마감하고 있다. 암막새의 문양은 초문양이며, 수막새의 문양은 8개의 꽃잎으로 장식한 연화문양이다. 창호는 각 실마다 다양한 형태로 설치하고 있다. 위치에 따라 높이와 크기를 서로 다르게 내어 주변 경관을 조망하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고 있다.

관란헌은 우측면을 개방하고, 전면과 좌측면에 창호를 설치하고 있다. 전면은 하부에 머름을 두고 위·아래로 둔테를 단 우리판문을 설치한 흔히 볼 수 없는 고식의 수법이다. 우측면에는 외여단이세살문을 설치하고 있다. 시습재는 우측면을 개방하고 전면과 좌측면의 창호는 관란헌과 동일하게 설치하고 있다. 지숙료의 창호는 생활공간에 맞게 다양하고 특이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좌측에서부터 두 칸은 쌍여단이세살청판분합문, 눈뿔짜기창, 외여단이 세살청판분합문을 설치하고, 우측 두 칸은 양측으로 눈뿔짜기창을 설치하고 가운데에 외여단이 세살청판분합문을, 우측 끝에는 외여단이 세살청판분합문과 외여단이세살문을 설치하고 있다. 눈뿔짜기창은 통기와 환풍 및 채광을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작은 창을 내어 밖을 내다 볼 수 있도록 하여 액자효과를 주고 있다. 배면으로는 외여단이세살문을 달고 있다. 지숙료는 4칸 방에 칸마다 다른 여러 개의 창호가 설치되고 있다. 출입을 하는 문과 주출입구 옆에 작은 창을 내어 밖을 보거나 풍광을 감상하도록 하고 있다. 동측의 방은 쌍여단이문이고 서측의 방은 외여단으로 되어 있어 상·하급반의 위계를 표현하고 있다. 고방의 창호는 좌·우 양측으로 세살청판분합문을 달았으며, 배면은 판벽으로 양측 동일하게 구성하고 있다. 농운정사의 천장은 대청과 방을 구분하지 않고 서까래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모두 연등천장으로 되어 있다.

16세기에 건립된 서원은 남계서원, 소수서원, 서악서원, 파산서원, 금오서원, 옥산서원, 필암서원 등이 있지만 대부분 강학과 기숙을 위한 건물이 별도로 건립되고 있으나 도산서원은 퇴계가 건립할 때 도산서당과 농운정사가 각각 강학과 기숙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운정사는 퇴계의 건립 때부터 강학과 기숙 그리고 휴식 등의 복합 교육시설로 지어지고 있는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평면도 一자형 평면의 일반적인 기숙공간이 아니라 工자형 평면구성을 보이고 있다. 농운정사는 퇴계의 건축관을 반영한 16세기 서원건축의 초기 사례로 내부적으로는 복합 교육공간이고 외부적으로는 자

연과 소통하고 있는 공간 특성을 보이고 있다.

### 3.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안동 농운정사에 대한 역사적인 가치는 다음과 같다. 서원 건립에 적극적으로었던 퇴계의 성리학의 토착화에 대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방의 사학교육기관으로 강학(講學)과 장수(藏修)를 근본으로 사대부의 정신세계와 자연관을 살펴볼 수 있다. 주세붕과 우탁, 정몽주, 이숭인, 길재 등에서 농암 이현보와 퇴계 이황에서 꽃을 피우고 학봉 김성일, 서애 류성룡, 경당 장흥효, 갈암 이현일, 대산 이상정 등으로 이어지는 영남사림의 줄기의 핵심에 있다. 도산서원은 퇴계학파를 잇는 문인 309명을 확인할 수 있으며 조선시대 퇴계가 제향된 서원은 31개소나 되고, 대원군의 서원철폐령 때에도 남아 세계문화유산의 중요한 문화재이다. 농운정사를 건립한 퇴계라는 인물을 통한 조선 중기의 대학자로서 성리학 연구 업적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아들, 후학, 친우 등과의 관계를 통해 인간적인 면모가 잘 드러나고 있다. 조선의 11대~14대 임금을 거치는 동안 수많은 임금을 비롯한 관리와 선비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 저서로는 천명도설(天命圖說), 계몽전의, 주자서절요 등과 자성록(自省錄) 그리고 성학십도(聖學十圖) 등이 있다. 도산서당과 농운정사는 퇴계가 말년에 강학을 위해 지은 건축물로서 자리에 대한 영감을 통해 자리를 확정하고 승려 법련(法蓮)이 천연대를 쌓고 조경을 먼저 시작하고 있다. 이는 옥사도자(屋舍圖子)를 비롯한 다양한 기록에 나타나고 있다. 이후 용수사의 승려인 정일(靜一)이 말아 도산서당과 농운정사(隴雲精舍)를 5년에 걸쳐 준공하고 있다. 즉1560년에 도산서당이 건립되고 1561년에 농운정사가 건립되고 있다. 이후 어린 나이의 학생들이 독서하고 거처할 장소로 지은 역락서재가 건립되고 있다. 이후 내부의 갈등과 1574년 도산서원의 준공과 수리 등이 확인된다. 그 과정에서 퇴계가 지은 도산서당이 갖는 상징성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보수를 하지 않으면서 수리 과정에서도 잘 보존되어 오고 있다. 퇴계의 친필인 편액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 퇴계가 설계하고 법련과 정일이 건립한 도산서당과 농운정사에 참여 인력과 내용 및 과정 등이 퇴계의 기록으로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농운정사의 건립과 역사는 가서(家書, 1558년 후반), 도산기(陶山記, 1561년), 성재(惺齋) 금난수(琴蘭秀)의 도산서당영건기사(陶山書堂營建記事), 퇴도선생언행통록(退陶先生言行通錄, 1732년), 계유묘우수리시일기(癸酉廟宇修理時日記, 1813년), 농운정사수리시일기부(隴雲精舍修理時日記附, 1932년)에 나타나고 있다.

안동 농운정사에 대한 학술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 도산서당과 농운정사는 도산잡영을 비롯한 다양한 기록과 그림 등에서 서원의 관련 인적 구성과 규모, 서책 관리와 도서관의



기능, 출판문화, 정치 사회적인 역할과 갈등, 배치와 주변의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도산서원의 주변은 선비문화를 엿볼 수 있는 수많은 문화재들이 벨트를 이루어 교육 및 관광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가로서 퇴계가 직접 참여하여 진행과정을 기록한 서신과 기록 등은 당시 상황과 문화를 이해하고, 도산서당과 농운정사의 봉화포란형의 입지에서 풍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학술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도산서당과 농운정사는 퇴계의 건축관이 반영된 초기 형태의 강학공간과 기숙공간으로 16세기의 건축형식과 독자적인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서당건축의 기숙사로서 초기적인 구성을 보이면서 공(工)자형 평면의 보기 드문 형식이다. 공사형 평면은 풍수지리 양택론에서 금기시 여겨왔으므로 거의 나타나지 않는 평면 형태로서 서원 건물로서는 유일한 특징이 될 것이다. 농운정사의 동재서헌의 위계적인 배치, 복합적인 용도에 따른 실의 배치와 구성, 다양하고 위계적인 창호 형식 등을 퇴계가 설계 단계부터 구상한 것으로 다른 건축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퇴계가 건축에 직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건축가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고 문헌을 통해 건축 참여인물과 관련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철저한 보존 및 보수로 관리되어 오고 있다.

안동 농운정사의 구조와 조형적인 특징에서 학술적인 가치는 다음과 같다. 도산서당과 농운정사는 자리를 잡는 과정과 조경을 먼저하고 주변의 자연을 읽어가는 과정이 잘 드러나고 있다. 특히 주변에 이름을 붙여 건축과 자연의 관계 그리고 택목이나 인공물의 배치 등과 담장을 꾸는 등 그에 대응하는 시적인 고양으로 잘 드러나고 있다. 농운정사는 거처하는 공간인 지숙료, 강학하는 공간인 시습재, 유식하는 공간인 관란헌, 고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면은 일반적인 배치에서 벗어나 몸채와 양측면으로 맞배지붕의 날개채를 갖는 공(工)자형 평면이다. 동재서헌의 유교적 위계질서를 적용하여 강학공간인 시습재(時習齋)와 유식의 공간인 관란헌(觀瀾軒)을 배치하고 있다. 나아가 시습재와 관란헌 사이에 몸채를 구성하여 기숙의 공간인 지숙료를 배치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강학, 유식, 기숙공간이라는 프로그램을 합한 복합교육시설이라는 측면에서 독자적이고 독특한 구성을 하고 있다. 나아가 서당 주변의 자연과 인공물 등으로 연계되고 확장되어가고 있다. 농운정사는 독립적인 영역을 이루면서 도산서당과 역락사재 등과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 서에서 동으로 갈수록 위계를 높게 하는 배치와 농운정사의 공간구성을 하고 있다. 이에 따른 시각적인 흐름과 폐쇄도 잘 드러나고 있고, 특히 전면으로 낙동강을 바라보기 위한 시각적인 고려로 담장의 높이는 반드시 원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는 도산서당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농운정사에도 학문 및 수양과 연계된 공간의 관계와 자연으로의 확장 등을 통해 자연과 합일되는 시적 거주를 자연스럽게 익히고 있는 것이다. 창호는 쓰임새와 경관을 조망하는 형태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위계적인 형식이 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공간구성은 성리학적인 질서를 담으면서도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유생들의 관점에서 유생들의 쓰임새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퇴계가 건축에 직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건축가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고, 고문헌을 통해 건축 참여인물과 관련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철저한 보존 및 보수로 관리되어 왔다. 나아가 자연석 석축과 낮은 토석담 등은 경관이나 위요감 등으로 인해 공간감을 해치고 있어 최소한 원형 복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도산서당과 농운정사가 갖고 있는 자연과 인공요소를 어떻게 구성하며 건축적 의미를 확장시키고 있는지를 찾는 노력이고 회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안동 농운정사는 역사적, 학술적, 조형예술적인 측면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 지정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문화재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기를 바란다.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0.09.03	대상문화재	안동 도산서원 농운정사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건축계획
	소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안동 도산서원 농운정사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p>동·서 산줄기가 감싸고 있는 아늑한 경사지에, 앞으로는 맑은 물이 흐르는 <b>전형적 배산임수 배치</b>를 하고 있으며, 변화한 곳에서 떨어져 있으나 <b>외지치 않은 포근하고 아늑한 곳</b>이어서 퇴계는 심신 수양의 최적지로 여겼다.</p> <p>한편, 사화로 어지러운 세상을 조심스럽게 살아가고, 나아가서 벼슬하면서 경론(經論)을 펴는데 기대를 가지지 않고 <b>학문을 하는 것이 자기에게 부여된 사명을 다하는 길</b>이라고 생각하고 도산에 자리를 잡고 농운정사를 조성한 것이다.</p>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검토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검토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p>조선시대 대성리학자였던 퇴계 이황이 말년에 제자들에게 강학하기 위해 건립한 농운정사는 퇴계의 학문적인 영향력으로 인해 그의 제자들에게 큰 의미를 부여한다. 농운정사는 강학(講學)·장수(藏修)의 기능을 갖고 있는 당(堂)이라는 공간에, 독자적인 휴양(休養)·유식(遊息)의 공간을 동시에 담아내고자 하는 계획원리로 조영된 건축물이다. 농운정사에서는 계획원리를 도토마리 옥제를 사용하여 양날개 부분에 유식의 공간을 위치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여 구현하였다. 이와 같이 퇴계의 건축적 의지와 계획원리로 조영된 8칸 규모의 工자형 집으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하기 위한 역사성이나 건축적 가치가 뛰어난 것으로 사료된다.</p>
------	--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자

2020 년 10월 일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1. 퇴계의 생애<sup>345)</sup>

퇴계 이황은 1501년 경상도 예안현 온계리(溫溪里)에서 7남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집안은 여러 대 전부터 온계리에 정착하였고 조부는 진사(進士)를 지낸바 있다. 퇴계가 출생한 때에는 부친은 비교적 탄탄한 경제력을 쌓아 중소지주 이상의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부친이 처가로부터 많은 서적을 인수받아 집안에 많은 귀한 서적을 갖추고 있었다고 한다. 고향에서 작은 아버지로부터 학문을 닦은 퇴계는 27세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한 것을 계기로 한 동안 서울로 올라가 성균관에 들어가 공부하였으며, 34세에 정식으로 문과 급제하여 관직생활을 시작하였다.

당시 정계는 사림파와 훈구파의 대립으로 극도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1945년 을사사화가 일어나자 45세에 몸이 아프다는 구실을 대어 관직을 버리고 낙향하였다. 이 후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고향에서 지내면서 성리학의 학문 탐구에 몰두하였다. 고향에 내려온 이후에도 완전히 관직에서 떠나지는 못하여서 풍기군수를 비롯하여 성균관대사성(成均館大司成), 홍문관부제학(弘文館 副提學)에 제수(除授)되고 나이 68세 때에는 대제학으로 근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관직생활은 잠시 동안에 그치고 항상 고향에 되돌아와 학문에 정진하였다.

퇴계의 문하에서 배운 그 시대의 석학으로는 조목, 유성룡, 김성일, 정구, 기대승 등이 있으며, 이것은 한 시대에 성리학이념을 사회적으로 실현하는 업적에 머무르지 않고, 그 이후 조선시대를 통하여 성리학을 철학적으로 심화하고 학풍을 일으켜 사회이념의 성리학적 기반을 확고하게 확립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정몽주에서 시작하여 길재, 김종직, 정여창 등으로 이어지는 영남학파의 성리학적 연구 성과를 집대성하여 우리나라 성리학의 최고봉이 되었고, 이러한 업적으로 김굉필·정여창·이언적 등과 더불어 문묘에 향사되는 동방 5현 중 한사람이 되었다.

고향에 내려온 후에 퇴계는 온계리 생가에서 조금 떨어진 퇴계에 터를 잡고 살 집을 새로 짓고, 또 몇 군데 학문과 수양을 위한 건물이나 대(臺)를 지었다. 고향에 내려온 이듬해 46세가 되던 1546년에 양진암(養眞庵)을 지었다. 퇴계 생가인 온계리 집은 비교적 사람의 출입이 잦은 길가에 면하고 있었다. 처음에 퇴계는 이 집 남쪽에 작은 집을 짓고 지낼 생각이었지만 주변에 민가가 많아 한적한 맛이 없었기 때문에 집에서 동남 방향 약 3km되는 계곡 깊은 곳에 작은 암자를 지어 양진암이라고 하였다. 양진암 앞쪽의 시냇물인 "토계(兔溪)"를 퇴계(退溪)로 고쳐 부르고 이 퇴계라는 이름을 자신의 아호로 삼았다. 다시 잠시 풍기군수를 지내고 고향에 내려와 계류 서쪽에 한서암(寒棲菴)을 지었다.

<안동문화> 9집에서는 "선생은 50세에 고향 토계의 시냇가에 한서암을 짓고 그 앞

345) 김동욱, 퇴계의 건축관과 도산서당, 건축역사연구 제5권 1호 통권9호, 1996.6 재정리함

에 광영당(光影塘)이라는 연못을 팠다. 이때부터 선생은 독서와 사색을 벗 삼고 제자를 가르치는 데 정성을 다하였다. 한서암에서 5년 동안 살았는데 그의 인격을 흠모하여 모여드는 학생들이 날로 늘었다. 이에 선생은 이듬해에 계상서당(溪上書堂)을 지었다.” <안동향토지>에서는 “한서암은 퇴계 이황이 도산서당을 짓기 전에 독서를 하던 곳으로, 그 건너편인 시냇물 동편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새집을 짓고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였으나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여 다시 집 뒷산인 영지산 반대편 낙동강 상류물이 크게 꺾여 흐르는 강가에 집터를 마련하여 공부에 몰두할 장소를 얻었다. 이곳에 작은 서당을 짓고 또 거쳐하며 수양할 정사를 지었다. 이것이 바로 퇴계의 마지막 거쳐가 된 도산서당과 농운정사이다. 서당 주변과 영지산 일대 명소에 수많은 인공과 자연의 경승지를 찾아 이름을 짓고 경치를 감상하였다.

퇴계는 40대말부터 관직을 떠나 고향에 내려가 적어도 다섯 군데 이상의 건물을 신축하였고, 자연을 감상하는 여러 대(臺)를 쌓았다. 선비가 자신의 고향 주변에 학문을 위한 서당이나 정사 등을 짓는 것은 오랜 역사를 지닌 관행이었다고 하겠다. 번잡한 관직생활을 떠나 시골에서 한가한 전원생활을 노래한 당대(唐代) 도연명(陶淵明)의 시는 이러한 경향을 널리 유행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퇴계는 어려서부터 도연명의 시에 심취하였으며, 말년에 도산서당을 짓고 그곳에 있으면서도 늘 도연명의 시를 애송하였다고 한다.

표 1. 퇴계의 생애(김동욱, 퇴계의 건축관과 도산서당, 건축역사연구 제5권 1호 통권9호, 1996.6, p21 인용)

연대	주요내용
1501	온계리에서 좌찬성 이식(李植, 1463~1502, 39세) 7남1녀 막내로 출생
1512(12세)	숙부 송재공(松齋公) 이우(李堦)에게 논어 배움
1514(14세)	도연명의 시를 즐겨 읽음
1527(27세)	진사시(進士試) 합격
1528(28세)	사마시(司馬試) 급제. 성균관에 들어감
1533(33세)	재차 성균관에 들어감
1534(34세)	문과 급제. 승문원 부정자(承文院副正字)로 관계에 발들임
1537(37세)	모친상으로 3년간 복상
1539(39세)	홍문관 진출
1543(43세)	성균관 사성. 이해 성묘를 구실로 낙향
1544(44세)	2월 홍문관 교리로 소환. 이후 낙향과 소환을 거듭함
1546(46세)	양진암 짓고 독서와 구도. 이 때 토계를 퇴계로 고치고 자호(自號)로 함
1548(48세)	단양군수를 거쳐 풍기군수

1549(49세)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감
1550(50세)	한서암 지음. 광영당 팜
1552(52세)	4월 홍문관 교리로 환도. 7월 홍문관 대사성에 오름
1556(56세)	홍문관 부제학
1557(57세)	3월 도산 남쪽에 서당터 얻음
1558(58세)	3월 창랑대(滄浪臺) 세움(후에 천연대(天淵臺)로 고침) 윤7월 왕명으로 입도. 10월 성균관대사성
1560(60세)	11월 <b>도산서당 건축</b>
1561(61세)	절우사 세움. <b>농운정사 건축</b>
1564(64세)	여러 차례 관직에 복직되었다가 고향으로 돌아옴
1568(68세)	8월 홍문관대제학. 여러 차례 사직을 청하였으나 허락받지 못함
1570(70세)	12월 임종

## 2. 농운정사의 연혁

농운정사는 퇴계 이황(退溪 李滉, 1501~1570)이 직접 설계하여 법련과 정일이 건립한 것으로 1560년에 도산서당이 건립된 이후 1년 뒤인 1561년에 농운정사가 건립되었으며, 터를 잡은 1557년부터 건립기간까지 총 5년에 걸쳐 완공되었다. 퇴계의 사후 1574년에는 도산서당 일곽으로 확장하여 도산서원이 건립되었으며, 이듬해인 1575년에 사액을 받았다.

농운정사는 도산서원에서 기거하며 공부하던 학생들의 기숙사이다. 선생께서 제자들에게 공부에 열중하기를 권장하는 뜻에서 한자 ‘공(工)’의 모양으로 짓도록 하였다. 공부를 하던 동편 마루를 시습재(時習齋)라 하고, 휴식을 하던 서편 마루를 관란헌(觀瀾軒)이라 하였다.

농운(隴雲)은 양(梁)나라의 은사(隱士) 도홍경(陶弘景, 456~536)<sup>346</sup>의 시에 나오는 ‘농상다운백(隴上多雲白)’에서 유래된 것이다. 농운정사는 동편 마루인 시습재(時習齋)와 서편 마루인 관란헌(觀瀾軒)에 유생의 숙소인 지숙료(止宿寮)를 포함하여 모두 8칸으로 되어 있다.

이때 ‘시습’은 논어(論語) 학이(學而)의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sup>347</sup>에서 따온 것이며, ‘관란’은 맹자(孟子) 진심(盡心)의 “물을 보는 데도 법이 있으니 반드시 물결치는 이치를 살펴봐야 한다.”<sup>348</sup>에서 온 것이다. ‘지(止)’와 ‘숙(宿)’은 논어 미자의 자로(子路)와 하조장인(荷蓑丈人)의 고사에 기원을 둔 말이며, 또한 주자(朱子)가 만년에 머물던 무이정사(武夷精舍)의 인지당(仁智堂)쪽에 있던 방의 이름이 ‘지숙

346) 자 통명(通明). 호 은거(隱居). 단릉 말릉(丹陵 秣陵 : 江蘇省 南京) 출생

347)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論語 學而篇.

348) <觀水有術, 必觀其瀾> 孟子 盡心

료'이었다. 그러므로 전체의 건물 이름이 모두가 유교적 이상을 표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농운정사의 연혁을 알 수 있는 자료로는 1561년에 퇴계가 쓴 도산잡영(陶山雜詠)을 창작하면서 기록한 도산기(陶山記)와 퇴계의 제자인 성재 금난수(惺齋 琴蘭秀, 1530~1604)의 「도산서당영건기사(陶山書堂營建記事)」, 1732년에 기록한 퇴도선생언행통록(退陶先生言行通錄), 1813년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계유묘우수리시일기(癸酉廟宇修理時日記), 1932년에 기록한 농운정사수리시일기부(隴雲精舍修理時日記附), 1989년에 권오봉이 기록한 퇴계가년표(退溪家年表) 등이 있다. 도산서당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도산기」이며, 가장 상세한 기록들이 나타난다. 서당의 입지 및 유래, 건립 인물 등이 잘 나타나 있다.

“퇴계는 천일곱 살 되던 1557년에 도산 남쪽에 터를 잡아...(중략)...11월초 건축설계도라 할 수 있는 도면 옥사도자(屋舍圖子) 두 종류를 보내 법련(法蓮)과 상의 하에 짓게 하고, 11월 하순에 먼저 보낸 설계도면 가운데 미진한 데가 있어 고친 도면을 다시 벽오 이문량(李文樑, 1498~1581)에게 보내 법련과 상의하게 하였다.”

도산기에서는 구체적인 건립연대와 건립한 인물에 대해서 나타나는데 1557년에 서당 터를 잡았으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나라의 소명을 받아 상경하여 같은 해 11월 초에 설계도인 옥사도자(屋舍圖子) 두 종류를 보내 건물을 짓는데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후 같은 달 하순에 앞서 보낸 설계도에 미진한 데가 있어 다시 그려 이문량과 조목에게 보내 법련과 의논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도산서당영건기사에서도 이와 관련된 기록을 살펴 볼 수 있다. 1557년에 선생께서 도산 남쪽에 서당터를 잡으시고...(중략)...1560년 7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11월에 서당이 준공되었는데, 당은 모두 3칸이었다. 현(軒)은 ‘암서(巖棲)’요, 재(齋)는 ‘완락(玩樂)’인데 합하여 ‘도산서당’이라 하였다. 서당의 서쪽에 정사 8칸을 지었는데, 현은 ‘관란(觀瀾)’이고, 재는 시습(時習)’이고, 요(寮)를 ‘지숙(止宿)’이니 ‘농운정사’라 이름하였다.

### 3. 건축적 특징

#### 1) 배치

도산서당은 중심건물로서 동측에 배치하여 독립성과 전면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게 배치한 것으로 보여지며, 농운정사는 학생들의 휴식과 독립성을 고려하여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 도산서당을 건물의 동측 약간 높은 곳에 남향으로 배치하고 농운정사는 서측으로 도산서당보다 약간 낮은 곳에 배치하였다. 이러한 배치 구성은 동측과 서측의 위계를 달리하여 동측에 위계가 높은 건물이 위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농운정사에서는 강학하는 공간인 시습재를 동측으로, 강학과 유식을 겸한 공간 관란

헌을 서측으로 배치하여 흐르는 강물을 바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서당과 연계 시켜 볼 때 서당과 다소 거리가 멀고 시각이 폐쇄되는 곳에 보다 자유로운 휴식공간을 두고 서당에서 볼 수 있는 위치인 우측에 강학의 기능을 가진 실의 배치를 한 것은 기능에 따른 적절한 고려라고 볼 수 있다.

## 2) 평면

농운정사의 평면에 관한 내용은 퇴계가 이문량에게 보낸 편지에 도면에 대한 설명과 계획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지난번에 법련의 생각을 보니, 도토마리집 제도<sup>349)</sup>를 좋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도는 굵어져서 낙숫물이 많이 흐르며 띠풀로 지붕을 덮기도 어렵고 또, 房, 室, 廳, 堂도 매우 좁아서 좋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제도를 만든 것은 堂이 반드시 남향하여 정방위가 되어야만 행례하는데 편하기 때문이며, 齋가 반드시 서쪽으로 치우쳐서 원유(園圍)를 대해야만 그옥함이 더하기 때문입니다. 그 나머지 방과 실, 부엌과 시렁, 문과 뜰 창과 문은 모두 뜻이 있는 것이니, 아마도 이 제도를 바꿔서는 안 될 것입니다.”<sup>350)</sup>

위 편지에서 보면 퇴계는 도토마리 옥제를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도 실제 건립된 농운정사에서는 이 제도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 건립 과정에서 직접 건립했던 법련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여기서 법련이 도토마리 옥제를 좋게 여기고 있었다는 점은 당시 경북지방에서 이러한 제도가 계속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게 해 준다. 농운정사에서는 강학공간에 기능적으로 어쩔 수 없이 부엌의 공간이 첨가되므로 부엌을 북편으로 후퇴시켜 시선을 가리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농운정사는 원래 ‘ㄷ’자형 평면에서 부엌이 부가되어 ‘ㄱ’자형 평면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도산서당 암서헌과 마찬가지로 농운정사에서도 장수와 유식의 기능을 한 건물 안에 설정하려고 한 의도를 보이고 있다. 농운정사의 도토마리 지붕은 한 건물에서 장수의 기능을 가지는 재와 유식의 기능을 가진 헌을 공간적으로 결합시키면서도 차별화하는 역할을 한다.

지숙료의 뒤편에 있는 부엌은 정면에서는 인식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지숙료에서 부엌과도 바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부엌은 원래 계획된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최대한 부엌을 가리도록 노력했음이 보인다. 또한 창호의 구성에서도 도산서당과 마찬가지로 내부에서 내다보는 기능에 충실한 창호를 계획하여 외관상으로는 불규칙한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자유로운 구성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농운정사에

349) 도토마리 제도(都吐麻里 屋制)는 가운데가 비어 있는 일종의 ㄷ자형 평면과 비슷한 내용을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동욱, 퇴계의 건축관과 도산서당, 건축역사연구 제5권 1호 통권9호, 1996.6, p24)

350) 한국문집편찬위원회, 퇴계선생문집 권17 與李大成 戊午, 한국역대문집총서, 경인문화사, 1993



서도 건물에서의 실용적 기능을 중시하는 퇴계의 사고가 잘 나타나고 있다.

농운정사는 1661년에 완성된 건물로 퇴계와 건축승려인 범련과의 합작품이다.

농운정사는 제자들이 기숙하면서 공부하던 8칸 규모의 건물로 공(工)자형 평면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이 공(工)자형 평면은 풍수지리 양택론에서 금기시 여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평면 형태이다. 다만 퇴계는 공부(工夫)를 뜻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공(工)자형 평면을 채택했다고 한다.

중앙부의 4칸은 중앙에 벽을 구획하여 2칸이 하나의 온돌방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을 지숙료(止宿寮)라 하였다. 지숙료는 머물고 잠자는 집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자들의 숙소이다. 3량가의 박공지붕으로 되어 있으며, 온돌방에는 배면의 고방 쪽으로 벽장이 설치되어 있다. 정사의 정면을 보면 좌우에 돌출된 각 1칸씩의 대청이 있다. 서남쪽 마루는 관란헌(觀瀾軒)이라 하여 제자들이 토론하거나 담소하는 곳이고, 동북쪽의 마루는 시습재(時習齋)라 하여 시시때때로 학습하는 공부방이다. 배면에도 좌우측에 각 1칸씩이 돌출된 고방이 있다.

농운정사는 개별 공간의 기능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중앙에 일(日)자로 뻗은 4칸짜리 지숙료가 농운정사의 중심을 잡아준다. 지숙료는 유생들이 잠을 자고 독서하던 곳으로 창호가 많이 달려 실내 채광이 좋다. 아침엔 동창이 불타고, 낮에는 처마를 타고 내려온 햇살이 갖가지 위치로 난 남창을 기웃거리고, 오후에는 노을이 서창에 걸린다. 이는 유생들이 햇살의 움직임으로 하루의 흐름을 인식하고 하루 종일 맑은 공기가 실내에 흐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숙료의 서쪽과 동쪽으로 돌출된 마루방은 각각 관란헌과 시습재로, 좁은 공간에도 틈을 찾아내어 자연을 초대한 사색 공간이다. 관란헌과 시습재가 마주보는 방향은 벽을 띄워 그 사이로 쪽마루를 깔았다. 그 외의 벽에는 여닫을 수 있는 나무문을 달아 공간의 기밀성을 높이고 날씨에 따라 판문으로 조절하도록 했다. 각각의 공간은 독립적이면서도 쪽마루로 열리기도 하며 하나로 통합된다. 좁은 공간이 마당을 끌어안는 순간 관란헌과 시습재는 하나의 공간으로 확장된다.

#### 가. 시습재

시습재는 제자들이 공부하던 공간으로 논어의 첫 구절의 ‘학이시습지 불역열호(學而時習之不亦說乎)’에서 따온 것이다. 유교적 위계질서에 의해 나이가 많은 제자들은 동측의 방을 사용하였으며, 시습재의 내부는 단칸의 사각형 마루형태로 네 명 정도가 앉기에 적당한 크기이다. 서측은 개방시키고 나머지 면은 벽으로 막아놓았으며, 벽에는 사방으로 창문을 내어 채광과 맑은 공기가 들어오도록 하여 정신을 맑게 하기 위하여던 것으로 보인다. 동측의 창을 통해서 바라보면 절우사가 일직선상에 보이고 북동측

으로는 도산서당이 보이며, 전면 창으로는 낙동강이 보인다.

#### 나. 관란헌

관란헌은 파란만장한 물도 알고 보면 한 줄기 근원에서 시작하는 것이니 현상을 뛰어넘어 본체를 파악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으로 ‘물을 보는 데 방법이 있으니 반드시 큰 물결을 보아야 한다.(觀水有術必觀其瀾)’ 라는 구절에서 따온 것이다. 즉, 마루에서 낙동강의 푸른 물을 굽어 볼 수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주로 풍광을 감상하고 성현의 행적을 느끼게 하는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간이었다고 전해진다.<sup>351)</sup>

관란헌은 동측을 개방시키고 나머지 3면을 벽으로 막아놓은 형태로 시습재와 동일한 형태이나 대칭되게 구성하였다. 전면 창을 바라보면 아래쪽 낙동강이 보이며, 우측의 창을 보면 현재는 전시관으로 이용되어지고 있는 옥진각이 보이지만 과거에는 옥진각이 없었으므로 충분히 풍광을 감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다. 지속료

지속료는 유생들이 잠을 자던 공간으로 온돌을 설치하였다. 지속료에는 다른 실에 비해 높이와 크기가 각기 다른 창호를 달아내어 채광과 공기가 잘 통하도록 하였다. 전면의 창을 바라보면 담장 너머로 낙동강이 보이며, 과거에는 담장이 낮았으므로 더 잘 보였을 것으로 보인다. 동측으로는 도산서당이 보이고 서측으로는 옥진각이 보이나 이전에는 옥진각이 없었으므로 풍광을 감상하기 충분했을 것이다. 배면의 문으로는 바로 맞은편에 있는 하고직사가 보인다.

#### 라. 고방

고방은 좌·우로 한 칸씩 조성되어 있으며, 내부에는 벽장이 설치되어 있다.

#### 3) 기단

농운정사의 기단은 과거에는 자연석을 경사지에 맞추어 쌓아놓은 형태였는데, 1969년에 중수 및 보수정화사업을 실시하면서 지금의 화강석 장대석으로 변화되었다. 현재 화강석을 장대석으로 다듬어 층층이 쌓았는데 지형이 경사지므로 지형에 따라 쌓은 높이가 차이가 난다.

시습재와 관란헌 전면과 우측면으로는 4단으로 쌓았으며, 지속료 전면 중간 쪽마루 부분에는 2단으로 물려서 쌓고 중앙으로 오를 수 있는 장대석 디딤돌을 놓았다. 배면은 1단으로 전면과 수평을 맞추어 쌓았다. 기단 상부에는 모두 정방형의 방전으로 마감하였으며, 전면과 좌측면, 배면 기단에는 온돌에 불을 뿜 수 있는 함실아궁이를 각각

351) 도산서원 배치에 관한 연구 - 도산서당 영건기의 내용을 중심으로, 장석하, 광동업, 1993, 일부 발췌

1개씩 설치하였다.

#### 4) 초석

초석은 자연석 덤범주초를 사용하고 있다. 자연석은 크기와 형태가 각기 다르게 사용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전면 초석은 기단면과 거의 편평한 높이로 맞추었고 그 외 기단은 높은 것을 사용하여 지형 차에 따른 기둥의 높이를 조절하고 있다.

#### 5) 기둥

기둥은 모두 사각기둥을 사용하였으며, 지형이 전면보다 높아지며 초석 높이가 전면보다 배면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면 기둥이 배면 기둥보다 높은 편이다.

#### 6) 상부가구

상부가구는 3량가 홀처마의 민도리집으로 되어 있다. 대들보 중앙에 판대공을 놓아 종도리와 받침 장여를 받았으며, 판대공의 형태는 양측면이 조금 다른 형태를 띠는데 한쪽은 세로로 긴 형태의 판대공으로, 다른 한쪽은 가로로 긴 판대공을 세웠다.

지숙료의 상부가구는 좌측면만 판대공을 세워 종도리와 받침 장여를 받았으며, 중앙과 우측면에는 대공 없이 대량 위에 받침 장여와 종도리를 올렸다.

#### 7) 지붕 및 박공부

농운정사의 지붕은 홀처마 맞배지붕으로 시습재와 관란헌의 지붕면은 조금 더 높이고 지숙료의 지붕면을 낮추어 구성하였다. 양측면은 박공으로 꾸미고 그 사이를 박공지붕으로 연결하여 工자형 지붕이 되게 하였다. 양 익사 박공에는 풍판을 설치하였다.

#### 8) 창호

농운정사의 창과 문을 보면 문은 띠살로 창은 정자살로 이루어져있음을 볼 수 있다. 농운정사의 창을 필요에 따라 높이와 크기를 조절해 서로 다르게 낸 것도 실내에서 주변 경관을 조망하는 눈높이에 맞게 하기 위한 이황의 계획이다.

농운정사에서 특히 흥미를 끄는 부분은 다양한 크기와 형태를 갖춘 창호들이다. 가운데 온돌방 2칸에는 큰 출입문과 정방형의 작은 창이 나란히 붙어있다. 오른쪽 출입문은 두 짝으로 되어있고 좌우에 작은 창이 대칭으로 놓인다. 왼쪽은 외쪽 출입문에 왼쪽에만 작은 창을 달아 변화를 주었다. 큰 문은 출입할 때 드나들고 정방형의 작은 창은 방 안에서 밖을 내다볼 때 쓰는 것인데, 여러 사람이 함께 공부하는 방에서 통풍과 환기 그리고 채광을 배려한 모습을 볼 수 있다.

#### 9) 마루

농운정사의 마루는 각 실마다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데 전면과 배면으로는 쪽마루를 달아 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좌·우에 위치하고 있는 시습재와 관란헌은 귀틀을 짜고 청판을 까는 전통방식이 아니라 줄대를 대고 그 위에 청판을 얹은 방식을 취했다. 지숙료는 장판을 깔았으며, 고방은 흙으로 마감하였다.

#### 10) 천장

농운정사의 천장은 대청과 방의 구분 없이 서까래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모두 연등천장으로 꾸몄다.

#### 11) 담장

농운정사의 담장은 과거에는 토석담이었으나 보수정화사업 당시 도산서당 주위를 제외한 전체가 사고석 담장으로 개축되었다. 현재 담장의 높이가 전체적으로 높아져서 과거 농운정사 및 서원에서 바라보는 전면 경관이 담장에 가려지고 있다.

### 4. 지정가치

#### (1) 역사적 가치

- 농운정사는 도산서당과 함께 퇴계 이황(退溪 李滉, 1501~1570)이 생전에 직접 설계한 건축물로써 법련과 정일이 건립하였다.
- 농운정사의 건립과 역사에 대해서는 1558년 후반에 쓴 가서(家書), 퇴계의 도산기(陶山記)와 성재 금난수(惺齋 琴蘭秀, 1530~1604)의 도산서당영건기사(陶山書堂營建記事), 1732년에 기록한 퇴도선생언행통록(退陶先生言行通錄), 1813년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계유묘우수리시일기(癸酉廟宇修理時日記), 1932년에 기록한 농운정사수리시일기부(隴雲精舍修理時日記附)에서 자세히 나타나며, 겸재 정선(謙齋 鄭敼, 1676~1759년), 허주 이정(虛舟 李澄, 1581~1563이후), 월탄 김창석(月灘 金昌錫, 1652~1720), 표암 강세황(豹菴 姜世晃, 1713-1791) 등의 옛 그림이 남아있어 각 시대별 농운정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농운정사는 고문헌을 통해 건축 참여인물과 관련 내용 등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 (2) 건축적 가치

- 농운정사는 정면 4칸, 측면 3칸 규모의 민도리 맞배지붕으로 ‘工’자형 평면을 하고

있다. 동재서헌(東齋西軒의) 유교적 위계질서를 적용하여 동측의 공부하는 공간을 '시습재(時習齋)'라 하였고, 서측 휴식하는 공간을 '관란헌(觀瀾軒)이라 하였다. 가운데 공간은 유생들이 잠을 자는 '지숙료(止宿寮)'라 이름 하였다. 일반적으로 그자형 건물은 풍수지리 양택론에서 금기시 여겨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평면 형태이며, 기존의 다른 서원 건축물에서 볼 수 없는 특징이다.

- 도산서당은 퇴계 본인의 강학공간으로, 농운정사는 문하생들의 강학 공간 및 거처하는 공간으로 마련하였다. 농운정사는 도산서당의 서쪽에 배치하여 학생들의 독립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동측에 비해 서측의 낮은 위계를 표현하고 있다.

- 농운정사의 창호는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설치하였는데 높이와 크기를 조절하여 서로 다르게 구성한 점은 실내에서 주변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다. 한편 지숙료의 동측 창호는 쌍여닫이, 서측 창호는 외여닫이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예를 행할 때 동측을 상위로 하였기 때문에 농운정사 또한 의장적으로 창호의 입면을 달리하여 공간의 위계적 질서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농운정사는 강학과 기숙, 휴식의 기능이 한 건물에 모두 들어가 있는 독특한 건축물로서 건물의 배치, 실의 구성 및 용도 등을 퇴계가 설계단계부터 구상하여 건립하였다.

## 17. 경주 성산서당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 가. 제안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경주 성산서당」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북 경주시 소재 「경주 성산서당」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경상북도지사
- (2) 대상문화재 :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167호 「성산서당」
  -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성산서당길 245 (하곡리 11)
  - 지정일 : 1985. 12. 30.
-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 명칭 : 경주 성산서당(慶州 聖山書堂)
  - 소유자(관리자) : 하곡정씨쌍봉공파문중
  -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성산서당길 245 (하곡리 11)
  - 조성연대 : 조선시대(순조 14년(1814))
  - 수량 : 1동
  - 지정면적 : 150m<sup>2</sup>(보호구역 1,830m<sup>2</sup>)
  - 양식 : 정면5칸, 측면2칸, 1출목 3익공, 겹처마, 5량가, 맞배+날개지붕

라. 현지조사의견(2020.09.08.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미흡.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미흡.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미흡.

마. 지정조사보고서 : 붙임참조

바. 의결사항

- 부결
  - 지정 가치 미흡.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부결 11명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0.09.08.	대상문화재	경주 성산서당 (경북 문화재자료 제 167 호)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건축사
	소 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경주 성산서당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 년 9 월 21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1.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경주 성산서당은 1814년 조선후기의 문신 정극후를 제향하기 위해 건립된 성산서사(聖山書社)를 모체로 하는데, 1871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사우인 경덕사(景德祠)가 훼손되고, 강당인 흥교당(興教堂)만이 남아 교육 공간으로 변모하였다. 성산서당이라는 이름으로 개칭한 것은 최근의 일이라 설과 경덕사 훼손 당시라는 설이 모두 전한다. 연일 정씨 쌍봉공파 하곡문중에서 관리하고 있다.

성산서당이 자리한 주소지는 경주시 안강읍 하곡리로, 경주 안강읍의 서쪽에 자리한 도덕산(道德山) 남쪽에 있는 계곡 깊숙한 곳이다. 도덕산에서 남쪽으로 바로 뻗은 줄기가 자옥산(紫玉山)이 되어서 회재 이언적의 유적지인 옥사서원과 독락당이 위치한 계곡을 이루고, 그 서쪽으로 삼성산(三聖山) 줄기가 갈라져 내려오면서 만든 계곡에 성산서당이 위치한다. 그래서 자옥산을 가운데 두고 양편에서 남북 방향으로 나란히 내려오는 두 계곡의 사이는 직선거리로 겨우 2.7km 남짓 떨어진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쌍봉 정극후(鄭克後, 1577~1658)는 퇴계의 문인인 여헌 장현광(張顯光), 1554~1637과 한강 정구(鄭述, 1543~1620)에게 공부를 배웠으니, 퇴계로 비롯하는 조선 중기 영남 남인계의 적통을 잇는 학자이다. 글과 글씨에 모두 뛰어나 많은 글을 남겼고, 1634년 늦은 나이에 학행으로 천거 받아 잠시 벼슬을 임명받고, 1643년 청에서 돌아온 효종의 대군사부(大君師傅)를 지내기도 하였으나 몇 달 후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삼성산 아래 집을 짓고 집필과 후학의 양성에 주력하였다. 성산서당의 건너편에 마주보고 있는 계변 정자인 수재정(水哉亭)이 바로 쌍봉 선생의 공부터로 전한다.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대 제왕의 역사를 정리한 『제왕역년통고(帝王歷年通攷)』, 경주의 사적을 정리한 『서악지(西岳志)』 등의 역사서와 예법을 정리한 『문묘사향지(文廟祀享志)』 등의 저술을 남겨 17세기초 재지사족의 학문적 관심을 잘 보여준다.

정극후가 활동하던 17세기 초반에 경주와 영천 일원에서는 같은 迎日(延日, 鰲川이라고도 한다) 鄭씨 출신의 학자들의 활동이 활발하였는데, 정극후의 형인 정사물(鄭四勿, 1574~1649)과 그와 6촌지간인 정사상(鄭四象, 1563~1623), 정사진(鄭四震, 1567~1616) 형제가 그들이다. 이들은 안강 일대에 많은 유적을 남겼는데, 안강읍 남쪽의 대동리에 있는 이의정(二宜亭)은 정사물과 정극후 형제가 학문소로 지은 것이고, 같은 지역에 있는 직천서원(稷川書院)은 정사진을 향사하는 곳이다. 이들은 모두 당시 멀지 않은 죽장면 입암(立巖)에 자리 잡은 장현광의 문인들이기도 하다. 16~17세기 향촌에서 사족이 학문을 바탕으로 세력가로 성장하여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성산서당은 골짜기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한다. 주소지는 경주시 안강읍 성산서당길 245(하곡리 11번지) 이다. 남북방향의 계곡의 서편 경사지에 자리하여서, 외삼문과 담

장으로 두른 독립된 공간 안에 동향하여 앞이 낮고 뒤가 높은 배치의 원칙을 따랐고, 마당 원편으로 관리사가 이에 직각 방향으로 담장에 붙어 섰다. 그리고 그 담장을 넘어서는 문중의 관리자가 생활하는 부속 주택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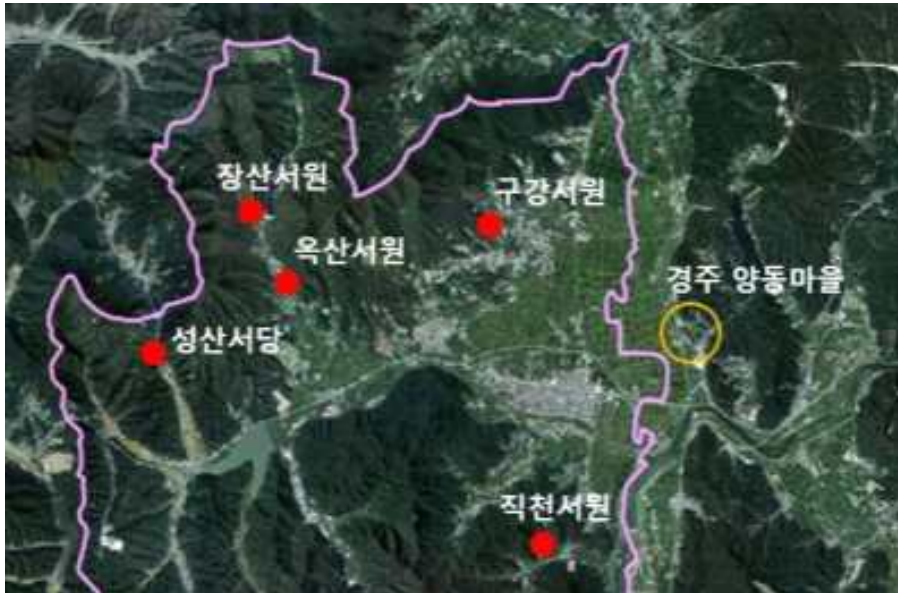


그림 152 성산서당 위치도 (『경주 성산서당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에서 전재) - 안강읍의 경계와 관련시설들의 위치

## 2. 연혁

성산서사의 건립은 순조 14년(1814)의 일이다. 경주 성산서당은 조선후기 문신 정래영(鄭來永)이 건립하였다고 전해진다. 성산서사의 연혁은 그보다 먼저 자리한 수재정 및 하계정사의 건립과 관련지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재정(水哉亭)은 성산서당의 건너편, 자옥산에 기대어 서향으로 자리잡아, 성산서당과 마주보는 형국을 취하고 있다. 수재정 역시 정극후의 연고지로, 창건은 1620년(광해군 12), 중건은 1728년(영조 4)으로 전한다. 한편 수재정으로 들어가는 문 위에는 하계정사(霞溪精舍)라는 현판이 걸려있는데, 영천 임고에 있는 매산고택의 당주 매산 정중기(鄭重器, 1685~1757)가 지은 「하계서사기문」에 따르면, 하계서사는 1643년(인조 21)에 초가로 지었던 것을, 1728년(영조 4)에 매산의 문인이자, 쌍봉의 5대손인 식호와 정엽(鄭燁)이 중건하였다고 한다. 한편 수재정에서는 송정 병자(崇禎丙子)명의 기와가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1636년이 된다. 1620년, 1636년, 1643년이라고 하는 건립 시기의 차이와 수재정, 하계정사라고 하는 이름의 차이로 미루어, 쌍봉의 생전에 이미 어떠한 형식으로는 정자나 정사 등이 건립되었고, 뒤에 그 후손들이 대대로 학습처로 사용되다가, 18세기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현황이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영일 정씨의 세계를 보면, 쌍봉 정극후의 5대손이 영조대에 하계정사를 증건한 정엽이고, 성산서사를 건립한 정래영은 다시 정엽의 증손이니 쌍봉에게는 8대손이 된다. 또 그 사이 적계는 아니지만, 쌍봉의 6대손인 정충필(鄭忠弼)이 수재정을 보수하였다고 하고, 9대손 정호겸(鄭好儉)이 수재정을 증건한 일 역시 모두 성산서사의 건립 이전에 있었던 일이다. 또 1809년 『쌍봉집』의 문집이 간행된 곳도 하계정사이다. 이처럼 수재정과 하계정사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하곡마을의 영일 정씨의 유적지 관리가 1814년 그 건너편에 사우를 갖춘 정식의 서원의 규모로 발전하였다. 또, 「하계서사기문」을 지어 수재정과 관련되어 있는 매산 정중기의 고택인 매산고택과, 수재정과 거의 닮은 꼴로 생긴 산수정(山水亭)이 건립되는 것도 18세기말의 일이다.

이와 같은 주변 시설의 조성 연대를 볼 때, 성산서당의 모체인 성산서사가 건립된 1814년은 지역에서 자리를 잡은 영일 정씨의 일족에 의한 송조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던 시기로 볼 수 있다. 또 이렇게 건립된 수재정이나 성산서당(성산서사의 강당인 흥교당)의 건축 형식이 인근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는 전형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것도 어색하지 않다.

창건 이후 1871년 사우가 훼손되어 강당만 남았고, 1985년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167호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1988년 변화보수 공사를 실시하였고, 정식으로 성산서당으로 이름을 바꿔 현판을 단 것은 1995년의 일이라 한다.



그림 153 성산서당 전경 (2020년 9월 8일 촬영)

### 3. 건축적 특징

성산서당은 정면 5칸 측면 2칸의 규모로, 가운데 3칸 폭의 6칸 대청은 마루로, 양측 협

칸의 앞뒤로 나란한 두 칸씩은 각각 온돌을 들인 전형적인 서원의 강당과 같은 구성을 갖는다. 다만 특이한 점은 지붕구조에 있는데, 중앙 3칸의 대청 위에는 앞뒤로 경사진 맞배지붕을 올리고, 양 협칸에는 한단 낮추어서 편경사의 날개지붕을 달았다. 즉, 전체적으로 팔작지붕과 비슷한 분위기를 내기 위하여, 어칸의 주고를 높게 하고, 그 처마선에 맞추어 양협칸의 경사지붕 윗면이 당도록 높이를 조절하였다. 그래서 어칸에 사용된 기둥은 높이가 3,470mm 인데 반하여, 양 협칸의 사용된 기둥은 높이가 2,790mm밖에 되지 않아, 그 차이가 680mm에 달한다. 두자 정도 작게 하였다.

이에 더하여, 양측면의 경사지붕을 받치기 위하여, 추가로 팔각의 기둥을 양단의 기둥 열과 처마끝선에 맞추어 두어서 지붕을 받치게 하였다. 이와 같은 가적지붕은 학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입암서원의 강당에서도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경북 지방의 많은 주택, 향교나 서원의 강당 등에서 많이 보이며, 가까이에 있는 영천 송렬당 역시 같은 형식이다. 삼국사기 옥사조에 등장하는 비침 즉, 추녀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사방으로 처마를 만들어 내는 수법으로 오랜 연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향우측의 편경사 지붕의 처마선에 맞추어 작은 폭의 박공판을 단 것이 특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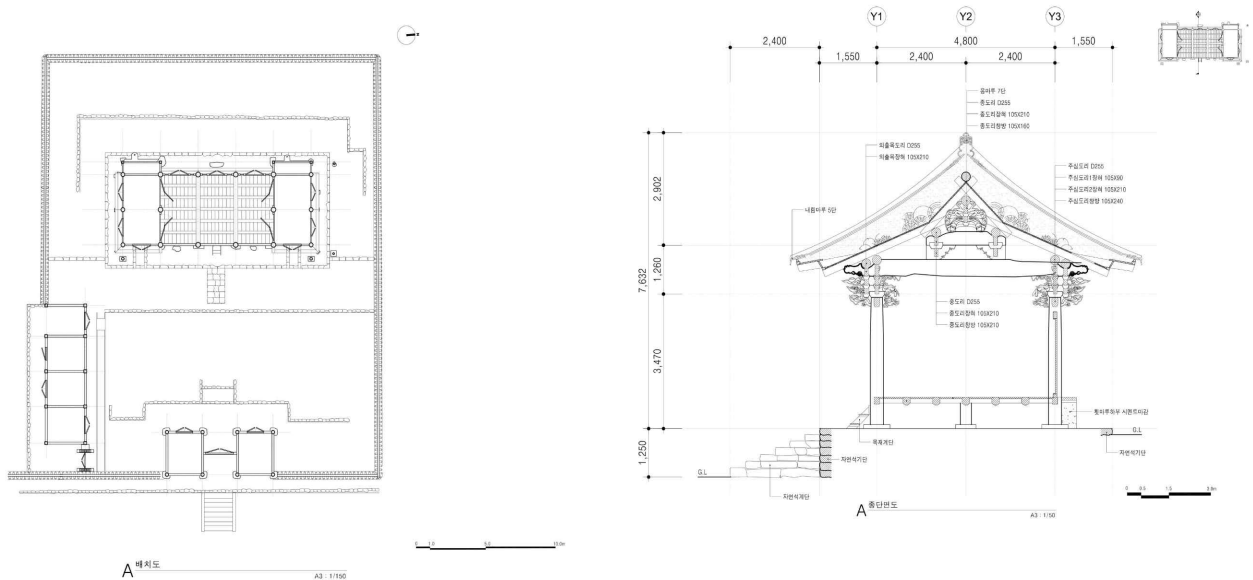


그림 154 성산서당 배치도 및 종단면도(『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요청 자료보고서 - 경주 성산서당』에서 전재. 이하 『보고서』)



그림 155 입암서원 강당 - 성산서당과 구조가 비슷하고 대청 전면의 퇴칸과 분합문의 설치등 일부만 차이가 난다.  
(출처: <https://t1.daumcdn.net/cfile/cafe/02762335514EC6F513?original>)

또 하나 이 건물에서 눈에 띄는 형식은 공포의 형식이다. 1출목 3익공식이라 할 수 있는데, 주두 위 2익공이 출목 소첨차와 짜이고, 그 위에서 출목 대첨차가 3익공과 짜이며, 주심에서도 소첨차와 대첨차가 있다. 각 익공의 외단은 양서형을 기본으로 위와 아래면에 초각을 하였고, 보머리 외단에는 수서형의 초각이 있는 빨목을 달았다. 내단도 세 익공마다 구분하여 초각하고 출목은 없다. 주간에는 창방 위에 화반을 두어 주심도리를 받쳤는데, 전면에는 사각형의 초각된 화반을 두고, 후면에서는 그냥 간단히 원형으로 가공한 화반을 두어 차이를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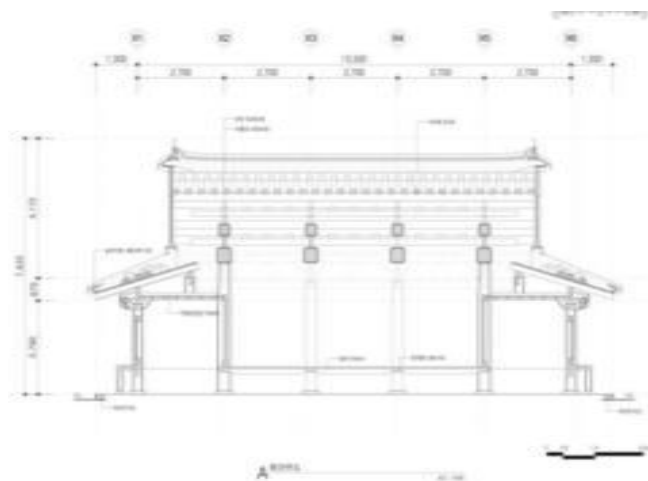


그림 156 성산서당 횡단면도(『보고서』에서 전재) - 어칸 3칸과 양 협칸의 기둥과 상부가구 짜임.

우물마루가 깔린 중앙 대청은 천장도 높은 연등천장으로 마무리하였고, 대들보 위에 종보를 두고 대공으로 종도리를 받치는 5량가의 가구를 갖는다. 대공도 위치에 따라 다르게 가공하였는데, 허공 중에 보이는 가운데 2개의 대들보 위에는 종도리 대공, 종도리 대공 모두 초각을 하고 특히 종도리 대공은 화려한 화반대공으로 가공한데 비하여, 양측벽, 온돌방과 만나는 부분에서는 모두 초각 없이 직절한 판대공으로 처리하였다. 양측 온돌방과 대청의 사이에는 너살의 분합문을 바닥에서 대들보 아래에 있는 문인방까지 가득 채웠는데, 좌우측의 방에서 그 분할하는 폭은 서로 다르게 하였다. 온돌방의 천장은 대들보 아래면에 맞추어 격자 천장을 설치하였고, 후면에는 각각 처마 밑으로 돌출한 벽장을 두었다.

전체적으로 성산서당은 그 평면의 구성이나, 지붕의 형태, 익공의 처리 등에서 지역의 다른 건물들에서 볼 수 있는 지역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성산서당보다 먼저 지어져 이 지역의 학문적 분위기를 유지하여 온 수재정은 정면 3칸 측면 한칸의 소박한 규모에 계곡에 면한 전면으로는 계자각 난간을 두른 쪽마루를 내달았는데, 이처럼 도리 방향으로는 가운데 칸을 마루로 하고 양 측간에 온돌을 들이는 좌우대칭적 평면을 기본으로 하여, 보 방향으로는 측면의 칸수가 커지면 계곡에 면해서는 방적인 마루를 두고 안쪽으로 방을 두는 구성은, 경상북도 지방의 여러 정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대표적인 계변정자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입암의 입암정사(3칸 x 2칸), 매곡마을의 산수정(3칸 x 1.5칸), 덕동마을의 용계정(5칸x2칸)가 다 마찬가지이다. 다만 수재정에서는 보방향 칸수가 단칸에 그치므로, 기둥 바깥으로 작은 쪽마루를 내어달았다는 차이가 있다.



그림 157 영천 임고면 매곡에 있는 산수정(국가민속문화재 제24호) - 매산 정중기의 별서로, 수오재와 같은 구성을 갖는다. (출처: [http://www.lafent.com/att\\_photo/news/1412246689\\_141002194449.jpg](http://www.lafent.com/att_photo/news/1412246689_141002194449.jpg))

그림 158 포항 죽장면 입암에 있는 입암정사(일제당)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2102E034572606510A>)

수재정이 입암정사(혹은 일제당, 1600년경 창건 추정)를 닮았듯이, 성산서당의 구성 역시 입암서원의 강당을 닮았다. 둘 사이의 차이는 입암서원의 강당에서는 대청 전면에 퇴칸을 두어 뒷마루를 설치하고, 그 뒤에 분합문을 설치하여 대청을 실내공간으로 가린 점 정도가 다르다.

입암서원은 1657년(효종 8)에 여헌 장현광(張顯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되었으며, 1713년(숙종 29) 정사진(鄭四震)을 추가배양하고, 그 뒤 권극립(權克立)과 정사상(鄭四象), 손우남(孫宇男) 등을 추향하는 등 경주, 영천의 영일 정씨와는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다. 입암서원 역시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1868년 훼손되었다가 1913년에 강당이 복원되고 1974년에 묘우가 복원되었다고 한다. 그러니 현재 있는 강당은 1913년에 복원된 것이고, 훼손된지 채 50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원된 것이니 만큼 전체적인 규모나 구조는 원래의 것을 따랐을 것이라 추정된다.

#### 4. 종합 검토의견

경주 성산서당은 쌍봉 정극후를 추모하기 위하여 1814년에 후손 정래영이 창건한 성산서사의 강당으로 지어져,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을 거치면서 살아남아 성산서당이라는 이름으로 현재에 전하는 조선후기의 교육시설이다. 정면 5칸 측면 2칸의 규모로, 가운데 3칸은 열린 대청으로 하고 좌우의 협칸에는 앞뒤로 두 칸의 온돌방을 들인 전형적인 강당의 구성에, 가운데는 맞배지붕을 높이 올리고 좌우로 편경사 지붕을 덧대어 전체적으로 사방으로 처마를 갖는 가적지붕의 형태를 갖고 있다.

전체적인 건축적인 특성은 경북 지역의 여러 곳에서 보이는 강당형 건물의 일반례를 따르고 있으며, 처마끝의 활주, 온돌방 앞의 쪽마루, 향우측 처마선에 매단 박공판 등에서 다른 건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특이한 기법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19세기 초의 건축적 양식을 충실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전체의 규모와 부재의 규격 등에서 당당한 품격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 유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물로의 승격 지정에는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비슷한 규모와 양식의 건물들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있는 연후에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0.09.08	대상문화재	경주 성산서당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전통건축
	소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경주 성산서당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1.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성산서당이 위치하고 있는 하곡마을은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의 북서쪽에 위치하며, 도로변에 위치한 하곡과 계곡 안쪽에 위치한 노실로 나뉘어 있는데 성산서당과 수재정은 자옥산과 삼성산의 사이 좁고 길게 난 계곡의 가장 안쪽 노실에 자리잡고 있다. 수령이 300여 년된 은행나무가 마을의 입구에 있고, 성산서당(문화재자료 제167호)은 성산서당길을 사이에 두고 조선중기의 문인 정극후(1577~1658)의 별서로 알려져 있는 수재정(문화재자료 제166호)이 있다.



마을이 위치하고 있는 안강읍에는 양동마을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옥산서원(사적 제154호), 정혜사지 13층 석탑(국보 제40호), 삼국사기(국보 제332-1호), 동락당(보물 제413호)을 비롯한 많은 문화재와 옥산 세심 농촌체험마을 등 풍부한 문화관광자원이 있다. (국가지정문화재 12건, 시도지정문화재 13건) 특히, 금년에 보물로 승격신청한 성산서원을 비롯하여 옥산서원, 구강서원, 장산서원, 직천서원, 단고사강당 등 6개소의 서원과 서당이 위치하고 있다는 특징도 있다.

## 2. 연혁

### 1) 흥교당 건물의 연혁

조선시대 1814년(순조 14)에 통정대부를 지낸 정래영이 정극후를 추모하기 위하여 수재정 맞은편으로 사우(祠宇)와 서사(書舍)를 건립하였다. 처음에는 서원으로 지어져 사우와 서사가 있었다고 한다.

안강읍 문화재 현황

지정	종별	지정 번호	명칭	소재지
국가 지정	국보	40	정혜사지 십삼층석탑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1654
		322-1	삼국사기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7
	보물	413	경주 독락당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1600-1
		524	여주이씨 옥산문중소장전적 - 사마방목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1600-1
		524-2	여주이씨 옥산문중소장전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1600-1
		586-1	이연적 수필 고본일괄 - 속대학혹문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7
		1473	여주이씨 옥산문중 고문서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1600-1
	1474-1	경주이씨 양월문중 고문서 및 향안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1600-1	
	사적	30	경주 흥덕왕릉	경주시 안강읍 옥통리 산42
		154	옥산서원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7
	천연 기념물	115	경주 독락당 조각자나무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1600
318	월성 옥통리 회화나무	경주시 안강읍 옥통리 1428외 3필지		
시도 지정	유형	233	익재 집책판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 679
		376-1	문원공 회재 이연적 신도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7
		401	경주이씨 양월문중 소장고문서 및 전적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 777
	무형	43	경주 와장	경주시 안강읍 노당리 487-1
	문화재 자료	90	익재 영정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 777-1
		91	종덕재정당	경주시 안강읍 노당리 1115-2
		97	금곡사지 원광법사 부도탑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9-1
		98	경주 근거리 입불상	경주시 안강읍 근거리 산131
		166	수재정	경주시 안강읍 하곡리 29
		167	성산서당	경주시 안강읍 하곡리 11
		188	구감서원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 679
		329	경주 단고사강당	경주시 안강읍 검단리 788
	618	경주 귀후재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1562-1	

하지만 서원은 인재 양성과 선현 배향, 유고적 향촌 질서 유지 등 긍정적인 기능을 발휘하였으나 차츰 혈연, 지연 관계나 학벌, 사제, 당파 관계 등과 연결되어 병폐도 많아지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지방 양반들이 서원을 거점으로 백성을 토색질하고 지방관청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서원의 설립이 제한되고 훼손을 명령받기 시작하였다. 1864년(고종1) 집권한 흥성대원군은 왕권의 권위를 높이고 민폐를 줄이는 한편 병인양요로 궁핍한 국가재정에 도움이 되게 하려는 의도로 서원철폐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전국 650개 서원 중 소수서원, 도산서원, 도동서원 등 사표가 될 만한 47개의 서원만 남기고 모두 훼손하였다.

1871년 성산서원 또한 사당인 경덕사(景德祠)와 기타 부속사는 훼손되고 강당인 흥교당(興敎堂)만 보존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이후에 여러 차례 사적인 수리와 보수를 거치다가 1985년 12월 30일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167호로 지정되었다. 쌍봉공 파

성산서당 연혁

연도	건립 및 변천	비고
1814년	성산서원 건립	정극후 추모를 목적으로 사우와 서사 건립
1871년	성산서원 사우 훼손	서사의 강당인 흥교당만 남음
1985년	경상북도문화재자료 지정	제167호
1988년	변와보수	'88년도 문화재수리보고서', 1990
1995년	성산서당 개칭	경주북부지역지표조사보고서Ⅱ, 1997 성산서당과 흥교당 현판 2개소가 존재

하곡정씨문중 소유가 되어 문중에서 직접 관리하였으며, 자료등록 이후 1988년 4월 2일부터 1988년 8월 20일까지 변와보수를 실시하였다.

일부에서는 서원철폐령에 의해 서원이 철폐될 위기에 처하자 서원의 격을 서당으로 격하시켜 철폐를 면했다고 하지만 1995년 사를 당으로 개칭하였다고 하고, 쌍봉의 16세손인 정인현씨(80)의 말에 따르면 당시 학생들의 붓 씻는 먹물로 앞 개울이 검게 되어 '학동거랑'이라 불렀다고도 한다. (출처 : 경북일보 굿데이 굿뉴스 (<http://www.kyongbuk.co.kr>))

2) 정극후(鄭克後, 1577~1658)

정극후는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연일(迎日). 자는 효익(孝翼), 호는 쌍봉(雙峯)이다. 경주 출신으로 고려의 명신 습명(襲明)의 후손이며, 아버지는 군자감주부 삼위(三畏)이다. 장현광(張顯光)으로부터 학문을 배웠는데, 장현광은 그의 비범함에 감탄하여 붕우의 예로 대하였다고 한다. 정구(鄭述)의 문인이기도 한데, 인조 12년(1634) 거의 60의 나이에 학행(學行)으로 천거받아 동몽교관(童蒙教官)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고, 1636년 선릉참봉(宣陵參奉)이 되었다. 이듬해 금정도찰방(金井道察訪)을 제수받았으나 부임하지 않았으며, 1643년 왕자사부(王子師傅)가 되었으나 수개월 후 노환으로 사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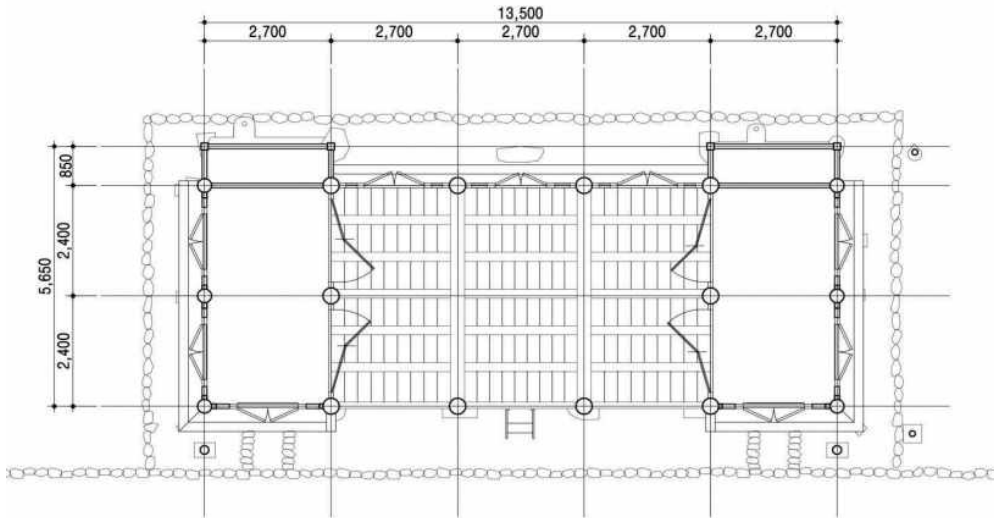
이후 벼슬에 나가지 않고 삼성산(三聖山) 아래 하곡마을에 맹자의 말을 인용한 '물이여! 물이여!'라는 뜻을 가진 수재정(水哉亭)을 짓고 산천과 벗하며 사물에 얽매이지 않고 자득(自得)하는 생활을 하면서 경사(經史)를 강론하고, 후학양성을 소임으로 하였다. 일찍이 글을 지어 서원의 학생들에게 학문을 시작하기 이전에 입지(立志)부터 할 것과, 독서하는 데 문자에 구애되지 말고 성현들이 전하고자 하는 참뜻을 깨달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시기		내용
1577	선조10	1월 20일, 慶州에서 태어나다.
1581	선조14	모친상을 당하다.
		從祖父 鄭胤金의 후사가 되다.
1594	선조27	慶州李氏 李弘愨의 딸과 혼인하다.
1595	선조28	5월, 장남 鄭瑩가 태어나다.
1615	광해군7	5월, 생부상을 당하다.
1620	광해군12	경주 安康縣 霞谷洞에 별장 水哉亭을 짓다.
1634	인조12	儒行으로 천거되어 童蒙敎官이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1636	인조14	宣陵 參奉이 되다.
1637	인조15	金井道 察訪이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 4월, 아우 鄭四端의 상을 당하다.
1642	인조20	「西岳志」를 편찬하다.
1643	인조21	王子師傅가 되다. ○ 형 鄭四勿이 興海 桃花洞에 세운 二宜亭에서 강학하다.
1644	인조22	「帝王歷年通考」를 편찬하다.
		安康縣 三聖山 아래에 형 鄭四勿과 함께 살 집을 짓고 강학하며 후진을 양성하다.
1649	인조27	2월, 형 鄭四勿의 상을 당하다.
1654	효종5	回婚宴이 열리고, 白號를 '雙峯'이니 하니.
1658	효종9	3월 14일, 졸하다.
1659	효종10	1월, 迎日縣 雲梯山에 장사 지내다.
1679	숙종5	「文廟享祀志」가 간행되다.
1809	순조9	慶州 霞溪精舍에서 문집을 간행하다.
1814	순조14	8내손 鄭來永이 경주 안강현 하곡리에 聖山祠를 세워 추모하다.

### 3. 건축적 특징

성산서당은 개울 건너편에 위치한 수재정과 하나의 쌍을 이루고 있다. 수재정은 인조 21년(1643) 이곳 마을의 입향조인 쌍봉 정극후가 관직에서 물러나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 세운 별서로서 영조 4년(1728)에 중수하였다. 높은 석축 위에 자리 잡은 3칸 규모의 맞배지붕 형식의 정자로, 가운데 칸에 마루를 두고 좌우에 방을 두고 건물 전면에 뒷마루를 내어 난간을 두른 누각형 정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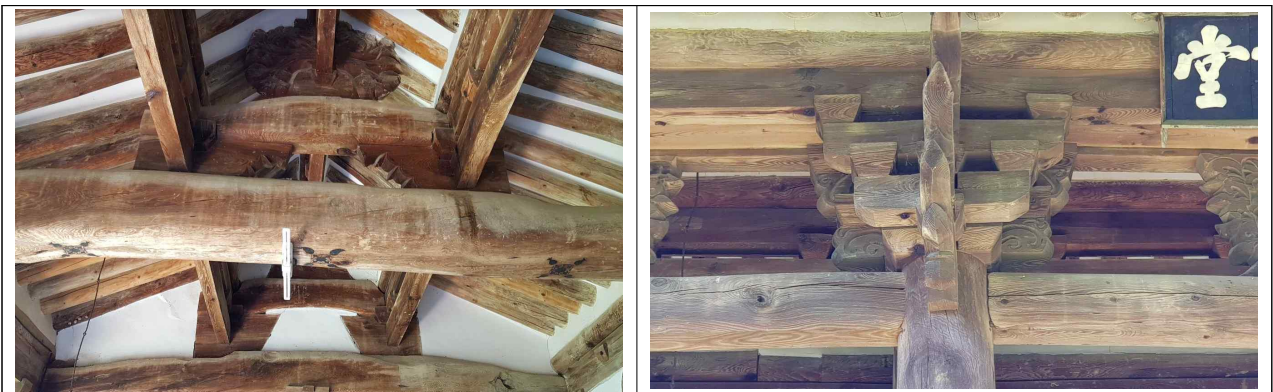
성산서당의 홍교당은 정면 5칸 측면 2칸 규모로 평면은 3칸 대청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 온돌방을 배치한 중당협실의 형식이다. 겹처마 맞배지붕을 기본으로 좌우 협칸에



는 날개지붕을 달았다. 날개지붕을 정면 처마 내밀기에 맞추기 위해 길게 빼고, 도리와 장여를 팔각기둥으로 받친 독특한 지붕 형태를 하고 있다. 또한, 계곡을 바라보는 경사지의 상단에 위치하면서 약1.5m 정도 높이의 석축 기단위에 건물이 놓여 있는 까닭에 삼문에서 바라볼 때 좌우대청의 정연한 구조는 엄숙한 느낌을 주고 있다.

건물의 모든 기둥은 원기둥으로 하고 주칸은 도리칸은 9자(≒2,700mm) 정도이고 보칸은 8자(≒2,400mm) 정도이다. 날개지붕의 처마를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면기둥은 활주형식으로 팔각형으로 다듬었다.

3칸의 대청마루 중앙에는 후대에 목재로 계단을 만들어 설치하였으나 원래는 목재 계단 좌우의 디딤돌과 같은 형식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대청마루 배면 중앙 어칸에는 2짝의 판장문을 하부에 머름이 없이 설치하고, 양측면 칸에는 머름 위에 2짝의 판장문을 설치하여 어칸으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대청 좌우 협칸 온돌방은 전면과 측면에 쪽마루를 들렀으며, 배면으로는 벽장을 설치하였다.



홍교당의 가구구조는 무고주 5량 형식이고, 대체로 3분변작으로 중도리의 위치를 설정하였으며, 건물에 사용된 모든 도리는 굴도리로 건물의 격을 높이고 있다. 공포는 1

출목 3익공형식으로 주두위에 두공과 제공을 3단으로 쌓아 건물을 높이고 창방과 주심도리 사이의 간격을 크게 하였다. 두공은 교두형으로 단순하게 한 반면 제공은 연화문 장식을 투각으로 조각하고 단부는 양서형으로 장식적으로 처리하였다. 종도리를 받치는 대공 역시 파련대공 형식으로 장식하고 있으며, 중도리와 종도리 밑으로 뜬창방으로 지지하고 있다.



#### 4. 종합: 지정 가치 및 근거

성산서당의 흥교당 건물은 현재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167호로 관리되고 있으며, 1814년 건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을의 입향조인 쌍봉 정극후(1577~1658)를 기리기 위하여 후손인 정래영이 1814년(순조 14)에 건축하였다고 전하고,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자료보고서에는 학사(鶴沙) 김응조(金應祖)와 진사(進士) 이태익(李台翊)이 지은 상량문이 있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학사 김응조의 생몰연대는 1587~1667로 오히려 정극후와 동일시대 인물<sup>352)</sup>인 것으로 확인되고, 진사(進士) 이태익(李台翊)의 경우도 생몰연대는 불분명하지만 『신유식년사마방목(辛酉式年司馬榜目)』에 숙종 7년(1681) 식년시에 진사 3등으로 급제한 인물로 태어난 해가 1658년인 것으로 기록<sup>353)</sup>된 것으로 보아 동일 시기의 인물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352) 김응조(金應祖, 1587-1667) 조선 중기의 문신.

17세 때 유성룡(柳成龍)을 사사했으며, 1613년(광해군 5)에 생원시에 합격하였으나 문과 응시를 포기하고 장현광(張顯光)의 문하에 들어갔다. 생몰연대와 이러한 학문적 배경으로 보아 정극후와는 동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353)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조선시대 생진시방목(朝鮮時代生進試榜目)』 9책의 내용 중 이태익은 통훈대부 이달의의 자식으로 숙종(肅宗) 7년(1681) 신유(辛酉) 식년시(式年試)엔 [진사] 3등(三等) 으로 급제하였다고 되어 있다.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0.09.08	대상문화재	경주 성산서당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전통건축
	소속		직위(직책)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경주 성산서당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10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1. 지정가치 및 근거 기준

### 가. 역사적 가치

조선시대 1814년(순조 14)에 통정대부를 지낸 정래영(鄭來永)이 정극후<sup>354</sup>(鄭克後)를 추모하기 위하여 수재정(水哉亭)<sup>355</sup> 맞은편에 사우(祠宇)와 서사(書舍)를 건립하였다. 처음에는 서원으로 지어져 사우와 서사가 있었다.

하지만 1871년 성산서원 또한 사우가 훼손되고 서사의 강당인 흥교당(興敎堂)만 보존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이후에 여러 차례 사적인 수리와 보수를 거치다가 1985년 12월 30일 경상북도문화재자료 제167호로 지정되었다. 쌍봉공파 하곡정씨문중 소유가 되어 문중에서 직접 관리하였으며, 문화재자료등록 이후 1988년 4월 2일부터 1988년 8월 20일까지 변화보수를 실시하였다.

일설에는 서원철폐령에 의해 서원이 철폐될 위기에 처하자 서당으로 격하시켜 철폐를 면했다고 하지만 1995년 ‘祠’를 지금의 ‘堂’으로 개칭하였다고 한다.

### 나. 학술적 가치

성산서당은 경주시 안강읍 하곡마을 북쪽에 위치한다. 성산서당길을 사이에 두고 성산서당과 수재정이 배치하고 있다. 대지 내 건물은 서당과 외삼문, 고직사가 있다. 서당은 동쪽에 위치한 수재정을 향하고 있으며, 담장이 서당을 둘러싸고 있다. 서당 좌측편에 관리사가 위치한다. 외삼문을 들어서면 마당을 지나 계단을 오르면 서당이 자리한다.

마당 좌측에는 담장에 붙어 창고가 있고 우측으로 고목 한 그루가 있으며, 서당 뒤편에는 담장과 사이에 1단의 석축을 조성하였다.

성산서당은 정면 5칸, 측면 2칸이며, 평면구조는 3칸 대청을 두고 양쪽에 온돌방을 둔 중당협실의 형태이다. 정면 3칸은 맞배지붕, 좌우 퇴칸은 가적지붕을 달았다. 가적지붕을 정면 처마내밀기에 맞추기 위해 길게 빼고, 도리, 장여를 팔각기둥으로 받친 ‘工’자형의 독특한 지붕 형태를 하고 있다. 우측면 날개지붕 처마 끝에는 풍판을 설치하였다. 정면에는 기단을 오르는 계단을 중앙에 설치하였다. 온돌방 정면에 아궁이를, 배면에 굴뚝을 설치하였다. 천장은 대청마루는 연등천장, 온돌방은 우물천장이다.

대청마루 배면에는 2짝의 외여단이 판문과 쪽마루를 설치하여 서당의 뒤편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좌·우칸에 2짝 머름을 둔 외여단이상을 설치하였다. 일반적으로

354) 정극후(1577~1658).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영일(迎日). 자는 효익(孝翼), 호는 쌍봉(雙峯). 경주 출신으로 거의 60의 나이에 벼슬길에 올랐으나 곧 사퇴하고 후학양성에 전념한 인물이며. 저서로는 『문묘사향지』, 『역년통고』, 『서약지』 등이 있다.

355) 수재정은 성산서당과 동일한 인물이 관련된 문화재로 성산서당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다. 조선 중기 학자인 정극후(鄭克後, 1577~1658)의 별장이라 전하며, 조선 1620년(광해군12)에 세웠고, 1728년(영조 4)에 다시 지었다. 높은 석축 위에 자리잡은 3칸 규모의 정자로,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166호이다.

대청배면은 창으로만 구성되는데 비해 이 건물은 문과 창을 같이 둔 독특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온돌방 정면과 측면에 쪽마루를 둘렀으며, 배면에는 벽장을 두었다. 대청에서 온돌방 출입은 크기가 다른 2짝 들어열개문을 설치하여 출입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하였으며, 정면에는 외여닫이 2짝 세살창을, 측면 2칸에는 각각 2짝 외여닫이 세살문을 설치하였다.

온돌방위에는 책이나 서류를 보관할 수 있는 다락공간을 만들었다. 강당건물이나 강학의 용도를 가진 건물에서 간혹 이러한 수장공간을 만들어 놓곤 한다.

지붕 처마를 받치는 공포는 1출목 3익공 형식으로 살미 끝을 날카롭게 하고 연꽃으로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보아지 역시도 살미와 유사한 형태로 초각하였다. 측면은 초익공이다. 창방위의 화반은 정면은 초각하여 장식이 심한데 비해 배면은 원형으로 달리 하였다.

가구는 5량으로 중대공과 종대공을 포대공으로 처리하였다. 대공은 원형의 판대공을 연꽃으로 초각하고 뜯장혀를 건너지르게 하고, 종대공 역시 내단을 조각한 판대공에 주두와 뜯장혀로 결구하였다. 강당건물로서는 최고의 치장을 베풀었다.

전반적으로 성산서당의 홍교당 건물은 후한 부재를 사용하여 웅장하고 건축하였고 화려한 장식으로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건물로, 조선 후기의 건축적 특징을 잘 간직하고 있는 수작(秀作)으로 볼 수 있다.

정면 중앙에는 “聖山書堂”이라고 쓴 현판이 걸려 있고 대청 안쪽의 중앙에는 “興敎堂”이라고 쓴 현판이 걸려있다. 또한, 학사(鶴沙) 김응조(金應祖)와 진사(進士) 이태익(李台翊)이 지은 상량문이 있다고 하였으나 현재는 없다.

외삼문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솟을대문으로 좌·우에는 광이 있다.

## 2. 종합의견

성산서당은 조선 후기 문신인 정극후를 추모하기 위해 후손인 정래영이 1814년(순조 14)에 건립한 서사(書舍)와 사우(祠宇)이다. 서원철폐령에 의해 1871년 사우가 훼손되고, 서사의 강당인 홍교당만 보존하여 현재까지 이어졌다. 성산서당은 맞배지붕에 가적지붕을 달아 ‘工’자형 지붕을 만들었다. 공포는 현존하는 건축물로는 보기 드물게 1출목 3익공 형식으로 조선 후기의 건축적 특징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로, 조선 후기의 건축적 특징을 잘 간직하고 있는 수작(秀作)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원래 서원의 기능을 가진 건물로 건립되었으나 강당만 남아 원래의 모습을 못 갖추고 있는 것이 지정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수작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년대가 일천한 것이 못내 아쉽다.

## 18. 영동 자풍서당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 가. 제안사항

충북 영동군 소재 「영동 자풍서당」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충북 영동군 소재 「영동 자풍서당」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충청북도지사
- (2) 대상문화재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73호 「영동 자풍서당」
  - 소재지 :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두평리 501번지
  - 지정일 : 1980. 11. 13.
-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 명칭 : 영동 자풍서당(永同 資風書堂)
  - 소유자(관리자) : 자풍당
  - 소재지 :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두평리 501번지
  - 조성연대 : 조선시대(1400년경 창건 추정, 1626년,1692년,1924년 중수)
  - 수량 : 1동
  - 지정면적 : 123.1㎡(보호구역 590.9㎡)
  - 양식 : 정면5칸, 측면2칸, 민도리, 홑처마, 맞배지붕

라. 현지조사의견(2020.09.09.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마. 지정조사보고서 : 붙임참조

바. 의결사항

- 부결
  - 지정 가치 미흡.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부결 11명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0.09.09	대상문화재	영동 자풍서당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 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영동 자풍서당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 년 10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1. 창건과 변천

자풍서당의 창건 및 중창과 변천 과정은 원천자료가 모두 소실되어 확인할 수 없으며 건물에 남아 있는 묵서나 상량문 등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문서가 소실되기 이전에 작성된 ‘자풍서당지’에 근거하여 연혁을 살펴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서술된 내용을 최소한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연륜연대 조사를 통해 건축 부재의 나이를 추정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자풍서당지’에 따르면 1974년에 하천수가 지은 ‘자풍서당중수기’에서는 처음 창건한 것은 고려 말이나 조선 초엽으로 헤아려지나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하였다. 또 1960년 이필주가 지은 ‘자풍서당기’에서는 조선 초 정종-태종 연간(1398-1418)에 창건되었고 처음 이름은 풍곡당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두 기록 모두 1900년대의 기록이고 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창에 관한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원래 풍곡서당 터에는 풍곡사라는 사찰이 있었던 곳으로 지금도 초석 일부와 5층석탑이 남아 있어서 그 내용을 입증하고 있으며 초창 이후 옮기지 않았음도 알 수 있다. 창건 시기와 관련하여 이 서당의 유명 배출 인물로 경재 남수문이 거론되고 있어서 그의 행적을 통해 창건 연대를 가늠할 수 있는 정도이다. 남수문이 수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는 1410년대 말에서 1420년대 초반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자풍서당이 존재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지금과 같은 규모와 형식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이후 경재 광순(1509-1544)이 낙향하여 이곳에서 강학에 전념하였으며 풍곡당은 동천 이충범(1520-1598)에 의해 새로운 모습으로 중수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나이로 보아 임진왜란 직전에 이충범에 의해 풍곡당이 새롭게 중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한강 정구(1543-1620)가 광해군 6년(1614)에 이곳에 머물며 강학을 장려한다는 의미로 지금의 이름인 ‘자풍서당’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정구는 1613년 여름부터 1614년 1월까지 짧은 기간 머물렀기 때문에 자풍서당을 중건하거나 할 기회는 없었고 다만 이름만 풍곡당에서 자풍서당으로 바꾼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자풍서당의 여러 중수기에는 1626년(인조 4)에 봉성 이운길이 서당을 고쳐 지으며 상량문을 짓고 당헌을 마련하였다고 하였다. 어느 정도 고쳐 지은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이때가 자풍서원의 전성기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후 200년간은 기록이 전하지 않는다. 다만 1826-1886년 사이의 자료로 추정되는 곳에서 자풍서당의 유생 32명이 옥천군수에게 올리는 청원서가 있어서 어렵게 자풍서당이 존속하였고 운영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제 강점기인 1924년에는 18문중에 통문을 보내고 재물을 모아 공사를 시작하여 5년 만인 1929년 가을에 비로소 중수를 마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내용은 박찬하가

지은 『無爲集』에 기록된 자풍서당 중수통문의 내용이다. 당시의 자료는 문서로 아주 상세하게 남아 있었다고 한다.

1980년에는 충청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1982년에는 18개 문중의 협찬으로 지붕개와와 기둥 5개를 교체하는 수리가 있었다. 1989년에는 담장을 쌓았고 2004년에는 기와교체, 벽체보수, 담장보수 등의 공사가 있었다. 2009년에는 관리사를 증개축하였고 2011년에는 담장 일부와 협문을 설치했다.

## 2. 건축구조 및 양식

자풍서당은 영동 양강면 두평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으로 국사봉, 서쪽으로 천태산, 남쪽으로 박하산과 동남쪽으로 상봉산, 동북쪽으로 백마산이 둘러싸고 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금강과 접하고 있는 산간에 위치하여 주변 고을에서 이용하는 학당이였다. 향촌에 지어진 작은 서당이지만 많은 인물들을 배출한 유명 서당이기도 하다.

현재는 서당 본 건물만 한 동 남아 있는 상태이며 담장 밖으로 2009년에 지은 관리사가 있고 문 앞에는 2005년에 세운 사적비가 있다. 따라서 배치는 특별할 것이 없고 서당 건물을 거의 정방형에 가까운 담장이 감싸고 있는 정도이다. 옛 항공사진을 통해서도 관리사 이외에 민가로 추정되는 건물이 몇 동있을 뿐 서당과 직접 관련된 다른 건물은 보이지 않는다. 서당은 대개 서당건물 단독으로 지어지는 것이 절반이 넘을 정도로 압도적이며 누각이나 장관각, 사당 등의 부속건물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자풍서당도 이러한 일반적인 흐름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서당의 평면은 정면5칸, 측면2칸으로 10칸 규모이며 양통집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 3칸에 대청을 두고 양쪽 끝 각 한 칸씩은 구들을 들였다. 주간 간살은 9자를 기준으로 했으며 정칸과 협칸, 퇴칸의 간살이 정면과 측면 모두 같이 9자로 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대청과 온돌 전면에는 양통의 전면 한 칸을 3등분 한 3자 정도 폭으로 전퇴를 두었다. 가구적으로는 툇기둥과 툇보를 따로 두지 않고 이평주오량가에 보조기둥을 설치하여 툇간을 구성하였다. 평면과 가구방식이 별도인 구성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구성법이라고 할 수 있다.

기단은 자연석 세벌대이며 초석은 자연석이지만 초석과 초반의 구분이 없고 방형에 가깝게 다듬어 사용했다. 기둥은 정면 정칸 양쪽만 원기둥이고 나머지는 모두 방주이다. 원주와 방주 모두 건물 규모에 비해 굵은 것을 사용해 육중하고 안정된 느낌을 준다. 기둥에는 모접기나 면접기 등의 기법은 보이지 않으며 풍화된 정도가 고풍스런 맛을 더해준다. 1982년 교체된 기둥은 배면기둥으로 추정되며 전면과 측면은 당초기둥으로 보인다.

공포와 출목은 없는 민도리집으로 기둥머리에서는 대들보와 도리 및 장혀를 사갈맞춤

하였다. 그러나 원기등을 사용한 정칸에서는 보아지가 사용되었다. 두공의 모습은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모양으로 익공도 운문도, 당초도 아닌 모양으로 투박한 형상을 지녔다. 정칸 양쪽에 두공을 사용한 것이 이 건물의 유일한 장식이라고 할 수 있다. 가구 법은 보조기등 이외에 내부기등은 없기 때문에 이평주오량가로 했으나 양쪽 측벽에서는 가운데 기등이 있기 때문에 3평주 맞보형식으로 처리했다. 보의 단면은 방형이지만 자연목에 가깝게 모서리를 둥글리는 정도로 처리해 자연미와 단순하며 강직한 느낌을 준다. 종보 또한 같은 형식인데 규모에 비해 직경이 큰 것을 사용했다. 대공은 판대공인데 제형이 아니라 오각형으로 했고 폭이 넓고 큰 것이 특징이다. 민도리집으로 창방은 없으며 납도리와 장혀를 사용했는데 종도리와 중도리 아래에도 모두 장혀가 있다. 처마는 흘처마이고 지붕은 팔작지붕이다.

기단 상부는 황토마감이며 가운데 3칸은 우물마루를 깔았다. 앞뒤 2칸에 동귀틀은 4개만 설치하여 5등분 하였으므로 마루청판이 일반적인 것에 비해 폭도 넓고 긴 편이다. 좌우 퇴칸에는 온돌을 설치했는데 퇴칸은 폭이 좁고 고상마루를 깔았으며 하부에 아궁이를 설치하였다. 뒷마루 전면에는 난간대 아래 일정 간격으로 동자기등을 설치한 정도로 매우 단순하다. 전면 기등열은 벽체나 창호 없이 모두 열려 있으며 대청 배면의 벽체는 회벽으로 막았으며 중앙 정칸에만 두 짝 판문을 달았다. 양쪽 협칸에 창호를 내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없다.

방 전면에는 머름은 없지만 고상마루에 의해 약간 높이가 있는 두 짝 세살여단이창을 달았으며 대청과 방 사이에는 두 짝 여단이 세살분합문을 달았다. 창호에서는 고식을 느낄 수 없다.

### 3.지정가치

현존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았을 때 자풍서당의 창건은 조선 초로 추정되지만 현재의 모습은 동천 이충범에 의해 임진왜란 바로 직전에 새롭게 중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륜연대 조사를 통해 확인해 보아야 하겠지만 1982년에 교체된 5개의 기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등과 보 등의 주요부재 대부분은 이때의 것으로 보인다. 한국건축사에서 어느 건물을 막론하고 현존하는 건물 중에는 임란 전의 건물이 매우 드문 것을 감안했을 때 자풍서당은 그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서당의 기능이 처음부터 시작해 변화 없이 근래까지 이어진 건물은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서당건축 연구의 학술적가치뿐만 아니라 희소성의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풍서당은 정면 5칸, 측면 양통집으로 대부분의 서당이 정면3칸에 전퇴집인 것을 감안하면 규모에서도 보기 드문 사례에 속한다. 또 간살도 9자로 큰 편이며 모든 칸을 9자로 설정하였다. 보통은 정칸을 크게 하고 협칸과 퇴칸을 작게 하게 마련된다. 동일



칸으로 했다는 것은 조선 전기의 고식기법을 따르고있는 것이다. 그리고 가구법은 대청과 방부분이 모두 이평주오량가이다. 보통은 대청은 이평주오량가로 하더라도 방부분은 일고주오량가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점 또한 고식기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정면 정칸 양쪽 기둥만 원기둥으로 하고 두공을 올렸으며 나머지 기둥은 민도리집으로 매우 소박하다. 면접기나 모접기 정도도 하지 않은 투박함을 보이며 난간 등에서도 전혀 장식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기둥과 보 등의 주요 구조부재들이 규모에 비해 굵은 것을 사용해 육중하고 장중한 느낌으로 절제된 힘 있는 조형성을 충분히 표현하였다. 대공은 판대공이지만 제형이 아닌 오각형으로 하고 폭을 넓게 한 고식 대공이다. 이러한 측면이 건축예술 및 미학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자풍서당은 초창에서부터 근래까지 일관되게 서당의 기능을 하였고 이축이 없었던 임진왜란 직전의 건물로 한국 서당건축을 연구하는데 보기 드문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역사와 학술적가치 및 희소성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규모와 부재의 사용, 평면의 구성 및 가구법, 장식 등을 살펴보았을 때 건축학적으로 조선 전기 건축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학술적가치가 있으며 건축 및 미학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국가지정문화재로의 승격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0.09.09	대상문화재	영동 자풍서당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 속		직위(직책)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영동 자풍서당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 년 10 월 5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1. 입지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영동 자풍서당의 입지는 서쪽은 금강이 내려다보이는 중턱에 태극모양으로 돌아 흐르는 금강과 금강변의 옥토가 내려다보이고 있다. 자풍서당은 주변으로 산이 둘러싸여 아늑하지만 남쪽으로는 안대가 보이는 지리적인 경관을 이루고 있다. 진입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두평마을, 금강변, 목정마을에서 진입하는 길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며 이러한 옛길로 주변 18문중에서 접근이 용이한 입지에 자리하고 금강이 내려다보이는 산 중턱에 산으로 에워싸인 지리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 2. 연혁·유래 및 특징

### 연혁·유래

영동 자풍서당은 조선 정종-태종 연간(1398-1418)에 이 지역의 자제들을 교육시키기 위하여 창건하였으며, 그 시기는 대개 1400년경으로 추정하고 있다. 원래 자풍서당의 터에는 풍곡사라는 암자가 있었던 곳으로 송유역불의 사회분위기 속에서 점차 퇴락하다가 이 지역의 뜻있는 선비들에 의하여 강학의 장소로 탈바꿈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창건 초기 서당의 이름은 풍곡당이라 하였고, 처음 서당을 열고 강학을 주도했던 인물들이 누구였는지도 확인하기 어렵지만, 이 서당의 저명 배출인물이 가장 먼저 거명되는 경재 남수문(1408-1443)의 행적과 일화를 통해 창건 연대를 추정해 볼 수 있다. 남수문이 어릴 적 수학하였던 시기는 1410년대 말 1420년대 초반이었을 것이고, 이미 서당이 운영되고 있었음을 생각한다면 창건 시기는 1400년 이전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하천수의 자풍서당중수기(1974)와 같이 고려 말까지도 초창시기를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조선 초기에 활약한 인물들 뒤를 이어 15세기 사림의 시대에 자풍서당은 경재 광순(1509-1544), 중봉 조헌(1545-1592) 등이 수학하였다.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풍곡당은 동천 이충범(1520-1598)에 의하여 양강가에 있던 풍곡당을 새로 고치고 준재들을 양성하였다고 한다. 그가 풍곡서당을 중수하였다면 연배로 보아 임진왜란 직전 경이 아니었을까 추정된다.

이후 한강 정구(1543-1620)가 1614년(광해군 6년)에 이곳에 머물면서 “자법정풍(資法正風)”으로 강학을 장려한다는 뜻으로 “자풍서당”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자풍서당이 크게 이름을 알리게 된다. 1600년 전반에 자풍서당은 명성을 날리며 전성기를 맞이하나 중심인물들은 옥천의 향촌사회 주도세력으로 서원의 건립과 제향 등에 깊이 연관되면서 자풍서당도 지역의 당파간 갈등에 휘말리고 있다. 자풍서당 세력들은 이 시기에 남인계 성향으로 서인 노론계와 갈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후 정치적 소외와 차별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1626년(인조 4)에는 봉성 이운길이 서당을 고쳐지으며 상량문을 짓고, 자풍서당의 당헌(堂憲)을 마련하였다고 한다. 현전 당헌 자료는 퇴계의 역동서원 원규(院憲)를

본받아 제정하였고, 31개조로 상세하게 규정된 귀중한 자료이다. 당현에는 선비의 행실, 출재(黜齋)와 삭적(削籍) 그리고 영출(永黜), 손도와 면책, 서당 운영, 입학의 추천과 허가의 절차, 거접 행례, 과거에 급제, 제정 운영과 관련한 서당채(書堂債) 등의 조항은 서당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1692년(숙종 18)에는 양곡 여안소가 단자를 옥천군수 정조갑에게 제출하고 직접 방문하여 자풍서당의 유래와 실상을 설명하고 지원을 받아 중수하였다고 한다. 중수에 양산창(송호리에 있던 창고)의 기와를 획급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서당 목부재 중 어칸과 협칸에서 기둥 2본 대량 4본 종량 1본의 연륜연대 측정 결과, 1663년으로 별채 시기가 확인되었다. 이 시기와 일치하는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7개의 부재에서 유사한 연대가 확인되었고, 이 시기에 자풍서당이 많은 인재를 배출하면서 명성을 날리는 때인 것을 감안할 때, 큰 중수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후 19세기 전반까지 자풍서당의 권위가 살아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괘목할 활동이나 인물을 배출하지 못하고 위세가 약화되어 오다가 1924년 18문중에 통문을 보내고 재물을 모아 공사를 시작하여 5년만인 1929년(기사년) 가을에 중수가 이루어졌다. 1960년 야은 이필주가 유림들과 논의하여 보수비를 지원받고 각 문중에서 적극 협조하여 1964년에 중수를 하였다. 1980년 자풍서당의 앞 마당에서 5층 석탑 옥개석이 발견되었고 이를 통해 자풍서당이 풍곡사의 옛터에 건립된 것임이 알려졌고, 그 가치를 인정받아 1980년 11월 13일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73호로 지정되었다.

## 건물현황과 특성

영동 자풍서당은 정면 5칸, 측면 2칸 규모의 一자형 목조기와집이다. 평면구성은 가운데 3칸의 대청마루를 두고 왼쪽과 오른쪽에 1칸씩의 방을 두고 있다. 왼쪽과 오른쪽의 방 앞에는 한 자 정도 높은 마루를 두고 하부에는 함실아궁이를 설치하고 있다.

자풍서당의 건물 구조는 전체적으로 자연석 기단 위에 덩벙 주초를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있다. 기둥은 어칸 대청에 노출되는 두 기둥은 두리기둥이고, 나머지는 네모기둥을 사용하고 있다. 가구는 5량가 형식으로 대량 위에 동자주를 세우고 종량과 중도리를 걸구하고 종량 위에 판형대공을 세우고 중도리를 걸친 형태로 되어있다. 홀처마의 맞배지붕으로 지붕을 구성하고 있다.

기둥이나 대들보 등의 부재들은 잘 치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대들보나 종량 등은 자연목 상태로 대자귀로 다듬어 사용하였다. 전면의 양쪽 방 앞의 전퇴 누마루는 간결한 평난간을 설치하여 사치를 부리지 않은 검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풍서당은 ‘-’자형의 마루와 온돌로 된 서당으로 가운데 대청 양쪽 온돌방 전퇴에 전면으로 높은 마루를 설치하고 있다. 좌우대청 형식을 갖추면서 정형화 되어있는 서당의 형식을 잘 갖추고 있어 서당건축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의 평면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

사방으로 둘러싸인 지형 안에 고즈넉하게 자리잡은 자풍서당은 서당건축으로서는 흔치 않은 귀한 건축유구로서 조선 후기의 격식을 갖춘 건축 형식적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외진 곳에 자리하여 도시개발에 의한 경관의 파괴나 변형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까지도 입지적 가치가 거의 그대로 남아 있다. 이 자리는 풍곡사라는 사찰이 있던 자리로 신라 말에서 고려 초의 것으로 추정되는 두평리 5층석탑이 남아 있어 사찰이 폐지되면서 유학의 보급과 진흥을 위하여 서당으로 이용하도록 한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자풍서당은 5량가의 맞배지붕 홑처마이다. 가운데 대청의 기둥 2개는 두리기둥이고, 다른 기둥은 네모기둥이다. 보나 종량 등은 대자귀에 의해 치목되어 자연스러운 멋을 풍기고 있고, 대량과 주심도리 또한 거의 같은 형태로 치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도리의 형태는 방형도리이고 모를 굴려 하부에서의 보았을 때 의장적인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며 다소 거칠게 치목되어 있어 오히려 지역적인 특성을 잘 간직하고 있다.

### 3.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역사적으로 영동 자풍서당은 조선 초기에 금강 가에 처음 지어진 것으로 전하나 자풍서당의 운영에 대한 기록은 남수문의 행적과 일화를 통하여 1410년대 말 1420년대 초반에 기록되어 있다. 한강 정구 선생이 이곳에 머무르며 학문을 장려하는 뜻으로 풍곡당을 「자법정풍」의 자풍당이라고 바꾸어 격을 높여주고 있다. 1600년 전반 전성기를 맞이하나 당과간 갈등이 지역에도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목재연륜연대 측정을 통해 1663년경에 큰 보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19세기 전후반까지도 자풍서당의 권위가 살아 있었으며, 근현대에도 18문중에 의해 계승되어 오고 있다.

학술적으로 자풍서당은 풍곡사라는 암자가 있었던 곳으로 현재도 주초나 5층의 석탑의 유구들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어 조선 초기 퇴락된 풍곡사의 터를 이용하여 강학의 장소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1636년(인조 14)으로 추정되는 해에 봉성 이운길의 당헌(재중약조)은 퇴계의 역동서원 원규를 본받아 제정하였음을 밝히고 있고, 서당 입하의 추천과 허가 절차, 거점행례, 재정 운영과 서당책 문제, 임원 등의 31개조의 상세한 규약은 17세기 전반기의 귀중한 연구자료이다.

건축적으로 자풍서당은 양산팔경의 하나로 ‘자풍서당 글 읽는 소리’가 들어갈 정도로 명성이 높은 곳이다. 서당 건축으로는 흔치 않은 건축유구로서 금강변의 산중턱에 사방으로 둘러싸인 지형 안에 자리잡아 그대로 유지해 왔다.

서당건축이 단독으로 세워진 서당단독형으로 중앙 정칸을 향하여 진입하는 정면진입방식을 하고 있다. 평면형식은 정면 5칸, 측면 2칸 규모의 一자형 목조기와집으로 가운데 3칸의 대청마루를 두고 양측면에 1칸씩의 방을 둔 서당형식 중 가장 보편적인 형식을

하고 있다.

전면의 기둥들은 위풍당당하게 보이기도 하고 맞배지붕 형식은 격식과 위엄을 드러내기도 한다. 기둥이나 보와 도리가 튼실하여 맞배지붕 형식을 통해 격식과 위엄을 드러내지만 전퇴 누마루나 간결한 평난간 등은 사치를 부리지 않은 검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대들보나 종량 등은 자연목을 대자귀로 다듬은 모습에서 고식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건축적으로 서당건축의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지역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 서당건축 지정문화재 연대비교표 ]

순번	종목	지정번호	문화재명	시군구	비고	순번	종목	지정번호	문화재명	시군구	비고
1	유형	제9호	성재서당	동구	1770	27	문자	제194호	밀양 자암서당	밀양시	근대
2	유형	제36호	은곡서당	안동시	1822중건,이건	28	문자	제196호	산청 이동서당	산청군	1920
3	유형	제73호	영동 자풍서당	영동군	1630~60년대	29	문자	제200호	사창서당	성주군	1796
4	유형	제78호	자양서당	영천시	이건	30	문자	제220호	화산서당	경산시	1840,서원
5	유형	제172호	월록서당	영양군	1773	31	문자	제249호	창녕 구니서당	창녕군	1916
6	유형	제231호	무이서당	예천군	1710	32	문자	제253호	두릉서당	봉화군	1868,1984
7	유형	제261호	청천서당	성주군	근대	33	문자	제297호	구산서당주사	봉화군	1800년대
8	유형	제285호	동강서당	의성군	1650(기와)	34	문자	제299호	동암서당	봉화군	1785이건
9	유형	제295호	거창 갈천서당	거창군	1877	35	문자	제304호	산청 용산서당	산청군	1800년대
10	기념물	제41호	월천서당	안동시	?. 근대 개축	36	문자	제321호	함천 회계서당	함천군	1918
11	기념물	제59호	도산서당	성주군	1860	37	문자	제322호	함천 구산서당	함천군	1904
12	기념물	제131호	도강서당	영주시	근대	38	문자	제335호	창녕 관산서당	창녕군	1900
13	민속	제17호	기양서당	안동시	1716	39	문자	제370호	창녕 동산서당 강당	창녕군	근대
14	문자	제12호	독암서당	동구	1865	40	문자	제376호	창녕 소곡서당	창녕군	근대
15	문자	제15호	고산서당	수성구	1879년	41	문자	제394호	물소와서당	영덕군	1800년대
16	문자	제24호	옥천 덕양서당	옥천군	1895년 수리	42	문자	제463호	성주삼봉서당	성주군	근대
17	문자	제42호	영동 고당리 서당	영동군	1800년대	43	문자	제464호	단계서당	경주시	1739,서원
18	문자	제49호	지산서당	안동시	1800	44	문자	제464호	김해 월봉서당	김해시	1917
19	문자	제64호	진주 용강서당	진주시	1902년	45	문자	제466호	산청 인곡서당	산청군	1934
20	문자	제69호	창녕 광산서당	창녕군	1935	46	문자	제497호	경주도봉서당	경주시	1915
21	문자	제79호	석천서당	영양군	1831	47	문자	제552호	함안 청계서당	함안군	1918
22	문자	제117호	사양서당강당	칠곡군	1694이건,서원	48	문자	제567호	영주 도림서당	영주시	1848
23	문자	제156호	관서당남성재	남원시	1875	49	문자	제604호	경주 두산서당	경주시	1919
24	문자	제167호	성산서당	경주시	1814	50	문자	제639호	포항 덕계서당	포항시	1800년대
25	문자	제176호	운곡서당	안동시	1761	51	문자	제640호	함양 종담서당	함양군	근대
26	문자	제181호	백호서당	청송군	1757창건,이건	52	문자	제659호	함안 의학서당	함안군	근대

#### 4. 종합의견

영동 자풍서당은 역사적으로 조선 초기에 남수문(1408-1443)의 행적과 일화를 통하여 1410년대 말 1420년대 초반에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강 정구 선생이 이곳에 머무르며 학문을 장려하는 뜻으로 풍곡당을 「자법정풍」의 자풍당이라고 바꾸어 격을 높여주고 있다. 1636년(인조 14)으로 추정되는 해에 봉성 이운길의 당헌(재중약조)은 퇴계의 역동서원 원규를 본받아 제정하였음을 밝히고 있고, 서당 입하의 추천과 허가 절차, 거접행례, 재정 운영과 서당책 문제, 임원 등의 31개조의 상세한 규약은 17세기 전반기의 자료로 학술적으로 귀중한 연구자료이다. 1600년 전반 전성기를 맞이하나 당과간 갈등이 지역에도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목재연륜연대측정을 통해 1663년경에 큰 보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세기 전후반까지도 자풍서당의 권위가 살아 있었으며, 근현대에도 18문중에 의해 계승되어 오고 있다.

건축적으로 자풍서당은 양산팔경의 하나로 ‘자풍서당 글 읽는 소리’가 들어갈 정도로 명성이 높은 곳이다. 서당 건축으로는 흔치 않은 건축물로서 금강변의 산중턱에 사방으로 둘러싸인 지형 안에 자리잡아 그대로 유지해 왔다.

서당건축이 단독으로 평면형식은 정면 5칸, 측면 2칸 규모의 一자형으로 가운데 3칸의 대청마루를 두고 양쪽에 1칸씩의 방을 둔 중당협실형으로 서당형식 중 가장 보편적인 형식을 하고 있다. 기둥이나 보와 도리가 튼실하여 맞배지붕 형식을 통해 격식과 위엄을 드러내지만 전퇴 누마루나 간결한 평난간 등은 사치를 부리지 않은 검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대들보나 종량 등은 자연목 상태로 대자귀로 다듬은 모습에서 고식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자풍서당은 역사적 건축적 학술적으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0.09.09	대상문화재	영동 자풍서당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 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영동 자풍서당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 년 10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1. 연 혁 :

영동 자풍서당은 이 지역의 양반자제를 교육하기 위하여 조선 정종~태종 연간(1398~1418)에 창건되었으며, 그 시기는 대개 1400년경으로 추정하고 있다. 원래 자풍서당의 터에는 풍곡사라는 암자가 있었던 곳으로 현재도 건물의 주초나 마당에 있는 두평리 5층 석탑을 통해 보건대 풍곡사도 송유역불의 사회분위기 속에서 점차 퇴락하다가 이 지역의 뜻있는 선비들에 의하여 강학 장소로 탈바꿈된 것으로 보인다.

창건 초기 서당의 이름을 풍곡당이라 하였고, 처음 서당을 열고 강학을 주도했던 인물들이 누구였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창건 시기와 관련하여 이 서당의 배출 인물로 가장 먼저 거명되는 경재 남수문(1408~1443)의 행적을 통해 창건 연대를 추정해 볼 수 있다. 남수문이 어릴 적 수학하였던 시기는 1410년대 말 1420년대 초반이었을 것이고, 이미 서당이 운영되고 있었음을 알게 한다.

이곳에서 수학한 중봉 조현(1544~1592)은 명종 22년 문과에 급제한 뒤 임진왜란 때에 의병을 이끌고 금산전투에서 장렬하게 순절하였다.

동천 이충범(1520~1598)은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풍곡당을 새로이 중수하였다. 그가 풍곡서당을 중수한 시기는 임진왜란 직전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임란 후면 70세를 넘긴 고령이라 중수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후 자풍서당의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된 것은 한강 정구(1543~1620)가 1614년(광해군 6)에 이곳에 머물면서 “자법정풍(資法正風)”으로 강학을 장려한다는 의미에서 “자풍서당(資風書堂)”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면서부터였다. 당시 정구는 광해군의 실정에 회의를 느끼고 정계를 떠나 잠시 이곳을 찾아 머물렀던 것인데, 그의 연보에 의하면 1613년(광해군 5) 여름에 계축옥사가 발생하여 상경하다가 병으로 영동에서 차자(笥子)를 올리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의 명성과 도학자로서의 위상이 자풍서당의 지위를 높여 주었음을 분명하며, 특히 한강의 ‘자풍정풍’이라 지목한 자풍의 의미는 향후 모든 기록에서 강조되는 상징이 된다.

1626년에 봉성 이운길이 서당을 고쳐 지으며 상량문을 짓고, 자풍서당의 당헌(堂憲)을 마련하였다. 상량문은 전해지지 않으며, 당헌(규약)은 재중약조(齋中約條)라 하여 그의 서문과 함께 현재 자료로 전해지고 있다. 이 당헌은 31개 조로 17세기 전반기의 자료로 귀중한 학술 자료이다.

1692년(숙종 18)에는 양곡 여안소가 옥천군수 정조갑에게 단자를 제출하고 직접 방문하여 자풍서당의 유래와 실상을 설명하고 기와를 지원을 받아 중수하였다. 당시 여씨 집안의 방조인 여성재가 영의정을 역임할 때라 그 후광으로 지원을 받았다 한다.

이후 200여 년 동안 특별히 전하는 변천사는 없다. 좋게 본다면 조선 후기 동안 큰 불편함이 없이 교육과 강학 활동을 하였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조선 초기와 중기와 같이 팔목할만한 인물을 배출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1924년 일제강점기에 무위재 박찬하에 의해 중수가 이루어졌다. 그의 중수 통문(1924년, 무위집)을 보면, 서당이 기울어지고 퇴락하여 18문중에 통문을 보내고 재물을 모아 공사를 시작하여 5년만인 1929년(기사년) 가을에 비로소 중수를 마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해방 이후 1960년 야은 이필주가 유림과 논의하여 전태화, 이종하 등과 함께 경무대를 찾아가서 보수비를 지원받고 각 문중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1964년에 중수를 하였다.

1980년 앞마당에서 5층 석탑 옥개석이 발견되었고 이를 통해 자풍서당이 풍곡사 옛터에 건립된 것임이 알려졌고, 그 가치를 인정받아 동년 11월 13일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73호로 지정되었다.

1982년 지방비와 18개 문중의 협찬으로 기와지붕을 완전히 보수하고 낡은 기둥 5주도 교체하였다.

1988년~1989년에는 도비와 지방비 그리고 18개 문중의 협조로 토석담장을 비롯한 대대적인 보수를 하여 전통적인 자풍서당의 면모를 되찾았다.

2005년 4월에는 자풍서당사적비를 건립하였다. 현재는 매년 1회 정기총회와 임시회를 소집하여 서당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 2.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자풍서당이 있는 양강면(楊江面)은 군의 중앙부에 있는 면으로, 본래 옥천군 지역으로 옛 양산현(陽山縣)의 읍내가 되므로 양내면(陽內面)이라 하여 16개 리를 담당하였다. 자풍서당이 있는 양산면 송호리 양강(楊江) 일대에는 자풍서당(資風書堂)을 포함하여 영국사(寧國寺)·강선대(降仙臺)·비봉산(飛鳳山)·봉황대(鳳凰臺)·함벽정(涵碧亭)·여의정(如意亭)·용암(龍巖) 등 이른바 양산팔경이 있다.

이 서당은 북으로는 국사봉(502.4m)과 어류산(482.4m), 시루봉(346.0m), 서쪽으로는 천태산(715.2m)과 봉화산(388.2m), 남쪽으로는 백하산(633.6m)과 정산(501.5m), 대왕산(337.5m), 동남쪽으로는 거무봉, 동북쪽으로는 성산(436.2m)이 둘러싼 아늑한 곳에 자리하고 있다. 특히 서쪽으로는 인접하여 용처럼 굽이치는 금강이 흐르고 동북쪽의 성산을 배산으로 하여 남남동향하고 있음에 따라 주변 마을로부터 떨어져 산과 금강을 바라보는 경관 속에 독립된 영역을 구성하여 서당이 자리하고 있다. 산 중턱의 자연 속에 자리하는 입지특성으로 인해 개발과 동떨어져 오늘날에도 거의 변화되지 않으면서 현상을 유지했다.

과거에는 양산과 두평, 봉암, 유림 등 사방에서 이 지역으로의 접근이 쉬운 곳이었고, 당시 인접한 두평마을, 금강 변, 목정마을에서 서당으로 진입하는 길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지리적인 요건이 주변의 18개 문중이 참여하는 자풍서당이 운

영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현재 진입로는 505번 지방도 두평마을 갈림길 삼거리에서 마라난타기도원 골짜기를 따라 형성되어있다. 마라난타기도원 옆의 오솔길(두평길)을 따라 340m 정도 올라가면 갈림길에서 남서쪽 오솔길로 접어든다. 이 갈림길에서 160m 정도 올라가면 고개(200m)에 도달하고 고개를 넘어 남서쪽으로 180m 정도 내려가서 동남쪽으로 50m 정도 가면 자풍서당의 서쪽 담장에 이르고 남쪽으로 30m 정도 내려가 북쪽으로 돌아 10m 다가가면 자풍서당 남문에 이르러 접근한다.

따라서 입지여건을 분석해보면, 서당이 위치한 곳은 상대적으로 외져서 도시개발에 의한 경관의 파괴나 변형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건립 당시의 입지적 가치가 거의 그대로 남아 있다. 서당 자리는 풍곡사라는 사찰이 있던 자리로 신라 말에서 고려 초의 것으로 추정되는 두평리 5층 석탑이 남아 있어 사찰을 폐하여 유학의 보급과 진흥을 위하여 서당으로 이용하도록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입지적 특성과 사찰을 폐하여 유학의 보급과 진흥을 위하여 서당으로 이용하도록 한 점에서 역사적 시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 3. 건축 현황 및 특징 :

배치는 자풍서당 앞에 마당이 있고 사주문을 남쪽에 설치하고 사주문에 면해서 토석담장이 둘러싸고 있다. 자풍서당을 둘러싼 담장은 가로세로의 비가 1:1 정방형을 이루고 있다. 마당의 서쪽에는 담장을 보수하면서 발견된 오층석탑이 있고, 그 앞 모퉁이에 나무가 한 그루 심겨 있다. 담장의 북쪽 가운데에 협문을 설치하여 북쪽에서 서쪽으로 치우쳐 남향한 관리사와 연결되어있다. 사주문 앞쪽 동쪽으로 2005년에 건립한 자풍서당 사적비가 설치되어 있다. 즉, 자풍서당은 서당과 사주문 그리고 이를 둘러싼 토석담장의 간결한 배치이고, 그 뒤로 관리사가, 그리고 그 앞으로 사적비가 배치되어 있다.

평면은 ‘一자형’의 정형화된 형식을 띠고 대청과 온돌로 구성되었다. 서당건물로서는 건설하고 규모 있게 지어진 것은 그 자리에 있던 풍곡사라는 절의 부재들을 활용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정면 5칸, 측면 2칸 규모의 ‘一자형’ 맞배지붕으로 면적은 66.55㎡(20.13평)이다. 가운데 3칸의 대청마루를 두고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1칸의 방을 두고 있다. 왼쪽과 오른쪽의 방 앞에는 한 자 정도 높은 마루를 두고 하부에는 함실 아궁이를 두었다. 대청은 스승과 학생의 강학을 위한 공간으로, 방은 스승의 생활공간 또는 휴식공간으로 사용되었다. 이 지역 18문중의 학문소 역할을 해온 서당으로 ‘一자형’으로 정형화된 평면구성에 맞게 건설하게 지어져 소박하지만 단아한 서당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기단은 네면 모두 자연석 쌓기로 되어있다. 대지가 지형상 전면이 낮으므로 지형에

따라 기단 높이를 달리함으로써 지반과 건물의 상황에 따라 약간씩 경사지거나 단을 설치하여 주변의 지형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하였다. 전면 기단은 자연석 세벌대기 단이고 배면은 외벌대기단으로 배수로와 함께 설치되어 있다. 초석은 모두 14개로 자연스러운 다양한 형태의 자연석을 사용하였으며, 기둥은 하부를 그랭이질 하여 주초 형상에 맞춘 덩벙주초를 사용하였다. 특히 정면의 대청 초석은 비교적 높고 모를 깎은 방향의 정형화된 초석을 사용하여 정면성을 강조하였다.

기둥은 18본으로 전면 대청 기둥은 두리기둥이고 나머지는 네모기둥이다. 특히 대청 두리기둥은 밑으로부터 1/3 지점이 상·하부보다 굵은 배흘림을 가지고 있다. 대청의 전·후 기둥 상부에 대량을 걸고 동자주를 세우고 종량과 중도리를 결구한 후 종량 위에 대공을 세워 중도리를 받도록 한 5량 구조로 되어있다. 그러나 좌우 측벽은 맞보 3 평주 5량가로 되어있다.

대들보 머리는 뿔목으로 처리하고 있다. 대들보의 단면은 대체로 춤보다 너비가 긴 장방형의 네 모서리를 접은 형태로 시각적으로 통나무 보에 가까운 형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보는 자연재를 다듬어 사용하면서 윗부분은 비교적 가공하지 않고 하부와 측면만 평편하게 자귀질한 흔적을 보이는 고식을 드러내고 있다. 보머리 형태는 규격을 줄여 내밀고 상면을 경사지게 다듬은 후 마구리를 단순하게 직절한 형태로 되어있다. 보뿔목 아래에는 보아지를 부가하여 대들보를 보조적으로 받치고 있다. 보아지는 바깥쪽과 안쪽으로 경사지게 초각하여 처리하고 안쪽의 보아지를 길게 하여 보를 받고 있다. 보뿔목과 보를 받치고 있는 보아지의 형식이 세련되어 보이지 않으나 이 지역 장인들의 투박함을 통해 지역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판단된다.

판대공은 두꺼운 판재를 세워대거나 가로로 포개어 쌓아서 만든 가로판대공으로 보 방향으로 종량 위에 설치하여 중도리를 받고 있으며 대공과 직교되게 중도리 장여를 받고 있다. 판대공은 3개의 부재로 하부의 2개는 직절하여 중첩해 쌓고 상부의 1개는 사다리꼴로 사절하고 있다. 판대공은 중도리 하부의 장여와 직교되게 결구되어 받고 있다. 대량 위에 세워 중도리를 받치는 동자대공은 각재로 되어있다.

처마는 5량의 도리 상부에 단연과 장연을 설치하여 부연 없이 지붕을 받도록 한 흘 처마이다. 합각부의 박공널은 중간이 약간 휘어 내린 육은 박공을 설치하였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맞배지붕에서 박공에는 풍판을 설치하고 있는데 설치하지 않은 것은 고식을 그대로 이어온 것으로 보인다. 박공널의 길이는 왼쪽과 오른쪽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이며 박공널의 끝부분에는 지붕이 무겁지 않고 역동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계눈 각으로 접고 있다. 박공널 춤은 양측면 모두 합각머리 부분에서는 춤이 넓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춤이 좁아진다. 또한, 직선재를 사용하지 않고 아래로 만곡 되게 다듬어 사용하고 있다. 맞배지붕의 직선화된 것이 주는 경직성을 벗어나려는 의도와 지붕 물매 곡선과 맞추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기와는 한식기와 중와를 사용하였다. 용마루는 작

고, 부고 위에 적새 7단으로 쌓았고, 내림마루는 당골 위에 적새 3단으로 쌓고 있다. 막새기와는 사용하지 않고 단부에 와구토 마감을 하였다.

실 내부 마감과 관련, 바닥의 경우 대청은 우물마루로, 방은 온돌 위 장판지로 마감하였다. 천장의 경우 대청은 서까래가 드러나 보이는 연등천장으로, 방은 반자가 있는 천장지로 마감하였다. 대청마루는 장귀틀과 동귀틀, 청판으로 구성된 우물마루이다. 대청은 3칸으로 구성하고 있다. 정칸 중앙 2열에 남북쪽의 기둥을 하나로 연결한 장귀틀을 건너지르고, 외부 벽체를 따라 여모귀틀을 설치한 뒤 장귀틀과 여모귀틀에 직교하여 불규칙적으로 5등분하여 동귀틀을 설치하고, 동귀틀에 판 물홈 사이에 청판을 끼워 넣고 있다. 이 마루는 외부로 개방되어 있어 앉아 휴식과 사색 그리고 생활에서의 완충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온돌방 전면에는 높은 마루를 설치하고 전면과 측면에 벽체 없이 전면에는 평난간을 돌렸다. 이 마루는 기둥에서 내부 기둥으로 장귀틀을 건너지르고, 기둥과 벽체를 따라 동귀틀을 설치하고, 동귀틀 사이에 청판을 끼워 넣었다.

벽체는 심벽으로 인방과 벽선 등에 일부 짜릿가지와 쪼갠 나무를 이용한 외위기 흙벽으로 되어있고, 마감은 회반죽 미장으로 하여 사치를 부리지 않은 검소한 모습을 보여준다.

창호는 주로 세살이 있는 세살문과 골판문 그리고 정자살창으로 이루어졌다. 세살문은 하부에 청판이 없는 세살문과 청판이 있는 세살청판분합문으로 구분된다. 대청마루에 면한 방문은 모두 두 짝의 세살청판분합문을 설치하고 있고, 방의 전면에는 두 짝의 세살분합문을 설치하여 구분하고 있다. 대청 배면으로는 가운데 칸에 두 짝의 골판문을 설치하였다. 동쪽 온돌방의 측면에는 격자 살창을 설치하고 있다. 대부분 울거미의 면은 두 줄로 볼록 줄눈을 넣는 쌍사면접기 하였고, 문살은 등만 가공한 볼록살 등 밀이로 가공하였다. 골판문은 상, 하 및 중간에 두 줄의 띠장을 대고 그 사이에 얇은 청판을 끼워 만들었다.

현판은 대청마루 배면 어칸 상부 중도리에 걸려있다. 글씨는 행서체로 ‘資風書堂’이라 크게 음각되어있고, 그 옆에 ‘歲戊辰七月 日’이라고 음각되어있다. 현판의 안목은 판재로 되어있으며, 사방으로 테두리목을 두르고 있다. 방 앞의 난간은 평난간으로 장식이나 의장적인 처리 없이 투박하지만 고식의 치목 수법이 솔직하게 드러나 있다.

건축적 특성을 요약하면, 기둥이나 보와 도리가 튼실하여 맞배지붕 형식을 통해 격식과 위엄을 드러내지만 가운데 대청 양쪽 온돌방 전퇴에 전면으로 높은 마루에 설치한 난간대는 소박하고 간략하게 평난간 형식으로 설치되어 있고, 사람이 앉으면 허리 높이에 맞게 간략하게 설치되어 있다. 간결하면서도 소박하고 굳건한 평난간 형식을 통하여 유교적인 정신을 드러내고 있다. 온돌방 전면의 전퇴 높은 마루는 하부에 함실 아궁이가 설치되어 있고, 맞은편 후면에는 좌편 굴뚝이 설치되어 있다. 높은 마루는 온돌방과 연계되면서 대청과도 연계되는 특성을 보이는 것은 대청을 중심으로 양쪽에 방

이 배치되는 형식과 전퇴가 대청과 연결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형식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장식을 하지 않은 단순한 외관을 가지고 있어 교육공간의 검소한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구조적 특성을 요약하면, 자연석 기단 위에 덩벙 주초를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있다. 기둥은 칸 대청에 노출되는 두 기둥은 두리기둥이고, 나머지는 네모기둥을 사용하고 있다. 5량가의 맞배지붕 흘처마로 대량 위에 동자주를 세우고 종량과 중도리를 결구하고 종량 위에 판대공을 세우고 중도리를 걸친 형태로 되어있다. 기둥이나 대들보 등의 부재들은 거의 같은 형태로 치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대들보나 종량 등은 대자귀로 치목하여 자연스러운 멋을 풍기고 있다. 도리의 형태는 방형도리이고 모를 굴러 하부에서의 보았을 때 의장적인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며 다소 거칠게 치목되어 있어 오히려 지역적 특성을 잘 간직하고 있다.

#### 4. 지정가치 및 종합의견 :

자풍서당은 조선 초기 정종~태종 연간(1398~1418)에 이 지역의 양반자제들을 교육하기 위해 지은 건물이다. 창건 초기에는 누가 서당을 열고 강학을 주도하였는지 밝혀지지 않지만, 서당의 이름을 풍곡당이라 하였다고 한다. 남수문·조현·이충범·정구·이운길·여안소·박찬하·이필수 등이 자풍서당과 관련된 인물들이다. 충청북도 문화재 제73호로 지정된 자풍서당은 성산을 배산으로 마을 남쪽 산기슭에 남남동향하여 위치하고, 조선 초기부터 유래된 강학공간으로 많은 인재 양성과 옛 조상의 얼이 살아 숨 쉬는 문화유산으로서 이 고장의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역사적으로 영동 자풍서당은 조선 초기에 금강 가에 처음 지어진 것으로 전하나 자풍서당의 운영에 대한 기록은 남수문(1408~1443)의 행적과 일화를 통하여 1410년대 말 1420년대 초반에 기록되어 있다. 한강 정구(寒岡 鄭述, 1543~1620) 선생이 이곳에 머무르며 학문을 장려하는 뜻으로 풍곡당을 「자법정풍(資法正風)」의 자풍당(資風堂)이라고 바꾸어 격을 높여 주고 있다. 1600년 전반 전성기를 맞이하나 당과 간 갈등이 지역에도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세기 전후반까지도 자풍서당의 권위가 살아 있었으며, 근현대에도 18문중에 의해 계승되어 오고 있다. 학술적으로 자풍서당은 풍곡사라는 암자가 있었던 곳으로 현재도 주초나 5층 석탑의 잔영들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조선 초기 퇴락된 풍곡사를 이 지역의 뜻있는 선비들에 의하여 강학의 장소로 탈바꿈되었음을 알 수 있다. 1636년(인조 14)으로 추정되는 해에 봉성 이운길의 당헌(齋中約條)은 퇴계의 역동서원 원규를 본받아 제정하였음을 밝히고 있고, 서당 입하의 추천과 허가 절차, 거점행례, 재정 운영과 서당책 문제, 임원 등의 31개조의 상세한 당헌은 17세기 전반기의 귀중한 연구자료이다.

건축적으로 자풍서당은 양산팔경의 하나로 서당건축으로는 흔치 않은 건축 유구로서

금강 변의 산 중턱에 사방으로 둘러싸인 지형 안에 자리 잡아 그대로 유지해 왔으며 풍곡사라는 사찰이 자리한 곳에 두평리 5층 석탑이 남아 사찰을 폐하여 서당으로 이용한 것이 확인되는 입지적 특성을 보인다. 14~15세기 서당건축이 단독으로 세워진 서당 단독형으로 중앙 정칸을 향하여 진입하는 정면진입방식을 하고 있다. 평면형식은 정면 5칸, 측면 2칸 규모의 一자형 목조기와집으로 가운데 3칸의 대청마루를 두고 왼쪽과 오른쪽에 1칸씩의 방을 둔 서당형식 중 가장 보편적인 평면유형을 하고 있다. 왼쪽과 오른쪽의 방 앞에는 한 자 정도 높은 마루를 두고 하부에는 함실 아궁이를 설치하고 있다. 기둥이나 보와 도리가 튼실하여 5량가 맞배지붕 형식을 통해 격식과 위엄을 드러내지만 전퇴의 높은 마루와 이에 부가된 평난간 등은 간결하게 만듦으로써 사치를 부리지 않은 검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부 두리기둥에서 보이는 배흘림과 대들보나 종량 등은 자연목 상태로 대자귀로 다듬은 치목에서 고식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건축적으로 자풍서당은 서당건축의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지역적인 특성을 보이기에 국가 보물로서 지정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이에 앞서 없어진 풍곡사라는 사찰에 대한 전반적 발굴을 선행하여 사찰의 사역과 규모가 어떠했는지 그 결과를 보고 국가 보물로 지정해도 늦지 않으리라 판단한다.

## 19. 옥천 이지당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2차)

### 가. 제안사항

충북 옥천군 소재 「옥천 이지당」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충북 옥천군 소재 「옥천 이지당」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 '19년 문화재위원회 제11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9.11.07) : 부결  
- 서원·향교 보물 지정 검토 시 재논의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충청북도지사
- (2) 대상문화재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42호 「옥천 이지당」
  - 소재지 :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 33번지
  - 지정일 : 1977. 12. 06.
-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 명칭 : 옥천 이지당(沃川 二止堂)
  - 소유자(관리자) : 이지당계
  - 소재지 :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이백6길 126(이백리 33번지)
  - 조성연대 : 조선시대(1674년 건립)
    - ※ 목부재 연륜연대 분석결과(충북대) : 1572년 ~ 1903년 부재 확인
  - 지정면적 : 152.6㎡
  - 양식 : 몸채 정면6칸, 측면1칸, 익랑 좌측 3칸, 우측 2칸, 'ㄷ' 자형 중층, 민도리, 홑처마



라. 현지조사의견(2019.07.29. / 전)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전)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마. 지정조사보고서 : 불임참조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원안가결 10명, 부결 1명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9.08.01.	대상문화재	옥천 이지당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 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옥천 이지당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10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1. 역사 및 건립 이력

이지당은 충북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 西華川가에있는 조선시대에 건립 된 서당이다. 충청도에서 그간 서당건축으로 꽤 주목을 받아왔고 현재 충북유형문화재 제 42호로 지정(1977년 12월), 보호 관리되고 있다.

이 서당은 조선 중기의 성리학자인 重峯 趙憲(1544~1592)의 옥천 은거, 후진교육 등과 깊은 인연이 있고 아울러 宋時烈(1607~1689)도 정자 건립에 관여를 했다. 조헌은 경기도 김포출신으로 1567년 문과 식년시 병과에 급제한 후 내,외직을 두루 거쳤지만 옥천과는 직접적인 인연이 없었던 곳이다. 다만 계모 봉양의 이유로 보은 현감(1582년 8월 부임)을 자처한 것과 정치적인 이유로 2차례 (1차 : 1584년 겨울부터 1586년 10월, 2차 : 1590~1592 임란 전)옥천으로 내려온 것이 전부다. 그러나 그는 옥천에 은거하면서 후학교육에 몸담았고 그게 인연이 되어 이지당 건립이 이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당시 그가 교육에 직접 관여한 사실도 전해지는데 하나는 현 이지당과 가까운 각신동이라는 마을 앞에 있었던 覺新書堂 현판을 그가 작성했고, 1584년 12월에는 그가 머물던 곳에 있었던 後栗精舍 상량문도 작성했다.

현 이지당은 선현, 즉 죽봉을 기리며 후학양성을 위해 새롭게 송시열과 지역민이 함께하여 탄생한 서당이다.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송시열이 쓴 ‘宋子大全’ 권 13. 二止堂記에 다음과 같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즉 1674년 어간에 이지당이 김만균에 의해 건립된 것으로 여겨진다.

“선생(죽봉)이 돌아가신 후 80여년에 선생의 동문 벗 김선생(金長生)의 증손 萬鈞(1631~ ) 이 승정원에서 郡을 살피러 왔다가 일을 마친 후 한가한 틈에 (중략) ‘만약 이곳에 집을 지어 마을의 수제로 하여금 날마다 모여 강학한다면 곧 선현을 기리는 뜻이며 선비를 기르는 길이니 장차 두 가지를 얻지 않겠는가’ 하였다. 드디어 선생(죽봉)의 시를 떠올리며 공사가 힘을 함께하여 건물을 이루고 畝함에 이르자, 김만균이 여러 문생으로 하여금 내게(우암) 이름을 묻자 내가 삼가 ‘二止堂’이라 이름하였고(하략)

때는 승정 갑인년(1674)6월 송시열 쓰다.”

우암 송시열 선생이 새로 지은 서당 당호를 ‘二止堂’이라고 한 것은 詩傳에 있는 “산이 높으면 우러러 보지 않을 수 없고 큰 행실은 그칠 수 없다”(高山仰止, 景行行止)라는 문구에서 끝의 “止”자를 따서 이지당이라 하였다고 한다. 당시 우암 송시열 선생이 친필로 쓰신 것으로 추정되는 “二止堂”이라는 편액도 현존하고 있다.

또한 이지당 건립에 대한 다음과 같은 우암이 지은 詩가 있다. 이 시는 죽봉이

1590년대 초 이지당 자리를 찬미한 四韻詩에 대한 次韻詩로 김만균에게 보낸 것이다. 여기서 물가란 현 이지당 앞의 西華川으로 여겨진다.

新構臨清泚 새로 지은 집 물가에 임했으니  
山頽問幾秋 임 가신지 묻노라 몇 해던가  
天衛箕尾遠 하늘거리에 기성 미성이 멀고  
(이하 하략)

이상의 문헌 기록으로 보아 이지당은 1600년대 후반 경에 지은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최근에 실시한 이지당 목부재 연륜 연대분석(2019.10, 충북대)에 의하면 이지당의 본채와 우익랑 부재(본채의 보 2점과 기둥 2점, 우익랑 기둥과 인방)는 1572년 직후의 부재로 나타났고, 좌익랑 기둥은 1697년, 1719년 이후의 부재로 밝혀졌다. 또한 우익랑 보는 1717년 이후부재로 밝혀졌다. 즉 본채와 우익랑은 동시대에 함께 건립된 것이며 좌익랑은 그 후에 증축된 것으로 판명된다. 만일 벌채 후 얼마의 건조 기간을 거쳐서 서당을 건립했다 해도 문헌 등 여러 정황과는 100여년의 큰 차이가 난다. 그렇다면 90여년 동안 저장된 오래된 목재로 공사를 했던지, 아니면 후시타 건물의 부재를 재사용했는지도 의문이 된다. 그간 문헌에 이지당의 이건이란 기록은 없다. 한편 1901년(光武 5)에 옥천읍 옥각리의 琴씨, 李씨, 趙씨, 安씨 네 문중에서 중수를 했다는 기록이 있는 데 목재연륜분석에서도 본채 중앙보가 1903년으로 분석됐다.

결론적으로 현 이지당의 건립은 1670년대 이전이며 2층 좌익랑은 1700년대 초에 증축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지당은 조헌과 송시열에 관련되는 『중봉집』 율원구곡시, 『宋子大全』의 二止堂記, 『호서읍지』 등 수많은 문헌이 남아 전해지고 있으며 지역 유지들의 학문소로 건립된 서당 건물로 누정과 복합적인 형식을 보이는 건축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 2. 건립 환경 및 조경학적 요소

이지당은 건물 앞을 유유히 흐르는 西華川이 경관 적으로 제일 눈에 들어온다. 아울러 진입부와 배면의 중첩된 야트막한 산들도 이지당의 경관요소로 작용한다. 즉 주변의 자연지세를 잘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건물을 배치했다. 진입공간에는 바위들이 산재해 있는데 이지당 뒷산에서 능선을 따라 내려오며 형성되는 바위이다. 이지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큰 바위를 지나 이르게 되는데 그 바위에는 ‘二止堂 重峰先生 遊賞之所 尤齋先生書’라고 쓰여 있다. 즉 죽봉선생이 이곳에 다녀갔다는 흔적을 송시

열이 바위에 각인한 것이다. 옛길을 추정하면, 중봉선생유상지소 각자바위에 진입하고 약간의 고개를 넘으면 이지당에 이르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지당의 앞마당은 자연석으로 석축을 쌓아 호안을 설치하고 있다. 학문처로서 이지당은 중앙 본채의 강학처, 양 측면의 누정을 함께 경영하면서 주변의 조경요소와의 관계를 잘 드러내고 있다. 즉, 이지당의 주변의 아름다운 풍광을 이지당은 굽이굽이 돌아 흐르는 서화천, 마당바위, 이지당 각자바위 등의 주요 경관을 누정에서 수용하고 있다.

### 3. 건축 구조 및 양식 적 요소

이지당의 전체 외형은 ‘ㄷ자’형 목조집이다. 중앙으로 몸채가 있고 좌우로 각각 익랑이 있다. 연혁에서 밝혔듯이 좌측 익랑은 몸채보다 약 50여년 후에 증축 개념으로 덧붙인 것이다. 우익랑은 당초부터 몸채와 함께 건립된 ‘ㄱ자’형 건물로 지붕도 같은 용마루 선상에 회침골로 연결되어 있다. 좌익랑은 몸채보다 한단 높게 팔작지붕으로 꾸며 동시에 건립되지 않았음이 구조적으로도 알 수 있다.

몸채 규모는 정면 6칸, 측면 1칸으로 실 구성은 서익랑 쪽부터 온돌방 2칸, 대청 3칸, 온돌방 1칸 순으로 나란히 꾸며져 있다. 강론과 선생의 처소를 위해 적절하게 실 구성이 되어있다. 양 익랑은 중층의 누 구조 형식이다. 평면은 서로 다른데 우익랑은 일층은 누하공간으로, 2층은 전체에 장마루를 깔은 대청형식으로 되어있다. 좌익랑은 누하공간 북쪽에 부엌을 드리고 2층은 전면 2칸은 우물마루가 설치된 대청으로, 후면은 마루방으로 꾸몄다. 익랑은 모두가 전면의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누마루 형식의 평면구조 되어 있다.

건물 구조는 전체적으로 자연석 기단 위에 덩병주초를 놓고 기둥을 세운 간결한 구조다. 강학처인 본채는 방주를 사용하였고 양 익랑은 두리기둥을 사용하여 누 건물의 격식을 갖추었다. 좌익랑 누하주의 경우 자연목을 거의 다듬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여 막돌 주초와 함께 자연스러움을 더하고 있다.

가구는 3량가 형식으로 대량 위에 대공을 세우고 종도리를 걸친 매우 간략한 형태로 되어있고, 좌.우익랑에 사용된 기둥이나 대들보 등의 부재들은 자연목 상태로 대자귀로 대충 다듬은 모습으로 치목하여 사용하고, 누마루도 평난간을 두르는 등 검소한 강학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좌익랑 만큼은 이익공식 팔작집으로 도리와 장혀 밑에 소로를 둔 다소 장식화 하였다.



이지당 전경



이지당 본채와 우익랑



이지당 본채 대청



이지당 좌익랑



이지당 후면



이지당 우익랑 지붕틀 가구

#### 4. 맺음

二止堂은 다음과 같은 교육 및 건축사적 측면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만 한 가치가 있다.

첫째, 서당은 조선시대 향촌에 자리한 초급 교육공간으로 향교, 정사, 서원, 성균관 등과는 크게 구별이 된다. 이지당은 죽봉과 우암 등 당대 대 성리학자가 설립에 등장하고 관여한 역사적인 서당으로 각종 문헌(『중봉집』 율원구곡시, 『宋子大全』의 二止堂記, 『호서읍지』 등)과 현판 등 실증적인 기록물과 함께 최소 350여년(우암 송시열이 1674년에 쓴 글 기준)가까이 지속된 된 건축적 공간이다.

그간 향교나 서원 내 건물은 보물로 지정된 경우가 여러 건 있다(향교 7건). 그러나 전국적으로 서당이 보물로 지정된 사례는 없다. 이지당은 역사적으로 잘 규명된 유일의 건축으로 향후 국가에서 보존 및 관리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이지당의 건립, 중건 과정 등이 명확히 드러났다. 특히 최근의 목부재 연륜

연대측정(2019, 충북대) 결과로 건립년도 추정에 신뢰성을 주었다. 본채와 우익랑은 물론이고(1572년 목재) 그간 건립과정과 연대에 의문을 품고 있었던 좌익랑도 1700년대 초 건물로 매우 오래됐다.

필자는 현 이지당(본채와 우익랑)은 여러 여건 상 1500년대 후반 건립이 아니고 우암이 쓴 1670년대 글에 신뢰가 있어 1600년대 후반 건물로 여겨진다.

셋째, 서당은 향촌에 건립된 초급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규모나 양식적인 측면에서 다른 교육시설보다 작거나 뒤질 수밖에 없다. 전국의 서당을 보면 대개 ‘一자’형 강학건물과 단순한 부속채 정도가 고작이다.

이지당은 ‘一자’형의 마루와 온돌로 된 소박한 본채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로 익랑이 부가된 ‘ㄷ자’형의 독특한 건물이다. 각 실들이 기능적으로 잘 조합됐고 유교적 건축경향으로 구조나 양식도 검소하고 간결하다. 증축 개념으로 후에 익공식으로 건립된 서익랑은 우익랑과 대비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ㄷ자’형으로 완성됐다.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9.07.29.	대상문화재	옥천 이지당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건축역사
	소 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옥천 이지당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9월 25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1. 지정가치 및 종합의견

### 1) 역사적 가치

1832년 편찬된 호서읍지에 의하면 충북 옥천 이지당은 옥천군의 서쪽 각신리에 있으며, 중봉 조헌(1544~1592)의 자취가 남아 있는 곳이라 하였다. 처음에는 조헌이 제자들을 가르치던 서당이었고 각신마을 앞에 있어서 각신서당이라고 하였다고 하며, 그 후 1647년 김만균 등이 재지사족들과 함께 이지당을 세웠다고 한다. 호서읍지에 함께 전하는 중봉 조헌의 시문과 이를 차운한 우암 송시열의 시문이 있고, 1674년 송시열이 쓴 기문이 전하는 것으로 보아 이지당의 최초 창건은 16세기말~17세기초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당시 이지당이 위치하였다고 한 각신리 혹은 각신마을이 현재 이지당의 위치와 동일한 것인지 아닌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현재의 건물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퇴락된 것을 광무 5년(1901)에 옥천의 금씨·이씨·조씨·안씨 네 문중에서 우암학과의 별서로 다시 지은 것이라 한다.

우암 송시열의 친필로 여겨지는 ‘이지당’편액과 중봉 조헌의 친필로 여겨지는 ‘각신서당’ 현판이 향토자료관에 전하고 있지만 정확한 고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건축물의 경우 연륜년대에 의하여 밝혀진 바에 의하면 본채는 16세기말~17세기초에 서당으로 건축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원형이 어떠하였는지는 알기 어렵고, 좌우에 연결한 동서누각은 성격이 불확실하지만 비슷한 시기나 혹은 그 이후에 건축되었던 건물로 볼 수 있다.

### 2) 건축적(예술적) 가치

현재 이지당 건물은 맞배지붕으로 된 3량 구조의 6칸 본채를 가운데 두고 그 좌우에는 2동의 중층 누형식 건물이 전면으로 돌출되어 ㄷ자 배치를 하고 있다. 입구쪽인 서쪽으로는 팔작지붕의 3칸 규모 건물이 독립적으로 배치되고 동쪽으로는 2칸 규모의 나지막한 건물이 본채와 연결하여 배치되어 있다.

이들 세 건물은 연륜연대 분석에 의하면 비슷한 시기에 건축된 건물인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주칸의 칸잡이와 용척이 서로 다른 것으로 보아 원래는 서로 다른 세 개의 건물이었다. 1901년 중건할 당시 하나로 연결하여 건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쪽의 팔작지붕 중층누각은 지붕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 동쪽의 중층누각은 언뜻 보기에 본채와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회첨부분을 구성하는 방식이 어색하게 이어지고, 주칸이 상이한 것으로 보아 대지의 형상에 맞춰 세 건물을 재구성하여 맞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앙의 본채는 3칸 마루 좌우에 각각 2칸의 방과 1칸의 방이 배치되어 주거건축의 안채와 유사한 공간(안방 + 대청 + 건넌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깊이가 1칸(3량)에 불과한 까닭에 기록에서와 같이 원래 서당의 용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원래 칸수와 형식이 어떠하였는지는 불확실하다.

본채 좌우 중층누각 건물은 중앙의 본채에 비하여 부재를 다듬은 모습과 사용한 부재의 형태도 서로 다르다. 특히, 서쪽의 팔작지붕 건물은 그 형식이 기둥을 원기둥으로 처리하는 등 원래 누정과 같은 다른 용도의 건물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팔작지붕의 전후면으로 돌출된 제공은 투박하지만 단부를 쇠서형으로 다듬었고 보머리에도 유사한 부재를 덧달아 장식한 반면 개울쪽으로 돌출된 측면은 단순하게 처리하였다. 3칸 규모지만 전면 누형식의 2칸은 주칸을 작게 하고, 벽체를 두른 1칸은 규모를 크게 처리하였는데 원래부터 그러했는지는 불명확하다.

반면 동쪽의 중층건물은 몸채와 같은 맞배지붕이고 전면에만 원기둥을 사용하고 있어서쪽 건물에 비하여 소박한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이나 칸잡이가 본채와 다르기 때문에 그 용도는 달랐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체적으로 다양한 건축기법과 부재사용 및 용척 등이 혼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20세기 초 중건과정에서 원래 이지당 건물에 비슷한 시기에 건축된 2개의 중층 누각 건축물을 이전하여 재구성한 형식으로 추정된다.

### 3) 학술적 가치

현재의 이지당 건물은 두 가지 용도가 결합된, 즉 서당 혹은 서원의 강당과 누정건축이 하나의 건물로 구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래부터 이러한 형식의 건물이 존재하였다기 보다는 훼손되었던 지역의 서원을 20세기초에 다시 일으켜 세우려했던 이 지역 유자들에 의하여 재구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전면에 강이 흐르는 좁고 긴 장소에 이지당의 좌우로 다소 투박한 방식으로 중층 누각 건물을 이어 붙여 ㄷ자로 배치하여 마당을 구성하고, 서원건축 공간을 구현한 것은 건축의 공간을 이해하고 있던 이 지역 유자들과 목수에 의해서였다. 새로운 형식을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건축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나 원래 형식이 불확실하다는 점에는 다소 미흡한 면이 있다.

### 4) 공통사항

현재 이지당 건축은 서원으로 구분되고, 세부적으로 보면 서원/서당의 강당으로 분류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일반적인 서원건축이 중층누각형식의 문루와 강당을 전후로 배치하고 그 후면에 사당을 배치하는 것과는 다르게 3칸의 중층누각형식의 팔작건물을 一자형 6칸 강당과 직교하도록 배치하고, 본채의 반대쪽 단부에도 2칸의 중층건물을 본채 전면으로 돌출하도록 이어붙여 ㄷ자형 배치를 하였다는 점에서 독특한 건물구성과 배치를 하고 있다.

강에 면한 좁고 긴 형국에 2~3개의 서로 다른 건물을 하나의 건축에 구현하기 위한 고

육책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입구에 위치한 팔각지붕 중층누각은 3칸임에도 불구하고 돌출된 2칸의 규모는 6자에 미치지 못하는 규모로 되어있다. 전면으로 돌출되는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칸잡이를 줄인 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본채의 규모 역시 3량으로 되어 깊이가 얇음에도 불구하고 전면기둥 밖으로 쪽마루를 내거나 하지 않았다.

이지당과 같은 형식으로 만들어진 건물은 그 유례를 찾기 어렵다. 원형이 어떠하였는지 잘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고, 건물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원형을 훼손하였는지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을 새로이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희소성이 있다. 다만, 연륜연대 분석에 의하여 개별 건물에 대한 연혁이 어느 정도 밝혀지기 하였으나 건축 당시 하나의 완결된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20세기초에 2~3개의 건물이 하나의 건물로 완성되었고 또 개별 건물의 성격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9.07.29	대상문화재	옥천 이지당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건축역사
	소 속	○○대학교	직위(직책)	부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옥천 이지당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1.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연혁

금강(錦江) 상류의 한 지류 소옥천(小沃川)을 굽어보는 산비탈에 남동향으로 입지해 있는 옥천(沃川) 이지당(二止堂) 자리는 일찍이 조선 중기의 성리학자·의병장 중봉(重峯) 조헌(趙憲, 1544~1592)이 유상(游賞)했던 곳이다. 조헌은 1584년(선조 17) 이래 옥천군 동쪽의 안읍(安邑) 울치(栗峙)에 은거하고 있었는데, 당시 군 서쪽의 이곳 각신(覺新) 마을에 살던 왕실 후손 이탁(李擢)이 그를 흠모해 이곳으로 청해 모셨고, 여러 해 왕래하며 유상했던 조헌은 이곳의 빼어난 풍광을 시로 지어 남기기도 했다.



조헌은 울곡(栗谷) 이이(李珣, 1536~1584)의 문하에 드나들며 그의 학풍을 계승했고, 관직생활 중 1582년 보은현감 부임 후 2년 만에 탄핵당해 파직되자 옥천으로 낙향했는데, 옥천에 머무는 동안에는 안읍에 후율정사(後栗精舍)를 짓고 학문에 힘쓰는 한편 후학을 양성하기도 했다. 조헌은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옥천에서 의병을 일으켜 영규(靈圭)가 이끄는 승병과 힘을 모아 청주를 탈환하고, 이어 전라도로 향하는 왜군을 막기 위해 금산(錦山)으로 이동했으나, 전공을 시기하는 관군의 방해로 의병 대부분이 흩어져 버렸고, 남은 700명의 의병과 금산전투에서 분전했으나 의병들과 함께 순절하고 말았다.

조헌은 몸 바쳐 왜적에 대항한 충절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이이를 계승한 뛰어난 학자로 평가받는다. 그의 사후 1604년에는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 1등으로 책록되고, 1734년(영조 10)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1883년(고종 20) 문묘에 배향되고, 옥천의 표충사(表忠祠), 배천의 문회서원(文會書院), 김포의 우저서원(牛渚書院), 금산의 성곡서원(星

谷書院), 보은의 상현서원(象賢書院) 등에 제향되었다.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이 쓴 「이지당기(二止堂記)」에 의하면, 조헌 순절 후 80여 년이 지난 1674년(현종 15) 무렵, 당시 승정원 소속돼 있던 김만균(金萬均, 1631~1676)이 옥천에 왔다가, 각신 마을의 금유(琴愉), 금성(琴惺), 조징(趙澄) 등과 함께 조헌이 유상했던 곳을 돌아보고, 이곳에 학생들을 모아 강학하는 집을 지어 그의 업적을 대대로 기리고자 하는 뜻을 세웠고, 공사가 힘을 모아 건물을 완성했다. 집이 완성되자 김만균은 그의 스승 송시열에게 문생을 보내 건물의 이름을 청했고, 이에 송시열은 『시경』 「소아(小雅)·차할(車輦)」에 나오는 ‘높은 산을 우러러보며 큰 길을 걸어간다(高山仰止 景行行止)’는 글귀의 뜻을 취해 ‘이지당(二止堂)’이라 이름짓고,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 「이지당기」를 지었다고 했다.

김만균은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 1548~1631)의 증손으로 송시열에게 학문을 배웠고, 김장생은 조헌과 더불어 이이 문하에서 동학한 사이였으며, 송시열은 옥천에서 태어나 김장생에게 성리학과 예학을 배웠다. 즉 이지당은 옥천 땅이라는 무대 위에서 조광조→이이→김장생으로 이어지는 조선 기호학파의 학통이 얽혀 만들어질 수 있었다. 원래 이지당에는 각각 ‘二止堂’, ‘覺新書堂(각신서당)’이라고 쓴 두 개의 현판이 걸려 있었고, 지금은 도난을 염려해 옥천향토전시관에 옮겨 보관중인데, 이중에서 ‘二止堂’ 현판은 송시열의 친필이라는 것이 최근 확인된 바 있다. 또 현재 이지당 접근로 위의 바위에는 ‘二止堂’, ‘中峰先生遊賞之所 尤庵先生書’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한편 조선 중기 16세기에는 지역을 거점으로 세력을 형성한 사림(士林)들이 어지러운 정세를 피해 낙향하여 산수가 빼어난 곳에 정사(精舍)를 지어 은거하며, 심신을 도야하고 제자를 양성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는 당시 조선의 선비들이 성리학을 집대성한 중국

송나라 주희(朱熹)가 그의 생애 대부분을 출신지 복건성(福建省)에 낙향해 은거하며, 노봉산(蘆峰山) 운곡(雲谷)에 회암(晦庵), 무이산(武夷山)에 무이정사(武夷精舍) 등을 경영하며 학문을 탐구하고 제자들을 교육했던 것을 본받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기 때문이었다. 16세기 이래로 전국 각지에 많은 정사들이 건립, 운영되었는데, 조헌이 옥천 안읍에 건립한 후율정사나, 그를 기리기 위해 김만균이 주도해 지은 이지당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전하기로는 일찍이 조헌이 이택의 청에 응해 이곳을 왕래하면서 이 자리에 각신서당(覺新書堂)을 짓고 학생들을 가르쳤고, 이것을 이후에 송시열이 지금 이지당으로 이름했으며, 1901년(광무 5)에 지금의 모습으로 새로 지어졌다고 하는데, 조헌이 지었다고 하는 각신서당과 1901년의 공사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자료는 없다.

근래 옥천군에서 충북대학교 나이트연구소에 의뢰한 옥천 이지당 목부재 연륜연대분석<sup>356)</sup>을 통해, 연혁 관련 문헌 사료가 부족한 이지당의 건립 및 중수시기를 고증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분석은 중앙의 본체와 좌우의 누를 구분하고 각 부분에서 기둥, 보, 마루, 인방 등 주요 부재의 목재 샘플을 채취해서 이루어졌다.

채취한 샘플에 한해 목재의 수종을 보면, 우선 전체적으로 소나무가 가장 많았고, 좌우 누의 일부 목재가 느티나무, 헛개나무(왼쪽 누 기둥), 버드나무속으로 확인되었다. 연륜연대 분석을 통해 벌채시기가 확인된 목재는 국내의 장기간에 걸친 대표연륜연대기가 구축되어 있는 소나무였고, 본체와 오른쪽 누의 샘플에서 1572년과 1902년의 벌채시기가 확인되었다. 이 중에서 1902년 벌채 목재는 본체의 대들보로 사용된 부재였다. 소나무를 제외한 느티나무, 헛개나무, 버드나무속으로 된 부재들은 해당 수종에 대한 장기간의 대표연륜연대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방사성탄소연대분석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 느티나무로 된 왼쪽 누의 기둥은 1697년 이후의 부재, 역시 왼쪽 누의 헛개나무 기둥은 1719년 이후의 부재, 그리고 오른쪽 누의 버드나무속으로 된 보는 1717년 이후의 부재로 확인되었다.

위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먼저 1572년에 벌채된 목재로 본체와 오른쪽 누가 동시에 건립되었고, 이후 1719년 무렵에 본체 왼쪽에 누가 수리되거나 혹은 첨건(添建)되고 아울러 오른쪽 누의 수리가 있었으며, 1902년에는 본체의 대들보를 교체할 정도의 대규모 수리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 결과는 앞서 살펴본 문헌과 전언을 통해 알려진 이지당의 연혁과 크게 차이하지 않는다.

이상을 종합해 이지당의 연혁을 다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조헌이 옥천에 머무는 동안(1584-1592) 이택의 청에 의해 이곳에 유상하며 본체와 오른쪽 날개채로 이루어진 ‘ㄱ’자형 평면의 서당을 지어 각신서당(覺新書堂)이라 명명하고 학생들을 가르쳤다. 이후 조헌이 서거한 뒤 약 80년이 지난 1674년 무렵에 김만균이

356)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부설 나이트연구소, 『옥천 이지당 목부재 연륜연대분석』, 2019. 10.

주도하여 건물을 짓고 송시열이 건물 이름을 이지당으로 했다는 기록은, 본채 왼쪽의 누를 첨건한 것을 핵심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얼마 후 1719년 무렵에 좌우의 누를 중심으로 하는 중수가 있었다. 그리고 1902년에 본채 대들보를 교체하는 수준의 대규모 수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2. 건축적 특징

현재의 이지당은 정면(도리방향) 6칸, 측면(보방향) 1칸의 一자형 본채 좌우의 양측에 이층 누가 붙어 나온 형태로 되어있다. 왼쪽의 누는 도리방향 3칸, 보방향 1칸 규모에 본채와는 약 1m 정도 떨어져 있고 구조도 서로 독립되어 있다. 오른쪽 누는 도리방향 1칸, 보방향 1칸으로 규모가 왼쪽의 누보다 작는데, 구조는 본채와 연속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집의 가구(架構)가 본채와 함께 一자형을 이루고 있다. 평면의 칸 구성을 보면, 본채는 왼쪽에서부터 온돌방 2칸, 대청마루 3칸, 온돌방 1칸으로 구성된다. 왼쪽 누는 아래층은 본채에 인접한 1칸에 온돌방 난방을 위한 아궁이와 부뚜막을 설치해 부엌으로 조성하고 후면과 좌측면에 화방벽을 둘러고, 그 앞의 2칸은 개방되어 있으며, 위층은 모두 우물마루를 깔았는데, 부엌 상부의 1칸은 벽을 둘러 마루방으로 하고, 그 앞의 2칸은 개방하고 평난간을 둘러고 있다.

지붕은 본채와 오른쪽 누가 이루는 一자 부분은 맞배지붕이고, 왼쪽 누에는 팔작지붕을 올려 왼쪽 누의 형태적 위계를 강조했다. 구조의장도 一자 부분은 모두 간소한 민도리집으로 되어 있는 반면, 왼쪽 누에는 초익공 구조를 사용하고 돌출된 보머리 끝에도 봉황머리를 조각해 꽃아 장식했다. 양측 누의 지붕 높이도 오른쪽 누는 단층은 본채와 지붕이 연속되어 있어 그 높이가 같은 반면, 왼쪽 누의 지붕은 처마가가 몸체 용마루를 덮을 정도로 더 높이 솟아있어 도드라져 보이며, 기둥 모양도 왼쪽 누에만 전체적으로 원형 단면의 두리기둥이 사용되어 의장적 차별화가 구사되어 있다.





전국에 현존하는 조선시대 정사건축이 대체로 온돌방과 부엌, 대청마루와 같이 강학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으로 구성되고 건축형태 역시 단순한 것에 비해, 이지당은 건물 좌우에 이층 누가 돌출해 나온 형태를 하고 있다는 점이 아주 독특하다. 양측의 누는 우선 건축적으로는 담장이 따로 없는 이지당의 영역을 한정하는 공간 구축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기능면에서는 장수(藏修)와 유식(遊息), 즉 경치가 빼어난 자연 속에서 학문에 힘쓰며 천인합일(天人合一)을 추구하는 당시 성리학자들의 이상적인 수양방식에서, 유식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때때로 이 누에 올라 그 앞으로 펼쳐지는 자연을 바라보며 학문을 닦는 동안의 긴장과 피로를 해소하면서 유식하는 한편, 천인합일의 경지에 이르고자 다시 마음을 다잡고 장수로 돌아가는 준비를 하는 곳이었을 것이다. 좌우 누의 형태와 의장을 달리하여 왼쪽 누의 위계를 강조한 것은, 스승과 제자가 각기 다른 누를 사용했다는 것을 추정케 한다.



이상과 같이 옥천 이지당은, 조선 중기 이후 유행했던 정사건축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건축 형태면에서 좌우에 누를 달아 현존하는 사례 중에는 유례가 없는 뚜렷한 창의적 개성을 보이고 있는 점이 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러나 전체적인 건축 형태의 독창성에 비해 전체적인 건축구조와 세부 의장은 아주 간소하고 검박한 편이다. 왼쪽 누를 제외하면 건물 전체에 걸쳐 아무런 장식을 하지 않았고, 왼쪽 누에 베풀어진 초익공과 보아지 장식 또한 그 짜임새와 만듬새가 거칠다. 이러한 점들은 건물을 지을 당시에 동원되었던 경제력과 사용된 기술의 수준을 짐작케 한다.

16세기 이후 조선에는 사림들에 의해 전국적으로 경관이 빼어난 곳에 정사를 건립하고 학문과 수양, 교육에 몰두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즉 정사건축은 성리학을 지배이념으로

표방한 조선에서 16세기 이후 건축계에서 큰 흐름을 형성해 간 한 유형이었다. 이지당 역시 당시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옥천 땅에 건립된 정사였고, 김만균이 주도해 증축한 이후로는 주로 송시열 집안의 후손이나 그의 학맥을 이은 학자들이 자주 찾아 강학, 강론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정사로서의 용도는 예를 들어 1848년(현종 13) 옥천에 유람왔던 금곡(錦谷) 송래희(宋來熙, 1791~1867)가 이곳 이지당을 찾아 조헌을 추념하고, 지역 유림들과 유숙하며 경전을 강독했던 사례(『錦谷先生文集』)에서 보듯이, 조선 말까지 지속되고 있었다.

16세기 이래의 일반적인 정사건축이 온돌방과 대청마루, 부엌 등으로 구성된 비교적 간략한 공간, 형태 구성을 보이고 있는 것에 비해, 옥천 이지당은 온돌방과 대청마루로 구성된 본채 양측면에 이층 누를 덧붙인 독특한 형태를 하고 있다. 앞서 기술했듯이 이 누는, 이지당 영역의 외부공간을 한정하고, 전방으로 펼쳐지는 수려한 경관을 감상하며 천인합일을 추구하는 유식공간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존하는 정사건축의 사례 중에는 그 유례가 매우 드물다고 하겠다.

다만, 현재까지 이 건물이 1674년 무렵에 김만균이 주도해 이지당을 지었다는 것 이외에, 그 이전 조헌이 이곳에서 유상했을 당시의 건축적 상황, 그리고 1674년 이후 변화 상황을 알 수 있는 문헌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이 안타깝다.



상주 대산루 전경

단층의 본채 양측에 이층 누가 결합된 형태의 옥천 이지당에 비견되는 사례로, 상주의 대산루(對山樓,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56호)가 있다. 대산루는 조선 중기의 문신 학자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 1563~1633)가 1600년(선조 33) 잠시 관직에서 물러가 고향에 머무는 동안에 지은 단층의 정사에, 그의 7대손이 이층의 누각을 덧붙여 지은 것으로, 결과적으로 전체 평면이 丁자 모양으로 되어있다. 조선시대에 건립된 정사건축으로 현존하는 유구 중에서 이 옥천 이지당이나 상주 대산루처럼 중층의 누를 갖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런 면에서 이지당의 건축 형태가 가지는 희소성은 인정된다.

상주 대산루의 경우, 정경세가 단층 정사를 건립했고, 나중에 그의 7대손이 여기에 이층의 누를 붙여 짓는 일련의 건축 형성과정이 뚜렷하게 파악된다. 그리고 건물 사용면에서도 단층 정사 전면의 뒷마루에서 바로 이층 누로 오를 수 있는 계단을 두어, 실내에서 정사와 누 사이를 편하게 오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것과 현존하는 대부분의 정사 건물이 단층인 것을 아울러 생각해 보면, 당초 조선시대 사림들이 경영했던 정사는 일반적으로 단층이었고, 나중에 필요에 따라 중층의 누각을 덧붙인 경우가 있기는 했으나, 그것이 보편적인 추세는 아니었다고 할 수 있겠다.

반면 옥천 이지당의 경우, 정사 본체에서 양 측면의 누에 오르려면, 신을 신고 밖으로 나와 사다리에 가까운 모양의 계단을 힘겹게 기어오르도록 되어 있다. 당시 선비들이 일상적으로 오르내리며 사용하기에는 매우 불편한 형편이다. 이는 건물 양 측의 누가 이지당 건립 당초부터 그 쓰임새를 계획하여 함께 지은 것이 아니라, 상주 대산루와 마찬가지로 창건 이후 어느 시기에 첨건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 3. 종합의견

옥천 이지당은 의병장이자 학자 중봉 조헌이 16세기 말 옥천에 머물면서 빼어난 경치를 벗삼아 유상하며 서당을 짓고 동네 이름을 따서 각신서당이라 명명하고 학생들을 가르쳤던 것에서 비롯되며, 조선 중기 16세기 이후 지방 사림들이 산수가 빼어난 곳에 은거하며 학문을 닦고 제자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건립했던 정사건축의 한 유구이다.

조헌이 건립한 각신서당은 그의 사후 약 80여 년 뒤인 1674년 무렵에 김만균이 주도하여 왼쪽 누를 첨건하는 등 면모를 일신하고 송시열이 명칭을 이지당으로 지었다. 김만균과 송시열, 조헌은 옥천이라는 지연과 기호학파라는 학연으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관계는 조헌 사후에 이지당이 정사로서 활용되고 유지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옥천 이지당의 입지는 금강 상류의 한 지류인 소옥천을 굽어보는 산비탈에 터를 잡아, 앞으로는 아래로 너럭바위와 유유히 흐르는 강이 펼쳐지고, 뒤로는 기암에 기대고 있어 사철 수려한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자리이다.

조선시대 정사건축이 대체로 온돌방과 대청마루만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공간구성을 가진 반면, 지금의 옥천 이지당은 이러한 모양을 한 본체의 좌우 양측에 이층 누를 덧붙인 독특한 형태로 되어있다.

이지당 본채 좌우의 누는 학문하는 동안의 긴장에서 잠시 벗어나 자연을 바라보며 쉬면서 천인합일을 추구하고, 다시 학문 수양으로 되돌아가는 준비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사에 이층의 누를 덧붙여 지은 경우는 매우 드물며, 유사한 사례로 상주 대산루가 있다.

이상과 같이 옥천 이지당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승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평가한다.

## 20. 군위 대율리 대청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2차)

### 가. 제안사항

경북 군위군 소재 「군위 대율리 대청」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북 군위군 소재 「군위대율리대청」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 ※ '19년 문화재위원회 제11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9.11.07) : 부결  
- 서원·향교 보물 지정 검토 시 재논의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경상북도지사
- (2) 대상문화재 :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62호 「군위대율리대청」
  - 소재지 : 경상북도 군위군 부계면 대율리 858번지
  - 지정일 : 1991. 05. 14.
-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 명칭 : 군위 대율리 대청(軍威 大栗里 大廳)
  - 소유자(관리자) : 부림홍씨 종중
  - 소재지 : 경상북도 군위군 부계면 대율리 858번지
  - 조성연대 : 조선시대(1632년 중창, 1651년 중수, 1705년 중수)
  - 지정면적 : 70.68㎡
  - 양식 : 정면5칸, 측면2칸, 5량가 초익공, 홑처마, 맞배지붕

라. 현지조사의견(2019.08.21.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없음

마. 지정조사보고서 : 불임참조

바. 의결사항

- 부결
  - 지정 가치 미흡.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부결 11명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9.08.21.	대상문화재	군위 대율리 대청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 속		직위(직책)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군위 대율리 대청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1. 입지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군위 대율리 대청은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62호로 지정·보호되고 있는 도 지정문화재로서 경상북도 군위군 부계면 대율리 858번지에 소재하고 있다. 마을 이름은 한자에서 나타나듯 한밤마을로 불린다. 이 마을은 남양홍씨에서 분파된 부림홍씨(부계홍씨) 집성촌으로 과거에는 90%가량 거주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타성받이가 늘어서 홍씨의 비중이 60%까지 떨어졌지만 여전히 부림홍씨가 마을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대율리는 현재 총 가구수 200여호 가량이며 전통마을의 경관을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는 편이다. 마을 안에는 부림홍씨의 세거지답게 부림홍씨와 연관이 있는 종가와 가옥, 정자, 재실 등이 다수 남아 있다. 마을의 담장을 굽직한 자연석으로 쌓은 돌담이 특징이다. 지정문화재로는 대율리 대청과 10m 떨어진 지점에 부림홍씨 종가인 군위 남천고택(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164호)이 있다. 마을에 있는 대율리 석조여래입상(보물 제988호)으로 미뤄서 이 일대에 사찰이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소재지인 대율리는 팔공산 북측에 터를 잡은 마을로 분지 안에 자리를 잡았다. 팔공산 북사면에 의지하여 마을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마을의 주택들은 북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마을 한가운데에 자리한 대율리 대청도 북향으로 좌향을 잡았다. 대율리의 가옥들은 돌담을 둘러친 모습인데 1930년대 마을을 덮친 홍수를 겪은 이후 홍수를 막기 위 고자 물길을 따라 제방을 쌓았으며 여기서 나아가 돌담을 집 주위에 쌓으면서 독특한 마을 경관을 이루게 되었다.

대율리 대청의 위치는 마을 사람들의 기억과 함께 현대에 촬영된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창건한 이후 제 자리를 지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으로 판단된다.

## 2. 연혁·유래 및 특징

### 1) 건립시기와 중수시기 검토

대율리 대청의 건립시기를 밝혀줄 자료로는 첫째, <부계서당기>, 둘째, 구 부재인 종도리 하단의 묵서(현재 대율리 대청 내부에 보관 중)로 적은 <서당 송정후 육십구년 을유 이월 이십육일 중수상량문> (이하 을유년 상량문), 셋째, 대들보에 적힌 묵서가 있다.

먼저 살펴볼 <부계서당기(缶溪書堂記)>는 조선시대 문인 정극후(鄭克後, 1577~1658)의 글을 모은 문집 『쌍봉집(雙峯集)』에 수록되어 있다. 기문은 “時崇禎十年翌年之戊寅秋九月”이라 하여 1638년(무인년, 인조 16) 가을에 쓴 글이다.

송정 신미년(1631년, 인조 9) 가을에 마을의 어른들이 도모하여 마을 안에서 터를 골라 글방 [塾] 을 지으려고 했으나, 때마침 그해 농사가 순조롭지 못하여 일이 반이나 진척되었다가 그만두게 되었다. 이 시기에 현령으로 부임한 홍재형(洪再亨)이 중단된 글



방 공사를 지원하면서 1년이 채 못 되어 건물은 완성되었다고 하므로 글방 [塾] 은 1632년(인조 10)에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을유년 상량문> 은 종도리로 쓰였던 구 부재에 적힌 묵서로 현재 뒷벽 대들보 사이에 걸쳐져 있다. “㉠만력 임진년에 병화로 소진되고, ㉡승정5년 임신에 옛터에 학사를 중창한 후, ㉢신묘년 팔월에 중수하고, ㉣을유년 2월에 다시 중수”한 이력을 적어두었는데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네 시기의 변화를 밝혀주고 있다. 특히 앞에서 살핀 <부계서당기> 에 없는 내력을 기록하고 있어 주목된다.

㉠은 <부계서당기> 에 보이지 않는 내용으로 이 마을에 임진왜란 이전부터 서당이 마련되어 있었고, 전란으로 인해 소진된 사실을 알려준다. ㉡는 승정5년인 1632년에 학사를 중창하였는데 그 터는 옛 터라고 하고 있어 <부계서당기> 에서 밝힌 현령 홍재형의 공사시기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중창한 터가 옛 터라고 하고 있어 현 대율리 대청의 위치가 지닌 역사성을 드러내준다. ㉢는 신묘년인 1651년에 또 한 차례 중창공사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의 중창 공사 이후 불과 29년 만에 공사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중수 공사 규모는 크지 않을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 ㉣는 ㉣이후 54년이 경과한 시점, ㉡의 중창 공사로부터 73년 만에 벌어진 중수 공사여서 중창 이후 얼마나 달라졌을까 의문은 드나 정확한 공사 범위를 짐작할 만한 사료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의 공사는 중창이라 적었지만 이후 ㉣는 중수하고 기록하고 있는 점을 눈 여겨 볼 부분이다. 물론 명확히 공사 범위의 차이에 의미를 둔 용어 사용인지는 미심쩍으나 만일 의미를 구분해서 적은 경우라면 1632년 중창 공사 이후의 공사는 기본 골격을 유지한 채 부분적인 수리와 개조로 봐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해답은 현 대율리 대청 건물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군위 대율리 대청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에서 앞의 두 기록에 근거하여 현 대율리 대청 건물은 1632년에 건축된 건물이며 1651년 한 차례의 중수를 거쳐 1705년에 다시 중수된 것으로 해석한 견해는 신뢰할만하다. 1705년 공사 범위를 짐작할 단서는 <을유년 상량문> 뿐인데, 장인 명단은 모두 5명의 장인 이름만 기록하였다. 이들은 모두 승장으로 공사(工師) 1명, 편수(樞手) 4명뿐이어서 실제 공사가 소규모여서 이들만 기록하였을지, 아니면 이외 다른 공사를 맡은 장인을 누락시켰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승장이 목수의 우두머리인 공사(工師)에서 편수까지를 맡은 점도 흥미롭다.

여기서 드는 의문은 <부계서당기> 에는 왜 1632년 중건 이전의 내력을 거론하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다. 지금으로서 이를 분명히 밝힐 사료는 없다. 다만 정극후가 글을 쓴 초점은 중단된 공사를 이어 완공시킨 현령 홍재형의 공적을 기록하는데 집중한 것이 아닐까 한다. 향촌에 교육기관을 마련하고 운영하는 일은 행정관들에게도 장려된 업무 가운데 하나였으므로 현령으로 부임한 홍재형 또한 관심을 기울여 중단된 서당 중창 공사를 마무리 지은 것으로 판단된다.

1705년에 중수한 이후에 두 차례 이상 수리를 거친 것을 대율리 대청 대들보에 적힌 목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가경 연간(1796년~1820년 사이), 함풍 6년 병진년 유월 이십칠일(1856년)이란 연호와 간기 등이 쓰여 있어 적어도 1705년의 뒤를 이어 두 차례의 공사가 있었음은 추정이 되며, 수리 범위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근래에 들어 1991년에 보수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서까래는 물론 기둥 10본, 창방 12본 등이 교체되는 규모였지만 대들보를 비롯한 주요 골격은 유지되었다.

## 2) 대율리 대청의 건립목적과 기능

대율리 대청이란 이름은 대율리에 있는 큰마루라는 뜻으로 고유명사인 당호로 보기는 어렵다. 현재 대율리 대청 전면에는 나중에 써서 건 ‘대율동중서당(大栗洞中書堂)’이란 현판이 달려 있지만 동네에서나 문화재 명칭은 대율리 대청이라 부르고 있다. 이 건물은 왜 지었을까. 그 점은 <부계서당기>의 제목과 내용에서 이미 명확히 언급되어 있는데, 마을의 후생을 기르기 위한 서당 목적으로 집을 건립한 것을 알려준다. <을유년 상량문>에서도 동일한 표현을 볼 수 있는데 제목도 서당일뿐만 아니라 본문에도 강습할 서당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두 기록은 모두 이 마을의 서당으로 현 대율리 대청을 지었음을 알려준다.

서당은 향리에서 동몽(童蒙)들을 교육하는 곳(유형원, 『반계수록』)이라고 지칭하였듯이 향촌인 면리 지역에 건립된 교육시설을 말한다. 조선시대 향촌사회에서 재지사족층은 서당과 서원을 세워 교화의 근원으로 삼았으며, 17세기에는 향촌마다 서당을 설립하고 일반인까지 대상을 확대하였다. 문중활동이 더욱 활성화된 조선후기에는 대체로 족계 창립, 종가와 사당 건립, 누정과 재실 건립, 서원·사우 건립과 운영, 족보와 선조 문집 발간, 정려(旌閭) 포장과 추증 등으로 나타나는데 서당(정사)과 학계 마련도 두드러진 문중활동에 속하였다. 이런 향촌사회의 문중활동의 일환으로 대율리에서도 근거리 교육 장소로서 서당을 지어 동몽을 교육하는 장소로 운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서당은 학교 운영규정이었던 「학령」·「학교사목」·「학교모범」의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되었는데 대율리 대청에서는 이런 자료가 지정조사보고서에 제시되지 않아 아쉬우며, 향후 자료가 조사되기를 희망한다.

조선말기에서 일제강점기 사이에 서당교육은 교육제도의 변화와 더불어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대율리 대청은 이런 시대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궁금하나 지정조사보고서에는 이 부분을 거의 다루지 않았다. 일제강점기에 대율리 대청은 신학문을 가르치는 강당으로도 쓰였다고 하므로 교육공간으로 지속하여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노인정이나 마을회관 등으로도 사용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1960년대 무렵에는 마을 여성들을 위한 양재학원으로 3년간 운영된 적도 있었다. 이처럼 대율리 대청은 후대에 이르러 다소 기능이 달라졌지만 마을의 대중이 모이는 장소로서의 기능은 지속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3) 대율리 대청의 건축특성

현재 대율리 대청은 정면 5칸, 측면 2칸 규모에 오량가로 가구를 짠 초익공계 맞배 집이다. 실내는 사방이 개방된 마루이며 천장 역시 구조재가 드러난 연등천장이다. 처마는 전후 홀처마이며 기와를 덮었으며 기와끝 끝은 막새를 사용하지 않고 와구토로 마무리하였다.

간살은 정면 어칸과 좌우 협칸 모두 8자(2,430mm)인데 뒷간은 이보다 2치 가량 넓게 잡았으나 그 이유는 분명치 않다. 우측 뒷간 기둥에 남아있는 홈 구멍과 회벽을 쳤던 흔적으로 미뤄 원래 우뒷간은 온돌방이었다가 지금처럼 개조된 것으로 보인다. 「부계서당기」에 “...마루에 오르고 방에 들어오는 후생들이 밤낮으로 책을 읽고 생각하며...”라는 구절이 있어 온돌방의 존재는 확인되지만 천장을 설치한 흔적이 보이지 않아 향후 고려할 문제로 남겨둔다.

일부지만 교체되지 않은 기둥을 통해 민흘림 기법으로 치목하고, 우주의 높이가 같아 귀솟음을 두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나 수리하면서 달라졌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런 문제는 서까래 치목에서도 양상이 유사하다. 현재 걸린 서까래는 말단부를 소매같이 하지 않아 다소 둔중한 느낌을 주는데 원래부터 소매같이 기법이 적용되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최근 수리로 인한 것인지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기둥머리에는 창방과 초익공을 십자로 결구한 뒤 주두를 놓고 보를 받쳐 구조를 짰다. 익공의 짜임은 평주와 우주 상부 처리에서 조금 차이를 보인다. 평주 상부에 놓인 익공은 촛가지가 짧기는 하지만 나뭇 양서 모양으로 다듬었고 초가지 위, 아래도 초각하였으며, 내부는 끝단을 사절하고 하부는 초각한 모양으로 대체로 조선후기 양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우주 상부는 익공 대신에 창방 뺄목을 익공 모양으로 다듬어 결구한 차이가 있다.

지금 대율리 대청은 맞배집이지만 팔작집이었을 가능성을 짐작케 하는데, 측면까지 창방으로 기둥을 결구하고, 충량을 사용한 점, 측면 기둥 상부에 정면, 배면과 동일한 형식의 포작을 짠 방식 등이 그 근거로서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

양통의 구조를 보면, 우뒷간에는 맞보 방식으로 보를 걸었으나 나머지 다른 칸은 모두 대들보를 걸어 상부 가구를 짰다. 대들보 위로 중도리 사이에 포대공 형식으로 결구한 중대공은 가운데 높이 차이가 발생하는 지점에 베개목을 받쳐 높이를 조절한 조치는 임기응변에 능한 목수의 재치로 보인다. 중보 상부는 판대공 형식의 중대공을 놓고 중도리를 받쳤다. 형태는 단순한 편이나 일부는 운형으로 측면을 조각하였다.

대율리 대청 건물에서 어디서 어디까지를 창건인지, 중수 이후의 모습인지 가려내기는 쉽지 않다. 다만 1705년 <을유년 상량문>에 적힌 실상은 중수 범위를 추측할 단서

를 제공한다. 건물의 상태를 적은 내용을 보면, 기우는 기와와 무너지는 서까래가 드리워진 모습에 썩을 대들보와 기둥이 추락할 지경이란 표현이 있어 사용하기 곤란한 지경에 처했음을 알 수 있다. 나열된 건축부재는 서까래, 대들보, 기둥으로 주요 골격을 이루는 구조재에서 서까래까지 포함하고 있어 1632년에 건립한 건물의 부재 가운데 주요 부재는 1705년에 상당 부분 신재로 교체되었을 여지는 있다. 1632년에 지은 건물을 1705년에 중수한 사실은 달라지지 않으나 만일 1705년에 대부분의 부재가 신재로 교체되었다면, 여기에 더해 규모나 구조가 변화하였다면 이 건물의 시기를 언제로 판단해야 할 것인지 고심이 남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연륜연대 조사가 필요하다.

근래인 1991년 기둥 이상을 해체하여 부식재를 교체하고 마루와 기단도 보수하였다. 당초 공사범위는 서까래 이상이었으나 막상 해체하고 보니 부재 손상이 심해 상당수 부재를 신재로 교체하였다.

### 3.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대울리는 부림홍씨 세거지로 임진왜란 이전부터 동몽 교육을 위한 시설인 서당을 마련하였으나 전란으로 인해 소실되었다. 서당은 1632년에 회복하였다. 1631년 마을 안의 어른들이 재원을 마련하여 건립을 도모하였지만 여력이 모자라 공사는 중단되었다. 이듬해 현령으로 부임한 홍재형의 후원으로 공사를 재개하여 1632년에 준공한 사실은 <부계서당기>는 전한다. 기문에서 밝혔듯이 건물의 기능은 서당이며, 부림홍씨의 다른 명칭인 부계를 따서 부계서당으로 불렸음을 알 수 있다.

부계서당은 1705년에 이르러 중수하게 되는데, 중수한 사실은 현재 대울리 대청 안에 보관된 묵서 상량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상량문에 따르면 주요 부재가 훼손된 상황이어서 중수하지 않고는 제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었다. 이때 중수하면서 1632년에 지은 서당 건물을 대폭 고쳤을 여지가 보이지만 지금 건물을 짜고 있는 목부재와 평면에서 그 부분을 가려내기는 쉽지 않다. 추후 연륜연대 측정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대울리 대청은 정면 5칸, 측면 2칸 규모로 전체가 개방된 누마루 구조지만 부재에 남은 흔적은 온돌방을 들었던 평면이었을 가능성이 보인다. 보통 조선시대 서당 건물은 방과 마루로 구성되는 경향을 보이므로 대울리 대청 역시 서당 시기에는 방과 마루로 구성되었을 것이란 추정된 견해는 타당하다. 더불어 구조부재를 통해 팔작집이었을 여지도 있어 개조한 시기와 원형에 대한 검토는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가구를 짠 구조재의 결구와 형태, 양서형으로 치목한 익공의 촛가지 형태, 대들보를 받친 운형 보아지, 포대공과 판대공의 구성 등에서 시기가 혼재된 모습이긴 해도 전반적으로 조선후기 건물의 특징을 잘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물은 근대에 들어 서당 기능이 상실된 이후에는 주로 마을 내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쓰였으며 이로 인해 대율리 대청으로 불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율동중서당이라 쓴 현판을 지금도 걸어두고 있어 교육시설로 출발한 연원을 기억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 4. 종합의견

대율리 대청은 부림홍씨 세거지인 대율리에 건립한 마을 서당으로 1632년에 중건한 뒤 이후 중수를 거쳐 1705년에 크게 중수한 뒤 현재에 이르고 있는 건물이다. 서당은 향촌의 소규모 초학 교육기관으로 행정 단위별로 마련되었는데 특히 부계서당은 문중에서 만든 동중서당으로 활발한 문중활동의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서당 기능이 상실된 뒤에도 부림홍씨 후손이 잘 보존하여 지금은 마을 안의 공공시설로 쓰이고 있다.

하지만 1705년 중수를 기록한 목서 상량문 외에 이후의 변화상을 파악할만한 기록이 부족한 한계가 있으나 현 건물이 지닌 구조, 양식 특징으로 미뤄 중건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후대의 기법이 더해진 모습이다. 전체적으로 조선후기 건축의 특징을 잘 갖춘 건물로 평가되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데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추후 1705년 중수 이후의 변화상을 파악해둘 필요가 있으므로 연륜연대 조사와 문화재 지정명칭에 부계서당으로서의 역사성을 반영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9.08.21.	대상문화재	군위 대울리 대청	
조사자	성 명	○ ○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 속	○ ○ 대학교	직위(직책)	명예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군위 대울리 대청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10월 일

제출자

○ ○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1.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 가. 역사적 가치

군위 대율리 대청은 조선 전기에 건립하였으나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후 1632년에 중건된 건축물로 387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건립된 지 19년 후인 1651년과 1705년에 중수를 거쳤고 최근에는 1992년 기둥 이상을 해체 보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건물은 원래 서당용도로 건립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근거는 조선 중기의 문인 정극후(鄭克後, 1577~1658)가 저술한 쌍봉집(雙峯集)과 종도리에 쓰인 묵서명에 기록되어 있다.

군위 대율리 대청이 서당으로 건립된 것이 확실하다면 조선중기 군위지역 서당건축 유형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되며 나아가 조선시대 교육시설의 역사적 사실을 밝혀주는 중요한 건축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국교육사 뿐만 아니라 건축사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건축물이라 할 수 있다.

### 나. 학술적 가치

군위 대율리 대청의 학술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건축물은 조선시대 지역의 인재를 길러내는 서당이라고 하는 교육시설이다. 그동안 조선시대 교육시설은 주로 향교(성균관 포함), 서원, 정사(精舍)만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 때문에 조선시대 교육시설은 앞에서 언급한 3개의 교육기관만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서당은 초등교육을 담당하는 중요한 교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건축사례가 거의 남아있지 않고, 남아 있다고 해도 연구성과가 전혀 없어 교육사 측면에서나 건축사 측면에서 학술적으로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군위 대율리 대청에 대한 학술적인 가치는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군위 대율리 대청은 건축사 측면에서 조선 중기 당시 이 지역의 건축적 특징과 기술 수준을 증거해 주는 중요한 건축물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배치의 특징은 마을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시설을 마을 중심부에 두고 있는 점이다. 이는 마을에서 이 교육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측면과 마을의 상징물로 삼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건축 형식은 정면 5칸, 측면 2칸의 5량가 맞배지붕 형식이다. 바닥은 누마루형식으로 건립하였다. 이는 서당기능 뿐만 아니라 마을의 집회장소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 건물은 교육기능과 마을 공동체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려는 의미도 있는 건축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건물은 관설(官設) 건물이 아니라 사설(私設)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대형 부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임진왜란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할 때 당시로서는 매우 특이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대형 마루판과 박공면의 풍판과 같은 대형 판재를 대량으로 만드는 특징이 이 건물에 담겨있다. 대형판재를 만드는 일은 임진왜란 이전에는 그리 흔치 않았다. 임진왜란 이후 사

공장(私工匠)이 나타나면서 판재를 전문적으로 켜주는 인거쟁이(引鋸匠)들이 패를 만들어 일거리를 찾아다니면서 이와 같은 대형 판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 건물에는 이와 같은 임진왜란 이후 건축적 특징이 담겨 있다. 학술적으로 당시 건축기술 수준과 목수체계를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사설 건축물로는 규모가 작지 않은 큰 건물이다. 임진왜란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마을에서 이만한 큰 건물을 건립할 정도라면 마을 공동체의 운영이 매우 잘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 건물은 마을 공동체 운영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시설물이다. 임진왜란 이후 마을 공동체의 운영이 어떠했는지 당시 사회상을 연구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건축물을 건립한 배경과 의미는 조선중기 지역사회의 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학술적으로 연구가치가 충분히 담겨 있다고 하겠다.

#### 다. 예술적 가치

군위 대율리 대청은 조선 중기의 목수기술 뿐만 아니라 건축예술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중수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변형된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전반적으로 1632년 중건 당시의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단은 대형 장대석을 잘 다듬어 사용하였고 초석은 치석한 것과 적당히 치석한 자연석을 혼용하였다. 기둥은 적당한 후림으로 치목하여 나무의 생명력을 잘 살려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둥 상부에서는 초익공에 주두를 올리고 보를 걸었는데 보간 거리가 약 17.5자(5,340mm)에 달하는 일반적인 건물에 비해 매우 길다.

대들보 위에는 삼분편작으로 양쪽에 동자주 대신 포를 짜 올리고 판대공으로 종도리를 걸었다. 익공과 익공 사이에는 화반을 올렸는데 화반의 모양이 여러 가지다. 중건당시부터 이리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건축양식으로 보아 중건 당시에는 모든 화반을 같은 모양으로 초각된 화반을 썼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목구조는 당시 목수의 건축예술적 감각을 엿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대형 건축물을 맞배지붕으로 한 것은 당개톱이 개발되어 많이 보급됨으로써 판재를 쉽게 생산할 수 있다는 점과 부재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건하에 목수의 예술적 기지를 최대한 발휘한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다.

군위 대율리 대청은 건축사적 측면에서는 임진왜란 이후 기술의 발전과 건축양식 변화의 중요한 시대적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 건축물의 구조와 양식은 당시 기술적 상황과 경제조건을 고려하여 목수가 시대적 건축예술로 표현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2. 공통사항

군위 대율리 대청은 임진왜란 이후 궁핍한 경제상황에서 마을 공동체가 건립한 서당건축이다. 서당건축은 향교, 서원 등과 같은 교육시설임에도 그동안 건축사적으로 깊이 연구된바가 없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형태가 유사한 건축물은 있을지 몰라도 서당기능을 지닌 이러한 건축물은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다. 이 건축물은 단순히 건축사적인 측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 지역사회 공동체와 조선시대 초등교육사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마을 공동체에서 건립한 교육시설로는 그 사례가 희귀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따라서 조선중기 마을 공동체에 관한 연구에서도 학술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이 건물의 보존은 매우 양호한 상태다. 특히 마을 주민들이 협심하여 보존 관리를 하고 있으며 주변 환경 또한 양호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 건물은 1632년 중건된 이후 몇 차례 중수를 거쳤지만 대체적으로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화반과 같은 극히 일부 부재에서 원형이 변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조와 양식에서 큰 변형 없이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9.08.21	대상문화재	군위 대율리 대청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전통건축)
	소 속		직위(직책)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군위 대율리 대청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10 월 01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1. 지정 가치 및 근거 기준

### 가. 역사적 가치

대올리는 부림홍씨의 집성촌이다. 대올은 이 마을에서 돌담으로 둘러 쌓인 오래된 한옥들이 산재한 중심부에 배치되어 있는데, 일설에 올리라는 전부락이 사찰지였고 이 대올은 대종각이 있었던 자리라고 한다.

한밤마을은 전통 부락의 특징이 상당수 남아 있는 마을로, 도처에 부림 홍씨 가문의 유서 깊은 고택·정자·재실 등이 상당수 남아있다. 또한 ‘군위 대올리 석조여래입상(보물 제988호)’, ‘남천고택(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164호)’ 등 다양한 시대별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다.

대올리 대청에 관련된 건축적 내력은 쌍봉집(雙峯集) 권4에 기록된 부계서당기(缶溪書堂記)를 통해 이 건물이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불에 탄 후 1632년에 옛터에 학사건물로 중창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 건물 종도리 하단에 기록되어 있는 이현로(李賢老)의 을유년(乙酉 :1705) 중수시 상량문 목서 등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의 건물은 1705년 중수시의 건물로 추정된다.

이 건물은 원래 학사건물로 건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부계서당기에 ‘마루에 오르고 방에 들어오는 후생들이’라는 대목은 서당이 방과 마루로 이루어져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록과 이현로의 상량문에 중수한 건물이 학사였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 뒤 광무(光武)10년 병오년(丙午 : 1906)에 완성군(完城君)이 썼다고 기록된 ‘부계동중서당(缶溪洞中書堂)’현판이 존하는 것으로 보아 20세기 초반까지는 서당 기능이 지속되어 온 것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1900년대 이후 서당이 차츰 기능을 상실하고 해방후에는 다른 용도로 건물이 사용되다가 근년에야 마을 주민들이 모이는 장소로 변하면서 온돌방과 벽체 등이 사라지고 대청구조만 남아 현재에 이른 것으로 보여진다.

1991년에 대대적으로 해체보수한 바가 있는데 기둥, 도리, 창방, 퇴보, 마루 등 대들보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재들이 교체된 바 있다. 이때 기둥의 홈 자국들에 대한 조사 없이 신재로 교체하다 보니 내부 구조를 복원할 수 있는 여지를 잃어버린 것이 매우 아쉽다.

대들보 옆면에 옹정(擁正)○년(1722~1735), 가경(嘉慶)○년(1796~1820), 함풍(咸豐)6년(1856) 병진(丙辰) 6월 27일 등의 목서가 희미하게 남아 있는데 수리기록으로 보이나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

### 나. 학술적 가치

건물구조는 정면 5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 오량가로 건물 서쪽 뒷간에만 간주를 세워

퇴량을 받음으로서 동쪽 뒷간이 충량으로 구성된 것과는 다른 양식을 두었다.

평면은 전칸을 모두 우물마루로 마감하였다. 기둥 사이에 여모중방과 장귀틀을 걸어 대청 틀을 짠 다음 장귀틀 사이에 다시 동귀틀을 걸치고 그 사이에 청판을 끼운 우물마루 형식으로 마감하였는데 어칸과 좌우 협칸 등 중앙부 3칸과 좌우 퇴칸의 청판 구성이 서로 다르게 한 것이 눈에 띈다.

그런데 우퇴칸을 구성하는 부재인 기둥과 창방 그리고 보 등에는 측면과 하단부에 인방과 중깃을 걸었던 홈 자국과 함께 회벽을 쳤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고 1992년 보수 공사로 바뀌기 전의 대청 중앙 간주에도 인방 홈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당시 공사 사진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들을 기준으로 추정해 보면 원래 이 건물의 우퇴칸에 온돌방이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청 중앙에 세워진 간주는 온돌방과 대청의 청방간 벽체와 창호를 설치하기 위해 세운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승정 10년 무인(戊寅 : 1638)년에 정극후(鄭克後)가 쓴 쌍봉집(雙峯集) 제4권 부계서당기(缶溪書堂記)에는 ‘……後生之升于堂而入于室者…(…마루에 오르고 방에 들어오는 후생들이 밤낮으로 책을 읽고 생각하며 부지런히 힘써 쉬지 않으며……)’ 라는 구절이 적혀있다. 이는 당(堂)과 실(室)을 마루와 방으로 해석할 수 있어 중창 당시에는 마루와 방이 함께 마련되어 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부재에 남은 흔적과 문헌 기록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율리 대청은 건축당시부터 현재와 같이 사면(四面)이 개방된 누각 형식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방과 마루로 구성된 일반적인 서당식 건물이 시간이 흐르면서 온돌방이 없어지고 마루로 개체되면서 현재와 같이 변모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 온돌방이 마루로 개체되면서 하부 구조인 구들과 고막이 벽 등이 함께 없어지면 전체가 고상식 구조의 누처럼 보이게 된 것이다.

기둥 머리는 전형적인 양서형의 살미가 짧은 초익공으로 구성하였는데 이른 시기의 수법으로 보인다. 주두위에 첨차를 넣어 창방과 주심장혀사이에 화반을 둘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였다. 화반을 두지 않는 일반적인 형태의 초익공 수법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오량대공은 포대공으로 구성하였는데 주두위에 2중 첨자로 구성하고 보아지는 초각으로 장식하였다. 종도리를 받치는 종대공은 사다리꼴의 제형판대공 형식과 파련대공형의 두가지를 사용하였다.

보머리는 단부를 마름모모양으로 치목하였는데 이는 대공의 모습과 함께 1700년대에 많이 나타나는 치목수법으로 건축년대와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건물은 창건당시는 학사건물로 건립되었으나, 시대가 바뀌어 학사건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마을의 집회공간으로 변모되어 마을주민들의 모임이나 회의장소로 사용되어 건물의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 점은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것이다.

## 다. 예술적 가치

대율리 대청은 전반적으로 규모나 장식수법 등에서 보면 일반적인 학사 건물보다는 건실하면서도 매우 공을 들여 건축한 우수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초익공구조이면서 화반을 두는 등 익공구조에서 볼 수 있는 기법을 사용한 것은 눈여겨 볼만하다.

## 2. 종합의견

군위 대율리 대청은 누정건축을 대상으로 한 승격 지정으로 조사한 것이다. 그러나 이 건물의 원래 용도는 학사건물로 건축되었고 1900년대 초반까지도 그 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다. 그 뒤 근년에 와서 마을주민들의 모임장소로 사용되어 왔다.

본 건물은 1705년에 건립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에 대한 기록이나 그간의 과정들이 남아 있는 자료들이 많아 이는 매우 다행한 일이다. 또한 현재 남아 있는 건물의 모습에서 익공살미의 형태나 보머리의 치목수법 및 대공의 구성수법 등에서 당시의 모습이 남아 있어 건축년대가 부합되는 부분이다. 그 외에도 이 건물은 전반적으로 건실하면서도 건축규모, 가구수법, 장식 등을 볼 때 매우 공을 들인 우수한 건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건축 당시의 평면은 마루와 방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후에 벽체를 없애고 방이 있던 자리에도 마루를 깔아 벽체없이 기둥만 남은 통칸으로 바뀌어서 정자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 변형이 많이 되었다. 그 뒤 지방문화재로 지정되면서 1991년에 대대적인 해체보수가 시행되었는데 많은 부재들이 신재로 교체되었다. 특히 기둥 15본 중 10본 교체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벽체 등을 복원할 수 있도록 인방 흔적 등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아 복원의 기회를 잃어 버렸음은 매우 애석한 일이다. 문화재의 진정성이란 부분에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통건물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예가 많은데, 본 건물은 마을 내에 위치하고 있어 마을 주민의 회합장소로 기능이 변해가면서 건물의 의미를 유지하고 있음은 매우 눈여겨볼만한 부분이다.

따라서 본 건물을 건축년대에 부합하는 부분이 많이 남아 있고, 건물 기능의 연속성 등을 고려할 때 이론(異論)의 여지는 있지만 국가지정으로 승격시켜 관리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지방문화재 지정 당시의 용도에 의거하여 문화재명칭이 확정되었는데 이는 원래 건립용도에 따른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보물지정보다는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